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임진왜란 당시 무관(無官)의 선비였던 오희문 선생의 생생한 피란일기. (난종일기)와 《장비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전시 민간인의 고초와 생활상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쇄미(瑣尾)'는 《시정》의 "瑣兮尾兮 遊離之子(누구보다 초라한 것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만 9년 3개월간 전쟁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남긴 일기를 통해 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후세에 전한다.



如四星,1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쇄미록1》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故) 이민수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며,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신복 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발간사6	
역자 서문7	
해제10	
임진남행일록(壬辰南行日錄)26	
임진일록(壬辰日錄) ······74	
계사일록(癸巳日錄)213	
갑오일록(甲午日錄)367	
을미일록(乙未日錄)547	

발간사

역사는 사실(事實)의 기록이다. 선인들이 남긴 자취 하나하나가 집적된 것이 정리되었을 때 바로 하나의 사실(史實)로 남는 것이다. 《쇄미록(瑣尾錄)》의 저자인 오희문(吳希文) 공의 12대손이며 해주 오씨 추탄공파 종중(海州吳氏秋灘公派宗中)회장인 오인(吾人)은 선조가 남긴 유집을 덮어 놓을 수 없어 종손 오정근(吳鼎根)씨를 비롯한 종중의 결의를 거쳐 강내(彊內)에 반포키로 하고 이민수(李民樹) 선생께 번역을 위촉한 것으로 본 《쇄미록》은 충무공의 《난중일기(閬中日記)》나 서애(西涯) 유성룡(柳成龍) 선생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침략상과 잔인성을 낱낱이 기술한 일기라는 데서 그 뜻이 한층 크다 하겠다.

저자이신 오희문 공은 당시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으로 선조 24년 11월 27일 한성(漢城)을 떠나 충청 · 전라 지방을 여행하다 임진왜란을 만나 강원도 영월로 피란하면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수기(手記)한 것으로 기록 중에는 전란 중 일반 서민의 생활상의 비참함과 수령 · 아전과 양반은 물론 상민(常民)과 노비의 생활상이 기록되었고 소위 원군(援軍)으로 왔던 명군(明軍)의 횡포 또한 분심(憤心)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이나 그런 중에도 의병(義兵)의 활동과 관어(官御)의 환상제도(還上制度) 등은 그 어느 기록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열거되어 후학에큰 참고가 되리라 믿으며 특히 희문 공은 비록 과거에 급제치는 못하였으나 출중한 문필가로 인조조(仁祖朝)의 영의정 추탄(秋灘) 오윤겸(吳允謙) 공이 그 아드님이요, 병자호란 때 절사(節死)한 오달제(吳達濟) 공은 손자임을 기술하는 바이다.

해주 오씨 추탄공파 종중 회장 오상근(吳尙根) 근식(謹識)

역자 서문

《쇄미록(墳尾錄)》은 오희문(吳希文) 선생의 일기이다. 선생은 해주 오씨(海州吳氏)로서 자(字)는 비연(斐然)이다. 조선조 중종(中宗) 34년(1539)에 나서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75세를 일기로 졸(卒)했다. 선생은 문필이 뛰어나고 행실이 돈독하며 식견이 해박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고 다만 만년에 그 아들 윤겸의 주선으로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을 지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아들 윤겸은 인조조(仁祖朝)에 영의정이 된 이름난 정치가요, 손자 달제는 삼학사(三學士)의 한 분이요, 증손 도일(道一)은 숙종조(肅宗朝)에 문형(文衡)이요 문장가로 유명하니 그의 집안은 우리나라 최상의 문벌가임에 틀림없다.

이 일기는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 장수현감으로 있던 처남 이빈(李贇)의 집에 머물 던 중 왜란이 일어나 홍주·임천·아산·평강 등지로 피란해 다니던 때의 기록이다. 이 만 9년 3개월 동안 선생은 가족도 많지만 또한 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있어 식량과 일용에 많은 고초를 겪은 양상이 낱낱이 이 기록에 실려 있다. 이 글의 이름을 《쇄미록》이라고 한 것은 《시경(詩經》》의 "쇄혜미혜 유리지자(瑣兮尾兮 遊離之子)"라는 구절에서 딴 것으로, 그 원시(原詩)의 뜻은 우리말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떠도는 나그네"라는 말이 된다. 이는 즉 유리(流離)의 기록, 또는 피란의 기록이란 말이다. 그리고 이 일기의 마지막에서 선생은 "이로부터는 종이가 다 되었기에 붓을 던지는 바, 또 서울에 도착했으니 유리할 때가 아닌 까닭이다" 하여 그 지루했던 떠돌이 생활이 끝난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은 물론 오희문(吳希文) 선생의 개인 일기인 까닭에 자연히 사생활의 기록이 많지만 이 이외에 시사(時事)에 대한 기사도 적지 않다. 왜병의 침입과 전국 각지의 전황(戰況)으로부터 관군의 무력함과 명군의 내원(來援), 화의(和議)의 체결, 다시 화의의 결렬로 인한 왜병의 재침(再侵) 등 임진(壬辰)·정유(丁酉) 두 왜란의

시말(始末)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가 장수(長水)에서 직접 보고 들은 금 산(錦山) · 무주(茂朱) · 용담(龍潭) · 진안(鎭安) · 웅현(熊峴) · 전주(全州) 등지의 전황과 전라감사 이광(李洸)의 용인 패전, 경상도의 의병장 곽재우(郭再祐) · 김면 (金沔). 전라도의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 고경명(高敬命) · 김덕령(金德齡). 충청 도의 의병장 조헌(趙憲) · 심수경(沈守慶) 등의 애국의 정신과 용감한 활동. 왜병의 잔인상과 서울의 파괴된 형태 등 중요한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 또한 본서에서는 이러한 전란에 관한 기사보다도 사회 · 경제와 일반 민가의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전란으로 인한 피란민의 사태, 군대 징발 과 군량 조달에 따르는 인민들의 수난의 양상도 자세히 그려져 있다. 더구나 선생 은 그 처남, 아들, 사위가 모두 지방 수령으로 있었을 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지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수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수령의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 아 전들의 생태 및 일수서원(日守書員)의 성격 등 지방 행정의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그 밖에 군대의 징발, 공물의 수납, 군량의 수송, 잡 역의 초정(抄定), 환상곡(還上穀)의 염산(斂散) 등 지방 농민의 생활에 직접 관계되 는 실제 문제가 자세히 실려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필자는 양반으로서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의 특권과 노비들의 비참한 생활. 특히 노비의 신공 (身貢) 및 매매 소송 입안 등 당시 노비제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많이 발 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생의 세 아들 윤겸·윤해·윤성이 여러 번 과거에 응시 했고. 특히 윤겸은 정묘년 별시에 급제했기 때문에 과거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도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쇄미록》은 임진왜란에 관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실로 귀중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본서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는 원래 선생의 친필로 되어 있던 것을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양장으로 출판한 바가 있다. 이번에 나는 선생의 12대 종손 오정근(吳鼎根) 씨의 청탁으로 본서의 번역에 착수하여 3년여의 긴 시간 끝에 이제 비로소 탈고하면서 삼가 사족을붙이는 바이다.

1988년 4월 이민수(李民樹)

해제

《쇄미록》을 통해 본 임진왜란의 기억과 16세기 생활상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임진왜란 피란일기, 《쇄미록》

임진왜란 관련 기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유성룡의《징비록(懲毖錄)》이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조경남(趙慶男)의 《난중잡록(亂中雜錄)》이나, 이노(李魯)의 《용사일기(龍蛇日記)》,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과 같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참여한 인물들의일기를 통해 전쟁의 정황이나 시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민간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남긴 일기 기록 《쇄미록(瑣尾錄)》의 존재는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쇄미록》은 159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601년 2월까지 9년 3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간의 기록물이라는 점, 임진왜란의 참상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쟁의 시기 민간의 일상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제목을《쇄미록》이라 한 것은《시경(詩經》》의 "쇄혜미혜(瑣兮尾兮, 누구보다 초라함이여) 유리지자(遊離之子,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들)"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유리기(遊離記) 또는 피란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단위를 1책으로 구성하고 있는 방식이다. 1책은〈임진남행일록(壬辰南行日錄》〉으로, 1591년 11월 27일부터 1592년 6월말까지의 기록이다. 매일의 기록은 아니며 중요한 사건만 기록하는 방식이다. 2책은〈계사일록〉으로 1593년의 기록이며, 3 책은 1594년의 기록인〈갑오일록〉이다. 4책은〈을미일록〉,〈병신일록〉,〈정유일록〉으로 1595~1597년의 기록이다. 5책과 6책 역시 1597년의 기록인〈정유일록〉이며, 7책은 1599~1601년의 기록인〈기해일록〉,〈경자일록〉,〈신축일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은 일기 형식으로 주요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전쟁 때 조정의 상황을 비롯하여 저자가 들은 전언(傳言) 등과 함께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내

용을 기록하고 있다. 각 책의 말미에는 왕과 세자의 교서(教書), 의병들의 격문(檄文), 과거 시험 합격자의 방목(榜目), 각종 공문서 등 1차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1차 사료는 저자가 조정이나 지방에 상당한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수 있게 한다.

맨 앞에 쓴 〈임진남행일록〉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오희문의 동선이 잘 나타나 있다. 일기는 1591년 12월 27일 새벽 서울을 출발하여 용인 이경여의 서당에서 자고 이튿날 양산(陽山) 시골집으로 와서 행장을 준비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오희문은, 직산에 있는 작고한 친구 변신진의 농장 도착 → 망월사 → 목천 → 연기 → 금강 → 은진 → 여산 → 완산부 남문 → 장수 → 황간 → 무주 → 영동 삼촌댁 → 황계 → 무주 한풍루를 거쳐, 3월 19일 남원의 광한루와 오작교 도착, 3월 20일 보성, 21일 장흥에 도착하여 4일여를 머무른 후 3월말과 4월초에 걸쳐 영암, 창평 등 남도 지역을 주로 여행하였다. 남행 일지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튿날 아침 성 남쪽으로 나와 오작교를 지나다가 광한루의 맑은 경치를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들으니 부사가 와 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곡성 땅에 이르러 신대춘의 정자에서 잤다"는 등의 방식으로 이동한 장소와 만난 사람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쇄미록》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으로 저자의 치밀한 기록 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 저자 오희문의 생애와 가족 관계

저자인 오희문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비연(斐然)이다. 1539년 7월 25일에 태어났다. 《쇄미록》의 1593년 7월 25일 기록의 "오늘은 곧 나의 생일이다. 누님이 떡을 쪄서 먼저 신주(神主)께 올리고 나에게 큰 그릇으로 하나를 주었으나 학질 증

세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에서 생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신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아들 오윤겸(吳允謙)이 영의정에 오르고, 손자 오달제(吳達濟)가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심양에서 처형을 당한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오희문 사후 해주 오씨 가문이 명성을 펼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중손자 오도일(吳道一) 역시 숙종 시대 소론의 중심인물로 정치, 문장의 방면에서 이름을 날렸다. 오희문 가문은 오희문의 아들인 오윤겸과, 손자 오달제, 중손자 오도일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서인에서 소론을 대표하는 명문가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오희문은 관직이 선공감 감역에 머물렀으나 임진왜란 당시 피란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일기 기록인 《쇄미록》을 남겼다. 비록 높은 관직 생활은 하지 못했지만 《쇄미록》에서 보듯 그의 투철한 기록 정신과 문장력은 조선 후기에 그의 후손들이 문장가, 정치가로서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희문의 아버지는 오경민(吳景閔, 1515~1575)으로, 오경민은 문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해주 오씨 가계의 중심이 된 오희보(吳希保)의 자손 중에서는 유일하게 감찰을 지낸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 중기 문장가인 신광한의처남이자, 명문 고성 남씨 집안의 사위라는 인척의 기반을 통해 자손들이 현달할수 있는 기초를 착실히 다져 나갔다. 오경민의 처가인 고성 남씨는 조선 초기에 병조참판을 지낸 남금(南琴)의 후손으로, 장인은 남인(南寅)이었으며, 16세기 이후이 가문은 현재의 충청북도 영동(황간)으로 낙향하였다. 오경민은 처가의 기반이든는하였기 때문에 혼인 이후 오랜 기간을 영동에서 거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경민은 처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쇄미록》에는 오희문이피란 시절 외가인 영동을 찾아갔음이 나타난다. "이튿날 무주를 지나 영동의 삼촌

숙모의 집에 도착하니 삼촌은 부증(浮症)으로 인해 증세가 매우 위태로웠다. 여러 종형제가 모두 모여서 서로 만나 매우 기뻐했으나 삼촌의 병으로 인해 함께 즐길수가 없었다. 하루를 머물고 황계의 남백원(南百源)의 집으로 향했다. 백원은 나의 종형으로서 어렸을 때 함께 외숙모에게 자라서 정이 골육과 같은데 서로 15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서로 보게 되니 슬프고 기쁜 마음이 교차한다. 이제 고향에 오니 사물을 보는 대로 회포가 일어난다. 살아 있고 죽은 것이 세상을 달리했으니 슬픈 눈물이 절로 떨어진다. 수일을 머물면서 외할아버지의 산소에 가 뵈면서 예전에 나를 기르느라 애쓰신 은혜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 고을에서 나서 외숙모에게 자랐으니 은혜가 (어머니와) 같고 망극하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에서 오희문은 어린 시절에 외가인 영동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오경민이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오희문은 외종형을 골육으로, 외숙모의 은혜가 어머니와 같이 망극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외가에 대해 정이 깊었다.

오희문 역시 처가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처가와의 긴밀한 인연은 《쇄미록》에서 오희문이 장모나 장인의 제사를 철저히 지낸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다. "오늘은 곧 장모의 제삿날이다. 주인 형은 진중(陣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종 윤(宗胤) 형제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거나, "오늘은 곧 장인의 제사인데 신윤이 제사나 지내는지 모르겠다. 집사람은 제사를 지내자고 간절히 바랐으나 집에 한 가지 물건도 없어서 지내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오"나, "오늘은 곧 외조의 제삿날이므로 어머님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다"는 등의 기록에서도 외가에 대한 교분과 친밀성이 강했던 시대상을 접할 수가 있다.

오희문의 부친 오경민(吳景閔)은 희문(希文), 희인(希仁), 희철(希哲)의 3남과 4녀

를 두었으며, 문중 식구가 "우리 가문의 내외 가족이 무려 100구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오희문의 가문은 한양에 거주 기반을 가진 '서울 사족(士族)'으로서 사환(仕宦) 지향적인 성향이 매우 높았다. 오희문의 형제들은 모두 한양에서 태어났으며, 오희문은 "나는 본래 한양 사람인데 여기에 손이 된 지가 이제 4, 5개월이 되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모두 친구와 같다. 한번 남쪽으로 오면서이 고을을 바라보니 마치 내 고향과 같았는데, 이제 경계에 들어오니 내 마음이 또한 기쁘다"라고 하여 스스로 한양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오희문집안은 한양 남부 훈도방에 소재한 죽전동과 주자동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주로 서울 사족들과 혼맥을 형성했다. 오희문의 처는 이정수(李廷秀)의 딸이었으며, 《쇄미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빈(李贇)은 오희문의 처남이었다. 이빈 집안의 중심인물은 세종 때 집현전 학사를 거쳐 성종 때 공신에 책봉된 이석형이다. 이빈은 이석형의 5세 종손으로, 한양의 동부 숭교방(崇敎坊) 관동에 연안 이씨의 집들이 마련된 것도 이석형의 말년이었다. 오희문은 처가인 이곳에서 아들 윤겸을 낳았기때문에 오윤겸의 연보에는 숭교방이 출생지로 표기되어 있다.

오희문은 연안 이씨 이정수의 딸과 혼인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맏아들이 윤겸(允謙)이었고, 윤해(允諾), 윤함(允誠)에 이어 막내 윤성(允誠)이 있었다. 《쇄미록》 곳 곳에는 맏아들 오윤겸을 비롯하여 아들에 대한 오희문의 기대가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맏딸과 둘째 딸은 부도(婦道)를 하지 않음이 없었고, (중략) 어버이의 뜻을 따라서 한가지 일도 거역하지 않으므로 내가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막내 단숙(端淑)은 얼굴이 곱고 밝으며 성질이 몹시 단아하여 내가 몹시 사랑하던 터였다. 고운마음과 눈매가 자나 깨나 눈에 보이니 《시경》에 이른바 귀여운 막내딸이 실로 내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을 쓰니 슬픈 눈물이 저절로 옷을 적시는 것을 어찌 금하겠는가"라는 기록에서는 딸에 대해 깊은 사랑을 보인 오희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외에 "세 딸과 함께 뒤 봉우리에 올라 눈이 닿는 데까지 바라보다가 혹 산나물도 뜯으면서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중략) 그믐날 김대성이 와보고 돌아갔다"거나, "종일 집에 있으니까 무료하기가 너무 심하다. 단녀(端女)와 바둑을 두고 호도 놀이를 하여 적절한 회포를 풀었다"고 한 것, "식사 후에 무료해서 인아(麟兒)」, 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뒤 봉우리에 올라 손수 고사리를 꺾어 가지고 돌아오니 객중의 고적한 회포가 풀린 것 같다"는 기록을 통해서는 아들은 물론이고 딸과도 여러 놀이를 즐겼던 오희문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다. 오희문의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가부장적 권위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처가살이가 일반화되었던 관행과 더불어, 16세기 중반까지도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대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3. 학문적 교유와 관직에 대한 집념

오희문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높은 관직을 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가기, 성운, 성혼 등과의 교유를 보면 학문적 수준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희문의 학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둘째 사위 김덕민(金德民)이다. 김덕민은 충청도보은을 근거지로 했던 학자 성운(成運)의 제자로서, 외손자인 윤휴(尹鑴)에게 학문을 전해 준 인물이다. 윤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기에 외가인 보

1 오윤겸을 말한다. 《쇄미록》의 초반부에는 '鱗兒'로, 후반부에는 '允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윤겸의 초명이 (鱗兒'임을 알 수가 있다.

은으로 피란을 갔고. 이곳에서 외조부 김덕민으로부터 성운의 학풍을 접할 수 있 었다. 성운은 처남인 김천부(金天富)의 아들 김가기(金可幾)를 자식과 같이 길렀는 데 김가기의 아들이 바로 김덕민이다. 오희문이 사돈 김가기와 전란 중에도 친분 을 유지했음은 《쇄미록》에도 나타난다. "3일 아침 식사 후에 찰방 김가기가 우리 부자를 청했다. 그 부인도 난을 피해서 여기에 와서 내 아내와 윤겸의 처를 청하는 데, 아내는 연고가 있어서 가지 못했고 다만 윤겸의 처만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내가 윤함과 함께 가 보았더니 점심을 많이 차려 주어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왔다." 오희문은 성운의 사촌 동생인 성혼에 대해서는 '선생'으로 칭하며 존경했다. "우계 (牛溪)(성혼(成渾)의 호(號)) 선생이 지금 해주 석담에 가 있는데, 윤겸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내게도 보내서 후한 뜻을 보였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다"거나, "종 덕년 (德年)으로 하여금 해서(海西)로 돌아갈 때 보령 참봉의 거처²에 들러서 우계에서 보내는 답장을 가져가게 했으나 덕년이 그곳을 모르기 때문에 송노(宋奴)로 하여 금 함께 가게 했다. 나도 또한 우계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는 등의 기록에서 오 희문이 성혼을 존경하고 편지를 자주 교환했음을 볼 수가 있다. 오희문은 1598년 성혼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고. 이해 6월 부음을 듣고서는 상면치 못한 회한을 토로했다. 성혼은 훗날 서인(西人)에서 분기된 소론 (少論)의 학문적 원류가 되는데, 오희문과 성혼의 교분은 오윤겸 등 그의 자손들이 소론으로 정착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오희문은 당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서울과 충청도 일대의 인사들과 주로 교유를 맺었다. 이러한 흐름은 아들 오윤겸에게도 이어졌다. 오윤겸은 최기남, 정 엽, 김장생, 이귀 등 서인의 주요 인물과 교유했지만 역시 당파적 성향은 약한 인

² 이때 오윤겸이 보령에서 참봉직을 맡고 있었다. 오윤겸의 집을 들렀음을 말한다.

물이었다. 《쇄미록》에서 "마침 길에서 최 생원 기남(起男)의 서조모(庶祖母)의 일행을 만나 우리 일가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행을 따라서 왔으니 이것이 3월 28일이었다. 그 어미가 마침 머물러 있다가 만나서 기뻐하고 슬퍼하였다"는 기록에서는 오희문과 최명길의 아버지인 최기남이 상당한 친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희문은 관직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과거 진출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서도 관직 진출에 대한 오희문의 집념은 계속되었다. 63세가 되던 1601년에 비로소 선공감 감역에 올랐으나 바로 제수되지 않자, 오희문은 "운명이다. 어찌하랴. 이제 자식의 힘으로 60세에 비로소 벼슬의 천망(薦望)에 올랐으니 비록 되지는 않았으나 또 하나 다행한 일이다"하여 의망(擬望)에 오른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같은 날의 기록에는 "윤겸의 편지를 보니 이제 인사에서 홍문관 수찬으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체찰사 이덕형이 그 종사관으로 요청해서 오는 13일에 장차 영남으로 간다고 하니 놀랍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하여 오윤겸이 홍문관 수찬에 올랐음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은 낮은 직책에도 떨어졌지만 아들 윤겸의 청요직 진출에 기대를 거는 오희문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오희문의 사환 욕구는 선공감 감역에 그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아들 오윤겸이 영의정에 오름으로써 그의 꿈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희문은 피란살이의 외중에서도 오윤겸 형제를 서당으로 보내 과거 진출을 독려 하였으며, 그 결과에 집착했다. 1594년 10월 오윤겸이 낙방했을 때는 크게 상심하였으며, 1595년 윤겸, 윤함, 윤해 3형제가 별시 초시에 모두 합격하자 매우 기뻐

^{3 《}선조실록》에는 1598년 12월 13일 문무과 초시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였다. 1597년에는 오윤겸이 39세의 나이로 초시 합격에 이어 별시 문과에 급제 하였다. 1597년 3월 19일의 일기에서 "오후에 성균관 사람 5명이 과거 급제를 공 고하는 방을 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내며 와서 알리기를 평강(平康)4이 급제 했다고 한다. 방목을 보니 조수인(趙守寅)이 장원이고 윤겸은 7등으로 급제했다" 고 한 다음에. "온 집안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윤해가 실패한 것이 유감이 라 하겠다. 어찌 두 사람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겠는가? 전전해서 기별이 오나 사실 같지가 않다. 강경(講經)한 사람은 2백여 명인데 급제자는 19인뿐이라고 한다. 문 중의 5대조 이하는 과거 급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의 아들이 처음으로 이겨 낸 것이다. 지금부터 뒤를 이어서 일어날 희망이 있으므로 가무의 경사를 말로 어찌 다 표현하리오. 한없는 기쁨이 넘친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의 영혼이 필경 어둡고 어두운 저승에서도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비감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고 하 여 큰 기쁨을 표시함과 동시에 조상에 도리를 다했다는 비감한 심정을 표현하였 다. 5 오희문은 오윤겸의 급제를 5대조 이하에 과거 급제자가 없어서 일시 쇠락했 던 가문을 중흥할 수 있는 희망으로 인식했다. 1600년 오윤해의 연이은 급제로. 오희문 가문은 오희보 이후 6대, 약 200년 만에 3명의 문과 합격자를 동시에 배출 하면서 명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오희문은 가문의 번성에 고무되어 해주 오씨 족도(族圖)를 편찬하였다. 오희문은 족도의 서문에서, "나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학문에 뜻을 두고 있고 저마다 아들을 낳았으니 한미한 문호가 나

⁴ 오윤겸이 평강현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평강'으로 표기하였다. 이후에는 '윤겸'으로 표기하고 있다.

^{5 《}선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수인이 장원 급제한 문과 별시는 1597년 4월 9일에 방방(放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선조수정실록》1597년 3월 1일은 "중시와 별시를 실시하여 조수인 등 19일을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쇄미록》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별시 방방은 3월 19일 무렵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의 자손들에 의해 떨쳐지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기록하였다.

4. 전쟁의 참상에 대한 증언

《쇄미록》은 1592년 임진왜란이 처음 일어난 시점의 혼란상과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부터 시작하고 있다. "전하는 말을 들으니 왜선 수백 척이 부산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더니 저녁에 들으니 부산과 동래가 모두 함락되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건대 성주가 굳게 지키지 못한 까닭이다"거나, "4월 19일, 영남에서 변의 보고가 하루에 세 번이나 왔는데, 용맹스러운 장수와 강한 군사가 왜병의 소식만 듣고 먼저 무너지고, 큰 고을과 견고한 성이 하루도 못 되어 함락되었다고 한다. (중략) 신립(申砬)과 이일(李鎰) 두 장수는 조정에서 믿는 바로 견고하게 지킬 줄 알았는데, 부월(斧鉞)을 받고 와서 지키다가 중도에서 패한 바 되어 조령의 험한 곳을 지키지 못하여 적이 서울로 들어가서 왕의 가마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도성을 지키지 못했으니 슬프다. 우리 백성들이 모두 흉한 칼날 앞에 피를 흘리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유리하여 떠돌아 죽고 산 것을 알지 못하니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다"고 하여, 왜적의 침입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한 조정의 대응을 원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오희문은 피란을 떠난 상황에서도 왜란의 전황을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8월 7일과 8일에는 조정의 인사 상황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금의 인사 관계를 보니 이산보가 이조판서, 이항복이 병조판서, 이성중이 호조판서, 이덕형이 대사헌이요, 그 나머지는 쓰지 않았다"거나, "8일, 정종명이 문과 1등 1인으로서 전적에 올랐고, 이태호는 무과 1등 1인으로 선공감 주부가 되었다. 이는 필시 주상께

서 평양에 들어가 따로 정시를 베풀어 문무 합격자를 뽑게 한 것이다"는 기록에서 도 알 수가 있다.

1592년 7월의 여름은 오희문에게 무척이나 덥고도 괴로운 나날이었다. 피란의 고통이 처절했던 것은 7월 초부터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매일을 산속 바위 밑에서 지낸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7월 4일 "산속의 바위 밑에서 잤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5일의 "산속 바위 밑에 있었다.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현 속에 가서 적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고 또 두 종을 보내서 감추어 둔 바위 구멍에서 옷을 가져다가 추위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나, 7일의 "골짜기 산속 시냇가에서 잤다. 이날은 곧 칠석이다. (중략) 갓모를 쓰고 밤을 새웠다. 이 밤의 괴로움은 입으로 형용해 말할 수가 없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13일에서 29일까지는 계속해서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라고 기록하여, 피란살이의 고단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오희문의 산속 피란 생활은 8월에도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급기야 하혈(下血)을 하기까지 했다.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내가 산속에 들어온 후로 정차 한 달이 넘어 절기가 중추로 접어드니 찬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여 갑절이나 처량하다. (중략) 또 오늘 비로소 하혈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반드시 오랜 동안 냉하고 습한 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고 한 기록은 힘든 피란 생활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피란 후 서울집으로 돌아온 뒤의 처참한 상황도 전하고 있다. "죽전동(竹廛洞)의 친가는 당초에 적이 들어와진을 쳤지만 적이 나간 후에 가까이 있는 시민들 먼저 들어와 도둑질해 갔다. (중략) 진고개에 있는 윤해(允諧)(오희문의 아들)의 양가(養家)는 온 집안이 모두 철거되었고 깨진 기와와 헐어진 흙이 모두 남은 터에 가득하였다. (중략) 주자동 중가에 가보니 모두 타 버렸고, 사당만이 홀로 남았는데 들으니 신주를 후원에 묻어

안장했다고 하므로 처음에는 들어가 보고 파내서 뵈려 하였으나 종 천복의 남편 수이가 말하기를. '집안에 죽은 시체가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왜적의 만행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왜적이 선릉(宣陵) 과 정릉(靖陵)을 도굴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 "선릉과 정릉을 또한 모두 파내서 재궁(梓宮)을 부수고 옥체를 꺼내 버려서 중종의 시신은 겨우 구렁에서 찾았고. 성 종의 시신은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혹은 말하기를 불에 태웠다 하고 혹은 말하기 를 강에 띄었다고 하니. 그 온 나라 신민의 분통함을 어찌 다 말하랴"고 하여. 분 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쟁의 와중에서 왜적에 투항한 백성이 생기 고, 조선 백성의 시체를 왜병의 시체라고 하는 등 아비규환이 되어 버린 참상도 전 하고 있다. "이같이 추운 날씨에 우리 식구처럼 위아래 옷을 얇은 것을 입고서는 앞으로 갈 곳이 없고 가진 물건이 다 없어졌으니. 비록 적의 손에는 죽지 않는다 해도 필경 얼고 굶어서 죽을 것이니 민망하고 걱정된다"는 기록이나. "구례를 분 탕질한 적은 왜적이 아니고 곧 우리나라 사람이 왜적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왜인 의 목소리를 내므로 목책을 지키던 군사가 모두 흩어지고 거기 사는 백성들도 이 까닭에 놀라 움직여서 역시 모두 도망해 달아나니, 적들은 그 재물을 노략질해 가 고 그 집들을 불태웠다". "산음에 쳐들어 온 적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한 다". "진(陳) 밖의 망대(望臺)에서 숙직하는 왜병을 쏘아 죽이고 머리를 베어다가 바쳤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니 사실을 왜병이 아니고, 무주 백성이 목화 를 따고 있다가 적에게 죽어서 버려두고 거두어 가지 않았던 시체를 그 머리털을 깎아 버리고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는데 의병장은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진짜 왜 병이라고 하여 순찰사에게 바쳤다고 하니 진실로 우스운 일이다"는 기록이 대표적 이다.

가족 간의 이별, 거적에 덮인 시체의 목격담 등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전달하기도 한다. "길에 아이를 보니 큰소리로 통곡하고 있고, 여인 하나는 길가에 앉아서 역시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고 있었다. (중략)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다고 한다. (중략) 부자는 천성의 지극히 일륜의 사랑하는 바로서 비록 새와 짐승이라도 또한 모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심지어 길에 버리고 돌아다보지않았으니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어찌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렀는가?"라는 기록과, "길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말아서 덮어 둔 것을 보았는데 그 곁에 두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다. 물었더니 그 어미라 한다. (중략) 그 뼈를 묻으려 해도비단 제힘으로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땅을 팔 연장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중략)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기록에서는 전쟁의 처참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전쟁의 참상은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전언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달한다. "그윽이들으니 영남과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육촌의 친척도 죽여 가지고 씹어 먹는다고 하기에 항상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더니, 이제다시 들으니 서울 근처에서 전일에는 비록 한두 되의 쌀을 가진 자라도 죽이고 빼앗는데, 근일에는 사람이 혼자 가면 쫓아가서라도 죽여 놓고 먹는다"는 기록을 통해서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나락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접할 수가 있다.

5. 16세기 생활사의 보고(寶庫)

《쇄미록》은 임진왜란의 피란 생활과 더불어 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 기록의 곳곳에는 오희문의 생각과 일상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내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우선, 남아를 선호하던 시대상이 나타난다. "윤겸의 처가 해산했는데 또 딸을 낳았다하니 서운함을 이길 수 없다"는 기록이 대표적이다. "아내 및 두 딸, 윤해와 네계집종이 모두 학질을 앓고 누워서 저녁밥을 지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덜 아프기를 기다려 짓는다면 반드시 밤이 깊을 것이다"는 기록에서는 가사노동이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침에는 나와 두 아들은 함께 콩죽 반 그릇을 먹었고 집사람과 세 딸은 전혀 얻어먹지 못하고 긴 해를 지냈다"라는 기록에서도 남녀 차별의 사회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병과 약재 처방에 대한 기록도 흥미를 끈다. "전일에 종 명복(命卜) 및 수호인을 시켜 오미자를 따게 했고 (중략) 말려도 두 말은 될 것이니, 만일 남은 목숨이 보존하면 약재에 쓰려고 한다"는 것이나, "이른 아침에 박 덩굴을 태워 술에 타서 마셨다. 학질을 고치기 위해서다"는 기록, "아침에 박 덩굴을 태워서 술에 섞어서 또마셨다"거나, "또 오늘은 어머님께서 학질을 앓으실 날이어서 일찍 학질 떼는 방법 세 가지를 했다. 하나는 복숭아씨를 주문을 외우면서 먹는 것이고, 하나는 헌신 밑장을 불에 태워서 물에 섞어 먹는 것이요, 하나는 제비 똥을 가루로 만들어술에 담가 가지고 코 밑에 대어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옛날 쓰던 방법으로서 효력이 가장 나타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요, 또한 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고 하여 학질을 떼기 위한 민간의 처방 요법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장치로서 술을 자주 접했던 기록도 많이 나타난다. "나도 또한 역천암으로 돌아오다가 중간 길에서 마침 품관 오우 등 4, 5인을 만났는데 주인 형을 뵐 일로 술을 가지고 간다면서 즉시 술 1병과 안주 1그릇을 꺼내서함께 돌 위에 앉아 길가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3잔을 마시고 얼큰하여 돌아오니해가 아직 저녁이 되지 않았다"거나, "방 안에 쭈그리고 있어 술을 얻으려하나 어

찌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이광복이 좋은 술 1병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보냈다"고 하였으며, "추로(秋露)(소주)를 과음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새벽에 토하기까지 하고, 늦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오후에 비로소 만두를 먹었다"는 기록 등에서는 술을 자주 접했던 사회 분위기가 영상 자료처럼 펼쳐진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가 생활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마을의 여러 소년들이 다모여서 종정도(從政圖)를 노는데 맨 끝에 있는 자는 먹으로 두 눈을 그려서 웃음의 자료로 삼았다"거나, "마을 아이들의 반선(半仙)의 놀이를 구경하다가 돌아왔다"는 기록, "저녁때까지 요월당(遙月當)에 있는데 마을의 젊은이와 어른이 다모여서 혹은 바둑을 두고, 혹은 종정도를 놀고, 혹은 장기도 두고, 쌍륙(雙六)도 놀아 즐기면서 긴 해를 보냈다"는 기록, "근래에 주리고 곤한 나머지 무료하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회포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매양 바둑판을 대하여 추자(楸子) 놀이를 했다"는 기록에서는 힘든 삶 속에서도 종정도, 쌍륙, 바둑 등 여가 생활을 즐겼던 16세기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히 다가온다.

《쇄미록》에서는 저자 오희문이 직접 경험한 피란 생활을 비롯하여 조정에서 들은 전황과 의병의 활약상, 각종 제사와 상업 행위, 질병과 치료, 여가 생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담았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상황을 증언하는 한편, 저자 오희문의 관직에 대한 집념, 가문의 영광을 위한 모색, 외가와의 인연, 아들에 대한 기대, 팔과의 친분 등 16세기 생활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쇄미록》은 조선 중기 생활사의 보물 창고가 될 수 있으며, 저자 오희문은 전문 사관(史官)의 역할까지 했다고 할 수 있다.

《쇄미록》은 그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정치사, 경제사, 생활사, 문화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이번 《쇄미록》 국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역본의 출간을 계기로 조선 중기 생활사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쇄미록》의 기록을 통해 420년 전 임진왜란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도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옛 사람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한다.

2014년 10월



임진남행일록 | 壬辰南行日錄

나는 지난 신묘(辛卯)(1591년) 동짓달 27일 새벽에 서울을 출발하여 용인(龍仁) 이 경여(李敬興)의 서당에서 자고, 이튿날 양산(陽山) 시골집으로 와서 행장을 준비했다.

이튿날 일찍 떠나서 직산(稷山)에 있는 작고한 친구 변신진(邊伸珍)의 농장에 도착하니, 신진이 부리던 종 어질동(於叱同)이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꺼이 맞으면서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하는 등 마치 제 주인을 대접하듯 하니, 가히 훌륭한 종이라, 슬프고 감동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나서 망일사(望日寺)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아침밥을 먹고 목천(木川)으로 향하는데 중도에서 비를 만나 간신히 임소(任所)에 도착하니, 마침 김태숙(金太淑), 조자옥(趙子玉)이 여기에 왔다.

태수(太守)(군수(郡守)) 조형연(趙璧然)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동헌(東軒)으로 나와서 태숙(太淑)·자옥(子玉)과 적조했던 회포를 풀고 여기에서 사흘 동안을 머물렀다. 음악을 벌이고 취토록 마시다가 나와서 내 숙소에서 자는데 몹시 후한 뜻으로 대접했다. 형연(瑩然)은 나의 인척 사촌이요, 젊어서부터 같이 있어서 정의(情意)가 가장 두텁기 때문이다. 자옥(子玉)은 곧 형연(瑩然)의 아우요, 또한나의 젊었을 때 친구여서 넉넉히 행자(行資)를 보내왔다.

이튿날 일찍 떠났는데 어제 내린 큰 눈 때문에 길이 험해서 저물게야 연기현감(燕岐縣監) 임소열(任少說)에게로 갔다. 소열(小說)은 역시 나의 인척 사촌이다. 마침 태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이 바빠 만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이튿날 금강(錦江)가에서 아침밥을 먹고 숙소에서 잤다. 밤에 비와 눈이 섞여 내려서 늦게 떠났는데 길이 질어서 간신히 은진(恩津) 전원(煎院)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처음에 잘 곳을 찾았으나 인가가 몹시 드물어서 도둑이 두려워 밤을 무릅쓰고 여산군 전원(礪山郡前院)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행인들이 집마다 가득 차서 잘 곳이 없더니 마침 집 하나가 비어 있는데 집주인이 손을 맞아술을 낸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종놈이 뛰어들어 와 술이 취한 주인과 서로 다투어

거의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종을 엄하게 꾸짖고 취한 주인을 잘 달래서 간신히 싸움을 말리고 나서 딴 집으로 옮기려 했으나 밤이 깊어서 부득이 거기에 서 잤다.

이튿날 송인수(宋仁叟)의 집으로 들어가 적조한 회포를 풀고 아침밥을 먹은 후 완산부(完山府) 남문 밖 장수(長水) 주인의 집에 가서 잤다. 이튿날은 진안(鎭安) 지정병(地正兵) 김윤보(金允輔)의 집에 와서 잤는데, 그는 장수 사람이다. 소주를 대접한다.

선달 열흘날 중대사(中臺寺)에 도착하여 아침밥을 먹은 후에 비로소 장천현(長川縣)에 도착하니, 온 관청이 기꺼이 맞아 매일 밤을 새워 가며 나의 답답한 심회를 풀어 준다. (장천(長川)은 곧 장수현(長水縣)이오, 현감(縣監)은 곧 저헌(樗軒)의 5 대손 이빈(李贇)이니 자는 자미(丁美)로서 공의 처남이다.)

8일에 과세할 물건을 얻어서 종과 말을 집으로 올려 보냈는데, 이해 정월 20일 후에 돌아왔다. 말을 쉬게 하느라고 2월 열흘 후에 먼저 황간(黃澗)으로 갔으니, 황간은 곧 나의 외가이다. 장천에서 떠나서 장계(長溪) 임내(任內)로 와서 자는데, 종운(宗胤)이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와서 작별했다.

이튿날 무주(茂朱)에 도착했다. 처음 길에 현(縣)으로 들어가서 들으니 이 도(道)의 아사(亞使)가 군대 점검하는 일로 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물러나와 종 인수(仁守)의 집에서 잤다.

이튿날 무주를 지나 영동(永同) 삼촌의 댁에 도착하니 삼촌은 부증(浮症)으로 해서 증세가 매우 위태롭다. 여러 종형제가 모두 모여서 서로 만나 몹시 기뻐했으나 삼촌의 병으로 해서 함께 즐길 수가 없다. 하루를 머물고 황계(黃溪)의 남백원(南百源)의 집으로 향했다. 백원은 곧 나의 종형으로서 어렸을 때 함께 외숙모에게서 자라서 정이 골육(骨肉)과 같은 터인데, 서로 15년 동안을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만나게 되니 슬프고 기쁜 마음이 한데 섞인다. 이제 고향에 오니 물건을 보는 대로 회포가 인다. 살아 있고 죽은 것이 세상을 달리 했으니 감창한 눈물이 저절로 떨어진다. 수일을 머물면서 외조의 산소에 가 뵙고 옛날에 나를 기르느라 애쓰신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나는 이 시골에서 나서 외숙

모에게서 자랐으니 은혜가 어머니와 같기 때문이다. 남은 술잔을 두 외숙 산소 앞에 드렸다. 두 외숙은 또한 내가 어렸을 때 보호하고 양육해 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중에도 첨사(僉使) 외숙이 더욱 도타웠었다. 제물은 장천으로부터 이 때문에 준비해 가지고 왔었다. 남자순(南子順) 형은 이때 금릉(金陵)에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말을 보내서 나를 맞는다. 거기에 가서 하루를 묵는데 한방에서 자면서 밤이 새도록 묵은 회포를 풀었다. 자순 형은 역시 나의 외종으로서 젊었을 때같이 놀아서 뜻이 같고 의기가 합해져서 서로 사랑하기가 여러 종형제보다 지나친다. 이제 여기에서 만나니 기쁜 마음이 갑절이나 난다. 형수도 나와 보고 여러 딸들이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정한 몸매가 단정하고 맑으며 행동이 온아해서 참으로 이른바 요조숙녀다. 큰딸은 혼처를 골라 시집보냈다 한다.

자순 형과 함께 황계로 돌아왔다. 24일은 한식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이튿날 종을 성산(星山)으로 보내서 공물(頁物)을 받아 왔다. 여기에서 오래 머물다가 떠나서 도로 영동 삼촌의 집으로 왔는데, 삼촌의 병세가 더욱 중하다. 나이 84세에 이러한 위태로우 증세를 얻었으니 어찌 보존할 수 있으라.

이튿날 도로 무주현에 이르러 한풍루(寒風樓)에 오르니 누 앞에 긴 냇물이 흐른다. 삼청각(三淸閣)에서 자는데, 누각이 몹시 맑고 깨끗하다. 정신이 나는 듯 상쾌하여 마치 신선 사는 곳에 올라온 것 같다. 삼청각의 맑은 정취는 들은 지 이미 오래였 지만 이제 와서 한 번 보니 옛날 소원을 풀어 준다. 다만 흠이 되는 것은 함께 와서 같이 구경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태수가 아침저녁 밥을 보내 왔는데 이것은 자 미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튿날 일찍 도로 종 인수의 집으로 돌아와서 유산을 나누어 받은 이유를 말해 주었다. 인수와 그의 오촌 질녀와 함께 우리 집 유산을 나누어 받았다. 그곳 노비들은 모두 헤어져서 영동 사촌에게로 간 자가 많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누어 산다는 기별을 들으니 몹시 기쁘다.

아침밥을 먹은 후 장계 손 인의 덕남(孫仁儀德男)의 집으로 와서 잤다. 이튿날 아침 손 공(孫公)이 포(脯)를 만들어 준다. 이는 곧 29일이 외조모 제삿날인 때문이다. 그날 도로 장천현으로 돌아왔다.

3월 2일에 남찰방(南察訪) 군실(君實)이 부안(扶安)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로 달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부음(訃音)이 도착하므로 그대로 분상(奔喪)하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달 18일에 온 관청이 망운정(望雲亭)에 올라 진법(陣法) 연습하는 것을 보고 나서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여 크게 취해서 돌아왔다. 이 정자는 곧 소공수(蘇公遂) 씨가 태수가 되어 왔을 때,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름 지은 것이라 한다. 이름과 실지가 다른 것이 우스운 일이다.

18일 아침에 비로소 남쪽 길을 시작하여 용성부(龍城府)에 도착하여 동문 안 사삿집에서 자는데, 통판(通判)이 나와 종의 조석 밥을 보내왔다. 이날 밤중이 못 되어 주인집 문간에서 불이 나서 행랑까지 연소되는데, 화광이 비쳐 와 창문이 낮과 같다. 놀라 옷을 급히 입고 간신히 이웃집 담을 넘어 피했다. 종과 말의 행장은 거의 타 버렸다. 마침 바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써 구했기 때문에 간신히 큰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들으니 주인은 재상의 집종으로서 세력을 믿고 행악을 해서 이를 미워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변이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성남 쪽으로 나와 오작교(烏鵲橋)를 지나다가 광한루(廣寒樓)의 맑은 경치를 들어가 보려 했으나 들으니 부사(府使)가 와 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곡성(谷城) 땅에 이르러 사인(士人) 신대춘(申大椿)의 정자에서 잤다. 정자 앞에는 큰 강이 흐르니, 이것은 낙동강 물의 남은 물결이다. 남쪽으로는 큰 들에 임했고, 북쪽으로는 바위 기슭에 의지해 있어서 물결 중심을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능파정(凌波亭)이라고 지었단다. 신 공(申公)은 곧 문인(文人) 신대수(申大壽)의 아우로서 일찍이 과거 공부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골에 살고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본래 순천(順天)에 살다가 을묘(乙卯)의 변에 내지(內地)로 옮겨 들어와서 옛집터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후한 뜻으로 대접하여 저녁밥을 냈다.

이튿날은 비가 와서 멀리 가지 못하고 낙동강을 건너서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 廣寺)로 들어갔다. 이 절은 곧 순천 땅으로서 남쪽 지방에서 이름난 절이다. 내 그 소문을 익히 들었고, 한번 올라가 보고자 한 지도 오래이다. 침계루(枕溪樓)에서 자노라니 아래는 경당(鏡堂)에 임했고, 중당(中堂)은 새로 지었는데. 단청이 휘황 하다. 붉은 난간을 굽어보니 맑은 물이 띠처럼 비쳐 그 속에서 노는 물고기를 셀수가 있고 푸른 물결은 손에 쥘 것 같다. 절은 깨끗하고 시원하며 정신이 맑고 시원하여 참으로 이른바 뼈가 시리고 마음이 맑아져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에 보성군(寶城郡)에 도착했다. 이 고을은 내가 자순(子順)과 함께 놀던 곳인데 이제 30여 년이 지났다. 옛터에 들어가 보려 했으나 태수와 안면이 없고, 또 문을 굳게 닫아 놓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북문 밖 사삿집에서 잤다. 공생(貢生) 임희령(林希齡)을 찾았더니 서울에 갔다고 한다. 임(林)은 곧 옛날 같이 절에 있던 자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나서 장흥부(長興府)에 이르러 성 동쪽 냇가 정자에서 잠시 쉰 뒤에 성으로 들어가 남문 안 사삿집에서 자는데, 태수가 나와 종의 밥을 잘 차려 보내 주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나를 맞아 밥을 먹는데. 해남태수(海南太守) 변 공(邊公) 응정(應 井)이 마침 순찰소(巡察所)에서 15대의 매를 맞고 왔다. 이는 군무(軍務) 때문이었 다. 변 공(邊公)은 젊어서 공부를 하여 여러 번 초시(初試)에 합격했는데, 늦게 무 예(武藝)를 배워 무과(武科)에 올라 처음에는 금위(禁衛)에 임명되었더니 승진되어 남성(南城)에 제수되었다가 이제 매 맞는 욕을 당하고 보니, 자못 무변으로 간 것 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 변(邊)은 곧 나의 인척으로서 비록 한 번도 만나 보지 는 않았으나 이름은 익히 듣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 을 시켜 안부를 물은 뒤에 은근한 뜻을 몹시 나타내 이에 나는 서울로 돌아온 뒤에 전죽(箭竹) · 표고(票古) 등 물건을 임경흠(林景欽)의 집으로 보내 주었다. 그는 또 한 윤겸(允謙)의 소년 때 친구요. 중방(中房) 송강(宋江)은 또한 윤겸이 후하게 하 던 아전이어서 날마다 와 보았다. 부(府)에 있는 노비를 사람을 보내서 잡아서 몸 으로 바치도록 징계하자 궁해서 능히 방비하지 못한다. 노비를 숨겼다고 그 어미 를 매 때렸으나 또한 끝내 바로 불지 않는다. 만일 일체 엄한 형벌로 다스리면 목 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즉시 놓아 보냈으니 나의 오활함이 가소롭다. 종을 숨긴 덕 수(德守)란 자가 스스로 나타났기에 몹시 괴이해서 물었더니 지금은 병영(兵營)의 가라장(假羅將)에 소속되었는데. 하는 일이 몹시 괴롭다고 하니. 이것은 나로 인하 여 제명(除名)을 원했기 때문이다. 박효공(朴孝恭)이 방백(方伯)의 사사로운 편지를 받고 순천(順天)으로부터 하루 먼저 여기에 와서 사나운 종을 심문하고자 하여함께 수일 동안 이야기하노라니, 자못 객회(客懷)가 위로된다. 그는 나보다 먼저강진(康津)으로 향했으니 박(朴)은 곧 나의 칠촌뻘 되는 조카이다. 이 고을은 남쪽지방의 큰 고을이다. 순찰사(巡察使)가 올 때가 되자, 성을 쌓고 못을 파며 군사를조련하고 병기를 때만지며 집도 수리하고 그릇도 깨끗이 하여 그의 노여움을 면하려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한다. 태수와는 본래 한 동리에 살아서 범연히 알고 지낼 뿐이요 일찍이 두터운 교분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오자 친절한 뜻으로 대접하고 노자까지 준다. 여기에서 4일을 머물다가 늦게 떠나 병영을 향해서 장수 주인의 집에서 자는데, 주인이 술과 고기를 갖다가 대접하여 몹시 후한 뜻을 보인다. 성안에서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원수(元帥)가 활을 쏘는 것이라 한다. 성을 쌓고 못을 파는 데는여러고을 승병(僧兵)을 모아다가 돌을 끌어올리느라고 서로 외치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한다. 조금만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내 때리고 치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괴로워한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영암군(靈岩郡)에 도착했는데, 이 고을도 역시 삼촌이 와서 다스리던 곳으로서 나와 자순 형이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반년을 머무는 동안 함께 즐겁게 논 일이 몹시 많았다. 이제 20여 년 만에 왔기에 술집 춘화(春花)에게 옛날 일을 물었더니 자세히 대답해 준다. 삼촌은 세상을 떠나신 지 이미 오래니 옛일을 생각하면 회포가 일어 슬픈 뜻이 많다.

돌아올 때 태수가 노자를 주었다. 점심밥을 먹은 후에 구림촌(鳩林村) 임매가(林妹家)로 갔더니 누이는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중문 밖까지 맨발로 나와서 본다. 반가움이 지극한 나머지 도리어 슬픈 마음이 일어 서로 마주 보고 소리 내어 울었다. 여기에서 9일을 머무는 동안 죽도(竹島)에 가서 놀면서 고기 잡는 것도 보고 혹은 도갑(道岬)에 가서 놀면서 물거품을 만들어 즐겼다. 중간에 또 박경인(朴敬仁) 형제, 박성기(朴成己) 형제와 집 앞 모정(茅亭)에 모여서 바둑을 두면서 즐겼다. 떠나던 전날 저녁에 누이가 소를 잡아 안주를 만들고 술과 음악을 갖추어 노래도 부르

고 춤도 추어 몹시 즐기다가 파했다. 이때 한자리에 있던 사람은 마을 사람 5, 6인 인데 직장 존장(直長尊丈)이 제일 어른이고, 광산(光山)에 사는 박상사 천정(朴上 舍天挺)도 또한 함께 놀았다. 그의 자는 응순(應順)이니, 응순은 그 아우 종정(宗挺)(자응선(應善))이 이 마을로 이사 왔는데, 그 아내가 병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와서 본 것이요 응선은 그 아내의 병으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응선은 곧 남쪽 지방의 큰 선비로서 여러 번 조정을 놀라게 했는데, 집이 가난하고 운수가 기박하니몹시 애석한 일이다. 응순은 내가 북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이 광산길가에 있기 때문에 날더러 찾으라고 정성껏 말했건만 잘못 딴 길로 들어서 그 길로 지나지 않게 되어 그 약속을 저버렸으나, 그는 반드시 이 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고 뉘우친들 어이하리.

9일 동안에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고, 육지와 바다의 귀한 음식이 끼니마다 갖추어지지 않은 날이 없어, 비단 내 배가 몹시 배부를 뿐이 아니라, 종놈까지 배가 불러 음식 남기는 것을 싫어할 정도였다. 내 누이가 비록 나를 마음껏 대접하고 싶어도 만일 경흠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혼자 이루었겠는가? 우리 형제들은 모두 서울에 있건만 홀로 이 누이만이 남쪽 끝에 떨어져 있어 부모형제와 멀리 있으니, 천리에 서로 만날 것을 다시 어찌 기필할 수가 있겠는가? 서로 작별하는 날 누이도울고 나도 울어, 서로 보고 말이 없으니, 인생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누이는 손수 버선을 지어서 주었다.

4월 9일에 참고 헤어져 와서 남평(南平) 땅 촌집에서 자고, 빠른 지름길을 거쳐서 가다가 집 실은 말이 논에 자빠져서 침구가 모두 젖었다.

이튿날 능성(陵城)을 지나서 화순현(和順縣) 전원(前院) 누상(樓上)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말에 꼴을 먹이고 광산 경양역(景陽驛)에 이르러 잤다. 찰방(察訪) 김 공 여 봉(金公汝峰)은 마치 사신 일행을 따라가고 집에 있지 않다.

이튿날 아침에 창평(昌平)에 도착하니 창평군수 심사화(沈士和)는 곧 우리 재종형인데, 마침 병으로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이름을 통했더니 관청으로 나를 맞아다가 누워서 인사를 한다. 임직보(任直甫)·자장(子張) 숙질도 역시 사화(士和)의 병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들은 사화 형제와 인척으로서 나의 소년 시절 친구이기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하다. 천리 밖에서 만나는 것은 뜻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함께 관청 방에서 자면서 밤이 새도록 회포를 풀었다. 주인 형이 넉넉히 노자를 주 었다.

이튿날 일찍 떠나서 옥과(玉果)를 지나 대령(大嶺)을 넘어서 밤중에 도로 용성부 (龍城府)에 이르러 주인집에서 잤다.

새벽에 길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아서 냇가에서 밥을 지어 먹고 말을 풀밭에 놓아먹였다. 흰 돌과 맑은 물이 몹시 사랑스러워 볼 만하다. 발을 씻고 웃통도 닦아 먼지를 없애니 가슴이 시원하여 상쾌하고 상쾌하다. 수분원(水分院)에 이르니 이곳은 곧 장수 경계다.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달려 장천에 이르니 해가 아직 저녁때가 되지 않았다. 이는 곧 이달 13일이다.

나는 본래 서울 사람인데 여기에 손이 된 지가 이제 4, 5개월이 되니 나나 종이나 모두 옛일과 같다. 한번 남쪽으로 오면서부터 도로 이 고을을 바라보니 마치 내 고 향과 같았는데, 이제 경계에 들어오니 내 마음이 또한 기쁘다. 인정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이른바, '문득 병주(并州)를 바라보니 이것이 내 고향이다'라는 것이다. 이 시윤(李時尹)은 그저께 서울로 돌아갔다 한다. 내가 달려온 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대오기 위한 것이었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럽다.

16일에 전하는 말을 들으니 왜선 수백 척이 부산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더니, 저녁에 들으니 부산과 동래(東萊)가 모두 함락되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이길 수 없다. 생각건대 성주(城主)가 굳게 지키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17일에 현리(縣東) 전천우(全天祐)가 서울 가는 편에 집에 편지와 제수(祭需)에 가장 필요한 물건 약간을 보냈다. 종이 29일 제사에 대가지 못해서 늙은 어머니 걱정을 끼쳐 드릴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19일에 두 종에게 말을 주어 올려 보냈다. 이후로부터 영남(嶺南)에서 변의 보고가 하루에 세 번이 나왔는데, 용맹스런 장수와 강한 군사가 왜병의 소식만 듣고 먼저 무너지고, 큰 고을과 견고한 성이 하루도 못 되어 함락한다고 한다. 왜병은 세 길로 나누어 바로 서울로 향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마치 사람이 없는 데에 들어가듯 한다. 신립(申砬), 이일(李鎰) 두 장수는 조정에서 믿는 바로 견고하게 지

킬 줄 알았는데, 부월(斧鉞)을 받고 와서 지키다가 중도에서 패한 바 되어 조령(鳥 齒)의 험한 곳을 지키지 못하여 적이 서울로 들어가서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파천 하고 도성(都城)을 지키지 못했으니, 슬프다. 우리 생 령(生靈)들이 모두 흉한 칼날 앞에 피를 흘리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유리(流離)하여 떠돌아 죽고 산 것을 알지 못하니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다.

두 종이 서울로 간 뒤로 큰길의 군마(軍馬)들이 행인의 말을 빼앗는다고 한다. 시윤이 데리고 간 관인(官人)이 도로 내려올 때도 중에 은진(恩津) 마야(馬野)에서 만났고, 그 뒤로는 간 길이 어떤지 듣지 못했다고 하니 더욱 몹시 민망하고 걱정된다. 만일 두 종이 서울에 도착했으면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은 적의 칼날이 강을 건너기 전에 데리고 피했을 것이다.

또 들으니 27일 후로는 굳게 도문(都門)을 닫아서 출입할 수가 없고, 그믐날 새벽에 주상께서 종묘를 버리고 파천을 떠났다 한다.

5월 3일에 적이 도성으로 들어가니 그간 2, 3일 동안은 온 서울의 사녀(士女)들이 다투어 성문을 나가서 스스로 서로 밟아서 죽기도 하고, 혹은 앞뒤에서 서로 잃고 죽기도 했다고 한다. 길에서 들은 말이니 비록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치가 혹 그럴 것도 같아서 통곡함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주상께서 굳게 도성을 지키고 장수에게 명하여 방비하고 막고서, 강을 끼고 위아래에 목책을 많이 만들고 먼저 침선(沈船)으로 하여금 그 길을 끊었으면 적이 아무리 강하고 예리해도 어찌 능히 날라서 건너오겠는가. 계교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데, 먼저 스스로 물러나 도망하다니 몹시 애석한 일이다. 또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은 평생에 문밖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도망하려면 형세가 걸어서는 갈 수 없을 것이니, 어디서 도중에서 서로 모여서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차라리한번 죽어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믿고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두 아들은 반드시 미리 도망해 피하도록 했을 것이다. 또 생각하기에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내가 편안히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함(允誠)은 또한 해서(海西)의 처가에 있으니 부모가 죽고 산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반드시울 것이니 더욱 슬픈 일이다. 일찍이 옛날 역사를 보다가 난리 속의 사람이 동서로

도망하여 각자가 살기를 도모하느라고 부모ㆍ처자ㆍ형제ㆍ친척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을 덮고 가슴 아파했는데, 어찌 오늘날 몸소 친히 이 꼴을 보 게 될 것을 알았으리오. 또 이 고을은 지금 놀라고 급한 일이 없고 조석 식사도 옛 날과 같으니, 매양 밥상을 대하면 깊이 늙은 어머니와 처자의 일을 생각하여, 어느 곳 어느 산에서 식사도 못 하고 굶주려 서로 울고 있는가.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니 차마 무슨 마음으로 수저를 들고 음식을 넘기리오. 하 늘이여! 땅이여! 망극하고 망극하도다. 영남 사람에게 들으니 섬 오랑캐들이 화를 꾸며 민심이 흩어지는데도 이를 막는 자가 없다고 한다. 그 도의 방백(方伯) 김수 (金晬)는 지난해 초부터 남쪽 백성들을 많이 몰아다가 지키지도 못할 성을 쌓노라 올봄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 역사를 마치지 못하여 농사짓고 김매는 시기를 잃 어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이들은 심지어 가요(歌謠)를 지어 말하기를. "굽은 성을 높이 쌓은들 누가 능히 적을 지키리, 성이, 성이 아니라 백 성이 바로 성이라네"했다. 좌도 병사(左道兵使) 신립은 군사들의 위엄을 세우고자 하여 큰 곤장을 물에 불려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엄한 형벌을 내려, 매를 맞다 죽은 자가 몹시 많으니 사람들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져 모두 적이 오기를 기다리 다가 하루아침에 화가 일자 한 사람도 의기를 분발하여 적을 쳐서 군부(君父)의 부 끄러움을 씻지 못하고 숲 속으로 도망하여 잠시의 목숨을 보전하려 했다. 이것은 비단 영남만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도의 인심도 또한 그러하여 모집한 군사가 모이기도 전에 먼저 무너져 흩어질 마음부터 가지고 거짓말로 선동하여 사람들이 굳은 의지가 없어. 미리 집안 살림을 혹 땅에 묻거나 혹 딴 곳으로 옮겨. 적이 오 기를 기다려 도망해 피하려고 한다. 이름이 병적(兵籍)에 있는 자는 혹 집에 있다 가도 먼저 달아나고, 혹 중도에서 도망하기가 일쑤였다. 또 들으니 완산통판(完山 通判) 이성임(李聖任)은 우주창(牛朱倉)에 군사를 주둔시켰다가 하루아침에 무너 져 흩어졌으며, 전 첨사(前僉使) 백광언(白光彦)은 금구현(金溝縣)에서 군사를 통 솔하고 있다가 또한 모두 도망해 갔다고 하니, 슬픈 일이다. 인심이 이러하니 비록 공명(孔明)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한들 어찌 능히 수습하겠는가. 참으로 원통 한 일이다. 저번에 순찰사가 임금의 뜻을 받들고 군사를 모집하여 공산(公山)에 주 둔하다가 주상이 파천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흩어 버리고 돌아왔다. 만일 이때 에 바로 서울 근처로 와서 혹 뜰을 깊이 파고 보루(堡壘)를 높이 쌓고서 싸우지를 않거나 혹 그 요해처(要害處)를 막아서 적으로 하여금 나아가도 물러가도 못 하게 하고서 안팎이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했더라면 서울은 이것을 믿어서 견고할 수가 있어 이같이 졸지에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요. 사방에 있는 군사들도 또한 계속해 이르렀으면. 우리 땅에 깊이 들어온 적들이 제아무리 번지고 확장되어도 피차가 세력을 잃어서 한 달이 되기 전에 저절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양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먼저 스스 로 본진(本陣)으로 돌아가서. 주상이 욕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신하가 죽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런데 윗사람이 행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본받았으니 어찌 군졸 이 도망해 흩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으리오. 춘추(春秋)의 뜻으로 의논하자면 동호 (董狐)의 형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 비록 통분해한들 무 엇하리오. 믿고 조금이라도 편안할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의병(義兵)의 움직임인 데, 들으니 여러 고을의 군사가 모두 서로 바라보기만 하여 절반은 도망해 흩어졌 다 하니 큰일을 어떻게 능히 구제할 것인가. 평일에 녹(禄)을 먹을 때에는 각각 스 스로 이를 자랑하여 모두 충성된 마음을 자랑하더니, 위태로운 일을 당한 오늘날 에는 군부의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고 먼저 목숨을 연장할 곳만 생각하여. 수백 년 된 종묘와 사직이 편안히 있을 곳을 알지 못하겠으니. 쓸데없는 썩은 인생이 무릎 을 안고 길이 탄식하여 한갓 분한 눈물을 더할 뿐이다. 난리가 일어나면서부터 잠 자고 밥 먹는 것을 모두 잊고 밤중에 잠 못 이루는데 밝은 달이 창에 비친다. 뜰에 나가서 관을 벗고 빌기를. "워컨대 다시 늙은 어머니를 본다면 비록 죽어도 뉘우 침이 없을 것이다. 황천(皇天)과 후토(后土)가 실로 보고 있으니 반드시 서로 저버 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두 종이 가기 전에 만일 이 같은 가벼운 차림으 로 홀로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떠나기 전에 도착하여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함께 혹 지기도 하고 혹 이기기도 하며. 혹 자빠지고 혹 엎어져서 함께 어려운 것을 맛 보면서 혹 줄이기도 하고 혹 먹기도 하며, 혹 죽기도 하고 혹 살기도 하여 신산함 을 같이 했던들 비록 고초를 수없이 당해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후회하리오.

그런데 몸이 편안한 곳에 있어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전과 같으면서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자매로 하여금 홀로 이 환란을 겪게 했으니. 이제 비록 늙은 어머니와 처자 와 자매와 함께 풀밭에서 자고 함께 풀뿌리를 먹고자 한들 될 수가 있겠는가. 말 이 여기에 이르니 깊이 통곡하고 죽고자 한다. 또 들으니 왜적이 도성에 들어온 뒤 로 군사를 놓아 사방으로 약탈한다고 하니, 만일 산을 뒤지고 숲을 깎는다면 산골 짜기에서 연명하던 자가 반드시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더욱이 통곡할 일이다. 늙은 어머니는 성질이 좁으셔서 평시에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어도 문득 식사를 물리치 고 종일토록 들지 않으셨는데, 이제 큰 난리를 만나셨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마음 이 초조하실 것이다. 이제 망극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통곡하지 않으랴. 아내는 본래 다리가 아파서 비록 멀지 않은 곳이라도 오히려 걸어서 가지 못했는데 난리 를 만나 도망하느라 산과 내를 넘고 건너려면 또한 반드시 고생스러울 터이니, 스 스로 머리를 맺은 정을 생각하면 어찌 목이 메지 않으리오. 위로 두 딸은 부도(婦 道)에 못 미치는 일이 없어서, 평일에 집이 가난해서 미음과 죽으로도 끼니를 잇지 못할 때도 먹는 데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입는 데 따뜻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어버이의 뜻을 승순(承順)하여 한 가지 일도 거역하지 않으므로 내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막내 숙단(淑端)은 얼굴이 곱고 밝으며 성질이 몹시 단아하여 내 몹시 사랑하던 터라. 고운 마음과 눈매가 자나 깨나 눈에 보이니. 《시경》에 이 른바. "귀여운 막내딸이 실로 내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로다. 이 두 구절을 쓰노라 니 슬픈 눈물이 저절로 옷을 적시는 것을 어찌 금하겠는가. 아들놈은 성질이 게으 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에 지난해 초봄에 너무 과하게 매를 때린 것을 오늘날 생 각하니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 아우 희철(希哲)은 혼자서 큰 변을 당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피란하여 어떻게 화를 벗어나는가. 그 아내는 잔약해서 본 래 뇌통(腦痛)을 앓았고, 또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난리가 창황한 때에 어떻 게 온전함을 얻겠는가. 남상문(南尙文)의 아내가 된 누이는 반드시 적성(赤城) 중 온(仲溫)의 집으로 달아났을 것이니 보전함을 얻었을 것이오. 김매(金妹)는 별로 피할 곳이 없으나 제 남편 자정(子定)이 있으니 어찌 몸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걱 정하리오. 다만 깊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한 집의 몸을 피할 곳이니, 서쪽으로 달

리고 동쪽으로 달려도 하나도 편안한 곳이 없을 것이다. 만일 심열(沈設)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강릉(江陵)으로 달아났으면 거의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어찌 기필할 수가 있으랴? 내 처자는 윤겸 형제가 서울에 있으니 반드시 죽고 사 는 것을 같이할 것이나. 다만 윤겸은 일찍이 광묘(光廟)의 영정을 모시고 능소(陵 所)에 있었으니 한집의 사사로운 일로 해서 버리고 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처가 에는 또 남자가 없으니 처속(妻屬)들이 보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윤해(允諧)는 또 한 양모(養母)와 처자가 있으니, 창황하고 급할 때에 피차가 주선한대로 형세가 서 로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젖먹이 걷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는 터이겠는가, 매 양 이것을 생각하면 민망하고 망극할 뿐이다. 우리 아버님 신주(神主)는 아우가 어 떻게 처리했는지, 깨끗한 곳에 묻었으면 이것이 좋은 방법인데, 만일 모시고 떠났 다면 온전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종가(宗家) 선조의 신주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 만일 버려두고 피해 갔다면 반드시 불에 탔을 것이니 또한 민망하고 걱정되는 터 이다. 우리 문중(門中) 안팎이 무려 백 식구인데 난리에도 망해 흩어질 때 각각 스 스로 목숨을 도망하여 그 살아 있고 죽은 것을 실로 알 수가 없으니, 우리 늙은 어 머니와 처자 · 아우 · 누이 이외에도 오히려 걱정이 되어 놀랍고 불쌍한 마음이 역 시 마음속에 있다. 또 이 고을에 있던 서울 종이 지난 4월 26일에 서울을 떠나서 그믐날 비로소 도착하여. 어머니와 아내의 편지도 또 왔는데 모두 20일에 쓴 글이 었다. 그때는 난리가 이처럼 급하지는 않아서 글 속에 민망하고 괴로운 모습은 다 알 수가 없는데도 눈물이 저절로 먼저 떨어진다. 어머니 편지 속에는 자신이 고생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먼저 나와 임매(林妹)가 유리하는 일만 생각했으니 더욱 통 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이 편지를 서갑 속에 간수해 두고 때때로 꺼내 보니 근심스 런 창자는 찢어지려 하고 슬픈 눈물은 옷깃에 가득하다. 이로부터는 비단 우리 한 집의 소식이 아주 끊어졌을 뿐 아니라. 서울 소식도 역시 얻어들을 수가 없으니 두 보(杜甫)가 이른바. "집 편지는 값이 만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황천(皇天)이 돌 보지 않아 우리의 운수가 장차 끝나게 되었으니 열성(列聖)께서 돌보시고 여러 장 수가 힘을 내어 빨리 비린내 나는 것을 쓸어 버려 궁중을 깨끗이 하고. 임금의 수 레가 도성으로 돌아와 종묘와 사직을 다시 편안하게 하고 만백성이 집으로 돌아와 각각 그 생업에 편안케 하고, 다시 늙은 어머니와 처자 · 아우 · 누이 · 친척과 술 잔으로 기꺼이 맞아 각각 유리할 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으며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 겠는가. 천지의 신께서는 밤낮으로 조용히 비시면 높고 낮은 곳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지극한 정성에는 귀신도 감동하는 법이니. 한계 집의 원망도 오히려 3년 의 가뭄을 이루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조선 땅 안에 백성들이 적의 칼날에 죽어서 모래밭에 뼈가 뒹굴고, 숲 속으로 도망하여 한데서 잠자고 바람 속에 지새우는 자 가 몇 만 명인지 모르겠으니. 외로운 지아비와 과부의 원망과 주림에 울고 구렁에 뒹구는 원통함은 또한 얼마나 되는지 알겠는가, 하늘마음도 감동해서 화를 뉘우칠 것이다. 난리가 일어난 뒤로 물건을 스치면 감동하고 슬퍼하여. 심지어 곤충이나 초목·꿈틀거리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회에 들어온다. 뜰 앞의 까치 새끼와 어미가 서로 따르면서 지저귀고. 날개를 치면서 찍찍거리고 먹이를 찾아 서로 즐 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시경》에 이른바, "자식의 아는 것이 없음을 즐긴다"는 것 이다. 담 밑의 붉은 해바라기가 난만하게 꽃이 피어서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기 울이니,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도리어 이만도 못하다. 물건을 보고 회포가 일 어나 눈물이 저절로 옷깃을 적시니, 두보(杜甫)가 말한, "때에 감동하면 꽃에도 눈 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송나라 왕실이 남쪽으로 건널 적에도 비록 참혹하다고는 했지만. 이는 모두 두 임금이 간사한 사람들을 신임하고 주색에 빠져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오랑캐가 화를 일으켜 서주(西州)로 파천하고 청성(靑城)에 포로로 잡 혀가 종묘사직이 기울어 자빠지고 만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으니. 이는 실로 스 스로 취한 것으로서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성상(宣祖)께서는 왕위에 오르 신 지 20여 년에 밖으로는 놀고 사냥하는 즐거움이 없고 안으로는 음악이나 여색 의 거친 일이 없이 밤낮으로 이치를 도모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사 대(事大)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고 이웃과 사귀기를 믿음이 있게 했는데, 어찌 이제 섬 오랑캐가 독을 내뿜어 도성을 무찌르고 장수를 죽여 서울을 바로 함락시 킬 줄 알았겠는가. 이제 장안의 백만 인가가 이미 개나 양의 소굴로 들어갔고, 의 관문물의 고장이 비린내 나는 추한 것에 물들었다. 주상께서는 몸을 책망하여 나 라를 도우려 하시어 간절하고 간절하건만 조정에는 충성을 내어 죽으려 하는 신하가 없고, 방백이 군사를 모집하는 격문이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모든 고을에는 앞장서서 난리에 나가려는 사람이 없다. 의병을 일으키고 군사를 내어 다시 두 서울을 회복하려면 곽분양(郭汾陽) 같은 무열(武烈)을 가진 자가 몇 사람이며, 손에 침을 뱉고 하수를 건너 바로 연(燕)나라 구름을 쓸어버리는 악무목(嶽武穆)의 충성과용맹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모두 살기를 도모하여 구차히 면하려는 자들만이 수없이 많을 뿐이다.

박진(朴晋)이 적진으로 바로 들어가 어지러이 십여 명을 찍어 죽이고 돌아왔다. 또 성산(星山)에서 바로 적이 주둔한 곳으로 들어가 적의 머리를 베어 끌고나왔으니 참으로 쾌한 일이다. 가히 용사로다. 또 들으니 영남우수사(嶺南右水使) 원균(元 均)이 전월(前月) 중에 적선 십여 척을 불태웠다 하고. 이 도의 좌수사(左水使) 이 순신(李舜臣)은 이달 초승에 여러 배를 독려해 거느리고 그 도의 수사와 함께 또한 적선 42척을 불태워 없애고 포로 2명을 산채로 잡았으며 적 3명을 베니 적들은 물 속으로 들어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 숲 속에 숨어 엎드렸다 한다. 애석한 것은 이 러한 기세를 타서 바로 부산으로 쳐내려갔으면 배를 지키는 적이 필시 많지 않을 것이오.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남녀도 또한 반드시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이 다. 적들이 만일 여러 배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육지로 올라 흩어져 달아 날 것이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또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상의 수레가 파천했다 하여 통곡하고 돌아왔다 하니, 사세는 비록 그러했지만 사실은 겁을 낸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주상께서 잠시 나가신 것은 무슨 계교 였던지. 바로 나랏일의 성패를 계획했으면 또한 조금쯤은. 남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성공을 거두는 일이 흙 한 삼태기로 무너졌으니 더욱 가슴 아프 고 애석한 일이다. 또 들으니 영남방어사(嶺南防禦使) 조경(趙儆)은 금산(錦山)싸 움에 적의 공격을 받자. 바로 적의 허리를 껴안고 서로 다툴 즈음에 그 군관이 달 려가서 적의 머리를 베었는데, 경(敬)은 다만 손만 다쳤다 한다.

이달 16일에 주인 형 이빈(李贇)이 의병을 거느리고 진안(鎭安)에 이르렀는데, 7, 8명이 도망해 돌아왔다. 이에 그 부모와 처자와 이웃 일가를 가두었더니 도로 나

타난 자가 많았다. 이것은 비단 이 고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의 군사 도 도망해 흩어진 자가 몹시 많았다. 남원(南原) 군사는 삼례(參禮)에 진을 쳤는데 일시에 흩어져 갔고, 순창(淳昌) 군사들은 중도에서 배반하고 한 진(陣)을 이루니, 딴 고을의 도망하던 군사들도 모두 그 진으로 몰려들어 와서 군기와 군량을 약탈 하여 심지어 장성군수(長城郡守) 백수종(白守宗)도 역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다 가 겨우 피해서 면했다고 한다. 그러한 인심은 움직임을 타서 불의의 일을 일으키 려 하여 흉적의 괴수 숙질을 순창군수가 유인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고 활 쏘는 군 사를 매복시켰다가 중로에서 쏘아 죽이자 나머지 무리는 모두 흩어졌다고 한다. 비록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니 원통한 일이다. 그 뒤에 흩어졌 던 군사들이 차츰 모여들어서 방어하면서 큰길을 거쳐 바로 올라가는데, 순찰사 이광(李洸)은 용안(龍安)에서 강을 건너 충청도 속 길로 해서 올라갔으니, 이들은 모두 이달 20일에 본도(本道)를 떠났다고 한다. 또 들으니 왜적이 경계에 들어온 뒤에 영남 사람은 그들에게 들어가 길을 인도한 자가 몹시 많아서, 혹은 그들과 붕 당(朋黨)을 맺어 왜놈의 말을 하면서 어지러이 민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도 망해 흩어지고, 재산을 약탈해 간 것이 몹시 많다고 한다. 다만 의병이 떠나간 후 로는 장맛비가 그치지 않아 냇물이 불어 넘치는데 대군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반 드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많고, 활과 화살도 또한 내버린 것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활과 화살인데 활과 화살이 이렇다면 그 밖에 무 엇을 믿겠는가? 저 푸른 하늘이 또한 도와주지 않으니 비록 믿기 어려운 일이나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얼굴을 들고 길이 탄식하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원통해할 뿐이다. 또 영동의 의사(義士)들이 동지를 맺어 원수를 갚겠다고 힘차게 일어나서 글을 만들어 널리 알리고 여러 열사들과 함께 일을 일으키려고. 지난 17일에 그곳 사청(射廳)에서 회의를 했다고 한다. 고부(古阜)의 열부(烈夫)도 또한 글을 만들어 여러 고을에 알리고 역시 한 도의 의사들과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려고 이달 27일 에 완산(完山) 참례(參禮) 앞에 모였다고 한다. 성공하고 못 하는 것은 비록 억지로 못 하는 일이나 이러한 의기를 들으니 이 늙고 썩은 사람은 객지에 떠돌아 붙들어 줄 힘은 없고 그저 흠모하고 탄식할 뿐이다. 이 장수현은 궁벽하게 산협 속에 있어 인민이 드물지만 열 집이 사는 고을에도 오히려 충성되고 미더운 사람이 있는 법인데, 두 고을의 격문이 많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한 사람 일어서는 자가 없으니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또 오늘은 25일로서 늙은 어머니의 생신이다. 평시 같으면 우리 동복끼리 각각 술과 떡을 준비하여 하루 종일 모시고 이야기했을 터인데, 지금은 어느 곳에 떠돌면서 서로 모여 울고 있는지? 전의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비처럼 떨어진다. 지난 19일 밤에 꿈에 아내를 보니 완연히 옛날과 같았다. 내가 남쪽으로 온 뒤로 한 번도꿈에 보이지 않더니 오늘 꿈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슬픈일이다. 슬픈 일이다.

22일은 장인 제삿날이다. 나와 종윤(宗胤) 형제가 제사를 지냈고, 주인 되는 형 이 빈은 군사를 거느리고 여산(礪山)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또 이달 초승에 원중성(元仲成)이 영남 우수영으로부터 난리를 피해서 여기에 와서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매일 낮마다 밤마다함께 이야기하니 자못 나그네의 회포가 위로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가에 있는 것이 미안해서 현(縣)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때때로 와서 회포를 풀고갔다. 양재역리(良材驛東) 임언복(林彦福)이 초봄에 일이 있어 영남 땅에 갔다가역시 난리를 피해서 지난달 20일 후에 여기에 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 임언복의 집은 역관(驛館) 동쪽가에 있어서 모든 왕래의 길에 반드시빌어 자고 갔다. 그는 곧 주인 형이 진위(振威)에 있을 때의 옛 주인이어서 대접하기를 몹시 후하게 하고, 넉넉히 관청 양식을 주었다. 그러나 임(林)은 오래먹는 것이 미안해서 지금은 값을 주고 먹고 있다. 먼 땅에 떠돌아 가족도 헤어진 것이 대략 나와 같으나 다만 늙은 어머니가 없을 뿐이다. 전일에 비록 서로 알았지만 토당(土塘) 산소는 멀지 않은 곳이어서 한 번 보아도 옛날에 보던 곳과 같다. 그는 날마다내게로 와서 서로 이야기하니 객지에서 다행한 일이다.

또 성주목(星州牧) 이덕열(李德悅)의 계실(繼室)은 곧 김태숙(金太淑)의 작은딸이다. 지난 4월 20일 후에 난리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다가 성이 함락된 뒤에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져 사람을 잡음으로 간신히 도망해서 혹은 걷기도 하고 혹은 말

도 타고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비로소 여기에 도착하여 용성(龍城) 옛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를 태숙의 둘째 아들이 모시고 와서 적의 형세가 번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그 아우는 뒤에 떨어져 아직 오지 못했다 하더니 조금 후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적의 공격을 받아 겨우 면하여 도망 왔다고 한다. 그의 목에 칼자국이 있어 이것을 보니 몸이 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사랑하는 기녀와 떨어지기가 어려워서 데리고 산속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 누이와 같이 오지 못하고 이제야 온다고 한다. 태숙과 나와 인친으로서 또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 아들이 비록 나이가 젊어도 역시 서로 알고 지낸다. 이 소식을 들은 후로 인심이 흉흉하여 관청에 소속된 사람들도 역시 멀리 피할 생각이 있어 우선 관계없는 물건을 관청 안 땅에 묻고, 그 후에 의복은 현(縣)의 사판(神板) 밑에 묻었었다. 그런데 한 달이 되어 관청 안에 묻은 물건을 파내어 보니 절반은 모두 젖어서 혹은 썩고 망가져서 쓸 수 없이 되었다. 또 현사(縣司)의 물건을 보았더니 그것은 흙이말라 있는 것이 옛날과 같았다. 관청 속은 땅이 낮아서 습기가 있는 때문이다. 약간의 내 옷은 또한 현사(縣司) 속에 있었다.

처서모(要庶母)가 이달 초승에 영진(英真)을 데리고 먼저 석천사(釋天寺)로 돌아갔다. 그곳은 곧 관청에 소속된 사람이 피하려 하던 곳이다. 선윤(善胤) 형제 또한 함께 절로 올라갔다. 그곳은 현(縣)과는 반 식경 거리로 큰 고개가 있는데, 고개를 넘을 때는 형세가 말을 탈 수가 없고 간신히 걸어서 가게 되었으니, 고개가 몹시 높고 가파른 때문이다. 난리를 피하기에는 이 지경 안에 이만한 절이 없다. 다만 고개에 올라가면 내려다보는 데 막히는 것이 없어 이것이 하나의 흠이다. 그러나 절뒤에 깊은 동리가 있어서 적이 만일 지경을 범하면 다시 피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이응일(李應一), 종윤(宗胤)으로 하여금 숨을 만한 곳을 살펴보게 하고 나무를 의지해 집을 짓고 임시로 지붕을 해 이을 계획을 했다. 대개성산(星山)의 내실(內室)이 산에 들어갈 때, 적의 낙리가 산을 포위하고 찾는데 간신히 면한 때문인 것이다. 듣자니 성주군(城州郡)은 함락된 곳이 매우 많아서 심지어 산으로 피한 사람까지도 모두 찾아내서 죽이고 약탈했는데, 그중에서도 성산이 더욱 참혹했다고 한다. 관청 중 중에 자식이 있는 자도 또한 미리 산참(山屿)으로

보냈으나 수주(嫂主)는 적이 가까운 곳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피하려 했으나, 만일 관청 안에서 먼저 피하면 반드시 온 현이 놀라서 움직일 것이라 하여 서서히 보아 가면서 처리하려 했었다.

또 들으니 왜적이 영남 사녀(士女) 중에 그 얼굴이 고운 자를 뽑아서 배 다섯 채에 실어 먼저 저희들 나라로 보내서 머리를 빗고 분 바르고 눈썹을 칠하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문득 노하기 때문에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따른다고 한 다. 이들은 사실 모두 먼저 간음을 한 여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 뜻에 만족해하 지 않으면 여러 적들이 돌아가면서 간음했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고 참혹한 일 이다. 이 말은 현의 복병장(伏兵將) 김성업(金成業)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친히 들었으니 반드시 헛말이 아닐 것이다. 전일 금산싸움에 한 여인이 역시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 나와서 살 려 달라고 애걸했다. 그가 사는 곳을 묻자 처음에는 숨기고 말하지 않다가 뒤에는 사실대로 말했다 한다. 본래 성주에 살던 선비의 부인은 흉적이 뜻밖에 마을로 들 어오자 그 시어머니와 함께 피해 달아날 때 적에게 잡혀서 여기에 왔는데. 여러 적 들이 돌려가면서 간음을 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죽으려 하나 죽지 못하 고 시어머니의 생사도 모른다 한다. 다만 허리에는 찢어진 치마만 걸려 있고 속옷 은 없는데 우리 군사들이 치마를 올리고 보니 음문(陰門)이 모두 부어서 걷지도 못 한다 하니 더욱 참혹한 일이다. 고을 사람들 중에 군대에 따라갔던 자들이 친히 보 고 와서 말한다.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10년 사이에 여러 번 남북의 환란을 당하 더니 금념에 이르러 더 지극했다. 계미년 겨울에 북쪽 오랑캐가 경워(慶源)을 침략 했을 때 나는 그 지키지 못한 것을 업신여겼고. 정해년 봄에 남쪽 오랑캐가 강해지 자 대를 쪼개듯이 우리를 쳤고. 기축년 가을 늦게 적신(賊臣) 정여립(鄭汝立)이 본 래 조정에 있던 신하로서 비밀히 임금을 배반할 뜻을 품고 황해도 어리석은 백성 들과 함께 장차 불측한 일을 도모하다가 일이 실패되어 베임(복주(伏誅))을 당했는 데, 그의 말이 높은 벼슬아치들에게까지 연루되어 머리를 늘여 베임을 당한 자가 몹시 많았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주인 형 이빈이 의병을 거느리고 금강(錦江)에 이르러 군사를 내어 준 뒤에 이달 26일에 비로소 들어왔다. 그에게서 들으니 성에 들어온 적들이 발에 종기가 나고 기운이 피로하여 밤이면 흩어져서 곤하게 잠이들었다. 이에 우리는 상을 주면서 용감히 죽을 군사 50명을 모아서 어둠을 타고 어지러이 적을 쳐 죽여서 지난달 8일에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 밑의 한 장은 칼로 잘리었는데, 역자의 생각으로는 왜에 관한 기술이어서 왜가보고 없앤 것인 듯싶다]

이때 군사가 십여만 명이나 되니 만일 슬기 있고 용맹한 장수 두 세 명이 그 강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 그 험한 요새를 막아 저들로 하여금 쉽게 넘어오지 못 하게 하고, 이따금 유격병으로 그들의 뒤를 끊게 한다면 저들도 또한 사람이니 죽 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역시 반드시 있을 것인데. 충돌하기를 이같이 급히 하는 것을 무엇을 근심하리오. 여기에 쓸 만한 장수와 재상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더욱 알 수가 있으니 아아! 원통한 일이로다. 또 들으니 영남 유생 곽재우(郭再祐)가 홀 로 그 용맹을 뽐내어 스스로 용맹한 군사 네 사람을 이끌고 적의 배 세 척을 쫓았 고, 그 뒤에 또 13명을 거느리고 적의 배 11척을 격퇴해 쫓았다고 한다. 또 들으니 황간(黃澗)에 들어와 점령했던 적 13여 기병이 영동(永同)을 와서 침범하여 먼저 민가를 불태우고 소리를 치면서 어지러이 들어오자, 품계 있는 관원 두 사람과 관 인(官人) 몇 사람이 이들을 쫓아 어지러이 활을 쏘더니 모두 흩어져 갔다고 한다. 그 뒤에 5, 60명의 적이 또 와서 지경을 침범하자 현감(縣監)이 혼자서 활 쏘는 사 람 6. 7명을 거느리고 어지러이 쏘니 적들이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몇 사람이 있 었다. 이에 적은 피해서 달아나다가 다시 두 대(隊)로 나누어 앞뒤에서 어지러이 들어오니. 6. 7명의 군사를 가지고서는 형세가 막아 낼 수가 없어 달아나 산으로 올라갔다. 적들은 우리 군사 한 명을 죽이고 관청 창고와 객사를 모두 불태우고 돌 아갔다 한다. 우리가 만일 2, 30명의 용사가 있어 일제히 일어나 막았던들 반드시 저들이 경솔히 돌격해 올 근심이 없었을 것이다. 또 들으니 성산에서 성을 점령하 고 있던 적이 역시 백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무리로 목(牧)을 삼고 또 우리 나라 중들로 판관(判官)을 삼아서 관곡을 나누어 주어 인심을 수습하자. 백성들은 모두 다투어 이것을 받으면서 엎드려 목숨을 빌고 혹은 말하기를. "새 상전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고 한다. 길(道)에서 하는 말이 비록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듣

고 보니 간담이 들끓어 올라 수저를 놓고 밥 먹을 생각을 잊는다.

또 들으니, 밀양(密陽)태수가 (이 아래 한 장은 칼로 도려내어 없어졌다)

또 합천(陕川)·초계(草溪)·고성(固城)·진주(晋州) 등지에서 육지의 적이 번져나와 심지어 관청 창고에서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이것은 흩어져 도망하던 군사들이 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무리로 모여서 도둑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곡식을 두루 거두어 나누어 주도록 여러 가지로 타일러 기어코 마음을 고쳐 돌아서서 편안히 모이도록 했으나, 그중에는 끝내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는 군사가 있으므로 이들을 장차 토벌할 것이라 한다.

또 이달 25일의 운봉(雲峯)에서 전하는 통문에 보면, 초유사(招論使) 김성일(金誠 一)이 진주에서 비밀히 여러 고을에 전하기를, "왜적이 창원(昌原)에 있는 자가 전 라감사니 어사. 또는 도사 · 찰방이라 하고 23일에 길을 떠나 단성(丹城) · 함안(咸 安) · 의령(宜寧) · 함양(咸陽) · 운봉 · 남원 · 임실(任實) · 전주를 거쳐 길을 가리킨 다 하니 몹시 해괴하고 놀라우나 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스럽다" 한다. 만일 왜적이 먼저 글을 내고 영남의 여러 고을을 지나서 호남에 이른다면 응 당 먼저 방어할 것이니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 그 뒤에 이제 4, 5일이 되었는 데 아직 소식도 없으니 더욱 알 만하다. 또 들으니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은 상 주(尙州)에서 5리쯤 되는 북천(北川)에 이르러 적과 접전하는데 탄환이 비처럼 쏟 아지고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부득이 물러갔고. 종사관(從事官) 윤섬(尹暹)은 어 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니 죽었는지 모른다. 또 신립은 순변사의 명령을 받고 충주 (忠州)에 도착했으나 적을 가벼이 여기고 방비하지 않았다가 적에게 틈을 주어 한 번 패하여 땅에 떨어져 여러 군사가 모두 죽었고 립(砬)은 못에 빠져 자살했으며. 이때 김여물(金汝岉)도 역시 그 군중에 있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 하니 원통하 고 눈물 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신립은 본래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북쪽 지방에서 공을 세워 주상께서 많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할 때 서울에 있는 무고(武庫)의 좋은 병기를 모두 가지고 갔었는데, 하루아침에 패하 여 몸이 강물 속에 죽었으니, 주상께서 파천한 것도 또한 이 때문이었다. 그 종묘 사직을 욕되게 한 것이 많으니 더욱 원통한 일이다.

또 지난달 29일은 곧 아버님의 돌아가신 날이다. 내가 이 고을에 있기 때문에 주인 되는 형이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려 주면서 날더러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이제 서울집의 일을 생각하면 왜적이 가까이 닥쳐와서 온 도읍이 황황하게 지낼 터인데 어느 겨를에 제사를 지내겠는가.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달 20일 및 29일은 또한 수양 삼촌의 기일이다. 서울집 처자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이 고을도 또한 일이 많기 때문에 형세가 한 잔 술도 올리지 못했으니 마음이 더욱 몹시 비통하다.

또 어젯밤 꿈에 내가 서울에 있는 것 같이 친척과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아내도 또 한 보았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죽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내 꿈에 꾸어지는 것인가. 열흘 동안에 어찌해서 이같이 두 번씩 이나 꿈에 뵈는 것인가. 평생 집이 곤궁하여 항상 어렵게 지내어 하루도 얼굴을 펴 는 때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난리를 당했는데. 만일 다시 만나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평생에 원통한 심정을 어찌 이길 수 있으랴? 이것은 곧 이달 28일이다. 이튿날 전 만호(萬戸) 이충(李沖)이 일찍이 경상우수영(慶尙石水營)의 병막(兵墓) 에 갔는데, 수사(水使) 원균이 또 적선 24척을 불사르고, 적병 7명의 머리를 베었 다. 이에 임금에 올리는 글을 갖추어 가지고 이 고을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서로 만 나게 되니 근심스런 회포가 자못 넓어지는 것 같다. 그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해 주면서 윤겸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다만 딴 곳으로 떠돌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러나 이 공(李公)은 말하기를, "바로 임금 계신 곳으로 가서 글을 올린 후에 양주(楊州)로 가서 늙은 부모를 찾겠다"고 하니, 만일 그 아우 이정(李淸)에게 전해 주어서 봉선전(奉先殿)으로 보낸다면 광릉(光陵)과 양주와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공은 나와 함께한 동리에 살아서 두터운 교분이 있고. 그 아우 정은 윤겸의 소년 시절 친구이다.

6월 2일.

(이 아래는 칼로 도려냈다)

선조교서(宣祖敎書)

임진 4월 25일

안팎의 크고 작은 신료와 한량(閑良) · 기로(耆老) · 군민(軍民) 등에게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내 어두운 바탕으로 조상의 기업을 지키노라 근심하고 부지런히 다스 려 온 지가 24년이 되었다. 몸소 친히 여러 가지 사무를 돌보아 조그만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점심때나 되어 밥을 먹고 밤이 오랜 뒤에 잠을 자며. 감히 말 달 리고 사냥하는 놀이와 음악과 여자를 데리고 하는 잔치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좌 우에 있는 신하들이 또한 혹 나를 본받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건대 이치 를 살피는 것이 밝지 못하고 정치가 그 요점을 잃어서, 어진 것이 실지로 있지 못 하고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늘의 재앙과 시절의 변고가 해마다 경 계를 보이고, 세도(世道)와 인심이 날로 흩어져 사라지건만 오히려 놀라서 깨달아 풍기(風紀)를 고쳐 이치를 도모하지 못하고. 정령(政令)과 시설(施設)이 백성을 병 들이는 것이 많았으니. 여기에서 우선 백성들의 원망에 뚜렷이 나타난 것만 추려 서 말하리라. 역사가 계속되어 거듭 백성들의 힘을 괴롭히고. 궁중이 엄하지 못해 서 백성들을 조그만 이익으로 속여서, 심지어 외지의 산택(山澤)에 이르기까지 또 한 위세(威勢)의 점령당한 바가 되고, 생업을 잃은 백성들을 오로지 역사하는 데 로 몰아넣어 무리들의 원망이 시끄러운데도 나는 어두워서 이를 알지 못하고 깊이 궁중에 파묻혀 있어 곧은 말을 막으면서 오히려 가까이에 병이 있는 것에는 어둡 고 오직 변방의 근심만 생각했었다. 이에 성을 쌓고 못을 파며 군사를 조련하고 병 기를 수선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적의 칼날에서 면하려 했었는데. 어찌 백성들의 원망이 이로 인하여 더욱 쌓이고 인심이 이로 인하여 더욱 떠나갈 줄 어찌 뜻했으 리요. 적의 군사가 지경 가까이에 오자 소식을 듣고 먼저 무너져서 백성을 보호할 병기가 도리어 적을 위하는 자료가 되었으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스스로 몸을 용 납할 곳이 없도다. 이제 들으니 왜적의 무리가 날로 더욱 심해진다니 어찌 적이 육 지에 오른 뒤에 더 많은 수가 생긴단 말인가. 반드시 우리 백성 중에 적을 두려워 하는 자가 오히려 적에게 이용되어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창을 거꾸로 들고 덤 비는 것이리라. 나의 잘못한 방법이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마땅하도다. 우리 조종

(祖宗)의 2백 년 휴양하신 은혜가 하루아침에 땅에 쓰러졌으니 내 정말 원통해하 노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남은 실로 우리 인재의 창고여서, 부로(父老)들은 충 효(忠孝)로 가르치고 자제들은 시서(詩書)를 배웠기 때문에, 김유신(金庾信)이 강 개하여 난리를 평정한 것과 김춘추(金春秋)가 몸을 내놓아 적을 막은 것이 모두 그 지방 사람이다. 그 기풍이 모인 곳이 옛날에도 또한 오로지 아름다웠는데. 여러 고 을 60여 구(區)에 어찌 충의의 선비가 팔뚝을 걷어 올리고 강개하게 국가의 급한 일에 나가는 자가 없단 말인가? 원충갑(元冲甲)은 한 필부로서 능히 약탈하는 적 을 꺾었고, 유차달(柳車達)은 한 부민(富民)으로 군사의 일어남을 잘 도왔으니, 진 실로 손에 침을 뱉고 일어나서 우리 조종조(祖宗朝)의 남기신 은택을 저버리지 않 는다면 조정에 간직해 둔 벼슬자리를 내 아낄 것이 없으니. 살아서 아름다운 이름 을 얻고 그 은택이 자손에게까지 내려갈 것인즉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이제 들 으니 적병이 배를 먼 포구에 버리고 이익을 탐하여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해처 의 지세가 모두 그들의 뒤에 있는지라. 좌우에서 가리고서 치고 앞뒤에서 서로 의 지하여 궁한 도적을 섬멸할 때는 바로 이때이다. 그런데 적의 칼날을 보지도 못하 고 먼저 저마다 도망해 피해서 저들로 하여금 길에 몰고 오는 형세를 만들게 하니, 생각건대 저 사졸(士卒)들은 대대로 그 땅에 살고 있어서 늙은이나 어린이가 그 집 에 있고 무덤도 그 땅에 있는데, 서로 힘을 모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적이 짓밟 고 불사르게 내버려 두다니 생각하면 슬프기만 하니. 어찌 내 홀로 마음이 편안하 겠는가? 또 들으니 서울 사람들도 또한 서로 놀라고 의심하여 모두 흩어질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일을 구할 의리는 없다고 한다. 종묘와 사직이 여기에 있고 신령이 보 고 있는데, 충성을 뽐내고 몸을 잊고 임금을 위하여 적을 친다면 명성과 위세가 저 절로 떨쳐질 것인데, 적을 어찌 평정하지 못하라.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원망을 거 두어 시세가 여기에 이르게 했으니, 그 죄는 실상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얼굴 을 들면 부끄러울 뿐이다. 생각건대 너희 선비들을 그 조부 그 아비 때로부터 국가 의 후한 은혜를 입어 온 지가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난리를 당하자 근대로 나를 버 리고자 하니 나는 너희를 허물지 않더라도 너희야 어찌 차마 나에게 그렇게 하는 가. 이제 두루 교서를 돌리노니 마음과 창자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오히려 과감하 고 굳센 마음을 내어 의병들을 규합해 가지고 나의 장수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 적을 섬멸할 것을 기약하여 조종(祖宗)의 부끄러움을 씻고 산하의 욕됨을 없애게 하라. 그리고 각 도의 군사와 백성들을 모두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 지극한 뜻을 알아주어 분발하여 적을 소탕하여 전과 같이 편안케 하도록 하라. 아아! 안으로 핍박을 당하고 밖으로 업신여김을 받으니 내 비록 전쟁을 일으킨 책임은 있으나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 법이니, 너희가 어찌 적을 무찌를 충성이 없으리오. 그런까닭에 여기에 교서를 내리는 것이니 마땅히 알아서 처리하라"했다.

만력(萬曆) 20년(선조 25년, 1592년) 5월 11일에 사인(舍人) 심대(沈岱)가 교서를 받들고 본도(本道)의 도순찰사(都巡察使)가 있는 전주부(全州府)에 이르러 글을 전하여 두루 여러 고을에 돌리다가 진안으로부터 여기에 도착했다. 주인 형은 군복 차림으로 이를 맞아 전후 네 번 절하고, 현리(縣吏) 이언홍(李彦弘)이 교지를 읽으니, 이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번 듣자 자기의 잘못을 책망한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감동하는 기회가 어찌 임금에게 있지 않은가? 아아! 아름다운 일이로다.

영동인통문(永同人通文)

임진 5월 13일

나랏일이 여기에 이르니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저 적병이 이미 서울로 향했으니 대저 신민(臣民)된 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갖겠는가. 통곡하고 통곡할 뿐이다. 부자와 군신 사이는 한결같이 사이가 없는 법이니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 있으면 잠자고 먹는 것이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하물며 난리를 치를 곳은 부모가 모두 죽었고 처자가 포로로 잡혀가고 온 집이 불에 타 버려서 대로 내려오던 생업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니, 천지 사이에 원수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만일 미리 막지 못하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힘을 다하여 보복하려 하는데,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은 그 또한 생각이 어떠한가? 귀천을 따질 것 없이 담력이 있고 활을 쏠 줄 알고 재주와 용맹이 있는 자는 이달 17일에 영동의 사청(射廳) 근처에

모여서 큰일을 의논해 정했으면 천만다행이겠다.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글을 보지 못할까 걱정되니 조심성 있게 보통 하는 말로 통문의 대략을 속히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면 반드시 충신 의사가 손바닥에 침을 뱉고 일어설 것이다. 통곡함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같은 달 16일에 여기에 도착했다.

전주 유생 통고 좌도 열읍문(全州儒生通告左道列邑文)

나라의 우수가 불햇하여 섬 오랑캐가 침범해 와서 수백 년 내려온 종묘와 사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고. 12대 동안 쉬고 양육해 오던 백성들이 반은 어육(魚肉)이 되었으며 임금의 수레가 관문을 나간 후로 소식이 막연하여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통곡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오직 우리 한길에 나라 안이 아직 보존하고 군사의 식 량이 아직도 넉넉하니. 이는 실로 국가에서 회복되기를 의뢰할 때이다. 혹은 거짓 말을 떠들어서 인심이 흩어져서 적병이 오기도 전에 먼저 도망갈 것을 생각하여. 적이 만일 지경을 범하면 장차 어떻게 막겠는가? 모든 우리 한 도 사람들의. 부형 (父兄)이 된 자는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버리도록 자제들을 권하여 경 계하고, 사졸(士卒)이 된 자는 윗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도록 지기(志 氣)를 면려(勉勵)하여, 손에 침을 뱉고 적의 칼날을 막아 내어 산천의 부끄러움을 씻어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 적을 섬멸하고 조종의 업을 광복한다면. 군부를 위하 여 어려움을 급히 여기고 보복하는 의리에 있어 거의 다했다고 할 것이다. 열 집만 있어도 오히려 충신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이 호남에 어찌 용맹하고 지혜 있어 의 리를 뽐낼 자가 없겠는가, 혹 서로 천거하고 권장해서 크게 쓰이도록 하고, 혹 곡 식을 바치고 말을 바쳐서 군자(軍資)가 계속되도록 도울 것이며, 공사(公私)가 힘 을 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히 오늘 우선 급한 임무다.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해서 신자(臣子)로서 이를 구제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건대 반드시 서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낮은 생각으로 먼저 포고(布告)하 지 않을 수 없어서 감히 간절히 말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이 뜻 을 두루 민간에 알려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의기로운 방책을 격려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임진 5월 14일 전주 생원(全州生員) 이당(李鐺) 등 20여 인.

고부 유생 격문(古阜儒生檄文)

대개 들으니,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오, 인민의 정기(正氣)는 의(義)라고 했다. 살벌(殺伐)을 좋아하는 자는 하늘이 벌을 내리고 큰일을 세우는 자에게는 사람이 반드시 돌아간다고도 했다. 이제 조그만 마음의 충성됨을 펴서 사방에서 듣는 이 를 격려하고자 하노니, 우리 국가는 만물을 윤택하게 해서 덕이 삼한(三韓)에 높았 고. 열성(列聖)들이 거듭 일어나서 바야흐로 큰 운수를 누리시더니. 이 백성들이 불행해서 마침 운수가 몹시 비색한 때를 당하여 이제 검은 이빨을 한 오랑캐가 준 동하여 감히 우리나라의 큼(大)을 침범하여 큰 멧돼지처럼 함부로 덤벼서 영남 땅 을 삼키고, 검은 벌처럼 쏘아서 적현(赤縣)을 쳐부수어, 적을 막던 우리 백성들은 시체가 모래벌판에 버려지고 마을을 불태워 산과 들에 연기와 불이 가득하다. 사 녀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큰 나라를 함부로 점령하고 뒤로 상국(上國)을 끊어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돌보지 않고서 오직 개나 양이 탐내는 마음을 품어, 전 쟁만이 우두머리의 공이라 일컫고 오직 도적의 일만을 일삼아 금수의 마음 갖는 다. 뱀과 지네 같은 것은 본래 인륜으로 치지도 않고 인신(人臣)들이 함께 병으로 여기는 터이다. 배를 집으로 삼고 굴속에서 살아 파도가 일고. 다른 종류와만 같이 지내니 이는 귀신도 용납하지 않는 바이다. 악한 것이 쌓이고 화가 가득 찼으니 이 는 흉한 무리가 망하기를 재촉하는 날이요.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 법이니 마 땅히 신자(臣子)가 충성을 본받을 때이다. 지극히 어질지 못한 것으로써 크게 무도 한 짓을 행하니.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는 저들과 의리에 있어 같은 하늘 밑에 있을 수가 없으니, 이는 정히 온태진(溫太眞)이 눈물을 뿌리고 배에 오르던 때요. 조사 아(祖士雅)가 노를 치고 강을 건너던 때이다. 근왕(勤王)의 슬픈 조서를 받들었으 니 어찌 눈물 흘리는 문산(文山)이 없을 것이며, 군사를 모집하는 것을 분격히 여 겼으니 반드시 깃대를 빼앗은 악무목이 있을 것이다. 완부(完府) · 금성(錦城)과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기이한 선비와 용성(龍城) · 광산(光山)과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뛰어난 인재들이 경륜하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병법의 비밀 한계책을 간직하고서 의병의 깃발을 바라보고 구름처럼 모이고, 전쟁의 북소리를 듣고서 바람처럼 좇아서, 새가 되고 용이 되며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팔진(八陣)을 한 수북 쪽에 펴고, 맹수와 같이 휴수(貅獸)와 같이 곰과 같이 범과 같이 칠보(七步)를 서울 남쪽에 가지런히 하고, 번개처럼 치고 천둥처럼 달려 요망스런 무리를 대궐 안에서 쓸어버려서 하늘이 돌고 땅이 움직이게 하고, 하루아침에 종묘가 빛나게 하여, 왜장(倭將)을 거리에 내다가 효수하고 큰 이름을 역사에 드리우게 하라. 이리하여 성주(聖主)를 잊지 말고 다시 이 터전의 중흥을 기약하도록 하라. 이 글을 함께 보고 뒤에 도착하는 후회를 저지르지 말라.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문(文)과 무(武)의 먼저 가졌던 직함이나 높고 낮은 신분, 늙고 젊은 차이, 노예, 구류(九流), 잡류(雜流)를 불구하고 이달 27일에 삼례역전(參禮驛前)으로 모이도록 하라.

고부(古阜)에 사는 유생 김현(金睍) · 김흔(金昕) · 김섬(金暹) 등

경상도 유생 곽재우 서(慶尙道儒生郭再祐書)

재우(再祐)는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삼가 김 초유사(金招諭使)(김성일) 앞에 글을 올립니다. 왜적이 한번 오자 바람을 바라보고 도망해 무너진 것은 비록 민심이 떠나고 흩어진 까닭이라고 하지만, 실은 신자(臣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우는 비록 노둔(驚鈍)하오나 감히 만 번 죽을 계책을 내서 이달 14일에 용맹스런 장정 네 사람을 데리고 낙동강 하류에서 왜선 3척을 쫓아 버렸고, 6일에는 왜선 11척이 또 4일에 싸우던 곳으로 왔기에 용맹스런 장정 13인을 거느리고 이를 쫓았습니다. 왜가 가진 것은 다만 긴 칼과 철환(鐵丸)뿐이온데, 화약은 반드시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포를 쏘아도 철환은 오지 않으니 적의 정실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칼은 반드시 서로 두어 발자국 안까지 가까이 이른 뒤에야 비로소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활과 굳센 활이야 반드시 두어 발자국 안에까지 온 뒤에 쏘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생각한다면 우리 군사 하나로써 저들의 백 명을 당할 수 있고, 우리 군사 백으로써 저들의 천 명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선

생의 충성스런 절개는 이미 통신사(通信使)로 갔을 때 드날렸고, 의기를 또한 초유사로 나올 때 일었습니다. 재우는 전에 스스로 천거하려 했사오나 갑자기 들으니함거(檻車)에 실려 서울로 갔었다 하므로 길이 통곡하고 전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기지 못했더니 어찌 오늘날 글을 보내 부르실 줄 알았으리까. 즉시 달려가보고하려 했사오나 거느리는 군사가 아직 모이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군사들을 수합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또 의령현(宜寧縣)은 요충의 땅입니다. 등 뒤에 임정호(臨鼎湖)를 파서 막는다면 왜가 비록 백만이라도 졸지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상량(商量)하시와 와 보시면 성을 지킬 방법을 선생을 위하여 계획하겠습니다. 글로 뜻을 다 쓰지 못하여 만분의 일도 아뢰지 못합니다.

전라도 전 동래부사 고경명 격(全羅道前東萊府使高敬命檄)

만력 20년(선조 25년, 1592년) 8월 1일에 행부호군(行副護軍) 고경명(高敬命)은 도내 여러 고을 사민(士民)들에게 급히 고합니다. 이번에 본도 근왕의 군사가 첫 번에는 금강(錦江)에서 깃대를 돌이킬 때 무너졌고, 두 번째로 여러 고을에 초유 (招諭)할 때 무너졌다. 이것은 대개 어그러진 방위에서 적을 막노라 기율(紀律)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자주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제 비록 흩어져 도망한 나머지에 군사를 수습하였으나 사기(士氣)가 몹시 꺾여서 정예(精銳)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일이 급할 때 부응해서 마감의 효험을 낼수 있겠는가. 매양 생각하건대 상감께서 수레를 타고 파천하신 후로 관원들의 문안이오래되었고 종묘사직이 재가 되었고 군사들의 숙청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말이 여기에 미치면 마음과 몸이 아플 뿐이다. 오직 우리 본도는 본래부터 군사와 말(馬)이 정하고 강하다고 일컬어 와서 성조(聖祖)께서 황산(荒山)에서 이기실제 삼한을 재조(再造)한 공이 있었고, 선조(先朝) 때 낭주(則州)에서 이길 때 돛대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동요가 있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혁혁히 사람들의이목에 비치는데, 그때에 용맹을 내고 먼저 배에 올라가 장수를 죽이고 깃대를 꺾은 것이 어찌 이도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물며 근년 이래로는 유도(儒道)가 크게

일어나 사람마다 모두 뜻을 닦아 학문을 했으니 임금을 섬기는 큰 의리를 그 누가 익히지 않았으리요. 그런데 홀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의로운 소리가 사라져 없어 져서 겁내고 흔들려 저절로 무너지고. 일찍이 한 사람도 기운을 내어 적과 교전하 려는 자가 없이 다투어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전할 계획만 하여 머리를 싸고 쥐처럼 도망하여 오직 혹시라도 뒤질까 두려워하니, 이는 본도 사람이 깊이 국가 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아비 할아비를 더럽히는 것이다. 지금은 적의 세력이 크게 꺾이고 왕의 신령스러움이 날로 더해지니 이는 대장부 가 공명을 세울 기회요. 군부에게 보답할 때이다. 나 경명(敬命)은 글에 오활한 선 비요 병법도 배운 것이 없지만 이제 단에 올라 망령되이 장수로 추대되었으니 능 히 군사를 다스리고 무리를 정제하지 못하여 두셋 동지들의 부끄러움이 될까 두렵 다. 다만 인신(人臣)의 의리로서 마땅히 국가의 어려움에 죽어야 하는 것이요. 겸 해서 군사는 곧은 것을 장하게 여기는 것이요 많고 적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간담을 펴고 북쪽으로 향하여 사졸들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바이다. 이달 11일은 오직 군사를 일으킬 날이니. 모든 우리 도내 사람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타이르고 형은 그 아우를 전해서 의병을 규합하여 함께 일어나서, 원컨대 용맹스 럽게 결정하여 착한 일을 좇도록 하고, 쇠약하게 스스로 일을 그르치지 말라. 이에 충고하여 위와 같이 격문을 띄우노라. 만일 이 격문을 순찰사가 돌아가던 처음에 인심이 흥분했을 때에 보냈더라면 어깨를 걷어 올리고 일어서는 자가 반드시 많았 을 것이요. 순찰사도 역시 감격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군사를 뽑는 시 기가 이렇게까지 늦추어 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서울에 들어간 적도 또한 여러 달 동안 성을 점령하고 경기 지방의 고을을 사납게 약탈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기 를 이처럼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애석한 일이다. 이제 너무 늦었구나. 너 무 늦었구나. 그러나 그 글을 보니 의리가 엄하고도 바르며, 말과 칼날이 씩씩하고 힘이 있으니 반드시 분발시켜서 의병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또 이제 운봉(雲峯)으 로부터 전해 왔는데, 왜적이 와서 진주를 침범하여 남강(南江)에서 접전하다가 크 게 패해서 돌아갔고, 심지어 깃발까지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고 한다. 또 곽재우는 군사를 의령(宜寧) · 정진(鼎津)에 주둔하고 있어서 적이 건너지 못하고 김해(金海) 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 김면(金眄) 등 의병 2천여 명이 성주(星州)에 들어가 점령한 적을 공격하려고 4일에 떠났다고 한다. 이는 곧 이달 7일에야 비로소 이 기별을 들었다.

봉 세자 조(封世子詔)

임금이 말했다. 내려오던 자리 잡고 앉아 위태로움을 잊어서 이 전쟁의 핍박을 이 루었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세자를 삼으니 실로 신민들의 바라는 바로다. 자리가 비록 편안치 않아도 난리에 어찌 근심을 잊으리오 이제 파천하는 날을 당해서 고 유(告論)하는 글을 펴노라, 내 밝지 못해서 집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25년 동안 두렵게 지내어 비록 내 마음에 스스로 다하려 했지만 백만이 살아서 헤어지 니 앞으로 올 백성들의 원망을 어이하리오. 다행히 이에 왕후의 도움이 있으니 이 는 실로 조상의 은덕이 돌보심이 있음이로다. 백성을 돌보는 일이 비록 그 방법에 어긋났지만 세자 세우는 일은 오히려 마땅히 일찍 해야 할 것을 생각했노라. 책봉 하는 예절은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이며 한 나라 신하의 글이 한갓 부지런했고 세월 이 오래갔으니 범진(范鎭)의 머리를 이에 바꾸었다. 옛날 오랑캐들이 밖에서 업신 여긴 것은 마침 나라의 내란을 틈탄 것이다. 침략하는 군사가 이 땅에 이르자 여러 성의 방비가 일제히 무너졌다. 상을 뒤집고 변명하니 칠묘(七廟)의 의관이 장차 옮 기게 되었다. 임금의 걸음이 창황하니 내 어찌 양위(讓位)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며, 민심이 위태롭고 두려우니 족히 세자를 정하는 일을 마땅히 서둘러야겠다. 둘 째 아들 광해군 혼(光海君渾)은 타고난 바탕이 영명(英明)하고 학문이 정하고 민첩 하며, 어질고 효성스러운 것이 일찍 나타나서 오랫동안 이 백성의 정이 부쳐져 있 었고, 노래를 불러 그에게로 올라가려 하니 선왕(先王)의 계통을 이을 만하다. 이 에 왕세자에 진봉(進封)하고 그로 하여금 군사를 보살피고 나라 일을 보도록 했다. 일이 비록 창졸간에 나왔으나 계획은 실로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신등은 내가 우연히 하는 일이라 말하지 말 것이며, 나라의 근본은 진실로 갑자기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평양에 와서 비로소 안팎에 보내는 글을 반포하는 바, 옛날 서울에서 이미 신민들의 하례를 받았던 것이다. 관중(關中)은 조그만 바다의 은택이 젖고 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로에는 앞에 있는 별(星)의 빛남을 바라본다. 하늘은 아직도 우리 조종을 도와주거니 사직이 어찌 한쪽 땅에서 편안하랴. 떠도는 넋이 이미 옷을 벗었으니 한강의 물결이 맑아지고 관군이 일어설 것을 생각하니 적현(赤縣)의 보루가 깨끗해진다. 용루(龍樓)는 문침(問寢)의 예를 바르게 하고, 학금(鶴禁)은 옛 도읍의 모습을 회복한다. 아아! 우리 신민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태자를 위해서 죽을 것을 원하고 한 사람의 부끄럼도 남기지 말라. 오로지 널리 고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모두 알도록 하라. 아아! 큰물을 건너는 것 같으니 아득하여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널리 구제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원자(元子)를 공경하여 보존하여. 이런 까닭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모두 마땅히 알도록 하라.

역적연좌적방사(逆賊緣坐跡放赦)

정여립

왕은 말한다. 죄가 하늘에 통하면 용서하기 어려워서 이미 악한 자를 토벌하는 글을 내었고, 은혜는 땅에 뻗쳐 함께 생기는 것이어서 이에 죄인을 용서하는 명령을 내리노라. 내 큰 은혜를 내리느니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라. 저번에 역적이 흉한 일을 꾸밀 적에 모두 함께 싹이 터서 죄에 걸렸기에 비록 유사(有司)가 그렇게 처리했으나 내 마음은 측은하도다. 역적은 법에 마땅히 연좌되거니와 그 밖에는 모두 용서해 석방하노니 넓은 어진 마음을 미루어 생성(生成)하는 혜택을 이루노라.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그렇게 알도록 하라.

만력 25년 5월 9일

이 두 조서는 평양으로부터 1월에 비로소 도착했는데, 곧 6월 9일의 일이다. 용담 현령(龍潭縣令) 서응기(徐應期)가 받들고 오자, 주인 형은 5리 길을 나가서 맞았다. 떠나기 전에 뜰 밑에서 열두 번 절을 했다. 이날 저녁에 비로소 우리 군사가 무너져 흩어졌다는 기별을 들었다. 현리 이호연(李浩然)이 군량을 이끌고 싸움터에서 내려와서 자세히 그 시말을 이야기한다. 이달 4일에 여러 군사가 수원부(水原府)를 포위했더니 왜적은 이를 알고 이미 도망했다. 5일에 용인의 행원(行院) 뒤의

적이 험한 데를 점령하고 집을 얽었는데, 앞에는 녹각(鹿角)이오 또 방패를 설치하 여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군사는 땅이 험하여 나가지 못하는데, 방어사(곽영 (郭嶸))는 전령을 내려 앞으로 나가기를 재촉한다. 여러 장수들은 부득이 모두 말 에서 내려 걸어서 나가는데, 왜적 3, 4명이 칼을 빼들고 뛰쳐나와 어지러이 삼대 를 치듯이 휘두르니 죽은 자가 서로 베고 누었다. 이 싸움에 전 봉장(前棒將) 백광 언 · 고부군수 이원인(李元仁) · 함열현감 정연(鄭淵) · 조방장(助防將) 이지시(李之 詩)가 일시에 칼에 맞아 죽고 모든 군사가 다 흩어졌다. 이·백 두 장군은 재주와 용맹이 무리에 뛰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믿고 견고하다고 했었는데. 방어사 가 재촉하는 바람에 패해서 죽는 데에 이르니 무리가 모두 분하게 여겼다. 6일에 또 나가 싸우는데, 적이 서울로부터 깃대를 세우고 내려오는 자가 많아서 방어사 의 진을 포위하고, 네 명의 적이 앞에서 쇠로 만든 광대의 옷을 입어 기이한 형상 과 이상한 복장으로 금부채를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달려온다. 또 수십 명의 적이 혹은 걷고 혹은 말을 타고서 칼은 빼들고 뒤를 따라 나오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지러워져서 여러 장수가 무너져 흩어진다. 이에 적이 뒤따라오면서 어지러이 찍 으니 우리 군사는 군의 장비를 버리고, 혹은 옷까지 벗고 달아나서 스스로 서로가 밟아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 순찰사 이광도 또한 큰 깃대를 버리고 간신히 죽 음을 면했을 뿐, 모든 군량과 군기·깃대·북·군마를 모두 버리고 달아나서 이것 이 모두 적의 물건이 되었으니 놀라고 가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람들이 믿던 바는 이 싸움이었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는 다시 바랄 곳이 없어서 사람 들이 마음 상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또 적이 두려워하던 것도 이 도(道)였는데, 이 도가 약한 꼴을 보였으니 적은 반드시 가볍게 업신여기고 와서 침범할 것이니 어떻게 막아 낸단 말인가? 십만의 무리가 수 30명의 적에게 쫓겨서 한 사람도 돌 아서서 활을 쏘아 본 자가 없으니, 더욱 몹시 분통한 일이다. 전일 금산싸움에 우 리 군사를 쫓아와서 좁은 골목으로 몰아 우리 군사를 많이 죽게 하더니 이제 또 이 와 같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방어사의 꾀가 없고 성질이 괴팍한 것을 탓했다. 집 을 얽어 놓고 들어가 점령한 적은 3, 40명에 지나지 않는데, 험한 것을 믿고 견고 히 지키고 있어 경솔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재촉하여 걸어서 나가게 해 가지고 선봉 네 장수가 일시에 죽음을 당하고 다만 정읍현감 권진경(權晋卿)만이 간신히 홀로 면했다고 한다. 방어사의 뜻은 반드시 조그만 적이라 하여 가볍게 보고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도리어 패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여러 군사가 낙 심하고 말았으니, 그 이튿날 패한 것은 모두 여기에 근원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런데 방어사가 먼저 달아나고 보니 여러 군사들은 계속해서 흩어졌다고 한다. 순 찰사는 행장을 모두 버리고. 아병(牙兵)과 군관도 모두 흩어졌다. 이에 간신히 말 한 필을 얻어서 혼자 타고 달아나는데. 마침 한 영리(營吏)가 말고삐를 잡고 말을 몰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 한다. 순찰사는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그곳을 벗 어나 멀리 달아나는데 먹을 것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오직 한 역졸 이 깨진 그릇에 밥을 얻어 가지고 물에 말아서 갖다 올리자. 그 역졸과 조금씩 나 누어 먹었다. 이리하여 충청도 안길로 해서 용안강(龍安江)을 건너서 본도에 이르 렀으니 더욱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이다. 화약과 철환 쇠사슬 등은 모두 적이 차지 하게 되었으니, 다음 날 도리어 우리 군사를 해치게 된 것은 반드시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그 무너져 흩어져서 창황할 때를 당해서 인신(印信) · 병부(兵符)도 또한 모두 버렸었는데 인신만은 남원 아전(혹은 그의 자제)이 간신히 거두어 가지고 달 아났고 병부는 모두 잃었다고 한다. 이제 만일 요망한 기운을 씻어 깨끗이 한다면. 이응일(李應一)과 약속하기를 열흘이나 보름 안으로 반드시 이겼다는 소식을 들 을 것이니. 그러면 비록 걸어서라도 당일로 서울로 올라가서 늙은 어머니를 찾아 뵙겠다고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늙은 어머니와 처자 와 아우와 누이는 여러 달 숨어 다니느라 밥을 얻어먹을 방법도 없어서 반드시 굶 주려 죽었을 것이니. 생전에는 다시 서로 만나볼 수 없을 것인즉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모르는 것이 낫겠다. 매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노모와 처자와 아우, 누 이는 오늘 밤에는 어느 곳에서 자고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가? 아무리 내 밥을 나 누어 먹으려 한들 되겠는가?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니 창자가 저절로 찢어지는 구나. 저 하늘이 아득하여 죄 없는 창생으로 하여금 죄 없이 적의 칼날을 받게 만 들어 시체가 땅에 뒹굴게 되니 이것이 무슨 심정인가? 비록 하늘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 하지만 어찌 원망 않을 수가 있는가. 장수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인데,

장수로서 병법을 알지 못하면 그 백성을 적에게 내주는 것이다. 이제 삼군의 명령을 병법을 알지 못하는 못생긴 장수에게 맡겼으니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으랴? 적이 서울을 점령한 지 이제 석 달이 된다. 맘대로 약탈을 행하여 짐바리가염남 길에 뻗쳤는데, 한 사람이 보통 4, 5필의 말을 몰고 가건만 한 사람도 이것을 뺏으려하지 않는다하니 어찌 원통함을 이길 수 있으랴. 어제 들으니 이달 8일에 적 백여 명이 금산으로부터 황간 북촌을 거쳐 장차 청산(靑山) 길로 향하려하자, 영동현감 한명윤(韓明胤)이 활 쏘는 군사를 거느리고 좁은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적 13명을 쏘아죽였는데, 그중 한 괴수가 준마를 타고 투구를 쓰고서 앞에 붉은 기를 세우고 여러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또한 쏘아 죽이고, 짐바리 10여 개를 모두빼앗았으나 많고 적은 차이가 너무 나서 다 사로잡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누가서생은 담력이 없다고 말했는가? 가위 장하다하겠다. 이 도 순찰사는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하루아침에 패해 무너졌으니, 이는 비단 유익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적의 세력을 도와주었으니 원통한 일이다. 몸이 중한 책임을 맡은 지이제 3년이 되었는데 한 치의 공도 세우지 못하여 도리어 한 썩은 선비의 공만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

도순찰(都巡察)(이광(李洸)) 檄文(격문)

4월 그믐께 여기 도착했으나 한 사람도 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 순찰사는 글뿐이요 또한 그 말도 실천하지 못하니 애석한 일이다. 아아! 저 조그만 왜적은 독살스런 벌과 전갈(곤충의 일종) 같고 성질은 뱀과 살무사와 같다. 비밀히 교활한 마음을 품어서 감히 함부로 날뛰려고 한다. 성과 못(池)이 함락된 곳이 십여 곳이요 사졸을 죽인 것이 수천만 명이다. 겁에 질린 지키던 신하들은 소식을 듣고 도망해 숨고 놀란 백성들은 소식만 듣고도 물결 밀리듯 달아난다. 영남의 산하는 모두 표범과 범의 굴혈(窟穴)로 들어갔고, 호서의 초목은 절반이 개나 양의 비린 냄새에 물들었다. 석륵(石勒)(인명(人名))의 군사가 바로 서울을 향하니 종묘사직의 부끄러움이 망극하고, 몰갈(沒喝)의 군사가 장차 하수 위를 지나니 묘당(廟堂)의 근심이 무궁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잠자고 깨지 말기를 바란다. 이에 임금

이 부지런히 애통한 조서를 내리고, 벼슬아치는 기도하는 정성을 폈다. 오직 우리 온 땅덩어리는 모두 피를 같이한 무리이다.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팔뚝을 걷어 누가 분격하여 창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이니 어 찌 임금의 수레를 보호하는 형세를 잃을 것이며,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 법이 니 마땅히 임금을 위하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직 우리 한 하늘 밑에 같이 살지 못할 원수를 참을 수 없어 구름과 같이 나는 맹장이 범과 같고. 전에 없던 부 끄러움을 씻기를 바라 새매처럼 치닫는 용사가 숲처럼 많도다. 조사아(祖士雅)는 중원을 맑게 하기를 맹세하여 간담이 말(斗)처럼 컸고, 장숙야(張叔夜)는 서울에 들어가 구원하여 눈물이 하수처럼 흘렀다. 범 그린 깃발과 용 그린 깃발은 마땅히 장막 위의 제비집을 쓸어버릴 것이요. 뱀을 그린 창과 달 그린 도끼는 날고기를 솥 속에 삶을 것을 기약했네. 오직 너희 호남 땅은 본래부터 예의 있는 고장이라 일컬 어졌으니 실로 인재가 모인 곳이요. 모두 빠른 바람 앞의 굳센 풀이어서 모두 난리 속의 충신이 되었네. 우리를 2백 년 동안 길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결같이 억 만 인의 강개(慷慨)한 뜻일세. 윗사람을 친히 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죽으니, 큰 의 리를 위해서 먼저 오르고, 장수를 죽이고 깃대를 꺾어 수레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 게 하네. 어찌 특히 충갑(冲甲)뿐이리오. 공이 한 대에 높았고. 이 또한 차달(車達) 이라 혜택이 자손에게까지 미치네. 힘써 몸을 나라에 허락하여 기어코 절개를 지 켜 죽음을 본받고. 적을 군부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힘을 다하여 삶을 버리라. 이 격문이 도착하거든 각각 충성과 의리로 권면하여 씩씩한 남자들을 일깨워 거느리 고 밤낮으로 달려오도록 하라.

6월 13일에 전 수사(水使) 이계(李繼)·정기복(鄭起服)으로 조방장을 삼아서 이 현의 동쪽 육십현(六十峴)을 와서 지키게 했다. 이 고개는 곧 안음(安陰) 땅 경계이기 때문에 적이 여기를 넘어와서 침범할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전에 복병장(伏兵將) 전 첨사(僉使) 남응길(南應吉)이 와서 막았었는데 그가 지탱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계급이 높은 무신(武臣)이 와서 돕게 했다. 군관이 60명이요, 이 현의 군사 및 임실·진안 군사를 합치면 모두 일천여 명인데 세 곳으로 나누어 지켜 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았다.

또 16일 아침에 순찰사가 군사를 조련하려고 와서 다시 정병(結兵)을 뽑아 가지 고 군산(郡山) 창전(倉前)에서 배를 타고 바로 임금 계신 곳으로 갔다고 한다. 그 러나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렸으니 뜻대로 모이지 못했을까 두렵다. 병사(兵 使) 최원(崔遠)이 순찰사의 군사가 패한 것을 듣고 이에 수만 명의 군사를 조련하 여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맡겨서 이달 20일에 완산을 떠나서 이미 여산에 이르러 그 군사가 모이는 것을 기다려 바로 서울로 향했다고 한다. 전 부사(府使) 고경명 (高敬命) · 최경회(崔慶會) · 김천일(金千鎰) 등이 충성심을 분발하여 의병을 일으 켜 격문을 여러 고을에 돌리자 혹 전의 조정 벼슬아치나 혹은 유생들이 각각 장정 들을 거느리고 응모한 자가 많아서 이미 이달 10, 11일 사이에 삼례역 전(參禮驛 前)에 모여서 장차 길을 떠난다 한다. 이들은 반드시 병사(兵使)와 함께 서로 의지 하는 형세를 했을 것이다. 순찰사가 군사를 패한 것은 모두 군사가 많은데 연유했 고. 장수가 못나서 능히 무리를 이거하지 못해서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여러 사람 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물러서면 여러 군사가 모두 흩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경명(高敬命)의 군사는 처음부터 위력으로 억누른 것이 아 니고 모두 자기 스스로 의리를 위해 나선 터여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 각 자가 분격하고 힘쓰니 반드시 큰 공을 이룰 것이다. 발돋움하고 기다리는 바이다. 또 호성감(湖成監)은 왕실의 자손으로서 또한 충성에 분격하여 원수(元帥)의 지휘 를 받고 이달 초승에 완산으로 내려와 이미 스스로 충의위(忠義衞)를 모집하자 응 모하는 자가 또한 많았고 이 고을에서도 응모해 나간 자가 또한 6, 7명이나 된다. 또 들으니 백광언(白光彦)은 성질이 조급하고 강개해서 항상 왜적의 충격을 분하 게 여겼는데,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 도망하고 막는 자가 없었다. 5일의 싸움에 이 지시가 광언에게 이르기를. "적은 높고 험한 데 자리 잡고 있고. 또 날이 장차 저 물어 가니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싸우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광언은 말하기 를 "영 공(令公)도 또한 이런 말을 하시오?" 하고 방패를 안고 바로 나가니 적이 불 의에 뛰쳐나오는지라, 모든 군사가 일시에 쓰러지자, 광언은 그대로 칼에 맞아 죽 었다 하다.

광언이 항상 거느리고 있는 군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로 하여금 앞에 나가게

하고 내가 뒤에 있으면 너희들이 날더러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마땅히 너희들의 앞에 설 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구해 달라" 했다고 한다. 비 록 경솔히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뜻만은 가위 무너지는 이 판국에 홀로 서 있다 하겠다. 애석하고 애석한 일이다. 광언이 거느린 군사들이 그가 죽었 단 말을 듣고 눈물을 뿌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다. 또 현리가 완산으로부터 돌아 와서 그편에 들으니 적은 이미 임진강을 건넜고, 임금의 수레는 평양으로부터 함 경도 함흥으로 돌아 넘어갔다고 한다.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개성과 황해도 백성도 또한 반드시 적의 칼날 밑에 쓰러졌을 것이오. 윤함도 역시 산중에 도망해 숨었을 것이니 살았느냐 죽었느냐 알지 못하니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내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만일 서쪽으로 도망했으면 면치 못했을 것이다. 다만 윤겸은 평 일에 항상 말하기를, "피란한 땅은 관동(關東)만 한 곳이 없다" 했고. 또 들으니 올 봄에 그 친구와 함꼐 홍천(洪川)으로 살 만한 곳을 가 보았다고 하니. 만일 그렇다 면 반드시 동쪽으로 갔을 것이요 서쪽은 아닐 것이다. 또 들으니 서울 사녀들이 서 쪽 산으로 피한 자가 많았는데. 불의에 포위하고 습격하여 사녀들을 많이 약탈해 갔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이날 저녁때 주인 형과 관청 마루에 마 주 앉아서 각각 난리에 옮긴 일을 이야기하는데, 위로는 주상께서 파천하고 종묘 와 사직이 장차 기울어지니 끝내 어느 곳으로 수레를 옮기실지 가슴 아프고. 아래 로는 죄 없는 창생(蒼生)들이 도탄에 빠지고 한집의 노모와 처자 제매(弟妹)가 생 사를 알지 못하여 서로 통곡하고 어찌 위로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다 가, 추로주(秋露酒) 한 잔을 부어 각각 한 잔씩 마시다가 4, 5배에 이르러 반쯤 취 하게 되었다. 이에 산정(山亭)으로 나오니 만 가지 소리가 모두 적적하고 흰 달은 낮과 같은데 우리를 모시고 있던 동자들은 모두 깊이 잠이 들었다. 이에 생각하니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누이는 이 같은 달밤에 어느 곳에서 자면서 또한 이 달을 보는가?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이 비 오듯 흐른다. 나는 뜰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절하면서 빌기를, "원컨대 하느님은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와 누이를 보존해 주시어 다시 서로 만나게 해 주면 비록 죽어도 뉘우침이 없 겠습니다" 하고 빌기를 마치고, 종응(宗應)과 윤일(胤一)의 손을 잡고 동헌 밑에서

배회하다가 응벽정(凝碧亭)을 지나 향사당(鄕射堂)까지 갔다가 나는 발을 잘못 디 디어 땅에 자빠져서 엄지발가락을 다쳐 가지고 숙소로 돌아오니 밤이 이미 자정이 지났다. 이것은 달구경을 하면서 논 것이 아니라, 회포를 풀 길이 없어 이렇게나마 내 시름을 쏟았을 뿐이다. 또 17일의 운봉에서 전하는 글에 경상 의병장 전 좌랑 (佐郎) 김면(金沔)이 거창 군사 6백여 명을 거느리고 성주 무계진(茂溪津)에서 서 울에서 내려온 적을 맞아 쳐서 배 두 척을 사로잡았는데. 한 배의 적은 거의 다 쏘 아 죽였고, 한 배 속에는 모두 궁중의 보물이 실려 있어 심지어 임금이 쓴 글씨도 많이 얻었다고 하니 더욱 몹시 통분한 일이다. 지금 들으니 영남 사람이 모두 분한 마음을 품어, 숲 속에 숨어 엎드려 있는 자까지도 모두 나와 의병으로 들어가서 곳 곳에 복병으로 있다가 왕래하는 적을 기다려 벤다고 하니. 하늘이 장차 궁흉극악 한 적을 반드시 소멸하고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이달 17일 저녁에 영암(靈 岩)의 임매(林妹)가 사람을 시켜 늙은 어머니의 소식을 와서 물으니. 그 누이의 편 지를 보매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틀 길이면 가 보고 망극한 회 포를 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이튿날 편지를 써서 온 사람을 도로 보냈다.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는 사생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이 누이와는 한 도에 같이 있으니. 비록 길이 멀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일 아주 할 수 없 는 걱정이 있으면 그 집에 기식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일에 주인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사에게로 가기 위하여 현의 경계인 덕안원 (德安院)에 이르러 들으니 적이 지난 17일에 지례현(智禮縣)을 함락시키고 본도 무주 경계 부항(釜項)의 복병이 있는 곳을 침범하자 복병하고 있던 군사 전주 사람 등이 무너져 흩어졌다. 이때 온 자들이 몹시 많아서 부득이 현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탐문했더니 그 회답하는 글에 적이 16일에 현의 경계인 무풍창(茂豐倉) 부항(釜項) 근처 세 곳의 복병이 있는 곳을 와서 침범하자, 한편 싸우면서 한편 물러가서 창(倉) 앞에 진을 치니 적이 도로 지례로 돌아간 뒤로는 아주 소식도 없다고한다. 한편 듣건대 적이 부항으로 올라올 때 무주현감이 이를 바라다보고 먼저 달아나니 여러 군사가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고, 장의현(張義賢)은 딴 곳의 복병한 곳에 있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 나가니 적은 이미 물러가서 미치지 못했다고 한

다. 부항은 지극히 험한 곳이라 만일 숲 속 험한 곳에 매복하고 활을 쏘았더라면 적은 반드시 패해 달아나서 서로 구원할 겨를이 없었을 것인데, 현감이 먼저 물러 가서 약한 꼴을 보였으므로 적은 반드시 가볍게 업신여기고 오래지 않아 또 몰고 올 근심이 있으니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안음에 사는 충의위(忠義衞) 정유영(鄭惟榮) · 교서정자(校書正字) 박명전(朴明傳) 등의 통문 (6월 19일에 도착)

대체로 병가의 승산은 적을 잘 아는 데에 있는 것이니. 저들은 항상 나를 알고 나 는 저들을 알지 못하면 끝내 그 계교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인데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어찌 가슴 아픔을 이길 수 있으라? 적이 동래부터 세 길로 나누어 낙동강 을 끼고 좌측으로 조령 · 죽령(竹嶺) · 추풍령(秋風嶺) 세 길로 해서 서울에 도착하 고. 저들의 무리를 머물러 두어 매복하고 왔다 갔다 하여 또 한 길을 나누어서 가 만히 사천(泗川) 등지를 떠나서 동쪽을 치고 서쪽을 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도 가 함락되지 않은 것은 거창 · 안음 · 함양 · 산음(山陰) · 단성(丹城)의 다섯 고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흩어져 도망한 군사를 불러 모아 그 무리를 억지로 합쳐 가지고 한편은 의령의 정암(鼎岩)에 대비하고 한편은 진양(晋陽)의 중요한 길에 매복하여. 혹은 고령 · 초계의 적을 막고 혹은 지례 · 성주를 막자니 형세가 몹시 고단하고 약 해서 아침저녁으로 함락되기만 기다려도 아무도 와서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계교 를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바야흐로 적이 이 긴 기세를 타고 길게 몰려나올 제 귀 도(貴道)의 방어사(防禦使)가 와서 금산을 막아 비록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어도 그 공은 또한 컸었다. 이제 들으니 성에 들어온 적이 이달 2일부터 낮에는 엎드려 있 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군사가 깊이 들어가면, 군사는 이미 늙고 예기(銳氣)는 쇠해져서 그 형세가 마땅히 물러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진실로 바로 그들의 가는 길을 끊지 못해서 흉한 오랑캐로 하여금 전군이 바다로 돌아가게 한다면, 비록 오늘날은 편안히 자더라도 일어나 서 네 경계를 보면 왜병이 또 올 것이다. 그러니 비록 그들로 하여금 수레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요해처를 막고 매복하고 있다가 맞아 쳐서 남은 무리를 소탕하면 그 제승(制勝)의 방책이 매우 클 것이다. 우리 도는 힘이 다 해서 내 몸을 돌보지 못할 지경이니 이러한 큰 공을 세운다면 이는 그 공이 귀도 (貴道)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백면서생(白面書生)이라. 멀리 서쪽을 바라보 니 한 사람도 한쪽 손으로 오로지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구원을 청할 길이 없노라. 비록 궁마(弓馬)의 방책은 없으나 아직도 적을 미워하는 마음은 간절하니, 원컨대 여러 장군의 뒤를 따라서 만분의 일의 공이라도 세우고자 하노니. 엎드려 바라옵 건대 여러 장군께서는 칼을 뽑아 들고 채찍을 휘둘러 추풍령으로 달려 나가 적의 군사를 막아 기회를 잃지 말라. 저번에 호남의 감사라고 일컫는 자가 혹은 운봉을 넘어서 전주로 향하고 혹은 황간을 거쳐서 무주로 향한다고 했는데. 이는 귀도를 두려워하여 남을 원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귀도에서는 이 를 믿고 다만 장수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엄하게 팔량치(八良峙)와 육십현을 방비한 지 여러 달이 되었다. 비록 이웃 나라가 적침 받아도 오히려 가서 구하는 것인데, 하물며 영남은 귀도의 울타리요. 또한 한 나라의 땅인지라, 입술이 없어지 면 이가 시려져서 그 형세가 급급하데. 군사만 구경하고 가서 구하지 않고 성패를 바라보기만 하여 마치 초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살찌고 파리한 것을 보듯이 한단 말인가? 아아! 이는 한 나라 큰 형세이니 어찌할 것이며, 이미 패한 우리 도 에 손익(損益)이 더할 것이 있으리오. 오직 강을 끼고 있는 여러 적들은 다만 저들 의 왕래하는 길을 보호할 뿐이오. 멀리 태산(太山) · 장곡(長谷) 사이에 들어갈 뜻 은 없는 것이니. 우지(牛旨)의 험한 곳은 반드시 능히 지나지 못할 것이고. 어찌 머 뭇거려 우리 고을의 서천(西川)을 건너서 육십현을 넘겠는가? 절대로 이러한 이치 는 없는데. 여러분은 어찌 구차하게 산골짜기의 한 모퉁이를 지키고 이름을 복병 이라고 하고 급한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가? 만일 삼도(三道)의 군관도 오히려 패 해 달아났는데. 어찌 그 혈혈한 외로운 군사로써 그 예봉(銳鋒)을 당할 수 있으랴 한다면,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관군은 두려운 것이 싸인 나머지에 소식만 듣고서 도 스스로 달아났으니 이는 한 번 웃고 말 일이지만, 오직 이 복병은 임기응변해서 그 길을 끊는 것이 다만 여러 장수의 기이한 법을 내는 것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 이다. 하물며 옛날에 유기(劉琦)와 악비(嶽飛)는 3천 기병을 가지고 금나라 사람의

백만 무리를 부수었으니, 이는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의논할 것이 아니다. 때여, 때여!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이 글을 가지고 별(星)처럼 달리고 불처럼 떠나 위로 순찰사께 보고하고 아래로 여러 고을에 고하노니 한결같이 육십현·팔량치의 복병을 거느리고 즉일로 와서 구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치는 것은 비록 이 도의 일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 하지만 조그만 고을의 한 유생이 맘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정 뜰에서 울어 구원병을 구한 것은 반드시 대신만의 일이 아니요, 진중에 달려가 서적과 싸우다가 죽는 자도 또한 임금의 얼굴도 모르는 자이니, 그 제도를 어기고 임금을 위하는 것이나 단기(單點)로 어려움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어찌 사양하리오.

만력 20년 6월 18일에 경상도 안음 사람 등의 통문이 있었는데, 이 현 육십현에서 이제 이 글을 보니 이치와 형세는 그러하나 각각 경계를 지키는 바가 있으니 주장 (主將)의 명령이 아니면 어찌 맘대로 딴 도로 넘어간단 말인가. 더구나 적이 무주 경계를 범해서 우리 뒤를 황황하게 넘보고 있는 터이랴. 이 글을 가지고 이미 순찰 사에게 보고했으니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다.

이달 16일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정병 3백을 거느리고 여산으로부터 이미 서울로 향했고, 병사도 역시 17일에 1만 5천여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서울을 향했는데, 천일(千鎰)은 이미 천안에 이르렀고, 병사도 이미 공주에 이르렀다 한다. 고경명은 군기와 군량이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뒤따라 길을 떠난다 한다. 어제 군관인진사 최상겸(崔尚謙)이 여러 고을을 구조할 일로 아사(亞便)의 글을 가지고 여기에와서 서로 만나 몹시 기뻐하다가 슬픈 감회가 또 생겨서 각각 난리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붙들고 울다가 함께 내 숙소에서 잤다. 이튿날 아침에 용담(龍潭)으로향하여 금산·진산을 거쳐 고경명과 여산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는데 그 군사도 천명이라했다. 다만 의병장은 모두 선비로 군사의일을 잘 알지 못하고 기계도 또한어설퍼 성공할 것은 기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일에 대군이 패한 것은 군사들의마음이 한결같지 않아 각각 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한 번 적을 보면 먼저 무너졌지만,이 의병은 모두 자진해서 응모한 군사들이니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강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 비록 수가 적어도 적을 대적할 것이다. 이 현에서 군량 두 짐, 장전(長箭) · 편전(片箭) 각각 5부, 철환 백 개를 군소(軍所)로 보냈다. 최 공(崔公)(최상겸)은 곧 나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은 임실(任實) 처가에 있고, 그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서울에 있으니 사생을 알지 못한다. 모집에 응한 의병은 부모를 찾아보려 하여 그 회포가 나와 같을 것이다.

22일에 무주 율현(栗峴)에 적 5, 6명이 비밀히 넘어와 허실(虛實)을 탐지했고, 이 튿날 옥천(沃川) 땅으로부터 금산으로 가서 금산태수와 서로 싸웠는데, 수가 적어서 대적하지 못하여 금산태수가 세 번 싸우다가 세 번 다 패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생사를 알 수 없고, 적은 이미 고을로 들어와 사면 경계를 나누어 약탈했다고한다. 이는 곧 적이 먼저 무주를 시험하여 동쪽을 치고 서쪽을 치는 계획을 세웠으나 우리 군사는 알지 못하여 그 꾀에 떨어져서 금산 경계를 막지 않고 다만 무주만막았으니 탄식함을 금치 못하겠다. 이는 반드시 길이 뻗어서 완산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누가 능히 이를 막는단 말인가. 호남도 역시 도탄에 빠졌으니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26일 이른 새벽에 아속(衙屬)이 석천암에 와 보고 원군의 백성들이 남부여대하고 도망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니 마을이 텅 비고 산림 속이 도리어 적적치가 않아서 적이 만일 와서 찾으면 못 속의 물고기 같은 걱정을 당할까 두렵다. 조방장 이유의 (李由義)와 남원판관(南原判官) 노종령(盧從岭)이 구원하고자 군대를 거느리고 용성(龍城)으로부터 이제 현에 당도했다 한다. 이날 저녁에 동풍이 크게 불어 밤새 그치지 않더니, 27일 새벽에 비로소 비가 내려 수일 안으로는 반드시 개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오늘 곡물을 깊은 골짜기 사람이 이르지 않는 곳으로 나누어 두어, 다음 날 산에 들어가서 급할 때 쓰려고 했더니 비로 인해서 하지 못했으니 다시 비가 개기를 기다려야 하겠다. 아침에 우연히 문갑을 뒤적이다가 늙은 어머니가 지난 4월 20일에 보낸 편지를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아직도 듣지 못했으니 감히 다시 편지를 보기를 바라리오. 늙은 어머니의 편지는 이미 영암 임매에게로 보내서 보배스럽게 간직하라고 했다. 또 주인 형의 편지를 보니 적은 금산 5리 밖에 진을 쳤고, 금산군수는 싸움에 패한

후에 그 고을로 달려와서 즉시 피를 토하고 죽었고, 그 처자가 풀에 감추어 두고 걸어서 진안 길로 향했다고 하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광목(光牧)은 곧 사촌이니 반드시 가서 따랐을 것이다.

동도(同道) 주부군현(州府郡縣)에 고하는 격문

만력 20년(1592년) 6월 26일에 통훈대부 행광주목사(通訓大夫行光州牧使) 권율 (權慄)은 감히 한 격문을 같은 도의 여러 읍 수재 제공(守宰提控)에게 급히 고하노 라. 아아! 저 하늘이 어질지 못하여 우리나라를 베고 있다. 적변이 있은 지 전후가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영남 한 도 및 호서 · 경기가 모조리 적의 보금자리가 되어 2백 년 내려온 의관문물(衣冠文物)의 고장이 하루아침에 비린내 나는 도륙의 참혹 함에 모두 더럽혀서, 마치 품처럼 깎이고 새나 원숭이처럼 되었는데도, 한 나라 사 람이 쓰러지고 흔들려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임금이 파천하기에 이르러 사직이 빈 터가 되어 없어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전고(前古)에 없던 일이니 원통하고 원통하 다. 근래에 조정에서 의뢰하고 적의 무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 도(道)로 서, 거의 중흥(中興)의 근본이 되리라고 믿었었다. 그런데 용인싸움에 수만 명의 온전한 군사를 가지고 5, 60명 되는 영세한 적에게 패해서 사기가 크게 꺾이고 병 력이 크게 소모되어 수복하는 공훈을 금시에 기약할 수 없으니, 우리들의 죄가 여 기에서 비로소 무거워졌다. 옛날 고려 말년에 동한(東韓)의 원수는 다만 삼도(三 島)의 적이었는데, 전후에 관군에게 패한 것이 그 몇 번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서로 계속하여 서로 왕래하여 출입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 우리 사민들을 못살게 하고 우리 강토를 유린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화가 뒤따라서 40여 년의 오 랜 세월이 되었다. 하물며 저 평수길(平秀吉)이란 자는 흉악하고 드세어 제멋대로 날뛰어 여러 도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그 마음이 가사하고 악하 것은 하루에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와서 부산(釜山)을 침범한 뒤에 용맹스런 장수와 정한 군사 가 있어 위엄을 떨치고 적을 섬멸하여 배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으면 오랑캐 도 또 두려워하고 엎드려 숨어서 감히 마음을 내지 못했을 터인데. 나라의 운수가 불행해서 직무에 태만한 지가 오래서 저 조그만 오랑캐로 하여금 천 리 길을 길게

몰고 와서 마치 빈 고을의 지경을 올라오듯 하게 하고, 이른바 누구 한 사람 꾸짖 어 금하지 못했으니 진실로 낙토(樂土)란 말을 지금 다시 보겠는가? 이것으로 미 루어 말한다면 후일의 근심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윽이 오늘의 사세를 보건대 조각배를 타고 큰 바다 위에 떠서 미친바람과 드센 물결에 쫓겨 노는 부러지고 돛 은 꺾이어 기울어지고 위태로운 것이 한 번 호흡할 동안에 있으니 뱃속 사람들이 함께 죽을힘을 내어 구한다면 구제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차 모두 물 에 빠져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체로 우리 삼한(三韓)의 사서인(士庶人)들 은 성조(聖朝)의 정치로 교화 속에 산 자이어서, 모두 마땅히 집마다 스스로 전쟁 을 하고 사람마다 스스로 노여워해서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펴고서 마치 사사 원 수를 갚듯이 한 뒤에라야 위로 군부를 구원하고 아래로 처자를 보호할 것인데, 하 물며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백 리 땅의 근심을 나누어 가져 군민의 정치를 맡 아 지방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자야 그 직분이 어떻겠는가, 본도는 다행히 적의 칼날을 받지 않아 완전히 옛날 그대로이나, 우리들은 한 번 패했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서고 움츠려 오직 숨을 죽이고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습관 그대로 옛날 과 같이 나가면 나가고, 물러가면 물러가 진실로 주장(主將)의 일시의 호령과 지휘 에 따를 뿐이어서는 안 되며, 모름지기 분격하고 분발하여 국가의 급함을 구할 것 을 생각하여 비상한 공을 세우도록 하라.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공(公)들은 다행히 다시 군사의 무리를 수습하고 기계를 정비해 다스려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내어 모두 일체(一軆)가 되시옵소서, 율(慄)은 비록 못났사오나 마땅히 우둔한 몸을 채 찍질하여 여러 군대를 위하여 앞에 서서 한 도의 요긴한 곳을 나누어 점령해 가지 고 미친 적으로 하여금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오. 또 기회를 보아 진병해 서 차례로 적을 잘라 없애어 대군과 의병의 성원(聲援)이 되게 하고. 나라 안이 이 미 맑아지기를 기다려 임금의 수레가 돌아오면 다시 이긴 기세를 타고 고개를 넘 어 바다와 육지로 함께 나가서 솥 바닥의 물고기와 구멍 속의 개미로 하여금 모두 불에 타 죽어 도망갈 수가 없게 하면 삼군(三軍)의 기운이 크게 떨쳐지고 오묘(五 廟)의 부끄러움을 조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장차 바다를 가로질러 바로 대 마도를 쳐부순다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아아! 사람이 천지 사이에 나서 스 스로 능히 금수와 다른 것은 이륜(彝倫)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의 의리가 빛나기가 해와 별과 같고, 삶을 버려 의리를 취하는 것은 군자의 하고자 하는 바인데, 지금 에 적을 대해서 겁을 내어 깃대와 북을 버리고 먼저 도망하는 자는 임금을 속이고 제 몸을 사사로이 하여 요행으로 살기를 도모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추한 오랑 캐가 뜻을 얻고 임금의 일이 날로 잘못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비록 쥐처럼 풀 사 이로 도망하여 구차히 살기를 도모한들 될 수 있으리오. 또 능히 돼지나 개에게나 가서 절하고 무슨 면목으로 즐겨 그 신첩(臣妾)이 되려는가? 하물며 하늘의 그물 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 나라의 법은 아직도 엄하며 패한 군사와 도망한 장수는 스 스로 정해진 법이 있어. 그 몸은 도끼 밑에 엎드려 세상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고. 처자는 벼슬을 빼앗아 귀신도 주인이 없게 되는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여 몸과 이름이 함께 영화롭게 되겠는가? 율(慄)이 선인(先人)의 가 정교훈을 받아 임금 섬기는 의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군사를 좇아 법을 잃은 뒤로 더욱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매양 밥을 대하면 목이 메고 잠을 자려면 두려워 서, 문에 나가면 군사를 따르기가 부끄럽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면 신명 (神明)이 부끄러워 살아서 능히 국가를 위하여 조그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죽으면 선인을 지하에서 뵈올 수가 없겠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고 오히 려 머리를 들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2, 3명 동지들과 함께 힘써 이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바라건대 여러 공들은 나의 자책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미 치고 망령된 말을 용서하시어 몽둥이를 들고 함께 일어나 나가기만 하고 물러섬이 없게 하라. 격문은 이와 같으나 말이 뜻을 다하지 못하노라.

7월 1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무주 등지로 향하는데, 생각건대 뜻 있는 선비들이 각자 군사를 거느리고 한곳으로 달려와서 29일에 여기에 도착했다. 이제 이 격문을 보니 가위 받은 바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여러 고을 중에 반드시 분연히 일어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이 금산에 들어간 지가 이제 5, 6일에 이르는데 아직도 쳐부쉈다는 소식이 없으니 장차 힘을 합하려 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이달 28일 저녁에 절 서쪽 산허리에 있는 보리밭 가의 흙이 건조한 곳에 신주(神主)를 매안하고 보리씨를 뿌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모르게 하고, 의복을 채

롱에 넣는데 먼저 기름종이로 싸고 다음은 돗자리로 싸고 땅을 깊이 파고 나무를 가로세로 놓은 다음 다시 삼대를 놓은 후 사면에 또 한 삼대를 세우고 다시 마른 풀을 쌓은 뒤에 채롱을 넣고. 그 위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한 뒤에 흙을 덮어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했다. 난리의 절박한 것이 여기에 이르러서 선조의 신주까지도 보 존할 수가 없어 먼저 땅속에 매안하고 장차 다시 깊은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려 하 니 그 애통함을 이루 다 말하라. 말안장과 옷 보따리는 절 동쪽 바위틈에 감추었 고 양식은 또 골짜기 속 돌 틈에 나누어 감추어 다음 날 산에 들어갔을 때 내다 쓰 려 했다. 또 쌀 13석은 절 뒷간 빈 곳에 감추어 두었고, 주인 형수의 옷 보따리 세 짐은 또 동쪽 골짜기 깊은 곳 바위 사이에 감추어 두고. 종 석지·개손 및 관인 동 이만 알게 했다. 산속으로 들어온 뒤로 회포가 더욱 나빠서 현의 동쪽을 바라보다 가 고개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장차 무슨 기별을 가지고 올지 몰라서 두려워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여 마음을 잡지 못하다가 만일 무사하다는 기별을 얻으 면 조금 편안해진다. 그러나 병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간 후로 승패 간의 소식 을 아직 얻어듣지 못했고. 적은 금산을 점거한 지가 날이 이미 오래었는데도 그 끝 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막아 낸단 말인가? 한갓 가슴 아파 울 뿐이다. 응일(應 一)의 학질은 여러 번째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영진(英眞)의 서조모 도 오늘 또한 이 병을 앓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오늘은 입추(立秋)이다. 난리가 초여름에 생겨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편안히 그쳐지지 않고. 흉한 적의 충격이 오히려 그치지 않으니 어느 때에 다시 태평한 일월을 볼지 모르겠고. 늙은 어머니 와 처자는 어디로 떠도는지 그 살고 죽은 것을 묘연히 들어 알 수가 없으니, 생각 이 여기에 미치면 슬픈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을 어찌 참겠는가.



임진일록 | 壬辰日錄

7월

1일. 이날은 곧 인종(仁宗)의 제삿날이요. 지난 28일은 또한 명종(明宗)의 제삿날 이다. 주상께서 파천하시어 이 두 날을 당하시면 어떻게 마음을 잡으실 까? 북쪽 하늘을 바라다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주인 형이 육십현을 막 고 지키는 일로 어제 돌아와 현의 경계에 이르러 나를 맞아 함께 막혔던 회포를 풀 자 하니 아침 식사 후에 마땅히 달려갈 계획이다. 처음에 들으니 신립은 중원에서 패하여 강물에 빠져 죽었다 하더니. 지금 들으니 싸움에 패했을 때 준마를 타고 적 진을 뚫고 나와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자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죽지는 않았을 것 이다. 이국필(李國弼)도 역시 난리가 난 처음에 처자를 데리고 벼슬음 버리고 도망 가 숨었다가 그 죄를 항복했다고 하더니. 지금 또 들으니 깊은 산에 숨어 엎드려서 오히려 남은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데, 주림이 장차 박두해서 사람이 급한 것을 돕 는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길에서 주워들은 말로서 사실인지 자세 치가 않다. 이날 들으니 주인 형이 현(縣)의 천잠리(天蠶里) 한응기(韓應期)의 정 자에 와서 잔다고 하기에 즉시 달려가 보려고 했더니, 중도에서 들으니 용담(龍潭) 송현(松峴)의 복병이 적의 깃발을 바라다보고 먼저 저절로 무너졌다 하므로 그 정 자로 달려가서 간신히 한 번 만나보고 산속으로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었다. 적이 먼저 용담에 글을 보냈으나 그 글은 알 수가 없다. 대개 관찰사와 안무사가 거민들 을 무마한다는 이름으로 실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적은 이미 용담과 무주를 함락시켰다 한다. 오늘이나 내일 마땅히 이 현에 도착할 것이니 모 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관청 물건은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2일. 아침밥을 먹은 후에 아속들이 다시 절 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나무에 의지해 집을 만들고 잤다. 다만 올 때 골짜기 길이 험해서 간신히 올라왔는데, 주인형수는 잘 걸어서 별로 사람이 부축하는 근심이 없고, 다만 영진(英眞)의 조모는 중도에 이르러 학질을 얻어 말질손(末叱孫)·개손(開孫) 두 종을 시켜 걸음마다 엎고 부축하여 간신히 막을 친 곳에 도착했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런 일이다. 응일은

떠나 물리쳤다니 이는 기쁜 일이다. 현의 호장(戸長) 이옥성(李玉成)은 종 5명을 거느리고 아속을 호위할 일로 와서 산중을 찾아왔으나 곧 명령하여 복병이 고개를 넘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대체로 적의 척후병이 바라보면 달려가 보고해서 창황한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함이요. 만일 적이 현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 고개를 넘어 깊이 숲 속에 숨을 계획에서다. 이 막은 절에서 십 리쯤 되고 수목이 하늘에 닿아 햇빛 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삼복중이라도 모두 솜옷을 입고 그 더운 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해가 저물면 모기가 모여들어서 이것을 견디기가 어렵다. 천리 타향에서 몸 소 난리를 만나서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맛보지 못하고 몸이 또 편안함을 얻지 못하여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 인적이 이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 여 들어왔으니 어려운 고초가 이를 데 없다. 나무를 의지하여 깊이 생각하니 우리 늙은 어머니와 우리 처자. 우리 아우와 누이는 어느 곳. 어느 산. 어느 골짜기 속. 어느 물가에서 무슨 밥을 먹고 무슨 죽을 마시고 있는가, 배를 주리지나 않는가. 서로 얼싸 안고 우는가.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셔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깨닫 지 못했다. 또 금산으로부터 무주 용담을 거쳐 진안 · 장수에 이르면 그 사이 산길 좁은 곳의 구부러진 요해처가 몹시 많으니, 여기에 만일 수백 명 사수(射手)를 험 한 곳에 매복하고, 고개 숲에 의병을 많이 두었으면 저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반 드시 경솔히 나오지는 못했을 것인데, 여러 장수가 한 사람도 적을 막을 계책을 세 우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 먼저 스스로 물러가 도망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 겠다. 금산의 활 쏘는 군인 두 명은 군사가 패퇴하여 흩어질 때부터 길 밑의 풀 사 이에 엎드려 있다가 최후로 말 타고 오는 두적을 쏘아 죽이고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달려가서 순찰사에게 바치자. 순찰사는 후하게 상을 주었다 한다. 저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적을 여러 적들 속에서 쏘아 죽이고 말을 빼앗아 돌아왔으니. 만일 수삼 명의 용맹스런 장수가 각각 그 마음을 가다듬고 각각 2, 3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해처에 매복하고 소리를 같이하여 활을 쏘았으면 적이 반드시 달아나 저희들의 소굴로 돌아갔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딴 지경을 침범했겠는가. 가는 곳마다 먼저 무너져서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듯 하여 그 경솔히 업신여기고 길게 몰아 나온 것은 진실로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3일, 산속에 있는데 오늘은 곧 조모의 제삿날이다. 서울이 지키는 것을 잃은 후로 각자가 도망해 숨었으니 반드시 제사를 올릴 사람이 없을 것이니 비통함을 어찌 말하라? 새벽에 꿈을 꾸니 아내도 같은 집에 있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다. 막내딸 단아(端兒)는 분을 바르고 깨끗이 단장했는데, 내가 무릎 위에 안고 앉아 그 볼을 만지면서 말하기를. "너도 내 생각을 했느냐?" 하니 울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 다가 바야흐로 아내와 각각 헤어져 있던 외로움을 말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갑 자기 깨니 몸은 나무 밑에 누워 있고 동방이 이미 밝아 온다. 꿈속의 일을 깊이 생 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난리가 난 뒤로 세 번 꿈속에 보이 니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찌해서 이렇게 자주 내 꿈에 보이는가, 늙은 어머니는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꿈속 일은 비록 헛일이지만 꿈 속에서라도 한 번 뵙고자 해도 또한 되지 않으니. 내 정성과 효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비통함이 더욱더 심하다. 아침을 먹기 전에 호장 이옥성이 달려와 보고하 기를 "어제 적이 바로 고천면에 이르러 인가를 불태웠으며, 금산과 안성 창고에도 또한 불음 질렀으니 오늘은 정녕 현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주인 형 및 조방장 남평 현감(南平縣監)은 병진을 현의 앞 원(院)으로 물렸다고 한다. 아침을 먹은 후에 아 속과 함께 행장을 차려 가지고 다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 산이 더욱 높고 험준 하여 길도 없다. 열 걸음에 아홉 번은 자빠지면서 자주자주 쉬어서 겨우 고개 위 에 올라가니 싸리나무가 숲을 이루어 좌우로 휘어잡고 간다. 바로 가장 높은 데 이 르니 사방이 끝이 없다. 고개 동쪽은 경상도 함양 경계인데 군과의 거리가 한 식경 반 길이요. 동북간은 안음 경계인데 두 식경 길이요. 그 남쪽은 남원 땅인데 그 길 은 세 식경 남짓하다. 운봉은 또 그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한 식경 반쯤 된다고 한다. 고개 남쪽 언덕으로부터 오노라니 마치 벽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억지로 서로 붙들고 가는데 산허리에 미치지 못해서 바위가 우뚝 일어서서 높이가 7. 8길 이나 된다. 그 밑에는 찬 우물이 솟아나오는데 옛날에는 암자가 있던 곳이어서 그 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앞에는 축대 뜰이 있어 그 높이가 한 길이나 되는데 계단 이 완연하다. 폐허된 지 이미 오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전일에 응 일과 종 윤이 중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이보다 나은 곳이 없어 나무를 깎아 세워 표를 했기 때문에 이곳을 와서 찾은 것이다. 바위 밑에 나무를 얽고 기름종이 와 종이 띠 도롱이 같은 물건을 덮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오래 있을 계획을 했다. 현으로부터 석천암까지는 15리가 넘는데, 그 중간에 큰 고개 하나가 있어 길이 몹 시 험준하다. 그 암자로부터 어제 잔, 막(幕)을 얽은 곳까지는 또 십여 리나 되는데 더욱 몹시 험준하다. 또 그곳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또한 십여 리가 되는데 인적이 이르지 않은 곳이어서 길도 모두 끊겨 있다. 만일 멀리 가리켜 보는 사람이 없다면 적이 비록 현에 들어와 숲을 헤친대도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시 켜 날마다 고개 위에서 적을 망보게 할 계획이다. 다만 주인 형이 바야흐로 적의 지경에 있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이곳은 남원 땅 안쪽으로 추리(楸里)가 그 바깥쪽 이요 동리 이름은 서남(西南)인데, 옛날에 서남사(西南寺)가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졌다 한다. 우리들을 따라온 자는 여종 4명, 남종 5명, 관인 정춘(丁春) · 춘학(春 鶴) · 동이(同伊). 중 능인(能引) · 능찬(能贊)이다. 오후에 암자의 중 유운(惟雲) · 현각(玄覺)이 그 숨어 있던 골짜기 속으로부터 숲을 헤치고 고개를 넘어서 내가 있 는 곳을 찾았으니 그 심정이 귀엽다. 관인 동이란 자는 몹시 위태롭고 급한 것 같 아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는 주인 형이 이미 시켰기 때문에 모든 나의 일을 반 드시 함께 처리한 일이다.

4일. 산속에서 바위 밑에서 잤다. 이른 아침에 네 사람을 정해서 현 동쪽 고개봉수 (烽燧)로 보내서 적의 소식을 탐지하게 하고, 적이 현에 들어왔는지의 여부를 알아오게 했다. 낮에 관인이 주인 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적은 그때까지 현에 들어오지 않았고, 바로 진안을 함락시킨 후에 조방장 및 남평현감이 그 소식을 듣고 완산을 구원하려고 임실로 달려갔다 한다. 주인 형은 지금 현 남쪽의 인가에 있다니 민망하고 걱정되는 일이다. 관청에서 저축한 군량 및 관청의 잡곡을 모두 군민(軍民)들에게 나누어 주고, 민가의 곡식 있는 곳은 또한 모두 불태웠으니이는 적들이 양식을 보고 오래 머무를까 걱정한 것이다. 동면(東面) 무녀(巫女)의집에 곡식을 매우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또한 불을 놓게 하니, 창고와집의불이 2주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한다. 전일에 주인 형을 만났을 때, (이하 다섯 줄은 칼로 도려냈다)

적이 서울에 돌아온 뒤로 길이 막혀서 소식이 모두 끊어져서, 비단 한 집 소식을 얻어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한두 사람의 말이 있어도 이것은 길에서 들은 말이어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처음에 들으니 임금의 수레는 평양으로부터 고개 를 넘어 함흥부(咸興府)로 갔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다시 들으니 아직도 평양 에 있고 북쪽으로 간 일이 없다고 한다. 이 한 가지 일로해서 그 밖의 일을 알 수가 있다. 또 지난밤에 바위 밑에서 자는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밤중에 이르자 찬 기 운이 살 속에 스며들어 참을 수가 없다. 속옷을 모두 바위 구멍에 감추어 두었는데 꺼내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바위 앞뜰 위에 단칸집을 짓고 풀과 나무로 덮고 돌과 나무에 의지하여 휴식하는 곳을 삼았으나 만일 비가 내리면 반드시 샐 것이니 미리 걱정되는 것이 실로 많다. 그러나 적이 만일 오지 않는다면 비록 한 목이 어려운 고초를 많이 받는대도 계교할 것이 아니다. 조금 있자니 산비가 갑자 기 내려 위는 새고 아래는 습해서 견디기 어렵다. 만일 큰비가 종일 내린다면 말할 수도 없다. 저녁에 척후(斥候)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은 아직 현에 들어 오지 않았고, 사방 경계에 별로 소식이 없으니 필경 완산으로 행했을 것이라 한다. 5일. 산속 바위 밑에 있었다.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현 속에 가서 적의 소식을 알 아오게 하고, 또 두 종을 보내서 감추어 둔 바위 구멍에서 옷을 가져다가 추위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 바위틈에 순채 나물이 많이 났으므로 이것을 캐다가 나물을 만들고 또한 산나물을 캐다가 푹 삶아서 밥을 먹으니 비록 때가 지나서 쇠기는 했 어도 또한 산중의 일미이다. 저녁에 소식을 알러 간 춘학 등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은 아직 현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주의 적은 또한 용담으로 와서 모여서 관사를 헐어 버리고 냇가 위에 가가(假家)를 길게 지어 놓고 창구멍으로 사방을 바라다본 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나누어 진안 · 장수를 범할 것이다. 이는 곧 주인 형의 글 에 있던 말이요 이방(吏房) 이언홍(李彦弘)이 글로 적의 소식을 써 보낸 내용이다. [이하 여섯 줄은 칼로 도려냈다]

6일. 산속 바위 밑에 있었다. 낮에 현리 백언고(白彦鵠)가 와서 보고 갔다. 저녁에 종 박명련(朴明連)·한련(漢連) 등이 주인 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조방장 및 남평현감은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적진으로 갔다고 한다. 주인 형도 또한 관청으

로 돌아왔다고 한다. 처음에 들으니 적은 이미 진안으로 들어가고 또 현의 지경인 호천(狐川)을 침범했다 하더니 다시 들으니 이는 헛소식이라 한다. 이곳 일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딴 일은 알 만하다. 밤중에 두견새 소리가 들리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 없다. 자연 눈물이 흐른다. 꿈에 경여(敬興) 내외를 보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7일. 골짜기 속의 시냇가에서 잤다. 이날은 곧 칠석가절(七夕佳節)이다. 금풍(金 風)은 쌀쌀히 불고 눈썹 같은 달은 고개에 있다. 깊이 생각하건대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아직도 오늘을 생각하는가. 감회가 더욱 지극하여 슬픈 눈물을 금키 어렵다. 또 들으니 적이 또한 관북(關北)을 향하다가 철령(鐵嶺) 에서 패했다 한다. 그렇다면 관동(關東)도 또한 적의 늪 속에 들어갔으니, 늙은 어 머니와 처자가 만일 동쪽으로 피했다면 반드시 편안함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두렵고 한편 의심이 나서 민망하고 걱정스러움이 끝이 없다. 인정은 누구나 죽는 것을 미워하고 살기를 바라는데, 이때를 당해서 적의 형세가 날로 핍박해 와 서 바위 구멍에 숨어 엎드려 하루해를 일 년처럼 보내고 있으니 차라리 한 번 죽어 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그러나 어렵게 달아나 피해서 여생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이 반드시 화를 내린 것을 뉘우칠 때가 있을 것이요 흉적도 또한 오 래 머무를 운수가 없을 것이니. 조금만 죽지 않고 살면 다시 중흥(中興)한 해와 달 을 보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누이와 다시 만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에 양식을 져 오기 위하여 남자들을 모두 석천사로 보냈다. 아침을 겨우 먹고 나자 고개 위에서 포 소리가 들린다. 상하가 놀라고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응일은 먼저 형수를 모시고. 있는 물건을 모두 버리고 바로 서남 마을로 내려갔다. 나는 생각하기에 어제저녁까지. 적이 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 포름 쏘다니 반드시 이러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두 달려 내려 가는데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또한 함께 내려갔다. 골짜기 속은 깊고 멀고 험 해서 전보다 갑절이나 혹 자빠지고 혹 엎어져서 어렵고 괴롭기가 말할 수 없다. 거 의 골짜기 어구까지 가서 그치니 거리로 따지면 15리가 넘는다.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해 보니 헛일이다. 이는 필시 돌로 바위를 쳐서 그 소리가 포같이 났 던 것이다. 곧 도로 올라가노라니 몇 리쯤 가서 삼(麻)을 담가 놓은 곳이 있다. 시 냇가에 가가(假家)를 짓고 삼대로 덮고서 잤다. 그러나 밤중에 큰비가 갑자기 내린다. 즉시 기름종이를 덮었으나 그래도 비가 퍼붓듯이 내려 새는 것이 그치지 않아옷이 모두 젖는다. 갓모를 쓰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이 밤의 괴로움은 입으로 형용해 말할 수가 없다. 꿈에 윤겸이 보이는데, 딴 사람은 관동 별실에 있고 윤겸이밖에서 들어오더니 기둥 밖에서 절하고 나에게 말하기를 "네 말은 너의 주인집으로 보냈으니 타고 오는 것이 어떠냐?"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어렵고 괴로운중에 천성이 감통(感通)해서 저도 반드시 괴롭게 생각하여 이런 꿈을 꾸게 했는가,이 한 구절을 쓰노라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시어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8일, 골짜기 속 시냇가에서 잤다. 이날은 곧 선군(先君)의 생신이다. 이제 전일을 생각하니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누이는 오늘 어디에 있으며, 또한 오늘을 생각하는가. 슬프고 슬퍼서 눈물을 거두기가 어렵다. 저녁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호장(戸長)의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저께 적은 이미 진안에 들어가서 근처 산림을 불살랐으며, 관인과 촌민 다수를 잡아갔다는 것이다. 어제 적의 말 탄 자 4명과 보병 10명이 현의 경계를 와서 엿보는 것을 이 고을에서 정탐하던 사람이 적이 왔다고 소리치자 적은 포를 세 번 쏘고 도로 진안을 향해 갔다고 한다. 조방장 및 보성ㆍ남평 두 고을의 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 현에 와서자고 이른 아침에 주인 형과 함께 현 경계 십여 리 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한다. 그 뒤의 소식은 듣지 못했고, 다만 이 현의 모든 군사는 모두 도망해서 주인 형은 군사가 없이 홀로 나갔다 하니 이것이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9일. 골짜기 속 시냇가에서 잤다. 이른 아침에 종 주질동과 중 능인을, 적의 소식을 탐문하라고 봉수(烽燧)가 있는 곳으로 정해 보냈더니 저녁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이 범해 오는 곳은 없으나, 다만 어제 현 경계에 있는 덕안원(德安院) 원주(院主)의 집을 와서 불태우고 도로 진안으로 갔다고 한다. 이날 소나기가 여러 번 와서 종일 갓모와 도롱이를 쓰고 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녁을 보내노라니 괴로움을 형언하기가 어렵다. 또 전일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고 두려워 자빠졌던 자이랴. 일찍이 들으니 적들이 높은 봉우리에 올라 포를 쏘면 숲 속에 숨어

엎드렸던 자나 어린애나 개나 말도 반드시 놀라 움직였으니, 어린애가 울거나 개가 짖고 말이 울면 그 소리를 찾아 잡으러 온다고 하기 때문이다.

10일. 골짜기 속 시냇가에서 잤다. 이른 아침에 관인 동이·종 개손 등을 보내서 적의 소식을 탐지해 오도록 하고 종일 시냇가 돌 위에 쭈그리고 앉았노라니 허리 아래가 시려서 쇠와 같다. 저녁에 동이 등이 주인 형의 글과 전통(傳通)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주인 형의 편지 속에 말하기를 적이 8일에 이미 웅현(熊峴)을 넘어 완산으로 향하는데, 고개를 넘는 중에 장수 한 명과 상왜(商倭) 한 명을 베고 5명을 산 채로 사로잡았다 한다. 완산은 하도(下道)의 여러 군사가 와서 막는다고하니 반드시 쉽게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곳은 천잠에 진을 쳤고, 보성·남평및 조방장이 거느린 군사가 천여 명이요. 구례(求禮)태수도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현 북쪽 유현(柳峴)에 복병을 매복하고 있으니,이는 적이 장계로부터 돌아서 진 뒤로 나올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주인 형은 군사를 거느리고 중대(中臺) 고개 위에 복병을 매복하고 있으니,이는 적이 장계로부터 돌아서 진 뒤로 나올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주인 형은 군사를 거느리고 중대(中臺) 고개 위에 복병을 매복하고 있으니,이는 적이 진안·완산 등처에서 비밀히 넘어와 침범할까두려워해서이다. 또 영남의 적은, 운봉의 전통에 보면, 정승 안국사(安國寺)의 행차라 일컫는 2천여 명이 현풍현(玄風縣)에 들어와 자고, 4일에 가야산 및 금산으로 행했다고한다. (10여 줄은 칼로 도려냈다)현(縣)의 호장이 소의 뒷다리와 벌의 즙을 보내와서 밥맛을 돕게 했다.

11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어제저녁에 들으니 적은 완산으로 행했다고 했다. 전일 머물던 바위 아래로 도로 와서 오래 머무를 계획을 했다. 저녁에 적의 소식을 탐지해 가지고 온 자가 보고하기를 어제와 같고 별로 딴 일은 없단다.

12일. 산속 바위 아래서 잤다. 이른 아침에 사람을 관청에 보내서 소식을 탐지하게 했다. 낮이 되자 현리 백언고가 와서 보는데 주인 형의 편지 속에 7일에 적이 웅령 (熊嶺)을 넘을 때 나주판관(羅州判官) 김제군수 및 의병장 황염(黃焰) 등이 싸워서 백여 명을 쏘아 죽였고, 적은 세 개 진을 전주 안두원(安斗院)에 쳤다고 한다. 저녁에 소식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이 주인 형의 편지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데, 운봉의 전하는 글 속에, 영남의 적 안국사(安國寺)는 왜승이라 일컫고 여러 곳에 머물러 주둔한 적이 보였을 때 바야흐로 무주ㆍ지례 등지에 진을 치고 우리의

진퇴를 엿보면서 호남을 침범하려 한다고 하니 몹시 걱정스럽다. 대개 적의 형세 가 번져서, 전일에 진안에 있던 적은 이미 웅현을 넘어서 전주 땅에 진을 쳤고, 영 남의 적은 이미 무주 경계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합세해서 전주성을 삼키려는 것 이다. 또 들으니, 적이 산을 뒤질 적에는 의례 2, 3명을 시켜 높은 봉오리에 올라 가기를 들고 소리를 내면 혹 10명이나 혹 15, 6명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지러이 숲 을 쳐서 마치 사냥꾼이 꿩을 쫓듯이 하다가 만일 사람의 소리가 없으면 그대로 지 나치고, 만일 소리가 있으면 끝내 찾아낸다고 한다. 원중성(元仲成)은 용수암(龍水 岩)에 숨었는데 적이 와서 그 산을 뒤지자 등덩굴이 뻑뻑한 곳에 엎드려 숨어서 적 이 숲을 치면서 지나가서 간신히 면했다고 하니 위태하고 위태한 일이다. 또 순찰 사의 글에 지금 도착한 소식인데 요동(遼東)에서 크게 정병 5만을 내어 강변에 머 물러 성원(聲援)을 하고, 광녕(廣寧)의 양 총병 호(洋銃兵鎬)가 친히 명나라 군사 5 천을 거느리고 앞에 와서 적을 맞아 공격하고 그 나머지 조총병(鳥銃兵) 승훈(承 訓) · 곽몽미(郭夢微) · 왕 유격(王遊擊) 세 장수는 각각 수천의 병마를 거느리고 이 미 압록강을 건넜으며, 사 유격 유(史游擊儒)도 또한 정예병 1천 5백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었고, 또 의주목사(義州牧使)는 글을 써서 관전보(寬奠堡) 표첩(票帖) 안 으로 보내자 중국 조정에서는 산동도(山東道)의 수군 십만으로 수로를 거쳐 바로 왜노(倭奴)의 소굴을 부수게 했다고 한다. 중국의 구원병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자 우리의 병세가 크게 떨쳐 흉적을 소탕해 멸하고 서울을 회복할 것을 날짜를 따져 기약할 만하니 위로되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도(道)에 들어온 적이 바야흐로 치 열해서 소멸시킬 기약이 아직도 멀고, 산 속에 도망해 엎드린 지 이제 이미 반달인 데 절기도 이미 바뀌어 장차 옷을 갈아입을 때가 가깝다. 서늘한 바람이 저녁에 일 어나고 흰 이슬이 추위를 더해 주며. 산은 높고 골이 깊어 수목의 그늘이 가린 곳 에 오래도록 바위 밑에 있으면서 돌을 깔고 누웠으니 깊은 밤에 이르면 위는 차갑 고 아래는 습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거의 참을 수가 없고. 기분 도 또한 평탄치 못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13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영남의 적이 지레로부터 3일을 계속하여 무주로 넘어와서 장차 전주로 향한다고 한다. 운봉의 전통에 의병이 달려와 보고하는데 왜

적이 먼저 5백여 명을 운반하여 조그만 기 아홉 개를 세우고 다시 용대기(龍大旗) 하나를 세운 다음 그중 한 사람은 소가죽으로 교자를 만들어 말을 타고 지나가므로 지례 산척(山尺) 43명이 요긴한 길에 감추어 엎드렸다가 패두(牌頭) 서인손(徐仁孫)이 먼저 말 탄 자를 쏘자 교자에 탄 자는 땅에 떨어지고 적의 무리들이 놀라서 당황할 제,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함께 쏘니 다수가 활에 맞고 모두 놀라서 흩어졌다. 사노(私奴) 개이ㆍ김동이ㆍ명부 등이 힘을 같이하여 이들이 머리를 베어왜의 물건과 함께 실어 보냈다 한다.

14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이른 새벽에 꿈에 아내를 보니 평시와 똑같은데 큰 딸 혼인 이야기를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안색이 파리해 보이니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대체로 생전에는 다시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 슬픈 눈물을 견딜 수 없다. 난리가 생긴 이후로 네 번이나 꿈에 보이니 서로 생각하는 것이 독실해서 그런 것인가. 낮 꿈에는 심열(沈武)을 보았는데 꿈이 아름답지 못했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늙은 어머니를 열(說)이 모시고 강릉으로 간 것인가. 그렇다면 가히 안심하고 근심이 없을 것이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하랴. 저녁에 주인 형의 글이 왔는데, 적은 이미 완산 성황당 위를 점령하고서 중을 굽어본다 하니 그 위태로움이 몹시 급하다. 그런 때문에 이곳 조방장이 계속해 후원하도록 전령을 내려보냈다 한다. 완산이 만일 함락되면 적은 견고한 성을 점령하게 되니 나머지 성을 반드시 멀리 보기만 하여도 무너질 것이니 두어 달 동안은 난리가 반드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도망하여 숲 속에 숨은 자는 비단 주려 죽을 뿐만 아니라, 절기가 서리 내릴 때에 가까우니 반드시 냉해서 상할 터인즉 어찌 보존할 수 있으랴. 몹시 민망하다. 15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저녁에 들으니 나주목사 권율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15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저녁에 들으니 나주목사 권율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리로 온다고 한다. 요새 가뭄으로 인하여 바위틈 샘물이 장차 마르게 되어, 조석으로 쌀을 지고 수리 밖에 가서 밥을 지어 오니 민망스럽다.

16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저녁에 들으니 적이 현의 덕원(德院) 및 호천(狐川)에 와서 침범하여 민가를 불태웠고, 중대사(中臺寺)까지 와서 침범한다고 한다. 오후에 천둥이 치고 비가 크게 내려 가막(假幕)에 비가 새어 갓모와 도롱이를 입고지내고, 삼대를 엮어서 덮었더니 다시 새는 곳이 없다.

17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종의 무리를 석천암에 보내서 그 중들로 하여금 이 곳으로 양곡을 운반하여 바위틈에 넣어 두었다가 만일 적이 현에 들어오면 장차 백운산(白雲山)으로 옮길 계획을 했으니, 이는 양식을 가져오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오후에 큰비가 내리므로 사람들은 모두 바위를 지고 섰다. 저녁에 형의 편지가 왔는데, 적이 이미 중대(中臺)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둔하고 가지 않으며, 덕안원도 또한 불태웠다 하니 오늘 아침에는 필경 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보성ㆍ남 평이 군사를 거느리고 현의 천잠리에 주둔했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능히 막아 내지 못할까 걱정이다. 나주목사는 도로 태인(泰仁)의 순찰사로 돌아갔다하니 반드시 좌막(佐幕)을 불러갔을 것이다.

18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꿈에 천안 수주(搜主) 및 이여인(李汝寅) · 여실(汝實) 형제를 보았는데, 완연히 난리를 만나 피란할 계획을 할 때와 같으니 이는 무슨 징조인가.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적은 중대사로부터 임실 땅으로 넘어 들어와서 민가를 불태웠고, 완산은 굳게 지키고 있어 적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근처의 인가를 나누어 약탈하여 이미 우주창(紆州倉)을 헐고 바야흐로 옥야창(沃野倉)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평원을 거쳐서 바로 우도(右道) 여러 고을을 침범한다면 누가 능히 막으리오. 통분함을 어찌하리.

19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이 산 이름은 영취산(靈鷲山)으로서 함안 백운산과 마주 대하고 있고, 멀리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바로 남쪽 끝에 뻗어 위태로운 봉오리가 아득히 산과 구름 밖에 솟아 오른 것이 마치 천왕(天王)의 만 길 위에 오른 것과 같다. 그러니 비록 적의 천 명의 무리가 온들 내 무엇을 두려워하랴. 슬프다. 그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임언복(任彦福)이 와 보고 갔다. 저녁에 주인 형의 펀지를보아, 완산의 적이 모두 진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용담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적이 무단히 완산을 버리고 진안으로 돌아간 것은 완산의 성이 높고 굳게 지키며 하도(下道) 여러 군사가 안에 진을 벌여 치고 있어 경솔히 쉽게 공격해 함락시킬 수가 없고, 근처에는 들의 물건을 모두 치워서 들에 약탈할 물건이 없으며 양식이 장차 끊어지겠으므로 짐짓 진안으로 돌아갔다가 형세를 보아 무리를 합해서 이 현에

머물러 바로 용성(龍城)으로 향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 속에서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요. 또 들으니 중국 구원병이 크게 온다고 하고 산동 (山東)의 수군이 바로 그 소굴을 부순다 하므로 아직 이때 문에 돌아간 것일까. 적의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실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수삼 일 내에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종일 비가 내리고 음산한 안개가 산을 둘러싸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저녁에 정탐 나간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완산·진안·용담의 적이 모두 무주로 행했다고 하니 기쁘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생각건대 그 나라에 변이 있는 것일까. 평수길이 불러서 돌아가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21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지난밤에 큰비가 새벽까지 내리더니 오늘까지도 종 일토록 개지 않고 음산한 안개가 어제와 같다. 가막에 엎드렸으려니 위는 새고 옆 에서도 바람이 불어 옷이 다 젖고 찬 기운이 뼈에 사무쳐 거의 견딜 수가 없다. 이 속의 괴로움을 다 말할 수가 없다. 밤 꿈에 남고성과 누이를 보았는데, 다만 천지 (天只)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 찾아 물었으니, 이 무슨 징조인가. 깨고 나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가 없어 눈물이 수없이 흐른다. 저녁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적들이 모두 금산·용담으로 돌아가 다시 그 무리를 모아 가지고 다시 완산을 침범한다고 한다. 진안수령 도훈도(都訓導) 신령(辛齡)과 향리(鄕吏) 백학 천(白鶴天) 등이 적진 속으로 비밀히 들어가 동정을 탐지하다가 거기에서 전날 적 진 속으로 비밀히 들어갔던 가까운 사화과 용담기관(記官) 고충국(高忠國)과 서워 (書員) 안후근(安厚根) · 염무필(廉武弼) 등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웅치싸움에 왜 적이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70여 명이요. 그 밖의 화살에 맞아 다쳐서 실려 가고 끌려간 자도 역시 많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웅치에서 접전할 때 백마를 탄 왜장 이 목책(木柵)을 뛰어넘으려다가 화살에 맞아 즉시 죽었는데. 이런 후로 적들은 서 로 돌아보면서 얼굴빛이 변했다 한다. 웅치로 넘어 들어간 일은 당초에 우리 군사 가 화살을 쏘아 비 오듯 하므로 그때는 나가지 못하다가 화살이 드물어 진 뒤에 각 각 환도를 가지고 차례로 등 뒤에서 칼을 대어 물러서지 못하게 하여 죽음을 무릅

쓰고 그대로 고개를 넘었다 하니. 만일 두어 발의 화살이 있어 이것을 어지러이 쏘 았으면 거의 넘지 못했을 것이라 한다. 전주로부터 물러서서 진안으로 돌아간 것 은. 적들이 진산 · 금산 두 고을 사람들이 비밀히 약속하고 저들을 잡을 계획을 세 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로 인해 발분하여 온 군사가 도로 돌아가 두 고을의 산림 속 에 숨어 피한 사람을 모조리 죽인 후에 도로 전주를 침범했다고 한다. 또 말하기 를. 전주의 군세가 몹시 성하고. 지세도 또 조밀해서 형세가 쉽게 침범할 수 없으 리라고 한다. 이곳은 모두 용담현에 투항한 고충국 등의 말인데, 이것을 진안에서 수찰사에게 보고하고 수찰사는 여러 읍에 전령을 내려 적이 만일 퇴병해 돌아가면 혹 돌아가는 길을 끊기도 하고 혹 뒤를 따라가 공격하여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일렀다. 또 어제 무주 사람으로서 적에게 잡혀갔던 자가 숨어서 이 현 장계 남면(南面)에 왔는데 행동이 당황하므로 마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물었더니 말하기 를. "19일에 왜적이 날더러 장수 땅의 복병이 진 치고 있는 곳에 숨어들어 가서 동 정을 탐지해 다가와서 보고하면 즉시 군사를 내어 바로 그곳으로 향하겠다고 했 다" 한다. 이에 보성 · 남평 · 구례 세 고을 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장계 북면 송고 개에 매복하도록 즉시 떠나보냈다. 이에 주인 형도 역시 본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즉시 천잠면(天蠶面) 웅연천(熊淵遷)으로 달려가서 복병했다 한다. 또 진안의 적은 지난 17일에 모두 금산으로 돌아갔는데도 우리 군사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을까 두려워서 그들의 동정을 가서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그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성 · 남평 및 진안태수가 달려 들어가니 과연 한 사람 도 없고 냇가에 천여 칸의 막사를 친 것이 창문이 모두 찢어져서 차마 볼 수 없다 고 한다.

22일. 이날은 밤새도록 아침에 이르기까지 비가 잠시도 멎지 않고 어두운 안개도 어제와 같다.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적의 소식은 다른 것이 없다. 밤 꿈에 조목천 (趙木川) 형연(塋然) 및 그 아우 자옥(子玉) 영중(塋中)을 만났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고 한 중이 자리에 있기에 내가 묻기를, "중 상현(尚玄)이 지금 승천사(勝天寺)에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무슨 조짐일까? 상현은 속 명(俗名)이 강복(羌福)으로서 본래 직산(稷山) 땅에 살던 수공 노자(修貢奴子)이다.

5, 6년 동안 물러가 있다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들으니 목천 승천사에 있다기에 물은 것이다. 그 아비의 이름은 막동이고 그 아우는 윤겸의 집종이다.

23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아침에도 비가 개지 않고 어두운 안개도 그대로 끼 고 있어 하늘과 해를 볼 수가 없다. 이제까지 4일 동안이나 위는 젖고 아래는 습한 데 오래 그 사이에서 거처하니 피와 고기로 된 몸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 다. 오후에 비로소 개더니 초저녁에 또 오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않는다. 저녁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적은 아직 금산에 머물러 있고 무주에 있던 짐은 모두 영남으 로 실어 갔다고 한다. 또 진안군수의 글에 의하면 평양이 함락되어 임금의 수레가 용천(龍川)으로 옮겨 들어갔다고 하니 통곡함을 금할 수 없다. 흉한 적이 끝까지 쫓아 그치지 않아 이렇게 극도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겨울을 넘길 계획인가 보다.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은 비록 깊은 산에 숨어서 남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해도 이 제 넉 달이 지났으니 생각건대 이미 굶어 죽은 것이 분명하다. 비록 굶어 죽지 않 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얼어서 죽었을 것이다. 당초에 난리를 피할 적에 어느 겨를 에 겨울옷을 가지고 갔겠는가. 매양 이것을 생각하면 통곡하고 우는 것이 끝이 없 다. 다만 중국의 구원병이 크게 온다고 하니 생각건대 지금쯤 이미 관서(關西)에 도착했을 것이라. 믿는 바가 여기에 있는데 성패가 어찌될지 알 수가 없어 민망스 럽고 걱정이 된다. 요새는 연일 비가 내려서 샘물이 넘쳐 쓰고도 남으니 이로부터 는 쌀을 지고 물을 찾는 괴로움은 면했다.

24일. 산속 바위 밑에서 잤다. 아침 안개가 비록 걷혔으나 두꺼운 구름이 해를 가려서 이따금 밝은 빛이 새오다가도 이내 도로 감추어져서 습한 옷을 말리려 해도할 수가 없다. 저녁에 기관(記官) 백언곡(白彦鵠) 및 이득배(李得培) 등이 주인 형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오랫동안 바위 밑 냉하고 습한 곳에 있으면 반드시 큰 병이 날 것이니 다시 이 산골짜기 어구의 인가에 와 있으면 군사 15명을 거느리고 수호해 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옳지 못하다는 뜻으로 회보했다. 또 적이 이미 진산을함락시키고, 고산(高山) · 여산(礪山)에 머물러서 다시 전주를 침범하려 한다고 했고, 용담에는 지금 머무르는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영남에 있는 적은, 운봉의 전통에 보면 전주에서 퇴병한 적 4백여 명이 도로 지례를 지나는데 의병장 김면(金河)

이 오늘 그들과 싸우는데 승부를 모른다고 한다. 좌도(左道)의 적은 여러 고을에 가득하고 좌병사(左兵使)는 지금 청송(靑松)에 있다고 한다. 또 지례 장곡관(長谷館)의 복병장(伏兵將) 서예원(徐禮元)이 급히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적의 짐바리가 20여 리에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는데 그 중간에 혹 깃발을 세우고 그 뒤에는 백여 명의 군사가 반은 갑옷을 입고 호위하고 가서 군용(軍容)이 몹시 엄숙하다. 우리 군사가 뛰어들어 가 일제히 활을 쏘아 화살이 비 오듯 하자 적들은 일시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포를 쏘았으나 우리 군사는 더욱 기운을 내어 앞으로 나가고 물러서지 않으니 적은 이기지 못하고 지례로 달아났다. 우리 군사는 이긴 기세를 타고 십여 리를 쫓아가니 화살을 맞고 죽는 자가 그 수를 알지 못하겠고, 죽으면 즉시 실어 가서 머리를 베지 못하게 하는데, 화살에 맞은 자가 56명이 된다고 했다. 또 군관(軍官) 장응린(張應麟)은 자기 몸이 군사들보다 앞서서 적을 쫓으면서 계속해 활을 쏘다가 화살이 다하고 힘도 다하여 적에게 죽었다 하니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 공(徐公)의 거짓 보고가 아닌지 모르겠다.

25일. 오늘은 나의 생일로서 곧 늙은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날이다.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을 생각하면서 서로 울고 있는가. 천 리 밖에 떠돌아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맛보지 못하고 몸이 또 편안히 있지 못하고 바위틈에 숨어 엎드린 지 이제 장차 한 달이 되었으니 인정(人情)이 여기에 이르러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눈물이 힘없이 흐른다. 새벽꿈에 희미하게 아내를 보았는데 갑자기 꿈에서 깨니 층계 밑의 상수리나무에서 두견새가 와서 우는데 그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하여 듣기에 더욱 마음이 아파 슬픈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난리가 일어난 후로 다섯 번째 꿈에 보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매양 피차가 헤어져 떠돌아 수많은 괴로움을 겪은 지가 세월이 비록 오래었으나 만일 각각 여생을 보존할 수 있으면 반드시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늙은 어머니와 처자・아우・누이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생전에 만나 보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천지신명도 또한 반드시 감동할 것이다. 어젯밤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나를 청해서 만나자고 했기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뒷고개를 넘어서 쉬면서 비로소 석천암에 이르러 말을 타고 현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어서 거기에서 잤다.

26일. 일찍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들으니 주인 형은 장계 손인의(孫仁儀)의 집에서 잤다고 했다. 달려갔더니 주인 형은 순창군수와 군사를 이끌고 동구(洞□)에 나 갔다가 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서 인사가 끝난 후에 함 께 손(孫)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소식을 듣고 점심을 먹은 후에 주인 형은 나 현(羅峴)의 병진으로 가고. 나는 도로 본현으로 와서 잤다. 서로 헤어진 지가 겨 우 20여 일인데 머리털이 반이나 세었으니 이는 필시 너무 걱정을 한 까닭일 것이 다. 또 들으니 금산의 적이 며칠 전에 비로소 무주에 나타났다고 하니 반드시 도로 영남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이로 인해 서 이 현에 와서 침범할는지도 모르니 방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또 들으니 안음에서 기별한 글에 본도 대구 · 군위 · 영천 · 안동 등을 점령한 적들 이 이달 7일 이후로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밤을 타서 내려갔고. 왜장의 널(板) 세 개에 각각 명정을 세우고 역시 이미 동래로 내려갔다. 좌병사가 군인 2천여 명 을 불러 모아 의성(義城)에 주둔해 있는 적과 싸워서 소멸시키자 나머지 적들도 또한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이미 동래를 향해 갔다고 한다. 금산군 훈도(訓導) 의 말에는, 충청도의 각 고을에는 현재 머물러 있는 적이 없고, 다만 청주에만 수 백여 명이 있다 한다. 창원부사(昌原府使)가 급히 보낸 보고에는, 본부에 항상 머 물러 있는 왜적은 거의 다 잡았고. 나머지 적30여 명이 성안의 한가한 사람을 시 켜 그들의 짐을 지워 김해(金海) 해양강(海洋江)가의 배 있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 고 돌아갔다 한다. 또 김해부 사람의 말에는, 김해 해양강에는 왜적의 배가 가득하 고 좌우 산기슭에는 계속해서 가가(假家)를 지어놓고 밀양ㆍ김해에 왕래하는 백성 들과 함께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서로 마시고 놀다가 같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물러 간 지 10여 일에 왜적 6명이 서울로부터 내려오더니 입을 귀에 대고 말을 전한 뒤 에 모든 적들이 일시에 통곡하더니. 김해 · 밀양을 왕래하던 백성들을 남녀를 가리 지 않고 2백여 명을 다 죽인 뒤에 각처의 가가에 모두 불을 놓고 강에 가득하던 배 가 하룻밤 동안에 모두 내려가고 다만 수삼 척만 머물러 두었다. 불암(佛岩)에 머 물러 있는 배는 계속해서 대마도로 돌아가니 본부의 백성들은 모두 태수를 생각한 다 하고, 부사 서예원이 급속히 들어오라고 한단다. 또 좌도(左道)의 적세는 지금은 의병이 곳곳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고, 좌병사는 지금 청송부에 있어 바야 흐로 적을 소탕해 사로잡는다고 한다. 우수사(右水使)(원균)는 이달 8일 전라좌우주사(左右舟師)(이순신·이억기(李億祺))와 함께 나가서 적선 80여 척을 사로잡아서, 대개 전후(前後)에 벤 것이 7백여 명이나 되고, 10일에는 또 적선을 만나서 80여 척을 사로잡아서 전라수사가 벤 것이 2백여 명이요, 본도 수사가 벤 것이 2백 17명이며, 물에 빠져 죽은 자, 불에 타 죽은 자, 여러 고을 군민들에게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그 몇 천 명인지 모른다고 한다. 왜 5명을 생포한 중에 나이 젊고 거짓 스러운 자는 즉시 베고 나이 겨우 15, 16세 된 자는 하동현(河東縣)에 가두었다고급히 아뢰었다 한다. 또 들으니 중국 구원병 5만 명과 평안도의 군사 일만 명이 평양성을 포위한 것이 7월 7일의 일이라 하는데, 그 성패는 멀어서 얻어들을 수가 없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들으니 임금의 행차는 지금 용천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영상·우상 및 여러 재상들에게 명령하여 세자를 받들고 강계로 가서 머물도록해서 함경도와 서로 성원하도록 하게 했다고 한다.

27일. 현으로부터 석천암으로 도로 와서 잤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저녁에 들으니 무주의 적이 그 고을 민가를 곳곳마다 불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데, 마산곡(馬山谷)도 또한 이 난을 만났다 한다. 마산곡은 나현진과 겨우 한 식경의 거리로서 우리 집종 인수(仁守)가 사는 곳이다. 또 바위 밑에 가기를 다시 짓고 두껍게 해 일어 오래 있을 계획을 했다.

28일. 석천암으로부터 도로 뒷고개를 넘어서 간신히 산속에 도착하여 바위 밑에서 잤다. 저녁에 들으니 금산의 적은 옥천 땅 양산현(陽山縣)으로 옮겼고, 무주의 적은 그대로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한다. 보성(寶城)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이 현을 방비하는데, 다만 그 군사들이 중도에서 모두 도망했다고 한다. 또 보성의 영리(營吏)가 보고하는데 충청도 순찰사의 통지에 의하면, 중국 군사 11만과이일(李鎰)의 군사 일만이 이미 황해도에 도착해서 군량을 마련하여 올려 보내도록 법성포(法聖浦)에 있는 전세(田稅) 일천여 석을 군산만호(群山萬戸)로 하여금 올려 보냈다 한다. 또 호성감(湖城監)의 군관, 전주에 사는 유홍근(柳弘根)이 홍주

(洪州)에 돌아와서 하는 말 중에, 길에서 듣고 본 것으로는 개성과 서울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중국 구원병이 이미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세 번 주야 동안 노량(露梁)을 건넜다 한다. 그렇다면 중국 군사가 거의 경기 지방에 이르러서 서로 싸웠을 터인데 승패를 아직 듣지 못하니 민망스러운 일이다.

29일. 산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지난밤부터 비가 내려 오늘까지도 혹 개다가 혹 내리고 어두운 안개가 밤새도록 산에 끼었다. 낮이 되자 현리 백언곡이 산에 와서 말하기를, 금산 사람이 왜적 한 명을 사로잡아서 문초해 보니, 왜병은 원래 다섯으로 나뉘어 이미 모두 다 나왔었는데 군기를 모두 잃고 형세가 궁하게 되어 돌아가려 하나 법이 엄해서 그러지도 못한다 한다. 또 저녁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평양싸움에 적병이 크게 패하여 퇴병해 돌아갔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믐날.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오후에 비가 내리고 어두운 안개가 사면을 휩쌌다. 산에 들어온 뒤로 비 내리지 않는 날이 적으니 민망스럽다. 또 저녁에 주 인 형의 글을 보니, 보성 사람이 순찰소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중국 군사 6만이 평 양성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있던 적을 모두 죽여서 겨우 7명이 살아서 돌아갔는데, 그 무리 중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계속해 저희들의 소굴로 돌아갔다 한다. 만일 그 렇다면 삼한(三韓)을 재조(再造)한 것은 실로 황은(皇恩)에 힘입은 것이니, 신민의 감격함이 어떠하리. 전일 김해의 적이 서울에서 내려온 왜의 말을 듣고 서로 통곡 하다가 일시에 배를 타고 돌아갔다 했는데, 생각건대 이 소식을 들은 것일까. 쾌하 고 쾌한 일이다. 또 이 현의 복병소(伏兵所)에서 사로잡은 아이를 문초했더니, 그 는 곧 무주 사람으로서 이곳의 허실을 엿보는 자여서 즉시 머리를 베어 효시(梟示) 했다 한다. 또 그 아이의 말에. 금산 · 무주에 주둔한 적들이 수가 많다는 것을 보 여 주기 위하여 밤에 갔다 낮에 돌아와서 그치지 않고 돌아다녔으나 사실은 금산 엔 겨우 3동(同)이요, 무주에는 1동 반이 머물러 있다 한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적 27명이 용담 큰길로부터 이 현 지경에 도착했다가 복병과 정탐하는 사람들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물러가 산간에 머물러 자면서 사람을 시켜 진(陳) 친 허실을 탐지하고 있다 한다. 그런 까닭에 주인 형이 어제 천잠(天蠶)의 전에 진 쳤

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가로 진격하는 형세를 막았던 것이다. 금산 · 무주 두 고을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3백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 한 도의 여러 장수가 두려 워하고 겁을 내어 움츠리고 사면 경계만 지키면서 아무도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 하여 적으로 하여금 두 고을 사이를 횡행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인가를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면서 오래 머무르고 가지 않고 제 맘대로 흉한 일을 했으니 미워하고 탄식한들 무엇하라. 또 들으니 이 적들은 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다 하니, 이는 대개 양도 수사가 그들의 배를 모두 부쉈기 때문이다. 이 만호 충(李萬戸冲)은 5월 27일에 여기를 지나 임금 계신 곳으로 갔다는데, 지금 들으니 구례를 거쳐서 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적이 가까 이에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우도(右道)로 해서 지나갔는데, 도총도사(都摠都事) 에 배(拜)했다고 한다. 이것은 곧 구례군수가 와서 한 말이다. 이 공(李公)이 갈 때 집에 보내는 글을 보냈는데 전해졌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무주 아속 (衙屬)이 적상산(赤裳山)에 피해 들어갔는데 적이 이를 탐지하고 그 산으로 들어가 자 여러 사람이 바위 밑으로 떨어져 혹은 죽고 혹은 상했는데 그 부인도 또한 떨어 질 때 마침 나뭇가지에 걸려 그 죽음은 면했다고 하니 가위 다행한 일이다. 영동의 아내는 산림 속에 숨어 엎드렸다가 역시 적에게 탐지되어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치 못하다. 종윤이 가보겠다고 아침 식사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8월

1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내가 산에 들어온 후로 장차 한 달이 넘어 절기가 중추(仲秋)로 접어드니 찬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여 갑절이나 처량하다. 깊이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생각하면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아직도 보존해 있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리오. 또 관서에 들어간 적들이 모두 중국 군사에게 죽고, 서울에 주둔한 적도 역시 모두 내려갔다고 하니 만일 그렇다면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편안함을 보존하여 쉬고 있는가. 나 역시 걸어서 찾아가 보려하지만 이 도의 적은 아직도 군과 현을 점령하고 사납게 약탈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현을 엿보며 허실을 탐지하고 있어 그런 지 이미 오래이매 사면 경계의 보

루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엎드렸으니 한편 두렵고 한편 의심스러운데 또 어느 겨를에 서울에 올라갈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한갓 가슴 아파 올 뿐이다. 또 오늘 비로소 하혈(下血)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는지알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오랫동안 냉하고 습한 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후에는 혹 비도 내리다가 혹 개기도 했다. 어두운 안개는 여전히 사면에 깔려 있다. 초저녁에 오기 시작한 비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다. 종들은 바위에 의지하여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웠으니 불쌍하다.

2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아침이 되자 비가 비로소 개고 서풍이 안개를 걷어 가니 푸른 하늘과 흰 태양을 보겠다. 마치 나는 신선을 끼고 하늘에 오르는 기분이니 쾌하고 쾌하다. 저녁에 종윤이 산으로 돌아왔는데 적의 소식은 전과 같고 별로 딴 것이 없다.

3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아침 식사 후에 응일(이경백(李慶白))이 주인형을 만날 일로 산에서 내려갔는데, 중도에 들으니 적이 어제 안성창(安城倉)의 인가에 불을 놓았다 하므로 즉시 돌아왔다. 주인형이 현의 벼슬아치로 하여금 묻어두었던 물건을 도로 파서 가는 곳으로 져가기 때문에 아노(衙奴)를 즉시 내려보내서 파내어 함양 땅 백언곡의 누이의 집으로 보냈다. 적이 만일 그들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일 내 반드시 와서 이 현을 범할 것이다. 그러나 나현(羅峴)을 굳게지킨다면 반드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두려운 것은 보루를 지키는 군사들이 적을 바라보고 먼저 무너질까 하는 것이다. 안성은 현에서 두 식경 거리이고, 나현의 복병이 있는 곳은 더욱 가깝다.

4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어제 들으니 왜적이 와서 안성창의 민가에 불을 놓았다 한다. 그런 때문에 짐을 함양 땅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들으니다만 안성창 건너편 사전리(沙田里) 뒤를 불태우고 도로 무주로 갔다고 한다. 까닭에 아직 정지하고 머물러 두었다가 적이 가까운 곳을 침범한 뒤에 즉시 보낼 계획을 했다. 어제 일찍 붉은 감을 먹었다. 시절 음식을 보며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니어찌 슬프지 않으랴. 이 산속에 들어와서 길가의 인삼을 왕래할 때 손수 캐기도 했다. 표고버섯은 마른나무에 났는데 중들이 따 와서 국을 끓여 먹고. 또 그 나무를

져 오게 하여 막 밑에 놓아두고 거기서 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계단 밑에 당귀가 가득히 나니 이 산의 높은 것과 골짜기가 깊은 것을 알겠다.

5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응일이 주인 형을 보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갔다. 또 하혈을 하더니 어제 비로소 그쳤다. 저녁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순창의 활 쏘는 군사 천여 명이 직접 낙주를 탐지하려고 떠났는데, 적이 촌가 에 불을 놓고 약탈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중도에서 만나. 앞에서 한 사람을 쏘니 즉 시 자빠지므로 머리를 베자 나머지 적이 모여들어 포위했다. 이때 우리 군사 한 명 이 산에 올라가 입으로 호각을 불면서 큰소리로 외치기를 여러 고을 군사가 공격 해 온다고 하자 적은 이 말을 듣고 패해 달아났다. 활 쏘는 군사 9명이 이긴 기세 를 타고 쫓아가면서 쏘니 화살에 맞은 자가 거의 수십 명에 이르는데. 그중 적 하 나가 즉사하므로 장차 머리를 베려 하는데 여러 적이 와서 구해 가지고 업고 가서 베지 못했다 한다. 만일 입으로 호각을 분 사람이 아니었더면 여러 사람이 거의 면 치 못했을 것이다. (이하 10여 줄을 칼로 도려냈다) 영리(營吏)의 보고를 보면 수 원부사가 군과 이득추(李得春)을 서울에 보내서 적의 형세를 탐지해 보니. 서울에 있는 적은 대략 7천 6백여 명인데 세 대궐과 대평관(大平館) · 의정부 · 사복시(司 僕寺) · 군기시(軍器寺) · 제용감(濟用監) 등을 빠짐없이 불태웠고, 남대문과 동대 문만 오직 열고 닫게 하고 그 나머지는 돌로 굳게 막았다 한다. 서울 사람은 성안 에 들어간 것이 절반은 되고. 무사 송유일(宋惟一)이 적과 사귀어 군기를 수리했으 며, 그 나머지 무사 3백여 명이 또한 적에게로 들어갔으며, 동래군관(東萊軍官)이 라고 칭호하는 자가 장수가 되어 지금 종묘에 있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또 들으니 광해군은 요새 이천(伊川)에 갔다고 하니. 이는 곧 군사를 거두어 두 서 울을 회복할 조짐이다. 기쁘고 기쁘다.

6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꿈속에 어렴풋이 아내를 보았다. 난리가 난 뒤로 꿈에 보인 것이 여섯 번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또 임익길(任益吉) 형제를 보았는데 새로 벼슬을 한 것과 같이 온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 또 허영남(許永男)을 보고 우리 식구가 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하고 다만 말하기를 서울 북문으로 나갔다고만 한다. 또 종 옥춘(玉春)을 보아, 밤새 서울 집 일만 보이니 이

무슨 정조인가? 그윽이 듣건대 관동(關東)에는 적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만일 관동 깊은 산속으로 피해 들어갔으면 가히 화를 면했을 터인데 그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제 4개월이 되었으니 비록적의 화를 면했더라도 상하 10여 식구가 어찌 주려 죽는 것을 면했을까. 심열이 만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강릉으로 피해 가서 숨었으면 거의 양전(兩全)을 얻었을 것이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하겠는가. 또 들으니 광주목사(권율)가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금산에 들어가 점령하고 있는 적을 치려 하여 내일 떠난다 하므로 전령을 보내어 보성군수를 불러 용담 땅 송현(松峴)에 들어가 맞도록 했다 한다. 또 들으니 진안 땅 중대사에 적이 들어가 약탈할 때 법당의 주불(主佛)을 장목을 들어 탁자 아래로 내려쳐서 배와 등이 부서졌는데, 부처가 앉았던 방석과 부처의 뱃속에 감추어 둔 물건을 거두어 갔다고 하니 부처에게 영험이 없는 것을 알 만하다. 자기몸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중생의 목숨을 건진단 말인가. 절의 중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말하기를, 난리를 치른 후로 날마다 상서로운 기운으로 빛을 내뿜는다고 하니 더욱 가소롭다.

7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응일이 산으로 돌아왔는데, 관청 물건을 바꿔살 적에 내 옷과 행기(行器) · 요강을 가지고 왔다. 또 지금의 인사 관계를 보니 이산보(李山甫)가 이판(吏判), 이항복(李恒福)이 병판(兵判), 이성중(李誠中)이 호판(戶判), 이덕형(李德馨)이 대사헌이요, 그 나머지는 쓰지 않았다. 초여름 이후로 정초(政草)를 보지 못한 지가 이제 4개월이 되었는데, 또 밖에 오늘 다시 조정의 제목(除目)을 보니 슬픈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또 □□의 글을 보니, 평행장(平行長)이 상장(上將)이 되었고, 평의지(平義智) · 현소(玄蘇) (이하 1장은 칼로 도려냈다) 또 전에 들으니 관동에는 적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므로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만일 동쪽으로 달아났다면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했더니 이제 서울에서 온 글을 보니 서울에 머물러 있는 적은 지극히 적고, 강원도를 계속 왕래했다고 하니, 관동도 역시 그 화를 입었을 것이다. 더욱 민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또 서울에 머물러 있던 적은 전에 비해 아주 강해졌다고 한다.

8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지난밤에 동풍이 크게 불더니 새벽부터 큰비

가 밤새 내려서 우리가 자는 막이 새는 곳이 너무 많다. 그 새지 않는 곳을 골라서 쭈그리고 앉아 있자니 그 괴로움을 알 만하다. 또 어제 정목(政目)을 보니, 정종명 (鄭宗溟)이 문과 일등 일인으로서 전적(典籍)에 배했고, 이태호(李太浩)는 무과 일등 일인으로서 선공주부(繕工主簿)에 배했으니, 이는 필시 주상께서 평양으로 들어가 따로 정시(庭試)를 베풀어 문무(文武)를 뽑게 한 것이다. 오늘은 비로 인하여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9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새벽에 비는 비록 갰으나 아침 안개가 걷히지 않는다. 또 지난밤 꿈에 완연히 아버님을 뵈었는데, 내가 말하기를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니 대답하시기를, 갈 만한 곳이 없기로 처음에는 그대로 있으려고 했 으나 조정의 엄한 명령으로 성안 사람을 모두 내보내어 부득이 나와서 피했다 한 다. 내가 또 말하기를 우리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는 대답하 기를, 너의 처자는 그저께 배를 타고 제주로 들어갔느니라 한다. 나는 다시, 호남 에서 올라올 때 여기 오면 만날 것이라 했더니. 이제 제주로 갔다니 속히 우리 자 녀를 볼 수는 없겠군요 가련하고 가련합니다 하고 그대로 눈물을 흘렸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또 광주 묘소에 사는 허탄(許坦)의 처를 만났는데 이는 곧 사촌 서 매(庶妹)다. 내가 말하기를, 누이는 어느 곳으로 피해 가려 하는가 하자. 아우 희 철(希哲)이 곁에 있다가 대답하기를, 누이는 갈 곳이 없어 집에 있고 피하지 않는 답니다 한다. 내 또 말하기를. 묘소는 아무 일도 없느냐 하니. 아우가 대답하기를. 용궁(龍宮) 숙주가 석물을 조금 깨쳤고 그 나머지는 무사합니다 한다. 묘지기 종 억룡의 처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앞으로 지나다가 앉아 보이니 또한 무슨 까닭 인가. 어제 응일과 이야기하기를. 적이 묘소를 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선영(先瑩)은 강을 건너 광주 땅 큰길가에 있고 엄연히 석물도 세웠으니 흉적이 와 서 범했을까 깊이 걱정된다. 고어(古語)에 말하기를, 낮에 한 일은 밤에 반드시 꿈 에 보인다고 했으니. 이는 반드시 말로 인하여 꿈속에 나타난 것이리라. 또 난리 가 난 이후로 항상 원하기를, 비록 꿈속에라도 한 번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해도 되지 않더니 어젯밤에 얼굴을 뵈올 수 있었고, 또 아우를 보고 서로 문답하기를 완 연히 평일과 같이 하다가 갑자기 깨고 보니 이는 하나의 꿈속이라, 이불을 싸고 일

어나 앉아서 깊이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니 분명히 뵙는 것 같아 슬픈 감회가 가 슴을 메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에 응일을 불러 꿈속의 일을 다 말하자 응일도 역시 감탄함을 마지않는다. 응일은 곧 이경백의 자이다. 저는 늙 은 아버지와 처자가 있고, 나는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있어 사생을 모르는 것이 이 제 다섯 달이 되므로 매양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울기를 여러 번 했었다. 늙은 부 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피차 서로 같으니 슬프고 사모하는 뜻이 어찌 얕을 수 있으랴. 만일 이 꿈이 사실이라 하면 다음날에 반드시 다시 볼 이치 가 있을 것이니 아아! 슬픈 일이다. 또 꿈에 서울의 적은 이미 다 나갔다 하고 오직 한 왜가 인가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이제 마땅히 아주 간다고 한다. 이 에 집주인은 밥을 꺼내서 물에 말아 주었고, 나는 왜에게 묻기를, 너희들이 몇 명 이나 되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매우 많아서 거의 수삼 만 명이나 된다 했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생각건대 반드시 서울의 적이 모두 중국 군사에게 쫓겨 간 것이리 라. 꿈속의 일은 반드시 허사이지만 그러나 오늘밤 꿈에 늙은 어머니를 본 것은 이 같이 자세히 기억이 되다. 또 금산 적을 들어가 토벌하는 일은 7일에 약속하고 용 담 송현으로부터 들어갈 자는 부안 · 남평 · 무장(茂長) · 흥덕(興德) 등 관청의 여 러 군사요. 진산으로부터 들어갈 자는 중도(中道) 조방장이오, 광주목사는 가운데 에서 지휘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러 장수들은 무주의 적이 와서 구원할까 의심 하기 때문에, 보성군수로 하여금 무주 길을 요해처로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 고 여러 장수들이 바야흐로 진병하려 할 즈음에 방어사가 전령을 보내서 여러 군 사로 하여금 다 와서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정지하고 있었다. 또 들으니 문의 · 청주의 적을 토벌했고 승병(僧兵) 40여 명이 그 도로부터 들어와서 고산 등 의 중들과 약속하고 각각 서로 권하고 독촉하여 급히 치기로 했기 때문에 광주목 사는 다시 여러 장수와 더불어 오늘 들어가 토벌하기로 약속했다 한다. 그러나 아 직까지 성패를 모르겠으니 걱정되는 바이다. 방어사는 지금 완산에 있어서 지휘한 다 한다. 들으니 충청도의 승병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물러서 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이 이긴다고 한다. 만일 이 중으로 선봉을 삼았다면 거의 성공했을 것이다.

10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큰비가 내린 나머지에 서늘한 바람이 연속 불어서, 산은 높고 골이 깊으니 밤기운이 몹시 차서 아무리 솜옷을 껴입어도 오히 려 따뜻하지 않다. 만일 다시 열흘을 더 머무른다면 거의 견딜 수 없어 위아래가 반드시 냉상(冷傷)을 입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일을 당한 날에 깊이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생각하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아침 식사 후에 내 근심을 풀어 주기 위 하여 응일 · 종윤(宗胤)과 함께 막 뒤의 바위 위에 오르니 검은 구름은 말끔히 씻 어 없어져서 사면을 돌아봐도 거칠 것이 없다. 남쪽으로 두류산(頭流山)을 바라보 니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천 봉오리와 만 골짜기를 역력히 셀 만하다. 그중에 높이 하늘에 나온 것은 천왕(天王) · 반야(般若)의 두 봉오리요. 그 나머지 여러 봉 오리는 옆에 벌여 서서 우러러보고 있어. 마치 만국의 제후들이 천사에게 조회하 기 위하여 공손히 손을 잡고 서 있는 것과 같다. 운봉현(雲峯縣) 앞의 넓은 들에는 곡식이 반쯤 누르렀고. 황산(荒山) 서쪽 고개에는 승첩비(勝捷碑)를 우러러볼 만 하다. 멀리 성조(聖祖)께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의 일을 생각하니 의기가 편안하 여 화살을 한 번 쏘면 흉한 괴수는 땅에 자빠지고 여러 군사는 일제히 발분하여 천 지가 들끓고 적의 무리는 놀래어 흩어져 피는 흘러 내를 이루고 잡아 죽이기를 어 린애 잡듯이 하니 적들은 지리산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모두 굶어 죽고 배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여 삼한을 재조하여 백성들이 편안해졌다. 그 큰 공과 위대한 업적 이 비문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 당시의 일이 이와 같았으니 여기서 바라만 보고 한 번 가서 돌에 새긴 글을 만져 보고 꿇어앉아 읽어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 더러 운 오랑캐가 다시 남은 독을 품어 내어 때를 타서 비밀히 나와서 성을 무찌르고 장 수를 죽여 한 달을 넘지 못해서 도성을 바로 함락시켰는데도 한 사람도 감히 막지 못했으니 깊이 우리 성조의 지혜와 용맹과 공렬(功烈)을 생각하면 어찌 흠모하고 탄식하여 오늘날 원통해하지 않을 수 있으랴? 동쪽 가에 있는 백운산은 두 남도의 경계에 웅장하게 서리고 있어 비록 천왕봉처럼 높고 험준하지는 않아도 또한 영취 산의 다음을 간다. 골짜기가 깊고 나무가 빽빽하게 떨기를 이루었으니 이곳이야말 로 우리들이 다시 피해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다. 이름을 백운산이라 한 것이 실로 내 마음을 충격시킨다. 옛 사람이 태행산(太行山)의 백운산을 바라보던 것을 생각 하니 적공(狄公)의 회포가 어떠했겠는가. 평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했거늘 하물며 내가 밝지 못한 때를 만나서 자식과 어머니가 유리하여 생사를 모르는 일이 겠는가? 어떻게 하면 백운산의 최고 정상에 올라가 북쪽으로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사무치도록 통곡하여 한번 어버이를 생각하는 망극한 흉금을 풀어 볼 것인가? 아아! 슬픈 일이다. 함양군에서 전해 온 말에 군리(郡東) 박사신(朴士信)이 임금께 아뢰는 글을 가지고 6월 1일에 임금 계신 곳으로 가 보니 임금의 행차는 의주에 가 있고 당시는 아무 일도 없어 글을 올리고 8월 4일에 도로 왔는데, 그 말에 유구국(琉球國) 사람이 일본이 비어 있는 틈을 타서 평수길을 찔러 죽이고, 요동지휘사(遼東指揮使) (이하약 14행은 칼로 도려 없어졌다)

의병 종사관(義兵從事官) 송제민(宋齊民)의 통문 (8월 7일에 도착)

만력 20년 7월 21일에 전라도 의병 종사관 송제민은 통곡하고 두 번 절하고 나서본도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유향소(留鄕所) 및 향교훈도(鄕校訓導)·당장(堂長)·유사(有司) 등에게 통문을 보냅니다. 엎드려 아뢰건대 제민이 지난달 23일에 김 의장(金義將)(김천일)을 쫓아 수원부에 도착하여 산성에 머물러 주둔하고 5일을 머무르다가 서울의 적이 아직도 번지고 있고 청주·진천에 머물러 있는 적들도 또한 방자해서, 외로운 군사가 깊이 들어가면 양식이 걱정되기 때문에 일군(一軍)을 나에게 주면서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길을 막는 적을 소탕하여 구원하러 오는 군사를 통하게 하라고 하므로 여기 와서 충청도의 사우(士友)들과 함께 소의도(召義徒)라 이름하고 20일 동안에 2천여 명을 모집하여 여러 사람이 바라는 바에좇아서 함께 전 도사(都事) 조헌(趙憲)을 추대하여 좌의대장(左義大將)을 삼아 황간·영동 이하의 적을 막지 하고, 전 찰방 박춘무(朴春茂)로 우의대장(右義大將)을 삼아 금산 이상의 적을 막도록 하여 일을 다 조치하기 전에 갑자기 금산이 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는 때가 그런 것인가. 운명인가, 아니면 또한 인사(人事)를 다하지 못한 것인가.

말을 돌이켜 남쪽으로 돌아와 의병이 흩어지기 전에 다시 소집할 계획으로 은진 (恩津)에 도착하여 대군(大軍)이 이미 흩어진 것을 비로소 알았으니 이제는 어찌

할 수가 없다. 아아! 사람이 누가 죽음이 없으리오마는 그 죽음을 얻는 자가 어려 운 것이다. 섬 오랑캐가 극성을 부리는 날을 당해서 날랜 장수와 용맹스런 장수조 차도 또한 모두 바라보기만 하고 도망해서 구차히 살기를 도모하는데. 고제봉(高 霽峰)(고경명)은 유아(儒雅)한 문신(文臣)으로서 본래 군사에 대한 일을 모르는 터 에 하루아침에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아 갑자기 장단(將壇)에 올라 나라를 위하여 몸을 죽음으로써 임금께 보답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죽어서 충효가 모두 한집 에서 났으니, 죽어서도 남은 영화로움이 있어 열렬하게 빛이 있도다. 사람마다 각 각 한 번 죽음은 있는 법인데. 제봉에 있어서는 그 도리를 다하고 그 죽음을 얻었 다 할 것이니. 하필 못나게 눈물을 뿌리리오. 깊이 원통한 바는 군부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종묘사직이 재가 되었으며, 조선 7도를 모두 흉적이 짓밟는 마당이 되었 는데. 다만 호남의 한 도만이 아직 다행히 완전하니 장래 부흥의 기틀은 실지로 여 기에 있다. 게으른 장수와 교만한 군사는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무너져 흩어지 는데, 한번 창의(倡義)한 후로 인심이 비로소 정해져서 모두 적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한 번 싸움에 패하자 의기가 꺾이어 수습할 길이 없어 도리어 게으른 장 수와 교만한 군사가 웃고 욕하는 바가 되었으니 아아! 저 미련한 지아비와 사나운 군사 같은, 공을 좋아하고 이익을 탐하는 무리는 이익이 보이면 달려가고 해로움 을 보면 피하니. 이로부터 모신(謀臣)들의 항상 태도를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꾸 짖으리오

일찍이 호남은 예의의 고장으로서 조종에서 휴양의 은혜를 입은 지 수백 년이 되는데, 평시에 있어서는 선비라 스스로 이름하여 인(仁)을 자랑하고 의(義)를 뽐내던 자들도 이미 모두 공명(功名)을 피하여 수천 명 강한 군사가 일시에 모두 흩어져서 누구 한 사람 그 장수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한갓 용렬한 사람과속된 사람들이 함께 비웃는 것뿐이랴.

아아! 피를 찍어 장수를 배한 것은 추성(秋城)의 부정(府庭)이 저와 같고, 마음을 하늘과 해에 맹세한 것은 흰 해가 비쳐 주는 것이 이와 같은데, 장차의 면목을 어 떻게 천지 사이에 용납할지 모르겠다. 아아! 인의의 근본 마음은 이의 하늘에서 타 고나며, 처음에 받아서, 사람과 내가 같은 바는, 진실로 피차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막히고 막혀서 그 본심을 잃은 자도 혹 있고, 모양은 사람이면서도 마음은 짐승인 자도 또한 혹 있다. 오직 충성과 효도는 어찌 사람마다 하라고 책망할 수 있으라. 그러나 적을 토벌하는 일은 또한 충성되지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자가함께 원망할 바가 아니니, 어찌 다만 충성되고 의리 있는 자의 사사로운 원수이겠는가?

딴 도에서 이미 당한 일로 말한다면 남의 아내나 딸 · 자매들을 데려다가 열 명의 남자가 다투어 간음해서 쓰러져 죽는 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남의 부형을 죽이고, 어린이를 구워서 제사 지내고, 민가를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며, 남의 소와 말을 몰아가고 남의 노복을 몰아가며,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아 가고 남의 무덤을 파내 는 등, 몹시 흉하고 지극히 악한 짓이 천지를 꿰뚫어, 죄 없는 백성들이 땅을 피하 여 도망해 숨다가 길거리에 쓰러지고 시체가 골짜기를 메운 것이 몇 천 만 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7도가 텅 비었고 또 다섯 군이 함락되었는바. 오직 이 다섯 군 은 실로 호남의 깊은 골짜기로서 사방이 험한 곳이요 산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되 어 있다. 이는 우러러보고서는 공격하기 어려운 곳인데 저들은 목을 조르고 등을 만지는 편리한 점이 있어 그 형세를 의논하면 이미 어렵고 쉬운 곳이 있으나. 우리 군사가 새로 패해서 사기가 또 꺾이고 보니. 적은 이미 이긴 기세를 타고 스스로 힘을 넓히고 있다. 다행히 웅치의 혈전(血戰)으로 해서 적의 예봉(銳鋒)이 조금 꺾 이고. 전주에는 준비가 있어서 저들의 힘을 헤아려 스스로 물러가니 형세가 차츰 저들을 쫓게 되었다. 그러나 호서의 의병은 보은(報恩) · 연산(連山) · 진안 · 옥천 에서 수비(守備)하는 제도가 있고. 대장 조헌과 참장(象將) 이천준(李天駿)은 때에 맞는 인걸(人傑)로서 하늘 일을 헤아리고 때를 보아 적의 힘을 알아 이김을 거두어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과 같으니 형세가 능히 서쪽으로 달아나거나 북쪽으로 도망 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주를 거쳐서 동쪽 영남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김면(金 沔) · 곽재우 두 장수는 군사 쓰기를 신과 같이 하여 위엄이 적의 간담을 두렵게 하 고 있으니 반드시 즐겨 고개를 넘지 못할 것이다.

또 중국 군사 5만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함께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 면서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오면 개성과 서울에서 사로잡은 적과 충청도의 남은 졸개들이 땅을 덮고 와서 돌아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금산의 적과 합세하여 남쪽을 치고 서쪽으로 돌격해 와서 궁한 적이 살기를 가볍게 여긴다면, 물러가기를 좋아하는 장수로 하여금 잘 무너지는 군사를 몰고 어떻게 그 형세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실상 호남 땅의 부모와 백성들의 더할 수 없는 근심거리이다.

아아! 옛사람들은 천하의 백성을 내 동포로 알았는데 하물며 우리 한 도의 사자(士子)들은 조상 이래로 여기에서 나고 여기에서 자라서, 선인들의 혼백이 편안히 계신 곳이오, 부모ㆍ형제를 편안히 봉양한 곳이오, 처자와 아이들이 나서 자란 곳이오, 이웃 마을의 친구들과 사귀어 놀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이를 버리고 더러운 오랑캐의 신첩(臣妾)이나 종이 된다면 욕됨이 또한 심하니 차라리 한번 죽는 것이 영화롭다 하겠다. 하물며 또 계속해서 흉하고 참혹함을 당해서 골육과 친척이 적의 손에 죽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죽는다면 싸움에 나가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제 만일 한번 싸우는 것을 피하여 기어이 구차히 살고자 해도 그 사는 것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요 이 같은 참혹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한번 싸울 것을 결단 하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꼭 죽는다는 법도 없으니 끝내는 참혹 한 화를 면하고 길이 무궁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 나에게 절박한, 부득이 한 일이니 대체로 어찌 반드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마음에서 나와서 그렇겠는가?

아아! 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면 오나라와 월나라도 한마음인 것이니 대체로 우리는 한 담 안에서 같이 태어난 사람으로서 실로 한 배를 탄 형세가 있으니, 배가 가라앉는 걱정이 조석으로 박두했으면 비록 오나라 월나라 사람이라도 부득불 마음과 힘을 같이하여 어려움을 견뎌야 할 것인데 하물며 산천의 기운을 타고난 것이서로 가깝고 학문하고 생업 한 것이 서로 같으니 실로 형제의 의리가 있은즉 비단 옛사람이 말한 범연한 동포라고 할 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같은 도 여러 고을의 부로(父老)들은, 아비는 그 아들을 일깨우고 형은 그 아우를 권면하여뜻을 닦고 절개를 갈아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흉한 칼날을 막아서, 위로 군부의 원

수와 신인(神人)의 분함을 회복하고 아래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처자를 보호하여 길이 그 가업을 편안케 하면 천만다행이겠다.

혹시 파리하고 병들고 늙고 약해서 능히 싸움에 나오지 못할 자는 각각 군기와 전 량(錢糧)을 내서 싸움에 쓰도록 할 것이며, 혹 어둡고 미련해서 움직이지 않아 몸소 의거(義擧)에 나오지 못하고 또 물건으로 돕지도 않는다면 이는 어질지 않고 의리가 없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금수의 마음이오, 남을 돕는 무리이다. 이러한 사람은 각 관청의 명부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가 난리가 평정된 뒤에 이를 나라 안에 알려서 딴 사람에게 물들지 않게 할 것이다.

거사하는 조건은 자세히 뒤 기록에 있으니 8월 8일에 모일 때 일일이 갖추어 알릴 것이다. 한번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명이 권하는 법이다. 이번에 의병이 패한 것은 유학(幼學) 안영(安瑛)이 그 장수가 탄 말이 놀라는 것을 보고, 형세가 두 사람이 모두 온전할 수 없다 하여 스스로 그 말을 대장에게 주어 바꾸어 타게 하고 걸어가다가 즐거이 죽음을 당했고, 학유(學論) 유팽로(柳彭老)는 왜적이 어지러이 칼로 칠 때에 종들이 모두 달려 나가서 적을 피하라고 청했으나, 기는 노해서 거절하고 쫓지 않으면서, "내가 만일 달려 나가면, 대장은 어디에 있으라는 것이냐" 하고, 그 장수의 종들이 모두 흩어져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자 자기 종에게 명하여 그 장수를 호위해 나가게 하고 자기 몸으로 적을 막으니 사나운 적이갑자기 쳐 죽였다.

아아! 이러한 인심이 무너진 나머지에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잊고 구차히 살려고 하는 것은 곳곳이 다 그러하고 윗사람에게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것은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은 이익을 도모하고 공로를 계교하는 마음이 없이 능히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여 분연히 몸을 돌아다보지 않았으니, 만일 급급히 의리를 부르짖어 한때의 이목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미 꺾어진 사기를 부식시키고 이미 허물어진 기장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일은 급하지 않은 것 같으나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여러 고을의 향소(鄕所)· 향교(鄕校)는 각각 부의할 물건을 거두어 다소에 따라 사람을 시켜 그 집에 부의로보내고, 의병을 일으켜 적을 멸한 뒤에 해골을 거두고, 모여서 제사 지내는 자리에

곡하고 나서, 까닭을 갖추어 위에 알려서 정문을 세워 의기를 고취시키도록 하라. 그 나머지 일은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는다. 고인후(高仁厚)도 죽었다 한다.

이 통문을 보고 비로소 고경명 부자 모두 금산의 적에게 죽은 것을 알았다. 아비는 충성에 죽고 자식은 효도에 죽었으니 한집의 충효가 실로 진 장군(晋將軍) 변호(卞壺)의 일과 같아서 가히 앞사람을 빛내고 뒷사람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겠다. 또 하물며 안(安)·유(柳) 두 사람은, 그 장수를 보호해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죽음이 이르러도 피하지 않았으니, 같은 때에 먼저 무너져 삶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어찌 부끄러워 얼굴이 뜨뜻하지 않으랴. 아아!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다만 최경선(崔景善)의둘째 아들 진사 상겸은 또한 의병에 나갔었는데, 지금 들으니 고 의장(高義將)은군사가 패하여 죽음을 당했다니 용기 없는 선비들이 필연 흉한 칼날에 쓰러진 자가 많을 것이니, 상겸도 필연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심스럽고 민망함을 금치 못하겠다. 깊은 산에 숨어 엎드려 그 집에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한갓 한탄할 뿐이다. 그 뒤에 들으니 상겸은 병으로 가지 않아서 면할 수 있었다 한다.

11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그저께 이곳 여러 장수들이 용담 송현으로부터 진병하는데 보성군수가 군사를 독려해 먼저 나가다가 중도에서 왜적의 복병을만나서 여러 장수는 모두 무너져 퇴병했고, 보성군수와 남평군수만이 홀로 적의뒤를 쫓으니 여러 적들이 몰래 나오자 보성군수는 도로 달려 나왔고, 남평군수는말에서 떨어져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니 놀랍고 탄식함을 금할 수 없다. 여러 장수와 약속하지 않고 먼저 혼자서 경솔히 나가다가 적에게 패한 바 되어 도리어 적의세력을 도와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보성군수의 경솔함을 허물하고 남평군수가죽음을 당한 것을 애석해한다. 우리 군사도 또한 사상자가 많을 것인데 그동안의사정은 아직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남평군수의 성명은 한순(韓楯)으로서 주인 형의말을 빌려 타고 갔었는데, 그때 싸움에 홀로 이말을 타고 달려갔다가 죽음을 당한후에는 그말이 달려서 본진(本陣)으로 돌아온 것을 이 현의 도훈도가 정탐하러 마침 그곳으로 갔다가 끌고 왔다 하니 가련한 일이다. 또 이호연(李浩然) 등은 전일에 무주로 비밀히 들어가서 적의 형세를 정탐하다가 틈을 보아 활을 쏘려 했는데

마침 적의 무리수 10명이 풀을 베려고 소와 말을 끌고 나온 것을 만났다. 이에 그들이 풀을 베어 갖고 돌아갈 때 지나는 길에 가시 철망을 많이 깔아 놓고 길가 풀속에 비밀히 엎드려 있고,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적이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입으로 새소리를 내어 신호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소리를듣고 일시에 모두 일어나 먼저 말 타고 달려가는 자를 쏘니 화살 두 개를 맞고 땅에 떨어진다. 이에 현의 정병 백응희(白應希)가 먼저 들어가 머리를 베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앞으로 나갔다 물러섰다 하면서 활을 쏘니 적은 가시 철망을 밟은 자가 많았고, 화살에 맞는 자가 많아 자빠지면서 저희들의 소굴로 달려 돌아갔다. 화살에 맞지 않은 자는 겨우 2, 3인뿐이었다. 화살에 맞은 자는 비록 살아서 돌아갔어도 한 사람이 두세 개의 화살을 맞았으니 반드시 죽은 자가 많을 것이다. 소 두필, 말 두 필을 빼앗아 왔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쾌하다. 순창 사람도 또한 이런 식으로 비밀히 들어갔다고 한다. 또 함양 중현(中峴) (한쪽을 칼로 도려냈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잡은 자리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 잡았다는 말을 중현의 복병장에게 써 보냈으나 어딘지 알 수 없다 한다.

세자(世子)가 군민(軍民)에게 효유(曉諭)한 글

왕세자는 말한다. 하늘이 화를 내려 섬 오랑캐가 난을 지어서 여러 고을이 무너지고 찢어져 강과 육지가 지킬 만한 험한 곳을 잃고, 옛 서울이 함락되어 조정 사람이 그 터가 기장 밭이 되는 탄식을 낸다. 아홉 사당이 피란을 가고 임금의 수레가 멀리 떠나 2백 년 내려온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병화(兵火)의 참혹함이 옛날에도 드물게 있던 것이다. 슬프다. 우리 군민은 혹 적의 칼날에 맞아 초야에 쓰러지고 부모는 죄에 연루되어 그 믿는 바를 잃고 처자는 더러운 욕을 당하여 집을 보존하지 못하니, 이 원수의 원망스러움을 생각하면 어찌 차마 그들과 함께한 하늘 아래에서 살리오. 그러나 이제부터 하늘의 마음도 화 내린 것을 뉘우쳐서 회복할 기약이 있고, 중국에서도 구원병을 보내서 구름처럼 대동강에 주둔했으며, 두 남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용맹스런 군사들은 서울 벌판에 안개처럼 모여 있어서 군사들의 칼날이 가리키는 곳에 적들의 간담이 서늘하여, 이겼

다는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적들의 머리를 계속하여 바쳐 오고 있다. 그 위에 적의 괴수 평수길이 요새 죽어서 그 머리가 바다 위에 떨어져서 쇠잔한 군사와 남은 졸 개들이 마치 무너지듯이 고개를 숙이고 혹 거리에서 울기도 하고 혹 영동으로 패 주하기도 한다. 너희들 장사의 힘으로 이 망해 가는 오랑캐를 멸했으니 이는 이른 바 큰 화로를 두드려 기러기 털을 불태우고 큰 도끼를 휘둘러 아침에 난 버섯을 베 는 것과 같다. 내 상감의 명령을 받고 동쪽으로 와서 외람되이 나랏일을 보살피는 바 와신상담 아침을 기다려 맹세코 이 적들과는 함께 살지 않으려 하노라. 너희들 군민은 그 누가 우리 열성(列聖)께서 휴양하시던 곳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위로 종묘사직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아래로 사사로운 집의 욕됨을 생각하여 손에 침 을 뱉고 적을 섬멸시킬 때가 바로 지금이다. 벼슬을 주고 상을 주는 권리는 나에게 있으니 내 너희들에게 인색하지 않으리라 아아! 죽고 싶은 마음은 있고 살 기운은 없으니 다 함께 적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 성주(聖主)를 모시고 옛 서울로 돌아가 일찍이 소복되는 희망을 위로하도록 하라. 비변사(備邊司)에 통지해 의논하도록 전번에 여러 번 알렸으나 받아 보았는지 몰라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상감의 행차 는 지금 궁벽한 고을에 머물러 있는데, 이곳은 뒤에는 곡산(谷山)의 적이 있고 앞 에는 김화(金化) · 금성(金城)의 적이 있으며, 마전(麻田) 근처에도 역시 적이 있어 그 형세가 몹시 위급하다. 산골짜기 속의 쇠잔한 고을에는 병량(兵糧)을 또한 모으 기가 어려우니 백 가지로 생각해도 달리는 갈 만한 곳이 없으니. 부득이 위험을 무 릅쓰고 군사를 몰고 나가서 귀군(貴軍)과 서로 합하고자 한다. 귀군이 앞의 안산・ 인천에 있으면 이천으로부터 안협(安峽) · 삭녕(朔寧) · 연천(漣川) · 적성(積城) · 파주(坡州) · 교하(交河)를 거쳐서 강을 건너 김포(金浦) · 통진(通津)으로 들어가서 귀군과 서로 합할 것이오. 귀군이 만일 광주(廣州) · 수원에 있다면 연천으로부터 양주(楊州)를 거쳐 광주ㆍ과천(果川)ㆍ수원에 이르러 귀군과 서로 합할 것이다. 그 렇다면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편하고 적의 형세는 어느 곳이 드세고 어느 곳이 약한지 상세히 알아서 회보하라. 만일 파주 · 교하로부터 강을 건너게 되면 귀군은 모름지기 김포 · 통진의 선척을 정비하여 임금의 행차를 광주 상류(上流) 두미(豆 彌) 아래쯤에서 맞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계획도 또한 적의 길을 가로질러서 가 게 되니 몹시 위험하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를 당하여 위험한 곳을 밟지 않는다면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기로 부득이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귀군이 이미 나라를 위해서 창의(倡義)하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곧 회복시키는 방책의 첫째가는 일이다. 모름지기 백분 헤아려서 소루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여 계획을 세워 처리하도록 하라. 허다한 이야기는 이 글을 가지고 가는 관원의 입으로 전하는 것을 자세히 듣도록 하라.

엎드려 유문(論文)을 뵈오니 감격스러운 눈물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비변사의 글을 보니 광해군(光海君)께서 반드시 강남(江南)으로 오시려하는데, 병사와 의병장이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다. 이때를 당하여 신자 된 자로서 어찌 심력을 기울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계속하여 죽지 않으리오. 병사의 뜻은 이천으로부터 토산(兎山) · 우봉(牛峰)을 거쳐 금교(金郊) 앞 조그만 길로 강음(江陰) 땅에 이르러 남쪽으로 농포(農浦)에서 배를 준비하여 차를 맞아 배를 타고 감로사(甘露寺), 광정(光正) 서강(西江)을 지나서 강화부(江華府)에 이른다면 그 사이의 수로가 한 호수 사이도 되지 않아서 사세가 편하기 때문에 군관 신상절(申尙節) 등을 시켜 도로의 험하고 편한 것과 적세의 강하고 약한 것을 친히 살펴보도록 보냈다 한다.

12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들으니 주인 형이 순찰차 활 잘 쏘는 군사 50명, 건장한 군사 20명을 정밀히 뽑아 가지고 18일 이내로 순찰사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 이달 8일에 선유사(宣諭使)가 어필(御筆)로 쓴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거기에 이르기를, "이제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나의 죄이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에 나가는 것도 또한 신자의 의리이니, 경들은 조종의 덕을 잊지 말고, 한 번 무너졌다 해서 꺾이지 말고 서로 다 함께 충의 군사를 이끌고 규합해서 적을 쳐서 종묘사직으로 하여금 다시 편안하게 하여 이로써 세상에 드문공을 세우도록 하라. 이것이 곧 나의 밤낮으로 바라는 바이니 다시 더욱 힘을 다하여 또 일시에 달려오도록 하라"했다. 7월 3일에 쓴, 순찰사의 장계에 회답한 글에, "이제 경의 장계를 보니 삼도의 군사가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다고 하니 지금

에 바라는 바는 오직 남쪽 군사에게 있었는데, 졸지에 이 보고를 보니 마음과 간담 이 모두 땅에 떨어져, 큰 적이 오기도 전에 먼저 흩어져 돌아갔다고 하니 어찌 평 일에 호령이 밝지 못하고 대오가 정리되지 않아서 여기에 이른 것인가, 교련하지 않은 군사를 모아 가지고 오다가 딴 기이한 방도가 없으며, 갑자가 놀라는 일이 있 으면 모두 흩어져 돌아가는 법이니. 이것이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바인데 혹은 생 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인가? 듣자니 남쪽의 병들이 소식을 듣고 옷깃을 모아 의병을 규합해서 여기 저기에서 봉기하는 일도 혹 많이 있으니. 어찌 인심이 아직 떠나지 않고 조종의 남은 은택이 오히려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격문을 원근에 전하고 흩어져도 망한 자들을 불러 모아 기일을 정하여 크게 군사 를 일으켜 다시금 기이한 공을 세우도록 하고, 그중에서 정예한 군사를 뽑아서 두 어 길로 나누고 혹 샛길로 달려가서 바로 임금 계신 곳을 호위하면서 혹 영세한 적 을 소탕해서 그들의 예기를 꺾도록 하라. 또 혹 좌우에서 함께 나가 그 길이 한결 같지 않게 하라. 심지어 흥양(興陽)의 역사와 전주의 재인(才人)은 용맹하고 정예 롭고 과감해서 하나로써 천 명을 당하는 터이니 충의로써 권면하여 빠짐없이 뽑아 보내서 나의 밤낮으로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말라. 이제 중국 군사 수만 명이 강을 끼고 가까이 주둔해 있어 앞으로 나가려 하니. 주객(主客)이 형세가 달라졌은즉 바 야흐로 협공할 것을 의논하도록 하라. 본도 군사는 두 번 패한 나머지에 병력이 이 미 다했을 것이니. 반드시 남쪽 군사를 기다려 앞과 뒤에서 서로 호응한 뒤에야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니 급속히 다시 조정해서 출발하여 밤을 새어 달려오도록 하라" 했다. 이제 손수 쓰신 편지를 받들어 읽으니 목메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심 정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어 슬픈 눈물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성유(聖論)가 여기에 이르오니 한 지방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어찌 통곡하고 군부의 급한 어려움에 나 가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순찰사가 다시 군마를 일으켜 옛 고향을 회복할 때입니 다. 그러나 금산 · 무주의 적이 오히려 가득하여 방자히 구니. 반드시 먼저 이 적을 없애서 이로써 근본을 굳게 한 뒤에라야 가히 군사를 나가게 할 것입니다.

13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지난밤 꿈에 아내와 장녀를 보았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았다. 내가 참새 두 마리를 잡아서 손으로 찢어 날로 먹었더니 입속에 비

린 피가 가득하므로 도로 뱉어 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깨고 보니 슬픈 감 회를 이길 수가 없다. 또 최경선과 신충거(申冲擧)를 보았으니 또한 무슨 연고인 가, 또 들으니 금산에서 패할 적에 남제원(南濟院)으로부터 송현에 이르기까지 시 체가 쓰러져 서로 베고 있는 것이 대개 2백여 명이오. 숲 사이에 하늘을 보고 죽 어 있는 자가 있기로 살펴보니 곧 남평군수의 시체였다. 가까운 숲 속에 행전에 인 (印)을 싸서 묻어 둔 것이 있기에 파내서 보니 곧 남평군수의 인이었다. 이것은 필 시 남평군수가 살았을 때 묻어 두어 적이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하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놈의 적도 베지 못하고 우리 군사의 죽음이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보성군수를 보고 망령되어 나갔다고 하지만 만일 여러 군사들이 한꺼번에 나가면서 어지러이 쏘았던들 흉적이 반드시 어렵게 충돌해 오지는 못했을 것이니 남평군수도 구원할 수가 있었을 것이요 우리 군사의 죽음도 또한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바라다보고 먼저 무너졌으니 원 통해하고 한스러워한들 어찌하리오. 또 현리가 순찰사 있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전하는 말에 순찰사 이광은 파면되어서 백의(白衣)로 종군(從軍)했고, 새로 순찰 사에 제수된 것은 광주목사 권율이라 한다. 대개 장성에 사는 정운룡(鄭雲龍) 등이 그들이 두 번 모인 군마가 무너져 퇴병한 사연을 소를 올려 알렸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그 소를 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이제 조정에서 효유한 내용 을 보건대 적의 변이 있은 후로 국가에서 생민들이 생업을 잃은 것을 생각하여. 해 가 지내도록 바치지 못한 것을 모두 감해 주고, 긴요하지 않은 공물과 진상, 그리 고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의 제사에 바치는 물건까지 모두 권도로 감해 주어 모든 고을의 생민으로 하여금 모두 조정이 덕을 베푸는 뜻을 알게 했다. [한 줄 반쪽은 칼로 도러냈다) 또 조정에서는 법을 만들어 적의 장수를 베인 자는 가선 (嘉善)에 승진시켜 군(君)을 봉하고, 적 한 사람의 목을 베인 자는 사족(士族)이나 양인(良人)은 벼슬을 제수하고. 향리(鄕吏)는 부역을 면해 주고. 사천(私賤)은 양인 을 삼으며, 두 사람 이상을 베인 자는 각각 중한 상을 주도록 의논할 것이니 모든 촌민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서 사사로이 서로 권면해서 예리한 기운으로 적을 토벌하라고 했다. 또 중국 군사 십만 명이 이미 압록강가에 이르렀고, 선봉 5천 명

은 부총병(副摠兵) 조승훈(祖承訓) · 좌참정(左參政) · 곽몽징(郭夢徵) · 우참정(右 參政) · 대조변(戴朝弁) · 유격장군(遊擊將軍) · 사유(史儒) 등 20여 인과 함께 여 러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이미 의주에 도착했으니 이달 초순 전까지는 바로 평 양으로 행하여 평행장(平行長) · 평의지(平義智) · 현소(玄蘇) 등을 베이려 하기 때 문에 관서(關西) 한 길에 사기가 백배나 더 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운 사병이 구름 처럼 안주(安州) · 숙천(肅川) 등지에 모였고. 여러 고을 백성들도 또한 각각 분기 하여 혹은 활이나 화살을 갖고 혹은 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서 적을 토벌하는데 쫓기를 원하여 원수부(元帥府)에 나오는 자가 하루에도 백 명으로 계산된다. 또 8 월 5일의 유서에 보면, 용인에서 군사가 무너진 뒤에 경등이 다시 군사를 수습한 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습이 되어 어느 곳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 다. 지난번에 요동총병관(遼東摠兵官) 조승훈이 유격장군 사유(史儒) · 왕수관(王 守官) 등 군마 일만을 거느리고 이미 본월 11일에 압록강을 건너서 본국의 도원수 (都元帥) 김명원(金命元)・도순찰사(都巡察使) 이원익(李元翼)・절도사(節度使) 이 빈(李蘋)이 거느린 5만 명과 함께 일행이 되어 나가서 평양을 치자. 미친 적들은 기운을 빌어 이미 솥 속의 물고기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평양서윤(平壤庶尹) 남 복흥(南復興)의 보고를 보건대 적은 이미 기세가 꺾이어 감히 성에 나와서 싸우지 못하고 혹은 강을 건너 짐을 운반하는 자가 있어 현저히 도망할 모양이 있다고 한 다. 이에 중국 장수들이 서울에 이르고자 하여 적을 소탕하여 쓸어버리려 하니. 만 일 나머지 적이 몸을 빼쳐 도망해 지나가는 자가 있거든 경은 마땅히 도내에 호령 하여 장수를 정하고 군사를 뽑아 요해처를 차단하고 중간에 길 하나만을 열어 놓 고 좌우에 매복했다가 혹 적을 맞아서 치기도 하고 혹 뒤에서 공격하기도 하여 적 의 말 한 필도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여 큰 공을 세우도록 하라. 그 군사가 빨리 가고 더디 가는 것은 지금 가는 선전관(宣傳官)으로 하여금 중국 장수의 접대사(接 待使) 풍워부워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 및 도워수 김명원에게 탐문해 가져 갔으니. 경이 살펴 들어서 행하도록 하라. 친히 보낼 내용과 유지(有旨)는 중국 군 사 및 나라를 위하는 군사가 땅을 휩쓸고 오고. 의병들도 여기저기서 봉기하고 있 으니 힘을 빌린 나머지 무리들이 어찌 오래도록 하늘의 베임을 막겠는가. 이겼다 는 보고가 오래지 않아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금산과 무주의 적이 아직도 두 고을을 점령하고 있어서 한 도의 병력으로는 오래도록 토벌해 멸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서울로부터 도망해 오던 적이 들어가서 합세한다면 잘 무너지고 살기를 구하는 군사들이 궁한 적들과 충돌했을 때 어찌 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겠는가. 깊이 두려운 것은 호남의 한 길도 또한 도탄 속에 들어간 것이다. 또 들으니 전 담양부사 최경회(崔慶會)도 또한 의병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용성(龍城)에 주둔하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와서 모이면 여러 장수가 들어가 토벌한다고 하니, 만일 그렇다면 거의 가망이 있다고 하겠다.

14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밤에 꿈을 꾸니 나에게 막내아들이 있는 것 같아 나이는 겨우 4, 5세인데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무릎 위에 앉히 고 있더니 갑자기 죽어 간다. 즉시 아내에게 도로 주고서 소리 내 통곡하고 금시에 깨었으니 이는 무슨 징조인가? 나에게 네다섯 살짜리 아들이 없는데 꿈 징조가 이 와 같으니 생각건대 내 처자가 떠돌다가 반드시 구덩이에 쓰러져 죽은 것이로다. 또 더구나 어제 현리 백어룡(白於龍)이 군량을 가지고 병사를 따라 강화부에 도착 했다가 돌아가는데 말하기를, 흉적은 비단 경기 근처라, 해서 · 관동도 어느 고을 이나 그들에게 함락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곳이 없고 깊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도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 사람들은 모두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만일 적이 오면 도망하여 딴 곳에 숨어서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는 딴 곳으로 가서 혹시라도 그대로 있지 못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모두 잡혀 간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종도 없으니 미리 나가서 망도 볼 수가 없고 또 딴 사람들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니 어찌 구렁에 쓰러지는 화를 면했 겠는가?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 · 누이는 적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반 드시 놀라서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숨어서 산과 내를 넘고 건너서 혹 서로 붙들고 서로 이끌며, 혹 자빠지고 혹 넘어지면서 울고 떠도는 모습을 자세히 생각 하니 천지가 망극하여 소리를 내어 통곡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평일에 늙은 어머 니로 하여금 기한(飢寒)에 괴롭게 하여 하루도 얼굴을 펼 때가 없었는데, 이제 난 리를 당해서는 또 자빠지고 넘어지는 어렵고 위태로운 속에 업고 부축하지도 못 하니, 이 불효한 죄는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으니, 한갓 통곡할 뿐이다. 또 새벽꿈에 내 활의 허리를 꺾었으니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딴 사람에게 말하면 반드시 상서롭지 못하다 하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상서로운 일이오, 상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밤마다 계속해서 한 집 사람으로 보았고 또 활을 꺾는 징조가 있었으니, 반드시 흉한 무리가 다 멸망하매 다시 전쟁의 걱정이 없을 것이다. 활을 버리고 쓰지 않은 것은 마치 주왕(周王)이 말을 화산(華山) 남쪽에 놓아보낸 것과 같아서 종실(宗室)이 다시 편안하고 백성들도 편안히 살아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떠돌던 나머지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니 무슨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있으리오.

곽재우(郭再祐)의 상소(上疏)

경상도 의령에 사는 유학 신(臣) 곽재우는 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두렵게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두 번 절하고 주상전하께 말씀을 드리나이다. 엎드려 듣자 오니 서 울이 함몰되고 상감께서 파천하셨다 하오니 북쪽을 바라보고 마음이 막혀 통곡함 을 금치 못합니다. 왜적이 왔을 적에 무부(武夫)와 건장한 장수가 모두 소식을 듣 고 도망하여 무너지지 않은 자가 없사오니 성지(城池)가 높고 깊지 않은 것이 아니 옵고 병혁(兵革)이 견고하고 날카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옵고 다만 민심이 이 산(離散)하는데 연유하여 흙처럼 무너지는 걱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민 심이 이산하게 하는 것은 곧 김수(金晬)입니다. 김수가 다시 이 도의 감사가 되면 서 까다로운 정사가 사나운 법보다 더 심해서 상감의 은택이 가려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흙처럼 무너지는 형태가 이미 일이 없을 때에 나타나서. 적이 오기에 미쳐 서는 몸을 먼저 피해 도망하여 한 도의 지키는 장수로 하여금 한 번도 군사를 내 어 서로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큰 적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혹 뒤질까 두 려워하여 마치 왜적이 우리나라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사오니 김수의 죄 는 머리를 잡고 베인대도 오히려 인심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신이 김수에게 격 문을 보냈사온데 그 말에 이르기를, "원통하도다. 우리 한 도로 하여금 무너져 흩 어지게 하고, 우리 서울이 함락되게 하고 우리 성상으로 하여금 파천하시게 하고,

우리 한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피를 땅에 뿌리게 한 것은 모두 네가 한 것이다. 너 의 죄악은 너무 큰데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적이 난리를 빚어 만든 것이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천하의 토끼털을 다 뽑아도 너의 죄를 다 기록할 수 없고. 천하의 대나무를 다 쪼개도 너의 악한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 두 기일을 정해서 성을 쌓는데 백성에게 사납게 굴고 해독을 끼친 것으로 너의 죄 를 삼고, 절제(節制)하는 것을 방법에 어긋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몰래 들어오게 한 것으로 너의 죄를 삼지만 이것은 말을 모르는 자이다. 나라 안에 성을 쌓는데 비록 민심을 잃었더라도 급히 구는 것이 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너의 죄가 아니 요. 절제하는 것을 잘못하여 비록 군사가 패하게 했더라도 재주가 응변(應變)하는 데 모자랐으면 너의 죄가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너를 죄 준다면 어떻게 너의 마음 을 항복시키겠느냐. 너의 죄는 한 가지가 있으니 왜적을 맞아들인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왜적을 맞는다고 하는가? 네가 한 도의 정병과 용사 5, 6백 명을 뽑아 가지 고 이들을 거느렸는데, 동래가 함락될 때에는 먼저 밀양으로 달아났고, 밀양이 패 할 때는 또 가야산으로 도망했으며, 적이 상주를 지날 때는 몸을 거창으로 숨겨서 한 번도 일찍이 장사(將士)들을 권해 일으켜서 적을 치게 하지 못해서, 드디어 왜 적이 무인지경에 들어오듯이 하여 마침내 서울이 열흘 이내에 함락되게 하고, 스 스로 그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운봉으로 도망 해 넘어갔으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이야 어찌 속일 수 있으랴. 너의 두 번 째 죄가 있으니 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무엇을 패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 는가, 늙은 겁쟁이 조대곤은 족히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 도의 원수로서 이 미 김해가 함락되는 것도 구원하지 못하고 왜적을 보기도 전에 먼저 주진(主鎭)을 버리고 물러가서 정진(鼎津)에 진을 쳤는데 정진은 왜적이 있는 곳과 백여 리의 거 리나 되는데도 공연히 놀라서 무너져 흩어져서 회산서워(晦山書院)으로 도망해 들 어가서 드디어 여러 진과 각 읍으로 하여금 소문만 듣고도 도망해 무너졌으니, 대 곤의 죄도 베지 않을 수 없거니와 너를 효수해서 군사들의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서는 네가 과연 성을 버리고 군사가 패한 죄를 모르겠느냐? 너의 세 번째 죄가 있

으니 은혜를 잊은 것이다. 무엇이 은혜를 잊었다고 하는가. 들으니 너의 조상이 10 대를 붉은 인끈(標章)을 받았고 7대를 은장(銀章)을 받았다 하니 녹(禄)이 이미 후 하고 은총이 또한 융숭했었다. 그러니 의리에 마땅히 나라와 함께 기쁘고 슬픈 것 을 같이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해야 할 것이니. 진실로 능히 충절의 의리를 내 고 강개한 뜻을 내어 몸이 사졸보다 앞서서 죽을 마음이 있었다면, 모든 우리 영남 의 2백여 년 동안 길러 온 선비들이 그 누가 몸을 잊고 죽음을 본받아 나라의 부끄 러움을 씻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너는 군부가 패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울이 함락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겼으니 너는 과연 군부의 어려움이 급한 것을 알지 못했느냐? 너의 네 번째 죄가 있으니 불효한 것이다. 무엇을 불효하다고 하는가, 듣건대 너의 아비는 비록 다행히 일찍 죽었으나 참으로 강개한 충의의 선비였다. 만일 너의 아 비가 지금의 변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앞장서서 의병을 거느리고 나라의 원수를 갚 았을 것인데. 땅속에 있는 영령(英靈)도 생각건대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너 의 한 짓을 원통히 여기고 너의 잘못을 분하게 여겨 말하기를, 어찌 임금도 없고 어버이를 잊는 일이 내 아이에게 있을 줄 뜻했으랴 할 것이다. 너의 다섯 번째 죄 가 있으니 세상을 속인 것이다. 무엇을 세상을 속인다고 말하는가. 네가 바야흐로 조정에 벼슬할 때 조정에서는 너를 굳세고 과감하고 곧다는 것으로 영남을 안절 (按節)케 했더니, 영남에서는 총명하고 재주가 있다고 칭찬했었는데, 굳세고 과감 하고 강직하고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절충(折衝)하고 업신여김을 막는 마음이 있어 험한 곳에 의지하고 굳은 곳을 지켜. 적이 길게 몰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 원(圓)굴리기보다 쉬울 터인데 손을 모으고 방관하여 일찍이 한 가지 방 책을 계획하고 한 가지 꾀도 내지 못하고서 전혀 왜적의 도륙을 그대로 내버려 두 었으니, 전일의 굳세고 과단성 있고 재주가 있다는 것은 좋은 벼슬을 낚기 위한 것 이었는데, 오늘날의 어리석은 듯 겁내는 듯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너 의 여섯 째 죄가 있으니 부끄럼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부끄럼이 없다고 하는가? 영남의 왜적을 버리고 운봉을 넘어 전라도로 들어가면서 임금을 위하는 군사라고 자칭했고. 군사가 용인에 이르러서는 왜병 6명을 보고 군기를 버리고 군량도 던지 고, 금관자를 잃고 달아났다고 하니, 이는 미리 금관자를 버리고 군사 속에 섞여 서 적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니. 살기를 바라는 계획은 평일에 정해진 것 이요. 구차히 살 꾀는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던 것이다. 너의 일곱 번째 죄가 있으 니 이루어지는 것을 꺼린 것이다.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을 꺼린다고 하는가. 네가 도내에 있어서는 적을 토벌할 마음이 없어서 민심이 꺾이어 아무도 앞에 나가 적 을 치려고 하지 않다가 다행히 초유사(김성일)가 충성심을 격발시키고 의기를 고 동(鼓動)시키는 힘을 입어서 의병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적의 무리가 머리를 내놓 게 되자 인심이 차츰 합해지고 형세가 저절로 펴져서 지방을 쓸어 밝게 하고 전하 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것을 날짜를 세어 기다릴 수가 있는데, 너는 원수의 부끄 럼을 잃고 얼굴을 들고 다시 와서 호령을 내고 절제를 발하여 의병으로 하여금 흩 어질 마음이 있게 하고, 초유사로 하여금 이루어 놓은 공을 실패하게 하고 있다. 먼저 지은 악함도 이미 중하거니 지금 죄도 용서하기 어렵다. 아아! 북쪽 하늘은 먼 변방이라 도로가 막히고 험하여 왕법(王法)이 행해지지 않아서 너의 머리를 아 직 보존하거니와 빌린 기운과 떠도는 넋이 비록 천지 사이에 살아 있더라도 너는 실상 머리가 없는 시체이다. 네 만일 신자의 도리를 안다면 네 군관으로 하여금 네 머리를 베게 하여 천지와 후세에 사례해야 할 것이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 면 백성들이 네 머리를 베어서 신과 사람의 분함을 씻어 줄 것이니 너는 이것을 아 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도주(道主)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고 말하고 있사온바 평일 아무 일도 없을 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그 도주를 그르다 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나 이처럼 급하고 어렵고 위험이 박절한 때에 만일 입을 모두 다물고 있다면 이는 한갓 도주가 있는 것만 알고 전하가 계신 것은 모르는 것 입니다. 만일 경상 한 도의 사람이 전하의 신하가 아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차마 김수의 죄가 전하를 망해 가는 때에 진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송(宋)나 라 고종(高宗)은 호전(胡銓)의 소(疏)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 후세의 한이 되었 사오니 만일 전하께서 이 보잘것없는 말을 들으신다면 중흥(中興)의 공을 이룰 수 가 있을 것이오니 종실을 위해서도 몹시 다행하고 신민을 위해서도 몹시 다행하겠 습니다. 신은 진실로 노둔하와 강호(江湖)에 자취를 감추고 있었더니 이제 적의 변 을 당하여 종실이 위태롭고 망하게 되오매 스스로 조상이 삼대 동안 조정에 벼슬 한 것을 생각하오매 신기로운 꾀나 비밀한 계획이 비록 자방(子房)(장량(張良))에 게는 미치지 못하오나 원수를 갚을 마음은 신도 진실로 있사옵기로 만 번 죽을 계획을 세우고 4월 22일에 의병을 모집해 일으켜서 왜의 침략을 막았압더니, 다행히 전하의 위령(威靈)을 힘입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들에게 맹세하고 힘을 다하여 죽은 뒤에 그만두겠사오니 구구한 조그만 정성은 딴 것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그 미치고 참람함을 용서하시고 그 어리석은 정성을 살피시옵소서.

통문(通文)

의령의병장 곽재우는 널리 한 도의 의병 모든 군자들에게 고하노라. 김수는 곧 나 라를 망친 큰 하나의 적이다. 《춘추(春秋)》의 의리로 논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베 어야 한다. 의논하는 자가 혹 말하기를, 도주(道主)의 과실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데 하물며 머리를 베려고 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갓 도주가 있는 것만 알 고 군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다. 적을 맞아 서울로 들어오게 하여 군부로 하여금 파천하게 한 것을 도주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손을 마주잡고 방관하면 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신자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한 도의 사람 이 모두 김수의 신하라고 한다면 김수의 죄를 말하지 말고 김수의 머리를 베지 말 것이요. 한 도의 사람이 전하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고 한다면 나라를 망친 적을 사람마다 다 베일 것이요 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간사한 자를 사람마다 다 베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자는 혹 김수를 베는 것은 사체(事軆)에 마땅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적을 토벌하는 것을 사체라고 하는 것이 다. 김수는 사체를 멸한 지가 오래이다. 또 사체에 마땅하고 마땅치 않은 것은 진 실로 말할 겨름이 없고. 먼저 간사한 사람을 베어서 군사를 돌이키라는 조서가 없 게 한 뒤에 임금의 수레를 받들고 돌아와 중흥의 공을 세우면 크게 사체에 마땅할 것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의병 여러 군사들은 이 격문을 자세히 보고 군인들을 거 느리고 김수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그 머리를 베어 임금 계신 곳에 바친다면 그 공 이 수길(평수길)의 머리를 바친 것보다 갑절이나 될 것이니 오직 의사들은 알아서 할 것이다. 만일 혹, 수령이 종묘와 나라가 장차 망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군신의 대의를 꺼려서 적 김수에게 붙어서 그 고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의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김수와 함께 베일 것이다.

이제 곽 공(郭公)의 상소와 격문을 보니 그 뜻이 있는 바를 알겠다. 김수는 죄가 없을 수가 없으나 그 죄를 들어 위에 글을 올려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격문을 돌려 군사를 움직여 먼저 도주를 베인단 말인가. 큰 적을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자중(自中)의 난을 일으킨다면 재우(곽재우)의 행동이 비록 종묘사직을 위해서는 큰 공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번 일은 그것이 꼭 온당한지 모르겠다. 하물며 김수를 조정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어찌 한 선비의 베임이 된단 말인가? 영남의 의사로서 조금이라도 사체를 아는 자라면 어찌 재우와 붙어서 부당한 행동을 일으키겠는가? 또 지금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이도순찰사 이광(李洸)이 파직되어 백의로 종군하고 광주목사 권율이 대신 순찰사가 되었다 한다. 그러나 아직 파직 당한 까닭은 모르겠다.

15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밤중부터 큰비가 내려 밤새 그치지 않아 가막에 비가 새서 움츠리고 앉아 아침까지 있자니 그 고생을 알 만할 것이다. 오늘은 곧 중추가절이다. 그런데 성 남쪽 산소에 아무도 가서 쓸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상로(霜露)의 감회를 깊이 생각하매 애통함이 끝이 없다. 하물며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생존하고 있는가? 오늘날을 생각하니더욱 통곡할 일이다. 또 주인 형의 글을 보니 유영근(柳影謹) 삼형제가 회암(檜岩) 근처에 피란하고 있다가 세 사람의 내외가 일시에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놀라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유희서(柳熙緒)가 그 어머니와 함께 적에게 죽었고, 김순명(金順命) 형제도 또한 죽음을 당했으며, 성중 사람이 반 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저같이 인력이 남음이 있는 자도 오히려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홀로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통곡함이 끝이 없다. 이 말은 순창에 사는 진사 조유관(趙惟寬)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좌수사의 군관이 주인형에게 전한 말이다. 조(趙)는 곧 유영근의 친구로서 주인형은 유영근과 동서(同壻)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세히 말한 것이다. 주인형이 급창(及唱)을 보내서

글을 보내 말하기를, 일기가 몹시 찬데 오래 바위 밑에 있으면 반드시 큰 병이 날 것이니, 오늘 산에서 내려와서 형의 골해동(骨害洞) 산점(山此)으로 옮겼다가 적이 만일 와서 가까운 지경을 범한 뒤에 함양 땅으로 피해 달아나도 무방하다고 했다. 골해동으로부터 함양까지 가는 길은 그다지 험준하지 않아서 말을 타고 갈 만하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비가 이렇게 와서 산길이 미끄러워 고개를 넘을 수가 없으니 아직 정지했다가 비가 개고 길이 마르기를 기다려 석천암으로 옮겨 적의 형세를 보아 다시 골해재(骨害帖)로 옮길 계획이다. 또 현 사람들이 오늘이 가절이기 때문에 떡과 술과 고기와 실과 등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주는데, 마침 유영근 내외의 부음을 들었으니, 수주와 응일이 통곡한 나머지이니 무슨 겨를에 음식생각이 있겠는가. 다만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어서 보냈다. 또 비로소 햇밤과 햇대추를 보았는데, 이런 햇것을 보니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여 감창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16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가을비가 비로소 개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걷히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서 쓸쓸한 바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밤 꿈에 아내가 보이고 또 이시윤(李時尹)이 보이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사흘 밤을 계속해서 아내가 꿈에 보이니 생각하건대 필시 이미 죽어서 평일에 서로 생각하는 정에서 그 정혼(精魂)이 자주 내 꿈에 보이는 것인가. 눈앞에 가득한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죽었단 말인가. 만일 같이 죽지 않았다면 어느 곳 산속에서 서로 울부짖으면서 주려 죽었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깊이 통곡하고 목숨을 끊고 싶기만 하다. 또 들으니 안성에 사는 서인(庶人) 홍계남(洪季男)이 스스로 장수가 되어 자기가 모집한 군사 5백여 인을 거느리고 적의 예봉(銳鋒)을 맞아 막았기 때문에 그 밖의 두세 마을은 적이 와서 침범하지 못하여 반드시 완전함을 얻었을 것이라 한다. 또 본도의 병장 김천일이 의병 1천 5백여 인을 거느리고 지금 안산에 주둔해 있고, 병사 최원(崔遠)이 거느린 1만 8천여 명은 차츰 떠나가서 지금은 겨우 4, 5천 명이 있으나 그들도 또한 군게 있을 마음이 없으니 필시 도망갈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무구와 함께 이 땅을 회복한단 말인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믿고 바라는 것은 다만 중국 군사뿐인데, 그들이 왔다는 것을 들은 지

는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이겼다는 소식이 없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 것은 모두 지난 보름께의 일이요. 현리 백어룡이 병사가 있는 강화로부터 와서 한 말이다. 또 의병장은 지난달 17일에 병사와 함께 강화에 있었는데. 노량에 주둔하 고 있던 적이 와서 인천 · 부평 · 김포를 함락시키고 이달 24일에 통진에 이르자 통 진군수는 적이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달아나 나와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달아나 니,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은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고, 병사와의 병장이 보낸 구원 병도 역시 모두 무너져서 왔다고 한다. 지난달 21일에 왕세자가 이천(伊川)에서 글 을 내리기를, "내가 외람되이 권도로 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회복하는 책임 을 맡아서 스스로 믿는 바가 있으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까 두렵다. 멀리 상감의 행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이미 천 리가 되니 다만 서쪽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뿐이 다. 오늘날의 나랏일은 10에서 8, 9는 제쳐놓고 밤낮으로 오직 나라를 위하는 군 사를 바랬었는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어 바야흐로 긴박할 즈음에, 이제 들으니 제 공(諸公)들이 창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미 서울에 다다랐다 하니. 이는 실로 천지 와 조종이 조용히 도와서 그런 것이니. 종묘사직의 존망은 오직 제공의 힘을 쓰고 안 쓰는 데에 있을 뿐이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한 자에게 큰 훈작을 내리는 일도 역시 백어룡이 전한 말이다. 또 들으니 황해도 이민(吏民)들이 적과 통모(通 謀)해서 비록 그 읍재(邑室)라도 자유로이 하지 못한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 하겠다. 윤함은 지금 해주의 처가에 있으니 만일 배를 타고 피해서 강화로 들어갔 으면 거의 화를 면했겠지만 만일 산속으로 피해 숨었으면 흉적들이 산을 수색하는 것이 몹시 심해서 숲 속에 숨어 엎드린 자도 벗어나지 못하다고 하니 필시 면치 못 했을까 두렵다. 비록 섬 속으로 들어가도 바다의 적도 또한 많다고 하니 민망하고 걱정됨이 더욱 지극하다.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일 년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피차에 원통함이 천지에 끝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 서 슬픈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네 자식 중에 오직 막냇 자식만이 나이도 어리고 학문도 성취되지 못했고. 그 나머지 세 자식은 문예도 조 금 이루어져서 시비를 조금 아는 터이니, 한집이 비록 가난해도 스스로 생업을 이 룰 터여서 자식이 남에게 뒤지지 않고 남들도 또한 이것으로 허여하기 때문에 어 리석고 둔한 마음에 매양 스스로 만족히 여겨 오직 입신양명할 기약이 있기를 바랐더니, 어찌 오늘날 이러한 큰 변을 당해서 부자가 유리하여 각각 남과 북에 있어 생사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다만 스스로 생각하건대 평생에 불의한 일이 없었으니 어찌 내 자식으로 하여금 이름 없이 죽게 하겠는가. 밝은 해가 비쳐 보고 있으니 실로 내 마음을 감동할 것이니, 사람은 비록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을 어찌 속이 겠는가. 밤낮으로 조용히 빌 뿐이다. 또 들으니 경상도 순찰사 김수의 두 아들, 두 딸 및 사위와 초유사 김성일의 두 아들이 모두 적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참혹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나머지는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 한스러우리오.

17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열흘 날 뒤로부터 가을 날씨가 쓸쓸하여 단 풍잎이 물드는 아름다운 절기도 멀지 않았다. 바위 앞의 산국화도 스스로 그때를 알아 난만하게 꽃이 피어 향기로운 꽃망울이 아름다워 바람결에 오는 냄새에 감회의 눈물이 저절로 떨어진다. 옛사람의 회포가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으랴. 슬픈 일이로다.

18일. 유영근의 부음을 들은 지 4일이 된다. 수주는 응일과 함께 잠시 술과 떡을 차려놓고 한 번 울고 제사를 올리니 나의 슬픈 감회가 이로 인해서 더해진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아속과 함께 도로 뒷고개를 넘어서 석천암에 도착하니 마치 넓은 방에 들어온 것 같아 답답했던 회포가 좀 넓어진다. 밤 꿈에 정 사과(鄭同果)댁과임 참봉댁이 보이는데 행동이 파리해서 옛날 모습과 같지 않다.

19일. 절에 있었다. 밤 꿈에 내가 관동(館洞) 성균관으로부터 내려오니 맑은 물이가득한데 그물질할 만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고 있어 옛날의 비좁고 말랐을 때와 다르다. 전번 날 꿈에는 동쪽 냇물도 맑고 넘치기가 이와 같았으니 반드시 국가가 다시 편안하고 동서가 서로 화합하여 글을 숭상하고 학교를 이룩하여 우리 도가 크게 일어날 징조인가 보다. 또 이경여(李敬興)를 보니 완연히 옛날과 같았다. 또 운봉현감은 적의 형세를 탐문하고자 사람을 경상도 순찰사에게 보냈더니, 영리가 보낸 글 속에, 여러 곳에서 패해 도망한 적들이 모두 본도에 모여서 도내 여러고을을 점거하고 있는 수가 당초에 비교해서 몹시 많다고 한다. 좌도(左道)는 안동·대구·현풍·창령·영산·밀양·청도·경주·울산·동래 및 안동의 임내(任

內)·풍산현(豐山縣), 우도(右道)에는 문경·상주·선산·개령·금산·성주·소성·진해·김해 등처에 지금 바야흐로 주둔하고 있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하고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갔다가 다시 와서 왕래가 무상해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한다. 영천·지례의 적은 이미 일찍이 여러 군사가 힘을 합하여 모두 섬멸하여 남기지 않았다. 창원에 머물러 있는 적은 내응하는 사람과 비밀히 약속하고 밤에 공격하여 30여 명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그 나머지도 쫓아가면서 쳐서 모두 죽였다. 우도 세 고을은 이미 수복했고, 성주에 들어와 점거한 적도 또한 내응하는 사람과 상통해서 적 3백여 명이 개령(開寧)으로 행할 때 성주 조사와 중도에서 접전하여 30여 리를 쫓아가 적 30여 명을 베이고 사로잡았다. 그 밖의 여러 고을에 왕래하는 적들은 혹 앞에서 맞아 공격하고 혹 뒤에서 치기도 하여, 적들이 머리를 바치러 오지 않는 날이 없다 한다. 또 금산·무주의 적은 모두 섬멸한 뒤에 무리를 내어 합세하여 금산으로부터 차츰 섬멸할 계획이요, 영동으로 도망해나간 적은 영해·안동 등지에 이미 와서 침범했다고 하나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한다.

이 통문을 보니 서울에서 내려온 자가 몹시 많은데, 여러 고을이 비록 전에 비해서 갑절이나 성하다고 하지만 적의 형세는 완전히 꺾이었고, 성안에 들어간 자도 또한 모두 땅을 파고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고 있으며, 왕래하던 적들도 또 우리 복병에게 화살을 맞아 바치는 머리가 매일 올라간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 군사 및 우리 군사들이 북쪽을 모두 소탕하고, 그 밖의 의병들이 곳곳에서 분연히 일어나 모조리 적을 섬멸하려 하니 오래지 않아 다 없앴다는 소식이 올 것이다. 다만 2백 년 길러 온 생령(生靈)들이 머리를 늘이고 적의 흉한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한 것이 만 명뿐이 아니니 이것이 시절의 탓인가 운명인가? 삼국 시절 이후로 대(代)마다 전쟁의 근심이 있었으나 섬 오랑캐의 화가 이보다 더 혹독한 때가 없었고 홍건적이 개성을 유린하여 공민왕이 남주(南州)로 파천했으나 한강 이남의 땅은 모두 완전함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팔도가 모두 적의 소굴 속으로 들어갔으니 우리 동방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 일찍이 없었던 큰 변이다.

20일. 오후에 절에서 장계 손억남(孫億男)의 집으로 와서 주인 형을 만나고 거기에

서 같이 자니 답답한 회포가 조금 위로가 된다. 오는 중도에 박 좌수(朴座首) 언상 (彥詳)의 집에 들러서 박 공(朴公)을 보았더니 박 공은 백주(白酒)를 마시고 있었는 데 박 별감(朴別監) 대복(大福)도 마침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21일. 그대로 손(孫)의 집에서 머물렀다. 어제 순창군수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람을 시켜 와서 안부를 묻기로 이른 아침에 가 보고 순창군수와 함께 이야 기했다. 전일에 비록 서로 알지는 못했으나 말과 행동이 온아해서 무부(武夫)의 태도가 아니니 또한 좋은 사람이다. 식사 후에 주인 형은 순창군수와 함께 나현(羅峴)의 진 친 곳으로 가고 나만 홀로 여기에 머물면서 박대복과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주인 형이 돌아와서 같이 잤다. 또 전에 들으니 임금의 행차가 의주에 이르렀을 때 주서(注書) 임취정(任就正) · 박정현(朴鼎賢)과 한림(翰林) 조존지(趙存之) · 김선여(金善餘)가 안주로 도망해 갔기 때문에 그 군부를 버리고 벼슬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벼슬을 삭제했다 한다. 이같이 급하고 어려운 때에 근시(近侍)의 신하로서 군부의 욕됨을 보고 죽는 법인데, 중도에 버리고 돌아가서 일을 기록할 사람이 없었으니 평일에 글을 읽어 스스로 정인군자(正人君子)인 척하다가 위급함을 당한 오늘날에 각각 스스로 목숨을 도망하여 임금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이런 개돼지 같은 무리를 족히 베일 것이 있으랴. 시사(時事)가 여기에 이른 것을 탄식할 뿐이다.

22일. 아침에 주인 형과 순창군수는 무주 경계 각 치(角峙)에 복병한 곳으로 가서소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인 다음 다시 의병 여러 군사와 약속하고 활 쏘는 군사를 정밀히 뽑아서 요긴한 길에 매복하도록 했다. 한 식경쯤 지나자 각 치에서 정탐하던 군사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이 무수히 나와서 각각 붉은 기와 흰 기를 세







©현충사

화전

운다고 한다. 이에 즉시 여러 곳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일시에 각(角)을 붙게 하니. 적들이 즉시 물러가 한곳에 모여 입고 있던 흰 옷을 벗어 버리고 혹은 푸른 옷도 입고, 혹은 붉은 옷도 입고, 혹은 광대의 옷도 입고서 바야흐로 충돌해 나올 계획 을 세웠다. 우리 군사가 여기저기서 각을 불면서 소리치고 함께 나가니 적들은 물 러가 돌아가려 한다. 이때 전일에 순창 · 장수 두 고을로 들여보냈던 정병이 적의 돌아가는 길에 먼저가 시철을 깔아 놓고 흩어져서 매복하고 적이 돌아가기를 기다 리다가 일시에 활을 쏘고 또한 화포도 쏘아 나가고 물러가면서 싸우니. 화살에 맞 아 죽는 자가 심히 많고. 탔던 말과 환도를 버리고 당황하여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어지러이 가시철사를 밟아 피가 흘러 길에 가득하다. 순창 사람은 두 명의 목을 베 이고 그 말 세 필과 환도 네 자루를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적의 머리 하나는 이 현 사람이 바야흐로 베려 하다가 순창 사람에게 빼앗겼다 한다. 가히 조금은 쾌하다. 이날 만일 두 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지 않았던들 각지의 복병이 반드시 굳게 지키지 못하고 물러났을 것이니, 안성창(安城倉)을 반드시 와서 불태웠을 것이다. 다행한 일이다. 이호연이 그 나오는 적의 수를 세어 보니 기병 · 보병이 도합 57명 이라 한다. 또 들으니 이달 17일에 왜적 4백여 명이 해 뜰 무렵에 비밀히 와서 바 로 진산 이현(梨峴)의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이 진 치고 있는 곳을 공격하 자, 우리 군사가 활을 쏘아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적이 감히 돌격해 들어가지 못하 고 금산으로 물러가 숨었다가 도로 진산으로 들어갔다. 이 싸움에 대개 적의 죽은 자가 10여 명이요. 상처를 입은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황진이 손수 쏘아 즉시 죽은 자도 6, 7명이나 되고, 화살에 맞은 자도 역시 많으며, 황진의 이마에도 역시 철화을 맞았으나 중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 18일에 충청도 의승 영규(靈圭)의 군 사 2천여 명과 조헌(趙憲)의 의병 1천 8백여 명이 본도 관군에게 알리지 않고 경솔 히 적의 소굴로 나가자 적이 네 문으로 나뉘어 나와서 의병을 포위했다. 이에 의병 이 힘껏 싸워서 적의 죽은 자가 50여 명이요 상한 자도 또한 무수하다. 그러나 의 병의 죽은 자도 그 수를 알 수가 없고 그 나머지는 물러가 흩어졌으며 의병장 조헌 과 승장 영규는 거기에서 나왔다는데 아직까지 간 곳을 알 수가 없으니 만일 그 도 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필시 적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어제 싸움에 만일 황진이 진 을 견고히 하고 막고 쏘지 않았으면 여러 군사가 또한 반드시 무너져 흩어졌을 것이다. 이 적의 수는 많지 않으나 한 군을 점령하고 토성(土城)을 쌓고 구멍을 뚫고서 머물러 있은 지 이미 오래도록 우리 군사가 세 번 싸워 세 번 패하여 적을 소멸할 기약이 없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해 돌아온 사람에게 들으니 적의 죽은 자도 또한 많고, 상처를 입어 신음하는 자도 무수해서 적의 기세가 크게 꺾였다 한다.

23일. 손(孫)의 집에 머물러 있어 주인 형과 같이 잤다. 주인 형은 홀로 있어 무료하다고 나를 만류했기 때문이다. 또 우도 의병대장 최경회와 부장 고득귀(高得貴) 및 종사관·군관 상하 2백 50명이 현에 들어왔는데 군사는 수가 없다. 또 이호연이 활 쏘는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다시 무주 요긴한 곳으로 들어가 매복하고 적이나오기를 기다려 쏘아 죽일 계획을 한다. 또 들으니 어제 무주의 적과 서로 싸우다가 끝내고 돌아온 뒤에 남원 사람이 낙상하여 산 위에 숨어 엎드려서 엿보니, 적의상하지 않은 자 몇 명이 저들의 구멍으로 달려들어 가 군사 수백 명을 청해 가지고와서 싸움터를 보더니 길 위에 있는 적의 시체 11명을 실어 가고, 상처를 입은 자를 부축해 간 자도 또한 많다고 했다.

24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 형은 아침 식사 후에 초현(納峴) 진 친 곳으로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또 충청도 순찰사가 전하는 글을 보면, 영동에 들어가 점령한 적을, 이달 8일에 전 군수 김종려(金宗麗), 전 찰방 남경성(南景誠)이 정병 40여 명을 거느리고 혹은 장검을 가지고 혹은 도끼를 들고 혹은 활과 화살을 차고 각각 두 끼 먹을 밥을 싸 가지고 산에 올라가 적의 진을 굽어보아 적진에 출입하는 복병을 살펴 안 뒤에 밤중에 비밀히 적의 막으로 들어가 먼저 쇠 철사를 울타리 안에 깔고, 사방 귀퉁이에 불을 놓았다. 불이 일어나자 적들이 놀라 일어나서 황망하게 달아날 때 혹은 활을 쏘고 혹은 칼로 쳐서 40여 명을 죽이니, 딴 곳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도 또한 놀라고 당황하여 포로로 잡은 사람과 소와 말을 모두 죽이고 금산으로 도망해 들어갔다 한다. 또 왜적이 만일 깊이 잠이 들면 우리가 비록두세 번 드나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을 치는 데는 밤에 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다. 또 들으니 김종려는 당초에 적이 무주를 함락시킬 때에 포로가 되어 애

절하면서 살려 주기를 빌고 적에게 머물러 있는데 적이 종려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고을 군수가 있는 곳을 알고 왔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내가 고을 장수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왔다. 그러나 늙고 둔해서 걸어갈 수가 없다" 했더니, 적이 즉시 잘 달리는 말을 주어서 종려는 이 말을 타고 영동 땅을 달려 나왔다고 한다. 종려는 나라의 은혜를 받아 벼슬이 옥관자를 다는 데 이르렀으면서 하루아침에 살기를 도모하여 항복하기를 빌었으니 항상 이를 원통하고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이제 들으니 밤에 공격하여 공을 세웠다 하니, 만일 이로 인해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운 뒤에라야 그 죄를 갚고 그 죽을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남경성은 나의 사촌 아우인데 역시 높은 공적을 세웠다고 하니 기쁘고 기쁜 일이다.

25일, 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조반 후에 주인 형과 순창군수는 진 친 곳으로 갔 다. 순창군수의 성명은 김예국(金禮國)으로서 서울에 살고, 보성군수의 성명은 김 득광(金得光)으로서 연안(延安)에 산다. 그들은 오직 강직해서 젊어서는 일이 뜻 대로 되지 않았고 남의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았다. 순창군수는 그 아랫사람을 아껴서 사람들도 그를 아껴서 모두 그 힘을 다하니 가히 어진 것이 크 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보성군수는 지금 용담 송현에 복병하고 있는 곳 근처에 있다. 순창의 활 쏘는 사람 50여 인은 무주로 들어가서 복병을 매복하고 적이 오 면 활을 쏘려 하고. 그 고을의 중 4명도 또한 따라가서 그 적의 소굴의 모양을 본 뒤에 밤중에 비밀히 들어가 불을 놓을 계획이다. 또 의병 종사관 훈련봉사(訓練奉 事) 곽천성(郭天成)은 군사 1백 60여 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안성창(安城倉)에 나가서 군사를 주둔한다 한다. 대장은 지금 본현에 있고, 상하 2백 60여 명의 음식 을 공급하며 나머지 현은 장차 지탱하지 못해서 오늘 이후로는 모두 그 공급을 못 하고 다만 상청(上廳) 24명과 말 50여 필만 먹인다고 한다. 또 들으니 병사 최원 (崔遠)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풍덕(豐德)의 적을 들어가 치다가 적에게 패 한 바 되어 군인이 많이 죽었는데 군관 이풍(李馮)도 또한 그 속에 있었다고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멀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또 밤에 꿈을 꾸니 오윤남(吳潤男)이 보이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다. 내가 이르기를. "네가 어디 서 오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광주에 가서 성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해 서 들어와 뵙는 것입니다" 한다. 이에 내가 아내로 하여금 불러 보게 했으니, 이것 이 무슨 까닭인가. 필경 죽은 것이라. 슬프고 슬프다.

26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아침에 비가 와서 주인 형은 진 친 곳으로 가지 않았다. 또 조방장의 배리(陪吏)의 사사통문을 보니. 전일 고 의병장(高義兵將)(고 경명) 때에 한 중이 의병장으로 들어오고자 하여 물 긷고 밥 짓는 것을 책임으로 맡았었는데. 싸움에 나가는 날에 이르러서는 왜적과 서로 내통해서 대장을 살해하 도록 지시하여 그 때문에 크게 패했다 한다. 또 용담 · 금산 두 고을에 도망해 숨었 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중이 적과 내통하여 적의 무리를 인도해다가 여러 산을 수색하며 인민을 살해하고 재물을 노략질했다고 한다. 보성군수가 9일 동안의 싸 움에 그 군의 선비가 차고 있는 인신(印信)을 협박하여 살해하고 빼앗으려고 계획 하였으니 그 휴악함이 왜적보다 더 심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겨 그 고기를 먹고자 했다. 그런데 보성군수가 우연히 그를 사로잡아 문초했더니 전 후의 일이 모두 탄로되어 방어사에게로 잡아 보냈다고 한다. 이 중의 말이 금산의 적은 대개 먹을 것이 없어서 날벼를 베어서 먹고 연명하다고 하다. 이 중의 이름은 성택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적 30명을 죽여도 이 중 하나 죽인 것만 못하다고 하니 쾌한 일이다. 또 지난 19일에 영남의 여러 군사가 성주에 들어가 점령하고 있 는 적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성지를 굳게 지키고 철환을 많이 쏘므로 부득이 군사 를 물렸다가 이튿날 또 나가서 공격할 때. 성주의 진산 부자(父子)가 적과 내통하 여 비밀히 개령의 적을 이끌어 들여 뒤에서 우리 군사를 포위하여 크게 패하고 물 러가서 죽은 자가 몹시 많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적이 은 술병에 술을 가득 담아 가지고 편지를 보내 항복할 것을 빌면서 저희 본도(本島)로 돌아가 려는데 배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진주판관이 거짓 허락하여, 혹 육로 를 열어 주었다가 중도에서 쏘아 사로잡거나 혹 배를 주어 배에 타게 한 뒤에 수전 (水戰)을 할 계획을 했다. 그러나 이 적이 몹시 간사하니 무단히 항복을 비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으니 여러 장수는 저들의 꾀에 빠질까 걱정된다. 또 도사(都事) 가 전한 글을 보니, 평양·개성의 적이 도망해 무너져서 임금의 행차는 오래지 않 아 도로 정주(定州)로 오시어 점차로 내지(內地)로 옮길 것이니, 모든 상공(常貢)의 물건은 미리 알아서 옮길 곳으로 상납하도록 하라 했으니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 것이 사실인지 자세치 못하다. 또 들으니 병사가 강화로부터 강을 건너 들어가서 풍덕의 적을 치다가 적에게 패한 바 되자, 여러 군사가 퇴하여 도로 배에 올랐으나 배는 적고 사람은 많아서 빠져 죽은 자가 또한 많았다. 병사와 의병장은 먼저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고, 상군관 전 감찰 이풍도 그 속에서 죽었다 한다. 풍은 곧 나와 한 동리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데 부음을 들으니 놀라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27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아침에 들으니 영동에 사는 사촌이 도망해서 산 속에 숨었다가 적에게 탐지되어 모두 죽음을 당했고. 남 찰방 군실(南察訪君實)만 홀로 면했다 한다.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 지 알 수가 없다. 지난봄에 한 번 만나보고 돌아온 지 오래지 않아 숙모께서 돌아 가시어 바야흐로 애통해하고 몸이 풀과 흙 속에 있는데 또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하 니 애통함이 더욱 지극하다. 또 들으니 정 상공 철(鄭相公澈)이 이제 양호(兩湖) 체 찰사(體察使)의 명을 받들고 배를 타고 호서 바닷가로부터 완산에 도착했다고 한 다. 이 도는 전 사(前使)가 이미 파멸되고, (여섯 줄을 칼로 도려냈다) 또 제주 교생 김홍정(金弘鼎)이 변을 듣고 바다를 건너와서 의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됨을 보 니 몸에는 용을 그린 엄심갑(掩心甲)을 입고 머리에는 깃을 꽂은 망립(網笠)을 썼 는데 큰 키에 건장한 어깨에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당당하게 당(堂)으로 들어오니 그 용맹함을 알 만하고 그 뜻도 또한 알 만하다. 이러한 국가의 일이 어지러운 때 를 당하여 몸이 나타난 자리에 있고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도 임금을 저버 리고 살기를 도모하여 모두가 그러한데. 만 리 외로운 섬 속에서 부모와 처자를 돌 아다보지 않고 의리에 분발하여 어려운 데에 나왔으니, 사람의 어질고 불초한 것 이 그 어떠한가? 오늘의 병의 무리들과 함께 모두 안성창으로 진병했다고 한다. 28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 형은 아침 식사 후에 진 친 곳으로 갔다. 낮에 영광(靈光) 누이의 편지를 보니, 다 읽기 전에 슬픈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새

監) 우복룡(禹伏龍)이 흉적이 날뛸 때를 당하여 대부(大府)의 굳은 성이 하루가 되지 못하여 함락되고, 몇 호 되지 않는 쇠잔한 고을만이 홀로 경내(境內)를 온전히하고 있다가 적들이 와서 침범하자 이에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켰다고 하니 가히지키는 바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상 주는 것을 때를 머무를 일이 아니다. 그러나그 사이의 곡절은 멀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금산의 적을 어제 여러장수가 들어가 공격하다가 선봉이 적에게 패하자 여러 군사가 무너져 흩어졌다 하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패한 군사의 말이니 그 실상은 알 수가 없다.

29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 형은 장의현 영공(張義賢令公)이 안성창 에 와 있다는 것을 듣고 순창군수(김예국)와 함께 이른 아침에 안성창으로 가서 함 께 약속하고 무주의 적을 합공하기로 했다 한다. 저녁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장 영 공(張令公)의 말에 의하면. 충청좌도 청주 이하 여러 고을은 아직 적의 주둔한 것 이 없고, 지례에도 역시 머무르는 적이 없다고 한다. 서울에서 내려온 적은 곧은 길로 조령(鳥嶺)을 넘어와서 금산 · 개령 등지에 무수히 주둔하고 있다 한다. 또 들 으니 28일 금산싸움에 해남군수 변응정(邊應井)이 진 치고 있는 곳으로 적이 먼저 들어오자, 여러 군사가 일시에 활을 쏘았으나 적은 이를 돌아다보지 않고 일제히 진입하여 삼(麻)을 치듯이 어지러이 치니, 여러 진(陣)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모 두 무너져서. 변응정ㆍ어득준(魚得俊) 및 전 봉사(奉事) 황화(黃環)ㆍ의병장 소행 진(蘇行震)과 전 봉사(奉事) 최호(崔湖) 등 다섯 장수가 일시에 죽음을 당했으니 놀 라고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변 공(邊公)은 곧 나의 인친으로서, 지난봄에 장흥부 (長興府)에서 만났고. 또 영암 임매의 집에 있을 때 또 한 번 글을 보내고 물건도 주었었는데, 지금 그 죽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슬프다. 또 전일에 무주로 들여보냈 던 현리 이호연과 순창 사람 김경석(金景碩) 등이 지난밤에 순창의 중 사묵(士默) 등 9명으로 하여금 밤을 타고 비밀히 들어가서 적의 소굴에 불을 놓기로 계획했었 으나. 흉적이 거처하고 있는 관사에 목책(木柵)을 마련하고 목판 네 모퉁이에 높게 망대를 만들어 놓고 밤새도록 순경하기 때문에 형세가 넘어들어 가지 못했고, 책 판(柵板) 밖에 있는 관청 및 사사로운 집 세 곳에 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으므로 불의에 불을 질렀더니 적의 무리가 놀라고 당황하여 큰소리로 외치면서 목책 안으 로 달려들어 가서 끝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활을 쏘고 베이지 못했다 한다. 그 이 튿날 날이 밝자 이호연·김경석 및 의병 김홍정·김수부(金壽富) 등이 군사를 거 느리고 달려와서 먼저 말 탄 사람 7인으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달려 나가서 용 맹함을 뵈어 적을 유인했더니. 적의 선봉 백여 명이 칼을 휘두르면서 쫓아오더니 또 수백여 명이 냇가로 건너와서 깃대를 세우고 진을 친다. 이때 여러 군사들이 혹 은 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혹은 포를 쏘고 어지러이 활을 쏘면서 나가고 물러나며 싸우니 탄환에 맞아 죽는 자가 몹시 많고 화살에 맞는 자도 몇인지 그 수를 알지 못하겠다. 이리하여 적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갈 무렵에 의병 김홍정 · 정종남(鄭終 男) 2인이 말을 달려들어 가서 활을 어지러이 쏘다가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정종 남의 말 앞에 왜병 셋이 숨어 엎드렸다가 일시에 탄환을 쏘아서 오른쪽 어깨에 맞 았으나 즉시 돌아서서 총을 쏜 왜병을 활로 쏘아 바로 가슴을 맞히니 칼을 던지고 쓰러져 죽으므로 여러 왜병들이 끌고 가서 숨어 버린다. 이에 정종남은 용맹하게 말을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탄복했다. 그 접전할 때 포로로 잡혀 갔던 여자 백여 명이, 적의 무리가 모두 나간 것을 엿보고 도망하여 향교 뒷산 영 동 길로 흩어지자. 적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니, 반드시 다시 포로가 될 걱정을 면했을 테니 가히 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접전할 때 비밀히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들어와 싸운 자는 많지 않으니. 적이 만일 다시 출돌해서 유현(柚峴)으로 넘어들어 온다면 형세가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또 충청도 순찰사가 의병장에게 보낸 글을 보면, 중국 군사 가 처음에 평양(平壤)에서 꺾여서 도로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정예한 군사를 내어 이달 초순에 의주에 이르렀으니. 필경 지금은 이미 평양에서 이겼을 것으로 알고 간신히 기다린다고 했다. 전에 들으니 평양의 적은 이미 모두 섬멸하고, 군사 가 황주(黃州)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제 호서관찰사(湖西觀察使)의 글이 이 같은 것을 보니, 전일에 들은 것은 모두 헛말이다. 이는 적이 서울과 해서 · 경기를 점령 하여 충돌하여 치는 것을 그치지 않은 때문이라 한다. 이와 같다면 금년 안에는 형 세가 적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니, 산속에 도망해서 숨은 자들이 처음에는 비록 적 의 칼날에 죽지 않았어도 필경 지금쯤 반드시 얼고 굶어서 죽었을 것이니, 늙은 어머님과 처자와 아우·누이를 생각하건대 또한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니, 오직 날마다 통곡할 뿐이다.

9월

1일. 그대로 손덕남(孫德男)의 집에 머물렀는데. 별로 적의 소식은 없다. 또 우의장 최경회는 이 고을에 들어온 지가 이미 오래인데. 아직 도적이 있는 경계에 나가서 진을 치지 않고. 날마다 군관과 함께 활만 쏘고 녹각목(鹿角木)을 많이 가져다가 관가 앞뒤에 목책을 설치하여. 오직 적이 와서 침범할까 두려워하고 있어 오래 머 무를 계획을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금산 · 무주 두 고을은 이 고을과의 거리가 이 틀 일정으로서 그 사이의 요해처에 관군을 매복한 것이 네다섯 곳이나 되는데, 먼 곳에 물러나 있어서 오직 양식을 허비할 뿐. 나가 공격하려 하지 않으니. 더욱 가 소로운 일이다. 이름이 의병이면서 달아나서 죄를 지은 자들이 모두 와서 모여 있 으면서 그 법을 면하려 하고. 심지어 좌수사의 군사가 그 수전(水戰)을 하기가 싫 어서 몸을 의병에 의탁하여 와서 붙어 있는 자도 또한 많아서, 물러나 편안한 곳에 앉아서 날마다 관청 곡식만 먹고 있으니.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는 되었다고 하겠 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물건을 모두 관가에서 얻어가고 있으니, 이 와 같은 쇠잔한 고을에서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또 내일 좌도 의병장(左道義兵將) 임계영(任季英)이 용성으로부터 온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장과 부장 이하가 모두 주는 음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윽이 들으니 영남 의병장 김면·곽재우는 용사 들을 많이 모아서 적과 대치하고 있어. 날마다 공격하여 적의 머리를 바친다고 하 니, 가히 의병이라는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로다.

2일. 그대로 손의 집에 머물렀다. 오후에 비가 내리더니 밤이 깊어도 그치지 않는다. 주인 형과 종일 대화했다. 오후에 고을 선비 박이항(朴以恒)이 와서 보고, 영남초유사(嶺南招諭使)의 글을 가지고 왔다.

초유사 김성일은 도내의 수령(守令)·변장(邊將)·문무 출신(文武出身)·부로(父老)·자제(子第)·한량(閑良) 군민인(軍民人) 등에게 통유(通論)하노라.

국은(國運)이 중간에 비색하여 섬 오랑캐가 비밀히 들어와 우리 국토에 가로 뛰고 동서로 충돌하여, 웅장한 성과 큰 진루(陣壘)가 일찍이 이를 막아 내지 못하여, 열 흘 사이에 이미 대관령을 넘어 바로 서울을 짓밟음에. 임금께서는 파천하시고 온 나라가 도망하고 숨으니. 옛날로부터 동방의 오랑캐의 화가 오늘과 같은 참혹한 일이 없었다. 모든 장수들은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혹은 소문만 듣고도 도망 하여 무너지고, 혹은 겁을 내고 물러가 움츠리며, 수령은 한 고을의 군장인데, 모 두가 처자를 거느리고 옮겨서, 병고가 불타도 누구 한 사람 의리로 항거하고 충성 을 내어 먼저 올라가 적을 치는 자가 없으니. 슬프다 우리 군민이 무엇을 믿고 도 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겠는가? 미친 파도가 가로 몰려와도 이것을 막을 둑이 없어 서, 성에는 창을 멘 군사가 없고, 고을에는 죽기로 싸울 신하가 없어. 적이 이르는 곳에 마치 무인지경처럼 들어와서 드디어 영남 한 도가 함락되어 적의 소굴이 되 어. 흙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깨져서 아침에 저녁을 보존하지 못하겠으니 이 것이 무슨 시변(時變)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어찌 변장이나 수령만의 허물이겠는 가? 사민 된 자도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옛날에 큰 난리를 당하여 능 히 그 나라를 지킨 자는 그 위에는 죽음을 아끼지 않는 뜻이 있고, 아래에는 어른 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적이 오기 전에 사민(士 民)들이 모두 도망해 달아나서 산림 속에 숨어 엎드려서 구차히 살아남을 계획만 을 하니. 수령에게 백성이 없고. 장수에게 군사가 없다면. 장차 누구와 함께 적을 막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추로(鄒魯)'의 싸움에 유사(有司)의 죽은 자가 30여 인이었으나 백성은 죽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유사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숨 겨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이 도망하고 무너지는 변은 맹자(굶子)가 이른 바 어찌 너에게 나온 것이 너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랴? 아아! 이 무슨 말인가? 근년에는 세금도 과연 번거롭고, 부역도 과연 중해서 백성들이 과연 견딜 수가 없 다. 그러나 성지를 방비하는 제구가 모두 음우(陰雨)의 준비뿐이니. 지금에 본다면 성주의 백성을 보존하는 걱정이 원대하니, 대체로 어찌 백성에게 사납게 해서 스

¹ 추로(鄒魯) : 추(鄒)나라는 맹자(孟子)의 출생지고, 노(魯)나라는 공자(孔子)의 출생지이므로 그들이 일으킨 유교(儒教)의 발상지란 말,

스로 이로울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추로의 싸움은 비록 승부는 있었으나 이는 같 은 중국의 일이어서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이 이(齒)에 물을 들인 무리는 한번 우리 땅에 들어오자 문득 크게 점령할 뜻이 있어, 부녀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처첩을 삼고, 장정들을 잡아 죽여 씨를 남기지 않았으며, 온 땅 의 민가를 없애어 모두 불 속에 넣어, 공사(公私)를 모두 빼앗아 모두 저들의 소유 를 만들어서, 그 독이 온 나라에 퍼지고 피가 천 리에 흘렀으니, 생민들의 화를 어 찌 차마 말하랴? 이는 실로 지사(志士)들이 창을 베개 삼을 날이오. 충신들이 나라 를 위해 죽을 때이다. 그런데 67주(州) 속에 의(義)를 부르짖어 팔뚝을 뽐내는 사 람이 없고, 오직 목숨을 연장하는데 혹 뒤질까 하는 것과 산에 들어가는 것이 깊 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설사 산에 들어가 적을 피하여 끝 내 능히 몸을 온전히 하고 집을 보존한다 해도. 이는 열사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 기는 일인데, 하물며 절대로 온전히 보존할 이치가 없는 터이겠는가? 내가 청컨대 이에 대하여 깊이 말하여 사민들의 의혹을 풀어 보려 하는데 좋겠는가? 이 적들 은 서울을 침범하기에 급해서 군사들이 머물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화가 두 루 여러 고을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적들이 뜻을 얻은 후에 가서 흉한 무리가 국내 에 가득 차면 산림 속이 과연 죽음을 도망할 땅이 되겠는가? 비유컨대 마치 홍수 가 흘러 하늘에 닿고, 불꽃이 들판을 태우게 되면, 슬프다 우리 억만 명의 생령(生 靈)이 다시 어느 땅에 가서 몸을 용납하겠는가? 만일 나오지 않으면 날짜가 오래 되면 양식이 끊어져서 모두 깊은 산중의 시체가 될 것이오. 부모와 처자는 그들에 게 포로가 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여 의관을 한 사족이 모두 어육 이 되고 보면 길이 오랑캐의 족속이 될 것이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상처입고 죽 는 귀신이 될 것이니. 이 어찌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린 뒤에라야만 알 일인가? 그러 나 이것은 다만 이해와 생사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아아! 군신의 큰 의리는 영 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이니. 이른바 민이(民彝)이다. 모든 우리 이 땅에서 먹 고살아 온 자로서, 앉아서 군부께서 파천하는 일과, 종묘사직이 장차 무너지는 것 과 만백성들이 어육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고,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천경지의(天經地義)에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부모가 칼날을 맞아 골육(骨肉)을 서

로 보존하지 못해서 사사로운 문중(門中)의 화가 또한 급한데, 그 자제(子弟)된 자 가 머리를 싸매고 쥐처럼 숨어서, 만 번 죽으면서도 온전한 것을 구할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자식 된 도리에 어떠하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영남은 본래 부터 인재의 부고(府庫)라고 일컬었으니, 일천 년의 신라와 5백 년의 고려와 아조 (我朝) 2백 년 사이에 충신과 효자의 뛰어난 소리와 의열(義烈)이 청사(青史)에 빛 나서, 절의(節義)의 의리와 습속(習俗)의 두터움이 동방에 으뜸이었으니. 이는 진 실로 사민들이 함께 다 아는 바이다. 또 가까운 일로 말하더라도. 퇴계이황과 남명 조식(南冥曹植) 두 선생께서 함께한 세상을 살면서 도학(道學)을 창명(倡明)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 주고. 사람들의 기강을 부식(扶植)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삼았으며, 선비들을 훈도(薫陶)시켜 점점 물들게 하여, 흥기(興起)하고 사숙(私淑)2 하는 자가 많았다. 이들이 평일에 허다한 성현의 글을 읽었으니 그 스스로 허여(許 與)하는 것이 어떠했겠는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을 당하자. 오직 사는 것만 탐 하고 죽음을 피하는 데만 급해서, 스스로 임금을 내버리고 부모를 뒤에 하는 나쁜 데에 빠졌으니, 살아남은 세상에 장차 어떻게 머리로 하늘을 이고 죽어서 지하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 선정(先正) 을 볼 것인가? 그 의관과 예악을 닦 은 몸을 어찌 버릴 것이며. 머리를 깎고 몸에 무늬를 넣는 풍속을 좇을 것인가? 2 백 년 내려온 종묘 · 사직을 어찌 차마 적의 손에 넘겨준단 말인가? 수천 리 되는 산하(山河)를 어찌 차마 적의 소굴로 내버려 둔단 말인가? 중국 풍속이 변해서 오 랑캐가 되고, 인류가 화해서 금수가 되는 것을 어찌 참겠으며. 어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으뜸가는 공을 아뢴 것은 처음부터 오랑캐에게는 없는 일인데. 노중련(魯 仲連)4은 바다로 뛰어드는 죽음을 오히려 달게 여겨서 오랑캐가 꿈틀거리니. 이 어 떠한 추한 종족인데 제 맘대로 우리 토지를 도둑질해 점령하여 우리 백성들을 베 이고 욕 뵈는데도 이를 내쫓고 이를 베이려고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말하는 자들

² 사숙(私淑): 경모(敬慕)하는 사람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고, 단지 그 사람을 본받아 도(道)나 학문을 닦음.

³ 선정(先正): 옛날의 현철(賢哲).

⁴ 노중련(魯仲連): 전국시대 제(濟)나라의 변사(辯士). 절개가 높은 선비로서 조(趙)나라 평원군(平原 君)을 설복(說服)시켜 진(秦)나라를 황제로 섬기지 못하게 했음.

은 이르기를, 저들은 용맹스럽고 우리는 겁내며, 저들은 예리하고 우리는 둔하니, 비록 혹시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니, 아아! 이것은 어찌 생각하 지 못하는 것이 심한 것인가? 옛날의 충신과 열사는 성패로 해서 뜻을 바꾸지 않 으며, 강약으로 해서 기운이 꺾이지 않고서, 의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비록 백 번 싸워 백 번 패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빈주먹을 휘두르고 흰 칼날을 무릅써서 만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이 적은 비록 강하다 해도 외로운 군 사가 깊이 들어와 있어서, 정히 군기를 범하고 있으니, 어찌 잘 돌아갈 수 있으리 오. 또 우리 군사가 비록 겁을 내지만, 용맹스럽고 겁내는 것이 또한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충성과 의리에 격하고 보면 약한 자도 강해질 수가 있고. 적은 수를 가 지고서도 무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니. 다만 한번 옮겨지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제 보니, 도망한 군사와 무너진 군사들이 산골짜기에 가득한데, 처음에는 비록 몸을 벗어나 사는 것을 구하려 했지만. 끝내 한번 죽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을 알면 모두 스스로 분발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할 생각을 하건만, 다만 앞서 서 떠드는 자가 없을 뿐이다. 이때를 당하여 만일 한 의사(義士)가 있어 분연히 일 어나 한번 부르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구름처럼 합하고 소리처럼 응해서 앉아서 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상께서 이미 애통한 교서를 내리시고, 또 소신(小 臣)으로써 못났다고 하지 않으시어 초유(招諭)의 책임을 맡기시니. 당나라의 무부 와 사나운 군사도 오히려 흥워(興元)의 조서를 보고 울었거늘. 하물며 우리 추로의 선비로서 어찌 어깨를 걷어 올리고 강개하여 군부의 급한 데에 나가지 않으리오. 진실로 바라건대 격문이 도착하는 날로, 수령은 한 고을을 깨우치고, 변장은 사졸 과 문무조관·부로·유생 등을 격려해서. 서로가 깨우치고 동지들을 이끌어서 충 의로 서로 권하여, 혹 보루를 보존하여 스스로 지키고, 혹은 군사를 이끌어 싸움 을 도울 것이다. 부민은 차달(車達) 의 곡식을 운반하여 군사를 먹이고, 용사(勇士) 는 충갑(冲甲)의 군사를 일으켜 적을 소탕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집집마다 사람마 다 각각 스스로 싸워서 일시에 함께 일어나면 군대의 세력이 크게 떨치고 의기가 백배하여 밭에서 김매던 백성이 가히 정예하고 날랜 군사가 될 것이니. 적이 비록

⁵ 차달(車達): 차씨(車氏)의 시조로서 국가의 난에 자기의 곡식을 운반해다가 군사에게 먹였음.

긴 창과 큰 칼이 있은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나라의 치욕을 만전(萬全)히 씻을 것이오,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의리 있는 귀신이될 것이니, 제군(諸君)은 힘쓸지어다. 나는 하나의 썩은 선비로서 비록 군사의 일은 배우지 못했으나 군신의 큰 의리는 또한 조금은 들었는데, 책임을 한 도가 기울어질 때 받아서, 뜻이 나라를 보존할 데에 간절하나 신포서(申包胥)⁶의 충성을 본받아 사당에 곡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한갓 장순(張巡)⁷의 충렬(忠烈)을 드러내어 의사(義士)의 힘에 의뢰하여, 그날로 취하는 공이 있는 것만 알아 조정에서상 주는 것이 뒤진다고 생각하니, 모두 마땅히 이를 알지어다.

다음은 곽재우에게 보낸 통유문(通論文).

의령 곽재우 족하(宜寧郭再祐足下)

초유사 김성일은 통유하노라

바다 도둑이 날뛰어서 우리 성지를 함락시키고 우리 생령을 죽이면서 동서로 충돌하여 무인지경에 들어오듯이 하는데, 67개 고을에 일찍이 한 사람도 의리를 부르짖어 군사를 일으켜 국가의 부끄러움을 씻는 자가 없이 그대로 한도를 적의 손에 넣어 주어, 종묘와 사직이 깃발을 잡아 맨 것보다 더 위태로워 정기가 땅에 떨어지고 산하(山河)도 모두 부끄러움을 안았으니, 모든 혈기 있는 사람이면 누가 통분해하지 않으리오. 내가 명령을 받고 경계에 이르러 눈물을 뿌리고 팔뚝을 걷어 올려, 맹세코 이 적과는 한 하늘 밑에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이 무너진 나머지에 병력이 이미 굽혀져서, 맨 주먹을 들고 흰 칼날을 막아, 홀로서서 강개할 뿐이로다. 이제 들으니 족하(足下)⁸가 분명히 민간에서 일어나서 의병을 불러 모아 적의 배를 강 속에서 섬멸시키고, 의로운 소문을 한 모퉁이에서 나타내니, 듣는 자가 누구나 기운을 돋우고 있으니, 선대부(先大夫)가 가히 그 뒤가 있다 하겠도다. 부디 이 뜻을 더욱 힘써서 의병을 한층 확장시켜, 오랑캐를 이 나라안에서 베이고, 생민을 도탄에서 건져서, 위로는 군부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 충효

⁶ 신포서(申包胥): 춘추 때 초(楚)나라 대부(大夫), 오(吳)가 초를 칠 때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얻 어 초나라를 구한 충신.

⁷ 장순(張巡): 당(唐)나라 때 충신, 안록산의 반란에 허원(許遠)과 함께 수비(守備)하다가 전사했음.

⁸ 족하(足下) : 대등한 사람에게 대한 경칭.

의 마음을 빛낸다면 또한 쾌하지 않겠는가? 내 비록 둔하고 용렬하나 충성과 의리는 천성에 근본하는 것이니,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는 일을 감히 남에게 뒤지겠는가?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열(義烈)로 격려하여 원컨대 그대들과 함께 좌우로 붙들고 이끌어서 함께 국가에 큰 공을 세우려 하는데, 족하(足下)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아서 충의의 선비가 되고, 죽어서 충의의 귀신이 되려는 것이니 바라건대족하는 힘쓸지어다.

이 두 글을 보면 글 뜻이 격렬하고 간절하여 충의를 권하고 일깨웠으니, 영남 선비들이 모두 분연히 일어난 것은 어찌 여기에 인연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리오. 족하받은바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영남 유생 거의통문(嶺南儒生擧義通文)

이여유(李汝唯) 지음.

이 통문은 의병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다.

군부의 병을 급하게 여기고 오랑캐의 화를 물리치는 것은 의리의 우선하는 것이요, 국가의 위태로움을 건지고 제몸이 죽는 걱정을 잊는 것은 곧은 일의 큰 것이다. 만물의 신령스러운 것을 얻어서 사람이 되고, 모든 백성에게서 뛰어나서 선비가 되었다. 신령스럽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신과 부자의 인륜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오, 무엇을 빼냈다고 하는가. 의리와 이(利)가 서로 틀리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미이 땅에 사는 신하인데 어찌 녹(禄)만 먹고 살찌겠는가. 채소를 먹으면서 태원(太原) 땅에 이른 일이 옛날에는 혹 있었지만, 바로 몰려와서 서울을 범하는 것을 지금에 금하게 했다. 임금이 수례를 타고 파천하니 아득한 바람과 이슬 어느 곳이며, 종묘(宗廟)가 놀래니 슬프다. 영혼은 어디에 의지하리오. 쥐처럼 숨고새처럼 엎드려 임익(林翼)이 창 던지듯 하는 자가 많고, 첩을 죽이고 말을 잡아먹어 장순(張巡)처럼 정의에 죽었단 말을 듣지 못하겠으니, 이 어찌 신자로서 차마할 일이리오. 이는 실로 사람 된 이치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2백 년 북돋아기른 보람이 어디에 있으며. 60주(州)의 충의를 다 쓸어 없어졌다. 큰 흉년을 통곡

하면서 돌아갈 곳이 없고. 큰 칼을 들어 한 번 칠만 하도다. 부모가 병이 있는데 어 찌 명에 맡기고 약을 쓰지 않는단 말인가. 대세가 이미 갔으니. (결(缺)) 죽는 것이 비록 싫으나 천지를 헤매도 도망갈 곳이 없고. 사는 것이 비록 욕심이 나지만 개나 돼지가 되면서까지 차마 살겠는가? 그 죽기로 하면 차라리 의리에 죽을지언정 감 히 살기를 바라리오. 어진 일에 살기를 버리면 나라를 배반하고 원수를 섬기는 것 이 어찌 편안하랴. 이마를 벗기고 귀(耳)에 물들이는 일을 어찌 참으리오. 관군은 도망해 흩어져서 모두 형벌을 두려워하여 나오지 않고, 의병들은 격동되어 모두 충성을 뽐내고 다투어 나오는데, 하물며 주상께서 서쪽으로 파천하시는 날 슬프 고 슬픈 교서를 내리시어 따로 명령을 이행할 신하를 가리시어 특별히 초유의 사 신을 보내시니, 이 글이 한번 내려지자 듣는 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초유사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보면 모두 머리를 바칠 것을 생각했다. 바라컨대 여러 군자들은 평일에 글을 읽어서 모두 나라에 보답할 뜻을 품었으니. 위태로운 때에 임한 이때 에 용감히 임금을 위해 죽는 절개를 세워서, 각각 부형들을 도탑게 권하고 자제들 을 격려하며, 이웃 마을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종들을 거느리고서, 혹은 활과 화 살을 가지고 혹은 칼을 차고, 단결하여 대오(隊伍)를 만들어 뛰어나와 용맹을 내어 초유에 응하고, 이로써 국가의 부끄러움을 씻는다면 이 얼마나 나라의 다행한 일 이며 또한 문안에 와 있는 도둑을 쫓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도망간 군사와 도망 해 숨은 자도 만일 스스로 나타난다면 비단 먼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할 뿐만 아니 라, 또한 뒤에 가서 상을 줄 것도 기약할 수 있으니, 십분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거역하고 수종하는 것을 알게 하면 천만다행이겠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다면 살 아서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죽은 뒤의 영혼도 편안할 것이다. 장사 지내는 데에는 포신(鮑信)9의 모양을 새기고. 능(陵)에는 방덕(龐德)10의 모습을 그릴 것이니. 우물 거리고 사는 것이 어찌 강개하게 죽는 것만 같으리오. 혹시 의병들이 나라를 위한 것으로 해서 임금 계신 길이 다시 맑아지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모두 죽지 않고 장

⁹ 포신(鮑信): 후한(後漢) 때 사람. 젊어서부터 큰 절의가 있어 하진(何進)의 밑에서 기도위(騎都尉)로 있었는데, 뒤에 시골로 돌아가 무리를 모아 가지고 조조(曹操)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¹⁰ 방덕(龐德): 삼국(三國) 때 위(魏)나라 사람, 백마(白馬)를 타고 전쟁에 나서서 모두 백마장군(白馬將軍)이라 불렀다, 관우(關羽)와 싸우다가 패했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

차 함께 중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마땅히 각각 힘쓸지 어다. 아아!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인륜이 아주 없어질 수가 없고, 사람의 기강이 어찌 아주 떨어지리오. 이 한 장의 통문을 보면 반드시 목 놓아 통곡하는 자가 있 을 것이다.

위는 전 현령 조 종직 · 전 직장(直長) 이로(李魯) · 진사 노사상(盧士尙) 등

3일. 그대로 손(孫)의 집에 머물렀다. 의병 부장(義兵副將) 고득뢰(高得賚)가 군사 40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주둔했는데, 주인 형과 순창군수 김예국이 그 집만 보았다. 또 호남과 호서의 군민 등에게 교유하는 글을 고훈도가 가지고 와 어제 낮에 현으로 들어왔다. 왕세자의 유문도 함께 왔다. 교전라도사민등서(教全羅道士民等書) 이호민(李好民)이 지었다 한다.

임금은 말한다. 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을 보존하여 살게 해 주지 못했 으니, 하나는 인화(人和)를 잃었고, 하나는 적을 막는 것을 잃었다. 이에 나라를 잃 고 서쪽으로 옮겨서 의주로 물러가 있은 지 이미 한 달이 넘어. 종묘와 사직은 빈 터만 남았고, 생령들은 어육이 되었으니, 아득한 저 하늘이여! 이 어이된 사람인 가. 죄가 오로지 내게 있으니 깊이 부끄러울 뿐이다. 서남쪽은 멀고멀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듣건대 이광의 군사가 용인에서 무너진 뒤로 다시 남 쪽에 구워을 기다릴 마음이 없어졌었다. 이제 곽현(郭賢) 등이 물과 육지로 달려와 서 보고하기를, 고경명 ·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절도사 최원의 병 마 2만과 함께 수원에 나와 주둔했다고 하니. 나의 덕이 없는 몸으로 어찌 능히 이 와 같이 사람들이 죽을힘을 내기에 이르렀는가? 우리 조종조(朝宗祖)의 일백 년 동안 내려온 깊은 은혜와 두터운 혜택이 모두 인심을 얻었던 것이니, 아아! 지극 하도다. 내 몹시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여 즉시 양산도(梁山濤) 등을 보내서 군민 들에게 이를 알리는 바이니. 너희 많은 선비들은 나의 괴로운 뜻을 알아주기 바란 다. 내가 즉위한 지 25년이 되었다. 비록 어진 것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은택 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지혜가 만물을 살피지 못해서 정치가 잘못이 많았으 나, 본래 가진 마음은 일찍이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때가 없

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변방이 시끄럽고 군사일과 정치가 해이해지므로 생각 하기에 성지를 높고 깊게 하고 갑병(甲兵)을 예리하게 하면 도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안팎에 신칙하여 엄하게 막도록 하였으나. 실지로 성이 높을수록 나 라 세력은 더욱 파리하고, 못이 깊을수록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뽕나무처럼 떨어지고 기왓장처럼 깨지는 것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 렀다. 여기에 더구나 궁중을 단속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조그만 이익으로 그물질했 고. 형옥(刑獄)이 정당치 못하여 원통한 기운이 화기를 상했다. 왕자는 산택(山澤) 의 이로움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은 생업을 잃고 원망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은 마 땅히 나를 원수로 여길 것이니 내 무슨 말이 있으리오. 이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모두 돌려보내게 했으니, 이러한 일들을 또한 어찌 내가 다 알았겠는가. 내가 모른 다는 것도 또한 나의 허물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무리 후회하들 어찌하리 오. 차라리 스스로 희생(犧牲)이 되어 천지와 조종 백신(百神)의 신령에게 사례하 고자 하노라. 나의 생각이 이미 이러하니 바라건대 너의 사민들은 나의 허물을 고 치는 것을 허락하여 새로운 정치를 하도록 도모해 달라. 나의 덕을 잃은 것을 대략 말했거니와 이번 재앙은 실로 졸지에 일어난 것으로서, 날치는 저 오랑캐 적은 실 로 하늘을 거역할 계획으로, 혹은 나에게 당역(黨逆)에 들도록 요구하고, 혹은 나 에게 길을 빌리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의리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자 저 올빼미 같 은 창자는 우리의 큰 덕을 잊어버리고, 조그만 원망을 풀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할 적에 종묘와 사직을 어찌 망하게 하며 신민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군신 의 의리가 나뉘고 천지가 보고 있으니, 대의를 우주에 밝히고 저들의 흉한 마음을 해와 별 앞에 드러내서 상하의 신에게 부끄럼이 없게 하련다. 한번 일이 궁해지자 중국 조정에 호소하자, 중국 천자는 나의 지극한 뜻을 살펴 요동총병관 조승훈을 유격장군과 병마 일만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나가 공격하여 중국의 공격이 뻗치고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분발하도록 하라. 생각건대 내가 와 있는 곳은 비록 두려 움이 한쪽에 몰리고 있으나 중국 조정에서 또 호남과 절강 군사 6천을 보내어 금 시에 강을 건너올 것이요. 본도의 병마도 또한 여러 만 명이 모여 있으니. 나를 보 호하는 데 아무 근심도 없을 것이다. 또 고경명이 이미 경기(京畿)에 와 있으니 마

땅히 서로 호응하고 힘을 합쳐서 서울을 수복하고 단단한 성을 점령하도록 하라. 평양의 적은 기세가 이미 꺾이어 섬멸을 기약할 수 있으니 이 두 곳의 적만 없애면 나머지 무리들은 싸우지 않아도 평정될 것이다. 이제 여러 곳이 모두 적의 침입을 당했으나 오직 호남 한 도만은 온전함을 얻었으니, 너희가 만일 힘쓰지 않으면 또 무엇을 믿으리오. 양식이 떨어졌다 하거든 경기와 호서의 창고에 있는 것을 맘대 로 가져갈 것이오. 군기가 다 되었다 하거든 경기와 호서에 있는 기계를 맘대로 갖 다 쓰도록 하여 각각 힘쓰도록 하라. 이제 고경명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삼고 초토사로 하고, 김천일을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승진시키고 창의사(倡義 使)로 하며. 박광옥(朴光玉) 등이 하도 각각 벼슬을 주고 승진시키기를 차도 있게 하노라. 생각건대 충의란, 벼슬이나 상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은혜를 갚 고자 함이요 이 밖에 딴 뜻은 없는 것이니. 이를 받아서 더욱더 힘을 다하도록 하 라, 또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鄭澈)을 보내어 충청 · 전라 등 도(道)의 도체 찰사를 겸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내 뜻을 선유(宣諭)하고 군무를 맡아 다스리게 했 으니, 너희들은 그의 절도(節度)를 들고 각각 과감하고 굳세게 싸우도록 하라. 의 주 한 모퉁이에서 하늘의 운수가 어렵고 땅이 끝났으니, 내 장차 어디로 가리오. 인정(人情)이 이미 궁해지니 그 이치를 거듭 생각하게 된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갑자기 움직이니, 변방 땅은 일찍 추워진다. 저기 저 강물도 또한 동쪽으로 흐르거 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물과 같이 출렁인다. 이 교서가 도착하면 너희 신민들도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슬플 것이다.

아아! 하늘이 이성(李晟)을 낳았으니, 성과 대궐을 회복시킬 기약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서울을 바라보면서 능원(陵園)에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 급히 나의 바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리와 이슬을 맞는 괴로움을 면하게 하라. 이에 교서를 내리 노니 마땅히 알아서 처리하라.

만력 20년(1592년) 7월 22일

엎드려 유시(諭示)를 읽사오니 글 뜻이 간절하여, 내 몸의 허물을 고치기를 일깨워 다시 유신(維新)을 도모하시니, 이는 성인(聖人)의 인색하지 않은 도리이시라, 신

민으로서 어찌 감격하여 힘쓰지 않으오리까? 용만(龍灣) 한 모퉁이 이하 몇 구절의 말에 이르러서는 세 번 거듭 받들어 읽다가 사람들이 모두 소리 내어 울어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 의리에 분발할 것을 생각하고 적과 싸워 죽으려 하니, 임금의 한 마디 말의 착한 것에 인심이 감동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중흥한 해와 달이 밝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말로 교만한 장수와 게으른 군사들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한 조서입니다. 아아! 아름답습니다.

유전라도사민서(諭全羅道十民書)

왕세자는 말한다.

아아! 황천이 벌을 내려 섬 오랑캐가 틈을 타서 변방성이 한번 패하자 모든 고을이 일제히 무너져 드디어 길이 몰고 오는 형세를 이루어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자 임금의 행차가 무너져, 수레를 타시고 변방으로 파천하셨고, 종묘와 사직은 고을로 굴러다니게 되었으니 2백 년 내려온 예약과 문물이 말끔히 남은 것이 없고, 3백 주(州)의 큰 집과 세족이 모두 없어져 남지 않았으니, 병화의 참혹함이 옛날엔들 어찌 이와 같았으리요. 이는 비록 장신(將臣)들이 능히 나라를 위해서 죽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제 적병들이 몰려온 것은 또한 민심이 윗사람을 친히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죽지 않고, 모두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하려는 데에도 연유하고 있다. 혹은 말하기를 저들을 반대하고 밉게 보면 또한 모두 참살을 당한다 하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내실로 가슴이 아프다. 오직 너희 충청 · 전라 두 도는 인재(人才)의 부고(府庫)요, 재물의 근본이어서, 백성들은 부자로 살고 군사는 강해서, 백제와 신라가 이곳에 힘입어 패업(顯業)을 이룩했던 곳이다. 강개하고 의리를 좋아해서 계백(階伯) "과 보고(保皇)"를 충성스러웠다고 일컫는 것이 옛날로부터 그랬었고 지금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 국가의 휴양(休養)하고 생

¹¹ 계백(階伯) : 백제 말기의 장군,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이 백제에 침입했을 때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황산(黃山)벌싸움에서 전사했다.

¹² 보고(保皐): 장보고(張保皐). 통일신라시대의 무장(武將).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해로(海路)의 요충지 인 청해(靑海)(완도(莞島))에 진(鎭)을 설치하고 항만의 시설을 보수하여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다. 뒤에 자객(刺客) 엮장(閻長)에게 죽었다.

성(生成)하는 혜택이 전대(前代)로부터 홀로 뛰어났고, 인물과 재력의 장한 것을 마땅히 옛날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키지 못하여 사면 들 에 적의 진이 많으니, 만일 이 기회를 타서 섬멸하지 못한다면 이 어찌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내 똑똑치 못한 몸으로 외람되이 권도로 국가를 다스리 라는 명령을 받아, 고갯길에 머뭇거리면서 어려운 일을 모두 맛보았다. 희천(熙川) 으로부터 이천에 이르고. 이천으로부터 성천(成川)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한곳 에 안정되게 있으리오. 오직 형세를 서로 연결시키려 했다. 다행히 이제 추한 적이 비로소 잘못을 뉘우쳐. 조신(調信)의 머리가 이미 밤에 공격할 적이 없어졌고. 행 장(行長)의 머리도 또 싸움터에서 베어. 두 도둑의 발을 자르고 흉한 무리가 날마 다 흩어져. 성을 닫고 스스로 지키니 저들이 감히 서쪽을 엿보지 못한다. 이에 순 찰사 이원익(李元翼)과 절도사 이빈(李蘋)이 정병 2만을 거느리고 순안(順安)에 진 쳤으며, 순변사 이일(李鎰)은 동도(東道) 군사를 거느리고 강동에서 서로 돕고 있 으며, 중국 군사 5만이 또 안주(安州)에 이르렀다. 그 위에 경기·강원·황해 경계 에서 의병이 다투어 일어나 크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삼 백 명씩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적들을 섬멸해 없애고, 그 우익(羽翼)을 잘라 버리니, 흉한 무리들은 넋이 나 가서 대세가 이미 꺾이었다. 이리하여 회복할 형세가 10중에서 7 · 8은 이미 이루 어졌고, 바야흐로 장차 평양의 적을 쓸어 없애고 길이 황해도로 몰고 내려가. 기어 코 파죽의 형세를 이루고 만전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너희들은 동지들을 불러 모 아서 의병을 규합해 가지고 북쪽으로 향하는 칼날을 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군 사와 세력을 합하여 함께 광복의 큰 공을 세워서 먼 곳에까지 의리의 소리를 퍼지 게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인 것이다. 아아! 고경명 · 김천일은 진실로 남쪽에서 촉망 하는 인물로서 이미 앞장서서 창의의 군사를 일으켜 국가의 급한 일을 위해서 죽 었으니, 이는 실로 너희들이 아는 바이다. 작은 고을에도 충신은 있는 법인데, 너 희 여러 도의 큰 땅에서 충의의 선비가 어찌 비단 이 몇 사람뿐이겠는가? 이는 진 실로 너희들이 의리를 위하여 더욱 힘을 낼 때이니. 너희들은 힘쓸지어다. 대체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여 백성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뜻은 이미 말했으니 이제 다 시 되풀이하지 않으련다. 아아! 어지러운 세상에 충신을 아는 것이니, 어찌 지위가 있고 없는 것을 물어 달리 취급하리오. 감히 공을 세운 데에 상 주는 것을 인색하지 않으련다.

만력 20년 8월 8일

동궁(東宮)의 글을 받들어 읽고 공손히 거듭 보니 말씀이 간절하시니, 조금만 인신 (人臣)의 의리가 있으면, 어찌 여기에 감동하지 아니오리까. 하물며 흉한 적들이 계속 무너져 지엽(枝葉)이 이미 꺾였으니, 요망한 무리들을 빨리 쓸어 없애고, (이 하 삭(以下削))

4일, 주인 형은 이른 아침에 의병 부장 고득뢰와 함께 적의 복병이 있는 곳으로 갔고, 순창군수 김예국은 이질(痢疾)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다. 나도 또한 석천암으로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마침 서남품관(西南品官) 오우(吳瑀) 등 4,5인을 만났는데,주인 형을 뵈올 일로 술을 가지고 간다면서 즉시 술 한 병과 안주 한 그릇을 꺼내서 함께 돌 위에 앉아 길가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석 잔을 마시고 얼큰하여 돌아오니 해가 아직 저녁이 되지 않았다. 떠난 지 반달이 되어 각각 서로 생각하던 터에 오늘 절에 오니,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고 나도 역시 기쁘게 맞았다. 문득 서울집을 생각하니,우리 늙은 어머니와 우리 처자,우리 아우와 누이는 어디에 두어두고 고갯길로 떠돌면서 몸을 인친(姻親)에 의탁하고서 도리어 옛일이라 하여 잊지 않고,인정(人情)이 여기에 이르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눈물이 흘러 그치지 않는다.

5일. 절에 있었다. 선윤(善胤) · 말윤(末胤) 형제가 장계로 가 보았는데, [1면 반삭 (一面半削)] 또 영동태수의 부인이 전에 들으니 적에게 죽었다고 하더니, 지금 다시 들으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적에게 발각되어 끌려가다가 품고 있던 칼을 빼어 자살해 죽었다고 하니 가히 열녀이다. 절의(節義)를 세웠다는 부인을 이제 비로소들으니 흠모하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큰집 부인들도 반드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많을 것이나, 난리가 평정된 뒤에는 또한 반드시 들리는 말이 있을 것이다.

6일, 절에 있었다. 밤 꿈에 윤해를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다. 내가 말하기를.

"네 아우 윤함이 그때 황해도에 있었는데. 왜적이 몰려갔다고 하니 필시 죽었을 것 이다"했더니, 윤해는 대답하기를, "그놈이 왜 죽습니까, 들으니 잘 있다고 합니 다"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헤어진 후로 한 번도 꿈에 뵈지 않다가 이제 비 로소 보이니, 깨고 나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내와 윤겸도 또한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 면목이 자세치 못하니 슬프고 슬프다. 또 좌의장 임계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역시 어제 현으로 들어왔고. 우의장 최경회는 방금 객관(客館)에 있으면서 녹각목을 많이 만들었는데. 형세가 여러 사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향교로 들어가 자고. 지금은 동면(東面) 민가로 옮겼는데, 아전들이 몇 명 되 지 않아 좌우로 쏘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매를 때리므로 관인들은 모두 달아나려 하고. 호장 이옥성은 자세히 타일러서 아직 머 물러서 일을 한다고 한다. 또 우의장 최(崔)라는 자는 쇠잔한 고을에서 지공(支供) 하는 일이 어려운 것을 생각지 않고 성을 내면서 관에서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조 금만 자기 뜻과 같지 않으면 자주 엄한 매를 때려 아래 아전들이 민망하고 괴로워 거의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또 들으니 박 판유(朴判尹) 숭원(崇元)이 지난 7월 25 일에 죽었다고 하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신주(神主)를 만들어 절 뒤 뜰 위에 가막 을 치고 봉안하고서 선윤 형제는 절로 돌아왔다.

7일. 절에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후에 도로 신주를 파 보니 전과 같이 채롱 속에 담겨 있는데, 다만 밖에 싼 자리가 젖었을 뿐이다. 가막에 봉안하고 술과 과일을 차려 제사 지냈다. 늦은 낮에 근심스런 회포를 풀 길이 없어 응일·종윤 등과 절동쪽 시내 위로 걸어 나가 앉아서 물방아를 구경하다가 시내를 따라 올라가니, 맑은 냇물과 흰 돌, 붉은 숲과 단풍잎이 서로 비쳐 무늬를 이루니 진실로 사랑스러워볼 만하다. 시내 흐름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부모 생각하는 한마음은 저물과 함께 길구나. 그대로 눈물이 흘렀다.

8일. 절에 있었다. 오늘은 곧 장모의 제삿날이다. 주인 형은 진중(陣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종윤 형제와 함께 제사 지냈다. 우리 처자가 만일 생존했으면 생각건대반드시 기억하고 슬퍼할 것이다. 또 그저께 밤에 의병 한 사람이 비밀히 적에게로들어가 적의 동정을 엿보았더니, 한 적이 망대로 올라가서 어떤 여인과 같이 자다

가 밤에 오줌을 누는 것을 올려다보고 활을 쏘아 떨어뜨리니. 적은 여인을 불러 칼 을 찾아 활 쏜 사람을 치려고 했다. 이때 활을 쏘아 머리를 맞히자 즉시 죽으므로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오자. 의장 최 공(崔公)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음악대를 보내 어 십 리 밖에 나가서 맞게 했다. 최 공은 밤중에 일어나 응벽정(凝壁亭)에 앉아 좌 우에 불을 벌에 밝히고 적의 머리를 깃대 위에 꽂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정 자 앞에까지 군용(軍容)을 장하게 벌에 세우고서 세 바퀴를 순회했다고 한다. 이때 흉한 적이 두 고을을 크게 점령하고 아직도 나와서 토벌하지 않으므로, 두려워하 고 겁을 내어 수일 이정(里程)이 되는 곳으로 물러나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스 스로 방어하고도 오히려 적이 올까 두려워하던 차에 휘하의 한 사람이 다행히 적 한 사람을 베었으므로 자랑하고 기뻐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 또 들으니 영남의장 곽재우는 여러 번 강한 적을 공격하여 머리를 벤 것이 몹시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 건만 이것을 공으로 여기지 않고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니, 사람의 지기(志氣)의 크고 작은 것을 여기에서 또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최 공이 하는 일을 보니 이름을 나타내려 하여 사람으로 인연하여 일 을 이룬 데 지나지 않았으니, 깊이 가소로운 일이다. 또 듣건대 어제 여러 고을에 서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여 경솔히 적의 소굴로 들어갔다가 탄환을 맞아 죽은 자 가 셋이오. 적은 하나도 베지 못했다 하니 한스러운 일이다.

9일. 절에 있었다. 밤중부터 큰비가 내리다가 늦은 아침에 이르러서야 오늘은 곧수유(茱萸)를 머리에 꽂는다는 명절이다. 서릿바람이 날마다 불어와서 강산이 이미 변하여 곳곳에 단풍이 비단 무늬를 이룬다. 가을이 오면서 감회가 많은 것은 옛 사람도 슬프게 여기는 바인데, 하물며 지금은 나라의 운수가 비색하여 병기가 땅에 가득한 채 호외(湖外)로 떠돌다가 몸을 절에 의탁하고 있으매,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과는 사생(死生)을 모르고 헤어져 있으니, 어디를 떠돌아 입에 풀칠을 하면서 보로 우는가. 이 명절을 당하니 생각이 더욱 심하다. 인정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 슬픈 감회가 없으랴. 국화 한 송이를 꺾어 드니 슬픈 눈물이 가득히 솟는다. 황천이 감동하고 도와서 우리 늙은 어머니를 살려 주시어, 명년 오늘날 수석(壽席)을 마련해 놓고 각각 서로 생각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기쁨을 생각지 못

했다고 하면 그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 길이 빌기를 마지않는다. 또 이언홍(李彥 弘)의 보고를 보니, 이달 8일에 금산의 적 백여 명이 홍백기(紅白旗)를 세우고 무 주현으로 들어오자, 두 고을의 정병 및 의병과 남원 · 진안에서 모집한 군사 등이 유현(杻峴) 및 소탄(召灘)을 매복하고 기다렸더니 적들은 미시(未時)에 도로 금산 으로 향하여 소탄을 건너게 되었다. 이때 의병 30여 명이 먼저 이들을 쫓아 조금 후에 접전이 시작되어 양쪽에서 포를 쏘고 우리 군사는 비 오듯이 활을 쏘아 화살 에 맞아 상한 자가 많았다. 이때 여러 고을의 정병이 또한 계속해 나가서 금산 가 정자원(柯亭子院)까지 쫓아가니. 적의 무리 중에 죽은 자는 끌고 달아났기 때문에 머리를 베지 못했고. 우리 군사는 별로 상한 자가 없었다. 또 7일 사시(巳時)에 의 병군관(義兵軍官) 김홍정(金洪鼎) · 강희열(姜熙悅) 등이 장의현과 약속하고 무주 의 적을 유인해다가 한참 동안 접전하는데, 두 고을 정병 및 여러 고을에서 모집 한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오니 적의 무리는 이미 물러갔다. 그 관사 근처에 흩 어져 있던 복병 중에 여인 수십여 명이 왜복을 입고 집 모퉁이로 올라가 우리 군사 가 충돌하는 것을 바라보고, 복병 한 왜군과 진중에 있던 왜병이 일시에 모두 일어 나 어지러이 탄환을 쏘니, 우리 군사는 혹 활을 쏘고 혹 물러서기도 했다. 이때 의 병군관 송위룡(宋渭龍)이 앞에 오는 왜군 하나를 쏘아 맞히고 말을 달려 산으로 올 라가니. 순창 사람 김경석 · 김대복 등이 홀로 많은 적을 만나게 되어 도망해 피할 겨를이 없이 죽기에 이르도록 힘껏 활을 쏘았다. 그중에 한 왜인이 붉은 옷에 금관 을 쓰고 다만 환도만 차고 준마를 탔는데, 따르는 왜병 30여 명이 뒤에서 옹호하 고 오는데, 빨리 쫓아오지도 않고 부채를 부치면서 빙그레 웃는다. 서로의 거리가 5. 6보밖에 되지 않아. 자세히 그 면목을 보니 수염이 길고 또 많으며 얼굴이 살찌 고 빛이 희어서 조금도 왜인의 기상이 없으니 필시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다. 김경 석이 처음에는 쏜 것이 맞지 않았고, 두 번째 쏘아서 말안장을 맞혀 꿰뚫으니 여러 왜병이 일시에 달려와 구워하여 방패를 세우고 옹호해서 도로 들어갔다. 김대복 은 선봉의 가슴을 맞히니. 여러 적들이 기운이 꺾이어 물러가 저들의 소굴로 들어 갔다. 이 이틀 동안의 접전에 우리 군사는 두 사람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 한다. 먼 젓번 네 차례의 교전에서는 적의 무리를 많이 죽였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는데 이번 싸움에는 영을 어기고 경솔히 나가서 두 사람이나 죽는 데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다. 주인 형은 어제 진에서 들어왔는데 말하기를, 탄환에 맞아 죽은 자는 순창의 배패(陪牌) 조여관(趙汝寬)·광주의 의병 김 영두(金永平)인데, 모두 머리를 베어 가고 다만 그 시체만 남겼다고 하니, 참혹한일이다.

10일. 절에 있었다. 밤 꿈에 어렴풋이 윤겸 · 윤함 형제를 보았다. 난리 이후로 한 번도 꿈에 뵈지 않다가 오늘 밤에 한 번 보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윤함이 만일 살 아 있다면, 아비는 호외(湖外)에 있고, 어미와 골육은 모두 적의 소굴 안에 있어서 피차간의 생사를 묘연히 들어 알 수가 없어. 생각건대 반드시 밤낮으로 울 것이니. 나도 또한 이것 때문에 서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천리에 서로 사랑하여 내 꿈에 들어오는 것인가? 꿈에서 깨어 그 면목을 생각해 보니 말하고 웃는 것이 완 연히 평일과 같아서. 슬픈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 또 현의 전세리(田稅吏) 전천우 (全天佑)가 지난 4월 17일에 길을 떠나서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25일에 내가 보 낸 물건을 가져다가 관동 집에 갖다 주었더니. 시윤이 나와서 보고, 또 총각 도령 이 그 물건을 받았다 하니, 이는 필시 내 막내아들일 것이다. 그 형용을 들으니 지 극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종 응문(應問)이 없더라고 하니. 반드시 아 내가 없기 때문인데. 생각건대 친정에 가서 서로 달아나 피할 곳을 의논하는 것이 리라. 천우가 말하기를, 임금의 행차가 그믐날 성을 나섰는데, 세 궁(宮)과 여러 왕 자의 집과 여러 창고에 일시에 불을 놓았다 하니. 주상께서 나가실 때에 불을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창고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 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자취를 없앤 것일 게다. 천우가 5월 1일에 관동 집으로 갔더니, 다만 늙은 종 하나가 집에 있다가 말하기를, 생원님은 이미 양주로 행하셨 고, 나는 늙어서 갈 곳이 없어 여기에서 집을 지킨다고 하더라니, 이는 반드시 늙 은 종 무심(武心)일 것이다. 그가 관동에 갔을 때 보니 대궐이 바야흐로 타고 있어 서 연기가 하늘을 덮었더라고 한다. 천우는 또 말하기를, 2일에 들으니 적이 이미 한강(漢江)을 건넜다 하므로 삼각산(三角山)으로 피해 달아났는데, 적이 어지러이 숲 속을 찾아서 이 산에 숨어 있던 자들의 부인들은 혹 적에게 잡혀 포로가 되고, 혹은 바위 밑으로 떨어진 자가 그 수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서 철원 땅으로 도망해 들어갔다가 그대로 안변 땅으로 달아났고, 7월 13일에 도로 나와서, 직산 에 사는 사람과 동반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8월 20일 후에 비로소 집에 돌 아왔으니. 그간의 고생한 모습은 입으로 형언하기 어렵다 한다. 또 원중성(元仲成) 의 처자는 온양(溫陽) 땅으로 피했으니, 상하(上下)가 죽었을 걱정은 없다 한다. 들 으니 중성이 영남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머무르는데. 종을 보내서 모셔 가자 중성 은 첩을 데리고 영남으로 돌아간 지가 이제 이미 한 달이 넘었으므로 부득이 왔던 종은 도로 온양으로 갔다. 비록 타향에 유리하여 기한(飢寒)과 고초를 당해도 마땅 히 목숨은 보전해야 다음날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니. 중성의 다행함을 알 수가 있다면, 우리 한집의 생사는 아직도 얻어들을 수가 없으니 중성의 다행함이 깊이 부럽기만 하다. 중성의 집은 진위에 있는데, 이제 들으니 진위는 적이 와서 침범하 지 않았고. 촌가도 아직 불에 탈 걱정이 없다고 하니. 만일 당초에 말을 타고 올라 가서 그 처자를 찾았으면 만나 볼 수가 있었을 것인데, 데리고 온 첩에게 구애되어 여러 달을 머물다가 또 적의 난을 만나서 겨우 죽음을 면하여 도로 그 사람을 데리 고 용성으로 의탁해 돌아갔다가 관청 말을 빌려 타고 도로 영남으로 갔다고 하니, 이 무슨 뜻인가. 중성은 사리(事理)와 인정(人情)을 아는 터에 이와 같이 급하고 어 려운 때에 관계없는 물건에게 혹해서 그 근본의 정을 잊어버렸으니, 슬하에 남긴 아이가 어찌 불쌍하지 않단 말인가. 또 저녁에 들으니 황간 · 영동의 적 3백여 명 이 금산으로 들어온다 하고, 전에 들으니, 충청좌도 여러 고을에는 아직 적이 주둔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들으니 황간 · 영동의 적이 3백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간의 전한 말의 허실(虛實)을 믿을 수가 없다. 다만 금산 · 무주의 적은 그 수가 많 지 않은데, 아직도 머물러 있고 물러가지 않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감히 두 고을을 점령하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적을 기다려서 다시 전주(全州)를 침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장수 들이 물러가 움츠리고 시일만 보낼 뿐, 토벌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니, 뒤에 가서 후회할까 걱정된다.

11일, 절에 있었다. 이응일은 어제 아침에 장계의 진 친 곳으로 주인 형을 가서 보

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또 들으니 영남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에는 왜적이 모 두 차 있다 하니, 필시 서울에서 내려오는 적일 것이다. 부산 해변에는 적의 배가 가득히 와서 정박했는데. 좌수사 이순신과 우수사 이억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들 어가 육지에 오른 적을 치는데. 수만 명이 힘을 합하여 비와 같이 탄환을 쏘아 우 리 군사 죽은 자가 30여 명이요, 녹도만호(鹿島萬戸) 정운(鄭運)도 탄환에 맞아 죽 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사를 물렸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위에서 내려온 적이 포구 에 머물러 있던 것이다. 또 전일에 이 첨사 언실(李僉使彥實)이 귀양 가서 방답(防 踏)의 진중(鎭中)에 있다가 적선 한 척을 그대로 사로잡았는데, 그 후에 거기 머물 러 있었다는 죄로 다만 그 벌만 면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한스러운 일 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또 경상우도의 수사군관이 보고하는 글을 가지고 지난 7월 25일에 의주의 행재소(行在所)에 갔다가 월초에 돌아와서 전하는 말에. 평양에 있던 적들은 모두 물러갔으나 경기 죽산 이하에 많이 주둔해 있고. 죽산 이상은 몹시 드물더라고 한다. 나도 또다시 열흘만 기다렸다가 충청도 속 길 로 해서 바로 아산 땅 이시열(李時說)의 집으로 가서 다시 서울 소식을 들은 후에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찾아보려 하는데, 그러나 다만 어린 종 하나뿐이고 말이 없 으니. 내 비록 걸어가더라도 노자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이 민망스러운 일이 다. 또 두 고을에서 모집한 이호연 · 김경석 및 의병과, 남원 · 진안에서 모집한 군 사 3백 70여 인이 그저께 다시 무주 땅으로 들어가 소식을 탐지하여 적을 맞아 활 을 쏠 것이라 한다.

12일. 절에 있었다. 전일에 명복 및 수호인(守護人)을 시켜 오미자를 따게 했고, 어제도 또 따오게 했더니 모두 5, 6말은 된다. 말려도 두 말은 될 것이니, 만일 남은 목숨이 보존하면 약재에 쓰려고 한다. 금년에는 오미자가 많이 열려서, 절 앞뒤 마을에 많이 있기에 따오도록 명한 것이다. 또 들으니 면천군수(沔川郡守) 소수(蘇溪) 씨의 집이 서울 인왕동(仁王洞)에 있는데, 나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 폐거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흉한 적이 성안으로 들어왔으나 형세가 피해 달 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집에 있었다고 한다. 이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빈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적이 그 집에 들어가 재물을 모두 약탈해 가고 또 관을 쪼개

고 염습한 옷까지 벗겨 가서 다시 염을 했더니 또 이와 같이 벗겨 가서 면천군수는 다만 해어진 옷 하나만을 두르고 있고, 어린 종이 밥을 짓는데, 이것도 계속하지 못한다 하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면천군수는 재상의 아들로서 집도 또한 부자 여서 일찍 벼슬에 올라 여섯 고을의 벼슬하였고, 그 평일에 조금도 궁색한 일이 없었는데, 노년에 이르러 이러한 큰 어려움을 만나 기한(飢寒)이 여기에 이르니, 인간의 일이란 관을 덮은 뒤에야 복과 재앙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3일, 절에 있었다. 또 현리 이호연이 보고하기를, 어제 사시(巳時)에 금산의 적이 붉은 기를 세우고 말을 타고 소에 짐을 실었는데 대략 천여 명이 무주로 들어갔다 한다. 전에는 여러 번 무주에 왔어도 즉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머물러 자고 나오 지 않으니 적의 꾀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신칙(申勅)해서 변을 기다린 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힘을 합하여 안성창(安城倉)을 침범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남 길로 도망하려는 것일 것이다. 또 영남에서 전한 글을 보니. 지난 8월 20일 후에 조령으로부터 흘러온 적이 그 수를 알 수 없이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 에 가득 차지 않은 곳이 없고. 성산에는 거의 3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 포로가 되 어 도망해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적이 근일에 장차 합세하여 크게 창영과 합 천 등 여러 고을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니, 근심스럽다. 그러나 서울에서 내려온 적 이 몹시 많으니, 반드시 중국 군사에게 쫓겨서 도망해 돌아온 것이니, 그렇다면 서 울이 불일간에 수복될 것이요. 임금의 행차도 또한 반드시 점점 내지로 옮겨질 것 이니 미리 하례하는 바이다. 또 전자에 의병 한 사람이 밤에 무주의 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진 밖의 망대에서 숙직하는 왜병을 쏘아 죽이고 머리를 베어다가 바쳤 다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으니 사실은 왜병이 아니고. 무주 백성이 목화를 따 고 있다가 적에게 죽어서 버려두고 거두어 가지 않았던 시체를 그 머리털을 깎아 버리고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는데, 의병장은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진짜 왜병이 라고 하여 순찰사에게 바쳤다고 하니 진실로 우스운 일이다. 천하 일이 거짓이 많 은데, 하물며 지금같이 공을 다투고 상을 요구하는 때에 이 같은 일은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참이고 거짓인 것을 알아 낼 수 있으랴? 베임을 당한 자의 아비가 이 현에 살고 있었으나 그를 적을 따를 것을 위협할까 몹시 두려워하여 감 히 말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저녁에 응일이 절로 돌아왔다.

14일, 절에 있었다. 어제 금산의 적이 무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 던 적을 모두 거느리고 도로 금산으로 돌아갔다 한다. 대개 무주의 여인이 전일 에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적의 무리가 나갈 적에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것을 복병들이 잡아서 조사했더니 그 여인의 말은 아래와 같 았다. 7일에 접전할 때 적장이 화살에 맞아 3일 안에 죽어서. 그저께 시체를 불태 운 후에 적의 무리끼리 약속하기를, 금산으로 합세하여 모아서 전주로 진공(進攻) 했다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한다. 이에 무주의 객사 와 창고 · 누각을 일시에 불태우고. 다 타지 않은 곳은 우리 군사가 들어가 보고 모 두 불을 놓아 다 타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이 했으니. 이는 적들이 다시 와서 머무 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관가 근처의 불에 붙지 않은 인가도 역시 모두 불을 놓 았다고 한다. 전일 접전할 때 순창의 패장(牌將) 김경석이 적장을 쏘아 맞혀 그 말 안장을 꿰뚫어 왼쪽다리를 뚫어 말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자 적의 무리들이 옹호하 고 끌고서 허둥지둥 저희들의 소굴로 돌아갔다 하니. 반드시 이 때문에 죽은 것이 다. 다만 금산의 적이 무주로 왔으면 바로 영남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제 무주의 적을 모두 이끌고 금산 소굴로 돌아간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금산으로 부터 양산현을 넘으려면 황간 · 영동을 거쳐서 금산으로 돌아갈 계획인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무리가 오기를 기다려 전주를 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下道) 의 여러 군사와 좌우 의병들이 고리 모양으로 요해처를 지키고 있으니. 반드시 쉽 게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장수와 군사가 모두 두려워하고 겁내어 적의 칼 날을 바라보기만 하면 먼저 스스로 무너지니 이것이 걱정이다. 저녁에 의승(義僧) 인준(引俊)이 그 무리 2백여 명을 거느리고 현에 이르렀는데, 그는 곧 담양 옥천사 (玉川寺)에 있는 중으로서 스스로 장수가 된 것이다.

15일. 무주의 적이 금산의 초현(銷峴)·술현(戌縣)으로 옮겨 주둔했으니, 반드시 딴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옮기기 전에 주인 형을 보고자 하여, 종윤과 아침밥을 먹은 후에 장계로 달려가서 함께 손(孫)의 집에서 잤다. 또 영남에서 전한 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적이 혹 천여 명씩, 혹은 백여 명씩 날마다 내려오는데, 짐

을 이고 가던 여인이 큰소리로 외치기를, 아무 고을 아무 촌에 사는 아무개가 이제 포로로 잡혀 아주 외국으로 갔다고 하면서 울기를 그치지 않더라고 하니, 슬프고 불쌍하다. 저녁에 순창군수가 와 있는 곳에 가보고 돌아왔다.

16일. 손(孫)의 집에서 잤다. 또 들으니, 평양의 적이 지금은 [이하 삭(以下削)) 17일. 손의 집에서 잤다. 무주의 적이 금계로 옮겨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 형은 술현 땅 용담 경계의 토끼고개(猫古介)로 옮기고, 순창군수는 금산 경계 숯고개(炭古介)로 진(陣)을 옮기라는 순찰사 권율의 글이 도착했으므로, 내일 마땅히 각각 군사를 이끌고 나누어 나가 지켜야 한다. 현(縣)의 노리(老吏) 김세건(金世揵)・이만형(李萬亨) 등이 술과 떡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와서 주인 형에게 올리므로 나도 또한 참석했다.

중국 병부(兵部)에서 발표한, 왜인을 사로잡거나 벤 자의 공에 대한 상(賞)

관백 평수길을 사로잡거나 벤 자에게는 상으로 은 일만 량을 주고, 백(伯)을 봉하여 세습(世襲)시킴. 이름 있는 큰 적 한 명을 사로잡거나 벤 자는 벼슬 세 계급을 승진시키고, 이 승진을 원하지 않는 자는 상으로 은 1백 50량을 준다. 참 왜를 따르는 적 한 명을 사로잡거나 벤 자는, 벼슬 한 계급을 승진시키고, 승진을 원치 않는 자에게는 상으로 은 50량을 준다. 한인(漢人)으로서 왜를 따르는 자 한 명을 사로잡거나 벤 자는 벼슬 한 계급을 승진시키고, 승진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으로 은 25량을 준다.

만력 20년 7월 18일

18일. 주인 형과 순창군수는 각각 새로운 수자리(戊)로 돌아가고, 나도 또한 돌아오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현의 관사로 들어가 잤다. 우의장 및 승의병 등이 돌아가서 진안에 진을 치려고 객사의 앞뒤 뜰아래에 와서 보는데, 사람과 말에 깨끗지 못한 물건이 가득하고, 담 밖에는 엄하게 녹각(鹿角)을 설치했으며, 담 안에는 방패를 벌려 세웠는데도 오히려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관문 밖 네 모퉁이에도 또한 복병을 설치했으며, 적의 소굴과는 거리가 이틀간의 이정(里程)인데도 두려워하고

접내기를 이와 같이 하니, 하물며 감히 흉적의 얼굴을 바라보겠는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스스로 명령을 받은 신하인양 자처하여 날마다이른 아침에 세 반(班)의 인리(人吏)의 예(禮)를 받고, 저녁이면 숙직하는 사람의기록을 보아, 모든 것을 이 현(縣)에 책임을 지우고, 조금만 뜻과 같지 못하면 문득매를 때려 상하가 모두 피곤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또 들으니, 영남의장 곽재우는 관부에 들어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양식을 먹다가 적이 있는 곳을 들으면 문득 스스로 나가 토벌해서 자기 몸이 사졸(士卒)들보다 앞선다 하니, 이는 가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다.

19일. 아침 식사 후에 절로 돌아왔다. 올 때 우의장을 들어가 보고 조용히 옛날이 야기를 하다가 돌아왔다. 의병장 임계영의 집은 산양에 있는데, 내가 자순 형과 함께 산양군에 가 있을 때, 함께 교분이 두터웠고, 나도 또한 그의 아버지 임 생원(任生員) 대중(帶重)에게 수학(受學)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니 자못 옛일을 생각하는 뜻이 있다.

20일. 절에 있었다. 밤중에 주인 형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와서 보고하기를, 금산에 머무르는 적이 이미 모두 달아나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송현 여러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탐색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인지 알 수 없는데 금명간 반드시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장마동소분토(皮匠麻同小分吐)하나, 남혜(男鞋) 둘, 여해(女鞋) 셋을 가져갔다. 또 요새 서릿바람이 갑절이나 차갑고 누른 뽕나무가 이미 떨어져 곳곳에 나르는 잎이 이미 산길에 가득하니, 깊이생각하건대, 늙은 어머니와 처자ㆍ아우ㆍ누이가 이 같은 바람과 서리에 어찌 참는단 말인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21일. 들으니 주인 형이 다시 딴 곳으로 옮겼다 한다. 아침 식사 후에 웅현 진소(陣所)로 갔다. 또 산승(山僧) 능인(能引)이 포(泡)를 만들어 상하 사람에게 주었다. 전일에 중 능찬(能贊)도 또한 이와 같이 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들은 모두 산에들어갈 때 데리고 가서 밥을 짓던 중이다. 주인 형수가 각각 쌀을 주어 그 뜻에 보답했다. 또 어제 샘의 얼음이 비로소 녹았다. 찬바람이 살을 에여,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오히려 찬 것을 느끼겠다. 여기에서 생각이 서울집에 미치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또 다시 들으니 금산의 적이 그저께 도망해 가서, 도로 옥 천 · 양산현 길을 넘어 영동 · 황간을 거쳐 금산으로 향했다 한다. 이 도는 아무 걱 정이 없겠으니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다. 다만 흉한 무리가 6월로부터 이제 넉 달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금산 · 무주 두 고을에 있었으니, 한 사람의 그림자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끝내 좋게 돌아갔으니 통분한 일이다. 그러나 무주의 적은 순창·장수 두 고을의 정병이 비단 몹시 견고하게 막고 지킬 뿐만 아니라. 각각 스 스로 모집한 정예한 군사 백여 명을 적의 경계로 들여보내서 날마다 그 행동을 탐 지하고, 혹 밤에 비밀히 들어가고, 혹 요해처에 복병을 하고서 다섯 번이나 교전 해서. 비록 많이 베지는 못했지만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고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으며. 적도 또한 두려워하고 겁내어 감히 안성길로 나가지 못 했기 때문에 살아서 금산으로 돌아간 자는 겨우 5분의 1이라고 한다. 금산의 적은 방어사 및 좌우 여러 장수가 여러 고을의 큰 군사를 거느리고 네 번이나 접전했으 나 모두 패해 무너져서 장사들을 많이 죽이고 마침내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니. 원 통해하면 어찌하겠는가. 또 산에서 내려갈 때 중로에서 들으니, 원성중이 영남우 수영으로부터 첩서(捷書)를 가지고 이 현(縣)을 거쳐 들어오다가 글을 내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제 이 도사 충(李都事冲)이 행재소로부터 나와서 하는 말이, 전일 들 어갈 때 길이 해주를 지나게 되어. 내 셋째 아들 윤함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내 편 지를 전하고, 내가 잘 있다고 말했더니 몹시 기뻐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함은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친가와 형들이 양주 길로 향했다는데, 그 뒤로는 어찌된 기별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란다. 이것은 모두 6월에 적이 해서를 아직 침범하기 전의 일이요. 그 후에는 적의 공격이 딴 도보다 심했는데. 그 살고 죽은 것을 아직 듣지 못했고, 더구나 양주 땅은 적의 어지러이 들어간 것이 또한 딴 도보다 갑절이 나 되어 선비들의 숨어 있는 자를 많이 죽여서. 유근(柳謹) 사부자도 역시 양주 경 계에서 죽었으니, 우리 가족도 만일 그대로 그곳에 있고 다시 깊은 골짜기로 옮기 지 않았다면 반드시 면하지 못했을 것이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중성 (仲成)이 어젯밤에 와서 보았는데, 주인 형은 새벽에 떠나서 진안으로 향하여, 적 의 수급(首級) 둘을 얻어서 스스로 베어서 가지고 갔다 하니, 반드시 벼슬을 제수 받았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내가 산속에 있어 서로 만나고 보내지 못한 것이다. 저녁에 재에 사는 사람이 그날로 비단이어를 잡아 쟁반에 가득히 올리는데은 같은 비늘이 뛰고 움직여 생기가 넘친다. 혹 회도 만들고, 혹 지지기도 하고, 혹 굽기도 하여 배불리 먹고 나니 객지에 있는 우울함이 조금은 위로된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상을 대하여 시름이 생긴다. 곡성군수 정대민(鄭大民)도 또한 여기에 있어 진을 쳤다.

22일. 웅연(熊淵)의 진 친 곳에서 잤다. 아속은 오늘 산에서 내려가 관아(官衙)로돌아갔다. 6월 26일에 절에 올라왔다가 오늘 비로소 관아로 돌아갔으니, 그 일수(日數)를 계산하면 86일이 된다. 그동안 고생한 정상이 갖추어져 있다.

23일, 진(陣)에서 잤다. 순찰사가 들으니, 금산의 적이 달아나므로 전주로부터 큰 군사 45만을 거느리고 웅치를 넘어 진안 · 용담 · 금산 · 진산을 거쳐 여러 고을을 함락시킨 후에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한다. 다만 적이 고을을 점령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토벌해서 멸하지 못하다가 적이 도망한 뒤에 군용을 장하게 차리 고 무력을 빛내면서 지나갔으니 몹시 가소롭다. 그러나 순찰사가 바야흐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친히 토벌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사들이 아직 모이기 전에 적이 먼 저 도망했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또 주인 형은 곡성군수 정대민과 함께 웅연의 복 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군사가 있고 없는 것을 살펴본 뒤에 그대로 냇가에 앉아서 고기 잡는 사람을 시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회치고 구워서 먹는데 나도 또한 참 여했다. 곡성군수가 먼저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주인 형은 하혈로 인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나만 홀로 곡성군수와 계속해 마시다가 다섯 잔에 파했다. 술상에는 수박 · 게 · 구운 닭뿐이었다. 주인 형은 곡성군수와 함께 돌아가고, 나 는 뒤에 남아서 또 고기 잡는 사람을 시켜 고기를 잡게 하여 그 재주를 보려 했는 데, 고기 잡는 사람은 그물을 들고 물 가운데에 있는 반석(盤石)을 포위하고, 긴 나 무로 흔들자 물고기가 길이가 반자나 되는 것이 놀라 달아나다가 그물에 걸려, 계 속해서 네 마리를 잡았으므로 버드나무가지로 꿰어서 아내(衙內)의 주인 형수에게 보냈다.

24일. 아침 식사 후에 현(縣)으로 돌아왔다. 들으니, 적이 달아날 때 옥천군을 불태우고 금산을 향해 돌아갔다 한다. 또 들으니, 금산군 앞에 긴 나무를 벌려 꽂고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를 무수히 달아놓았는데 썩어서 뼈까지 다 떨어지고 다만 머리털만 걸려 있고 혹은 망건(網巾)만 있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방어사의 공문이 저녁에 왔는데, 주인 형으로 하여금 안음 경계 육십현으로 옮겨 방비하라 하므로 즉시 달려가 현(縣)으로 들어왔는데, 밤이 이미 늦어서 아속(衙屬)과 서로 만나지 못하고 4경(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니, 상하가 기뻐하여 서로 유리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니 도리어 비감(悲感)한 생각이 난다.

25일. 이른 아침에 육십현(六十峴)의 진 친 곳으로 가는데, 응일도 함께 갔다. 내일 나를 맞아 함께 영각사(靈覺寺)로 가서 포를 만들어 먹고 같이 자자고 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가서 보고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절은 방비할 곳을 설치한 데서 멀지 않았다. 또 쌀 닷 말을 얻어서 목화를 사서 명복(命福)을 시켜 무주로 보내어 임언복(林彦福)의 인마(人馬)와 함께 같이 돌아가게 하련다.

26일. 일찍 식사를 한 뒤에 장계로 오는데 탄 말이 몹시 피로해서 걸을 수가 없어, 5리쯤 오다가 길가에 앉아 돌려보내고, 딴 말을 바꾸어 타고 왔다. 절반쯤 오다가 또 순창군수 김예국을 만나서 진을 파하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계창에 이르렀는데, 주인 형과 응일은 먼저 가고 나는 이경광(李絅光)과 함께 뒤를 따라 영각사에 이르렀다. 절은 안음 땅 덕유산(德裕山) 밑에 있어, 남쪽 지방의 옛 사찰인데, 여기에 있던 중들 중에 나이 젊고 힘이 있는 자는 의병으로 나갔고, 다만 늙은이와 어린이만 남아 있다. 날이 저물어 주인 형과 응일 및 품관(品官)한대윤(韓大胤)·이경광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마침 임실(任實)의 이 정랑정신(李正郎廷臣)이 내게 글을 보내기를, 올 때 우리 가속(家屬)을 양근 땅에서 만나 보았는데, 그때는 모두 화를 면하고 편안하더라고 한다. 난리 후로 소식을 듣지못한 지가 장차 반년이 되는데, 이제야 비로소 얻어들으니,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다만 그 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

27일. 아침에 죽을 쑤어 같이 먹었다. 주인 형은 먼저 떠나서 요해처에 복병한 것을 살펴보고, 나는 그 뒤를 따라서 반 식경(半息頃)을 가니, 천석(川石)이 볼 만하

고 길가에 소나무 하나가 드러누웠는데, 그 밑에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그 밑에 서 쉬면서 주인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점심밥을 먹은 후에 고개 위의 목책 (木柵)을 설치한 곳에 도착하여 조금 쉬고서 바로 계창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했다. 잠자리에 든 지 오래지 않아 들으니, 집종 송이(宋伊)가 왔다고 한다. 즉시 놀라 일 어나 불을 밝히고 처자들이 보낸 글을 보니, 영동으로 유리하면서 혹은 주리고 혹 은 밥을 먹기도 하여 고초가 수없이 많았다 하니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 다시 처자의 글을 볼 줄 알았으랴. 슬픔과 기쁨이 더 욱 지극하다. 다만 어머니만이 서쪽으로 고양(高陽) 심열의 농사(農舍)로 나가고. 우리 처자와 함께 관동으로 가지 않아서, 살고 죽은 것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으 니, 통곡함이 끝이 없다. 하물며 고양은 적이 왕래한 첫 길로서, 서쪽으로 큰 바다 에 닿았으니 적이 만일 와서 침범하면 피해 달아날 곳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고 원 통하여 아우(希哲)와 심질(沈姪)(심열)의 무모한 것이 한스럽다. 비록 우리 처자와 함께 나가지 않더라도. 만일 영동으로 갔으면 깊은 산과 먼 골짜기에 어디를 간들 피할 수 없으리오 또 남쪽으로 달아나고 북쪽으로 달아날 길이 있으니. 적이 비 록 길을 막아도 반드시 길이 여러 갈래일 것이니 맘대로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갓 먼 소식을 들으니 현재 편안히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인해서 전해 온 말을 어 찌 믿을 수 있으리오. 우리 처자를 함께 모시고 가지 않은 죄를 어찌 면할 수 있으 랴. 처자는 지금 예산 땅 김자정(金子定)[김지남]의 농사(農舍)에 도착하여 아직 남 은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 나는 보고 싶지가 않다. 온 종이 발에 종기가 났으니 그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예산으로 가서 다시 서울의 적의 형세의 머무르고 흩 어진 것을 보아서 친히 가서 찾아 볼 계획이다. 또 그저께 영암 임매가 편지를 보 냈기에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임실의 관인이 오는 편에, 버 선과 감투를 나에게 보내왔기에. 나도 또한 답장을 써 보냈다. 이 정랑에게도 역시 고맙다는 글을 보냈다. 또 윤함의 편지 속에. 고성(高城) 누이를 양근에서 보았고. 임 참봉은 가평에서 보았으며, 김정자의 일가는 예산 농촌에 와 있다고 한다. 다만 임면부(任免夫)의 큰딸은 가평에서 병으로 죽었고. 연지동댁(蓮地洞宅)은 아직 풍 양(豊壤)에 머물러 있다가 적의 분탕질을 당했고, 또 정종경(鄭宗慶)의 매부 이탁 (李晫)과 그 아우 휘(諱) 및 그 두 아들이 모두 적에게 죽었으며, 김덕장(金德章) · 우일섭(禹一燮) · 신홍해(申鴻海) · 이렴(李濂)의 처자 · 신득중(申得中) 등이 모두 화를 입었다 한다. 그러나 길에서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애통함을 알 수 가 있다. 또 길에서 허영남(許永男)을 만났는데 말하기를, 7월 초에 서울에 들어갔 다가 돌아왔는데, 김제 숙모 및 해주댁은 모두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김제 숙모는 이질을 앓아 몹시 괴로워서 인사를 차리지 못한다고 하니. 반드시 면치 못 할 것이다. 비통(悲痛)함을 어찌하리오. 그중에 이탁(李晫) 한집의 일은 만일 그것 이 믿을 수 있는 말이라면 더욱 몹시 참혹하니 슬픈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 다만 경여(敬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만일 이탁과 한곳에 같이 있었다면 어찌 홀로 면했겠는가. 걱정됨을 금할 수 없다. 오직 이시윤과 그 외조(外祖)는 함 께 관북 길로 행한 것을 고성이 친히 금성 땅에서 보았다니 안변으로 들어갔을 것 이라 하니 반드시 적의 변을 면했을 터인즉 이것이 위로가 된다. 골육과 친척이 동 서로 흩어졌는데도 적의 해를 면할 수 있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내 처자도 다행히 면했으니 불행하 중에 이것도 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 수 없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다만 어머니와 아우·조카가 모두 서쪽 길에 있어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오직 날마다 통곡하는데, 황천이 감동하고 도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우를 살려 다시 만나게 해 주기를 밤낮으로 조용히 빌 뿐이다. 또 윤함 은 해서에 있어. 생사를 알지 못하여 항상 애통해하더니. 이제 들으니 처자와 함께 피해서 섬으로 들어가 아직 무사하다고 하니 더욱 다행하다. 그 친구도 또한 섬 속 으로 난을 피했다가 친히 만나 보고 바다로 해서 남쪽으로 와 유겸에게 말했다 하 니 필시 헛말이 아닐 것이다.

28일. 아침 식사 후 종 송이를 데리고 먼저 현으로 돌아와 돌아갈 행장을 차리는데, 내가 말이 없기 때문에 주인 형이 내 소식을 듣고 말을 샀으나 말 값이 몹시 비싸니 민망스러운 일이다. 전일에도 말 한 필을 사고, 이제 또 사서 주니 그 후의(厚誼)를 갚을 길이 없다. 앞으로 큰 집안에 쓸 곳이 많을 터인데 관청 재산을 이와 같이 다 했으니 한편 미안하고 미안하다

29일. 관아에 있었다. 현리 이언홍이 순찰사에게서 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평양

에 흉한 적이 아직도 많이 머물러 주둔했고, 황해도와 개성 및 서울에도 모두 가득 차 있으며, 강화도에도 역시 와서 침범해서, 체찰사와 병사 및 의병장 김천일이 바 야흐로 싸우면서 지킨다고 하니, 더욱 민망하고 걱정됨을 금할 수 없다. (16행 삭 (削)) 또 들으니 이 도의 순찰사 권율이 이제 익산에 도착했는데, 거느린 군사가 거 의 5만에 이르고, 2, 3일을 머무르다가 다시 정예를 뽑아 용안으로부터 강을 건너 충청도 내지(內地)를 거쳐 아산(牙山)에 이르러 배를 타고 바로 임금을 도우러 갔 다고 한다. 다만 들으니, 고산으로부터 떠날 때. 체찰사의 종사(從事) 황붕(黃鵬)과 전별주(錢別酒)를 마시다가 연일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큰 군사가 들에 가득 하자 해가 기울어서야 비로소 떠나서 익산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한다. 이 러한, 군부가 파천하고, 종묘와 사직이 빈터만 남은 때를 당해서 신자 된 자가 마 땅히 눈물을 씻고 배에 올라 급히 급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이지. 어찌 편안히 술에 취하여 늦게 일어날 때이겠는가? 옛날에 악왕(嶽王)이 바로 황룡(黃龍)에 이르러 통음(痛飮)했다는 말을 생각하면 어찌 개탄하지 않으랴? 그믐날 비로소 눈이 하늘 에 나부끼는 것을 보겠고. 차바람이 계속 불어온다. 내 처자들이 살아 있어 예산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다만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바람과 눈에 주림과 추위가 절박할 것인데 어떻게 견디고 참는 지, 깊이 망극한 은혜와 수족 같은 정을 생각하고 바로 하늘에 매달려 통곡하고 싶 다. 불효한 자식이 평일에 터럭만큼도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고. 이번 난리에도 또 함께 어려운 속에서 부축하고 업지 못했으니 이 막대한 죄를 나는 면치 못할 것 을 알겠다.

10월

1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봉우리가 반쯤은 희고, 찬 기운이 사람을 습격하니, 다시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를 생각할 제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말은 쌀 닷 섬 반을 주고 샀다. 6일에 길을 떠나려 하는데, 다만 송노가 발에 꽈리가 나서 걸어갈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민망스럽고 걱정이 된다. 또 들으니 경기 안성에 사는 서의 (庶懿) 홍계남(洪季男)이 당초에 의병을 일으켜 흉적을 공격하여 활을 쏘고 벤 것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이 자못 많았고, 가는 곳마다 공이 많아서 적이 홍 장군(洪將軍)이라고 부르고 감히 범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호서(湖西)의 내지(內地)가 편안함을 얻은 것은 모두이 계남의 공이라고 하니, 가상한 일이다.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오직 영남의 곽재우·김면과 경기의 홍계남과 호서의 조현·호남의 김천일·고경명뿐이요, 그 나머지는 업적이 나타난 것을 듣지 못했다. 더구나 고경명과 조현은 모두 국사를 위해 죽어서, 죽었어도 그 죽음을 얻었으니, 가히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겠도다.

2일. 들으니 금오랑(金吾郎)¹³이 전 순찰사 이광을 잡아 용성으로 갔다 하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근왕(勤王)¹⁴의 명령이 여러 번 내렸는데도 본도의적을 즉시 제거하지 못했으니 반드시 이 까닭일 것이다. 또 들으니 새 순찰사 권율이 어제 용안으로부터 강을 건넜는데, 흥양(興陽) 군사 40명, 담양 군사 13명이 도망해 갔으므로 즉시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를 베어 효수(梟首)¹⁵하고 가산을 모두 관청에 몰수하여 군령을 엄숙하게 했다고 한다.

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가끔 싸라기도 날리면서 저녁까지 큰 바람이 분다. 바람과 눈이 이와 같으니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를 생각하매 슬픔이 더하다. 또가죽 공인(工人)이 아이들의 신을 지어 왔는데, 두 딸아이 것은 너무 좁고 적어서도로 주면서 다음에 만들어 보내도록 일렀다. 어머니 신과 두 손녀의 신 값도 내주었다.

4일. 주인 형을 육십치(六十峙) 복병을 한곳으로 갔다. 종일 바람이 불고 날이 흐리다. 세 아들의 귀 가림(이엄(耳掩))을 만들었고, 두 종도 귀 가림을 얻었으니, 겨울을 지내기에 근심이 없겠다. 송노가 왔기에 즉시 올라 버선과 짚신을 주어 그 근고(勤苦)한 공로에 보답했다.

5일. 주인 형은 조방장이 복병이 있는 곳을 돌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데 와 보지 못했다. 오후에 내가 친히 계창에 가서 함께 자고, 이튿날

13 금오랑(金吾郎):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14 근왕(勤王): 임금의 일에 힘씀.

15 효수(梟首): 죄인의 머리를 베어 달아 여러 사람에게 보임.

일찍 돌아와서 행장을 차리리라 생각했다. 또 주인 행수가 네 가지 솜옷을 만들어 주어, 처자의 추위를 막을 차비를 했으니 얼어 죽는 것은 면할 수 있겠다. 또 두꺼 운 무명으로 나의 두루마기를 만들어 내가 떠나는데 주니, 그 후한 뜻에 감사한다. 큰 난리를 만나는 때를 당하여 관청 재물을 다 써 없애고서도 내 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하지 못한 뜻이 있으니, 주인 형과 주인 형수의 정중한 정을 어찌 다 말 할 수 있으랴.

6일. 밤에 눈이 내렸다. 아침에 주인 형과 서로 작별했다. 현(縣)에 온 지 1년에 서 로 화란(患難) 속에 같이 있었는데, 오늘 떠나게 되니 암담함을 이길 수 없다. 좌수 손덕남(孫德男)이 술을 가지고 와서 작별하고. 오는 길에 또 순창군수를 만났는데. 무주 땅에 가서 지킨다면서, 말 위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관아에 이르니 주인 형 수가 만두를 주어 은근한 뜻을 나타낸다. 또 주인 형이 들으니, 전 순찰사 이광이 잡혀갈 때 사람을 보내서. 길가에서 위로의 인사를 닦고. 목단(木端)을 주었더니 감사하다는 뜻으로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흉도들이 전주를 침범했을 때, 몸을 숨 겨 도망해 갔다고 양사(兩司)에서 논계(論啓)했기 때문에 잡아 오라는 명령이 내렸 다고 했다. 당초에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에 이르렀을 때, 급히 근왕(勤王)에 나가 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돌아온 뒤에 즉시 올라가지 않았으니 죄가 있다고 하겠다. 적이 전주를 침범했을 때에 이르러, 비록 몸이 태인(泰仁)에 있었으나 엄하게 방비 하고 굳게 지켜 적이 가까이 오지 못한 것은 모두 이광의 공인데. 만일 이것을 가 지고 죄를 받는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랴. 저녁에 별감 박대복이 술과 실과를 가 지고 와서 작별하고, 닭 한 마리를 주었으며, 전 좌수 박언상도 또한 마을 꿩을 주 었다. 날이 저물자 주양(酒陽) · 난봉(鸞鳳) · 능개(能介) · 의추(義秋) · 동정춘(洞 庭春)이 각각 술과 실과를 갖추어 가지고 작별한다. 여러 달 머무르는 동안 상하가 자못 친숙해졌으니, 역시 서운한 생각이 많았으니, 인정에 어찌 그렇지 않으랴? 7일. 이른 아침에 바야흐로 행장을 차리는데. 갓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만들던 신 도 역시 다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일로 물려서 정했다. 하루가 급하던 것을 천연 (遷延)하여 이에 이르렀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금산의 통문을 보니, 개령(開 寧)에 머물러 주둔하는 적이 그 수를 알 수 없는데, 날마다 고을을 침략하여 여러 산을 불태웠으며, 산 위에 막(幕)을 얽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죽여 서, 사족(士族)의 남녀 및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한 지경이 비어 있다시피 했 다. 그리고 선산(善山) · 성주(星州) · 인동(仁同) · 상주(尙州) 등처에도 역시 머물 러 주둔한 적이 많으나 길이 막혀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또 2일에 개령의 적수 천 명이 고을 남면(南面) 황간 지경 여러 산을 포위하고 종일 불을 놓으면서 인민 들을 죽이고 침략했다. 또 창원·웅천·김해 등에 있는 적도 또한 그 수를 알지 못 하는데, 성에 들어가 점령했다가 본도 순찰사가 진주로 내려갈 때, 적으로 길이 막 혔기 때문에 도로 산음(山陰)으로 갔다고 한다. 또 지난달 24일에 진주목사가 금 산의 적을 진격하여 적의 머리 8급(級)을 베었는데. 개령의 적 천여 명이 불의에 와서 구원했기 때문에 다 섬멸하지 못하고 군사를 물려 진(陳)에 머물렀는데, 본주 (本州)에 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 돌아갔다 한다. 이제 적의 형세를 보 건대 전보다 갑절이나 번져서 저희 나라로 돌아갈 뜻은 없고. 반드시 겨울을 지낼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낮에 주인 형이 현(縣)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다행하다. 내가 먼저 돌아가게 되자 임언복은 비참한 마음이 들어 때로 눈물을 흘리고 우니 가련하다. 일찍이 언복과 서로 약속하기를 난리가 평정 된 뒤에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홀로 먼저 가기 때문이다.

8일. 이른 아침에 주인 형과 주인 형수에게 작별하니 슬픈 울음을 금하지 못하고, 나도 또한 슬픈 감회가 난다.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함께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내가 떠나니 상하가 모두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은 이 또한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전 좌수 유지(尹墀) · 박언상이 술과 안주를 많이 차려 놓고 산정(山亭)에서 전별(餞別)하여 은근한 뜻을 보이므로 취하고 배부른 후에 작별했다. 응일과 그 아들 두형제 및 주양 · 능개 · 난봉 등이 술을 가지고 같이 걸어서 5리 밖의 시냇가에 이르러 각각 두어 잔씩 마시니, 역시 섭섭해서 차마 떠나지 못하는 뜻이 있다. 응일은 슬피 울어 그치지 않다가 소리를 내기까지 하니, 나도 또한 감격해서 울었다. 늙은 아버지와 처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내 처자도 비록 보존해 살았으나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는 또한 간 곳을 알 수 없으니, 그와 나는 정의(情意)가 서로 비슷하고, 평일에 또한 같이 갈 약속이 있었던 터에 내가 지금 먼저 혼자 북쪽으로 돌

아가기 때문에 더욱 몹시 슬픈 감회가 있는 것이다. 해가 늦어서야 서로 울면서 작별하여 중대령(中臺嶺)을 넘어 처용정(處容亭)에 도착하여 말에 꼴을 먹이고 나도점심 먹은 후에 응일의 종과 말을 돌려보냈으니, 내가 응일의 말을 빌려 타고 고개를 넘었기 때문이다. 말을 타고 짐을 실리고 진안 땅 좌전리(左田里)의 정병 김윤보의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거기서 잤다. 연전에 내가 내려올 때도역시 이 집에서 잤는데, 방이 정결하고도 좋으며, 역속(役屬) 장수(長水)가 후의로대접한다. 그 사위는 곧 임실 사람으로서 일찍이 그 태수와 함께 금산 경계를 지켰기 때문에 금산이 패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좌전리만이 홀로 적의 분탕(焚蕩)을 면한 까닭을 물었더니, 덕린(德麟)이 용사들을 거느리고 막았기 때문에와서 침범하지 못했다 한다.

9일. 일찍 떠나서 전주 땅 신원(新院) 천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은 후에 고을 남쪽 정자 앞집에 이르러 자려고 하니, 아직 해가 이르기 때문에 말에게 꼴을 먹여가지고 성 동쪽을 지나서 보니, 인가가 모두 불타서 참혹하다. 안두원(安斗院)에 도착하니, 좌우의 민가가 불타고 남은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왜막(倭幕)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형세가 잘 수 없다. 또 5리쯤 가니 마침 서쪽 가의 산 밑에 두어집이 온전하므로 그 집에서 잤다. 집 앞은 좁은 길이라 말은 자빠지고 집이 기울어물 있는 쪽으로 떨어져 옷과 버선이 모두 더러워지고 젖었으니 가소롭다.

10일. 새벽에 떠나서 송인수(宋仁叟)(영구(英耇))의 집에 이르렀는데, 앉은 지 얼마안 되어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려 한참 있어도 그치지 않는다. 인수가 상하의 밥을 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내 처자가 관동으로부터 호서(湖西)의 내지(內地)로 유리(流離)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데, 들으니 인수의 막사(幕舍)가 비어 있다기에 부탁할 뜻을 말했더니, 인수가 즐거이 승낙하니 기쁘고 기쁘다. 그러나 돌아가서 처자와 다시 의논할 계획이다. 처음은 여기에서 유숙하려 했으나 오후에 비가 개므로 즉시 떠나서 여산군 앞의 인수(仁叟)의 서모(庶母)의 종의 집에서 잤다. 인수가 종을 보내서 나를 접대해 자게 하고 마초(馬草)도 많이 주었으며, 인수의 서모는 우리에게 저녁밥을 주었다. 또 들으니 여산의 새 군수 정접(鄭渫)이 부임한지 오래지 않아 크게 민병(民兵)을 일으켜 산성(山城)을 고쳐 쌓아, 올해 안에 그곳

으로 올라가려 하여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한다고 한다.

11일. 새벽에 비와 눈이 섞어 내려서 늦게까지 그치지 않는다. 부득이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후에 비가 개자 떠나서 은진현(恩津縣) 앞을 지나 석성 (石城) 땅 마량수군(馬梁水軍) 김영봉(金永奉)의 집에서 잤다. 눈이 내린 후에 서풍이 크게 불어 상하가 추위에 괴로워한다. 그는 전에 일찍 거처했던 영춘(永春)의 아들 막송(慕松)의 호서 부자(父子)가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았다.

12일. 날이 밝자 떠나서 부여(扶餘)를 거쳐 왕진(王津)을 건너, 강가에 있는 인가에서 아침밥을 먹은 후에 정산(定山)을 지나, 해가 저물어서 청양현(靑陽縣) 앞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말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되어 곡성(哭聲)이 들리는데 몹시 슬피 운다. 까닭을 물었더니, 집주인인 현리(縣東)가 김천일의 의병을 따라 강화(江華)에 이르러서 이달 초생에 강을 건넜는데, 복병하고 있던 풍덕 땅이 적에게 포위되어 3백여 명이 모두 적의 흉한 칼날 아래에 죽어, 그 현리도 역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처자들이 부음(訃音)을 듣고 우는 것이라 한다. 불쌍함을 이기지못하겠다. 즉시 도로 나와서 딴 집으로 갔더니, 집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 아내가문을 닫고 들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문밖에 앉았노라니 슬프고 분함을 이길 수 없다. 어두운 뒤에 집주인이 돌아와서야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고 더운 방을 주어 자게 해 주니 기쁘다. 주인 이름은 두응토리(豆應土里)로서 본래 관노(官奴)인데 지금은 공예(工藝)의 장인(匠人)이 되었다 한다. 또 들으니 임소열(任少說)이 연기(燕岐)로부터 공주목사로 옮겨졌다 하니 필시 그 지경을 굳게 지켜서 적이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때문일 게다.

13일. 날이 밝자 떠나서 장수에서 온 인마는 돌려보내고 나는 걸어서 아침식사 전에 홍주 땅 사곡(沙谷) 이 첨사 언실(李僉使彥實)의 종 돌이(复伊)의 집에 도착하니, 처자는 일찍이 여기에 온 지 십여 일이 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문에 나와서 맞아 서로 만나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오늘날 다시 만날줄 몰랐던 것이다. 서로 둘러앉아 각각 유리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니, 눈물이 옷 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는 생사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제 처자를 만나 보니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이 첨사(李

僉使)의 어머니와 처자는 나보다 하루 전에 역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상하 식구가 너무 많아서 형제가 한집에서 용납할 수 없어서, 사인(士人) 이광복(李光輻)의 옆 사랑방을 빌어서 거처했다. 그러나 오래 있을 계획은 할 수가 없다. 이 공(李公)(이 광복)의 아버지는 곧 전 좌수 우(遇)인데 언실(彥實)의 처삼촌이오, 그 큰아들 광륜(光輪)은 조헌과 함께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싸움에 패할 때 조헌과 같이 죽었다고 한다. 광복은 그 아우로서 집이 부자로 남쪽 고을에 제일이며, 연인(連姻)과 일가들이 가세(家勢)가 혁혁하다고 한다. 또 들으니 김 사포(金司圃) 아저씨가 그 조카 전 정(前正) 김찬선 형과 함께 역시 이 근처에 와서 산다고 한다. 즉시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물었더니, 공서(公緒)도 즉시 와서 본다. 강 판서 섬(姜判書暹)이 그 아우 성(晟)과 함께 여기에 와서 이 좌수(李座首)의 사랑을 빌어 머물고 있으니, 강성(姜晟)은 곧 좌수의 사돈이요 광륜(光輪)의 장인이다.

14일. 아침 식사 후에 주인 이 공(李公)이 나와 보고, 좌수도 또한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나도 또한 사포(司圃) 아저씨를 가 뵈었다. 김찬선 형 및 생원 박효제(朴孝悌)도 역시 와서 모여서 종일 이야기했다. 박 공(朴公)은 나의 7촌뻘 되는 친척으로서 사포 아저씨의 사촌뻘 되는 손자인데, 또한 떠돌다가 여기로 옮겨 온 자이다. 박송화 동도(朴松禾東燾)가 그 장모 삼가댁(三嘉宅)과 식구들을 데리고, 해서(海西)로부터 바닷길로 이곳에 왔으니, 곧 삼가의 농장이다. 박송화(朴松禾)는 당초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섬 가에 머무는데, 마침 윤함의 한 가족이 역시 배를 타고 그곳에 정박했으나 여러 날 동안 서로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송화(松禾)의 사위가 마침 만나서 함께 삼가댁에게 와서 만나니, 이는 뜻밖이다. 슬픔과 기쁨이 한데 얽혔고, 윤함은 제 부모를 생각하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역시 눈물이 난다. 삼가댁은 윤함의 어머니의 외사촌으로서 서울 있을 때 서로 좋게 지내던 사이이다. 윤함도 또한 제 아내를 시켜 와 뵈었다 한다. 또 장수(長水)에서 데리고 온 관인(官人) 차금이(車金伊)에게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15일. 아침 식사 후에 김 사포 아저씨 있는 곳에 갔더니, 공서 형도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식경이나 되어 정산(定山)군수 김장생(金長生)이 체찰사(정철)가 있

는 곳으로부터 와서 본다. 이에 공서 형은 숙주(叔主)에게 술과 고기를 조금 주었 고, 정산군수도 또한 참봉에게 술과 고기를 주었다. 또 들으니, 경여(敬興)는 살아 서 용인으로 돌아갔고. 이탁 형제와 김덕장(金德章)도 모두 생존했다고 하니 그 기 쁨을 어찌 다 말하리오. 전에 들은 것은 모두 헛말이었다. 다만 기룡(奇龍)은 죽음 을 당했고, 준룡(俊龍)은 포로가 되었다 하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강 판서 섬은 살아서 이곳으로 돌아왔고. 구 참판 사맹(具參判思굶) 일가도 각각 생존했다고 하 니,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헛말이었다. 다만 구면(具冕)은 죽음을 당했다 하고, 유 희서(柳熙緖) 형제는 다 살았으며, 다만 그 아내만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임해군 (臨海君) · 순화군(順和君) 및 재상 황정욱(黃廷彧) 부자와 김귀영(金貴榮)은 모두 포로가 되었으나, 임해군과 순화군은 적이 수레에 태워 가지고 안변(安邊)에 이르 렀다고 한다. 정 사과(鄭司果)댁은 지금은 서울로 들어가 본집에 돌아가 거처하고. 정종경(鄭宗慶)의 누이는 포로로 잡혀서 왜 통사(倭通使)에게 시집가기 때문에 그 한 집은 보존하고 적이 침범하지 못했다고 하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또 이 판 결사(李判決事) 정호(廷虎) 부자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판결사는 나와 젊어서부터 정의(情誼)가 가장 두터웠었는데. 이제 참혹 한 변을 들으니 더욱 애통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모두 전해 들은 것이니 믿을 수가 없다.

16일. 지금 예산의 김매(정남의 아내)를 가 보고자 했으나, 내가 옮겨 가 있는 곳에 토옥(土屋)을 짓느라고 종을 보내서 나무를 베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저녁 내내이 공(李公)의 집 사랑에 있었다.

17일. 아침 식사 후에 윤겸 형제는 서당에 가고, 종을 시켜서 토옥을 짓고 마구간을 지었는데, 오후에 나도 가 보았다. 적이 만일 호서(湖西)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겨울을 지낼 계획을 하지만 어찌 기필할 수가 있으랴. 아침에 김 사포(金司圃) 아저씨가 계신 곳에 가서 공서(公緒)와 회포를 풀다가 파했다.

18일. 일찍 아침을 먹고 나는 김매를 만나볼 일로 예산 땅으로 가고, 윤겸은 정산으로 갔으니, 체찰사를 보고자 해서이다. 체찰사가 들으니 영남 진주의 모든 적이성을 포위하기를 날로 급히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로 운봉의 팔량치(八良

峙)를 넘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공주로 진을 옮겨 호남과 서로 응할 계획을 한다고한다. 오늘 서당으로 짐을 옮겼다. 서당은 이 공의 집에서 3, 4리 거리인데, 몹시정하고 깨끗하여, 떠도는 사람이 감히 살 곳이 아니다. 다만 물가에 가깝고 또 큰길가인 데다가 인가(人家)가 또한 멀어서 찬 기운이 갑절이나 있고 좀도둑이 몹시두렵다. 나는 낮이 되어서 대흥현(大興縣) 앞 냇가 홰나무 밑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예산 유제촌(柳堤村)에 이르기 전에 길에서 김지남을 만났는데, 그는 의병장 심수경(沈守慶)의 종사(從事)로서 공주의 체찰소로 가는 길이라, 말 위에서 잠깐 유리(流離)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헤어지니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 보니 군관 두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준마를 타고 긴 칼을 차고 갔다. 저녁에 김매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두 조카아이가 자빠지면서 나와서 맞는다. 누이와 만나니 이내 늙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19일. 오늘 돌아오려 했으나, 누이가 억지로 머물게 한다. 식사 후에 김업남(金業男) 형제 및 참봉 민영(閔韺)·생원 민호(閔護)·이수강(李壽崗) 등이 와서 보았다. 두 민(閔)과 이 공(李公)은 모두 서울 있을 때 아는 사람으로, 유리(流離)하여 여기에 이르러서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생긴다. 낮에 김명남(金命男) 자순(子順)의 집에 갔더니, 그 형 업남(業男) 자술(子述) 및 그 사촌 익남(益男) 자겸(子謙)과 전 좌수(座首) 이몽정(李夢禎)이 모두 모였는데, 주인집에서 백주(白酒)를 대접했다. 저녁에 이은신(李殷臣)이 나를 맞아 같이 자면서, 또한 백주 몇 잔을 마셨다. 은신은 곧 윤겸의 처족(妻族)으로서 본래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또한 떠돌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나를 보러 왔으니 기쁘기가 갑절이나 더하다

20일. 일찍 떠나서 대흥현 앞 냇가를 지나다가 점심을 먹고, 계당에 도착하니, 윤 겸은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21일. 계당에 있었다. 두 종과 말을 청양(靑陽)에 보내서 곡식과 나무를 실어 왔다. 청양군수 임순(任純)은 윤겸이 아는 사람이다. 오전에 송화(松禾) 박동도(朴東燾) 가 와 보고 갔다. 말을 많이 먹여 보지 않아서 꼴을 대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말 한 필은 박송화에게 보내고, 한 필은 또 예산 이은신에게로 보냈다. 그들은 모두 말이 없어서 말을 구하여 기르면서 타기도 하고 짐도 실으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터였다. 그저께 윤겸의 처가(妻家) 종 춘기(春己)가 지난달 중에 제 상전을 춘천(春川) 근처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윤해 처가 근처에서도 못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왔으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가련한 일이다. 또 들으니 진주의 성을 포위한 적이 우리 군사에게 패하여 거의 다 쏘아 죽였고, 2천 6백여 명을 베거나 목을 잘라서, 도망한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흉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도 이렇게 지독하게 패한 것은 이 싸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싸움에 이긴 이유는 길이 멀어서 자세치 않다. 또 전날 밤중에 체찰사 정철의 군관이 왔는데, 체찰사의 전령(傳令)으로 윤겸을 막중 참모(幕中參謀)로 삼는다고 불러오라고 해서, 먼저 그 군관을 보내어, 모레 사이에 나갈 계획이라 한다.

22일. 계당에 있었다. 강위(姜緯)가 와 보고 갔다. 강(姜)은 곧 박송화의 사위로서 윤함의 친구이다. 이 생원 익빈(翼賓)이 거친 벼 한 섬을 져 보냈다. 이 공(李公)은 곧 윤겸의 처족(妻族)이다. 저녁에 이웃에 사는 윤내금봉(尹內禁鳳)이 각색 심채 (沈宋)를 보냈다. 또 들으니 우리 군사가 죽산(竹山)의 적을 공격하다가 도리어 적에게 패한 바 되었다 한다. 그러나 아직 패한 이유와 죽은 사람의 수는 자세치 않다.

23일. 계당에 있었다. 이른 아침에 윤겸이 공산(公山)의 체찰소로 갔다. 또 들으니, 지난 17일에 경기 충의(忠義)의 의병장 홍자수(洪子修) 및 의승 등이 죽산의 적을 치다가 적에게 패한 바 되어, 여러 군사가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군사가 많이 죽었으며, 자수도 또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아까운 일이다. 자수는 곧 홍계남(洪季男)의 아버지이다.

24일. 밤중부터 비가 내려 저녁내 그치지 않았다. 계당에 있었다. 처자들과 각각 난중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를 백 가지로 생각해도 별 달리 찾아볼 길이 없으니 민망하기 끝이 없다. 근래에 바람과 파도가 혐악해서 물 길이 통하기 어려운 데다가 적의 형세가 가득하여 물길이 더욱 어렵다 한다.

25일. 계당에 있었다. 저녁내 흐리고 바람이 분다. 밤 꿈에 분명 최경선(崔景善)을

보았는데 평일과 같았다. 전에 들으니 양근 땅에 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필경용성의 농촌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26일. 계당에 있었다. 찬바람이 저녁내 불었다. 저녁에 윤겸의 글이 공산의 체찰 소로부터 왔는데, 체찰사(정철)가 억지로 막하(幕下)에 있으라고 해서 형세가 굳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들으니, 박송화 동도(林松禾東燾)는 부여군수를 제수 받고, 신 좌랑 응거(申佐郎應渠)는 태인현감(泰仁縣監)을 제수 받았다 한다. 이는 곧 체찰사가 맘대로 제수하여 두 고을의 궐 원(厥員)을 메꿔 신(申) · 박(朴)으로 하여금 가수(假守)하게 했다가 그 뒤에 장계를 올려 그대로 임명하게 했다고 한다. 또 이른 아침에 막정(幕丁)을 덕산(德山)에 보내어 종 막손(幕孫)을 불러다가 강화로 보내어 늙은 어머니와 아우와 조카를 찾아볼 생각이다.

27일. 계당에 있었다. 낮에 김 사포 아저씨에게 갔었다. 김찬선이 체찰사의 종사 (從事)로서 공산(公山)으로부터 어제저녁에 여기에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돌아올때 집주인을 보았더니, 주인은 내게 좋은 술을 낸다. 조금 있다가 최 상사 기남(崔上舍起南)이 또한 유리하다가 보령 농사에 와 있었는데, 주인의 인친이라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서로 뜻밖에 만나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생기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최 공의 외조(外祖) 남신회(南伸繪) 씨는 역시 나의 인친으로서 평일에 서로 가까이 지내던 터인데, 이제 들으니 영남으로 떠돌다가 길에서 병으로 죽어 길가에 임시 묻었다고 하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남신온(南伸溫) 씨도 또한 적에게 죽었다고 하니 더욱 몹시 참혹하고 애통하다. 이 두 남 공(南公)은 모두 남고성(南高城)의 아우이다. 최 공과 함께 각각 유리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슬피 울다가 저물어서 계당으로 돌아갔다.

28일. 계당에 있었다. 이른 아침에 김정형(金正兄)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사포(司圃)가 있는 곳으로 맞아다가 아침을 대접했는데, 이 상사 익빈(李上舍翼賓)도 함께 모였다. 오늘은 곧 숙주(叔主)의 대기(大忌)인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또 들으니, 부여군수 박동도가 그대로 돌아왔다기에 저녁에 그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마침 출타하고 없어서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삼가댁(三嘉宅)에서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맞아들여 보았다.

29일. 이른 아침에 윤해와 함께 부여의 머무르는 곳으로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박 생원 효제(朴生員孝梯) · 이 사과 조민(李司果肇敏)도 함께 와서 관청 술 몇 잔을 마시고 파했다. 부여는 오늘 곧 떠날 계획이다. 어제 중 막정(莫丁)이 막손(莫孫)을 불러 가지고 왔다. 저녁에 김매(金昧)의 종 감대(甘帶)가 예산으로 부터 와서 전하기를, 늙은 어머니와 아우 희철은 지난 9월에도 아직 고양에 있었고, 계수(季搜)는 적에게 죽었다 한다. 전해 온 말이니 허실(虛實)을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듣고 보니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생각건대 계수가 죽음을 당할 때 어머니와 아우는 필경 놀라서 실신(失神)했을 것이오, 행장도 모두 약탈당했을 것이니, 이 같은 풍설(風雪)에 주림과 추위가 이미 금할 것인데 어찌 견디고 참는가 더욱 몹시 통곡하겠다.

그믐날. 이른 아침에 종 막손을 덕산에 보내서 벼 15두(斗)를 □□에게 보내서 그 처자들의 양식에 대비하여 그 뜻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여 즐겁게 일을 하게 하고, 또 벼 5두는 막정의 처 분이(分伊)에게 주고, 쌀 일곱 되는 종 막정이 강화에 들어 갈 때 쓸 공문을 가져오도록 공주 윤겸에게로 보내는 데 썼다. 저녁에 계당에 있었 다.

11월

1일. 계당에 있었다. 밤중부터 눈이 내리더니 늦은 아침까지 개지 않아 눈의 깊이가 3, 4치나 된다. 종 말질손(末叱孫)이 연산(連山)으로부터 돌아왔다. 홍세찬(洪世贊)이 벼 한 섬을 윤해에게 보냈다. 또 윤겸이 공주에서 글을 보냈는데 말하기를, 체찰사 정철은 호남으로 향했고, 부사 김찬은 그대로 공주에 있으며, 윤겸은 백성들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 것으로 책임을 맡아, 부사와 같이 의논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또 경기도 관찰사 심공대(沈公袋)가 마전(麻田)에 있다가 적에게 함락당해서, 아병(牙兵) 30여 명도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참혹하고 슬픔을 이길수 없다. 심 공은 나에게는 6촌의 친척이 되고 서로 가까운 처지이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2일, 아침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가 있는 곳에 갔었다. 들으니 공서(公緒) 형이 이

광복의 옆채에 있으면서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했는데, 주인집에서 술을 내어 대접한다고 한다. 이에 거기 모인 손들이 나를 부른다 하기에 나도 갔더니, 손은 전 안성군수 강성(姜晟) 및 그 고을에 사는 정자(正字) 박몽열(朴夢說) · 생원 박효 제(朴孝梯) · 김정형과 나다. 5, 6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때 파해 돌아왔다. 윤겸이 공주로부터 근친(勤親)하려고 먼저 계당으로 왔다. 들으니 부사가 윤겸으로 하여금 의병장 심상(沈相)의 진(陣) 및 도순찰사의 진을 돌아보고 공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다.

3일. 계당에 있었다. 본주(本州)에서 윤겸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냈으니, 이는 체찰 사의 종사(從事)이기 때문이다. 올 때 말을 타고 오는데, 걸어서 영접하는 모든 사 람들이 다 와서, 마치 봉명(奉命)한 사신과 같았다. 이른 아침밥 3시의 식사를 받 고 윤겸은 저녁까지 계당에 있다가 저녁 식사 후에 제 숙소로 돌아갔다.

4일. 어제 저물게 공서 형이 와 보고 갔다. 계당에 있었다. 아침 식사 후에 윤겸이 여기에 와 있었는데, 금정찰방(金井察訪) 김가기(金可幾)가 와서 참봉(윤겸)을 보기에 나도 나가 보았다. 윤겸은 오늘 늦게 떠나간다니 마땅히 대흥(大興)에서 자고, 내일은 예산 김매가 있는 곳을 거쳐, 여러 진(陣)을 돌아보고 돌아갈 계획이다. 찰방 김 공(察訪金公)이 있는 역(驛)은 용곡인데, 이 계당에서 바라보이는 곳이다. 저녁에 찰방이 민어 한 마리ㆍ전어 두 마리ㆍ낙지 여섯 마리를 보냈다.

5일. 계당에 있었다. 낮에 사포 아저씨 계신 곳에 갔더니, 공서 형도 역시 와 모였다. 들으니 생원 이광축(李光軸)이 그저께 여기에 와서 종과 말을 보내서 청해다가 종일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공이 말하기를, 당초에 청계산(靑溪山)으로 들어갔다가 9월 그믐께 산에서 나와 여러 곳을 떠돌면서 겨우 화를 면하고, 와서 이 좌수 (李座首)에 머물고 있으니, 좌수와는 동성(同性)의 5촌 친척이다. 또 영말이 그저께 와서 보고 오늘 일찍 돌아갔는데, 그 어미와 함께 여러 곳을 떠돌다가 결성(結城) 땅 영남의 처가에 와 있다가 우리들이 여기 있단 말을 듣고 여기에 와서 보고간 것이다. 영말(永末)에게서 들으니 김제 숙모가 별세하셨다 하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전해 들은 말이라서 믿을 수는 없다. 또 말질손을 한산군(韓山郡)에 보냈다. 전일에 한산군수가 윤겸을 보고 말하기를 종과 말을 보내면 마땅

히 구제해 줄 물자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6일. 종일 계당에 있었다.

7일. 식사 후에 홍주목사 이총(李聰)이 강 지사 섬(姜知事 暹)을 뵙고 나서 나를 청하여 김정형에게서 모여, 관청에서 차린 술과 약주로 크게 취해 돌아왔다.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이 생원 광축·박 생원 효제·정자 박몽열·사과 이조민·진사 윤민헌(尹民獻) 및 김극(金克)이었다. 홍주목사가 쌀 1섬·조기 20마리·민어 3마리·게 30마리를 주어 몹시 후한 뜻을 나타냈다. 홍주목사의 부인은 곧 나의 7촌 친척이다. 또 들으니 경기관찰사 심공 대(沈公岱)가 몸을 빼어 달아났다 한다. 그러나 민을 수는 없다. 막정을 오늘 먼저 덕산으로 보내서 막손을 불러, 내일 와서 예산 김매의 집에서 기다리도록 일렀다.

8일. 눈이 내린다. 일찍 식사를 마치고 떠나 눈을 무릅쓰고 가다가 대흥현 전원(前院)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예산 유제촌(柳堤村)에 이르니, 김매의 두 아이가 바야흐로 홍역을 앓고 있다. 자정(김지남)은 이때 의병소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다. (7행 삭(削))

9일. 이른 아침에 떠나서 신창현(新昌縣) 앞에 이르러 말에 꼴을 주고 점심을 먹고 서, 아산 이시열의 집에 도착하니, 경여가 그 부인과 함께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열 번 살고 아홉 번 죽는 나머지에 서로 만나자 슬프고 기쁨이 함께 이른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자세히 들으니, 여러 번 적의 근심을 당하여 겨우 화를 면했다 하고, 또 들으니 기룡(奇龍)의 죽음과 준아(俊兒)가 포로된 것과 우일섭(禹一變)ㆍ이위 (李暐)가 죽음을 당한 것은 몹시 참혹하여 더욱 애통하다

10일. 아침 식사 후에 평택 김자흠(金自欽)의 집에 가서 잤다. 김 공은 아버지가 죽어서 상중에 있는데, 그 아내가 내가 온 것을 알고 몹시 기뻐한다.

11일. 이른 아침에 두 종을 데리고 수원 경계에 이르러 여울을 건너서 두 종을 정녕히 타일러 보내고, 북쪽으로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니 슬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도로 평택현(平澤縣) 앞길로부터 아산 이시열의 집에 이르렀는데, 송노(宋奴)가 제 어미를 보겠다고 억지로 청하므로 부득이 돌려보내면서 내일 돌아오라고 일렀다. 저녁에 정종경(鄭宗慶)이 서울로부터 여기에 있는데. 그편에 들으

니, 정 사과댁(鄭同果宅)이 서울집에 들어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나올 뜻이 없다고 한다.

12일. 아침 식사 후에 진위에 사는 황천상(黃天祥)이 술을 가지고 왔고, 오윤(吳輪) 도 역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서로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경여(敬興)는 지나치게 마셔서 술에 취하여 토하고 나도 또한 취해서 종일 누워 있었다. 황 공은 난을 피해서 오 습독(吳習讀)의 집에 와 있는데, 나에게는 8촌 친척이 되고, 오윤은 습독의 아들인데 또한 나의 8촌 친척이다. 저물게 송노가 돌아왔다. 김자흠의 아내가 쌀두 말을 보냈고, 정종경의 아내도 역시 찹쌀 한 말을 보냈다.

13일. 일찍 떠나서 신창현(新昌縣) 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예산 유제촌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밤에 눈이 내린 나머지에 북풍이불어오고 찬 기운이 뼈를 에는 듯하여 길 가기 어려움이 말할 수 없다. 하물며 늙은 어머니와 아우는 이러한 풍설(風雪)을 어떻게 감내하는가. 매양 생각이 여기에이르면 통곡하고 통곡한다. 자정(김지남)은 어제 의병소로부터 집에 왔다가 마침예산현수를 가보고 밤이 깊어 돌아왔는데, 크게 취해서 인사불성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온돌방이 있는 종의 집으로 가서 잤다.

14일. 날이 밝기 전에 자정이 자는 방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하고 해가 뜨기 전에 떠나서 대흥현 냇가를 지나다가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홍주 계당에 이르니 해가 아직 이른데 처자들은 기쁘게 맞는다. 와서 들으니, 금정찰방 김가기가 쌀 두 말과 담근 게 열 마리를 보냈다 하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보령 조한림 존성(趙韓林存性)이 벼 한 섬을 보냈다 한다.

15일. 오후에 남정지(南定芝)가 노친(老親)과 가족을 모시고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서로 만나니 슬프고 괴로웠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떠돌던 괴로움을 들으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금치 못하겠다. 안 생원 세규(安生員世珪)도 또한 와서 보았다. 그전에는 비록 서로 알지 못했으나 그 역시 와서 근처에 있고, 서울집은 의동(義洞) 이고개(梨古介)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서 술을 사고 밥을 지어서 남 공을 대접해 보냈다.

16일. 이른 아침에 김정형이 사람을 시켜 나를 맞아다가 같이 사포 아저씨 계신 곳

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윤민헌·김극·이 진사 익빈도 왔다. 또 어제저녁에 윤겸의 편지가 왔는데, 호남으로 행하다가 황화정(皇華亭)에 이르러 써 보낸 것이다. 글 속에, 중국 군사가 관서의 적을 소탕하고 머지않아 개성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은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이곳에서 필시 먼저 들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막연히 듣지 못했으니, 그 허실(虛實)이 자세치 않다. 종일 바람 불고 눈이 내렸다.

17일. 아침 식사 전에 김정형(찬선)이 계당으로 찾아와서 심부름꾼을 시켜 찰방(김 가기)을 청하니, 찰방은 조금 있다가 와서, 서로 앞마루에 앉아서 마루 앞에 친 자 리를 걷어 치우고 함께 설경(雪景)을 구경했다. 그러나 찬 기운이 뼈를 엄습하여 오래 앉았을 수가 없다. 이에 찰방이 먼저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니 말 두 필을 보 내어 청하므로 나와 김(金)은 고삐를 함께 잡고 찾아갔다. 박 생원 효제가 이내 도 착하자. 찰방은 백주를 내다가 대접하고. 저녁밥까지 내오므로 취하고 배부른 뒤 에 돌아왔다. 저녁에 찰방이 자리 한 잎을 보냈으니, 이것은 내가 깔고 잘 자리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물어서 송노가 돌아왔는데, 병사가 주는 물건을 병영 에서 실어 왔다. 전일 윤겸이 순회하다가 직산에 이르자 병사(兵使) 이옥이 그 부 모가 홍주에 유리한다는 말을 듣고, 쌀 10두·참깨 2두·건민어 1마리·침도어(沈 刀魚) 20마리 · 숭어 3묶음 · 감장(甘醬) 3두 · 간장 3되 · 소금 3되를 내주어 남백 형(南伯馨)이 가지고 왔다. 양식과 찬거리가 바야흐로 떨어져 가는데. 마침 이 물 건을 얻으니 마치 큰 보물을 얻은 것 같다. 이제 며칠 동안의 주림의 걱정은 면할 수 있겠다. 또 종 말질손과 명복 등을 말을 가지고 장수로 보내서 구제의 물건을 찾아오게 했으니. 그믐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또 두 종을 강도(江都)(강화)로 보낸 지가 이제 장차 10여 일이 되는데, 무사히 들어가서 늙은 어머니를 찾아보는 지 모르겠다. 요새 풍설이 갑절이나 찬데 늙은 어머니와 아우가 어떻게 참고 견디 는지 망극한 아픔이 날이 갈수록 더욱 더해 간다.

18일. 오늘은 동지(冬至)다. 팥죽을 쑤는 날인데 팥을 얻지 못해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니 탄식한다.

19일. 아침 식사 후에 장차 사포 아저씨 계신 곳에 가려고 김정형에게 들렀더니 이

미 이광복의 사랑채에 가 있다고 한다. 나도 따라서 갔더니 강안성 성(姜安城晟) 과 이 생원 광축도 역시 모여 있다. 주인집에서 술을 내와서 서로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취해서 파하고, 그 길로 사포 아저씨께로 갔더니 김정형과 이광축이 계속해서 도착한다. 잠시 함께 이야기하다가 나는 먼저 계당으로 돌아와 취해서 잤다. 또들으니, 체찰사가 뜻밖에 전주로부터 돌아왔는데 오늘 은진(恩津)에 도착하겠다고 해서 이 도의 찰방이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벽에 떠나갔다고 한다. 그 까닭은 알수 없다. 들으니 중국 군사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하더니 이로 인해서 급히 돌아온 것인가.

20일. 말 먹일 풀을 가져오도록 종과 말을 보령 조한림(존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종일 계당에 있노라니 무료하기 매우 심하다. 저물어서 풀 한 짐을 싣고 왔다.

21일. 계당에 있었다. 이은신(李殷臣)의 아들이 예산으로부터 와서 보고 갔다. 이 좌수가 거친 벼 15두를 지어 보냈다. 전에 처자들이 처음 올 때 정조(正租) 한 섬과 거친 벼 두 섬을 주었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한다. 내 친족도 아니면서 이같이 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다.

22일. 윤해가 아산에 갔다. 그 숙부를 보기 위해서다. 김정형이 편지를 보내 나를 청했기로 사포 아저씨 계신 곳으로 갔다. 오늘은 곧 아저씨 생신이다. 잠시 술과 안주를 차려서 크게 취해 돌아왔다. 같이 자리했던 사람은 김정형과 윤 진사(尹進 士) 민헌(民獻)과 김극이오, 박 생원 효제는 뒤에 왔다. 또 종 춘비(春非)가 죽어서 송노(宋奴)로 하여금 묶으라 하고, 이튿날 새벽에 용복(龍福)과 함께 갖다 묻으라 했다

23일. 종일 계당에 있어서 별로 듣고 보는 일이 없다. 다만 어제 김정형에게서 들으니 평양 적이 중화(中和)로 나와서 약탈하다가 순변사 이일에게 패하여 4백 70여 급(級)을 베여 죽였고, 다만 13명의 적만이 도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곧 중국에서 밤에 조정에 아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보(朝報)에 실린 것을 김정형이 친히보았다 한다.

24일. 종일 계당에 있었다. 날이 따뜻하여 봄과 같더니 오후에는 큰 바람이 불고 흐리다. 부여 관아에서 닭 2마리·조기 1묶음·떡 1봉과 겪해서 편지를 은근하게

써 보냈다. 사포 아저씨께 가 뵈려 했으나 종 하나가 나무를 하느라고 한가한 틈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

25일.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께 가 뵈었다. 김정형 및 박효제 · 윤민헌도 역시 모여 있다. 들은 대로 말을 하는데, 왜적이 오산(烏山) · 청회(靑回) 등처로 나와서 진 (陣)을 치고, 진위현(振威縣) 앞의 인가를 불태우다가 홍계남에게 쫓겨서 모두 저희 소굴로 들어갔다고 한다. 체찰사는 전주로부터 어제 공주로 돌아왔다 한다.

26일. 이른 아침에 세만(世萬)이 공주로부터 왔는데 윤겸이 그 아우 윤해에게 편 지를 보냈기로 떼어 보니 적이 진위현을 분탕질하는 것을 전 전라순찰군이 적속으 로 돌입해서 적의 괴수를 쏘아 죽이자 즉시 말에서 떨어졌으므로 적의 말을 빼앗 아 타고 7급(級)을 베어 죽이자. 적의 세력이 조금 꺾여서 요새는 감히 나오지 못 한다고 했으니, 기쁜 일이다. 다만 진산의 진은 아직 파하고 돌아오지 못했으니 걱 정이다. 이곳 사람을 시켜 재물을 져 옮겨다가 미리 피란할 계획을 하지만 이같이 추운 날씨에 우리 식구처럼 위아래 옷을 얇은 것을 입고서는 앞으로 갈 곳이 없고 가진 물건이 다 없어졌으니. 비록 적의 손에는 죽지 않는다 해도 필경 얼고 굶어 서 죽을 것이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더구나 늙은 어머니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 했으니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또 윤겸이 처음에는 장수에 가 뵈려 했으나 막중 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체찰사를 따라 돌아왔다. 다만 들으니 장수 이 빈(李贇)이 상한(傷寒)으로 병세가 가볍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어 약을 구한다 하므 로, 윤겸이 즉시 소시호탕(小柴胡湯) 3첩을 지어 보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또 들 으니, 이 판결사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공주에 도착했는데 그 저녁으로 늙은 아 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간신히 염을 하고 입관했다고 하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관동의 적의 소굴에서 이러한 큰 변을 당했다면 반드시 관(棺)과 염할 차비도 얻지 못했을 것이니. 이것은 불행 중 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또 들으니 최 경선의 온 가족이 무사히 남쪽으로 왔다고 하니, 이 역시 기쁜 일이다. 또 김정형 이 내일 체찰사의 막중으로 간다고 하므로 식사 후에 갔더니 이른 아침에 이광복 의 집에 가서 전 능성 안묵지(安默智)와 함께 과음하고 취해서 해가 이미 저녁인데 도 아직 머리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만나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만 사포 아저 씨를 뵙고 윤민헌과 같이 이야기했다.

27일. 음산하고 바람이 불면서 찬 기운이 갑절이나 사납더니 저녁에 눈이 내린다. 김정형은 오늘 아침에 공주 체찰사의 막중으로 갔다. 종일 계당에 있었다. 저녁에 윤해가 아산으로부터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돌아왔다. 들으니 오산의 적이 진을 파하고 그 소굴로 돌아갔다 한다.

28일. 종일 계당에 있었다. 눈과 추위가 더욱 심하다. 방 안에 쭈그리고 있어 술을 얻으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이광복이 좋은 술 한 병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보냈다. 즉시 덥게 데우게 하여 한 그릇을 가득히 마시니, 가슴이 너그러워져서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것 같으니, 가히 일 배 천금(一盃千金)이다. 저녁에 허영남(許永男)이 찾아왔는데, 찹쌀떡을 가지고 와서 처자들도 함께 먹었다. 천리 밖에 유리하다가 다시 십생구사(十生九死)의 나머지에 만날 수가 있으니 그 다행함이 어떠하리.

29일. 아침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에게 가 뵈었더니, 윤민헌ㆍ김극형 및 마을의 여러 소년들이 다 모여서 종정도(從政圖)를 노는데, 맨 끝에 있는 자는 먹으로 두 눈을 그려서 웃음의 자료로 삼았다. 오후에 강안성(姜安城)의 처소로 왔더니, 조금 있다가 종 안손(安孫)이 달려와서 장수(이빈)의 부음을 전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즉시 계당으로 돌아와 물으니, 윤겸이 공주에 있다가 어제 아침에 부음을 듣고 즉시 마을 군사를 시켜 전해 알린 것으로서 곧 23일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 통곡할 일이다. 전일 윤겸이 전주에 있을 때 상한으로 병세가 위중하다고 했지만 심상히 여기고 약을 먹고 땀을 내면 즉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러한 지극함에 이를 줄 알았으리요. 내가 그 집에 장가든 지 37년에 서울에서는 같은 집에 살았고, 나가서는 탑(塔)을 같이하여 일찍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 만년에 와서는 조정에 벼슬하여 두 고을에 고을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빈궁하고 자녀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돌보기를 여러 동복(同服) 중에도 특별히 했었다. 또 이번에 난리를 만나 내가 마침 그 현(縣)에 있었는데 아속(衙屬)에게 부탁하여 같이 거처하게 하여 어려움을 돌보았으며, 내 처자가 살아서 호서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나에게 말하기를 남쪽 고을로 데리고 와서 가까운 이웃에 살

도록 하면, 조석으로 쓰는 물자를 나누어 먹자고 정녕하게 말했었다. 그러므로 처 자가 남쪽으로 온 것은 오로지 이것을 믿었던 것인데. 이제 이 지극한 데에 이르 니, 비단 마음이 상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집이 다시 의뢰할 곳이 없 게 되었으니 하늘이 반드시 내 처자로 하여금 길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로다. 이 것을 생각하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하물며 그 장남 시윤은 관북에 유리하여 생사 를 알지 못하고. 슬하에 데리고 있는 아들들은 모두 나이 어려서 일을 경영하지 못 할 자들인데, 염빈(殮殯)의 모든 일을 어찌 치렀는가를 추운 날씨 먼 길에 몸소 가 서 염(殮)을 하지 못하니. 천지를 저버린 것이 부끄럽다. 다만 이응일이 있으니. 생 각건대 반드시 힘을 다했을 것이다. 또 조금 있자니 막정이 온다고 한다. 문으로 달려 나가 물으니, 어머니는 지난달 22일에 고성으로부터 강을 건너 강화로 들어 가 계시다기로 두 종이 찾아보니. 기운이 아직 강녕(康寧)하시고. 아우 희철과 심 질(沈姪)[심열]과 그 처자들도 또한 모두 무사히 같이 왔으며, 아우의 장인 김철(金 轍)도 거기로 왔다고 한다. 이때 마침 남쪽으로 오는 배가 있으므로 도순찰사의 행 차를 따라 이달 22일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와 서산 땅 대산곶(大山串)에 도착 했으며, 두 종을 육지에 내려 오늘 비로소 여기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김 공의 가 족과 함께 바로 호남으로 가서 김공은 고부(古阜) 땅 농막(農幕)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고, 어머니는 영광(靈光) 법성창(法聖倉)에서 배에서 내려 영암 임매의 집으로 가셨다 한다. 심질(沈姪)은 그대로 강화에 있다가 다시 배를 얻어서 뒤를 따라 처 자를 데리고 바닷길로 남쪽으로 와서 아산창(才山倉) 앞에 도착하여 다시 예산 및 내가 있는 곳을 거쳐서 남주(南州)로 행할 것이라 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노비들도 모두 죽은 자가 없이 데리고 왔으나 다만 아이종 한금(漢金)과 어린 계집 종 허농개(許弄介)가 당초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 우리 모자 형제(母子兄弟)가 남북으로 유리하여 생사를 알지 못한 지가 이제 8개월이 넘는데 비록 어려움과 고 초를 많이 당했지만 각각 보존함을 얻어서 다시 서로 만나는 길을 얻었으니 그 기 쁘고 다행함이 어떠하랴. 그러나 서산 땅으로부터 법성창까지는 그 사이에 바닷길 이 아직 먼데 이같이 추운 날씨에 북풍도 몹시 사나운데 어떻게 가실는지 이 때문 에 민망하고 걱정된다. 내가 즉시 달려가고 싶지만, 종과 말이 장수에 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는 것을 기다려 열흘쯤 가 뵈올 작정이다. 낮에 장수 의 부음을 듣고 온 집이 애통해하다가 저녁때 어머니께서 무사히 남쪽으로 돌아가 셨다는 기별을 듣고 온 집이 기뻐하니, 이른바 슬플 때 길한 말을 들으니 두 가지 를 다 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통진군수가 윤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양식과 반찬을 어머니께 보냈다고 한다. 또 들으니 태자가 근일에 관서로부터 강화에 도 착했기 때문에 통진군수 이수준(李秀俊)이 선척을 거느리고 바다 건널목에 나가서 맞았다고 하니, 남쪽 고을 인민이 반드시 이를 믿고 견고해지고 군세(軍勢)도 또한 이로 인해서 갑절이나 불어날 것이니. 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이 적은 요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성안에 모여 있고. 나가서 불을 놓고 노략질을 하지 않아. 여러 곳에 진(陣)을 맺은 자들이 땅을 파고 집을 만들어 겨울을 지낼 계획을 하므로, 우리 군사는 두려워하고 겁내어 토벌하지 못하고 시일만 늦추고 있다. 내 년 봄에 반드시 남쪽으로 내려갈 걱정이 있어 호남 · 호서의 생령(生靈)이 반드시 도탄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세에 태어나서 좋지 못한 때를 당하여 타향에 유락 (流落)하여 찬 집에 거처하고 있고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니 내 몸을 감출 곳이 없 도다. 이를 어찌하리오. 다만 국운에 붙일 뿐이다. 또 들으니 김제와 신녕(新寧)의 두 숙모가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다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신녕 숙모는 풍덕 땅에 이르러 별세했으므로 그대로 그곳에 초장(草葬)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아버님 신주(神主)는 아우가 지난 7월에 서울에 들어가 안고 나왔고 죽전(竹田) 숙 부 양위의 신주는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완전한데, 종 옥춘을 불러서 매안(埋安)하 게 했다고 한다. 옥춘은 그 아들 억년과 함께 강화로 건너가서 그 길로 해주 윤함 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믐날. 저녁에 계당에 있었다. 윤해가 글을 써서 우졸(郵卒) 편에 윤겸에게로 보냈다. 장수(長水)의 초상을 들은 뒤로부터 매양 젊어서부터 같이 거처하고 서로 좋게 지내던 정을 생각하니 통곡하고 울기를 마지않는다. 하물며 우리 처자는 어찌 연명할 것이며, 그 상구(喪枢)는 어떻게 모셨는지 더욱 몹시 비통하다. 아아! 슬프다.

12월

- 1일. 종일 계당에 있었다. 오늘은 곧 이현 수씨(泥峴嫂氏)의 생일이다. 윤해의 처가 찰떡을 만들어다 들여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윤겸의 처자도 왔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또 종과 말을 부여로 보냈으니 이는 구호의 물자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또 생원의 말을 팔려고 종 춘기로 하여금 끌고 대흥(大興)장에 보냈더니, 값이 싸서 팔지 못하고 돌아왔다. 말은 많고 풀이 없으니 걱정이다.
- 2일. 눈바람이 몹시 매서워 찬 기운은 더욱 거세다. 문을 닫고 종일 움츠리고 앉아 나가지 않았다. 이같이 추운 날에 술이 없으니 어찌하라. 탄식스럽다.
- 3일. 윤겸의 편지가 왔는데, 공주목사가 쌀 2섬과 콩 1섬을 주어서 첨사의 종 덕용이 쌀 9말과 콩 10말을 지고 왔다. 양식이 떨어져서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이러한 뜻밖의 물건을 얻으니 온 집이 기뻐함을 알 수가 있다. 낮에 용곡찰방이 좋은 술 1병과 마을 대추 1상자를 전인해서 보냈다. 추운 방에 종일 있었으나 무료하기 막심한데 마침 이때에 가지고 왔으니 기쁘고 감사함을 이길 수 없다.
- 4일. 이른 아침에 덕룡이 윤겸이 있는 온양군(溫陽郡)으로 간다기에 윤해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보내게 했다. 들으니 체찰사는 공주로부터 어제 온양으로 향했다 한다. 또 종 말질손과 명복 등이 들어와서 들으니 장수(이빈)는 지난달 23일 해시(亥時)에 별세하여 종들은 성복(成服)한 뒤에 떠나왔다고 한다. 향소(鄕所) 등에서 수합한 쌀을 실려 보냈는데 손덕남 4두ㆍ윤지 3두ㆍ한대윤 4두ㆍ박언상 3두ㆍ박대복 6두ㆍ하순 2두, 도합 22두이다. 만일 향소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종들이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다. 밥상과 요도 싣고 왔다. 장수의 가장(假將)은 한덕수(韓德修)라고 한다. 아속(衙屬)은 동면(東面)으로 옮겨 거처하고 상구(喪板)는 그 면(面) 산기슭에 장사 지냈는데, 평정되기를 기다려서 선영(先榮)으로 이장(移葬)할 것이라 한다. 또 윤겸에게서 들으니 이시윤과 이경천(李慶千)은 함경도로부터 관서 개천(价川) 땅으로 건너 들어온 것을 박순남(朴順南)이 친히 보고 윤겸에게 말하더란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은 보존한 것이나 다만 수천 리 밖에서 그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애통함이 더욱 지극하다.
- 5일. 윤겸이 휴가를 얻어 공주로부터 와서 본다. 이금이(李金伊)도 함께 왔는데 떡

1상자·소 족(足) 1개·술 2병을 가지고 정산소(定山所)에서 준 술 2병·감장(甘醬) 2말·닭 1마리·간장 2되·참기름 1되를 가지고 왔다. 양식과 반찬이 떨어졌는데 마침 이때에 보내오니 온 집이 기뻐한다. 송노가 어제 부여로부터 왔는데, 쌀9말·콩 3말·팥 2말·좋은 술 1병·생치(生雉) 1마리·목미(木米) 1말·감장(甘醬) 2말을 싣고 왔다.

6일. 종일 계단에 있었다. 윤겸도 왔는데, 본주(本州)(홍주)에서 쓸 물건을 보내왔다. 윤겸은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7일. 계당에 있었다. 식사 후에 윤겸은 홍주로 갔다. 그 바칠 공물을 반감해서 쌀을 만드는 일로 여러 고을을 순시하기 때문이다. 오세량(吳世良)이 와서 보았다. 지금 대흥산사(大興山寺)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걸어서 왔다. 형용이 파리하고, 옷도 매우 얇아서 차마 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돌아갈 때, 쌀 1말 5되·감장 1사발·옷 만들 두꺼운 종이 4장(丈)·짚신 창 1벌을 주어 보냈다. 비록 옷을 벗기고 딴 옷을 입히고자 했으나 우리 집안에도 덮을 것 이외에는 역시 나머지가 없으니 딴 사람을 줄 것이 있으리오. 슬프고불쌍함을 이길 수 없다. 세량(世良)이 여기 온 후에 비로소 그 어머니가 죽었단 말을 들었다.

8일. 계당에 있었다. 윤해는 결성(結城)에 갔는데 한효중(韓孝仲)을 보고 돌아올때 홍주로 들어가 제 형과 같이 자고 돌아왔다. 종 말질손과 춘기는 진위에 갔는데 윤해의 처가 농막에서 양식을 싣고 오는 일 때문이다.

9일. 계당에 있었다. 지난밤에는 큰 눈에 바람까지 불어서 날씨가 몹시 추워서 출입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종일 있었다. 또 명복은 어제 오세량을 따라 그가 있는 절로 가서, 관자와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왔는데, 중로에서 쓰고 있던 귀 덮개를 군인에게 빼앗겼으니 아깝다. 전일에 군인들이 행인의 귀 덮개를 빼앗는다는 말을 듣고 혼자 돌아올 때에는 쓰지 말라고 경계했건만, 내 말을 믿지 않다가 끝내 빼앗 겼으니, 이 누구의 허물인가. 한편으로는 밉지만 이 같은 몹시 추운 날에 남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추위를 막는단 말인가. 또한 걱정된다.

10일.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께 가 뵈었더니 이 생원 광축 및 이 생원 익빈 · 장 주

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파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윤해가 결성으로부터 한 효중을 보고 돌아왔다. 한 공이 준 조기 한 묶음 · 민어 한 마리 · 마초(馬草) 한 바리를 실어 왔다. 윤해가 돌아올 때 홍주를 거쳐 제 형과 같이 자고 왔는데, 그때 들으니 체찰사가 금명간 홍주에 도착할 것이라 한다. 이는 그 아버지가 강화로부터 바닷길로 홍수에 오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 위해서이다. 또 한 공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큰아들을 우리 집과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으니, 이는 그 연가(連家)의 척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11일. 계당에 있었다. 수일 내로 찬바람이 갑절이나 사납더니, 오늘 아침에는 더욱 드센데 방이 따뜻하지 않아서 추위를 참기 어려워 말할 수가 없다. 하혈이 이제 십 여 일이 되었는데도 그치지 않으니 이는 필시 냉방에 오래 거처한 까닭일 게다. 아이들은 이불도 없고 옷도 얇으며 자리도 또한 두껍지 못하여, 눕고 일어나는데 그찬 것을 참을 수가 없을 터이니, 더욱 탄식스럽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여기에 머무르더라도 만일 적의 조심만 없다면 그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

12일. 계당에 있었다. 윤겸의 처자가 왔다. 또 본도 도사(本道都事)가 쌀 5말·조기 3묶음·감장 2말을 보내왔다. 체찰부사 김찬과 별장이 쌀과 콩 각각 1섬씩 도합 2섬을 관인을 시켜 실려 보냈다. 식량과 반찬이 떨어져서 민망하고 걱정스러운 때 이 같이 의외의 물건을 보내 주니 온 집이 기뻐함을 금할 수 없다. 이것으로 이한 달을 걱정이 없겠다. 도사가 보낸 쌀과 감장은 윤겸의 집으로 보내고 콩 두 말도 보냈다. 부사 김찬과 도사 이원과 별장은 아직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 체찰사는 지난 10일에 홍주에 도착했다 한다. 찰방 김 공도 감장을 보냈다. 이것은 모두 윤겸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다.

13일. 식사 후에 이광복의 집에 갔더니, 이광축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얼마 안되어 어린 종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아우(희철)가 왔다고 한다. 즉시 달려서 계당으로 돌아가 마주 잡고 울었다. 오늘날 다시 만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아우에게 들으니 어머니께서는 지금 태안 땅에 계시다 한다. 달초에 막정 등이 배에서 내린 뒤에 어머니가 타신 배는 바람을 만나 쫓겨서 도로 인천 지해도(地海島)에 이르러 바위 위에 걸려서 거의 뒤집혀 가라앉을 뻔하다가 겨우 섬에 내리자 배는 깨졌다 하

니 비록 다행하다고 하겠으나 절도(絕島)에 양식이 없으니 형세가 반드시 얼어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비인군수(庇仁郡守) 구제현(具齊賢)이 탄 관선 (官船)이 풍파에 밀려서 섬 가에 정박해 있었다. 이에 같이 그 배를 타고 태안 땅소근포(所斤浦)에 도착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이 없어서 근대로 그곳에 계시고 언명(彥明)이 말을 구하려고 먼저 왔다 하니, 기쁘고 다행하고 기특한 일이다. 언명의 처자와 그 장인 김철(金轍)의 가족은 먼저 결성으로 갔다고 한다.

14일, 새벽에 언명과 함께 종과 말을 데리고 홍주성 밖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 고 관청에서 마련한 차(茶)와 점심을 종에게도 또한 먹였다. 통판 황언(黃鵬)이 백 미 10두·콩 10두·조기 4묶음·게 30개·소금 1되를 보내왔고. 어제 아우가 올 때 쌀 4두 · 콩 3두 · 조기 2묶음 · 감장 1두 · 간장 1두 · 참기름 1되를 또한 주어 보 냈다. 오후에 결성 땅 전 참봉 전응진(田應震)이 사는 마을에 이르렀다. 전 공은 곧 언명의 처남 김담명(金聃命)의 장인이다. 언명의 처자 및 그 장인의 가족은 태안 땅에서 육지에 오른 뒤에 먼저 여기에 왔던 것이다. 전 공의 둘째 아들 협(浹)은 무 인(武人)으로 새로 장수가장(長水假將)을 제수 받았다 한다. 까닭에 저녁에 아우 가 전 공의 집에 가서 장수(長水)의 새 군수를 보고 전 태수의 가족과 일찍이 잘 알 던 벼슬한 관인 등의 일을 부탁하자, 새 군수는 말하기를 마땅히 힘껏 돌보겠다고 했다 한다. 전 참봉은 나에게 백주를 대접하는데 그 아들 생원 흡(治) 및 사위 김담 명도 모였다. 조금 있다가 언명의 장인 김철이 따라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등불을 밝히고 장수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새 군 수 편에 보냈다. 전 생원 흡(田生員治)은 윤해의 동갑 친구인데, 그는 전에 울진태 수가 되었었다고 한다. 또 찰방 김 공중(察訪金公仲)이 말 한 필을 주면서 늙은 어 머니를 모시라고 하니, 우의에 깊이 감사한다. 윤겸의 여러 고을에 사사 통지를 해 서, 이제 붕아(鵬兒)와 숙선(淑善)을 보니 모두 파리하고 검어 옛 모습과 같지 않으 니 가련하다. 붕아는 옴이 온 몸에 가득하고 새로 홍역을 치른 데다가 또 복통까지 앓고 있으니, 더욱 몹시 파리해져서 장차 지탱하지 못할 것 같으니 민망하고 근심 스럽다

15일, 밝기 전에 밥을 지어 먹고 언명과 함께 서주(徐澍)의 집으로 가자, 이형세(李

馨世)도 나왔다. 이 공은 곧 서 공의 처남으로서 서울집이 한 동리였다. 유리하다 가 여기에 이르러 의외에 만나게 되니 슬픔과 기쁨이 함께 일어난다. 서로 옛 이 야기를 하는데, 서 공이 술을 내다가 대접한다. 조금 있다가 전 생원 흡(田生員治) 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같이 어울렸다. 김 공(김철)도 오겠다고 청하여 각각 3, 4배씩 마시고 헤어졌다. 바로 해미현(海美縣)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주고 점심 을 먹고 나니 해가 기울었다. 서산군(瑞山郡) 서문(西門) 밖에 이르러 사삿집에 들 었는데 이 집은 군수가 참봉을 통하여 사사로이 통지했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몹시 친절하게 하여 상하에게 모두 음식을 준다. 또 유 별좌 영근(柳別座影謹)이 유리하 다가 여기에 와 있다기에 즉시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물었더니 저물게 나 있는 곳으 로 와서 각각 유리한 괴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미(이빈)의 죽음에 이르러서 는 마주보고 울다가 밤중이 지나서 파하고 갔다. 류 공은 금성산(金城山) 속에 있 을 때 적에게 포위되어 그 아버지는 탄환에 맞아 죽었고. 그 형의 아내는 자살해 죽었으며 그 아우의 아내는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아내는 어린 아들을 안고 역시 물 속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하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 후에 그 형 영겸(永 謙)도 또한 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 이 서산 고을은 곧 삼촌이 일찍이 다스 리던 곳으로 지난 경술년 여름에 부임했다가 을묘 봄에 그만두고 갔는데, 그때 내 나이 11세로서 외조모를 모시고 여기에 왔었다. 내가 외조모에게서 컸기 때문이 다. 소년 때에 놀던 곳을 40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 성곽과 산천은 옛날과 같으나. 사물은 당시의 사물이 아닌 것을 탄식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16일. 날이 밝자 아침을 먹고 태안군에 이르니, 군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수원의 진(陣)에 있다고 한다. 유 위장(留衞將)인 그 고을 사람 조광림(趙光琳)이 와서만나 같이 이야기해 보니 역시 좋은 사람이다.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은 후에 어머니가 계신 북면(北面) 바닷가 소근포의 수군(水軍) 최인세(崔仁世)의 집으로 가니 어머니는 내가 온 것을 보고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오늘 다시 살아서만날 줄 몰랐다 하시면서 나도 슬피울어 두 소매가 다 젖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당초에 난리 속에 우리 모자가 각각 남북에 있어 생사를 모른 지가 8, 9개월이이르는데, 오늘날 다시 어머님의 얼굴을 뵈오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우리 한 가족

늙은 어머니와 처자ㆍ형제ㆍ자매가 각각 서로 보존해서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으니 그 기쁘고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 다만 남매는 아직 양근(楊根) 땅에 있다고 하는데 양근은 곧 적의 소굴이니 이것이 걱정이다. 혹은 진천(鎭川) 농사(農舍)로 나왔다 하나 아직 자세치 않다. 또 집주인 최인세의 아내는 곧 조광림의 비자(婢子)이다. 인세는 천성이 어질고 후해서 우리 늙은 어머니섬기기를 대단히 공손히 했다. 혹은 찰떡을 쪄서 드리기도 했고, 혹은 감주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밥을 지어 올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즉시 쌀한 말을 꾸어 주었다고 하니, 기쁘고 감동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나 보답할 길이 없어서 내가 차고 있던 칼을 끌러 주어 조금 그 뜻에 보답했다. 다음 날에 만일 갚을 길이 있으면 우리 부자ㆍ형제가 마땅히 그 힘을 다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6일에 배에서 내려 이곳에 오시어 11일 동안을 머무셨는데 내일은 떠나실 것이다.

17일. 날이 밝기 전에 태안유위장(泰安留衞將) 조광림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또 생치 한 마리를 보내어 즉시 어머니께 드렸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또 처음에는 일찍 떠나 태안군에 이르러 아침 식사를 했는데 밤중부터 남풍이 크게 불어 아침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기 때문에 노친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숙소에 있었다. 마침 식사 후에 바람이 잠시 그치기를 기다려 길을 떠나서 태안에 도착하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조 공을 보고 그 후의를 치사했다. 오후에 풍전역(豐田驛)의 역리(驛東) 조봉문(曺鳳文)의 집에 도착했다. 이 역(驛)은 금정(金井)에 소속되었고 서산군(瑞山郡)에서 5리 길 밖에 있다. 찰방(김가기)의 편지로 식사를 대접받았다. 집주인 조봉문을 불러오게 하여 이야기해 보니역시 좋은 사람이다. 또 태안에 이르렀을 때 들으니 김 직(金稷)이 성 밖에 와 있다 하므로 사람을 시켜서 청했더니 와서 보고 회포를 이야기했다. 김 공은 곧 김태숙(金太淑)의 매부로, 조형연(趙瑩然)의 동서(同婿)이다. 최인세가 게젓 한 사발을 어머니께 드렸는데, 그 맛이 몹시 아름답다.

18일. 날이 밝기 전에 주인이 만두를 어머니와 우리들에게 대접하니 그 후의를 갚을 길이 없다. 아침 식사 후에 서산군에 도착하니, 태수 박인룡(朴寅龍)이 나와 보고 식사 대접하기를 후하게 한다. 관노(官奴) 어둔(於屯)과 고손(古孫) 등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와서 보고 각각 소년 때 놀던 일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이술을 가지고 와서 종들에게 먹이고, 또 거친 벼를 주어 말에게 먹이게 했다. 점심식사 후에 해미(海美) 몽릉역(夢能驛) 역리(驛吏) 김연법(金延法)의 집에 이르러 잤다. 상하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은 찰방의 편지 때문이다.

19일. 주인집에서 이른 아침에 굴죽을 어머니께 올리니 기쁘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아침 식사 후에 길을 떠나서 대치(大峙)를 넘어 덕산현(德山縣)에 도착하니, 마침 강원도의 전 감사 성영(成泳)이 현(縣)에 들어와 서문(西門) 밖 사삿집에 머무르고 있다. 태수 문몽원(文夢轅)이 다과(茶果)를 내어 상하를 대접한다. 문 공은 연전에 사옹직장(司甕直長)으로서 백토(白土)를 파느라고 해주에 있을 때, 내가 마침 윤함의 혼사 일로 해주에 갔다가 알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오후에 눈이 내렸다. 저물어서 군수가 나를 대청으로 맞아다가 서로 옛이야기를 하고 술을 대접하므로, 밤이 늦어서야 파하고 돌아왔다.

20일. 집주인이 안주와 술을 내왔다. 조금 있자니 관청에서 아침밥을 대접하고, 태수가 쌀 2두·목미(木米) 2두·닭 2마리·궤 10개를 보내 주었다.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예산 유제촌 김정자의 집에 도착하니, 김매는 어머니를 보자 슬픔과 기쁨이 한데 섞어 마주 대하여 운다. 저녁에 윤겸이 홍주 처소로부터 와서 어머니께 뵙고, 이 좌수 몽정(夢禎)의 집에서 잤다. 김지남은 오늘 아침에 아산의 진(陣)으로 갔다 한다.

21일. 아침부터 동리 사람이 무려 십여 명이 모여 와서 종일 이야기를 했다. 윤겸은 낮에 덕산으로 가서 여러 고을을 순력(巡歷)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어 너무심한 것을 덜어 준다고 하니, 이는 체찰사의 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또 영암의 임매가 종 둘을 보내서 어머니를 찾게 했는데, 마침 여기에 오셨으므로, 오늘 아침에편지를 써서 도로 영암으로 보냈다.

22일. 마을 사람 십여 명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또 들으니 이 박사 지강(李博士之鋼)이 마침 이웃집에 왔다고 하기에 즉시 민 참봉 영(閔參奉韺)과 함께 가보고, 그 아버지의 피란한 것을 물었더니, 여주(驪州) 촌집에 도착했으나 이내 병으로 별세했다고 한다. 서로 두텁게 알았는데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윤겸이 덕

산에서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덕산에서 준 반쯤 말린 숭어 세 마리를 보내왔기에 한 마리는 즉시 매가(妹家)에 주고 답장을 써서 온 사람을 돌려보냈다 지남(止男)은 오지 않으니 반드시 외진(外陣)으로 간 모양이다.

23일. 아침 식사 후에 동리 사람 십여 인이 역시 와서 모였다. 김자옥의 종 난수(難守)가 술과 안주를 갖다 올려서 서로 함께 마셨다. 낮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는데 어머니는 김매(金妹)와 서로 작별하면서 비통해서 떠나지 못하니, 보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다. 대흥(大興)에 도착했는데 비록 상하의 식사는 대접하나 추악해서 먹을 수가 없다. 오세량이 어머니가 오셨단 말을 듣고 그가 있는 절로부터 와 뵙고 같이 잤다. 또 들으니 신 별좌 천응(申別座天應)이 목재소로부터 여기에 왔다기에 윤해로 하여금 가보게 하고 조정의 동정과 중국 군사가 나왔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적은 평양 및 그 연로(延路)에 있고, 중국군사는 신(申)이 용강(龍岡)에 와서 들으니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더란다. 그러나 일이 비밀에 속해서 자세치가 못하다 한다.

24일. 이른 아침에 문응인(文應仁)·설응기(薛應期)가 와서 보았다. 식사 후에 세량과 문(文)·설(薛)은 그 처소로 돌아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떠나 중간에 이르렀는데, 인아가 와서 맞아서 계당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이르다. 또 들으니 윤겸의 처가 해산했는데 또 딸을 낳았다 하니 서운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청양현(靑陽縣) 안에 사는 두응토리(豆應土里)는 곧 내가 전일에 자던 집주인인데 술과 안주 및 양색(兩色) 떡·간장·김치 등 물건을 갖추어 가지고 왔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여기와 계시므로 김치와 떡을 드리니 깊이 기쁨을 알겠다. 술과 음식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또 조 정랑 응록(趙正郎應祿)이 찾아왔는데, 만 번 죽었던 나머지에 다시 서로 만나서 십분 기쁘다. 술과 저녁 식사를 대접하여 보냈다. 김상관(金尚寬)이 윤해를 와서 보았는데 김 공은 곧 남백형(南伯馨)의 매부로서 보령에 와 있다한다. 또 어제 본 신 공이 종 봉화(鳳花)의 집에 와서 잤다는데, 그는 곧 봉화의 남편 상전(上典)이다. 집은 태안에 있는데 의병의 양식을 모아서 배에 실어서 바치게 하기 위하여 별좌에 임명한 것이다. 지난달 28일에 의주에서 떠나서 도로 호남으로 향했다 한다. 또 이제 윤함의 글을 보니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

다. 그러나 그 처자가 아직 보존하고 있어 그 집으로 도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는 한 가지 다행한 일이다. 편지가 행조(行朝)¹⁶로부터 여기에 왔는데, 들으니 그 장인 이 가도사(假都事)로서 지금 행조에 있다고 한다. 이는 필시 이 글을 남쪽으로 오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25일. 아침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께 갔더니 김정형 및 윤민헌·박효제와 이익빈이 와서 모여 서로 이야기했다. 올 때 이광복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정자 람(李正字覽)도 와 있어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계당으로 돌아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또 내가 예산으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체찰사의 분부로 백미 5두·전미(田米) 5두·콩 10두·닭 3마리를 관인(官人)이 싣고 왔다. 또 성환찰방(成歡察訪) 김덕겸(金德謙)이 백미 5두를 보냈으니 이는 윤겸의 친구다. 이 좌수(李座首)가 벼 10두를 보냈다. 홍주목사가 전일에 생원에게 준 쌀 5두와 콩 5두도 왔다고 한다. 윤겸의 처가찰떡을 쪄서 어머니께 올렸다. 어제 새벽닭이 두 홰를 울 때 여아를 낳았다. 온 집안이 날마다 남자를 바랬는데 이제 딸을 낳았다고 하니 온 집이 서운해 한다. 일찍이 두 남자를 낳았다가 다 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딸을 낳아 가지고 아직 살아 있으니 다음날 양육할 일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사히 출산했으니 이 역시 한다행한 일이다.

26일. 계당에 있었다. 막정을 정산으로 보내고, 말질손을 부여로 보냈으니, 모두 과세(過歲)할 물건을 얻어 오기 위해서이다. 춘희를 결성으로 보냈는데 이는 돌아올 때 홍주에 두어둔 쌀과 콩을 싣고 오게 하기 위해서다. 덕경을 대흥(大興) 대련사(大蓮寺)로 보낸 것은 콩 2두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이니, 이는 오세량이 가 있는 절에 두부를 만들어 보내겠다고 일찍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녁에 인아·단녀와 함께 이웃집 홍어 읍동(洪於邑同)의 집에 가서 잤다. 어머니와 아우가 여기에 와서 방이 좁아 잘 수 없기 때문에 빌어서 잔 것이다. 한효중(韓孝仲)의 큰아들이왔다 갔다.

27일. 사포 아저씨 계신 곳으로 갔더니 이광축 및 이익빈이 와서 모였고, 김정형도 뒤에 와서 서로 이야기했다. 권 생원 급(權生員級)이 양근으로부터 이달 초생에 이

16 행조(行朝): 임금이 임시 가서 정사를 처리하는 곳.

경계 안에 도착했는데. 그는 김정형과 연친(連親)이어서 여기를 찾아 왔다. 권 공 에게서 들으니, 고성 누이가 지난달 그믐에 양근으로부터 홍천 · 지평 땅으로 돌아 와 여기에서 해서로 돌아가려 한다고 한다. 우리 모자의 골육이 모두 편안히 살아 있어 모두 여기에 모였는데 홀로 남매만이 생존을 알지 못해서. 매양 이것으로 걱 정을 해 왔는데 이제 무사히 편안한 곳으로 돌아갔다 하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관 동과 해서는 몹시 멀어서 그 사이의 길이 험하고 막혔으며 산천이 멀고 왕래하는 중간에 또 적의 소굴이 막혔을 것이다. 어찌 딴 걱정이 없다고 보증하겠는가. 이것 으로 걱정되는 것이 더욱 심하다. 덕경이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고 왔는데 묵은 콩이어서 만들 수가 없어서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니 탄식스럽다. 또 전일에 예산 에 있을 때 들으니 중국 장수 심 유격 유경(沈遊擊惟敬)이 선봉으로 이에 압록강을 건너와서 수레와 병기를 버리고 5. 6명의 약한 군사만 거느리고 적이 주둔한 성중 으로 들어가 황제의 명령이라 하여 물건을 주고 화해하고 군사를 물릴 일을 의논 하느라고 2, 3일을 머물렀으나 적은 종시 듣지 않았다 한다. 중국 장사가 억지로 화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칭탁하고 적중에 들어가 허실(虛實)을 보기 위해 서라고 한다. 양식을 실은 수레들은 요좌(遼左)로부터 길에 뻗혀 있다고 한다. 그 러나 이러한 말들은 전에도 들었건만 끝내는 헛말이었으니, 오늘 말도 또한 자세 치가 못하다. 저녁에 춘희가 홍주로부터 돌아왔다. 서주(徐澍)의 아내가 쌀 두 말 과 콩 두 말을 어머니께 보냈다. 그는 한 동리에 살아 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때문 이다.

28일. 계당에 있었다. 아침에 종 막정이 정주로부터 돌아왔는데 태수가 벼 10두 · 백미 2두 · 콩 2두 · 목미(木米) 5되 · 찹쌀 5되 · 참기름 1되 · 닭 2마리를 보냈다. 또 들으니 홍종록(洪宗祿)의 아들은 글자 한 자도 모르는데, 난리가 일기 전에 꿈을 꾸니 머리가 흰 늙은이가 와서 절구(絕句)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가는 비 서울길에 버들 빛 푸른데, 동풍이 불어와 말발굽도 가벼워라. 태평하게 높은 벼슬아치 조정으로 돌아가는 날에 개가(凱歌) 올리는 기쁜 소리 낙양성에 가득하네(細雨天衢柳色靑 東風吹 送馬蹄輕. 太平名宦還朝日 奏凱歡聲滿洛城)"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회복되는 시기가 반드시 2, 3월에 있을 것인데, 하늘이 그 정성

에 감동하여 먼저 일깨워 알린 것이라 했다. 다만 들으니 행조(行朝)의 모든 공경 (公卿)들은 종묘와 사직이 전복된 것을 걱정하여 마음을 합하여 회복하기를 도모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서(東西)가 공격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고 한다. 유영경(柳永慶) · 이홍로(李弘老) 등이 글을 올려 남을 헐뜯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가 편안치 않게 하고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말이 동궁(東宮)에까지 침입한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끝내 양궁(兩宮)으로 하여금 화합하지 못하게 이간하여 틈을 내는 조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탄식하지 않으랴. 그러나 옛날로부터 그래 왔으니 무엇이 괴상하리오. 이다음 날 회복된 뒤에는 피차 사이에 반드시 어육(魚肉)이 될 것이니 기미를 아는 군자로서야 어찌 여기에서 깊이 감추고 몸을 나타내지 않아 미리 물러가 숨지 않는단 말인가.

29일, 사포 아저씨 계신 곳으로 갔더니, 장 주부 응명 · 윤 진사 민헌과 한박(韓 璞) · 김극 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형은 이 생원 익빈의 집에 있다 기에 사람을 시켜 불렀더니, 도리어 나를 부른다. 내가 즉시 갔더니, 김 형과 이 생 워 광축 등이 바야흐로 추로(秋露)름 마시면서, 취해서 말이 시끄럽다. 내가 뒤에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두 잔을 먹이고 조금 있다가 또 두 잔을 억지로 권하므로 그 대로 취해서 돌아왔다. 저물게 윤겸이 보령으로부터 횃불을 밝히고 왔다. 온 집안 이 방안에 모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노라니 방이 이미 지났다. 윤겸이 먼저 집으 로 돌아갔고, 나도 역시 처사로 돌아왔다. 또 말질손이 부여로부터 돌아왔는데, 부 대군수 박동도가 쌀 8두 · 콩 3두 · 팥 2두 · 진말(眞末) 4두 · 목말(木未) 1두 2승 · 감장 1말을 보냈다. 또 결성가장(結城街將) 유택(柳澤)이 쌀 3두·노루의 다리와 갈비 및 족기 1묶음 · 닭 1마리 · 황각(黃角) 2두 · 간장 2되를 보냈다. 유(柳)는 윤 겸의 친구이다. 또 들으니, 지난 26일에 여러 군사가 죽산 종배(終排)에 진 치고 있는 적을 들어가 습격하자 적은 보루를 닫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사가 종 일 포위하고 여러 가지로 도전했으나 끝내 나와 응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각각 그 본진으로 돌아왔다 하니, 기쁜 일이다. 체찰사가 전령을 내려, 순찰사 및 병사 이 옥 조방장 등을 잡아다가 벌을 내렸다 한다. 또 장수관노(長水官奴) 돌동(乭同)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곧 그 태수 전협(田浹)이 결성의 친가에 문안하러 오는 길 에 계당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수주와 응일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이튿날 답 장을 써서 온 사람에게 보냈다. 또 추로를 과음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새벽에 토하기까지 하고, 늦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오후에 비로소 만두를 먹었다.

도체찰사 정철 · 부사 김찬 등이 공물(貢物)을 반으로 감해서 쌀을 만들어 나라의 비용에 이바지하기를 청하는 계본초(啓本草)

임진 11월 일

오늘날 양호(兩湖)의 행세가 위태롭기가 한 오리의 머리털 같사옵니다. 여러 적들 이 세력을 합하여 내려와서. 첫째는 인심이 무너져 흩어지고. 둘째는 부역이 번 거롭고 많아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고, 셋째는 징집하고 모집하는 일이 계속되 어 마을이 시끄럽고, 넷째는 군령과 군기가 하나도 없고, 다섯째는 이 시기를 넘 기고 구원하지 않으면 양호(兩湖)는 우리 땅이 아닐 것이오니. 어찌 위태하지 아니 오리까. 구제하는 방법은 폐단을 줄이고 백성을 돌보아. 재물을 늘이고 힘을 저축 하게 하여 이로써 어려움을 구제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바야흐로 전에 내리신 성 지를 좆아 긴요하지 않은 공물을 감해 주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분(分)의 혜택 을 입게는 하고 있사오나. 비단 감해 주고 감해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응당 감해 줄 물건은 그 수가 몹시 많사오니, 만일 일체 모두 감해 준다면 나라의 비용이 걱정스럽고. 일체 감해 주지 않는다면 민생이 매 우 불쌍하오니, 신등(臣等)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말씀하오면, 변통하는 일을 행하 지 않음 수 없사옵니다. 신등이 그윽이 여러 고음의 모든 공물을 보옵건대. 전례에 의하여 땅에서 소출된 쌀을 내다가 팔고. 절대로 본읍(本邑)에서 나는 것으로 바치 는 자가 없습니다. 까닭에 공물의 값은 모두 일정한 방식이 있고, 바치는 수는 전 의 갑절로 불어나옵니다. 그 사이에 또 우종(牛從) · 인정(人情) · 작지(作紙) 등 모 든 쓴 비용까지도 모두 밭에서 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사실은 본 래 정해진 공물 값의 갑절이나 되옵니다. 이에 신(臣) 등의 망령된 뜻으로는 두 고 을의 같은 해의 공물과 전에 아직 상납(上納)하지 않은 것을 모두 값으로 쳐서 쌀 을 받고 분량은 그 수를 감해 줄 것이며, 모든 우종(牛從), 인정(人情) 등의 잡비는 모두 일체 받지 말고, 또 전세(田稅)에 이르러서는 부역을 제한 물건도 또한 모두 본색(本色)의 쌀과 콩으로 받는다면, 백성들의 힘이 많이 펴지고 실지의 혜택도 고 루 입게 될 것이오니, 백성을 돌봐 주는 방법이 여기에 지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 다. 현재의 시세로 말씀하오면 조정의 여러 가지 공물은 비록 전과 같이 받아들이 려 해도 그 형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토산(土 產)이 아니면 반드시 서울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십중팔구였사온데. 지금은 길이 모두 끊겨서 옮겨 올 수가 없사오니, 비록 다시 생령(生靈)들의 고혈(膏血)을 말린 다 해도 어디에서 구하오리까. 이는 백성들의 가진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 의하여 쌀값으로 내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물며 군사를 일으킨 지 여러 달이 되어 양식을 댈 방법이 없어 주림과 배고픔이 극도에 달했고, 쓰러져 죽는 자가 계속해 일어나서 곳곳에서 급함을 고해 오고.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찾는 자까지 있습니 다. 겨울이 되기 전에도 오히려 이와 같사온데. 만일 내년 봄이 되면 구제할 방법 이 없어 관청에 간직한 물건이나 사사로이 저축한 물건이 일시에 모두 없어질 것 이오니, 만일 특별히 조치해서 먹을 것을 주는 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적이 오기 를 기다리지 않고 형세가 반드시 무너져 흩어질 것이오니, 이것이 곧 오늘날의 제 일 큰 근심이옵니다. 진실로 공물로 쌀을 만들게 하여, 신등의 말을 받아들이시어 쌀을 모아 저축했다가 군자(軍資)에 보충하게 한다면 급한 일을 돕는 데 거의 아주 바닥이 날 근심을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불시에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관(本官)에서 오히려 저축해 둔 쌀을 편의에 따라 팔아서 바친다면 옳 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이것은 비단 백성들의 숨은 폐단을 없앨 뿐만 아니라, 또 한 장차 국가의 저축이 여유가 있게 되어. 백성에게나 국가에 실로 양쪽이 다 편한 일입니다. 신등이 이러한 일이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사오나. 모름지기 조 정의 확실한 지휘를 얻은 뒤에 비로소 주선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오나 오직 왕복 하는 동안 이 두어 달을 경과할 것이옵고. 목전의 급한 것은 하루가 가면 더 심하 오니. 만일 일을 늦추고 기다리고 있어 민간에 저축한 곡식이 다 없어지고 보면 한 되 한 말의 쌀도 역시 마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까닭에 부득이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겠사옵기로 우선 시행하겠사온바, 이는 비록 부득이한 방법에서 나온 것 이오나 그 법 밖의 외람한 죄는 기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도(道) 중에서 충주(忠州)·청주(淸州)·연풍(延豐)·괴산(槐山)·진천(鎭川)·영동(永同)·문의(文義)·옥천(沃川)·음성(陰城)·단양(丹陽)·영춘(永春)·청풍(淸風)·제천(堤川)·황간(黃澗)·청산(淸山)·보은(報恩)·회인(懷仁)·진안(鎭安)·금산(錦山)·무주(茂朱)·용담(龍潭)은 여러 번 적의 변을 겪어서 더욱 쇠잔하고 파괴되었으며, 온양(溫陽)·평택(平澤)·직산(稷山)은 지난여름으로부터 큰 군사가 오래 머물러 있어 민생의 괴로움이 변을 겪은 것과 다를 것이 없사옵고, 아산(牙山)·당진(唐津)은 서쪽으로 가는 장사(將士)와 크고 죽은 사신 및 장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수로(水路)를 거쳐 가기 때문에 양관(兩官)의 백성들이홀로 그 폐를 받고 있사오니, 신은 바라옵건대 금년의 공물을 많은 곳은 전 감(全滅)해 주고 그다음은 혹 3분의 1을 감하여, 조정이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여 주시는 것이 혹 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조토왜격(皇朝討倭檄)

만력 20년(1592년) 11월 15일에 경략(經略)의 칙명(勅命)을 받은 소료 보정 산동(蘇遼保定山東) 등처 방해어왜군무병부시랑(防海禦倭軍務兵部侍郎) 송응창(宋應昌)은 조선국왕에게 격문을 보낸다. 왕께서 동해(東海)에 나라를 열고 천조(天朝)의 정삭(正朔)을 받들고 2백 년 동안 조공(朝貢)하면서 충효(忠效)를 나타내기를 공손하게 하루같이 해 왔다. 또 시서(詩書)를 외워 본받아서 찬란히 학사(學士)와 유자(儒者)의 풍도가 있어 딴 나라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제 황제(皇帝)의 성신(聖神)함으로 사해(四海)를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오랑캐까지도 편안히 모이게 하셔, 홀로 덕 된 뜻이 더욱 두터워, 이제 북으로 달단(韃靼) 대에 이르고 남으로 안남(安南)·섬라(暹羅) 역러 나라에 이르고, 서쪽으로 하미(哈密) 등 여러 번국(蕃國)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기 있게 향응(嚮應)하고 머리를 조아려 정성을 바쳐 남에게 뒤질까 두려워하는데, 저 일본(日本)은 조그만 굼벵이 같은 것들이 멀리 섬 속

¹⁷ 달단(韃靼): 몽고족(蒙古族)의 한 갈래.

¹⁸ 섬라(暹羅): 지금의 태국(泰國).

에 살고 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다. 대체로 그들이 어찌 왕의 나라와 이웃을 하 며, 왕의 계획을 속인단 말인가? 풍속이 무(武)를 익히지 않자 문득 이를 알고 엄 습하고 군사를 내어 불태워서. 이미 왕의 서울을 빼앗고 평양을 점령하여 지키며. 왕의 두 아들을 포로로 하매, 왕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쳤다. 충신을 죽이고, 절부 (節婦)를 살해하여 악함이 지극하고 참혹함이 독살스러워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 하게 여긴다. 왕은 변방으로 유리하여 의주에 머물러서, 형세가 다하고 힘이 약해 져서 천조(天朝)에 구원을 청하자, 폐하께서는 깊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크 게 진노하시어, 본부(本部)에 명하여 소 사마(少司馬)로써 절월(節鉞)과 군사를 가 지고 모신(謀臣) · 맹사(猛士)가 풍우처럼 모여들어. 활을 잡고 도끼를 들고서 말을 달리고 수레를 몰아. 붉은 깃발은 하늘의 해를 가리고. 천둥과 북소리는 바다 물결 을 움직여, 모두 강한 자를 베고 약한 자를 도우며, 곤한 자를 건져서 충성을 온전 히 하게 하여. 대의를 천하에 펴고 큰 이름을 만세에 남기려 한다. 왜놈들이 아무 리 꿈틀거려도 저희들도 아는 것이 있을 터이니. 우리 군사가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머리를 바치고 뿔을 감추고서 재빨리 밤에 도망하여 저들의 본 국으로 돌아가 오히려 씻은 듯이 평정되면 이는 그때에 오히려 형세와 힘을 비교 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지(機智)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리 석게 깨닫지 못해서 옛날 일을 고집한다면 즉시 화치(火輜)를 싣고 가서 신(神)에 채찍질하여 우뢰를 움직이고 번개를 몰아. 달려가서 평양을 포위하여 함락시켜. 이로써 선봉(先鋒)에게 기름을 쳐 줄 것이다. 하물며 이미 민광(閔廣) 의 장수로 하여금 섬라(暹羅) · 유구(琉球) 여러 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배 위에서 북을 치고 돛대를 높이 달아 바로 일본의 소혈(巢穴)을 부술 것이다. 다시 진(秦)의 정예한 군 사와 촉(蜀)의 불태운 창과 연(燕) 의 철기(鐵騎)와 제(齊)의 기격(技擊)과 삭방(朔 方)의 힘센 아이들을 데리고 봉황성(鳳凰城)에 진 치고 압록강을 건너 대마도(對馬 島)에 다다라서 맹세코 왜놈의 족혈(族血)을 끊어. 바다 조수와 도산(塗山)20의 눈 에 띠워 도깨비와 불여우를 모두 없애고 교룡과 용을 잘라 버려서. 왕으로 하여금

¹⁹ 민광(関廣): 지금의 복건성(福建省)과 광동(廣東) · 광서(廣西) 두 성(省)을 합친 지방

²⁰ 도산(塗山): 안휘성(安徽省)에 있는 산, 우(禹)임금이 도산씨(塗山氏)를 아내로 맞은 곳.

왕의 서울로 돌아가 옛 백성들을 편안케 함으로써 폐하께 보답하고 우러러 화려한 기운을 펴려한다. 왕은 이제 마땅히 와신상담(臥薪嘗膽)²²하여 그대의 아들과대부(大夫)들과 함께 쇠잔한 군사를 모아 용기를 뽐내서 감히 회복할 것을 도모하라. 저 평양 여러 도(道)엔들 어찌 충의의 호걸스런 행동으로 내응(內應)을 돕는 자가 없으리오. 비밀히 계획하고 조용히 타일러 그 모함이 말 없는 기미에 있는 것이니, 곡식을 저축하고 독항(督亢)²²을 도모하여 서로 정형(情刑)을 잊고 요해처를 굳게 지키면서 중국 군사가 도착하는 날에 한곳에 군사를 합쳐 가지고 왕에게 비밀한 계획을 주어 장사들을 분포시켜 차례로 함께 진병하여 추한 기운을 깨끗이 씻고 함께 기이한 업적을 빌어, 폐하의 신령스러움을 나타내고 기자(箕子)의 옛 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불과 같이 바다 밖의 공을 세운 것은 성탕(成湯)의 군사요, 한군사로 하(夏)나라의 왕업(王業)을 차지한 것은 소강(小康)의 어진 것이니, 왕은 힘써서 대대로 떨치게 하라. 격문이 도착하면 자세히 생각하여 법과 같이 알리게 하라.

전 제도 토왜 격(傳諸道討倭擊)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만력 20년 6월 일에 행 부호군(行副護軍) 고경명은 여러 도(道)를 기키는 사민(士民)과 군인들에게 급히 고하노라. 근자에 나라의 운수가 비색하여 섬 오랑캐가 침략해 왔다. 처음에는 역적 양(亮)의 맹약²³을 어긴 것을 본받더니, 끝내는 구오(勾吳)의 천식(荐食)²⁴으로 나왔다. 우리의 방심한 틈을 타서 허점을 찌르고 길게 몰려왔으며, 하늘도 속일 수 있다 하여 맘대로 바로 올라왔다. 소위 우리 장수란 것들은 갈림길에서 서성거리고, 고을의 수령이란 자는 깊숙한 숲 속으로 도망했다. 저왜적에게 군친(君親)을 포로로 주는 일을 차마 할 일이라. 우리 지존(至尊)으로 하

- 21 와신상담(臥薪嘗膽) : 원수를 갚고자 고생을 참고 견디는 일, 춘추 때 월왕 부차(夫差)와 월왕 구처(句 變)의 고사가 있다.
- 22 독항(督亢): 지명.
- 23 역양유맹(逆亮逾盟) : 금(金)나라 임금 양(亮)이 약속을 위반한 것을 왜적의 우액에 비교한 것.
- 24 구오천식(句吳荐食): 구오(句吳)는 오(吳). 천식(荐食)은 잠식(蠶食)과 같음.

여금 사직을 근심하게 하면 내 마음에 편안하랴. 어찌 수백 년 양육을 받은 백성 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의기 있는 남아가 없단 말이냐.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오 는 것은 여진(女真)이 본래 병법(兵法)을 몰랐고. 중행(中行)²⁵을 매 때리지 못한 것 은, 대한(大漢)이 스스로 꾀가 없었다. 이리하여 장강(長江)은 갑자기 천참(天塹)26 을 상실하고, 적군은 이미 서울에 육박했다. 남조(南朝)에 사람 없다는 비난을 듣 게 되니 진실로 통탄할 일이요. 북군이 날아왔다는 말과 비슷하니 너무도 불행하 지 않은가. 드디어 우리 성상께서 태왕(太王)이 빈(邠)27을 떠나던 그 심정으로. 명 황(明皇)이 서촉(西蜀)에 행차하던 거조를 하였으니, 대개 종묘 사직을 위한 치 밀한 계획 아래에서 잠깐 지방을 순시하는 수고를 꺼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공 락(鞏洛) 의 자욱한 먼지에 옥안(玉顔)은 깊은 근심을 나타냈고. 민아(岷峨)의 위 태로우 길30에 취화(翠華)는 먼 길을 달려야 했다. 하늘이 이성(李晟)31을 냈으니 적 을 숙청하는 일은 정히 그에게 기대되고. 육지(陸贄)2가 초 잡은 〈애통조(哀痛詔)〉 는 또 성조(聖朝)에서 내렸으니, 대체로 혈기 있는 생물이면 어느 누구인들 분해서 죽고 싶지 않으랴, 어쩌다가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어 나라의 형편이 이 지경에 이 르렀다. 봉천(奉天)의 어가(御駕)는 돌아오지 못하고. 상주(相州)의 군사는 이미 무 너졌다. 저 벌(蜂)과 전갈처럼 움직이는 왜놈들이 아직도 고래의 죽음을 면하다니. 성안에는 가식(假飾)하는 것은 어찌 불붙는 초막(草幕)의 날개 치는 제비와 다르 랴. 서울을 점령한 것은 마치 함(檻) 속에 갇힌 원숭이와 같은데. 비록 중국 군사가

- 25 중행(中行): 한(漢)의 시자(侍者) 중행설(中行說), 일찍이 흉노에게 항복하여 항상 한(漢)을 괴롭혔음.
- 26 천참(天塹): 장강(長江)이 천연의 갱참(坑塹)을 이루었다는 말.
- 27 거빈(去邠): 적인(狄人)이 자주 빈(邠)을 침하자 대왕은 빈(邠)을 떠나서 기산(岐山) 아래로 갔음.
- 28 행촉(幸蜀) : 당(唐)나라 명황이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피하여 파촉(巴蜀)으로 파천한 것을 말함.
- 29 공락(鞏洛) : 공현(鞏縣) · 낙읍(洛邑). 당(唐)나라 명황(明皇)이 서촉(西蜀)으로 파천할 때의 광경을 들어서, 선조(宣祖)의 의주 파천에 비유한 것.
- 30 민아(岷峨): 파촉(巴蜀)의 험한 길을 말함. 취화(翠華)는 천자의 수레 앞에 세우는 기.
- 31 천생이성(天生李晟) : 당나라 덕종(德宗) 때에 주자(朱泚)의 난이 일어나서 덕종은 봉천으로 파천했는데, 이성(李晟)이 적을 깨뜨리고 장안(長安)을 회복하고 이를 행재소(行在所)에 알리자, 덕종은 눈물을흘리면서, "천생이성(天生李晟)……" 했다.
- 32 육지(陸贊) :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주자(朱泚)의 난에 봉천으로 임금을 따라 갔다가 덕종(德宗)의 애통하는 조서(詔書)를 대작(代作)했음.

소탕해 줄 것이라 믿지만. 역시 흉한 무리가 빠져 달아나지 못하리라 보증하기는 어렵도다. 경명은 단심(丹心)의 늙은 나이요, 백발의 썩은 선비로서, 밤중의 닭의 울음33을 듣고 다난(多難)한 앞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중류(中流)에 떠가는 뱃전을 두들기면서 스스로 외로운 충성을 하려 했다. 이는 오직 견마(犬馬)의 주인을 그리 위하는 정성을 품었을 뿐이요. 모기가 태산을 짊어진 것처럼 자기의 힘을 헤아리 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의병을 규합하여 바로 서울로 치닫기로 하고. 옷소매를 떨치 고서 단 위에 올라 눈물을 뿌리고 군중과 맹서하니, 곰을 잡고 범을 넘어뜨릴 장사 는 천둥 울리듯 바람 치듯 하고. 수레에 뛰어 오르고 관문을 넘어가는 무리는 구름 모이듯 비 쏟듯 한다. 이는 절대로 강제로 핍박해서 응하거나 억지로 따른 것이 아 니라, 오직 신자(臣子)로서의 충의의 마음이 다 같이 지성에서 우러난 것이니, 위 급 존망(危急存亡)의 날에 처하여 감히 하찮은 몸뚱이를 아끼라. 당초부터 의병이 라 일컬은 바에야 직수(職守)에도 얽매이지 않고, 군사란 곧음으로써 씩씩한 법이 니, 강약을 따질 것도 없다. 이리하여 크고 작은 것을 의논하지 않고 의견이 서로 같으며, 멀고 가까운 것이 없이 소무을 듣고 일제히 분발한 것이다. 아아! 우리 여 러 고을의 수령(守令)과 각처의 인사(人士)들이여! 충성이 어찌 임금을 잊으리오. 의리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혹은 무기로 돕고. 혹은 군량으로 도우 며, 혹은 말에 올라 남보다 먼저 싸움터로 달리고 혹은 분연히 쟁기를 던지고 밭고 랑에서 일어나되. 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오직 의리로 돌아가라. 능히 임금을 위해 서 난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우리 행궁(行宮) 은 멀리 서도(西道)에 있지만, 그곳은 풍속의 아름다움이 멀리 어진 이를 제사지내 는 날로부터였고. 병마(兵馬)의 강함은 일찍이 수(隋) · 당(唐)의 백만 대군을 무찔 렀다. 조정에서는 장차 계획이 있으니, 왕업(王業)이 어찌 한쪽에만 편안하리오. 여유 있게 패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니. 복덕성(福德星)34이 바야흐로 오(吳)의

³³ 반야계(半夜鷄): 진서(晋書) 조적전(祖逖傳)에, "조적이 젊어서부터 큰 뜻이 있었는데, 유곤(劉琨)과 더불어 사마주부(司馬主簿)가 되어, 같이 잠을 자다가 밤중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닭의 울음소리가 악성(惡聲)이 아니라고 했다"했다.

³⁴ 복덕성(福德星): 진왕(秦王) 견(堅)이 여러 신하를 태극전(太極殿)에 모이게 하고, 진(晋)을 정벌한 일을 문자 재월(在越)이 말하기를. "지금 복덕성(福德星)이 오(吳)의 분야(分野)에 있으니 만일 정벌한다

땅에 비쳤고, 심한 근심이 임금의 마음을 열어 주는 것이니, 구음(謳吟)은 더욱 한 (漢)나라를 생각한다. 호걸들이 때를 바로잡으니 신정(新亭)³⁵의 눈물을 지을 까닭이 없고, 부로(父老)들이 임금을 기다리니, 서울로 돌아오는 날을 보리라. 마땅히기운을 내서 남보다 먼저 나설 것을 믿으면서 이에 마음속의 말을 토하여 충고하는 바이다. 이달 26일에 군사를 이끌고 여산군을 떠나 길에 올라 북쪽으로 올라갈것이니, 차례로 서로 전하여 한 시각도 지체하지 말기 바라노라.

이 도독 여송(李都督如松)에게 주는 시(詩)

유학(儒學) 임전(任錪)

황조 원수(皇朝元帥) 이 공 각하(李公閣下)께 드립니다. 이제 성천자(聖天子)의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를 도와 구제하여, 주신 것이 한없이 많아 뛰고 춤추고 하다가 감히 거친 율시(律詩) 20운(韻)을 얽어 다만 나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시(詩)에 말했다. 두 대(代)에 걸쳐 성곽을 나누었으니, 이어 받은 옛 가업이 융숭했네. 병서(兵書)를 전한 것은 황석공(黃石公)³⁶ 늙은이요, 칼을 배우게 한 것은 백원옹(白猿翁)³⁷이었네. 백 번 싸워 위엄 있는 소리 나타났고, 삼군(三軍)이 모두 절제(節制)를 통했네. 하늘을 도와 장한 길을 바쳤고, 바다를 막아 기이한 공을 펼쳤네. 서쪽 골짜기에서 이름 거두기를 크게 했고, 동쪽 나라에 제승(制勝)한 것 웅장했네. 우리나라 사람 혜택을 힘입었고 화초까지도 그 유풍(遺風)을 익혔네. 무기(武器)를 의주 위에 머물렀고, 패수(沮水) 가운데에 진영을 연했네. 번개와 천둥처럼 호령이엄했고, 서리와 눈처럼 병기가 쌓였네. 깍지를 벗기니 별처럼 화살이 날고, 시위를 당기니 달처럼 활이 휘네. 적의 괴수들 일찍이 간담이 찢어졌으니, 남은 무리들 감히 도망해 가라. 땅에 던지니 물고기가 곤한 것 알겠고, 사람에게로 가니 새

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했다.

³⁵ 신정(新亭) : 진(晉)나라 주의(周顗) 때 명사(名士)들이 신정(新亭)에 올라 놀다가, 주개가 탄식하기를, "풍경하수격목유산하지목(風景下殊擊目有山河之黑)"이라 하니 모든 선비들이 눈물을 흘렸다.

³⁶ 황석공(黃石公): 진(晋)나라 말기에 이상(圯上)에서 장량(張良)에게 병서(兵書)를 주었다는 노인.

³⁷ 백원왕(白猿翁): 유신(庾信)의 우문성지명(宇文盛志銘)에, "授圖 黃石 不無師表之心 學劍白猿 遂有風雲之志"라 했다.

가 궁한 것 보겠네. 고래들을 풀 베듯이 없애고, 요사스런 기운 쑥대 없애듯하네. 바람은 요동 북쪽에 움직이고, 위엄은 바다 동쪽에 나타났네. 조선(朝鮮)의 끊어지 는 실마리 붙들어 주고, 일본의 흉한 무리 소탕했네. 관문(關門) 밖에 오랑캐별 떨 어졌고, 하늘 가운데 한(漢)나라 해가 높았네. 기뻐하는 우리 무리 슬프고, 회복해 준 것 여러 공(公)이 고맙네. 백성들은 새로운 교화(敎化)를 보고, 임금은 옛 궁으 로 돌아왔네. 이에 알겠도다. 어진 장수의 계획이, 실로 황제의 마음에서 나왔네. 어진 자는 원래 적이 없는 것. 왕사(王師)는 예로부터 같다네. 이 나라에서 뛰고 춤 추는 뜻이 황제의 대궐까지 들리기를 바라네. 마침 노야(老爺)(이여송)가 포목 두 필. 백포의중수촌(白布衣中秀寸)을 보냈기에 화인(華人)이 답장을 하고 또 시 한 수를 주었다. 이제 낮은 정성을 시로 표현하여 올렸더니, 각하께서 더럽게 여겨 배 척하지 않으시고. 말을 한참 동안 머무르게 하고 이를 다 보고 나서 그대로 좌익도 독(左翼都督)에게 전하고. 즉시 문기를. "너는 무슨 벼슬에 있느냐" 하고 따뜻하게 말하기를 정녕하게 했다. 뒤에 남루(南樓)에 와서 다시 부르는 명령이 있었으니. 바다 모퉁이의 소인(小人)으로서 영화롭고 빛나는 것이 실지로 많았다. 이제 오랑 캐가 우리 원수를 수고롭게 했으니, 이는 돌이켜보건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 정해년 이래로 동요에도 있었으니, "이것도 패해 달아나고, 저 것도 패해 달아나니 모두 패해 달아나네" 했고, 또 말하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 라. 십팔자(十八子)가 많은 도둑 소탕하네"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능히 알지 못했 었다. 지난해에 왜적과 서로 싸우다가 움직이기만 하면 문득 패하다가 평양에서 이긴 것이 이야(李爺)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맞은 것이다. 그 십팔자(十八子)란 곧 '이(李)'자요. 많은 도둑을 소탕한다는 예언이 족히 맞은 것이다. 이에 시 20운을 얽어 다시 높은 안목을 더럽히고. 이로써 푸르고 푸른 풀에 마을의 남긴 뜻을 그리 위하는 마음을 펴고자 하오니, 다행히 참람함을 용서하시옵소서.

고래수염이 푸른 바다를 흔드니, 남은 물결이 부딪쳐서 언덕으로 올라오네. 명황(明皇)은 작은 나라 불쌍히 여겼고, 맹사(猛士)는 동쪽 나라 근심했네. 절제(節制)는 삼군(三軍)의 군사요, 웅호(雄豪)는 한 대(代)의 어진 이일세. 아가위는 항상 꽃을 같이했고, 기러기들은 갈 길을 나누지 않네.

소라 뿔로 서리를 불기 급하게 했고. 용 그린 기는 해에 빛나기를 바쁘게 했네. 도읍 사람들 다투어 춤을 추고, 도깨비 떼들 저절로 자빠지네. 평양에서 적을 처음 이겼고. 개성에서 다시 기세를 돌렸네. 군대의 소리는 바다를 뚫고 일어나고, 군사의 기운은 구름과 함께 길었네. 하락(河洛)을 어찌 모름지기 정하랴 풍위(風威)를 누가 감히 당하리 화산에 푸른 빛 뜨고, 한수(漢水)에 맑은 빛 출렁이네. 문헌(文獻)엔 돌아오는 운이 소중하고, 황제는 다시 기강(紀綱)을 떨쳤네. 번개와 천둥이 엄하게 위엄을 떨치니. 개미와 이가 저절로 사자져 없어지네. 한(漢)나라 달은 바야흐로 광채를 드날리고. 요망한 별은 이미 사라져 갔네. 남쪽 바다에 오랑캐를 섬멸하고, 서쪽 땅에서 우리 임금 돌아오시네. 신의 도움으로 군대가 도로 편안하고, 하늘이 붙들어서 왕업이 다시 창성하네. 성군은 항상 간절히 빌고. 어진 장수도 또한 잊기 어려워. 범처럼 보기를 제갈(諸葛) 왕같이 하고. 매같이 드날리는 것은 여망(呂望) 왕과 같네. 종묘와 사직이 복이 오래 계속되고. 노래하는 소리 상서로움 나타내네. 도(道)를 세우니 능히 효험을 이루고. 마음속에 숨긴 것 헤아릴 수 없네. 서생(書生)이 재주가 얃지 않거니, 덬을 칭송하는데 어찌 글이 없으리오 아름다운 시를 이미 노야(老爺)에게 바쳤더니, 동요가 맞은 것을 보고 기쁨과 웃음 을 이기지 못한다. 한가로운 가운데 공손히 받들어 올린다.

원수참모(元帥參謀) 송여량 화인(宋汝樑華人) 답사(答辭)

행인 설반 주문(行人薛潘奏文)

행인사 행인직(行人司行人職) 설반(薛潘)은 왜의 정세가 교활하여 근심스러우므로, 군사를 조련하여 정토(征討)하는 것이 급하옵기로 여기에 방어하는 한두 가지일을 아뢰어 성명(聖明)께서 채택하실 것에 갖추겠습니다. 먼저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반(叛)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자를 다스리시옵소서. 왜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

38 제갈(諸葛):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말함

39 여망(呂望): 태공망(太公望).

렵사오니. 간절히 비옵건대 성명께서는 급히 문무대신을 보내시어 경략(經略)하 여 정토하게 하시어 저들의 미친 꾀를 토벌하고 급한 근심되는 일을 풀어 주게 하 시옵소서. 성지를 받드오니, 조선이 왜놈들에게 함몰되어 국왕이 군사를 청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므로 이미 많은 관원이 가서 그들의 관청 속에서 회의를 했고. 또 그 득실을 탐지해 들어서 문득 참작하여 마땅하도록 받들어 행하게 했습니다. 이 에 속히 가서 구워하게 한 것은 달리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가 다음날에 변방의 해를 주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관 청을 설치하고 장수를 보내는 것을 모두 유서에 따랐사오니 이는 이미 아는 바이 옵니다. 저 병부의 자문에 의하여 예부(禮部)에 있는 것이 저 나라 직함이라 해서 벼슬을 내리기를 청하기에 칙서를 가져다가 선유(宣論)하여 조선 국왕이 이 말을 좇도록 했습니다. 이에 즉시 달려 조선에 이르러서 칙서를 열고 선유하자 그 나라 군신은 모두 감동하여 울지 않는 자가 없이 모두 이르기를. 황은(皇恩)이 소국(小 國)을 불쌍히 여기고 길러 주니 참으로 천지의 어짐과 같다 하면서 왕사(王師)를 맞았고, 또 긴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군신이 무 리가 되어 부르짖는 절박한 말과 눈으로 본 그 괴롭게 유리(流離)하는 모습은 진실 로 존망(存望)이 한 번 숨 쉬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사세의 민망한 바 는 조선에 있지 않고, 우리 국경에 있사옵고, 어리석은 저의 깊이 생각하는 바는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지(內地)에서 놀라 움직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오니 군사를 조련하여 정토하는 것이 경각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청컨대 그 반 드시 이를 형세 및 미리 마땅히 지방을 방비하고 지킬 일을 생각하여 우리 황상(皇 上)을 위하여 아뢰겠습니다. 대체로 요진(遼鎭)은 서울의 왼쪽 팔이옵고. 조선은 곧 요진의 울타리입니다. 영평(永平)은 삼보(三輔)의 소중한 땅이요, 천진(天津)은 서울의 문정(門庭)입니다. 2백 년이래로 복주(福州)와 절강(浙江)이 일찍이 왜의 근심을 당했고. 요양(潦陽)과 천진이 왜의 침략을 당했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은 조선이 병풍이 되어 가렸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은 비록 세 도(道)가 되지만, 그러 나 서쪽에 가까운 세 도는 물이 얕고 강이 좁아서 말이 넉넉히 뛰어 건너갈 수 있 고, 그 한 도는 동서의 거리가 화살 하나의 길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능히 의지하 여 방비하고 지키겠습니까. 만일 왜놈이 조선만 점령하면 요양 백성이 하루저녁도 베개를 편안히 하고 누워 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빠른 바람에 돛을 달고 서쪽으로 가면 영평(永平)과 천진이 먼저 그 화를 받을 것이오니, 서울이 어찌 놀라는 일이 없겠습니까. 신(臣)은 그 사사로운 근심이 계획에 지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발자 취가 이르는 곳마다 자세히 묻고 널리 찾았으며, 또 사람을 보내서 바로 평양 지방 에 가서 알아보게 하고 그 환보(還報)하는 것을 들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왜적들 은 각각 인가(人家)의 부녀를 차지하여 아내로 삼고. 집을 마련하고 양식과 나무를 많이 쌓아 오래 있을 계획을 하며, 병기를 더 만들고 민가에 있는 활과 화살을 찾 아다가 전쟁에 쓰고 있으니. 이는 그 뜻이 적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신(臣)이 도착 하는 날에 그 소문을 듣고 서쪽으로 향하여 압록강에서 군대의 모습을 보았더니. 조선의 신민들은 방황하고 일정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격 심유경(遊擊沈 惟敬)이 분발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단기(單騎)로 말(言)을 통하여 50일 동 안 그 침범을 늦추기를 약속하여 우리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꾀로 저들을 속인다면 또한 어찌 저들도 이 꾀로 우리를 속이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간사하고 교활하여, 바야흐로 평양을 함락시키는 날에 말하기를, 길을 빌려서 원수를 갚겠다 하고, 지금은 말하기를, 길을 빌려서 조공 (朝貢)을 하겠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능히 중국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천고의 유 한(遺恨)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심유경을 통하여 조공을 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 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공손하고 순한 말을 하고, 갑자기 업신여기고 꾸짖는 말을 하니, 이는 그 간사함을 믿기 어려운 것을 대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년에 한 번 조공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한 기일이라 하고 영파부(寧波府)를 거쳐서 입공(入貢) 하는 것을 스스로 정상적인 땅이라 하니, 이제 조선을 끼고 있다가 우리의 약속이 궁해지기를 기다려 거듭 이와 같이 왕래할까 두렵사오니. 어찌 두어두고 묻지 않 겠습니까? 신(臣)이 그들의 꾀가 이같이 교활한 것을 생각해 보니. 그들은 편안하 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군사를 늦출 계획인 것입니다. 혹은 강이 얼기를 기다려 요양 을 범할지. 혹은 봄이 오기를 기다려 천진을 범할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때에 이르러 속히 큰 군사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침범하는 곳에 그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어찌 즐겨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선 이 망해 가는 위급함이 조석에 있사오나 그러나 윤음(綸音)(칙서)을 한 번 펴시어 그 충의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그 적개의 기운을 지어 주신다면 저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회복시킬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없어 맹세코 왜적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 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심을 타서 정병을 더해서 저들과 함께 협공한다면 왜놈을 반드시 섬멸할 것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실로 때를 기다린다 면 저들은 빈궁한 군사를 불러 모으고 흩어진 군사를 편안히 어루만질 것이오, 조 선은 갑병(甲兵)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고 새 임금을 좋아할 것이오니. 이렇게 되 면 비록 백만의 군사가 있은들 어찌 능히 구제하겠습니까. 혹은 이르기를, 군사를 일으켜 가서 정벌하면 한갓 그들을 속히 오게 한다고 합니다. 하오나 신(臣)은 생 각하기에 정벌을 해도 올 것이오, 정벌하지 않아도 올 것입니다. 정벌하면 평양 동 쪽에서 적을 견제해서 그 오는 것은 더디고 화(禍)는 적을 것이요. 정벌하지 않으 면 평양 밖으로 맘대로 들어와서 그 오는 것도 속하고 화도 클 것입니다. 속히 정 벌하면 우리는 조선의 힘을 빌어서 왜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오. 더디게 정벌하 면 왜는 조선 사람을 거느리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臣)이 진 실로 군사를 조련하여 정토하는 것을 경각을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큰 군사를 일 으키는 것이 일시에 되는 일이 아니고 또한 마땅히 계속해서 조련해 가지고 와야 만 조선의 성세(聲勢)의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저들의 넋을 빼앗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군사를 일으킬 비용을 생각하면 양곡보다 급한 것이 없사온데, 신(臣)이 지금까지 저축한 것을 물었더니 겨우 7, 8천 명의 한 달 양식은 된다 하오니, 부족 한 것은 우리가 내어 대어 주어야 할 것이옵고, 그 나라 군신도 또한 많은 인마를 내기를 희망하여. 압록강가에서 양곡을 운반할 것입니다. 평양을 평정한 뒤에 그 나라 신민들은 또한 다행히 우리 군사가 그들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준 것을 다행히 여겨 즐거이 양곡을 운반하여 스스로 가는 곳 양곡을 댈 것이오니. 하물며 왜적이 쌓아 둔 것이겠습니까. 관전(寬奠) · 대전(大奠) · 운양(雲陽) 등지에 이르러서는 서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이웃했고, 동남쪽으로는 압록강을 베개(枕) 했 는데, 압록강은 5백여 리를 뻗혀 있고, 본래 있는 관병(官兵)도 수가 몹시 적어서,

이제 각 병영의 초마(哨馬) 및 해마다 도망한 군사 외에는 관전 · 대전에 실지로 있 는 병영의 군사가 3백 30여 명에 그치니, 이미 왜를 막으려 하고, 또 오랑캐를 막 으려 하니, 보루를 지키는 데도 군사가 없을 수 없고, 둘러서는 데도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가령 왜가 과연 온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에 관전과 대 전 등지의 관병은 속히 더 설치하지 말 것입니다. 북쪽 사람은 오랑캐를 잘 막고, 남쪽 사람은 전쟁을 잘 하오니. 왜와 싸우려면 남쪽 군사 2만 명을 얻지 못하면 어 떻게 그 칼날을 꺾고 그 기운을 분지르겠는가. 그렇다면 남쪽 군사를 속히 조련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의 장기는 말 타고 활 쏘는 데에 있고, 왜의 장기는 조총(鳥銃)에 있사온바, 화살이 오는 데에는 투구와 갑옷으로 피할 수 있지 만, 조총이 오는 데에는 군사와 말이 당해 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등패(籐牌)가 있어 이미 몸을 가릴 수 있고 또한 말도 가릴 수 있으니. 등패와 조충도 또한 모두 속히 조치하시옵소서. 신이 말하는 바는 여러 신하들이 먼저 말했으니 어찌 신의 말씀을 기다리오리까. 돌이켜 생각하건대, 하루가 빠르면 조선은 하루 동안 망하 는 근심을 면할 수 있고. 하루가 늦으면 우리 국토의 하루의 근심을 끼치게 되오니 바라옵건대 성명께서 밝게 판단하시옵소서, 칙서를, 일을 맡은 부(府)에 내려 이 를 의논해 가지고 일을 당한 여러 신하에게 실행하게 하여, 병마(兵馬)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면 나라 땅이 몹시 다행하겠고 종묘와 사직이 몹시 다행하겠습니 다. 신은 기인(杞人)40의 근심을 이기지 못하옵는바. 바람과 추위를 입어 군사들이 중도에서 병이 들어 빨리 나가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한마음의 지극한 충성이 늦 추어지고 일에 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 글을 써서, 먼저 가인(家人) 설지재(薛 志齋)를 보내서 삼가 아뢰는 바입니다.

도체찰사(都體察使) 정철(鄭澈)의 유의군문(諭義軍文)

종사(從事) 신흠 술(申欽述)

아아! 임금의 행차가 파천하고 종묘와 사직이 빈터만 남아, 나라 운수의 어려움이

40 기인지우(杞人之憂):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고사(故事)에서, 쓸 데없는 걱정을 이렇게 말함.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다. 다행이 우리 조종의 깊은 은혜와 두터운 혜택이 사람 의 골수에 맺혀져서 백성들이 모두 중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 아직 이들을 아주 끊지 않았다. 이리하여 초야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의리로 분발하고 모두 충 성으로 절개를 잡아, 마음에 맹세하고 손에 침을 뱉고서 혹은 진신(搢紳)에서 일어 나고, 혹은 선비로서 일어나며, 혹은 시골의 숲 속에서 일어나며, 구름같이 모여들 어 서로 응하고 안개처럼 불어서 많아진 것이 대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의로 운 소리가 미치는 곳에 왕령(王靈)이 혁혁하여 나라 형세를 아주 위태로울 때에 보 전하게 되었으니 어찌 여러분의 힘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담규(儋圭)가 더위에 입 는 옷을 꺾어 (결(缺)) 영화가 나타나기를 빌어 두터운 이익을 입은 자가 어찌 하루 아침에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 한 사람도 여기에 힘을 써서 나라에 의지하게 하는 자가 없고, 도리어 임금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해가 찬 뒤의 지 조와 나라가 망할 때의 정성이 그대들로서 보면 공손히 천벌(天罰)을 행하여 저들 의 요망한 무리를 쓸어버려서, 비린내 나는 더러움을 대궐에서 씻어 내고 독한 벌 레를 나라 안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대들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는가. 여러분의 책 임이 무거우니 힘쓰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날의 첫째가는 의리이니,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는 또한 감히 이것을 벗어나 달리 구할 수가 없노라. 내 장차 먼저 의병의 말을 하고, 다음으로 힘쓰고 권면하는 실상을 말하겠는데 좋겠는가? 아아! 세도(世道)가 이미 무너지고 인심이 어두워져서 의리의 실상을 아는 자가 드 물다.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를 사사로이 하고, 벼슬에 있는 자는 그 벼슬을 사 사로이 한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그 몸을 사사로이 하고, 그 처자를 사사로이 하 여. 의리라는 말을 다시 세상에 묻지도 않고서. 바른 것을 얻지 못한 마음으로 사 욕만을 채우다가 하루아침에 의병이란 말을 들었으니. 이는 진실로 월(越)나라 개 가 눈(雪)을 보고 짖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지방에 들어온 후로 지방에 서 아전 노릇하는 자가 서로 이끌고 와서 말하기를, 어떤 장수가 관병(官兵)을 무 찔렀고. 어떤 진(陣)에서는 관군(官軍)을 빼앗았다고 하여.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많 고도 잦았었다. 이에 처음에는 웃다가 중간에는 괴상히 여기고, 나중에는 놀라서 말하기를,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것이니, 함께 나라 일을 할 뿐인데, 그 서로 기쁜 것이 이와 같은가 하고, 혹은 물리치고 채택하지 않고, 혹은 받아들여 조사해 보기 도 했었다. 그러나 이윽고 또 의병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 와서 말하기를, 어느 군 (郡)에서 우리 군(郡)을 침략했고, 어느 진(陣)에서는 우리 진(陣)을 습격했다고 해 서, 죄주라고 청하는 자도 있고, 호소문을 바치는 자도 있다. 그리고 (결(缺)) 이보 다 더 심한 것이 있으니, 나는 이에 대하여 깜짝 놀라 일어나서 수저를 버리고 말 하기를. [결(缺)] 부모가 병이 있어서 목숨이 조석에 있을 때 허다한 여러 아들 중 에서 불행히 한두 사람의 의논이 같지 않은 자가 있어서 뜻이 정성스럽지 못할 때 는, 효자가 나서서 마땅히 성심껏 타이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하여, 혹 서로 좋 아하기는 하지만 서로 어긋나지 말아서. 의원과 약을 쓸 일에 급급하여 보호할 뿐 인 것이다. 부모의 병에 있어서 또 눈을 부릅뜨고 정찰하고 엿보아 험을 잡아내 가 지고 부모의 곁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시 의원이나 약으로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부모로 하여금 끝내 죽게만 하고 만단 말인가? 대체로 의리란 마땅한 것 이니, 선유(先儒)들이 풀이하기를, 마음의 제약(制約)이오 일의 마땅함이라 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마음에 제약하는 것이 없으면 의리가 아니오, 일이 혹 마 땅함에 어긋나면 이는 의리가 아닌 것이다. 이제 적을 토벌하는 한 가지 일을 가지 고 의논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적을 막는 것은 모두 의리요, 나라를 위해서 군사 를 모으는 것도 모두 의리이니. 어찌 일찍이 관(官)과 의리의 갈림이 있겠는가? 그 런데 어찌하여 처음에는 말을 가지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문부를 가지고 힘난하고. 그래도 오히려 부족해서 꾸짖고 욕하다가 계속해 와서 보고하다가 그래도 그 맘대 로 되지 않으면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어. 길이 읍(揖)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자 도 있고. 뻣뻣이 서서 흘려 보는 자도 있으니. 아아! 이것이 무슨 사리(事理)란 말 인가? 이것을 과연 마음에 있는 바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것을 과연 일이 그 마땅 함을 얻었다 하겠는가. 내 진실로 그 예리한 것을 맞아서 부식(扶植)할지언정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머물러 두겠는가? 생각하건대 국가가 되는 것은 통속 (統屬)의 힘을 유지(維持)하는 때문이니, 위로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서리(胥 吏)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방악(方嶽)으로부터 적게는 감부(監簿)에 이르기까지 기 강을 지키고 혈맥(血脈)이 관통되기 때문에 호령과 상벌(賞罰)에 막히고 방해되는 근심이 없는 것이다. 지금의 의병은 진실로 3, 40개가 되는데, 각자가 장수가 되 어 통령(統領)이 없이 무리와 무리끼리 서로 모여서 성세(聲勢)를 서로 접해 보지 도 못했고, 인정이 이기는 것을 좋아해서 서로 남의 밑에 있기를 싫어해서 화합하 려고 생각지 않고 서로가 스스로 시기만 한다. 한 현(縣)이 이와 같고, 한 군(郡)이 이와 같아서, 끝내는 심지어 한 도(道)가 이와 같으니 큰 공을 어찌 스스로 세우며, 큰 뜻을 어찌 스스로 이루리오. 그러니 그 이른바 의리라는 것은 역시 한갓 이름뿐 이요 실지가 없을까 두려울 뿐이다. 나는 일찍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깊이 스스로 헤아려 보았다. 이제 들으니 홍양(洪陽) 심 상국 수경(沈相國守慶)이 일어나서 원 수(元帥)가 되어 의병의 수모(首謀)가 되었다 하니 진실로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한 다. 이에 사사로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국가의 복이오, 생민(生民)의 다행함이 다. 또한 이는 우리 의병과 관군이 서로 조화(調和)하고 화목하여 모든 일에 보조 를 맞추고 서로 의뢰하여 일을 이룰 기회이다 했다. 공손히 생각건대. 상국(相國) 은 한마음 충성됨으로 양조(兩朝)의 원로(元老)이다. 그 빙옥(氷玉) 같은 행동으로 전고(典故)에 통달했으며, 문무의 재주를 온전히 하여 일찍부터 명예가 있었으니, 여러분을 위한 계획으로는 각각 그 군사를 거느리고 대소와 원근이 없이 모두 상 공(相公)의 휘하에 모여서, 북을 울리거든 나가고 금을 울리거든 물러나 오직 상 공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한갓 의기가 더욱 떨칠 뿐 아니라, 그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따르는 것이 뚜렷하고 어그러지지 않으며. 알선하고 운용하는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정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모순되고 남을 간섭하는 근심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아아! 천 균(千鈞) 무게의 활과 만 균(萬鈞) 무게의 돌을 장차 들어서 딴 곳 으로 옮기려면, 천만인이 일제히 소리치고 힘을 합치면 움직일 것이요. 그렇지 않 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만인의 무리라 도 어찌 굴하고 막히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기운을 오로지하지 못하고, 힘을 합치 지 않으면 끝내 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결(缺)] 하물며 붙들었던 것이 이미 자빠지고 가졌던 것이 이미 위태로워. 국가가 장차 끊어지려는 맥(脈)을 이어야 할 것인데, 이 어찌 그 사이에 두 갈래가 될 것인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망하 는 것을 재촉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결(缺)) 이미 나고 이미 쭈그러져 나라 형세가

이미 급하데, 사방을 돌아보아도 텅 비어 있어 한 사람도 믿을 자가 없고, 오직 믿 는 바는 여러분의 의병을 일으키는 일뿐이다. 정신은 금석(金石)도 꿰뚫고, 지성은 (결(缺)) 바라건대 여러분은 일시의 조그만 공을 스스로 기약하지 말며, 일시의 조 그만 다툼을 혐의로 여기지 말고, 성의껏 서로 이끌어 주어 심상히 일어선 자는 오 직 적을 치고 원수를 갚기로 일을 삼는다면 사람들이 포대기에 쌓인 듯이 와서 여 러분의 막부(墓府)에 와서 서기를 원할 것이니. 비록 백 명의 수령(守令)인들 여러 분을 대항하겠는가. 그렇지 않고 한갓 군사를 모으는 것만 내세우고 일찍이 적진 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한 명의 적의 괴수도 베지 않고서 세월만 보내고 앉아서 성패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능히 의리를 행한다 하면 어디에 그 의리가 있단 말인 가. 지금 영남의 적을 보건대 퍼져 나가는 것이 바야흐로 심해서. 죽산(竹山)의 적 이 출몰하는 것이 때가 없고. 운봉 · 금산의 길이 한번 열리고 보면 전라도 경계가 우리 소유가 아닐 것이며. 직산 · 평택의 요충을 지키지 못하면 호서(湖西)는 우리 소유가 아닐 것이다. 백 번 패한 나머지에 겨우 수습함을 얻었는데, 혹시 또 패하 고 보면 다시 합해질 날이 없을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심담(小膽)이 모두 갈라진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분은 모름지기 깃과 털이 이미 이루어지고 항오(行 伍)가 이미 나뉘기를 기다려 그 군대를 정리하여 저 들로 나가서 그 요해처를 살피 고 그 늦출 것과 급한 것을 보아서. 병영(兵營)을 연하고 주둔하는 것을 벌여서. 백 리에 서로 바라보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의지하여 한 도(道)를 지킨다면 저 날뛰는 남은 무리들이 반드시 장차 소식만 듣고서도 두려움을 알아서 감히 넘겨다볼 마음 을 내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허원(許遠)4은 수양(睢陽)의 장순(張巡)에게 양보했 고. 분양(汾陽) 4은 공의(公義)로서 아문(牙門)에게 신하 노릇을 했으니. 이는 모두 나라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잊고서, 서로 구제하고 서로 이루게 했기 때문에 그 큰 공과 위대한 이름이 지금까지 빛나서 이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⁴¹ 허원(許遠) : 당(唐)나라 사람. 현종(玄宗) 때 장순(張巡)과 군사를 합하여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다가 성이 한략되자 함께 잡혀서 죽었음.

⁴² 분양(汾陽) : 곽자의(郭子儀). 당(唐)나라 사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분양(汾陽)이라 일 컬었음. 숙종(肅宗) 때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했으며, 또 토번·회흘의 군사를 격파하여 상보(尚父)의 칭호를 받았음.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를 본받아 스스로 면려하면, 장차 붉은 하늘이 다시 트이고 어둠이 다시 밝아져서, 우림(羽林) (결(缺)) 곤룡포와 면류관을 북쪽 대궐에서 바로잡을 것이며, 여러분의 의리 있는 소리도 또한 마땅히 함께 무궁하게 아름다울 것이다. 내 비록 보잘것없으나 감히 둔한 말을 채찍질하고 둔한 칼을 갈아 가지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 여러 이름을 이루지 않으리오. 바라건대 여러분은 끝까지이를 도모하기 바라노라.

황조사신유의사문(皇朝使臣諭義師文)

명(明)나라에서 경략 방해어왜군무병부 무고청리사원외랑(經略訪海禦倭軍武兵部 武庫清吏司員外郎) 황상(黄裳)과 직방 청리사주사(職方清吏司主事) 황원(黄袁)을 보내서 의사(義師)를 권유(勸論)하여 함께 흥복(興復)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너희 나라가 본래부터 문물에 도탑고. 대대로 충성함과 곧은 것에 돈독함을 알았노라. 이번에 왜의 오랑캐가 명령을 좇지 않고 길게 몰려와 잠식(蠶食)해 들어와서, 군 신(君臣)이 풀 속에 숨고 영락(零落)하여 유리하기를 어찌 그다지 오래 하는가. 우 리 대명황제(大明皇帝)께서 너희가 2백 년 이래에 정성껏 신하의 절도를 지킨 것 을 생각하여, 만금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장수에게 명하여 가서 정벌하게 했는데. 너희 나라 속에는 어찌 종척(宗戚)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받아 충분(忠憤)의 뜨거 운 마음이 없으며, 어찌 고을과 지방을 지키는 관원으로서 강개히 명령을 받은 자 가 없으며, 어찌 충신으로서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욕된다는 마음이 없으며, 어 찌 의사(義十)로서 몸을 죽여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싹트는 사람이 없겠는가. 마땅 히 황위(皇威)의 노여움이 겹치는 것을 알아. 속히 의병을 불러 모아 각각 한 부대 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결(缺)) 이제 왜 오랑캐가 강한 것을 나타내어 그 형세 가 반드시 멸할 것이니. 시험 삼아 서로 함께 계획하여 먼저 [결(缺)] 지난해에 목 성(木星)이 인(寅)으로 들어오더니,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침입하여, 하늘을 거역 하고 행동하니 비록 강하나 역시 약한 것이니. 이것이 하나요. 왜가 (결(缺)) 하늘 이 양명(陽明)해서 금을 말리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기운이 되는 것이고, 입춘(立 春) 후에는 오히려 (결(缺)) 살아지지 않아, 하늘의 때를 이용할 만하니, 이것이 두 번째요. 너희 나라 군신이 모두 (결(缺)) 기운을 품어서 무성하고 통달하여 익힌 것 같고 덮은 것 같아서, 왕기(旺氣)가 우리에게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 으니 이것이 셋째이다. (결(缺)) 우리 큰 나라의 웅병(雄兵)이 범과 같고 곰과 같 고, 대적할 수 없는 대포가 한 번 쏘면 천 보(步)를 가는데, 저들이 힘을 헤아리지 않으니, 마땅히 나물가루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요. 경력(經歷) 송응창(宋應 昌)이 깊은 기틀과 저축한 계획은 귀신도 헤아리기 어렵고. 이 제독 여송(李提督 如松)은 한마음 충성과 의리로 백 번 싸운 용맹이 옛날에도 장수의 풍도가 있다는 이름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본래부터 충성되고 곧은 마음을 가져 마음을 같이하 고 서로 도와서 이 적을 멸하여 천자에게 보답할 것을 맹세했으니, 두 나라 군사 를 합쳐서 이 궁한 외적을 몰아내기는 쉬워 귀걸이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으니 두 가지요. 관백(關白)이 강하고 사나워서 위로는 그 임금을 겁을 주어 제어하고 아 래로는 그 무리를 사납게 부리므로 하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손을 빌리 고 있으니 셋째이다. 어제 국왕(國王)을 보니, 행동이 안상(安詳)하고 모양이 준걸 (俊傑)하니 형세가 반드시 중흥(中興)할 것이다. 또 너희 나라에서 전번에 여러 사 신들을 보내서 천조(天朝)에 군사를 청했는데, 성의가 간절해서 눈물이 비 내리듯 하여 거의 신포서(申包胥)생가 초(楚)나라에 가서 운 뜻과 같았다. 군신이 이와 같 으니 어찌 끝내 윤리(倫理)가 곤(困)하겠는가. 순(順)으로 역(逆)을 토벌하니. 어느 공은 이루지 못하리오. 이것이 넷째이다. 왜놈이 가진 것은 오직 조총(鳥銃)인데. 그러나 세 번 쏜 뒤에는 곧 계속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군사가 비록 많아도 강 한 자는 몇이 되지 않는다. 또 그 앞에 가는 자 2, 3백 명만 죽이면, 나머지는 모두 소식만 듣고 도망하니 이것이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요. 정(正)히 지사(志士)가 공 을 세울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을 내려. 너희 나라 우리나라를 따질 것 없이 다 만 능히 평수길(平秀吉)과 다음으로 중 현소(玄蘇)를 사로잡거나 베는 자가 있으면 매 한 사람마다 상으로 은(銀) 일만 량을 주고, 백작(伯爵)에 봉하여 대대로 계승하

⁴³ 신포서(申包胥): 춘추(春秋) 때 초(楚)나라 사람, 오(吳)나라가 초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포서(包胥)는 진(秦)나라에 들어가 구원병을 얻어다가 초나라를 구원했는데, 이때 7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진나라 궁궐 뜰에 앉아 소리 내어 울었으므로, 진나라 애공(哀公)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구원병을 내보냈다.

게 할 것이며, 평수진(平秀鎭) · 평행장(平行長) · 평의지(平義智) · 평진신(平鎭信) 등과 이름 있는 여러 추장(酋長)을 사로잡거나 베는 자는 매명마다 상으로 은 일천 량을 주고 세습(世襲)으로 지휘사(指揮使)를 시킬 것이며, 그 이하 사람을 사로잡는 자에게도 상을 줄 것이니, 너희 나라 백성들은 능히 때를 타서 무리를 규합하여함께 큰 공을 세우면, 이미 본국의 사직을 회복하고, 또 천조(天朝)의 두터운 상을받아, 쇠한 나라의 남은 백성으로서 집을 일으킨 시조(始祖)가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이 글은 모름지기 속히 전시해서 각 도의 신민으로서 의병을 이미 일으킨 자는 되도록 앞으로 나가고, 아직 일으키지 않은 자는 속히 일으켜 모아서, 혹 힘을 합하여 그들의 위엄을 꺾고, 혹 달려 나가서 그 형세를 나누게 하며, 혹 그 돌아가는 것을 맞아 싸우고, 혹 그 양곡의 길을 끊어서, 여러 곳에서 기회에 마땅하게 하고, 모두 들어서 스스로 편하게 하라.

이에 자문을 보내는바, 위 글은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주노라.

만력 21년 정월 7일.



계사일록 | 癸巳日錄

정월

1일. 오늘은 곧 정월 초하루이다. 유리하면서 만 번 죽을 뻔도 한 나머지 다시 한 살을 더했는데, 흉한 적은 아직도 섬멸하지 못했고, 장상(將相)이 이를 담당할 사람이 없으니, 비록 통분해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어머니를 모시고 아우와 처자를 데리고 모두 한집에 모여서 과세(過歲)하니, 이것이 한 가지 다행한 일이다. 윤겸이 보령으로 돌아갔다.

2일. 식사 후에 사포(司圃) 아저씨를 가 뵙고. 그 길로 김정형(찬선)의 숙소와 이익 빈의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 생원 광축이 따라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파하고 왔는데, 이광축의 집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왔다. 뒤에 들으니 김 정자 자정 [김지남]이 왔다고 하므로 계당으로 달려가서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된다. 서 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함께 내 숙소에서 잤다. 그에게 들으니 중국 장수 심유경(沈惟敬)이 수십 기(騎)를 거느리고 평양 십 리 밖으로 달려오자 적장 도 또한 수십 명 군사를 데리고 나가 맞아서 말 위에서 인사를 하고, 그 길로 성 밖 에 이르니, 적의 대장이 또 5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걸어서 나와 맞으니, 중국 장 수도 또한 말에서 내려 서로 읍(揖)하고 성으로 들어가 이틀 밤을 유숙했는데, 백 금(白金) 80량과 비단 두 동을 주고 돌아오니, 적장도 또한 백미(白米) 15석, 소다 리 8개 · 돼지 어깨 15짝을 갖다 바쳤다. 그러나 그간에 서로 이야기한 일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 중국 장수를 따라 십 리 밖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한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 십만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다 하니. 만일 그렇다면 생각건대 이미 평양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처음에 들으니, 중국 장수 □□가 적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니, 이제 다 시 들으니 이와 같으니 먼젓번 말은 헛말이었다.

3일. 이른 아침에 자정이 예산으로 돌아갔다. 종 막정과 말질손이 말을 가지고 대흥 윤함의 처가 농장에 보내서 정조(正租) 30두를 싣고 왔다. 이것을 윤함의 장인 편지에 의한 것이다. 춘이를 최희선의 처가에 보내서 마초(馬草)를 싣고 왔다. 오

세량 및 문응인 · 최응룡 등이 어제 와서 어머니께 뵈었는데, 나는 마침 출타해서 만나지 못해 한스럽다. 자정에게 들으니, 조정에서 지시가 와서 체찰소에 무과(武 科) 1만 2천 명을 뽑으라 했는데, 호남(湖南)은 5천이요, 호서(湖西)는 3천이오, 영 남(嶺南)은 2천이오, 경기도 2천이라 한다. 또 호남 유생 정언납(鄭彥納) 등이 소 (疏)를 올려. 체찰사가 여러 고을의 가장(假將)을 보낼 때 사사로운 인정을 썼다고 말했다 한다. 청주 · 목천 유생들도 또한 글을 올려 체찰사의 과실을 말하여. 왼쪽 손으로는 기생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아서 주색에 거칠다고 했다니.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이같이 지나치게 할 수가 없다. 만일 술을 마신 것이 지 나쳤다면. 이는 체찰사가 평일에 술 마시기를 좋아했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겠 지만, 기생의 손을 잡았다는데 이르러서는 이 같이 패망하는 날에 중한 책임을 맡 아 가지고 어찌 기생을 이끌고 마음 놓고 즐길 틈이 있단 말인가? 딴 사람으로서 도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더구나 하물며 송강(松江)(정철)이 차마 할 수 있 단 말인가. 사람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 처리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이 많다고 하니 비록 자세치는 못하지만 임명되어 온 자가 옳지 못한 자가 많다 고 하니, 이는 반드시 사람들의 말과 같을 것이니 아까운 일이다. 그 후에 들으니, 목천 유생의 글은 과연 올라가지 않았고, 무과(武科)에 일이 많아서 또한 사람을 뽑지 않았다 한다. 또 들으니 호남순찰사 권율과 체찰사가 불화해서 일이 잘못되 는 것이 많고 그 영을 좇지 않으며, 또 조정에서 호남 순찰처에 글을 내렸으나 그 절제(節制)를 듣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틈을 내는 말일 것이다. 안팎의 말 이 모두 여기에 모였으니. 비록 악무목(岳武穆)의 충성과 용맹으로도 오히려 밖에 서 성공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송강은 본래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던 터이고 보 니 그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다. 벼슬을 바꾼다는 명령이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내려올 것이다. 또 다시 들으니, 목천 유생들은 남에게 중지당해 과연 올라 가지 못했다 한다.

4일.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 계신 곳에 가 뵈었더니, 김정형 및 장 주부 응명·윤 진사 민헌·김극·한박·이귀령(李龜齡)이 모두 모였고, 이 생원 익빈도 따라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파했다. 허영말(許永末)은 그저께 와서 보고 오늘 아침에 돌아 갔다. 또 들으니, 단성령(丹城令) 청(淸)이 글을 올려 오 흉(五兇)의 죄를 동궁(東宮)에 청하자, 동궁은 대답하기를, 내 어리고 불초(不肯)한데 중한 책임을 맡은 지세월이 이미 오래인데, 충의의 선비는 오지 않고 적을 토벌하는 공을 이루지 못했으니 내 몸의 허물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제 단성령 청은 종실의 사람으로 국가와 기쁨과 걱정을 같이할 터인데도 한 마디도 나의 허물을 바로잡아 주지 않고, 이제 일이 조정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여 내가 마땅히 들을 것이 아니라 하여 망령되게 말하고 거리낌이 없으니, 마땅히 중한 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상 내가 옳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므로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형세가 그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정원(政院)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했다. 단성령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찌 마땅히 말하지 못할 일을 동궁(東宮)에 말한단 말인가? 이는 불화를 격동해 일으키려는 한 가지 일이다. 괴상한 아이들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 곧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탄식할 일이다. 그러나 동궁의 하교한 말씀이 지극히 마땅하니, 신민의 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기약을 서(好)서 기다리면 올 것이다.

5일. 아우 희철과 그 처자가 강화에 있을 때 옴이 온 몸에 가득하던 것이 여기에 온 후로 더욱 심해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또 붕아와 그 어머니는 가슴앓이가 더욱 급해서 음식을 들지 못한다. 남쪽으로 갈 기일이 박두한데 병세가 이와 같으니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계집종 동을비(冬乙非)는 도(道)에 있을 때 부증(浮症)을 얻었는데, 여기로 온 뒤에 온 몸이 부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여 또한 음식을 들지 못하니 필연 죽을 것이다. 선대(先代)로부터 내려온 늙은 종이 여기 와서 죽다니, 그 상서롭지 못함을 어찌 말하랴. 어제 윤겸의 글이 왔는데, 보령으로부터 꿩 한 마리를 보내왔다. 이는 곧 그 군관이 활을 쏘아 잡은 것이라 한다. 즉시 어머니께 바치니 기쁜 일이다. 오늘은 곧 아내의 생일이다. 윤해 처가 떡을 쳐서 가지고 왔고, 윤겸의 처자는 그 집에 홍역이 들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오후 사포(司圃)댁에 갔더니, 이 생원 익빈이 두부를 만들어 나와 마을 사람을 맞아다가 함께 먹었다. 여기에 참석한 자는 곧 김정형과 장 인의 응명ㆍ윤 진사 민헌ㆍ김극ㆍ한박ㆍ이귀령 등인데 각각 배불리 먹고 돌아왔다. 저녁에 희철의 처남 김담명이 왔다 갔다.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 누이를 보기 위해서이다.

6일. 나는 어제부터 감기가 들었는데 밤에 온돌에서 땀을 냈더니 나은 것 같다. 다만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 근심스럽다. 어머님도 또한 감기가 계시어 속머리가 아프시어 음식을 들지 못하시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밤사이에 비록 땀을 내고 조금 차도가 계시나 내일 길에 바람을 쐴 수 없으니, 아주 나으시기를 기다려 떠날 작정이다. 또 붕아의 복통은 오래 차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당을 데려다가 기도하여 회복되기를 바랐다. 또 김 진사 덕장이 와서 보았는데, 일찍이 뜻밖에 만나는 터라, 십분 기쁘고 위로된다. 좋지 못한 백주 석 잔을 대접하여 보냈다. 들으니 그는 부여 농촌에 와 있다고 한다. 저녁에 허 사복 탄의 아내가 어머님께 뵙고자 결성으로부터 아들 영말(永末)(허영말)을 데리고 소를 타고 왔으니 가련한 일이다. 조도어사(調度御史)가 어제 홍주로 들어와서, 내가 이 고을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나를 맞아 만나려 했으나, 내가 남쪽으로 갈 날이 가까워서 사양했다.

7일.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쾌차하지 않으시어, 근일에는 형세가 떠날 수 없으니 민 망스럽다. 늦은 아침에 홍주로 가서 조도어사 이 공 철 강중(李公鐵剛仲)을 만나려 했으나 중도에 눈을 만나서 바람과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간신히 성문 밖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먼저 종을 시켜 성명(姓名)을 통했더니, 즉시 관인을 보내서 나를 맞는다. 문에 들어가 서로 만나니 슬픔과 기쁨이 한데 섞인다. 각각 유리하던 어려운 모양을 이야기하고, 오늘 만날 줄 몰랐다고 했다. 계속하여 자미(이빈)의 죽음을 말하니, 지극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저녁에 통판 황언이 술과 안주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마시는데, 어사와 대흥군수 신괄 및 내가 함께 자리하여 밤이 깊어서 파했다. 신 공은 중국 군사의 양곡을 대 주는 차사원(差使員)으로서, (결(缺)) 어사의 영(令)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다. 서로 자리를 연해 누워서 밤새 이야기하니, 유리하는 중에 근심스런 회포를 조금 풀 수가 있으니 다행스럽다.

8일. 강중(이철)과 아침밥을 같이 먹는데, 박 참봉 원호도 역시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조금 있으니 목백군수 이 공 총(李公聰)이 들어가 어사를 뵙는데 나도 또한참례해 보았다. 그는 곧 주자동(鑄字洞) 사람이다. 나이 어려서부터 서로 알았는

데,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30여 년이나 된다. 나는 비록 그 이름을 알아도 그는 알지 못하다가 자세히 그 내력을 이야기한 뒤에야 알았다. 아침 식사를 대한 후에 나갔다. 판관 황 공은 곧 나의 7촌 친척으로서, 서울 있을 때, 각각 멀리 살아서 면목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 만났는데 친척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 사람됨을보니, 교만하고 경솔하게 보이니, 그야말로 복이 먼 사람이다. 그 삼촌의 부음을듣고서 다시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한다. 늦은 후에 강중과 작별하고 오는데, 강중이 나에게 백저(白楮)한 묶음을 준다. 계당에 도착해서 들으니, 안 장원 창(安掌苑)에 여기에 왔다가 마침 내가 없어 만나지 못했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어머니의감기 증세는 밤에 땀을 내시고 소복되셨으니 기쁜 일이다. 영말의 어미는 하루를 머무르다가 돌아가서, 내가 도중에서 만났다.

9일. 오늘부터 어머니께서 식사를 더하시는데, 다만 입에 맞는 음식이 없으니 몹시 민망하다. 용인에 사는 충의 (결(缺)) 가 역시 난을 피해서 가까운 이웃에 와 있다가 내가 여기 와 있단 말을 듣고 와 보고 갔다. 같은 마을 사람 조항복(趙恒福)이와 함께 와서 보고 갔다. 이 진사 득천(得天)이 난을 피하여 또한 연산 땅에 와 있다가 (결(缺)) 지나가다가 들어와 보았으니, 이는 뜻밖의 일이라 기쁘고 위로된다. 득천의 아버지는 곧 나의 소년 때 벗으로서 동갑이요 같은 마을 사람이다. 지금 연안에 있는데 아무 병도 없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저녁밥을 대접했으나 이곳에는 잘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 생원 익빈의 집으로 보냈으니, 이는 이(李)와 서로 알기 때문이다. 언명의 장인 김철이 태인에서 종과 말을 보냈기 때문에 언명은 그 처자를 데리고 내일 갔다가 돌아온 뒤에 어머니가 가시도록 결정했다.

10일. 언명이 그 처자를 데리고 떠나서 호남으로 가는데, 붕아는 복통이 아직도 그 치지 않아서 떠나보내지 못했다. 휴일에 갈 때에는 인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보냈으니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밤새 아프던 것이 심해져서 사지가 풀어지는 것 같으니, 이는 필시 그저께 홍주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바람과 추위에 시달린 까닭이다. 저녁에 계당에 와서 잤는데, 생원과 인아가 그 집에 가서 잤다.

11일. 병이 전과 같으면서도 더하여 식음을 전폐하니 반드시 중상한 것이다. 민망하고 민망하다. 어머님의 기력은 비록 차도가 있으나 식사가 점점 감해지고 해소

가 끊어지지 않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12일. 지난밤부터 병이 더하여 밤새도록 뒹굴면서 자지 못하고 보니 새벽이 되자머리를 들 수 없고, 요통이 심하니, 비단 내 한 몸의 걱정일 뿐 아니라, 어머님의 근심을 몹시 끼쳐드리니 더욱 몹시 민망하다. 오후에 병이 좀 덜한 듯 싶으나 음식을 들 수가 없다.

13일. 지난밤부터 병이 더 회복되어 자고 눕는 것이 평상시와 같다. 다만 속머리가 때로 조금 아프기에 녹두로 쓴 찬 죽을 많이 마셨더니, 이로 인해서 다시 두통을 얻어, 이로부터 3월에 이르기까지 병으로 인해서 일기를 기록하지 못했다. 정월 10일에 병을 얻어 2월 24일에 조금 소복되어 27일에 비로소 흰 죽을 먹었고, 3월 초생에 비로소 마른밥을 먹었다. 10일 후에는 날로 점점 차도가 있어 밥을 먹었고, 보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걸음을 배웠다. 당초에 병을 얻고 10여 일이 지난 뒤에는 병세가 몹시 중하여 날로 더욱 위태롭고 괴로워 인사를 차리지 못했으며, 생원의 양모(養母)도 또한 그 병이 전염되어 누워서 17여 일을 앓았고, 생원도 또 그 병을 얻어 더욱 몹시 아프다가 20여 일만에 조금 차도가 있다. 단녀(端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女)도 또한 병을 얻어 20여 일이 되었으며, 몽임(蒙任)·충립(忠立)도 모두 병을 얻어 고통스러워한다. 어머니께서는 용곡역(龍谷驛) 절의 중 기매(其每)의 집으로 피하셨다가 내 병세가 몹시 위태로우므로 2월 17일에 아우가 모시고 영암으로 갔다. 이때 인아도 또한 같이 갔는데, 갈 때 울면서 따라갔으니, 나도 또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내 병이 이와 같은데, 생원(윤해)도 또 누웠고, 윤겸은 온 집의 병을 구원하느라고 모시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아로 하여금 부득이 모시고 가게 했으니, 또 반드시 그 병이 전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17일에 어머님께서 남쪽으로 가시자, 그날 저녁에 나도 또한 어머니가 계시던 집으로 옮겨서 장녀 및 윤겸 내외를 데리고 있었는데 윤해의 처는 내 음식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단아의 병이 차도가 없기 때문에 한때 오지 못하고, 단아가 조금 낫기를 기다려서 같은 달 25일에 둘째 딸과 함께 내 숙소로 왔다. 이날 아침 식사 후에 윤함이 들어왔는데, 이는 뜻밖이라 슬픔과 기쁨이 한데 섞인다. 윤함이 해서(海西)에 있을 때, 체찰사가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주(本州)(해북(海北))로 들어와서 정 시랑 종명(鄭侍郎宗溟)을 가 보았더니, 그가 내가 병사(病死)했



평양성 탈환도 ©고려대학교박물관

다고 잘못 말했기 때문에 이튿날 달려와서 큰 바다를 건너 강화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육지로 대흥(大興)의 그 처가 농막(農幕)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헛소리 란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체찰사가 본도(本道)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었 다고 잘못 전하고, 심지어 윤겸에게 조장까지 보냈다니 가소로운 일이다. 지난 15 여 년 전에 내가 양지(陽智) 농촌에 있을 때, 죽산에 사는 맹인 김자순(金自順)을 불러서 내 나이를 점치라고 했더니. 자순은 말하기를. 나이 54세인 임진(壬辰)에 큰 횡액(橫厄)이 있고, 이것을 지나면 나이 70이 넘는다고 했다. 나는 이것을 심상 히 알고 믿으려 하지 않았더니, 올봄 병에 비록 다행히 죽음을 면했지만 그 병세 를 보건대 10중의 9는 위급하고 오직 1분만이 다행할 뿐이니. 지금 비록 죽지 않는 데도 몸이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니. 어머니와 아우와 처자의 유리하는 괴로움이 다. 나도 또한 비록 장수에 있었지만 산골짜기로 도망해 숨는 근심을 면할 수 없었 고. 매양 늙은 어머니와 처자의 골육의 사생을 생각하여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 었고, 근심스럽고 답답한 회포를 하루도 늦춘 때가 없었으니, 다행히 늙은 어머니 와 처자와 아우와 누이가 각각 보존함을 얻어서 각각 서로 만날 수가 있어서 스스 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올봄 병은 한집에서 서로 전염되어 누운 자가 5. 6명이나 되고. 홍역이 또 들어서 단녀 · 충아와 몽임 및 종 명복 · 안손 · 계집종 춘월 · 신덕이 일시에 앓고 있으니, 그간의 아픈 괴로움과 근심하고 민망한 마음이 마땅히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니 자순의 말을 우연히 기억하였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다. 나는 45일 동안을 앓다가 조금 회복되었으니 딴 사람의 아픔에 비 하면 오히려 세 배는 더하다. 또 나와 윤해가 바야흐로 몹시 아플 때는 내가 용곡 에 와 있을 때인데. 종 말질손을 병영에 보냈더니. 병사가 백미 1석·참깨 3두·감 장 3두·조기 3묶음을 주어서 싣고 왔는데, 기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므로 몹시 괴 상히 여겼었다. 그런데 안손·명복이 2월 20일 새벽에 일시에 도망했는데, 전일에 두 종과 약속하고서 말을 가지고 양식을 싣고 달아났으니 통분함을 이길 수가 없 다. 안손은 계당에 있었으므로 동로(銅爐) 1개와 작도 1개·낫 3자루를 훔쳐갔다. 한집이 두 곳에 피해 있어서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바닥이 났으므로 오직 병영의 쌀만을 기다려 먹으려 했는데, 불의에 도둑질해 갔으니 더욱 미움을 이길 수 없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그 상전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말은 피란할 때 이것을 믿 고 다니는데 이것을 훔쳐 가지고 달아났으니 그 뼈아픔을 어찌 이루 말하리오. 다 음 날에 만일 잡을 수 있다면, 그 상전을 사지에 몰아넣은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 으리오. 어찌 감히 용서하리오. 또 그 집마다 방도 적고 마루도 협착하여 우리 한 집이 용납해 살 수가 없으므로. 3월 10일에 또 다시 이웃의 빈집으로 옮겨 살았는 데. 집주인은 곧 배를 타다가 일족이 손해를 보고 도망해 피해서 비어 있는 집이 다. 윤겸의 처자는 딴 집으로부터 다시 내가 있던 집으로 옮겼고, 윤함은 살 만한 곳이 없어서 또한 윤겸이 있던 집으로 들어가서 오직 밤에 자기만 하고 아침에 나 올 뿐이다. 내가 이곳에 온 뒤로 단아는 데려왔고. 윤겸도 역시 와 보았으며. 충아 와 몽녀도 계속해서 와 보았다. 또 윤해의 처가 종 말질복이 양주 땅에 있다가 서 울집으로 도로 들어갔는데, 금년 정월 24일에 왜적이 서울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 일 때에 피해 달아나서 진위(振威)의 그 상전 농사(農舍)로 와 있는 것을 3월 보름 께 춘이가 마침 진위에 돌아갔다가 데리고 왔고. 어미 및 두 자녀는 모두 난리 속 에서 죽었다 한다. 또 계집종 강춘은 내 처자가 관동으로부터 호서(湖西)로 피해올 때 3일 동안 계속해서 밤길을 걸어서 용인(龍仁) 세호의 집에서 자고 그 밖의 종 5. 6명을 데리고 밤중에 적진(陣)을 뚫고 나왔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은 두려워서 서로 말도 하지 못하고 모두 달려 나왔다. 이때 강춘과 신 좌랑의 두 종은 그 일행 에 끼지 못하고 중도에 뒤떨어져서 주저하던 사이에 날이 이미 밝았다. 이에 잘못 용인의 적진 속으로 들어갔다가 적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임사와 신비는 오래지 않아 도망해 나왔고. 강춘은 그 아이 때문에 도망해 나오지 못하다가 그 아이가 죽 은 뒤에 나와서 진위 땅에 살면서 어느 소경과 같이 살다가. 본처와 싸우고 나왔다 한다. 그런데 이때 마침 길에서 최 생원 기남(起南)의 서조모의 일행을 만나 우리 일가가 여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행을 따라서 왔으니. 이것이 3월 18일이었 다. 그 어미가 마침 머물러 있다가 만나서. 기뻐하고 슬퍼한다. 우리 일가도 또한 이 종이 필연 죽었으리라 했는데. 이제 의외에 들어오니 또한 기쁘다. 오직 종 일 향이 홀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강춘이 들어오 자 일향이가 더욱 기뻐하니 우스운 일이다. 또 종 막정 · 송이 등은 어머니를 모시

고 영암으로 갔다가 3월 14일에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각 관청과 각 역에서 빠짐 없이 음식을 대접했고, 또 중로에 바람이나 비의 급한 걱정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다만 장성현(長城縣)에 들어와서 비로 인해서 하루를 머물렀다 한다. 암말을 팔아서 값으로 8필을 받아 가지고 왔다. 다만 장흥 노비들의 공물을 거두는 일은 모두일족의 역사(役事)를 칭탁하고 도망해 피해서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계집종 무숭은 집에 있는데 그 두 아들은 혹은 의병으로 나갔고, 혹은 수사(水使)의 군사로 나갔으며, 또 그 집은 불이 나서 다 타고 남지 않아 공물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한 필도 받지 못하고, 오직 타다 남은 깨 닷 되를 받아 가지고 왔으며 중로에 양식이 떨어져서 양마목(粮馬木) 한 필을 사서 먹었다 한다. 그간의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밉살스럽다. 이 나머지는 병중에 있는 3, 4개월 사이에 비록 기록할 것이 있지만 병으로 능히 다 기록하지 못하고 뒤에 와서 들은 것 한두 가지를 기록하는 바이다.

4월

- 1일. 지난달 28일에 윤겸이 부사 김찬의 부름에 의해서 나갔다.
- 2일. 비가 내렸다. 2월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달 동안에 사흘 동안 계속해 내린 것이 6, 7차례나 되었는데, 비록 씨앗을 부칠 걱정은 없지만, 반드시 5, 6월 의 가뭄이 있을 것이다. 유리하고 빌어먹는 자가 사족(士族)이나 상인(常人)을 가릴 것 없이 서로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서 날마다 문간에 서 있는 자가 적어도 15, 6인보다 적지 않은데, 비록 불쌍함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나 역시 유락(流落)하여 걸식하는 사람이라, 형세가 그들을 구제할 수 없으니, 오직 스스로 탄식할 뿐이다.
- 3일. 아침 식사 후에 찰방 김가기가 우리 부자를 청한다. 그 부인도 난을 피해서 여기에 와서 내 아내와 윤겸의 처를 청하는데, 아내는 연고가 있어 가지 못했고, 다만 윤겸의 처만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나는 윤함과 가 보았더니, 점심을 많이 차려 주어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왔다. 찰방이 나를 몹시 후하게 대접하여, 병중에도 계속하여 입에 맞는 음식을 보냈다. 비록 윤겸과 일찍부터 아는 터이지만 그 후

의를 갚을 길이 없다. 찰방의 아들 김덕민(金德民)의 아내는 신식(申湜)의 딸로서, 나의 8촌 손주뻘이 된다.

4일, 늦은 아침 식사 후에 김정형(찬선)이 역(驛)에 와서 나를 청하므로 즉시 가 보았다. 내가 앓기 시작한 뒤로 보지 못한 지가 여러 달인데, 이제 비로소 만나니 아주 기쁘고 위로가 된다. 저녁밥을 먹고 돌아왔다.

5일. 언실의 종 윤석이 보령 땅에 유리하고 있다가 산 숭어 2마리와 쌀을 가지고 왔는데, 줄 만한 물건이 없어서 겨우 백주 2그릇을 먹여 보냈으니 탄식할 일이다. 종 막정은 전일에 윤겸이 데리고 공주로 갔다가 그 길로 회덕으로 보냈더니. 회덕 군수 남군실이 마침 진중(陣中)으로부터 현(縣)으로 돌아왔다가 둔조(屯租) 1섬・ 백미(白米)와 상미(常米) 각 3말 · 보리쌀 4말 · 말장(末醬) 5말을 주어 보내고, 윤 겪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보냈는데 다만 말장만 빠졌다. 이 같은 쇠잔한 고을에서 힘을 다하여 보내 주었으니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만일 정이 두텁지 않 다면 어찌 이러하겠는가. 또 본주(本州)(홍주)의 환자를 얻기 위하여 두 종을 화성 창(火城倉)에 보내서 쌀 한 섬과 밭벼 한 섬, 붉은 콩 열 말을 받아 왔는데, 쌀은 윤 겸의 장모의 집으로 보내고, 밭벼쌀과 적두(赤豆)는 반을 나누어 윤겸의 집으로 보 냈다. 전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윤겸이 친히 홍주에 가서 목사(牧使) 이총(李聰)에 게서 공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오늘에야 겨우 받은 것이다. 또 3일에 윤해가 서천 에 있는 그의 처가 농막에 가서 그 종의 집에 있을 만한 곳이 있는가 보고, 겸해 서 전답에서 수확된 것을 추심하려 했는데, 겨우 한 섬이 있다고 한다. 전에 들으 니 27석이라고 했는데 모두 요역에 썼다고 한다. 그 집은 또한 사방 울타리가 모 두 뜯기고 사방 벽도 또한 허물어졌는데. 비단 방이 몹시 좁을 뿐만 아니라. 또 마 루가 없어서 여름 더운 날에는 살 수가 없다고 하니. 탄식할 일이다. 윤겸이 돌아 오는 것을 기다려 의논하여 처리할 생각이다. 또 윤겸의 처가 종 말질복이 여기 온 지 오래지 않아서 병이 나 가지고 이제 8. 9일에 이르는데, 아직도 차도가 없고. 홍역(紅疫)의 신(神)을 이 때문에 또한 아주 보내지 못하여. 한 집 일이 방해가 많 으니, 민망스러운 일이다. 생도미 한 마리를 윤해가 가져왔기로 이튿날 윤겸을 불 러다가 끓여 먹었다. 또 남군실(南君實)의 편지를 보니 비로소 남 첨사(南僉使) 문 중형(文仲兄) 및 한집 처첩과 조카 남응온(南應溫) 삼부자 · 모제(母弟) 남경덕(南 景德) · 첨정형(僉正兄)의 사위 이려(李礪) 및 그 매부 이응기(李應箕) 등이 당초에 모두 흉적에게 죽었다니, 일문(一門)의 화가 이 지극한 처지에 이른단 말인가. 애 통하고 참혹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문중형은 비록 먼 시골에 살지만, 벼슬 때문에 오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情意)가 가장 두텁고, 응온의 두 아들은 나이가 모두 12, 3세로, 형제가 모두 총각으로서 시(詩)를 잘 지었었다. 내가 연전 봄에 그 곳에 가 있을 때 그들에게 시를 짓게 했더니 아름다운 글귀가 많았었다. 모양도 또 한 단아해서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사람들도 또한 신동이라고 일컬었는 데, 이제 들으니 모두 참혹한 화를 당했다 하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또 들으니 문 중형이 온 집안사람을 데리고 깊은 산 석굴 속에 들어갔다가 적이 와서 굴속을 수 색할 때 많은 사람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적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위해 가지고 노소(老少)를 모두 죽였다 한다. 또 이 찰방 여인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집안 형제 노소를 거느리고 연전에 각각 회덕으로 와서 살고 있다. 그의 외가 는 곧 나의 처사촌이 되는데. 이웃에 있어 조석으로 서로 만나서 가장 가깝게 지냈 었다. 그런데 들으니 그 온 집안이 모두 적의 화를 면하고 살아서 고향으로 오므로 온 집안이 몹시 기뻐한다. 막정이 돌아올 때, 내 아내가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는데 그도 우리 종을 보고 모두 와서 환영했고. 천안 수주는 슬퍼하고 울기를 마지않다 가 답장을 써서 전했다. 또 천안 양서모(養庶母)는 도로 서울로 돌아갔는데. 혹은 굶어 죽었다 하고, 혹은 잡혀 죽었다고 하니 불쌍하고 불쌍하다.

6일. 아침 식사 후에 사포(司圃) 아저씨를 뵙고자 말을 타고 비로소 나서서 그 길로 김 찰방을 찾고 아저씨께 뵈웠다. 김정형은 오늘 새벽에 호남 고부(古阜) 종의집으로 가서 있을 만한 곳을 보아, 온 집안을 데리고 갈 계획이다. 윤 진사 민헌과김극의 새 매부 김점(金漸)을 맞아 이야기했다. 올 때 이 생원 익빈과 이광축을 찾았고, 또 이 생원 광복·장 주부 응명을 청했더니, 이에 사랑채에 와서 소년들과정경도(政徑圖)를 놀고 있다. 이에 함께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해가 한낮이 되고다시 저녁에 이르렀는데, 보령군수가 전일에 참봉(윤겸)에게 준 물건을 싣고 왔다.물건은 중미(中米) 1석·총 10두·조개젓 1항아리·저린 숭어 3마리인데, 온 사람

이 가지고 있는 9되들이 말로 되었는데도 오히려 3, 4되가 줄고, 다시 여기 있는 말로 되었더니 한 섬의 쌀을 13두 3승이요, 10두의 콩은 8두 8승이다. 약과(藥果) 는 꿀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쌀 한 말과 콩 한 말은 반드시 훔쳐 먹은 것이 나, 당장에는 그 숫자를 다 받았다고 써 보냈다.

7일. 종 금손이 결성에서 왔다. 받은 물건은 한 생원 효중의 집에 두어두고, 다만 건어 세 마리만 갖다 바친다. 전일에 윤겸이 들으니 결성 한효중(韓孝仲) 광세(光 世)가 잡아 둔 땅을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점령했다가 그 뒤에 토정은 그 땅 이 주인이 있단 말을 듣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나. 한씨 집에서는 또한 저쪽에 서 힘을 들인 곳이니 뺏을 수가 없다고 하여 피차가 서로 미루고 있어서 공한지로 있다는 것이다. 한씨 집에서 윤겸이 여기에 농사를 짓게 했다. 그러나 윤겸은 결성 군수(김응건(金應健))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 찰방(김가기)을 통하여 종자를 청 했더니. 결성군수는 즉시 공문을 띄워 벼 3석ㆍ감장 2두ㆍ건어 3마리를 보냈으므 로 금손(今孫)을 보내서 받아 왔다. 오후에 윤겸이 보령으로부터 왔는데, 그저께 유함이 그 처삼촌을 만나 보려고 보령에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 유함이 이우(李運) 을 만나서 들으니, 조 생원(趙生員) 관(瓘)이 지난달 8일에 강화로 돌아가다가 중 도에서 적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다 하니, 놀라고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관(조관) 은 내 처사촌으로서, 어려서부터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억울하게 죽었단 말 을 들으니 더욱 애통하다. 이운은 관의 매부로서 난을 피해서 보령 땅에 와 있는 터인데. 관이 강화도로 들어가서 그 처자가 나왔단 말을 듣고 가보고 돌아온 것이 다.

8일. 아침 식사 후에 찰방을 찾았더니, 찰방은 청양에 갔다고 한다. 청양군수 임순(任純)이 부사(김찬)에게 장형(杖刑)을 당했다 하므로 위로하기 위해 갔다고 한다. 윤함과 계정(溪亭) 밑의 물가에 나갔더니 생원(윤해(允諧))도 또한 왔다. 그물을 쳐서 겨우 조그만 물고기 10여 마리를 잡았다. 조금 있자니 찰방의 아들 김덕민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시켜 물고기를 잡게 하여 또한 두 마리를 얻었으니 우스운 일이다. 저녁에 김 찰방이 찾아왔다. (이하 10행 삭(削)) 지난 정월 중에 내가병을 얻어 몹시 괴로운 중에 들으니 중국 장수 이 제독 여송이 평양에 들어가서 점

령하고 있는 적을 쳐서 거의 다 죽여 없애고. 나머지 적들이 서울로 달려 돌아오는 것을 제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자. 개성에 있는 적이 스스로 무너져 달아났 다고 하니, 병중에 이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생각하기에 얼마 가 지 않아서 마땅히 서울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서울이 회복된 뒤에 지금 까지 서울의 적을 들어가 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사방에 있던 적들이 모두 서울 로 들어가 굳게 지키고 가지 않고 있으며, 두 왕자 및 김귀영(金貴榮) · 황정욱(黃 廷彧)을 서울로 데려다가 인질로 삼고 스스로 강화(講和)를 자청한다 하니 그 간사 한 꾀를 헤아릴 수가 없다. 만일 중국 수군이 실지로 대마도를 공격했다면 적들은 반드시 돌아갈 구원을 할 겨를이 없을 것인데. 아직도 서울을 점령하고 태연히 돌 아가지 않고 있으니, 그 사이의 허실(虛實)을 또한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여러 장수가 사방을 두루 지키면서 다만 중국 군사만 믿고, 한 번도 적진에 들어가 치지 않고 시일만 보내서 이미 농사철이 지났으니. 영남으로부터 경기에 이르기까지 백 성들이 살 수가 없어 각자 모두 도망해 숨어서 호남 · 호서에서 걸식하는 자가 그 수를 알지 못하겠고. 굶주려 길에 쓰러져 있는 자가 또한 그 수를 알지 못하겠다. 농사가 제때를 잃으면 명년 봄을 기다릴 것 없이 양도(兩道) 백성이 반드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인데. 한 사람도 발분(發奮)하여 이를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만일 중 국 군사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국가가 장차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구원하지 않겠는 가. 오직 이 호남과 호서가 적에게 함락되지 않았으니. 회복시키는 근본은 오직 여 기에 있다. 민생은 또 요역(搖役)에 괴롭히고, 창을 메고 적의 경계에서 보루를 지 키며, 혹 양식을 져다가 여러 진영에 나누어 주어 길에 서로 연속되어 있다. 거기 에 또 조도하는 어사가 두 해의 공물을 재촉하여 받고. 독운어사(督運御史)는 중 국 군사의 양곡을 재촉해 운송하며, 여러 고을을 순행하면서 재촉이 성화같고, 계 속해 매를 때려서 목숨을 잃는 자도 또한 많다. 여러 고을의 창고는 바닥이 나서 또 해마다 주는 환자도 주지 않으니. 생민(生民)들이 어찌 곤궁하여 유리(流離)하 지 않겠는가. 또 여러 곳의 소모관(召募官)이 있어서 자칭 어사라 하고 여러 고을 을 순행하므로, 여러 고을에서는 그 지공(支供)에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뜻과 같 지 않으면 욕이 수재(守宰)에게까지 미치고 계속해서 매를 때리니 관리가 어찌 괴 로워서 도망해 흩어지지 않겠는가. 이 까닭에 호남 · 호서 백성들도 또한 지탱하지 못하여 1리(里) 안에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운 곳이 자못 많으니, 만일 수천 명의 적 이 기세를 타고 두 도(道)에 쳐들어온다면 누가 능히 이를 막겠는가. 이렇게 되면 두 도도 또한 반드시 비린내 나는 지역이 되고 말 것이다. 아아! 급하고 위태롭도 다. 만일 이 호남과 호서를 잃는다면 우리는 머리 풀고 오랑캐 옷을 입을 것이다. **9일.** 종 막정이 대흥 땅에 가서 쌀 10두·콩 10두를 져 왔다. 전일에 의병장과 종 사 한 봉사 교(韓奉事嶠)는 윤겸의 친구이다. 윤겸을 나 있는 곳으로 와서 보았다. 마침 윤겸이 흑각(黑角)으로 만든 새 활이 있어서 팔고자 했는데, 한(韓)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군중에 활이 없으니 내가 사고자 하노라" 하고 가지고 갔었다. 그 저께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종과 말을 달라고 하여. 그 군관 최륜(崔崙)으로 하여 금 대흥 부잣집 원납곡(願納穀)을 보내 주었으니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다. 오후에 간성령(扞城令)이 내 집을 찾아왔다. 간성령은 본래 서울 대정동(大井洞)에 사는 데, 관동(舘洞)과 이웃이다. 지금은 비록 남대문 밖 처가에 가 있지만 자주 그 형 은 와서 보았다. 그 두 형은 공 성수(功城守) · 의성도정(義城都正)으로서, 또한 나 와 교분이 두터운 자이다. 이 때문에 서로 만난 지가 오래이어니 오늘 찾아오니 십 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술을 사다가 세 그릇을 마시게 하여 보냈다. 윤함의 처삼 촌 강신윤(姜愼胤)이 보령 처가로부터 대흥 농막에 와 있는데, 윤함을 만나서 점심 을 먹고 돌아갔다. 간성령도 또한 난을 피하여 보령 땅 인친의 집에 와 있다. **10일**. 종일 비가 내렸다. 저녁에 윤겪이 공주에서 왔는데 공주목사가 백미 2두· 중미(中米) 5두·찹쌀 1두·참깨 2두·들깨 2두·참보리 2두·팥 2두·진말(眞 末) 2두 등 물건을 보내고. 통판 이간(李侃)이 준 백미 5두 · 중미 5두 · 찹쌀 5두 · 들깨 5두는 받아서 정산(定山)의 종 가이지의 아비의 집에 두어두었으며, 꿀 3 되·조기 2묶음·우포 2첩·소주 2병·말린 숭어 2마리는 가지고 왔다. 또 부사 가 공문을 홍주와 덕산 두 고을에 보내서. 백미 각각 1섬·찰보리 각각 1섬·소금 10두 · 간장 3두 · 건어 5묶음씩 주도록 했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보리 나기 전까 지는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목사의 성명은 나급(羅級)으로서 내가 소년 시절 도성사(道性寺)에서 글을 읽을 때, 나 공도 역시 와 있어서 서로 안 지가 오래 고, 또 윤겸과도 서로 가까운 터이다. 또 보령에서 준 벼 2섬 · 백미 3두 · 콩 2두 · 뱅어젓 3되도 역시 받아서 가이지의 집에 두었다.

11일. 찰방이 우리 부자를 불러서 아침 식사 후에 윤겸·윤해와 함께 걸어서 갔더니, 찰방은 꿩 잡는 사람을 불러다가 꿩을 잡게 했는데, 마침 산중턱에 큰 노루가풀 속에 자고 있으므로, 한방으로 가슴을 뚫어 쓰러진다. 즉시 잡아서 간은 날로먹고 고기는 구워 가지고 점심을 먹었다. 또 윤함이 그 처삼촌과 함께 그저께 대흥에 가서 자는데, 양 진사(梁進士) 응락(應洛)이 피란 가 있는 곳을 찾아가 지금까지돌아오지 않는다. 양 공은 곧 윤함의 가까운 동리에 사는 소년으로서 몹시 친한 친구이다. 그가 여기 와 있다가 부인이 죽었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 보고 조상하려는 것이다.

12일. 윤겸이 찰방의 집에 가서 활을 쏘는데, 윤해도 또한 가서 구경했다. 윤함이 대흥에서 돌아왔는데, 벼 5두 · 보리 5두를 싣고 왔다. 이것은 곧 그 처삼촌이 준 것이다. 나도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찰방의 집에 갔더니, 윤겸이 그 처조카 이박(李泊)과 활을 쏘는데, 윤겸의 동서(同婿) 성민헌(成民憲)도 또한 왔다. 찰방이 점심을 대접했으나 나는 이미 먹었으므로 사양했다. 오후에 우리 집에 서도 또한 화전 (花煎)을 지저 내어 가서 함께 먹었다.

13일. 아침 식사 후에 윤겸이 보령에 갔다. 정김포(鄭金浦) 엽(曄) 및 이 진사(李進士) 희참(希參)을 만나기 위해서다. 윤해가 윤함과 함께 시냇가로 나가기에 나도역시 뒤를 따라가서, 송노(宋奴)를 시켜 그물을 치게 하여 회 쳐 먹을 만한 물고기수십 마리를 잡았다. 윤해의 처를 시켜 회를 치게 하여 시냇가에 앉아 두 아이와함께 먹고, 추로(秋露)(술)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돌아올 때 찰방에게 들어가보니, 찰방은 내일 본도(本道) 순찰진에 간다고 한다. 저녁에 결성군수가 광어 1마리・상어 2마리・오징어 3마리를 윤겸에게 보내왔다. 결성군수의 성명은 김응건(金應健)이라한다.

14일. 종일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또 바람도 불었다. 윤해의 처가 어제부터 누워 앓는데, 몸에 가득히 붉은 점이 돋았다고 하니 걱정이다. 저녁에 윤겸이 보령에서 비를 맞고 돌아왔다. 종도 우비(兩備)가 없어서 옷이 모두 젖었다.

15일. 윤해의 처가 병이 나 오늘부터 몹시 괴로워한다. 저녁에 윤해의 양모(養母) 및 몽임이 난을 피해 와서 이 집 앞의 늙은이의 소막(小幕)을 빌어서 수삼 일을 지낸 뒤에 이리로 올 계획이라 한다. 다만 병세가 끌어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끝내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윤해는 제 처의 병을 돌보느라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고 근심된다. 또 조도어사 이강중(李剛仲)(이철)이 순행하다가 청양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그편에 백미 3두 · 팥 2두 · 간장 2두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한다. 또 청양군수(임순)가 백미 3두 · 밭벼쌀 5두 · 유기(柳器) 1벌 · 사발 1죽 · 수저 2죽 · 간장 2되를 또한 윤겸에게 보냈으니 더욱 감사하다. 또 윤겸의 말종(末從) 어질동이 전일 부사(김빈(金濱))가 준 물건을 홍주와 덕산으로 찾으러 갔다가 오늘 왔는데, 덕산에서는 백미 1석 · 보리쌀 1석 · 간장 3두를 실어왔고, 소금과 건어는 물건이 없다는 핑계로 보내지 않았다. 홍주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들으니 어사가 마침 와서, 그가 떠나기를 기다려 보낸다 한다.

16일. 홍주에서 백미 1석·보리쌀 1석·소금 10두·간장 3두를 보내왔고, 건어는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곧 부사가 보낸 물건인데, 다만 쌀과 보리는 각각 수량이 줄었으니 반드시 훔쳐 먹은 것이다.

17일. 김 정자(金正字) 자정(子定)(김지남)이 심상(沈相)(자도(字度))의 종사(從事)로 홍주에 와 있다가 오늘 낮에 찾아 와서 여기에서 유숙했다. 관(官)에서 보면 점심밥을 자정(子定)과 윤겸에게로 보냈다. 또 저녁에 윤겸의 중방(中房) 응연이 와서 뵙고, 소금과 조기 세 묶음을 바친다. 응연은 곧 봉선전(奉先殿)의 종으로서 이곳에 유리(流離)하고 있는 터이다. 윤해의 처는 어제부터 차도가 있어, 오늘은 음식 먹는 것이 좋고 별로 아픔이 없다고 하니 반드시 감기로 그랬던 것이다. 기쁘다.

18일. 이른 아침에 자정(子定)은 예산으로 돌아가고, 윤겸도 역시 결성 한 생원(韓生員)(광세(光世))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영손(令孫)이 논 만든 것을 보고자 해서이다.

19일. 저녁에 찰방(김가기)의 아들 김덕민이 찾아왔다. 소매 속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는데, 그것은 곧 찰방이 직산의 순찰진중(巡察陣中)에 있을 때, 조정의 글을

보낸 것이다. 그 글은 이러하다.

좌상(左相) 윤두수(尹斗壽)의 장계(狀啓)

신(臣)이 본월 9일에 의주에 이르러서 날이 늦어 이름을 통하지 못하고, 10일 이른 아침에 이름을 통하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허락하고. 월대(月臺) 뜰에서 예(禮)를 행하고 즉시 청내(廳內) 동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에 신(臣)은 무릎을 꿇고 홍순언(洪純彦)을 시켜 국왕이 보내서 문안한다고 했더니. 경략은 소매를 들 어 고맙다 하고, 국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지금 숙녕 (肅寧)에 계시어 노야(老爺)(송 경략)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라고 했더니, 경 략은 말하기를, 청컨대 국왕께서는 돌아가시어 군무를 처리하게 하시고, 일을 끝 내고 돌아오는 날 마땅히 평양에서 만날 것이니, 지금은 만날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신으로 하여금 차를 마시게 했기에 신(臣)이 품(稟)하는 금을 올리자. 경략은 이것을 보고 나더니 홍순언(洪純彥) · 표헌(表憲) · 남호정(南好正)을 불러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고 분부하기를. 바쁘게 서두르지 말라. 나에게 스스로 생각이 있 느니라, 지난해 가을에 원병(援兵)의 계획을 실시하여 천여 량(兩)의 돈을 허비했 다. 이때에는 내가 오지 않았고. 이 대장(李大將)(이여송(李如松))도 역시 오지 않 아서 병마(兵馬)가 정제(整齊)되지 못했고. 전구(戰具)도 갖추어지지 못했으니, 만 일 계교로 늦추지 않았으면, 왜적이 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세 서울(경성·개성· 평양)을 함락시키고 깊이 함경도로 들어갔을 것이니. 평양의 적이 어찌 의주로 들 어가지 않았겠는가. 나는 9월 21일에 북경을 떠나 온동(溫東)에 와 머물렀으나 계 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 제독(이여송)의 병마와 기계(器械)를 기다렸는데 이미 조치되었다 하므로 군사를 출발시켜 12월 26일에 압록강을 건너 정월 8일에 평양을 공격하여 북 한 번으로 평정했다. 용병(用兵)은 신속한 데 있는 것이므로 형세를 타고 전진해서 열흘 사이에 계속해서 황해ㆍ개성ㆍ경기 등처로 들어갔으 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하기에 기계와 전구가 이미 다 되 었으므로 장사(將士)들의 마음이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라 해서, 즉시 이 제독에게 글을 보내서, 마땅히 잠시 개성·임진 등처에 머물러서 병마를 쉬게 하고 다시 전 구를 갖추어 가지고 서로 연락하여 나가 싸우자고 했으나 이 제독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경솔히 벽제까지 나가 싸우다가 큰일을 그르치고 즉시 돌아온 후로 매양 말 하기를, 식량과 마초가 넉넉지 못하고 길이 질어서 싸우기가 어렵고 인마도 피곤 하다. 두 서울을 회복시켰으니 속국을 구원하는 것이 이만하면 또한 족하다 하여 여러 번 철군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성천자(聖天子)의 명령 을 받고 온 것은 오로지 조선을 평복(平復)시키기 위해서이니 경솔히 돌아갈 수 없 다고 굳게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뜻을 글로 써서 마초와 양곡과 병마를 청했더니, 성천자께서는 글을 내려 말하기를, 병부(兵部)와 호부(尸 部)에서는 속히 돈과 양곡을 마련해 주어 힘을 합하여 적을 쳐서 도둑을 평정하라 고 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베껴 보내서 국왕이 보게 했더니 이런 이후로는 철군하 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장수가 늙고 군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싸울 의 사가 없다고 말하므로. 나는 부득이 필요한 군사를 가려내어 태안 등지에 나누어 두어 양초(糧草)를 준비하게 했다. 유정(劉綎)의 군사도 오래지 않아 당도할 것이 요. 후군(後軍)도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군사는 모두 정예(精鋭)하고 수 가 일만이나 된다. 또 대진(大津) · 산동(山東) · 등래(登萊) · 해개(海蓋) 등처의 양 초 30여 만도 방금 운반하고 있으며, 요동에서 만드는 포와 화살 등 제구(諸具)도 이제 이미 완성되어서. 병마와 양초와 기계가 구비되었으니 관백(關白)이 비록 온 다고 해도 내 근심이 없다. 다만 너희 나라에서 이 뜻을 알지 못 하고 한갓 빨리 나 가고자 하니. 만일 잘못되어 우리 군사가 불리하고 보면 비단 너희 나라뿐이 아니 라, 중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몸이 우물 위에 있어야 비로소 우물 속 사람을 구하 는 법인데, 한번 중국의 위엄을 잃으면 다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나라 군신(君臣)은 중국을 위하는 것이요 원병(接兵)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다 만 중국을 위하려면 압록강을 지킬 일이지 어찌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백만을 돈 을 소비하면서 수천 리 밖에 원정을 하겠는가. 실로 이는 성천자께서 너희 나라의 2백 년 동안 충순(忠順)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구원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필경 은 너의 나라 일을 끝낸 뒤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고, 사 람에게는 사덕(四德)이 있어서, 봄에 나서 가을에 죽어 은혜와 위엄이 모두 행해지 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천토(天討)인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 움직이는 것이 곧 만전 (萬全)인데, 너의 나라가 이처럼 급하다면, 4월로부터 12월까지 8, 9월 사이에 어 째서 한 치만 한 땅도 회복하지 못하고 어째서 함경도의 적을 물리치지 못하다가. 중국의 위엄이 한번 떨치자 두어 달 사이에 두 서울이 이미 회복되고 북쪽의 적이 이미 도망했으니, 이것이 큰 징험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아홉 변방이 모두 오 랑캐여서 오늘날 침입해 오면 이를 토벌하고 내일 공물을 바치면 이를 허락했으 니, 이는 딴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천지의 도(道)인 것이다. 이제 이 왜놈들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누가 남김 없이 섬멸하려 하지 않으리오마는 관백(關白)이 아직 있고. 저들에게는 66주(州) 의 무리가 있으니 어찌 능히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이 비록 도망했어도 어 찌 다시 오지 않으며, 중국 군사가 한번 철병했다고 해서 어찌 다시 구원하지 않겠 는가. 너의 나라는 꺾어지고 깨졌으니 어떻게 저들을 저당하겠는가. 사람의 힘을 복종시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만 같지 못한 것이다. 저들이 이미 두려워서 화친을 구했으니 우리는 아직 이를 허락하여 저들로 하여금 은혜에 감복 하여 물러가게 하고, 가령해서 중국 군사 일만이나 혹 4, 5천 등 머물러 두어 요긴 한 곳을 지키게 할 것이니. 너희 나라 군신도 1, 20년간 와신상담하여 장수를 뽑 고 군사를 조련하며, 돈을 모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모든 준비를 하고 군사 를 강하게 해서 힘으로 능히 스스로 지키게 한 다음에 군사를 물리면, 싸우고 지키 는 것이 모두 만전(萬全)을 얻어 뒷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 뒤에 저들이 공물을 바치게 허락할 것이오, 적이 만일 물러가지 않으면 오직 싸움이 있을 뿐이다. 이때 에 (결(缺)) 너의 나라 군신(君臣)은 모름지기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 로 듣기 바라노라 (결(缺)) 너의 나라가 좋아하지 않으면 한번 싸워서 물리치고 이 내 회군하는 것을 내 어찌 하지 못하리오. 나는 늦고 빠른 것에 구애하지 않고 너 의 나라의 장원(長遠)한 계획만 하는 것이다. 양초(粮草)는 당초에 4만 군사가 두 달 동안 필요한 것을 준비했으니, 어찌 번번이 너의 나라만을 독촉하겠는가, 중국 의 양초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 허비하지만 않으면 된다. 또 내 이미 낙상지(路 尙志)로 하여금 유능한 노공(爐工) 10인을 시켜 시험하게 했으니, 마땅히 국왕에게 보내서 은(銀) · 연(鉛) · 동(銅) · 철(鐵)을 녹여 만들어 부국(富國)의 자료로 삼계 했으니, 장인(匠人)이 도착하는 날 국왕은 후하게 대접하여 그 힘에 의뢰하면 대 대로 그 이익을 얻어 의식(衣食)이 스스로 풍족하고 백성들의 힘이 스스로 넉넉해 질 것이니, 비로소 옛 원수를 갚아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오월(吳越)의 10년 만에 원수를 갚는 것도 조충국(趙充國)1의 둔전(屯田)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 모두 때를 기다리고 형세를 타서 하는 것이요. 바삐 서두를 것이 아니다. 나는 헛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변통으로 낮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옛 땅을 모두 회복하고 선후책(善後策)의 만전을 다한 뒤에 갈 것 이니 걱정하지 말라, 또 회자(回咨)에서 이미 의정(義政)의 명백한 말을 보았기로 이제 그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臣)이 홍순언(洪純彦)으로 하여금, 노 야(老爺)의 명백한 분부를 들었으므로 우리 군신(君臣)은 감하(感荷)함을 이기지 못한다. 청컨대 돌아가겠노라 하고 사배(謝拜)하자. 경략은 말하기를. 모름지기 그 런 말은 할 것이 없다. 저녁에 마땅히 잔치가 있을 것이니, 오늘은 머물러서 잔치 를 먹고 내일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작별하고 나온 후에 깃발 하나에 북을 치면서 통사(通事) 등을 불러서 우리나라에 주는 문서를 내보이는 데 두 가지 조목이 있었으니, 이는 경략의 명령이다. 통사 등이 말하기를, 전에도 비록 서로 만나서 분부한 일이 있지만, 말을 이같이 분명히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신(臣)이 상아(上衙)에 이르러 잔치를 먹는데. 중군 참장(中軍參將) 왕승은(王承恩) 이 잔치를 대접했습니다. 이에 통보(通報) 두 장 및 신(臣)의 품첩(禀帖)을 모두 베 껴서 사연을 복명(復命)하고 위와 같이 아뢰나이다.

이제 이 글을 보건대 반드시 강화(講和)하려는 것인데, 심 유격(沈遊擊) 유경(惟敬) 이 지난 9일에 적의 진중(陣中)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달 보름날 사 상공(謝相公) · 서 재상(徐宰相) 및 주 유격(周

¹ 조충국(趙充國): 한(漢)나라 상군(上郡) 사람. 용기와 지략이 있어서 홍노(匈奴)를 쳐서 공을 세웠고, 나이 70에 후장군(後將軍)에 발탁되어 오랑캐를 쳐서 물리치고, 많은 둔전(屯田)을 실시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주었다.

遊擊) 등도 역시 적의 진중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일을 극비에 붙여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게 한다고 하니 더욱 괴이한 일이다. 이 적들이 우리 8도 생령(生靈)을 죽이고, 선왕의 능묘를 파헤치고, 종묘와 사직을 불태웠으며, 도성의 백만 인가를 무찔러 소굴을 만든 지 일 년이 되는데도 조금도 돌아갈 뜻이 없는데, 중국 장수는 억지로 화친하려 하니, 이는 비단 천위(天成)에 크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를 어느 때에 갚을 것인가. 탄식하면 무엇하리오. 그러나 저들이 끝내 어찌할지 알 수가 없다.

20일. 임언복(林彥福)이 그 처자가 피란 가 있는 곳으로부터 와 보고, 그 길로 장수(長水)로 가기에 조석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참봉(윤겸)이 결성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작답(作畓)한 곳을 살펴보니 매우 좋더라고 한다. 그러나 이산겸(李山謙)의 동생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한다. 지금은 비록 버렸지만 마감에는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므로 아주 살 생각이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이 어떠한지알 수가 없다. 다만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문데 버려둔 지 이미 오래이므로 그 주인은 반드시 팔려고 할 것이요. 그 값도 반드시 받아 갈 것이다.

21일. 임언복이 아침 식사 후에 장천으로 돌아갔다. 언복은 연전에 내가 읍아(邑衙)에 있을 때 마침 왜변을 만났는데, 노모와 처자의 생사를 몰라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울 때 나와 함께 길이 산정(山亭)을 대하여 조금씩 망극한 회포를 달래어 초여름부터 가을 늦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나는 지난겨울에 먼저 돌아왔고, 그는 거기서 머무르고 오지 않다가 정월에 장천으로부터 올라와서계당의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찾았으나 내가 병으로 괴로워서 만나지 못했다가오늘 또한 들어와 보고 돌아가니 그 두터운 정을 알 수가 있다. 그가 비록 하리(下東)의 무리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은 자못 취할 만한 것이 있어, 나도 또한 대접하기를 몹시 후하게 해 왔었다. 또 종 막정이 가져온 쌀 10두를 대흥 시장에 보내어포목을 사 오게 했는데 값이 많이 차이가 나고 수량도 모자라니, 비록 스스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나 생각건대 반드시속은 것이다. 밉고 또 밉다. 낮에 몹시 무료하기로 시냇가에 나가서 종을 시켜 그물질을 하게 하여 물고기를 조금 잡아서 윤해의 처자에게 보냈다. 윤해의 양모(養母)는 담당(談堂)으로 돌아왔으니, 곧 24일에

송신(送神)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2일. 아침 식사 후에 세 아들과 함께 걸어서 역전(驛前) 느티나무 밑에 가서 김덕 민(金德民)을 불러서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자니 박 생원 효제가 이광복 과 함께 찾아와서 역시 함께 이야기하다가 오후에 각각 돌아왔다. 저녁에 이 생원 익빈이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갓장이를 불러 내 갓과 윤겸의 갓에 칠을 했다.

23일.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윤겸과 윤함은 부여로 갔는데, 정 사과댁에 가 뵙기위해서다. 윤겸은 그 길로 한산에 있는 그 처갓집 종의 자식 집에 가서 종의 집에살 만한 곳이 있는가 보고 올 터이다. 온 집안이 요새 와서 집을 옮기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그저께 종 막정ㆍ춘이 등이 말 두 필을 가지고 청양 땅에 가서 마초를 베다가 말이 뇌어서 보리밭을 많이 밟았으므로 밭주인이 두 종의 낫을 빼앗았으므로 어제 아침에 어질등을 보내서 찾아왔다

24일. 무당을 불러다가 계당에서 굿을 했다. 저녁에 윤겸이 부여로부터 돌아왔는데, 중국 군사 지공(支供)의 일로 여러 고을 수재(守宰)가 모두 진(陣)으로 나갔기때문에 한산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윤함은 박원(朴垣)과 함께 옛 나라의유적을 유람하기 위해서 뒤에 떨어졌다 한다. 또 이 첨정(李僉正) 언실(彥實)의 서자가 어제저녁에 순천으로부터 왔는데, 언실이 편지를 했고 겸해서 부채 두 자루를 보내왔다.

중국 장수의 하첩서(下帖書)

이 나라가 일본과 깊은 원수가 두터운 원망이 있다는 것을 본부(本府)에서 어찌 알지 못하리오. 다만 중국 조정에서 이미 일을 처리하여 두 나라가 분함을 풀고 싸움을 그쳤으니, 스스로 마땅히 경략 송 노야(宋老爺)(송응창)의 약법(約法)을 준수해야 할 것인데, 너희끼리 사사로이 보복하여 거리낌 없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는 왜이(倭夷)는 순종하는데 조선이 도리어 반란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왜놈이 침입해 왔을 때, 이 나라 군신들이 어찌해서 성을 닫고 죽기로 지키지않고, 소문만 듣고서도 무너져서 종묘사직이 빈터가 되고 임금이 파천하게 했던가. 그때 중국 조정에서 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진 마음을 베풀어 구원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토지는 왜놈의 소유가 되게 내버려졌을 것이다. 그런데 일찍이 덕에 감동하고 은혜에 보답하여 손을 잡고 명령을 좇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 갚겠다는 말을 내세워 패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왜놈을 죽이니, 아아! 또한 부끄러운 일이로다. 하물며 그러다가 만일 틈이 생기고 보면 그 화가 적지 않을 터임에라. 바라건대 이 도(道)에서는 속히 왜를 죽인 자를 조사하여 어찌하여 약법 (約法)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두 군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만일 다시 얼버무려 돌려보낸다면 이 도(道)를 함께 연좌(連坐)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에 격문을 띄우노라.

이것은 곧 중국 장수의 하첩(下帖)이다. 중국 장수는 장차 강화하려 하고, 중국 사 신도 와서 또한 왜적을 호위하고 갔다고 하니, 분해서 죽고만 싶다. 중국 사신이 호위하고 갈 때. 무지한 군사들이 만일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서 흔단(釁端)을 일으 킨다면 신자(臣子)가 죽어도 족히 말할 것이 없으나 중국에 득죄하는 것이 된다면 일을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다. 군병(軍兵)의 일을 자세히 살펴서 흩어지지 말고 각각 그 경계를 지키다가 왜적이 침입해 오면 여전히 토벌할 것이다. 중국 사신을 호송할 때에 일체 범하지 말라는 경기순찰사의 관문(關文)을 찰방이 전해 보냈다. 왜적은 지난 19일에 나갔는데, 혹은 두 사신을 호송해 갔다고도 하고, 혹은 포로도 잡혀갔다고도 하니, 그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중국 장수 이 제 독 여송은 서울에 들어가 있고. 그 아우 여매(如梅)는 군사를 거느리고 21일에 강 을 건너 뒤를 따라서 추격했다고 하는데 길에서 들은 말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다 만 우리나라의 하늘에 사무치는 원수를 갚지 못하고 저들의 섬으로 좋게 돌아가게 했다니 신민(臣民)의 원통함을 어찌 다 말하라. 그러나 중국의 위신도 또한 이로부 터 크게 손상되었으니, 왜적이 어찌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겠는가. 25일, 아침 식사 후에 세 종을 데리고 계당(溪堂)으로 가서 더러운 물건을 소제하 고, 소나무를 베어다가 담이 무너진 곳에 울타리를 만들었다. 저녁에 사포(司圃) 아저씨와 이광복이 나 있는 곳에 찾아왔다. 아저씨는 아침에 광석(廣石)의 최 부장 인(崔部將寅)의 정자에 가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른 것이다.

26일. 날이 밝기 전에 윤해의 양모(養母) 및 그 처자가 왔다. 어제저녁에 이광복이 와서 말하기를, 강안성(姜安城)(강성)의 병세가 위중하여 목숨이 조석에 있으니, 만일 죽는다면 시체를 마땅히 계당으로 옮겨야 하겠으므로 이 뜻을 알리는 것이라 한다. 이에 역리(驛吏) 장천의(張天儀)의 집을 빌려 거처를 옮겼다. 강안성(姜安城)은 곧 정자 극인 이광윤(李光輪)의 장인인데, 광륜은 의병장 조헌(趙憲)이 패할 때 죽었고, 그 아들 대하(大河)가 그 상차(喪次)에 있다. 원래 제사 지내는 집에는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이정자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막정ㆍ춘이로 하여금 계당의 물건을 새 거처로 옮기고 수리하게 한 다음 저녁에는 그곳에서 잘 계획을 했다. 윤함이 부여에서 돌아왔다.

27일. 아침 식사 후에 세 아이를 데리고 계당에 가서 왜철쭉을 구경하고, 그 길로 이광복의 곁채로 갔더니, 김 사포 아저씨가 이미 와 있고, 이광복도 역시 와서 서로 이야기했다. 윤겸이 또한 광복과 활을 쏘는데, 광복의 집에서 점심을 내왔다. 해가 기운 뒤에 돌아오다가 윤해의 새로 간 집에 들렀다.

28일. 윤겸이 윤해와 서울로 향해 떠났다. 왜적이 도망해 돌아갔다고 들었기 때문에 광주 토당리(土塘里)에 가서 성묘하고, 그 길로 서울로 들어가서 안팎의 집이어떤지 보고, 또 매안(埋安)했던 신주(神主)를 파내서 돌아올 때 묘하(墓下)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이니, 절기가 단오(端午)가 가깝기 때문이다. 윤겸은 그 길로봉선전(奉先殿)에 나가 보고 역시 서쪽으로 가려 하지만, 다만 먼 길에 행자(行資)를 싣고 갈 수가 없을 것이어서 중로에 반드시 굶을 근심이 있으니, 꼭 가게 될는지 모르겠다. 또 저녁에 장수 사람 이백 · 범년 등이 왔으니, 이는 곧 서 태수(太守)(전협(田浹))가 결성 친가에 문안 보내는 길에 여기를 지나게 되었고, 전 태수 이빈(李贇)의 처자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와서 전하고 여기서 자고 갔다. 들으니 새태수가 대접하는 것이 후하지 않기 때문에 온 집안이 자못 궁색하다고 하니 탄식할 일이다. 시윤(時尹)도 또한 오지 않았다 하니 더욱 애통할 일이다. 또 이웃에 소를 잡아 고기를 파는 자가 있다고 하므로 쌀 한 말 세 되를 주고 뒷다리 하나와 내장 조금을 사 왔다.

그믐날, 송노(宋奴)를 병영에 보내서 절사(節使)가 주는 물건을 받아 오게 했다.

5월

1일. 종일 집에 있자니 무료하기가 몹시 심하다. 단아(端兒)가 학질에 걸려 처음에는 오후에 앓더니, 그저께부터는 밤 2경에 시작하여 몸을 떨다가 조금 있다가는 머리가 몹시 아파 이튿날 아침까지도 낫지 않다가 오후에 비로소 덜했는데, 오늘 밤에 또한 크게 앓으니 곧 네 직(直)째이다.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윤겸의 처도 또한 학질에 걸려 이제 십여 직을 앓았는데도 아직 떼 내 버리지 못했다. 금손(今孫)이 결성에서 돌아와 생갈치 두 마리를 바친다. 저녁에 김덕민이 와보고 갔다. 장수 사람은 답장을 받아 가지고 갔다. 충아는 비로소 걸음을 배워 두어 걸음 걷는다.

2일. 오후에 윤겸이 돌아왔다. 타고 간 말이 파리해서 걷지 못하여, 겨우 아산(牙山) 이시열(李時說)의 집에까지 갔다가 부득이 도로 왔고, 다만 윤해만 세 종을 거느리고 각각 양식을 싣고 혼자 말을 타고 서울로 갔단다. 또 저녁에 송노(宋奴)가 병영(兵營)에서 돌아왔는데, 중미(中米) 3두·간장 3두·소금 5두·찹쌀 1두를 싣고 왔으니, 곧 병사(兵使)(이옥(李沃))가 보낸 물건이다.

3일. 종일 집에 있었다. 오후에 윤겸이 있는 집 주인 가매란 자가 천어(川魚) 한 쟁반을 잡아서 가지고 왔으므로 즉시 술을 사다가 먹였다. 그중에 조금 큰 것 50여마리를 골라 소금에 절여 말리고, 그 나머지는 저녁 식사 때 처자들과 함께 찢어서먹었다. 저녁 식사 후에 찰방의 아들 김덕민이 왔으므로 집 뒤 언덕으로 맞아 두아들과 함께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찰방은 지금 중원(中原)에 있다고 한다. 또 오늘은 곧 지난해에 도성에 들어간 날이다.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은 지일주년 동안에 백만의 죄 없는 창생(蒼生)을 죽이고,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으며, 옥과 비단을 모두 제 나라로 실어 가고서, 끝내는 중국 장수와 강화를 맺고 좋게 제나라로 돌아갔으니, 온 나라의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랴. 도로 조령(烏嶺)을 넘은이후로는 돌아가는 길이 어떠했는지 듣지 못했고, 중국 군사는 혹 말하기를 수삼백 명씩 뒤를 따라 호송해 보냈고, 우리나라 여러 장수도 또한 뒤를 따라갔으나 중국 장수가 막아서 습격하지 못하고, 형세를 보아 공격하겠다니, 아무리 탄식한들무엇하랴. 다만 들으니 적이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 악공(樂工)을 데리고 앞뒤에

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갔다고 하니, 더욱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4일. 오후에 두 아들과 함께 역관 대문 앞의 느티나무 밑에 가서 김덕민을 불러서함께 녹음(線陰) 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서 마을 아이들의 반선(半仙)의놀이를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5일. 이른 아침에 늙은 역리 억룡의 처가 햇보리 조금과 채소 한 바구니를 갖다 바치므로 감주 한 그릇과 국수를 주어 보냈다. 오늘은 곧 단오 가절(端午佳節)이다. 옛날 서울이 전성(全盛)했을 때를 생각하니 곳곳에 그네를 매고 거리거리마다 씨름놀이를 하며, 화장하고 붉은 옷 입은 여인들이 서로 이끌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놀았는데, 흉적이 깨뜨린 이후로는 맥수은허(麥秀殷墟)²의 탄식만 있으니, 언제 다시 태평성시(太平盛時)를 볼 수 있을까. 아아! 슬픈 일이다. 또 아침 식사 후에 두 아들과 함께 이중진(李仲進)의 곁채에 가서 사포 아저씨께 뵙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자리에 있던 자는 이 생원 중순(仲循)ㆍ윤 진사 민헌 및 김극ㆍ김형윤과 주인이었다. 여기에서 중진은 광복의 자이다. 김정형은 마침 광석(廣石)에 가고 없었다.

6일.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은 아침이 되자 크게 내리고, 겸해서 큰 바람이 불고, 낮이 되자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에 비가 온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짙은 안개가 날마다 퍼져서 보리와 밀이 누렇게 말라 반도 영글지 않으므로 비를 기다리던 마음이 간절하더니, 이제 한 보슬의 비를 얻으니 도로 소생할 수 있겠다. 다만 이미 누르게 된 보리는 다시 가망이 없다. 그러나오늘의 비는 흡족하지 못해서 높고 건조한 논은 겨우 뿌리를 축였을 뿐 물은 없다고 한다. 만일 다시 하룻밤 비를 얻으면 백성들의 희망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또단아(端兒)는 또 학질에 걸려 어제 오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이른 저녁밥 전에 조금 덜하더니 며느리 학질이 되었다. 그러나 전일 아파하던 것으로 보아서 삼분의이는 감해졌으니 필연 이로부터 떨어지나 보다. 또 강안성 성(姜安城晟)이 어제 별

² 맥수은허(麥秀殷爐): 기자(箕子)가 폐허가 된 은(殷)나라의 도읍터를 지나다가, 그 폐허에 자란 보리가 팬 것을 보고 한탄하여 지은 노래를 〈맥수가(麥秀歌)〉라고 하는데, 고국이 멸망한 한탄을 '맥수탄 (麥秀敷)'이라고 한다.

세했다고 한다. 안성은 작년 여름 흉적이 침입해 왔을 때 임지(任地)로부터 피해와서 사위 이광윤(李光輪)의 집에 있었고, 그 온 집의 처첩들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관서(關西)로 피해 들어갔다 한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상기증(上氣症)을 얻어서 이 때문에 온 몸이 붓더니 이제 이르러 갔으니 슬픈 일이다.

7일. 종일 집에 있었다. 윤함의 처삼촌 강신윤(姜愼胤)이 대흥에서 윤함에게 들러 보고 점심을 먹고 갔다. 또 양식과 찬거리가 다 되었는데. 생각해도 구걸할 곳이 없으니 보리 거두기 전에 반드시 주리는 근심이 있을 것이라. 민망스러운 일이다. 8일. 이 정자(李正字) 성록(成祿)이 영암으로부터 돌아올 때 여기 들어와 자고 어 머니와 아우(희철)의 편지를 전했는데 모두 편안하고. 인아는 절에 올라가 글을 읽 는다 한다. 이제 어머님의 편지를 보니, 종이에 가득히 모두 연연해서 잊지 못하 는 뜻이어서 매양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받들 어 읽기를 마치기 전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또 저 녁에 윤해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단옷날 반갱(飯羹)과 현주(玄酒)로 토당(土塘) 선묘(先墓)에 제사 지내고 성묘했다 한다. 여러 묘소도 모두 전과 같으나 다만 선 릉(宣陵)에서 불이 나서 우리 산으로 옮겨 붙었으나 다행히 봉분까지는 타지 않았 고, 산에 가득한 소나무가 모두 타서 누렇게 되었으나 모두 새 잎이 났으니 반드 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상하 마을의 인가도 모두 타서 아직도 옛터로 돌아온 자 가 없단다. 제사 지내는 날 마침 용궁(龍宮)숙모댁 종 복룡이 거기에 왔다가 참배 했다 한다. 다만 윤해의 양부(養父) 묘 앞에 있는 망주석(望柱石)이 하나는 앞의 구 렁으로 굴러 내렸고, 하나는 허리가 부러져 버려두었다고 한다. 왜병들이 무덤 앞 에서 마침 중국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는 것을 만났는데. 그들이 적의 뒤를 쫓았기 때문이다. 군사는 천여 명이 되는데, 대장은 좋은 말을 타고 남색 비단 도 포를 입고, 앞뒤에 흉배(胸背)를 달았으며, 또 의관을 쓰고 기상이 웅장한테 앞뒤 에서 옹위하고 달려 나가고 북을 치고 각(角)을 불면서 갔다 한다. 낙타 한 마리 에 대철포 통(大鐵砲筒)을 싣고 끌고 갔으며, 그 나머지 뒤에 따르는 사람은 그 수 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성에 들어가 보니, 중로(中路)로부터 북쪽 변두리 인가 는 모두 불에 타서 혹은 남은 재만 있고, 행랑이나 사랑채만이 우뚝 홀로 서 있어 서 보기에 몹시 참혹하더란다. 다만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혹 그 화를 당하지 않 은 곳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중로로부터 남쪽 변두리 인가는 흉적들이 반이나 들 어가 진을 쳤기 때문에 보존해 있는 곳이 많고, 그 나머지 진을 치지 않은 곳은 혹 은 불에 타고 혹은 헐려서 다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적이 진을 친 집은 비단 온 집이 완연히 전과 같을 뿐만 아니라. 유기(鍮器)나 잡물(雜物) 및 헐린 집의 재목 이 가득히 쌓여 있으니, 만일 적이 나간 후에 집주인이 즉시 들어왔으면 얻은 것이 많을 뻔했다고 한다. 죽전동(竹前洞)의 친가는 당초에 적이 비록 들어와 진을 쳤지 만 적이 나간 후에 가까이 있는 시민(市民)들이 먼저 들어가 도둑질해 가서, 심지 어 북 · 동 · 서쪽 누각 사이에 있는 사랑의 판자 및 창호(窓戸)와 문짝을 모두 뜯어 도둑질해 갔고, 그 나머지 동쪽 누각 양쪽 사이의 판자만 아직 남아 있고, 안팎 사 벽도 모두 걷어 갔는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먼저 들어간 자의 소행이 라 한다. 이현(泥峴)(진고개)에 있는 윤해의 양가(養家)는 온 집이 모두 철거되었 고, 깨진 기와와 헐어진 흙이 모두 남은 터에 가득한데, 다만 성조목(成造木) 세 개 와 대들보 두 개만이 버려져 있다 한다. 관북(關北) 장수(長水)(이빈)의 집은 다 타 서 남은 것이 없고, 다만 사랑 두 칸과 행랑만이 홀로 남아 있다. 향나무와 버들가 지는 모두 베었고. 몸뚱이와 줄기가 보존된 것은 서쪽 담 밑의 무성한 풀 속에 작 약 두 그루뿐인데 홀로 꽃이 피어서 환하니, 보기에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더라 고 한다. 이는 곧 나의 처갓집 종가로서, 30여 년 동안 장수(長水)와 같이 살아서 여러 자녀들이 모두 그곳에서 생장했기 때문에 연연하고 차마 잊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 인두와 화저(火箸)가 문밖에 버려져 있으므로 윤해가 종을 시켜 주 워 왔다. 이는 곧 여아들이 가졌던 물건이어서. 이것을 보더니 모두 기뻐하니 도 리어 슬픈 감회가 생긴다고 한다. 이경여의 집도 또한 모두 타 없어지고, 오직 사 랑과 행랑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나머지 한 동리 안은 비석을 세운 위의 좌우 인 가가 심지어 관하의 집까지 모두 타 없어지고 혹 행랑만이 남아 있을 뿐이란다. 목 천과 천안 두 집도 모두 타서 남은 것이 없고, 홀로 어둔손(於頓孫)의 집만 보존되 었다고 한다. 성균관 안에 들어가 보니, 대성전(大成殿) · 명륜당(明倫堂) · 존경각 (尊經閣) · 식당(食堂) · 정록청(正錄廳)은 모두 타 없어지고, 다만 성전(聖殿)의 협

문(俠門) 및 전사청(典祠廳)만이 남아 있고, 좌우의 재실(齋室)은 반쯤 탔으며, 대 성전 앞의 성비(聖碑)는 세 번 꺾어졌고, 부구(趺龜)도 또한 꺼내다가 거꾸로 내버 렸다 한다. 주자동 종가에 가보니 모두 타 버렸고 사당만이 홀로 남았는데. 들으 니 신주(神主)를 후원(後園)에 매안했다고 하므로 처음에는 들어가 보고 파내서 뵈 려 했으나 종 천복의 남편 수이가 말하기를, 집 안에 죽은 시체가 쌓여 있어서 들 어갈 수 없다고 한다. 사당 앞뜰에서 천복의 어미 및 천복과 그 아들 양지(良之)의 처를 죽여서 그 위에 시체를 버렸고 그 나머지 수이의 두 사위 및 마을 사람의 죽 은 자 12명의 시체를 그 속에 버렸는데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아서 악취가 온 고을 에 가득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천복의 어미는 곧 친가 종의 처로서 어머니와 동갑인데. 성질이 본래 순후하여 그 남편이 죽은 후로 수절하고 홀로 살 면서 우리 어머니를 섬기기를 제 상전 섬기듯 했고, 모든 혼상이나 제사 때면 반드 시 와서 음식 만드는 책임을 맡아 조금도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출입한 지 50여 년에 또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몹시 사랑하고 불쌍히 여 겼으며, 안팎 여러 집안에서도 모두 착하다고 일컬었는데 이제 비명(非命)에 죽었 다고 하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또 윤해의 처가는 적이 나간 지 오 래지 않아서 그 장인(丈人)(최향록(崔享禄))이 먼저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완연히 전과 같았지만 그래도 깨진 그릇이나 허물어진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니. 반드 시 적이 진을 쳤던 곳일 게다. 다만 친가는 사면이 모두 헐려서 아무도 들어가 살 고 지키는 자가 없으므로 종 광이로 하여금 와서 살라고 했다는데. 이웃에 중국 군 사가 있어서 반드시 와서 침략할 것이니 형세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딴 곳 에 있어도 날마다 와서 보고 다시 훔쳐 가거나 헐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한다. 그 러나 밤을 타서 비밀리에 와서 아직 헐지 않은 나머지 재목을 헐어 가면 누가 능히 금지하겠는가. 몹시 걱정이 된다. 서쪽 이웃 유사덕(柳師德)의 집은 전에는 적의 진지(陣地)였으나 지금은 중국 군사가 와 있다. 또 곳곳과 거리거리마다 집집 문과 마당에 시체가 쌓여 있어 참혹함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정월 24 일에 불을 놓았을 때 죽은 자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나오지 않고, 적들의 꾐에 빠져 인가에 묻어 둔 물건을 모두 파서 도둑질해다가 그 집에 쌓아 두고 술과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스스로 수가 났다고 생각하고 일이 생길 걱정은 하지 않다가 필 경 모두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모두 자취(自取)한 일이라, 누구를 허물하고 누구 를 원망하리오. 또 고성(高城)(남상문(南尙文))의 집을 보니 다 타 없어지고 다만 연정(蓮亭)만이 홀로 남아 있었으며, 김 정자(金正字)(김지남)의 집은 비록 뼈대는 보존되었으나 사방이 철거되고 남지 않았다. 유독 윤겸의 처가(이응화(李應華))만 은 예전과 같더라고 한다. 또 윤해의 양부(養父) 및 양조부모(養祖父母)의 신주(神 主)와 죽전동 삼촌 내외분의 신주를 적들이 파내다가 뜰에 버려둔 것을 종 옥춘이 모셔다가 관동 장수의 집 동산에 묻었다고 하므로 윤해가 친히 가서 그 양부 및 양 조부모의 신주는 찾아서 파냈고. 죽전동 삼촌의 신주는 매안한 곳을 알 수 없어 아 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반드시 옥춘이 온 뒤에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윤해의 양조부모 신주는 모시고 오다가 수원(水原) 종 내은동(內隱同)의 집에 편안히 모시고 돌아왔다. 또 세 대절 및 종묘 · 문소전(文昭殿) · 연은전(延恩殿)도 또한 다 타서 남은 곳이 없고, 궁원의 뜰에는 잡초만 무성하다고 하니 통곡함을 이 기지 못하겠다. 2백 년 내려온 선왕의 문물이 모두 적의 손에 없어졌으니. 이 적과 는 함께 천지 사이에 살 수가 없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선릉과 정릉을 또한 모 두 파내서 재궁(梓宮)을 부수고 옥체를 꺼내 버려서 중묘(中廟)는 겨우 뒤 구렁에 서 찾았고, 성묘(成廟)는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혹은 말하기를 불에 태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강에 띄웠다고 하니. 그 온 나라 신민(臣民)의 분통함을 어찌 다 말 하랴. 성묘(成廟)는 우리 동방의 성군(聖君)으로서 앉아서 태평한 정치를 누렸었 는데, 백 년도 되기 전에 한 주먹 흙도 보존하지 못하니. 비록 천운이 그렇다고 하 지만 반드시 인사(人事)의 미진한 것이 있는 것이니. 이는 곧 군신이 와신상담하여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을 것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자기 몸 을 잊고 의리에 분발하여 만세(萬世)의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지 않고 한갓 중국 군 사가 토벌해 줄 것만 믿다가 끝내는 중국 장수가 강화(講和)하는 것이 되어 마침내 흉적이 좋게 제 나라로 돌아가게 했으니 더욱 통분한 일이다. 옛날에 회왕(懷王) 이 진(秦)나라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자 초(楚)나라 사람이 팔뚝을 걷어붙여 '삼 호망진(三戸亡秦)'의 동요가 생겼고, 여산의 무덤의 흙이 마르기도 전에 마침내 항 적(項籍)의 손에 패했으니, 비록 당시에 갚지 못했더라도 후세의 보복이 또한 초인 (楚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히 쾌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분격하여 팔 뚝을 걷어 올리는 것이 또한 초인(楚人)이 후세에 보복을 기약하던 것이 있겠는가. 아아! 분통한 일이다. 강릉 · 태릉 및 현릉도 또한 파냈으나 재궁(梓宮)까지는 미치 지 못했다 하고, 그 나머지 능침에 대한 일은 아직 어떠한지 듣지 못했다. 다만 봉 선전(奉先殿)의 세조(世祖)의 영정은 당초에 적의 형세가 가까이 박도했을 때 윤겸 이 부득이 영정을 모시고 뒷산에 갖다 묻었고. 제기(祭器)는 절 앞뜰 밑을 파고 감 추어 두었었는데, 적이 한 번 절에 들어왔다가 돌아간 뒤에 윤겸이 또한 들어가 보 니. 영정을 묻은 곳이 장맛비로 인해서 습해졌으므로 썩을 것이 두려워서 도로 파 내다가 그 장식과 함께 불상 속에 섞어 두었었는데, 적들이 이것을 보고 불상이라 생각하여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으며, 제기는 적들이 마땅히 파 갔을 것이다. 그 후 에 윤겸이 여러 번 들어가 보고. 적이 들어오면 물러 나오고 적이 돌아가면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을 했었다. 그런데 적의 형세가 더욱 치열하여 하루도 오지 않는 날이 없자 부득이 물러 나와서 경기감사 권징(勸懲)을 보고 사실을 모 두 보고했으니 이로 인한 감사의 장계(狀啓)가 이미 올라갔는지 알 수 없다. 남쪽 으로부터 호서(湖西)로 온 뒤에 적으로 인하여 길이 막혀서 아득히 들을 수가 없어 서 매양 민망히 여기고 근심하다가 이제 적이 나갔단 말을 듣고 제 아우와 함께 서 울로 가서 그 길로 봉선전에 가 보려고 했었는데. 아산(牙山)에서 말이 눕고 걷지 못하므로 부득이 도로 내려와서 종 가질지로 하여금 봉선전에 가 보고 중에게 물 어보라고 했더니, 봉선은 다 타 없어지고 중들은 모두 흩어져 가고 다만 5, 6명이 임시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더란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영정은 보 호하고 있어 딴 걱정이 없으니. 이는 세 중이 보호하고 지킨 공이다. 지난 3월 3일 에 광릉의 이 참봉 이첨(爾贍)이 그 중과 함께 영정을 모시고 행조(行朝)로 가 뵈었 더니, 임금이 친히 수호하던 중에게 물으므로 중이 그 본말(本末)을 진달하자. 임 금은 품직(品職)을 제수했으나 중은 이를 사양했다. 이에 다시 명하여 영구히 본 사(本寺)의 주지(住持)를 삼아 첩지를 내주었다 한다. 3일에 영정을 모시고 간 뒤 에 7일에 적이 군사를 내어 산을 포위하고 그 절과 능산을 불태웠으니, 만일 조금 만 늦추었어도 어용(御容)을 또한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니, 가위 다행한 일이다. 또 들으니 친가의 종 복지는 당초에 그 어미와 함께 성을 나가는데, 그 남편 산석(山石)이 그 아들 응일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찾아서 데리고 오리라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복지는 그 세 아들 및 그 어미와 함께 얻어먹기가 몹시 어려워서 부득이 성안으로 들어가서 도로 옛집에 가서 살다가 그 뒤에 불에 탈 적에 도망해 나와서 중흥사(中興寺)에 이르러 그 아들들과 함께 얼고 굶주려 죽었다고 한다. 그 어미는 비록 적의 손에는 죽지 않았어도 반드시 굶어 죽었을 것이니, 불쌍하다. 지난해 10월에 아우가서울에 들어가 신주를 모시고 나올 때, 복지의 모녀도 또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양식이 없어서 버리고 왔다 하는데, 만일 그때 데리고 나왔더라면 반드시 네 모자(母子)가다 죽는데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니, 더욱 가련한 일이다. 종 옥춘이 온 뒤에 죽전동 숙부의 신주의 거처를 물었더니, 당초에 관가(館家)의 다락 위에 두었던 것이 불이 났을 때 역시 타 버렸다 한다.

9일. 이른 아침에 이성록이 와 보고 갔다. 아침 식사 후에 이중진(李仲進)(이광복)의 옆채에 가서 사포 아저씨께 뵈었더니 김정형(金正兄)(찬선) 및 이 생원 광축·신정숙(申正熟)이 먼저 와 있다. 신 공은 곧 김 형(金兄)의 친구로서 역시 피란해서 이 고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형을 와서 보는 것이다. 조금 있자니 윤 진사 민현과 김형윤(金亨胤)이 와 모여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신 공은 먼저 가고, 나도 또한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또 송 경략(宋經略)(송응창)의 여러 장수에게 흉적을 추격하라는 글을 보니, 중국 장수가 강화한 것은 본래 본의가 아니고,적이 서울의 험한 것을 점령하고 굳은 성벽을 지키고 있으므로 실로 쉽게 공격할수가 없어서 적을 유인하여 성에서 나오도록 한 계획이었다 한다. 이제 적들의 돌아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니, 비로소 그 뜻을 알겠다. 더구나 적이 한번 조령(鳥嶺)을 넘은 후에는 영남에 머무르면서 여러 고을을 분탕하여 그 간사한 꾀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독(이여송)이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충주에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경략(經略)이 말하기를, 심유경이 적과 내통해서 그 죄를 용서할 수없고 왕자의 배신(陪臣) 및 두 사신을 만일 구출해 내지 않으면 마땅히 국사를 소

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락의 본심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심유경은 당당한 큰 조정의 대신(大臣)으로서 흉한 오랑캐와 내통해서 공모하여 달갑게 신첩 노릇을 했으니, 그 부끄러움을 또한 알 만하다(이는 없던 일이다).

10일. 이른 아침에 윤해가 처자를 거느리고 진위(振威)에 있는 그 장인 내외가 있는 농사(農舍)로 가는데, 송노(宋奴)도 또한 말을 가지고 모시고 갔다. 또 윤해의 처자는 함께 피란하여 여기에 온 지, 이제 장차 반년이 되도록 항상 어렵게 지냈고 죽을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떠나 돌아가니 온 집안이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손자들이 눈앞에서 노는 것을 보는 것으로 아름다운 소일거리로 여겼기에, 더욱 이로 해서 그리워진다. 또 저녁에 문응인(文應仁)이 와서 봄으로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11일. 함열태수 신 공(申公)(신응구(申應榘))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윤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형의 집일을 매양 한번 생각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긴다. 주리고 배부른 것을 또한 함께 하고자 즉시 근처로 와서 살도록 하라" 했으니 가위 두터운 마음이라 하겠다. 또 낮에 안 공 세규(安公世珪)가 광석(廣石)으로부터 걸어서 찾아왔다. 전일에도 역시 한 번 와서 찾았던 것을 병으로 오래도록 답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또 와서 찾으니 내 마음에 몹시 부끄럽다. 또 저녁에 윤겸이 결성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저린 갈치 13마리・생선 광어 1마리・오징어 4마리・생조기 1마리를 가지고 왔다. 갈치는 전일에 금손(今孫)이 갔을 때, 쌀과 소금을 미리 한 생원 효중의 집에 보내서 사 두도록 한 것이다.

송 경략 통유 삼도 패문(宋經略通諭三道牌文)

칙명을 받은 경략(經略)(송응창)은 계요(薊遼) · 보정(保定) · 산동 등처에서 바다를 막고 왜(倭)를 막았으며, 병부우시(兵部右侍) 곽송(郭宋)은 왜의 정세(情勢)를 조사했더니, 왜노(倭奴)는 평양 · 개성 등처에서 여러 번 패하여 모두 왕경(王京)에 모여 있으면서 천위(天威)의 토벌을 두려워하여 공물을 바치고 애걸하여 제 나라로돌아갈 것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는 진심으로 항복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다. 본

부(本部)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나가 토벌하여 서울을 떠나도록 유인하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런 험한 것을 믿을 것이 없어서 진토(進計)하기가 편할 뿐 아니라. 더구나 이제 또 패해 달아나면서 왕자와 배신(陪臣)만 머물러 두었으니 왜장(倭將)의 신약(信約)이라는 것이 교활하고 거짓 스러운 것이 더욱 나타났다. 이 때문에 21, 2일에 패문(牌文)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평왜제독(平倭提督)이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 · 전라 두 도(道)로 쫓아가서 앞 길을 막고, 군사를 합하여 뒤를 엄습하는데 다만 각 병장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왜(倭)가 지방을 떠나는 것을 보고 태만히 여겨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서 거 듭 이 패(牌)를 엄하게 재촉해 보내는 것이니. 바라건대 본관(本官)은 즉시 본국의 관병을 거느리고 군사의 기계와 양곡을 가지고 밤을 돋우어 따라가서 앞으로 적이 주둔한 곳으로 가서 대병(大兵)을 모아 합쳐서 힘을 같이하여 적을 무찌르도록 하 라. 만일 심유경이 적과 상통한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왕자·배신 및 보낸 두 사신은 구원해도 나오지 않으면 또한 나라 일이 소중하니 어찌할 수가 없다. 하물며 본부(本部)에서 두 사신을 보낼 때에 마땅히 만나서 타일러서 저로 하여금 임기(臨期)해서 나가서 스스로 주장을 세우고 오로 지 듣기만 하지 말 것이다. 심유경은 통공(通貢)하고 호송하는 조그만 소식을 고집 하여 우리 천조(天朝) 및 조선국(朝鮮國)의 대체(大體)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이는 모두 왜와 타협한 것이며, 수비(守備) 호택(胡澤)과 경력(經歷) 심사현(沈思賢) 등 관원 및 본부(本部) 표하(標下)의 각 장령들의 함께 들은 것은 말이 이미 먼저 있 었으니 본부(本部)에서 오늘날 이런 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응용하는 양 식과 이 나라 인축(人畜)을 잘 알아서 군사들과 협동하여 기계를 먼저 운반하고 길 떠날 시일을 보고하여 패문이 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12일. 종일 집에 있자니 무료하기 몹시 심하다. 아침에 종 막정으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정산(定山) 가질지의 집에 가서 양식을 싣고 오게 했다. 전일에 윤겸이 쌀을 얻어 그 집에 두어두었는데, 이곳에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종과 말을 보내서 가져오게 한 것이다. 낮에 김포 정 공 엽(鄭公曄)이 보령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길에 들러서 윤겸을 보고 갔다. 그는 곧 윤겸의 친구로서 지금 상중 (喪中)인데 난을 피해서 보령 농사(農舍)에 와 있었으니, 곧 이 판상(李判相) 산보 (山甫)의 사위이다. 또 총각 두 사람이 피리를 들고 와서 먹을 것을 빌기로, 어디 사느냐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집은 서울 신성동(新城洞)에 있다고 한다. 또 뉘 집 종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박 판윤(朴判尹) 승원(崇元)의 종으로서 호서(湖西)로 피란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양식이 없어서 구걸한다고 한다. 이에 한 곡조를 부르라고 했더니 맑은 소리가 처랑하여 몹시 슬프다. 나도 또한 타향에 떠돌고 있는 터라 이 소리를 들으니 더욱 몹시 슬픈 감회가 인다. 하물며 박상 (朴相)은 곧 나와 한 마을에 살아 서로 안 지가 오랜 터로 지난해에 갑자기 관서(關西)에서 죽었는데, 이제 그 종을 보고 생각하니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이에 소금과 양식을 주어 보냈다.

13일. 종일 집에 있어, 별로 듣고 본 것이 없다. 무료한 중에 아이들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가까운 이웃에 산보하다가 혹 그늘 밑에 앉기도 하고 기도하여 긴 시름을 없앴다.

14일. 늦은 아침에 송노(宋奴)가 진위로부터 돌아왔다. 다만 돌아올 때로부터 두통이 생겨 지금까지 낳지 않더니 오늘 저녁에는 몹시 아프다니 끝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민망하고 근심됨을 어찌 다 말하랴. 문밖에 막(幕)을 치고 살고 있는데, 다시 내일 보아서 만일 고통이 덜하지 않으면 마땅히 다시 냇가로 옮길 계획이다. 또 윤겸과 함께 사포(司圃) 아저씨를 곁채로 가서 뵈었더니, 중순(仲順)(이광축(李光軸))· 중진(仲進)(이광복(李光輻))도 또한 모여서 서로 이야기했다. 김정형(찬선)은 계당에 와서 종을 시켜 물고기를 잡아놓고 나를 청한다. 이에 나도 또한 윤겸과 함께 계당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마침 우리 집에 술 반병이 있기에 가져오라 하여 각각 석 잔씩을 마시고 해가 저물어 돌아오면서 다시 뒤에 계당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15일. 아침 식사 후에 들으니 김덕민이 어제 보은(報恩) 본가로부터 돌아왔다 하므로 역관(驛館) 앞의 느티나무 그늘 밑에 가서 김 공 및 두 아이와 이야기했다. 윤 겸은 김 공과 철전(鐵箭) 십여 순(巡)을 쏘다가 파했다. 또 영남의 적의 소식이 어

떻더냐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적들은 이미 상주(尙州)를 떠났고 중국 군사가 들어가 진을 쳤다고 한다. 또 송노의 병세가 덜하지 않아 부득이 냇가에 막을 치고 저녁 무렵에 옮겼다. 다만 온 집안 종들이 왕래하면서 문병하고 겸해서 음식을 보내기를 하루에도 두세 차씩 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또 어두울 무렵에 안 장원(安掌苑) 창(利)이 비인(庇仁) 농촌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잔다 하므로 역관 앞의 느티나무 밑으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두 아들도 따라갔다 왔다.

16일. 이른 아침에 사람을 시켜서 송노의 문병을 했는데 전과 같이 몹시 아파하고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니 걱정스럽다. 병을 얻은 지 이제 7일이 된다. 저녁에 금손 (今孫)이 왔는데, 결성의 도역인(逃役人)의 전답 입안(田沓立案)을 전한다. 이것은 곧 본관(本官)·좌수(座首)와 유 위장(留衛將)이 함께 의논해서 보낸 것으로서, 논이 석 섬지기, 밭이 5일 갈이라 한다. 좌수(座首)에게 내 새 갓모 하나를 보냈는데, 만일 이 전답을 얻고 여기에 더 사서 보태면 윤겸이 영구히 살 곳이 될 것이니 기쁜 일이다.

17일. 아침 식사 후에 귀 성수(龜城守)가 와서 보기에 함께 역관 앞 느티나무 밑으로 걸어가서 김덕민 및 두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마침 김상관(金尚寬)도 또왔다. 조금 있자니 사포 아저씨가 김정형과 계당으로 와서 나를 청한다. 내가 윤겸 및 김상관과 함께 달려갔더니, 와서 모인 자는 이광축ㆍ이광복ㆍ김형윤ㆍ장응명ㆍ윤민현과 사포의 두 손자, 광복의 두 아들인데, 먼저 아래 내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고, 각각 점심에 먹을 쌀과 반찬을 가지고 오고, 중진(이광복)의 집에서 밥 지을 제구를 가져왔다. 김상관은 먼저 보령으로 돌아갔고, 고기 잡는 사람은 해가 늦었는데도 아직 잡아오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파 우선 점심을 먹었다. 해가 저물어서야 고기가 와서 회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다가 파하고 돌아왔다.

18일. 오전에 나는 윤겸 및 김덕민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광석 안 사과(安司果) 의 도괴정(道愧亭)에 가는데, 나는 단천정(丹川正) 모씨(母氏)가 있는 곳에 들르느라고 뒤에 갔더니 안 사과(安司果) 및 안 별감(安別監)·최 부장(崔部將) 인(寅)·안 참봉(安參奉) □□·안세규(安世珪)와 사과의 형 안(安□□)이 와 있다. 그 정

자를 보니. 큰 느티나무 십여 그루가 앞뒤에 벌려 서 있어 녹음이 짙어서 아무리 쇠라도 녹일 여름날이라도 솜옷을 껴입어도 더운 줄을 모르겠다. 앞에는 큰 들에 임했고. 냇물이 정자 밑을 돌아 흐르니 참으로 절승(絕勝)이다. 조금 있자니 주인 이 우리들을 데리고 별사(別舍)로 들어가는데, 집이 매우 정결하고 단청(丹靑)이 휘황하다. 서쪽을 바라보니 오서산(鳥棲山)의 푸른빛이 문으로 들어오고. 앞뒤에 는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연다고 한다. 남쪽 담 밖에는 또한 연당(蓮塘)이 있는데 가물어서 물이 말라 이것이 한스럽다. 주인집에서 토장(土醬)을 내와서 함 께 먹었다. 오후에 김정형(金正兄) 및 윤 진사(尹進士) 민헌(民獻)이 계속해서 오 자. 주인은 또 점심밥을 내왔는데 반찬 중에 순챗국이 있어 그 맛이 매우 아름답 다. 이윽고 조 내한(趙內翰) 존성(存性)이 행조(行朝)에서 명령을 받들고 역관(驛 館)에 들려서 윤겸을 만나자고 해서 윤겸은 먼저 돌아오고, 나와 김정형 · 윤 진사 는 뒤따라왔다. 역전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한림(翰林)을 만나 이야기했다. 그에게 들으니 심인지(沈仁祗)는 예산군수가 되고, 이귀(李貴)는 장성군수가 되었다 한다. 저녁때 조 공은 보령으로 돌아가 노모를 보고, 그 길로 완산(전주)으로 향한다 한 다. 이는 곧 사국(史局)에 있는 선릉 · 정릉 두 능(陵)의 옥책(玉冊)을 꺼내 보기 위 해서이다. 두 능은 모두 패어서 이제 바야흐로 개수(改修)하기 때문이다.

19일. 이른 아침에 윤겸이 함열에 가고자 떠나려는데, 말이 병이 나서 중지했다. 또 들으니 김정형이 내일 서쪽으로 행조(行朝)로 돌아간다 하므로 늦은 아침에 윤겸과 이중진(李仲進)의 곁채에 가서 사포 아저씨께 뵈었더니, 김정형 및 이중순(李仲順)·장회부(張晦夫)·윤민헌(尹民獻)·김극(金克)·김형윤(金亨胤)이 모두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파하고 돌아왔다. 회부(晦夫)는 장 주부 응명(張主簿應明)의 자인데, 회부도 또한 오늘 부모를 모시고 영해로 간다고 먼저 작별하고 돌아갔다. 저녁에 윤함이 대흥에서 돌아왔다.

20일. 이른 아침에 윤겸이 함열을 향해 떠나는데 막정의 말을 타고 갔고, 윤함은 막정과 세만을 데리고 돌아갔다. 또 들으니 어젯밤에 찰방(김가기)이 돌아왔다 하므로 윤함과 함께 걸어서 가서 막힌 회포를 풀고 돌아왔다. 그에게 들으니 적들은 밤에 도망해서 내려갔고, 중국 군사는 이미 조령을 넘어서 상주에 들어가서 진

을 쳤고, 이 제독(이여송)은 비록 뒤따라가기는 했어도 뒤에게 공격하려고는 하 지 않았으니,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중국 군사는 겨우 3만인데, 병에 걸 려 누워 앓는 자가 많다고 한다. 오후에 윤해가 진위(振威)에서 돌아왔는데, 안손 (安孫)을 잡아 가지고 왔고, 명복(命福)도 역시 데리고 왔으나 중로에서 발병이 났 다고 핑계하고 뒤에 떨어져서 오지 않았다고 하니. 만일 오늘도 오지 않으면 또한 그 길로 도로 도망한 것이다. 밉고 또 밉다. 또 윤해가 양지(陽智)에 가서 보니 우 리 집 마을 속은 전혀 인가가 없고 쑥대만 눈에 가득했으며, 또 한 사람도 들어가 사는 자가 없더란다. 다만 죽산(竹山)의 어리현(於里峴)에 사는 양반 문응신(文應 臣)과 상인 김이동(金伊司) 등 3. 4인이 옛터로 들어가서 초막 두어 칸을 짓고 사 는데, 전답은 매양 한곳에서 일구더라고 한다. 다만 목악리(木嶽里)에는 절반이나 들어가 살아서 혹 밭을 가는 곳도 있더라고 한다. 또 들으니 송예(宋藝)는 병에 걸 리고 또 양식도 떨어져서 굶어 죽었다고 하니 애도(哀悼)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송 (宋)은 나의 서족(庶族)으로서 평일에 가장 가깝게 지냈고, 곡식도 넉넉히 저장하 고 전당도 많이 샀으며, 또 새로 집도 짓고 늦게 아들도 낳아서 스스로 영구히 대 대로 부자로 살 것이라 생각하더니, 이제 큰 변을 당해서 굶어 죽는 데 이르렀는데 도 구워하지 못했으니. 사람의 사생(死生)과 화복(禍福)은 또한 미리 계획하고 미 루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21일. 아침에 흐리고 바람이 불더니 조금 있다가 비를 뿌리기 시작하고 이윽고 크게 내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는다. 4월 보름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가뭄이 너무 심해서 깊이 도랑을 파지 않은 곳은 논도 역시 모두 갈라져서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야흐로 지극하더니 이제 큰비를 얻으니 거의 소생될 것 같아서 백성들의 바람이 흡족하다.

22일.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르도록 개지 않는다. 송노(宋奴)가 막을 친 곳은 냇물이 넘쳐서 거의 침몰할 뻔 했으므로 오늘 아침에 춘이로 하여금 높은 언덕으로 옮겨 치게 했다. 또 송노(宋奴)의 병은 수삼 일 전부터 조금 덜해서 점차 죽을 먹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는 밥 생각을 했단다. 늦은 아침 후에 비는 개었으나 종일 흐렸다. 또 들으니 찰방(김가기)이 순찰(巡

察)이 불러서 급히 간다기에 아침 식사 후에 걸어서 갔더니 이미 인마(人馬)를 거느리고 충주로 향했다고 한다. 이는 곧 중국 군사가 불의에 큰 군사를 거느리고 도로 조령(鳥嶺)을 넘어서 이미 충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지공(支供)하는 인마가 반드시 미치지 못하므로 일이 있어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다. 김덕민을 불러다가 함께 냇가 언덕 느티나무 밑으로 가서 물이불어난 것을 구경하는데 윤함도 뒤따라와서 한참 만에 각각 돌아왔다.

23일. 아침부터 날이 흐려서 혹 비도 내리고 혹 개기도 하여 이렇게 종일 계속되었다. 춘이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대흥(大興) 윤함의 처가 농막에 보내서 보리를 가져오게 했다. 근래에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졌으나 구급(救急)할 곳이 없으니민망한 일이다. 저녁때엔 부인들은 양식이 부족하다 하여 다만 국수 조금씩만 먹을 뿐이다. 춘기가 대흥에서 돌아왔는데 겨우 보리 5두를 가지고 왔다. 이는 곧 호노(戸奴) 애운(愛雲)이란 자가 요역(搖役)을 핑계로 주지 않더라고 하니 미운 일이다. 어두워서 명복(命福)이 와서 보았다.

24일. 종일 흐렸다. 오후에 걸어서 역전 느티나무 밑으로 가서 김덕민을 맞아다가 쭈그리고 앉아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정김포(鄭金浦) 엽(曄)이 서울에서 내려 오다가 윤겸을 찾아 들렀으나 윤겸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나갔다. 보리를 신대(新代) 두 이 씨의 집에서 빌리려 했으나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으므로 부득이 다시 역졸의 집에 가서 3두를 얻어 왔다. 이달 초생부터 양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차츰 드물어 가니, 필시 유리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보리도 또한 익었기 때문에 얻어먹을 길이 생긴 때문일 것이다.

25일. 춘이를 보내서 포목을 가지고 홍주(洪州) 시장에 가서 보리와 바꾸고 모시와 바꿔 오라고 했더니, 값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왔다. 또 윤해가 그 친구 최여해(崔汝諧)를 이 고을 가까운 곳으로 보러 갔다가 마침 최(崔)가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저녁에 진위 사람이 와서 들으니 몽아가 22일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다. 오늘은 곧 어머님 생신인데 처음에는 전날에 가려 했었으나 비단 인마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事故)가 많이 생겨서 갈 틈이 없고, 또 큰 병을 앓고 난 나머지에 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걷기에 어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근일에 다시 남쪽 지방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어 옮긴 후에라야 가 뵈올 것 같다. 그러나 더위가 천지를 찌고 비가 이렇게 내리니 또한 기필할 수가 없다. 26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종일 그치지 않는다. 춘이를 정산(定山) 가질지의 집에 보내서 양식을 싣고 왔다. 근일에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민망하고 근심되던 차에, 어제 이 생원 익빈이 벼 4두를 보내와서 마치 백 사람의 벗을 얻은 것과 같아 수일 동안의 주림은 면할 수가 있겠다. 기쁜 일이다.

27일. 어제부터 하루 종일 밤까지 비가 조금도 그치지 않아 앞의 내가 넘쳐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 송노(宋奴)의 먹을 것은 강비(江婢)가 가지고 냇가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고, 다시 진위에서 온 사람을 시켜 내를 건너서 밥을 주었다. 아침 식사는 양식이 떨어져서 부득이 찰방의 집에서 쌀 서 되를 꾸어다가 해먹였고, 저녁 식사는 춘기가 돌아와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물이 많아서 오지 않으면 상하(上下)가 반드시 굶을 것이다. 저녁에 춘기가 쌀 5두 · 보리쌀 2두 · 벼 1섬을 가지고 왔는데, 벼는 되어 보니 13두이다. 이것을 기다려 저녁밥을 지어 먹으니 날이이미 저물었다. 콩과 팥 각각 2두씩 싣고 왔는데 이것은 윤겸의 결성 땅에 심을 것이다.

28일. 전에 시장에서 포목을 사 두었던 것을 이때에 보리로 바꾸어 먹으려 했으나, 이제 들으니 값이 너무 싸서 겨우 보리 12, 13두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전일의 계획은 도리어 헛일이 되었다. 여름 지내기가 몹시 어렵겠으니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랴.

29일. 새벽에 죽전 삼촌의 제사를 지냈다. 어제 저녁부터 큰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개지 않아서, 내와 못이 넘쳐 사람이 건널 수가 없다. 송노의 아침 식사는 춘이를 시켜 갖다 주게 했으나 역시 건너지 못하고 냇가에서 던졌더니 송노가 나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춘기 · 안손등을 오늘 마땅히 내보내야 할 것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 보낼 수가 없고,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다 되어 굶주릴 걱정이 가까워졌으니 상하의 민망함을 어찌 말하라. 윤겸이 간 지가 이제 십여 일이 되는데 소식을 듣지 못하겠으니, 생각건대 장맛비로 인해서 큰 내와 못을 필경 쉽게 건너지 못해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리라. 걱정스럽다. 저녁때 조금 개기로 뒤 언덕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앞뒤 의 두 냇물이 큰 들로 들어가 끝까지 가득 차 있으니 냇가의 곡식은 많이 흙에 묻 혔을 것이다. 윤겸의 목화받도 역시 물속에 잠겼을 것이니 더욱 아까운 일이다. 그믐날. 지난밤부터 남풍이 크게 불어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고. 검은 구름이 북쪽으로 달려가니 생각건대 큰비가 내릴 징조이다. 비록 먹을 것을 얻는 길이 있어도 큰 내에 막혀 인마가 통행하지 못하니 굶을 근심이 아침저녁으로 박 두했으니 이 민망함을 어찌하리오. 아침에는 상하가 모두 콩죽을 쑤어 먹었는데. 나는 본래 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낮에 윤겸의 편지가 함열에서 왔는데, 쌀 한 두와 조기 한 묶음을 함께 보냈는데 곧 함열군수(신응구) 가 보낸 물건이다. 윤겸은 금명간 반드시 돌아올 것이나 오지 않는 것은 생각건대 물에 막힌 것이다. 또 온 사람에게 들으니 그 군수가 중국 군사 지공(支供)하는 일 로 나가다가 마침 윤겸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가면서 머물러 있다가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하니. 그렇다면 윤겸은 반드시 속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무료한 중에 걸어서 역과 앞으로 가서 김덕민을 청해다가 이야기했다. 그 에게 들으니 찰방은 검찰사(檢察使)를 모시고 지금 공산(公山)(공주(公州))에 도착 했는데, 검찰사란 곧 이판상(李判相) 산보(山甫)로서 삼도(三道)의 일을 검찰한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다. 중국 군사는 지금 충주에 있 다 하니, 반드시 비로 인해서 오래 지체하는 것이다. 오늘은 비록 비 올 증세가 있 었으나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6월

1일. 아침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를 이중진(李仲進)의 곁채로 가 뵈었더니, 주인 및 이중순(李仲順) · 윤 진사 민헌 · 이귀령 · 김극과 이 생원 익빈이 모두 모여서 이야 기하면서 소년들이 운(韻)을 달아 글을 지어 승부를 겨루는 것을 구경했다. 오후는 나는 먼저 일어서서 돌아왔는데, 오다가 보니 큰 냇가에 있는 이 첨사(李僉使)의 집 논이 이미 세 벌이나 매 준 것이 그저께 큰비로 앞 둑이 터져서 모두 모래와 자갈 속에 파묻힌 채 그대로 큰 내가 되어서 가을에 수확할 가망이 이미 없어졌으

니 탄식할 일이다. 춘이를 청양 장에 보내서 포목 한 필로 보리 10두를 바꾸어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아홉 말이다. 또 정목(正木) 한 필로는 모시 35척을 바꿔 왔는데 겉보리 한 말을 더 주었다고 한다. 보리가 귀하기가 이와 같고, 달리 먹을 양식을 이을 길이 없는데, 있는 집주인은 지금도 또 나가기를 독촉한다. 사람의 곤궁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2일. 안손을 진위에 보내서 몽아의 안부를 알고자 했다니 아침 식사 후에 윤해는 그 처조카 최희선(崔熙善)을 보기 위하여 그 고을 적동리(赤洞里)에 갔다고 한다. 오후에 윤겸이 돌아왔다. 비로 2일 동안 함열에 머무르다가 임천 조 한림(趙翰林) 희보(希輔)의 집으로 왔는데, 역시 큰비에 막혀서 3일을 묵었다고 한다. 전에 정산에 얻은 집은, 처음에는 옮겨 가려 했었으나 윤겸이 친히 보니 비단 더럽고 허물어 졌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전염병 환자가 바야흐로 앓고 있어서 갈 수가 없더란다. 또 임천 조 한림(조존성)의 집을 얻었는데, 새로 지은 지 오래지 않아서 아직 수장 (修裝)을 하지 않았고, 또 마루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갈 곳이 없으니 부득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열흘 전에 갈 계획이었다. 함열(신응구)이 준 쌀 7두ㆍ병 9두ㆍ간장 2두ㆍ조기 3묶음ㆍ갈치 4마리ㆍ생선젓 2동이ㆍ조개젓 1항아리ㆍ남자 신 1켤레ㆍ여자 신 1켤레를 윤겸이 가지고 왔다. 남자 신은 내가 신고, 여자 신은 임모(任母)에게 주었다. 양식과 찬거리가 바야흐로 떨어져서 모두 민망하던 차에 이제 이 물건을 얻었으니, 5, 6일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다.

3일. 어제 오후로부터 동남풍이 크게 불더니 바람이 자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또 오늘 아침까지 퍼붓듯이 내리다가 늦은 아침에야 조금 덜 오고, 오후에는 안개가 졌다. 윤해가 돌아왔다.

4일.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개지 않는다. 열흘 사이에 임천으로 옮기려는데 장맛비가 이와 같으니, 비단 내와 도랑이 넘쳐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할뿐 아니라, 길이 몹시 험하다 하니 형세가 갈 수가 없다. 양식 자루가 비었으니 말할 수 없다.

5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종들을 보낼 곳이 있는데도 비로 인해서 한집에 모여 있어 식사를 계속하기가 몹시 어려우니 민망함을 말할 수 없다. 임천으로 가는 일

도 역시 이로 인해서 오래 지체되어 더욱 민망하다. 어제 낮에 최진운(崔振雲)이 거친 벼 10두를 전인해서 보내 주었는데, 다시 되어 보니 7두 8승이다. 필시 지고 온 사람이 도둑질해 먹은 것이다. 진운은 곧 윤해의 처조카 최희선(崔熙善)인데 지금 그 이름을 고친 것이다.

6일. 밤새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갤 징조가 없어, 그 괴로움을 다 말할 수 없다. 오후에 조금 멎었으나 그래도 때때로 조금씩 뿌린 다.

7일. 어제 저녁부터 또 비가 내려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고, 아침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이른 아침 식사 후에 송노가 직산(稷山) 그 아비의 집으로 갔다. 병이 차도가 있은 후로 오랫동안 냇가에 있었는데 이 같은 장맛비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그 집으로 돌아가서 조리해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하므로 보냈다. 20일 안으로 돌아오도록 일러 보냈다. 또 요새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부득이 깻잎을 따다가 국을 끓이고 죽을 쑤어 상하가 함께 먹으면서 날을 보냈다. 오직 나는 본래 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홀로 밥을 지어서 단아와 함께 나누어 먹고, 두아들도 또한 죽을 먹으니 탄식스럽다.

8일. 밤새 바람 불고 비가 내렸다. 요새 장맛비가 달로 계속하여 개지 않아 상하가한집에 모여 있고 출입도 하지 못하고 주림이 이미 심하니 민망함을 말할 수 없다. 춘노를 대흥으로 보내서 전일 받아 온 보리의 환상(還上)을 감하려 했으나 문지기가 금하는 것이 엄해서 서장(書狀)을 바치지 못하고 어두울 때 그대로 돌아왔다. 또 조 내한(趙內翰) 존성이 역에 이르러 자고 사람을 시켜 문안함으로 즉시 가서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조 공(趙公)이 말하기를, 국사(國史)를 정읍 내장산 절에 간직했으므로 그 절에 가서 옥책에 전해 쓰고 오는 길인데, 다만 물에 막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왜적은 지금 영남 창원 이하 여러 읍에 있어, 들에 가득히 진을 쳤고, 이 제독(이여송)도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도로 영남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동안의 곡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적이 오래 머물러 여러 고을을 노략질할 것이니 그 꾀를 해아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추격하는 것인가. 다만지난달 20일 후부터 동남풍이 계속 불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니. 적도 또

한 이 때문에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일 게다. 또 들으니 완산에 있던 어용(御容)은 사책(史冊)을 간직한 절에 옮겨 보냈다가 당초에 적이 완산을 침범했을 때 창졸간에 거두어 갔는데, 수심과 축(軸)은 말아서 첩(貼)을 만들어서 유지(油紙)와 짚자리로 싸서 사책과 함께 옮겨 간직했다고 한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근신하는 유생 두 사람을 시켜 모시고 숙직하게 했다고 한다.

9일. 어제부터 동남풍이 계속 불어서 밤에까지 이르고 오늘 아침까지도 크게 불고 그치지 않고서 비도 또한 때때로 조금씩 뿌린다. 또 조 한림(조존성)이 이른 아침 에 서울로 가는데, 춘노를 또한 한림을 따라서 함께 대흥으로 가게 하여, 한림으로 하여금 태수(신괄)에게 말하여 그 보리를 감해 주게 했더니 또 콩 3두를 줌으로. 애운에게 있던 보리 17두와 함께 싣고 왔다. 전일에 바치려던 보리의 환상(還上)은 윤함의 처가에서 나온 보리로 예비했었는데, 이제 감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실어 온 것이다. 양식이 떨어져서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이제 가외의 물건을 얻으니 근 일의 주림은 면하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또 저녁에 들으니 찰방이 역으로 돌아 왔다 하므로 세 아이와 함께 가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찰방은 우리들이 이미 딴 곳으로 옮겨간 줄 알았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고 한 다. 오후부터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 비로소 푸른 하늘과 흰 태양을 보겠다. 찰방 에게 들으니, 중국 장수 이여송이 서울로 올라간 뒤에 이여백(李如柏)이 도로 내려 와서 충주에 머물러 주둔했었는데, 이제 또 도로 올라갔다 하니, 오고 가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왜적이 지금 창원 이하 여러 고을에 있다고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동래 · 부산 · 웅천 등지에 조금씩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바 다를 건넜으며. 우리나라 여러 장수들은 양산으로 가서 진을 쳤다고 하나 그 자세 한 것을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장수들은 적이 가고 있는 것을 정탐하지도 않고 여 러 고을에 알렸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또한 알지 못한다 하니 탄식할 일이다. 어제 는 단아가 학질을 앓지 않더니 오늘 또 아프다니 필시 며느리조금인가 보다. 민망 스럽다

10일. 아침 식사 후에 세 아이와 함께 찰방을 찾아가서 종일 이야기하자, 점심을 지어 내왔는데 닭찜과 외 구은 것이 있다. 이것은 귀한 물건은 아니지만 유리하는

나그네가 보리밥도 오히려 계속하기가 어려운 터에 더구나 감히 입맛을 돕는 물건을 바라겠는가. 오래 보지 못하던 나머지에 이제 비로소 얻어 보니 마치 팔진미(八珍味)³를 대한 것과 같으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나누어서 병중에 있는 단아(端兒)에게 보냈다. 이 자리에 있던 자는 주인 및 그 아들 김덕민과 나의 세 아이ㆍ정계무(鄭繼武)였다. 계무는 곧 정 상공(鄭相公)지연(芝衍)의 서자이다. 윤겸은 덕민과활을 쏘다가 저물어서 파하고 돌아왔다. 또 들으니 중국 조정에는 또한 세 곳에 변이 생겼기 때문에 이여송을 급히 명령하여 돌아오라 했다는데,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왜적이 아직도 영남에 머물러 있고 바다를건너지 않아서, 여러 고을의 남은 백성을 불태우고 살육하는데 중국 군사가 졸지에 돌아가면, 저 적들이 만일 듣고서 도로 북쪽을 향해 길게 몰려올 걱정이 있다.민망하고 근심됨을 어찌 다 말하랴.

11일. 들으니 찰방이 공산(公山)으로 돌아간다 하므로 이른 아침에 세 아이와 함께 작별했다. 찰방은 이 길로 검찰사(이산보)를 모시고 여러 고을을 순행하느라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보름 후에 임천으로 옮길 계획이라 이로부터는 다시 서로 만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작별에 임하니 피차가 자못 서운한 마음이 있다. 내가 3월로부터 오래 여기에 와 있어 찰방이 역(驛)에 있으면 매일 서로 찾고 있는 것 없는 것을 반드시 도와주어 후하게 대해 주는 뜻이 많았다. 찰방은 곧 성 대곡(成大谷)(성운(成運))의 양자로서 인후장자(仁厚長者)에서 그 집의 가풍이 있고, 그 아들 덕민도 또한 비범한 사람이어서 능히 가업을 계승할 만하니, 가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고 하겠다. 찰방은 떠날 때 나에게 우비를 주었고, 또 식사 후에 세 아이 및 김덕민과 함께 계당으로 나가서 사람을 시켜 물고기를 잡았다. 나는 홀로 사포 아저씨께 가 뵙고 돌아왔다.

12일. 찰방의 부인이 우리 집사람과 윤겸의 처를 청하므로 식사 후에 함께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자못 은근한 뜻을 표했고, 또한 떡도 만들어 주더라고 한다. 저녁에는 또 삼색 젓갈을 보내왔다. 나는 또한 홀로 계당으로 가서 종을 시켜 그물질로 물고기를 잡게 하고 말을 놓아 풀을 먹게 하고서 종일 누

³ 팔진미(八珍味): 여덟 가지의 맛있는 음식.

워 쉬다가 돌아왔다. 날이 몹시 더워서 답답하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높은 곳에 가서 바람을 쐬었다. 막정이 임천에서 돌아왔다.

13일. 윤겸이 명노와 말을 데리고 결성으로 가는데, 5리도 못 가서 말이 쓰러져 짐을 떨어뜨려 물건이 모두 젖었으므로 부득이 그대로 돌아오고, 다만 세만만 보냈다. 식사 후에 세 아이와 함께 계당으로 가서 더위를 피하는데, 전 언양군수 박제선(朴濟先)이 말에 꼴을 먹이려고 들어와서 함께 읍(揖)하고 대좌하여 조용히 담화했다. 박 공이 가지고 온 점심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조금 있자니 윤 진사 민헌·김극 및 김 생원 정생(挺生)이 따라왔다. 이에 박 공은 또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가 김정형(金正兄)에게 대접하려 했으나 김정(金正)이 마침 서울에 갔기 때문에 좌중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박(朴)은 김정과 소년 때의 친구로서 일부러 들러 찾았다가만나지 못한 것이다. 김정생(金挺生)은 윤겸의 친구로서 이 고을에 살고 있다.

14일. 아침 식사 후에 김덕민의 말을 빌려 타고 사포 아저씨께 가 뵙고 돌아왔다. 오후에 덕민이 노루 고기를 나에게 보냈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오래 먹어 보지 못하던 차에 달게 먹으니 기쁜 일이다. 날이 저물어서 덕민이 와 보고 갔다. 곧 내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와서 작별하는 것이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가 포수 6천 명을 데리고 장차 호남으로 향하려고 금명간 공주에 도착할 것이고, 대군은 뒤따라온다고 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생각건대 필시 왜적이 장차 호남을 향해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길로 해서 완산 · 용성을 거쳐 운봉 팔량치를 넘어 영남 진주로 향해서 적을 치려함인가. 적의 가고 머무르는 것은 실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른 아침에 윤해와 윤함을 먼저 부여로 보냈다. 후일 갈 적에 인마가 부족하겠으므로 부여에 머물러 기다리게 했다. 부여군수(박동도)와는 곧 절친한 사이이므로 얻어먹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막정도 역시 잡물 한 집을 지고 함께 가게 했다.

15일. 어제저녁에 집사람은 이현(泥峴) 수씨(嫂氏)와 함께 사포(司圃) 숙모를 가 뵙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다. 모레는 장차 임천으로 옮길 터이므로 숙모께서 사람을 시켜서 청하고 또 종과 말까지 보냈기 때문이다. 또 이른 아침에 찰방의 부인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세만(世萬)은 결성에서 돌아왔다. 정목 한 필로 보리 15두를

바꿔 왔다. 저녁에 막정과 춘기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도어사(이철)가 마침 부여에 왔으므로 윤해와 윤함이 가 뵈었더니 맞아 몹시 기뻐하고 쌀을 각각 7두씩과 간장을 각각 1두씩을 주어 보냈다. 양식 자루가 이미 다해서 미음과 죽도 계속할수 없어 온 집안이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이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기쁘기가 이를 데 없다. 다만 내일 갈 적에 말 두 필이 부족해서 형편이 온 집안이 함께 갈 수 없으니 민망한 일이다. 10두는 부여에 쌓아 두었다고 한다.

16일. 식사 후에 사포 아저씨께 가 뵙고 작별하고 오니 자못 섭섭해하는 빛이 있다. 이중순(이광축)과 이중진(이광복) · 윤민헌이 와서 모였고, 이 좌수(이은신)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맞아들여서 보고 수반(水飯)을 대접한다. 이익빈은 두 번이나 그 집에 갔으나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오고, 만나서 작별하지 못하니한 스럽다. 집에 돌아와 들으니 광석에 사는 안 사과(安司果)가 와서 박 생원 효제(孝悌) 및 안세규를 보내서 찾아왔으나 마침 내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하니 한스러운 일이다. 저녁에 이익빈이 와서 보고 갔다. 행장을 차리는데 말 두 필을 얻지 못하여 바야흐로 민망해하던 차에, 사포의 집소와 이익빈의 소를 얻어서 처자들과 같이 가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다.

17일. 닭 울 때 떠나서 청양 땅 대치(大峙) 밑 길가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윤겸은 먼저 정산(定山)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뒤따라서 겨우고개를 넘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크게 몰려와 세 차례를 쏟으니 옷이 모두 젖고 딸아이의 새 옷도 모두 더러워졌으며, 둘째 딸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한편 우습기만 하다. 정산현에 들어가니 군수 김 공 장생은 곧 윤겸의 친구이다. 대접하기를지극히 후하게 하여 상하 20여 인에게 모두 밥을 해 주고 젖은 의복을 숯불을 피워다가 말려 준다. 저문 후에 군수는 나에게 소주를 대접하는데, 나는 더위를 먹어배가 아파 계속해 석 잔을 마시자 복통이 조금 나으니 기쁜 일이다. 오늘은 곧 초복이어서 더위가 보통날의 갑절은 된다.

18일. 흐리고 비가 뿌리니 민망스러운 일이다. 군수가 쌀 2두·보리쌀 2두·팥 1 두·조기 1묶음·간장 1두를 주어 도중의 양식은 걱정이 없다. 고마운 일이다. 늦은 아침에 비가 개므로 길을 떠나서 왕진(王津) 북쪽 가에 있는 가질지의 아비 유

령(有齡)의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집사람이 광란이 나서 구토하고 설사를 하므 로 조금 낫기를 기다려 왕진을 건너 정 사과댁에 들어가서 집사람과 작은딸은 거 기에서 유숙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부여로 달려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마침 군 수(박동도)가 공산으로부터 오늘 낮에 돌아왔기 때문에 상하 식사를 우대해 준다. 19일, 이른 아침에 종 세만을 시켜서 소 두 마리를 끌고 홍주로 보냈다. 다만 소 등 에 종기가 나서 걱정이다. 또 일행 상하가 모두 더위에 시달려서 더위를 먹어 배를 앓는 자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서 유숙했다. 새벽에 윤해가 제 어머니를 모 셔 오려고 정 사과댁으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정 사과의 부인과 함께 와서 바로 삼 가댁(三嘉宅)의 피란해 있는 곳으로 갔고. 나는 아침 식사 후에 동헌(東軒)으로 주 수(主倅)를 가보고 선척(船隻)을 빌려서 처자로 하여금 내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했다. 또 쌀 2두 · 조기 2묶음 · 간장 2되 · 젓갈 1되 · 감장 1되와 소금 을 얻어 놓고 먼저 떠났다. 이는 조도어사 이강중(이철)을 만나기 위해서다. 달려 서 임천에 이르러 들으니, 운량어사 강첨(姜籤)이 고을에 들어왔다 한다. 빈 문밖 의 외인(外人)의 집으로 물러났다가 먼저 종을 시켜 성명을 통했더니 강중이 즉시 사람을 보내서 문안한다. 한참 동안 앉았노라니 또 사람을 보내서 맞아들인다. 강 중과 강 공(姜公)은 요산루(樂山樓)에 올라 활을 쏘다가 내가 들어가 보자 인사를 나누고 앉았다. 그 자리에 있는 자는 금성정(錦城正) · 파계수(坡溪守) 및 한산태수 신 공 경행(辛公景行). 강중의 사촌형 양사원(梁思遠)이다. 금성정은 곧 나의 처사 촌인데 역시 한산 땅에 피란해 있었는데 서로 만나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파계수는 금성정의 장형(長兄)이오 양성정(楊城正)의 끝의 아들이다. 종일 이야기 하다가 강공은 먼저 그 관사로 돌아갔고, 우리들은 누(樓)에서 내려와 또 요수헌 (樂水軒)에 앉았노라니 윤 진사 시남(是男)도 또한 왔다. 함께 담화하다가 밤이 깊 어서 헤어졌는데, 나는 양(梁) · 윤(尹) 두 공(公)과 함께 강중(剛仲)이 있는 상방(上 房)에서 잤다. 또 요수헌은 곧 상동헌(上東軒) 북쪽 가에 있는데. 못 위에 집을 짓 고 물을 끌어 못으로 넣고서 그 속에 연꽃을 심었다. 이때는 마침 늦가을이어서 연 꽃이 활짝 피어 바람이 오면 향기가 당(堂)에 가득하다. 동북쪽 담 밑에는 성긴 대 나무가 묶어세운 것 같이 폭을 잎이 땅에 거꾸로 늘어졌고, 대나무 속에는 또 매화 나무 두 그루와 왜철쭉 다섯 그루가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20일. 이른 아침에 강중과 우리들은 또 요수헌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관에 서 두부를 내왔다. 강중이 첩지를 써서 나와 금성 · 파계 · 양 · 윤에게 쌀 각각 두 말씩을 주었는데, 나는 가속(家屬)이 몹시 많아서 죽은 아우의 아내 및 네 아들의 이름까지 써서 각각 두 말씩을 주었으니, 곧 6인의 이름으로 모두 12두이니 기쁜 일이다. 또 부여현에서 보리 20두와 소금 5두를 주도록 공문이 나왔으니 뒤에 찾 아올 계획이다. 또 한산군수(신경행)는 전일 서울에 있을 때 여러 번 조경수(趙景 綏)의 집에서 만났다가 오늘 만나니. 저도 또한 알아보지 못하다가 사관으로 돌아 간 뒤에 금성정에게 듣고 비로소 알아 곧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나도 또한 강중 을 시켜서 공석(空石)을 구했더니 한산군수는 즉시 첩지를 써서 공석 2백 장과 벼 10두·조기 2묶음·장어 10마리·청어 10마리를 보내 주어 몹시 기쁘다. 역시 윤 겸과 두텁게 알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에 강 어사(姜御史)(강첨)가 따라와서 강 중을 청하여 누에 올라 활을 쏘기에 우리들도 또한 따라 올라가서 구경했더니, 관 에서 노루 고기를 대접했다. 저녁에 행조 사람이 비변사의 관문을 가지고 왔기에 열어 보니, 강중이 조도(調度)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강 공으로 바꾸게 했다. 강중 은 큰 짐을 벗은 것 같지만 다만 우리들이 그 힘을 많이 입었는데 불의에 바뀌게 되어 결연함을 이길 수 없다. 즉시 파하고 내려오다가 또 요수헌에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밤이 깊어 파했다.

21일. 이른 아침에 들으니 처자들이 어제도 오지 않았다. 식사 후에 강중과 작별하고 고을 동쪽 십여 리 되는 곳으로 오니 곧 내가 옮겨 올 곳이다. 소즐의 빈집인데집은 널찍하면서도 종들이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잡물을 간수해 둘 곳이 없다. 사방 이웃이 모두 멀고 다만 소가(蘇家)뿐이니, 이것이 한이다. 소지명(小地名)으로는 소지동(小知洞)이요, 대지명(大地名)으로는 수다동(水多洞)이라 한다고 한다.종 막정ㆍ명복을 시켜 말 두 필을 끌고 또 이곳에서 우마 네 필을 빌려 가지고 물가에 가서 처자들이 오기를 기다려 저녁에 온 집안이 함께 들어가니, 주인이 저녁밥을 지어 대접한다. 미안하다. 부여군수(박동도)가 쌀 8두와 반찬거리를 보내 주어 깊이 감사하다. 종과 말이 부족해서 짐을 다 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윤해가 배

위에서 자면서 지키고 있다. 또 들으니 영남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바로 전라도로 행하다가 이제 함양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소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지 알 수 없다. 또 소즐이 종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아 한 사발이되었으므로 회쳐서 먹으면서 추로(포(包)) 한 그릇을 마셨다.

22일. 윤해가 들어왔다. 부여에서 준 뱅어젓은 뱃속에서 잃었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종일 소가(蘇家)에 누워 쉬니 덥고 답답한 심회가 조금은 풀려 여름의 무료함이 거의 위안된다.

23일. 날이 밝기 전에 종 막정을 한산으로 보내서 전일에 첩지를 써 준 물건을 받아 오고자 주인의 종과 말을 빌려서 보냈다. 또 아침에 종 명복을 시켜서 풀을 베어 오라 했더니 비단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순한 말을 많이 하므로 발바닥을 때렸다. 소즐이 종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아 저녁때 그와 함께 밥을 짓고함께 찢어 먹었다. 막정이 한산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첩지의 물건은 받아 왔으나 공석은 저장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또 조 내한 희보가 쌀 1두 5승과 반찬거리를 보냈으니 감사하다. 이웃에 사는 유 공 선각(柳公先覺)이 와 보고 갔다. 윤겸이 활을 쏘다가 화살이 튀어서 오른쪽 눈을 다쳤으니 위태로울 뻔했다.

24일. 가질지가 집으로 돌아갔다. 조 한림(조희보)이 계집종을 보내서 문안하고, 겸해서 생선 구운 것과 생선국을 보냈다. 이는 곧 윤겸과 두터운 교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중한 것이다. 또 송첨(松簷)을 만들려 해도 긴 나무를 얻지 못하여소즐이 종과 말 세 필을 끌고 유 공 선각의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 왔다.

25일. 아침에 조 한림이 떡 및 생선구이, 육탕을 보냈으니, 곧 대상(大祥)을 지내고 남은 것이다. 종 춘기를 부여에 보냈다. 이는 강중이 주는 물건을 받아 오기 위한 것이다. 저녁때 춘기가 보리 20두·소금 2두를 싣고 왔다. 함열군수가 사람을 보내 문안하고, 겸해서 백미 2두·소금·위어(葦魚) 2두름·조기 4마리·새우젓 3되를 보냈으니 감사한 일이다. 한 진사 겸(謙)이 왔다 갔다.

26일. 날이 밝기 전에 소즐이 종들을 데리고 송첨을 만들었다. 늦은 아침에 윤해가 함열에 갔다. 함열군수가 어제 편지로 불렀기 때문이다. 윤겸은 기분이 불편해서 같이 가지 못하고 소즐이 따라갔다. 아침에 조 한림이 생선구이 · 육탕 · 계탕을 보

냈다.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보내 주어 감사하기 끝이 없다. 또 이 참군 뢰(齊)가이 고을 종의 집에 왔다가 우리들이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만났다. 일찍이 뜻밖의 일이므로 십분 위안이 되고 기쁘다.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오후부터비가 내리더니 저녁내 오고 밤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는다. 가옥은 비가 새서 종들은 잘 곳이 없어 황황하고 안정하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종 동을비는 여기에 도착하던 날부터 이질에 걸려 지금까지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고 누워서 싸고 있다. 수고로움이 심해서 위중하니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걱정이다. 또 조진사 정호(庭虎)가 와 보고 갔다. 조는 곧 윤함의 소년 시절 친구이다. 점심밥을 대접해서 보냈다. 고산에 와 있다고 한다.

27일.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때로 비도 뿌린다. 윤겸은 눈을 다친 후로 기분이 몹시 불편하고, 눈동자가 붉고 상처가 있으니 걱정이다. 저녁에 세만이 홍주로부터 오고, 윤겸의 처자는 용곡으로부터 종 용복의 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춘기는 서천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곧 중복이다.

28일. 밤새도록 바람 불고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이르러 크게 내리다가 낮에 이르러 비로소 갰다. 함열군수가 전인해서 농어 1마리·조어(儵魚) 1마리·위어 10마리를 보냈다. 집사람이 올 때부터 곽란(霍亂)을 앓아 지금까지 차도가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시 회를 쳐서 먹고, 또 탕을 끓여 함께 먹었다. 물에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맛이 변하지 않아 새로 잡은 것과 같다. 저녁에 윤해가 함열에서 왔는데, 태수(신응구)가 쌀 10두·보리 1석·진말(眞末) 2두·참 깨 1두·조기 2마리·젓 1두·감장 11두·간장 3승·미역 2동·소금 1두·자리 1 잎·마철 2벌, 찹쌀 5되를 보냈다. 이때를 당하여 지극히 후한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 같은 큰 손을 쓸 수 있겠는가. 깊이 감사하다.

29일. 윤겸이 홍주의 그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또 막정·안손이 말 두필을 끌고 함열로 갔다. 집을 해 잇기 위해서 빈 섬을 실어 오기 위해서다. 또 들으니, 우리나라 여러 장수가 대군을 거느리고 함안군에 들어가 점령했는데, 다만 지리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물러가서 의령을 보존하고 정진을 점령하여 지키려고 한단다. 그러나 전라도 순찰사(권율)는 말하기

를, 오직 전진이 있을 뿐이요 일보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하여 뜻을 굳게 하고 허락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거제현령 김준민(金俊民)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우리 나라 일은 항상 유자(儒者)들이 그르쳤나니. 고집만 하고 능히 나가지도 물러서지 도 못하면 패할 것이 필연적이다"하고, 고언백도 또한 큰소리로 반대하여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적이 갑자기 몰려오니 여러 군사가 무너져 흩어지므로 적은 승세하여 쫓아와서 우리 군사는 많이 죽었고. 적은 정진 을 건너 의령으로 들어가 점령했는데, 의령에서는 호남이 멀지 않기 때문에 호남 도 또한 소동하고, 순찰사는 남원으로 달아났으며, 함안에 있던 군기와 군량은 도 리어 적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다. 탄식할 일이다. 또 적들이 진주로 향하여 날마다 분탕질을 하면서 성 밖 5리에 무수히 진을 치고 먼저 포수 70여 명으로 하여금 성 을 공격하고 충돌하자, 성 위에서 일제히 활을 쏘아 15명이 화살에 맞아 즉시 죽고 머리 열 급을 베니, 나머지는 모두 도망해 돌아갔다 한다. 진주는 경상우병사 최경 회 · 충청병사 황진 · 창의사 김천일 · 건의장 고종후 및 여러 의병들이 성으로 들 어가 굳게 지키고 또 형세도 험해서 전혀 실수(失守)할 이치가 없다고 한다. 또 남 평현감이 대구부에서 급히 보고한 내용에, 심 유격(심유경)이 왜인 35명과 우리나 라 배신(陪臣) 1명 · 황정욱의 식구 다섯 명을 데리고 부산으로부터 안주로 행하는 길이니 가는 길에 인마를 정제하도록 먼저 공문이 왔다고 하니, 그 뜻이 어떠한 것 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두 왕자는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하니, 또 사실인지 알 수 없 다. 또 윤겸은 말이 파리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5리 남짓 가다가 부득이 돌아왔 고, 춘기도 돌아왔다.

7월

1일. 윤겸은 비로소 홍주로 돌아가고, 종 춘이는 진위로 갔다. 들으니 충아가 대역 (大疫)을 앓는다 하므로 사람을 보내서 문안했다. 안손을 시켜서 오미자를 가지고 또 함열로 보냈다. 함열군수가 요새 더위를 먹어서 오미자를 구한다고 했는데 어제 잊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인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안손이 문을 나설 무렵 함열에서 보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갔다. 또 오후에 조 한림(조희보)이

전인해서 양색병(兩色餅) · 실과 및 어육(魚肉) 구이 · 양고기와 점주 한 사발을 보냈으므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타향에 유락하여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 없는데,조(趙)만이 홀로 이와 같이 후하게 하니 감사하기 이를데 없다. 필시 삭 망제사의 남은 물건일 게다. 또 조 정랑 응록의 아들이 와서 보고 갔다. 또한 피란해서이 고을에 와 있는 것이다. 정랑은 전달에 행재소로 돌아갔다 한다.이 무렵에 김종사 상용(尚容)이 서산의 피란하고 있는 곳에 가서 부모를 뵙고 도로 호남으로 돌아가다가 이 고을을 지나게 되어, 윤겸이이 고을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보내 문답하고, 내일 지나갈 때에 들어와 찾는다고 한다. 또 종 막정이 임천시장에가서 쌀 2두 5승으로 9승 모시 40척을 바꿔왔고, 또 쌀 1두로 생모시 2근 두량을바꿔왔다. 곡가가 비싸기 때문에 포목 한 필 값이 보리 4, 5두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에는 이런 때가 있었던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모시 값이 또한 이같이 천한 것이다. 모시는 인아의 여름옷을 지으려 한다.

2일. 집사람이 어제부터 이질을 앓아 하루에 8, 9차례를 하고, 음식을 전폐하여 기운이 몹시 피로하므로 백오계(白鳥鷄)를 얻어 치료하고자 안손을 함열에 보내서얻게 했다. 오후에 윤함이 친히 유 공 선각의 집에 가서 오계(烏鷄)를 구했으나 없으므로 황계(黃鷄)를 얻어 왔고, 조방직(趙邦直)이 또한 한 마리를 보냈다. 방직은곧 조경수(趙景綏)의 아들이다. 저녁에 명복이 정산에서 돌아왔는데, 강을 건널 때어떤 사람이 베적삼을 잊고 그대로 가서, 명복이 얻어 가지고 왔다. 이것을 입고여름을 날만 하니 걱정이 없다.

3일. 오늘은 곧 할머니 제삿날이다. 변을 당한 후로 온 집안이 각처로 흩어져서 생명을 이을 수도 없었으니 어느 겨를에 선조를 생각하여 잔을 올렸겠는가. 슬프고 탄식스럽다. 저녁에 경여가 익산에 왔다가 와서 보았다. 안손도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닭 한 수와 우포 다섯 조각을 보냈다. 또 들으니 흉적이 진주를 포위한 지일곱 날에 성안의 여러 장수들은 굳게 지키면서 날마다 촉석루에 올라 한일한 모습을 보이고, 순변사와 도원수는 밖에 진을 치고서 성원하고 있으며, 성안에는 또 군량을 많이 쌓아 놓아서 일 년을 넉넉히 지탱할 것이라 한다. 중국 장수송 지휘(宋指揮) 대빈(大斌)과 낙 참장(駱參將) 상지(尚志)도 또한 포수 천여 명을

데리고 남원으로부터 금명간 마땅히 팔량치를 넘어서 전진할 것이오, 이 제독도 또한 대군을 거느리고 내려간다 하니, 진주는 반드시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진주를 굳게 지키면 호남도 역시 그곳을 버리고 와서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4일. 경여와 소가(蘇家)에서 종일 바둑을 두면서 긴 여름날을 보냈다. 종을 시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하여 저녁 식사에 함께 끓여 먹었다. 또 수개월 이래로 친정의 소식을 오래도록 듣지 못하여 밤낮으로 민망히 여기고 걱정스럽다. 처음 생각으로는 여기에 온 뒤에 즉시 가 뵈려 했으나 사고가 여러 가지로 생겨서 실행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열흘 후에 윤함과 함께 돌아가 뵈려 한다.

5일. 아침에 종 막정을 시켜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석성(石城)에 갔으나 석성군수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다. 종일 계당(溪堂)에서 경여(敬興)와 바둑을 두었다. 들으니 진주성이 장마로 인하여 무너져서 포위하고 있던 적들이 삿대와같이 몰려들어 성으로 올라오려 할 때 천자총 7, 8개를 일시에 모두 쏘면서 혹은돌을 던지고 혹은 활을 쏘니 적의 사상자가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한다. 적은 또 남강(南江)에서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너려 했으나 우리 군사가 비처럼 화살을 쏘니 적들은 경황하고 어지러워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또한 그 얼마인지알지 못한다 한다. 그런 때문에 적의 형세가 크게 꺾이어 포위했던 것을 풀고 물러가서 진을 쳤다고 한다. 이것은 곧 의병장 최경회의 배리(陪吏)의 통보인데, 이탁(李晫)이 익산에서 전해 보낸 것이나 그 확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6일. 오후에 이탁이 익산(益山)으로부터 불의에 걸어서 왔다. 이에 전라순찰사의 전통을 보니, 우의장 임계영이 급히 보고한 후에, 진주성 안의 창의사 김천일과 충청병사 황진 및 이하 여러 장수가 6월 22일로부터 주야로 죽기로 혈전했으나 같은 달 29일에 온 성이 함몰했으니 몹시 경악스러운 일이다. 본도(本道)의 경계를 범하는 것도 조석에 박도했으니, 다시 들어가서 성을 지킬 일이 급급하다고 했다. 호남에서 믿고 견고하다고 한 것이 진주인데, 이제 함락됐단 말을 들으니 놀라고 가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다. 이 까닭으로 해서 호남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모두 호서로 옮길 계획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 식구들은 이곳으로 옮겨 온 지가 20일이 되지 못하는데 또 이런 걱정을 만났으니, 마땅히 다시 옮겨서 경기(京畿) 안

으로 들어가고 싶다. 상하 수십여 식구가 먹을 것을 얻기가 몹시 어려워서 비록 적의 손에 죽지 않더라도 반드시 굶주림에 죽을 것이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다시적이 팔량치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처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또 저녁에 소즐이 함열로부터 돌아왔는데, 소즐이 함열의 주양(酒陽)이란 계집을 사랑하여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 돌아왔으므로 그 아내가 질투하여 큰소리로 서로 다투다가 심지어 망건과 옷을 찢었다고 하니 우스운 일이다.

7일. 이른 아침에 윤해가 익산으로 가서 김상용(金尙容)이 익산에 있는지를 물어서 환상미(還上米)를 얻어다가 가는 도중의 양식으로 할 계획이다. 이탁(李晫)이 부여로 돌아갔다.

8일. 윤해가 돌아왔는데, 익산군수가 쌀 2두 · 보리 2두 · 소금 1두 · 감장 1두 · 조 기 2묶음을 보내고, 겸해서 내게 편지까지 했으니 후한 뜻에 감사한다. 또 들으 니 진주의 여러 장수들 중에 황진 · 김천일 · 거제군수 김준민이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죽기로 혈전하다가 탄환에 맞아 죽어서 온 성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 하 니 놀라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은 적의 선봉이 장차 산음(山陰)에 도착 할 것이라 하니,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호남을 범할 것이라,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 들으니 영남의 적 4백여 명이 밀양성 밖에 진을 치자, 독전사 박진 · 성주목사 곽재우 및 여러 장수가 들어가 치려고 약속이 이미 정해져서 중국 장수에게 말했 더니. 유 총병 정(劉總兵綎)이 박진 등을 불러들여 종일 동안 뜰에 결박해 놓고 적 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비단 자신들이 힘을 같이하여 적을 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 여러 장수들까지도 맘대로 적을 치지 못하게 하고 결박 하고 욕을 보여서 장차 적을 돕는 것 같이 하니. 그 뜻이 있는 바를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중국 군사가 호남으로 내려간 자는 길가 민가에서 재물을 약탈하는 것 이 끝이 없어 마치 적의 변을 당한 것과 같고, 심지어 전주 땅 송 지평(宋指平) 영 구(英蕎)의 집에는 불의에 난입해서 소를 빼앗아 잡아먹고 보배스러운 그릇을 모 두 빼앗아서 송 씨의 아내가 겨우 도망하여 화를 면했다 한다. 이들은 모두 이 제 독의 휘하로서 군졸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극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모두 요계(遼薊)의 군사라고 한다. 송(宋) · 낙(駱) 두 장수의 군사는 추효도 범하

지 않고 호령이 엄숙하여 지나는 곳이 편안했는데, 이들은 곧 절강(浙江) 군사라고 한다. 가상한 일이다.

9일. 춘이와 송이가 돌아와서 들으니, 충아와 몽녀는 모두 대역(大安)을 잘 치렀다고 한다. 식사 후에 조 한림을 가 보았는데, 그 두 형 희철·희식도 함께 있었다. 이웃에 사는 조희윤 및 정 생원 응창도 역시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하는데, 주인집에서 점심을 내왔다. 조희윤은 소명(少名)이 희무(希武)였고, 지금 이름으로 고쳤으니 곧 나의 소년 때의 동문 친구이다. 못 본 지가 30여 년이었다가 오늘 만남이 의외의 일이어서 얼굴을 몰라보다가 각각 성명을 말한 뒤에 비로소 알았다. 정생원은 윤겸의 친구로서 피란해서 이 땅에 와 있는 터이다. 막정이 함열에서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적들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미 산음으로 들어갔고, 하나는지리산을 향하여 장차 호남에 도착할 것이며, 중국 장수는 지금 남원에 있어 성 밖독산에 진을 쳤다고 한다.

10일. 홍 정자 준(遵)이 영남으로부터 지나가다가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보고 갔다. 홍 공도 의병장인데 영남에 있을 때 진주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음에 와 있다가 진주성이 함락된 뒤에 도망해 돌아온 것이다. 호서(湖西)는 병사(황진) 및 수령의 죽은 자가 9명이고, 결성·보령·남포·서산·태안·당진과 그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주성이 함락된 까닭은 사람들의 말이같지 않으니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밤낮으로 혈전한 지 여드렛날에 이르렀는데도 밖에서 개미 한 마리 구원도 없고 적의 흥봉(以鋒)은 몹시 치열하고 합세하여 와서 공격했으며, 하늘이 또 돕지 않고 장마가 열흘을 계속하여 성가퀴가 무너져서 황진·김준민이 탄환에 맞아 죽자, 여러 군사가 낙담한 데다가 적들은 여러가지로 꾀를 내어 기어이 함락시키려고 나중에는 풀을 묶어 성을 메워 성보다 높은 데서 탄환을 비처럼 쏘면서 온 군사가 바로 들어오므로 충청도 군사가 먼저 무너지고 이 때문에 함락되었고, 전일에 피란한 선비들도 모두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더욱 슬프고 참혹하다. 또 들으니 최경선은 남원에 있었는데, 순찰사가 성을 지킬 계획으로 사족(士族)들을 몰아넣는 것을 경선이 머물러 있고 들어가지 않다가 순찰사에게 잡혀서 종일 군사를 따라다며 여러 가지로

욕을 당했다고 하니, 놀라고 탄식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저녁에 기성군(箕城君)이 찾아왔는데, 이는 불의의 일이라, 기쁨을 이길 수 없다. 마침 부여에 왔다가 우리들이 유리하다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만일 정이 지극하지 않다면 이같이 심한 더위에 어찌 달려오려 하겠는가. 그 두 아들이 모두 적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영북(嶺北)으로 유리하여 고초가 말이 아니라니 듣기에 슬프고 참 혹함을 이길 수 없다. 안손이 돌아왔는데 윤겸은 내일 돌아오려 한다고 한다.

11일. 기성영공이 식사 후에 부여로 돌아갔다. 주인 소(蘇)의 그 아버지의 기일이어서 그 형 소은도 역시 와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아침밥을 특별히 차려 내왔다. 어제저녁에는 달 아래에 앞 대(臺) 밑에 앉았는데 주인집에서 좋은 술을 내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파했는데, 오늘 또 이같이 하니 한편으로 미안하다. 또 윤겸이 홍주에서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끝의 아이가 이질을 앓다가 요절했다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 없다. 일 년 동안에 두 딸이 계속 죽으니 슬픔이 더욱 지극하다. 또 들으니 결성 전답은 값을 주고 샀다 하니, 내년에 옮겨 가서 힘써 농사지으면 거의 주림을 면할 것이다. 이것으로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양식을 구할 힘이 없어서 먹기에도 넉넉지 못한데 어찌 농작에 미칠 수가 있겠는가.

12일. 조문화(趙文化) 희철(希輸)이 찾아왔다. 신단양(申丹陽) 발씨(撥氏)도 대흥으로부터 들려서 함께 소당(蘇堂)에 모여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단양은 이 길로 익산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호남으로 갈 계획으로 행장을 차린다. 연전에 각각 남북에 있어 처자들과 함께 고생을 함께 맛보지 못했는데, 이제 또 사세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왔으니, 만일 흉적이 가까이 온다면 처자들은 북으로 돌아가고 나는 노모와 바닷길로 섬으로 들어가서 사생과 존몰을 아득히 얻어듣지 못한 것이니 처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탄식하면 무엇하리오.

13일. 아침 식사 후에 윤겸과 함께 떠나서 무수포(無愁浦)를 건너 용안을 거쳐 함열로 들어가니 함열군수 신 공(신응구)이 즉시 동헌으로 맞아들여 다과를 내고, 소주 석 잔을 마시고 파했다. 조금 있자니 또 수반을 내와서 함께 먹었다. 나는 윤겸과 함께 먼저 낭청으로 돌아와 누어 쉬노라니 저녁에 군수가 내려와서 함께 저

역밥을 먹었다. 군수가 행자로 백미 1두·중미 1두 5승·콩 1두·조기 1묶음·쇠고기 1덩어리·우포 5조각·새우젓 1되·추로 1병·감장·간장을 주었는데, 쌀 1두·우포·조기·새우젓은 김천집으로 보내고, 길에서 숙수(熟手) 영환(永環)을 만났는데, 유리하고 굶주려 장차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슬프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여 쌀 2되를 주어 하루 목숨이라도 보전하게 했다.

14일. 날이 밝기 전에 밥을 먹고 떠나려는데 큰비에 천둥과 번개를 겸하다가 아침 이 지나서야 조금 갠다. 곧 길을 떠나서 임피를 거쳐 전주 땅 신창진(津)가의 등원 루(樓)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나루를 건너 달려서 김제 땅에 이르렀다. 이 나루에는 긴 다리가 있었는데 지난여름 큰물에 허물어졌고, 배로 건 네주는 사람이 있다. 이에 나루를 건너 부안 땅 정병 박원준의 집에서 잤다. 그곳 에는 사는 사람이 수십여 호가 있었는데 모두 비어 있어 쑥대만이 마당에 가득하 고. 다만 두어 집만 사람이 있다. 원준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연전에 변이 생 긴 이후로 요역이 전의 열 배나 되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다 도망해 흩어졌는데, 이는 비단 이곳만이 아니고 곳곳이 다 그러하다. 우리들도 지금 비록 살고 있기는 하지만 추수 후에는 또한 장차 흩어져서 잠시라도 괴로움 을 면할 것이라 한다. 듣고 보니 참혹하고 측은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올 때 유 선 전관(柳宣傳官) 형(珩)을 만났는데 나에게 이르기를, 지금 영암에서 오는 길이라 한다. 노모의 안부를 물었더니 지금 모두 평안하나. 만일 적이 오면 마땅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하더란다. 유 공(柳公)은 곧 임경흠의 사촌 아우로서 총각 때 만났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가 먼저 내 얼굴을 알아보고 자기의 성명을 말한 후에야 비로소 알아보았다. 또 어제 올 때 무수포가에서 마침 전라도 순찰사의 장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기에 적의 소식을 물었더니 대답 하기를, 구례를 부탕질한 적은 왜적이 아니고 곧 우리나라 사람이 왜적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왜인의 목소리를 내므로 목책을 지키던 군사가 모두 흩어지고 거기 사는 백성들도 이 까닭에 놀라 움직여서 역시 모두 도망해 달아나니. 적들은 그 재 물을 노략질하고 그 집들을 불태웠다. 이때 마침 곡성군수가 5, 6명의 적을 사로 잡아서 심문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진주가 함락된 뒤에 왜적은 도로 나갔기

때문에 중국 군사가 들어가 점령했다고 한다. 이 장계는 곧 호남을 범한 자는 왜 적이 아니라는 사연이라 한다. 길을 따라 오면서 물었더니 사람들의 말이 역시 같 다. 만일 실지 왜적이라면 이곳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행세하지 않을 것이다. 산 음에 쳐들어온 적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사실 인지 알 수가 없다. 대체로 우리나라 여러 장수들은 왜적의 위세에 겁을 내어 헛소 리를 치고 놀라 숨어 도처에 모두 그러하다. 비록 탐지해 오라는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도 역시 모두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중간에서 돌아와서 떠도는 말로 헛보고를 하기 때문에 비록 관가의 민보(民報)가 있어도 모두 헛일이니 참으로 탄식스럽다. 15일. 날이 밝자 떠나서 고부군(郡) 앞을 지나 십 리쯤 되는 시내의 다리 밑에 이르 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아침밥을 먹는데 볕이 뜨거운 것이 두려워서 나무를 베어 다가 정자를 만들고 앉았다. 또 임피로부터 고부군 앞에 이르는데, 길가 좌우를 보 니 밭과 들이 절반이나 묵고 있어 비록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린대도 모두 곡식이 되 지 않겠다. 비록 호미가 들어간 곳이 있지만 곡식 자란 것이 두어 치에 지나지 않 아 천리나 되는 기름진 들판이 거친 풀만 눈에 가득하니 굶주리는 백성들이 어떻 게 지탱하겠는가. 내년을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시체들이 구렁을 메울 것을 생각 하니 더욱 몹시 슬프고 처량하다. 또 어제 오는 길에 7, 8세 되는 아이를 보니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고, 여인 하나는 길가에 앉아서 역시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고 있었다. 괴이해서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지금 내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 고 갔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버리고 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세 사람이 떠 돌면서 걸식했는데 이제는 더 빌어먹을 곳이 없어서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내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으니. 우리는 장차 굶어 죽을 밖에 없어서. 이 때 문에 우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을 들으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부자 는 천성의 지극히 가까운 사이요. 부부는 일륜의 사랑하는 바로서 비록 새 짐승 이라도 또한 모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심지어 길에 버리고 돌아다보 지 않았으니,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어찌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리요. 슬프 다 창생이 장차 다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으려는가.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고부에 미치지 못한 십 리쯤 되는 곳에서, 길에서 이 생원 규실(查實)을 만났는 데, 처자를 데리고 위로 돌아가고 있다. 까닭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영광 땅에 있다가 적이 호남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의에 올라가다가 아직 한산 종의 집에 있는데, 만일 적이 오지 않으면 도로 내려가겠다고 한다. 비단 이 사람뿐이 아니라, 사족 및 유민이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 혹은 걷기도 하고 혹은 말을 타기도하여,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어 길에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쑥대머리에 얼굴에 때가 묻었으니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어찌하리오. 아침 식사 후에 노령(廬嶺) 밑 군영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걸어서 고개를 넘어 장성까지 달려가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마침 군수 이옥여(李玉汝)(이귀)는 없고 그 형(이자(李竇))이 관아에 있기로 즉시 이름을 통했더니 동헌으로 맞아들여 함께 잤다. 이 고을은 곧 선군(아버지)께서 일찍이 재임하시던 곳인데 옛 사람으로서 아는 자는 겨우 3, 4인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 새 사람으로 나이 젊은 자들이며, 나머지는 또한 얼굴도 모르겠다. 그들의 조부의 이름을 듣고서야 비로소 어떤 사람의 자손인지를 알겠다. 선군께서는 계해(명종 18년) 겨울에 오셨다가 갑자(甲子) 가을에 내놓고 가셨으니 그 사이가 일 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자가 또한 적다.

16일. 날마다 많은 길을 달려왔더니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고 또 비까지 내리며, 나도 또한 더위에 상해서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여 부득이 거기서 묵었다. 종일 큰비가 내려서 내일도 떠날 수 없겠으니 민망한 일이다. 행량으로 쌀 1두 5승·콩 5승과 반찬거리를 여훈이 예방(禮房) 아전에게 말해서 얻어 준다. 또 저녁에 검찰사 종사(從事) 김 공(金公) 상용(尚容)이 나주를 순검하는 일로 마침 거기에 왔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와서 본다. 나는 곧 낭청(即廳)의 곡루(曲樓) 위로올라가서 서로 이야기했다. 조금 있다가 관에서 주는 다과가 나와서 함께 먹었다. 김 공은 쌀 6두·콩 4두·소금 1두·감장 1두·닭 2수·건어 2묶음·소주 1병을얻어 준다. 의외에 이 물건을 얻었으므로 종과 말이 돌아올 때 실어간다면 처자들이 며칠 동안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니 기쁜 일이다. 김 공은 곧 나의 처족이요, 윤겸의 연배 친구이다. 아이들과 서로 사귀기를 두텁게 했는데, 전일에는 비록 만나지 못했으나 객지에서 만나고 보니 옛날에 서로 알던 것 같다.

17일. 비록 날씨는 쾌청했으나 앞내에 물이 불어 건너기가 어려운데, 만일 억지로 가다가는 반드시 물이 배꼽 위에 찰 것이라 하므로 부득이 또 묵었다. 그러나 주인 없는 고을에 수일씩 묵는 것이 마음이 몹시 미안하다. 다만 여훈이 관아에 있어 함께 회포를 푸니 이것으로 위안이 된다. 이른 아침에 김 종사에게 가 보고 그 길로함께 걸어서 우정정(友淨亭)으로 나갔다. 이 정자는 전에는 없던 것인데, 전전 태수 이 공 계씨(李公啓氏)가 비로소 지었다고 한다. 백미 한 두로 모시 두 근을 샀다. 어머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이다.

18일. 닭이 울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자(李資)와 작별하고 나서 반 식정(半息程) 을 가니 동쪽이 비로소 밝는다. 나주 땅에 이르러 고 양 목사(故梁牧使) 응정(應鼎) 의 집 앞 냇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는 길은 큰 내를 돌아왔는데, 그 근원은 노령 밑에서 시작되어 나주 영산포로 들어갔다. 올 때에는 내 하나 건너기를 열여덟 번 을 했고. 나중에 건너던 곳은 물의 깊이가 배꼽 밑에 닿아서 나도 또한 옷을 벗고 종의 부축을 받고서 간신히 건넜으니 이는 전일 비에 물이 불은 까닭이다. 나주부 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북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을 지키는 자가 문을 닫고 들이지 않는다. 이에 종을 시켜 서문으로 들어가서 김 종사(김상용)에게 말하 게 했더니 사령을 보내서 문을 열게 한다. 임경흠이 여기에 왔다고 하므로 그 주인 집으로 가서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자고 간 자리도 아 직 거두지 않았으니 만나지 못한 것이 몹시 한스럽다. 나도 또한 그 집에 묵기로 했으니 이는 이 고을 통판의 집으로서 곧 윤겸의 처족이다. 윤겸의 편지를 올리려 다가 올리지 못하고 김 종사로 하여금 통판에게 보내게 했더니. 즉시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상하의 식사를 보내 주고. 또 주과를 보내어 먹게 한다. 또 나를 그가 있 는 금성관으로 청했으나 나는 출입이 불편해서 사양했더니 또 저녁에 주효를 보내 서 마시게 하고 재삼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여 은근한 뜻을 나타냈다. 또 행량으로 백미 2두 · 콩 2두 · 기름과 꿀 각 1승 · 건숭어 5마리 · 새우젓 5승 · 보릿가루 3승. 을 주니 깊이 감사하다. 통판의 성명은 이성남(李成男)이오, 의동(義洞)에 산다.

19일. 처음에는 일찍 떠나려 했으나 어제 준 물건을 지금이야 비로소 받았기 때문에 자연 해가 늦어졌다. 통판이 내가 있는 곳에 와 보고 따로 우육(牛肉) 열 덩어리

를 주고, 또 상하의 점심을 싸 주었다. 서문으로 나와서 영암 땅 부소원(夫所院)까지 달려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밥을 먹었다. 또 오는 길에 농사짓는 것을 보니, 고부(古阜)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은 장성·광주·나주를 거쳐 영암에 이르 기까지는 곡식이 가장 잘 되었다. 이른 벼와 기장이나 조는 절반은 베어 먹었으니 풍년들 가망이 있어 이곳 백성들은 거의 굶주리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겠다. 점심을 먹은 후에 구림(鳩林)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즉시 어머니께 뵈었더니 어머니 얼굴이 전과 같고 아우 희철과 임매·인아·붕질도 또한 모두 병이 없으니 깊이 위로가 되고 기쁘다. 또 어제 잔 집 주인은 곧 관비(官婢) 심이(心伊)로서 서울에 있은 지가 13년이었는데, 지금은 윤 좌상(尹左相) 두수(斗壽)의 종으로서 정해진 세공(歲貢)이 정목(正木) 20필이라 한다. 집이 서문 안에 있다니 왕래할 때자고 가는 곳으로 삼으련다.

20일. 유 체찰(柳體察) 성룡(成龍)의 종사 김 판관 탁(金判官琢)이 곡식을 모집하는 일로 여러 고을을 순행하다가 이 고을에 이르렀으니 곧 진사(進士)의 친구이다. 이 곳을 찾아와서 주인과 냇가 모정(茅亭)에 대좌했는데, 주인집에서 떡과 맛있는 안 주와 추로를 내와서 각각 한 순배를 마시고 파했다. 김 공(公)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있자니 또 수반을 내왔는데 반찬이 몹시 아름답다. 자리에 있던 사람은 주인과 나 및 희철·임 생원 환(林生員懽)·임 진사 현(林進士睍)이었다. 현(睍)은 경흠(景欽)의 조카로, 환(懽)은 경흠의 매부이다. 해가 기울자 김 종사(金從事)는 도갑사로 가서 자는데, 경흠이 내 아우를 시켜 함께 가서 자게 하고, 경흠은 그 조카와 내일 아침에 나가서 두부를 만들어 대접할 계획이란다. 또 종 복지는 그 모자와 함께 굶주려 죽었다고 들어서 항상 불쌍히 여겼더니 오늘 와서 보니 복지는 그 막냇자식과 떠돌다가 어머니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그 어미와 둘째 아들은 생사를 모른다. 하니, 필연 죽었을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 막내딸은 중도에 죽었다고 한다. 또 삼촌 집종 양이는 지난봄에 떠돌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그 어미와 할미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와서 비로소 들었으니 탄식할 일이다.

21일. 이른 아침에 경흠과 그 조카는 도갑사로 갔다. 또 누님이 생숭어를 얻어서 회를 쳐서 주므로 한 그릇을 먹으니 몹시 배부르다. 오후에 경흠과 언명(彥明)(희 철)이 절에서 내려와 서로 요월당(邀月堂)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조금 있자니 마을 사람 박준(朴濬) · 박경인(朴景仁) · 박주(朴澍) · 임 진사 환(林進士權) 및 피란 온 사람 김영휘(金永暉) 등 젊은이와 어른이 모두 모였다가 저녁 무렵에 헤어졌다. 김 영휘는 곧 나의 7촌척으로서 순천에 사는 고 태인 조숙관(故泰仁趙叔瓘)의 외손이요, 조태인(趙泰仁)은 곧 선군(先君)의 사촌척이다. 영휘의 모친도 역시 여기에 왔는데, 이는 곧 그의 처가인 것이다.

22일. 저녁때까지 요월당에 있는데 마을의 젊은이와 어른이 다 모여서 혹은 바둑을 두고, 혹은 종정도(從政圖)도 놀고, 혹은 장기도 두고, 쌍륙(雙陸)도 놀아 즐기면서 긴 해를 보냈다.

23일. 저녁내 요월당에 있는데 소년들이 와서 놀았다. 오후로부터 속머리가 조금 아프고 기분이 몹시 불편하더니 저녁때가 되자 귀밑에 땀이 나서 젖자 조금 나았다. 학질 기미인 것 같으니 걱정이다. 다시 다음날 보면 알 것이다. 거친 포목 세필을 막정을 시켜 미역 45동과 저린 고등어 13마리를 바꾸어 왔다.

24일. 식사 후에 아우와 서호정(西湖亭)으로 나갔더니 임 별감 환(林別監權) 및 임 진사 현(睍)이 따라왔다. 조금 있자니 그 이웃 김영휘가 그 처조카 고기후(高基厚)가 따라 와서 함께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 노는데 김영휘의 집에서 점심을 내왔다. 또 종을 시켜서 앞 내에 가서 물고기를 잡게 했더니 우연히 은빛 나는 것 한 마리를 잡았는데 크기가 청어만 하다. 즉시 어머니께 보내서 짖어 들이게 했다. 저녁식사 때 임 별감 자중(子仲)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마셨다. 병이 비자 또한 병을 가져다가 다 마시고, 또 더 가져오게 했으나 나는 기분이 불편해서 먼저돌아오고, 아우는 여러 사람들과 저녁내 마시다가 어두운 뒤에 크게 취해서 돌아왔다. 내 병의 증세는 며느리조금 같으나 어제보다는 조금 덜하다. 임경흠은 배 만들 재목 베려고 서호를 건너갔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아는 임원에 갔다가 막정ㆍ명복을 데리고 돌아왔다.

25일. 이른 아침에 박 덩굴을 태워 술에 타서 마셨다. 학질을 고치기 위해서다. 누님이 새로 숭어를 얻어서 회를 쳐 주었으나 아우는 다 먹었어도 나는 절반도 먹지 못하고 조카 붕아에게 주었다. 또 요새 더위가 몹시 심하더니 이제는 또 더하니 인 아가 어떻게 올라갈지 몹시 근심스럽다. 진사의 말을 빌려 타고 가다가 장성에 가서 돌려보내고 만일 장성에서 말을 얻지 못하면 머물러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도록 말해 보냈다. 나도 또한 내달 초생에는 돌아가려고 이미 작성하고 있다. 어제 막정이 가져온 물건은 미역 45동·저린 고등어 23마리인데, 10마리는 진사가 더 주었고 건숭어 1마리·홍합 5되·젓 1항아리·적은 전복 5꿰미는 누님이 준 것이다. 추석의 제수(祭需)로 쓰려는 것이다. 미역은 한 동이라는 것이 겨우 한 주먹이니, 수는 비록 많으나 실은 큰 것 한 동만도 못하다. 또 오늘은 곧 나의 생일이다. 누님이 떡을 쪄서 먼저 신주(神主)께 올리고 나에게 큰 그릇으로 하나를 주었으나 바야 흐로 학질 증세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오후로부터 학질을 앓다가 저녁때가 되자 차츰 나아져서 그다지 심하지는 않고 다만 속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다.

26일. 오늘은 처서(處暑)이다. 아침에 박 덩굴을 태워서 술에 섞어 또 마셨다. 학질이 비록 중하지는 않지만 아픈 것이 여러 날 계속되니 기운이 몹시 피곤하다. 걱정이다. 또 경흠의 끝의 누이 이 서방댁이 어제 점심을 나에게 대접했는데 반찬이 몹시 아름다웠다. 종일 요월당에 있었다. 오후부터 양쪽 귀밑이 조금 아프더니 저녁에 땀을 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반드시 이로부터 아주 떨어질 것인가. 김영휘・박경행(朴敬行)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27일. 오늘 아침에 또한 박 덩굴을 태워 술에 타서 먹었다. 아침 식사 후에 아우가 함께 걸어서 박 진사 종정(宗挺)(응선(應善))을 찾았더니 안 생원 홍도(弘道)와 박 근기(朴謹己)도 따라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안·박 두 공(公)은 먼저 돌아가고 주 인이 점심을 내려는 것을 억지로 사양하고 왔다. 온 지 오래지 않아 학질을 앓아 크게 아프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조금 나았다. 오늘은 전에 비하여 더욱더 아프니 걱정이다. 경흠은 그 조카와 함께 태수를 가서 보고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28일. 아침부터 어머니께서 서리(暑痢)를 앓아 여러 번 쏟아서 기운이 몹시 피곤해 하시니 민망하고 조심스럽다. 이 방은 아침볕이 창문에 가득하여 마치 찌는 속에 있는 것 같다. 또 어깨 위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크기가 밤만 한 것이 수일 전부터 쑤시고 아프더니 지금은 조금 나아서 생각건대 반드시 속으로 곪은 것이다. 만일 화침(火針)으로 따면 반드시 고름이 나오고 쉽게 나을 것이나 다만 어머니께서 반

드시 두려워하실 터여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또 밤 2경에 여향(余香)으로 하여금 학질 귀신을 잡게 했다. 향촉이란 부사(府使) 한진(韓璡)의 종으로서 떠돌다가 여기에 와 있는 터이다. 오늘도 또한 학질을 크게 앓았다.

29일, 닭이 처음 울었을 때 비밀히 문을 나와 여러 가지로 설법을 했다. 종 춘희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동구(洞口)를 나오니 밤이 아직 이르다. 송정(松亭)이 있기에 나귀에서 내려 소나무 뿌리에 의지하여 누었다가 계명성(啓明星)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도갑동(道岬洞)으로 들어가니 풀은 길게 자랐고 나귀는 적어서 새벽이슬이 허리 밑의 옷과 버선을 모두 적신다. 절에 들어가니 하늘이 비로소 밝는데 기운이 피곤하여 오랫동안 선방(禪房)에 누웠다가 식사 때 법당으로 나와 앉아서 중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식사 후에 북쪽 못가의 소나무 그늘 밑에 숨어 누웠노라니 조금 있다가 그 고을에 사는 전 좌수 박정기(朴鼎己)란 자가 그 아우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본다. 못에는 물고기가 많이 몰려 있어서 조그만 돌을 던지면 다투어 서로 삼 킨다. 박 공(朴公)이 중에게 바늘을 얻어서 갈퀴를 만들어 낚으니 겨우 7, 8마리가 잡혔는데 도로 놓아주었다. 점심때부터 불편한 조짐이 있어 법당으로 들어가 누웠 노라니 미시(未時)가 되자 더 아픈 증세가 있어 부득이 내려오는데, 중도에 더위가 더 사나워서 기운이 더 무겁다. 자못 말에서 내려 길가에 눕고 싶었으나 억지로 참 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뵈었더니. 지금은 증세가 위태롭고 중해서 혹은 붉고 혹은 흰 것이 마치 생선의 창자 같은 것이 그 도수(度數)를 알 수 없이 옷을 적시고 저절로 흘러내리고 뱃속도 또한 쑤시고 아파서 전혀 식음을 폐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도 또한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노라니 아픈 것이 전보다 갑절이나 되 더니 어두울 때 이르러 조금 낫고 밤중에는 도로 깨났다. 어머니 증세는 여기에 이 르러 지극하고 내 학질도 또한 떨어지지 않으니 민망함을 말할 수 없다.

8월

1일. 어머니 증세는 전과 같으시니 망극하다. 아침 전에 진사의 종과 말이 들어왔다. 전일에 인아가 타고 가서 장성에 이르러 기한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몹시 걱정되던 차에 이제 비로소 오니 기쁘다. 인아가 장성에서 말을 얻지 못하여 근제

로 머물렀다 한다. 군수가 출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사의 종은 도로 금성 (錦城)에 도착했는데도 목사가 답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체류하고 있었다 한다. 어머님의 이질 증세는 도수가 어제보다는 조금 덜한데, 다만 복통은 여전하고 소변을 보기 어려워 수일에 이르러 배꼽 밑이 땅기더니 오늘 새벽에는 계속해서 세번을 보아 땅기는 증세는 즉시 감해졌다. 그러나 조금만 미음이나 죽을 드시면 역하고 넘어가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내 병은 오후로부터 가벼워지는 조짐이 있으므로 요월당에 나가서 최심원(崔深遠) · 임자중(林子中)(임환(林懽))등과 이야기를 하며 잊으려 했으나 점점 더 아파지므로 부득이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자니 전보다 갑절이나 몹시 아프다가 저녁에 이르러 조금 나으니 걱정이다. 심원은 최 생원 집(漢)의 자요, 경흠의 사촌이다. 난리가 난 처음에 관서로 떠돌다가이게 비로소 남쪽으로 와서 어제 여기에 왔다.

2일. 어머님 증세는 여전하신데 복통은 오히려 더하시니 망극하다. 낮이 되자 기운이 더 덥고 막히는 것 같아 수박을 드시고자 하므로 한 조각을 베어서 드렸더니 얼음과 꿀에 섞어 드시더니 기운이 몹시 상쾌하다고 하신다. 나의 학질은 어제에 비하면 좀 덜한데 시작할 때는 늦고 끝날 때가 이른 것으로 보아 떨어질 기세가 있는 듯싶다.

3일. 어머님 증세가 좀 덜하시나 복통은 여전하지만 어제에 비하면 역시 덜한 것 같다. 다만 이로 인하여 죽이나 미음을 드시지 못하여 원기가 떨어지시니, 더욱 이때문에 망극하다. 내 학질은 연일 방법을 베풀어서 박연운(朴連雲)으로 하여금 잡게 했더니 저녁이 되자 점점 아프다가 속히 멎으니 이로부터 아주 떨어질라나 보다. 아프기 전에 요월당에 나가서 자중(子中)·심원(深遠) 및 김영휘의 무리들과 바둑 구경을 하면서 거의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다.

4일, 어머님 증세는 대개 도수는 조금 감하고 변(便)의 빛이 자연스러우나 다만 복통이 여전하시고 또 식사 생각이 없으시니 이 때문에 몹시 민망하다. 오늘은 두 번얼음물에 밥을 말아서 5, 6숟가락 드셨고, 저녁에는 흰죽 조금과 생치(生雉) 두어점을 드셨다. 내 학질은 연운(連雲)으로 하여금 연 사흘 동안 잡게 했더니 오늘 저녁때는 속머리가 조금 아프다가 그쳤으니 필시 아주 떨어질 것이다. 기쁜 일이다.

다만 어머님께서 아직 쾌차하지 못하시니 이 때문에 몹시 민망하다.

5일. 어머님께서 어젯밤에는 두 차례 변을 보셨는데 모두 자연스럽고 이질 설사 가 아니었다. 또 두 차례 흰죽 조금씩을 드셨으나 다만 뱃속의 찌르고 아픈 것이 여전하고 전혀 식사의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 어깨 위의 조그만 종기는 전일에 이 병 때문에 속의 고름을 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또 쑤시고 아프더니 다시 곪아 서 심지어 겉에 더러운 진물이 흘러나오고. 조그만 종기가 많이 나서 모양이 녹두 와 같아 끝은 희고 몸뚱이는 붉으니, 이 때문에 몹시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 요 새 비록 처서는 지났으나 더위가 몹시 지독하여 마치 찌는 항아리 속에 앉은 것 같 아 나이 젊고 병이 없는 자라도 오히려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머니 께서는 이와 같은 병환 중에 어떻게 능히 그 반드시 편안할 것을 보장하랴. 거처하 는 방이 또 시원하고 넓지도 못하고, 사면에 바람 들어올 곳이 없고, 아침 해가 창 에 가득하다가 해가 늦은 뒤에라야 비로소 창을 열게 되니. 더욱 이 때문에 병중에 더욱 걱정돼 몹시 민망하다. 또 임자중(林子中)(임환)이 집 노루 고기를 가지고 와 서 마음 사람들과 함께 요월당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마침 술이 없더니 경흠의 서모(庶母)의 집에서 추로 한 병을 얻어서 각각 석 잔씩을 마시고 헤어졌다. 참석 한 자는 임자중·최심원·박 별감 응선(應善)과 우리 형제. 그리고 마을 소년 4. 5 명이었다.

6일. 어머님 기후는 여전하시다. 어젯밤에는 대변을 한 번 보셨는데 건조하고 자연스럽다. 다만 복통의 증세가 낫지 않고 또 식사를 하지 못하시어 이 때문에 몹시 민망스럽다. 어깨 종기는 두 손으로 눌러서 고름이 나오고 구멍이 생겼으니, 이로 인해 나을 것이다. 다만 곁의 조그만 종기 7, 8개가 모양이 큰 콩만 하고 빛이 붉으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다. 오후에는 어머님 기후가 조금 나으시고 복통의 형세도 또한 감해진 것 같다. 소변도 편하게 나오고 아침 식사 후로는 아직 설사를 하지 않았으며, 아욱죽에 퓡고기를 섞어서 조금 드셨으니 이로부터 거의 회복되실 것이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어찌 다 말하랴. 또 능성감(陵城監)이 어제저녁에 금성으로부터 와서 여기서 잤다. 그는 바둑을 잘 두어서 임자중ㆍ김영휘ㆍ임현의 무리와 요월당에서 종일 바둑을 두었다. 그러나 수는 대적할 수가 없어서 자중의

무리가 모두 8점씩을 놓고서도 오히려 갑절로 지는 것을 면치 못하니 우스운 일이다. 경흠이 전일에 금성에 있을 때 능성과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저녁 식사 후에 경흠과 심원·자중·임현의 무리는 도갑사로 올라가서 함께 잤는데 내일 두부를 만들 계획이다. 청성감(清城監)도 또한 같이 갔다. 우리 형제는 어머니 병환 때문에 가서 자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갈 계획이다.

7일. 이른 아침에 아우와 함께 절에 올라가서 제공(諸公)과 함께 두부를 먹고 혹 바둑도 두고 혹 종정도를 놀면서 웃음거리로 삼았다. 마침 소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조금 있다가 그친다. 오래 가물던 나머지에 이 한 차례 비를 얻으니 시들어 가던 곡식이 거의 도로 소생할 희망이 있으나, 다만 흡족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바람이 남쪽에서 오고 하늘이 또 흐렸으니 반드시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기를 기다려 각각 스스로 달려 돌아왔다. 능성감은 강진으로 향했다. 또 어머님 기후는 점점 회복되시어 어젯밤에는 흰죽 한 대접을 드셨고, 아침에는 목말(木末)과 건각(乾角)을 조금 드셨으며, 늦은 아침에는 또 수제비 한 대접을 드시어 점차로 식사를 하시게 되니 몹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복중의 쑤시고 아픈 증세가 아직 낫지 않고 때때로 발작한다고 하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저녁에 가랑비가 뿌리다가 그쳤다.

8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이 차도가 있다. 배 아픈 것은 만일 변이 마려운 때면 문득 쑤시고 아프다가 변을 보고 나면 도로 낫는다. 다만 식사 드시는 것이 평상시와 같지 못하시다. 어깨 종기에 구멍이 난 곳에서는 흰 물이 때때로 흘러나오고 오래도록 아물지가 않아서 오래 누울 생각만 하시고 일어나시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민망스럽고 걱정이다. 또 어제 군리(郡吏)가 전통(傳通)을 보내기에 보니, 두 왕자와 두 중국 사신은 모두 적중에서 나왔고, 적들은 지금 부산·등래·김해·밀양근처에 머물러 가득히 주둔해 있다고 한다. 혹은 함안·진주로 향하여 호남에서 머무르려 한다 하고, 혹은 반쯤은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아침에 경흠이 심원(深遠)(최집(崔漢))과 태수에게 들어가 보고 돌아오면 그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녁에 경흠이 돌아와서 들으니, 별로 호남으로 향했다는 소식은 없고, 다만 동래·부산 근처에서 돌을 모아 성을 쌓았다고 하니, 필연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 이것이 걱정된다. 김영휘·임현·안 참봉 서국(瑞國)·이용제(李容濟)가 금성으로부터 와서 경흠을 찾았다. 둑을 쌓는 곳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안 공(公)은 곧 나주목사의 첩의 아버지요 용제의 서제(庶弟)이다. 또 안 공은 나의 소년 때의 친구로서 예부터 아는 처지인데 유리하는 속에서 만나서 서로 회포를 푸니 십분 기쁘고 위안이 된다.

9일. 어머님 기후는 여전하시나 다만 복통이 끝내 아주 낫지 않으나 민망스럽다. 지난밤에는 수제비 한 그릇을 드셨고, 새벽에는 녹두죽 한 보시기를 드셨으며, 아침에는 흰죽 반 그릇을 드셨다. 어제 낮에는 무료하기가 너무 심하여 아우와 함께 걸어서 국사암(國師岩) 앞에 가서 임자중(林子中)을 불러 가지고 냇가 모정(茅亭)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비로소 돌아왔다. 마을 속의 나이젊은 무리 및 금남(錦南) · 갑생(甲生) 등도 또한 함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경흠의 서숙(庶叔)이다. 또 오늘은 곧 임환(林懼)의 생일이다. 떡과 과일과 토장을 내오고 또 추로를 먹었다. 참석자는 안상보(安祥甫) · 이용제 · 임자중 · 최심원 · 민우중 (閔友仲)과 경흠 · 우리 형제였다. 상보는 서국의 자요, 우중은 민 참판 준(濬)의 막내아들이요, 임현(林睍)의 처남이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에 와 머물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오후부터 백리(白痢)를 네 차례나 쏟고 밤새 복통이 나서 식사 드시는 것이 또 감하니 몹시 민망하고 걱정된다.

10일. 어머님의 기후는 아침에는 조금 덜하시고 복통도 역시 감해졌다. 밤중에 흰밥을 물에 끓여서 한 대접을 드시고 아침에는 또 박죽 반 접시를 드셨다. 지난밤에는 대변을 한 차례 보셨는데 자연스러웠다. 아침 식사 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백리 (白痢)가 점점이 쏟아 내려 7·8도에 이르니 몹시 민망스럽다. 그러나 복통은 어제와 같지는 않다. 낮에 박죽 한 접시를 드시고 저녁에는 파를 잘라 밥에 섞어서조금 또 드셨다. 안 참봉 상보(祥甫) 및 이용제가 금성(錦城)으로 돌아가고, 임자중도 또한 금성으로 돌아가서 진촌(津村)의 본가에 모여서 추석을 지낸 후에 돌아온다고 한다. 또 나의 목 뒤가 땅겨서 돌아보기에 방해가 되는데 필시 촉랭(觸冷)한때문이다

11일, 어머님 복통은 여전하시어 식사하시는 것이 달지 않아 비록 죽이라도 반드

시 싫어하시다가 억지로 드시게 한 뒤에라야 조금 드신다. 어깨의 종기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 옆의 조그만 종기 8 · 9개는 모양이 큰 콩만 한 것이 혹은 주동이는 희고 몸은 붉으며, 혹은 주동이에서 고름이 나오니 이 때문에 몹시 민망스럽다. 어머니는 지난밤에 대변을 한 차례 보셨는데 빛이 희다. 아욱죽 조금을 드셨다. 또내 종과 말이 금명간 올 터이나 어머님의 증세가 그대로여서 속히 나을 것 같지 않으니 반드시 아주 차도가 있은 후에 떠나려면 오래 여기에 머물러야 할 것인즉 상하 식구가 먹기에 반드시 어려운 것이니 또한 걱정이다. 새벽에 큰비가 한 차례 쏟아지고 늦게까지 혹 뿌리기도 하고 혹 개기도 해서 누렇게 시들은 곡식이 소생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흡족하지 못하여 이것이 한스럽다. 다만 날이 흐려서비 올 징조가 있으니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늦은 아침 이후에 어머님 기후가 조금 덜하시어 김칫국에 밥을 말아서 두 번 드시고 저녁에 또 수제비를 조금 드셨다. 대변은 세 차례 보셨고, 복통은 변을 보실 때는 아픔이 중지되어 어제와 같지는 않으시다.

12일. 지난밤에 어머니께 더운 물에 밥을 말아 드셨다. 다만 새벽부터 복통이 다시 시작되어, 아침 식사 전에 계속해서 세 번 변을 보시더니 조금 나으셨다. 그러나 아픈 증세가 아직 아주 없어지지 않았고 식사 드시는 것이 달지 않으시니, 이것이 곧 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몹시 민망스럽다. 늦은 아침에 수제비에 밥을 말아서 반 대접을 드시고 오후에는 쇠고기를 구워서 반 꼬치를 드셨다. 아우가 거친 포목 반 필로 쇠고기를 사와서 낮에 구워서 아우와 함께 먹었다. 오후에는 비가 내려 저녁내 개지 않았다.

13일. 어머님 복통이 여전하시다. 지난밤에 더운 물에 밥을 말아 드셨는데 아침 전에 두 번 변을 보신 것이 그 빛이 자연스러웠다. 또 생새우탕에 마른 밥을 조금 드셨다. 아침 식사 후에 경흠이 심원·임현 및 우리 형제를 안방으로 청해서 추로를 마시다가 병이 다해서 흩어졌다.

14일. 어머님의 기후는 어제 오후부터 점차 소복되신다. 복통의 증세가 때로 발작하지만 전날같이 심하지는 않다. 지난밤에 두 차례 변을 보셨는데 빛도 또한 자연 스러웠다. 아침에 백반과 민어국을 두 차례 드셨는데 거의 한 보시기를 드셨고 낮 에 이르러 조반을 조금 또 드시고 때로 한참씩 일어나 앉으시고, 이로부터 날로 회복해 가시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어깨의 종기는 아직도 아주 낫지 않아 이 때문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스쳐서 아프고 파리 떼가 몰려들어 부채를 내두르기를 쉬지 않으니 괴로움을 말할 수 없이 이것이 민망스럽다. 또 김 정자의 집종 고서비(高西非)가 제 어미를 보려고 말미를 얻어 금성으로 내려왔다가 그 길로 어머님께 와 뵙고 누이의 편지도 또한 가지고 왔다. 또 저녁에 어머님께서는 찐 붕어와 생선국을 해서 백반 조금을 드셨다. 식사 전에 누님이 숭어를 얻어 회를 쳐서주어 우리 형제가 배불리 먹었다.

15일. 아버님 신위(神位) 앞에 누님이 주과와 떡과 탕과 구이를 차려 올려서 다례를 지냈다. 오늘이 곧 추석이다. 일찍이 윤해로 하여금 광주 선산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지냈는지 알 수 없다. 어머님의 기후는 점점 차도가 있어 날로 식사를 더 드시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복통의 증세가 아직도 아주 낫지 않으시어 변을 보려 할 때는 문득 아픈 증세가 있다 하시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이른 아침에 경흠이 청랭동(淸冷洞) 선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를 청하므로 재궁(齋宮)으로 갔더니 제사 후에 두부를 만들어 내고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려 내어배부르고 취해서 돌아왔다. 참석한 자는 윤사우(尹士佑) · 민우맹(閔友孟) 및 나와 경흠 숙질, 그리고 그의 서숙(庶叔) 등 모두 14인이었다. 최심원은 뒤따라왔지만 중로에 학질을 얻어 몹시 아파서 이 때문에 먹지 못하고 승방(僧房)에 들어가 누웠다가 역시 함께 오지도 못했다. 청랭동은 구림에서 거리가 십여 리이다. 윤 진사는집이 서울인데 유리해서 여기에 와서 종의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청랭동과 멀지않기 때문에 청한 것이다. 민 공(閔公)은 곧 임현의 처조카인데 그저께 그 어머니를 뵈러 여기에 온 것이다.

16일. 어머님 기후는 여전하시다. 식사를 올리면 죽이거나 밥이거나 혹 세 차례, 혹 4, 5차례 드시는데 다소 생각이 있으면 혹 반 보시기를 절반도 드시지 못하고 중지한다. 대변은 하루에 혹 한 번이나 두 번이요, 밤에도 혹 한 번이나 두 번인데 그 빛이 자연스럽다. 다만 변을 볼 때 배 아픈 것이 전과 같으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또 숙수(熟手) 영환(永環)이 떠돌면서 걸식하다가 이곳으로 우리들을 찾아왔

다. 그러나 우리들도 또한 떠돌다가 매가(妹家)에 기식(寄食)하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남을 돌보겠는가. 비록 마음으로는 실로 슬프고 불쌍하나 손을 쓸 곳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누님이 밥을 지어 먹으라고 쌀을 주어서 절에 가서 병을 조리하도록 했다. 영환이 이질을 얻어 앓기 때문이다. 어머님도 또한 쌀되나 하고 자반조금을 주시니, 저는 필시 실망했을 것이다.

17일. 어머님께서 기후나 음식·대변이 어제와 같으시다. 또 식사 후에 아우와 함께 걸어서 모정으로 나가 최심원을 불렀더니 학질 때문에 오지 못한단다. 그 길로 서호정(西湖亭)으로 가서 붕아로 하여금 김영휘를 청해다가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하노라니 경흠이 민우중과 함께 와서 같이 포구로 나가 경흠이 연전에 만든 피란선(避亂船)을 구경하고 송정(松亭)으로 돌아와 늘어앉아 다리를 쉬었다. 여기에서 경흠은 바로 돌아오고 나는 아우와 함께 국서(國舒)의 집에 가서 국서의 어머니를 뵈려 했더니 병이 있다고 사양한다. 국서의 어머니는 곧 나의 6촌 누이이다. 집에 돌아올 때 박경인(朴敬仁)의 집을 찾았더니 아우 경행(敬行)도 또한 와서 모였다. 주인집에서 주과를 내와서 마셨다. 그 서족(庶族) 두 사람이 역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아우는 크게 취해 가지고 집에 돌아와 누워서일어나지 못하더니 토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잤다. 나는 비록 마셨으나 몹시 취하는 데 이르지는 않아서 저녁밥을 정상으로 먹고 밤에 자는 것도 역시 편안했다. 18일. 어머님 기후는 어제와 같다. 등의 종기는 거의 회복되었으나 다만 어깨 위

두어 곳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때로 쑤시고 아프나 이로부터 아주 나을 것이다. 아침 식사 전에 누님이 산 모치라기를 얻어 회를 쳐 주므로 아우와 함께 각각 한 대접씩 먹고 추로 한 잔을 마셨다. 아우는 어제 대취한 나머지여서 다 먹지 못했다.

19일. 어머님 기후는 어제와 같으시다. 다만 큰 병 뒤이어서 식사 드시는 것이 너무 줄었고, 비록 드시어도 달지 않아서 5홉 밥을 겨우 삼분의 일을 드시고, 혹 죽이나 혹 밥을 하루에 4, 5차 드시고, 밤중에도 죽이나 밥 중에서 또한 한번 드시지만 그래도 드시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프시고 만일 약과를 얻으면요기가 되시지만 쉽게 얻을 수가 없으니 민망스럽다. 또 내 말이 오래도록 오지 않

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다. 혹 그 말이 병이 들었는지 아이들이 끌고 딴 곳으로 갔다가 오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20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으시다. 아침 식사 후에 요월당으로 나갔더니 최심원과 김국서가 마침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또 국서와 자승(子昇)의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오후에 각각 헤어졌다. 자승은 임현(林睍)의 자이다.

21일. 어머님의 기후는 전과 같으시다. 다만 어깨 위의 종기가 아직도 쾌하지 않고 때로 쑤시고 아파서 누울 때에 방해가 된다고 하시니 이것이 민망하다. 숙수 영환 (永環)이 절에서 내려왔다. 이질로 해서 오래 쉴 수가 없고, 또 주려서 형용이 파리하고 검으면서 부기가 있으니 장차 머지않아서 필시 죽을 것이다. 몹시 불쌍한 일이다. 이제 돌아간다는데 또 양식을 얻지 못했으니, 내 비록 얻어 주고 싶으나 돌아다보아도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누님이 다만 쌀되와 간장을 주었고, 나는 아침저녁으로 밥을 남겨 주어서 보냈는데, 중도에 필시 걸식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러나 병세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돌아가지 못하고 필경 중도에 죽을 것이다. 가련한 일이다

22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다. 아우와 최심원·김국서·국서의 동서 서완(徐玩)·민우중과 박원중(朴元仲)의 아들·심원의 두 아들·구생(龜生)·금남(錦南) 등과 배를 타고 죽도 앞에 이르러 고기 잡는 것을 보다가 메추라기 십여 마리를 얻어 혹 회도 치고 혹 굽기도 하고 혹 끓이기도 해서 배불리 먹고 조수가 들어온 때 돌아왔다. 금남은 경남의 서숙이오, 구생은 경흠의 누이의 아들이다. 올 때는 함께 서호정에 앉아서 다리를 쉬고 돌아왔다

23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지 못하고, 어깨의 종기가 아직 낫지 못했으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또 아우가 거친 포목 한 필로 고기를 사다가 혹 끓이고 혹 구워서 포식했다.

24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으시다. 누님이 메추라기를 얻어서 회를 쳐서 주어 맛있게 먹고 추로 한 잔을 마셨다. 또 오후에 아우가 영암군에 갔다. 순찰사 이정암 (李廷麓)이 순찰하러 왔다고 해서 가 뵙기 위해서다.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25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으시다. 식사 드시는 것이 달지 않아 상을 대하여 문 득 싫증이 나고 기운이 몹시 피로하다고 하시니. 이것이 몹시 민망스럽다. 아우가 돌아왔는데, 순찰사는 대기(大忌) 날 이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다 만 그 자제만 만나고 돌아왔다. 순찰사는 집이 서울 이현(泥峴)으로서 아우가 전일 에 글을 배웠기 때문에 가서 뵈러던 것이다. 들으니, 영남의 적은 부산으로부터 웅 천에 이르기까지 영채를 연달아 성을 쌓고 또 집도 많이 지었으며 군량을 많이 쌓 아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 한다. 고성(固城)에 사는 사람이 지난해 9월에 포로로 잡 혔다가 이달 초생에 도망해 돌아왔는데, 그 말에 적들의 속에서 비밀히 들으니, 평 수길이 말하기를 조선은 이미 자기의 물건이니 모름지기 급히 호남을 치지 말고 명년 3월에 바다를 건너가서 바로 부수면 말 한 마디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 니 통분을 이길 수 없다. 이는 곧 방답첨사(防踏僉使) 이순신이 경흠에게 편지했을 때 그곳 적의 소식을 말하기를 적은 성을 쌓고 집을 지어 오래 머무르고 가지 않 으며, 요새 또한 군사를 거두었는데도 호남은 엿보지 않는다 했으니 반드시 까닭 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명춘 일은 말할 것이 없다. 노모가 여기 계시고 내 집은 임 천에 와 있어 거리가 5, 6일 거리이니, 적이 만일 불의에 가로지른다면 피차에 소 식이 아주 막혀서 사생을 들어 알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미리 근심되는 것이 실상 많다. 비록 머물러서 슬하에 모시고자 해도 봉양하기가 실지로 어렵고 만일 모시 고 나 있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해도 돌아다보건대 있을 만한 곳이 없고. 또 봉양 할 물건이 어려우니, 이 사이의 일을 밤중에 생각하면 백에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 서 한갓 스스로 경경(耿耿)히 근심될 뿐이다. 저녁에 막정이 말을 가지고 왔다. 그 편에 들으니 온 집안 상하 · 노복이 모두 학질을 얻어서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날마다 고통스러워한다. 그중에도 집사람 및 윤겸이 몹시 아파서 위태롭게 괴로워 하며 집사람은 호흡이 막힐 것 같아 거의 구원하지 못할 것 같다가 지금은 조금 나 았고. 윤겸은 결성에서 학질을 얻어 가지고 보령으로 와서 여러 날 고생하고 겸해 서 담증을 앓아 아래 기운이 또한 통하지 않으니 형세가 몹시 위중했다고 한다. 검 찰사(이산보)가 마침 홍주에 있다가 그 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의원을 보내 서 치료하여 지금은 비록 소생되었으나 또 이질을 앓는다고 한다. 원기가 크게 꺾

인 나머지에 병세가 만일 오래 차도가 없으면 어찌 능히 지탱하겠는가. 민망하고 근심됨을 이길 수 없다. 집 떠난 지 수월에 식구들의 병이 여기에 이르렀고, 이곳은 어머님께서 이질을 얻어 위태롭다가 겨우 회복되시고 나도 또한 종기를 앓아 반달에 이르러서야 역시 겨우 물리쳐서 피차가 모두 이와 같다. 윤해는 진위에서 역시 학질을 얻어 바야흐로 아프던 차에 제 어머니 병을 듣고 괴로이 달려와서 지금까지 떼지 못했으며, 그 처도 또한 학질을 5, 6차례 앓다가 겨우 면했으며 윤겸의 처도 바야흐로 괴롭게 앓는다니 앞으로 무슨 큰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유리하여 곤궁한 데다가 온 집안의 병환이 또 이 지극함에 이르렀으니, 밤중 고요한 속에 장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난봄에 병을 얻었을 때 한 번 죽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만 못하다.

26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다. 종과 말이 왔으므로 내일 떠나려 한다. 또 들으니 간성군수 임극(任克)이 이번에 임천군수가 되어 이미 도임했다 하니 이것으로 위안이 된다. 또 들으니 종이 올 때 장성에 이르러 내간(內簡)을 전했더니 받아들인 사람을 장형(杖刑)을 쳤다고 하니, 옥여(이귀)가 어찌 이렇게 심하게 한단 말인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심의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백리(百里)의 장(長)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어찌 포의(布衣)의 사람이라고 해서 묻지 않는단 말인가. 이다음 날 조정의 반열에 있으면 한미(寒微)한 옛 친구를 돌아다보지 않을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일이 가소롭다. 혹은 옥여의 어머니가 때렸다고 한다. 또 독운어사(督運御史) 임발영(任發英)이 불의에 경흠을 와서 보고 해남으로 돌아갔다. 발영은 곧 경흠의 6촌 친척으로서 해남에 있는 자이다. 임 공(任公)이 간 뒤에나도 또한 요월당으로 나가서 박 진사 종정(宗挺) 및 박대기(朴大器)를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27일. 어머님 기후는 전과 같다. 다만 어깨의 종기가 아직 쾌차하지 않으니 민망스럽고 조심된다. 순찰사가 어젯밤에 쌀 5두·콩 6두·간장 1두·소금 7두·감태 10묶음·고등어 5마리·미역 7묶음을 전인해서 어머님께 보냈다. 의외에 이것을얻으니 백 명의 벗을 얻은 것 같다. 이것으로 술을 빚어서 팔겠다니 몹시 기쁘다. 아우가 사례하고자 새벽에 군(郡)에 들어갔더니 마침 순찰사가 출타하는 길이어서

겨우 문간에 서서 이야기했다 한다.

28일. 어머님의 기후는 전과 같다. 오늘 새벽에 떠나려 했더니 막정이 어제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서 종일 괴로워하더니 밤이 깊어서야 조금 나으니 필시 학질인가 보다. 이 때문에 떠나지 못하니 한스러운 일이다. 오늘은 경흠의 조모 기일이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으므로 나를 청해서 대접하고 또 두부를 만들어 먹였다. 임현이 나에게 건숭어 한 마리를 주었고 누님도 또한 건숭어 2마리와 저린 고등어 5마리・건모치(乾毛致) 5묶음・생선젓 1항아리를 주었다. 어머님은 고등어 4마리・미역 3묶음・감태 5묶음을 주신다. 누님은 또 양식과 반찬을 주었다. 한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경흠은 갓모 하나를 주었고, 임자중은 나에게 쌀 1두・은절어(銀節魚) 1묶음・소전복(小全卜) 1꾸러미를 주었다.

29일. 이른 아침에 떠나는데 어머님은 서로 작별할 때 울음을 그치지 못하시고. 나 도 또한 슬픈 눈물을 금치 못했으니. 모자 인정이 여기에서 지극하다. 나는 정해진 곳이 없이 호서(湖西)에 떠돌아 조석을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모로 하여금 천 리 밖 머무르지 못할 곳에 체류하시게 하고, 우리 모자가 한곳에 같이 있지 못하니 하늘이 실상 만든 일이라, 슬퍼하고 탄식하면 무엇하리오. 임현의 암말을 빌려 타 고 달려서 부소원 밑 냇가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금성 성 밖 에 이르러 종과 말을 먼저 남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는 걸어서 서문을 향하여 주 인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에서 금하는 것이 몹시 엄하다. 순찰사(이정암)가 또한 들 어왔기 때문이다. 들으니 안경호(安景豪) 씨가 남문 안에 와서 영접한다기에 즉시 가 보았더니 안 공(安公)은 나를 보자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고. 저녁밥을 지어 대 접한다. 안 공은 곧 목사의 장인의 백씨(伯氏)요. 남중소(南仲素)의 소년 때 친구이 다. 옛날에 백천(白川)에 있을 때 만나서 여러 날 같이 거처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온 집안을 데리고 임시로 여기에서 먹고 있다 한다. 저녁에 아우가 부득이해서 순 찰사를 보고 통정(通情)하려고 왔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어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 갔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들어가 볼 생각이다. 불의에 객지에서 만나니 기쁘고 위 로됨을 어찌 다 말하랴. 함께 주인집에서 잤다.

그믐날. 새벽에 아우는 순찰사를 만나서 유형(柳珩)의 애매함을 말하는데, 말을 마

치기 전에 조도어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을 다 못하고 물러났다. 순찰사는 바로 떠나서 진원(珍原)으로 향하고, 아우는 안 참봉 상보(안서국)를 가 보았다. 상보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말을 보내서 청하므로 바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술을 내어 대접받고 또 아침 식사를 내온다. 아우는 목사(牧使)를 들어가 보고, 나는 달 려서 거의 십여 리를 왔는데, 목사가 비로소 내가 와서 자고 만나지 않고 간 것을 듣고 즉시 안전사령(眼前使令)을 쫓아 보내고. 또 아우로 하여금 말을 보내서 돌아 오게 하므로 부득이 도로 성으로 들어갔다. 목사는 동헌에 앉았고 빈객이 당(堂) 에 가득하다. 내가 들어가 목사를 만나자 목사는 내가 만나지 않고 간 것을 책망하 면서 은근한 말을 많이 하고. 백미 3두 · 정미(正米) 10두 · 콩 10두 · 정조(正和) 1 석 · 건숭어 2마리 · 건민어 3마리 · 우포 10조각 · 젓 3되 · 감장 1두 · 간장 3승 · 각모 1개·삼색부채 3자루를 준다. 의외에 이것을 얻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 다. 감장과 콩 1두는 집주인에게 주고, 간장은 춘의에게 주었다. 짐이 무거워서 운 반할 수 없는 때문이다. 아우에게도 또한 쌀 10두·콩 1석·각모와 부채를 주었 다. 임익신(任翊臣) · 조탁(曺晫)도 또한 와 앉았다. 불의에 이 친구들을 만나니 기 쁘고 위로됨을 이기지 못하겠다. 조 공(曹公)은 나의 7촌척이요, 임(任)은 또한 소 년 시절 친구이다. 다만 들으니 홍 찰방(洪察訪) 백남(百男)(사진(士振))이 병을 얻 어서 죽었다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사진은 곧 조 공의 사촌이며 또한 나의 7촌 친척이다. 지난봄에 내가 큰 병을 얻었을 때 홍주의 계당(溪堂)으로 찾아 와서 나의 병이 중한 것을 보고 깊이 근심을 하더니 반년도 못 되어 그가 먼저 가 니, 사람의 생사란 그 병들고 병들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알 수가 있다. 깊이 슬프고 탄식한다. 곧 좌중과 작별하고 아우와 함께 걸어 서 주인집으로 와서 얻은 물건을 계산해 두어두고 즉시 달려서 40여 리를 와서 그 고을 고 양 목사(故梁牧使) 응정(應鼎)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종의 집에서 잤다. 비 변사의 사령 언충(彥忠)이 관문(關文)을 가지고 와서 순찰사에게 바치고 돌아갈 때 나를 따라와서 함께 한곳에서 잤다. 또 이제 조보(朝報)를 보니, 진주성이 함락 될 때, 여러 군사가 힘껏 싸우던 일이 적혔는데, 창의사 김천일은 친히 스스로 성 을 순시하고 울면서 사졸들을 어루만지더니, 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러 좌우 사람들 이 부축해 일으켜 피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대로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말하 기를, 나는 마땅히 여기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이나 피하라고 했다 한다. 혹은 말 하기를, 천일이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최경회와 함께 촉석루 위에서 통곡 하다가 스스로 바위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 한다. 충청병사 황진은 몸이 사졸에 앞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가 서쪽 성이 스스로 허물어지자 즉시 의관을 벗어 버리고 친히 돌을 지고 사졸보다 앞장서서 밤새 일을 돌보니 그 지성에 성안 의 남녀들이 감격하여 힘을 냈기 때문에 하룻밤에 성을 쌓자, 적이 조금 물러갔다. 이에 성 밑을 내려다보면서 말하기를, 어젯밤 싸움에 적의 죽은 자가 거의 천여 명 에 이른다고 하더니. 성 밑에 숨어 있던 적이 총을 쏘아 그 목을 맞고 죽었다 한다. 거제현령 김준민은 성이 함락되던 날 힘껏 싸우다가 탄환을 맞고 죽었고. 이종인 (李宗仁)은 성이 함락될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 계속 대전(大篰)을 쏘아 일곱 명의 적을 꿰뚫었으나 적은 물러가지 않더니. 이윽고 탄환 을 맞고 죽었다 한다. 또 중국 사람의 품첩(禀帖) 속에, 종인은 용맹이 삼군(三軍) 에 뛰어났다고 했다. 진주 사람이 와서 싸움을 도와 달라고 청하자 종인이 계속해 서 다섯 명의 적을 쏘니 다섯 명이 다 피해서 달아났다. 적이 또 큰 궤를 만들어 곡 성으로 들어가자. 종인은 먼저 수십 개의 화살을 쏘아 궤를 맞히고 계속해서 기름 과 나무를 내려보내니 적이 급히 불을 끌 때 종인이 계속해서 여덟 명의 적을 쏘았 다. 그날 초경에 북문의 싸움이 급하자 또 종인을 청하니. 그 수하의 활 쏘는 군사 를 거느리고 가서 물리쳤다. 그 밤에 적이 성의 돌을 빼내고 날이 밝자 적이 스스 로 돌 빼낸 곳으로 들어왔다. 이에 종인은 활과 화살을 버리고 바로 창으로 쳐 죽 이자 적의 죽은 자가 산처럼 쌓이니 적이 신북문(新北門)으로 조금 물러갔다. 창의 군이 형세가 급한 것을 보고 이를 버리고 촉석루 위로 행하니. 적이 성을 넘어 들 어와서 종인은 탄환을 맞고 죽었다 한다. 장윤(張閏)은 가목사(假牧使)가 되어 몸 에 탄화을 맞았으나 일찍이 요동하지 않고 창을 들고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한다. 이 위의 몇 사람은 평일에 힘써 싸운 공이 이미 족히 가상스럽다. 함께 한 성에 있 으면서 죽기로 지키고 가지 않다가 성이 함락되는 날에 의열(義烈)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포장(褒獎)하여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천일은 좌찬 성에 증직(贈職)되고, 황진은 우찬성에 증직되고, 최경회는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이종인과 김준민은 호조판서에 증직되고, 장윤은 형조참판에 증직됐다. 아아! 이 같은 장사(壯土)들이 함께한 성에 있다가 모두 죽음을 당했으니 비록 국운이라고 하겠으나, 밖으로 개미 한 마리의 구원도 없이 홀로 많은 적을 막다가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다하여 머리를 잡히고 죽음에 나가면서도 가지 않아서, 그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백(魂魄)이 열렬히 만고(萬古)를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니 가위 아름답다 하겠다. 다만 회덕군수 남경성은 곧 나의 사촌인데, 또한 진주성에서 죽었다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지난해에 그 두 형과 한 집안 아홉 명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 또 그도 스스로 면하지 못했으니 더욱 통곡할 일이다. 중국 사신 사용재(謝用梓) · 서일관(徐一貫) 및 두 왕자와 식구 네 명 · 배신(陪臣) 두 명 · 그의 식구 여섯명이 지난달 27일에 나왔다 한다. 전에 들으니 순화군(順和君)이 죽어서 적중에서 장사 지냈다고 했는데 오늘 돌아왔으니 전에 들은 것은 거짓이었다.

9월

1일. 일찍 떠나서 30여 리 냇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은 후에 장성 5리 밖으로 달려와 들으니 순찰사는 진법을 연습한다고 한다. 말에서 내려 냇가에 앉아 들으니박 교리(朴校理) 응소(應邵)가 조도사의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지나간다고 하므로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갈 때 사람을 보내서 청했더니 즉시 와 보고 이야기하다가 해가 저물어 갈 길이 바빠서 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작별했으니 탄식스럽다. 바로 동헌에 이르렀으나 여실(汝實)이 또한 있지 않아서 홀로 빈 마루에 앉았으니 무료하기가 너무 심하다. 주수(主倅)가 밤이 깊어서야 동헌에 들어와 같이 동헌에 앉아 각각 유리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소작(小虧)을 베풀어 석 잔씩을 마시고 파하여 밤이 반이나 지난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옥여(이귀)의 친구 김연경(金延慶)도 또한 와서 같이 잤다. 김 공(金公)은 여기 온 지 월여(月餘)가 된다고 한다. 2일. 이른 아침에 순찰사는 떠나서 고을에 있는 산성을 돌아 살피기 때문에 주수도 또한 따라갔다가 내일 돌아온다고 한다. 또 종 송이가 아침 전에 말을 가지고 왔기에 들으니, 처자들의 학질은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고, 윤함은 병세가 위태롭고 괴

로우며, 둘째 딸과 이현 수씨도 또한 그 학질에 걸렸다고 하니 민망하고 근심된다. 윤겸은 조금 나았다 한다. 또 춘희를 영암에 보내서 누룩 3덩어리 · 녹두 5승 · 의이(薏苡) 5승 · 꿀 1승을 얻어 어머님께 보내려 했더니, 의이와 꿀은 마침 외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얻어 보내지 못했다. 종일 관청 마루에 홀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니 마침 용인에 사는 정종선이 순찰사와 절친한 사이인데 어제와서 만나고 그대로 묵고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와서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여 객중의 무료함을 없애니 다행하다. 춘희는 일이 있어 머물러 있다가 내일 보낼 작정이다. 장성에 머물렀다.

3일. 그대로 장성에 머물렀다. 정종선이 와서 보고 종일 함께 이야기했다. 오후에 이여실(李汝實)이 광산으로부터 들어왔다. 타향에 떠돌다가 우연히 객중에서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이길 수 없다. 저녁에 주수(이귀)가 돌아왔다. 밤에는 여실과 한방에서 같이 잤다.

4일, 그대로 장성에 머물렀다. 이른 아침에 옥여(玉汝)가 나를 아내(衙內)로 청하여 비로소 큰 수주(嫂主) 및 실내(室內)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른 아침으로 흰 죽을 대접받고 또 술을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나오니, 옥여도 또한 아헌(衙軒)으로 나와 앉아 공사(公事)를 처리했다. 오후에 아내로 들어가더니 또 나와 여실을 불러다가 또 술을 대접한다. 옥여는 또 냇가에 나가서 여실 및 활 쏘는 관리들과 활을 쏘고, 또 물고기를 잡게 하여 회도 치고 탕도 끓이고 구워서 먹고 저녁밥도 먹고서 저물게 파하고 돌아왔다. 또 밤에 함께 마루에 앉았는데 들으니, 옥여가연전에 관동·관서에 있을 때, 군사를 모집하고 곡식을 거둘 방책을 계속 위에 아뢰었다고 한다. 밤이 이미 반이 지나서 자는데, 옥여의 서외사촌 권수성(權守成)도 또한 와서 함께 한방에서 잤다.

5일. 그대로 장성에 머물렀다. 이른 아침에 옥여는 나와 여실을 청해서 이른 아침을 대접하고 좋은 술을 마시게 했다. 아헌으로 나와서 정종선 및 여실과 아침밥을 먹고, 옥여는 또 고을 앞의 냇가로 나가서 군사를 모아 진법을 연습하고, 절강 군사의 죽창 장검을 본받아 진퇴하면서 교전하게 했다. 1일에 시작하여 한 고을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중국 모습을 본받아 갓을 버리고 감투를 쓰고 버선은 모두 푸른

빛을 써서, 싸움을 연습할 때는 일군(一軍)이 모두 이와 같이 했다. 우리들도 또한 나가서 구경하는데, 윤 봉사(尹奉事) 진(軫)도 또한 와서 앉았다. 조금 있다가 검찰 군관 임 공 득인(林公得仁)이 들어오자 소작을 차렸는데 대취해서 저물어서야 돌 아왔다. 임 공(林公)이 술을 잘 마시기 때문이다. 임 공은 연전에 우연히 홍주 피란 처에서 만났다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만나니 피차에 기쁘고 위로가 된다. 임(林)은 진원으로 향했다. 윤 봉사(윤진)는 해운판관 기(箕)의 아우로서 이 고을 농사(農舍)에 피란 와 있는데, 순찰사가 산성(山城)을 쌓는 감관(監官)을 삼았다. 오늘도 또한 물고기를 잡아서 회 쳐서 먹었다. 또 오전에 윤수이(尹遂伊) 및 그 아들 양이(良伊)가 그 두 딸과 함께 설암(雪岩)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보기에 그편에 서울 소식을 들었더니 김제 숙모(金堤叔母)의 영구(靈柩)를 거두어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가 후원에 임시로 묻었다고 하니 불쌍한 일이다. 또 들으니 오세량이 병으로 도중에 죽었다고 하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다. 오늘밤도 또한 옥여 및 여실ㆍ권수성 등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반이나 지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6일. 이른 아침에 떠나서 천원역 앞 판교 밑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서 고부(古阜)의 아우(희철)의 아내가 살던 마을에 이르러 물었더니 지난달에 이미 태인(泰仁) 고현(古縣) 안의 그 처조카의 집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도로 같은 고을 고 감사(故監司) 김 공 계(金公啓)의 정자 밑에 이르니 빈집이 있기에 들어가 잤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김 감사가 정자를 짓고 미처 수장(修莊)을 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벽이 무너진 채 쓸쓸히 혼자서 있다고 한다. 그 정자를 지을 때에는 꼭 장차 영구히 살면서 놀고 잔치하는 곳으로 쓰려고 했을 것인데 죽은 지 오래지 않아서 황패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일이 가소롭기만하다. 그 밑에 농장(農莊)이 있다고 하는데, 필경 자손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자손이 있다면 이처럼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옥여(이귀)가 나에게 백미 2두 · 중미 3두 · 콩 3두 · 목미 1두 · 감장 1두 · 간장 1두 · 참기름 1승 · 생치 1수 · 닭 2수 · 우포 5조각 · 조기 1묶음 · 안부채 5자루 · 백지(白紙) 1묶음 · 보리 10두를 주었다. 관고가 바닥이 나서 극력해서 얻어 준다고 한다.

7일. 날이 밝자 떠나서 태인 땅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달려서 신창진(新倉津) 가에 이르니 마침 행인이 몹시 많고 또 술에 취해서 뱃사공과 힐난을 하더니 머리를 잡고 싸운다. 그래서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날이 또한 저물었으므로 부득이 뱃사공의 집에서 자는데 온돌이 있어서 하룻밤을 편안히 잤다. 밤 꿈에 완연히 아버님을 뵈오니 애모의 마음을 견딜 수 없다.

8일. 날이 밝기 전에 나루를 건너서 임피에 이르러 길가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은 장모의 제삿날이다. 올 때 아무 반찬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간장만 가지고 먹었다. 송노가 발목이 시고 아파서 멀리 걷지 못하여 항상 뒤에 떨어지므로 부득이 함열에 있는 전 이천 남궁동장(南宮洞長)의 종 산이의 집에서 잤다.마침 순찰사가 고을에 들어와서 시끄럽기 때문에 주수에게 성명을 알리지 못하다가 순찰사가 나간 뒤에 이름을 통했더니, 사람을 시켜서 안부를 묻고 계속하여 나를 서헌으로 청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또 소작을 베풀어 석 잔을 마시고 끝내고 돌아왔다. 생원 안극인(安克仁)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이는 곧 윤겸의 친구이다. 태수가 상하 조석 밥을 대접해 주었다.

9일. 일찍 식사를 마치고 떠나서 무수포가에 이르러, 마침 유 공 선각(柳公先覺)을 만나서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건너서 임천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 큰딸이 학질을 시작하니 탄식스럽다. 집안사람 상하가 모두 학질을 앓는데 아내가 더욱 심해서 뼈만 앙상하게 서 있으니 만일 딴 병을 얻는다면 말할 수가 없이 되겠다. 윤겸은 비록 전일보다는 소복되었다고 하지만 먹는 것이 전만 못해서 아직도 행보를 못하니 몹시 근심스럽다. 저녁에 비가 시작하더니 밖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는다.

10일. 아내의 학질이 몹시 심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조금 덜하니 민망하고 걱정 스럽다. 오전에 이웃에 사는 유 공 원씨(柳公愿氏)가 술병과 과실을 가지고 찾아와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유 공(柳公)은 곧 선각(先覺)의 아버지요, 용궁(龍宮) 삼 촌 하보(何寶)의 동서이다. 또 이곳 방이 좁아서 잘 수가 없어 어제부터 소즐의 사 랑방에 와서 잤는데, 즐의 형 은(隱)도 또한 와서 같이 잤다. 종일 비가 뿌렸다.

11일. 어젯밤 꿈에 자미(이빈)를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으니 슬픈 마음을 이기

지 못하겠다. 두 딸도 학질을 앓고, 윤함은 새벽에 한동안 몸을 떨면서 또 열도 있고, 속머리가 조금 아프다니 필경 학질 증세이다. 오랜 병 끝에 만일 이 학질에 걸린다면 말할 수 없다. 민망스럽고 걱정이다. 세 계집종도 또한 누워 앓아서 저녁밥을 지을 사람이 없으니 탄식스럽다. 이때 윤처씨(尹妻氏)가 일부러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하고, 셋째 딸을 데리고 와서 보았는데 저녁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 돌아가고 경진(敬真)만 홀로 머물러 단아(端兒)와 같이 잤다.

12일. 이른 아침에 임천군수(임극(任克))를 가보고 부탁한 바가 있건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집에 병든 처자가 있는데도 무엇 한 가지 주는 물건이 없으니 가위박하다 하겠다. 그러나 모두 무심한 사람의 병통이다. 태수는 곧 아내 의 사촌 조카로서 처음에 임천군수로 있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그 힘을 입어 거의 두어 식구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말하므로 깊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겼더니 이제 그 뜻을 보니 다시 바랄 것이 없어 탄식할 일이다. 임면부(任免夫)의 아내가 마침 아중(衙中)에 왔기에 가서 보고 각각 난리 속에 떠돌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 돌아왔다. 면부(免夫)는 마침 출타해서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올 때 조 내한 희보 형제에게 들러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몹시 고팠다. 또 임기 자장(任紀子張)은 곧 태수의 동종 6촌으로서 여기에 와서 기식(寄食)하고 있는데 나의 한마을 친구이다. 마침 객중에서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집사람은 또한 학질을 앓으니 민망스럽다.

13일. 임 참봉(任參奉) 면부(免夫)가 와서 찾아보고 돌아갔다. 집사람과 두 딸이 학질을 앓는데, 집사람은 그저께부터 매일 몹시 아파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면부(免夫)가 종을 데리고 돌아가더니 태수가 쇠고기 한 덩어리를 보냈다. 종일 소당(蘇堂)에서 소즘과 바둑을 두었다.

14일. 밤에 비가 뿌렸다. 이른 아침에 조김포 희식(趙金浦希軾)이 벼 열 두와 두부 두 덩어리를 보냈다. 마침 양식이 떨어질 때 대어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다. 또 태수 임극(任克)이 재상(災傷)한 자를 살펴볼 일로 고을 안을 돌다가 낮에 이 고을을 지나게 되어 아내를 들어가 보고 갔다. 다만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일어나 가

니 우스운 일이다. 아내는 학질이 전에 비해서 더욱 심하여 익길(益吉)(극(克))이 왔을 때는 마침 아플 때여서 잠깐 얼굴만 보았을 뿐이다. 또 희철의 처조카 김담명 이 찾아왔다가 갔고, 유충의(柳忠義)(원(愿))도 또한 와서 태수를 보고 갔다.

15일. 새벽에 송노를 홍주 윤겸에게 보냈다. 오랫동안 겸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므로 종을 보내서 물은 것이다. 막정을 또 함열에 보내서 양식과 찬거리를 구하게 했다. 또 경여의 부인이 익산으로 돌아갔다. 오는 19일에 소면천(蘇沔川)의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가보는 것이다. 또 성덕린(成德麟)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데 유 공 선각도 마침 오고, 소즐도 술과 떡을 내서 조용히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파했다. 또 유 공(柳公)과 바둑을 두었다. 저녁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16일. 아내의 학질이 더욱 심하고, 윤해도 오늘부터 학질을 앓아, 온 집안 상하가 모두 앓고, 오직 나와 인아·단녀, 종은 막정과 송노가 면했다. 밤에 소즐·인아와 뒷내에 가서 게를 잡아 13마리를 잡아 가지고 돌아오니 밤이 2경이었다.

17일. 어제부터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저녁때는 쌀 두 되를 가지고 아욱 죽을 쑤어서 상하 십여 명이 나누어 먹었다. 인생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탄식 한들 무엇하리요. 병든 아내와 병든 자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니 더욱 개탄할 일이다. 오늘 아침 식사에는 보리씨 한 말을 찧으려는데, 마침 유선각이 벼 3두를 전인해서 보내 주어 오늘의 주림은 면할 수 있겠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속담에 말하기를,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치랴'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또 윤겸이 종 세만을 보내서 문안하고 돌아갔다. 이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저도 역시 돌아와서 학질을 앓아 세 번에 이르러 몹시 심해서 아직껏 가 뵙지 못했다 하니 더욱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피차 멀리 살아서 소식도 또한 자주 듣지 못하고, 곤궁한 형세가 날로 심해만 가는데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내년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년 겨울 전에 반드시 굶어 죽는 귀신이 될 것이다. 슬퍼하고 탄식하면 무엇하리. 저녁에 막정이 왔는데, 함열(신응구)이 백미 5두ㆍ벼 10두ㆍ콩 4두ㆍ소금 1두ㆍ찹쌀 1두ㆍ건민어 2마리ㆍ국수 5묶음ㆍ보리씨 4두ㆍ쇠고기 2덩어리를 보냈으니 근일의 목숨은 연장할 수 있겠다. 감사하기 그지없다. 만일 함열의 덕이 아니면 가을 넘길 일도 또한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 돌아다보아도 보답할 길이 없으니 온 집안이 감축

해할 뿐이다. 아내 및 두 딸, 윤해와 네 계집종이 모두 학질을 앓고 누워서 저녁밥을 지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덜 아프기를 기다려 짓는다면 반드시 밤이 깊을 것이다. 탄식할 일이다. 또 저녁때 윤처부(尹妻父)와 이 공 언우(李公彥祐)가 와서보고 갔다. 이(李)는 난을 피해서 떠돌다가 이산 땅에 와 있다가 이곳으로 딸을 만나려고 왔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유선각도 또한 와 보고 돌아갔다.

18일. 아침에 윤함이 또 학질을 앓는다. 큰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이 병을 얻 었으니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종을 유선각의 집에 보내서 계란 세 개를 얻어 왔다. 윤함이 삶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 변응익(邊應翼)이 찾아 왔기로 조(粟) 두 어 되를 주었다. 변(邊)은 역시 이 고을에 피란 와 있는 자이다. 성덕린이 와서 보 았다. 이에 덕린과 함께 그 종의 집에 가 보았다. 그 집으로 옮겨 가려 하기 때문에 먼저 방의 넓고 좁은 것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다. 올 때 조 내한 희보를 찾아보고 돌아왔다. 수씨(嫂氏) 및 세 딸이 시룡(時龍)의 어미와 함께 게 잡는 것을 보러 가 는데 인아도 데리고 가서 겨우 한 마리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으니 우스운 일이다. 인아만이 혼자 있다가 또 7개를 얻었으니, 이는 곧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우면 게 가 물을 따라 내려가고, 사람을 보면 도망하기 때문에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19일, 이른 아침에 시윤(時尹)의 장인(이언우)을 보기 위하여 그가 있는 곳으로 달 려갔더니 어제 낮에 이산으로 돌아갔다 하므로 다만 시윤의 아내만 보았다. 마침 비가 내리려고 해서 서서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오래지 않아서 천 등과 비가 크게 와서 두 방이 다 젖어서 앉아 용납할 곳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윤 함은 어제 학질을 앓고 난 뒤로 먹는 것이 아주 줄고. 오늘 아침에 이르도록 기운 이 오히려 불편하고 속머리가 또한 아프다고 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또 막정 을 시켜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젓을 얻어다가 반찬을 하려 했더니 문지기가 막 고 들여보내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왔으니 탄식스럽다. 송노가 보령 윤겸에게서 돌 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학질이 조금 낫다고 했으니 기쁘다. 다만 오랫동안 만 나지 못하니 생각하는 회포가 더하다. 또 송노가 대흥 윤함의 처갓집 종 애운의 집 에 가서 윤함의 편지를 가져와 온 집 상하가 무사한 것을 알게 되니 기쁜 일이다.

또 윤함의 장인 편지에 의하여 들으니 임금의 행차가 지난 8월 20일께 해주에 거동하여 선위했다고 동궁의 2품 이상이 의논해 아뢰었다고 하는데, 아뢴 것이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오늘은 아내가 잠시 아프다가 속히 나았고 둘째 딸도 또한이와 같았으나 다만 윤해 및 큰딸이 앓고, 나도 또한 오후에 온 몸이 묶인 것 같고 뼈마디가 풀린 것 같으며 속머리가 조금 아프더니 밤중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쾌치 않으니 필시 학질 조짐인가 보다.

20일. 아침 식사 후에 유충의(柳忠義) 원 씨(愿氏)를 가보고 뽕나무 마른 껍질을 벗겨 왔다. 학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유(柳)는 나를 맞아 사랑에 앉아서 한동안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유선각은 기운이 불편하여 누워서 땀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만나지 못하고 다만 찰떡을 대접한다. 오늘은 아내가 학질을 앓지 않으니 기쁘다. 그러나 윤함은 앓으면서 이질 기운이 조금 있으니 반드시 뽕나무 껍질을 먹은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앓고 난 뒤에 만일 이질이 생긴다면 말할 수 없다.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윤해도 또 앓아도 전보다는 좀 덜하다.

21일. 어젯밤 자리에 누울 적에 바지를 벗고 창밖 소변을 보는데, 온 몸이 갑자기 떨려서 즉시 이불을 두르고 있으니 한참 뒤에야 안정되었다. 그저께부터 불편한 기운이 자못 아주 쾌하지 못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더욱 불편하기에, 처음에는 학질 증세인가 의심했었다. 그러나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러하니 필시 감기인가 보다. 걱정된다. 또 오늘은 윤해와 큰딸이 앓고 둘째 딸은 괜찮다. 그러나 윤함의 이질은 이로 인해서 조심하여 음식 먹는 것이 아주 주니 걱정스럽다. 종일 기운이 불편했다.

22일. 어젯밤에 더운 방에서 땀을 냈더니 아침이 되자 기분이 회복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쾌하지 못하다. 오후부터 땀이 더 나더니 저녁엔 아주 쾌하다. 또 윤함이 학질을 앓고 이질도 또한 쾌하지 못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윤해도 또한 앓는다. 밤에는 소가(蘇家)에 온 손님과 함께 한방에서 잤는데, 그는 곧 소년이요. 성명은 한선일(韓善一)로서 원주목사 한준겸(韓俊謙)의 조카라 한다.

23일. 늦은 낮에 유충의 원 씨(愿氏) 부자가 와 보고 갔다. 윤해와 큰딸은 학질을 앓는다. 윤해는 날마다 앓으면서도 떼지 못하니 걱정이다.

24일. 송노가 말미를 얻어 직산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갔다. 겨울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다. 예산을 지날 때 김 주서(金注書) 자정(子定)(김지남)의 집에 편지를 전하라고 했다. 저녁에 들으니 조 한림(희보)이 재상(再喪)을 당했다고 한다. 그 아버지상사를 치르고 난 지 겨우 며칠을 지났는데 또 어머니 상사를 당했다니 상서롭지못하다. 다만 유리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게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곳은 선대의 유산이 있어 부자로 지내니 필시 어렵고 궁색한 걱정은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위로가 된다. 또 저녁에 시윤(時尹)이 종 수억 · 덕손 등을 보내서 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처자를 데려 가기 위해서다. 그편에 들으니 그 온 식구가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먹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 가련하다.

25일. 이른 아침에 시윤이 들러서 보고 장수로 돌아갔는데, 바빠서 그곳에 편지를 쓰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경여도 또한 종과 말을 보내서 그 딸을 데려가려 했으나 그 집에 연고가 있어 들어갈 수 없어서, 왔던 종은 그대로 돌아갔다. 소즐이 고을로 들어갔으니 도사(都事)를 만나기 위해서다. 막정이 익산에서 돌아왔는데, 경여가 벼 8두를 보냈다. 또 저녁에 조 한림집에 가서 치상(治喪)하는 조 좌수 희윤 형제를 보고 돌아왔다. 또 오늘도 윤함은 역시 학질을 앓으니 이는 반드시 매일 앓으려는 것이다. 더욱 몹시 걱정된다. 요새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졌는데 병들이이와 같아서 병든 자식의 입에 맞는 음식을 얻을 길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다. 계집종 동을비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인아는 대변이 그치지 않아 부기까지 돋으니, 이는 곧 오래 냉한 곳에서 거처하고 또한 바람을 막지 못한 까닭이니, 필경 죽을 것이다. 가련한 일이다.

26일. 윤해 형제가 종일 앓았다. 소당(蘇堂)에 있으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27일. 윤해와 함께 조가(趙家)의 성복(成服)에 가서 보았더니, 마침 관 만드는 것이 끝나지 않아서 입관을 필경 밤이 깊어야 할 터여서, 오늘은 형세가 성복을 못 하겠다 하므로 돌아왔다. 한 시골의 품관들이 모두 모였다가 역시 모두 그대로 돌아갔다. 인아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20여 마리를 얻었다. 이것을 쪄서 윤함에게 주었다. 윤함은 오랜 병을 앓은 나머지에 맛있는 음식을 얻지 못하여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이다. 윤함과 큰딸이 또한 앓는데,

윤함은 전보다 좀 덜하고 이질도 역시 감해졌다. 저녁에 명복이 돌아왔는데, 부여 군수(박동도)가 백미 2두 · 목말 1두를 보냈다. 양식이 끊어진 나머지에 이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깊이 감사하다.

28일. 어젯밤에 동을비가 죽었다. 선대의 늙은 종으로는 오직 하나만이 생존했는데, 타향에서 객사했으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종들을 시켜 묻게 하고 보니, 이 때문에 종이 없어서 조가(趙家)의 성복(成服)에 가보지 못했다. 또 성덕린이 쌀과 콩 각각 1두씩을 보냈다. 이른 아침에 윤해가 집 빌리는 일로 태수를 가보고 돌아왔다.

29일. 저녁내 비가 내리는데 혹 뿌리다가 혹 개기도 했다. 식사 후에 비를 맞고 군 (郡)에 들어갔더니 태수는 이미 아헌(衙軒)에 나가 앉아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만 임 참봉(參奉)댁만 만나 보고 올 때 빌리려 하는 집에 들어가서 가부를 보았더니 몹시 마음에 들어 살 만한데 다만 우물이 멀고 땔나무가 귀한 것이 흠이다.

10월

1일. 윤해가 두 종을 데리고 새로 옮길 집으로 가서 청소하고 창도 바르고, 나무를 해다가 불을 때고 돌아왔다. 나는 종일 소당(蘇堂)에 있는데 어두워서 유 공 선각이 내가 내일 집을 옮긴단 말을 듣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다가 오랜 뒤에 돌아가니밤이 이미 깊었다.

2일. 조희윤(趙希尹) · 유선각(柳先覺) · 이정시(李挺時)의 말을 빌려서 이른 아침식사 후에 고을 5리 밖의 서쪽 변두리 검암리 백성 덕림의 집으로 옮겨 왔다. 두 번 왕래하노라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이 집은 덕림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고 그외손 김화동이 지금 집 이웃에 와 있으면서 꺼리는 것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은 지여러 해인 때문에 집이 빈지 이미 오래고 타인이 빌려 살고 있으므로 태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내보내게 하고 옮겨 온 것이다. 다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네 가지이니, 오래 불을 때지 않은 방이어서 한두 다발로는 더워지지 않아서 이것이 첫째의 견딜 수 없는 일이요, 오물길이 너무 머니 이것이 넷째의 견딜 수 없는 일이요, 조석 때 연기가 집

에 가득해서 눈을 뜰 수 없어서 이것이 다섯째의 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팎이 갖추어졌고 기와집이 깨끗하기 때문에 상하가 모두 좋아해서 다시 옮기려 하지 않는다. 더욱 민망한 것은 근래에 양식과 반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저녁 밥도 겨우 조금 먹었고, 내일은 갖추어 먹기가 몹시 어려우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또 올 때 조 한림의 집에 들러서 조상하고 돌아왔다. 윤함은 중로에 학질을 앓아간신히 들어오더니, 오늘은 더욱 몹시 앓아 걱정스럽다. 다만 윤해는 수일 째 앓지 않아 필시 떨어진 모양이다.

3일. 어젯밤에는 온돌이 차서 편안히 자지 못했다. 아침 식사 전에 윤해와 함께 성 덕린의 종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안팎 온돌에 불을 넣고 돌아왔다. 내일 옮겨 가려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짚으로 덮은 오랜 집이어서 비가 새서 깨끗하지 못하니 이것이 걱정이다. 아침 식사는 임 참봉에게서 쌀을 꾸어다가 해 먹었고, 저녁에는 콩 서 되로 죽을 쑤어 상하가 나누어 먹었으나 모두 배가 차지 않았으니 탄식스럽 다.

4일. 어젯밤 꿈에 자미(이빈)를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아서 깨고 났어도 그 면목과 언어가 마치 친히 대한 것 같으니 비참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이른 아침에운해가 편지를 보내서 한 진사 겸이 있는 집에 가서 벼 2두를 꾸어다가 더운 솥에볶아 가지고 찧어서 밥을 지으니 해가 이미 한낮이다. 상하가 시장하기 너무 심하다가 식사라고 얻은 것이 또 적어서, 한 되의 쌀을 세 세람이 나누어 먹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이웃에 사는 늙은 아전이 즙장 1사발ㆍ김치 1그릇을 주었고, 또병리(兵吏)의 아내가 집사람을 와서 보더니 큰 홍시 7개를 주었다. 윤함이 병으로목마르던 나머지에 이것을 얻어먹어 기쁘다. 뒤따라 계란 3판과 녹두 3되ㆍ박 1개를 보냈다. 또 윤해의 양모(養母)가 먼저 대조동(大鳥洞) 성덕린의 종의 집에 가서이곳 방이 적어서 용납하지 못하겠으므로 그로 하여금 나누어 있게 했다. 이 집은 몹시 추울 때는 형세가 살 수 없어서 나도 옮겨 가려 하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이다. 그 집을 반드시 남이 점령하겠기 때문이다. 또 이웃에 사는 교생 김대성 및 그아들 김정래가 와서 보고 갔다. 이곳은 군(郡)이 멀지 않기 때문에 사방 이웃이 모두 관인이고 마을 풍속도 나쁘지 않고, 꾸어 주는 것도 인색하지 않다. 또 이웃에

비록 조그만 물건이 있어도 문득 갖다 주니 가위 후하다 하겠다. 저녁에 주인집 늙은 부인이 대추와 밤을 가지고 와서 집사람을 보고 갔다. 오후부터 비가 내려 밤새 그치지 않았다.

5일. 아침에 비가 내린다. 비는 이렇게 내리고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졌는데. 돌아다보아도 빌 곳이 없다. 겨우 녹두 두어 되로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다. 춘 이는 번동의 일로 비를 맞고 나갔고. 막동도 또한 제 처를 데리고 이탁의 처자를 모시고 고을에서 얼마 안 되는 이탁의 종의 집으로 옮겨 갔다. 그도 또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비록 비가 와도 머무르지 못한 것이다. 또 이웃 사람 김대성이 사람 을 보내서 문안하고. 또 간장 한 사발과 각색 김치를 소반을 갖추어 보내 주어 깊 이 감사하다. 또 이웃 사람이 사발 2개 · 접시 2개 · 종지 2개 · 팥 2되 · 생채 및 김 치 조금씩을 보냈다. 또 주인 할미가 그 손부를 데리고 술과 대추와 밤을 가지고 와서 집사람을 보고 갔다. 셋째 딸도 또한 나가 보았다. 또 이웃에 사는 병리의 아 내가 접시 4개 · 큰 접시 4개 · 팥 3되를 보냈다. 아침에 종을 임 참봉에게 보내서 쇠간 한 덩어리를 얻어 왔다. 윤함이 병중에 반찬이 없으므로 부득이 편지로 청한 것이다. 또 저녁때 양식이 없는데 아무런 방도가 없어서 윤해가 친히 조 좌수 윤 공(允恭)의 집에 가서 양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趙)가 벼 3두를 주어 먼저 종을 시켜서 보냈다. 즉시 이것을 솥에 쪄서 찧어 가지고 밥을 지으니 밤이 이미 깊었다. 그러나 모두 배가 차지 않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랴. 조가(趙家)에서는 또 저녁밥을 지어 윤해에게 주었다 한다. 또 이곳은 군(郡)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데 태수(임극(任克))가 한 번도 사람을 보내서 문안도 하지 않고. 궁곤함이 이와 같 은데도 또한 돌아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한 그릇 물도 도와주지 않으니 인정이 어 찌 여기에 이를 수 있는가. 타인이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데. 하물며 절 친한 사이에 큰 고을의 원으로 와서 이같이 소활하니 비단 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몹시 서운하도다.

6일. 집주인이 쌀 두 되, 팥 두 되를 보내서 상하가 밥을 지어서 같이 먹었다. 저녁에는 콩 두 되로 죽을 쑤어 나누어 먹었다. 낮에 안락국자(安樂國子)가 와 보고 갔다. 진위에서 편지가 와서 윤해 처자가 탈 없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쁘다. 윤해의 처

가 밥을 보내서 여러 아이들이 나누어 까먹었다. 윤함이 병중에 이런 먹고 싶은 물 건을 얻으니 더욱 기쁘다.

7일. 어제저녁에 벼 두 말을 주인집에서 꾸어다가 온돌에 말려서 이른 아침에 찧어서 먹었다. 이후로는 꾸어다 먹을 곳도 없으니 부득이 종과 말을 데리고 부여로 갔다. 궁한 것을 구원할 물건을 빌리기 위해서이다. 올 때 임 참봉이 있는 곳에 들렀더니 참봉은 관청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내만 만나고 왔다. 전일에 면부(免夫)와 함께 부여에 가서 고적(古跡)을 구경하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서로 어기게 되었으니 한스럽다. 백마강을 건너서 중로에 들으니 부여군수(박동도)가 없다고 하니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 자제들을 불러 물어보니 태수는 정 참의(鄭參議) 광적(光績)이 고을 지경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만나러 가서 저녁에는 마땅히 돌아온다고 한다. 강위(姜瑋)와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하노라니 저녁에 태수가 크게 취해 가지고 돌아와서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빈관(實館)에서 잤다. 저녁에 강위가 와서 보고 추로를 얻어서 마시다가 밤이 깊어서돌아갔다

8일. 주수(主倅)가 나를 아헌(衙軒)으로 청해다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박 인의(朴月義)(박적)도 역시 참여했다. 오후에 박 인의 및 박원(朴垣)과 배를 타고 백마강 물을 따라 먼저 조룡석(釣龍石) 및 낙화암(落花岩)을 보고, 다시 고란사(皇蘭寺)에 올라가 앉아서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돌아오는데, 다시 배를 타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자니 주수가 술과 안주를 갖추어 보내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마시다가 크게 취해서 빈관(賓館)으로 돌아오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오늘은 서상방(西上房)으로 옮겼다. 동상방(東上房)은 박죽산(扑竹山) 동준(東俊)이 와서 자기 때문이다. 죽산은 주수의 사촌적 되는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처음 왔다.

9일. 주수가 나를 아헌(衙軒)으로 청하여 또 아침을 같이 먹는데, 박죽산·박 인의·임소열의 둘째 아들 경연도 함께 먹었다. 늦은 아침에 비가 뿌리다가 낮에 조금 갰다. 즉시 달려서 이 고을 몽대리(夢代里)에 가서 정 사과(司果)댁에 갔더니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또 벼 5두와 조개젓 조금을 준다. 돌아올 때 이탁의 집에들러 보았더니 탁의 어머니도 또한 그 이웃 김 찰방 덕장의 농사에 와 있었다. 저

덕엔 큰비가 내려 밤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는다. 또 아침에 들으니 김 사포 아저씨가 별세했다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광복도 또한 월초에 죽었다고 하니더욱 슬프다. 지난해 겨울로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식구들이 그의 계당을 빌려 가지고 그의 은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들으니 비통함이 지극하다. 사포 아저씨도 역시 피란해서 광복의 이웃에 와 있어서 나는 매일 가 뵈었고, 아저씨 병환 중에는 내가 7폭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데, 임천으로 옮겨 올때에도 역시 서운한 마음이 많더니 이제 그 부음(訃音)을 들으니 더욱 몹시 통곡하겠다. 김찬선 형이 이제 인천부사가 되어, 아저씨도 인천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9월보름께 세상을 떠났다 한다. 만일 홍주에 있다가 별세했으면 염습과 장사 지내는일이 반드시 인천에서 선산이 가까워서 편리한 것만 못할 것이니, 이는 불행 중하나의 다행한 일이다. 또 이 좌수 우씨(遇氏)는 가계가 넉넉하고 다만 두 아들만 있는데, 그 큰아들 광륜은 지난해 여름에 조현의 의병에 따르다가 마침내 금산에서 패할 때에 죽었고, 그 둘째 아들 광복도 또한 올가을에 병으로 죽어서, 일찍이 2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두 아들이 모두 죽었고, 그도 또한 나이 늙고 풍병(風病)을 앓아 방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인간의 일이 더욱 탄식스럽다.

10일. 아침에 상방(上房)의 박죽산이 자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박원 형제 및 박 인의 · 임경연 · 이양 등도 함께 했다. 아침밥을 같이 먹고 식사 후에 주수가 나를 아헌으로 불러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주수는 관청으로 나가고 나는 객사로 돌아오는데, 여러 자제들도 역시 따라왔다. 이에 감고루(鑑古樓)에 올라가 활을 쏘고 파했다. 나는 임경연(任慶衍)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배로 백마강을 건너서 달려 임천군으로 와서 경연은 관아로 들어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 와서 들으니 어제 주수가 쌀 2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곧 그 모부인(母夫人)이 우리 집의 어려운 일을 말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 한다. 또 오늘낮에 함열(신응구)이 전인해서 쌀 2두 · 새우젓 2승 · 흰 새우젓 4승 · 종이 3묶음을 보내고 또 편지하기를, 요새는 어찌해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가지 않느냐 했다. 요구하기 전에 물건을 보내서 매양 은근한 뜻을 베푸니 그 후한 뜻을 갚을 길이 없다. 온 집이 감사함을 마지않는다. 또 윤함의 처갓집 종 옥지가 의복을 가지고 들

어왔는데, 그 집 상하도 모두 편안히 있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윤함의 학질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세전(歲前)에는 서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겠다. 또 내가 돌아올 때부여군수(박동도)는 한 가지 물건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곧 전달에 사람을 보내고 이제 또 친히 왔으므로 마음으로 반드시 싫증이 나서 그런 것이다. 몹시 부끄럽다. 처자들은 내가 오기를 기다려 먹을 것을 바라는 마음 날로 간절했는데 끝내 그대로 돌아오니 한편으로 우스운 일이다. 타향에 떠돌아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이없고 굶주림이 날로 박두한 채 곳곳에 구차히 굴어 매양 얼굴을 붉히니 아무리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만일 함열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구렁에 묻히는 귀신이 될 것이다.

11일. 이웃에 사는 김대성이 와서 보고 갔다. 윤해는 부득이 집주인이 부탁하는 일로 군(郡)에 들어가 태수를 보고 돌아왔다. 소즐이 와서 찾고 돌아갔다. 저녁에 임천 실내(室內)가 고기를 한 채반 삶아서 보냈으므로 온 집안이 함께 먹었다. 집사람이 오후부터 조금 한기가 있어서 더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웠으니, 학질의 중세인가 보다.

12일. 종일 집에 있으니 무료하기 너무 심하다. 안손을 시켜서 변소를 지었다. 윤함의 처갓집 종 옥지가 편지를 받아 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갔다. 또 들으니 오세검 (吳世儉)이 문의(文義)에 있는데, 벼 30두를 받아 집에 두었는데 이 때문에 화적 (火賊)을 만나 간신히 그 몸만 살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그곳의 궁하고 굶주림의절박한 것을 알겠다. 저녁에 경여의 종 성동이 익산에서 찰떡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는 곧 경여의 부인이 보낸 것이다. 그편에 들으니 경여와 이언좌(李彦佐)가 이고을 안 임면부(任免夫)와 있는 곳까지 왔는데 내일 만난다더라고 한다. 언좌는 곧나의 동서로서 그 아내는 젊어서 이미 죽었고, 지금은 다시 장가들어 가지고 피하여 완산의 농사(農舍)에 와 있다.

13일. 경여와 계우(언우)가 와서 보았다. 집사람이 계우를 청하여 안으로 들어가 만나고, 나와 경여는 같이 앉아서 한동안 이야기했다. 계우가 참깨 1두·생강 3 근을 준다. 병중에 바야흐로 이 물건이 떨어졌더니 의외에 갖다 주니 깊이 감사한다. 계우는 근대로 한산(韓山)으로 돌아갔다. 종을 찾기 위해서다. 계우는 곧 언우

의 자이다. 경여는 머물러 있다가 저녁 식사 후에 도로 면부(免夫)의 집으로 돌아 갔다. 이곳엔 잘 방이 없어서이다. 저녁에 소즐이 와서 보기에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또 윤해는 집주인이 죽은 것을 입안(立案)할 일로 군(郡)에 들어갔더니 태수(임극)가 굴 두 되와 침위어(沈葦魚) 열 개를 주어 보냈다. 나는 또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저린 게 20개와 콩 5되·소금 3되를 얻었는데, 게는 어머님께 보내고자해서이다. 내일 종이 문안하러 영암에 가기 때문이다. 집사람이 학질을 앓았다. 14일. 막정은 파일(破日) ⁴이어서 떠나지 않고, 내일 마땅히 이탁 처자를 모시고 익산으로 돌아갔다가 그 길로 남쪽으로 행할 계획이다. 낮에 경여가 와서 보았는데, 마침 이웃 사람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기에 2그릇을 대접해 보내니 기쁘다. 윤 겸의 종 세만(世萬)이 들어와서 그편에 편지를 보니 윤겸의 학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몹시 기쁘다. 윤겸이 찰떡 1그릇과 꿩과 닭 각 1마리・건어 및 식혜 등 물건을 보냈다. 떡은 여러 아이들을 주어 함께 먹게 하고, 꿩과 닭은 탕을 만들어서 앓는 자식에게 먹이련다.

15일. 새벽에 세만은 보령으로 돌아가고, 어머님께 문안할 일로 막정이를 영암으로 보냈다. 식전에 윤해가 그 처조카 최지선(崔止善)을 만날 일로 이 고을 박곡촌 (朴谷村)에 갔는데, 여기에서 십여 리가 된다고 한다. 지선은 추수할 일로 여기에와 있어, 낮에 윤해가 돌아왔는데 마침 지선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식사 후에 무료하기 너무 심해서 두 아이와 함께 뒤 언덕에 올라가니사방이 넓게 바라보이고 임천 관사가 굽어보이고, 멀리는 바다 조수가 보이는데, 돛단배가 왔다 갔다 하니 객중의 답답한 마음이 거의 풀린다. 단아(端兒)도 또한따라서 올라왔다. 또 아내는 학질이 전보다 갑절이나 되고, 윤함의 앓는 것도 또한이와 같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저녁에 양식이 없어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콩죽을 같이 먹었다. 이것도 이웃 사람이 콩 3되・쌀 2되를 보내서 이것으로 쑨 것이다.

16일. 향춘(香春)을 임 참봉(면부(免夫))의 집에 보냈더니 참봉댁에서 간장 1그릇·

⁴ 파일(破日): 천파(天破)니 공파(空破)니 해서 아주 흉한 날로서 이날은 아무 행사도 모두 하지 않는다.

저린 조기 1마리·젓 조금을 주어 보냈다. 그 실내(室內)(아내(衙內))가 또 탕육과고기구이 및 젖과 채소 등 물건을 1그릇에 담아 보내서 처자들이 같이 먹었다. 무료한 중에 지팡이를 짚고 집 앞 밭두둑을 산보했으나 아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몹시 탄식스럽다. 밤에 집사람과 윤함이 학질을 앓았다. 날마다 앓는데집에는 1되의 곡식도 저축이 없고, 두 계집종도 또한 날마다 앓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17일. 이른 아침에 김대성(金大成)이 술 1병·색떡 1그릇·삼색실과·두부구이 및 삶은 닭다리 1개·김치 1그릇을 보내와서 즉시 처자들과 함께 먹으니 깊이 감사하다. 저녁때 밥 지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와 윤해·윤함은 쌀 한 되 반으로 밥을 지어 먹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겨우 콩 두 되를 쪄서 나누어 먹었으나 또한 창자가 차지 않아 가련하다. 타향에 떠돌아 사방을 돌아봐도 친척이라곤 없고 궁곤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며 병이 또한 이와 같으니 아무리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윤함 모자는 밤에 또 학질을 앓아 윤함 어머니는 이 때문에 저녁 식사도 먹지 못하니 더욱 한스럽다.

18일. 아침 식사를 마련할 것을 얻을 곳이 없어 부득이 향춘을 아내(衙內)에 보내고 겸해서 주수(主倅)에게 편지를 했더니, 주수가 쌀 한 말을 주어서 이것을 나누어 조석 밥거리로 했다. 또 윤해의 처갓집 종이 겨울옷을 가지고 와서 온 집안이추위를 면하겠다고 하니 기쁘다. 또 들으니 최지선이 이제 비로소 왔다고 한다. 박곡생원(朴谷生員)을 만나 볼 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같이 자고 내일 마땅히 돌아오련다. 또 임면부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이 별감 우춘(遇春)은 또한 이 고을에 떠돌아와 있다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길에서 우리 집종을 만나서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보고서, 면부와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군으로 들어가 순찰사의 첩물(帖物)을 받으려 한다고 한다. 이 공(李公)은 곧 자미(이빈)의 친구로서 일찍이 자미의 집에서 만난 일이 있다. 집사람의 학질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19일. 아침에 콩 두 되로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다. 식사 후 무료해서 인아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가서 김대성을 청하여 함께 동쪽 봉우리에 올라가 마을

을 내려다보는데, 김 공(金公)은 인가들을 가리키면서, 저 집은 누가 살고 저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일일이 가리켜 준다. 또 그는 말하기를, 이 봉우리 이름은 곧 화 산(花山)인데 봄바람 좋은 시절에 두견화가 만발하면 술을 가지고 와서 노는 사람 이 몹시 많다고 한다. 그 위에는 소나무가 가로누어 덮여 있고, 땅도 또한 평평하 고 넓어서 십여 명이 앉을 만하다. 멀리 보거나 가까이를 보아도 사방으로 막히는 것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명승이다. 한참 동안 앉아 구경하는데. 김 공이 고적(古 迹)을 말해 주었지만 모두 겪은 일이 아니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 히려 적적한 것을 없애고 근심을 씻을 만은 하다. 윤해가 그 처조카(최지선)를 보 고 돌아왔는데 내일 진위로 돌아가려 하지만 행량을 준비할 수 없으니 기필할 수 가 없다. 그편에 들으니 심열이 요새 금오랑(金吾郎)이 되어, 사람 잡을 일로 진위 를 지나갈 때 편지를 보내서 윤해의 장인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전에 윤함의 처 의 편지에. 심(沈)이 도사(都事)를 제수 받았다고 하기에 의심하고 믿지 않았더니 이제 지선의 말을 들으니 반드시 헛말이 아니다. 몹시 기쁘다. 심(沈)의 어머니가 곧 나의 누이인데 난 지 10세에 그 어미가 죽고 그 조모의 집에서 자라면서 나에 게 수학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거처하기를 여러 해 했기 때문에 내가 심질(沈姪) 을 보기를 내 자식같이 해 왔는데. 이제 음사(蔭仕)로 좋은 벼슬에 올랐으니 온 집 안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뻐한다. 다만 이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조정이 어두워서 동서로 바삐 달리고 일이 어려운 것이 많은 터에 어찌 그 좋은 결과를 보존하겠는 가. 이것이 걱정이다. 심열의 장인은 곧 참판 민 공 준(閔公濬)인데, 반드시 그 힘 으로 인해서 얻었을 것이다. 또 주인 할머니가 추수하는 일로 출타했다가 오늘 돌 아왔는데, 콩 2되·찰떡 5개를 보냈으므로 그 콩으로 죽을 쑤어서 저녁 식사로 때 웠다. 또 어제 낮에 단아(端兒)를 시켜 벼루를 가져오게 했더니 실수해서 떨어뜨려 깨졌다. 아까운 일이다. 이 벼루는 30년 전에 아버님께서 장성군수로 계실 때 얻 은 것으로서 허탄(許坦)을 시켜 벼루 집을 만들어서 길이 행갑(行匣)에 두어 행연 (行硯)으로 쓰던 것인데. 연전에 변이 생긴 처음에 온 집안 물건이 다 타서 남은 것 이 없으나, 이것만은 마침 내가 가지고 장천으로 왔기 때문에 홀로 온전했었는데, 이제 깨졌으니 물건의 성패란 또한 명수가 있나 보다. 그러나 집에는 소용이 없어

서 이것을 꺾어서 썼는데, 단녀가 벼루를 깨친 후에 꾸지람을 듣고서 울기를 마지 않았으니 불쌍하다.

20일. 윤해가 진위로 가고자 했으나 행량을 갖추지 못해서 양식을 빌리려고 이른 아침에 군에 들어갔으나 마침 태수(임극)가 차원(差員)으로 출타해서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길을 떠나지 못했고, 또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때로 비도 뿌렸다. 아침거리 양식이 없어서 부득이 향춘을 임 참봉에게 보내서쌀서 되를 빌어다가 나누어서 조석에 죽을 쑤어 상하가 함께 먹었으나, 병든 자식도 창자를 채우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여아들이 행전을 만들어 가지고 향춘을 시켜 이웃집에 팔아서 벼 2두 · 콩 3되를 얻어다가 솥에 볶아 찌어서 내일 윤해의 행량으로 쓰게 했다. 또 수일 이래로 아내와 난녀(蘭女)는 학질이 떨어졌으나윤함이 홀로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밤마다 앓고 음식도 역시 여의히 얻지 못해서주린 때가 자못 많으니 슬프고 탄식함을 이길 수가 없다.

21일. 지난밤부터 바람 불고 눈이 뿌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아 산천이 모두 하얗게 되었다. 윤해가 부득이 풍설을 무릅쓰고 떠났다. 집에 종이 없어서 겨우어린 종 안손을 데리고 갔다. 노자도 또한 갖추지 못해 가지고 갔으니 중로에서 걸식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몹시 한스러워 울음이 난다. 내 성질이본래 졸(拙)해서 본래부터 생계를 경영하지 못하여, 평시에도 오히려 처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표주박의 밥도 여러 번 비었었는데, 하물며 이 난리 뒤에 타향으로 떠돌아 돌아다봐도 힘입을 친구가 없고, 또 농장에 의지할 곳도 없이 이 땅에 의탁하고 있어 주림과 추위가 날로 박두하고 날로 심해지니 참으로 또 몇 번이나 고초를당할지 알 수가 없다. 한갓 한스럽고 탄식할 뿐이다. 전에 술을 빚어 넣은 것 넉 되를 가지고 오늘 향춘을 시켜 장에 가서 쌀로 바꾸어다가 내일 양식으로 하려한다. 이 같은 풍설에 먹기에 급해서 술을 보고서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저녁에 동쪽 이웃에 있는 염모(染母)가 밥을 지어 울타리 틈으로 보냈으므로 나와운함이 반씩 나누어 먹어 저녁밥으로 때웠다. 처자들은 흰죽을 쑤어 마셨으니 가련하다. 요새 종이 없어서 오랫동안 땔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이와 같이 찬데 방에 불을 넣지 못하고 잤다. 아이들은 침구가 몹시 얇고 또 냉방에서 거

처하니 민망스럽다.

22일. 어제 풍설로 인하여 오늘 비록 쾌청했어도 바람이 몹시 차다. 요새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죽을 쑤어 먹는데도 오히려 그릇을 채우지 못하여 아이들이 배고 픈 탄식을 견디지 못하니 더욱 슬프고 불쌍하다. 또 송노(宋奴)는 지난달 20일 후에 말미를 얻어 집에 돌아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지 않는다. 주림이 이와 같은데 집에 사환이 없어 아는 곳에 가서 꾸어 오지도 못하니 몹시 밉다. 저녁때 양식이 떨어져서 겨우 7홉 쌀로 죽을 쑤어 여러 아이들이 나누어 먹는데, 그 죽을 마실때 보니 슬프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려 한다. 저녁에 집주인이 벼 2두ㆍ좁쌀 1되ㆍ콩 7되를 가져왔다. 반드시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들은 것이다. 즉시 콩 두 되를 쪄서 나누어 먹어 겨우 창자를 채웠다.

23일. 이른 아침에 윤해의 양모가 밥을 지어서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보내서 여러 아이들이 나누어 먹었다. 수씨(嫂氏)도 역시 걸식하는 터에 우리 온 집식구가 매일 죽을 마신단 말을 듣고 밥을 지어 보낸 것이니. 비록 감사하고 기쁘나 한편 미안하 다. 또 종 향춘을 시켜 편지를 가지고 조 좌수 희윤에게 가서 사정했더니 쌀 1두 · 콩 3되·감장·간장 각 1그릇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처자들이 밥을 짓고 죽 을 끓여 이제 비로소 먹었다. 또 이웃에 사는 교생 전윤득(田允得)이 와 보고 갔다. 24일, 지난밤에 눈을 뿌려 지붕이 모두 희고, 아침에도 또한 흐리고 바람이 불어 찬 기운이 마치 깊은 겨울과 같다. 종들은 모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날씨 춥기가 이와 같은데 땔나무가 또한 떨어져서, 강비(江婢)가 조석으로 집 뒤에 가서 나뭇 잎을 긁어다가 겨우 밥을 짓기 때문에 자는 방이 몹시 차니 민망스러움을 어찌하 랴. 윤해가 진위로 떠난 후로 날씨가 마침 추워졌는데 말 한 필에 아이 하나를 데 리고 어떻게 가는지 깊이 걱정된다. 또 아침에 향춘을 아내(衙內)에 보냈더니 실내 (室內)가 자반 한 그릇과 김치 한 항아리를 보냈다. 이것으로 조석 식사에 반찬으 로 먹을 것은 비록 얻었으나 양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니 한스럽다. 저녁에 최지 선이 벼 10두를 전인해서 보내고, 또 10두를 윤해의 양모에게 보냈으니 수일 동안 의 급한 것은 면했다. 깊이 감사하다.

25일. 성덕량(成德良)이 추수일로 가까운 이웃에 왔다가 말을 가지고 와서 보더

니 친히 안장을 갖추어 가지고 나를 태워 그곳에 가서 남녀들이 벼 수확하는 역사 를 구경하고 농가의 풍년 들었다는 말을 들으니 거의 무료한 회포를 씻을 것 같 다. 주인집에서 좋은 술을 내오고 저녁밥을 대접한다. 그 집주인의 이름은 이등귀 (李登貴)로서 화포장(火炮匠)에 소속되어 일하다가 지난해 겨울에는 강화 창의군 에 있었는데, 발을 실족하여 잘못하여 뱃속으로 떨어져 오른쪽 팔을 상했는데 요 행히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그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기해생(己亥生)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곧 나와 동갑인데 머리털이 아직 세지 않았다. 그러나 팔이 부 러진 뒤로 여러 달을 앓았기 때문에 쇠하고 늙은 모습이 이미 나타난다. 등귀가 말 하기를, 내 동갑으로서 머리가 센 자는 모두 늙었다고 하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오. 내가 아직 세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팔이 부러져서 쓰지 는 못해도 일은 전과 같이 하는데 머리털이 세지 않는 것이 깊이 한스럽다고 한다. 사람의 심정은 누구나 젊어지려 하지 않는 자가 없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백발인 데, 이 사람은 일찍 센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으니. 이것으로 관역(官役)이 몹시 괴로운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아! 슬프다. 덕량은 성덕린의 아우이다. 또 저녁에 임 참봉(면부)댁에서 종과 말을 보내서 집사람을 청해 가더니 거기서 자고 돌아오지 않는다. 종 명복이 돌아왔다.

26일. 집사람은 아직도 임(任)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른 아침에 단아가 제 어머니에게 가려 했으나 마침 향춘이 어제부터 누워 앓고 일어나지 않아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한스럽더니 임 참봉댁에서 종과 말을 보내서 태워갔으니 잘 되었다. 또낮에 이웃에 사는 김대성 · 백몽진 · 방수간이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갔다. 백(白)은 역시 교생이요, 방은 무자방(戊子榜)의 생원으로서 윤해와 동갑이다. 이 마을 상하는 사족(士族)의 집이 없고, 다만 교생 두세 집이 있으며, 백성들과 관리가 살고 있다. 무료하기 몹시 심하여 함께 회포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한스럽다.

27일. 아침에 들으니 집사람은 실내(室內)의 청으로 아내(衙內)에 들어갔다 한다. 다만 향춘이 밤새 고통스러워하다가 아침에도 오히려 차도가 없으니 필시 병에 걸 린 모양이다. 임 참봉댁에서 술 한 병을 보내서 한 잔을 데워 마셨더니 가슴 아프 던 것이 조금 편안하고 화색이 몸에 가득하니, 가위 일 배 천 금(一杯千金)이다. 향춘은 이웃집의 온돌방을 빌어서 옮겨가 자게 했다.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다.

28일. 향춘은 밤새 앓고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하다가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찬 물건만 찾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윤함의 학질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밤마다 앓는다. 그러나 전에 비하면 좀 덜하다. 낮에 유충의(柳忠義) 원 씨(愿氏)가 찾아 왔다. 조금 있다 임면부(任免夫) 및 그 조카 임경운(任慶雲)이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각각 헤어졌다. 명복을 익산에 보냈다.

29일. 아침에 향춘의 병을 물어보니 지난밤에 더운 방에서 두껍게 덮고 땀을 냈더 니 기분이 좀 소생하고 덜하다 하니 기쁘다. 집사람은 아직도 아내(衙內)에 머무르 고 돌아오지 않는다. 어제 분개(粉介)를 아내에게 보냈더니 집사람이 어육(魚肉) 구운 것과 채소를 얻어 보내서 여러 아이들과 나누어 먹고, 또 집주인 및 동쪽 이 웃 두 집의 본래 후하게 해 주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임면부가 안장을 갖 추어 말을 보내 청하므로 즉시 아헌(衙軒)으로 가서 면부 및 임경운 · 구혜(具惠) · 이효길(李孝吉)과 이야기하고, 또 면부와 바둑을 두었다. 구ㆍ이 두 공(公)은 곧 태 수의 사위이다. 저녁에 태수는 관청으로 돌아가 하릉군 부인이 돌아갈 때 호송하 는 차원(差員)으로 수원 땅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에 태수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관에서 차(茶)를 내와 나누어 먹었다. 전 감찰 한 집(輯)이 역시 왔다. 곧 태수의 먼 친척으로서 역시 떠돌다가 여기에 와 있다. 또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서 어 두워서야 집에 돌아왔다. 또 태수에게 들으니 이 도(道)의 방백(方伯)이 군사 뽑다 가 기한에 미치지 못한 일로 잡혀가고, 윤승훈(尹承薰)이 대신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믐날, 향춘의 병이 차도가 있어서 집으로 들어왔다. 필연 오래 냉한 곳에 있어서 이 때문에 풍한에 몹시 상했다가 땀을 내니 곧 나은 것이다. 늦은 아침부터 저녁내 비가 내렸다. 또 집사람이 태수에게 급한 것을 구해 달라고 해서 쌀 1두 · 찹쌀 1 두 · 소금 2되 · 게젓 1되를 얻어 보냈으니, 하루의 군색함은 면할 수 있겠다. 집사 람은 비로 인해서 아직도 임(任)의 집에 머물러 있다. 다만 어제 또 학질을 앓았다 하니 민망하다. 명복이 돌아왔다. 경여의 부인이 찰떡을 쪄서 보내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또 베갯모(침우(枕隅))를 팔아서 벼 8두 · 콩 3두 5승을 얻어서 져 왔다. 다 만 다시 되어 보니 한 말이 준다. 필경 명복이 훔쳐 먹은 것이니 밉다. 콩은 무거워서 가져올 수 없었다. 또 어제 성덕린이 찾아왔는데, 마침 내가 군(郡)에 들어가서만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덕린이 벼 5두를 주고 돌아갔다 하니, 거의 근일의 걱정은 면할 수 있다.

11월

1일. 집사람은 아직도 임(任)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도 학질을 앓아서 오지 못했다. 종일 집에 있었다. 또 최천인(崔子切)이 와서 보았는데, 남에게 고소를 당해서 관청에 잡히게 되었으므로 나에게 통정(通情)을 청하기 위해서다. 최(崔)는 곧 윤해의 육촌 처남인데 추수일로 여기에 온 것이다.

2일. 어제 들으니 남정지(南庭芝)가 영암 임경침(林景忧)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자 지나다가 이 고을 계집종의 남편의 집에서 잤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 말을 얻어 타 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를 전하고 함께 막혔던 회포를 이 야기했다. 또 한 진사(韓進士) 겸(謙)을 맞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남 공(南 公)이 아침밥을 지어서 대접한다. 돌아올 때 임(任)의 집에 들러서 잠깐 이야기하 고 도로 아헌(衙軒)에 이르러 면부(免夫)와 임경운(任慶雲) · 구(具) · 이(李) 여러 공(公)들과 이야기했다. 오후에 들으니 최목천(崔木川) 경선(景善)이 사창(司倉)의 태수가 거처하는 곳에 왔다 하므로 즉시 걸어가서 십생구사(十生九死)의 나머지 에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눈물을 씻으면서 유리하면서 고생하던 일과 자미(이빈) 의 죽음을 이야기하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태수는 밥을 같이 먹은 후에 관 아로 돌아갔고. 나는 경선과 함께 빈관(賓館) 서상방(西上房)에서 자는데. 밤 2경 에 방이 차서 잘 수 없어서 사삿집으로 옮겨 가서 밤새 발을 맞대고 이야기했으니 다행한 일이다. 다만 태수가 대접하는 것이 그 뜻에 만족치 못해서 자못 분한 말을 하고 돌아갔으니 한스럽다. 또 아헌으로 갈 때 마침 품관이 술과 고기를 갖다 바치 므로 경운(慶雲)이 아중(衙中)으로 하여금 고기를 굽고 술을 데우게 했더니, 술은 향기롭고 독하며 고기는 연하고 기름져서 실로 모두 입에 맞는 맛이었다. 또 집사 람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단녀는 업어 올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임(任)의 집에 머물 렀다. 또 남 공(公)은 경침의 동서인데, 경침은 죽은 지 이미 오래고, 그 아내가 홀로 구림촌에 살고 있는데, 가계가 좀 실하기 때문에 남(南)의 보령 땅에 떠돌다가 궁해서 살 수 없으므로 처자를 데리고 이제 임(林)의 집에 가서 의지해 살다가 겨울이 지난 후에 봄이 늦기 전에 돌아왔다고 한다. 필경 그 이듬해 봄에는 왜적이 침범해 왔을 것이다. 경침은 곧 임극순(林克恂)의 자요, 경흠(景欽)의 큰형이다.

3일. 이른 아침에 경선과 같이 밥을 먹고, 경선은 먼저 떠나고 나는 홀로 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면부에게서 말을 빌려 타고 해가 늦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윤 함은 수일 내로 앓지 않으니 반드시 아주 떨어진 것이다. 기쁜 일이다. 집사람은 오늘도 또한 앓는다. 단녀는 두 계집종이 업어 왔다.

4일. 종일 집에 있으니까 무료하기 너무 심하다. 단녀와 바둑을 두고 호도놀이를 하여 적적한 회포를 없앴다. 또 윤해가 간 후에 종과 말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필연 바로 윤겸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윤겸이 홍주의 환상(還上) 때문에 아직 다 바치지 못한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앓던 학질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것인가. 민망하고 근심된다. 막정도 역시 돌아오지 않아서 중로에서 몸에 병이 나지 않았으면 말이 반드시 병든 것일 게다. 근래에 군색하고 급한 것이 이같이 지극한데 비록 꾸어 올 곳이 있어도 종과 말이 없어서 하나도 가서 구해 올 수가 없으니 더욱 민망한 일이다.

5일. 식사 후에 김대성을 맞아 앉았는데 얼마 안 되어 백몽진과 이광춘이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흩어졌다. 이광춘은 송 판관(宋判官) 기(蓍)의 손서(孫婿)로서 난을 피해서 이 근처에 와 있다. 저녁에 최천인(崔千仞)이 와 보고, 벼 5두, 콩 한 두, 마초 30묶음을 전인해 보내 주어 깊이 감사하다. 또 천린이 와서 찾아보고 말하기를, 그 어머니와 그 두 아우와 함께 한산 땅 종의 집에 와 있다가 그저께 또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고 구례현감 조사겸(趙思謙)의 식구를 이곳에 와서 보았는데 그 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라 한다. 일찍이 이는 불의의 일이라 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 없다. 저녁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조구례(趙求禮)(사겸(思謙))는 천린(天獜)의 외족으로서 벼슬살이하다가 병으로 죽어서 권도로 이곳에 장사 지냈고, 그 처자들은 이 근처에 집을 빌려 살고 있다. 또 저녁

에 종 막정이 영암에서 돌아와 어머님이 손수 쓰신 편지를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 을 금할 수가 없다. 그편에 들으니 종 서대(西代)가 병을 얻었으므로 냇가에 막을 쳐서 내보내고 돌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말라 물 생각이 나서 냇가로 기 어 나가다가 물에까지 가기 전에 쓰러져 죽었다고 하니, 더욱 몹시 슬프다. 서대는 나이 10세도 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데리고 오시어 앞에서 사환 노릇을 하여 잠시 도 떠나지 않고 집일을 부지런히 돌보고 있고 없는 것을 주선하여 자못 능력이 있 어, 어머님께서 의뢰하는 것이 자못 많았고, 이제 난리를 만나서 모든 것이 일찍이 어려운데도 역시 잠시도 버리시지 않고 남쪽 물가로 떠돌면서도 항상 데리고 다니 셨는데, 불의에 병으로 구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었으니 불쌍도 하다. 어머님께서 이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시어 울음을 그치지 않으시고 식사도 전혀 감해져서 기운 이 자못 불평하시다 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어머 님께서 오래 누이의 집에 계신 것이 미안해서 북쪽으로 돌아오실 것을 생각하시나 경향(京鄕)에 돌아와 보아도 의뢰할 곳이 없고, 나도 또한 여기에 있어 궁곤함이 날로 박두하여 미음과 죽도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오 래 계시게 하니 미안한 일이다. 쫓아가서 모셔 오지 못하는 것은 비록 형세라고 하 지만 불효한 죄는 여기에 이르러 더욱 지극하다. 그러나 내년 봄에 날이 따뜻해지 기를 기다려 이곳으로 모셔다가 비록 죽이나 미음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련다. 그러나 세상 일이 뒤틀리니 어찌 미리 기필할 수 있으라. 근심스럽고 그리운 마음이 날로 더한다. 또 어머니께서 백미 1두 · 버선 지을 백목 (白木) 4척·자반 1그릇을 보내셨고, 언명(彥明)(희철)도 또한 백미 1두를 보냈고, 임매도 또한 건숭어 2마리 · 고등어 5마리 · 미역 5묶음 · 간장 1그릇 · 목화 5근을 보냈다. 전일 두어두었던 쌀 4두로는 고등어 55마리를 바꾸어 싣고 왔다. 또 나주 통판(이성남)이윤겸의 편지에 의하여 건숭어 3마리 · 소포(小騰) 3첩 · 기름과 꿀 각 2되·진말(眞末) 3두·참깨 2두를 보냈고. 장성(이귀)에서 준 백미 1두·조미 (粗米) 3두·콩 1두·조기 1묶음·돼지고기 1덩이를 역시 싣고 왔다.

6일. 밤부터 눈이 내린다. 최천인(崔千仞)이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보광사(普光寺)로 청하므로 식사 후에 눈을 무릅쓰고 갔더니 최(崔)는 뒤에 도착해서 또 중을

시켜 말을 가지고 인아에게로 가서 데리고 오게 했다. 이리하여 저녁때 우리 부자 와 최 공 세 사람이 둘러앉았는데 두부를 만들어 내왔다. 마침 두부가 몹시 부드럽 고 좋아서 나는 30여 곶을 먹고, 인아와 최 공은 각각 40곶씩을 먹었다. 처음에는 돌아오려 했으나 종일 큰 눈이 내리고 날도 또한 저물어서 중지하고. 세 사람이 같 이 서쪽 가의 방장(方丈)에서 잤다. 또 보광사는 전조(前朝)(고려) 때의 옛 절로서 가까운 고을에서 가장 컸었는데, 요새 병란(兵亂)을 겪은 뒤로 중들이 싸움에 나 갔다가 많이 죽고. 또 관역(官役)에 시달려 근착(近着)하는 자가 없이 모두 흩어졌 기 때문에 빈 방이 몹시 많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형세가 능히 보전할 수가 없다 고 한다. 그러나 그 중들을 보건대 모두 부자로 살아서 곡식을 가장 많이 쌓아 놓 고 있다. 이러한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평일에 있어서야 그 넉넉하고 풍족했 음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중들은 반동(反同)으로 생업을 삼는다고 한다. 법당은 굉 장하고 좌우의 선승당(宣僧堂)도 또한 크지만 모두 비어 있다. 동쪽 가에는 차군루 (此君樓)가 있고, 목로(牧老)(이색(李穡))의 기(記)가 벽 위에 붙어 있으며, 누(樓) 앞에는 죽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얻은 것이 이 까닭이다. 소인묵객(騷人墨 客)이 차군(此君)을 시로, 지어 읊는 자가 또한 많다. 법당 서쪽에는 큰 우물이 있 는데, 조그만 돌로 쌓아 깊이가 한 길이나 된다. 아무리 엄동이라도 얼지 않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온 절이 이 우물물을 길어가도 그 부족함을 보 지 못한다고 한다. 위에는 비를 가리는 각(閣)이 있고 우물 서쪽에는 큰 비석이 있 는데, 곧 신라의 학사(學士) 최고운(崔孤雲)[치원(致遠)]의 기(記)이다. 돌은 몹시 푸른데 큰 눈으로 인해서 길에 묻혀 있어 읽어 볼 수는 없고 더듬어 볼 뿐이다. 또 새 지임(持任)이 어제 새로 도착했는데. 그 이름은 신변(信辨)으로서 본래 안성 청 룡사에 있었다고 한다. 변사(辨師)가 말하기를, 이제 중국 장수의 말에 의하여 팔 도에 각각 선교(禪敎) 양종(兩宗) 16개 사찰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도는 남포의 영 흥사로 교종(敎宗)을 삼고. 보은 속리사로 선종(禪宗)을 삼아. 모두 판사를 두어 일 을 맡아 처리하고 그 도 여러 사찰의 일들을 총괄해 다스리며, 사람을 쓰고 내보내 는 일은 도총섭(都塚攝)이 주장하고, 지임의 임명과 파면은 또한 그 도의 판사가 한다고 했다. 이는 필시 중들을 유지시켜 군대에 내보내고 부역에 내보내는 일을 모두 이들로 하여금 맡아 처리하여 숨기고 빠지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을 마련하면 폐단도 생기게 마련이니, 중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세력을 만들어 방자히 굴어 제어하기 어렵게 되고, 불교를 믿는 조짐이 또한 이로 인해서 일어날까 깊이 두려운 바이다.

7일. 아침 식사 후에 최 공이 먼저 떠나고 나는 따라서 오는데, 인아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종과 말을 도로 보내기를 기다려 타고 와야 할 것이다. 어 제 큰 눈이 내린 뒤로 땔나무와 숯이 모두 떨어졌으나 형세가 나무를 벨 수가 없어 서 밥을 짓기가 몹시 어려우니, 어찌 따뜻한 밥을 바랄 수 있겠는가. 방차기가 쇠 바닥과 같아서, 옷이 얇은 아이들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참기 어려우니 탄식해서 무엇하랴. 또 전에 들으니 이통진(李通津) 수준씨(秀俊氏)가 이 고을 농사에 와 있 는데. 어제아침에 종과 말을 보내서 벼 한 섬을 실어 보냈다고 하니 그 후의에 깊 이 감사한다. 연전에 노모께서 난을 피하여 강화에 계실 때 양식과 찬거리를 두 번 이나 주선해 주어서 주림의 걱정을 면하게 해 주어 감사한 은혜가 자못 지극했는 데, 이제 또 이같이 하니 감사함이 더욱 지극하다. 이 공(李公)은 곧 윤겸이 사귀 는 친구이다. 집사람이 오늘은 아침 식사 후에 학질을 앓아 아픈 것이 전보다 배나 심하고 속머리도 몹시 아프다고 하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정 사과(司果)댁이 부 여로부터 오늘 낮에 임 참봉(면부)의 집에 왔다고 한다. 부여 장모 삼가댁(三嘉宅) 에서 쌀 1두 · 닭 2수를 사과댁이 올 때 부쳐 보냈다. 우리 집이 주림과 곤함이 심 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또 윤함은 수일 전부터 다시 학질을 얻어 밤마다 앓으니 더욱 민망하다. 떨어진 지 겨우 5, 6일에 이제 또 걸린 것이다.

8일. 윤해의 양모가 있는 곳에 종과 말을 보내서 모셔 오게 했다. 오래된 집에서 거처하다가 지난달 초생에 이 집으로 옮겨 온 뒤로부터 거처할 방이 없어서 부득이 각각 살게 되어 피차에 만나 보고 싶어 했기에 말을 보내서 청해 온 것이다. 또 소즐이 찾아 와서 바둑 두 판을 두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소금 5승·도어 (刀魚) 2마리·고등어 1마리를 주어 보냈다.

9일. 아침 식사 전에 태수에게 가서 보고 말구유를 청했으나 관(官)에 저장해 둔소나무가 없다고 해서 주지 않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올 때 임자순(任子純)이 있는

집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하고, 또 임면부의 집에 들어가서 정 사과(司果)댁을 만났더니, 임수(任嫂)가 아침밥을 지어 대접하고 또 탁주 한 그릇을 내왔다. 또 아침에 태수를 만났을 때 누룩을 청했더니 관아에 나갔을 때 찾아가라고 하기에, 저녁때일부러 종을 보냈더니 소란하다고 핑계하고 후일 찾아가라고 하더란다. 매양 후일로 기약하고 나서 끝내는 식언(食言)하는 일이 많다. 처자들의 주림 때문에 술을 빚어 팔아서 한 푼의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여러 번 누룩을 청했으나 속임을 당하여 부끄럽고 탄식함을 이길 수 없다. 말구유는 임자순이 주어서 저녁에 종을 보내서 져 왔다. 태수에게 부탁해도 얻지 못한 물건을 임(任)은 여기 객지에 있으면서도 이 자기가 쓰던 것을 또 친구의 구함에 응해 주니, 태수의 무정함을 가히 알만하다.

10일. 아침 식사 후에 임자순이 찾아왔기에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탁주 두 그릇을 먹여 보냈다. 저녁에 윤겸이 들어왔다. 각각 병 때문에 만나지 못한 지가 이제 다섯 달이 되니, 온 집안이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가 오기를 바랐더니 불의에 들어와서 온 집안이 기뻐함을 말할 수 있으랴. 다만 윤해가 타고 간 말은 처음 생각으로는 반드시 바로 윤겸에게로 보냈는가 했더니, 윤겸이 왔는데 그 말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만일 오는 길에 중국 군사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송노(宋奴)가 반드시 훔쳐 가지고 도망한 것이다. 탄식하면 무엇하랴.

11일. 집사람이 아침 식사를 겨우 마치고 학질을 앓는데 갑절이나 심하니 민망하다. 또 임전이 와서 윤겸을 찾아 쌀 한 말을 주고서 해가 기울어 군으로 돌아갔다. 임(任)은 고 참의 윤신(允臣)의 아들로서 서울 상사동에 살아서 윤겸 형제와 교분이 두터웠었는데, 마침 이 고을에 왔다가 윤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따라와서 찾아보는 것이다. 임 공(任公)은 또 태수와 동종(同宗)인데 호남에 가 머무른다고 한다. 또 소즐이 와 보고 돌아갔는데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12일. 요새 종이 없어서 오랫동안 나무를 베지 않아 조석 밥 짓는데도 또한 몹시 어려워 하물며 잠자는 온돌에 까지랴. 집사람이 학질을 앓는데 방이 또 몹시 차 서 이로 인해서 중하게 몸이 상할까 바야흐로 민망해 하던 차에 소즐이 마른 나무 한 짐을 전인해서 실어 보내고, 또 감장 한 항아리를 보내니 깊이 감사하다. 저녁에 막정이 들어왔는데, 함열군수(신응구)가 벼 2석·콩 1석·침위어(沈章魚) 20마리·새우젓 3되·소금 2두·참기름 1되·누룩 10덩이를 보내 주어 감사함을 말할수 없다. 막정이 올 때 익산에 들렀더니 경여가 벼 5두를 보냈다. 다만 함열이 준 벼는 거칠고 오래 묵어서 여기 와서 새로 되 보니 26두이다. 그러니 좋은 벼 한 섬만도 못한 셈이다. 콩은 무거워서 10두는 싣고 오지 못하고 소은이 있는 집에 두어두었다 한다.

13일. 자염관(煮鹽官) 전 판관(判官) 이 공 경록(李公京祿)이 마침 순시하다가 이고을에 도착하여 내가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한산으로 가는 길에 찾아보고 갔다. 또 김대성이 역시 와 보고, 백몽진·이광춘도 와 보고 돌아갔다. 이웃에 사는 병리(兵吏) 임춘기(林春起)가 역시 와 보고 돌아갔다.

14일. 저녁에 백몽진이 술병과 과일을 가지고 와 보고 돌아갔다. 또 윤겸의 종 개질지가 왔는데, 그 아비가 보낸 녹두 1두 · 팥 1두를 가지고 왔다.

15일. 장수 집종 수억이 그저께 들어왔다가 오늘 돌아가는데, 태수가 준 물건을 싣고 갔다. 처음에는 자미(이빈)의 소상(小祥)날 가보려고 했는데 종과 말이 만만치 않아 뜻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윤해가 타고 간 말이 지금에 이르 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질지를 말을 가지고 부여에 보냈는데, 양식을 빌기 위해서다. 또 그저께 이 판관 경록에게서 들으니, 윤 참봉 응상이 연전에 수운 판관(水運判官)을 제수 받았으나 불의에 병으로 죽었다 한다. 지난 정해년(선조 20년)에 윤 공의 집을 빌려 들어 3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건만 나를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여 정의(情意)가 자못 흡족하여 마치 골육과 같이 친했었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놀랍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난리 이후로 친구와 친척들이만일 적의 칼날에 죽지 않으면 반드시 병으로 죽은 자가 몹시 많아서, 관동 한 마을로 말하더라도 어른으로는 오직 남궁지평(南宮砥平)만이 생존하여 함열 땅에 떠돌다가 또 중풍을 앓아서 인사를 살피지 못한 지 오래고, 그 밑으로는 조충의 대정 (大禎)과 홍 유수(洪留守) 응추(應推)ㆍ최목천(崔木川) 경선(慶善)ㆍ민 목사(閔牧使) 치운(致雲)ㆍ이 찰방(李察訪) 여인(汝寅)과 나 5, 6인만이 성명(性命)을 보전했

고, 그 나머지는 혹은 적에게 죽었거나 혹은 병으로 죽어, 남아 있는 자가 몇이 안된다. 평일에 있어 아름다운 때는 좋은 명절에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대답하여 젊은이와 어른이 모두 모여서 놀면서 술취해 떠들던 일을 이제는 다시 얻지 못하겠으니, 매양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슬프고 탄식하지 않으랴. 그러나 형제인데야 어찌하리오. 천운에 부칠 뿐이다.

16일. 삼가댁에서 정 사과댁 종편에 닭 한 마리를 보냈다. 조금 있다가 부여 사위 강위가 술 한 병과 닭 두 마리를 가지고 윤함을 찾아보고 돌아갔다. 들으니 동궁 [광해군]이 중국 장수의 청으로 해서로부터 이제 장차 떠나서 마땅히 호서 호남을 순행할 것인데. 혹은 전주에 머무른다고 하고 혹은 공주에 머무른다고 하나 그 실 상은 자세치 못하다. 중국 군사가 근일에 무수히 호남 길로 내려갔다고 한다. 또 들으니 중국 장수 유 촛병(劉摠兵)[유정(劉綎)]이 적과 경주 땅에서 싸워서 피차에 많이 죽었고. 적에게 포위되어 고언백이 포위를 뚫고 나갔는데. 이 때문에 낙 참 장(상지)이 또한 이를 포위하고 어지러이 쳐서 적의 장수를 많이 죽였고, 중국 편 비(偏裨)도 역시 탄환을 맞고 죽었다 한다. 그 뒤에 또 고성에서 싸워서 두 남도 (南道)의 병사가 조총을 맞았으나 많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피차에 죽은 자가 많다 고 한다.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 군사는 양식이 없어서 곳 곳에서 도망해 흩어지고 적의 충돌이 아직도 쉬지 않으니, 내년 봄에 만일 다시 일 어나 들어온다면 누가 능히 이를 막는단 말인가. 죄 없는 생령이 적의 칼날 속에서 굶주려 하나도 남지 않겠으니, 저 하늘은 어찌 차마 이렇게 하는가. 실로 이름 견 디기 어렵다. 윤겸은 식후에 면부를 들어가 보고. 그대로 그와 함께 자고 돌아오지 않았다.

17일. 이른 아침에 개질지가 부여에서 돌아왔는데, 부여군수가 벼 1석·중미(中米) 4두·콩 2두·녹두 1두를 보내 주어 거의 근일의 급함은 면할 수 있겠으니 깊이 감사하다. 소즐이 와서 보기에 저녁밥을 대접해서 보냈다.

18일. 윤겸이 개질지와 막정을 데리고 짐을 싣고 홍산 정 사과댁으로 갔더니, 지금 아중(衙中)에 있다 하므로 아침 식사의 남은 반찬을 전인해 보냈으므로 처자들이 즉시 함께 먹었다. 요새는 무료해서 단녀와 호도놀이를 함으로써 객지의 적막한

회포를 달래고 있다. 종 명복은 이달 초생부터 발에 종기가 나서 주야로 괴로워하므로 침을 두 번 맞았으나 아직도 차도가 없다. 이에 이웃 토옥으로 물러가 있다가이제 비로소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발을 보니 부기가 전과 같아서 아직도 걷지 못하고 다만 아픈 것이 좀 나았을 뿐이다. 또 윤함은 수일 사이 학질을 떼고 앓지 않으니 기쁜 일이다.

19일. 막정이 돌아온 후로 어머님 소식을 오래 듣지 못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 요새 천기가 온화해서 마치 봄과 같다. 어제저녁엔 안개가 자욱하다가 늦은 아침에 비로소 걷혔으니 이것도 또한 하나의 재변(災變)이다. 아침에 집주인이 팥죽두 사발을 가져왔으므로 처자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 29일은 곧 동지이다. 그런데 잘못 오늘이 동지인줄 알았다니 우스운 일이다. 또 백몽진이 왔다. 그편에 마초12묶음을 주었다. 또 유 공 선각이 전인해서 벼 열 두 · 곡초(穀草) 한 짐을 보냈으니 감사하다. 저녁에 윤겸이 돌아왔는데, 홍산 손님 때문에 바빠서 그대로 돌아왔고 다만 생치 두 마리를 얻어 가지고 왔다. 또 홍응추 영공(洪應推令公)의 종 천학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보고 말하기를, 응추는지난 9월에 병으로 개천에서 죽었다 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전에 최경선이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응추가 병으로 죽었다 하나 전하는 말이라서 믿을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그 종의 말을 들으니 실로 헛말이 아니다. 한 동리에 살아서 가장 서로 친하던 터에 갑자기 그 부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비통하다. 또 집사람은 근일에 학질이 떨어졌고 다만 두 종만 도로 아프다.

20일. 이른 아침에 향춘을 태수(임극)에게 보내서 구걸했더니, 백미 2두·정 1항아리를 보냈다. 또 개질지를 한산에 보냈더니 한산군수(신경행)가 벼 1석·저린 게 10개·조기 1묶음·동어(凍魚) 3두름을 보냈다. 벼는 거칠고 좋지 않아서 다시 되어 보니 30두이다

21일. 윤겸은 함열로 갔다. 또 저녁에 성산령(星山令)·운산령(雲山令) 형제가마침 홍산으로부터 임천에 왔다가 와서 찾아보고 돌아갔다. 성산령 형제는 평릉수(平陵守)의 아들로서, 임천이나 나에게는 5촌의 친척이다.

22일. 어제저녁에 윤겸의 비부(婢夫)가 보령으로부터 왔는데, 홍주의 환상미(還上

米)를 내지 않았다 하여 세만 내외가 잡아 갇혔기 때문에 와서 윤겸에게 청하는데 윤겸이 마침 함열에 갔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보낸 것이다. 낮에 검찰사의 관문을 가진 태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 윤겸으로 하여금 막중 종사(幕中従事)를 삼아서 여러 고을을 순력(巡歷)하면서 군량을 독려해서 영남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역시 함열로 가리켜 보냈다. 다만 전에 여러 번 병으로 사양했는데 지금 또 억지로 나가게 되었으니 민망하다. 또 방수간ㆍ백몽진이 바둑알을 가지고 오므로 함께 대국(對局)하여 10여 판을 두다가 파하고 돌아갔다. 또 어제 향춘이 시장에 가서 술을 팔아 쌀을 사려고 돈을 주머니에 가득히 넣었었다가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우스운 일이다. 한 푼의 남는 것이라도 얻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더니 도리어 그 본전까지 모두 잃었으니 더욱 탄식스럽다.

23일. 김대성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윤겸의 처갓집 비부 옥지가 함열로부터 돌아왔는데, 함열군수(신응구)가 아름다운 술 1병·오색실과 1상자·오색 고기구이 1상자·쇠고기 1덩어리·찹쌀 1말을 보냈으므로 처자들과 함께 먹으니 감사하다. 또 임자순이 배동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어 문안하고, 또 쇠고기 두 짝을 보냈는데, 다 먹지 못하고 친구들에게까지 주었으니 가위 후하다. 또 오늘은 곧 자미 (이빈)의 소상(小祥)이다. 처음에는 오늘 가려 했었는데 종과 말이 없어서 또한 갈수가 없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리.

24일. 윤해가 올라간 뒤로 이제 장차 한 달이 넘는데, 소식을 들을 수 없으므로 오늘 아침에 편지를 써서 연학을 보내 안부를 묻게 했다. 연학이란 곧 윤해의 양가 종 풍월의 남편이다. 아침 식사 후에 비가 내리더니 저녁에 이르기까지 개지 않는다.

25일. 이른 아침에 백몽진이 와 보고 돌아갔다. 오후에 백이 또 방수간과 함께 바둑을 가지고 와서 밤새 바둑을 두다가 각각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돌아갔다. 종 명복이 비로소 일어나 움직여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왔다. 그러나 종기난 발이 아직도 쾌하지 않은데 집에 땔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록 절름거려도 억지로 보낸 것이다. 또 저녁에 윤해가 그 처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처자는 먼저 그 양모가 있는곳으로 보냈다. 일찍이 이는 불의의 일이라, 온 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윤함

의 말은 즉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송노가 그 아비가 조사에 나가기 때문에 양곡을 지고 영남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안손은 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않기때문에 즉시 보내지 못하다가 이번 오는 길에 데리고 왔다 한다. 아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기쁘다. 다만 송노가 휴가를 얻어 돌아간 뒤로 여러 달 오지 않다가심지어 멀리 영남까지 갔다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윤해가 오는 길에 김매의 집에 들어가 잤는데, 모두 아무 병도 없으나 다만 예산군수 심인제(沈仁禔)의어머니가 염병으로 죽었다 하니 놀랍고 슬프다. 심(沈)의 어머니는 나의 사촌 누이인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슬프다. 또 조 한림(희보)이 전인해서 병10두와 말장 1두를 보내 주어 깊이 감사하다. 조(趙)는 나에게 친척도 아니요, 또 전일에 알던 처지도 아니고, 다만 윤겸과 친구일 뿐인데, 우리 집을 대접하기를 친척보다 후하게 하니 더욱 감사함을 금할 수 없다.

26일. 이른 아침에 백몽진의 절박한 일로 인해서 태수를 들어가 보고 면대해서 그 뜻을 말하고, 거기에서 아침밥을 먹고 돌아왔다. 또 윤해의 처자가 와서 보았는데, 이제 충손과 몽아를 보니 충손은 걸음을 잘 걸어 달리기도 하고, 또 닭이나 개·소·말의 소리도 하니 귀여움을 이길 수 없다. 지난 5월에 진위로 가서 일곱 달 만에 이제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또 김대성·백몽진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송노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그 아비의 병으로 해서 양식을 운반하지 못하고 업고 갔다가 거창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 9월에 휴가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가 기일이 여러 달이 지나서, 집일이 틀어진 것은 모두 이 종이 오지 않은 까닭이다. 처음에는 그 죄를 크게 다스리려 했으나 그 말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비를 위한 정은 또한 사람의 자식의 상정이라. 이제 용서해 주고 묻지 않았다.

27일. 윤해의 처자는 식사 후에 도로 그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송노를 부여에 보냈다. 내일이 팥죽 먹는 속절(俗節)인데 집에는 한 되의 팥도 없고 또 얻을 곳도 없어, 아이들의 청으로 부여군수에게 팥을 빌어다가 죽을 쑤어 먹기 위해서다. 또 저녁에 이웃에 사는 늙은 제리(除吏) 임승운(林承雲)의 후처(後妻)가 술과 안주 및 밥한 사발을 가지고 친히 와서 집사람을 보고 돌아갔다. 또 저녁에 막정 · 개질지 등이 말 세 필을 가지고 쌀과 콩을 싣고 왔다. 윤겸이 함열에서 여러 곳에서 구해 얻

어서, 정미 26두 · 백미 12두 · 조미 2두 · 콩 39두 · 벼 10두 · 저린 게 20개 · 숭어 2마리 · 동어 5두름 · 새우젓 5되를 보냈다. 이것으로 한 달은 잘 지내겠으니 기쁜 일이다. 마침 박교리(朴校理) 응소가 명령을 받고 순찰하다가 함열에 이르러서 쌀과 콩 6두를 얻어 보냈다고 한다. 지난밤에 누른 쥐가 방에 들어와서 숭어 한 마리 반과 동어 두 두름을 물어 갔으니 아깝다.

28일. 백몽진·방수간이 와서 보고 함께 바둑을 두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또 송노가 돌아왔는데, 부여군수가 붉은 팥 1두·하미(下米) 1두·조기 1묶음을 보냈다. 어두워서 백몽진이 붉은 팥 3되, 방수간이 4되를 보내 왔다. 내일이 동지인데 우리 집에 팥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몽아를 데려왔다가 저녁에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

29일. 팥 7되를 죽을 쑤어서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지난밤에 족제비가 또 와서 꿩 한쪽을 물어갔으니 아까운 것을 이길 수 없다. 명복에게 명하여 다니는 구멍 밑에 덫을 놓게 했으나 잡지 못했다. 필시 덫을 잘못 놓은 것이다. 유충의(柳忠義) 원 씨 (愿氏)가 와서 찾아보고 돌아갔다. 어른이 두 번이나 와서 찾았는데, 나는 종과 말이 없어서 한 번도 답사하지 못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어두워서 종과 말을 아내(衙內)로 보내서 정 사과댁을 모셔 왔다.

그믐날. 새벽에 비가 뿌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다. 아침 식사 후에 조 한림 형제를 찾아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또 조 좌수 희윤의 집에 들렀더니, 조(趙) 는 저녁밥을 차려 대접한다. 돌아올 때 윤해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충아 등을 보고 어두워서 돌아왔다. 또 세만 형제가 보령에서 왔는데, 들으니 먹은 쌀을 갖추어 바 쳤더니 석방되었으나, 그 나머지 쌀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한다.

윤11월

1일. 세만 형제를 함열에 보냈더니 중도에 윤겸이 돌아오는 것을 만나서 어두운 뒤에 함께 돌아왔다. 쌀과 콩 각 한 섬씩을 얻어서 싣고 왔다. 홍주의 환상을 갚기 위해서다. 또 좋은 술 한 병과 돼지다리 하나를 얻어 왔으므로 이것을 저미고 술을 데어 정 사과댁과 여러 아이들이 함께 먹었다.

- 2일. 아침 식사 후에 임자순이 찾아 와서 바둑 5, 6판을 두고 돌아갔다. 집에 술이 나 먹을 것이 없어 해가 기울었는데도 그대로 돌아갔으니 탄식스럽다. 세만으로 하여금 상미 12두 · 콩 9두를 싣고 먼저 보령으로 돌아갔다.
- 3일. 윤겸이 임경운에게 편지를 보내어 태수에게 말해서 쌀 3두·조기 1묶음을 얻었다. 일찍 식사 후에 윤겸이 송노 등을 데리고 보령의 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부여·정산·청양을 들러 보고 돌아갔다고 한다. 또 저녁에 검찰사가 윤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윤겸이 마침 부여에 갔기 때문에 사자를 보냈다.
- 4일. 이른 아침에 임자순이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하므로 즉시 아헌(衙軒)이 나가서 태수(임극)를 보고 자순 및 면부 · 임경운 · 유 봉사(奉事) 석필과 이야기하다가 태수가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 서울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던 자가 구혜의 종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 다만 백성들의 원망이 자못 심하고 미움을 받는 곳이 많으니 그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유 봉사는 고 참의 순선의 아들인데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결성 땅에 와 있으면서 여러 곳에서 빌어서 봉양했다고 하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 없다. 저녁에 또 말 탄 자가 달려서 돌아오는데 보니 이시열이 여기에 오고 있었다. 아산군수가 파면되었으므로 임천군수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한다. 임천군수가 아산군수 최유원(崔有源)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 5일. 종일 흐리고 혹 비를 뿌리기도 했다. 아침에 들으니 태수가 파면된 것이 사실이라 한다. 식사 후에 들어가 보고 들으니 원계(院啓)가 하리(下東)의 공박에 의한 것이라 한다. 태수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 군의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고 한다. 비록 돌아다보고 도와 줄 힘은 없지만 이를 믿는 바가 컸었는데 불의에 파면되니 비단 그의 집이 의뢰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집도 역시 몹시 결연하다. 또 한산군수(신경행)가 봉고(封庫)당한 일로 군에 왔다가 사람을 시켜 내게 문안을 하므로 나도 또한 만나 보고자 객사(客舍)로 나갔더니 이미 관청으로 갔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하고 말을 빌려 타고 돌아왔다. 자순(子純)도 또한 연산(連山)으로 돌아간다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같이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서

⁵ 봉고(封庫): 어사(御史)나 감사가 악정을 행하는 수령을 면직시킬 그 관고(官庫)를 봉쇄하는 것.

로 만났으니, 만일 태수가 오래 있다면 좋았을 것을 불의에 또 서로 이별하게 되니, 이 뒤에 서로 만나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니서운한 회포를 이길 수 없다. 또 태수가 파면당한 것을 들은 후부터는 관청 물건은 비록 한 되의 쌀이라도 스스로 취해서 쓰지 않고, 양식과 찬거리도 또한 스스로 내쓰지 않으니 가위 맑기는 맑다. 한산에서 내준 쌀과 곡식이 각각 5석이요, 벼가 15석이라 한다. 이시열은 그 집으로 돌아갔다.

6일. 이른 아침에 종을 보내서 한산군수에 문안했다. 어두운 안개가 자욱하다가 날이 늦어서야 비로소 걷혔다. 낮에 소즐이 와서 보았는데, 탁주 한 잔을 대접해 보냈다. 또 들으니 이탁의 아들 시룡이 요절했다고 하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이(李)는 4남 2녀로서, 큰아들은 적에게 죽었고, 둘째 아들 준룡은 적에게 잡혀갔으며, 두 딸은 유리하던 중에 요사했는데, 이제 또 셋째 아들을 잃고 다만 끝의 아들 원룡이 있을 뿐이다. 지난해에 그 아우와 그 조카가 모두 적에게 죽었고, 그 아버지는 또한 병으로 죽어서 매장이 겨우 끝났는데, 또 그 아들을 잃었으니 온 집안의 조점이 어찌 이 지극한 데에 이른단 말인가.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7일. 흐렸다. 근래에 날씨가 따뜻하기가 봄과 같더니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종일 개지 않는다. 아침 식사 후에 이웃 사람에게 말을 빌려 타고 임면부 부인을 들어가 보고 또 아헌으로 나가서 태수를 만나고 돌아왔다. 송노가 돌아왔는데 윤겸이 무사히 홍주에 도착했다 한다.

접반사 도원수가 동봉한 서장초(書狀草)

오늘 아침에 충병(總兵)이 통사(通事)로 하여금 신(臣)등에게 말하기를, 평행장(平行長)의 글에 말하기를, 일곱 가지 일을 모두 완수한 뒤에 바다를 건너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곱 가지 일이 모두 쫓을 만한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시 남쪽 군사 십만을 조련하여 바야흐로 진토하려 하는데, 너희 나라 군량이 일 년이나반년을 지탱할 만한 저축이 있는가 하므로 신등은 써서 올리기를, 십만의 군사의두어 달 양식은 모름지기 20만 포(包)가 있어야 비로소 족할 것인데,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인력이 이미 피로해서 능히 운반해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3, 4만 명의

4. 5개월 양곡이라면 거의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는 터에 멀리 남쪽 군사를 조련하려면 반드시 5. 6개월은 지나야 비로소 도착할 것이 니. 만일 일찍이 요양에 도착해 있는 남쪽 군사 만여 명을 오게 하면 본국의 정병 2. 3만과 능히 오는 해 이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군사를 일으킬 시기를 알 아야 문서를 각도에 보내서 이곳 곡식을 모으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총병은 다 시 말을 전하기를, 지금 있는 양곡으로 십만의 군사를 몇 달이나 먹일 수 있는지 명백히 써서 보이라 하므로 신등(臣等)은 써서 보이기를, 지금 있는 양식으로는 십 만의 군사를 반년 먹을 것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따로 준비하는 일이 있 으면 거의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배신(陪臣)이 형세가 아무 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다만 국왕께 아뢰어 윤허를 받은 뒤에 회보(回報)하겠습니 다 했더니, 촛병은 다 보고 나서 별로 가부의 말이 없고. 다만 말하기를, 일곱 가지 일은 모름지기 국왕께 전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행장(行長)의 문서는 서서히 내보이는 것을 기다려 베껴서 급히 아뢰올 계획입니다. 소위 일곱 가지 일이란 화 최·할지(割地) · 구호(求婚) · 봉왕(封王) · 주공(准貢) · 망습(髒襲) · 인신(印信)이 라 합니다. 남쪽 군사 십만은 반드시 조련해 보낼 이치가 없사오나 비록 3 · 4만이 라도 양식을 대기가 몹시 어렵사오나 미리 먼저 조치하도록 조정에서 상의해서 시 행하도록 하시옵소서. 이에 사실을 아뢰는 바입니다.

11월 8일

중국 장수 한 사람이 군사 30여 명을 거느리고 이달 7일에 동래로부터 와서 왜인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술잔을 마주 대하고 4일간을 머무르다가 중국 장수는 11일에 왜가 인도하는 말 두 필이 끄는 수레를 따라갔는데, 이때 길을 인도하는 왜는 그 수를 알 수 없이 웅천ㆍ거제로 돌아갔습니다. 왜적들의 역사(役事)는 중국 장수와 이미 강화가 이루어져서 성을 쌓고 병기를 만드는 일들을 이미 중지했고, 중국에 조공할 일로 모든 왜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닥나무(楮)를 베어 종이 만드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병사의 통보이나 헛소식입니다.

8일. 식사 후에 김대성·방수간·백몽진 3인이 각각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 가

지고 찾아와서, 나와 두 아들이 취하고 배부르게 먹고서 파했다. 마침 허 생원 용이 왔다가 함께 마셨다. 김·백·방 세 사람은 매양 와서 보고, 이제 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마셨으니 깊이 후의에 감사한다.

9일. 이른 아침에 김대성의 아들 정(井)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보고 돌아갔다. 어제 마침 출타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찍이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홀로 와 보고 간 것이다. 또 이른 식사 전에 암탉이 날개를 치고 길게 두 번 울었으니 이 무슨 상서로운 일인가.

10일. 임면부의 부인이 집사람을 찾아보았다. 윤해의 처가 또한 와서 보고 그대로 함께 머물러 잤다. 백몽진·방수건이 와서 보고 바둑을 두었는데 계속해서 다섯 판 두고 파해 흩어졌다. 태수(임극)는 이른 아침에 떠나서 연기로 떠났는데, 면부는 기운이 불편해서 머물러 있고 함께 가지 않았다. 밤에 천둥이 울렸다.

11일. 지난밤에 꿈이 불길하니 이 무슨 징조인가. 속담에 흉한 꿈이 도리어 상서롭다니 이로써 위로가 된다. 그러나 노친이 멀리 남쪽 끝에 계시어 소식을 듣지 못한지가 이제 두어 달에 이르렀으므로 이 때문에 민망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끝이 없다. 막정을 홍산에 보내어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식량을 구걸했다. 면부가 와서 보는데, 바야흐로 방수간과 바둑을 두어서 계속 여섯 판을 졌으니 우습다. 면부의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고, 충모(忠母)도 역시 돌아갔다.

12일. 일기가 몹시 차고 때로 눈도 뿌린다. 백몽진·방수간이 와서 종일 바둑을 두다가 흩어졌다. 또 어제 장으로 술을 팔려고 향춘과 정 사과댁 종 묵개가 함께 술여덟 병을 이고 갔는데, 중도에 묵개가 발을 헛디뎌서 항아리에 가득하던 술을 깨쳐서 그대로 돌아왔으니 우습다. 항아리는 이웃집 물건이어서 부득이 사다 주었다. 저녁에 막정이 홍산에서 돌아왔는데, 홍산군수가 정조 1석·백미 3두·콩 5두·누룩 3덩어리·저린 게 10개를 보냈다.

13일. 지난밤에 큰 눈이 내리고 추위가 갑절이나 매운데, 술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무료한 중에 별을 등지고 앉아서 단녀와 호도놀이를 했다.

14일. 백몽진·방수간이 와서 보고 같이 종일 바둑을 두다가 헤어졌다. 함열에서 정어리 10두름을 보냈다. 저녁에 들으니 박부여(박동수(朴東壽))가 파면되었다 하 니 놀랍고 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내년 봄에 목숨을 구제하다 줄 사람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제 그 파면을 들으니 이 또한 우리 집의 불행이라, 하늘이 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니, 비록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15일. 이른 아침에 정 사과댁에서 부여군수가 파면되었다는 것을 듣고 떠나서 돌아가는데 윤해가 모시고 갔다. 부여군수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이다. 한산군수(신경행)가 겸관(兼官)으로 군(郡)에 왔다기에 나는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물었고, 그도역시 먼저 물었다. 저녁에 면부의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술자리를 베풀어 여섯 잔을 마시고 파했다. 홍 생원 사고(思古) 삼 형제가 또한 와서 합석했다. 홍(洪)은 또한 군내에 떠돌아 와서 살고 있다. 돌아올 때에는 밤이 깊어 나장(羅將) 두 사람이 모시고 집까지 왔다. 면부의 말은 여기 머물러 두고먹이다가 내일 아침에 보내련다.

16일. 이른 아침에 종을 보내 편지를 가지고 한산군수에게 문안했더니 한산군수는 답장을 하고, 새우젓 1되·젓국물 1항아리를 보냈다. 또 방수간이 와서 보고 함께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오천린이 한산으로부터 와 보기에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윤해가 돌아왔는데 들으니, 부여군수가 독운어사 윤경립의 보고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한다. 올 때 지름길로 들어서서 여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송노가먼저 들어갔다가 발이 실족하는 바람에 물에 떨어져서 옷을 모두 적셔 가지고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부여군수는 이미 봉고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도 보내 주지 못했다. 또 오늘 장에 벼 1두를 보내서 철 두 근 두 량을 바꿔다가 두 말의 족철(足鐵)을 만들었다.

17일. 조 좌수 희윤이 편지를 보내서 나를 청하는데, 나에게 말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안장을 갖춘 말까지 보냈다. 나는 달려가다가 조문화(趙文化) 희철과 그 아우 한림에게 들러 보았더니 마침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 조충의 원씨가 역시 와서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조(趙)의 집에 이르니, 한 전부(韓典簿) 극창(克昌)과 상 판관(尚判官) 기손(耆孫)이 먼저 와서 자리에 있고, 이 부장(李部將) 홍제 및 홍조가 뒤따라 들어왔다. 거기에서 성찬을 차려 내서 취하고 배불러가지고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홍 주서(洪注書) 준(遵)의 매부로 조는 그 아

우이다. 조가(趙家)의 아들이 홍 주서에게 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베풀어 유리하는 회포를 달랜 것이다. 한(韓)·상(尚) 두 공(公)은 또한 조(趙)의 인친으로서 모두 이 군(郡)에 와 있는 자이다.

또 들으니 새 태수가 바뀌고 송응서가 임명되었다 한다. 이는 천안수주의 동생으로서 전일에 내가 여러 번 만나지는 못했지만 역시 연가(連家)의 사람이어서 고(高)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니 거의 위로가 된다. 다만 그가 와서 부임할 지 기필할 수가 없다.

18일. 막정을 정산 가질지의 집에 보내서 가질지로 하여금 조가(趙家)의 빈부(貧富)와 처녀가 어떠한지를 물어오게 했다. 인아의 혼인을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조(趙)의 이름은 건(健)으로서, 정산현 5리 밖에 사는데, 일찍이 강위로 인해서 우리 집과 혼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윤겸이 전일에 이 일을 위해서 정산에 갔다가 태수가 마침 없어서 만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종을 보내서 묻는 것이다.

19일. 지난밤 꿈에 아우를 보았는데, 어머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민망하고 근심된다. 새벽에 단녀가 발이 아파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므로 내가 한참 동안 만져 주었더니 조금 나았다. 단녀는 매양 내 이불 밑에서 자기 때문이다.

20일. 백몽진 · 김정이 와서 보았다. 백과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파하고 흩어졌다. 저녁에 광주에 사는 종 어둔이 그 아들 덕세를 데리고 여러 곳에 걸식하다가 수원에서 우리 집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을마다 찾아서 어두운 때 들어왔으니 불쌍하다. 그 어미는 변이 난 처음에 적에게 해를 입었다 한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해마다 양지 농사에 왕래할 때 그 집에 들러 잤었는데, 이제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들으니 더욱 슬프다. 근래에 주머니도 비어서 찬거리가 떨어진 지이미 오래여서 매양 콩을 쪄서 간장에 섞어 반찬으로 먹으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어찌하겠는가.

21일. 종일 집에 있자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저녁에 명복이 부여에서 돌아왔는데, 정 사과댁에서 쌀 4두 · 배 2두를 지워 보냈다. 이는 곧 전일에 꾸어 쓴 것을 갚는 것이다.

22일, 새벽에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십 리도 가지 못해

서 함열서 마침 사람이 왔는데, 백미 3두를 보내고 겸해서 편지를 보내 문안하니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어떻게 보답한단 말인가. 즉시 답장을 쓰고, 온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다. 또 변응익이 와서 보았는데, 함께 바둑을 두어 계속 세 판을 지고서 얼굴이 붉어 가지고 달아났다. 우스운 일이다. 또 들으니 새 태수 송 공(송응서)이 부임하여, 한 고을 대소 품관이 와서 뵈었다 한다.

23일. 신몽겸·백몽진이 와서 보고 함께 바둑 세 판을 두었는데, 실력이 현저히 다르니 우습다. 또 계집종 옥춘이 그 아들 덕년을 데리고 해주로부터 찾아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윤함의 처자가 탈이 없다 하니 기쁘다. 우계선생(牛溪先生)(성혼(成渾))이 지금 해주 석담서원(石潭書院)에 가 있는데, 윤겸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내곳에도 보내서 후한 뜻을 보였으니 감사하다. 옥춘이 서울에 들려서 심 도사(沈都事) 열을 만났더니, 열이 또한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사히 벼슬길에 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 매우 기쁘다. 다만 서로 만날 길이 없어서 이것이 한스럽다. 어두워서 막정이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군수(신응구)가 콩 10두 · 벼 1석 · 새우젓 4승 · 누룩 3덩이 · 소금 2두 · 상저 3묶음을 보냈으니 감사하다. 다만 벼는 섬이 부실해서 왕겨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벼 한 말을 찧으면 쌀이 두어 되밖에 나지 않겠으니 탄식스럽다

24일. 새 태수의 아들 송 진사 이창이 일부러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어제 동궁(광해군)이 불의에 내려와서 그를 맞으려고 공주 땅에 소속된 점(店)으로 갔으나 날이 이미 촉박해서 필경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 한다. 다만 동궁이 어찌해서 이처럼 급히 오는지 알 수가 없으나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또 들으니 중국 사신이 나와서 지난 12일에 이미 서울에 도착하여 황칙으로 주상의 나라 잘못 다스린 것을 깊이 책망했는데, 조사의 이름은 사헌이라 한다고 한다. 또 그는 재물을 탐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패망한 나머지에 물건을 낼 수 없는 것이 몹시 탄식스럽다. 유기 촛대 60쌍을 구하는 것을 딴 물건을 주었다 한다. 또 들으니 송 경략(송응창)·이 제독(이여송)은 지금 요양에 있는데, 세 서울(三京)이 회복되었고 왜적은 다 쫓아버렸다. 이미 황조에게 아뢰어서 황상도 이를 믿어서 여기 있는 여러장수도 군사를 철수하고 돌아간 줄로 안다고 한다. 그런 때문에 송(宋)·이(李) 두

장수는 적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을 속였으니, 만일 본국 사신이 조회에 들어갔을 때 올리는 자문 속에 조금이라도 적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있는 것은 모두 없애도록 한다니, 그 총명을 가리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탄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길에서 들은 말이라 역시 자세치가 못하다. 또 들으니 조사가 주상의 장복을 가지고 왔다 한다.

25일. 계집종 강춘이 사지에 종기가 나서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들으니 침놓는 의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므로 종과 말을 보내서 불러다가 침수 열 곳을 맞게 하고 보냈다. 의원의 이름은 이기종이라고 부장이 말했다. 또 종 덕년을 해서로 도로 돌아갈 때 보령 윤겸의 곳에 들러서 우계(성혼)에게 보내는 답장을 가져가게 했으나, 덕년이 그곳을 모르기 때문에 또 송노로 하여금 함께 가게 했다. 나도 또한 우계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 어젯밤에 큰 눈이 반자나 내렸다.

26일. 눈이 뿌리고 바람이 분다. 김대성이 와 보고 갔다. 근일에 엄한이 배나 심한데 나무와 숯이 모두 떨어졌는데도 옷이 얇은 종아이들이 베어 오지 못하고 겨우조석 밥을 짓는 것뿐이어서 잠자는 방이 몹시 차니 민망스럽다.

27일. 임 참봉 면부와 구 생원 혜(憲)가 설중에 걸어서 찾아와, 면부와 바둑을 두어 연거푸 다섯 판을 지고 해가 기울어서 돌아갔다. 집사람은 20일 이후에 또 학질에 걸려 하루걸러 앓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심하지 않더니 오늘은 조금씩 더 아파하니 근심스럽다. 또 들으니 적의 괴수 평수길이 그 아랫사람에게 죽었다 하니 허실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기쁨을 어찌 측량하랴. 다만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끝내 헛말이었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찼으니 어찌 천지 사이에 오래 살 수 있겠는가.

28일. 저녁에 송노가 보령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보니 무양하다고 하니 기쁘다. 다만 들으니 결성 윤겸의 주인집이 화적을 만나서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윤겸의 곡식도 그 집에 쌓아 두었다가 절반이나 잃었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29일. 방수간 · 백몽진이 와서 보고 함께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 흩어졌다. 두 말을 윤해의 처갓집 농촌에 보내서 풀을 싣고 왔는데 세어 보니 45묶음이었다.

12월

- **1일.** 대한(大寒)이다. 백몽진·방수간이 와 보고 함께 바둑을 두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파했다. 유선각도 찾아왔다.
- 2일. 아침 식사 후에 윤해와 함께 태수(太守)(송응서)를 가 보았더니 태수는 관아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우리들을 아헌으로 청해서 소작을 베풀고 다섯 순배를 마시고 파했다. 작별하고 돌아올 때 면부의 집에 들러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면부의 부인이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종일 비를 뿌려서 길이 질어 사람과 말이다니기가 몹시 어렵다. 근일에는 멀리 가고자 해도 파리한 말과 피곤한 종이어서반드시 중도에서 도로 가도 못할 걱정이 있을 것이니 미리 걱정되는 바가 실로 많다.
- 3일. 바람 불고 눈도 뿌린다. 두 종이 말을 가지고 향덕산 유선각의 묘소에 가서 마른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왔다. 관솔불을 켜서 기름등잔을 대신할 셈이다. 유 공 (柳公)의 패자(牌字)를 가지고 갔다.
- 4일. 김대성 · 백몽진이 찾아왔는데 임면부도 역시 왔다. 이에 면부와 종일 바둑을 두다가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 5일. 방수간이 와서 보고 종일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오후부터 눈이 내리더니밤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으니 내일 갈 일을 기필할 수가 없다. 종일 윤겸이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먼 길을 가려는데 만나지못하니 몹시 한스럽다.
- 6일. 일찍 식사를 하고 떠나서 남당(南塘) 나룻가에 이르니 녹는 얼음이 강에 가득하여 건널 수가 없어서 다 흘러내려가기를 기다려 오후에 간신히 건너서 저물게야 비로소 함열현(咸悅縣)에 도착했다. 태수(신응구)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계속해서 아헌으로 청한다. 조 정자(趙正字) 익(翼)도 또한 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주인집은 곧 남궁지평(南宮砥平)의 종 산이(山伊)의 집이어서 더운 방에서 갔다. 또 강을 건널 때 나루꾼이 장전을 얻고자하여 구하기를 몹시 간절하게 하므로 화살 두 개를 뽑아 주었다. 애써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7일. 이른 아침에 태수가 사람을 시켜 나를 아헌으로 청해서 같이 아침밥을 먹고. 행자로 백미 1두 · 중미(中米) 3두 · 콩 2두 · 조기 1묶음 · 새우젓 1되 · 감장 · 간장 각 2되 · 소금 2되 · 미역 1동 · 청주 1병을 주니 깊이 감사하다. 늦은 아침에 떠나 는데, 마침 송인수의 서제 흘립이 여기 왔다가 동행하여 익산군 이경여의 집에 도 착했는데, 경여는 장성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또 올 때 길에서 황간에 사 는 외종형 남경효 씨의 종 내외를 만났는데. 갈기갈기 찢어진 옷에 쑥대 같은 머리 때 묻은 얼굴을 하고 있어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왜적이 분탕질을 한 뒤로 얻어먹기가 몹시 어려워 굶주림이 날로 박두하여 상전 역시 먹 는 것을 얻지 못하므로 노복들을 다 놓아 보내서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지난 달에 그곳을 나와서 여러 곳에서 걸식하면서 떠돌아 좌도(左道) 근처로 향했다고 하니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이에 친척과 친구들의 존몰을 물었더니, 백원의 아내 는 초겨울에 별세했고. 남 좌수 화장(換章) 아저씨도 역시 난리 초에 죽었다 하니 애도함을 이길 수 없다. 남씨(南氏) 아저씨는 내가 젊었을 때 여러 해동안 모시고 놀아서 정의가 가장 두터웠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애통하기가 더욱 지극하 다. 친가의 계집종 흔비도 또한 굶어 죽었다 한다. 흔비는 내가 강보에 있을 때 업 어 주고 안아 주던 사람인데 그가 굶어 죽었다 하니 더욱 슬프다. 오직 자순형(子 順兄) 한 집은 영동 사위집으로 떠돌아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친가의 계 집종 옥금이 난리 처음에 역시 흩어져서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한다. 처음에는 사람 을 시켜 잡아 오려 했지만 이제 도망했다는 말을 들으니 비록 굶주림에 죽지 않았 다고 해도 후에 찾아볼 길이 없으니 애석하다. 그대로 경여의 집에서 잤다.

8일. 이른 새벽에 명복을 임천에 보냈더니 중미(中米) 2두·새우젓 2되를 지어 보냈다. 경여의 부인이 찹쌀 5되를 역시 보냈다. 나는 일찍이 떠나서 전주 땅 송인수 (송영구)에게 도착했더니 인수는 지난 가을에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가 비로소 시골집에 돌아왔다 하여 이제 처음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나에게 상하 아침밥을 대접하고, 또 쌀 한 말을 준다. 전주 땅 양정포(良正浦) 이언좌 (李彦佐)(계우(季佑))의 피란 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계우는 곧 나의 동서이다. 나의 상하 저녁밥을 대접한다. 거기에서 그 종의 집에서 자는데 계우는 또 술을 가지

고 와서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밤에 앉았다가 돌아갔다. 윤 생원 시남이 마침 계우의 집에 왔다가 또한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9일. 처음에는 새벽에 떠나려 했으나 지난밤에 비가 내리다가 지금도 오히려 흐린 데다가 계우가 억지로 만류하면서 아침밥을 대접한다. 식사 후에 떠나서 웅치 밑유동(柳洞) 정병 창손의 집에서 잤다. 생각으로는 고개를 넘으려 했으나 말이 파리해서 걷지 못하고 또 비를 뿌려서 도둑이 무서워 일찍 들어가 잤다. 유동 위아래의인가는 연전에 모두 왜적에게 분탕당했고, 오직 창손의 집만 홀로 타지 않았기 때문에들어가 잤다. 그 나머지 8, 9가는 모두 임시로 지어서 살고, 또 반은 빈터로있다. 창손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부윤(府尹)이 분탕당한 곳을 따지지 않고 환상(還上)을 독촉해 받고, 모든 요역(徭役)도 날마다 독촉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이기지 못해서 모두 도망갔고, 남아 있는 자들도 머지않아 흩어질 것이라 하니 탄식할 일이다.

10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잔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웅치에 이르러 혹 걷기도 하고 혹 타기도 하면서 어렵게 고개를 넘어 진안현 전 관노 내은풍의 집에 이르러 잤다. 송인수(송영구)의 편지를 태수에게 바쳤더니 태수는 상하의 조석 식사를 대접한다. 다만 편지를 바칠 때 종이 사령(使令)에게 욕을 당했으니 한스럽다. 주인집에 마침 중대사의 중 영운이 와서 같이 자니, 객중의 무료함이 조금은 위안된다. 또 고개를 넘을 때에 연전 전쟁에 패하던 때의 보루가 아직도 보이니 서글픔을 이길 수가 없다.

11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십여 리쯤 왔는데, 태수가 급창(及唱)을 시켜서 쌀과 콩 각 한 말씩을 중로에 보냈으므로 부득이 길가 인가에 들어가서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진안현감의 성명은 정식(鄭隄)으로서 전일에 비록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자미(이빈)로 인해서 이름을 들은 지 이미 오래인데이제 양식을 보낸 것은 의외의 일이라서 깊이 그 후의에 감사한다. 해가 저물어서옛 관아로 들어가 자미의 처자와 서로 붙들고 통곡하면서 각각 집안 걱정을 하다가 밤이 반이나 지나서야 자리에 들었다. 연전의 일을 생각하니 모두 슬픈 감회가생기니, 사람의 일이란 탄식스럽다. 또 올 때 먼저 종을 보내서 태수에게 문안했더

니 태수는 마초 및 쌀과 콩 각 한 두씩을 첩지로 써서 보냈다.

12일. 이른 아침에 호장(戸長) 이 옥성과 고지기(庫直) 학춘이 와서 뵙는다. 모두전일에 서로 가깝던 자이다. 조금 있자니 관비(官婢) 능개지와 동봉이 또한 와서본다. 오후에 태수(사협(四浹))에게 들어가 보았더니 아전들이 모두 와서 보면서모두 기뻐하는 빛이 있다. 태수는 나를 서헌 방안으로 맞아다가 각각 인사를 한 다음에 나에게 술 넉 잔과 구운 꿩의 다리 두 쪽을 대접한다. 날이 어두워서 돌아왔는데, 태수의 사람됨을 보니 말은 은근하나 다만 실상이 없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또 종과 말의 근일 먹을 것을 주니 이는 기쁜 일이다.

13일. 새벽에 두 종을 무주의 종 인수에게 보냈다. 이는 수공(收貢)을 위한 일이다. 또 쌀 한 말을 주어 장계 장에 가서 건시(乾柿)를 바꿔 오도록 했다. 이는 어머님 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아침부터 비가 왔으니 두 종이 반드시 가지 못했을 것이다. 오후에 비로소 서리가 내렸다. 태수가 제물로 백미 1두 · 두부콩 1두 · 목미 2되 · 삼색실과 · 청주 1병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어두워서 종윤이 흥양에서 돌아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그곳 노비들이 모두 도망해 흩어져서 비단 신공(身貢)을 바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심지어 행량까지도 또한 얻을 곳이 없어서 죽을 쑤어 먹고 간신히 돌아왔다 한다.

14일. 윤함의 말이 전일 올 때 언 땅에 자빠져서 앞발을 절기로 마의(馬醫)를 불러서 침을 맞혔으나 다만 오래도록 낫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녁에 고지기 학춘이 천어(川魚)와 젓갈을 보내서 내일 제사에 쓰련다.

15일. 이른 아침에 친히 자미의 궤연(几筵)에 제사를 드리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다만 잔을 올릴 때 왼쪽 옷소매가 촛불에 닿아 반쯤이나 탔는데 갈아입을 수도 없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또 어젯밤 꿈에 자미를 만났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으니,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왔으니 정령(精靈)도 반드시 명명 (冥冥)한 속에서라도 슬프게 느껴서 이에 내 꿈에 보인 것이리라. 더욱 몹시 슬프다. 저녁에 두 종이 돌아왔는데, 인수는 초겨울에 가산을 모두 태우고 충청도 땅으로 옮겨 갔다 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건시 두 접은 사 가지고 왔다.

16일. 말의 발이 절던 것은 조금 차도가 있으나 아직도 편히 걷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마의를 불러서 침을 맞혔다. 또 모레는 떠나려 하기 때문에 어둘 무렵에 태수를 가보고 행자를 요구했더니 백미 3두·정미 3두·목미 2두·찹쌀 1두·미역 1동을 주니 이것으로 가는 길에 넉넉히 쓰겠다. 깊이 감사하다.

17일. 지난밤 꿈에 눌려서 소리를 내고 깨었으니 가소롭다. 또 양곡을 받아 왔기에 목미 1두·찹쌀 1두·정미 1두는 수주(嫂主)에게 주고, 또 정미(正米) 1두는 처서모 (妻庶母)에게 주었다.

18일. 아침에 종을 보내서 태수에게 작별인사를 하니 태수는 벼 한 석과 간장 두 되를 보냈으므로 즉시 정목(正木) 두 필과 바꾸었다. 또 여혜(女鞋) 두 켤레를 만들도록 연전에 피장(皮匠)에게 맡겼다가 만들어 가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와서 비로소 찾았고, 관노 어둔에게서 망건도 또한 찾았다. 갓장이에게 벼 7두 주었던 것을 이제 와서 찾으니 거친 베 반 필로 갚는다. 모두 궁한 사람들이, 비록 그 값이 되지 않더라도 부득이 받아가는 것이다. 늦은 아침에 떠나서 서창(西倉) 뒤 고개에 이르니 단단한 얼음이 길에 깔려 간신히 걸어 넘어서 서창에 이르러 잤다. 종일 눈이뿌리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잔 것이다. 또 전일 제사를 지낼 때 백직령(白直領)이 촛불에 닿아서 왼쪽 소매가 모두 탔기 때문에 수주가 즉시 자미의 옥색 단령(團領)을 꺼내서 직령으로 고쳐 주었으니 한편 미안하다.

19일. 밝기 전에 떠나서 오수역(獒樹驛) 뒤 길가 인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은 후에 남원 땅 둔덕리 최목천(崔木川) 경선의 농사에 이르니 경선이 내가 온 것을 보고 즉시 문에 나와 기꺼이 맞는다. 날이 아직 이르므로 지나가려 했으나 경선이 만류해서 거기에서 유숙하니 상하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20일. 이른 아침에 경선과 작별하고 남원 땅에 이르러 서창에 이르기 전 3리쯤 되는 냇가 인가에서 아침을 지어 먹는데 보니 인가가 모두 비어 있다. 이웃 사람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군인에 묶여 도망한 자의 일족인데 역시 지탱하지 못하고 도망해 흩어져서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한다. 백성 살리는 계획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만하니 깊이 탄식스럽다. 먼저 종 막정 및 능찬을 보내서 순창군수(김예국)에게 편지를 올리고 뒤를 따라 홍문 밖 인가로 왔더니, 먼저 온 종들이 문직이가 몹시 엄

해서 편지를 올리지 못했으므로 부득이 그 집에서 잤다. 집주인은 곧 노제리(老除吏) 최걸(崔傑)이라 한다. 만일 태수를 보지 못하면 행자가 다 없어졌고 달리 얻을 곳이 없으니 말할 수가 없다.

21일. 내가 장수에서 올 때 자미의 처자가 곤궁하기가 날로 심하므로 나와 같이 종 과 말을 순창에 보냈다. 순창군수는 전해에 장계에서 진수할 때 자미와 함께 여러 달 동안 같이 일을 해서 정리가 가장 두터웠기에 아는 사람만 보면 말하기를. 사람 을 보내면 마땅히 극력해서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온 것은 전혀 이 때문 이었다. 그런데 두 번 큰소리로 불러도 듣고도 오히려 듣지 못한 체하고 끝내 들이 지 않으니 인정과 세태가 이런 것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 순창군수의 사람됨을 보 니 무부 중에서는 좀 낳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 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 딴 것을 어찌 족히 말하리오. 세도가 탄식스러울 뿐이다. 나도 또한 이 일로 해서 억지로 하루를 묵느라고 양식이 모두 떨어졌으니. 부득이 바로 장성으로 가서 노자(路資) 를 얻은 뒤에 마땅히 영암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궁한 사람의 일이란 매양 계획을 잘못하는 법이니, 한갓 수고롭기만 하고 양식을 허비한 것이 더욱 탄식스럽다. 능 찬도 또한 광주로 돌아가지 못하니 실로 양식이 없기 때문이다. 능찬이 올 때에 양 식을 이 고을에서 얻어 오고, 또 글을 광산목사에게 올리고 이로 인해서 바로 장흥 노비들에게 가서 신공을 받아 가지고 오게 한 것인데. 부득이 돌아와서 매사가 잘 못되었으니 참으로 한스럽다. 종일 주인집에 있자니 무료하기 매우 심하다. 능찬 은 본래 중인데 속인으로 돌아와서 장수 집에 종으로 있다.

22일. 말진손과 능찬을 도로 장수로 보내고,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담양 땅 연덕원 오른쪽 가의 인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후에 십여 리도 못 가서 잘못하여 지름길로 들었다가 조그만 다리를 만나 내가 탄 말이 발을 절다가 땅에 자빠진다. 막정은 뒤에 떨어져서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송노는 앞에서 짐 실은 말을 몰다가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부축해 일으키는데, 짐 실은 말을 혼자 가다가 아무도 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 뒷발이 좁은 길에 미끄러져서 진흙길에 나가자빠진다. 이에 먼저 짐을 멘 끈을 끊고 일으켜 보니 이불보가 다 젖었다. 부득이인가를 찾아 들어가서 옷과 이불 등을 말리느라고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그

대로 잤다. 집주인은 정병 박귀문(朴貴文)이요, 지명은 담양 북면 산막곡(山幕谷)이라 한다. 저녁 식사 때 집주인이 무김치와 아옥자반을 내다 주고 더운 방에서 자게 하니 가위 후하다. 다만 임 진사 신중(新中)이 두루마기를 딸들에게서 지어 보낸 것이 물에 빠져서 진흙에 더러워져서 입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꺼내보니 다만 안만 조금 젖었고 두어 곳이 밖으로 번졌을 뿐이니 다행한 일이다. 딴것이야 상관이 없다. 비록 젖었으면 무엇이 아까우랴.

23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났는데 말이 피로하여 걷지 못해서 해가 늦어서야 겨우 장 성 땅 백양사 동구 밑 인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집주인은 절 종 손오세라고 한다. 다만 들으니 태수 옥여(이귀)가 전주로 동궁을 맞으러 가서 세후에나 돌아온 다고 한다. 양식과 반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여기에서 얻어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결연하다. 아직 수삼 일을 머물러서 기다릴 계획이다. 저녁 에 비로소 장성 아헌에 도착하니 이자(李資)(숙혼(叔訓)). 이천(李蔵)(여경(汝敬)) 이 마침 와서 함께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된다. 여훈(汝訓)이 하인을 시켜서 우리 상하의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어두워서 들으니 고창군수 강수곤(姜秀崑)이 이 고 을에 왔다 하므로 여훈과 같이 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창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있어 보니 아우 희철이다. 이는 불의의 일이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온 까닭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태인(泰仁)에 있는 처가로부터 이제 영암으로 가느라고 여기에서 자다가 형이 아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온 것이라 한다. 어머님께서 근일에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니. 더욱 기쁜 일이다. 천리 밖에서 서로 생각하다가 다행히 객지에서 만났고, 어머님 소식을 들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밤이 깊어서 파하고 아헌으로 돌아와 한방에서 잤다. 숙훈은 옥여의 형이고, 여경은 옥 여의 사촌이며, 강고창(姜高敞)은 이 정랑(李正郎) 전로(籛老)의 사위이다.

24일. 이른 아침에 강고창(수곤(秀崑))에게 가서 행량을 청했더니 쌀 1두·콩 2두의 첩지를 써 준다. 즉시 송노로 하여금 고창현에 가서 받아 오게 했다. 또 편지를 써서 문안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옥여(이귀)에게 전하여 양식을 청하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떠나면 세전에는 필경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체류하니 깊이 민망하다. 숙훈, 여경 등이 나를 청

해서 냇가에서 쑥탕을 만들어서 취하고 배불러서 돌아왔다. 같이 참석한 자는 옥여의 장인 장 공 민(張公旻) 및 나와 탕을 끓인 5, 6명인데, 탕을 끓인 자들이 또한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서로 노래를 부른다. 나와 장 공(張公)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돌아왔다. 난리 이후로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들으니 또한 비감한 마음이 많다. 저녁에 조 정자(趙正字) 익(翼)이 들어와서 아방(衙房)에서 같이 잤다. 여경도 역시 같이 잤다. 조 공(公)은 곧 이여인(李汝寅)의 사위인데, 윤겸이 그가 고관일 때 사마장원(司馬壯元)을 했다. 역시 피란해서 고관에 임시로 와 있다가 이제 옥여를 찾아온 것이다.

25일. 저녁내 아헌에서 조 정자와 이야기하고, 여훈과 여경은 객사에서 활을 쏘았다.

26일. 종일 아방(衙房)에서 조 정자 비중(棐仲)과 이야기했다. 저녁에 이삼등(李三登) 계씨(啓氏)의 부음을 들으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이씨(李氏)집의 문장 (門長)이 오직 이삼등뿐인데 이제 또한 돌아갔으니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이삼 등은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엄친(嚴親)이다.

27일. 여훈(이자)은 어제 그 외삼촌의 부음을 듣고 이른 아침에 나주로 갔다. 주수 (主倅)도 없어서 다만 여훈을 믿고 의뢰했었는데 이제 또한 가 버리니 더욱 몹시 무료하다. 또 계속해서 사흘 밤을 꿈에 처자가 보이니 이 무슨 조짐인가. 한 번 작 별하고 남쪽으로 온 뒤로 소식을 듣지 못하니 깊이 근심되는 것이 끝이 없다. 행자를 얻지 못해서 오래 여기서 머무르는데, 손들이 몰려오니 더욱 미안 미안하다. 저녁에 이 도(道)의 아사(亞便)가 이 고을에 들어왔다 하므로 조 정자와 함께 가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이복흥(李復興)이 그 집에서 밤을 무릅쓰고 왔다.

28일. 조비중(趙棐仲)·이복흥(李復興)과 종일 헌방(軒房)에서 이야기했다. 들으니 나주목사가 어젯밤이 깊어서 전주로부터 와서 빈관에서 자고 날이 밝기 전에 금성으로 떠났다 하니, 미처 만나지 못한 것이 깊이 한스럽다. 만일 만날 수 있었으면 옥여의 양식이 아니라도 금성에서 먹을 것을 댈 수가 있었을 것이다.

29일. 아침에 옥여(이귀)가 백미 1두 · 중미 4두 · 콩 4두 · 간장 2되를 보냈으니 내

일 떠나서 돌아갈 계획이다. 다만 중미를 받아다가 찧었더니 3두 2되이니 반드시 부족할 것이라 민망스럽다.

그믐날. 지난밤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고 종일 눈을 뿌린다. 관에서 이른 밤과 낮에 차(茶)를 주는데, 모두 떡과 국수를 겸했다. 처음에는 오늘 떠나려 했지만 내일이 곧 큰 명절이어서, 조비중ㆍ이여경의 만류를 받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 어제저녁에 아우의 종 덕향이 영암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오세량이 노비 양이ㆍ향옥ㆍ천우 등을 파는 일로 영암 임 진사집에 갔다가병을 얻어서 죽었다 하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세량이란 성질이 본래 이치에 거슬려서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다만 골육의 지친(至親)으로서 유리걸식하다가 타향길에서 죽었으니 불쌍하다. 더구나 나를 대접하기를 몹시 후하게 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또 저녁에 숙훈이 술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는 곳으로 와서 같이 마시다가 밖이 늦어서 자리에 누웠다.

동궁사내선답자(東宮辭内禪剳字)6

신(臣)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어려서는 학식이 없었고, 나이가 비록 장성했어도 덕업(德業)이 전혀 없사온데 외람되이 세자의 자리에 있사오니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낮과 밤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난리를 만나서 질병이 섞여 생겨서 반년 동안 앓고 있사오니 정신이 감해져서 비록 심상한 일을 처리하는데도 결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옵는데 어찌 감히 감당치 못할 명령이 못난 신하에게 내려질 줄 뜻했사오리까. 명령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작은 심정을 통찰하시와 금시 성지를 거두시어 신(臣)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분수를 보존하게 하시면 몹시 다행하겠습니다. 작은 신(臣)의 하정(下情)에 민망함이 절박한 것은 천지신명께서 비추어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실 것이오니 간절하게 지극히 비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臣)이 어제 땅에 엎드려 호소했사오나 아직도 윤허를 얻지 못하와 물

⁶ 東宮辭內禪劄字: 여기의 동궁(東宮)은 광해군(光海君), 내선(內禪)이란 임금이 세자(世子)에게 왕위 (王位)는 양보했으나 아직 즉위(卽位)의 예(禮)는 올리지 않은 것,

러나와 엎드려 생각하오니 지극히 죄송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신(臣)의 어리 석고 용렬하고 못생긴 것은 다시 일일이 말씀드릴 것도 없사오나 다시 들어주시기 를 바라옵고 원컨대 방금의 나라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은 적들이 아 직도 변방을 점령하고 있어 그 흉한 계획을 헤아릴 수 없사와 중국 장수가 길에 연 락하고 있어도 만나보기는 몹시 드무오니, 옛 물건을 광복(光復)하고 유민(遺民)들 을 구제하는 일은 비록 성명(聖明)의 큰 덕과 지극한 어지심으로도 혹 이루지 못할 까 두렵사온데 하물며 신(臣)의 둔하고 용렬하여 일을 살피지 못하는 자이겠습니 까. 거듭하여 생각해 보아도 결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신(臣)이 죄를 짓는 것은 족 히 생각할 것이 없사오나 그 종묘와 사직에 어떻게 할 것이며 생민(生民)에게 어떻 게 하겠습니까. 작은 적성을 아뢰지 못하고 천청(天聽)을 돌이키지 못했사오니, 이 는 실로 신(臣)의 못난 데 원인하는 것이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용납할 곳이 없 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다시 생각을 더하시어 급히 한번 유음(俞 · 함)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황송하고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땅에 엎드려 아 뢰나이다. 회답해 말하기를 올해 역수(曆數)가 세자에게 있으니 세자는 사양하지 말라. 나는 실로 병이 오래되어 능히 감내할 수가 없으니 만일 하루만 물러가서 쉰 대도 내 지원(志願)이 다 하겠다. 나와 세자(世子)는 간담(肝膽)이 서로 비치는데 아직도 내 뜻을 알지 못하는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니 마땅히 급히 돌아가서 잘 조리하도록 하라.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 있는 것을 걱정하는 법이다. 신(臣)이 날 마다 정성을 다하여 호소하는 것은 실로 심복(心腹)에서 나온 것이온데 천청(天聽) 이 더욱 멀어지시어. 심지어 역수가 너에게 있다느니, 간담이 서로 비친다고 말씀 하시니 명령을 듣고 두려워서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러러 비옵건대 성명 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비치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시니 어리석은 신하의 황황하 고 민망함이 절박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을 생각건대 반드시 통찰하실 터이온 데 오래도록 유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엄하신 하교를 내리시니 한갓 스스로 피 눈물을 흘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와 차라리 땅을 파고 들어가고자 하오나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난 난리에 나랏일이 위태롭고 어려워 밤낮으로 근 심하고 애쓰시기에 성체가 편안함을 잃기에 이르렀사오니 신이 비록 어리석고 용

렬하오나 어찌 이를 모르오리까. 이제 적들이 비록 조금 물러났사오나 오히려 경 계 위를 점령하고 있어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어찌될지 알 수가 없 사오니 앞으로 올 근심스러운 일이 지난날보다 더 심한 바 있사오니 그 난을 평정 하고 승리를 거두어 옛 물건을 잘 회복시키자면 결코 나이가 젊고 용렬하고 어둡 고, 배우지 못하고 불초(不肯)한 신하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자께서는 깊이 조종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시와 속히 윤허를 내리시면 비단 신 (臣)의 어리석은 분수가 잠시라도 편안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국가와 생민에 있 어 몹시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정성이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한 번도 유음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궐 밑에서 목숨을 다할지언정 다시 천지 사이에 스스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굽어 헤아리시어 묵묵히 성은을 더하시어 급히 부드러우신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어리석은 신(臣)이 하정(下情)에 민망함이 절박하와 날마다 땅에 엎드려 슬프게 대 궐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비단 유명(命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옵고 여러 번 엄준한 하교를 내리시니 물러나 엎드려서 생각하니 황망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낮은 신(臣)의 못남과 나라 일의 망극함은 전후 계사(啓辭) 에서 이미 모두 아뢰었사오니 다시 천청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생각하옵 건대 신(臣)이 명령을 들은 이후로 밤낮으로 민망스럽고 근심하와 먹는 것이 목에 내려가지 않은 지가 이미 5일에 이르고 있사와 정신이 이미 없어지고 기운이 따라 서 다하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후의 담(褒)과 여러 가지 병이 거듭 생겨서 쑤 시고 아프온바, 이때를 당하여 신(臣)의 몸에 있는 병이나 아픔은 족히 불쌍할 것 이 없사오나 기어코 몸을 부축해 끌고 대궐 밑에 나가고자 하오나 능히 움직일 수 가 없어서 적은 심정을 다하지 못하오니 더욱 실패하여 민망하게 우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혹시 천지(天地) 부모의 지극히 어지심을 힘입어 특별히 한 유음을 허락하시면 비록 죽어도 서운함이 없겠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명께서 는 위로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시고 아래로 적은 심정을 살피시와 급히 성은을 더 하시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명령을 기다려 간절히 비는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 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낮은 신(臣)이 죽기 전에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몹시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회답하기를 이 글을 보니 대의에 통 하지 못하는 말이로다. 대체로 순(舜)이 요(堯)의 선양(禪讓)을 받을 때 사퇴했다 는 말을 듣지 못했노라. 대개 국가의 일이란 소중해서 구구한 가정 사람의 사정과 는 같이 따질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이다. 이때에는 종묘와 사직이 소중한데 내 가 실로 병이 오래되어 만기(萬機)의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오직 세자는 깊 이 생각하여 사양하지 말도록 하라. 신(臣)이 어제 엎드려 성교(聖敎)를 받자오니 비단 오래도록 유음(命音)이 막혔을 뿐이 아니라, 강하게 거절하심이 날로 심하시 어 심지어 요순(堯舜)이 주고받은 일을 가지고 하교하시니 명령을 듣고 놀라고 두 려워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사와 한갓 간절히 민망히 여기고 울다가 계속하여 피 눈물을 흘리옵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삼대(三代)는 그 어느 때이고 오늘은 그 어 느 때이오며, 순(舜)은 그 어떠한 사람이고 신(臣)은 그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때 를 가지고 말하자면 당우(唐虞) 때로서 천하가 화합하며, 백성은 편안하고 물건은 풍부했사오니 오늘 나라 일이 위태롭고 조심스러운 것과 어떠하옵니까. 하물며 우 리 성상께서는 하늘과 같은 큰 덕이 높고 넓으시어 요(堯)와 차이가 없으시며, 춘 추(春秋)도 젊으시어 요(堯)의 늙고 게으른 것과는 현저히 다르옵고 시세(時勢)의 어려운 것은 요(堯)의 만방(萬那)이 모두 편안한 것과 비교해 드린다면 하늘과 같 이 판이합니다. 또 그 사람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요순(堯舜)의 예철(睿哲) · 문명 (文明) · 현덕(玄德)과 신(臣)의 용렬하고 어둡고 천박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떠 하옵니까. 하물며 순(舜)의 성덕(聖德)은 저와 같이 성(盛)한데도 30세 때에 불러 써서 28년의 오랜 시일을 시험한 뒤에 비로소 맡아 다스리라는 명명이 있었는데 도 오히려 또 하남에 가서 제위를 피했사오니 어찌 손양(遙讓)의 말이 없었습니까. 아아! 성상께서 춘추의 젊으심이 제요(帝堯)의 늙은 나이와는 몹시 멀고 지금 시세 의 어렵고 위태로운 것은 한두 가지로 다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그 위에 어리석은 신(臣)은 어리고 혼약하오며. 배우지 못하고 불초한 데다가 이미 제순(帝舜)의 불 러 쓰고 오래 시험한 일이 없으며, 그 위에 오래된 병이 날로 심하여 목숨이 실날 과 같사와 종묘·사직·생민의 부탁과 승리를 이룩하고 사업을 회복시킬 책임은 거듭 생각해도 결코 감내하고 이겨낼 수 없사오니 어리석은 신(臣)의 상하에 허물 을 지고 신인에게 죄를 얻는 것은 진실로 불쌍할 것이 없사오나 깊이 조종을 더럽 히고 성상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니다. 신(臣)의 못난 몸으로 정성이 위에 미치지 못했사와 피를 뿌리고 울부짖어도 천청(天聽)을 돌이키지 못하오니 황공스럽고 두 려우며 황황하고 망극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는 깊이 슬기로운 생각을 더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히 여기시며 슬퍼하시고 민망이 여기시어 특히 윤허를 내리시와 죽어 가는 목숨을 잠시라도 보존하여 다시 성명(聖明)의 회양(回養)하시는 성(盛)함을 보게 하시옵고, 급히 굽어살피시와 낮 은 신(臣)의 구구히 민망함이 박절한 심정을 펴게 해 주시면 몹시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낮은 신(臣)의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날 땅에 엎드려 피눈 물 나는 정성으로 슬피 호소해도 천의(天意)는 더욱 멀어지오니 이는 실로 신(臣) 의 못난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정성이 위에 미치지 못하고 힘이 하늘을 돌이키 지 못하는 것이어서 조심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신(臣) 의 간절한 심정은 이미 다 아뢰었사오니 다시 일일이 들어 말씀 드릴 것이 없사옵 고 그저 우러러 맑게 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하옵건대 성상께서 비 록 손위(遜位)를 하고자 하시나 이러한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신(臣)과 같이 어리 고 무식하고 용렬하고 암약(暗弱)한 자에게 갑자기 어렵고 큰 사업을 주시면 이는 비단 조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이 낭패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오니. 종묘사직의 큰 계획을 어찌 이같이 생각하지 않으심이 심하십니까. 엎드려 비옵건 대 성명께서는 종묘사직의 부탁이 소중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은 신(臣)의 민 망하고 절박한 심정을 굽어살피시와 다시 성은을 더하시와 급히 한 유음을 내리시 옵소서.

격문(檄文)

대개 들으니 남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남의 근심을 근심하고, 남의 밥을 먹은 자는 남의 일에 죽는 것이니, 힘써 타이르는 것을 모두 복종하고 함께 옳은 말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깨지고 집이 망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다는 의리를 잊는단 말인가. 저 조그만 추한 것들이 우리 큰 나

라름 원수로 여겨서 처음에는 인호(隣好)의 의리를 닦는다는 핑계로 우리의 허실 (虛實)을 엿보고,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우리 조정을 속이고 업신 여겨 감히 하늘을 거역할 계획을 들어내어 비밀히 길을 빌린다는 꾀를 시험했으니 하늘의 법과 땅의 의리를 어찌 옮기고 바꿀 수 있으랴. 큰 분의(分義)와 올바른 이 름이 역시 몹시 삼엄한지라. 나는 이를 거절할 말이 있으나 적은 여기를 넘어와서 꿈틀거려 별과 전갈이 더욱 그 독을 내뿜고 개와 양이 깊이 그 무리를 몰고 온다. 갑자기 부산 · 동래가 함락되는데 겨우 한 신하가 전사했을 뿐이요 졸지에 낙동 강 · 조령을 넘으니 계속해서 큰 군사가 무너지는도다. 곤사(閩師)와 번신(藩臣)은 대개 바라보고 친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진장과 읍해는 태반이 남에게 맡기고 가 버렸다. 죽는 중에 살기를 구하니 누가 즐겨 사졸보다 먼저 하는 대오를 구하며. 품 사이에서 살기를 도모하니 모두 다 온 몸이 처자를 보존하는 무리이다. 모든 수 레는 바람을 바라보고 흙처럼 무너지고 삼군(三軍)은 싸우지도 않고 헤어졌다. 견 고한 성이 함락되니 호(鎬) 땅을 침입한 욕됨이 더욱 깊고, 임금의 수레가 파천하 니 도성을 떠나는 일이 더욱 금하도다. 어찌 만백성이 어육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보 며, 이 칠묘(七廟)가 된 터가 되는 것을 어찌하랴, 조정에서 힘써 금(金)나라와 화 친할 것을 주장하니 진회(秦檜) 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간사한 흉적이 우두머 리로 촉(蜀)나라로 갈 것을 주장하니 국충(國史)⁸의 머리를 달아야겠네. 이는 곧 공 경대부(公卿大夫)의 한 가지로 부끄러워하는 바요. 또한 충신열사가 깊이 가슴 아 파하는 바이다. 조종(祖宗)이 사업을 십일 대를 전했으니 이미 유택(遺澤)이 아직 남아 있고 국가에서 선비를 2백 년을 길렀으니 어찌 의병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없으랴. 이제는 안찰사(按察使)가 친히 강원·함경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워수(都 元帥)가 황해 · 평안과 군사를 주둔시켜 모두 근왕(勤王)하려고 모여드니 적을 섬 멸하기를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 삼도(三道)의 웅번(雄藩)만은 적막하게 한 사람의 의사도 없으니. 살기를 도모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왕실에 어찌하며.

⁷ 진회(秦檜):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재상, 악비(岳飛)를 무고하여 죽이고 주전파(主戰派)를 탄압 하여 금(金)나라와 굴욕적인 화약(和終)을 체결했으므로 후세에 대표적인 간신으로 꿈음.

⁸ 국충(國忠) : 양국충(楊國忠), 당(唐)나라 양귀비(楊貴妃)의 사촌 오빠, 재상이 되어 불법을 행하다가 안록산(安宮山)의 난에 피란 가다가 마외역(馬嵬驛)에서 진현례(陳玄禮)의 군사에게 참살당했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의로운 것을 보고 하지 않으니 이는 장부(丈夫)가 아니로다. 공(公)들은 혹 그 지방 에 처해 있고, 혹 한 성을 지키고 있어. 혹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고 혹은 자 신이 재상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국가의 어려운 날을 당했으니 정히 신자(臣子)가 절개를 지킬 때인데. 어찌하여 위로 훨훨 날아가려고만 하고 진흙 속으로 빠지는 것은 생각지 않는가. 분발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은 하지 않고 스스로 머물러 나가 지 않고 베임을 당하는가. 위태로움에 임해서 길 가는 사람같이 보니 이 어찌 차마 할 일이며, 적을 군부에게 보내고 있으니 네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비록 역사에 꽃 다운 이름을 남길 뜻은 없어도 혹여 다음날 베임을 당할 것은 두렵지 않은가. 조사 지(祖士稚)9는 강을 지나다가 돛대를 쳤고 유원량(庾元亮)10은 눈물을 뿌리고 단(壇) 에 올랐네. 어찌해서 속히 한강(漢江)을 건너서 일찍 성 밑으로 진격하지 않는가. 구사는 나가기만 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니 어찌 죽을 마음을 격려하지 않고. 충 신은 나라를 먼저 하고 자기 몸을 뒤에 하는 것이니 마땅히 머리가 없어졌다는 보 고를 다 할 것이다. 나는 원훈(元勳)의 세물(世物)이나 후한 녹(禄)을 받은 여생(餘 生)이다. 임금이 파천하신 중에 명령을 받았고 무너져 흩어진 뒤에 군사를 모집했 네. 바야흐로 중국 땅을 깨끗이 하여 민물(民物)이 다시 편안함을 얻기를 기약하고 반드시 옛 도읍을 회복하여 다시 사당 모습이 전과 같게 하고자 한다. 진실로 마음 을 같이하고 힘을 합치면 난을 평정하고 쇠한 것을 일으키기가 무엇이 어려우랴. 다만 옷깃을 끊고 소매를 던지는 사람이 물 끓는데 들어가고 불에 뛰어드는 사람 이 적고. 쓸개름 맛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분한 마음으로 하늘을 돌고 땅을 돌기 를 도모함이 더욱 간절하도다. 몽산(蒙山) 이 옛 임금 구하지 않는 것을 한하니 적 을 토벌하는 것이 마땅히 하루가 급하고 박옥(泊玉)이 홀로 군자(君子)가 되는 것 이 부끄러우니 거의(擧義)하는 일이 제공(諸公)에 뒤지지 말아야할 것이다. 격문

⁹ 조사치(祖士稚): 조적(祖狄)의 자가 사치(士稚)임, 진(晋)나라 범양(范陽) 사람으로 강개(慷慨)하고 절개가 있었다. 예주자사(豫州刺史)가 되어 강을 건너다가 돛대를 치면서 맹세하기를 중원(中原)을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깨쳤다.

¹⁰ 유원량(庾元亮) : 유량(庾亮), 동진(東晋)의 정치가. 중서령(中書令)으로 있을 때 소준(蘇峻)의 난을 평 정했다.

¹¹ 몽산(蒙山): 진가모(陳嘉謀)의 호. 명(明)나라 여릉(廬陵) 사람.

(檄文)이 이르러 법과 같으니 글로 뜻을 다하지 못하노라.

황사숙(黃思叔) 지음.

교 정인홍 · 김오등 서(敎鄭仁弘 · 金汚等 書)

임금이 말한다. 군신(君臣)은 천지(天地)의 떳떳한 법도요. 충의는 인도(人道)의 큰 절의(節義)이니, 진실로 있는 바는 힘쓰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물며 이 영남 (嶺南)은 처음 터를 닦은 신라(新羅)의 고을이라. 부로(父老)는 효제(孝悌)를 본받 고 자제들은 시서(詩書)를 익히니 비록 망해 없어진 나머지를 당했어도 어찌 분려 (奮勵)하는 무리가 적겠는가. 중악(中岳)에서 달이 맹세하니 유신(庾信)의 칼이 저 절로 뛰어 칼집에서 나오고. 한산에서 적을 꺾으니 실혜(實兮)의 몸에 화살이 고슴 도치처럼 꽂혔도다. 옛날에 도둑이 처음 왔을 때를 당하여 일여하게 한 사람도 떠 들고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오직 장신(將臣)들이 바람에 쏠린 것이지만 실 지로는 사민(士民)의 뜻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다투어 놀라 흩어질 마음을 가 져서 쉽게 수습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니 이로 인하여 이제 모든 고을에 연기가 나지 않고 한 나라에 물결이 끊어졌다. 백성들이 어육이 되어 다시 살기를 도모하지 못 하고 부고(府庫)가 잿더미가 되어 착수할 수가 없다. 내가 서쪽으로 오면서부터 이 미 남쪽의 희망은 끊어졌었다. 그런데 어찌 뜻했으랴, 너 인홍(仁弘)과 면(沔)이 몸 을 내놓고 군사를 규합하여 뜻을 다하여 적을 쳐서 이제 수월 안에 모두 여러 천 명의 군사를 얻었다. 의기(義氣)는 하늘이 임하고 열사들이 향응(響應)해 온다. 건 량(乾糧)을 거두어 식사를 하니 백성을 격려하는 창고가 진실로 비었고, 대나무를 깎아 활을 만드니 창고의 투구와 병기가 어데 있는가. 정진(鼎津)에서 군사를 쓸어 버리니 달아나던 적이 넋을 잃었고, 무계에서 칼날을 접하니 시체가 흘러 강에 가 득했다. 관군은 어찌해서 한결같이 잘 무너지며 의병은 어찌해서 한결같이 모두 이기는가. 이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형벌인데 형벌은 법을 베풀지 못하고, 이편 의 맺힌 것은 의리인데 의리는 물러가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비로소 성지 를 없앤 공을 알아서 백성의 힘을 길러 이것을 절진(節鎭)의 봉함에 옮겨 굳게 군 사의 마음을 결속시키니 떠돌던 넋은 이미 동래(東萊) 들에 흩어졌으니 독한 칼날 이 어찌 평양의 성에 이르랴. 이는 나의 밝지 못한 것에 연유한 것이니 비록 후회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오. 저번에 본도(本道)의 배지인(陪持人) 강만담(姜萬 潭)이 도는데 한 종이가 나를 죄 주었으니 천 리에 마음이 깔리는도다. 그러나 생 각건대 바다와 산에 머뭇거리면서 선포(宣布)하고 행진(行陣)할 것을 예정치 못하 는도다. 이제 최원(崔遠)의 군중을 통하여 내 뜻을 전하고 계속해서 적의 실정을 탐지하는 것이니 너희가 내 글을 보았겠지만 내 회포를 어찌 다하랴. 높은 가을 서 리와 이슬에 종묘와 사직의 떠도는 것이 민망하고 먼 변방 강가에 장막의 쓸쓸함 에 의지하는도다. 땅을 생각하는 것은 귀천(貴賤)의 간격이 없고 돌아갈 것 생각 하는 마음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간절하다. 이때 다행히 중국 조정에서 권념(眷 念)하고 맹장(猛將)이 명령을 받들어 칙명으로 병부시랑 한 명을 임명하여 광녕 · 요동 등 진(鎭)의 협수총병관(協守總兵官)을 독려해 거느리고 70만의 군마를 내어 양곡 운반하는 것을 감독하여 바다와 육지 양쪽으로 함께 나가서 왕경(王京)에 이 르러 적을 소탕하게 하기 위하여, 본월 12일에 유격장군 장기공(張奇功)은 선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고 강절지방(江湖地方) 유격장군 심유경은 포수 1천 6백 명을 거느리고 상으로 주는 은(銀)을 가지고 15일에 강을 건넜다. 중국 군사가 이르는 곳에 산악이 빛을 움직인다. 가을날이 개고 길이 말랐으니 정히 오랑캐를 사로잡 는 달이요. 말은 살찌고 활이 강하니 실로 적을 죽일 기회로다. 철마(鐵馬)는 대정 (大定) 청천(淸川)에 뻗쳤고 배는 등래(登萊) 강절(江淅)에 연해 있다. 미친 적은 악 (惡)이 쌓였으니 하늘의 베임을 진실로 더해야 하리로다. 하물며 우리 의병 열사의 무리가 모두 경기·황해·충청으로부터 일어나서 어디서나 적의 수급을 베어 날 마다 위에 바치니. 이는 실로 천지가 잠잠히 도운 힘을 입어 그런 것이요. 이는 곧 종묘사직을 다시 일으키는 기회로다. 들으니 김성일은 거창에 주둔하고, 한효순 은 영해를 보존했다 하니, 거기에 좌우도관찰사(左右道觀察使) · 순찰사 등의 칭호 와 대소 의병장(大小義兵將) 등을 더하여 이들을 모두 제수하고 맞이하기를 차등 이 있게 하는 바이니 너희들은 나가서 듣고 절제(節制)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주 모(籌謀)에 참여하여 적의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 낮에는 그 꼬리를 치고, 또 적의 주둔한 곳을 정탐하여 밤에는 그 병영을 부술 것이다. 나가서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기회를 보기를 너희에게 맡기니 인갑(仁甲)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가슴아파서, 판서(判書)의 벼슬을 주니 이형(李亨) 등의 전망(戰亡)을 슬퍼하노라. 관자(官子) 한 사람도 벼슬과 상을 주는 것이 한가롭지 않으니 너희에게 이르러 무엇이아까우랴. 바라건대 먼저 영교(嶺嶠)를 맑게 한 뒤에 비로소 급히 내 수레를 맞도록 하라. 내 말이 끝나려하매 내 눈물이 먼저 떨어지니 내 어찌 잊으랴, 너희들은마땅히 힘쓸지어다. 예악(禮樂)을 받들어 혹 비린내 나는 기운을 씻는다면 산하(山河)에 새 기운이 날 것이니 이 땅의 영광을 같이하리라.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마땅히 이를 알도록 하라.

비기(秘記)에 전해 오기를 구백 년이라 했는데, 먼저 사람은 이미 가고 뒷사람이 옮겼네. 세 도읍은 흰 낮에 여우와 토끼 굴이 되었고, 다섯 부(部)의 청춘들은 음악 소리에 술 취했네. 나무 잎이 신숭(神嵩)에 떨어지니 차게 비가 내리고. 풀이 궁원(宮苑)에 깊으니 새벽에 연기가 나네. 성은(聖恩)의 너그럽게 용서하심이 깊기가 바다와 같으니, 바야흐로 삼한(三韓)이 다시 온전함 믿는단 말 믿겠네. 秘記相傳九百年 前人己去後人遷 三都白日成狐鬼 五部靑春醉管紋 木落神嵩寒泣雨 草深宮苑曉生烟 聖恩實宥深如海 方信三韓得再全

효유 제도 군민서(曉諭諸道軍民書)

우러러 생각하건대 황상께서 우리가 왜적에게 침입당하는 것을 깊이 불쌍히 여기 시어 특별히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설반(薛潘)을 보내어 성지(聖旨)를 선유(宣 諭)하고, 계속하여 크게 군사를 내어 적을 치도록 명령하여 기필코 우리 생령을 구 제하고 우리 강토를 회복하게 했다. 또 참장 낙상지(駱尙志), 힘이 천 균(鈞)을 들 어 낙천근(駱千斤)이란 자로 하여금 남쪽 병화(兵火)와 포수의 정예 일당백 하는 자 5천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게 하고, 광영총병관 이성양(李成樣)으로 하여금 요 병(遼兵) 및 가정달자철기(家丁獺子鐵崎) 3만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게 하고, 병부상서 송응창으로 하여금 기진·산동·산서·의부 등 여러 곳의 대군을 거느리고 뒤를 따르게 하여, 육로를 세 길로 나누어 평양을 넘어 바로 나가서 공격하여 빨리 쓸어버리게 하고, 수로는 두 길로 나누어 수륙의 모든 군사가 모두 서울에 모이기로 기약하고 길에 몰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니 장수가 3백이요 군사는 모두 70만이다. 이러한 중국 군사의 많은 것으로 이 조그마하고 추한 것을 섬멸하니 마치 태산을 들어 새알을 치는 것과 같다. 아아! 너희 대소서민은 조종의 옛 백성으로서 이제 섬 오랑캐의 시달림에 허덕여 혹 그 부모처자를 잃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고 어찌 복수할 마음이 없으랴. 마땅히 각각 힘을 다하고 분려해서 왜를 베어 스스로 공을 세우면 적을 평정하는 날에는 가히 공신에 기록될 것이요 은택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국 군사가 길이 몰고 나가 차고 밟을 때에 반드시 옥석이 함께 타는 걱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비록 후회한들 어찌 미치리오. 각각 힘을 다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

- 하나, 왜의 대장을 베는 자는 존비를 물론하고 가선에 승진시킨다.
- 하나, 모든 왜 한 명 이상을 베이는 자는 모두 공신에 기록한다.
- 하나, 비록 적에게 항복한 자라도 만일 왜적을 베고 나오면 특별히 그 죄를 면할 뿐이 아니라, 모두 그 공을 기록한다.
- 하나, 비록 능히 왜를 베지 못했더라도 먼저 성에서 나와 도망 오면 죄를 면하고 상을 준다.

만력 20년 9월 일

경략 병부 효유문(經略兵部曉諭文)

칙명으로 임명받은 경략(經略)과 병부(兵部)에서 알리노라. 본부(本部)에서 명령을 받고 떠나보면 남북 수륙(南北水陸)의 마보대병(馬步大兵)이 왜적을 정벌해서 멸하고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도록 이미 장령(將領) 등 관원에게 신칙하고 군사들에게 약속하여 추호도 범하지 않게 했다. 바라노니 조선의 군사와 민인들은 이 대병

을 만나거든 군사가 지나가고 주둔해 있는 때에는 모두 평상시와 같이 편안히 가업을 지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만일 군사들이 일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해치는 자가 있으면 본영의 장관에게 말하도록 하라. 또 너희들은 마땅히 대병(大兵)들이 추운 때에 너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짐짓 나가는 것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 각각 마땅히 알도록 하라.

만력 20년 25일

경략 병부 약법 패문(經略兵部約法牌文)

- 하나, 각 관군이 민간 부녀를 희롱하는 자는 베인다.
- 하나, 강제로 시민의 재물이나 주식을 빼앗는 자는 왼쪽 귀를 베인다.
- 하나, 맘대로 행오(行伍)를 떠나거나 약속을 듣지 않는 자는 노끈으로 50개를 때린다.
- 하나, 장관이 잘 곳을 만나면 하나의 유능한 두목(頭目)에 맡겨서 먼저 저쪽에 가서 점방이나 혹은 사관(寺觀)의 넓고 좁은 것을 알아보고서 하나의 부첨(浮帖)을 각 문 위에 부치고 말하기를 이곳에는 모대(某隊) 약간의 인마(人馬)를 용납할 수 있으니 각 관(官)으로 하여금 가서 자게 하라고 하고, 거처하기를 이미 정하거든 한 사람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노끈으로 80개를 때린다. 장관(將官)이 실행하지 않고 일이 발각되면 모두 조사한다.

12월 15일

명장병 금제법(明將兵禁制法)

- 하나, 장령(將領)이 대병을 거느리고 조선을 구원하는데 추호도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니 어기는 자는 베인다.
- 하나, 장사(將士)가 망령되어 조선 자녀를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어기는 자는 베인다.
- 하나, 장사는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큰 공을 세우도록 힘쓰고, 어긋나고 시기하는 자는 군법으로 중히 처리할 것이다.

하나, 진(陣)에 임할 때 선봉을 뚫는 자는 오로지 쳐서 죽이기를 힘쓰고, 머리를 베이는 자는 오로지 머리를 베어서 공을 얻은 뒤에는 다음으로 공에 대해서 의 논하는데 이때 넷으로 나누어 반급(頒給)하여 승진시키고 상을 주되 공을 다투어 남이 베인 수급을 뺏는 자는 베인다.

약법(約法) 4장이 가장 긴요하니 장령과 군사들은 각각 마땅히 준수할 것이다.

12월 15일

왕세자교서(王世子敎書)

왕세자는 교서를 내려 말한다.

중국 조정의 도독(都督) 영하후(寧夏候) 이여송이 이여백(李如柏) · 양원(楊元) · 장세작(張世爵) 세 대장과 함께 먼저 천하의 정병 십만을 거느리고 지난달 25일 에 압록강을 건넜고. 참장 낙상지는 복건(福建)의 포수 7천을 거느리고 이보다 먼 저 강을 건넜는데 대소장관은 도합 72명이었다. 참장은 순안에 이르렀고, 도독은 이미 안주에 이르러 우리 군사 3만과 함께 장차 날짜를 약속하여 일을 일으킬 것 이다. 병가의 일은 비록 미리 알 수가 없으나 형세로 말하자면 태산으로 앞을 누르 는 것과 같아서 흉한 적들을 쓸어 없애는 것은 마땅히 시일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 다. 이제 평양에 있는 적의 수를 보니 6. 7천 명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 곳에 주둔 해 있는 적들은 필시 모두 서쪽을 향해서 서로 구원할 것이니. 이 얻기 어려운 기 회를 타고 겸해서 황위(皇威)의 덕을 입어 우리 군사의 각 진(陣)이 모두 일어나서 적을 쳐서 큰 군사로는 큰 것을 막고 적은 군사로는 적은 것을 막아서 서로 구원하 지 못하게 한다면 군사의 칼날이 이르는 곳에 형세가 마치 파죽의 형세와 같을 것 이다. 만일 중과(衆寡)가 상대되지 않아도 쉽게 조사를 더 할 수가 없고 혹 서로 대 진(對陣)하면 서로 견제하고 그 형세가 혹 뒤로 돌아 꼬리를 공격하여 적으로 하여 금 모양이 나누이고 형세가 떨어지게 하여 한곳에 합치지 못하게 한다면. 부끄러 움을 말끔히 씻고 나라 안을 맑게 하는 것이 이 한 번 싸움에 있을 것이니. 이 뜻을 모두 도내의 각 진과 각 읍 및 크고 적은 의병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싸우고 한 사람도 적을 구경만 하거나 옆에서 보기만 하게 하지 말라. 만일 머물러 있고 나가지 않거나 명령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군중에서 베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할 것이다.

교서(敎書)

임금이 말한다. 아아! 군신의 의리는 천지를 본받아서 항상 있고, 충의의 마음은 인륜에 뿌리를 두어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각각 다 있는 것이니 어찌 힘쓰기 를 기다리랴. 처음에는 비록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 쉽게 소탕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이미 위엄 있는 신령을 떨쳤으니 어찌 각각 떨쳐 일어서지 않는가. 생각하 건대 우리 성천자께서는 조종의 대대로 충정했던 것을 생각하시고 과인의 먼 길에 파천한 것을 민망히 여겨, 천하의 대도독 이여송에게 명하여 정병 수십만의 무리 와 민강(閩江) 절강(浙江)의 화기(火器)와 포수를 거느리고 이미 본월 8일에 평양 을 쳐서 깨쳐 성을 회복시키고 왜적 2만여 명을 베이고. 적의 추장(曾長) 행장(行 長) 이하를 쳐서 베거나 불에 태우고 물에 빠뜨려 하나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했으 며, 본국에서 가서 귀순한 자도 일체 죽음을 면하게 하여 모두 복적할 것을 허락 했다. 이리하여 황은이 천지와 같으니 초목도 모두 용서해서 마음껏 자라고, 하늘 의 위엄이 천둥과 같아서 여기에 스치면 불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길을 나누어 함 께 나가서 자리로 말고 길게 몰아가서 나머지 적을 쳐 없애어 형세가 파죽과 같이 하라. 칙명으로 임명한 경략 병부시랑 송응창이 친히 대명을 받고 천토(天討)를 받 들어 행하니. 모든 가는 곳마다 모두 신산(神算)에 합당한다. 찬획경략(贊畫經略)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유황상(劉黃裳) · 병부주사(兵部主事) 원황(袁黃)이 마음 을 같이하고 서로 도우니 반드시 궁한 적을 섬멸할 것이다. 자문을 본국에 전하여 격려하고 권려하여 조목마다 설명하여 명백하고 간절히 하니 모든 인심이 있는 사 람이면 그 누가 감동하지 않으랴. 또 접견하던 날에 초집(招集)하는 말을 들으니. 전봉(前鋒)의 열 줄 편지를 두루 팔방 사람에게 통유(通論)하는 것이니 너희 각 도 (道)의 대소관사 및 초야에 있는 충의의 선비들은 각각 충성을 분발하고 힘을 내어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죽어서 혹 의병을 모아서 관군을 돕고 혹 호걸들을 깨우쳐 서 왕사(王師)를 맞도록 하라. 혹 적의 돌아가는 길을 막고 혹 양식을 운반하는 길 을 끊어 모든 기밀에 마땅한 것을 모두 들어 편안하게 처리하라. 아아! 신(神)이 보내는 바람과 티끌도 혹 오늘의 충절을 본받고, 연기와 구름 같은 그림에 함께 만세의 공훈을 누릴지라. 이에 교시하노니 마땅히 알아서 행하라.

정월 10일

제독 패문(提督牌文)

제독부(提督府)에서 국법을 신칙하기 위하여 게을리하는 일을 경계하여 유시(諭 示)하노라. 공손히 성명(聖命)을 받들고 너희 조그만 나라가 왜의 침입을 받아 군 신이 파천하고 인민이 도망한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대장에게 명하여 각 진의 관 군을 거느리고 멀리 바다와 산을 넘어 위태롭고 약한 자를 구원하고자 12월 25일 에 강을 건너왔더니 체찰 조선국 수신(體察朝鮮國首臣) 유성룡 · 유두수 등은 와신 상담하여 부끄러움을 씻고 적을 없앨 마음을 먹지 않고 사사로이 방에서 잔치하고 편안히 있으면서 술을 마시고 스스로 즐기고 있으니 이는 비단 천조(天朝)를 업신 여기는 것뿐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예에 어긋나고 가 르침이 없는 것도 자못 심하다. 또 관병은 들에 주둔하고 밖에서 자면서 목숨을 버 리고 몸을 내던져서 평양을 이겨 회복했으니 가위 너희들은 나라가 없다가 있게 되었고 집이 없다가 집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과실을 숨기고 양식이 없고 풀이 없는 것만 허물하고 군기를 어기고 만홀히 여기면 우리는 군사를 거두어 돌 아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있던 자가 다시 나라가 없게 되고 집이 있던 자가 계속해서 집이 없게 될 것이다. 본부(本府)는 성품이 충정하고 정성으로 주장을 삼 아 조그만 허물을 가지고 마음에 두지 않고 굳게 조강(朝綱)의 대체를 가져서, 군 사를 평양에 주둔하고 계획을 세워 때에 따라서 군사를 내어 기회를 헤아려 승리 를 거두어 너희들의 집과 나라를 편안케 하고 바로 일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 기를 기다려 전지(傳旨)를 내리고 복명하겠기로 이 패문을 보내노라, 바라건대 조 선국의 대소배신들은 전해서 알도록 하고, 수신(首臣)은 급속히 부(府)에 나와 의 논을 듣고 나가서 기회를 잡아 처리하고 또 응용해서 실행토록 하라. 만일 다시 만 홀히 여기고 어긴다면 반드시 정법을 써서 중하게 경계하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 을 것이니 모름지기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윗글은 이 제독이 우리나라 신민들을 신칙하고 경계한 패문.

敎書(교서)

왕은 말한다. 국가의 운수가 불행하여 사나운 적이 나라 안에 가득하니 군부의 원 수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원로들이 오랑캐 밖에서 일어났으니 어찌 중임(重任) 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기이한 공을 세우게 하지 않는가. 돌이켜 보건대 나는 차고 얇은 바탕으로 이 어렵고 큰 사업을 맡아서 근심하고 애쓴 지 25년에 계획을 비록 굳은 근본에 두었으나 직무를 게을리한 2백 년에 준비가 그늘지고 비 내리는데 앞 서지 못했다. 어찌 뜻했으랴. 왜적이 생각 밖에 갑자기 변방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고 뱀과 돼지가 되어 동남쪽을 먹어들어 가 그래와 도룡용을 놓아 바로 기호(畿湖) 를 점령하니. 길게 몰아오는 형세를 누가 막으랴. 동관(潼關)이 가서(哥舒)♡를 믿 을 수 없고. 굳게 지킬 계획이 이미 없어졌으니. 하남은 어찌해서 점한(粘罕)13에 게 핍박을 당하는가, 잠시 파천하는 단부(會父) 목 따 본받고, 거의 북방에 당(唐) 나라를 일으킬 계획을 했다. 한도(漢都)의 성지의 형편을 갑자기 하룻저녁에 잃었 고, 용만[의주]의 서리와 눈에 파천한 지가 이미 세 계절이 넘었다. 여러 도(道)의 조용히 사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안정시킬 기약이 없는 것이 민망스럽다. 오히려 다 행한 것은 인심이 분한 것을 생각하니 가히 하늘 뜻의 흥하고 쇠하는 것을 점칠 만 하다. 시골을 결속시켜 원수를 같이 갚으려 하니 근왕병(勤王兵)이 다투어 여러 고 을에서 일어나고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하여 함께 일어나니 적을 평정하는 것이 이

¹² 가서(哥舒) : 당(唐)나라 가서한(哥舒翰). 대마다 안서(安西)에 살아서 재물을 경히 여기고 협기(俠氣) 가 있고 춘추(春秋)를 읽어 대의(大義)를 알았다. 안녹산(安祿山)이 모반하자 병마원수(兵馬元帥)로서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했다.

¹³ 점한(粘罕) : 금(金)나라 경조(景祖)의 증손 완안종한(完輝宗翰)의 본명. 젊었을 때 용맹스럽다는 이름이 있어 태조(太祖)를 따라 요(遼)를 쳐서 달로고성(達魯古城)을 함락시키고 황룡부(黃龍府) 50여 주 (州)를 빼앗았다.

¹⁴ 단부(亶父): 주(周)의 태왕(太王) 고공단부(古公直父). 왕계(王季)의 아버지. 처음에 빈(洲)에 살았는 데, 적인(狄人)이 침입하자 기산(崎山) 밑으로 옮기니 빈(洲)의 사람들이 모두 따라오므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기틀에 소속되었다. 어느 사람이 계획을 옳게 하지 못해서 군사의 정세를 서로 잃 게 했는가. 모두가 무리를 이끌고 스스로 방위하니 누가 즐겨 병진(兵陣)에 임해서 서로 돕겠는가, 시체를 실으면 반드시 흉한 것이니 큰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이 괴이 할 것이 없고 군사가 법이 있게 나오니 어찌 추한 오랑캐를 반드시 섬멸하기가 어 려우랴. 어쩌면 대신과 함께 가서 여러 군사의 절제를 통솔할까. 늙은 신하에 넘 지 않는 자는 오직 정성이 실로 내 마음에 있도다. 어찌 묘재(苗裁)가 있는 것을 근 심하리. 아아! 이 또한 여럿이 행동하는 데 있도다. 오직 경(卿)은 양조(兩朝)의 늙 은 옛 신하로서 일생 동안 맑고 충성스러웠다. 군문(君門)에 세 방법을 말하며 일 찍이 한(漢)나라 조정의 제일을 이루었고 태부(台府)에 백 가지 계획을 아뢰어 아 직도 주실(周室)의 노성(老成)함을 의지했다. 바야흐로 일을 맡겨서 다스림을 도모 했더니, 갑자기 병을 핑계하여 물러갔다. 난리에 생긴 병이라 생각했더니 늙은 병 이 이미 깊은 것을 어찌하라. 늙은 나이에 범과 표범을 막으니 분문(奔間)의 반열 에 가지 못하고 군신의 큰 의리를 생각하니 어찌 광복의 정성을 늦추랴. 이미 호서 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말을 들었거니 어찌 경기에서 취하지 않으리, 돌이켜 보건 대 서울은 근본의 땅인데 흉하고 추한 비린내 나는 고장이 되었다. 물고기에게 의 관을 주었으니 문물이 마땅히 적의 손에 물 더러워질 것이요 깃발을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니 하늘의 토벌이 어찌 백성들의 심정에 순응하지 않으랴. 일은 진실로 먼 저 중하고 뒤에 경한 것이 있는 것이니 경(卿)은 마땅히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 하도록 하라. 이에 경(卿)에게 도체찰사를 제수하노니 모든 각처의 의병들은 모두 경(卿)의 절제를 받을 것이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자 및 기의(機宜)를 잃는 자는 일체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니 내 뜻을 들어 다시 그 마음을 다하게 하라. 배도도통 (裵度都統) 5의 깃발을 세워 여러 군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고, 조적(相談)의 중류 (中流)의 돛대를 쳐서 이 가는 길을 쓸어 깨끗이 할 것을 맹세하라. 차라리 삼령오 신(三令五申)16을 소홀히 하려 할지언정 기어이 육보(六步) 칠벌(七伐)17을 허물하지 않는다. 서로 계속하여 적을 섬멸하여 먼저 만전의 계획을 정하고 정예를 다하여

¹⁵ 배도(裴度) : 당(唐)나라 증기(中期)의 재상, 회서(淮西)의 난을 토평(討平)한 공로로 진국공(晋國公)에 봉해지고 벼슬이 증서령(中書令)에 이르렀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먼저 쳐서 기어코 한 번 싸움에 승리를 취하게 하라. 한쪽 갑옷도 그대로 돌아오게 하지 말고 내가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급히 맞도록 하라. 이제 내가 어찌 감히 말을 많이 하랴. 오직 경은 오히려 직책을 다하라. 아아! 종묘와 사직의 부끄러움을 씻지도 못하고 생령의 화가 더욱 심하여 예의도 봉한 나라의 요망스런 기운을 작 오늘날에 씻고 산하가 대려(帶礪)¹⁸하니 뛰어난 훈공을 다음날에 정할 것을 기약하노라. 까닭에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생각건대 이미 알아서 할 것이리라. 위는 건의대장 심상(沈相)(심수경(沈守慶)) 의병 도체찰사에게 주는 교서.

기의촉구문(起義促求文)

충청도 우도 유생(忠淸道右道儒生) 생원 이해(李菱) 등은 삼가 두 번 절하고 심 상 공 합하(沈相公閣下)에 글을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여러 주현(州縣)에서 다투어 의병을 일으켜 흉한 적을 섬멸하는데, 모두 말하기를 군사는 주장이 없으면 어지럽다고 하여 무리의 의논이 미연히 공(公)을 따르는데 공은 이를 차마 버리시겠습니까. 합하께서는 지위가 이미 지극하시고 나이가 이미 저물었으니 비록 조정에서 능히 억지로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합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변신(邊臣)이 법도를 잃어 바다의 적이 맘대로 날뛰어금탕(金湯) 만리에 세 서울이 함락되어 임금의 수레는 파천을 하고 군사들은 여러번 패하여 종묘와 사직은 빈터만 남았고 인민들은 도륙을 당하여 기자(箕子)가 봉해준 나라는 오랑캐의 고장이 되었고 적자(赤子)들은 변해서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보니 줄어들어서 땅이 없는데, 오직 다행히 호서(湖西)의 반 길이 겨우 기왓장 부스러기가 되는 것을 면했으니, 이 어찌 조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우리의 한 지방을 도와서 이것으로 일려(一旅)의 터전을 이루어

¹⁶ 삼령오신(三令五申) : 자주 되풀이하여 훈령(訓令)을 내려 신칙한다는 뜻으로 성의를 다하여 타이른다는 뜻.

¹⁷ 육보칠벌(六步七伐): 자주 적을 친다는 뜻으로 쓰임.

¹⁸ 대려(帶礪) :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국토(國土)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신(功臣)의 집은 영구히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을 대려의 맹세라 한다.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있 고 힘을 낼 선비가 모두 대의를 잊어서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겁을 내어 칼날이 닿 는 곳에 싸우지 않고서도 무너져서 드디어 성주(聖主)로 하여금 서관(西關)에서 근 심하시게 하고 흉한 무리가 한 지방에 내닫게 했으니 진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은 포의(布衣)의 선비로서 재주는 소활하고 힘은 적어 능히 공을 세우지 못 할 것이나 오히려 스스로 심담(心膽)을 떼 내고 긁어서 만사일생(萬死一生)의 계획 을 세워 향병(鄕兵)을 모아 합쳐서 겨우 수백 명을 얻었더니, 호상(湖上) 수십 군 (郡)의 남자들로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자가 있어 기약함이 없어 역시 1, 2천 명 이 넘습니다. 시작은 비록 오활하고 성기지만 오직 정성만은 하늘을 감동시켰사오 니 이를 절제하는 것은 실로 합하에게 있사온데 합하의 뜻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 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공으로 장수를 삼으려는 것은 합하의 평생 동안의 큰 절개가 족히 일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군사를 알기로 한 세상에 알려져서 난리 가 일어난 처음에 대의(臺議)가 아뢰어 체찰사의 책임으로 천거했었는데 조정에서 그 늙은 것을 민망히 여겨 그 의논이 중지되었었으나 성의(聖意)는 일찍이 잊지 않 으셨습니다. 그 후 창황할 때 합하께서는 성가(聖駕)가 나가시는 것을 잃었으니 이 는 합하께서 밤과 낮으로 울면서 잠자는 것과 음식을 잊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힘을 가지고 원문(轅門)에 절개를 세워서 백수(白首)의 원수(元帥)가 되시면 사람 들이 우러러 사모할 것이요. 성주께서 들어 아시면 원로의 충성과 기절이 늙을수 록 더욱 독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남쪽을 돌아다볼 걱정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 다. 그렇게 되면 쇠약한 걸음을 펴시어 더욱 만절(晩節)을 더욱 힘써 힘을 다하여 죽기 전에 나라에 보답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합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공께 서 만일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그 사직에 어찌하시며 생령에 어찌하시렵니까. 합하 께서 이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사온데 저희들은 진실로 이것을 괴이하게 여기다가 오래될수록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장차 시세가 좋지 않아서 혐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사를 모으고 무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국가 가 위급한 날과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나라에 이로운 일 이면 황급히 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성을 연한 수재(守宰)와 진(陣)을 연한 여러 장 수들이 군사를 데리고 스스로 보호하면서 서성거리고 나가지 않는 자들이 합하의 분발하는 충의를 보고 졸지에 일어선다면 모두가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어 게으 른 자도 일어서고 미련한 자도 격앙되어서 다투어 서로 합하의 명령을 받아 마음 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서 호서(湖西)를 보존하고 기전(幾甸)에서 흉한 무리를 소탕 하고 임금의 수레를 고도(故都)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장하지 않겠습 니까. 저희들이 감히 합하께 사사로이 하는 말이 아니옵고 또한 나라의 형세가 의 뢰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하께서 기력이 비록 쇠하시나 정신이 열 배나 되 시니, 윤건우선(綸巾羽扇)으로 족히 스스로 지탱할 것이요. 팔진육도(八陣六韜)로 족히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니 인망(人望)이 소속되는 바를 막을 수가 없습니 다. 한 도(道)의 의병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오직 합하의 하시기에 달렸사온데 합하께서는 어찌 한 번 나오시는 것을 아끼시어 큰 의리를 저버리십니까. 방금 인 심은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고 하늘의 뜻은 순한 것을 도와서 중국 군사가 이미 서 관(西關)에 임해 있어 적의 형세가 와해되어 헤지지 못하오니 맑은 가을은 숙살(肅 殺)의 기운을 돕고 태백(太白)은 적을 멸하는 형상을 내렸으니, 큰 공을 이루기를 기약하는 것이 정히 오늘에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합하께서는 생각하시옵소서, 돌 아올 것을 생각하신다는 교서와 날로 바란다는 교지가 있으시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으며 어찌 슬프지 아니오리까. 이는 저희들이 밤중에 베개를 어루만지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추면서 창의(倡義)하고 무리를 모아서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위로 군부의 깊은 부끄러움을 생각하 시고 사림(士林)의 정성된 바람을 굽어 살피시어 뜻을 결정하고 한번 나오시어 때 의 어려운 것을 널리 구제하시면 종묘사직에 몹시 다행하고 신민에게 몹시 다행할 것입니다. 때가 위태롭고 일이 망극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9월 29일

심상 답서(沈相答書)

80세의 늙고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이 정신과 기력이 능히 일을 계획하지 못하니 이것이 하지 못할 것의 첫째요, 숨어 도망 다니는 사람이 조정의 명령이 없이 갑자 기 유생들의 청에 응하여 거의(擧義)하여 군사를 일으키면 사체(事體)에 편치 못하니 이것이 하지 못할 것의 둘째요, 조정에서 바야흐로 대신을 보내서 도내(道內)에 와서 군무(軍務)를 감독하는데, 일찍이 대신을 겪은 자가 초야에 숨어 엎드려서 사사로이 의병을 일으킨다면 명령을 받은 대신은 족히 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것이어서 사세가 미안하니, 이것이 하지 못할 것의 셋째요, 도내에 의병을 이미 일으킨 자가 하나둘이 아니어서 군량과 병기를 모두 각 고을에서 가져와서 소요스러운일이 이미 많은데 이제 또 따로 일으키고 보면 부득불 또 각 고을에서 가져와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견디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하지 못할 것의 넷째요, 적의 형세가 이미 쇠해지고 꺾인 것 같은데 이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역시늦었다고 할 수 있고, 적들이 만일 다시 이 도(道)를 침략하지 않는다면 의병을 장차 서울이나 딴 도(道)로 옮긴단 말인가. 그러지 않고 시일을 지체하면 한갓 각 관청의 물건만 소비하는 것이 되어 반드시 유익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하지 못할 것의 다섯째이다.

유생등주상서(儒生等舟上書)

유생들의 두 번째 올린 글에 말했다. 어제 다섯 가지 하지 못할 명령을 받자오니저희들의 의혹이 크옵니다. 80에 장수가 되는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모사(謀事)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늙고 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적을 섬멸하고자 한다면 어찌 병이 있는 것을 혐의하오리까. 선비가 거의(擧義)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가서 의병장이 되는 것은 어찌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진실로 명령을 기다린다면 이는 관병이요 의병이 아닌 것입니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어 관군을 감독하는 것과 상공께서 장수가 되어 의병을 절제하는 것은 관군과 의병이 그 형세가 각각 다르니 어찌 사사로이 일으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의병이 비록 많으나 모두 사람에서 나와 양곡이나 기계도 역시 모두 스스로 마련할 것이니 무슨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었습니까. 적이 왕성을 점령한 지일 년이 되었는데도 장차 그 형세가 날로 번지는데도 한번 습첩했다는 보고도 들리지 않아서, 길게 몰아갈 걱정이 조석으로 박두했는데 어찌 한 적이 조금 물러갔

다고 해서 꺾였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앞에 나오는 적을 쓸어버리고 또 기전 (畿甸)으로 나가 싸울 것이오며, 기전에서는 서북(西北)으로 이 소식을 전해서 임금의 행차를 서울로 돌아오시게 할 것이 곧 뜻하는 바이옵니다. 하오니 이번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또 어찌 늦었다고 하오리까.

10월 1일

제독현문(祭毒懸文)

하늘이 재앙을 내려서 흉한 적들이 틈을 엿보아 종묘사직이 빈터가 되고 임금의수레가 파천했으며 의관을 차린 선비들이 모두 칼날을 맞았고 조종의 강토가 모두 비린내에 빠졌으니 변고가 천고에 참혹하고 재앙은 마지막 해에 맺혔다. 군사들이여러 번 무너져도 분한 마음을 갖는 자가 없으니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썩어 분한 마음이 신민에게 지극하도다. 네 들에 보루가 많으니 한 하늘을 차마 이고 있겠는가. 명세의 글과 군사의 힘으로 가로 무너지는 것을 막았네. 싸움의 깃발을 겨우세우자 의병들이 구름처럼 모이네. 근왕(勤王)의 군사가 막히니 간담은 찢어지고임금은 욕되도다. 내가 정벌하는 것은 펴지지만 이를 바야흐로 열어 행해야 한다. 말 재갈을 들고 칼을 안으니 죽음이 있을 뿐 살 희망은 없네. 바라건대 우리에게신(神)이 있거든 오히려 비밀히 도와서 무위를 드날려 신속히 적을 평정하도록 하라. 다투어 흉한 무리를 쓸어버리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생령을 다시 편안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깊이 씻도록 하라. 이에 밝은 제사를 지내고 감히 그 사유를 고하는 것이니 신(神)은 이를 들으시고 신의 부끄러움을 짓지 마소서.

10월 20일

이제의병살서(移諸義兵撒書)

만 번 죽어도 뉘우침이 없으니 다투어 나라에 보답할 의병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공훈(功勳)이 있으니 마땅히 적을 토벌하는 병세(兵勢)에 합당하네. 감히 격문을 날려 멀리 혈성(血誠)을 고하노라. 전번에 하늘이 재앙을 내려 추한 오랑캐가 틈을 엿보아 나라 안의 길이 모두 끊어졌으니 누가 국가에 희망이 있다고 할 것이며,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세 도읍이 이미 무너졌으니 비로소 견고한 성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도다. 수 레를 타고 파천하니 종묘사직이 빈터가 되었도다. 의관이 사나운 짐승의 어금니에 물렸고 초목은 비린내 나는 피에 물들었도다. 오직 이런 큰 변은 옛날엔 없던 것 이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인심이 떠나지 않았고 성인의 은택이 아직 남 아 있다. 의병은 다투어 적개심에 불타고 여론은 죽음이 편안한 것에 감격한다. 강 개한 막부의 군사는 겨우 2. 3월이 지났고. 그림자와 소리처럼 의(義)에 나가니 백 만의 무리도 넘는다. 오직 우리의 의병장은 혹은 큰 선비요 높은 벼슬아치이며 혹 은 무부(武夫)요 건장한 장수이다. 눈물을 뿌려 회복을 도모하니 맹세코 적과는 같 이 살지 않겠고. 하늘을 우러러 주먹을 휘두르니 기필코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음 을 보여주리라. 막부 속에서 창을 베고 있으니 악무목(岳武穆) 의 충성스런 담(膽) 과 의로우 가(肝)이요. 장막 안에서 계획을 세우니 장유후(張留侯)20의 비밀한 계획 과 깊은 생각이다. 오랑캐 적은 소식을 듣고 저절로 꺾이고 강토는 해를 가리키면 서 거듭 회복된다. 그러나 성세(聲勢)만으로 서로 돕지 말라. 병력이 혹 한결같지 않기도 하다. 구름이 여러 진(陣)에 머물러 있으니 다만 한 모퉁이를 보존하고. 오 합의 여러 군사를 가지고 큰 계교를 도모하지 말라. 거의(學義)의 벽루를 서로 바 라보니 한 성도 수복되었단 말을 듣지 못했고. 군사를 일으킨 지 세월이 여러 번 옮겨졌는데 한갓 능히 약한 적을 섬멸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장수의 첫 뜻이 아 니었으니 조정의 기약했던 바에 어긋날까 두렵다. 나는 곧 세 조정에 은혜를 받았 으나 터럭만큼도 도움된 것이 없다. 대신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능히 자빠지는 것 을 붙들고 위태로운 것을 잡아주지 못하고. 전쟁의 말 사이에 몸을 숨기니 부끄러 은 것은 살기를 탐내어 구차히 사는 것이다. 원수의 하늘을 이고 있으니 낯이 없 고. 임금의 땅에서 먹으니 무슨 얼굴을 하랴 힘이 이미 없어졌으니 비록 복파(伏

¹⁹ 악무목(岳武穆): 남송(南末)의 충신 악비(岳飛). 무목(武穆)은 그의 시호(諡號). 금군(金軍)을 격퇴하여 공을 세웠는데, 당시 금나라와의 화의(和議)가 일어나 이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진회(泰檜)의 참소로 옥중에서 살해되었음.

²⁰ 장유후(張留侯): 전한(前漢)의 공신 장량(張良). 유후(留侯)는 그의 봉후(封侯)의 칭호, 자(字)는 자방 (子房).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이 되어 진(秦)나라를 멸망시키고 초(楚)나라를 평정 하여 한(漢)나라의 대업(大業)을 세웠음.

波)²¹의 말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우나, 충분(忠奮)이 격하는 바에 스스로 제갈량의 국궁(鞠躬)한 것을 기약한다. 억지로 쇠약한 병중에 일어나서 힘써 유림(儒林)의 처에 회답하노라. 이에 본월 28일에 아산창에 와서 진을 쳤다가 여러 진에 뒤따라 가서 맹세코 장차 우리 임금에게 보답할 것을 도모하려 한다. 모든 우리의 의리에 분발한 군사가 그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혹 능히 계획을 세워 형세가 합해진다면 어찌 힘이 약하고 군사가 쇠잔한 것이 근심되랴. 내 창을 수리해서 원수를 같이 쳐서 하란(賀蘭)²²이 둘러보는 것을 본받지 말고 수레를 정리해함께 가니 모두 신도(信徒)가 돌아오는 것을 생각한다. 힘을 내고 마음을 같이하여날짜를 약속하여함께 분발하라. 태산을 들어 앞을 누르니 흉한 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뜨거운 화로에 불을 피워 터럭을 태우니 적을 평정하는 일이 빠르다. 오랑케의 목숨이 어찌 오래이랴 거의 극복(克復)의 수혼(殊勳)을 세울 수 있고, 인심을 어찌 속이랴 속히 원근이 힘을 합할 것을 보겠다. 아아! 우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드문 공적을 마치도록 힘쓰라.

답건의장비(答建義將批)

태공(太公)이 목야에서 명성을 드날리고 노공(潞公)이 종일 시립(侍立)한 것은 모두 80이 되었을 때이다. 경(卿)의 나이 80세에 나라의 일을 장개히 여겨 창의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니 그 견문에 족한 일이 많다. 경은 명성과 지위가 이미 높아서 여러 곳의 의병이 스스로 통속(統屬)하는 것을 맡았으니 나라의 일에 있어서 만일 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인신(印信)을 역시 만들어 보내니 경은 호령에 따라 체모를 지키도록 하라. 이같이 교지를 내린다.

- 21 복파(伏波): 후한(後漢)의 정치가 마원(馬援). 복파장군(伏波將軍)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파(伏波)라 부른다. 광무제(光武帝)를 섬겨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음.
- 22 하란(賀蘭): 당(唐)나라 사람 하란진명(賀蘭進明). 숙종(肅宗) 때 하남절도사(河南節度使)가 되어 임회(臨淮)에 주둔했을 때 수양(唯陽)에서 포위를 당한 장순(張巡)이 남제운(南齋雲)을 보내어 구원병을 청했으나 진명(進明)장군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하여 보내지 않았음.



갑오일록 | 甲午日錄

7대손 태로(泰魯)가 첩(貼)을 만들어 소중히 간직할 셈으로 감히 두 장을 빼내고 다시 손수 베껴서 세웠다. 때는 계미 정월 27일이었다.

정월

1일, 옥여(이귀)가 전주로부터 비로소 도착했다. 여헌(汝獻)(이실(李實))도 역시 서 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되다. 여헌이 올 때 임천에 들려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임천 군수는 곧 그의 외숙이다. 거기에서 두 번이나 내 처자를 가보았다 한다. 집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기에 보니 병을 면했다고 한다. 다만 윤겸의 장인[이응화]이 순 천에서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죽었고. 그의 서자 이 생(李生)도 또한 빠져 죽었는데. 언실은 겨우 떠서 헤엄쳐 육지에 올랐으나 그 때 문에 병이 나서 7일 만에 죽었다고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노모 와 처자들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더욱 근심이 된다. 유겸은 그 상구(喪板)를 호송 해 오는 일로 순천으로 향해서 입산(入山)에 들렸을 때. 마침 옥여가 부(府)에 갔다 가 서로 만나서 그의 만류로 석 달을 머물러 있다가 정시(庭試)를 본 뒤에 떠나갔 다 한다. 정시에 참석한 자는 모두 아홉인데 장원한 자는 윤길(尹咭)이라 한다. 또 광주에 사는 유생 김덕령(金德齡)은 용력(勇力)이 뛰어났는데 스스로 천거하여 왜 를 쳐서. 의병을 모아 가지고 광주 담양 · 장성과 약속을 맺었는데 장성은 전혀 일 을 주장했고, 마땅히 이달 안에 군사를 거느리고 영남으로 향할 것이라 한다. 성공 의 여부는 비록 미리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됨이 사람에 지니는 재주가 있고. 또 한 음부(陰符)의 술(術)이 있어서. 동조(東朝)에서 익호장군(翼虎將軍)이라는 호를 내렸고, 또한 전마(戰馬)와 군장 등 물건을 하사하고 여러 번 인견하여 말씀을 매 우 후하게 했다고 한다. 또 옥여가 저녁에 나와서 함께 방안에 앉아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술 석 잔을 마시고 파하니 밤이 반이 지났다. 같이 자리에 있던 자는 조 정자 익 및 숙훈·여훈·여경과 주수(主倅)의 외삼촌 권대순(權大詢)·이복흥·이 생원 정일(精一)과 나였다.

2일.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나주 땅 여황리(艅艎里)에 이르러 정 생원 문겸(文兼)의 종의 집에서 잤다. 어두운 뒤에 정 공(鄭公)이 나와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돌아갔다. 정공은 곧 전 목사 척(惕)의 둘째 아들이라 한다.

3일. 일찍 떠나서 한 식경쯤 오다가 아침밥을 먹고, 나주 서문 밖에 이르러 먼저 송노를 시켜 옥여의 편지를 목사에게 올리고 서문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송노가 잘못 남문 밖으로 나가서 찾을 수가 없어 피차에 만나지 못하고 해가 저물 었다. 또 문에 출입을 금하는 것이 몹시 엄해서 문을 나간 후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부득이 저녁밥을 지어서 먹으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서문 안에 사는 전일에 자던 집주인이 내가 문밖에 와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문밖으로 나와서 나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나를 그 방에 재우고 나에게 좋은 술을 대접하니 가위 후하다. 이 참군 뢰(養)가 먼저 목사에게 있다가 역시 내가 여기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밤이 깊어 만날 수 없으므로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

4일, 이른 아침에 사람을 양필(良弼)에게 보내서 청했더니 양필이 즉시 와 보는데, 일찍이 이는 불의의 일이어서 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술과 생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고기를 굽고 술 두 잔씩을 마시고 파했다. 늦게 식사를 한 후에 떠나서 두 번이나 말에게 꼴을 먹이고 달려서 노암(露巖) 서문 밖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임 진사(林進士)의 비부(婢夫) 임명수(林命守)의 집에서 잤다. 명수의 처 돌장(乭壯)은 젊었을 때 진사가 데리고 와서 서울집에서 사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왔다 하므로 섬기기를 그 상전처럼 한다. 즉시 저녁밥을 짓고 또 이웃집에서 술을 가져다가 나에게 대접한다. 다만 말에게 줄 콩을 삶는데, 다 삶아지기 전에 마침 굶주린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것을 엿보고 반이나 훔쳐갔으니 비록 지나치다 하겠으나 기한이 절박해서 그랬으니 한편으로 가련하다. 종들이 때리려 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켰다.

5일. 날이 밝자 떠나서 구림에 이르니 해가 월봉에 겨우 한 반쯤 올라왔다. 들어가 어머님께 뵈니 기쁨과 위로됨이 모두 지극하다. 어머님 얼굴은 전과 같으시고, 식사는 더하시며 별로 병환이 없으시니 더욱 몹시 기쁘다. 다만 적의 소식이 장차 호

남으로 향할 것이라 하고, 또 막히고 미안한 일이 많으므로 어머님을 모시고 이달 안에 호서로 돌아갈 계획이나 다만 봉양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려 하신다면 막을 수가 없다. 식사 후에 최 생원 심원(深源)(집(潗))·권 생원 순(淳)·임 진사 현(眼)과 나와 아우가 요월당에서 이야기하다가, 아우와 함께 주인집에서 자는데, 심원이 술을 가지고 와서 보고 밤중에 파하고 돌아갔다.

6일. 아침 식사 후에 요월당에 나가서 심원 · 권 · 임 두 진사 · 남백형(南伯馨)과 나, 그리고 아우와 5, 6명 소년과 함께 저녁내 이야기했다. 경흠이 나에게 벼 한 섬을 주었는데 찧어서 목화와 바꿀 계획이다. 또 어제 김창수(金昌壽)가 들렀는데, 그편에 들으니 자정[김지남]이 한림이 되었다니 기쁘다. 창수는 곧 자정의 사촌으로서 예산에서 오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것이다. 전일에 들으니 한원에서 천거했다고 해도 그 사실인지 자세치 않더니 이제 비로소 그 확실한 것을 알겠다. 김 공(公)은 강진으로 향했다.

7일. 식사 후에 요월당에 나가서 권 생원 순·임 진사 현·최 생원 심원·이웃에 사는 박준 형제·박경행과 우리 형제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심원과 임자승(林子昇)은 정경도를 던져 승부를 내기해서 종일 놀았다. 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는다. 어두워서 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남백형이 학질을 피해서 역시 와서 같이 잤다.

8일. 백형이 학질이 떨어져서 일찍 그 집으로 돌아오고, 나는 아우와 함께 뒤따라왔다. 지난밤에 큰 바람이 불어 집이 흔들려서, 지붕이 걷히고 울타리가 자빠지더니 새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친다. 방이 너무 더워서 밤새도록 뒤적여서 도리어 풍한에 상하여,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자못 편안치 못하다. 오후에 임자중(林子中)(임환)이 나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크게 취하여 돌아오는데, 최심원도 따라서 왔다. 내가 취해서 가기 때문에 아우는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오늘 참석한 자는 남백형 · 권화보(權和甫)(관(瓘)) · 최심원 · 유선(柳璇) · 민우중(閔友仲) 형제 및 소년 3, 4명과 우리 형제였다. 유선은 전 선전관(宣傳官) 유형(柳珩)의 사촌으로서 형(珩)의 집에 와서 먹고 있다가 마침 와서 참석했

다. 성질이 자못 괴팍스러워서 사람들이 모두 꺼렸다. 우연히 심원과 서로 다투다가 큰소리로 꾸짖고 욕하니 우습다. 백형이 먼저 일어나므로 나도 역시 그를 따랐다.

9일. 저녁내 비가 내렸다. 요월당에 나가서 백형·화보·자승(임현)과 종일 이야기하는데, 자승이 구운 산돼지고기와 술 한 그릇을 내와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돌아왔다. 말을 심원의 집에 보내서 끌어다가 누이의 집에서 술과 안주를 얻어다가 각각 네 대접씩을 마시고 각각 심사를 이야기하다가 밤이 반이 넘어서 돌아왔다. 또 어제 경흠이 순천 방답첨사(防踏命使)의 진(鎭)에 갔는데, 비가 이처럼 내리니 필경 중로에서 체류할 것이다.

10일. 지난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월봉(月峯)이 모두 희어졌는데, 아직도 개지 않고 혹 눈이 뿌리기도 하고 혹 바람이 불고 길이 질어서 떠날 수가 없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됨이 끝이 없다. 처음에는 내일 능성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장흥 노비들에게서 신공을 받기 위해서였다. 아침 식사 후에 요월당으로 나가서 심원·백형·화보·자중·자승·인중과 우리 형제·4, 5명의 소년들이 함께 종일 이야기하는데, 자중의 조카 임탄(林坦)이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같이 마시다가 해가 저물어서 각각 헤어졌다. 큰 바람이 불고 저녁내 음산하다.

11일. 식사 후에 요월당에 나가서 심원·백형·자중·신중·화보·여러 소년들 5, 6명과 우리 형제가 종일 이야기했다. 자중과 심원의 무리는 편을 갈라 활을 쏘아서 진편이 술과 안주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자승의 편이 져서, 자승이 술 한병을 내와서 마셨다. 어두워서 심원이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또 경흠이 준 벼를 찧었더니 쌀이 6두 7승이다. 이것으로 목화 37근을 바꿨다. 누이가 준 목화 10근과 전일에 가져온 베개모를 팔아서 또 7근을 얻었으니 모두 54근이다. 종들을 시켜 씨를 빼게 했다. 또 쌀 닷 되를 주고 철편 2근 12량을 샀다. 이것은 말의 자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들으니 어제 암행어사가 군에 들어왔는데, 반드시 들은 바가 있었었을 것이므로 친히 태수가 사 둔 집으로 가서 잘못을 조사한 후에 죄수들을 나주로 옮겼다 한다. 태수의 성명은 김성헌(金聲惠)인데 오래 민심을 잃고 또 재물을 많이 탐해서 군내 가까운 곳에 큰 집을 샀으며, 또

관고의 물건을 내다가 두 배에 가득 실어서 먼저 영광에 사는 일가의 집으로 보냈고, 또 곡식을 내다가 성안 인가 십여 곳에 두었다. 이는 모두 미리 파면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조치한 것이라 한다. 지금처럼 나라 재정이 기울어 없어진 때에 조정의 어려운 뜻을 생각지 못하고 생민들을 들볶아 탐내고 거두기를 말지 않은 것이 이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죽인들 무엇이 아까우리오. 또 떠도는 사람들의 노비를 많이 샀고, 쌀을 내다가 나무를 사 둔 것도 또한 많다고 한다. 곡식을 도둑질한 것이 거의 천석에 이르고, 배에 실어 둔 물건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 도(道)에서 관물을 도둑질한 것이 매우 많은 자는 영광군수 신상절 (申尙節)과 태인군수 박문영(朴文英) 및 영암군수 김성헌이 더욱 심하다 한다.

12일. 요월당에 나가서 백형·심원·자중·화보 등과 종일 이야기하면서 혹 과녁도 맞히고 혹 정경도도 던져서 놀이로 삼았다. 정 생원 문회(文晦)도 또 왔다. 서울 있을 때 임자승과 사귀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13일. 요월당에 나가서 여럿과 이야기하는데, 자승과 정 공이 편을 갈라 과녁을 맞히는 것으로 술내기를 해서, 자승의 편이 졌기 때문에 술을 내서 함께 마셨다. 사람은 많고 술은 적어서 다시 얻어다가 마시고자 하여 날더러 누님에게 구하라하므로 또 좋은 술 한 병을 얻어다가 각각 두어 잔씩 마시고 파해 돌아왔다.

14일. 저녁내 큰 바람이 불어 추위가 겨울날보다 갑절이나 더 맵다. 식사 후에 요월당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다만 갓에 옻칠한 것이 벌써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르지 않으니, 필시 좋지 못한 옻인 모양이어서 장차 버릴물건이 될 것이니 몹시 민망스럽다.

15일. 정 생원 문회가 식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오늘 비로소 들으니 정 공의부인은 고 윤인제(故尹麟節) 은경(殷卿)의 따님이라 하니 나에게는 8촌 누이가 된다. 또 지난밤에 큰 눈이 내려서 거의 3, 4치나 쌓이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그치지않다가 늦은 뒤에 비로소 갰다. 또 오후에 민 참판 부인이 서울로 떠나는데, 그 딸과 서로 작별할 때에 서운해서 떠나기 어려웠다 한다. 인정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비통하지 않으랴. 자승이 모시고 나주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또 내일에는 남백형도 역시 북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둘 때 심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백형·자

중·화보 임달(林恒) 및 우리 형제와 함께 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 파하고 흩어졌다. 아침에 종을 영암군에 보내서 조도어사의 소식을 물었더니 먼저 글은 비록 도착했으나 아직 정식 기별은 없다고 한다. 나도 또한 부득이 모레에나 능성에 갈 작정이다.

16일. 남백형이 처자를 데리고 떠나는데, 나는 아우 및 자중·심원·화보와 함께 요월당에 모였다가 중문 밖에 나가서 작별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임천 내 집에 전하게 했다. 또 요월당에 나가서 여러분과 저녁까지 이야기했다. 또 씨를 뺀 목화를 다시 달아보니 8근 8량이요, 씨 빼지 않은 것은 18근이다. 내일 능성에 가기 때문에 아직 어머니 방 곁에 두어두었다가 온 뒤에 씨를 뺄 계획이다. 또 저녁에 민우안(閔友顏)이 와서 심열의 편지를 전한다.

17일. 흐리고 바람 불면서 또 눈이 내리다가 늦은 아침에 비로소 갰다. 종과 말을 거느리고 떠나서 나주 땅 내상리(內上里) 진도팔번정병(珍島八番正兵) 승강수(昇康守)의 집에 와서 잤다. 주인이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마초와 김치를 준다. 또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 준다.

18일. 날이 밝자 떠나서 남평 땅 철야리(鐵治里)의 무인(武人) 서극철(徐克哲)의 집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는데, 서 공(公)이 나와 본다. 이웃에 사는 유생 정현이 마침 왔는데, 그는 곧 임경흠의 족친이다.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파했다. 두고개를 넘으니 길이 질어서 간신히 능성현 안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녁이 되었다. 주수(主倅)는 아내(衙內)로 들어가서 이름을 통하지 못하고 관노(官奴) 낙수의집에서 잤다. 주인이 마초와 김치를 역시 준다. 다만 객방(客房)이 없어서 찬마루에서 자노라니 새벽에 찬 기운이 뼈에 스며들어 잘 수가 없어서 민망함을 말할 수가 없다. 또 문금(門禁)이 몹시 엄하다고 하니, 만일 이름을 통하지 못하면 내일은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으니 더욱 민망하다. 주인을 시켜힘써 이름을 통해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말하기를, 성명을 써 가지고 오면 마땅히형세를 보아 들어가게 하마고 한다. 주인은 곧 관청 고직(庫直)이다.

19일. 밤중부터 비가 내려 계속해서 큰 눈으로 변하여,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의 4, 5치나 쌓였다. 만일 녹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자가 넘겠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

기를 근래에는 이 같은 대설(大雪)이 없었다고 한다. 종일 날이 흐리고 때로 눈이 뿌린다. 홀로 찬마루에 앉았노라니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 또 태수는 근일에 기분 이 불편해서 오래 공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백 가지 계교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금이 몹시 엄해서 이름을 통할 수가 없다. 거짓 종에게 욕을 당한 일을 써서 들이고 성명을 통하기를 빌었으나 의례 잡아 오라고 써서 내보내고 전혀 불러 볼 뜻이 없다. 양식과 반찬이 이미 떨어졌으므로 부득이 주인집에서 꾸어 먹고, 내일 장에 가서 목필을 팔아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돌아갈 계획을 했다. 오늘은 바람이 차기가 갑절이나 더해서 냉방에서 잘 수가 없어 이웃집 늙은이의 방을 빌어서 잤다. 다만 사면 벽에 구멍이 있어서 바람을 막지 않아 찬 기운이 얼굴에 엄습해서 밤새 자지 못했다. 그러나 냉방보다는 백 번 났다. 만일 이 방이 아니었던들 반드시 큰 병이 났을 것이다. 이번 길에 고초를 당한 모양은 형언할 수가 없다.

20일. 주인집에서 쌀 두 되를 빌어서 아침밥을 지어 먹고, 막정을 보내서 관청에 가보게 했더니 와서 보고하기를, 객사에 양 좌랑(楊佐郎)의 행차가 와서 잤다고 하는데, 이는 곧 양사형(楊士衡)으로서 일찍이 아는 처지이다. 즉시 빈관(賓館)으로 가서 이름을 통했더니 즉시 사람을 시켜 맞아들여 상방(上房)으로 나와 보는데, 유생원 표(彪)도 또한 왔다. 유 공은 곧 윤겸의 친구로서 서로 아는 터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다가 양 공을 시켜서 태수에게 이름을 통했더니 태수는 즉시 아헌으로 맞았는데, 금성정이 마침 왔고, 태수의 아우 박이린(朴以麟)·이봉(以鳳)·이난(以鸞) 등도 또한 모여서 이야기했다. 금성정는 곧 나의 처사촌이요, 여러 박(朴)은 또한 황간에 사는 동고향 사람들이다. 또 태수의 큰아들 사군(事君)은 곧 남경제(南景梯) 형의 사위로서 형의 딸도 역시 아내에 와 있다가 사람을 시켜 나에게 문안한다. 그에게 백원(白源) 형의 부인의 죽음이 확실한 것을 들으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저녁에 양 좌랑에게 가서 보고 상방에서 같이 자면서 밤새도록 옛이야기를 했다. 양 공(公)은 동조(東朝)의 명령을 받고 진주의 전망장(戰亡將)인이 고을에살던 병사 최 공 경회(崔公慶會)의 영(靈)에 제사 지내고 그 길로 순천으로 향한다한다

21일. 아헌에서 유표(柳彪) 및 여러 박(朴)과 혹 바둑도 두면서 종일 이야기했다.

오후에 태수도 또한 헌방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태수는 나로 하여금 헌방에서 자게 하므로 유 공(公)과 같이 잤다. 회덕에 사는 태수의 처사촌인 상인(喪人)송정준(宋廷俊)도 역시 함께 잤다.

22일. 태수가 아헌에 나와서 종일 방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작별하고 돌아갔다. 태수가 백미 2두·정미 5두·콩 5두·벼 1석을 주었다. 태수는 관고의 저축이비었다 하여 오는 손님도 접대하지 않고 또 행자도 넉넉히 주지 않았다는데, 이제나에게 준 것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특별히 큰 손을 쓴 것이라 하니 우습다. 또 유 공(公)과 헌방에서 같이 잤다. 박사군(朴事君)의 아내가 나에게 우포 6조각을 주어 행찬(行饌)으로 쓰라고 한다. 마침 반찬이 떨어진 터에 몹시 기쁘다.

23일. 날이 밝자 떠나서 몇 리를 가지 못했는데, 울타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있는데 어미를 부르면서 슬피 운다. 이웃 사람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어 제저녁에 그 어미가 죽어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라 하니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 겠다. 자애로운 하늘은 비록 금수같이 미련한 것이라도 죽이지 않는 법인데, 가장 신령스러운 사람을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르게 했으니 지극한 곳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또 전일 양 좌랑에게서 들으니 육지의 적들이 호서에서 크게 번져서 심지어 이문(移文)에서 불손하지 못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궁이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전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우리 식구들은 임천에 있어서 근일의 안부를 알 수 없으니 민망하고 걱정됨 을 어찌 말하리오. 노모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왜적은 아직도 변방의 성을 점령하고 있고, 토적 (土賊)은 또한 성안에서 일어나서 궁하고 주림이 날로 박도하고. 생령이 날로 굶주 려 죽어 나가니. 나도 또한 머지않아서 구렁을 메울 것이다. 저 푸른 하늘이어. 어 찌 차마 이렇게 하는가, 남평 땅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떠나서 서 내금(徐內禁) 극철(克哲)의 집에 들러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서 공(公)과 한참 이야기했다. 서 공 은 곧 전일 올 때 아침밥을 먹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처지이다. 또 떠나서 십 리도 못 갔는데 말이 피로해서 가지 못하므로 부득이 남평 땅 오림리 서원 황대(黃大)의 집에서 더운 방을 빌려서 잤다.

24일. 밝기 전에 떠나서 나주 땅 원정리 길가 인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다만 붉은 말이 몹시 피곤해서 십 리도 못 가서 문득 서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걸어가자니, 오늘은 필경 구림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 몹시 민망스럽다. 아침 식사 후로 붉은 말이 더욱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서 영암군까지 가자니거의 한 식경이나 걸렸다. 먼저 막정을 시켜 군의 서문 밖에 들어가 자게 하고, 나는 막정의 말을 타고 두 종을 데리고서 해가 저물어서야 구림에 이르러 어머님께 뵈니 아직 강녕하시다. 경흠은 나를 자기 방으로 맞아 산돼지고기를 대접하고 술두 잔을 마시게 한다. 이에 밤이 깊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월당으로 가서 임 진사 현과 같이 잤다.

25일. 종일 요월당에서 여러 소년들의 정경도놀이를 구경했다. 희철(아우)의 종 춘희가 태인에서 돌아왔는데, 빌려 타고 갔던 말이 피로하여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나주 땅에 버리고 왔다 한다. 언명(아우)이 가는데 말이 없어 형세가 타고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저녁에 막정이 왔는데, 붉은 말을 집주인 임명수(林命守)의 말과 바꿨는데, 벼 13두·콩 1두·정미 6승·정목(正木) 1필을 더 주었다고 한다. 그 말을 보니 가죽 살이 좋을 듯싶으나 걷는데 어려워하니 다리에 병이 있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붉은 말에 비교하면 매우 좋다. 만일 이번 걸음에 무사히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역시 좋겠다. 어두워서 경흠이 우리 형제를 자기 방으로 맞아다가 이야기하고 술 석 잔을 주어서, 밤이 깊어서야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26일. 오늘 아침부터 우리 종들을 누님의 집에서 먹이지 않기 때문에 얻어 온 쌀로 저희들끼리 지어서 먹었다. 다만 양식과 반찬이 부족하여 필경 떠나기 전까지 대지 못할 것이니 걱정스럽다. 처음에는 29일에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 돌아가려 했었으나 비단 일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명이 내일 떠나서 태인 처가에 가는데 종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돌려보면 뒤에 떠나야 하니 그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내달 초생으로 미루어야겠는데, 반드시 오래 머무르는 것에 싫증이날 것이다. 비록 탄식하나 어찌하리오

27일, 언명은 태인으로 떠나고, 임자중(林子中)(임환)도 또한 나주로 가기 위해서

동행했다. 송노도 또한 씨 뺀 목화 12근 3량과 채문(彩文) 상자와 참빗 13개를 한주머니에 넣어 보내서 언명의 처가에 두어두게 했다. 막정은 또한 신공(身貢)을 받을 일로 장흥 노비들에게 보냈는데, 다만 언명이 탄 말이 피로해서 짐을 싣고 가지못할 터이라, 중로에 반드시 걸어서 갈 것이니 걱정이다. 또 자중이 목화 8근과 백저(白楮) 두 묶음을 주니 몹시 감사하다. 또 이 공 규빈(李公奎賓)이 어제 와서, 심원등과 요월당에서 함께 이야기했다. 국빈은 곧 경흠의 사촌 매부로서 피란해 영광에 와 있는데, 이곳에도 또한 농장 등이 있단다. 심원과 자승이 정경도를 놀아술내기를 했으나 종일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파했다. 무료한 것을 소견(消遣)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28일. 아침에 흐리고 비 올 조짐이 있다. 만일 비가 오면 언명이 반드시 중로에 머무를 것인데, 행자도 조금 가지고 갔으니 몹시 걱정된다. 우리 모자 형제가 각처로 떠돌아 살아서 형세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함께 다니지 못하니 더욱 탄식스럽다. 요월당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종일 이야기하다가 파하고 돌아왔다. 또 어두워서 삼촌 집종 근이가 서울에서 왔는데, 올 때 임천에 들러서 길에서 계집종 옥춘을 만났더니 말하기를, 윤해가 있는 집이 화적을 만나서 윤해가 알몸으로 겨우 화를 면해서 지금은 우리 집에 모여 있다고 하니 놀라고 탄심함을 이길 수가 없다. 유리하고 굶주리던 나머지에 또 이변을 당했으니 사람의 곤궁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는가. 천도(天道)는 길하고 흉한 것이 서로 바뀌는 법인데, 우리 집은 중년 이래로 몹시 흉하기만 해서 한 해도 소강(小康)한 때가 없다가 이제에 이르러 더욱 지극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오. 천운에 부칠 뿐이다. 다만 토적이 제멋대로 번져서 곳곳에서 난을 피워서, 이제 노모를 모시고 북쪽으로 갈 곳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고 걱정스러우나 이는 형세라 어찌하리오. 근이는 양이의 아우로서 그 부형을 보고자하여 내려온 것이다.

29일. 새벽부터 큰비가 내리고 겸해서 큰 바람이 불어 종일 쉬지 않더니 앞내가 불어 넘치어, 언명은 반드시 중도에서 머물러 비록 내일 비가 갠대도 여러 번 큰 내를 건너야 할 것이니 쉽게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진흙길을 걸어서 어떻게 간단 말인가. 민망하고 걱정됨을 이길 수가 없다. 저녁에 경흠이 나를 자기 방으로

청해다가 이야기하고, 술 4, 5잔을 마셔 크게 취해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웃에 사는 사인(士人) 박근기(朴謹己)가 나 있는 곳을 와서 찾았다.

그믐날. 아침부터 종일 흐렸다. 누님이 숭어를 얻어 회를 쳐서 나에게 주고, 추로한 잔도 마셨다. 요월당에 나가서 심원·자승 등과 이야기하다가 또 걸어서 모정으로 나가서 박준(朴濬)·박근기·임급(林波)과 잠시 서서 이야기했다.

2월

1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언명은 반드시 떠나지 못했을 것인데, 어디서 체류하는지 알 수 없다. 양식과 반찬도 반드시 다 되었을 것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연일 비가 내려서 길이 반드시 질 것이다. 4일에 어머님을 모시고 떠날 계획인데, 하늘이 또 돕지 않으니 어떻게 돌아간단 말인가.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그러나 언명이 데리고 간 종이 만일 중로에서 체류한다면 3일에 필경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4일에 떠난다는 것은 또한 기필할 수가 없다. 하루를 머무르는 것이 일 년과 같으니 민망함을 어찌 말하리. 어두워서 심원이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박준 형제도 따라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두 박(朴)은 먼저 돌아가고 심원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또 종 막정이 장흥에서 돌아왔는데 겨우 계집종 무숭에게서 굵은 필목 두 필과 깨 닷 되를 받아 왔고, 그 두 아들은 노(櫓) 잘 젓는 군사로 수사(水使)의 배에 뽑혀 나갔고, 종 한수는 연전에 수사의진(陣)에서 죽었으며, 계집종 사금은 제 남편이 죽은 뒤에 어미를 데리고 달아나서가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꼭 그런지 알 수가 없다.지난밤 꿈에는 큰딸을 보았고, 오늘 밤에는 또 아내를 보았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수가 없다. 필경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못해 몹시 근심해서 그런 것인가.

2일. 흐리고 비 올 조짐이 있으며, 또 바람이 부니 민망스럽다. 또 전주에서 무인 (武人)의 정시(廷武)를 보여서 철전(鐵箭) 오시 이순(五矢二巡)에 두 번 맞힌 자와 기사(騎射) 1차에 두 번 맞힌 자 이상을 뽑아 1천 7백 82인을 얻었다 한다. 그리고 이 군(郡)에서 참여한 자도 또한 37인이라 한다. 다만 거상 중에 장사를 지내지 않은 자가 역시 많이 입격했다고 하니 탄식할 일이다. 이들로 하여금 이달 15일 안으

로 남원의 충용장(忠勇將)에게로 모이게 하여 충용과 함께 들어가서 영남의 적을 친다고 한다. 충용장은 곧 김덕령으로서, 전에는 익호(翼虎)라고 호를 했으나 중국 조정에서 충용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또 우리 종들은 요새 양식이 없어서 누이집에서 먹이고 있으니 미안함을 이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더욱 속히 가려는데 비가이렇게 와서, 아우가 데리고 간 종이 기일을 대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몹시 민망하고 민망하다. 또 아침 식사 후에 들으니 나주판관 이성남이 겸관(兼官)으로 군에왔다기에 경흡·심원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들어가 보고 환상(還上)을 청하여경흠의 호노(戸奴)로써 각각 그 뜻을 말했더니, 심원과 나에게 각각 콩 1석·벼 2석씩을 써 주고, 또 나에게 콩 2두·백미 2두를 준다. 종과 말의 양식이 모두 떨어져서 민망하던 터에 이두 가지 물건을 얻어서 근일은 계속해서 쓰게 되었으니 깊이 감사하다. 판관이 우리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서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이 돌아오니 날이 저물었다. 막정은 물건을 받아 오느라고 뒤에 떨어졌다가 해가 저물어서 미쳐 집에 오지 못하고, 또 (이하 11행 삭(削))

3일, 종을 시장에 보내서 포목 한 필을 가지고 해의(海衣) 60첩을 바꾸고, 콩 5두로 감태(甘苔) 25첩을 바꿨다. 이것을 호서에 갈 때 밥을 사 먹으려는 것이다. 아침 식사 후에 나 있는 집으로 와서 쉬는데 조금 있자니 이웃에 사는 박경인 · 경행형제 및 박근기가 찾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흩어졌다. 어두운 뒤에 심원이찾아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오늘부터 종들이 양식을 얻어 스스로 밥을 지어 먹었다.

4일. 꿈에 이정로(李正老) · 홍응추(洪應推)를 만났는데 기뻐하기를 평일같이 하고, 정로는 술에 취해서 소리치는 것이 꼭 생시와 같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한 마을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서, 연전에 모두 이미 작고했다. 이에 매양 평시에 놀던 일을 생각하여, 항상 애통한 마음을 품었었는데, 오늘 밤에 꿈을 꾸고 보니 더욱 몹시 슬픈 감회를 느낀다. 식사 후에 오월당에 나가서 자중 · 심원 · 응문 · 자승(임현) 등과 이야기했다. 오후에는 이웃에 사는 박경인 형제 및 유 선전관(柳宣傳官) 형(珩) · 새로 급제한 박형(朴瀅)이 또한 왔다. 박 공(公)은 경흠의 사촌으로써 또한 완산의 과거에 뽑혀서 외가 묘소에 뵈려고 온 것이다. 또 전일에 나주판관에

게 청해서 받은 환상(還上)을 경흠의 뜻이 오는 가을에 내가 갚지 못할 것이라 하여 다만 벼 10두와 콩 3두만을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쓰겠다고 한다. 내 생각은 받는 콩과 벼로 절반은 필목을 바꿔서 여기에 두었다가 오는 가을에 팔아서 환상을 갚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요, 절반은 목화를 사 가지고 돌아가려 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근일 여기에서는 곡식은 귀하고 필목은 천해서 거친 필목 1필에 쌀은 2되, 콩은 3되이며, 또 1말 쌀이면 목화가 10여 근인데, 혹은 15,6근이라고도 한다. 7승(斤)필목 1필이면 쌀 1두 4,5승을 받는다고한다. 또 언명이 데리고 간 종은 오늘도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민망하고 걱정된다.

5일. 지난밤 꿈에 여인 형제를 보았는데, 완연히 옛날과 같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동남풍이 종일 크게 부니 반드시 큰비가 내릴 조짐이라, 내일 떠나는 것을 기필할수가 없다. 더구나 언명이 데리고 간 종이 아직도 오지 않으니, 더욱 민망하고 걱정된다. 전일에 자중에게 들으니 언명이 비로 인해서 하루를 나주 땅 양 생원 산룡 (山龍)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니, 그 후에도 역시 중로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는가. 괴상한 일이다. 식사 후에 요월당에나가서 자중ㆍ심원ㆍ응문 등과 이야기하다가 자중은 먼저 나갔다. 그는 이 고을 검길(儉吉)의 둑 쌓는 데에 가서 농사일을 감독하기 위해서다. 어둘 무렵에 심원이찾아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6일.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비록 크게 오지는 않아도 아침에도 개지 않고 음산한 기운이 사방에 막혔으니 수일 안에는 반드시 개지 않을 것이라,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어제저녁에 누님이 나에게 감태 10첩 · 붕어 2묶음 · 포고 1되 · 찹쌀 1되 · 버선 1켤레를 주었고, 임자승도 또한 버선 1켤레 · 쌀 6되 · 해의 25첩을 주었고 콩 4되로 해의를 바꿔다가 주었다. 또 응문은 정목 1필을 주었다. 그도 또한 유리하던 나머지에 생각이 여기에 미쳤으니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자중은 검길에서 편지를 보내고 또 낙지 15마리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한다. 저녁에 춘희와 송노가 와서 언명의 편지를 보니, 도중에 비로 해서 이틀을 머물렀고, 또 그 처남의 말이 도중에서 죽었다 하니 탄식스럽다. 행장을 차려 놓고 내일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떠날

계획이다. 어둘 무렵에 심원이 찾아왔기에 누님에게 술 한 병을 얻어서 자중이 보 낸 낙지로 안주를 해서 각각 석 잔씩을 마시고, 또 두 주인에 각각 한 잔씩을 주고 서 밤이 깊어 파했다.

7일. 이른 아침에 경흠은 먼저 나주로 가고, 나는 어머님을 모시고 늦게 떠났다. 어머님은 누님과 작별할 때 서로 붙들고 통곡을 하시니, 인정이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영암군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탄 말이 진흙 도랑에 발이 빠져서 논 가운데에 나가 자빠져서 내 왼편 발도 또한 물에 빠져 간신히 밖으로 나오니 버선이 모두더러워졌다. 우스운 일이다. 이로부터 혹은 걷고 혹은 타고서 간신히 나주 땅 모산촌(茅山村) 사인(士人) 유숙(柳瀟)의 집에 도착하니, 유 공(公)이 더운 방을 주고, 땔나무도 많이 주고, 또 술과 안주와 콩죽을 보내 주니 깊이 감사하다. 그러나 오늘 북풍이 크게 불어 찬 기운이 살을 에웠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로 인해서 기운이 편치 않으시어 저녁 식사를 들지 못하시고 다만 콩죽만 마시시고 팔다리가 또한 저리고 아픈 것 같다 하시니 민망하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경흠이 올때 유 공(公)에게 들러 보고 먼저 온 뜻을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했다 한다. 이에 경흠은 먼저 나주로 갔으나 출입문을 몹시 금하기 때문에 먼저 목백(牧伯)에게 통지해서 문을 허락해 주어서 들어가 만나고 어두워서 주인 유 공(公)에게 가 보았다.

8일. 어머님의 기후는 평상시와 같으셔서 그대로 잔 집에서 아침밥을 지어 먹고 떠났다. 오늘은 날씨가 좋고 바람도 그쳤으니 기쁘다. 늦은 후에 바람이 또 일었으나 어제처럼 세지는 않다. 신안관(新安舘)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흰죽을 쑤어서 어머님께 드렸다. 조금 있다가 심원이 나주에서 지나가다가 들어와 보고 돌아갔다. 전일에 경흠과 같이 와서 임회(林檜)의 어머니 상사를 조상하고 오늘 구림으로 돌아갔다. 날이 저물어서 나주에 도착하여 문안 박 참판(參判)댁 계집종의 집으로 들어갔다. 경흠은 목백과 함께 금성산의 성 쌓는 곳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는 행차 때의 물건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 해가 저물어 경흠이 오더니 말하기를, 목백이 이미 상하 식사를 대접하도록 했는데, 하인의 식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백이 노해서 그 죄를 다스렸다고 한다. 경흠과 만복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잤다. 어제 잔 집 주인은 곧 유영덕(柳盈德) 몽익(夢益)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침에 올 때 가보고 작별했다.

9일. 목백이 백미 3두 · 정미 5두 · 콩 5두 · 감장 1두 · 간장 2되 · 꿀 9홉 · 기름 1 되를 주었으니, 이는 경흠의 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세후로 손님이 많은 것이 싫어서 문금하는 것을 몹시 엄하게 하고, 또 손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것이다. 행자가 부족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정미 5두 5승을 다시 찧었더니 4두 5승이다. 이것을 노비들의 3일 양식으로 나누어 주어 각각 가지고 가게 했다. 짐이 무겁기 때문이다. 판관이 마침 나가고 없어서 행찬을 얻지 못하니 한스럽다. 늦은 후에 떠났는데 말이 피로해서 자주 누우므로 부득이 그 고을 양 목사의 아들 생원 산룡의 집에서 잤다. 양 공(公)은 경흠의 친구이다. 어제 성 쌓는 곳에 가서 목백을 뵈었을 때 경흠이 마침 만나서 부탁했기 때문에 이미 온 뜻을 알고 마초를 주고, 또 우리 모자의 저녁밥을 대접하니 깊이 감사하다. 오후부터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저녁에도 그치지 않고, 또 흐리고 비 내릴 조짐이 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어둘 무렵에 주인 양공을 가보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10일. 밤중부터 비가 내려, 비록 크게 내리지는 않아도 종일 그치지 않으므로 부득이 머물렀다. 행량이 부족해서 종들은 아침에는 7홉을 주고 저녁에는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다. 내일도 만일 개지 않는다면 또 머물러야 할 것이니 말할 수 없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앞길에는 큰 내를 건널 곳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몹시 파리한 말을 가지고 저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에 노친을 모시고 가자니 어찌 민망하지 않겠는가. 저녁에 또 주인을 보고 돌아왔다.

11일. 날이 갰다. 아침 식사 전에 떠나서 광주 땅 사인 박경의 집 앞에 이르러 아침 밥을 먹고, 경흠의 편지를 전했더니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또 김치와 마초를 보냈다. 나는 그 집에 가서 보고 장성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관인 손 천종(孫千鍾)의 집으로 들어갔다. 태수 옥여(이귀)는 지난달에 군사를 거느리고 충용장(김 덕령)과 함께 이미 영남으로 갔고, 아헌에는 이 찰방 여인 및 그 아우 여경이 있으므로 즉시 들어가서 이야기했다. 조 정자 익도 또한 사삿집에 있으므로 청해다가보고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었다. 그러나 관청에 주수가 없어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행자가 떨어졌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아내(衙內)의 교서로 위에서 종 2 명·말 2필을 내려 주었단다. 또 이제 사문(赦文)을 보니 곧 역적 송유진(宋儒眞) 등 8명을 죽였으므로 나라 안에 덕음(德音)을 내린 것이다. 유진은 통사(通事) 송 대춘(宋大春)의 아들이라 한다. 그리고 애통한 조서를 나라 안에 내렸다 한다. 영 암에서 데리고 온 사람 하나는 내일 마땅히 돌려보내야 하겠기에 누님에게서 등불을 밝히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12일. 밝기 전에 흰죽을 쑤어서 어머님께 드리고 해가 뜨기 전에 떠나서 노령(蘆 嶺) 및 군보(軍堡)에 이르러 아침밥을 지어 먹고 걸어서 노령을 넘어 천원역을 지나 정읍 땅에 이르러 길가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떠나서 고부 길로 들어서자 중도에 언명이 와서 맞는다. 고부 땅 소정리(所井里) 김내금(金內禁) 광필(光弼)의 집에서 잤다. 광필은 곧 언명의 처사촌이다. 언명의 장인 김 공 철(金公澈)도 또한 와있다. 나와 언명은 함께 김 공이 쉬는 곳에서 잤다. 또 꿈에 자미를 보았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13일. 집주인이 우리 삼모자의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늦게 떠나서 태인 땅 동촌면 (面) 칠전리(里)의 언명의 처남 김담수(金聃壽)가 사는 동리에 도착했는데, 두어 간 모옥(茅屋)이 겨우 풍우를 피할 만하므로 노모를 모시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고향을 떠나 천 리 밖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친척이 없으니 사람의 자식이 된 마음에 어떠하겠는가.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가진 양식은 겨우 6, 7두가 남았고, 뒤에 더 얻을 길이 없으니 더욱 몹시 민망하고 걱정된다. 나는 내일 마땅히 떠나서 임천으로 돌아가서 수일 동안 머물러 기다리려는데, 양식이 없고 또한 얻지도 못하니 더욱 탄식스럽다.

14일.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을 뵙고 작별하니 어머님은 슬퍼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나도 또한 슬픈 눈물이 소매를 적시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타향에 떠도는 데 또 모자가 한곳에 같이 있지 못하니, 비록 형세라고는 하지만 어찌 감상(感傷) 하지 않으리오. 금구 땅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주고 점심을 먹고서 금구현 앞을 거쳐 김제 동면 어이촌에 이르러 동해 점장(東海店匠)의 집에서 잤다. 말이 피로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다. 길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거적으로 말아

서 덮어 둔 것을 보았는데, 그 곁에 두 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다. 물었더니 말하기를 그 어미라 한다. 어제 병으로 굶어 죽었는데 그 뼈를 묻으려 해도 비단 제 힘으로 옮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땅을 팔 연장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조금 있더니 나물 캐는 여인이 광주리에 호미를 가지고 지나가므로 두 아이는 말하기를, 만일 그 호미를 얻으면 땅을 파고 묻을 수 있겠다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슬프고 탄식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굶어 죽는 시체가 길에 잇달아서하루에 보는 것도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슬프다. 우리나라 백성이 모두적의 칼날에 죽은 데다가 또 굶주림의 환란을 만나서 쑥대머리에 때 묻은 얼굴로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서 유리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자가 길에 서로 이어 있어 장차 남는 자가 없는 데에 이르겠으니, 저 푸른 하늘이 어찌 여기에 이르는가.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목민(牧民)의 책임을 맡은 자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5일. 날이 밝자 떠나서 석탄(石灘)에 이르니 배가 여울물을 건너는데, 여울물은 곧 전주 이상 여러 고을과 여러 골짜기의 물이 삼례역 앞에서 합류되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겨울 남쪽은 김제 땅이요, 그 북쪽은 전주 땅이다. 여울 옆 인가에서 말에 꼴을 먹이고 아침밥을 먹고서 옥야창(沃野倉)을 지나서 함열에 이르러 비로소 태수가 없단 말을 들으니 결연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양식과 찬거리를 오로지 여기만 믿었기 때문이다. 겨우 3되의 쌀이 남아서 상하가 밥을 지어 먹었다.

16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남궁 지평 동장(南宮砥平洞丈)의 농촌에 이르러 안사눌 민중(安士訥軟仲)을 만났다. 난리 후에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는데 오늘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남궁 동장(南宮洞丈)은 내가 왔단 말을 듣고 곧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상하의 아침밥을 대접한다. 또 나를 침방(寢房)으로 맞아들여보고 은근히 이야기를 한다. 병중에 사람을 만나지 않은 지 오래인데, 이제 내가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안방으로 맞아 만났으니, 이는 곧 옛날에 한마을에 같이 살아 가장 서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안민중은 동장의 사위이다. 또 떠나서 남당진(南塘津)에 이르러 배로 북쪽 언덕으로 건너서 잠시 쉬면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나서 달려서 집에 이르니 처자들이 기꺼이 맞는다. 다만 집사람은 학질에 걸려 이제 이

미 두어 삭을 알았다니 걱정스럽다. 즉시 사람을 시켜 충아와 의녀를 데려오게 해서 보니, 충아는 능히 걷고 잘 달린다. 위로가 된다. 그러나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하니, 필시 오래 보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17일. 식사 후에 윤해의 양모 및 충모가 와서 보고 저녁때 집으로 돌아갔다. 다만 요새 양식이 없어서 상하가 항상 콩죽으로 지내는데 콩도 또한 떨어졌다니 비록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늦은 후에 송노를 시켜 해의와 감태를 가지고 조 한림(희보) 삼 형제와 소즐의 집에 나누어 주게 하고, 또 집주인과 이웃 가까운 집에 나누어 주게 했다. 김대성이 와 보고 돌아갔다. 마초 10묶음을 조 한림에게 얻었다. 김대성도 역시 5묶음을 보냈다.

18일. 아침 식사 전에 종들을 시켜 집 옆 서북쪽에 변소를 만들게 했다. 식사 후에 또 네 종을 시켜 송피(松皮)를 베껴다가 종들의 먹는 것에 보충시키게 했으나 종들은 진력해서 하지 않고, 각각 두어 주먹씩만 베껴 가지고 왔으니 몹시 밉다.

19일. 태수(송용서)를 보려고 이른 아침에 군(郡)에 들어갔으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태수는 이미 사창(司倉)에 나와 앉았는데, 환상(還上)을 나누어 주느라고 시끄러워서 통명도 하지 못했다. 돌아올 때 윤해에게 들러 보았다. 종일 흐리면서 비도 뿌리고 또 바람도 불었다. 방수간이 와서 보았다.

20일. 밤중에 비가 내려 처마에 물소리가 나더니 늦은 후에 비로소 갰다. 방수간 · 백몽진 · 문경인이 와서 보고 종일 바둑을 두다가 흩어졌다. 문경인은 이웃에 사는 교생으로서 전에는 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 와 보았다.

21일. 방수간이 와서 보고, 바둑을 두었다.

22일. 새벽에 비가 오더니 아침에도 개지 않다가 늦은 후에야 해가 떴다. 방수간이 와서 보고 종일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종을 보내서 유선각에게서 마초를 부탁했더니 이 집 근처의 소작인이 저장해 둔 것 20묶음을 주어서 이것을 가지면 5, 6일은 먹일 수 있겠다. 요새 위아래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죽이나 마초도 오히려 계속을 못 하니,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의 주림이 너무 심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 마음 상하면 무엇하리. 천명에 부칠 뿐이다.

23일. 이른 아침에 종을 결성의 윤겸이 있는 곳에 보냈다. 또 양식을 구걸하려고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함열(신응구)은 비록 유격의 친한 친구라 하지만 나에게는 본래 친속도 아니요, 또 일찍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우리 집을 대접하기를 남보다 몹시 후하게 하여 한 달 안에 2, 3차례 사람을 보내서 구걸해도 조금도 어려운 빛 을 하지 않아서 한집 열 식구의 목숨을 전혀 여기에 의뢰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어 찌 갚는단 말인가. 한갓 스스로 감축(感祝)할 뿐이다. 또 내가 남쪽으로 돌아온 후 로 비로소 들으니. 기대수(奇大受) 내외가 친히 짐을 지고 이고서 두 자녀를 데리 고 이달 초생에 영동으로부터 유리하면서 여러 곳에 걸식하고 다니다가 우리 집이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유숙하고 돌아갔는데, 옷이 남루하여 상인 과 다를 것이 없더라고 하니 참혹하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기대수는 곧 내 종형(從兄) 남자순의 사위로서, 집은 경남 개령인데 가산이 넉넉하여 평일에 호화 롭다고 일컬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노복은 흩어져 달아나서 스스로 보존할 수가 없어서 유리하면서 남쪽으로 와서 한산태수[신경행]에게 의탁하려 했 다 한다. 한산태수는 곧 기(奇)의 동접(同接) 친구라 한다. 불쌍한 일이다. 다만 그 때 우리 집에도 양식이 떨어져서 죽음 먹고 돌아갔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또 오늘 아침엔 먹을 것이 없어서 송피(松皮)와 상수리에 콩을 조금 섞어서 쪄 가지고 상하 가 나누어 먹고, 홀로 나만이 7홉 쌀로 밥을 지어서 두 손자 · 단녀와 함께 나누어 먹었으니 비록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방수간이 와서 보고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 다.

24일. 윤해의 종 안손이란 자가 지난밤에 그 어미를 데리고 도망갔다고 하니 몹시 밉다. 또 아침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쌀 두 되를 이웃 사람에게 꾸어서 7홉은 윤해의 집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로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다. 방수간이 와 보고 바둑을 두다가 갔다. 저녁에 막정이 왔는데, 함열군수가 벼 1석ㆍ찹쌀 1두ㆍ말장 2두ㆍ소금 5되를 보냈다. 근일에 항상 송피를 섞어서 흰죽을 쑤어 상하가 같이 먹다 보니 소금도 또한 계속해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비록 5되를 얻었어도 조석에 죽에 섞어 먹고 남은 것을 또 아랫집에 나누어 주고 보니, 먹는데 소금이 없는 탄식이 근래에 더욱 심하니 생애가 애석하기만 하다.

25일.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더니, 저녁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 마초가 또한 떨

어지니 민망스럽다. 윤해의 집에서 마초 8묶음을 가져왔다.

26일. 오후에 태수(송응서)를 만나러 군에 들어갔더니, 태수는 이미 관청에 나와 앉았다. 즉시 통명했더니 나를 맞아 만나보는데, 마침 태수의 아들 송 진사 이창 (爾昌)이 회덕에서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에게 화전을 대접하고 또 저녁밥을 주었다. 이에 환상을 받고자 하는 뜻을 청하고, 또 둔답을 경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더니 모두 허락하는 것 같았으나 또한 쾌히 승낙하지는 않으니 한스럽다.

27일. 오후부터 비가 종일 내리더니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다가 새벽에야 비로소 갰다.

28일. 함열군수가 전인해서 뱅어 한 동이를 보냈으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양식이 없어서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뱅어만 지져 먹으니 탄식스럽다. 내일 은 곧 외조모 제삿날인데, 뱅어탕만 먹으니 가소롭다.

29일. 백몽진 · 문경인이 와서 보고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어제 송노를 정산에 보냈으나 정산군수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오직 온 집안이 양식 얻어 오기만 바랐는데 마침내 빈손으로 돌아오니 탄식할 일이다. 저녁에 덕노가 해서로부터 왔는데, 윤함의 처자는 현재 모두 무사하고, 우계(성혼)는 또한 지금 석담에 있어 답장을 써 보내더라 한다. 덕노가 올 때 서울에 들렀더니 심열이 또한 편지를 보내고 또 신력(新曆)과 황필(黃筆)을 보내더라 한다.

3월

1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이등귀가 와서 보았는데 그는 곧 나의 연갑이다. 막정을 석성에 보내면서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다.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다만 송피만으로 상하가 같이 씹으면서 긴 해를 보내고 있으니 한탄 한들 무엇하랴. 아침에는 나와 두 아들은 함께 콩죽 반 그릇씩을 먹었고, 집사람과 세 딸은 전혀 얻어먹지 못하고 긴 해를 지내느라니, 둘째 딸은 낮에 피곤해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다가 나물국을 끓여 마신 후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저녁에는 쌀한 되를 얻어서 나물과 섞어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으니, 어른들은 그래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주림을 이기지 못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 다만 집사람은 병을 앓고

난 지 오래지 않은데 재발할까 깊이 걱정된다. 연전만 해도 어렵고 군색함이 이다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공사 간에 모두 막혀서 구걸하고 꿀 데가 전혀 없으니 장차 머지않아서 모두 객지의 혼이 될 것이다. 하늘이 실상한 일이니 말한들 무엇하랴. 저녁에 막정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편지를 가지고 재삼 불렀으나 듣고도못 들은 체하므로 끝내 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한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2일. 들으니 정산군수가 관청에 돌아왔다 하므로 다시 송노를 정산에 보냈으나 꼭 편지를 드리게 될지 기필치 못하겠다. 또 들으니 이평택 경담(희서)이 여기에 왔다하므로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갔더니 영락헌(詠樂軒)으로 맞아다가 조용히 이야기했다. 다만 형용이 파리하고 검어서 잠시 만난 사이에 옛날의 면목을 찾을 길이 없으니 몹시 탄식스럽다. 송 진사(보창)가 또한 나와 보고 나에게 수반(水飯)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3일. 부득이해서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또 식사 후에 김대성·방수간·백 몽진·문경인이 와서 보았다. 이에 방·백과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흩어 졌다. 오후에 윤함의 소식을 들으니 학질을 얻어 앓는다니 민망하다. 저녁에 식사를 할 길이 없어 겨우 콩 되를 가지고 죽을 쑤려는데 심미(心米)를 얻을 수가 없더니 마침 차조 한 되를 씨하려고 두어둔 지 오래된 것을 부득이 이것을 가지고 이웃집에서 쌀 5홉과 바꿔서 심미를 해 넣고 쑤어서 아이들과 반 그릇씩 나누어 먹었다. 다만 심미는 적고 물은 많으니 가소롭다. 그러나 이것도 종들에게는 돌아가지않아 모두 배가 고픈 채 잤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윤함이 다시 학질을 얻은 것도 곧 주리고 걱정한 때문이다. 서쪽으로 갈 날은 가까워지는데 병이 이와 같으니, 만일 속히 떨어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을 것인즉 더욱 민망하다. 또 오늘은 답청(踏靑) 나의 가절(佳節)인데, 미음과 죽도 먹지 못해서 주림과 곤궁하기가 이와 같으니 달리 무엇을 바라겠는가. 한갓 슬프고 한스러울 뿐이다. 마침 이웃 사람이 쓰지 않는 백주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누룩가루를 바꿔 가므로 한 잔을 마셨더니 가슴이좀 트이는 듯하다. 그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양치 않고 양껏 마셨으니, 사는 것이 기운을 옮기고 봉양하는 것이 몸을 옮긴다는 것이 어찌 옳은 말이 아니랴. 송노

1 답청(踏靑): 푸른 물 위를 걷는다는 뜻으로 3월 3일에 남녀가 곡수(曲水)의 놀이를 했음.

는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4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송피 두어 덩어리를 가늘게 쪼개고 오래 찧어서 쌀가루 반 되와 섞어서 쪄 가지고 여러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니 그것도 달게 먹고 싫지가 않으니 탄식스럽다. 오후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군수가 쌀 2두 · 정미 3 두 · 콩 5두 · 소금 1두 · 뱅어젓 5되를 보냈으니 지극히 감사하다. 아침 식사도 짓지 못해서 아이들의 주림이 바야흐로 지극한 터에 막정이 쌀을 가지고 오므로 즉시 밥을 지어 윤해를 불러다가 함께 먹으니 상하가 기뻐한다. 쌀 3되 · 콩 2되 · 소금 1되는 아랫집으로 보냈다. 아랫집도 역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다만 들으니 함열군수가 부인의 초상을 당했다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한집의 연명을 오로지 함열에게 의뢰했었는데, 불의에 초상을 당했으니 반드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민망스럽다. 저녁에 송노가 왔는데 정산수(定山倅)(김장생(金長生))가 벼 4두 · 쌀 1두 · 목미 1두 · 감장 1두 · 간장 1두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다만 답장편지를 잃었다고 하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5일. 어제저녁에 경 진사 해(諧)가 와 보므로 저녁밥을 대접하고 그대로 찬마루에서 자고서 오늘 아침에 돌아갔다. 또 윤함은 학질을 피하여 새벽에 갔다. 아침 식사 후에 방수간 · 문경인이 와 보았다. 방 공과 종일 바둑을 두는데 경인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마셨다. 저녁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 비 빛이 조금 붉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토우(土雨)라고 한다. 또 환상(還上)은 거친 벼 두 석을 받아왔다. 넉넉한 수량을 바랐는데 겨우 두 석을 주었다.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청한사람들은 모두 많이 얻었는데, 나는 관원에게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인 것이다. 관원의 힘이 도리어 아전의 손쓰는 것만 못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윤해의 집은 겨우 한 석을 얻었으니 더욱 한스럽다. 송노와 덕노는 울타리를 하려고 솔가지 두바리를 베어 왔다. 윤함은 오늘 조금 앓는다.

6일. 두 종을 시켜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아침에 김대성이 감장 조금과 파·마늘한 다발을 보내고, 오후에 와서 보았다. 또 집주인의 채마전 두어 두둑을 빌어서 삼색 채소를 갈았으나 너무 작아서 많은 식구가 어떻게 계속해 먹을 수 있으랴. 또 이등귀가 호초(戸草) 20묶음을 송 진사 이창에게 청해서 보냈으니 요새는 이것으

로 말을 먹일 수 있겠다.

7일. 새벽에 윤함이 또 학질을 피해서 달아났다. 덕노·송노 및 막정으로 하여금 삼태기로 둔답을 일구라 하고, 오후에 그들의 역사를 가보고 나서 세동(細洞)으로 가 조 좌수 윤공(允恭) 및 신경유(申景裕)를 보고, 돌아올 때에 윤해 처자를 보고 왔다. 또 윤함은 학질이 떨어졌다니 기쁘다. 조 좌수가 나에게 점심을 주었다.

8일.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그 상처(喪妻)한 것을 조상하고, 거기에서 또한 전주 땅 송 지평(宋持平) 인수(仁叟)(영구(英耇))에게로 보내서 이 도(道)의 방백(方伯)에게 돌리는 편지를 드리게 해서 이 군의 환상을 받으려 했다. 방백은 곧 인수의 처삼촌이기 때문이다. 감사나 도사의 행하(行下)가 아니면 태수가 주지 않는 법이다. 방수간·백몽진·문경인이 와서 보고, 방과 백이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갔다.

9일. 윤함은 내일 서쪽으로 돌아갈 터이므로 행구(打具)을 차렸다. 나는 우계에게 답장을 쓰고, 또 고성 누이에게 편지를 썼다. 고성(남광문(南光文))은 지금 옹진에 가 있어 윤함의 처가와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이다. 김대성이 와서 보았다.

10일. 이른 아침에 윤함은 덕노·막정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결성에 들려 제 형을 본 뒤에 대흥에 이르러 행량을 준비해 가지고 그 길로 수원으로 향하고, 안산·강화·교동을 거쳐서 강을 건너서 바로 연안으로 향해서 해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러나 윤함은 지난해 2월 25일에 내가 죽었단 말을 잘못 듣고 달려서 홍주의 내가 있던 곳으로 왔다가, 그 길로 함께 여기에 온 지가 이제 15개월 만에 돌아가니, 떠나기에 임해서 모두 슬픈 마음이 있어 눈물이 옷소매를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 비단 오랫동안 그 처자를 가보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궁곤함이 하루하루 심해지니, 큰 병을 앓고 난뒤에 주림이 박두하여 또 병이 생길까 두려워서 부득이 보내는 것이니, 형세라 어찌하리오. 한갓 탄식함을 더할 뿐이다. 아침 식사 후에 심회가 몹시 나빠서 두 아이를 데리고 뒤 봉우리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니, 거친 마을 멀고 가까운 곳에 복사꽃 오얏꽃이 만발해 있다. 이같이 좋은 시절에 쓸쓸한 마을에서 곤궁함이 날로

박두하여 미음과 죽도 대서 먹지 못하고, 아무도 술을 가지고 와서 내 회포를 위로 해 주는 자가 없으니 탄식할 일이다. 산에서 내려와 소나무 그늘 밑에 둘러앉았노라니 김대성 · 백몽진 · 문경인 등이 와서 보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한참 만에 파하고 돌아오니 가슴이 좀 트인다. 저녁에는 비가 뿌린다. 윤함이 이미 들어갔는지 알수 없어 깊이 걱정스럽다.

11일. 밤중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이르자 크게 오다가 오후에야 비로소 갠다. 그러나 흐리고 바람이 분다. 다만 윤함의 행량은 겨우 이틀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이제 만일 비에 막혀 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묵고 있을 걱정이 있으니 깊이 걱정된다. 비가 개기를 기다려 홍주 땅 광석리 박부여(朴扶餘)(박동도)의 집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집사람이 떡을 쪄서 오늘 장에 내다 팔려고 했는데, 비로인해서 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먹었으니 닷 되의 쌀만 허비한셈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12일. 활짝 갰다. 밤 꿈에 주상이 거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후에 활 쏘는 군대와 악대가 따라 완연히 옛날과 같다. 내가 용안을 훔쳐보고 속으로 이르기를, 귀가 저렇게 크니 반드시 중흥의 임금이로다 했다. 조금 있다가 나는 잘못해서 궁문으로들어갔는데, 주상께서 바라보시고 즉시 불러들이라고 하신다. 나는 황공해서 옷이 없다고 사양했더니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시복 차림으로들어가 뵈라고 한다. 나는 즉시 남의 행전을 빌어서 차고 앞으로 나가려니 한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들어간다. 그 궁중을 보니 몹시 높고 크지도 않고 마치 여느 사람의 집과 같다. 당(堂) 뒤로 갔더니 날더러 재배하라고 한다. 그런데 10여 세 된 남자 아이들 3, 4명이 당안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왕자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인도해서 한방으로 들어가니, 상(上)께서 관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침구 위에 앉아 계신데 비단이불이모두 떨어졌다. 내가 방 안으로들어가 절하고 뵙자 상께서 말하기를, 너는 글을배웠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기를, 소신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으나 이루지 못해서 공업(功業)을 일찍 버렸습니다 했더니, 상께서 또 말하기를, 네 집은 어디 있느냐 하신다. 내가 대답하기를, 소신의 집은 성균관동 벽송정 서쪽 가에 있사옵고,신의 장인은 고 문천군수(故文川郡守)입니다 했다. 상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 집

과 거리가 멀지 않구나 하신다. 내가 다시 말을 하려 하자 상께서는 일어나서 방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신 후에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되어 기지개를 켜고 잠에서 깨었다. 그러나 꿈속에 보고 말한 일을 분명히 모두 기억하므로 즉시 집사람을 불러이야기했으나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몽조(夢兆)가 이상하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대략 써 두어 뒷날을 징험하려 한다. 아침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가 태수(송응서)를 보려고 했더니 태수는 이미 관청에 나가 앉았는데 몹시 시끄러워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길로 동송동으로 가서 조희열 및 조문화 희철을 만났는데, 희열이 백주 석 잔을 주어서 마셨다. 또 조 좌수 희윤의 집에 가서 조 한림 희보를 맞아다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희윤의 사촌 정응창도 역시 자리에 있었다.한림은 요새 피란하여 희윤의 이웃에 와 있다 한다. 희윤이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올 때 소즐의 집에 들렀더니 즐은 마침 집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니해가 이미 저물었다.

13일. 종일 집에 있었다. 오후에 성덕린이 와서 보았다. 윤해와 걸어서 김대성의 집에 가서 불러내어 함께 울타리 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저녁에는 양식이 없어서 상하가 겨우 흰죽 반 보시기씩을 마셨으니 탄식스럽다. 또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구걸했다. 얻어 온 지 열흘도 못 되어 이제 또 종을 보내니 마음이 몹시 부끄럽다. 다만 윤해로 하여금 편지를 써 주어 보냈다. 사세가 절박하니 부득이한 일이다. 또 둔답의 종자 5두를 받아 왔으나 거칠고 딴 것이 섞여서 쓰지 못하겠다. 만일 실지로 따지면 반도 모자란다. 그러나 달리 얻을 길이 없고, 이제 군에 들어가 태수를 보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말이 없어서 가지 못하니 민망하다. 아침에 누에가 나서 한 장을 쓸어내렸다.

14일. 송노가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군수가 정조 1석·참보리 10두·말장 2두·찹쌀 4되·생위어 1두름을 보냈다. 아침에 흰죽 반 사발을 먹고 시장함이 바야흐로 지극한데 이제 이 물건을 얻으니 즉시 처자와 함께 밥을 짓고 물고기를 구워 함께 먹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하다. 벼 1두·보리 1두·위어 4마리를 아랫집에 보냈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15일. 이른 아침에 태수를 보고자 하여 군에 들어갔으나 태수는 이미 사창(司倉)

에 나와 앉아서 아전들을 점열하기 때문에 몹시 부산해서 통명을 하지 못하고 그 대로 돌아왔다. 식사 후에 무료해서 인아 · 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뒤 봉우리 에 올라가서 손수 고사리 두어 주먹을 꺾어 가지고 돌아오니 객중의 고적한 회포 가 풀린 것 같다. 김대성이 와서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또 춘기 (春己)가 진위에서 왔는데, 전일 들으니 윤해의 장인 최경수(崔景綏)가 병에 걸려 앓는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서 문안했었는데. 이제 와서 비로소 들으니 아주 쾌 차하고 별로 누워 있는 일이 없다고 하니 기쁘다. 또 들으니 지난 2월 29일의 정 시(廷試)에 참여한 자는 13인인데, 박동열(朴東說)이 장원했고, 그 다음은 민유경 (関有慶)・ 허균(許筠)・ 최계옥(崔啓沃)・ 조응문(趙應文)・ 민여신(閔汝信)・ 성계선 (成啓善) · 이순민(李舜民) · 성진선(成晋善) · 황민중(黃敏中) · 박원(朴垣) · 정각 (鄭殼) · 박동망(朴東望)이라 한다. 진선(晋善) · 계선(啓善)은 창성군(昌成君) 성수 익(成守益)의 두 아들이요. 동열(東說) · 동망(東望)은 박 참판 응복(應福)의 아들이 다. 동망은 일찍이 관서에 있다가 바로 전시(殿試)에 나간 자이다. 성(成)과 박(朴) 두 집은 형제가 뽑혔으니 일문의 경사가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박위(朴垣)도 또한 참여했으니 더욱 기쁘고 경사스럽다. 원(垣)은 박 참판의 조카로, 전 부여군수 박 동도의 큰아들이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이를 앓더니 오늘은 오른편 입술에 부기가 있고 수시로 아프다 하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이는 필시 이뿌리가 아파서 여독이 밖으로 나온 것일 게다. 다시 내일 보아야 알 것이다.

16일. 집사람의 부은 곳은 조금 나았고 아픈 것도 조금 감했다. 또 김대성ㆍ이등귀의 소를 빌어서 둔답을 가는데, 종 송이ㆍ덕세ㆍ명복과 또 이웃 사람을 얻어서 갈게 했다. 두 종은 소를 몰고, 송노는 삽으로 두둑을 꾸몄다. 다만 새벽부터 흐리고비가 뿌리니 한갓 양식만 축내고 일을 마치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러나 소 두 마리를 빌려왔으니 중지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갈게 했다. 비록 흐리고 바람은 불었어도 저녁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마쳤으나 두둑 고르는 것은 다하지 못했으니 내일 마땅히 고른 뒤에 씨를 뿌릴 작정이다. 다만 관가에서 받아 온종자가 거칠고 섞이고 부실해서 옳은 것만 고르면 2두 3되에 지나지 않겠으므로함열에서 가져온 벼 3두를 합쳐서 모두 5두를 키에 까불러 종자를 준비했다. 다만

내일 씨를 뿌린 후로는 양식이 반드시 떨어질 것인데, 다시 얻을 만한 길이 없으니 말할 수 없다. 또 윤함이 돌아간 뒤로 연일 날이 좋지 않아서 행로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니, 그리워하는 회포를 스스로 중지할 수가 없다. 집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누워 앓으니 필경 며느리조금인 것 같다. 주리고 곤한 나머지에 또 이 증세에 걸리면 말할 수가 없다.

17일. 또 이웃 사람을 얻어서 셋이서 둔답을 골랐다. 식사 후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논으로 나가 살펴 본 뒤에 윤해의 집에 가서 윤해의 처자를 보고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함열에서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소금과 조기 두 두름을 보냈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오래 못 먹던 나머지에 즉시 처자들과 함께 구워서 먹었다. 다만 양식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또 둔답의 일은 마치지 못했다. 마치 날씨가 차고 바람도 차서 종들도 또한 힘을 쓰지 않았다. 닷마지기 논을 네 사람이 사흘에도 끝을 내지 못하니 밉기만 하다.

18일, 또 종으로 하여금 논을 고르게 했다. 식사 후에 화산에 올라가서 일을 잘하는지 굽어보다가 일이 끝난 후에 말을 타고 친히 가서 씨 뿌리는 것을 보고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골은 종자 닷 말을 다 뿌리고서도 반 두둑이 모자란다. 내일 아침에 송노를 시켜 닷 되를 더 갖다가 뿌릴 작정이다. 다만 관가에서 준 종자는 반이나 부족이므로 환상을 받아다가 뿌릴 작정이다. 이에 내가 두 번째 관문에 갔으나 통명을 하지 못했고, 또 종을 시켜서 고하게 했더니 문지기가 이를 막는다. 이것은 곧 전일에 윤해가 송이창을 보고서 아전들이 환상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많이 내준다는 말을 한 것을 아전들이 듣고 이 때문에 막아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몹시 밉다. 또 지난밤 꿈에 정로(正老)를 보았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으니 깨고 나자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저녁에 집사람이 학질을 앓는데 전일보다 갑절은 심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며느리조금이 아니고 하루거리이다.

19일. 저녁때 무료해서 단녀와 함께 호도놀이를 했다.

20일. 아침에 들으니 환상을 나누어 준다 하므로 윤해로 하여금 즉시 단자(單子)를 써서 바치라 하여 두 집에서 각각 한 섬씩을 받았는데 다시 되 보니 13두이니, 3,

4일의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의 인색한 것이 몹시 한스럽다. 저녁에 집사람은 학질을 앓는다. 주린 나머지에 오랫동안 병을 내쫓지 못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21일. 아침 식후에 무료하므로 김대성을 불러내어 걸어서 문경인의 집 뒤 느티나무 정자 밑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마침 경인은 출타하고 집에 없었다. 저녁에 들으니 장성군수 이옥녀(이귀)가 왔다 하기로 즉시 군에 들어갔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22일, 이른 아침에 군에 들어가서 옥녀를 사사로운 숙소에서 만났는데, 임천태수 도 역시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참석한 자는 이 진사 중영ㆍ홍 생원 사고ㆍ전 양 지태수 남대현 · 김 진사 존경이었다. 옥여는 우리 부자에게 아침밥을 대접한다. 홍ㆍ이 두 분은 피란해서 이 군에 와 있는 자요. 남 공은 전에 의병장으로 군공(軍 功)이 많아서 특별히 양지태수를 제수 받았다가 오라지 않아 바뀌어서 지금은 충 용장(김덕령)의 종사로 군사와 군량을 모으기 위하여 군에 온 것이다. 김 공은 역 시 충용장의 일가로서 바야흐로 막중에 있어 서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모든 충 용장의 격문 및 정서(正書) 등의 글은 모두 그 손에서 나오고, 지금은 옥여와 함께 동조(東朝) 및 대조(大朝)로 가서 긴급한 일을 진달(陳達)하려 한다고 한다. 오후에 작별하고 오는데, 옥여가 나에게 쌀 2두·콩 5되를 주었는데, 쌀 5되는 윤해의 집 에 나누어 주었다. 빈관에는 중국 군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삿집에서 잤다고 한다. 또 옥여에게서 들으니, 충용장은 지금 함안에 있는데, 지난달 초생에 별장 (別將) 최강(崔岡)으로 하여금 정병 40여 명을 거느리고 초탐(哨探)하는 일로 고성 으로 나가다가 적과 만나서 9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네 명을 베어 죽였다 한다. 그 뒤에 또 적과 창원에서 만나서 20여 명을 쏘아 죽이고 한 명을 베어 죽였는데, 충 용장도 역시 군중에 있어서, 적이 주둔한 곳으로 들어서 습격하려 했으나, 비단 중 과부적(衆寡不敵)일 뿐만 아니라 해도 또한 저물고 사람들도 모두 힘이 진했기 때 문에. 충용장도 부득이 다만 칼을 휘둘러 무력만 과시하고 돌아오니 적도 또한 쫓 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튿날 탐지해 보니 깃발은 아직 남아 있었으나 적은 성을 비 우고 도망해 갔더라고 한다. 최강이란 남원에 사는데, 용력(勇力)이 사람에 지나는 데 역시 충용장의 군중에 있다고 한다. 저녁에 함열에서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큰 농어 한 마리를 보냈으니 후의에 깊이 감사하나 갚을 길이 없다. 즉시 처자와 함께 국을 끓여 먹었다. 다만 집사람은 오늘도 역시 학질을 앓아 먼저 누웠기 때문에 먹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3일. 송노는 휴가를 얻어 제 일가를 만나보려고 청양 땅으로 갔다. 윤겸의 가는 길을 계산해 보니 비록 중도에 비를 만났더라도 어제나 오늘쯤은 그 집에 당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먼 길을 가느라 어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밤낮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윤겸은 또한 오래도록 와 보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날마다 오기를 기다리는데, 비단 제가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소식도 또한 끊어졌으니 전일에 들으니 그 집이 편안치 못하다 했으므로 이 때문에 더욱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또 세후로부터 한집 상하가 항상 죽만 마시고 밥을 지을 때가 없더니 근래에 더욱 심하고, 또 간장과 소금물도 얻지 못한 채, 산나물을 삶아서 쌀과 섞어서 죽을 쑤어 모두 반 그릇씩만 먹으므로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 나는 홀로 7홉의 밥을 먹으니, 매양 밥상을 대하면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형세가 두루 여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어서 다만 끝의 딸에게 조금을 나누어 주니 탄식스럽다.

24일. 이른 아침에 백몽진이 종과 말을 데리고 전일에 감제(減除)했던 호초(戸草) 9묶음을 가지고 왔다. 여러 날 마초가 떨어졌었는데, 전에 백(白)으로 인해서 감초 (減草) 40묶음을 가져오지 못한 지가 오래었으므로 부득이 백으로 하여금 찾아오 게 하여 이미 남은 것이 없고 다만 9묶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일에는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온 후로 오랫동안 어머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매양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싶어도 행량을 준비할 길이 없어 지금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근일에는 군색함이 박두하는 것이 더욱 심할 터인데 어찌 지내시는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민망하고 걱정됨을 이길 수 없다. 집사람은 오늘도 역시 학질을 앓는다.

25일. 김대성이 와서 보았다. 이에 대성 및 인아와 함께 그물을 가지고 걸어서 연방(蓮防) 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펴고 한참 있었으나 물고기를 모는 자가

없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가소롭다. 윤해도 역시 와서 보고 조금 있다가 돌아 갔다. 조 내한(희보)이 쌀 1두 · 감장 1사발 · 조기 1묶음을 보냈다. 마침 바야흐로 떨어지려 할 때 보냈으니 그 감사함을 어찌 말하랴.

26일. 함열에서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뱅어젓 3되를 보냈다. 또 송 지평 인수(송영구)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조정으로 가는 길에 이 군(郡)에 들러 종을 보내 문안했기에 저녁 식사 후에 들어가 보고 수락헌(水樂軒)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노라니 관에서 저녁을 대접해서 어두워서야 돌아갔다. 윤해는 인수와 같이 잤다. 아침에 들으니 이웃에 사는 교생 백광염(白光焰)의 집에 어떤 사람이 지난밤에 불을 놓아서 다 탔다고 한다. 군(郡)에 들어갈 때 들러 보니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어서 참혹해서 볼 수가 없었다. 또 오늘 장에서 작두와 거기에 게는 쇠를 장떡(市餅) 3둘레를 주고 사 왔는데 쌀로 계산하면 4되이다. 들으니 한 생원 용이 태인으로 돌아가 평안하다는 편지를 어머님께 보냈다고 한다.

27일. 아침에 순변사의 종사관 유 대경(俞大徽)이 군에 들어와서 백미 1두·콩 1 두·마른 조기 3묶음을 보냈다. 아침거리가 바야흐로 떨어졌는데 마침 이것이 오니 감사함을 어찌 말하리오. 유 공(公)은 곧 윤겸의 친구이다. 낮에 들으니 인수가 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삿집으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라 해서 즉시 걸어서 가 만나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바둑 세 판을 두고 돌아왔다. 또 아침에 보낸 물건은 유 종사(俞從事)가 아니요 인수(仁叟)인데 전에 잘못 들은 것이다.

28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어 겨우 보리밭에 흡족할 뿐으로 이내 개었으니, 물 근원이 없는 곳은 몹시 부족하여 한스럽다. 식사 후에 인수(仁叟)의 있는 곳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바둑을 두다가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송복여(宋福汝)도 또한 있었는데, 복여는 곧 이창(爾昌)의 자이다. 다만 윤해가 학질을 얻어 크게 앓으니 민 망스럽다. 집사람의 학질 증세는 조금 덜해서 생각건대 이로부터 아주 떨어지려는 가

29일. 송인수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식사 후에 가서 작별했다. 태수가 와서 만 났는데 이분(여빈)도 마침 회덕 시골집에서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인수는 먼저

일어나 떠나가고, 우리들은 또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나는 송복여의 말을 타고 먼저,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세 딸과 함께 뒤 봉우리에 올라가 눈 닿는 데까지 멀 리 바라보다가 혹 산나물도 뜯으면서 바람을 쐬고 돌아왔다. 또 양식이 떨어져서 춘이를 함열에 보내어 인수와 같이 가게 했다. 또 고기 잡는 사람이 생도미와 민어 를 지고 와서 파는데, 큰 놈 세 마리에 쌀 두 되라고 하지만, 집에 마침 양식이 떨 어져서 사 먹지 못하니, 아이들이 비록 탄식하나 어찌하리오.

그믐날. 김대성이 와 보고 돌아갔다. 아침 식사 후에 무료해서 인아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김 공(公)을 찾았더니 마침 김은 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왔다. 김이 자기 집에 와서 내가 갔더란 말을 듣고 즉시 올라와서 보았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겸해서 큰 바람이 불더니 조금 있다가 그쳤다. 또아침에 양식이 떨어져서 느티나무 잎에 콩가루 조금을 타서 국을 끓여서 처자가나누어 먹었다. 길고 긴 날에 저녁까지 먹지 못했으니 주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춘이가 오기를 고대하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도 오지 않으니 반드시 바람을 만나서 즉시 강을 건너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부득이 쌀 한 되를 꾸어다가 죽을 쑤어서 상하가 나누어 먹었으니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날이 저물어서야 춘이가 왔는데, 함열 태수가 쌀 2두ㆍ콩 3두ㆍ참보리 5두ㆍ벼 8두ㆍ저린 조기 1묶음ㆍ소금 5되ㆍ뱅어젓 1항아리를 보냈다. 즉시 밥을 지어 나누어 먹으니 이렇게 감사함 수가 없다.

4월

- 1일. 거친 벼 1두를 가지고 큰 민어와 생도미 두 마리를 사다가 처자들과 국을 끓여 나누어 먹었다. 방수간이 와 보고 바둑을 두다가 돌아갔다. 윤해는 어제도 또한 학질을 앓으니 민망스럽다. 다만 집사람은 어제부터 아주 떨어졌다.
- 2일. 아침에 명복을 전주 땅 송 지평 인수의 집에 보내서 한산의 배에 실은 짐을 추심할 일로 편지를 인수의 종이 있는 곳에 두게 했다. 지난 임진년 봄에 말장 32 두 · 쌀 22두 · 목박(木朴) 6개를 장수에서 얻어서 인수에게로 보내느라고 배에 실어 올려 보냈다가 마침 큰 변을 당하여 서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산에 있는 선

주(船主)에게 전일 사람을 보내어 추문했더니, 선주가 말하기를, 쌀을 의병의 양식 으로 빼앗겼고, 말장과 목박은 마땅히 돌려줄 터이나 그 배에 실은 사람의 편지가 있어야 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이여실(이분)이 와서 보고 그 길로 회덕으로 돌아갔다. 또 조 사서(趙司署) 유한(維韓)이 홍양(洪陽)의 동조(東朝)로부터 지나가 다가 군에 들어왔는데, 마침 여실이 가보고 윤겸의 소식을 물었더니 조(趙)가 말하 기를, 병으로 누워서 편지를 보내 약을 구해 갔다고 하니 놀랍고 걱정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오래 소식이 없어서 생각건대 반드시 병이 있는 것이라 했더니. 이제 그 말을 들으니 확실하구나. 그러나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은 반드시 차도가 있을 것이다. 즉시 종을 시켜 물으려 했으나 송노는 돌아오지 않았고 덕세는 어리 석어서 가는 길을 모르겠고 아직 보내서 묻지 못하니 더욱 민망스럽다. 굶주림이 바야흐로 지극한데 병이 또한 이와 같으니, 인간의 고초를 받는 모양이 유독 우리 집뿐인가, 한탄한들 어찌하리오. 또 저녁에 화상 한 섬을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12두 7승이다. 윤해의 집도 또한 한 섬을 받아 왔다. 전일에 송인수를 시켜서 많이 주도록 힘써 부탁하라고 했는데, 겨우 한 섬을 받았으니 한스러운 일이다. 딴 사람은 혹 3, 4석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부자는 전부터 조금밖에 받지 못하 여 더욱 서운함을 그치지 못하겠다. 윤해는 오늘은 학질이 좀 덜한 것 같다. 다만 속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어서 눕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기쁘다.

3일. 근래에는 걸인이 몹시 드물어서, 모두 말하기를 두어 달 안에 이미 다 굶어 죽었기 때문에 마을에 걸식하는 자를 드물게 본다고 한다. 비록 먼 곳은 보지 못했지만 이 고을 근처에는 굶어 죽은 자가 길에 즐비하니 사람들의 말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윽이 들으니 영남과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심지어 6촌의 친척도 죽여 가지고 씹어 먹는다 하기에 항상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서울 근처에서 전일에는 비록 한두 되의 쌀을 가진 자라도 죽이고 빼앗는데, 근일에는 사람이 혼자 가면 쫓아가서 죽여 놓고 먹으니 마치 산에 사는 새나 들의 짐승과 같아서 아무것도 돌아다보지 않는다고 하니, 사람의 씨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역질이 바야흐로 번져서 곳곳에서 전염되어 이 마을도 앞뒤 이웃집에 누워 앓는 자가 서로 잇달았고 죽었다는 소

식이 날마다 들리니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서 눈으로 이 같은 슬픈 변을 보니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앞으로 올 일을 모르니 어떠한 사변이 있을 것인지. 경여의 편지를 보니, 그 부인이 전염병을 앓는다니 걱정스럽다.

4일. 명복이 돌아왔다. 아침에 함열태수가 결성 윤겸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그편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내일 바야흐로 명복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다. 오후로부터 풍우가 크게 일더니 저녁까지 그치지 않는다. 높은 논에도 물이 가득하고 보리도 또한 좋다고 하니 위안이 된다.

5일. 윤해가 청양으로 가는데, 그 길에 결성에 가서 제 형을 만난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에 종과 말을 보내서 윤해의 처자 및 양모를 데려다가 종일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6일. 이른 아침에 한 생원의 종이 태인 아우의 편지를 갖다 주기에 즉시 펴 보니 김매(金妹)가 서울에 가서 역질에 걸려 죽었다 하니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예 산에 있을 때 딸 신완(愼婉)이 병으로 죽어서 이 때문에 마음을 상했더니. 서울에 간 지 오래지 않아서 또 병에 전염되었으니 주린 나머지 어찌 능히 보존하겠는가. 내 골육이 비록 난리를 만났어도 각각 생존해 있어. 비록 한곳에 모여 있지는 못해 도 오직 각각 목숨을 보존하여 다음날에 만날 기약을 했더니 어찌 이제 젊은 놈이 먼저 갈 줄 알았으랴. 임진년 겨울에 어머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서 머무르다가 수 일 후에 갑자기 돌아왔는데. 떠날 때 서로 잡고 통곡했더니 어찌 이 작별이 영영 유명을 달리할 줄 알았으랴. 평일에 동복(同腹)들을 대접하기를 가장 극진히 하여. 어머님께서도 우리 집 많은 자녀들의 곤궁한 것을 걱정하시는데도 더욱 마음을 두 고 잊지 않으시고 만일 먹다 남은 것이 있어도 유독 그에게 먼저 주어 가장 잘 대 우했으며, 혹 밥을 지어 보내서 여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도 했다. 임진년 가 을에 처자들이 관동(關東)으로부터 유리하다가 겨우 살아서 아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종과 말을 보내서 예산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20여 일을 억지로 머무르게 하여, 그 영접하던 후의를 처자들이 항상 말했는데 어찌 이 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줄 알았으랴. 살아서는 자주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는 친히 염습을 해 주고 시체를 만지면서 한 번 통곡도 못 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 르자 가슴과 창자가 찢어져서 슬픔과 눈물이 끝이 없구나. 다만 아우의 편지에는 죽은 날짜를 쓰지 않았으니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어머님께서 이 때문에 애통하시고 마음 상해하신다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다. 지난봄에 내가 큰 병을 얻어서 거의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미련한 목숨이 죽지 않고 도로 살아나서 친히 골육의 슬픔을 보니, 장래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한 번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전일에 한 생원 용씨가 태인으로 돌아가기에 어머님께 편지를 전하게 했더니, 이제 또한 답장을 먼저 그 종이 오는 데에 보냈으나 다만 어머님께서 손수 쓰신 편지를 보지 못하겠으니 필연 마음이 상하시어 붓을 잡지 못하시는 것이리라. 또 들으니 그 이웃 근처에 역질이 크게 번진다고 하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 들으니 두 번이나 사람을 영암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다가 보태 썼다고 하니 이것은 위로가 된다. 그러나 어찌 이것으로 대어 먹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한 되의 쌀도 얻어다가 만분의 일도 도와주지 못했으니 비록 한탄한들 무엇하리. 모자와 형제가 각각 한 모퉁이에 있어서 모여 합칠 것이 기약이 없는 데다가 주리고 춥고 괴로운 나머지에 또 골육의 슬픔을 당하니, 이 세계에 살아 있어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랴. 전의 일을 뒤에 생각하니 한갓 슬픈 감회만 더할 뿐이다.

7일. 근일에는 항상 나뭇잎으로 상하 조석을 때우는데, 나뭇잎도 역시 쇠여서 부드 럽지 못하니 형세가 먹는 것을 보충하기가 어렵고 산채도 역시 나는 곳이 아니어서 더욱 얻기가 어려우니 보리 이전에 모두 도랑 속의 시체가 될 것이라, 한탄한들 무엇하랴. 어두울 무렵에 충아 모자를 데리고 와서 딸들과 같이 잤다.

8일. 쑥을 뜯어다가 쌀 조금을 섞어 밥을 지어서 처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배를 채웠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충모(忠母)가 집으로 돌아갔다.

9일. 설위(設位)하고 향을 피우고 성복례(成服禮)를 행했다. 끝의 누이의 부음을 들은 지 제4일이다. 윤해가 마침 없기 때문에 인아가 행례(行禮)하고 일곡(一哭)했다. 아침 식사 후에 흐리고 비가 저녁까지 왔다. 계집종을 시켜서 박 모를 옮겨 심었다. 집사람은 이를 앓아 왼편 볼에 부기가 있다.

10일. 어젯밤부터 비가 내려 밤새 개지 않고, 종일 그치지 않더니 때로는 크게 와서 내와 못이 넘쳐흐른다. 다만 근일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더욱

급하다. 비는 이렇게 내리고 사방을 돌아봐도 구걸하고 빌릴 곳이 없는데, 상하의 굶주림이 너무 절박한데도 아무런 계교가 없으니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탄한들 무엇하리오. 저녁에는 마른 느티나무 잎에 콩과 보리를 조금 섞어서 쪄 가지고 처자들이 각각 한 그릇씩 먹으니 차마 볼 수가 없다. 사람을 보내고자 해도 송노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랫집 종은 윤해가 모두 데리고 나갔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윤해도 역시 비에 막혀 오지 못한다. 어른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을 것을 쉬지 않고 찾으니 더욱 몹시 잔인하다. 비로 인해서 뽕도 따지 못하니 누에도 또한 굶어 죽겠다. 인정이 이에 이르니 비록 마음을 움직인다 하겠지만 내성인(聖人)이 아닌 바에 어찌 면할 수 있으랴. 근일에 심회가 자못 나쁘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한마음이 길이 노친에게 걸려 있는 데다가 또 죽은 누이까지 생각하게 되니 짧은 밤에도 만 가지 생각이 가슴을 메워 또한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운다.

11일. 밤새 비가 내리더니 새벽에 비로소 갰으나 아침에는 오히려 흐리다가 늦은 후에 해가 났다. 아침 식사는 보리 두어 되를 가루로 만들어 나뭇잎과 섞어서 국을 끓여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저녁에는 쌀 한 되 반을 꾸어다가 쑥을 삶아 섞어서 밥을 지어 모시 잎에 싸서 먹었다. 또한 간장도 얻지 못해서 소금을 찍어서 삼키니다만 죽지 않으려는 것이지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아이들이 더욱 불쌍하다. 나는 조금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주리거나 곤한 마음이 없으니 반드시 어찌할 수가 없고 하늘에 맡길 뿐이다. 다만 집사람이 병을 앓은 나머지에 기운이 자못파리하고 약하니 큰 병이 날까 두렵다. 치통은 좀 덜하고, 부기도 역시 줄었다.

12일. 이른 아침에 향춘을 태수에게 보내서 편지로 상수리와 콩잎을 달라고 청했더니 저녁에 상수리 10두 · 콩잎 1석 · 거친 벼 5두를 보냈으니 내일은 이것으로 연명할 수 있겠다. 아랫집에도 나누어 주었다.

13일. 아침 식사 전에 윤해가 왔는데, 물에 막혀서 중로에 체류했다고 한다. 제 형 [윤겸]을 결성집에서 보았는데 두 번째 병에 전염되었으나 그다지 심하지 않다가 지금은 쾌차하더라고 한다. 임모(仕母)는 세 번이나 누워 앓고서 지금도 아직 쾌차하지 못하단다. 잉태한 지 여섯 달인데 병이 이와 같으니 깊이 걱정스럽다. 역시

누워 앓는 자가 있다고 하니 더욱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들으니 효임(孝任)이 병으로 요절했다 하니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난 지 겨우 9세에 지혜가 여러 아이들 중에 총명했는데, 불행히 이와 같으니 더욱 불쌍하고 애석하다. 연전에 두 아이가 일찍 요절하더니 지금 또 잃고 다만 임아(任兒)만 홀로 남았으니 누가 딸이 많다고 말하겠는가. 딸 하나도 또한 보존하지 못할까 깊이 두렵다. 아침에 향춘을 보내서 조 내한(희보) 두 형제에게 도와 달라고 했더니, 조 한림은 백미 1두 5승, 조 김포(趙金浦)는 중미(中米) 1두를 주어 보내 주어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 양식 떨어진 지가 여러 날인데 생각해 봐도 빌릴 곳은 없고, 집사람이 억지로 권해서 부득이 조 공(公)에게 급한 소릴 했으니 마음이몹시 부끄럽다. 오후에 유 공 선각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14일. 계집종 어둔(於屯) 모자를 시켜 비로소 둔답을 매게 했더니, 씨가 너무 드물어서 만일 큰 씨로 때우지 않으면 한갓 힘만 허비하고 공이 없을 것이라 한다. 이는 필시 처음 씨를 뿌릴 때 물이 없는 논을 다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새 떼가 와서 찍어먹은 것이다. 일하는 종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깊이 한스럽다. 내일 태수에게 말해서 환상(還上)을 받아다가 다시 뿌릴 계획이다. 그러나 환상(還上)을 얻을수 있을지도 기필할 수 없고, 비록 다시 뿌려도 또한 반드시 좋아질지 알 수 없는일이다. 일마다 뜻과 같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것이 많으니, 하늘이 나를 궁하게 하는 것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는가. 운명에 맡길 뿐이지 비록 탄식한들무엇하리요. 또 저녁에 큰딸이 학질을 앓으니 걱정된다. 아침에 사람과 말을 함열에 보내서 구원을 청했다.

15일. 환상 한 섬을 받았다. 아랫집에도 또한 한 섬을 받았는데, 다 되어 보니 14 두 5승이다. 춘이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정미 3두 · 참보리 2두 · 벼 10두 · 감장 1두 · 건도미 3마리 · 새우젓 2승을 얻어 와서 근일의 연명은 되겠다. 깊이 감사함을 금할 수 없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굶어서 잘 뻔했다.

16일. 환상 한 벼를 까불러서 두 말을 물에 담가 싹을 내어 다시 씨가 드문 곳에 심게 했다. 또 세 종을 시켜 둔답을 매게 하고. 식사 후에 걸어서 김매는 곳에 가보고

나서 그 길로 윤해의 처자들을 가보고 돌아왔다. 다만 큰딸이 오늘 새벽에 윤해의 집으로 학질을 피해 갔다가 또한 면하지 못했으니 민망스럽다. 또 덕노가 밭 매다가 제 어미와 싸워서 그 어미가 분하고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기에 꾸짖어 돌려보냈다. 덕노는 평상시에도 제 어미와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금방 노해서 제 어미를 꾸짖어 거리끼는 바가 없으므로 내가 매양 몹시 금하고 엄하게 가르쳐 매를 때리고자 한 것도 여러 번이었건만 끝내 듣고 고치지 않고, 심지어 여럿이 모여 있는 들에서도 제 어미에게 욕하고 꾸짖으니 그 무지한 금수라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겠다. 저녁에 잡아다 놓고 결박하고서 큰 매를 때려 그 마음을일깨웠으나 본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그치겠는가. 윤해의 집 싣는 말을 방축 안에놓아 먹였더니 저녁때 찾아도 찾지 못하고 끝내 잃었으니, 비록 종들이 삼가지 않은 죄라고 하겠지만 이 또한 한집의 액운이라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오직 이 말 하나만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으니, 민망하고 걱정됨을 어찌 말하랴. 호미 한 자루를 샀다.

17일. 어둔을 시켜 밭을 매게 했다. 또 윤해가 두 종을 시켜 여러 곳 장에 가서 잃은 말을 찾게 했으나 잃은 지 하루가 지났는데 어찌 찾을 수 있으라. 송 진사 이창이 와서 찾고 돌아갔다.

18일. 또 어둔을 시켜 밭을 매게 했다. 덕노는 매를 맞은 뒤로 병이라 칭탁하고 매지 않기 때문에 매양 계집종 혼자서 매고 또한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날을 두고 매도 끝나지 않으니 밉상스럽다.

19일. 또 어둔을 시켜 밭을 매게 했다. 아침부터 비가 뿌렸다. 오늘은 곧 망종(芒種)인데, 한 지경 안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이 몹시 많으니, 비록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한 태수가 농사를 애써 권하지 않은 까닭이다. 탄식스럽다. 또 근래 무료한 중에 《자경편(自警篇》》을 읽어 보니 송조(宋朝)의 현상(賢相) 명경(名卿)들의 언행과 공을 이루고 이를 닦은 자취를 뚜렷이 생각할 수가 있어 또한 몸소 본받고 경계할 만하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 이미 미치지 못하겠으니 비록 스스로 살피고자 해도 할 수가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그러나 거의 늘 그막의 범도는 된다 하겠다. 저녁에 윤해의 처가 와서 보고 여기에서 잤다.

20일. 이웃 사람을 얻어서 못다 맨 밭도 매고 겸해서 모가 드문 곳에 심기도 하려했으나 비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내일로 기약했다. 마침 늦은 뒤에 비로소 갰기로 이웃 늙은이를 시켜서 씨가 드문 곳에 심게 했는데, 매지 않은 곳은 씨가 부족해서 심지 못했다. 조 정자 익 씨가 군아(郡衙)에서 내게 편지를 보내, 내일 돌아갈 텐데 바빠서 와서 찾지 못한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에 군재(郡齋)로 달려들어 가 한동안 이야기하는데, 송복여(宋福汝)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나에게 추로 석 잔을 대접했다.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충모(忠母)는 제 집으로 돌아갔다. 집사람과 단녀는 또 학질에 걸려 앓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21일. 종일 집에 있으려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또 양식이 떨어져서 5승 포목 한 필을 장에 갖다 팔아서 쌀 1두 5홉을 얻어 왔는데, 다시 찧으니 8되 남짓하니 아깝다.

22일. 어둔 모자를 시켜 둔답을 매게 했다. 또 이정시(李挺時)가 와서 보고 혼인 말을 하고 돌아갔다. 오후에 집사람과 단아가 학질을 앓는데 전일보다 갑절이나 심하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집사람의 누에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적더니 점점 번져서 거의 4명석이 넘는데 뽕을 딸 곳이 없어 기를 수가 없으므로 관노(官奴) 상근을 빌려다가 세 번을 계속 뽕을 따게 하여 세 짐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오르지 못하니 걱정이다. 상근은 향춘의 남편이다. 내일은 어머님을 가 뵈려는데 송노(宋奴)가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부득이 윤해의 종 춘이를 빌려서 데리고 가려 한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환할 종이 없으니 걱정이다. 송노가 오지 않는 것은 그 까닭을 알수 없다. 만일 도망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중로에 도둑을 만나서 죽었는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필시 병으로 오지 못하는 것이다.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부득이 함열에 보내려는데 전일 얻어 온 지 오래지 않아 이제 또 사람을 보내니 몹시 미안하고 주저된다. 오후에 걸어서 화산 위에 올라가 밭 매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다만 참새 떼가 씨 뿌린 곳에 모여드니 필시 쪼아 먹을 것이라, 다시 싹이 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쫓는 자가 없으니 몹시 밉지만 어찌하랴.

23일. 새벽에 명복을 함열에 보내면서 오늘 돌아오도록 일렀다. 오후에 소즐이 와보고 갔는데 그에게 들으니 이경여가 지난 22일 전염병에 걸려서 4일 만에 죽었다

하니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달 초생에 경여가 내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 를, 그 아내가 병으로 누워 고통하는데, 만일 내가 버리고 피해 나가면 구원할 자 가 없으니 반드시 죽겠으므로 머물러 있어 구원하는데, 내가 만일 병을 얻으면 또 한 반드시 죽을 것이니 병을 얻는 날이 내가 죽은 날이라. 누가 능히 나를 구원해 살리겠는가. 이런 때일수록 자식 없는 한탄이 더욱 깊으니 다만 천명(天命)을 기 다릴 뿐이다. 노복들도 또한 모두 도망해 흩어졌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비록 슬프기는 했지만 심상하게 여겼더니 어찌 오래지 않아 영영 유명을 달리할 줄 알았으랴. 내가 그 문(門)에 들어간 지 장차 40년이 되도록 한마을에 같 이 살면서 조석으로 서로 찾았으며, 비록 만년에 용인(龍仁) 농사(農舍)로 와서 살 았어도 내가 양지(陽智)를 왕래할 때면 매양 그 집에서 자서 정의가 가장 두터웠는 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으나 너무 멀어서 친히 염습도 하지 못하고 영구(靈柩)를 만지면서 한 번 통곡도 하지 못한 채 유명이 영영 격해지니 부끄러움이 천지에 가 득하다. 지난 임진년 겨울에 자미(이빈)가 세상을 떠나서 항상 슬퍼하면서도 오히 려 여러 동기들이 있어서 자못 위로를 했더니, 올 정월에 면부가 병으로 죽고, 2월 에 내 누이가 죽었으며, 이제 경여도 또 따라서 가 버려서 눈앞의 골육이 날로 죽 어 가니, 내 비록 아직 면했으나 어찌 능히 이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있으랴. 굶주린 나머지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서 병을 얻은 자는 문득 죽는데, 내가 사는 좌편 이웃 의 병리(兵吏) 부자의 집에도 역시 크게 일어서 그 부자가 바야흐로 크게 앓고 있 다 하니 더욱 두렵고 걱정된다. 이 말세에 살면서 눈으로 참혹한 변을 보니 한갓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슬퍼할 뿐이다. 저녁에 유선각 씨가 와 보고 돌아갔다. 김대 성도 내가 내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와 보고 갔다. 명복은 오늘도 오지 않 으니 괴상한 일이다.

24일. 요새 윤겸이 오기를 고대해도 끝내 소식이 없으니 만일 몸에 병이 없으면 제처의 병이 쾌차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탈 말을 아직도 빌리지 못한 것인가. 전일에 윤해가 왔을 때, 내가 떠나기 전에 대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아침 식사 전에 명복이 돌아왔는데, 함열태수가 쌀 3두·참보리 2두를 보냈다. 식사 후에 떠나서 무수포(無愁浦)를 건너서 용안현 앞을 지나 함열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저녁이 되지 않았다. 주인의 집에 앉아서 이름을 통했더니 태수(신응구)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 맞는다. 상동헌(上東軒)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마침 조 정자 익·김 봉사 경·태수의 삼촌 전 대흥태수 신괄이 와 앉았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녁밥을 먹고 여럿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조 정자는 상방(上房)에서 같이 잤다. 김 봉사는 곧 윤겸의 친구로서 일찍이 변이 난 처음에 함께 피란한자이다.

25일.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렸다. 종들이 우비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조석을 모두 태수와 함께 먹고 또 조정자와 같이 잤다.

26일. 태수와 아침밥을 같이 먹고 행량으로 백미 1두·정미 1두·콩 1두 및 조기 1 묶음·새우젓 2되·미역 1동·감장·간장 등 물건을 얻어 가지고 늦은 뒤에 떠났다. 신창진(新倉津)을 떠나서 길가에서 말에 꼴을 먹이고 달려서 김제 서쪽 죽산리 (竹山里) 대촌(代村)의 양반 조대붕(趙大鹏)의 집에 도착하니 조 공(公)이 나와 보고 은근히 이야기했다. 그는 본래 서울 건천동에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 온 지가 이제 40여 년이 된다. 젊었을 때 글을 배워서 동접(同接)의 친구들이 모두 명사(名士)로 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서 나와 본다. 동중(洞中)의 옛 사람들을 두루 묻는데, 혹 내가 모르는 자도 있다. 나이 70여 세가 넘어서 눈이 어두워 물건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를 별실(別室)에서 자게 하고 동산의 채소를 대접한다. 집이 가난해서 밥을 지어 대접하지 못하니 몹시 한스 럽다고 한다.

27일. 날이 밝자 떠나서 반 식경을 가다가 길가 백성의 집에 들어가 아침밥을 먹고서 십 리도 못 가서 비를 만나 도롱이를 입고 태인 칠전리 어머님 계신 곳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기울지 않았다. 어머님과 아우의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다. 다만 궁하고 주림이 날로 박두하여 보존할 수가 없다고 하니 한탄함을 이길 수가 없다. 모레가 곧 대기(大忌)여서 제수(祭需)를 얻어 오라고 종과 말을 영암 누이 집에 보내고 그저께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니 반드시 중도에서 도둑을 만난 것이다. 비단 제 몸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제물(祭物)은 오로지 이것만 믿었고, 집에는 한 되의 쌀도 저축이 없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 장차 대기를 궐

하게 되겠으니 온 집이 몹시 근심하고 민망해한다. 내가 가진 남은 양식은 겨우 백 미 5승·콩 5승이어서 이것을 내놓고 저녁 식사를 짓게 했다. 내가 올 때 제물을 함열태수에게 요구하려 했으나 그 관청 일이 많은 것도 보았고, 또 나의 친구도 아 닌 터에 양식을 얻은 외에 딴 물건을 요구하기가 말을 꺼내기 몹시 어려워서 머뭇 거리다가 그대로 말았는데 여기 이르러서 보니 사세가 이와 같으니 더욱 몹시 민 망하고 걱정스럽다. 또 어머님께서는 내가 온 것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다가 김매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서로 통곡할 뿐이다. 저녁에 덕경이 영암에서 오 자 온 집안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임매의 편지를 펴 보니 집안이 모두 무사하다 했고. 제수로 쌀 4두 · 벼 6두 · 찹쌀 1두 4승 · 목미 5승과 그 나머지 찬까지 모두 보냈으니 이것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 몹시 기쁘다. 올 때 길가의 농사일을 보니, 임피(臨陂) 이하 신창진(新倉津)가로부터 김제군 북쪽까지 넓고 기름진 들을 모두 아직 개간하지 않아서 거친 풀만 눈에 가득하다. 거기 사 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비단 이곳만이 아니라. 이 아래 여러 고을들도 모두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단다. 혹은 종자가 없고, 혹은 인력이 없으며, 또는 요역 이 번다해서 거의 다 도망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천 리나 되는 기름진 들이 모두 더 러운 쑥대밭이 되었으니 비단 민생이 애석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의뢰하는 바 가 오직 이 한 도(道)뿐인데 이 도가 이와 같으니 달리 무엇을 믿으리오. 금년의 전 세(田税)는 반도 받지 못해서 지금 바야흐로 독촉해 받느라고 처자에게까지 연루 되어 감옥은 모두 차 있고 백성들의 저축은 모두 비어서, 방이 마치 경쇠를 달아 맨 것과 같으니 비록 죽인들 어디서 나서 바치겠는가. 이렇게 일이 많은 때에는 경 비가 전보다 많이 드는 법인데. 공사 간에 모두 말랐으니 국가에서 끝내 어찌 처리 하겠는가, 내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 근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탄 식한들 무엇하리요. 연전에 두 번째 이곳을 지날 때는 묵은 곳이 비록 많았어도 금 년처럼 전혀 흙을 일구지 않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더하니 명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태인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좀 나아서 갈지 않은 곳 이 더러 있어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 길가에 보면 역질이 크게 번져서 거의 모 두 죽으니, 슬프다. 우리나라 백성이 적의 칼날에 죽은 나머지에 또 굶주리고 병에 걸리는 걱정을 만나, 여기에 이르러 이미 지극하니 하나도 남지 않는 탄식을 어찌 금할 수 있으랴.

28일. 아침 전에 아우는 순찰사가 현(縣)에 왔다는 말을 듣고 만나고자 현에 들어 갔으나 다만 비가 뿌려서 도롱이를 입고 갔다. 늦은 후에 비로소 개서 돌아왔는데, 순찰사가 쌀 1두 · 콩 2두 · 소금과 간장 및 지필묵(紙筆墨) · 부채 · 모자 등 물건을 주었다. 종들이 부족해서 종일 제물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수씨(嫂氏)는 밤을 새웠는데도 끝이 없어서 정과는 만들지 못했으니 형편이 그런 것을 어찌하리오.

29일. 날이 밝을 무렵에 제사를 지내고 늦은 후에 아우의 두 처남 및 권 별감(權別監) 서(恕)의 둘째 아들을 청해다가 음식을 대접해 보냈다. 처음 생각으로는 내일 떠나 돌아가려 했으나 어머님께서 억지로 만류하시어 단오(端午)를 지나고 가라고 하신다. 그러나 양식이 없어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모레는 돌아갈 계획이다. 또들으니 서울집은 처음에는 수리한 곳을 비록 사방을 헐어 갔으나, 위는 전과 같았으나 지금은 다 쓸어가고 오직 빈터만 남았다고 하니 이는 곧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애석해하면 무엇하리요.

5월

1일. 어제저녁부터 기운이 편안치 않아 혹 설사도 하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깨끗하다. 다만 뱃속이 불안하여 종일 배가 끓고 8, 9차례 설사를 하고 보니 기운이 도리어 피곤하고 오후에는 속머리가 조금 아프니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라, 의심스럽고 걱정됨을 그치지 못하겠다. 아우와 함께 걸어서 권 좌수의 사랑채로 가서 권(權)의 아들 및 그 아우의 처남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권의 집에서 앵두를 따다가 상자에 가득히 내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먹었다. 다만 좌수는 지금 향임(鄉任)이 되었는데 방백(方伯)이 현(縣)에 들어왔으므로 집에 오지 못해서 이제 또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권의 집에서 어머님을 매우 후하게 대접한다고 하니 감사하다.

2일. 아침 식사 후에 어머님께 작별하고 아우와 헤어져서 떠나, 김제 땅 길가 소나 무 그늘 밑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으려니 기분이 몹시 불편해서 조 금 먹다가 종에게 주었다. 또 떠나서 김제군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잘못 들어간 것을 깨닫고 돌아서 도로 나와 이정(里程)을 계산해 보니 거의 반 식경은 늦었다. 전일 올 때 자던 조대붕(趙大鹏)의 집에서 잤다. 여기도 역시 김제 땅인데, 조 공(公)이 나와 보고 역시 채소를 대접하면서 좋은 말로 대우한다. 보기에 그 손자에게 붓을 주어 후의에 사례했다. 또 오면서 보니 임피(臨陂) 이하는 보리가 잘 되지 못했으나 미처 익기도 전에 굶주린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따서 먹었고, 밤중에는 보리를 베어 가는 자가 몹시 많아서 사람 모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지키다가 때로는 쏘아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금할 수가 없고 곳곳이 모두 그렇다고 하니 탄식할 일이다.

3일, 날이 밝기 전에 떠나서 창진(倉津)가 인가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었다. 들으니 나룻배가 어젯밤에 급한 조류에 부딪혀서 밧줄을 끊고 석탄(石灘)으로 거슬러 올 라갔기 때문에 사사배가 돈을 받고 건네주는데, 배가 작아서 겨우 사람 5, 6명이 탈 수 있고, 소나 말은 떠서 헤엄쳐 건너야 하므로 나도 또한 이것을 본받아서 건 넜다. 그러나 양반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함열에 이르러 주인집에 들어가 앉아 서 들으니 윤겸 형제가 여기에 왔다가 윤겸은 어제 이미 돌아갔고, 윤해는 아직 머 물러 있다고 한다. 즉시 태수에게 이름을 통했더니 즉시 사람을 보내서 맞았다. 또 들으니 장성태수 옥여(이분)가 서울로부터 지나다가 여기에 이르렀다기에 상동헌 으로 가 보았더니. 김 봉사 경과 이 봉사 신성(愼誠) 형제와 옥여 등이 모두 모였 다. 조금 있다가 태수의 삼촌 전 대흥태수(신괄)가 아산으로부터 역시 와서 함께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밥을 같이 먹고 각각 헤어졌다는데, 나는 유해와 함께 옥 여에게서 잤다. 옥여는 서울에 있을 때 병을 얻어서 20여 일 누워 앓는데. 주상(선 조)께서 그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내의(內醫)를 보내서 비록 병은 보지 않 아도 또 내워(內院)으로 하여금 상당한 약을 지어 보냈으니 천은이 망극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을에 도착하자 기분이 불편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병을 조리한다고 한다. 옥여가 올 때 임천에 이르러 우리 가속에게 들러 보고, 쌀 2두 · 콩 1두 · 생위어 1두름 · 새우젓 3되를 주고, 또 태수에게 말해서 환상조(還上租) 1 석을 얻어 주었다고 하니 근일의 목숨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쁘다. 윤겸은 보리 수확하는 일로 부득이 도로 결성으로 돌아갔다 한다.

4일. 아침 식사 후에 윤해와 떠나는데, 옥여도 또한 장성으로 향했다. 남풍이 크게 불고 자못 비가 내릴 조짐도 없다. 달려서 무수포에 도착하여 겨우 언덕에 이르자 비가 뿌려서 짐바리가 자빠진다. 다시 수리(數里)를 못 가서 큰비가 내리니 비록 우비를 입었어도 새서 젖은 곳이 몹시 많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집사람과 둘째 딸은 바야흐로 학질을 앓고 있고, 단녀도 또한 때지 못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나는 태인에 있을 때 연일 불편스러워서 학질 증세 같더니 수일 이래로는 별로 다시 아프지 않으니 필시 감기에 걸린 까닭일 게다. 비가 종일 크게 내려 조금도 갤 때가 없었다.

5일. 밤새 비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인아를 시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내가 기분 이 편안치 않아 잔을 올리게 했다. 어제 올 때 함열태수가 나에게 정미 2두 · 저린 진어 5마리를 주었다. 또 여기 와서 비로소 들으니 동쪽 이웃에 사는 노리(老吏) 임승운이 죽었다 한다. 또 남쪽으로 오는 곳에 역질이 크게 번져서 죽는 자가 서로 이었고. 길가에 시체를 버리는 것도 수를 다 셀 수 없었다. 또 옥여에게서 들으니. 서울의 사대부들도 또한 많이 병으로 죽어서, 박 사간(朴司諫) 동현(東賢) · 이 필 선(李弼善) 경함(景涵) · 이 이상(李二相) 산보(山甫) · 정 동지(鄭同知) 언지(彥智) 도 또한 역질을 앓다가 죽었으며, 그 나머지 하료(下僚)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지금 바야흐로 누워 앓는 자도 몹시 많다고 하니 상서롭지 못하다. 또 들으니 조사 (詔使)가 출발하여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니 가까운 날짜에 마땅히 서울에 들어올 것이며, 계속해서 전라 · 경상도 지경으로 향하여 군정(軍情)도 살피고, 군사도 조 련하고 병기도 수리하며 겸해서 적세가 어떠한지 탐지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무 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다. 또 들으니 우리 군사가 적을 습격하고 베인 일로 고 시 랑(顧侍郎)[양겸(養謙))이 유 총병(劉總兵)[유정]으로 하여금 도원수(都元帥)[권율] 를 잡아다가 매를 때려 임의로 적을 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필경 강화를 하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다. 흉적들이 아직도 변방 강토를 점령하고 있어 맘대로 출입하면서 민가를 분탕질하는데, 중국 장수는 우리로 하여금 소멸하지 못하게 하 니 더욱 한탄스러운 일이다. 또 들으니 세자의 행차는 근일에 도로 완산으로 와서

조사(詔使)를 맞는다고 한다. 외로운 쇠잔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든 나머지에 또조사가 오는 것을 당했으니 도로(道路)에서 지공(支供)하는 비용과 송영(送迎)하는 수고로움을 어찌 견디어 지탱하겠는가. 오직 이 양호(兩湖)가 홀로 그 괴로움을 당하여 공사 간에 남는 것이 없이 다 없어지니 어찌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나라 일을 잘하는 자로 하여금 이때를 당하게 했어도 또한 선후책이 없을 것이다. 탄식할 일이다. 집사람이 날마다 학질을 앓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집사람의 누에 친 것은 고치 23두를 땄다.

6일. 둔답에 가보고, 윤해의 집에 들렀다가 돌아왔다. 다만 윤해의 처와 딸 의아 (義兒)가 머리가 아파 누워 앓는데, 문 앞에 병가가 있으니 전염된 증세인가 두려워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또 둘째 딸의 학질은 전보다 갑절이나 심하고, 집사람은 초저녁에 앓았으나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 다만 단아는 떨어졌으니 기쁘다. 송노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으니 몹시 밉다.

7일. 지난밤에 집사람이 꿈을 몹시 꾸어 심지어 눌려서 소리까지 내었는데 내가 마침 자지 않고 있어서 흔들어 깨웠더니 비로소 꿈속 일을 이야기한다. 다만 윤겸의 온 집이 병세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윤겸이 왔을 때 임아가 바야흐로 아파서 청양까지 왔다가 종 세만을 데리고 소를 태워 홀로 결성으로 보내고, 혼자서 여기에 왔다가 보리 거두는 일로 부득이 돌아갔었다. 돌아간 뒤에는 소식이 없고, 집에 종도 없어서 또한 보내서 묻지도 못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또 아침에 윤해의 집안부를 물었더니 의아 모자가 밤새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더욱 몹시 민망하고 근심된다. 굶주린 나머지에 병이 이와 같아서 한 번도 얼굴을 펼때가 없으니 차라리 살아 있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하다.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또 이탁의 처자는 부여 땅에 와 사는데, 집에 사환이 없어서 계집종 분개를 불러갔다. 다만 탁(晫)의 병이 아직 쾌차하지 않다니 걱정된다. 아침 식사 후에 춘이로 하여금 정미 1두 3승과 정목 1필을 가지고 서천ㆍ비인 등처에 보내어 소금으로 바꿔다가 보리를 사려한다. 윤해의 집에도 또한 콩 2두 5승을 보냈다. 어둘 무렵에 함열태수가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배를 세내어 진어를 윤해에게 보내니 내일 새벽에 시장에 와서 보리를 사라고 하니 후의에 깊이 감사하다. 마

침 종과 말이 없고, 또 윤해 처의 병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마땅히 종과 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윤해 처의 병세를 보아 11, 12일 사이에 보낼생각이다. 저녁에 부채 한 자루를 김대성에게 보냈다.

8일. 충모의 병은 여전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의아는 조금 나아 필시 감기 탓일 게 다. 아침 식사 후에 방수간 · 이광춘이 와서 보았다. 그들에게 들으니 백몽진이 이 달 초생에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하니 불쌍하다. 지난겨울과 올봄에 방 공(公)과 함께 매일 찾아와서 같이 바둑을 두면서 객중의 무료함을 달랬었는데 이제 그 죽 음을 들으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비단 이뿐이 아니라, 김대성의 집에도 역질이 크게 번져서 그 큰며느리가 어젯밤에 죽었다 한다. 멀지 않은 곳에 병세가 이와 같 으니 깊이 두렵다. 나도 역시 오후에 기분이 몹시 불편하고 속머리가 조금 아프 니 또 학질의 조짐인가 두렵다. 부채 한 자루를 또 방수간에게 주었다. 또 둘째 딸 이 학질을 앓아 갑절이나 심하니 깊이 민망스럽다. 인아는 아침 식사 후부터 구토 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종일 뒤척이니 더욱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저녁에 문경인이 내일 충용장의 군중으로 나간다고 와서 작별하고 갔다. 명복이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태수가 정미 3두·생진어 2마리·꿀 5홉·녹두 1승을 보냈는데, 다 시 되어 보니 쌀은 5승이 준다. 진어와 꿀은 길에서 빼앗겼다 한다. 어두워서 돌아 왔으니 필시 고기를 굽고 밥을 지어 먹은 것이요. 꿀은 병 앓는 집에서 구하는 곳 이 많을 것이니, 또한 필시 중로에 팔아서 쓰고 빼앗겼다고 핑계하는 것이니 몹시 밉다. 충모와 인아는 병중에 바야흐로 이것을 기다려 죽을 먹이려 했었는데, 잃었 다고 핑계하니 더욱 몹시 통분하다.

9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인아의 증세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태반이나 덜하다. 다만 아주 쾌차하지는 못하니 학질인 것 같으나 다시 내일 본 뒤에라야 알겠다. 충모는 오늘 아침에는 차도가 있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집사람은 수일 내로 학질을 떼고 앓지 않음으로 또한 위로가 된다. 윤해가 또한 학질을 앓아 걱정스럽다.

10일. 어제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더니 새벽이 지나도 걷히지 않다가 지금은 삼 대같이 쏟아 내리며, 흐린 기운이 사방에 막혀 있으니 반드시 장맛비가 오래 개지 않을 모양이다. 내와 못이 가득 차고 넘치고, 큰 들판이 바다를 이루어 사람이 통

행하지 못한다. 춘이는 생각건대 반드시 물에 막혀서 한갓 양식만 허비하고 오래 도록 돌아오지 못하니, 보리때는 이미 늦었고 소금 값은 필연 천해서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함열에 가는 것도 만일 13일 장에 대가지 못하면 피차를 모두 잃을 것이니, 여름 지날 차비를 역시 이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굶주리는 근심이 지난 봄보다 더욱 심할 것이다. 평생 타고난 분수가 다만 궁곤한 데 알맞으니, 한 톨의이익이라도 바라고자 하면 일마다 어긋나서 매양 계획대로 맞지 않으니 한탄한들무엇하리요. 분수에 편안하고 천명을 듣는 것만 같지 못하다. 또 인아와 둘째 딸의학질은 갑절이나 심하다. 밤새도록 비는 조금도 개지 않는다.

11일. 밤새 비가 오고 아침까지 그치지 않다가 늦은 후에야 비로소 갰다. 윤해는 학질을 피해서 이른 아침에 이리로 왔으나 역시 면하지 못하고, 몹시 심하게 앓아서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서 말을 빌려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으니 민망하다. 요새 연일 내리는 비로 인하여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져, 조석으로 겉보리를 가루로만들어 죽을 쑤어 반 그릇씩 먹으니, 병이 없는 자는 그렇다 치고 학질을 앓는 두아이도 또한 창자를 채우지 못하니 가련하다. 또 한노(漢奴)가 길가에서 풀을 베는데, 지나가던 역자(驛子)가 베어 놓은 풀과 썼던 삿갓과 도롱이를 모두 빼앗아 갔다고 하니 몹시 밉다.

12일. 또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갰다. 윤해는 어제 학질을 앓은 후로 아침에도 오히려 쾌하지 못해서 함열을 가지 못하고 부득이 계집종 옥춘과 명복을 같이 보내서 내일 장에 대가서 보리를 사라고 했다. 전일 함열태수의 편지에 보리 살 돈은 가져가라고 했다. 또 인아와 둘째 딸이 학질을 앓았으나 둘째 딸은 심하지 않았다. 다만 춘이가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13일. 오후에 흐리고 비가 뿌렸다. 윤해가 학질을 앓아 갑절이나 심하고, 둘째 딸도 또한 조금 앓으니, 필경 날마다 앓게 되나 보다. 내일은 곧 윤해 양부의 기일이다. 명복을 함열에 보내서 제수(祭需)를 구했더니 함열태수가 중미 1두·찹쌀 3승·감장 3승·양색젓갈 각 1되를 보냈다고 한다. 명복에게서 들으니 함열태수가 저린 갈치 7묶음을 우리 종에게 보내서 장에 가서 보리를 사게 했는데, 갈치가 작고 가늘어서 보리 1두에 거의 5, 6개를 달라고 하므로 사지 못했다고 하니 한스럽

다. 또 누에씨를 내려고 좋은 고치 3되를 버들상자에 담아 높은 시렁에 두었는데 저녁에 내려 보니 모두 쥐들이 물어가고 한 개도 남기지 않았으니, 통분해한들 무 엇하랴.

14일. 아침에 비가 내렸다. 갈치를 지고 오도록 한노(漢奴)를 함열에 보냈다. 또 지난밤 꿈에 한림 자정(김지남)을 보고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통곡했는데, 깨고 나서도 슬퍼 울기를 마지않았다. 또 인아와 둘째 딸이 학질을 앓았으나전일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다만 큰딸도 또한 오늘 비로소 앓기 시작하여 서로 나누어 신음하니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다. 근일에 양식이 떨어져서 이웃 마을에서 보리를 꾸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겨우 죽지 않을 뿐이다. 아이들은 오래 학질을 앓았는데 먹는 것도 배부르지 못해서 형용이 파리하게 말랐으니 차마 볼 수가 없으나 어찌하리오. 하늘이 실상 하는 일이다.

15일. 옥춘이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 태수가 벼 10두 · 말장 3두 · 찹쌀 3되 · 저린 진어 4마리 · 위어젓 1동이를 모두 가지고 왔는데, 다만 짐이 무거워서 벼는 주인 집에 두어두고 왔다. 쌀과 포목으로 바꾼 소금 9두 5승을 공연히 애쓰고 양식을 허비했을 뿐이다. 도리어 쌀과 포목으로 도로 바꾼 것만 못하다. 가난한 사람의 일이란 매양 이와 같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랴. 그러나 내일은 마땅히 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장에 가서 보리와 바꿀 작정이다.

16일. 한노를 함열로 보내서 벼를 져 오게 했다. 윤해는 어제 학질을 앓은 나머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속머리가 아직도 편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또 앓아서 전혀음식을 먹지 못하니 몹시 민망하다. 오후에 지팡이를 끌고 집 뒤를 거닐다가 이곳으로 돌아오니, 인아와 큰딸이 역시 앓는데, 큰딸은 매일 앓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윤해는 입이 써서 꿀을 먹고 싶어 하는데 사삿집에서는 얻을 길이 없으므로 집사람이 편지로 아내(衙內) 신 부제학(申副提學)댁에 말했더니 반 종지를 얻어 왔기에 즉시 윤해에게로 보냈다. 부제학댁은 곧 태수의 딸인데 과부로 살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 또 향춘이 전일에 도롱이를 입고 갔다가 잃었기로 즉시 도로 사 오라고 했더니 오늘 장에서 새것을 사다 바쳤다. 또 저녁에 한노가 돌아왔는데 10두의 벼를 다시 되어 보니 8두도 되지 않는다. 밉다. 또 도어는 장에서 팔려니 겉보리 1

두에 혹 4마리 혹 5마리씩이어서 22마리에 겨우 5두를 받았고, 그 나머지는 팔지 못했다. 소금은 보리 1두에 혹 3근을 주고 바꿨어도 역시 다 팔지 못했으니 반드시 후일을 기다려서 팔거나, 혹은 딴 장에 실어 보내서 팔 작정이다. 다만 딴 물건은 천하고 보리는 귀해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여 정목 한 필에 겉보리 6, 7두를 받 았다 한다. 이 보리가 흔한 때를 당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다음 날 일은 알 만 하다. 민생의 막기 어려운 탄식이 옛날보다도 더 심하니, 하물며 우리들처럼 타향 에 떠도는 자이랴. 필경 구렁 속의 시체가 될 날이 멀지 않으니 비록 탄식한들 무 엇하랴. 천명에 부칠 뿐이다.

17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아침에 향춘을 보내서 윤해의 병을 물었더니, 아직도 쾌하지 못하고 아침에도 오히려 괴롭고 속머리가 아직 아프다고 한다. 학질이 아닌가 두려우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다시 오늘 앓는 형세를 본 뒤에야 알 것이다. 늦은 뒤에 땀을 내고 나은 듯하더니 오후에 도로 아프단다. 그러나 어제에 비하면 덜한 듯하니 필시 학질인 것이다. 충아는 오늘 비로소 아프다니 더욱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윤해의 병을 가보고 돌아왔다. 둘째 팔도 역시 앓는다. 굶주리고 곤궁한 나머지에 윤해의 병이 이와 같아 그 증세가 가장 심하니, 밤중에 이를 생각하면 잠을 붙일 수가 없고, 온몸이 가려워서 긁기를 쉬지 않으니 가슴이 몹시 답답하다. 이 밤에 흰 머리털이 십분이나 더 생기니 인생이 가석하다.

18일. 두 집 노복 5명을 시켜 둔답을 맸다. 이것이 두 벌 매기이다. 아침에 윤해의 병을 물었더니 많이 나았고, 충아도 역시 소복된다니 기쁘다. 식사 후에 인아와 함께 화산에 올라가서 풀매는 것을 굽어보다가 돌아왔다. 이 생원 정시가 마침 집에 왔기로 맞아들여서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저녁에 논매는 곳에 가서보니 절반도 매지 못했는데 다만 씨가 드물어서 아깝다. 그 길로 윤해의 병을 들어가 보고 돌아왔다. 또 어두울 무렵에 분개가 돌아와서 들으니, 이탁이 이달 8일에 별세했다 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위태로운 증세를 얻은 지가 이제 5, 6삭이 되어 땔나무가 다 되었다니 이가(李家)의 화가 어찌 홀로 이렇듯 참혹한 데에 이르렀는가. 그 아우 · 조카와 두 아들은 모두 적의 칼날에 죽고, 그 아버지와 한 아들, 두 딸은 병으로 죽었으며, 그 장인도 또한 전염병으로 죽었고, 한 달

도 지나기 전에 자기 자신도 또한 죽었으니, 참혹한 변이 편벽되이 이 집에만 와서 정로(正老)의 자손이 모두 죽고 홀로 5, 6세의 어린 손자 하나가 보존되었을 뿐이니, 정로를 위해서 더욱 애통한 일이다. 정로는 곧 탁(晫)의 아버지 이정 순수(李正順壽)의 자이다. 또 인아의 학질은 그다지 심하지 않고, 큰딸은 연일 앓지 않으니 필경 아주 떨어진 것이다.

19일. 네 노비를 시켜 논을 매게 했으나 오후에 비가 내려서 호미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아침 식사 후에 사인(土人) 조대득(趙大得)이 와서 보았다. 조(趙)는 곧 서울 장의동 사람으로서 떠돌다가 이 군(郡)의 성북 쪽에 와서 사는데 윤겸과 아는 사이이므로 찾아온 것이라 한다. 춘이가 돌아왔는데, 보리 13두 · 콩 1두를 바꿔서 가지고 왔다. 소금 4되로 보리 1두를 바꾸었다고 한다. 처음 생각으로는 소금 값이올라서 보리 1두에 소금 2되 반이나 3되로 바꾸면 25, 26두는 되리라 했더니 얻어온 보리가 이것뿐이니 반드시 나를 속이는 것이리라. 비록 한탄하면 무엇하리요. 윤해와 둘째 딸은 조금 앓았고, 충아도 역시 앓았으니 불쌍하다.

20일. 날이 밝을 무렵에 제사를 지냈다. 굶주린 나머지에 제수를 얻을 길이 없어서 다만 밥만 지어 놓고 지냈으니 비록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그러나 성의에 달렸을 뿐이지, 어찌 반드시 많이 차려야 한단 말인가.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은 뒤에는 크게 내려 저녁까지 그치지 않는다. 또 전일에 들으니 조 정랑(趙正郎) 경수(조 응록)이 이 군(郡) 농사(農舍)에 왔다가 내일 사이에 돌아간다 하므로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서 비를 무릅쓰고 가다가 내를 건널 때 발이 잘못하여 진흙에 빠져서 무릎까지 묻히므로 부득이 말에서 내려 걸어서 물속으로 나오고 보니 다리 아래가모두 젖었다. 이내 조가(趙家)에 들어가 행전과 버선을 말린 후에 다시 신었다. 경수는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기꺼이 맞아 들어가 앉아서 옛일과 지금 일을 이야기하면서 각자 슬퍼하고 탄식하다가 저녁밥을 지어 내게 대접했다. 경수에게서들으니, 적의 추장(曾長) 평행장(平行長)(소서행장(小西行長))이 다섯 가지 일로 중국 조정과 강화하려 했는데, 하나, 조선의 네 도(道)를 쪼개 줄 것. 하나, 중국 공주를 내려 보낼 것. 하나, 조선 길을 통해서 조공하도록 열어 줄 것.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일본에 인질로 보낼 것. 하나, 일본 관백(關伯)을 봉해서 왕으로 삼을 것 등

인데, 이는 모두 좇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을 중국 조정에 요구해서 이에 응하 는지 어떤지를 보아서, 만일 응하지 않으면 마땅히 군사 12부(部)를 내어 바로 중 국으로 향하겠다고 하니 그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랴. 중국 사신이 나오는데, 혹은 강화하거나 혹은 적의 형세와 우리나라의 군사를 조련하는 일과 양식의 사정들을 살핀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승대장(僧大將) 유정(惟 政)은 자호(自號)를 금강산대선사 송운(金剛山大禪師 松雲)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중에 바로 적장(賊將) 청정(淸正)의 진중으로 들어갔더니 청정은 후의로 우대해 주 어서 십여 일을 머무르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청정이 행장과 공 을 다투느라고 화목하지 못하여. 수길(秀吉)은 행장(行長)의 거짓말을 듣고 청정의 처자를 죽였기 때문에 청정이 크게 노하여 우리와 합세하여 거꾸로 관백을 치려고 도모한다 하니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간 사한 말을 반드시 믿을 수가 없다. 하물며 수길이 큰 군사를 청정의 손에 쥐어 주 어 그 딴 타국에 가서 적과 싸우게 했는데 먼저 그 처자를 죽이다니 반드시 그럴 이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를 믿지 않는다. 다만 저들끼리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면 우리나라 병력으로는 절대로 대적하지 못할 것이나 하늘이 만일 순한 자를 돕 는다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외롭고 쇠잔한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적의 칼날 밑으로 가게 할 것이며, 또 어찌 예의의 고장을 몰아 오랑캐의 풍 속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천도는 돌아오기를 좋아하는 법이어서 반드시 화를 뉘 우칠 때가 있을 것이니,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유 총병(유정)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다 고 하니. 더욱 믿을 수가 없다. 중국 사신이 나와서 영남에 당도했다고 하니. 그가 가는 길에 지공(支供)하고 접대하고 연향(宴享)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직 이 양호(兩湖)만이 굶주린 나머지의 백성들이 물자를 댈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한단 말인가. 다만 밉고 탄식할 뿐이다. 또 들으니 심열은 역적을 추국(推鞫)할 때 색낭 (色郎)으로서 승진하여 이미 6품(品)에 올라 주부(主簿)가 되었다 하니 기쁜 일이 다. 그 나머지 당상관과 승지 등도 모두 상직(賞職)으로 혹은 가선(嘉善)이 되고 혹 은 자헌(資憲)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경수에 의해서 들은 것이다. 경수의 처자는 난리 처음부터 이 군(郡) 수다해리(水多海里)에 와서 살기 때문에 동조(東朝)에서 말미를 얻어 가지고 와서 보고, 지금은 익위사(翊衛司)의 사어(司禦)가 되어 있다. 인아는 학질을 앓고 큰딸은 떨어졌으며, 윤해는 어제 잠시 앓았으니 반드시 이로부터 아주 떨어지는 것이다.

21일. 어제부터 저녁내 밤새 비가 잠시도 쉬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다 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갰다. 윤해는 병이 떨어졌기 때문에 와 보았다. 다만 음식이 전과 같지 않고, 또 먹을 만한 것이 없으니 한스럽다. 단녀는 몸을 떨고 머리가 아 프다니 필시 학질일 것이다. 걱정스럽다. 그러나 다시 후일에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어제부터 한노가 병을 칭탁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기 르기가 어려워서 아랫집 종을 시켜서 풀을 베어 오게 했으나 역시 많이 베어 오 지 않고 역시 꾸지람만 면했을 뿐이다. 늙은 말이 오직 풀이라야만 먹으니 한스러 은 일이다. 또 윤함은 서쪽으로 돌아간 뒤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하니 민망스럽 고 걱정된다. 막정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더욱 근심스 럽다. 근일에 온 집안사람이 모두 꿈에 봬서 가까운 날짜에 올 것인지, 물에 막힌 것인지 기다리기 어렵다. 또한 여아가 나이는 12, 13세인데 문밖에서 먹을 것을 빌 기로 그 사는 곳과 부모를 물었더니. 죽산 땅에 살고. 그 부모는 난리 초에 적의 손 에 죽어서 그 고모부와 떠돌면서 호남 지방에서 걸식하다가 북쪽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느라 이 읍내에 와서 살면서 걸식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달 초승 에 그 처자를 데리고 저는 버리고 도망해 갔다고 한다. 그 모양과 말하는 것을 보 니 몹시 어리석지는 않은데, 만일 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장차 반드시 굶어 죽겠으 니 가련하다. 이에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수호해서 기르면서 그 하는 것을 보아 길 이 사환으로 부리고자 아직 머물러 두게 했더니 저도 또한 그러기를 소원해서 쫓 는다.

22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요새 장맛비로 인하여 계옥(桂玉)의 탄식이 바야흐로 급하니 민망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함열태수(신응구)가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고 그편에 조기 네 마리와 소금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윤해로 하여금 답장을 써서 보내도록 했다. 인아와 단녀는 바야흐로 학질을 앓아서 맛있는 음식이 없어 먹

지 못하기로 즉시 두 아이에게 주고, 또 두 마리는 아랫집 윤해에게 보냈다. 윤해 도 역시 앓고 난 나머지 항상 보리밥만 대하고 맛있는 것을 얻지 못해서 먹지 못한 지 오래인데, 이것으로 해서 먹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다. 단녀는 어제 앓고 오늘 또 앓으니 필경 축일학(逐日瘧)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조금 아프다 한다.

23일. 지난밤에 큰비가 동이로 퍼붓더니 밤새 그치지 않아 자는 방에 비가 센다.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오래 비가 온 나머지에, 또 한밤을 크게 내리니 물가의 곡식은 반드시 손실되는 것이 많으리라. 늦은 후에 비로소 갰다. 인아와 단녀는 학질을 매일 앓는데, 단아는 보리밥을 먹지 못하고 또 맛있는 것이 없어 종일 굶고 누웠으니 말할 수가 없다. 충아도 또한 아프다 한다.

24일. 말을 윤해에게 보내서 타고 오게 했더니 충아도 역시 왔다. 오래 학질을 앓은 나머지 모두 보리밥을 싫어 하니 한스럽지만 어찌하리오. 아침에 향춘을 보내서 조 좌수 희윤에게 보리를 구걸했더니, 물에 잠겨 썩어서 한 닢도 거두지 못했다고 거절하니 탄식스럽다. 조 한림(희보)댁에서 쌀 1두 · 위어 7마리 · 식혜 · 감장한 보자기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또 오늘은 활짝 갰기 때문에 종 신덕을 시켜서 논을 매게 했는데, 전일 못다 맨 것을 오히려 다 매지 못했다. 인아 · 단녀는 학질을 앓고. 큰딸도 또한 앓으나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 춘이를 함열에 보냈다.

25일.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요새 연일 비가 오는데, 한노(漢奴)가 또 누워 앓아서 오래 나무를 베지 못했으니, 비단 양식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땔나무도 또한 어려워서 종들이 두어둔 빈 가마(空叭)까지 모두 갖다가 밥을 지으니 민망하다. 풀도 또한 아랫집 종을 시켜서 베어다가 말에게 먹인다. 윤겸이 돌아간 뒤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우리 집에 종이 없어서 또한 보내서 묻지 못하니 그 집 병이 어떤지알 수가 없다. 저도 또한 근래에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생각건대 필시 비에 막힌 것이다. 전일에 들으니 윤겸의 처가 병으로 낙태했는데 남자였다고 하니 아깝다. 두 아들을 키우지 못해서 날마다 아들을 바랐는데, 이제 또 잉태한 지 6개월에 낳지 못했으니 더욱 몹시 아깝다. 또 오늘은 어머님 생신인데, 비록 가 뵙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려 했는데 비단 한 되 곡

식도 준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에 종이 없어서 시킬 사람이 없으니, 비록 형편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자식 된 마음에 어찌 슬프지 않으랴. 종일 개탄하면서 마치 중한 죄를 진 것 같으니 어찌 다 말하리오. 또 비는 종일 그치지 않더니 저녁이 되자 크게 한바탕 퍼부어서 집이 모두 샌다. 춘이가 오지 않는데 반드시 비로인해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위아래 집이 양식이 떨어져서 고대하고 있다. 인아와단녀의 학질은 갑절이나 심해서 단녀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니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26일. 비는 밤새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양식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노복들은 모두 병을 칭탁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니 어찌하리오. 다만 스스로 탄식할 뿐이다. 말도 또한 풀 베어 온 것이 없어 밤새 종일 굶고 서 있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두 아이는 오늘도 또 학질을 앓는다. 저녁에 양식이 떨어져서 겨 우 쌀 5홉으로 나물과 섞어서 죽을 쑤어 상하가 각각 반 그릇씩 먹었다. 어두울 녘 에 춘이가 왔는데, 함열에서 보리 10두·중미 1두·찹쌀가루 5되·참기름 5홉· 미역 5동 · 소주 2병 · 조기 2묶음 · 누룩 2장 · 종이 2묶음 · 쇠고기 1덩이를 보냈 으니 깊이 감사하다. 누룩과 종이 · 생선은 아랫집으로 보냈다. 미역 1동은 겨우 1 묶음이요. 보리는 짐이 무거워서 6두만 져 오고 나머지 4두는 두어두고 왔다. 그 런데 6두의 보리를 다시 되어 보니 4두 2승이니 아무리 준다고 해도 어찌 1두 6승 씩이나 준단 말인가. 반드시 나를 속이는 것이로다. 즉시 미역으로 국을 끓이고 가 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아이들이 나누어 먹고 잤다. 저녁 식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 이다. 또 저녁에 들으니 아랫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서 잔다고 하므로 씨로 듀 콩 한 되 반을 보내고 함열에서 온 보리 7되도 또한 보냈다. 내가 주린 것은 오히 려 참을 수 있지만 매양 아랫집이 주린다는 말을 들으면 민망하고 불쌍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때로 비록 조그만 물건을 보낸들 많은 식구에 무슨 도움 이 되랴. 하물며 우리 집도 또한 떨어져서 주린 날이 많으니 어찌 도와줄 수 있으 랴. 수씨(嫂氏)는 남은 저축이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항상 부족 한 탄식을 한다니 더욱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는 생각해도 구원을 구할 곳도 없으 니 말할 수 없다.

27일, 아침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가 백 승지 유함(惟咸)을 만났다. 백(白)은 지 난달에 명령을 받고 호남에 이르렀으나 병을 얻어서 즉시 복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비에 막혀 5. 6일을 체류 하고 내일 떠나서 돌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들어가 만나니 십분 위로되고 기쁘다. 다만 병은 비록 회복되었으나 다리 힘이 약해서 행보가 어렵다고 한다. 여러 소년 6. 7명이 모두 모여서 혹은 바둑을 두고 혹은 정경도를 놀면서 웃음을 웃고 긴 해 를 소견했다. 승지가 관에서 수반을 준비하게 하여 여러 사람에게 대접한다. 오후 에 윤 어사 경립이 또한 와서 송 진사 이창과 정경도로 술과 안주내기를 하여 윤 (尹)이 져 가지고 즉시 관을 시켜 술 한 항아리와 소반에 실과와 회와 구이를 내왔 다. 나는 큰 잔으로 셋을 마시고 저녁이 되어 먼저 작별하고 나와서 돌아왔다. 윤 공(公)도 순행하다가 이 군에 이르러 여러 날 비에 막혀 있었다. 또 홍 참봉 범(節) 은 호남으로부터 북으로 돌아가다가 마침 여기에 이르러 비에 막혀 오래 머물렀는 데, 백(白)과는 아는 터이므로 관(官)으로 하여금 식사를 대주었다. 또한 나와는 한 동리에 살아 오래전부터 아는 처지인데 객중에 이렇게 만나니 일찍이 뜻밖의 일이 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동중 옛 친구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전의 일을 추억하니 도리어 슬픈 감회가 난다. 그 처자는 지금 관서 (關西)에 있다고 한다. 또 두 종을 시켜 못다 맨 논을 매게 하고, 어제 두어둔 보리 를 져 오도록 춘이를 함열에 보냈다. 또 유 충위(柳忠衞) 원(愿)씨와 그 아들 선각 이 보리 3두를 보내고. 아랫집에도 또한 2두를 보냈으니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28일. 아침 식사 후에 편지를 써서 향춘을 시켜 백 승지에게 문안했더니. 아침 식 사 전에 이미 홍산으로 향했고. 홍 참봉도 역시 따라서 돌아갔다 한다. 또 계집종 어둔이 모자를 시켜서 논을 매게 하여 끝마쳤다. 닷 마지기 논은 두 벌 매는데 여 러 날이 걸려, 혹은 5명, 혹은 4명, 혹은 2명이 매어 이제야 겨우 끝났으니 거기 들어간 사람을 계산하면 모두 15명이나 된다. 인력은 갑절이나 들어가고 곡식 싹 은 실하지 못하며 또 드물게 심어졌으니. 이는 모두 어리석은 종들이 힘을 쓰지 않 고 일찍이 매 주지 않아서 풀만 무성하고 곡식은 드물게 되어 한갓 양식만 허비한 것이니 깊이 한탄할 일이다. 또 내일은 곧 죽전동 숙부의 제삿날인데 집에 있는 물 건이 없으니 다만 밥만 지어 정성을 표시할 뿐이다. 마음 아프도다. 가난이어! 또한 시절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아·단녀가 학질을 앓고, 윤해의 양모도 또한 앓았다.

29일. 날이 밝을 무렵 제사를 지냈는데 제수를 조금 차렸으니 지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세이니 어찌하리오. 두 아이는 매일 학질을 앓고, 의아·충손도 오늘 또 앓았다. 의아는 전일 떨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앓으니, 모두 주려서 그런 것이라,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랴. 매일 겉보리를 갈아서 죽을 쑤어 먹으니 원기가 피로해져서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단아·충손은 오늘도 보리를 먹지 않으니 더욱 민망하다. 또 전일에 기르던 걸아는 도망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밉다.

그믐날. 새벽에 윤해의 양모가 의아를 데리고 학질을 피하여 도망 왔으나 역시 면 지 못하고, 아침 식사 전에 앓기 시작하니 탄식스럽다. 저녁에 돌아갔다. 두 아이 도 오늘 또 앓아서 형용이 누렇게 마르고, 식사도 또 배불리 하지 못해서 앓지 않 을 때 피곤함이 갑절이나 심하다고 한다. 차마 볼 수가 없다.

6월

1일. 아침에 비를 뿌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갰다. 그러나 종일 흐렸다. 두 아이는 오늘도 또한 앓았고, 단녀는 잠시 아파서 눕지 않았으니 필경 이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충아는 갑절이나 몹시 앓아서 이튿날 아침까지도 오히려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또 양식이 떨어져서 아침 식사는 콩죽을 쑤어 반 그릇씩 나누어 먹었더니 낮이 되니 주림을 이길 수가 없다. 아침에 남은 보릿가루를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숟갈을 들고 돌아가면서 먹으니 가련한 일이다. 저녁에 막정이 해서(海西)로부터 돌아왔기에 급히 물었더니 윤함은 온 집안이 무사하고 돌아갈 때 가는 길도 역시 좋았다 하니 몹시 기쁘다. 다만 함열 태수가 우계에게 보낸 필목 두 필은 덕노에게 속아서 훔쳐다가 팔아먹고 전하지 않았다 하니 통분할 일이다. 그러나 전염병에 걸려서 제 처는 먼저 죽었고, 제 몸은 비록 살아 있으나 굶고 있는 지가 오래이니 전혀 살 길이 없다고 한다. 전일에 피차 보낸 물건을 중국 군사에게 빼앗겼다고 칭탁하고 심지어 강 참봉집 목화 30여 근까지 져 가고 전하

지 않고 모두 스스로 훔쳐 먹었으니, 그 참담하고 패악함이 전에 비해서 더욱 심했 으니 비록 죽은들 무엇이 아까우리오. 다만 그 처가 죽고 또 의지할 길이 없이 도 처에 이와 같다가 이제 또 윤함의 처가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가 있을 곳이 없다고 하니, 이제 만일 죽지 않으면 여러 곳으로 유리하다가 적당(賊黨)으로 들어갈까 몹 시 두려우니 걱정스럽다. 막정이 올 때 홍양 땅에 들러 잤는데 윤겸의 처가 비부 (婢夫) 유한성(劉漢成)에게서 들으니 윤겸의 집 역질은 아직 다 낫지 않았으며, 세 만의 처는 병으로 죽었고. 세만도 바야흐로 몹시 괴롭게 앓아서 생사를 모른다고 한다. 윤겸의 처조모는 지금 보령에 있는데 역시 병으로 지난달에 별세했다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평시에 그 아들의 봉양을 받지 못하여 나이 80에 가까운데 먹는 것도 배부르지 못하여 항상 주림을 탄식하고 있다가 마침 그 아들 이 지난겨울에 먼저 죽고 이제 또 계속해서 죽었으니 염습하고 장사 지내는 일을 의뢰할 곳이 없으니 필경 윤겪이 담당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 평일에 윤겪의 처를 가장 사랑하여 윤겸을 대접하기를 역시 후하게 했으니 사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들으니 보령 상가(喪家)에 와 있다고 한다. 다만 병 있는 집에 출입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세만의 처는 가장 부지런해서 세만이 그로 하여 홀로 기한을 면했었 는데 이제 또 병으로 죽었다 하니. 세만은 또한 윤겸의 집 믿는 종이 되어 한 집안 일을 모두 맡겨서 힘써 보아 왔는데 이제 만일 병으로 죽으면 집안일이 반드시 낭 패일 것이니 더욱 걱정이 된다. 대체로 우리 집 모든 일은 매양 계획대로 되지 않 아 성공이 되다가도 도로 실패하니 이 역시 가운이라 어찌하겠는가. 천명에 붙일 뿐이다. 윤겪은 필경 이로 인해서 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보지 못한 지 이미 반년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또 그 병이 걱정이 된다. 또 막정이 올 때 윤함의 집에서 보내는 조기 다섯 묶음을 강을 건널 때 한 묶음은 선가(船價) 로 주었다 한다. 주림이 바야흐로 지극할 때라, 아이들이 즉시 함께 두 묶음을 먹 었다. 또 들으니 고성(남상문) 온 가족은 지난 3월 초생에 관서 영유 땅으로 돌아 갔기 때문에 윤함이 만나 보지 못해서 내 편지를 전하지 못했다 한다. 피차에 더 욱 몹시 멀리 있어서 소식도 더욱 얻어 듣기 어려운데 하물며 만나기를 바라는 마 음이겠는가. 생전에 필경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것이니 슬프고 탄식함을 이길 수 없 다. 전에 들으니 영유(永柔)에는 토지도 있고 종도 있다고 했다. 생각건대 필시 옹 진에서 먹기 어려워서 다시 깊고 먼 곳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한 것이니 불쌍 하다. 저도 또한 이와 같으니 우리 집 일은 말할 것도 없다.

2일. 어제 막정이 올 때 윤함이 또 당감토(唐甘吐) 하나를 얻어 보냈는데 몹시 좋 으니 기쁘다. 다만 너무 적어서 내 머리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한스럽다. 그러나 더 운 물에 담가서 불려 가지고 쓸 계획이다. 또 들으니 오정일(吳精一)의 어머니가 지난 3월에 전염병을 얻어 죽었다 하니 슬프다. 이는 곧 종가 종부로서 이제 또 죽 었으니 더욱 슬프다. 다만 유일(惟一)의 간질이 지금은 더욱 심해서 그 양부가 죽 었는데도 아직 들어 알지 못하고 비록 들어도 형세가 가보지 못한다고 한다. 정일 이 윤함을 와 보아서 비로소 태선(太善)의 죽음을 들었단다. 오세검(吳世儉)의 집 은 문의(文義)에 있는데, 난리가 나던 처음에 그 어머니가 난을 피하여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가 풍덕 땅에 이르러 병으로 별세해서 그곳에 초장(草葬)했는데. 지 난해 4월에 왜적이 서울을 나온 후로 길이 비로소 통하기 시작해서 갈 수가 있는 데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 어머니의 죽은 곳도 모른다 하니. 그 패 리(悖理)함이 심하다. 불쌍한 일이다. 또 유일(惟一)은 오세온(吳世溫)의 중자(仲 子)요 세량(世良)의 양자(養子)이다. 평일에 있어서도 성질이 몹시 어리석고, 또 간 질이 있어서 일 처리하는 것이 가소로운 것이 많더니 변이 생기던 처음에 온 집안 에 데리고 서쪽으로 도망해 문밖으로 나가는데 그 양조모는 능히 행보를 못 하므 로 버리고 가서, 그는 부득이 서울집으로 도로 들어갔다. 그 삼촌 세공(世恭)의 부 인은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러 또 버리고 갔다. 교하진(交河津)가에 이르러 저는 먼저 배 위에 오르고 그 어머니는 미처 오르지 못했는데 배가 즉시 언덕을 떠나므 로 그 어머니는 물가에서 방황하다가 역시 부득이 도로 서울로 돌아왔다. 배가 풍 덕 땅에 이르자 그 조모도 병이 있다 해서 버렸다. 이리하여 풍덕 땅에 닿았으나 역시 시비(侍婢)가 없어 홀로 서쪽 해주로 들어갔으니 그 패악(悖惡)함이 심하다. 그 후에 그 어머니는 그 형 정일(精一)이 서울로 들어갈 때 모시고 갔고. 그 조모 는 풍덕에 있다가 별세했는데 모시고 봉양한 사람이 없어서 죽은 날도 모른다 한 다. 그 밖의 사람들은 초장하느라고 세량과 정일이 시체를 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또한 그 실지 시체인지 모른다. 그 양조모는 서울집에 들어가 있다가 그해 7월에 이질로 별세해서, 노복들이 염습하고 입관해서 종가 후원에 전도로 매장했던 것 을 적들이 여러 번 나와서 시체를 버렸으나 종들이 도로 갔다가 장사를 지냈었다. 적이 나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시체를 버리고 관만 빼앗아 가서 해골이 튀어 난 것을 종 근이가 흩어진 뼈를 주워 모아서 옷을 벗어 싸 가지고 궤에 넣어 서울 집에 장사 지냈다 한다. 그 양자 세량은 이미 죽었고 양손 유일도 이와 같으니 누 가 능히 선묘 곁에 장사 지내겠는가. 더욱 몹시 불쌍하다. 우리 문중(門中)이 크게 패한 것은 모두 신녕 숙부의 자손인데, 지금에 이르러 그 하는 일들이 무리한 것 이 지극하다.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또 종가 여러 조상의 신주(神主)는 정일이 모 시고 해서로 가서 아직 그 있는 집에 봉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도(家道)가 탕패 한 나머지 정일이 비록 제사를 주장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경향(京鄉)에 의지 할 곳 이 없고. 저 역시 무식한 데다가 성질이 또 패망하니 제사 지낼 물건이 없어서 풀 속에 버려둘까 깊이 걱정스럽다. 우리 종중(宗中)은 이로부터 반드시 자빠지고 일 어나지 못할 것이니.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개탄함으로 깨닫지 못하여 계속 해서 울 뿐이다. 이 역시 온 나라가 같이하는 근심이지만, 누가 우리 문중(門中) 종 자(宗子)같이 무식한 자가 있으랴. 그러나 서서히 종말이 어떠한가 볼 것이다. 선 조께 제사를 지내지 못한 지가 3년이니. 상로(霜露)의 감회를 참을 수가 없다. 오 는 추석에는 선영(先榮)에 가 뵈올 작정이지만 길은 멀고 양식도 없는 데다가 또 종과 말이 한결같지 않으니 어찌 기필 할 수 있으랴. 사세인데 어찌하리. 한갓 한 탄할 뿐이다. 또 막정이 말을 사 가지고 끌고 왔는데, 곧 그곳에 사는 종 만복이 죽 은 후에 그 토지를 팔아서 암소 하나를 사 바쳐서 강 참봉집에 두었었는데. 윤함이 돌아올 때 우리 집에 말이 없는 것을 알고 말로 바꿔 보내고 공목(貢木) 두 필을 더 주었다 한다. 다만 몸이 적고 파리하니 탄식스럽다. 그러나 바야흐로 말이 없는 것 이 한스러울 때 의외의 것을 얻으니 몹시 기쁘다. 친가의 계집종 만비의 집에 덕노 가 지난 정월에 반찬을 바친 것을 이미 받아다가 사사로이 썼다고 하니 미움을 이 길 수 없다. 그곳 노비들은 모두 죽었고 살아 있는 자가 몇이 되지 않는다 하니 또 한 가없다. 막정이 기성(箕城)(평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어미의 나이는 80이 지났 는데 지금도 아직 살아 있고, 그 형과 친족은 병으로 죽은 자가 40여 명인데, 홀 로 형 하나만 살아 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역질이 번져서 그렇지 않은 곳이 없 는데 관서(關西)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지난달 14일에 해주를 떠나서 어제 비로소 돌아왔으니 그 날짜를 따져 보면 18일이 걸렸다. 또 지금 들으니 김 한림 자정[김 지남)이 어머니 상사를 당했다니 놀랍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 누이가 죽은 후에 또 큰 화를 당하니 한집의 근심이 어찌 홀로 이런 지극한 데에 이르는가. 그 윽이 들으니 자기 몸도 또한 전염병에 걸려 앓는다니 깊이 걱정이 된다. 그러나 사 실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더욱 걱정되어 잊을 수 가 없다. 자정의 어머니는 난리 처음에 예산 농사(農舍)에 와 있을 때 여러 아들들 이 한곳에 모여 있는데, 자정이 마침 휴가를 얻어 가지고 와 뵈었다 한다. 또 인아 는 오늘도 또한 앓았고, 큰딸은 다시 앓았으나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단녀는 조금 앓았으며, 충아는 매일 앓아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충모는 어제 앓기 시작했 다 하니 더욱 민망하다. 모두 굶주리고 피곤한 까닭이니 말할 수가 없다. 내일 만 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산(尼山)에 가련다. 이산 태수 김가기씨가 연전에 금정찰방 (金井察訪)으로 있을 때, 마침 내가 그 이웃에 가서 살았는데 서로 후하고 가장 친 밀하게 했었다. 그런데 어느 편에 들으니 내가 구원을 청해 가지 않는 것을 괴이히 여기더라고 한다. 그래서 겸사해서 가보고 막혔던 회포도 풀려 하는데, 다만 관청 에 없을지, 상치되는 일이 없을지 걱정이다.

3일. 초복이다. 지난밤에 큰비가 내리고 한바탕 천둥을 치더니 밝을 녘에 지진을 해서 집이 흔들리기를 세 번을 하고 위에 붙은 흙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큰 천둥과 같다가 그쳤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변괴가 비상하니 앞으로 무슨 시 변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에도 비록 지진을 한 때가 있었어도 오늘처럼 크게 한 일은 없었다. 깊이 잠든 아이들도 또한 모두 놀라 깨었다. 죄 없는 생민들이 또한 국은 때문에 날마다 죽고 있는데도 하늘은 화를 뉘우치지 않고 또 변이(變異)를 일으켜 경계하니, 백성을 다스리는 자도 또한 두려워하고 수성(修省)해서 사실대로 부용해서 다 죽어 가는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거의 보전함을 얻게 한 뒤에라야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큰 아침에 또 한 번 지진을 했으나 소리만 있고 적게

했다. 아침 식사 후에 종 둘과 짐 실을 말을 데리고 떠나서 배로 고성진(古城津)을 건너 이산현으로 들어갔더니 태수(김가기)가 사창에 나와 앉아서 환자 보리를 받고 있다. 종이 이름을 통하자 태수는 즉시 사람을 시켜 맞아다가 만나보고 환영한다. 성 공 문덕(成公聞德)이 마침 자리에 있었는데, 또한 나와 한 동리에서 알던 터라, 객지에서 만나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성(成)도 또한 이 고을에 떠돌고 있으니 곧 태수의 매부이다. 성 공(公)은 먼저 작별하고 돌아가고, 나는 태수와 종일 이야기했다. 조금 있자니 전 비인현감(庇仁縣監) 김기명(金基命)이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들렀으므로 역시 맞아서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어둘 무렵에 나는 먼저주인집으로 돌아왔는데,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땅이 또 한 번 흔들렸으나집이 조금 움직이고 그쳤다. 하루 동안에 새벽과 아침저녁 세 때에 지진을 하는 것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니, 변이의 큼이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 김 비인현감은 일로 해서 왕옥(王嶽)에 갇혀서 여러 달 동안 형(刑)을 받다가 이제 공을 세운 효험으로 석방되어 도원수의 진중으로 간다고 한다.

4일. 태수가 사창에 나와 앉아서 나를 맞아다가 함께 아침을 먹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또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내가 처자들이 바야흐로 병을 앓고 굶고 있다는 일을 말하자 즉시 좋은 벼 1석 · 백미 4두를 내일 먼저 보내고, 종과 말이 돌아온 뒤에 돌아가라고 나를 극진히 대접하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벼는 다시 되어 보니 11두 7되 남짓하다. 또 낮에 중국 군사 4명이 시장에 나와 소금 파는 인마를 약탈해 가다가 도로 마주(馬主)에게 뺏기자 노여워하면서 가졌던 은자(銀子) 20량을빼앗아 갔다는 핑계로 상관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무수히 난타하다가 관정(官庭)에까지 데리고 와서 징계하라 하므로 태수가 부득이 가두고 좋은 말로 해명했으나 끝내 듣지 않고 기어코 징계시키고자 한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왕래하는 중국 군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소주나 꿀・닭 등의 물건을 많이 요구하다가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큰 나무로 난타하여 욕이 주수에게까지 미치니, 이 지방관원들이 오직 맞고 보내는 걱정뿐이 아니라, 이같이 난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날이 없어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더니 밤새 그치지 않는다. 저녁에 유 생원 전(詮)이 왔는데, 곧 태수의

친구요, 또한 나의 소년 시절 동문생이다. 만나지 못한 지가 40여 년이어서 각각 성명을 물은 후에야 알아보았다. 유(柳)도 또한 임천에 와 있다 한다.

5일. 아침에 사창에 나가서 태수ㆍ유 생원과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홍 찰방 요 좌(堯佐)가 왔는데 역시 태수의 친구로서 함열 땅에 와 있다. 또한 나의 8촌 친척으로서 한 동리에 같이 살아서 가깝게 알고 지냈는데 의외에 만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온 집안이 전염병을 앓았고 그 역시 두 번이나 앓고 이제 겨우소복되었다고 하는데 모양이 수척하여 옛 면목이 변해 버렸으니 애석하다. 이른 아침에 막정으로 하여금 어제 얻은 쌀과 벼를 임천집으로 실려 보냈다. 온 집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반드시 고대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큰 노루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므로 태수는 이것을 잡게 하여 즉시 고기를 구워서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 추로 한 잔을 마셨다. 내일 조도어사가 이 고을에 도착하므로 마땅히 반찬거리로 삼을 것이라 한다. 태수가 또 아중(衙中)으로 하여금 소머리를 삶아서 가늘게 썰어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즉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다만 나는 마침 더위를 먹어 뱃속이 불안하여 종일 우글거리고 여러 차례 설사를하고 나서 아직도 편안치 못하니 근심스럽다. 또 어제 올 때 충아에게 들어가 보니 바야흐로 학질을 앓아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수일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니 생각이 그쳐지지 않는다.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6일. 뱃속이 아직도 불편하다. 어젯밤에도 한번 설사했고 아침에도 또 설사를 했다. 태수는 일찍 사창으로 나가서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해 갔다. 흥(洪)과 유(柳) 두 사람은 먼저 자리에 있는데,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각 돌아갈 차비를 차린다. 흥은 공주로 가고, 유는 임천으로 돌아갔다. 나는 태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들었다. 태수는 어사를 맞을 일로 먼저 사가로 갔다. 빈관은 중국 군사가 계속 오기 때문에 어사도 역시 들어가 거처하지 못하고 사삿집에 와 있는 것이다. 나도 또한 주인집으로 돌아왔으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날씨는 흐리고 더위가 찌고 있어, 파리 떼가 모여들어 얼굴에 앉고 소매 속으로 들어가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여 쉬지 않고 부채를 내두르자니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막정이 오면 내일 연산으로 가련다. 연산태수(심은(沈豐))는 곧 나의 6촌 친척이다.

또 어제 편지를 써서 따라온 아이를 이 공(公) 언우가 있는 곳에 가서 문안하게 했 다. 이(李)는 곧 시윤의 장인으로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다. 떠돌다가 이곳 그 누이 의 집에서 먹고 있다. 오늘 낮에 성 공(公) 문덕이 편지를 보내서 문안하기에 답장 을 써서 사례했다. 이른 아침에 내가 보낸 편지를 아직 보기 전이었던 것이다. 또 아중(衙中)에서 점심밥을 지어서 나에게 대접한다. 어사가 관에 들어가서 부산하 기 때문이다. 조금 있자니 관에서도 밥을 지어 왔다. 필시 아내(衙內)에서 이미 먼 저 가져온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오후에 천둥이 울리고 큰 비가 오다가 한참 후에 그쳤다. 막정이 돌아와서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 충아는 소복되어 가고. 여러 아이 들도 아직 비록 앓기는 해도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한다. 가지고 간 물건은 다시 되어 보니 너 말의 쌀은 3두 4승 반이요. 11두 7승의 벼는 10두 1승이라고 하니 필 경 이곳 말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봉하고 쓰기는 그렇게 했더라 한다. 또 저녁 무 렵에 두 아이 남녀가 손에 표주박을 들고 먹을 것을 빌면서 등에는 보따리를 졌는 데, 어미를 부르면서 주인집 문밖에서 통곡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불러서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집은 상주에 있고, 그 아비는 글을 알아서 일찍이 감사(監 司)의 영리(營吏)로 있었는데, 난리가 난 처음에 피란하여 남쪽으로 와서 여러 곳 에서 걸식하다가 지난봄에 그 아비가 병으로 회덕 땅에서 죽어서 겨우 매장을 하 고 그 어미와 호남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걸식하여 여기에 온 지 24일이 된다고 한 다. 그 어미가 매양 말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맘대로 걸식도 못 한다 하더니 오늘 낮에 비밀히 도망해 달아나서 간 곳을 알 수가 없단다. 마을을 돌면서 불러 봐도 대답이 없고, 어제 한 숟가락 걸식해 먹은 뒤로 오늘은 먹지 못했으니 우리 어머니 가 버리고 간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것이라 하면서 남매가 울기를 그치지 않는다. 듣고 나니 슬프고 불쌍함을 이길 수 없어 또한 눈물을 뿌렸다. 천 성(天性)의 친함으로써 이러한 지극한 데에 이른단 말인가, 인리(人理)가 아주 없 어졌으니 애통한들 어찌하리오. 계집애는 13세요. 남자 아이는 10세라고 한다. 7일. 아침 식사 후에 내가 사창으로 들어갔더니 성문덕도 나를 보려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노라니 태수도 어사를 보낸 후에 역시 왔다. 또 들으니 연산군수는 문금 (門禁)이 몹시 엄하다 하므로 태수로 하여금 비밀히 관문(關文)을 달라고 하여 늦 은 후에 떠났다. 그러나 중로에 이르자 번개와 소낙비가 일시에 일어 간신히 연산현에 이르러 들으니 태수(심은)가 사창에 나가 있다 하므로 먼저 한노로 하여금 이산의 관문을 갖다 바치게 하고 사람을 시켜 문안했더니 즉시 들어오게 하여 서로 만나서 각각 인사를 나누었다. 심인정(沈仁願)·심대유(沈大有)도 마침 와서 만나니 몹시 위로되고 기쁘다. 인정은 태수의 사촌이요 나에게는 5촌 조카가 되며, 대유는 태수의 삼촌 조카요 나에게는 7촌 친척이다. 인정의 형 인제(仁禔)는 지난해에 예산군수가 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초상을 당해서 그 어머니 장례를 분산(墳山)에 와서 지낸 다음 5형제가 각각 먹기가 어려워서 떠돌아 흩어졌다 하니 불쌍하다. 조금 있자니 태수가 천어의 회를 내오게 하여 소주 석 잔을 마셨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주형(심은)은 먼저 아내(衙內)로 들어가고 나는 두 심(沈)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저녁이 되어 사삿집으로 돌아왔다. 또 이른 아침에, 이산에 있을 때 장수에 보낼 편지를 배동(陪童)을 시켜 이 공 언우(李公彥祐)에게 보냈더니 이 공(公)이 마침 현(縣)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잠시 사창(司倉) 문밖에서 이야기하다가 왔다.

8일. 사창의 주인 형이 나가 있는 곳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이 판결사(李判決事)가 피란해 와 있는 은진 땅 호동리에 가려고 쌀 닷 되를 주인 형에게 얻어 가지고 늦은 후에 달려갔더니 판결사 영공(判決事令公)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문밖까지 나와 말하기를, 뜻 밖에 오늘 그대를 다시 만났다 하고 기뻐한 나머지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내어 통곡했다. 이 참군(李參軍) 뢰(竇)가 마침 있어서 함께 울타리 밑에 앉아서 저녁내 이야기했다. 그에게서 나는 비로소 이지 (李贊)의 죽음을 들으니 또한 슬픈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 어두워서 양필(良弼)과함께 그 종의 집에서 잤다. 양필은 뢰(竇)의 자인데 곧 영공(令公)의 큰아들이다.

9일. 아침 식사 후에 영공을 작별하니, 영공은 문밖까지 나와서 내 손을 잡고 말하기를, 후일 만날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울기를 마지않는다. 작별하고 연산 땅 홍 정 세찬(洪正世贊)의 집에 도착하니 세찬이 나와 맞는다. 마침 비가 올기미가 있으므로 즉시 작별하고 떠나지 않았더니 나를 맞아 사랑마루에 앉아서 바둑 5, 6판을 두었다. 홍(洪)은 나에게 수반을 대접하고 또 새로 만든 떡을 내온다.

홍공은 곡식을 바치고 판사를 얻어서 이 시골에서 가장 부자로 지낸다. 그러나 금 년에는 다 없어지고 저축한 것이 없어 남의 곡식을 꾸어다가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반드시 거짓말일 것이다. 나에게 참보리 2두를 준다. 그는 윤해의 처사촌이요, 또한 나와도 일찍이 아는 사이이다. 저녁때가 되어 달려서 연산에 도착하니 주인 형은 사창에 나와 앉아서 손님과 소주를 마시므로 나도 역시 참석해서 석 잔을 마시고 어두워서 사삿집으로 돌아왔다. 또 어두울 때 지진을 했는데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아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향하여 집도 조금흔들렸다. 3일에 세 번이나 지진을 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지진을 했으니 진실로 근고에 없던 큰 변고이다.

10일. 주인 형(심은)에게 돌아가겠다고 작별했더니 주인 형은 나에게 벼 1석·백미 2두·중미 2두·목종(木種) 3두·참보리 2두·감장 5되를 주면서 주력해서 도와 주는 것이라 했다. 벼는 다시 되어 보니 12두 5승인데, 주인집에 두어두었더니 1두 5승을 또한 훔쳐 먹었으니 가증하다. 아침 식사 후에 작별하고 오는데, 심인정·심대유도 역시 밖에까지 나와서 작별한다. 주인 형의 성명은 심은이요, 자는 사화(土和)이다. 대유의 자는 천우(天祐)이다. 달려서 이산에 이르니 이산현감(김가기)은 사창에 나와 앉았다. 즉시 들어가 보고 서로 이야기하노라니 조금 있다가 홍 찰방 요좌가 공산으로부터 와서 저녁밥을 함께 먹는데, 태수가 나를 위해서 닭을 잡아 반찬을 해 주었다. 길가 쇠잔한 고을이 변을 겪은 이후로 비단 큰 손님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가 계속해서 와서 그 지공(支供)이 딴 고을보다 갑절이나 든다. 친구가 왔으면 다만 악초(惡草)만 대접할 뿐 달리 고기반찬이 없는 터인데 오늘 닭 두 마리를 잡아서 후의를 보인다. 저녁에 태수는 아내(衙內)로 돌아가고 나와 홍 찰방, 이 고을의 좌수 홍이서(洪以叙)와 함께 사창에서 잤다. 일기가 몹시 더워서 사삿집에 거처하기 어려우므로 넓은 곳을 취해서 한 것이다.

11일. 아침에 떠나서 달려서 석성 땅에 이르러 말에 꼴을 먹었다. 나는 더위에 시달려서 뱃속에서 천둥을 치고 불편해서 점심을 먹지 않고 떠나서 배로 고성진을 건너서 임천 내 집에 돌아오니 아직 해가 남았다. 집사람과 인아는 바야흐로 누워서

학질을 앓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모두 떨어졌는데 인아만이 홀로 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앓고 있다. 집사람은 이번에 다시 앓기 시작하여 세 직에 이르렀다 하니 민망스럽다.

12일. 아침 식사 전에 종과 말을 윤해의 처자에게 보내서 충아를 데려 오게 했더니, 크게 앓고 난 뒤에 지금까지 걷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일어서니 가련하다. 또 들으니 태수 거수(居水)(송응서)가 아침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군에 사는 별좌 이덕후(李德厚)와 전 부장 이홍제(李弘濟)도 역시 와서 자리에 앉았고, 이분(李蕡)·이지(李贄) 형제도 어제저녁에 마침 도착하여 역시 서로만났으니 몹시 위로되고 기쁘다. 이들은 모두 태수의 외질(外姪)이다. 또 인아는 오늘도 또한 앓고, 윤해는 오늘부터 다시 학질을 앓으니 민망하다. 종 막정을 결성 윤겸에게 보내려 하는데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 보내면 일이 틀리는 것이 많겠으니 한스럽다. 춘이가 진위에서 왔는데 그편에들으니 송노는 지난 4월에 전의(全義) 땅 종 신덕(申德)의 아비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제 임천으로 갔다면서 각종 채소 씨를 가지고 갔다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만일 중도에 죽지 않았으면 필경 도로 직산으로 간 것이다. 몹시 밉다. 또 두 사람을 시켜서 둔답을 매게 했다. 이번이 세벌매기이다.

13일. 중복이다. 네 사람을 시켜 논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이분(여빈)이 찾아왔다. 집사람이 아침부터 기분이 불편하더니 곽란 증세가 있어, 위로 토하고 아래로 싸더니 이로 인해 이질로 변해서 혹 붉기도 하고 혹 희기도 한 것을 7, 8차례나 쏟았다. 원기가 아주 없어진 나머지에 또 이 증세가 생기니 증세가 지극히 위태롭다. 정신이 어지러워 거의 수습할 수가 없고, 뱃속에서 천둥소리가 나면서 속머리가역시 아프다고 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14일. 또 어둔이 모자를 시켜서 논을 매게 했다.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아서 지난밤에도 7, 8차례를 쏟았고 정신도 비록 어제 같지는 않으나 배 아픈 것이 여전하다. 말하기도 몹시 싫어하고 죽 마시는 것도 또한 폐하여 형세가 몹시 위태로우니 몹시 민망하다. 아침에는 콩죽을 물에 타서 한 종지만 마셨다. 인아는 어제부터학질을 앓은 후에 또한 이질을 얻었으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다. 집에는 한 되 한

말의 양식도 없는데 집사람의 병이 이와 같으니 이중의 민망한 마음을 어찌 다 말하라. 또 오후에 윤해와 인아가 모두 학질을 앓아 신음하는 소리가 문밖에까지 끊어지지 않으니 더욱 몹시 민망하다.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얼음을 가져오게 했다. 이 군(郡) 태수(송응서)는 파면 당했다고 하인이 내주지 않아서 부득이 먼 곳에서 구하는 것이다. 또 집사람은 오늘 아홉 차례를 쏟았는데, 쏟을 때 뱃속이 찌르고 아프다 한다. 종일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피곤해 누워서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으니 몹시 민망하다.

15일, 지난밤에 집사람은 세 차례를 쏟더니 기운이 회복되는 것 같다. 아침 후에 콩죽 한 접시를 마시고 혹 일어앉기도 하며, 눈을 뜨고 말도 하니 기쁘다. 이로부 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변을 두 번 보았고, 별로 더 아픈 데가 없으며, 음식은 비록 전과 같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더 먹는다. 인아의 이질도 또한 어제와 같지는 않고. 학질은 오늘도 또 앓았다.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태수가 벼 10두·닭 1마리·새 우젓 2되·참기름 1되·꿀 3홉·찹쌀가루 5되·목미 3되·콩 2되를 보냈다. 또 태수 송 공(公)(송응서)이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의 병으로 해서 들어가 보지 못하니 한스럽다. 저녁에 충모가 와서 보았다. 또 이웃에 소를 잡아 파는 자가 있 는데. 처자들이 고기 맛을 알지 못한 지가 이제 이미 오래어서 모두 사 먹고 싶어 하므로 집이 궁한 것도 계교하지 않고 보리 8두를 주고 쇠머리와 포 만들 고기 세 덩어리와 내장 조금을 사다가 아랫집과 함께 먹었다. 어둘 무렵에 윤겸이 돌아왔 다. 못 본 지 이제 8개월인데 불의에 만나니 온 집이 기뻐하고 위로가 된다. 다만 그 집이 아직도 편안치 못하고 종들도 아직 누워 있는 자가 있으나 몹시 중하지는 않아서 혹 2. 3일에 도로 일어나 앉기도 한단다. 그 처는 큰 병을 앓고 난 후로 원 기가 크게 없어지고 또 학질까지 얻어서 날마다 앓는다고 하니 몹시 걱정이 된다. 인아는 오늘 또 학질을 앓는데 전에 비하면 배나 심해서 음식을 전혀 들지 못하니 더욱 걱정스럽다.

16일. 이른 아침에 윤해의 양모를 맞아다가 쇠머리를 삶아서 같이 먹는데,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으니 우스운 일이다. 또 어둔이 모자를 시켜서 논을 매게 해서끝냈다. 저녁에 윤해 양모와 충모는 돌아갔다. 윤해는 이제 비로소 학질이 떨어졌

다.

17일. 집사람이 이제는 평상시와 같다. 인아는 비록 어제처럼 크게 앓지는 않아도음식을 몹시 싫어하고 곤하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피란 온 사람 조 대충(趙大忠)이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집이 궁해서 지어 대접하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18일. 집사람이 지난밤에 또 이질을 만나서 배가 찌르고 아프다고 한다. 그러나 전일처럼 아프지는 않고, 종일 피곤해서 누웠으니 필시 더위를 먹은 것이다. 인아는 전과 같은데 학질은 떨어졌다. 다만 음식이 달지 않아 한다. 더위가 찌는 듯하여 몹시 피곤해 하여 누워 졸고 일어나지 못한다.

19일. 인아는 날로 점점 회복된다. 다만 음식이 평시만 같지 않고, 또 구미에 맞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아침 식사 후에 윤겸이 함열에 갔다. 함열태수가 편지로 불렀기 때문에 막정과 말 두 필을 데리고 갔다. 이로 인해서 태인으로 가서어머님께 뵈올 작정이다. 다만 근일에 더위가 몹시 심하여 비록 편안히 빈 마루에 앉았어도 두건을 벗고 옷을 벗어도 오히려 견디기가 괴로운데, 수일 걸려 왕래하려면 필경 더위에 상할까 두렵다. 또 윤함에게 편지를 써서 명복을 시켜 대흥 윤함의 처갓집 중 애운에게 보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 편에 부치도록 했다.

20일. 요새 아랫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날마다 와서 구원을 청하는데, 이곳도 역시 떨어져서 일일이 도와주지 못하니 말할 수 없다. 충아는 여기 와서 먹고 갔다.

21일. 입추이니 7월 절기이다.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은 참보리를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 어둘 무렵에 막정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함열 태수가 보리 10두 · 벼 10두 · 찹쌀가루 1두 · 뱅어젓 5되를 보냈다. 아랫집에 즉시 벼와 보리 각각 1두씩을 보냈다.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막정은 돌아온 뒤로 병을 칭탁하고 풀을 베어 오지 않아서 말도 또한 굶어 잤으니 한스럽다.

22일. 찹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깨 물에 타서 먹었다. 음식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모두 먹고 싶어 하니 탄식스럽다. 집사람은 병중에 매양 먹고 싶어 하던 것인데 윤 겸이 함열에 가서 깻가루를 얻어 보냈고, 충모도 또한 왔으므로 만들게 했던 것이다.

23일. 말복이다. 막정은 말을 가지고 함열로 도로 가고, 윤해는 종 춘이를 장성으로 보내면서 태인에 들려서 편지를 전하고 문안하고 오도록 즉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윤겸은 처음에는 어머님께 가뵈려 했으나 마침 더위를 먹고, 데리고 간 두종도 또한 앓기 때문에 가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요새 일기가 몹시 더워서 형세가갈 수 없다. 춘이가 갈 때 쌀 1두 7승을 보내서 어머님께 드리게 했다.

24일. 이른 아침에 한 진사 용이 태인에서 와서 아우의 편지를 전하기에 펴보니 어머님께서 별로 병환이 없고, 온 집안이 모두 평안하나 다만 굶주림이 날로 심하여, 어머님께서 파리하고 피곤한 나머지 곤해서 자리에 누우셨다니 통곡함을 그치지 못하겠다.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여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니 불효의 죄가 도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요새 더위가 너무 심해서 형세가 모시고 올 수 없으니, 가을 서늘하기를 기다려 모셔 올 계획이고, 나도 또한 근일에 가 뵈올 생각이다. 또 아랫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충모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먹었고, 윤해는 가서 자고 오지 않았는데, 들으니 아침밥도 짓지 못해서 수씨(嫂氏)는 기분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므로 부득이 아침밥을 지어서 보냈다. 저녁에도 역시 굶어서 잤다 한다. 쌀 7홉을내려 보냈더니 밥을 지어 나누어 먹었다 한다. 이곳도 또한 양식이 떨어져서 여의 (如意)하게 보내지 못하므로 수씨(嫂氏)가 항상 편치 않은 마음을 갖는다. 형세이니 어찌하리오. 깊이 한스럽다.

25일. 아침 식사 전에 임 참봉의 계집종 복금이 와서 보고 쇠고기 두어 덩어리를 바친다. 이 계집중은 임이 죽은 후에 군내(郡內)에 와서 살면서 형리(刑吏) 남편을 얻어 그 어미의 조카와 같이 산다. 아침밥을 먹여 보냈다. 또 들으니 남궁 지평 동장(南宮砥平洞丈)이 별세했다고 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한마을 어른들이 모두 이미 작고하고, 오직 하나 지평(砥平)만이 홀로 생존하여 함열 농사(農舍)에 와서 살았는데, 비록 나이 80이 지났는데도 기력이 강건했었다. 그런데 연전에 중풍으로 말을 못 하여 거의 구원하지 못할 것 같더니 올봄에 이르러 도로 회복되었다. 내가 초봄에 가보고 문안했을 때 나를 침방으로 맞아서 후한 뜻으로 대접하면서 각각 평일에 상종하던 일을 말할 적에, 마을 중에 살고 죽은 사람에 대

해서 슬픈 감회의 뜻을 반드시 말했었다. 그러나 말을 하기가 어렵고 형용이 파리하고 검어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었다. 그 평시에 있어서도 나를 대우하기를 몹시 후하게 했고, 때로 급한 일을 도와주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듣고서도 멀어서 몸소 가서 조상하지 못하니 평생의 한을 지게 되는 도다. 형세가 이러니 어찌하리오. 또 저녁에 양식이 없어서 겉보리 가루두어 되로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는데 모두 반 그릇도 안 되고 그것도 종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또 대아리(大阿里) 채장(菜醬)을 주워다가 물에 끓여서 나누어 먹었다. 인아와 단녀는 학질을 앓고 난 나머지에 역시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충아는 먹을 것을 자주 찾으니 더욱 가련하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하늘에 맡길 뿐이다. 단아는 곤하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 말할 수가 없다.

26일. 근래에 주리고 곤한 나머지에 무료하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회포를 풀 길이 없어서 매양 바둑판을 대하여 추자(楸子)놀이를 했다. 이는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 고 주림을 잊고 긴 해를 보내기 위해서다. 또 충아는 요새 여기에 머무르는데, 그 노는 것을 보니 이미 기교를 터득하여 대나무를 타고 말이라 하기에, 나뭇가지를 꺾어 채찍이라 하여 꾸짖어 소리치면서 뜰을 돌면서 놀이를 하고, 혹은 틈을 엿보 아 뛰어 나가서 잠자리를 쫓아 잡으니. 이것도 또한 고적한 회포를 깨치고 주린 근 심을 잊을 만하다. 다만 말이 둔하고 더디어, 다만 할아비 할미를 부르는 것 외에 는 비록 알기 쉬운 음식 이름도 역시 말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또 오늘은 참보리 닷 되를 주인집에서 빌려다가 빻아서 둘로 나누어 아침저녁으로 죽을 쑤어서 상하 가 함께 먹었다. 아이들은 연일 죽 반 그릇씩만 먹어서 기운이 몹시 피로하고 말라 걷는 것도 역시 임의로 하지 못한다. 인아와 단녀는 파리한 뼈가 앙상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 만일 병이라도 나면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니 민망하고 근심한들 무엇하 리요. 윤겸은 함열에 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전일에 막정이 돌아갈 때 다리 밑에 종기가 나서 겨우 걸어갔다 하더니. 필경 이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 게다. 한노도 무릎 위에 역시 종기가 나서 걷지 못하고 오래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집에 사환이 없다. 그러니 비단 땔나무와 말먹이 풀이 떨어 졌을 뿐이 아니라, 남에게 꾸는 것도 역시 할 수가 없어 둘러앉아서 주림을 참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27일. 아침에 주인집에서 쌀을 꾸어다가 밥을 지어 먹었다. 또 들으니 한산군수가 군(郡)에 들어왔다 하므로 말을 빌려 타고 달려갔더니 헛소리였다. 수락헌에 나갔 더니 군내(郡內)에 피란 와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모여서 혹은 정경도도 놀고 혹 은 바둑도 두면서 긴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 모인 사람은 이 부장 홍제 · 한 진사 겸 형제 · 심 선전관 응유 형제 · 이정시와 나인데. 이 군(郡)에 사는 품관 임표도 역시 왔다. 이홍제는 먼저 돌아가고, 나도 또한 따라서 돌아왔다. 길에서 들으니 조 좌수 희윤이 와서 이 부장의 집에 있다고 하기에 들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李)가 수반을 지어 대접한다. 오후에 집에 도착하니 윤겸이 돌아왔는데. 함열태수 가 보리 2석 · 백미 2두 · 보리쌀 2두 · 위어젓 1두름 · 조기 3묶음 · 뱅어식혜 조금 을 보냈다. 주린 나머지에 즉시 밥을 지어 여러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또 함열태 수는 부인이 죽은 후에 일찍이 우리 집과 혼인 말을 하다가 이미 면약할 것을 허락 했는데, 만일 기약이 지난 뒤에 혼일을 한다면 피차에 모두 늙은 부모가 있는 터이 니 사람의 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바야흐로 이것을 걱정하는 바이다. 윤겸은 함열 에 있는데 말하기를, 이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만일 예를 올린다면 후일에 근심이 없다고 기필할 수가 없으니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고 했더니, 함열에서도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사람을 시켜 함열 태수의 아버지 온양에게 이 뜻을 말했더니 온양은 윤겸에게 편지하기를, 정히 내 뜻에 맞으니 다시 자세히 의논해서 통지하겠다고 했다니 몹시 기쁜 일이다. 마땅 히 날짜를 가려 사람을 보내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들으니 호남의 토적이 크게 번 져서 곳곳에서 날뛰는데. 저번에는 무리를 지어 태인의 감옥을 포위하고 문짝을 부수고서 거기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구출했으며, 이산현에도 역시 이와 같은 변 이 있었다고 하니 이미 몹시 해괴하고 놀랍다. 이제 또 전주 남문 밖의 도장(都將) 의 집을 대낮에 포위하고 도장을 잡아내다가 세 토막으로 베어 죽이고 그 집을 불 살랐다. 이에 통판이 각(角)을 불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았으나 움직이지 않다가 서서히 흩어져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한 놈의 적도 잡 지 못했다 하니, 이는 근고에 없던 큰 변고이다. 왜적은 아직도 변방 땅을 점령하 고 있어 은연중 북쪽으로 올라갈 마음이 있는데 토적이 또 번져 퍼지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도망하는 적과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모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국가에서 무슨 좋은 방책이 있어 편안하게 모을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죽을 곳을알지 못하겠다. 아무리 탄식한들 무엇하랴. 전주에서 죽은 도장은 평일에 적의 무리를 많이 체포한 자여서 이 때문에 화를 입었다 한다. 그러니 이후로는 누가 능히함써 적으로 체포하겠는가. 더욱 근심스럽다.

28일. 저녁내 여러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또 들으니 홍성민(洪聖民)·윤우신(尹又新)·남언경(南彥經)이 모두 역질에 걸려 죽었다 하니 상서롭지 못하다. 홍 상(홍성민)은 국가에서 쓸 만한 어진 인재인데 불행히 초상을 당해서 시골로 물러갔었는데 이제 그 죽음을 들으니 더욱 슬프다. 또 들으니 새 태수로 이구순(李久洵)이 제수 받았다 하는데 꼭 오게 되는지 모르겠다. 만일 온다면 이(李)는 또한 서로 아는 사이이니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29일. 한 진사 겸이 와서 윤겸을 보고 갔다. 또 들으니 정산군수(김장생)가 파면되었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말할 수가 없다. 평일에 그 힘을 많이 입어 왔고, 이번에 윤겸이 돌아갈 때도 역시 들러서 만나 보고 구원하는 양식을 얻어서 보내려 했었는데, 이제 그 파면되었단 말을 들으니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다. 놀랍고 탄식스럽다. 요새 윤해의 처자도 모두 여기에 모여 있으니 비록 죽을 쑤어 먹는데도 하루의 소비가 몹시 많아서 뒤에는 양식을 댈 방법이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이 무슨 까닭이냐.

7월

1일. 아침 식사 전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태수가 백미 2두 · 중미 1두 · 보리쌀 1두 · 찹쌀 5되 · 목미 3되 · 위어젓 2두름 · 조기 3마리 · 조기 2묶음을 보냈다. 3일은 곧 할머님 제삿날인데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려한다. 깊이 감사한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만일 집에 연고가 없으면 비록 여러 조상의 제사를 다 지내지는 못해도 조부모의 제삿날에는 밥이라도 지어 올려서 추모하고 잊지 않는 정성을 나타내려하는데, 그러나 세상 일이 어려운 것이 많으니 미

리 기필할 수가 없다. 또 윤해로 하여금 이복령(李福齡)의 집에 가서 길일을 가려보게 했더니, 8월 13일 및 9월 4일이 좋다고 한다. 납채(納采)는 18일로 정하고 8월이 제일 좋다고 한다. 다만 사세가 촉박해서 미치지 못하겠으므로 부득이 9월에지내려 하는데, 다만 저 집의 뜻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이복령은 곧 관상감(觀象監) 명과관(命課官)으로서 여기에 떠돌아 와 있는 자다.

2일. 이른 아침에 윤겸은 결성으로 돌아가면서 8월 초승에 돌아온다고 했다. 막정이 말을 가지고 따라갔다. 또 이웃집 김대성이 어젯밤에 역질로 죽었다 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평일에 매양 찾아왔고, 비록 채소 같은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 번 따 보내서 나를 대접하기를 지극히 후하게 했는데, 저번에 들으니 그집안이 불안하고 처자와 노복이 누워서 앓다가 그 큰며느리가 먼저 죽으므로 딴곳으로 피해 가라고 했으나 끝내 듣지 않다가 이에 이 지극한 데에 이르렀으니 더욱 불쌍하다. 지난겨울에 날마다 와 본 자가 김대성 · 백몽진 · 방수간인데, 늦은봄에 백(白)이 먼저 갔고, 초여름에 방 공(公)이 병을 얻어 거의 죽다가 겨우 면했고, 그 아내도 또한 죽었는데, 이제 김(金)이 또 죽으니, 반년도 지나기 전에 사람의 일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탄식스럽다. 또 함열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윤겸에게 편지를 하여 택일의 여부를 묻고, 또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병의 조짐이 있다고하니 걱정스럽다. 윤해로 하여금 답장을 써서 보내게 했다.

3일. 날이 밝을 녘에 제사를 지냈다. 제수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겨우 반갱(飯羹)을 올렸을 뿐이다. 종가 종부는 죽었고, 종손 정일(精一)이 마땅히 제사를 받들어 술 잔을 올려야 할 것인데, 떠돌고 빈곤한 중에 반드시 지내지 못할 것이므로 내 비록 지손(支孫)이지만 그대로이 날을 지날 수가 없어서 잠시 자리를 마련하고 잔을 올리니 추감(推成)의 지극함을 이길 수가 없다. 또 이른 아침에 윤해로 하여금 택일 (擇日) 및 신온양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를 가지고 친히 갖다 드리게 했더니, 길일을 가려보니 오는 8월 13일 및 9월 4일이 좋고, 납채(納采)는 18일로 정했단다. 다만 8월은 모든 일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으므로 9월에 행례(行禮)하려 한다. 그러나 함열 태수의 어머니 기후가 불평하시니 만일 오래도록 차도가 없으면 저 집에서 반드시 빨리 하려 할 것이니, 8월로 당겨 정한대도 또한 이길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저 집 의사가 어떠한지 보아서 할 일이다. 또 낮에 꿈을 꾸니 한 연못에서 그물로 붕어를 잡았는데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지느러미가 펄떡거린다. 깨어서 여러 처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말하기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겠다고 한다. 어둘무렵에 함열태수가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또 쇠머리를 흠씬 삶아서 얼음에 채워서 보냈다. 그러나 마침 오늘이 할머님 제삿날이므로 내일 마땅히 처자들과 함께 먹으리. 깊이 감사하다.

4일. 아침 식사 전에 큰딸을 시켜서 어제 가져온 고기를 저미게 하여 처자들과 함 께 먹었다. 그러나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어서 역시 양에 차지 않으니 한스럽다. 또 들으니 한산군수(신경행)가 군(郡)에 왔다 하므로 말을 빌려 타고 달려들어 가 서 수락헌에서 만났더니. 이 군에 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 고 있다. 다만 반첩(頒牒)을 받은 자가 모두 모여서 뜰에 가득히 서서 시끄럽게 굴 어 형세가 조용할 수가 없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서헌(西軒)으로 나가고 나만 홀 로 있게 되어 환상조 5석을 얻기를 청하고, 또 전 태수 때 벼 5두 · 보리 7두를 윤 해에게 준 것을 미쳐 받아가지 못했기에 이제 또 한사군수에게 청했더니 몹시 어 렵게 여기면서 보리 4두를 따로 첩지를 써 준다. 그리고 한산군수는 또 저린 위어 한 두름 · 젓국 2되를 주니 깊이 감사하다. 환상조 2석은 아랫집(지해(之諧))에 주 어서, 윤해의 처갓집 종을 시켜 같은 이름으로 받아다 쓰게 했다. 또 환상곡을 받 아갈 제. 종 명복이 푸대에 든 것을 훔치는 것을 마침 한산조사가 보고 잡아다가 매를 때렸다 하니 몹시 기쁘고 쾌하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실어 오지 못하고 도로 갔다가 숙고(稤庫) 속에 두어두었다가 내일 마땅히 가져오려는데 반드시 허술한 일이 있으니 한스럽다. 마침 종과 말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생부터 비가 내리 지 않아 월여가 지났으므로 받이 모두 누렇게 타고, 물 없는 논은 또한 모두 갈라 져서 벼가 말라 상한다. 이에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야흐로 괴롭더니 낮부터 소 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조금 만에 그치니 비록 곡식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소생은 될 것 같다. 내가 짓는 둔답은 처음에는 모가 드물더니 세벌 맨 뒤로는 무 성하여, 비록 남들의 잘된 벼만은 못하지만 또한 아주 버리게는 되지 않았다. 그러 나 바야흐로 팰 때 오래가 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것이 한스럽다.

- 5일. 어제 받은 환상곡을 말이 없어 실어 오지 못하고, 아침에 세 계집종을 시켜 져다가 다시 되어 보니 1석 13두 · 1석 12두 · 1석 11두 5승이니 조 잃은 갓이 8두가 넘는다. 필연 밤사이에 창고지기에게 도둑맞은 것이리라. 모든 일이 어긋나서 이지극한 데에 이르니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또 충모는 저녁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와서 머무른 지 13일이 되어 이제 비로소 돌아간 것이다. 처음에는 즉시 돌아가려 했으나 아랫집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머물러서 먹게 했던 것이다.
- 6일. 지난밤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 필시 이 것으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오래 가문 나머지에 이 한 번 비를 만나니 거의 삼 농(三農)의 희망을 만족시킬 모양이다. 다만 미흡한 것이 한이다. 아침 늦은 후에 크게 내리다가 오후에 비로소 깼다. 그래도 오히려 높고 건조한 곳은 흡족하지 못하다. 또 인아가 어제부터 다시 학질을 얻어 앓아 오늘도 또 앓으니 필시 축일(遂日)인가 보다. 떨어진 지 겨우 10여 일에 이제 또 얻었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또 종 막정이 결성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은 무사히 돌아갔다 한다. 다만 윤겸의 편지와 윤겸이 보낸 햇기장쌀 두 되를 모두 자루에 넣었는데 청양에서 자던 주인집에서 잃었다고 한다. 또 풀도 베지 않고 어둘 녘에 와서 아프다 핑계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 말도 또한 밤새도록 굶어서 서 있으니 몹시 밉다. 청양군수(임순)가준 보리 3두 5승을 가지고 왔다.
- 7일. 지난밤에 큰비가 새벽까지 내리고 아침에 이르기까지 동이로 붓듯이 쏟아져서 새지 않는 곳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늦게 이르러 비로소 갰으나 종일 흐리고 혹비도 오다가 혹 개기도 했다. 늦곡식에 몹시 흡족하나 좀 지나친 듯하다. 다만 주인이 사는 집이 비가 새어 살 수가 없으므로 일찍이 나로 하여금 옮겨 가 살게 하고 자기가 들어와 살려 했으나 빈집을 얻지 못해서 오랫동안 실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비로 주인집 자는 방안에 물이 가득하다고 하니 더욱 미안하다. 또 먹는 솥이 깨져서 밥을 짓지 못한다 하므로, 어제 장에 부득이 벼 2두 5승을 주고 솥을 사 왔는데 한 말 밥은 짓는다고 한다. 또 종 명복은 성질이 본래 게으르고 미련해서 평일 집에 있을 때에도 비록 조그만 일이라도 역시 명령에 좇지 않아서 억지로 시킨이후에 청종(聽從)해도 역시 힘껏 하지 않아서 윤해가 항상 몹시 미워하여 매양 징

계하려 했으나 유리하는 중에 궁해서 배부르게 먹이지도 못하고 오래 죽만 먹게하니 이 역시 가궁해서 이 때문에 다만 꾸짖고 경계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 물건을 판다는 일로 말미를 얻어 나갔다가 이달 초승에 돌아왔는데 한 가지물건도 갖지 않고 왔으므로 마음으로 의심했고, 전일에 환상곡을 도둑질했다는 까닭으로 스스로 편안치 못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저께 함열에 보내면서 편지를주었더니 돌아오지 않고, 어제 장에 있다가 말질복을 보자 달아나 피했다 하니 필시 이로 인해서 아주 도망한 것이라 미움을 이길 수가 없다. 또 한산조수가 정승의 행차를 지원하는 일로 군(郡)에 이르렀다가 이곳을 지나면서 사람을 시켜 문안했으니, 내일 일찍 마땅히 들어가 볼 계획이다. 한산군수는 평일에 다만 얼굴을 알뿐이요, 두터운 정리도 없는 터로, 이곳에 온 후로 여러 번 서로 만나서 비로소 외가의 멀지 않은 일가로서 나에게 8촌척의 되는 것을 알았다. 그의 성명은 신경행이요 청안현에 산다.

8일. 아침 식사 전에 한산군수에게 들어가 보았더니 이 부장 홍제도 또한 와 있다. 함께 수락헌에서 이야기하면서 추로 석 잔을 마시고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나는 즉시 먼저 돌아와서 옮기려는 집에 들러 보았더니 비록 비가 새서 허물어지고 더러우나 들어갈 방이 셋이고 또 달아낸 곳도 있으니 여럿이 있을 만하다. 비가 개기를 기다려 먼저 더러운 곳을 손질하고 보름 후에 옮겨 갈 계획이다. 또 전 번에 의아(義兒)의 오른쪽 발을 뜨거운 물에 데어서 약을 바르려 했으나 참기름을얻지 못해서 한산에 가서 구해서 2흡을 얻어 왔다. 또 사과(司果)댁 종 귀일이 노비 수공의 일로 호남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오면서 들렀으므로 들으니 사과댁은 지금 인천에 있어 아무 병도 없다고 하니 기쁘다. 집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전에 들으니 귀일이 병으로 죽었다 하더니 이제 갑자기 왔으니 전에 들은 말은 헛말이다. 그러나 아산에 있을 때 전염병에 걸려 거의 죽을 뺀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한다.

9일. 어제저녁부터 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침이 되어도 개지 않으니 필시 장마가되나 보다. 지난달 초승부터 오래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 더위가 몹시 심하더니 해가 저문 후에 모기떼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사람을 물어서 상하가 그 괴로움을 참

지 못했었다. 그런데 비가 내린 후로는 밤기운이 서늘해지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불어와 모기떼를 쓸어버려서 아주 드물어지고 심지어 이까지도 전처럼 극성을 부리지 않아 찌는 듯이 답답하던 기운이 전혀 없어지나, 이른바 가을바람에 병이 회복되려는 것이다. 윤해가 어제 함열로부터 오는데, 강 머리에 이르러 강물이 넘쳐서 겨우 강을 건너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미처 집에까지 오지 못하고 조 좌수의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 신온양의 답장을 보니, 혼인은 이곳에서 택일하는 대로 지낸다고 했다 한다. 윤해가 올 때 함열태수가 보리 10두·정미 5두·백미 1두·찹쌀가루 1두·콩 4되·쇠고기 1덩어리를 보냈다. 윤해가 또 송인수(宗仁叟)(영위(英爲))를 가보았더니 인수가 새 좁쌀 1두를 보냈다. 이에 즉시 콩과 좁쌀로 밥을 짓게 하여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콩과 좁쌀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여서모두 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 춘이가 돌아와서, 어머님의 편지와 아우의 글을보니 모두 평안하다고 했으나 다만 먹을 것을 얻기가 몹시 어려워서 미음과 죽도 또한 계속하지 못하여 굶는 날이 오히려 많다고 한다. 노모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게 했으니 모두 불효한 죄라, 한갓 통읍하기를 더한 뿐이다. 새달에 모셔 올 작정이다.

10일. 어제 낮부터 가을 날씨가 쾌하게 개니 기쁘다.

11일. 아침 식사 전에 군(郡)에 들어가서 한산군수를 만나 수락현에서 이야기하노라니 나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자리를 같이한 자는 이 별좌 우춘(遇春)·홍도사 사효(思數) 및 그 아우 생원 사고·이 부장 홍제·한 진사 겸이었다. 들으니정승이 오지 않는다 하므로 한산군수는 돌아갔다. 나는 먼저 일어나서 돌아오다가 윤해의 집에 들러서 충아를 보고 왔다. 늦은 후에 큰비가 물 쏟듯이 내렸다. 또 춘이가 함열로부터 돌아왔는데, 함열 태수가 간장 1두·소금 5되·조기 3묶음·참기름 3홉을 보냈다. 비가 종일 개지 않다가 혹 많이 내려서 물가 곡식이 반드시 상하는 것이 많을 것이니 탄식스럽다. 또 평릉수(平陵守)의 집종이 서울에서 홍산으로 내려오는데, 첨사의 수씨(嫂氏)가 편지를 보내서 문안했다. 온 종은 비에 막혀서 돌아가지 못했다.

12일, 첨사 수씨(嫂氏)의 종이 오늘 돌아가기에 답장을 써 주어 보냈다. 이 길로 서

울집으로 돌아간다 한다. 한 진사 겸이 편지를 보내고 또 무씨 2홉을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조 좌수 희윤이 와 보고 갔다. 저녁에 소즐이 왔기로 술 두잔을 대접하고 저녁밥을 주었다.

13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녁내 개지 않고 밤새 내린다. 올에는 비 내리고 가꾸는 것이 고르지 못해서 4월로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큰비가 내려 한 달 내내 그치지 않더니, 6월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고, 7월 초승부터 비가 내려 지금까지 개지 않으니 얕은 데 있는 곡식은 날마다 물에 잠겨서 모두 썩었고 혹은 모래가 덮인 곳이 많았고, 남아 있는 곡식도 또한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나처럼 떠도는 자는 얻어먹기가 몹시 어려우니 더욱 근심스럽다. 또 윤해와 충아는 오늘학질을 앓아 몹시 괴로워하니 민망스럽고 근심된다. 요새 한세는 발을 앓아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정도 또한 배가 부어서 또한 맘대로 굴신(屈伸)을 하지 못해서 땔나무와 말먹이 돌을 베어 오지 못해서 두 말이 종일 굶고 서 있으니 더욱 민망스 럽다.

14일.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다. 윤해는 오늘도 역시 학질을 앓으니 필시 축일학 (逐日瘧)이라 걱정된다. 주인집에서 날마다 나가기를 독촉하는데, 아직 살 만한 집을 얻지 못하니 더욱 밋맛스럽다

15일. 아침 식사 후에 이 부장의 집에 갔더니 이(李)가 마침 나가고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윤해의 처자를 가보고 돌아왔다. 돌아올 때 전경색(全景橋)의 집에 들렀더 니, 이미 그 주방을 헐어 버려 들어가 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필시 양반이 들어가 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밉고 밉다. 전가(田家)는 곧 내가 근간에 옮기려던 집이 다.

16일. 새 태수(이윤순(李允洵))이 관청에 나왔다고 한다. 저녁에 신온양(申溫陽)(신벌(申機))이 군(郡)에 왔다 하므로 사람을 시켜 맞아 보고, 즉시 달려들어 갔더니 새 태수와 동헌에 앉아서 바야흐로 밥상을 대했으므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름을 통하고 비로소 만났다. 태수는 내게 추로 석 잔을 대접하고 적조한 회포를 들으니밤이 이미 깊었다. 나와 온양(신벌)이 먼저 서헌으로 돌아오니 태수도 또한 아내(衙內)로 들어갔다. 이에 온양과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혼사를 의논하고 돌아왔다.

온양은 이제 동조(東朝)의 위수(衛率)가 되어 장차 서울로 가는 길에 여기에 들려 잔다고 한다.

17일. 아침 식사 전에 종을 보내서 조민(趙敏)에게 집을 빌리려 했더니 이미 들어와 살기를 허락한다. 식사 후에 내가 가서 보니,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 않고 내외채가 갖추어졌으며 온돌이 셋이 있다. 집안에는 우물이 있고 사방 이웃에는 인가가 있어서 정히 살기에 합당하다. 다만 오랫동안 들어가 거처하지 않아서 자못 허물어지고 더러운 곳이 있고 땅이 비습(卑濕)하며, 위에는 새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수리한 뒤에 와야 들어가 살 것이다. 하지만 20일 후에는 마땅히 옮길 계획이다. 또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18일. 아침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가서 태수를 만났더니, 중국 군사가 많이 들어왔고 어사도 또한 장차 도착한다고 하며, 손이 또한 몹시 많아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만 얼굴만 보고 돌아왔다. 그러나 나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저녁에 막정이돌아왔는데, 함열태수가 보리쌀 10두 · 벼 1석 · 저린 위어 2두름 · 참보리 2두 · 참기름 1되를 보냈다. 또 막정이 필목 3필을 가지고 장에서 명주로 바꾸려 했으나 시가가 많이 부족해서 함열에서 필목 2필과 보리 2두를 더 주고 바꾸게 한 외에 명주 3필을 바꿔 왔다. 다만 보리쌀은 9되와 벼 1두 7되가 모자라니 밉다.

19일. 함열에서 종을 결성별좌에게로 편지를 써 보냈다. 마침 식사 후에 두 종을 보내고 달려서 한산에 이르렀더니 문 지키는 자가 막아서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양성정(陽城正)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름을 통하게 한 후에 태수가 맞아들여 읍취정(邑翠亭)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들었다. 또 관차(官差)를 보내서 내일 새벽에 마땅히 박반송(朴盤松)을 잡아 오게 했다. 반송이란 곧 이 군(郡)에 사는 선주(船主)로서, 지난 임진년 봄에 우리 집 쌀과 간장 등 물건을 실어 가고서 전하지 않은 자이기에 이제 조사하려는 것이다. 양성정(陽城正)은 곧 나의 처사촌으로서이 군(郡) 동문(東門) 밖에 와 있는 터요, 그 아우 금성정(錦城正)은 서울에 가고 집에 없으며, 그 자당(慈堂)은 지난해에 병에 걸려 별세해서 권도로 이 땅에 장사 지냈는데, 궁하고 주림이 날로 핍박하여 조석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공자왕손(公子王孫)으로서도 또 한이 지극한 데에 이르니 불쌍하다. 태수는 먼저 아내(衙內)로

돌아가고 나도 역시 성 북쪽 문안에 있는 관인의 집으로 가서 찬마루에서 자노라 니 추워서 잘 수가 없다.

20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이르러 비로소 갰다. 아침 식사 후에 객사에 이르자, 태수도 역시 나와서 대좌해서 이야기하다. 말을 양성정에게 보내서 청하자 양성정도 역시 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태수는 아내로 들어가고 나는 양성정과 함께 낭청방(廊廳房)으로 와서 순찰군관 김삼섭(金三燮)을 만났다. 김 공(公)은 곧 자미(이빈)의 사촌 김소(金紹)의 아들로서, 어의동에 살고 있다. 그는 비록 나이 젊어서 일찍이 알지 못하던 터이나 역시 한마을 사람으로서 친족의 친족이다.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되어 함께 잤다. 또 박반송(朴盤松)이란 자는 관차(官差)를 보내서 잡아다가 물었더니 칭탁하고 즐겨 불지 않았으나내일 장에 마땅히 딴 물건을 사서 바친다 했다고 한다.

21일. 태수는 독운어사가 불러서 새벽에 임천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종일 김 공(公)과 당청 다락 위에 앉아서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매매하는 것을 구경했다. 또 박반송이란 자는 겉보리 15두ㆍ콩 7두ㆍ모시 1필ㆍ필목 1필 반을 갖추어 바치고 그 나머지는 받지 못했는데 오는 가을에 콩 5두로 받기로 약속을 했다. 절반도 부족하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목박 6개 중에 5개는 받았고, 거기서 받은 보리 4두 5승으로 모시 1필을 바꿨고, 또 4두로 청저 5근을 바꾸고, 콩 1두로 미역 5동을 바꿨다. 또 태수가 나에게 벼 5두ㆍ소금 1두ㆍ감장 3되ㆍ정 3되ㆍ조기 2묶음을 주었다. 저녁에 태수가 동헌에 나가 앉자 나도 나가서 만나 보고, 이 별좌 우춘ㆍ홍 진사 영필도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홍 공(公)은 곧 나의 한마을 사람으로서 객지에서 만나니 몹시 기쁘다. 그는 태수를 만나려고 했으나 이름을 통하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서 장차 굶어서 자게되었다. 이에 나와 밥을 나누어 먹고 내가 먼저 들어가 이름을 통한 후에야 태수가사람을 시켜서 맞아다가 만났다. 그동안 만나려고 머뭇거린 모양이 몹시 구차하다. 떠들면서 걸식하는 사람이 의례 모두 이와 같으니 불쌍하고 탄식스럽다. 또 김공(公)과 함께 당청 방에서 갔다.

22일. 태수가 동헌에 나와 앉았으므로 내가 가서 만나 보고 아침 식사를 같이 들었

다. 유 정랑 덕종 · 이 별좌 우춘(遇春) · 순찰군관 김삼섭도 역시 자리에 있다. 나 는 먼저 작별하고 나와서 양성정이 있는 집에 들러서 찾았더니 마침 금성정이 어 제저녁에 서울로부터 내려와서 또한 함께 이야기하다가 조금 있다 돌아왔다. 중도 에 또 이 별좌 덕후를 만나 말 위에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덕후(德厚)는 이 군 에 사는 품관으로서 가계가 넉넉해서 곡식을 바치고 직책을 얻었다. 고 지사(故知 事) 변협(邊協)의 매부요. 나에게는 처가로 7촌척이 된다. 집에 도착해서 들으니. 함열 물가에 사는 사람이 청할 일이 있어서 큰 민어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마침 내가 없으므로 그대로 돌아갔다 한다. 그러나 청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처자 들이 즉시 삶고 구워서 먹었다 한다. 또 윤해의 세 자녀가 매일 학질을 앓는데 전 일보다 갑절이나 더 아파하니 몹시 민망하다. 인아는 하루 걸러서 또한 앓는다. 23일. 변응익(邊應翼) · 이경익(李慶翼)이 와서 보고 갔다. 이(李)는 곧 이시윤의 전 장인 고 정자(故正字) 영익(英翼)의 아우로서 이 군(郡)에 와 있는 자이다. 또 인아 는 학질을 배나 심하게 앓으니 민망하고 걱정된다. 윤해는 오늘은 조금 앓았다 하 니. 필경 이로부터 떨어지는 것인가 또 들으니 요새 영남의 적의 세력이 몹시 번 지는데, 유 총병(유정)은 새달 초승에 장차 군사를 거두어 올라가려 한다 하므로 윤 좌상(윤두수)이 머물도록 청하려고 전일에 이미 남원으로 향했다 한다. 만일 듣 지 않는다면 동궁(광해군)이 친히 가서 억지로라도 머물게 하도록 이미 장계를 올 렸기 때문에 행차가 지나가는 길에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또 들으 니 투항한 왜적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 여러 진영에 벌여 있고, 서울로 올라간 자 도 또한 많은데, 그들이 지나가는 각 관청에 조금만 저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노 여워하여 읍재(邑宰)에게 욕을 하고. 혹 칼을 빼어 치고 찌르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상한 자가 자못 많다고 한다. 전일에 투항한 왜적 7명이 서울로 올라갈 때 이 군에 들어와서 음식이 좋지 않다고 하여 상을 들어 태수 앞에 메치고 공손치 못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는 곧 거짓 투항한다고 말한 것이요 다음날에 반드시 막중한 근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장수는 반드시 그들의 간사한 꾀에 빠지는 것이 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오는 8월 9일 사이에 장차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서 울로 행한다 한다. 만일 그렇다면 외롭게 남은 백성들이 모두 구렁을 메우는 귀신 이 될 것이요, 나는 장사 지낼 땅도 없을 것이다. 중국 군사도 또한 항복한 왜병을 겁내어 두려워하여 피하고 막지 않는다고 하니, 더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이겠는가. 더욱 탄식스럽다. 내일 짐을 옮긴 후에 남쪽으로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올 작정이 다.

24일. 이사 갈 집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옮겼다. 저녁에 장차 옮겨 가겠기 때문이다. 함열 태수가 종을 시켜 새쌀 2두·소주 6병·송아지 뒷다리 짝을 보냈다. 내일이 나의 생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깊이 감사하다. 세만도 또한 왔는데 윤겸의 온 집도 아무 탈이 없다니 몹시 기쁘다. 햅쌀 5되·좁쌀 1두·차좁쌀 2되를 보냈다. 어두운 뒤에 온 집이 서쪽가의 제단 밑에 있는 조대영의 집으로 옮겼다. 두 번 왕래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25일. 함열 종과 세만이 함께 결성으로 갔다. 아침 식사 후에 집주인 조민을 불러서 추로 석 잔을 주었다. 이웃에 사는 백성 전문(田文)도 또한 불러서 한 잔을 먹여보냈다. 또 유해의 양모 및 그 처자가 와서 보았는데, 윤해의 처는 술과 떡을 갖추어 가지고 왔다. 필시 내 생일을 위한 것이다. 조석을 주지 않았는데도 잊지 않고 갖추어다 바치니 비록 성효(誠孝)가 지극하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늦은 후에 이 부장 홍제가 와서 보기로 새 술 큰 잔으로 석 잔을 대접했다. 이(李)도 또한 내일 장차 그 집으로 돌아가므로 와서 보는 것이다. 지난봄에 병을 피해서 윤해의 집 앞에 와 있었다. 관노 상근이 쇠고기 한 덩이를 갖다 바친다. 윤해의 양모 및 처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26일. 막정이 돌아왔는데 마침 함열 태수가 임파에 가고 돌아오지 않아서 다만 전일에 얻은 빈 섬 40장만 가지고 왔다. 또 함열태수가 정목 10필을 얻어 주어서 이군(郡)에 사는 양산으로 하여금 우리 집에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산이 친히 갖다바친다. 혼인 때 쓸 것인 때문이다. 이정시가 마침 함열에 갔더니 나에게 편지하기를, 유 총병이 근일에 군사를 거두어 올라가면 흉적이 오래지 않아 몰려올 근심이었으니, 혼인을 의논하던 일은 불가불 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이는 과연 옳은 말이다. 다만 모든 일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 적의 형세를 보아 내달 13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오후에 태수를 들어가 보았더

니 태수가 겉보리 2두 · 위어젓 1두름 · 새우젓 1되를 준다. 전 인제태수 박문필이 마침 여기에 왔는데, 그와는 일찍이 아는 터라, 깊이 위로가 된다. 박(朴)은 또한 떠돌다가 이 고을에 와 있는 자이다. 이 별좌 위(偉)와 이 부장 홍제도 역시 여기에 왔다. 먼저 돌아왔다.

27일. 들으니 유충의(柳忠義) 원(愿)씨가 지난 4일에 별세했다고 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 평일에 있어서 나를 대우하기를 몹시 후하게 했는데 불의에 부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슬프다. 내일 남쪽으로 갈 터라고 하였으나 종과 말이 틈이 없어, 가서 조상하지 못하니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인아는 오늘도 학질을 앓아 몹시 심하니 민망스럽다. 집사람도 어제부터 또한 걸려서 오늘 또 앓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두 종과 말로 하여금 울타리 만들 나무 두 바리를 베어 왔다.

28일. 아침에 울타리와 변소를 만들었다.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배로 남당(南塘) 나루를 건너서 저물게 함열에 도착하니 태수(신응구)가 즉시 사람을 시켜 맞아서 상동헌(上東軒)으로 나갔더니, 태수는 김 봉사(경)ㆍ이 봉사 진성(辰誠) 형제 및 이 정시와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저녁 식사를 들고 어두워서 각각 흩어졌다. 나는 이 공(公) 정시와 함께 상방에서 자는데, 이 공이 나에게 이르기를, 태수의 모부인께서 말하기를 혼인날이 아직도 먼데 그전에 만일 적세가 몰려온다면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혼인 때에 갖출 물건을 모름지기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초 레만 행하도록 날짜를 당겨 정하면 다행스럽겠다고 한다. 내 뜻도 역시 그래서 내달 13일로 정해서 즉시 글을 써서 임천으로 보내서 다만 침구만 준비하게 했다. 또한 태인에 이르러 형세를 보고 즉시 돌아와서 혼례를 행한 후에 다시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는데. 만일 어머님께서 오시고 싶어 하면 모시고 올 계획이다.

29일. 밤새 이(李)와 이야기했다. 아침에 이(李)가 내 뜻을 가지고 아현에 들어가 태수를 보고 이야기한 뒤에 태수가 이 공과 같이 나왔다. 김 봉사도 역시 이르러 함께 이야기하다가 아침 식사도 또한 같이 먹었다. 태수가 나에게 행자로 백미 3 두 · 중미 2두 · 보리쌀 2두 · 콩 3두 · 흰 새우젓 3되 · 조기 3묶음 · 미역 4동 · 감장 1두 · 간장 1되를 주었다. 늦은 후에 떠나서 석탄을 건너 김제 땅 돌소리(乭所里)에 이르러 이 감찰(監察)댁 농사(農舍)에 갔더니 감찰댁 처남 남용괄(南容适)이

또한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맞아들인다. 불의에 만나니 기쁨을 이길수 없다.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그 사위 이현경(李顯慶) 및 감찰댁 큰아들 이한(李漢)도 역시 있다. 현경은 곧 의성도정(義城都正)의 아들로서 또한 나의 한마을 사람이다. 이한은 역시 나의 6촌 친척이다. 그 아버지 감찰이 서울에 있을 때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난리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도 한 번 영구(靈柩) 앞에 가서울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만나게 되니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다. 한의 아우는 난리가 시작된 처음에 적의 손에 죽었다고 하니 불쌍하다.

8월

1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이르러서도 개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감찰댁에서 지어 대접한다. 희괄(希适)(남용)이 나에게 이르기를, 비가 이렇게 내리니 갠뒤에 떠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집 혼인이 박두했으므로 체류할 수가 없어서 늦은 후에 떠났더니 중도에 큰비가 항아리로 퍼붓듯이 내리고 어두운 안개가 사방을 막아서 딴 길로 잘못 들어가 혹 동쪽으로 혹 서쪽으로 헤매도 옳은 길을 찾지 못하겠다. 도롱이에 비가 새어서 옷이 모두 젖으니 그 사이의 고초를 이루 다 말하랴. 금구 땅에 이르러 또 소로로 들어서서 말이 자빠져 짐이 뒤집혀서 물건이 모두 젖은 것을 간신히 물속에서 건져 냈다. 낙양리에 이르러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해서 냇가 백성 모리금(毛里金)의 집에서 자고 젖은 물건을 말리느라니 희괄의 말을 듣지 않고 망령되이 떠나온 것이 후회스럽다. 다만 임경흠의 옷만은 젖지 않았으니 이는 다행한 일이다. 경흠의 옷은 지난봄에 딸들에게서 꿰맸는데 이번에 가져다가 영암으로 보내려 한다.

2일. 날이 밝자 떠나서 금구 땅 종정원(從正院)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태인 땅에 이르러 지름길로 들어가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밭두둑 사이로 거닐다가 말이 자주 빠져서 또 짐을 뒤엎었다. 그러나 다 젖지는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첩경(捷徑)에 군보(窘步)라는 것이다. 어머님 계신 곳에 이르러 뵙고 들으니 어머님께서 지난달 보름께 축일학에 걸리셨다가 12일 만에 비로소 떨어졌으나 그 사이에 또 이질에 걸리시어 몹시 괴로워하시므로 온 집안이 망극해할 즈음에 겨우 나으신 지 이제

겨우 십여 일이 되었고, 어제서부터 식사를 전과 같이 하신단다. 그러나 원기가 아주 없어지고 얼굴이 수척해서 형세가 걷지도 못하신다. 이제 모시고 가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언명(희철)의 종과 말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길이비에 무너지고 진흙이 구렁을 이룬 곳이 또한 많아서 노친을 모시고 멀리 갈 수가 없으므로 모래 내가 먼저 돌아가서 초례를 지낸 후에 즉시 와서 모시고 돌아갈 계획이다. 또 언명은 상한(傷寒)이 되어 5일에 이르렀는데도 차도가 없더니 오늘은 속머리가 몹시 아프고 땀이 비 오듯 하니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시 내일까지 보아서 어머님을 모시고 딴 집으로 갈 작정이다. 어두운 뒤에 권 좌수의 사랑채에 가서 그 두 아들과 같이 잤다.

3일. 언명은 새벽부터 차도가 있더니 아침에는 전과 같으니 몹시 기쁘다. 다만 음식이 달지 않다고 한다. 저녁에는 언명이 쾌차하니 더욱 기쁨을 그치지 못하겠다. 다만 막정이 어제부터 머리를 앓아 먹지 못하고 저녁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내일 장차 떠나려는데 큰 종이 이와 같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만일 밤에도 차도가 없으면 형세가 떠날 수 없으니 혼기는 장차 박두하고 더욱 몹시 민망하다. 필시 어제 종일 우중에 여러 번 큰 내를 건너느라고 옷 전체에 습기가 침노하여 풍한(風寒)에 걸린 까닭일 게다. 내일 돌아가겠으므로 여기 와서 잤다.

4일. 밤새 비가 내리더니 새벽에 이르러 비로소 갰다. 일찍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님께 작별하고 떠나서 금구현을 지나 십리 남짓 와서 전일 올 때 자던 모리금의 집앞 냇가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김제 땅 남용(희괄)의 농사(農舍)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녁이어서 거기에서 잤다. 희괄이 나에게 아침저녁 밥을 대접했다. 이웃에 사는 임 생원 전(錪)이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역시 와서 보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헤어지고 나는 희괄과 같이 잤다. 들으니 유 총병이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이미 남원을 떠나서 완산에 도착했다 한다. 남쪽 사람이 믿고 있던 것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이미 거두어 돌아가니 사람들이 견고한뜻이 없이 짐을 지고서 기다린다. 적이 만일 밀려오면 막아 낼 수가 없을 것이니나는 구렁에 구를 것이로다. 비록 탄식한들 어찌하리오. 오늘 오는 길에도 말이 진흙에 빠져서 또 짐을 뒤엎어 이불 보따리가 다 젖었다. 이번 길 왕래에 모두 젖었

는데 자빠지는 근심을 당했으니 이는 실상 말이 피로하고 종이 병든 탓이요, 또 큰비를 만나 길이 질어, 만일 노모를 모시고 왔더라면 중로에서 반드시 오도 가도 못할 근심이 많았을 것이니 위태로울 뻔했다. 임 공(公)은 역시 임시로 이곳 농사에와 있다.

5일. 아침 식사는 희괄이 지어서 대접했고, 점심은 감찰댁이 지어 보냈다. 감찰댁이 나를 청하기로 들어가 보았더니 우리 집에 편지를 한다. 전주 땅 옥야창(沃野倉) 길가 송정(松亭) 밑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어제 젖은 물건을 볕에 말려 가지고 해가 기울어서야 함열에 도착하여 상동헌으로 태수를 들어가 보았더니 태수는 김경(金璥)·이신성(李愼誠) 두 봉사(奉事)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함께 저녁 식사를 들고 어두운 뒤에 각각 흩어지고 나는 홀로 상방(上房)에서 잤다. 들으니 윤겸이 바야흐로 축일학을 앓아서 형세가 속히는 오지 못한다고 한다. 혼기는 박두했는데 일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다만 윤겸이 오기만 기다리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빌릴 물건들을 손을 쓸 수가 없다. 몹시 민망하다. 그러나 들으니 춘이가 말을 가지고 돌아갔다니 만일 혼인을 결정했다는 기별을 듣는다면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반드시 올 것이다.

6일. 태수가 일찍 나와서 이른 아침 식사를 같이 들었다. 김 봉사 경도 또한 왔다. 태수가 백미 1석·중미 1석·누룩 1동·감장 4두·간장 4되·소금 1두·뱅어젓 1두·조기젓 3두름·위어젓 3두름·조기 10묶음을 주어 혼인 때에 쓰라고 한다. 그중에서 백미와 중미 각 4두와 누룩 1동만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는 모두 두어두었다가 내일 종과 말을 보내서 실어올 계획이다. 남당나루에 이르니 배가 이미 저쪽 언덕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건너오기를 기다려서 건너노라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집에 도착해서 들으니 신부의 치장을 아직 빌리지 못했고, 의상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니 민망스럽다. 이는 모두 종과 말이 없어서 윤해가 출입을 못한 때문이다. 윤해와 충아 및 인아·둘째 딸이 모두 학질을 떼지 못했고, 집사람도 역시 않아서, 집에 들어가 보니 모두 누워서 신음한다. 큰일은 앞에 당도했는데 병들이이와 같으니 몹시 민망하다. 어찌한단 말인가. 들으니 동궁(광해군)이 유 총병을 만나고자 이제 공산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고을 관원들이 이미 모두 그곳으로 갔

고, 이 군 태수(이구순)도 또한 도차사원으로 나가서 장차 직산에 도착했다가 행차가 지나간 뒤에 돌아올 테니 보름 후가 될 것이라 한다. 모든 준비할 제구를 오로지 그만 믿었는데 일이 모두 어긋나니 몹시 민망스럽다.

7일. 새벽부터 큰비가 쏟아져 온 집이 모두 젖고, 아궁이에 물이 가득해서 밥을 짓지 못하고, 서쪽 방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비가 새는 곳이 많으니 말할 수가 없다. 오늘은 우리 부자가 제구(諸具)를 아는 집에 빌리러 가려 했는데 비가 이렇게 와서 출입을 못 하겠다. 하늘이 또 돕지 않으니 한탄한들 어찌하리오. 혼인은 겨우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도 준비하지 못했으니 반드시 불성모양일 것이다. 형세가 이러니 어찌하리오. 오후에는 비가 좀 덜하더니 저녁에 비로소 갰다.

8일. 쾌하게 갰다. 종과 말을 함열에 보내서 전일 얻은 물건을 가져오게 했다. 식사 후에 조 정랑 경수(景綏)(조응록)의 집에 가서 그 두 아들을 만나서 신부의 옷세 가지를 얻어 가지고 유선각의 집에 들려 조상했다. 또 소즐에게 들어갔더니 즐은 마침 익산에 갔다고 한다. 모든 볼일과 빌려 쓸 물건을 오로지 그만 믿었는데 형세가 얻지 못하게 되니 민망하다. 돌아올 때 조 한림(희보)에게 들어가 보았더니조 좌수(희윤)도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림은 나에게 콩죽을 대접한다. 또 조문화(趙文化)의 집에 들어갔더니 나갔다고 숨겨서 보지 못하고 돌아오니 해가 이미 어두웠다. 경유의 집에서 빌려온 신부의 옷은 입을 만하다니 기쁘다. 윤 겸은 오늘도 역시 오지 않으니 필경 물에 막힌 것인가. 혼인은 이미 박두했는데 모든 일이 준비되지 못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9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노(漢奴)가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심부름 보낼 곳은 많은데 집에 종 하나도 없이 움츠리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저녁에 춘이와 세만이 왔는데, 윤겸은 축일학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서 와 보지 못한다니 몹시 민망스럽다. 이불감 3승ㆍ필목 2끝을 정목 4필을 주고 바꿔 왔다. 춘이가 올 때 홍양 박부여(朴扶餘)(동소(東蘇))댁에 들러서 신부 옷 두 가지를얻어 왔는데 역시 입을 만하므로 조경수의 집에서 빌려 온 저고리는 즉시 돌려보낼 작정이다. 막정이 함열관인과 함께 전에 얻은 물건을 실어 오는데, 함열태수가또 팥 5되ㆍ찹쌀 1두ㆍ목미 5되ㆍ찹쌀가루 5되ㆍ민어 2마리ㆍ문어 3조각ㆍ전복 2

꼭지 · 미역 7동을 보냈다. 그러나 목미는 오지 않았다. 또 윤해의 처가에서 두 종과 말을 보내서 윤해의 처자를 데려가려 하는데, 혼인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떠나지 못하고 혼인이 지난 16, 7일 사이에 온 집이 진위로 갈 작정으로 두 종은 아직 머물러 두고 사환으로 쓰려 한다. 그편에 들으니 최경수가 예빈참봉이 되었다 하니 하례할 일이다.

10일. 세만은 결성으로 돌려보내고, 윤해는 함열로 갔다. 들으니 이탁의 아내가 죽었다 하니 놀라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4개월 안에 한집에서 세 초상이 겹쳐서 나니 참혹한 변을 어찌 다 말하랴. 불쌍한 일이다. 조 한림(희보)이 벼 4두·간장 및 녹두 1되를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갔더니 조희윤이 먼저 도착해 있다. 향사당(鄕社堂)에서 전일에 모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별감 이응파(李應葩) 및 전 좌수 조광철(趙光哲)도 역시 와 있다. 조희윤이 호방(尸房) 이방 및 공방(工房) 등을 불러, 내 집 혼인 때 쓸 물건 및 사기(沙器)·거군(炬軍)을 빌려 주도록 말하자 모두 응낙하고 물러갔다. 다만 그때 조도어사가 군에 온다고 하니, 만일 이때문에 상치가 된다면 일이 잘 안 될 것이니 몹시 민망하다. 돌아올 때 신몽겸의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11일. 새벽에 윤해의 양모가 왔다. 아침 식사 후에 이 별좌 덕후의 집에 가서 혼인에 쓸 제구를 빌리려 했으나 있는 것이 없다고 핑계하여 겨우 침장(寢帳)을 얻어가지고 왔다. 나에게 탁주를 대접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다. 마침 민 별좌 계(洎)가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이덕후의 아우 덕수 및 조카 윤웅상이 자리에 있었다. 세만이 돌아올 때 정산 개질지에 들렀더니 마침 개질지가 지난밤 죽었기 때문에부득이 돌아왔다. 또 윤해가 돌아왔는데, 3일로 기일을 정했으나 다만 오늘 장에쇠고기를 사지 못했고, 신부의 머리도 역시 얻지 못했다 한다. 조도어사가 이제 또이 군에 오기 때문에 모든 깔고 펴는 제구를 또한 빌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4일로 물렸는데 4일도 또한 좋다고 한다.

12일.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물려지내는 일을 전해 알렸다. 또 들으니 양산에서 장차 소를 잡아 판다고 하므로 포목 두 필을 가지고 가서 사 오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 못 사는 것은 기필할 수가 없으니 몹시 걱정된다. 함열에서 침석(寢席) 두 장을

마련해 보냈다. 소즐이 함열에서 와서 함열태수의 뜻을 전하는데, 성례(成禮)를 물리지 않겠다 하므로 내일로 도로 정했다. 막정이 돌아왔는데 쇠고기를 사 오지 못했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양산에서 막정이 오는데 생민어 한 마리를 보냈으니 기쁘다. 윤겸이 단기로 왔다. 드디어 학질이 떨어졌으므로 기일에 대서 달려온 것이다. 함열에서 동뢰연(同牢宴)에 쓰는 방석 두 개를 보냈다. 또 깔고 치는 제구를 보냈다. 필시 어사가 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빌려 쓰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때문일 게다. 육촉(肉燭) 한 쌍도 또한 만들어 보냈다.

13일, 일기가 개고 명랑하니 기쁘다. 남당나루의 돌손이 건어 한 마리와 가지 및 생률(生栗)을 가져왔으니 필연 까닭이 있을 것이다. 조도어사 강첨(姜籤)이 윤겸이 왔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겸해서 술 1병·닭 1마리·건민어 2마리를 보냈 다. 이 고을의 깔고 치는 제구는 어사가 나가 뒤에 빌려 왔다. 오후에 함열태수가 의막(依墓)에 도착하자 윤겪이 가 보았다. 신부는 예를 익히고. 신부의 머리도 갖 다가 장식했다. 마침 명묘(明廟)의 후궁 순빈(順嬪)이 난리가 난 처음에 이 군(郡) 에 와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궁인이 여막(廬幕)에 있기 때문에 계집종을 보내서 장 식에 쓰는 것을 구해 왔다. 소즐이 모든 신부의 장식품을 익산에서 찾아왔으나 쓸 것만 두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 거군(炬軍)은 관에서 공리(工吏)를 갖추어 보냈 다. 저녁에 모든 일이 준비되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청영(請迎)했다. 새 종은 피 차에 모두 쓰지 않았다. 일찍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위(신응구)가 들 어오는데 내가 마땅히 나가서 맞아 인도하고 들어와야 할 것이지만 마침 흑단령 (黑團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소즐로 하여금 존안(尊雁)하는 것을 받들게 하고 잠시 피했다. 신부 신랑이 교배(交拜)하는 것과 동뢰연(同牢宴)은 모두 실례 (失禮)가 없었다. 또 아침에 들으니 서재동(書齊洞)에서 소를 잡았다고 하기에 종 을 보내서 사 오게 했더니. 겨우 천엽과 쇠머리만 사 왔다. 새벽에 납채(納采)를 하 고 나서 저쪽에서 온 다섯 사람에게 대접할 물건이 없어서 겨우 찐 닭과 국수 · 술 한 동이를 내었고. 저녁에는 데리고 온 관인들에게 술 세 항아리와 과일 · 국수 및 돼지머리를 대접했다. 유리하던 나머지에 얻어 준비할 길이 없어 초략(草略)한 것 이 가소롭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함열에서 보낸 것이니, 그렇지 않았으면 불성모 양이었을 것이다.

14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진사 겸 및 이복령·이광춘이 와 보기로 술 석 잔씩을 대접해 보냈다. 오후에 함열에서 그 고을에서 마련한 주과를 갖추어 가지고 와서 우리 온 집안에게 대판 대접했다. 함열의 장무(掌務)가 양 1짝·닭 1마리·민어 1마리와 잔치에서 남은 음식 및 쇠고기·게 등 물건을 바쳤다.

15일. 아침 식사 후에 함열태수는 돌아갔다. 얼굴을 보니, 그 처도 기쁜 빛이 있고 적합해하니 매우 기쁘다. 오는 19일에 인마(人馬)를 보내서 데려간다고 한다. 한 동이 술을 내다가 함열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접했다. 오늘은 곧 입추이다. 겨우술과 밥을 준비하여 조부모 및 죽전 삼촌에게 제사를 지냈다. 먼 조상은 형세가 미치지 못하니 감창한들 무엇하리요. 하부랑(夏部郎) 이유록(李綏禄)이 와 봄으로 윤겸이 큰 잔으로 찹쌀술 석 잔을 대접했다. 마침 한 진사 몽이 역시 왔다. 이웃에 사는 전문(田文)의 처가 술과 떡 및 실과를 마련하여 상에 갖추어 보내고, 문순(文舜)도 역시 밤과 떡・실과를 갖추어 보냈다. 즉시 종들을 시켜 빌려 온 물건을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16일. 이웃에 사는 전문 이기종(李起宗)을 불러서 술을 대접해 보냈다. 또 함열에서 전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새우젓 3되·백미 2두·쇠고기 1덩어리를 보냈다. 또 그 대부인(大夫人)도 또한 제사 지낸 고기 23곶(串)을 보내면서 집사람에게 편지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깊이 치하했다. 윤해의 온 집은 내일 장차 북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행장을 차리고, 양자(粮資)는 함열에서 얻었다. 함열에서 온 새우젓은 윤해의 처에게 보내어 부모에게 갖다 드리게 했다.

17일. 새벽에 윤해는 온 집이 진위로 돌아갔다. 난리 처음부터 환란을 같이했고, 데리고 같이 산 지 이제 3년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다 맛보았는데 그 장인이 그 굶 주린다는 말을 듣고 두 종과 말을 보내서 데려가는 것이다. 충손은 눈앞에서 재롱을 부려 이것으로 소일을 하던 터에 하루아침에 떠나가니 더욱 몹시 슬프고 탄식스럽다. 그 양모는 성질이 본래 불순해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문득 노한 말을 해서 행동을 임의로 할 수 없으니 비록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오후에 함열에서 권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송이 30개를 보냈다. 마침 윤겸이 조 한림의 집에 갔

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답장을 못 했으니 한스럽다. 또 이 별좌 덕후의 집에서 빌려 온 침장은 쓴 뒤에 즉시 돌려보내려 했으나 막정의 병으로 인해서 즉시 보내지 못했더니 오늘 그 집에서 종을 보내서 찾아가니 부끄럽다. 또 계집종 강춘이 한쪽 발의 종기로 부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밥을 질 사람이 없으므로 종 어문이에게 맡겼더니 비단 훔쳐 먹을 뿐만 아니라, 몹시 불결해서 여러 번 가르쳤건만 끝내 그치지 못하니 몹시 밉다.

18일. 아침에 말질손을 시켜 송이 큰 것을 골라서 조 한림에게 여섯 개를 보냈더니 조 한림 부인이 찹쌀 1두를 보냈으니 매우 감사하다. 식사 전에 군에 들어가 태수 (이구순)를 만나려 했으나 태수가 아내(衙內)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19일. 새벽부터 흐리고 비가 뿌린다. 윤해의 처자는 오늘 어느 곳에서 머무르는지 알지 못하겠다. 양식이 약소해서 반드시 오도 가도 못할 근심이 있을 것이니 잊을 수가 없다. 어제 인마(人馬)를 정산·홍산 두 고을에 보냈더니 마침 두 태수가 동 궁 지공하는 일로 관청에 없어서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서 얻어 오기만 고대하는데 끝내 그대로 돌아왔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또 이웃에 사는 전문이 술과 과실을 갖추어 가지고 친히 와서 마시니 후 의에 감사한다. 어두운 뒤에 함열에서 집이 있는 교자(轎子)를 빌려서 아노(衙奴) 3명·교군(轎軍) 십여 명 및 장리(長吏)·급창(及唱) 등 모두 20인이 왔다.

20일. 밝기 전에 술 두 동이를 내다가 하인들을 먹이고 날이 밝자 다만 이른 밥과 죽을 먹고 떠났다. 다만 작별하기에 임해서 그 어머니 그 동생과 함께 서로 붙잡고 소리 내어 우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인정이 어찌 그렇지 않으랴. 슬하에 여러 해 데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아주 돌아가니 연연한 회포가 어찌 없을 수 있으랴. 다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소식이 오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이것으로 위로가된다. 나도 또한 데리고 가다가 남당에 이르러 배 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도로 내려온 뒤에 배가 떠나서 중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윤겸이 홀로 데리고 갔다. 나는 높은 언덕에 올라 멀리 배가는 것을 바라보니 아득히 멀어진다. 눈을 멀리 보내어 남쪽 언덕을 바라보니 더욱 슬픈 눈물이 소매를 적시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관

에서 준비한 배가 세 척인데, 하나는 큰데 차일과 잡막과 까는 것까지 갖추어졌고, 하나는 지공하는 제구요. 하나는 사람과 말을 실었다. 이 배들이 모두 일시에 떠나 가는데 아침 식사는 뱃속에서 마련한다 한다. 나는 홀로 말을 타고 종 하나만 데리 고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이미 높았다. 방으로 들어가 앉으니 더욱 슬픈 눈물이 흐 른다. 그 어머니와 두 딸은 둘러앉아서 울고 있다. 그러나 형세인데 어찌하랴. 그 저께 윤해의 온 집이 진위로 돌아갔고 이제 또 이 딸이 떠나가니 회포를 더욱 견딜 수가 없다. 또 윤해가 가는 길은 거리를 계산해 보니 오늘 진위 집에 들어갈 것인 데, 다만 어제 비가 뿌렸으므로 의심건대 반드시 중도에 체류할 것이다. 저녁에는 양식이 없어서 다만 묽은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다. 또 사람을 시켜 이기종을 불 러다가 강비의 종기를 째게 하고 술 한 그릇을 대접했다. 또 기종과 함께 이 진사 중영이 있는 집을 찾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중영은 곧 고 지사(故知 事) 인(潾)의 아들로서 평일 호부(豪富)라 불리었는데. 이번에 난리를 만나 이곳에 머물다가 그 모부인이 지난여름에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아직도 장례를 지내지 못하고 있다. 마침 나와 이웃해 있기 때문에 찾은 것이다. 전일에 서로 아는 사이 고 또 자식들과도 서로 아는 사이다. 기종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한 잔 술에 취 해서 먼저 가니 우습다.

21일. 한노(漢奴)를 함열에 보내서 행리(行李)가 어떠한지 물었다. 새벽에 아침밥도 먹이지 않고 보내서 오늘로 돌아오게 했다. 저녁때 막정이 분개를 데리고 함열에서 문안 온 사람과 같이 들어왔는데 들으니, 대부인께서 신부를 보고 몹시 기뻐하고, 온 집안이 모두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다고 칭찬한다니 거의 위로가 된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대체로 혼인이란 천정(天定)이 아닌 것이 없는 법인데, 이번 이 혼인으로 더욱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변이 나던 처음에 함열태수 온 집안과 같이 관동에 피란했을 때 산과 내를 넘고 건너 어려운 일을 같이 맛볼 적에 심지어 연 3일 동안을 맘에 걸어서 적진 밖으로 비밀히 나갔고, 진위 땅에이르러 그는 하남으로 가고 나는 호우로 와서 각각 생활할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뒤에도 역시 아주 끊지 않고 자주 서로 안부를 물었지만 어찌 오늘이 있을 줄 알았으랴. 이는 또한 하늘의 뜻으로서 비록 부모라도 그 사이에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막정이 왔는데 함열에서 백미 3두 · 중미 3두 · 쇠고기 1덩이 · 조개젓 3되를 보냈다. 딸이 또한 어제 받은 물건 떡과 과실 · 자반 등 조금을 보냈기로 즉시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 또 답장을 써서 함열에서 온 사람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22일. 막정을 시켜 관가에서 빌려 온 사기그릇 및 소반·족상(足床) 등을 실어 보냈다. 전일에는 종과 말이 틈이 없어서 오늘에야 보냈다. 다만 사기그릇 네 개가 깨졌으니 한스럽다. 또 인아는 학질이 떨어진 지 겨우 3, 4일인데 어제부터 날마다 도로 앓으니 민망하다.

23일. 이른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그 길로 익산 이 충의(李忠義)의 집에 가게 했다. 이는 장에서 물건을 사 오게 하기 위해서다. 어제 한노(漢奴)가 오지 않았으니 오늘 윤겸이 데리고 오는 것인가. 그러나 저녁에 한노가 혼자 왔는데 윤겸은 내일 오려고 한다. 딸이 홍시 15개와 송이 30개를 보냈다. 홍시는 즉시 처자들과 같이 먹었다. 인아는 바야흐로 학질을 앓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먹고 몹시 시원해한다. 집사람도 역시 걸려서 앓으나 잠시 춥고 잠시 더울 뿐으로 심하지는 않다고한다

24일. 저녁에 윤겸이 함열에서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자방(신응구)이 몹시 그 아내의 뜻을 소중히 여긴다니 몹시 기쁘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어두운 뒤에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밤이 깊지 않아서 서쪽 이웃 전문(田文)의 집종이 쌀을 도둑맞았는데 자취를 찾아보니 쌀알이 우리 집 길에 흩어져 떨어져 있다고 한다. 즉시 불을 밝히고 계집종 어둔이의 방을 찾았으나 없으니 필시판 사람이 훔쳐 가고 짐짓 여기에 흩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둔이가 훔쳐다가 몰래 숲 속에 감추어 둔 것인가. 저 집에서는 깊이 어둔이를 의심하므로 내가 중하게 다스리려 했으나 아직 누구의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후일에 발각되기를 기다려서 징계할 작정이다. 이 종이 평일에 하는 짓이 수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니 밉살스럽다. 함열에서 저린 게 50개를 보냈고, 딸이 또한 자반 및 양색 떡 조금을 보냈다.

25일. 윤겸이 결성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이미 김경·이신성과 약속이 되었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오후에 옥춘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딸이 백미 2

두·저린 게 20개·조개젓 2되를 보냈다. 저녁에 김(金)·이(李) 두 봉사가 왔으므 로 저녁밥을 대접하고 윤겸과 같이 잤다. 기대수(奇大受)가 아들을 데리고 짐을 지 고서 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걸인으로 알았더니 그 성명을 물어본 뒤에 비로소 알았다. 찢어진 누더기가 양반의 모습과 같지 않으니 슬픈 뜻을 이길 수 없다. 조 석 식사를 대접하고 그 아내와 딸과 함께 자게 했다. 지금 공주 땅에 있다고 한다. **26일**. 날이 밝기 전에 김·이 두 봉사가 떠난다고 하므로 죽과 백주 두 잔씩을 대 접했다. 또 윤겸과 일시에 떠나서 홍산현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간다고 한다. 윤겸 은 내 말을 타고 한노를 데리고 가고, 기대수는 아침 식사 후에 또 한산으로 가서 한산태수에게서 걸식하겠다고 하기에 돌아올 때 다시 오라고 했다. 아침에 전라조 도어사 박 공 홍로(朴公弘老)가 이 도(道)의 아사(亞使)를 시켜 나 있는 곳에 문안 을 보냈으니 그 잊지 않은 뜻에 깊이 감사한다. 그러나 어디서 시킨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저녁에 천린 · 덕린 형제가 수원으로부터 장차 한산으로 향하는 길에 여 기에 들렀다. 그에게 들으니 윤해의 온 집안은 무사히 진위에 도착했다고 하니 기 쁘다. 저녁을 대접하여 재웠다. 막정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말장 10 두·소금 3두·게 30마리·송이 17개·참기름 1되·좋은 술 6병을 보냈다. 말장 은 다시 되어 보니 8두이다.

27일. 막정을 시켜 윤겸이 얻어 온 밀씨와 보리씨를 결성으로 실어 보냈다. 윤겸이 어제 돌아갈 때 종과 말이 없어서 실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실어서 보냈다. 저녁에 함열에서 전인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생붕어 50마리 · 비늘 없는 물고기 10마리를 보냈다. 즉시 처자와 함께 쪄서 함께 먹었다. 비늘 없는 고기는 배를 갈라서 소금에 저렸다가 자반으로 먹으려 한다. 저녁에 양식이 떨어져서 콩죽을 쑤어 먹었다.

28일. 지난밤에 비가 내려 추녀 물소리가 많이 나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때로 비도 뿌렸다. 나는 새벽에 배가 아프고 두 번 설사를 하고 나서 또 토하고 싶어도 토해지지 않더니 속머리가 조금 아픈 것이 필시 곽란인가 보다. 정화수를 마셨더니 늦은 아침에 이르러 조금 나았다. 그러나 머리 아픈 것은 아직도 아주 낫지 않는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백미 2두와 생해어(生

海魚) 1마리 · 붕어 8마리를 쪄서 국물을 부어 그릇에 가득히 담아 보냈다. 즉시 밥을 지어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나는 기분이 불편하고 구역이 나서 먹지 못하니 한스럽다.

29일. 지난밤에 바람 불고 춥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찬 서리가 벌써 내렸다. 지붕이 모두 하얗고 날씨가 겨울과 같다. 자는 방은 몹시 차고 상하의 옷이 얇으니말할 수가 없다. 계집종 옥춘을 함열에서 온 사람과 같이 보내면서 혼서 함과 딸의긴 옷을 보냈다. 이것은 여기에서 꿰맨 것이다. 함열 딸이 아노(衙奴)를 시켜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또 먹다 남은 떡과 과일 및 고기구이·자반 등 물건을 보냈으므로 즉시 아이들과 같이 먹고 답장을 써서 그 사람 편에 보냈다. 소즐의 아내가 저린 게 10개를 보냈으므로 말장 1두로 갚았다.

그믐날. 오늘은 함열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고, 막정도 또한 돌아오지 않았다. 필시 윤겸이 중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또 들으니 방백이 어제 군에 왔는데, 3일 동안 머무른다고 한다. 저녁에 김정이 와 보고 갔다. 정(井)은 곧 대성(大成)의 아들 인데 대성이 지난여름에 병으로 죽어서 바야흐로 상중에 있다.

9월

1일. 식사 후에 무료해서 인아 · 단녀와 함께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마침 이웃 늙은 이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풀을 베고 있다. 함께 반일(半日)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이경익(李慶翼)이 와 보고 갔다. 또 함열에서 오늘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어제부터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쑤어 먹고 지냈는데, 전에 들으니 오늘 양식을 보낸다고 하므로 저녁까지 기다려도 마침내 오지 않고해가 또 저물었다. 달리 꿀 곳도 없어서 무를 캐다가 국을 끓여 아이들과 함께 마시고 나니 밤이 이미 깊었다. 그대로 굶어서 자려니 잠이 오지 않는다. 인아는 날마다 학질을 앓는데 또한 먹지 못하니 더욱 탄식스럽다. 막정 등은 역시 오지 않으니 이 무슨 까닭이냐. 종과 말이 나갔는데 아직 보내지 않아서 굶어서 자게 만들었으니, 전에도 비록 이런 근심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전혀 먹지 못한 때는 없었다. 2일. 쌀 두 되 반을 꾸어다가 아침밥을 지어 나누어 먹었다. 아침 식사 후에 함열

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2두·중미 2두·게 20마리를 지고 왔고, 딸이 또한 자반·떡·과일 조금씩을 보냈다. 이 사람이 어제 나룻가에 이르러 건너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건너서 왔다고 한다. 그편에 들으니 함열태수는 차원으로 어제 떠났다 한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비로소 갰다. 그러나 종일 흐리다. 밤이 깊어서야 막정 등이 돌아왔는데 어제 홍양 광석리에서 자고, 비로 인해서길이 험해서 일찍 떠나지 못해서 해가 저물었다고 한다. 윤겸은 무사히 집에 돌아갔고, 돌아갈 때 홍양 이 생원 익빈의 집에서 이틀을 묵었기 때문에 종과 말이 오늘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언해소학(該解小學) 네 권을 보내왔다. 딸들이 간절히보고자 하므로 윤겸이 돌아갈 때 말했더니 윤겸이 이 생원에게서 얻은 것이다. 깨 1두·찹쌀 4되·차조 5되·닭 1마리를 또한 보냈다. 닭은 전일 전문(田文)에게서꾸어 쓴 것을 갚으려는 것이다. 막정 등이 밤이 되어도 풀을 베지 않아서 두 말이굶어서 있으니 미운 일이다. 단아는 오늘도 역시 앓으니 필시 이일학(二日瘧)인가보다.

- 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종일 개지 않는다. 밤에 꿈을 꾸니 경여가 완연히 평일과 같았다. 깨고 나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저녁에 비가 개기에 즉시 군으로 들어갔더니 방백은 어제 이미 나갔고, 태수는 관청에 앉아서 공사를 보기 때문에 문지기가 문을 막아서 이름을 통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 4일. 이 진사 중영을 가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저녁에 옥춘이 함열에서 그 관인과 함께 왔는데, 함열에서 백미 2두 · 벼 1석 · 저린 게 20개를 보냈다. 방이 차기 때문에 딴 집으로 옮기려 했으나 빌릴 수가 없으니 민망하다.
- 5일.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함열태수가 어제 관청으로 돌아와서 편지하기를, 전 주에 가서 재앙을 조사한 일을 듣고 갑자기 돌아왔기 때문에 태인에 가지 못하고 다만 문안하는 사람만 보내어 저린 게 20개 · 술 1병 · 닭 2마리를 보낸다고 했다. 깊이 감사하다. 이곳으로도 지금 또 큰 붕어 5마리 · 새우젓 5되 · 추로 2병 · 생강 13뿌리와 저린 생강 1항아리를 보냈다. 붕어는 쪄서 먹었더니 맛이 몹시 아름답다. 노친이 멀리 계시어 이같이 아름다운 반찬을 공양하지 못하니, 상을 대해도 오

래도록 차마 저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때문에 더욱 속히 모셔 오려 하건만 일이 어긋나는 것이 많으니 한스럽다. 단아는 학질을 앓으니 민망스럽다. 또 보리씨를 환상곡(還上穀)으로 달라고 단자(單子)를 태수에게 올렸으나 저장한 것이 없다고 주지 않으니 한탄스럽다.

6일. 이른 아침에 집 빌릴 일로 최인복(崔仁福)에게 가 보았더니 나갔다고 숨기고 나오지 않으니 욕을 당한 셈이다. 식사 후에 최인복이 와서 말하기를, 아침에 일이 있어 나갔기 때문에 나가 뵙지 못해서 이제 와 뵙는다고 한다. 그러니 아침에 보지 못한 것은 그가 나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큰 잔으로 추로 두 잔을 대접했다. 그 집은 이미 빌리기로 허락했으니 기쁘다. 어제 함열에서 자리 네 잎은 먼저 짜서 보냈고, 그 나머지 네 잎은 아직 짜지 않았다고 한다. 저녁에 시증(時曾)이 익산으로부터 와서 보니, 이는 뜻밖의 일이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편에 들으니 장수온 집은 무사하다고 하니 더욱 기쁘다. 경여의 부인은 그 딸이 일찍 죽고, 다만 한외손 원룡이 시증으로 뒤를 이으려 하여 경여의 치상(治喪)을 하고 발인해다가 장례를 지내려고 데리고 온 것이다.

7일. 시증(時會)은 익산으로 돌아갔다. 막정·옥춘도 또한 함열로 돌아갔다. 어제어머님과 아우의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 병이 없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어머님께서 함열에서 보낸 물건을 받으시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셨으니 더욱 위로가 된다. 저녁에 신 별감 몽겸이 와 보고 갔는데, 그편에 태수(이구순)의 뜻을 전하기를, 전일에 내가 두 번째 군(郡)에 들어갔다가 문지기가 막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태수가 이 소식을 듣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라 한다.

8일.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백미 2두·중미 2두·감장 2두·미역 5동을 보냈다. 아침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갔더니 태수가 관청에 앉았다가 나를 맞아 들어 오라 한다. 마침 전 대흥(前大興) 신 공 괄(申公括)씨와 전 판관 상 공 기손(尚公耆孫)이 자리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태수가 수반을 대접하고,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올 때 최인복의 집에 들러서 살 만한지 아닌지를 보았다. 저녁에 천린이 한산으로부터 와서 보고 여기에서 잤다. 기대수 부자도 역시 따라 들어왔으므로

저녁밥을 대접하고 자게 했다.

9일. 천린이 한산으로 돌아간다 하므로 어제 쑨 죽을 대접해 보냈다. 기대수는 아침밥을 대접했으나 줄 물건이 없으므로 벼 1두ㆍ감장과 미역 조금씩을 주어 보냈다. 보니 그 부자가 짐을 지고 가는데 차마 볼 수가 없다. 천린이 가까이 수원으로 돌아가겠기로 윤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막정이 함열에서 보내는 사람과 같이 왔는데, 함열에서 술 3병ㆍ떡 1행담ㆍ각색 실과 1행담ㆍ각각 썬 고기 1행담ㆍ각색 구운 고기 1행담ㆍ천엽 반보ㆍ생해어 1마리ㆍ쇠고기 2덩어리ㆍ중미 2두ㆍ콩 3두를 보냈고, 딸이 또한 백미 1두를 보냈으므로 즉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깊이 감사하다. 오늘이 곧 중양가절(重陽佳節)이기 때문에 준비해 보낸 것이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도 노친이 멀리 계셔서 공양하지 못하고, 윤해도 또한 여기 없어서 같이 먹지 못하니, 상을 대해서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충손(忠孫)도 또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10일. 최인복·전문을 불러서 술을 대접해 보냈다. 또 누룩 한 장을 주었다. 누룩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인복은 큰 잔으로 여섯 잔를 마시고, 전문은 두 잔을 마시고 돌아갔다.

11일. 인아와 단녀가 초학을 앓아 전보다 배나 심하니 걱정스럽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중미 2두 · 백미 1두 · 저린 게 20개를 보냈다.

12일. 이른 아침에 네 종과 계집종을 시켜서 둔답의 벼를 베어 말리게 했다. 또 아침에 체찰사의 종사 조 직강(趙直講) 존성이 이 군(郡)에 이르러 쌀 2두와 위어젓 4되를 보내고 윤해에게 편지를 했으므로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 저녁에 함열 종이 서울에 올라갈 때 와서 자게 되어 편지를 써서 진위 윤해의 집에 전하라고 했다. 향비(香婢)는 일이 있어 돌아왔다.

13일.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가서 태수를 만났더니 태수는 마침 축성감독군관(築城監督軍官)과 동헌에 앉았다가 서로 이야기한 지 오래지 않아서 또 군관들과 한 진사 겸의 집에 가서 활을 쏘았다. 전일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태수가 나를 청해서 같이 가자 했지만 연고가 있어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올 때 신몽겸을 보고 학질 때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전에 신(申)의 방법이 신효하다고 들

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아이의 병을 위해서 구해 얻은 것이다.

14일. 둔답의 벼를 수확했는데 1백 96동이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1두 · 중미 2두 · 저린 게 20개 · 술 1병 반 · 산닭 1마리를 지고 왔다. 또 신 공(公)의 부술(符術)은 이미 두 아이에게 시험해도 효험이 없고, 오히려 전보다 갑절이나 더 아프다고 하니 탄식스럽다.

15일. 한복(漢卜)을 불러다가 방을 고쳤다. 한복이란 떠도는 사람으로 이웃에 와 있는 자이다.

16일. 어제 방을 파지 않고 고쳐서 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막정을 시켜서 헐어 버리고 다시 파서 고쳤다. 어제 한 일은 헛일이 되었으니 우습다. 그러나 종일 불을 때도 오히려 불이 잘 들이지 않고 방안이 오히려 덥지 않아 고친 데가 마르지도 않는다. 처음에 어머님을 모셔다가 이 방을 쓰시게 하려 했는데 이와 같으니 몹시 민망하다.

17일. 아침 식사 후에 두 종과 말을 데리고 떠나서 남쪽 길을 향하여 남당나루를 건너다가 마침 나룻가에서 이 공(公) 정시를 만나 한 배를 타고 건넜다. 함열로 달려가니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태수는 아중(衙中)에 있다가 나를 맞아 아내 (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보게 하고 차를 마시고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어두운 뒤에 상동헌으로 나와 자는데 이유위(李有爲)와 같이 잤다. 유위는 이정시의 자이다. 임계(任誠)도 역시 같이 잤다. 임계는 태수의 친척이다.

18일. 이른 아침에 신대흥(申大興)(신괄)이 와서 보았다. 태수도 역시 따라 나와서 같이 아침을 먹었다. 늦은 아침에 김 봉사(경)가 역시 들어와 함께 저녁까지 이야 기했다. 나는 아내(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났다. 김 봉사는 어제 태안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는데, 올 때 결성에 들려 윤겸을 만났다면서 윤겸의 편지를 역시 가지고 왔다. 편지를 보니 무사하다고 했는데 다만 임아(任兒)가 나가 놀다가 뱀에게물려 겨우 차도가 있다 하니 놀랍고 걱정스럽다. 인아(蘇兒)의 혼사는 역시 보령 땅 겸의 처족에게 정했다고 한다. 일이 아직 멀었으므로 돌아간 뒤에 편지를 보낼 작정이다

19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겸해서 바람까지 불어 종일 개지 않는다. 저녁에 아내

(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보고 태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들었다. 어두운 뒤에 동 헌으로 나와 자는데 임(임계)·이(이정시)와 같이 잤다. 태수는 여러 사람들과 처음에 웅포(熊浦)로 고기잡이 구경을 가려 했으나 비로 인해서 중지했다.

20일. 비가 갰다. 태수가 나오자 대흥(신괄)도 역시 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연포 (軟泡)를 만들어 함께 먹었다. 늦은 후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고을 서쪽 웅포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는데 마침 바람이 어지러이 불어서 고기는 잡지 못하고 다만 여럿과 같이 배에 올라 중류(中流)에 가서 닻을 내리고 술을 마셨다. 거기 동석한 자는 신대흥ㆍ김 봉사(경)ㆍ이 공(李公) 정시(挺時)ㆍ이 공 천황(天貺)ㆍ신응관ㆍ홍 찰방 요좌(堯佐) 및 태수와 나였는데 세 향소(鄕所)에서도 역시 참례했다.이 세 향소에서는 각각 술과 안주를 많이 차려 가지고 왔다. 저녁에 배를 띄워 조수를 따라 올라가서 옛 창진가에 이르러 안사눌(安士訥) 및 남궁니(南宮柅)를 청해다가 또한 술을 마시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저물어서 각각 돌아왔다. 횃불을 밝히고 오는데 현(縣)에 들어오니 밤은 이미 깊었다. 이유위(이정시)는 뒤에 떨어져 나룻가에서 자고 내일 한산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21일. 처음에는 떠나서 태인으로 향하려 했으나 날이 늦어서 떠나지 못했다. 태수가 행자로 백미 1두·중미 2두·콩 2두·조기 1묶음·육포 5조각·저린 게 15개·산 게 10개·생붕어 30마리·간장 1되를 주고, 또 보리씨 7두를 얻어 포목 1 필 반으로 바꿨다. 종일 아중(衙中)에서 딸과 이야기했다.

22일. 밝기 전에 식사를 하고 아중에 들어가 태수와 딸을 만났더니 마침 태수의 선조 기일이어서 아중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내다가 내게 주고, 또 관인 한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한다. 신창(新倉)나루에 이르러 배로 건너가 보니거기 살던 사람들의 집이 모두 헐리고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까닭을 물었더니 지난달 중에 임피에 갇혀 있던 적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군마를 끌고 가서 이 때문에 도망해 흩어지고 한 사람도 돌아와 사는 자가 없다고 한다. 헐린 집 하나가 홀로 남아 있기로 거기 들어가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 식사를 들었다. 조금 있자니 풍우가 크게 일어 즉시 떠나지 못하고 조금 쉬기를 기다려 우비를 입고 떠났다. 달려서 김제군에 이르러 홍문 밖 인가에 이르니 그 집에

사인(士人)이 먼저 와서 살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비가 종일 그치지 않고 달리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억지로 들어가 빈 마루에 앉았노라니 사인이나와 본다. 그 성명을 물었더니 곧 조형원(趙馨遠)으로서 고 지례추(故知禮擎)의 손자요 존경(存慶)의 아들인데, 나에게는 8촌 손자 항렬이 된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에게 들으니 조도어사가 군에 왔다고 하기에 막정을 시켜서 이름을 통하고 또 관인으로 하여금 함열태수의 편지를 이곳 태수에게 드렸더니 태수가 즉시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어사는 또 배동(陪童)을 시켜 나를 청한다. 이에 즉시 상동헌으로 나갔더니 응소(應邵)와 태수 및 족인(族人) 2, 3명이 이야기하고 있다. 객지에서 서로 만나서 십분 기쁘다. 태수가 나간 뒤에 응소와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다가 같이 갔다. 응소는 곧 박 공(公)의 자이다. 태수가 상하 식사를 대접했다.

23일. 갰다. 태수가 들어가 어사께 뵙고 같이 아침 식사를 들었다. 유 생원 표(彪)도 역시 왔다. 유(柳)는 피란해서 이 군내(郡內)에 와 있는데 어사의 연배 친구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술 크게 두 그릇을 마셨다. 날씨가 차고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응소(박홍로) 및 여러 사람들을 작별하고 떠나서 큰 들을 지나는데 어제 비로 인해서 물이 길에 가득하고 진흙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서 간신히 마른 길을 찾아서 태안 전리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들어가 어머님께 뵈었더니 한집 상하가 모두 옛날과 같다. 다만 덕경이 말을 가지고 영암에 갔는데 기일이 지나도돌아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만일 도망해 간 것이 아니면 적을 만났는지 두렵다. 다시 수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어머님 가시는 데 종과 말이 부족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권 별감 서(恕)의 사랑방에 가서 권자(權子)와 같이 잤다. 아침에 어사에게 부탁해서 금구 · 익산 두 고을에 사사로이 통했다. 갈 적에 들러 자기 위해서이다.

24일. 언명(희철)이 짓는 논은 종이 없어서 아직도 수확을 못 했다 하므로 내 종 두명 및 관인을 시켜 베게 하고 말 둘이 실어 오는데 마침 찬바람이 크게 불고 일기가 몹시 차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떤다. 다 베지 못하고 모두 돌아왔으니 한갓 양식과 반찬만 허비했다. 궁한 집의 일은 매양 이와 같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들으니 권 별감 서(恕)가 집에 왔다기에 누(樓) 위로 가서 만났다. 전에도 여러 번

여기 왔더라는데 마침 서로 어긋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야 만났다. 나는 먼저 우리 노모를 섬긴 후의에 감사함을 말하고, 서로 만나기가 늦은 것을 한스러워했다. 그 평일에 어머님께서 편치 않으시면 맛있는 음식을 구해서 계속 보내주었으며 만일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백방으로 도모해 보내주어서 굶게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물건을 얻으면 반드시 먼저 보내고, 아우 대우하기를 또한후하게 했다. 비록 친척이나 친구라도 이러한 때에는 오히려 돌보고 보아주지 않는데 하물며 전일에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겠는가. 아우의 처갓집 장인 장모 및 처남도 또한 울타리 하나 격한 곳에 살면서도 오히려 물건을 꾸어 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감히 구원해 살릴 것을 바랄 수 있으랴. 그러니 사람의 품성이 어찌 이다지차이가 나는 것인가. 저녁에 권(權)의 사랑에 가서 자는데 권의 둘째 아들 극정(克正)과 같이 잤다. 권의 두 아들은 비록 나이 젊으나 역시 모두 순근(醇謹)한 사람이다.

25일. 어제 못다 벤 벼를 두 종을 시켜 다 베어서 실어 오니 겨우 세 바리뿐이다. 아침 식사 후에 권의 다락 위에 올라가서 권과 종일 이야기하다가 어두워서 또 권의 사랑에서 권의 아들과 같이 잤다. 처음에는 내일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려 했으나 일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모레 떠나기로 했다.

26일. 아침 식사는 권의 집에서 준비해서 우리 형제와 어머님께 대접했다. 권의 부인이 와서 어머님께 뵌다. 내일 떠나기 때문이다. 종일 권의 다락 위에서 마을 사람 4,5인과 이야기했다. 주인은 일이 있어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또 권의 사랑에서 권의 아들과 같이 잤다. 덕경이 오지 않아서 종과 말이 부족하니 노친을 모시고 돌아가는데 필경 어려운 일이 많겠으니 말할 수 없다. 언명도 또한 모시고 돌아가지 못하니 더욱 민망스럽다. 종과 말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일찍 식사를 한 후에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는데 언명은 걸어서 동구(洞口) 까지 따라가다가 돌아갔다. 함께 가지 못해서 어머님도 또한 마음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시니 더욱 슬프다. 종정원(從正院) 앞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밥을 먹고서 해가 기울어 금구현(金溝縣)에 이르러 어사의 사사 편지 및 함열태수의 편지를 주었더니 상하 식사를 대접해 준다. 식사 후 들어가 태수 김 공 복억(福億)

을 만났는데, 전일에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해도 성화를 들은 지는 오래여서 화한 뜻으로 대우하고 행자로 쌀 1두·중미 1두·콩 1두·조기 1묶음·저린 게 10개·감장 3되·간장 반 되·소금 1되를 주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어두운 뒤에 이도(道)의 도사 황 공(黃公) 극중(克中)이 서울로부터 새로 여기에 도착했다. 일찍이서로 알던 터라, 이름을 통했더니 즉시 나를 맞아들여서 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니밤이 이미 깊었다.

28일. 이른 식사 후에 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한다. 즉시 서헌으로 들어가 만났더니 태수는 나에게 술 석 잔을 대접한다. 조금 있다가 황 도사가 또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하므로 방으로 들어가 만났더니 도사도 또한 나에게 술 석 잔을 대접 하면서 편지를 써서 영암 누이에게 전해 달라 한다. 또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 참례역관(參禮驛館)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밥을 먹었다. 계집종 열금이 뒤에 떨어져서 기다려도 오지 않으므로 계집종 복지로 하여금 머물러 기다리게 하고 먼저 떠나서 익산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즉시 사사 편지 및 함열태수의 편지를 전했더니 태수(고성후(高成厚))는 사장(司倉)에 있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한다. 즉시 가서 만났더니 옛이야기를 한뒤에 나에게 술을 대접한다. 객관(客館)으로 돌아와 자는데 상하 식사를 대접해 준다.

29일. 이른 아침에 태수에게 청하여 술과 안주를 얻어 가지고 이 고을 탄곡(炭谷)으로 경여(敬興)의 부인을 찾아가 경여의 초장(草葬)한 곳에 잔을 올리고 일곡(一 哭)을 했다. 전일을 추억하니 비창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경여의 부인이 나를 보더니 애통함을 그치지 않으니 마음에 걸린다. 사람도 없는 골짜기 속에서 홀로 어린 손자와 살고 있으니 더욱 몹시 슬프고 불쌍하다. 마침 한욱(韓頊)이 와서 보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니 해가 이미 높다. 사창으로 태수를 가 보았더니 태수가 나에게 중미 2두ㆍ정미 2두ㆍ병 5두, 감장 5되ㆍ조기 2묶음ㆍ누룩 3장ㆍ콩 2 말을 주니 깊이 감사하다. 태수의 성명은 고성후로서 일찍이 서로 알던 터이다. 도사 황 공(黃公) 극중(克中)에게도 또한 먹을 것으로 해서 사사로이 말했다. 해가 한낮이나 되어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서 함열에 도착하니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마

침 함열태수는 그 아저씨 신대흥(申大興)(신괄)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상동방(上東房)에서 전송연(餞送演)을 열고 있으므로 나도 또한 참석했다. 동석한 사람은 대흥 및 김 봉사(경)ㆍ전 신계(新溪) 조희안(趙希顏)ㆍ이경춘(李慶春)과 대흥의 아들 신응규(申應規)이다. 서로 수작하다가 밤이 깊어서 각각 헤어졌다. 또 오늘 아침에 익산태수가 준 벼 5두ㆍ감장 5되ㆍ조기 5개ㆍ저린 게 6개ㆍ누룩 1장ㆍ쇠고기 1덩어리ㆍ콩 1말은 경여의 부인에게로 보냈다. 또 조신계(趙新溪)가 옥구 땅에 와 있다가 이제 장차 서울로 가느라고 여기에 들러 잤다. 역시 한마을에서 서로 아는 존장(尊丈)이다. 객지에서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다. 그에게서 들으니 그 두 아들이모두 죽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 옥구에 사는 첩의 농사에 와 있다고 하니 불쌍하다. 이경춘도 역시 피란해서 이 고을에 와 있는 자이다. 어둔 뒤에 태수가 와서 어머님 께 뵈웠다.

10월

1일. 이른 아침에 아중(衙中)으로 들어가 딸을 만나 보고 거기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들었다. 늦은 후에 태수가 차원으로 우도사 여러 고을을 두루 순회한다고 한다. 떠나기에 임해서 신대흥ㆍ김 봉사ㆍ이 봉사ㆍ민주부(閔主簿)ㆍ신응규(申應規)와 내가 함께 관청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여 조용히 이야기하노라니 해가 한낮이 지났으므로 떠나기를 중지했다. 신대흥과 김 봉사는 주량이 차지 않아서 서로 마실 방법을 의논하다가 들으니 이 고을에 사는 안 생원 극인(克仁)의 집에 술이 있다 하므로 즉시 달러가서 크게 취해 가지고 돌아왔다. 저녁에 딸이 와서 어머님께 뵙고, 여기 머물렀다가 태수가 돌아온 뒤에 떠나라고 하므로 근일은 마땅히 여기 머물러야 하겠다.

2일. 이른 아침에 들어가 딸을 만났더니 태수도 역시 있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들으니 김 봉사가 밖에 왔다 하므로 즉시 태수와 같이 아문(衙門) 밖으로 나가서 평상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한참 후에 각각 돌아갔다. 태수는 아침 식사후에 익산으로 향해 떠나는데 떠날 때 어머님께 뵙고 갔다. 들으니 태인에 들러서 잔다 하므로 아우에게 편지를 써 주어 전하게 했다. 겸해서 조기 1묶음·자반 1행

담을 보냈다. 이것은 어머님의 뜻이다. 또 낮에 행과 및 찰떡을 장만해서 어머님께 바쳤는데 이것은 태수의 명령이다.

3일. 오늘이 장날이어서 딸이 막정을 시켜 내주(內紬)를 바꾸는데 정목(正木) 1필과 백미 5두를 주었다. 나도 또한 정목 2필 반·중미 2두를 주고 외주(外紬)를 바꿨다. 이는 인아 장가들 때 쓰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서 늦게 떠나 남당나룻가에 도착하니 배가 마침 저쪽 언덕에 머무르고 또 조수가 몹시 급한 데다가 또한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쉽게 건너지 못하고 해가 기울어서야 간신히 나루를 건너니 해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마침 이 진사 중영의 아들과 같이 오는데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4일. 여기 와서 들으니 윤겸의 종 세만이 그저께 들어왔다 한다. 인아(윤성)의 혼사는 이달로 결정했는데, 저 집에서 사주(四柱)를 보내라고 재촉하므로 윤겸이 사람을 시켜 써 갔다. 만일 이달로 결정하면 의복이 준비되지 못할 터이니 민망스럽다. 또 윤함의 처갓집 종 옥지가 해서(海西)로부터 윤함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윤함의 편지를 보니 무사히 편안히 있다 하니 매우 기쁘다. 그러나 들으니 오정일이 지난 8월에 적에게 죽음을 당했고, 유일(惟一)도 또한 병으로 죽었다 한다. 형제가 모두 죽었으니 불쌍하다. 정일은 종가 종손으로서 또한 뒤를 이을 아들도 없이 몸이 적의 손에 죽었다 하니 더욱 몹시 슬픈 일이다. 다만 성질이 본래 불순해서 고향에서도 패리한 일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모두 원망하여 승이나 속인이 모두 원망한다 하니, 화를 반드시 이 때문에 얻은 것일 게다. 종가 선조의 신주(神主)는 난리 후에 모시고 해주 그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그러나 정일이 화를 당한 후로는 어느 곳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의탁할 사람이 없으니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비록 살아 있다 해도 족히 믿을 수가 없다. 오직 끝의 아우 미질남만이살아 있다 한다. 옥지는 어제 돌아갔는데 미처 답장을 써 보내지 못한 것이 몹시한스럽다.

5일. 조부 제삿날이다. 떡과 밥·실과와 포해(脯醢) 등으로 잔을 올렸다. 종손이 모두 죽어서 제사 지낼 사람이 없고, 또 그다음으로 지낼 곳도 없기 때문에 지손 (支孫)인 나로서 차마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준비된 대로 정성을 나타냈을 뿐

이다. 비감한 회포를 이길 수가 없다. 최인복이 와서 보기에 큰 잔으로 술 다섯 잔을 대접해 보냈다. 오후에 이 진사 중영 및 소즐이 찾아 왔기에 또한 술을 대접했고, 소즐은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흩어졌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2두를 보내왔다.

6일. 어제부터 둔답의 벼를 거두기 시작하여 오늘은 노비 다섯 명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내일 안으로 끝마치게 했다. 내일 동쪽가로 집을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어제 40속(東)을 털었더니 정조 30두인데 이것은 관(官)에 바치려 한다. 오후에 신대흥이 함열로부터 서울로 가다가 들렀는데 그편에 들으니 함열 태수는 어제돌아왔다 한다. 신대흥에게 큰 잔으로 술 두 잔을 대접했다. 또 신대흥과 함께 군(郡)에 갔더니 태수가 병으로 나오지 않아서 또한 이름도 통하지 못하고 대흥과 당청(廊廳)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대흥은 간신히 이름을 통하고 거기서 잤다.

7일. 아침에 집주인 최인복이 와서 말하기를, 홍 주서(注書)가 먼저 들어가고자 하여 이미 계집종을 보내서 그 집을 지키고 있고, 먼저 짐을 옮기고 오늘 마땅히 들어간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필시 비어 있는 집이므로 내가 이미 빌린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것이겠지 하고 큰 잔으로 술두 잔을 대접해 보냈다. 식사 후에 또 막정을 홍 주서의 집에 보내서 내가 이미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내일 옮길 것이라는 말을 하자, 홍(洪)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부장의 말에 의해서 들어가려 했었는데, 이제 들으니 존장(尊丈)께서 이미 빌려서 들어가신다 하니 다툴 수가 없은즉 나는 다시 딴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란다. 그러니 내일 마땅히 먼저 침구 등 여러 물건을 옮기고 저녁때 한 번에 옮길 작정이다. 홍 주서의 이름은 내준(乃遵)으로서 서울에 있을 때 한 동리에 살아서 예부터 서로 아는 터요, 역시 윤겸의 소년 때 친구이다. 지금 어머니 상중(喪中)에 있어서 지난달에 그 장인 상판관(尚判官) 기손(着孫)의집에 와 있는데 도둑이 무서워서 관가 근처로 옮기려는 것이다. 나도 또한 최(崔)의 집에 가서 이광춘을 불러서 그 까닭을 이야기했다. 다만 최(崔)의 계집종이 불순한 말을 많이 하니 밉살스럽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2두를 보냈다.

8일. 여러 물건을 동쪽가의 최인복의 집으로 옮기고, 저녁때 온 집이 옮겼다. 전문 (田文)의 부인이 과실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집사람에게 뵈웠다. 소즐도 역시 와서 봄으로 큰 대접으로 술 한 그릇을 주고, 그 말을 빌려 타고 왔다. 윤겸은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9일. 윤겸이 만일 별시(別試)를 보려면 어제 반드시 나를 와서 온 뒤에 부여 도회소(都會所)에 가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으니 필경 오지 않는 것이다. 함열 종이 서울에서 올 때 길에서 윤해를 만났더니 말하기를, 별시를 보기위해서 서울로 가는데 길에서 편지를 쓸 수 없고, 그 처자는 역시 수원 종의 집에왔다고 하더란다. 아침 식사 후에 조대영의 집에 가서 어제 옮겨 오지 못한 물건을다시 실어 보내게 했다. 그 길로 이 진사 중영을 찾아보고 돌아왔다. 전문(田文)이와서 보았다

10일. 두 종을 시켜서 변소를 만들었다. 천린이 한산으로부터 와 보았는데, 지난달에 이미 수원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도망간 종의 전답을 추심하는 일로 오래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와서 본다고 한다. 어머님이 쓰실 방을 쓸고 수리하고 찢어진 창과 벽을 발랐다.

11일. 처음에는 오늘 함열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 했으나 집에 땔나무가 없어 부득이 두 종과 말을 시켜서 나무를 베어 실어 오게 했다. 다만 들으니 어머님 께서 오래 아내(衙內)에 계시기 때문에 함열태수가 딴 방으로 피해서 잔다고 하니 미안하다. 또 오늘 아침에 주인집 계집종이 다락의 열쇠를 열어 주어서 그 안에 신주(神主)를 모셨다. 윤겸이 부여로부터 별시를 본 뒤에 들어왔는데,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다가 이제 졸지에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됨을 이길 수가 없다. 함께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윤겸의 종은 결성으로부터 따라왔는데, 찹쌀떡 1행담·감당(甘糖) 1행담을 가지고 왔다. 개질지도 또한 석성에서 얻은 쌀 2두·콩 2두를 가지고 왔다. 함열에서 사람이 또한 왔는데 백미 2두를 보내왔다.

12일. 아침에 소즐이 먼저 술과 과실을 보내고 자기도 또한 따라왔다. 오늘이 윤겸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식사 후에 윤겸과 함께 함열에 와서 떡 한 행담을 어머님께 가지고 들어가 어머님께 뵈니 편안하시다. 태수는 아중(衙中)에 들어가 윤겸과 이

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나왔다. 나와 윤겸 및 임계와 같이 관청 새방에서 잤다. 또 아침에 올 때 이서(李栖)가 와서 보았는데, 떠날 때 잠시 윤겸과 이야기하므로 술 석 잔을 대접해 보냈다. 소즐도 역시 참석했다. 이(李)는 곧 조우(趙瑀)(자옥)의 사위로서 지난여름에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옥이 해서(海西) 송화(松禾)로부터 옮겨 와서 해미 땅에 임시로 있는데, 서(栖)도 역시 모시고 온 것이다. 그는 이 고을 태수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와서 본 것이요 거기에서 내가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은 것이다.

13일. 태수가 관아로 나간 후에 딸의 방으로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종일 이야기했다. 다만 계집종 열금이 이곳에 온 후로 허리 밑이 몹시 부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니 가련하다. 죽으려나 보다. 내일 어머님을 모시고 장차 임천집으로 돌아가겠기에 열금은 사삿집에 나가 있다가 뒤에 종과 말을 보내서 데려갈 계획이다. 또 어두운 뒤에 태수가 떡과 국수 및 과일을 마련하여 어머님께 올리는데 우리들도 역시 같이 먹었다.

14일. 태수가 중미 4두·콩 12두·벼 1석·누룩 5장·저린 게 15개·조기 2묶음·기름 1되·소금 4되를 준다. 식사 후에 어머님을 모시고 남당나루에 이르자 마침송노가 말을 가지고 마중 나왔다. 이에 빌려온 말과 관인은 돌려보냈다. 또 이 도(道)의 별시 방목(別試榜目)을 보니 윤겸이 홀로 낙방했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모두 합격했으니 운명이라 어찌하리오. 장원은 권수기(權守己)요, 글 제(題)는 '五王石廢武司論弓矢論治道賦'이다.

방목을 윤겸에게 보냈는데, 윤겸은 아직 함열에 있어 17일 경여의 장사에 대오겠기 때문에 내일 익산에 가서 보고 뒤에 올 것이다. 강을 건너서 집에 이르니 해가 아직도 높다랗다. 또 송노는 지난 3월에 말미를 얻어 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병으로 죽었는가 의심했더니 불의에 돌아오니 비록 밉기는 해도 집에 사환으로 쓸 종이 없는 터라 한편 기쁘다. 오지 않은 까닭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그 아비가 병으로 죽고 저도 또한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즉시 오지 못하고 가을에 그 아비를 매장한 뒤에 와서 뵙는다고 한다. 필시 거짓말이지만 그럴 듯이 속이니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 당초에 달아난 것이 아니니 그 게으름을 징계하지 않고 좋

은 낯으로 대했다.

15일, 세 종과 말을 시켜서 움막을 묻을 나무를 베어 왔다. 오후에는 비가 뿌렸다. 한노(漢奴)를 익산에 보냈다. 술과 과일을 갖추어 경여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다. 16일, 움막 둘을 묻었다. 하나는 계집종들이 거처할 곳이다. 기대수 · 전계남(全繼 南)이 영동으로부터 한산으로 가는 길에 지나다가 들어와 보았다. 남자순 형이 편 지를 했으므로 두세 번 읽어 보니 완연히 얼굴을 대한 듯하다. 백원(百源) 형도 또 한 영동 자순(子順)의 곳에 와 있단다. 황간에는 의탁할 곳이 없고 주림은 날로 박 도하기 때문에 자순 형이 모셔 왔다고 한다. 황산 옛 친구들은 모두 이미 병들고 굶어 죽어서 외가 옛터는 쑥대만 눈에 가득하여 보기에 참혹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탄식한들 무엇하랴. 계남은 자순의 외손(外孫)이다. 함열에 사는 막정의 주 인이 떡 1행담 · 좋은 술 2병 · 실과 및 안주 3그릇을 가지고 부자(父子)가 와서 바 친다. 전일에 권농(勸農)에 대해서 그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와서 사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몹시 미안하다. 저녁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또 영암 임경흠의 집 종이 서울로 가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 그에게 누님의 안부를 들었다. 들으니 해주 박 참판이 있는 곳으로 간다 하므로 편지를 써서 윤함에게 전 하게 했다. 또 들으니 이서가 내일 해서(海西)로 돌아간다 하기에 어두운 뒤에 들 어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니 밤이 이미 깊었다.

17일. 꿈에 심열을 보니 완연히 평일과 같다. 딸들도 또한 여러 번 꿈에 보았다고한다. 생각건대 필시 어머님께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려하나 보다. 또 편지를 써서이서가 가는데 주어 윤함에게 전하게 했다. 어제 비록 경흠의 종편에 편지를 보냈으나 잃어버리고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이게 다시 보내는 것이다. 또 집주인 최인복 부자가 와서 보는데 마침 술이 없어서 다만 찰떡을 대접해 보냈다. 또 송노와향비가 함열에 갔는데, 윤겸의 종 개질지는 어제 말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기에 오늘 아침에 그 집으로 도로 보냈다. 또 고 구례현감 조사겸의 첩이 계집종 둘을 샀다가 도로 놓아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필목 13필로 약속하고, 우선 큰 집 싣는 말 1 필을 주고, 값으로 정한 13필 중에 11필을 주니 또 2필이 부족하므로 벼 1석을 주기로 했다. 이것은 그 집종 김동(金同) 및 그 아자비 말질산이 양쪽에 말을 해 주었

기 때문에 또 벼 13두를 주어서 두 사람이 나누어 먹게 했다. 이에 이광춘을 불러 문서를 쓰게 했는데 증인은 그 외숙의 사노(私奴) 말질산과 소즐이 섰다.

18일. 새로 산 계집종 삼작질개(三作叱介)가 와서 봄으로 사환으로 쓸 작정이다. 허 생원 용래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어두운 뒤에 윤겸이 함열로부터 왔는데, 계집 종 열금이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간신히 말에 실어 가지고 두 사람이 부축해서 겨 우 왔다 한다. 함열태수가 쌀 6두·저린 조기 20마리를 보냈다. 윤겸은 어제 경여 의 장사를 본 뒤에 함열로 와서 자고 지금 비로소 돌아왔다 한다.

19일. 아침 식사 후에 사창으로 가서 태수를 만나 둔답의 정조 2석을 바쳤다. 또가지고 간 매비문기(買婢文記)를 태수에 보였더니 본문기(本文記)에 전준(傳准)한뒤에 도로 김동에게 주어 보냈다. 태수가 나에게 술 한 그릇을 주는데 시어서 마실 수가 없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여 이야기하다기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새우젓 3되·누룩 2장·젖국 한 사발을 주었다. 올 때 홍 주서 준(遵)을 들어가 보고돌아왔다. 홍(洪)은 군내(郡內)에 와서 살면서 상중(喪中)에 있다. 저녁에 사인(士人) 이유립(李惟立)이 와서 윤겸을 만나 보고 나에게 이름을 통하므로 나도 또한나가 보았다. 그는 곧 피란해서 임시로 여기에 와 있는 자이다. 어두운 뒤에 한 진사 겸과 홍 생원 사고가 와서 윤겸을 찾으므로 나도 또한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지난밤에 눈이 내리더니 햇빛을 보자 녹아 버리고 오후에는 비가 되어 뿌린다. 열금의 병세는 조금 달해서 부기가 줄어든 것 같다.

20일. 밤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다. 윤겸이 송노를 데리고 송노의 말을 타고 결성으로 떠났는데 정산에 들러 자고서 내일 종과 말을 돌려보내고, 개질지 및 그 말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 오후에 조대득(趙大得)이 와서 보고 윤겸의 낙폭(落幅)을 가져왔다. 이는 곧 도사 김익복(金益幅)이 편지와 낙폭을 이산태수 [김가기]에게 보냈는데, 이산(尼山)이 또한 편지를 써서 조 공(趙公)이 오는데 전한 것이다. 또 이청(李淸)이 마침 군(郡)에 왔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배동(陪童)을 보내서 편지로 문안했기에 즉시 답장을 했다. 나는 내일 가서 찾겠다고 했다. 이 공(李公)은 본래 죽산에 살았는데 곧 나와 동향으로서 전부터 본래 서로 알던 터이며, 태수와는 7촌 친척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그 가족들은 지금 진

위 땅에 있다고 한다.

21일. 아침 식사 후에 군내 사삿집으로 이청을 찾아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마침 상인(喪人) 한의(韓儀)가 따라 이르렀다. 그는 곧 고 첨지(故僉知) 한성원(韓性源)의 아들인데, 추수를 하려고 농사(農舍)에 왔다가 이 공(李公)과 서로 알기 때문에 와서 본 것이다. 한 공(韓公)에게서 들으니 김 한림(지남)의 막내아들 가응이가지난 8월에 병으로 죽었다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한림은 그 어머니 상사를당해서 아직 장례도 지내지 못했는데 또 그 아들의 초상을 당했으니 궁해서 일을치를 수 없다고 하니 더욱 몹시 가련하다. 전일에 큰아들과 한 딸이 모두 죽었고,내 누이도 또한 역질에 걸려 죽었으니 일 년 동안의 화를 참혹해서 말할 수 없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쌀 2두ㆍ미역 4동ㆍ물고기 1사발을 보냈다. 딸도 또한 좋은 술 1병을 보냈기로 한 잔을 마시니 상쾌하다.

22일. 어제저녁에 한노를 시켜 두부콩 7되를 가지고 대조사에 가서 두부를 만들게 했더니 오늘 아침에 왔다. 오늘은 곧 외조(外祖)의 제삿날이므로 어머님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다. 소즐이 와서 보기에 환상곡 7두 5승과 소즐에게서 온 벼를 합쳐서 1석을 관청에 바쳤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윤겸은 정산에 이르러 말을 빌려서 타고 갔고, 송노는 돌려보냈다. 또 거치 벼 10두 ·쌀 1두 ·콩 1두 · 감장 5되 · 간장 1되 · 홍시 30개 · 양색 소금 조금을 보냈다. 또 경방(京榜)을 보니 윤해도 역시 낙방되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들으니 조정이 깨끗지 못하여 풍랑이 또 일어나서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하니 깊이 탄식할 일이다. 흉적이 아직도 변경을 점령하고 있어 은연중 다시 공격할 마음은 가지고 있으니, 정히 신민으로서 와신상담하여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원한을 푼다는 명목으로 비밀히 보복할 계획을 하니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도 역시 하늘이 시키는 일이니 어찌하리오.

23일. 새로 산 계집종 삼작질개를 함열에 보내고 한노(漢奴)는 말을 가지고 데리고 가게 했다. 또 박부여(朴扶餘)의 사위 이양(李陽)이 노비를 추심할 일로 이 군에 왔다가 출입을 금해서 이름을 통하지 못하고 내게로 와서 보기에 저녁밥을 대접했다. 또 태수에게 편지를 해서 접견하도록 하여 양(陽)은 이것을 가지고 군으로 들

어갔다. 삼작질개는 덕개로 이름을 고치고 아작개는 눌은개로 고쳤다.

24일. 덕린이 한산으로부터 와 보고 여기서 잤다. 한노(漢奴)는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25일, 덕린은 한산으로 돌아갔다. 또 한노와 관인이 같이 왔는데, 함열태수가 벼 3 석·쌀 2두를 보냈다. 벼는 이 군(郡)의 환상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노가 다만 2석만 실어 오고 1석은 양산(梁山)집에 두어두었다 한다. 장수의 편지와 익산 경여 부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경여 부인의 편지는 분개문(粉介文)으로 써서 보 냈는데 모레 떠나서 수워으로 간다고 한다. 이에 편지를 써서 한노를 시켜 익산으 로 가서 모시고 가게 했다. 그 길로 또한 제 아비를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 에는 경여의 부인이 서울로 갈 때 막정을 시켜 말을 가지고 모시고 가게 하려 했는 데, 집에 부득이한 일이 있고, 또 막정이 다리에 종기가 나서 행보를 못 하고, 말 도 또한 계집종과 바꿔서 할 수 없이 약속을 저버리고 다만 한노를 보냈으니 형편 이 그런 걸 어찌하리오. 태수(이구순)가 나를 청하기로 저녁으로 약속하고 아헌(衙 軒)에서 이야기하다가 화상곡 5석을 갖추어서 친히 사창에 갖다 바쳤다. 이 생원 청(淸)이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태수가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 기 머물러 있다가 공퇴(公退)한 뒤에 이야기하자고 한다. 마침 윤 지평 유기(惟幾) 및 그 형 유심(惟深)이 군(郡)에 들어왔으나 일이 번거로워서 다시 뒷날을 약속하 고 어두워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부터 풍한(風寒)에 감상(感傷)되어 콧물이 쏟아 지더니 지금은 속머리가 조금 아파서 밤새 뒤적여도 오히려 땀이 나지 않으니 민 망스럽다.

26일. 기운이 몹시 불편해서 두꺼운 옷을 덮고 종일 방에 누웠으니 음식이 또한 달지 않고 양쪽 머리가 조금 아픈데 오히려 땀이 흠뻑 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 오후에 비가 내린다.

27일. 밤새 비가 내리고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리다. 소즐이 부득이한 일로 와 보고 이산태수(김가기)에게 편지를 해 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 주고, 또 아침밥에 술 두 그릇을 대접했다. 또 어젯밤에 잠시 땀이 나더니 아침에는 비록 어제같이 아프지는 않아도 오히려 쾌차하지 못하다.

28일. 밤새 땀을 냈는데도 오히려 흡족하지 못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속머리가 조금 아프고 오히려 아주 쾌하지 않으니 민망스럽다. 기대수 전계남이 한산으로부터 들렀는데 내가 불편해서 나가 보지 못하고 방으로 맞아들여 만나 본 다음 저녁밥을 대접하여 자게 하고 편지를 써서 자순 형에게 전했다. 또 저녁에 한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익산댁(益山宅)은 지난 5일에 수원으로 떠나서 만나지 못했고, 올때 함열에 들러서 잤는데, 함열 태수가 편지를 보내고 새우젓 3되・쌀 2두・수탉1마리를 보냈다. 다만 우는 닭을 얻으려 했는데 닭이 어려서 울지 못하니 한스럽다. 또 한 감찰(韓監察) 집(濈)이 찾아 왔으나 마침 불편해서 나가 보지 못했다. 29일. 막정을 홍산에 보내서 공채를 얻게 했다. 또 송노를 함열에 보냈다. 기대

29일. 막정을 홍산에 보내서 공채를 얻게 했다. 또 송노를 함열에 보냈다. 기대수·전계남이 새벽에 떠나므로 죽을 쑤어 먹여 보냈다. 나는 지난밤에 땀을 흠씬 냈더니 아침에는 소복되었으나 다만 양쪽 머리 아픈 것이 아직도 쾌하지 못하다. 또 남 진사 일원이 찾아왔는데 병으로 나가 보지 못하고 방으로 맞아들여 이야기했다. 함열의 미련한 종을 다스릴 일로 내 편지를 요구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서 주고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일원(一元)은 고 남죽산(故南竹山) 대임(大任)의 둘째 아들로서 본래 한 동리에 살았고, 윤겸과는 소년 때 친구이다. 보지 못한 지 5, 6년 만에 객지에서 만나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도 역시 이 군(郡)에 임시로와 있다 한다. 저녁에 막동이 돌아왔는데 홍산에서 거친 벼 1석·누룩 3장을 보냈다. 함열 딸은 나의 불편함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기에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그믐날. 함열 딸이 보낸 문안 관인이 이른 아침에 왔기에 즉시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또 한노가 그 아비를 찾아볼 일로 말미를 받아 진위로 올라가므로 그편에 편지를 써서 윤해에게 전하게 했다. 다만 행로가 어려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잘갈 것을 보장하리오. 걱정이다. 나는 기분이 좀 편안하나 다만 보통 때만은 못하고속머리가 역시 좀 아프다. 단녀는 요새는 앓지 않으니 필시 떨어진 것인가. 인아는여전히 아프다니 민망스럽다. 집사람은 역시 추워서 떨고 머리가 아프다가 밤중에이르러서야 비로소 나으니 필시 학질일 것이다. 민망스럽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쌀 3두ㆍ콩 3되ㆍ기름 1되ㆍ꿀 5홉ㆍ정어리 1사발을 보냈다.

11월

1일. 기분이 점점 소복되나 다만 아주 쾌하지는 않다.

2일. 아침에 일어나니 쾌히 나아서 평상시와 같으니 기쁘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2두·목미(木米) 3되·간장 2되를 갖다 바친다. 즉시 편지를 써서 도로 보냈다. 두 종을 시켜 말을 가지고 동송동에 가서 울타리 나무를 베어 오게 했더니 조김포의 종이 낫 두 자루를 빼앗아 갔다고 한다. 또 이 사과(李士果) 사온(士温)이 허용(許容)과 함께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흩어졌다. 이(李)는 서울 있을 때 서로 알았는데 전주 양정포로 와서 산다고 한다. 저녁에 방수간이 와 보았다. 지난봄에 앓은 후로 못 본 지 오래인데, 지금은 한산으로 옮겨 가서 살고,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었다 한다.

3일, 또 두 종을 시켜 나무를 베게 하고, 또 어제 빼앗긴 낫을 찾아다가 울타리를 만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또 양지에 사는 사인 김익형이 추수할 일로 앞 이웃 종의 집에까지 왔다가 내가 여기에 머문단 말을 듣고 즉시 와서 본다. 그에게 들으니 양지 농촌에는 한 사람도 돌아와 사는 자가 없어서 옛터에 쑥대만 눈에 가득하여 오효기 등은 또한 모두 굶어 죽었다 하니 참혹하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다만 이 정자 지강(之綱) 형제는 옛 집에 들어가 살지만 형세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 한다. 어두운 뒤에 태수(이구순)를 만날 일이 있어 군(郡)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좌수 조윤공(趙允恭)·조광철(趙光哲)을 만나서 들으니, 태수가 정 정자 사신이청해서 갔다 하므로 그대로 돌아왔다. 계집종 옥춘이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태수가 편지를 하기를 요새 올빼미가 관아에 들어와 어지러이 우니 이복령에게 그 길흉을 점쳐서 알려 달라고 했다.

4일. 이른 아침에 군에 들어갔더니 태수가 아내(衙內)에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름도 통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 후에 이복령의 집에 가는데 마침 중로에서 복령을 만났다. 이에 같이 군에 들어가 사창에서 태수를 만나 보고 소즐을 방면해 달라고 청하고 돌아왔다. 태수는 다시 나를 청하여 함께 한 진사 겸의 생일잔치에 가자고 했으나 딴 일이 있다고 핑계하고 돌아왔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쌀 2두 · 양색 젓 2항아리 · 미역 2동을 보냈다. 어두운 뒤에 김익형을 청해

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뒤에 돌아갔다.

- **5일.** 한산에 가려 했으나 비로 인해서 가지 못했는데, 비는 종일 개지 않고 밤새 그치지 않는다. 이 집은 비가 새는 곳이 몹시 많으니 민망스럽다.
- 6일. 아침에 김익형이 와서 본다. 그의 자(字)는 광후(光厚)인데 내가 한산에 간다는 말을 듣고 미련한 종 하나를 딸려 보낸다.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한산 문밖에 이르니 문금(門禁)이 몹시 엄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나와 금성정이 있는 곳을 찾았더니 마침 금성정이 출타하고 집에 없다. 이에 홀로 빈 마루에 앉았노라니 금성정의 부인이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어두운 뒤에 금성이 돌아와서 조용히 옛일을 이야기하다가 거기에서 잤다. 다만 종과 말이 모두 굶어 잤으니 한스럽다.
- 7일. 아침 식사는 금성이 역시 대접한다. 막정을 박반송(朴盤松)에게 보내서 지난 가을에 받지 못한 콩을 받아 오게 했다. 송노는 다만 남겨주는 밥을 먹었을 뿐 역시 얻어먹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금성(錦城)이 나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 태수 (신경행)를 보고 내가 왔다는 뜻을 전하자 즉시 나를 청하므로 아현으로 나가 만났더니 나에게 큰 그릇으로 술 두 잔을 대접하고 상하 식사를 준다. 천린이 마침 들어와서 주인집에서 서로 만나 같이 잤다. 저녁에 태수가 나를 아방으로 청하더니 저녁밥을 같이 들고 나에게 벼 1석ㆍ기름 5홉ㆍ찹쌀 3되ㆍ조기 1묶음ㆍ뱅어젓 2되ㆍ생어 두 마리ㆍ감장 3되ㆍ미역 1동을 주었다. 이에 뱅어젓은 천린에게 주었다. 박반송에게서는 콩 4두를 받아 왔다. 1두는 주지 않더라니 밉살스럽다.
- 8일. 이른 아침에 떠나서 금성정의 집에 이르러 먼저 양식과 찬거리를 보내서 아침밥을 짓게 하고, 또 천린의 종과 말을 빌려서 짐을 싣고 식사 후에 반이나 와서천린의 종과 말을 돌려보내고 두 종이 지고 왔다. 다만 올 때 말이 자빠져서 싣고오던 물건이 모두 젖었으니 탄식스럽다.
- 9일. 막정을 함열에 보내어 제수(祭需)를 구해 오게 했다. 오는 11일 동지에 신주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준비할 길이 없어서 이 때문에 종과 말을 보낸 것이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쌀 2두·작은 숭어 5마리·홍어 반짝·정어리 5 두름을 보냈다. 제사에 쓰련다. 매우 기쁘다. 즉시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 10일. 이른 아침에 김익형이 와서 보았다. 아침부터 흐리고 바람이 불더니 또 눈까

지 뿌린다. 저녁에 막정이 왔는데 백미 $1두 \cdot$ 찹쌀 5되 \cdot 콩 $1두 \cdot$ 조기 2묶음 \cdot 정어리 5두름을 가지고 왔다. 전일에 두어두었던 벼 1석도 역시 실어 왔다. 내일 제사를 지내려는데 반찬거리가 마침 떨어졌으나 얻어 오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오.

11일. 밝을 무렵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겸해서 죽전숙주 내외분께도 잔을 올렸다. 쇠고기가 빠졌으니 시골에서 얻을 길이 없는 것이 깊이 한탄스럽다. 아침 식사 후에 조 좌수 희윤 및 조 한림 희보 형제를 가보고 마초를 구했다. 조희윤이 나에게 술 석 잔을 대접한다.

12일. 아침에 종과 말을 조 좌수(희윤)의 집에 보내서 마초 21속(東)을 실어 왔다. 또 막정을 수다해(水多海)에 보내서 얻은 마초를 실어다가 한곳에 쌓았다. 조문화 (희철)·이 사과도 각각 30속을 주었는데 모두 수다해에 있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옮겨 왔다. 아침에 김익형이 와서 보기에 큰 그릇으로 술 두 잔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콩 3두·쌀 2되와 딸이 보내는 먹다 남은 떡과 실과·고기 군 것을 지고 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 주어 보냈다. 오후에 영암 임진사(林進士) 현(睍)이 이번 전시(殿武)에 가느라고 이곳을 지나다가 내가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찾았다. 이는 실로 의외의 일이어서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편에 들으니 누님이 편안하시다니 더욱 기쁘다. 저녁을 대접했다. 현(睍)은 건어 두 묶음을 준다. 저녁에 윤해가 왔다. 오래 기다리던 나머지의 일이라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처자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종과 말이 없어서 일찍이 와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처남의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왔다 한다.

13일. 연기태수 임태(任兌)가 호남으로부터 들러서 찾고 갔다. 객지에서 서로 만나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 백씨(伯氏)는 이 군(郡)에 부임해 있은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비단 한 번도 와 보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보내서 문안도하지 않고 그만두고 돌아갈 때도 오히려 찾지 않았으니, 형제간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몹시 틀리는가. 또 들으니 정종경이 지난여름에 전염병을 얻어서 아산에서죽었다 하니 가련하다

14일, 이른 아침에 소즐이 와서 보기에 아침 식사를 대접했더니 종일 머물러 있다.

역시 내가 군에 들어가기를 청하기 위해서다. 들으니 태수(이구순)가 삼촌 상사를 당해서 아내(衙內)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사창으로 가서 감관(監官) 임붕(林鵬)을 보고 환상곡을 바치지 못한 숫자를 알아 가지고 아문(衙門)에 가서 태수에게 이름을 통했으나 태수는 성복(成服)하기 전이라 해서 즐겨 나와 보지 않는다. 이에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여 그 삼촌이 별세한 일을 조상한 뒤에돌아왔다. 태수의 삼촌은 곧 개천군수 이갱(李鏗)(전로(籛老))로서 역시 나와는 사촌 동서인데 서로 가장 친밀하다가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또 소즐에게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15일. 김익형이 와서 보았다. 두 종을 시켜 서북쪽 울타리를 만들었다. 저녁에 유선각이 종을 보내 문안했다. 가까운 이웃 작인(作人)들에게 고초(蒿草)를 실어다주는 일이다. 패자(牌子)를 만들어 보냈다. 내일 소즐과 함께 이산에 가기로 약속했다.

16일. 이른 아침에 떠나서 중로에서 소즐을 만나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가다가 고성나루에 이르러 석성 땅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즐은 먼저 이산(尼山) 천동(泉洞) 그 매부의 집으로 들어가고, 해가 기울어서 나는 홀로 이산현에 도착해서 들으니 태수(김가기)가 사창에 있다 하므로 종을 시켜 이름을 통했더니 즉시 사람을 시켜 나를 맞아 잠시 인사를 나눈 후에 태수는 선전관을 접대할 일로 먼저 나갔다. 객사(客舍)에는 마침 홍 생원 사고가 먼저 와 있어서 서로 잠시 이야기하다가 각각 사사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잤다. 이 고을의 좌수 홍이서가 있는 곳이 마침 내가 있는 곳과 이웃이어서 어두운 뒤에 와서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홍 공(洪公)은 전일 여기에 왔을 때 서로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17일. 아침에 태수가 나를 아헌으로 청했는데 홍 생원 사고 및 2, 3명의 손도 역시와서 같이 밥을 먹었다. 태수의 매부 성이현이 뒤따라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태수는 환상곡을 받는 일로 사창으로 가고, 이현이 술 한 병을 갖다가 내게 대접한다. 나도 또한 늦은 뒤에 떠나서 연산에 이르러 바로 아헌으로 들어가니 마침 태수(안지원(安之垣))의 삼촌 안회와 그 사위 변흡이 자리에 있다. 안 공(安公)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십분 기뻐하면서 즉시 태수에게 이름을 통하자, 태수는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밤이 깊은 후에 아중에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좋은 술 각각 두 잔씩을 마시고 파해서 사삿집으로 돌아와서 잤다.

18일. 일찍이 아헌으로 들어갔더니 태수가 아내로 청하여 아침밥을 같이 먹고, 벼 1석·찹쌀 1두·참기름 1되·꿀 5홉·좁쌀 3되·콩 5되·백저(白楮) 1묶음을 주어서 먼저 송노를 시켜 이산 소즐에게로 실어 보냈다가 내일 내 집으로 보내도록 했다. 처음에는 오늘 돌아가려 했으나 태수가 만류하므로 아직 머물러 있다가 송노가 돌아온 뒤에 모레 돌아올 계획이다. 또 오늘은 곧 태수의 삼촌 안 공(安公)(회(檜))의 생일이어서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여 각각 한 순배를 마시고 파했다. 태수가 사창으로 옮겨가 앉아, 나와 안 공(公) 및 여러 소년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태수의 매부 김 좌랑 원록(元禄)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전부터 서로 아는 자여서 인사를 나누었다. 조금 있다가 태수가 또한 들어와서 나를 아내(衙內)로 청하여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각각 주인집으로 돌아와 잤다. 태수의 성명은 곧 원식(元墳)이요 자는 중성(仲成)인데 나와 사촌 동서 사이로서, 정의가 가장두터웠었는데 지난 난리 처음에 같이 장천으로 피란하여 함께 어려움을 맛본 자이다.

19일. 이른 아침에 아중(衙中)에 들어갔더니 태수가 나를 아내(衙內)로 청하여 같이 아침 식사를 들었다. 태수는 환상곡을 받는 일로 사창에 나가고 나는 안충의 · 김 좌랑(김원록)과 태수의 6촌 안효인 및 사위 변흡과 함께 종일 헌방에서 이야기했다. 어두워서 태수가 돌아와서 또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각각 흩어졌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으므로 내일 돌아갈 계획이다.

20일. 이른 아침에 아내(衙內)로 들어가 쌀 2두·콩 1두·감장 5되·피목 3두·짚 신·망혜(芒鞋) 각 2켤레를 얻어서 두 종에게 지워 가지고 늦은 후에 떠나오다가 중도에서 풍설을 만나서 간신히 이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태수(김가기)는 마침 풍한(風寒)에 감상(感傷)되었으므로 다만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아중(衙中)에 들어갔으나 만날 수 없어 사삿집으로 와서 자는데, 공주 유성현에 사는 품관 윤효명이란 자가 뒤따라 들어와서 같이 한방에서 잤다. 좌수 홍이서가 밤중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닭이 운 뒤에 나갔다. 그래서 긴 밤에 잠을 자지 못했으나 또한 회포는 위로

가 되었다.

21일. 태수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나를 아헌으로 청하기로 즉시 나갔더니 나에 게 좋은 술을 큰 잔으로 한 잔 대접한다. 늦은 후에 태수가 사창으로 나가더니 또 나를 그가 거처하는 곳으로 청하여 쌀과 콩을 각각 2두씩 주고 나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일찍 아침을 먹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떠나서 그 고을 천동(泉洞) 소즐의 매부 양사유(梁思裕)의 집에 이르러 잤다. 양(梁)은 나를 더운 방에 재우고 같이 자면서 밤새 이야기했다.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으나 그 말하는 사람을 보니 역시 좋은 사람이다

22일. 날이 밝자 아침을 먹고 전에 두어둔 벼를 역시 나누어지게 하고 고성나룻가 에 이르러 배로 나루를 건너 말에게 꼴을 먹이고 달려서 집에 도착하니 해가 아 직 높다랗다. 들어가 어머님께 뵈었더니 마침 아우 언명이, 어제 뵈려 왔다. 뜻 밖 에 만나니 몹시 기쁜 것을 어찌 다 말하랴. 함열에서 사람이 따라 이르렀는데 쌀 4 두 · 벼 1석 · 정어리 10두름 · 저린 생선 5두름, 새우젓 4되를 싣고 왔다. 다만 집 사람이 어제저녁부터 머리가 아파 혹 추웠다가 혹 열이 나서 밤새 저녁내 뒹굴기 를 그치지 않고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더니 오늘밤에 이르러서는 더욱 몹시 아파 하니 민망하고 근심스럽다. 또 소즐이 와 보고 돌아갔다. 윤겸의 서처남 경복이 일 이 있어 지나다가 들어와 자기에 저녁밥을 대접했다. 그에게 들으니 윤겸은 잘 있 다고 한다. 또 연산에서 얻은 벼는 송노가 양(梁)의 집에 실어다 둘 때 되어 보니 13두였다고 하더니 오늘 져다가 다시 되어 보니 겨우 10두 5승이다. 필시 그 집종 이 훔쳐 먹은 것이다. 밉다. 근래에 공사 가에 메말라서 친하고 가깝기가 연산과 같은 자도 저축된 것이 없다는 핑계로 주는 것이 이렇게 간략하고. 이산에 이르러 서는 입도 열지 못하고 왔으니, 이후로는 돌아다봐도 얻을 만한 곳이 없다. 비단 우리 한집뿐이 아니라, 노모를 공양할 길이 없으니 민망함을 말할 수가 없다. 이 군(郡)의 환상곡은 절반도 갚지 못했으니 얻어 쓰기가 더욱 어려우니 더욱 민망스 럽다.

23일. 집사람의 증세는 아침에는 좀 덜한 것 같더니 늦은 뒤에 도로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고 사지가 시고 아프며 조금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이 입이 쓰고 열이 나는

것이 더하다 덜하다 하는 것이 대중이 없어 밤새도록 자지 못하니 몹시 민망스럽다. 오후에 윤해의 처갓집 종이 함열로부터 왔는데, 딸이 양 1조각과 찰떡 1그릇을 보냈다. 또 이 고을에 사는 품관 조광필이 와서 보고 배와 밤 1행담을 주니 무단히주는 것이 몹시 괴이하다. 서서히 그 까닭을 물었더니 도망간 종을 찾아 주도록 함열에 부탁해 달라는 것이다. 또 전에 정목(政目)²을 보니, 박여룡(朴汝龍)이 청양현감에 제수되었다. 윤함이 필시 이 때문에올 것이니 몹시 기쁘다. 박 공(朴公)은 곧윤함의 처외조(妻外祖)의 아우로서 집이 해주 윤함의 처갓집 이웃에 있기 때문에사람이 반드시 왕래할 것이다.

24일.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고 찬 기운이 왕래하고 온몸의 아픔이 전보다 갑절이나 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오후에 윤해가 그 어머니의 편안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함열로부터 달려왔다. 저녁에 이시열이 그 집으로부터 와서 잤으므로 조석 밥을 대접했으나 다만 양식이 떨어져서 데리고 온 종은 밥을 주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5일. 이른 아침에 시열이 수공의 일로 함열로 가기에 윤해를 시켜 함열태수에게 편지를 하여 도망간 종을 다스릴 일과 행자로 양식을 주도록 말했다. 나도 또한 쌀두 되와 간장 한 그릇을 주었다. 중도에서 오도 가도 못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또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고 조금도 나아가는 형세가 없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다시 오늘 밤을 보아서 종과 말을 윤겸에게 보내려 한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생치 반짝・방어(魴魚) 한 토막・간장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26일.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다. 그러나 지난밤에는 새벽까지 뒹구는 것이 열이 있는 것 같다. 정화수를 악물고 때로는 얼음조각을 씹어 뱉을 뿐, 전혀 죽도 먹지 못하니 몹시 민망하다. 이른 아침에 송노를 결성 윤겸에게 보내서 속히 오도록 했다. 또 막정을 함열로 보내서 약물(藥物)을 얻어 오게 했다. 타향으로 떠돌아 굶어 죽을 일이 날로 박두했는데 병이 또한 이와 같으니 때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크게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천명에 붙일 뿐이다. 저녁에 함열에서 문안하는

² 정목(政目) : 관리의 임명이나 해임을 기록한 문서。

사자(使者)가 왔는데 백미 2두·조미(粗米) 2두·녹두 2되를 지고 왔다. 어두워서 막정이 돌아왔는데 약을 얻어 가지고 왔다. 녹두 2되도 역시 얻어 가지고 왔다. 27일.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으나 열은 감해진 듯하다. 두 번 약을 녹두죽에 섞어서 썼다. 또 아침 식사 전에 양덕군수 심질(沈姪)의 문안사(問安使)가 도착했다. 멀고 먼 천 리길에 두 사람을 함께 보내서 멀리 찾아왔다. 어머님께는 백주 단의 (白紬短衣) 하나·내주(內紬) 1필·생치 3마리·돼지고기 포 2첩·약과 한 행담을 보냈고, 나에게는 아청 행의(鴉靑行衣) 옛것·내주(內紬) 1필·생치·돼지고기 포 ·약과 등을 역시 보내 왔다. 마침 절망하던 나머지에 온 집안이 매우 기뻐한다. 꿩 한 마리는 즉시 구워서 나누어 먹었는데, 다만 집사람은 병에 괴로워서 한 점도 맛보지 못하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오후에 유 선전관(柳宣傳官) 형(珩)이 찾아왔다. 이는 곧 이 고을 태수(이구순)의 사위이다. 마침 여기에 왔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와 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소즐이 와 봄으로 저녁밥을 대접해보냈다.

28일. 집사람의 증세는 조금도 가감이 없이 통성(痛聲)이 끊어지지 않으니 몹시 민망하다. 다만 밤에 녹두죽에 약을 타서 세 번 마시더니 아침에는 땀 기운이 있는 듯해서 두꺼운 옷과 이불을 덮고 뜨거운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끼고 있어도 오히려 흡족하게 낫지 않으니 한스럽다. 또 이른 아침에 양덕에서 사람이 왔기로 답장을 써서 도로 보냈다. 다만 쌀과 콩 각각 두 되씩 주었다. 집에 있는 것이 떨어져서 넉넉히 주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아침 식사 후에 관청으로 태수를 가보고 가지와 오이ㆍ김치를 얻어 가지고 왔다. 우연히 갈림길에서 김 진사 종남을 만나 말 위에서 잠시 이야기했다. 그에게 들으니 자정(김지남)은 옥구 땅 종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 무적은 병으로 위태롭다니 놀랍고 걱정된다. 돌아갈 때 반드시 노모를 뵙고 갈 것이다. 종남은 곧 자정의 아우이다. 저녁에 함열에서 문안사가 왔기로 즉시 회답해서 보냈다. 들으니 딸이 내일 그 어머니 병을 와서 본다고 한다. 어두운 뒤에 이시열이 왔는데, 노비들이 혹은 죽었거나 혹은 도망해 옮겨 가서 수공 (收責)을 못 하고 그대로 돌아간단다. 함열에서 행량으로 쌀 2두ㆍ콩 1두를 주더란다. 그렇지 않았으면 반드시 굶어 죽는 근심을 만났을 것이라 하니 기쁘다. 어머님

은 이웃집으로 피하여 거처하시기로 했다.

29일, 시열은 아침에 그 집으로 돌아가기에 조석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또 집사 람의 증세는 가감이 없고, 밤중에 향소산(香蘇散)을 달여 먹였어도 별로 땀이 나지 않고 구토가 배나 심하며 더욱 곡기를 싫어하여 원기가 날로 점점 없어져 가니 지 극히 민망스럽다. 어머님을 계신 집으로 가서 뵙고, 언명을 보내서 중로에서 딸을 맞아 오게 했다. 들으니 오늘 떠났는데 친근이 보호하는 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이 다. 오후에 딸이 왔는데 먼저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갔다가 밝기를 기다려 병든 어머 니를 들어가 보게 했다. 그리고 즉시 데리고 온 여러 사람을 돌려보냈다. 집에 저 축한 것이 없어서 밥은 짓지 못하고 다만 술 두 병만 먹여 보냈으니 한탄한들 무엇 하리요. 어두운 뒤에 어머님께 가서 뵙고 딸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잠자리에 누운 지 오래지 않아 들으니 집사람이 인사를 차리지 못한다고 하므로 자빠지면서 들어가 보고 즉시 윤해의 주머니 속에 옛날에 구해 둔 청심환 반 알과 용소환(龍蘇 丸) 두 알을 죽력(竹瀝)에 개어서 서너 숟가락 떠 넣었더니 기운이 도로 조금 안정 되다. 이에 딸을 불러서 와서 보게 했더니 뒤적이다가 닭이 울어서야 깨나서 말하 는 것이 전과 같다. 계집종들은 양덕에서 온 물건을 내다놓고 뜰에서 기도를 드린 다. 비록 헛일인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중이어서 보고서도 금하지 않았으니 가위 슬픈 일이다. 윤겸은 오늘 마땅히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필시 말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병인을 혹 만나 보지 못할까 해서 고대하고 있으니 불쌍한 일 이다.

12월

1일. 아침에는 병인의 증세가 크게 감해져서 혹 눈을 뜨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말하기를, 밤에 만일 와서 구하지 않았으면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한다. 다만 원기가 몹시 없어졌고 음식을 전혀 폐하고 있어 아침에도 다만 미음을 두 차례 조금 넘겼을 뿐 더욱 곡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하늘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열은 그저께부터 덜한 것 같고 때로 입이 조해서 양치질을 할 뿐이다. 또 함열에서 문안사가 왔는데 딸의 양미(粮米) 2두·새우젓 조금 및 병인에게

줄 수박 1개·생전복 10개·모주(母酒)·죽력(竹歷) 등 물건을 지고 왔다. 병자는 즉시 생전복 세 개와 수박 두어 숟가락을 먹었는데 이것은 가장 먹고 싶어 하던 물건이다. 그러나 과식하면 도리어 해로울까 두려워서 중지시켰다. 다만 요새 병으로 인해서 출입한 일이 많아 용도가 몹시 번거로워서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 다만 함열에서 오기만 기다리는데 보내는 물건이 지극히 간략하니 민망스럽다. 그러나의례 보내는 물건이 있으니 금명간 반드시 올 것이다. 수박은 널리 있는 곳을 구해서 임피 땅에서 쌀 두 말과 바꿔서 보냈다 한다. 집사람은 오후부터 증세가 좀 나아서 저녁내 딸과 이야기하고 웃음의 말도 보통 때와 같으며, 때로 죽을 먹기도 한다. 딸은 어머님 계신 데로 가서 자고 새벽에 돌아왔다.

2일. 밤중에 집사람이 꿈에 눌린 것 같다가 오랜 후에 비로소 깨났으니 이는 반드 시 원기가 몹시 약하고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까닭이다. 아침이 되자 기분 이 자못 평상시와 같으나 다만 피곤해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 로 밥을 물에 말아 조금 먹고 꿩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아침 식사 후에 윤겸이 왔 는데, 도둑이 무서워서 온 집이 보령으로 가 있기 때문에 송노가 바로 결성으로 갔 다가 도로 보령으로 갔다는 것이다. 또 딴 곳에서 종과 말을 빌려 가지고 어제 새 벽에 떠나서 도천사에 이르러 자고 이제 비로소 달려온다고 한다. 저녁에 함열에 서 사람이 왔는데, 쌀 2두·조미(粗米) 3두·양색 젓갈 1항아리·조기 2묶음·감 장 1두 · 가장 2되 · 미역 4동 · 생숭어 1마리 · 생전복 5개 · 유자(柚子) 다섯 개를 가져왔다. 요새 집사람의 병으로 인해서 용도가 몹시 번거로워서 그저께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부득이 윤해의 공채조(公債租) 한 석을 꾸어서 썼는데, 마침 이럴 때 에 보내 주니 위로가 된다. 또 함열 종이 수공(收貢) 때문에 지난달에 영암에 갔다 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임매의 편지를 보니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임매가 어머님께 건수어(乾秀魚) 두 마리를 보냈고, 우리 집에 감태(甘苔) 열 톳을 보냈다. 김 한림(김지남)의 종 감희가 또한 호남의 노비들에게 수공할 일로 여기에 들러서 잤다. 한림이 어머님과 내게 편지를 했는데, 편지를 보니 슬픈 눈물이 옷소매를 적 시는 것을 이길 수 없다.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3일. 집사람의 증세는 밤에 피곤해하는 것이 배나 심하더니 아침에는 쾌히 나았

다. 때로 밥을 더운 물에 말아서 반 보시기씩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이 평상시와 같으니, 이로부터 아주 쾌차할 듯싶다. 몹시 기쁜 말을 어찌 다 하랴. 이른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냈다.

- 4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에 비해서 더 나았으나 다만 심기가 허약해서 피곤한 때가 많고 음식을 더 먹지 못하니 근심스럽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벼 1석·콩 2두·보리 5두를 보내면서 윤겸에게 편지하기를, 사세가 불편해서 이 뒤로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니, 한집의 생애가 말할 수 없다.
- 5일. 집사람의 증세는 더욱 나은 것 같으나 다만 나른하기는 전과 같다. 윤해가 환상곡 3석을 마련하여 오늘 바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갔더니 태수가 이미 사창에 앉았는데 공사가 몹시 번거롭고 또 손님이 많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길로 유 선전관 형(珩)을 가서 보고, 또 권 생원 학(鶴)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유(柳)는 태수의 사위요, 권(權)은 군내(郡內)에 와 있는 자인데 윤해 양모(養母)의 사촌동생이다. 집에 도착하니 허 생원 용(容)이 와서 윤겸 형제를 만나기로 나도 또한 나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냈다. 소즐의 부인이 와서 함열 딸을 만나 보고 양색 떡과 두붓국, 고사리나물을 바친다. 비록 성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집이 본래 군색해서 반드시 준비하기가 어려웠을 터이니 한편 미안하다. 집안 딸들과 집사람 앓는 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 6일. 집사람 증세는 대체로 비록 덜하나 온몸에 기운이 없고 피곤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막혀 호흡이 바쁘고 급해서 이 때문에 비록 음식을 대해도 더 들지 못하고 피곤해서 조는 때가 많으니 걱정이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쌀 2두·조미(粗米) 2두·양색 젓 각각 2되·작은 숭어 1마리·정어리 4두름을 지고 왔다. 곧 회답 편지를 써서 도로 보냈다. 또 환상곡 3석을 막정을 시켜 바쳤다. 이것은 윤해의 이름으로 바쳤다. 또 들으니 함열태수가 내일 집사람의 문병을 온다고 한다.
- **7일.** 집사람의 병세는 별로 가감이 없다. 아침에 함열태수가 달려 왔으므로 아우 및 세 아들과 한방에 모여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때 돌아갔다. 또 함열에 사는 양윤근(梁允斤)이란 자가 조기 한 묶음, 흰 새우 한 항아리, 병어 한 마리를 갖다

바친다. 무단히 와서 바치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소즐이 와서 보았으나 함열 태수가 왔을 때에는 미치지 못했다.

8일. 집사람 증세는 여전하다. 함열의 문후사(問候使)가 왔는데 모과 다린 것과 모주(母酒)를 가지고 왔으므로 즉시 회답을 써서 보냈다.

9일. 이른 아침에 황간에 사는 남수일 · 전계남이 한산으로 가는 길에 들렀다. 그 들에게 들으니 남경효(南景孝) 형이 지난 10월에 별세했다고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남 형(南兄)은 내 외사촌으로서 소년 시절에 같이 외조에게서 커서 정애 (情愛)가 가장 두터운 터인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통곡할 일이다. 경 제 형이 편지를 하고 배 30여 개를 보냈다. 수일은 곧 경효 형의 끝의 아들이다. 그들에게 아침밥을 대접해 보냈다. 아우 언명이 막정을 데리고 내 말을 타고 태인 으로 갔다. 지난달 21일에 여기에 와서 19일 동안을 머무르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 갔다. 떠돌고 곤궁한 나머지에 주림이 날로 박두하여 아우 하나도 또한 같이 살지 못하고 타향에 가서 호구(糊口)하게 하니 비통함을 어찌하리오. 다만 스스로 눈물 을 뿌리고 울 뿌이다 그러나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서 세후(歲後)에도 역시 와 봄 수 있지만, 다만 종과 말이 없으니 기필할 수가 없다. 집주인 최인복이 와 보고 돌 아갔다. 아우가 떠날 때 문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하다가 돌아 갔다. 어두운 뒤에 함열에서 인마가 왔다. 내일 새벽에 딸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들으니 소즐이 갇혔다 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서 계집종에게 주어 태수[이구순] 에게 보냈더니 문지기가 막아서 바치지 못하고 물러왔으니 한스럽다. 오후부터 눈 이 내려 종일 개지 않는다. 만일 녹이지 않으면 눈의 깊이가 거의 반자나 될 것이 다. 이러한 험한 날씨에 언명이 길을 떠났으니 생각건대 중로에 말이 피로해서 눈 에 막혀 가지 못해서 필경 어려운 걱정이 많을 터이니 깊이 걱정스럽다. 오늘 언명 이 돌아가 뒤로는 내가 어머님 계신 곳으로 가서 모시고 자련다. 아무도 옆에 모시 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윤해의 종 춘이가 진위로부터 왔는데 집안이 편안하다 하다

10일. 일찍 식사를 마치고 딸이 함열로 돌아가는데 윤겸이 데리고 갔다. 여기에 머무른 지 10여 일 동안 마침 그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도 하지

못해서, 떠날 때 모녀가 서로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인정이 가련하다. 매양보고 싶다가도 만나본 뒤에는 또 그 회포를 다 말하지 못하고 보내니 더욱 탄식할일이다. 저녁에 소즐이 와 보았는데, 어제 같혔다가 오늘 간신히 장형(杖刑)을 면하고 석방되었다 한다.

11일. 집사람 증세는 어제에 비해서 기분이 자못 화평하지 못하고 피곤하기는 옛날과 같다고 한다. 필경 밤바람을 쏘인 때문이리라. 이달 초승부터 대세는 비록 감하고 음식을 좀 더 들지만, 원기가 허약해서 말하기를 싫어하고 앉으면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뜨지 않는다. 어제는 기운이 자못 소생해서 눈을 뜨고 이야기도 해서 평시와 다를 것이 없더니 오늘은 도리어 이와 같으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병을 얻은 지 이제 20여 일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쾌차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중미 2두·조기 2묶음·저린 게 10개를 지고 왔다.

12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에 비하면 조금 덜해서 일어나 앉아 눈을 뜨고 평상시처럼 이야기도 한다. 아침 식사 후에 권 생원(權生員) 학(鶴)이 와 보았다. 권은 윤해 양모의 사촌 동생으로서 이 고을에 임시로 와 있는 자이다. 저녁에 윤겸이 함열로부터 돌아왔다. 또 어두운 뒤에 계집종 열금이 태인으로부터 올 때 부증을 얻었는데, 집에 온 뒤에 병세가 몹시 더해서 온몸이 다 부었다. 그런 몸으로 토옥(土屋)에 들어가 거처하면서도 오직 음식만은 평시에 비교해서 가감이 없고 매양 술과고기를 요구하다가 조금만 여의치 못하면 문득 분한 말을 한다니 말할 수 없다. 조석 미음도 오히려 계속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감히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죽어 가는 늙은 종에게 줄 수 있는가. 병이 비록 위중하나 만일 속히 죽지 않으면 우리 집에 해를 끼치는 것이 많겠다. 한편 밉살스럽다. 어두운 뒤에 윤겸의 종 금손(今孫)이 결성으로부터 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윤겸은 내일 돌아갈 것이다. 송인수(송영구)가 쌀 한 말을 보냈다.

13일. 집사람의 증세는 어제와 같고 별로 달리 아픈 곳은 없다. 윤겸이 식사 후에 떠나서 도천사에서 잘 것이다. 행량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이른 아침에 종을 보내서 조 한림(조희보)에게 구했더니 조(趙)는 즉시 쌀 1두 5승을 보냈다. 비단 행량이

준비되지 못했을 뿐이 아니라 이곳에도 양식이 또한 떨어져서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조(趙)가 준 것이 마침 와서 행랑에 쓴 나머지를 수일 동안의 식사는 하겠으니 위로가 된다. 요새 계속 큰 눈이 내려서 오래 나무를 베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석으로 위아래 집이 밥 짓는데도 몹시 어렵고 밥이 또한 차서 노모와 병든 아내가 편안히 자지 못하는데 하물며 굶주릴 걱정이 날로 심해 가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함열 태수는 보름 후에 근친(艱親)하러 서울에 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과세(過歲)할 방책이 없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또 송노가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석성ㆍ이산 두 고을에 가서 양식을 구했다 한다. 단아는 지금까지 학질이 떨어지지 않아 이틀 걸러 앓고 음식도 또한 감했으니 걱정스럽다.

14일.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다. 다만 근일에는 양식과 반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노모와 병처(病妻)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이른 아침에어머님 계신 집주인이 떡과 밥·반찬·술 한 사발을 갖다 바치므로 즉시 함께 먹었다. 오늘이 곧 그 죽은 아버지 제사라고 한다. 저녁에 막정이 태인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아우는 무사히 돌아갔고, 다만 중도에 눈을 만나서 옷이 모두 젖었다고 하니 한스럽다. 식량으로 콩을 함열에서 넉넉히 주었다고 하니 이는 기쁜 일이다. 막정이 올 때 함열에 들러서 잤는데, 함열에서 쌀 2두·정어리 3두름을 보내서 가지고 왔다. 양식이 떨어져 바야흐로 민망할 즈음에 이 쌀을 얻으니 수일 동안의 목숨은 연장하겠으나 수일 후에는 어떻게 이을 것인가.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어두운 뒤에 송노가 석성에서 돌아왔는데, 석성 태수가 중미 3두·조기 저린 것 5마리를 보냈으니 이것으로 근일은 계속할 수 있다. 기쁜 일이다.

15일.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고 별로 차도가 없다. 피곤해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걱정스럽다. 지난밤에 늙은 계집종 열금이 죽었다. 병세가 몹시 중해서 형세가 구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래 찬 곳에서 거처했고 음식도 또한 배불리 먹지 못했고, 비록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구할 길이 없어서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었으니 불쌍하다. 성질이 본래 혐악해서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문득 노해서 욕하고, 심지어 상전 앞에서도 또한 불공한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했으니 비록 죽었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다만 젊었을 때 잡혀 와서 심부름을 하면

서 나이 70이 지나도록 한 번도 도망해 달아나지 않았고, 또 길쌈을 잘하고 집안일에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조금도 속이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족히 취할 바이다. 그런데 타향으로 떠돌다가 죽는 데도 제자리를 얻지 못했으니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저녁에 태수가 사람을 보내서 문안했다.

16일, 두 종과 이웃집에 있는 피란민 한복을 시켜서 열금의 시체를 져다가 여기에 서 5리 떨어진 한산으로 가는 길가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불쌍하다. 작년 가을에 끝의 계집종 동을비가 소즐의 집에서 죽었고, 이제는 열금이 또 여기에서 죽어서 모두 이곳에 묻었으니. 평일 서울에 있을 때 어찌 죽어서 임천에 묻힐 줄 알았으 랴. 사람 일이 탄식스럽다. 집사람의 증세는 여전하고 일찍 쾌차하지 못하고 또 입 에 맞는 음식이 없어서 식사를 더하지 못하니 민망하다. 단아는 오늘도 또한 앓으 니 가련하다. 어두운 뒤에 춘이가 함열에서 왔는데 윤해에게 양식을 보내지 않고 편지하기를, 오는 9일에 서울에 가려는데 마침 말 한 필이 빈 채로 가게 되었으니 그 말을 타고 같이 가자면서 양식과 반찬은 거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갈 것이니 각 각 준비할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전일에 구해서 얻은 정조(正朝)에 쓸 제물과 포해 를 춘이가 올 때 가지고 왔고, 조기 1묶음 · 뱅어젓 2되 · 중미(中米) 1두를 주어 보 냈다. 이것은 윤해가 갈 적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친히 광주 묘소에 가서 반갱(飯 羹)을 지어 제사 지내게 할 것이다. 난리가 난 지 3년에 한 번도 친히 제사를 드리 지 못해서 매양 감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비단 종과 말이 갖추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기도 지극히 어려워서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형세 인데 어찌하랴. 윤겸의 종 황목(黃木)이 마침 함열에서 왔기에 필목 반 필을 또한 윤해에게 주어서 고기와 바꾸어 반찬을 만들게 했다. 다만 초라하니 한스럽다. 모 레 함열태수가 서울 갈 때 들러서 여기에서 자고 간다고 한다.

17일. 집사람은 점점 소복되어 갔다. 다만 요새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조석으로 겨우 미음만 마시니 어찌 평상시처럼 될 수 있으랴. 민망스럽다. 저녁에 태인에 피란 와 있는 사인(士人) 한용(韓鏞)이 들러서 자는데 마침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대접하지 못하니 한스럽다. 어머님께서 지난봄에 아우의 집에 머물고 계실때 그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또한 어머님께 갔을 때 알게 되었다. 그편에 들

으니 언명은 지난 15일에 권 좌수 서(恕)와 함께 금성으로 갔다가 그 길로 영암 누님의 집으로 간다고 한다.

18일.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말먹이 콩을 구해 오게 했다. 집사람의 증세는 전과 같다. 저녁에 조 좌수 윤공(允恭)이 와 보고 갔다.

19일. 밤 꿈에 홍응추 영공(洪應推令公)을 만났는데 완연히 평일과 같았는데 깨고 나니 몹시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오후에 권학성(權鶴成) 민복(敏福)이 와 보고 돌아갔다. 오충일도 역시 와서 잤다.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백미 2두·중미 2두·뱅어젓 3되·콩 3두·정어리 4두름을 보냈다. 어두운 뒤에 함열 태수가 근친하러 서울에 가느라고 여기에 들러서 잤다.

20일. 함열태수가 김백온(金伯經)이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머물렀다가 내일 윤해와함께 갈 것이다. 윤해는 말이 없으므로 함열태수의 말을 빌려 타고 진위집으로 갈 것이며, 백온은 또한 함께 서울로 갈 것이다. 이복령을 불러서 길흉을 점치게 하고보냈다. 함열태수가 갔다 오는데 어떠한가를 알고자 해서이다. 저녁에 소즐이 와서 함열 태수에게 뵙고 돌아갔다. 어두운 뒤에 함열태수를 침방으로 맞아다가 온집 식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했다. 함열태수의 행차에 가지고 온감당 1되・약과 5개・돼지고기 3그릇・술 1병을 주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함열 태수가 사람을 시켜 조총(鳥銃) 두 방을 쏘아 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래니 우습다.

21일. 이른 식사 후에 함열 태수가 떠나는데 윤해도 또한 함께 갔다. 윤해에게 정조(正朝)에 광주 선조 산소에 가뵙도록 일렀다. 다만 윤해는 부득이한 일로 서울에 가는데 집에 어른이라곤 없으니 만일 병이나 군색한 일이 있으면 의뢰할 곳이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송노도 말미를 얻어 역시 모시고 갔다. 오는 전월 10일 전에 돌아오도록 일러 보냈다. 전에 두 번이나 말미를 얻어 갔을 때 모두 기한이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미워해서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 했으나그 아비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자식 된 심정은 상하가 모두 같은 법이라 생각되어 가도록하고 속히 돌아오라고만 일렀다. 계집중 어둔이도 또한 올라갔다. 그 아들 한노가

지난달에 그 아비를 찾겠다고 진위 · 안성 등지로 간 뒤에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기때문에 역시 찾아 나서는데, 그 길로 광주 옛 집터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 소즐이 또한 와서 함열태수를 보고 갔다. 계집종 어둔이는 지난해 동짓달에 찾아왔는데이제 비로소 돌아간다. 성질이 본래 부끄럼을 몰라서 집안 물건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문득 훔쳐 가고, 심지어 이웃 마을 속에까지 손이 거친 짓을 하여 비록 잡히는 일이 있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 또 저희들끼리도 매양 서로 다투다가 비록 여러 번 엄한 꾸지람을 당해도 조금도 고치지 않은 성질인데 어찌하리오. 항상 경계하고 본래 오래 두고 부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멀리 갔다가 찾아와서 정의가 가긍하기로 참고 두어두었던 것이다.

22일. 어제부터 추운 기운이 갑절이나 매섭고 또 겸해서 바람까지 요란한데, 윤해가 가는 길에 옷도 얇고 이불도 없으니 반드시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연연한 마음이 조금도 늦추어지지 않고 한갓 스스로 한탄할 뿐이다. 또 어제저녁부터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져서 두어 되 되는 쌀로 상하가 죽을 쑤어 나누어 먹었다. 함열 태수가 또 과세할 물건을 주지 않고 이제 이미 서울로 갔고 설은 이미 박두하니 미음과 죽도 반드시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비단 우리 한 집뿐이 아니니 노인을 모시고 있는 터에 또한 어찌할 수가 없으니 민망함을 다 말할 수 없다. 집사람은 큰 병을 앓고 난 나머지 죽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여 오히려 주린 빛이 있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23일. 아침에 들으니 태수(이구순)가 파면되었다고 하는데 종과 말이 없어서 즉시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소즐이 왔으므로 소(蘇)의 말을 타고 바로 아방(衙房)으로 갔더니 이 부장 및 품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태수에게 청해서 윤해가 먹은 환상곡 한 석과 집주인이 바치는 곡초(穀草) 18결(結)을 감해 받고 또 누룩 한 장을 얻었다. 돌아오려 할 때 한산태수(신경행)가 파직당한 일로 달려왔기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술 석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내가 연전 7월에 여기에 와 있은 뒤로 그 사이가 겨우 일 년인데 계속해서 네 사람이 바뀌었으니 관고가탕진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겠다. 태수는 서로 아는 터이므로 평일에 후의로 대우해 주었는데 이제 파면되어 가니 서운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조보(朝

報)를 보니 심열(沈說)이 나갔다고 하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내년 봄 2월 29일에 등준시(登俊試)를 베풀어 통정(通政) 이하의 인재를 뽑고, 중국 사신도 역시 내년 봄에 나온다고 하니, 또한 무슨 일로 오는지 알 수가 없다. 좌상(左相) 유흥(俞泓)이 바야흐로 대론(臺論)을 입어 아직 윤허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 이는 탐오(貪汚)한 일 때문이다.

24일, 지난밤 꿈이 몹시 흉하니 이는 무슨 조짐인가. 요새 추위가 몹시 심한데 윤 해가 가느라고 어떻게 견디는지 연연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가는 길을 따져 보 니 내일은 마땅히 집에 당도할 것이다. 어제 아침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백미 1두·조미 1두를 지고 왔고 딸이 만든 절병(切餅) 한 행담을 보내왔다. 이는 곧 22 일이 딸의 생일이어서 준비해 보낸 것이다. 즉시 간장 물에 삶아서 먹었다. 마침 소즐이 들어와서 역시 함께 먹었다. 또 들으니 태수[이구순]가 모레쯤 떠나서 그 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므로 저녁 식사 후에 들어가 보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작별 했다. 종과 말이 내일 마땅히 함열로 갈 것이므로 다시 만나서 작별할 수 없겠기에 가보고 돌아온 것이다. 다만 그 태수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으로 보아 신색(神色)이 멍하니 마치 넋을 잃은 사람 같으니 반드시 오라지 못할 것 같았다. 지난해에 임맹 길(任孟吉)(임극(任克))이 이 고을에 와서 다스릴 때 그 일하는 것이 역시 이와 같 기에 몹시 의심했더니 온 지 겨우 다섯 달 만에 파면되어 가더니 역시 오라지 않 아서 별세했었다. 이번 이 태수[이구순]는 지난 7월에 부임하여 겨우 여섯 달 만에 순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파면되었으니 모든 일이 정히 이와 같은 것이다. 깊이 걱 정스럽다. 그러나 세력이 없는 음관(蔭官) 이 길가의 원 노릇을 하는데, 사람됨이 경박하고 천해서 비단 왕래하는 공사(公事)의 일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떠도는 사 대부들까지도 침해가 몹시 많아서 응접에 시달리다가 관청의 저축이 다 없어져도 어찌할 계책도 없었던 것이다. 거느린 가족은 역시 많고 관청에는 한 항아리의 간 장이나 한 되의 쌀이나 콩도 없어 날마다 방아를 찧어도 오히려 계속할 수가 없어 서 꾸어다가 쓰는 형편이었다. 심지어 관청에서 하루에 소용되는 것이 5두라고 하 니 그리 오래 보존하지 못할 것을 또한 알 만하다. 이 고을 여러 번 마땅치 못한 사

³ 음관(蔭官):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조상의 덕으로 얻어서 하는 벼슬.

람을 겪어서 장차 버리는 고을이 되겠으니, 뒤에 오는 자가 만일 대간(臺諫)이나 시종(侍從)의 신하로서 몸 갖기를 검약(儉約)하게 하고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 으며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비용을 아껴서 그 책임에 오래 있지 않는다면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25일. 밤에 큰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아 거의 반자나 쌓였다. 눈을 무릅쓰고 종과 말을 함열에 보냈다. 들으니 함열태수가 서울에 갈 때 과세할 물건을 주도록 했다기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다. 다만 나루가 반쯤 얼어서 건너지 못할까 걱정이다. 내일도 만일 돌아오지 못하면 상하가 반드시 굶게 될 것이다. 걱정이다. 어두운 뒤에 계집종 향춘(香春)이 함열에서 왔는데, 정조(正朝)에 그 아비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말미를 얻어 가지고 왔다.

26일. 요새 날씨가 몹시 추운데 비단 양식과 반찬이 모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땔나무도 베어 오지 못해서 조석 밥을 짓는 외에는 더운 방을 얻을 수가 없어 아이들이 편안히 자지 못하니 민망스럽다. 저녁에 막정이 함열에서 왔는데 백미 3 두·조미(粗米) 3두 및 따로 백미 2두·조미 2두, 합해서 10두와 찹쌀 1두·누룩 2 장·기름 1되·검정콩 5되를 실어 왔다. 따로 준 물건은 함열태수가 서울에 가면서 과세할 비용으로 준 것이다. 딸이 보낸 반찬은 조기 2묶음・뱅어젓 1항아리이다. 어둘 무렵에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리더니 밤이 되자 눈이 내리다가 이튿날 아침에는 크게 내려 산천이 모두 하얗다.

27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숙석에게 간수해 두었던 나무 40다발을 실어 왔다. 눈이 날리고 바람이 어지러우며 날씨가 몹시 찬데 이 나무를 얻었으니 수일 동안은 때겠다. 내일 새벽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오늘은 입춘이다. 저녁에 전주 송 지평(영평(英平))이 전인해서 안부를 묻고 겸해서 찹쌀 1두 · 검정콩 5되 · 생치 1마리를 보냈다. 의외의 일이라서 깊이 후의에 감사한다. 이튿날 아침에 답장을 해서 보냈다.

28일. 지난밤에 큰 눈이 반자나 내렸다. 아침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옛집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8일에 병자를 피해 나가셨다가 오늘 돌아오시는 것이다.

29일. 큰 눈이 내린 후로 일기가 몹시 차다. 나무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과세할 수

가 없다. 더구나 방이 차서 잘 수가 없어서 어머님도 또한 편안히 자지 못하시니 몹시 민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겨우 쌀 한 말로 떡을 해서 아버님께 잔을 올리겠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리. 전일에 필목 반 필로 쇠고기 두어 덩어리 바꿔온 것과 송인수가 보낸 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작정이다. 또 쌀 5되로 술을 빚어 역시 다례에 쓸 작정이다. 딴 것은 제수가 없으니 한스럽다. 이러한 지독한 추위에 윤해는 어떻게 서울에 가며 산소에는 어찌 가뵐지 걱정이다. 윤겸은 간 후에 또한 소식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저녁에 큰 눈이 또 내리다가 밤에 가서야 비로소 갰다.

그믐날. 아침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가 순찰사 군관 김순종(金順宗)을 보고 이웃에 사는 전상좌(田上佐) 차지(次知)의 석방을 청했다. 마침 두 향소에서 술과 과일을 가지고 군관에게 와서 뵈므로 나도 또한 참석해서 넉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김 순종은 곧 관동 밑, 사섬시(司贍寺) 어구에 살았는데 전일 비록 서로 알지 못했으나 한 동리에 살았단 말을 들으니 옛날부터 서로 알던 것 같으므로 상좌의 간청 때문에 온 것이다. 아직 새 태수가 누가 임명되었는지 듣지 못하겠다. 또 김순종에게 들으니 청양군수 박여룡이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서 갈리어 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청양군수로부터 해서 윤함의 소식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불의에 갈리어 갔으니 다시 얻어들을 길이 없다. 서운함을 이길 수 없다. 저녁에 전상좌(田上佐) 및 복남(福男) 두 집에서 술과 떡・안주와 과일을 갖추어 보내서 즉시 처자들과 같이 먹었다.

잡문(雜文)

격령남문(檄嶺南文)

생원(生員) 김존경(金存敬)

아아! 하늘은 재앙을 뉘우칠 때가 있고 나라는 항상 막히는 운수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을 바르게 하면 비록 위태로워도 반드시 붙들 수가 있고, 순한 것을 범하면 처음에는 강해도 마침내는 멸망하는 것이니, 이는 이치가 그러한 것이요 형세

가 그러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비상(淝上)의 편사(偏師)를 가지고도 부견(符堅)4 의 무리를 꺾을 수 있었고, 독부(督府)의 수군(水軍)으로도 능히 역량(逆亮)의 기세 를 꺾었으니, 이는 모두 글에 실려 있어 때의 고금(古今)이 없는 터이다. 이제 저 섬 오랑캐가 이역(異域)에 군사를 몰고 와서 두 번이나 해를 넘기면서 흉한 불꽃이 더욱 번지고 화가 들판의 불처럼 퍼져서, 당당한 국세를 가지고서도 위태로움이 알을 포개 놓은 것처럼 박두하고. 숨이 끊어져 가는 민생은 욕되는 것이 오랑캐가 되는 데까지 핍박했으니, 사람의 노여움이 이미 지루하고 귀신의 베임이 장차 가 해지려 한다. 덕령(德齡)은 일개 미치고 어리석은 자로서 궁벽한 고을에서 성장하 여. 뜻을 장구(章句)에 두었고 공부가 활 쏘고 말 타는 일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잘 못 헛이름이 나서 원수(元帥)의 막하(幕下)에서 일을 보았었다. 어머니는 이미 죽 을 나이가 되었는데 형은 또 전사해서 장차 보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마 전쟁 에 따라나서지 못하고 잠깐 행오(行伍)를 따르다가 이내 사퇴하고 돌아왔었다. 그 러나 위로 나라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여 밤중이면 몇 번이나 칼을 어루만지고 아래 로는 형의 원수를 분하게 여겨 매양 밥 먹다가도 눈물을 떨어뜨렸다. 사사로운 재 앙을 뉘우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어 초상을 겨우 마쳤으니 몸이 죽 을 것을 허락하여 군대에서 마치는 청함을 본받으려 하여 아직 중엄(仲淹)의 글을 올리지 못했다. 마침 담양부사가 본도(本道) 순찰사에게 잘못 천거하여 나의 정례 (情禮)를 빼앗고 나로 하여금 백 번 싸운 남은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무딘 칼로 한 번 베기를 바라는데. 돌이켜 생각건대 몸에 닭을 잡을 힘도 없고 용맹은 남을 뛰어 넘어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은 적고 책임은 중하니 근심이 극도에 이르러 기둥이 꺾 였으니 또 무슨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으랴. 이러한 초야의 천한 몸에 갑자기 책임 을 맡겨, 조금도 공이 없는 터에 명령이 먼저 모였다. 아아! 군부께서 이미 어려운 것을 구제하라고 맡기셨으니 신자가 감히 몸이 죽는 것을 사양하겠는가. 나는 들 으니 의리를 배반하고 살기를 탐내면 맹사(猛士)도 겁을 내고. 충성을 내어 자기 몸을 잊으면 게으른 지아비도 씩씩한 것이 된다. 윗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해

⁴ 부건(符堅) : 부진(符秦)의 군주(君主). 처음에는 왕맹(王猛)을 등용하여 세력을 펼쳤으나 진(晋)에게 멸망되었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서 죽는 의리는 족히 용맹한 것이 되고, 죄를 치고 역적을 토벌하는 바른 것은 족 히 기(氣)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구구하게 혈기의 용맹만이 적을 제어 할 수 있겠는가, 이에 계책을 써서 노둔한 자를 격려하여 앞으로 달려 나가기를 허 락하고, 격문을 멀고 가까운 데에 보내어 강하고 정예한 군사를 불러 모으니, 용 처럼 올라가고 범처럼 달리는 무리와 장수를 베이고 깃대를 든 무리들이 모두 양 식을 가지고 따르기를 워하여 물과 불에 뛰어드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다. 팔뚝을 걷어 올리고 아픔을 참고서 전일에 세 번 패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손에 침을 뱉 고 기운을 더하여 앞으로 아홉 번 정벌할 것을 계획한다. 오직 저들의 쇠잔한 자에 게 기우음 빌려 거의 날짜를 잡아 뒤엎고자 이에 금월 모일로 길일을 잡아 정기가 동쪽을 가리키니 중황(中黃)5은 좌우에 있고, 오획(烏獲)6은 뒤와 앞에 있다. 철기 는 바람처럼 달리고 긴 창은 번개처럼 빠르다. 군사는 정예하고 병기는 날카로우 며 말은 곧고 기운은 씩씩하니 이것으로 적을 제어하면 누가 감히 나를 당하리오. 병법에 말하기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고 했다. 적의 무리 는 천 리 길을 달려 와서 밖에 있은 지 두어 해가 되었으니 춥고 더운 것이 몸에 맞 지 않아 수토(水土)의 병이 나서 예기가 이미 평양에서 떨어졌고 간담은 또 임금이 계신 곳에서 찢어져서. 옛날에 정병이라 일컫던 것이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 또 그 밑에 포로가 되어 옮겨지는 무리도 많으니 어찌 부모처자의 생각이 없겠는가. 원 망이 이미 극도에 달하고 수심과 탄식이 바야흐로 깊었으니 하상(河上)의 변이 불 일 사이에 생길 것이요 솥 속의 물고기가 어찌 때를 넘길 수 있으랴. 사라지고 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이니 멸해 없애는 것을 늦출 수가 없다. 아아! 적이 온 후 에 참혹한 화는 호남(湖南)이 홀로 면했고 일곱 길이 모두 같으나 그중에 영남(嶺 南)이 해를 입은 딴 도(道)보다 심한 것이 있다. 문무의 사부와 노약 남녀가 죄 없 이 횡액을 당한 것이 어찌 그 끝이 있으랴. 아비가 죽어 자식이 외롭게 되고 남편 이 죽어 아내가 과부가 되며. 그 집을 불태우고 그 고향을 버리고서 흰 갈대와 누 른 떼가 탄 재가 눈에 가득하다. 낙동강 동쪽과 진양 남쪽에 다시 연화(烟火)가 없

5 중황(中黃): 황제(黃帝) 때 사람 중황장인(中黃丈人).6 오획(烏獲): 진(秦)나라 무왕(武王) 때의 장사(壯土).

어 얼어 죽은 것이 이미 극도에 달했고 사람도 또한 서로 먹어서,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서로 베고 누웠고, 원통해서 우는 소리가 위로 하늘에 사무쳐서, 천백의 원망하는 소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파리한 아이와야윈 계집을 어떻게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씩씩한 남자와 건장한 아이가 어찌 칼을 거두고 편안히 앉아 있으랴. 이는 정히 충성과 의리로 머리를 버릴 때요, 호걸스럽고 준결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씻을 기회이다. 각각 공사(公私)의 원수를 생각하여 함께 고래와 도룡의 베임을 바르게 하라. 하물며 중국 장수가 그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서 늙은 적이 비밀히 나올 것이 때가 없으니, 혹 이러한 기회에 빨리 쓸어 없애지 않으면 전일의 화가 다시 아침저녁에 있을 것이니, 비록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때를 잃을 수 없고, 전쟁도 다시 일으킬 수 없으니 사서인(士庶人)들은 힘쓸지어다.

도내 열읍 통문(道内列邑通文)

김존경(金存敬)

만력 21년 10월 29일에 광주의 상인(喪人) 김덕령(金德齡)은 공손히 여러 고을의모든 군자들에게 고합니다. 요새 보건대 흉한 적이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서 사나운 벌이 영남(嶺南)에 주둔하여 돼지처럼 변방 보루로 치닫고 비밀히 틈을 영보아날로 방자히 으르렁거리니, 관군은 문득 패하고 의병도 역시 움츠리네. 군사를 막고 둘러보니 적을 섬멸할 뜻이 없어 위엄을 잃고 적을 여물게 하는 것이 이때보다심한 때가 없습니다. 시위하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아 안에 그 사람이 없고, 충성과의리로 자기 몸을 잊는 자가 밖으로 다시 몇이나 될까. 가만히 오늘의 일을 보건대진실로 슬프기만 합니다. 덕령은 일찍 남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뜻이 맑은 것을 숭상하여, 변이 생기던 처음에 몸을 행오에 붙여 감히 칼날을 맞으려 한 것이 계획이 깊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모가 병이 있어 돌아가실 날이 박두했으므로 말년에 봉양할 인정이 지극하여 차마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지 못하여 두해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칼을 어루만지고 동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지금은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시어 자식을 믿을 바가 없게 되었으니 나라 일이

많은데 신하로서 마땅히 절개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 담양부사 이후 경린(李候景麟)을 만났는데 그는 종실의 먼 자손으로 서 항상 적개의 뜻을 품고 있다가 나의 헛된 이름을 묻고, 전구(戰具)를 마련해 주 면서 국난에 나가도록 권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 번이나 사양하고 피 했지만 끝내 부득이해서 상복(喪服)을 벗고 갑주(甲胄)를 입으니 방략(方略)은 비 록 표요(嫖姚)7가 부끄러우나 의기는 일찍이 사아(士雅)를 사모하던 터여서, 손에 긴 칼을 쥐고 몸에는 겹겹으로 갑옷을 입고서 위엄을 기르고 예기를 모아서 바로 범의 굴을 찾아, 조금은 생령의 분함을 위로하고 칠묘(七廟)⁸의 부끄러움을 쾌하게 씻으려 하노니, 원컨대 멀리 서로 통하여 마음을 합쳐서 함께 위태로움을 붙드는 지극한 계획을 정하도록 하십시다. 이에 여기에 널리 고하여 나의 간곡한 심정을 밝히는 바이오니 여러 고을의 선비들은 혹 나를 따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아! 2 백 년 동안 휴양해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선비가 어찌 강개히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겠습니까. 몸을 없애어 어려운 것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옷깃을 떨치고 단에 오르는 일을 어찌 늦춤 수 있겠습니까. 덕령은 힘이 솥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용맹이 만 명의 적을 대적하지 못하오나 돌이켜 생각하건대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에 촌사람의 지혜가 졸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친분이 있는 선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충성된 마음을 가다듬어 공업을 이루도록 기회를 타고 변에 응한다면 비록 능히 승리를 결단하고 적을 제어하지는 못하더라 도 칼날을 헤치면서 맹세코 사졸을 위하여 먼저 오르려 합니다. 방금 나라 안의 칠 로(七路)는 군사들에게 침범당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오직 우리 호남만이 홀로 도 륙을 면하고 있으니, 한 맥을 회복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새 군사를 조련하고 양식을 운반하노라 물력이 마르고 민생이 괴롭고 피로하여 난리를 겪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러한 때 적이 오면 누가 다시 막겠습니까. 부모와 처자는 사 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고 뽕나무와 송백은 집집마다 기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 루아침에 죽이고 불태우는 것을 그 누가 하고자 하겠습니까. 진실로 사람들이 노

7 표요(嫖姚): 한(漢)나라 무관(武官)의 이름.

8 칠묘(七廟):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 마음을 품어서 사사로운 원수를 갚듯이 한다면 이 적들을 섬멸하지 못할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눈앞의 편안한 것을 보존하여 용감히 죽을 땅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 부모를 적에게 내주고 자기 스스로 송백을 베이는 것이될 터이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고을의 선비들은 혹시라도 그 마음을 물러서게 하지 마시고 갑절이나 분려하는 기운을 더하여 서리 같은 창과 철기를 번개같이 굴리고 바람처럼 몰아간다면 저들 기운을 빌리고 넋이 빠진 무리들은 반드시 흙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져서, 칼은 피를 기다리지 않고 발꿈치는 죽음을 기다려서, 비수(淝水)⁹의 공을 스스로 오늘에 세우고, 전연(澶淵)¹⁰의 승첩을 마땅히 불시에 이루게 될 것이니 어찌 몹시 다행한 일이 아니랴. 아아! 중국 군사는 아직도 적의 엄습에 욕을 당하고 나라 안이 오랫동안 비린내에 더럽혀서 칼에 엎드러지고 수레바퀴를 울려서 용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지경이나가 머리를 베이는 옹문(雍門)¹¹이 누가 다시 있겠습니까. 거사하는 조례는 아래와 같으니 이 글이 도착하거든 자세히 생각하여 힘쓰도록 하시옵소서.

송승의병팔도도대장서(送僧義兵八道都大將書)

金存敬(김존경)

세상에서 이르는바 중을 성인(聖人)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륜(彝倫)을 버리고 인의(仁義)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륜의 큰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군신과 부자요, 인의의 도도 두 가지가 있으니 능히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어려운 일에 나가는 것이다. 성인의 도를 배우고서도 이륜과 인의를 다하지 못하면 이는 선비의 이름을 가지고 묵적(墨翟)의 행동을 하는 것이요, 중의 무리라고해도 능히 이륜과 인의로 다한다면 이는 묵적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선비의 행동을하는 자이다. 선비의 이름을 가지고 묵적의 행동을하면 이는 비단 성인의 죄인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의 죄인이며, 그 이름은 묵적의 것을 가지고서도 그 행동

- 9 비수(淝水): 회수(淮水)의 지류(支流)로서 부견(符堅)이 진나라와 싸워서 대패한 곳.
- 10 전연(澶淵): 글안(契丹)과 송(宋)나라가 싸운 곳.
- 11 옹문(雍門): 옹문주(雍門周)가 거문고로 맹상군(孟嘗君)을 감탄시킨 일이 있음.

이 선비인 자는 비단 성인이 죄주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문이나 담 밖으로 내쫓 지 않는 것이요. 비단 내쫓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데려다가 가르치고 즐겨 함께 무리가 되는 것이다. 아아! 중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선비의 행동을 하는 자를 나 는 오늘 대장(大將)한 사람을 얻을 뿐이다. 방금 바다의 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여 러 고을이 모두 무너져서 거듭된 산과 겹으로 된 관문(關門)은 기왓장처럼 흩어지 고 흙처럼 무너졌으며 건장한 장수와 정예한 군사는 새처럼 달아나고 쥐처럼 숨어 서 마침내 세 서울이 함락되어 임금의 수레가 멀리 파천하여 당당한 나라의 맥이 거의 끝나게 되었는데, 삼백 고을 안에 임금의 밥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으면서 스 스로 평일에 이륜과 인의를 다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누구 한 사람 임금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몸을 던져 의리에 죽는 자가 없는데, 오직 대장(大將)만은 깊은 숲 속에서 옷깃을 뿌리치고 나와서 도총섭대선사(都摠攝大禪帥)와 함께 의리를 외치 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절을 하직하고 적을 치는 싸움에 나섰으니 이 어찌 조정 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며 또 어찌 터럭만큼이나 할 일이 그런 것이었는가. 이는 실 상 대장이 도(道)를 보는 것이 이미 높아서 의리가 임금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소문이 미치는 곳에 감동하지 않은 자가 없어 이 까닭에 군용이 한결같이 떨쳐 지고, 사방의 의승들이 구름 모이듯 하고 그림자가 따르듯 하여, 관동에서 군사 를 일으켜 가지고 서쪽으로 평양에까지 뻗쳐서, 혹은 요해처에 매복하여 적의 충 돌을 막고 혹은 첩자를 보내서 적을 정탐하여 그 흉한 계획을 모두 살펴서 적이 국 경을 넘어서 군사를 거두어 해를 마치지 못하게 했다. 또 외로운 군사로써 적병 수 천 명을 수락산에서 막다가 적의 뒤를 쫓아 공을 세우고 크게 이기고서 심지어 적 이 세 도읍에서 물러간 날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군사를 풀지 않았다. 군사를 권면 하여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영외(嶺外)에 가서 싸웠으니 대장의 충성이 어찌 한결 같이 이렇게 굳은 것인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어진 마음과 어려운 일에 나가 는 의로움이 이보다 누가 더 크겠는가. 이류을 소중히 여기고 인의를 행하는 것은 오직이 대장뿐이로다. 성인의 도를 배운 자도 오히려 혹 그렇지 못한 자도 있는데, 대장은 중의 무리로서 입정(入定)할 사업이 오직 적멸(寂滅)에 있을 뿐이어서 국가 에서 터럭만한 조그만 은혜도 없는 터에 어려운 데에 나가서 적과 싸운 것이 고기

를 먹는 사람보다도 더 장했으니 대장은 비단 성인에게 배척을 받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또한 성인이 반드시 같이할 무리인 것이다. 덕령은 남쪽 고을의 한 오활한 선비로서 이름과 들리는 것이 여러 번 한결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익히 얻어 들어 서 일찍이 한 몸을 원문(轅門)에 가까이하여 묘한 계획을 보려고 한 지 오래이더 니, 이제 장성태수 이 공 귀(李公貴)에게서 더욱 전일에 듣지 못하던 것을 들었는 바 대장께서는 일찍이 이 군(君)과 죽고 사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함께 나라의 어 려운 것을 견디기로 했다고 하기에 덕령도 또한 함께 약속하고 시종(始終) 일을 같 이 하려 하니 생각건대 또한 비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이는 이른바 기미(氣 味)가 같아서 서로 구하는 자이니 몹시 다행한 일이로다. 덕령은 변이 생긴 처음부 터 뜻을 명령에 힘쓰는 데에 두고 칼로 공을 세우려는 계획이 진실로 간절했으나. 다만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어 돌아가실 날이 박두했으므로 차마 옷자락을 끊어 적호(陟岵) 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했더니 이제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어 이 미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할 곳이 오직 임금에게 있을 뿐이었다. 이 때 마침 담양부사 이후 경린이 일찍이 덕령의 헛이름을 듣고, 계속해서 덕령이 일 어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전구를 마련해 주면서 국난에 나갈 것을 권하고 그대 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자 순찰사가 또 기복(起復)의 글을 내렸는데 그 글 속에 있는 두어 줄 말이 일일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 니, 그 글을 읽은 자라면 누가 강개하여 스스로 오늘날에 시험해 보려 하지 않겠 는가. 덕령은 비록 담양부사와 순찰사의 권함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위태롭 고 의심날 때 절개를 다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저쪽에서 이미 큰 의리로 타일렀으 니 어찌 구구한 정례(淸禮)에 얽매어 군부(君父)의 깊은 원수를 생각지 않을 수 있 겠는가, 이에 드디어 궤연(几錠)을 떠나서 전쟁에 나가서 열 수레의 느린 말이 되 고 두 번 다시 이룰 수 없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대장은 일으킨 지 이미 오래여서 형세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군사를 나가게 하는 것도 그 마땅한 것을 얻고 계획 세우는 것이 그 절도에 맞아서 계획이 빠진 것이 없고 행동이 실책

¹² 척호(眺帖):《시경(詩經)》〈척호편(眺帖篇)〉은 효자가 먼 곳으로 부역을 가서 산에 올라 부모를 사모하는 정을 읊은 시(詩)이므로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을 말한 것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이 없을 것이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 나라 안을 쓸어 깨끗이 하는 일을 대장과 함께하지 않고 다시 누가 있단 말인가. 아아! 함께 살수 없는 원수를 사람이 얻어 회복한다면 도탄에서 백성을 구하는 것을 유(儒)와 묵(墨)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흉한 칼날이 행하는 곳에 그 참혹한 독의 화가 또한 절에까지도 미쳐서 2백 년 된 소상(塑像)이 모두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으니, 대장의 복수하는 일은 비단 나라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니 성세(聲勢)를 협동하여 함께 회복을 도모하려면 그 기회는 지금에 있으니 바라건대 대장은 힘쓰시옵소서. 청하는 두어 가지 일은 별지(別紙)에 기록되어 있으니 바라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시옵소서.

상도지수서(上都之帥書)

김존경(金存敬)

전라도 광주의 상인(喪人) 김덕령(金德齡)은 삼가 이마를 조아리고 백 번 절하고서 글을 도원수 상국 합하(都元帥相國閣下)께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군부의 원수는 맹세코 한 하늘 밑에 살지 않는 것으로서 대체로 혈기가 있는 자라면 마음을 썩이고 팔을 걷어 올려 이 적을 다 섬멸한 뒤에 그만두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덕령은 몸이 초토 속에 엎드려 있어 마음이 목을 바치는 청이 간절하여 항상 강개한 마음을 풀은 지 오래입니다. 저번에 도내의 장사로서 본래부터 서로 두텁게 사귀던 자가 와서 덕령에게 이르기를, 적이 날로 제멋대로 날뛰어 쓸어 맑게 할 기약이 없으니 이는 정히 충신과 의사(義士)의 옷깃을 떨치고 공을 세울 때인데 감히 힘쓰지 않는가 하옵기로 덕령도 역시 그렇게 여겼으나 상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형세가 군사에 따르기가 어렵기에 한갓 불안한 뜻에 불탈 뿐이어서 중엄(仲淹) 3의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온데 마침 담양부사 이후 경린이 이미 덕령의 헛이름을 듣고 계속해서 덕령이 일어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전구(戰具)를 마련해 주면서 몹시 권하고 계속해서 순찰사에게 보고하자 순찰

¹³ 중엄(仲淹) :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의 명상(名相) 범중엄(范仲淹).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고, 문장에 능했음.

사가 또 국난에 나갈 의리로 권하므로 끝내 그만둘 수가 없어 스스로 나라를 위해 서 한번 죽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덕령은 외람되이 재주가 없으면서도 일찍이 연 전에 대장을 모시고 몸이 행오의 반열에 참가하여 발이 전쟁 사이를 거친 지가 오 래입니다. 하온데 이때 한 부대의 책임을 맡아 조그만 공이나마 세우려 했던 것이 아니온데, 그런데 이때에 와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진실로 80의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항상 경계하기를. 네 형이 이미 전쟁에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너뿐이다. 그런데 네가 다시 길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내가 살아서는 누가 봉양할 것이며 내가 죽어서는 누가 장사 지낼 것이냐. 슬프다. 내 자식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삼가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후로도 까마귀와 새의 사사로운 인정이 차마 어머니의 뜻을 상할 수가 없어서 용인(龍仁)의 싸움과 이치(梨峠)에서 지킬 때도 대오(隊伍)를 따라다닐 뿐이요 감히 시험해 보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 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님께서 이미 돌아가시어 해골도 이미 묻었으니 이 한 몸을 돌이켜보면 비록 복중(服中)에 있사오나 전쟁에 변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옛 사람도 또한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구구한 정례로 나라 의 어려운 일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겨울이 다 되어 때가 점 점 따뜻해 가는데, 혹 흉한 칼날이 이 도(道)로 몰려들어 온다면 부모가 계신 집과 부모의 묘소가 모두 다 더러운 오랑캐의 고장이 되어 나무를 베고 불태워 저들의 맘대로 할 것이오니 그 화의 참혹함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나라 를 위해서 의리로 보아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아래로는 사사로운 몸을 위하여 정으 로 보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에 드디어 동지의 선비들과 함께 붉은 마 음을 가다듬어 침략당한 부끄러움을 씻어 신(神)과 사람의 분함을 조금이라도 쾌 하게 하려고 일을 일으킨 이후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려 밥 먹는 것을 잊고 사사로이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을 당 하여 원수 상국(元帥相國)이 책임이 중한 것을 근심하여. 백성들의 책임을 맡아 도 탄에서 건져 주기를 바라는데, 대궐은 바야흐로 잠겨 있으니 한 용감한 사람을 만 나 적의 칼날을 막는 공을 세우는 것이 곧 상국(相國)이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덕령은 비록 못났으나 일찍이 그 막하(幕下)에 종사하던 자이니 은혜가 이미 중하고 의리도 또한 깊은 터이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 어려운 근심을 구제하려고 계획하면 상국(上國)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 의지하 겠습니까. 진실로 성난 무리 수백 명을 데리고 바로 범의 굴을 부숴 버리고 하나의 추한 무리를 섬멸한다면 이는 모두 상국(相國)이 주신 것이니 어찌 몹시 다행한 일 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초토(草土)의 남은 목숨이 궤연(几筵)을 버려두고 하루아 침의 명령에 분발하여 국가의 어려움에 목숨을 바친다면 진실로 법도에 죄를 짓고 풍화(風化)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넓은 데에 임하여 두려움을 바라는 자는 혹 도리를 알기 때문이요. 음악을 듣고 가만히 손뼉 치는 자는 반드시 그 소리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재주와 힘이 적을 토벌하지 못할 터인데 도 반드시 그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일어나서 거듭 상국(相國)의 부끄러움 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패나 이해는 생각할 바가 아니옵고 죽은 뒤에 그만두 어 거의 본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하옵는데, 알지 못하거니와 상국(相國)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히 나가서 뵙고 말씀드려야 인정과 예의에 모두 합 당할 것이오나 바야흐로 군사를 훈련하는 중이어서 즉시 떠날 수가 없사옵고 삼가 족인(族人) 김극제(金克悌)를 보내서 저의 심정을 아뢰옵고 겸해서 품목(稟目) 몇 조목을 가지고 가서 공손히 장막 밑에 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국(相國)께 서는 오활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곡진히 재량하여 채택해 주시옵소서. 엄한 위엄을 무릅쓰오니 황송하여 지극히 대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폐비윤씨사건(廢妃尹氏事件)

성종조(成宗朝)의 정비(正妃) 공혜(恭惠)가 죽자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승진시켜 비(妃)를 삼았다. 그는 성화(成化) 병신(丙申)에 났는데, 연산(燕山)의 사랑이 두터워서 교만하고 방자해서 여러 숙원(淑媛)(정씨(鄭氏)·엄씨(嚴氏))을 질투하고 임금에게도 공손하지 못했다. 어느 날 임금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있자 인수비(仁粹妃)(성종모후(成宗母后))가 크게 노하여 임금의 위엄을 격동해 이루어 가지고 외정 (外庭)으로 나가 뵈니, 대신(大臣) 윤필상(尹弼商) 등이 순서대로 의논을 드려 폐해서 사삿집으로 내보냈더니 윤씨는 밤낮으로 울부짖다가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리

고 궁중을 훼방하기를 날로 심하게 했다. 이에 임금이 내시를 보내서 찾아보게 했 더니 인수비가 그 내시를 시켜 윤씨는 머리에 빗질을 하고 화장하고 있어 조금도 뉘우치는 빛이 없더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게 하여 드디어 그 말을 사실로 알고 죄 를 더하게 했다. 윤씨는 눈물을 닦은 데 피가 묻은 것을 그 어머니 신씨에게 주면 서 말하기를, "내 아이가 다행히 살아 있으면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나의 슬픈 원 한을 고하게 하고 또 나를 임금이 다니시는 길가에 장사 지내서 임금의 거가(車駕) 를 보게 해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했다. 이리하여 드디어 건원릉(健元陵) 길가 에 장사 지냈다. 그 후 인수비가 승하하자 신씨가 나인(內人)들과 통하여 연산의 생모 윤씨의 비명(非命)에 죽은 원통함을 비밀히 호소하면서 그 당시의 수건을 바 쳤다. 연산은 일찍이 자순비(慈順妃)(중종모후 정현왕후(中宗母后貞顯王后))를 친 모로 삼았었는데 이 말을 듣자 놀라고 슬퍼하여 시정기(時政記)를 보고 당시 의논 을 올린 대신 및 사신으로 갔던 사람을 노여워하여 모두 관(棺)을 쪼개어 시체를 베고 뼈를 부숴서 바람에 날리며, 여기에 연좌된 자는 모두 죽이고 이미 죽은 자는 모두 시체를 베게 했다. 또 효사묘(孝思廟)(지금의 종부시(宗簿寺))를 세우고 제사 를 원묘(原廟)에게와 같이 지내고 그 묘를 봉숭(封崇)하여 회릉(懷陵)(지금은 헐리 고 다만 돌난간만 있다)이라고 했다. 옥당 부수(玉堂副守)가 일찍 말하기를, 윤씨 가 다만 임금의 사랑을 믿고 지나치게 무례했던 것을 가지고 모후가 시기하고 미 위해서 임금의 노염을 격동시켰으며, 대신들은 아첨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여 조금 도 구원하지 않아서 드디어 죄를 받게 되었다. 이때 경상감사 손순효(孫舜孝)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비처럼 흘리다가 소(疎)를 올려 몹시 간했는데 뒤의 폐단은 이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연산의 음란한 형벌은 모두 임사홍(任土洪)이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비밀히 인도했다고 한다.

폐비윤씨사전사지(廢妃尹氏賜傳死旨)

성묘(成廟)가 폐비윤씨에게 사사(賜死)한 전지(傳旨)에 말했다. 폐비윤씨는 성질이 본래 흉하고 험해서 패역한 일이 많아서 저번에 궁중에서 포악한 일이 날로 심하여 이미 세 대궐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내 몸에 흉한 일을 맘대로 하여 내 몸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경멸하여 대접하기를 노복에게 하듯이 하여 심지어 말하기를, 발자국을 모두 지워 없애겠다고까지 했으니 이는 특별히 조그만 일이라 족히 의논할 것이 없지만 심지 어 일찍이 역대 모후의 어린 아들을 끼고 정치를 막대로 한 것을 보고 스스로 기 뻐했으며, 항상 독약을 가지고 있어. 혹은 품속에 두어두고 혹은 상자 속에 감추 어 두었으니 이는 비단 그 꺼리는 사람을 없애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이 몸에도 이롭지 못한 일이었다. 또 항상 말하기를. "내가 장수를 하면 장차 할 일 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부도한 죄로서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차 마 대의로 처단하지 않고 다만 폐해서 서인을 삼아 사제에 두어두었더니. 이제 밖 의 사람들이 원자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보고 전후가 시끄러워 이것을 가지고 말하 는 자가 많은바. 비록 당시에는 깊이 걱정할 것이 못 되나 후일의 화를 어찌 다 말 하랴, 만일 그 흉하고 험한 성품으로 하여금 위복(威福)의 권리를 맘대로 쓰게 된 다면. 원자(元子)가 비록 어질고 밝아도 또한 반드시 그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을 것이요. 발호하는 뜻이 날로 더욱 방자하여 하(漢)나라 여후(呂后)⁴와 닷(唐)의 무 후(武后) 5의 화를 족히 기다리게 될 것이니. 내 생각이 이에 이르면 깊이 한심스럽 다. 그러니 이제 만일 내버려두고 일찍 대계를 정하지 않아서 나라 일이 구제하지 못할 데에 이르게 되면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고 나는 실로 종묘사직의 죄인이 되 고 말 것이다. 옛날에 구익(鉤弋)16이 죄가 없는 데도 한무제(漢武帝)는 오히려 만 세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물며 이 흉하고 험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음에라. 이에 이달 16일에 그 집에서 죽게 하노니. 이는 종묘사직의 큰 계획에 부득이한 일 이니라

- 14 여후(呂后):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후(后). 아들 혜제(惠帝)가 죽자 소제(少帝)를 왕위에 세우고 후 (后)가 조정에 나가서 일을 처리하더니 또 소제(少帝)를 죽이고 항산왕(恒山王) 의(義)를 세워 제(帝)를 삼고 여러 여씨(呂氏)에게 왕(王)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이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
- 15 무후(武后) : 당(唐)나라 고종(高宗)의 황후 무씨(武氏). 무측천(武則天)이라고 한다. 고종(高宗)이 죽 자 그의 아들 중종(中宗)과 예종(睿宗) 폐하고 스스로 제위(帝位)에 올라 국호(國號)를 주(周)라고 고치고 음란하고 사나운 생활을 했다.
- 16 구익(鉤弋): 구익부인(鉤弋夫人). 성은 조씨(趙氏) 이가 아들을 낳자 장차 태자(太子)를 삼으려 했으나 아들은 너무 어리고 어머니가 젊은 것을 걱정했더니 과연 조씨(趙氏)가 음란한 짓을 하자 사사(賜死)했다.

과우명주(過寓命酒)

풍중영(馮仲纓)

나그네 근심할 때 해가 집을 가렸는데, 원수(元帥)가 수레를 명하여 떠나 사는 집 위로하네.

하늘에 뜬 구름 채색은 깃발이 움직이고, 해에 빛나는 서리꽃은 칼과 창이 늘어섰네.

성 밖을 담당한 이는 주(周)나라 상부(尚父)요, 글 지어 값이 비싼 것은 한(漢)나라 상여(相如)일세.

여러분들"이 모임은 삼생(三生)의 다행한 일이니, 진중하게 간직하여 비단에 쓴 글 잊지 마오.

중추등매일정(仲秋登梅日亭)

광음(光陰)은 하늘 위의 달이 가득 찼는데, 그림자 파리한 바람 앞에 옥 줄기가 푸르네

문득 유루(庾樓)[®]가 천년의 좋은 경치가 생각나고, 오히려 하서(何署)의 백년 꽃다운 것 느끼네.

피리를 불어 전쟁에 나간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장 바쁜 다듬이 소리에 먼 고향이 슬프다네.

올라와 구경하는 것은 봉화(烽火)를 올린 후에 견딜 수 없는데, 술잔을 드니 근심과 즐거움 모두 잊기 어렵네

¹⁷ 여러분들 : 대원수(大元帥) 김주은(金酒隱)(김명원(金命元)) · 오리(梧里) 이 방백(李方伯)(이원익(李元翼)) · 이 절사(李節使) · 윤 홍문 학사(尹弘文學士).

¹⁸ 유루(庾樓): 진(晋)나라 유량(庾亮)이 구강현(九江縣)에 세운 루(樓)로서 경치가 좋다.

유희 전라도 제군 왜 불범 운 우음 정운 판촌 홍 선생 소람 (有喜全羅道諸郡倭不犯云偶吟早員板村洪先生笑覽)

동쪽으로 오니 봉화(烽火)가 도성에 가득한데 홀로 여기에서는 오직 옛 다스리는 것 태평한 것 보았네.

가장 이 순량(徇良)이 보장(保障)을 오로지 하는 것 좋고, 능히 표범과 범으로 하여 금 가로세로 피하게 하네.

일천 산의 초목에는 깃발의 채색이 생기고, 한 도의 음악과 노래에는 송사하는 소리 있네.

나의 군사 거느리고 바다 반쪽을 두루 다니는 것 부끄러운데, 말을 달려 무엇이 만나고 맞는 일에 수고로운 것에 도움이 되리.

정 이 제독(呈李提督)

총병 유정(總兵劉綎)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끄니 만 명의 기병이 따르는데, 푸른 기름이 비쳐서 비단 도포 가 붉어지네.

여섯 가지 기이한 것¹⁹은 진평(陳平)의 계획에서 나오지 못했고, 다섯 가지 이로운 것²⁰은 위강(魏降)의 싸움에 화합하네.

머리 벗어진 추한 것은 바닷가에 사나운 것 믿고, 사군(使君)은 천하에 영웅으로 세어지네.

원래부터 담소(談笑)로 후(侯)를 봉하기는 쉬우니, 기이한 골격(骨格)을 이루는 데 는 공을 묻지 않네.

¹⁹ 육기(六奇) : 진평(陳平)의 육출기계(六出奇計). 전한(前漢)의 공신(功臣)으로 지모(智謀)가 뛰어나 고 조(高輔)를 도와 천하를 평정할 때 여섯 번 기이한 계책을 내어 적을 이겼다.

²⁰ 오리(五利) : 춘추 때 사람 위강(魏降)이 벼슬이 경(卿)에 이르렀을 때 도공(悼公)에게 '사용오리(私戎 五利)'를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음(偶吟)

유정(劉綎)

늙은 조개가 볕을 좋아하는 것은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들새들은 무슨 일 로 괴롭게 서로 싸우는가.

몸이 굴을 떠나니 구슬의 태(胎)가 줄어들고, 힘이 모래 여울에 다하니 비취의 깃이 쇠잔하네.

입을 닫으니 어찌 입 열기 쉬운 것을 알랴. 머리를 들이니 누가 머리 내기 어려운 것 생각하랴.

일찍부터 모두 고기 잡는 사람의 손에 잡힐 줄 알았으면, 구름과 물에 날고 잠겨 각각 스스로 편안했을 것을.

몽중우영(夢中偶詠)

오랑캐 임금의 머리를 바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은 세상에 드문 영웅일세. 이름은 산악을 흔들어 움직이고, 위엄은 바다 물결을 진압하여 평평하리. 관문 밖에는 오랑캐별이 떨어지고, 하늘 가운데에는 한(漢)나라 해가 밝네. 신하 백성들이 뛰고 춤추니. 천 리에 탄식하는 소리 넘치네.

제적벽도정당장(題赤壁圖呈唐將)

이덕형(李德馨)

이기고 지는 것은 분명 한 판의 바둑이니, 병가(兵家)에서 가장 노리는 것은 여기에 의심을 갖는 것일세.

당년 적벽(赤壁)에 앞 자취가 없으니, 다만 장군의 책상 칠 때에 있네.

한거(閑居)

송익필(宋翼弼)

한가로이 가면 앉는 것 잊고 앉으면 가는 것 잊는데, 소나무 그늘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면서 물소리 듣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나보다 뒤진 몇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갔는가, 각각 그 그치는 것 구하는데 또 무엇을 다투는가.

가벼운 도롱이 짧은 삿갓의 태평한 사람이, 손으로 거친 동산 다스려 40의 봄일 세.

슬픈 눈물 두어 줄 떠나는 뜻은, 이것으로 소부(巢父)· 허유(許由)도 역시 요(堯)의 백성인 것 알겠네.

규원(閨怨)

최경창(崔慶昌)

동풍이 불어 저문 근심 있는 집에 들어오니, 발과 장막 천천히 여니 제비 그림자 비꼈네.

조름에서 일어나 거문고 만지니 향기로운 안개 졌었는데, 뜰에 가득히 떨어지는 푸른 복숭아꽃일세.

다섯 번째 다리 머리에 연기 낀 버드나무 비꼈는데, 늦게 오는 바람과 해는 다시 맑고 화평하네.

누른 발에 열두 사람 마치 옥과 같은데, 대궐 문의 글하는 신하가 말을 타고 지나 가네.

유산사(遊山寺)

떨어지는 잎은 산골짜기로 내려가고, 가을 소리는 말발굽에서 나네.

연기를 격해서 경쇠 소리 들리고, 달을 짝하여 절에서 자네.

학의 울음은 삼경의 이슬이요, 언덕에 달린 것은 만 길 무지개일세.

넋이 맑아 하나의 꿈도 없는데, 생각이 물과 구름으로 들어가 희미하네.

옛집이 물 위에 임했는데, 서로 떠난 지 이미 6년일세.

대나무가 나는 것은 차례가 없고. 등나무가 걸리는 것은 인연이 있네.

밥은 이웃집 나물에 끓이고, 옷의 쥐구멍 연기에 타네.

아이들이 흰 터럭에 놀래어, 밤 등잔 앞에서 이윽히 보네.

규원(閨怨)

허씨(許氏)

비단 띠 비단 옷에 눈물 흔적 쌓였는데, 일 년의 꽃다운 풀은 왕손(王孫)을 원망하네.

구슬 쟁(筝)으로 강남곡(江南曲) 다 타고 나니, 비는 배꽃을 치고 낮에 문을 닫았네.

제비가 비낀 처마 치면서 둘씩 나니, 떨어지는 꽃 어지러이 비단옷을 치네.

동방(洞房)에 무한히 봄뜻을 상하니, 풀은 강남(江南)에 푸르렀는데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네.

차중씨기 위지작(次仲氏寄慰之作)

가을 마음 갑절이나 더해서 묵은 병이 되니, 꽃다운 풀은 하늘에 연했고 이별의 한은 많네.

읊기를 마치니 푸른 옷이 도리어 스스로 아까운데, 어찌 근심과 즐거움 가져다가 천지의 화기를 비끼리.

등하(燈下)

금 칼로 베틀 속의 깁을 비어 내려다가, 겨울 옷 꿰매려니 손을 여러 번 불었네. 옥비녀 비스듬히 뽑으니 등잔 그림자 가인데, 붉은 불꽃 잘라 주어 나르는 나비 구 원하네.

문중씨적 재회 산(聞仲氏謫宰會山)

병중에 편지를 보낸 것이 구천(九天)에서 내려왔는데, 한 벼슬 아득히 먼 구름 가에 가 있네.

한(漢)나라 글은 이 회왕(懷王)의 비교가 아닌데, 무슨 일로 상강(湘江)에 소년으로 귀양 갔는가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태수(太守)로서도 오히려 편친(偏親)을 봉양할 만한데, 작별의 눈물가는 나라 새벽에 뿌리지 마오.

이로부터는 옥당(玉堂)에 약석(藥石)도 없는데, 밤중 앞자리에 다시 어떤 사람인가.

기단보독서산 방(寄端甫讀書山房)

구름이 높은 산마루에 나서 연꽃을 적시는데, 옥나무 붉은 언덕에 이슬 기운 짙네. 나무쪽 집에 절이 쇠잔하니 중이 입정(入定)하고, 강당(講堂)에 재(齋)를 끝내니 학 은 소나무로 돌아가네.

당당이가 옛 벽에 얽히니 산 귀신이 울고, 안개가 가을 못을 누르니 촉룡(燭龍)²¹이 누워 있네.

밤을 향한 향기로운 등불이 석탑(石榻)에 밝은데 동쪽 숲에 달은 검고 성긴 종소리 있네.

차중씨 성관기운(次仲氏成關寄韻)

층층이 대(臺)의 한 기둥이 높다랗게 눌렀는데, 서북쪽 뜬 구름이 변방에 접해 많네.

철협(鐵峽)의 백도(伯圖)²²는 용이 이미 갔고, 목릉(穆陵) 가을빛에 매가 처음 지나가네.

산이 대륙(大陸)에 연해 있으니 세 그을이 서려 있고, 물은 평원(平原)을 갈라서 구하(九河)로 들어가네.

만 리에 올라오니 해가 장차 저물고, 취해서 긴 칼 의지하여 홀로 슬픈 노래 부르네.

험준하고 위태로운 잔도(梭道) 하늘에 끊어졌는데, 봉우리 형세 하늘에 침입하여

- 21 촉룡(燭龍): 장미산(章尾山)의 신(神)으로서, 뉴 뜨면 낮이 되고 뉴 감으면 밖이 된다는 용의 이름.
- 22 백도(伯圖): 패자(覇子)의 계획.

높다랗게 꽂혀 있네.

산맥은 북쪽으로 나갔으니 삼수(三水)가 끊어졌고, 지형은 서쪽을 누르니 구하(九河)가 머네.

연기와 티끌이 늦게 걷히니 외로운 성이 나오고, 거여목(목숙(苜蓿))이 가을에 살 찌니 모든 말이 교만하네.

동쪽으로 수루(戍樓)를 바라보니 북소리 급한데, 변방 담 어느 날에 오랑캐의 기운 씻으리.

단보 예업 산사 유기(端甫隷業山寺有寄)

새 달이 동쪽 숲에 나오는데, 경쇠 소리 산그늘에서 나네. 높은 바람에 처음 떨어지는 잎이요, 많은 비에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일세. 해악(海嶽)에 유기(幽期)가 멀고, 강호(江湖)엔 술의 병이 깊네. 함관(咸關)에 돌아가는 기러기가 적은데, 어느 곳에 돌아오는 소식을 얻을까.

문중씨적갑산(間仲氏謫甲山)

멀리 갑산(甲山)으로 귀향 온 나그네가, 함관(咸關)에 행색이 바쁘네. 신하는 가태부(賈太傅)²³와 같고, 임금은 어찌 초회왕(楚懷王)²⁴인가. 하수(河水)는 가을 언덕에 평평하고 관문(關門)은 석양이 되려 하네. 서릿바람이 기러기를 불어 가니, 가운데가 끊어져 줄을 이루지 못하네.

황칙(皇勅)

황제(皇帝)는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설반(薛潘)을 보내서 조선국왕(朝鮮國王) 성위(姓諱)에게 칙유(勅諭)하노라. 너희 나라는 대대로 동번(東藩)을 지켜 본래부터 공손하고 순했으며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이 낙토(樂土)라고 일컬어진다. 그런

- 23 가태부(賈太傅):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문신(文臣) 가의(賈誼). 문제 때에 박사(博士)로서 태중 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었고, 다시 양회왕(梁懷王)의 태부 가 되었기 때문에 가태부(賈太傅)라고 부른다.
- 24 초회왕(楚懷王) : 위왕(威王)의 아들.

데 요새 들으니 왜놈들이 날뛰어 크게 침입해 와서 왕성(王城)을 공격해 함락시키 고 평양을 점령하여 생민이 도탄에 빠지고 원근(遠近)이 시끄러우며 국왕이 서쪽 으로 바닷가로 피하여 민간으로 도망했다니. 이 허물어진 것을 생각하면 짐의 마 음이 측연하다. 어제 급한 것을 고하는 소식을 듣고 이미 변방 신하에게 칙명을 내 려 군사를 내어 구원하게 하고, 이제 특별히 행인사행인을 보내서 칙서를 내려 너 의 국왕에게 칙유하노니 마땅히 너희들의 조종이 대대로 전해 온 기업을 생각하면 어찌 차마 하루아침에 가볍게 버리겠는가. 급히 마땅히 부끄러움을 씻고 흉한 적 을 없애어 힘써 광복을 도모하고, 다시 마땅히 그 나라 문무 신서들에게 전유(傅 諭)하여. 각각 주인에게 보답할 마음을 굳게 하고 복수할 의리를 크게 떨치도록 하 라. 짐은 이제 문무 대신 두 사람을 보내어 요양 각 진의 정병 십만을 거느리고 가 서 적을 치는 것을 돕고 그 나라 병마와 함께 앞뒤에서 협격하여 흉한 적을 섬멸하 기를 기약하여 조금도 빠뜨림이 없게 하라. 짐은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고 중국과 오랑캐를 다스려 방금 만국이 모두 편안하고 네 바다가 고요한데, 이 조그만 추한 것들이 꿈틀거려 감히 횡행하므로, 다시 동남쪽 변해(邊海) 여러 진에 칙명을 내리 고, 유구(琉球) · 섬라(暹羅) 등 나라에도 유서를 보내서 병선 수십만을 모아서 함 께 일본으로 가서 바로 그 소굴을 부숴 버려서 고래와 도롱으로 하여금 머리를 내 놓게 하여 바다 물결이 편안하게 한다면, 벼슬과 상의 은전(恩典)을 짐이 무엇을 아끼겠는가. 대체로 선세(先世)의 토우(土宇)를 회복하면 이것이 대효(大孝)요. 급 히 군부의 어려움을 구원하면 이것이 지극한 충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 나라 군신 은 본래부터 예의를 아는 터이니, 반드시 능히 우러러 짐의 마음을 본받아 옛 물건 을 광복시켜 국왕으로 하여금 개가를 올리고 도읍으로 돌아가서 종묘와 사직으로 하여금 길이 번병(藩屏)을 지켜 짐의 먼 지방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 을 위로하게 하라

당장여왜 답문(唐將與倭答問)

중국 장수가 왜적에게 묻기를, "조선(朝鮮)이 무슨 죄가 있기에 일본이 감히 군사를 움직여 토지와 양민을 침략하는가?" 왜가 대답하기를, "조선이 지난날에 일찍

이 대마도를 토벌했고, 또 배신(陪臣)을 보내서 일본에 들어와 조공하고 반년을 머무르더니, 그 후에는 조공도 보내지 않고 사람도 역시 가지 않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와서 침범한 것이다. 중국 장수가 말하기를, "대동강 남쪽은 모두 조선 지방인데, 너희는 와서 대동강 서쪽을 침범했으니 의주에 이르면 곧 대명(大明)의 땅이요 대명은 이 나라 국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 사신을보냈으니 국왕도 반드시 평양에 와서 맞을 것이니, 그 길에 관사(館舍)에서 중국조정의 사신과 마루 위에서 시화(詩話)한 것을 너는 보지 못했느냐. 또 양총관(楊總管)이 일찍이 일천의 병마를 보내서 정탐했을 때 너희들은 어찌 감히 손을 댔느냐?" 왜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우중(兩中)인데 요동 군사들이 성을 뚫고 들어와서문 지키는 자를 많이 죽이므로 부득이 여기에 응한 것이지, 어찌 정탐군인지 알았겠는가."

중국 장수가 묻기를, "성안에 있는 너희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왜가 대답하기를, "다섯 명이다."

중국 장수가 말하기를 "너는 그 이름을 쓰라"

왜가 대답하기를, "이름은 알 수 없고, 다만 직책의 이름으로 하나는 고산(高山), 하나는 대촌(大村), 하나는 오도(五島), 하나는 오도 평사송포(平事松浦), 하나는 소서덕사랑대장(小西德寺郎大將)이다.

중국 장수가 또 묻기를, "왕성(王城)에 있는 자는 누구이냐?"

왜가 대답하기를, "관백(關白)의 손자 전팔랑(田八郎)인데 비록 존중한 몸이지만 일하는 것은 오로지 행장(行長)에게 있다. 요새 여러 곳의 흩어져 있는 군사를 모아 성을 지키려 하는데 성중 군사는 의주로 내려가려 한다." 중국 장수가 말하기를, "내 이제 마땅히 위에 아뢰어서 두 나라 군사가 전쟁을 쉬도록 할 것이니, 너희는 전에 풀을 베던 곳은 좋지만 거기에서 십 리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도 역시 우리 군사 및 조선 군사를 합쳐서 풀 베는 왜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전지(傳旨)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역관 태효남(泰孝男)이 전한 말임.

허의준 진주(許儀俊陳奏)

기밀(機密)의 일을 아뢰는 사람 허의준(許儀俊)은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준(俊)등은 신미년(선조 4년)에 광동을 지나다가 배들이 모두 사로 잡혔으나 다행히 일본 살마(薩摩) 임금에게 사랑을 받아 구차히 목숨을 면했으나 매양 옳지 못한 무리가 왜를 이끌어다가 우리 대명(大明)의 상선과 어선을 빼앗아 다 변조해서 판 것을 한스럽게 여겨 많은 수심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 을 유년[선조 18년]에 준(俊)등이 계획을 협의하여 살마 임금에게 애원하여 진화오(陳 和吾) · 전소봉(錢小峯) 등 십여 명을 죽이고 그 처자를 없앴더니 나머지 적들은 도 망하여 동포채(東浦寨) · 섬라(暹羅) · 여송(呂宋) 등처로 들어가니 이에 왜선이 침 입해 왔습니다. 정해년(선조 20년)에 관백(關白)이 살마 · 비전(肥前)을 깨치자 준 (俊)이 살마군(薩摩君)을 무릅쓰고 울면서 호소했더니. 관백이 이에 영을 내려 경 상(京尚)을 베이게 하고 달아난 두 적은 잡지 못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다 위 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들으니 관백이 또 침입하려 한다고 하니 준(俊)등은 앉 으나 누우나 편안치 못하더니 다행히 배를 보내서 정탐해 보니 이는 정히 녹(禄) 을 먹는 자의 좋은 계획이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자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러나 일본에 오래 산 중국 사람은 모두 적의 여당(餘黨)으로서 생각건대 한 사람도 즐겨 하는 자가 없습니다. 또 모두 시장이나 촌에 살고 있어서 나라의 일을 잘 알 지 못하고 또 한 사람도 말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준(俊)이 죄를 피하지 않았습 니다. 9월 3일에 일본의 사정을 써서 평호(平戸)에 보내서 선주(船主)에게 주어 친 히 보도록 했었는데 길이 막히고 물이 길어서 도착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9월 7일에 또 실지의 소식을 들으니 내년에 고려로 건너가서 요동을 정벌하고 북경성 을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준(俊)등이 다시 조목을 세서 9월 9일에 새 선주에게 주 어서 청대(淸臺)에 보내도록 했는데 도착했는지 알 수 없어서 주야로 근심하고 괴 로워하여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할 뿐이더니 다행히 주균왕(朱均旺)이 충정이 격렬하고 간절하여 의로운 마음을 나타내어 스스로 몸을 나라에 보답하기를 원하 면서 이 글을 가져다가 바치겠다 하므로 비로소 기뻐서 뛰면서 자세히 갖추어 아 뢰는 바입니다. 9월 25일에 여러 나라가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살마의 군신이 비밀히 상의하여 동해도가 다 함께 모반하기로 했는데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한 나라가 모반했으면 관백의 침입하는 군사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확실히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미리 마음을 써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천자 폐하(聖天子陛下)께 말씀드려서 모든 임금은 그 폐단을 알아 근심하지 말고, 신하들은 그 폐단을 알아 미리 방비한다면 국가가 크게 다행하고 생령도 역시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삼가 황공함은 모두 뒤에 아뢰겠습니다.

만력 20년 7월 21일 아룀.

하나, 일본국의 자세한 것을 아룀,

일본의 66국(國)은 곧 우리 대명(大明)의 66부(府)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호구(戸 口)와 전량(錢糧)의 총계를 말한다면 우리 10부(府)만큼 많지 못하다. 원래 황제 가 있어서 대대로 서로 전하는데 감히 조금이라도 정사를 맡기지 않았다. 이는 곧 대한(大漢) 말년에 여러 나라가 각각 형세를 점령하여 서로 정벌하고 빼앗은 것과 같다. 사람이 난 지 십 세가 되면 칼을 배우고 활을 배우며, 우리 대명(大明)의 문 자로 된 사서(四書) · 주역(周易) · 고문(古文) · 도략(韜略) · 당시(唐詩) · 통감(通 鑑) · 잡기(雜記) 등 책을 배운다. 그러나 비록 배워도 문리(文理)가 통하지 못한다. 병으로 죽는 것을 욕으로 여기고 진중(陣中)에서 죽는 것을 영화롭게 여겨서 평일 에 자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십 세나 백 세나 모두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지이니, 차라리 적을 죽이고 죽을지언정 물러가 움츠리고 살지 말라"한다. 짧은 옷과 짧 은 소매에 발을 벗고 머리를 깎으며, 긴 칼과 짧은 비수가 날로 몸에 따른다. 총으 로 싸우고 활로 싸워서 돈내기를 하는데 이것을 도박(賭博)이라 하고, 화살을 무겁 게 지고 신(神)을 모시는데 이것을 새원(賽願)이라 한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높 은 산으로 성을 삼고 못을 파서 하수를 만든다. 적이 오면 양식이 있는 자는 성에 올라가서 지키면서 막고, 양식이 없는 자는 다 죽어도 돌아다보지 않는다. 적과 싸 워서 취하는 것은 자기의 군사와 자기의 양식으로 하는데 장수는 뒤에 서고 군사 가 앞에 선다. 복병의 계교를 잘 쓰고, 거짓 패하는 기밀은 알지 못하여, 깃발을 많 이 벌여 세워 적의 기운을 눌러서 군사 한 명에 열 깃발이란 말이 있다. 또 눈빛을 이상하게 단장하여 적의 마음을 놀라게 하여 우두 귀면(牛頭鬼面)이란 것이 있다. 이기면 길에 몰고 나가 돌아다보지 않고 패하면 담(瞻)을 상하고 어지러이 달아난 다. 이기면 패할 것을 생각지 않고, 패하면 회복할 것을 생각지 않는다. 육전(陸戰) 에 능해서 오직 어지러이 죽이는 것만 알고 수전(水戰)에는 약하며, 화공(火攻)은 알지 못한다. 장수는 일정한 수의 군사가 없고. 군사는 한 달이 넘을 양식이 없다. 나라를 비우고 군사를 내어 뒤에서 엄습하는 화를 알지 못하고. 짐을 무겁게 지고 멀리 나가 싸워 군사가 수고로운 것을 생각지 않는다. 돈을 뇌물로 주어 반간(反 間)하는 계교를 쓰고. 이기면 빼앗아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맹세를 잘 맺는다. 언 으면 잊어서 거짓 화합하고 거짓 맹세하기를 잘 하여 이로써 적국을 패하고. 성을 잘 쌓고 포위하여 적의 성을 함락시킨다. 거짓 어진 체하여 의리를 항복받고, 재물 탐하기를 끝없이 하며 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조그만 죄에도 머리를 베인다. 황 금으로 나라를 부자 되게 하고 각박하게 백성에게 사납게 군다. 급히 공격하는 것 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오직 천천히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싸움이 급하면 손을 곱 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싸움이 더디면 조용히 힘을 기른다. 살마 및 관동 사람은 강 직하고 잘 싸우고, 서울과 기내(畿內) 사람들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 적이 적으면 기운이 갑절이나 나고, 적이 많으면 스스로 위태로워진다. 싸움은 있어도 진(陣)은 없고 죽이는 것은 있어도 법도가 없다. 허장성세하여 남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군사는 능히 싸우는 것은 만에 5천도 없다. 그 선척은 또 가장 불편해서 위는 넓고 밑은 뾰족해서 동요시키기가 어렵고 적어도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어서 흔들려 뒤 집어지려 하여 달아나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려워서 몹시 공격하기가 쉽다. 우 리 대명(大明)을 불러 대당(大唐)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당나라 사람이라고 하 며, 오랫동안 왜국에 산 사람을 구당인(舊唐人)이라 하니, 이는 대개 당나라 위령 (威令)이 본래부터 오랑캐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요순 · 문무 · 진황(奏皇) · 한 고(漢高) · 항우(項羽) · 하평(何平) · 한장(韓張)의 불태우고 포위한 고사(故事)를 배운다. 모든 의복과 언어는 모두 부허(浮虛)하고 실상이 없어, 싸우기 전에는 모 두 또 소리를 하다가 전진(戰陣)에 임하면 각각 스스로 마음에 겁을 내고, 싸우기 전에는 모두 능히 삶을 버리다가도 전진에 임하면 각각 스스로 살기를 도모한다. 그러니 우리 대명에서는 마땅히 이 실정을 알아서,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고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서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그 폐단을 알아서 방비해야 할 것 이다.

하나, 일본인이 침략한 이유.

관백이 열국(列國)을 병탄(倂呑)했으나 오직 관동만은 함락되지 않았더니 지난해 6월 8일에 제후들을 대궐 앞에 모아 놓고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관동을 정벌하라 고 명령하기를. "그 성의 사면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둘레에 조그만 성을 쌓고 지 키고 있으면 나는 바다를 건너 당(唐)나라를 침공하리라"하고 드디어 비전수(肥 前守)에게 명하여 배를 만들게 했다. 그 후 열흘이 지나서 유구(琉球)에서 중을 보 내서 입공(入貢)하자. 금 백 량을 주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멀리 대당(大唐)을 정 벌하려 하니 너희 유구는 우리를 인도하라"하고, 이윽고 왕오봉(汪五峰)의 사람 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대당에서 오봇을 잡아갔는데 시배(時輩) 3백여 명이 남경 땅으로부터 약탈하고 횡행하면서 복건(福建)으로 내려갔다가 전원이 온전히 돌아왔다. 그래서 당(唐)나라는 일본을 두려워하기를 범과 같이 하므로 이제 대당 을 깨치기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운 일이요" 한다. 이에 관백이 말하기를, "내 지 혜를 가지고 나의 군사를 쓰니 마치 큰물이 모래를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칼로 대 를 쪼개는 것과 같으니 어느 성이 깨지지 않고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으랴. 내 대 당의 황제가 되리라. 다만 두려운 것은 수병이 엄밀해서 능히 당나라 땅을 밟지 못 하는 것이다" 했다. 5월에 고려국의 공물 배가 서울에 들어오자 역시 유구국(琉球 國)에 하던 말과 같이 부탁하고 금 4백량을 주었다. 고려가 왜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은 지난해 5월로부터 시작되었다. 7월에 광동호(廣東壕) 경계 오불랑기(墺佛郎 機) 사람이 우리 대명국(大明國)의 그림 한 폭을 가져왔는데. 지도 한 폭ㆍ개 일만 마리 · 큰 말 한 필 · 비단 · 향보(香寶) 등 물건과 은(銀) 5만여 량이었다. 뒤에 살 마(薩摩)로 내려갈 때 길에서 만났으나 어떻게 부탁했는지 알 수 없어서, 준(俊)등 은 그 대당(大唐)으로 건너간다는 큰 말을 의심하여 장사(壯士)를 시켜 그 마음을 놀려 주려 한다. 아니면 또한 여러 나라를 시켜 멀리 나가게 하고 저는 장차 그 뒤 를 엄습하여 나라를 멸망시켜 군(君)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8월 에 이르러 관동을 평정했다는데, 준(俊)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들으 니 침입한 것은 사실이다. 올 가을 7월 1일에 고려국에서 사신을 보내 입공하고 인 질이 되어 관백을 재촉하여 속히 가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7일 문서가 살마에 도 착하여 살마에 명하여 정제한 군사 3만과 대장 11인이 고려에 도착하라고 했다. 이 때 당(唐)나라 66국(國)을 취할 군사 50여 만과 관백이 친히 거느린 군사 50만, 도 합 백만이요. 대장 1백 50명 · 전마(戰馬) 5만 필 · 큰 호미 5만 자루 · 칼 10만 자 루 · 장창 10만 자루 · 작안도(研案刀) 10만 자루. 철부두(鐵斧頭) 10만 개 · 장도 (長刀) 50만 자루·조총 30만 자루요. 삼척장검(長劍) 쫓을 사람마다 차게 하여 내 년 임진(千辰) 봄에 일어나도록 했다. 관백은 3월 1일에 배를 검열했는데, 살마군 은 본래 우리 대명(大明)의 말을 쫓는 것을 관백이 그 뜻을 조금 알고서 살마군의 아우 무고(武庫)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게 했다. 살마상(薩摩相)의 이름은 행간 (幸侃)인데, 역시 본래부터 대명(人明)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군사를 뽑아 가지 고 비밀히 여송(如宋) · 담수(淡水) 등지로 도망하여 그 성패를 방관하기로 했으나, 불의에 기밀이 탄로되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모두 무고와 함께 갔다. 무 고(武庫)는 사람됨이 본래 재물을 탐하고 겁이 많으며, 살마 군사는 본래부터 능히 죽기로 싸우기만 하고 꾀가 없으며. 군사는 있어도 양식이 없다. 이에 오직 그 폐 단을 기록하는 바이니. 이를 막았으면 천만 다행이겠다.

하나. 적을 막는 방책을 말함.

대체로 고려는 조그만 나라로서 일본 대마도와 거리가 삼백 리인데, 가운데에 바다가 격해 있고, 수로가 이틀 길로서 순풍을 만나면 하룻길일 뿐이다. 대국을 위하여 부모로 섬길 계획을 하고 있으니 마땅히 충의가 있고 지모가 있는 자에게 명하여 용략의 군사를 거느리고 혹 2백만, 혹 3백만을 모두 고려에 주둔시켜 그 관장을 모두 죽이고 만일 쫓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 버린다. 그리고 대병을 고려의 좌우 사방에 매복했다가 고려 사람과 우리나라의 마음이 같은 자에게 명하여 고려

관원을 빌어서 거듭 포위된 속으로 유인해 들여보내고 사면에서 화포로 신호를 하 여 공격해 죽여야 할 것이다. 또 산동 · 요동에서 각각 군사 50만을 내어 연기와 불을 보고 신호로 삼아 왜놈의 뒤를 쳐서 수륙으로 서로 공격하여 밤낮으로 모두 죽여 버릴 것입니다. 이때에 왜는 미처 배불리 먹지 못하고 고려는 미처 호응하지 못해서 길이 주객(主客)으로 나누이고 뒤에는 구원병이 없는데. 수전(水戰)에 익숙 하지 못하고 화공(火攻)을 막지 못하니. 장도(長刀)가 있어도 쓸 수가 없고 활이나 총도 쓰지 못할 것이니 대장(大將)을 가히 모두 죽일 수가 있고. 관백을 가히 생금 할 수가 있으며, 왜놈 백만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히 편안 한 것으로 수고로움을 기다리고 주인으로 손을 기다리는 형세이다. 그러니 절대로 적봉(敵鋒)은 정예해서 급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 것이니. 이는 정예가 아 닌 것이다. 대체로 멀리 수고로운 군사가 어찌 정예로울 수가 있는가. 만일 그들이 영채를 세우고 이기(利器)를 양성한다고 해도 이는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마땅히 따로 양장(良將)을 보내어 따로 군사 50만을 거느리고 요동에 들어가 교련 해 가지고 구원병으로 쓸 것이다. 또 마땅히 나라의 금을 청해다가 군중에 걸어놓 고 상으로 주어 인심이 이(利)를 보고 죽음에 나가게 하고 절대로 맹자의 인의(仁 義)의 말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이때는 맹자의 때도 아니요 또 법도와 권(權)도 같 지 않은 것이다. 광서랑(廣西郎)의 집 군사가 가장 용맹스러우니 또한 불러서 쓸 만하다. 그러나 왜의 마음은 떳떳하지 않아서 혹 길을 나누어 나올는지도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서경 · 산동 · 절강 · 복광 일대 해변에서 모두 마땅히 밤낮으로 군사를 조련하고 전선을 많이 내서 방비하는 것이 바야흐로 만전의 계책이다. 또 마땅히 접근하는 화를 엄하게 금할 것이니. 해변에서 떨어진 백성에 접근하는 화 는 양식을 도둑맞는 일이요 군사의 침입이다. 만일 왜놈들이 우리 중국을 밟거든 마땅히 불로 속히 공격하고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밤낮으로 모두 죽여야만 전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 이리의 위엄을 양성해 주지 말아야 한다. 혹 왜병이 성에 다가오거든 구원병이 밖에서 토성(土城)을 쌓고 이를 포위하 여 겹겹으로 성을 쌓고 못을 파고서 총으로 공격하여. 이른바 안팎에서 협공한다 면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앉아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니 날이 오래가면 위태로울 것이다. 더구나 배를 금하고 곡식을 닫아 두는 일은 또 크게 옳지 않은 것이니. 배를 금하고 곡식을 닫으면 백성이 굶주려 죽어서 우리가 장차 저절로 어지러울 것이니 하물며 적을 막겠는가, 또 마땅히 조심하여 굴성(掘 城)을 지킬 것이니. 대체로 관백은 진영마다 돈을 보내서 화합을 구하고. 십 리에 군사를 주둔하며, 밤에 토채(土寨)를 쌓고 군사들이 편안히 쉬기를 기다린 뒤에 밤 이면 성을 쌓아 주위 가까이를 포위해서 오늘 더 가까워지고 내일 더 가까워지거 든 거기에 높은 채(寒)를 세워서 적병의 허실을 보아 높이 조총을 들고 성 아래를 공격하며, 함정을 뚫고 성의 다리를 파서 적으로 하여금 저절로 빠지게 한다. 혹은 황금을 많이 두어 내응(內應)을 사고. 혹은 백 가지로 간사한 꾀를 내어 적을 잘 취 해서 하나를 얻으면 그 돈을 뺏고 그 사람을 베일 것이니. 우리 부모는 마땅히 그 폐단을 알아서 잘못 그 계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본 사람으로 장관이 된 자 는 모두 부귀한 집의 자제로서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니 곧 우리나라 서생과 같 아서 참으로 재주가 있고 참으로 능한 자는 백에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어지럽게 죽 이는 것만 알 뿐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이른바 군사로 가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또 옳지 못하니, 장수로 말하면 진실로 마땅하지만 군사로서 말 한다면 마땅치 못하다. 대체로 일본 군사들은 오로지 술로 담기(膽氣)를 내기 때문 에 병진에 나갈 때는 한번 취해야 기운이 갑절이나 나고 사는 것을 잊는 것이니 이 법을 마땅히 쓸 것이다. 준(俊)등은 친히 나가서 고하고자 했으나 부모의 곁을 떠 나지 못하고, 또 처자들에게 거듭 누(累)가 되며, 우리 부모들이 준(俊)등의 나라에 보답하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중한 죄를 더할까 두려워서, 이에 한 조각 충 의의 마음으로 하여금 미처 죽어서 듣는 것이 없게 한다. 준(俊)은 감히 나가지 못 하오니 바라건대 청대(淸臺)는 유의하시옵소서.

하나, 관백(關白)의 내력을 말함.

관백은 곧 한(漢)나라 대장군의 칭호로서 천자를 끼고 제후를 업신여기며 제 맘대로 경락(京洛)을 점령한다. 지금의 관백은 처음에는 민가의 종으로서 땔나무 하는일을 하더니 어느 날 길에서 정관백(正關白)을 만났는데 좌우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을 관백이 풀어 주고 썼다. 처음에 전부도수(前部刀手)가 되어 이웃 나라에 출정했는데 드디어 적의 머리를 베어 공을 세우니 관백이 기뻐해서 목하(木下)라는 성(姓)을 내리고 이름을 십길차랑(十吉次郎)이라고 했다. 그는 매양 아첨으로 관백을 섬겨 여러 번 승리를 거두자 관백은 대장 겸 상(相)을 삼고, 다시 성을 우시(羽柴)라 하고 이름을 집전(執前)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드디어 관백을 죽이고 그 아들을 내쫓고서 스스로 서서 참람되이 관백이라는 칭호를 썼으니 곧 처음의 십길차랑(十吉次郎)이 지금의 관백이다. 그 후 동쪽을 치고 서쪽을 정벌하여 일본여러 나라를 합쳤으나 일찍이 한 진영을 싸우고 한 진영을 이긴 것이 아니요 오직모두 감언(甘言)과 큰 말과 황금과 거짓스러운 계교로 얻은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그 아우를 죽게 하고 올 7월에는 그 아들을 죽게 하여 안팎에 친척이 없이 오직 한 몸뿐이다. 우리나라가 왜놈을 다 죽이고 이긴 군사 50만을 옮겨 지름길로 나가 왜의 땅에 들어가면 왜놈이 마음이 부서지고 간담이 서늘하여 손을 묶고 사로잡히기를 기다릴 것이니, 앞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부르며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취하면 두어 달이 되지 않아서 일본 여러 나라를 모두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니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의하십시오.

하나, 일본 66국의 이름을 아룀.

[잡도(雜島)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잡도에는 각각 소왕(小王)이 있어 이를 다스리는 데 모두 관백에 소속된다. 일기도 (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는 고려와 가까워서 매양 서로 왕래하고, 장기(長岐) · 평호(平戸) · 오도(五島) · 치자도(稚子島) · 칠도(七島)는 유구(琉球)에 가깝다. 대체로 그 사람들은 용맹스럽고 약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같으나 그 지혜는 우리나라 사람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창도(槍刀)는 곧 우리나라의 창도(槍刀)이나 그 쓰는 법은 우리나라 창도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제도가 정밀하여 항상 갈 뿐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이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막는다면 항상 이길 수 있고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니 엎드려 빌건대 여기에 뜻을 더하시기를 빈다.

만력 19년 9월 일에 진정인(陳情人) 허의준(許儀俊) · 곽국수(郭國叟) · 보국인(報 國人) 주균왕(朱均旺)은 감히 다 아뢰지 못한 일을 아뢰어 적자(赤子)의 나라에 보 답하는 정성을 다한다. 대체로 바위틈과 띠집에 사는 선비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소금 채취하는 지아비가 난리를 만난 지 오래어 차서를 알지 못하고, 학문을 폐한 지 오래어 문장을 이루지 못하므로 필묵(筆墨)으로는 비록 천람(天覽)을 받들 지 못하지만 촌심(寸心)은 실로 천지귀신(天地鬼神)에게 고할 만하다. 관백의 재 물을 탐하고 음란하고 포악한 것은 걸주(桀紂)보다 더하고, 음흉한 계모가 백 가지 로 나와 그 참다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지난해에 여러 나라에 명하여 비전 · 일기·대마 세 곳에 성을 쌓아 도마관역(渡廳館驛)이라 하고. 대마태수에게 명하 여 상인을 나누어서 고려로 건너가 지세를 살펴본 다음 10월 20일에 회보하려 했 는데, 고려왕이 20일 거리에 군사를 내어 관백을 기다리게 했으나 그 나라 안에는 불복하는 자가 많은데. 다만 한 고을 사람만이 대마도와 가까운 자가 올 뿐이라 하 고, 그러나 이를 공격하려 하면 손에 침을 뱉고 시작하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11 월 18일에 문서를 여러 나라에 보내서 각각 3년 양식을 마련하여 먼저 고려를 정 벌하고, 일본 백성을 모두 고려 땅으로 옮겨서 농사를 지어 당(唐)나라를 대적할 터전으로 만들라고 했다. 이리하여 만일 대당(大唐)의 한 고을만 얻어도 이는 일본 의 소득이요 당(唐)나라 천하가 우리 수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왜놈들은 무 지해서 우물에 앉아 하늘 일을 따지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또 여러 나라 군사로 하여금 고려 해안에 이르러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쳐서 날마다 고려를 취하고 해 가 저물면 성을 쌓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또 모든 성을 쌓 고 정벌하는 사람은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며. 지푸라기 하나를 주었는데 그 속에 비록 황금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전진에 나가서는 한 사람 도 머리를 돌이키는 것을 허락지 않고, 산을 만나면 산, 물을 만나면 물, 함정을 만 나면 함정에 빠질지언정. 입을 열거나 발을 멈추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앞으로 나 가다가 죽은 자는 그만이지만 뒤로 물러나서 산 자는 왕후장상을 말할 것 없이 머 리를 베어 무리에게 보이고 그 종족을 모두 없애니. 그 법령의 엄한 것이 이 같은 것이 있다. 12월에 풍후(豊後)를 강제로 점령하고 그곳 왕의 아내를 첩으로 삼은 후에 서해도 아홉 나라에 영을 내려서 선봉을 삼고, 남해도 여섯 나라, 산양도 여 덟 나라가 여기에 응하게 했다. 나라 안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부자 형제 중에 한 사람도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 몇 나라가 모두 의심을 내어 말하기를, "이 싸움은 대당(大唐)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고 곧 우리들의 뒤를 습격 하여 우리 족속을 멸하려는 것이다"하고 각각 모반할 것을 비밀히 의논했으나 이 루어지지 못했다. 모반해서 혹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왜의 침입할 일은 이루어 지지 못했을 것인데 그 뒤에 어찌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능히 충 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에게 명하여 정병을 많이 거느리고 먼저 고려에 가서 그 들을 맞아서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절대로 자기의 심담(心膽)을 상하게 하여 이 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대체로 왜놈들은 조그만 능한 것도 없이 다만 한 장수가 용맹하면 곧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으려는 용맹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대국으로서 는 능히 그 폐단을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밤낮으로 협공하여 오늘에도 장수를 더 하고 군사를 보태서 계속하고, 내일도 장수를 더하고 군사를 보태서 계속하며, 금 을 두어 상으로 주어 구워병이 벌떼처럼 오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우리 군사의 기운은 강해지고 적병의 기세는 약해질 것이니, 우두머리로 한 진(陣)을 깨 치면 왜놈의 백 개의 진(陣)이 다 깨져서 역시 왜놈을 다 죽일 수가 있어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비록 관백이라도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엎드 려 빌건대 이 하찮은 말을 굽어 받아들이시어 마음을 쓰고 뜻을 더하면 만 번 다행 하겠으니,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비는 바이다.

일본제국 육십육 지명(日本諸國六十六之名)

오기(五畿) 안은 또 말하기를, 경락(京洛)이라고도 하는데, 소성(小成)·대화(大和)·하내(河內)·화평(和平)·섭진(攝津)이다. 동해도(東海道)는 곧 관동(關東)이니, 이하(伊河)·이세(伊勢)·지마(志摩)·미장(尾張)·삼하(三河)·원강(遠江)·준하(駿河)·이두(伊豆)·갑비(甲斐)·상모(相模)·무장(武藏)·안방(安房)·상총(上總)·상륙(常六)이며, 산동도(山東道)는 근강(近江)·의농(義濃)·비역(飛驛)·신농(信濃)·상야(上野)·하야(下野)·육오(陸奥)·출우(出 羽)이다. 북육도(北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六道)는 약부(若扶)・월전(越前)・가하(加賀)・능등(能登)・월중(越中)・월후(越後)・좌도(佐渡)요, 산음도(山陰道)는 주파(舟波)・주후(舟後・단마(但馬)・인번(因播)・백기(伯著)・출운(出雲)・견석(見石)・음기(陰岐)요, 산양도(山陽道)는 번마(播磨)・미작(美作)・비전(備前)・비중(備中)・비후(備後)・안세(安勢)・주방(周防)・장문(長門)이다. 남해도(南海道)는 기이(紀伊)・담하(淡河)・아파(阿波)・잠기(潜岐)・이예(伊豫)・토좌(土佐)요, 서해도(西海道)는 축전(筑前)・축후(筑後)・풍전(豐前)・풍후(豐後)・비전(肥前)・비후(肥後)・일향(日向)・대우(大偶)・살마(薩摩)이다.

조선기(朝鮮記)

여응종(呂應鍾)

동방(東方)에는 군장(君長)이 없고. 신인(神人)이 태백산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오 자 무리가 그를 임금으로 섬기고 단군(檀君)이라고 했다. 요(堯)와 한때 일어나서 세상을 천여 년 전했다. 주(周)가 기자(實子)를 봉할 때 이 나라에 봉했고. 한 번 바뀌어 고려(高麗)가 되고, 두 번 변해서 조선(朝鮮)이 되어 우리 대명(大明)의 신 하 노릇을 했고, 전장 문물(典章文物)을 오직 중화(中華)를 본받아 이름을 소중화 (小中華)라고 했다. 제도는 옛것을 숭상하는 것이 많고 백성은 유약한데, 예의(禮 義) 두 글자로 나라를 세웠다. 도읍은 셋이 있는데. 평양에 가서 정전(井田)의 터를 돌아보고 기자묘(箕子墓)에 조상했으며, 개성에 가서 만월대에 오르고 장춘전(長 春殿)을 찾았으며, 한양에서는 금전 요궁(金殿瑤宮)과 가대 무사(歌臺舞榭)를 쾌히 보았다. 도(道)는 여덟이 있는데. 경기(京畿)는 풍속이 화려한 것을 숭상하고. 평 안(平安)은 기름진 들이 평평하고. 황해(黃海)는 토속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충 청(忠淸)은 강산이 수려하고, 경상(慶尙)은 산천이 웅장하며, 강원(江原)은 암학과 시내가 팔도에서 가장 기이하며. 함경(咸鏡)은 땅이 북쪽 끝에 닿아서 여름에도 눈 이 녹지 않으며, 전라(全羅)는 땅이 남쪽 끝에 닿았는데 인물이 몹시 번성하다. 나 라에는 산수(山水)가 많으니, 백악(白嶽) · 목멱(木竟) · 구월(九月) · 백두(白頭) · 철령(鐵嶺) · 천궁(天寇) · 두류(頭流) · 향산(香山)이 소위 명산(名山) 중에서 더욱

뛰어난 것이요. 용진(龍津) · 백마강(白馬江) · 수서강(修西江) · 한강(漢江) · 금강 (錦江)・호수(湖水)・낙수(洛水)・서해(西海)・동해(東海)가 소위 승수(勝水) 중에 서 더욱 뛰어난 자이다. 인재(人才)로는 《계원필경(桂苑筆耕)》의 최치원(崔致遠) · 백운서원(白雲書院)의 안향(安珦) · 문곡(文曲)의 강감찬(姜那贊) · 등공(勝空)의 김 유신(金庾信) · 입학도(入學圖)의 권근(權近) · 역동서원(易東書院)의 우탁(禹倬) · 자질수미(資質粹美)의 설총(薛聰) · 사생취의(舍生取義)의 정몽주(鄭夢周) 및 김굉 필(金宏弼) · 이언적(李彦迪) · 정여창(鄭汝昌) · 조광조(趙光祖) · 이황(李規) · 조식 (曹植)은 모두 몸으로 학문을 배워서 동방(東方)의 도맥(道脈)을 붙들어 떨어지지 않게 한 사람들이다. 근일에는 유성룡의 충성과 강개함 · 이덕형의 소년 영예(少年 英鋭) · 유근(柳根)의 고아 불범(古雅不凡)함 · 한응인(韓應寅)의 풍도 가국(風度可 椈) · 유홍(俞泓) · 정철(鄭澈)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음 · 박진(朴晋)의 나라 있는 것만 알고 자기 몸이 있는 것을 알지 않음 · 임흘(任屹)의 무(武)가 사람에 지나고 문(文)도 역시 지나는 것 · 위덕의(魏德毅)의 험한 곳에 달려 나감 · 김영남(金頴男) 의 군대의 식량을 주선함 · 홍인상(洪燐祥) · 신경진(辛慶晋) · 이항복(李恒福) · 이 산보(李山甫) · 윤근수(尹根壽) · 신식(申湜)의 지명(知名)은 모두 어진 사람들이다. 이상 몇 사람은 내가 아는 바를 든 것이요. 뒤에 다시 아는 것은 또 마땅히 따로 쓸 작정이다. 그 임금(宣祖)은 문장이 빛나고 마음을 비우고 선비를 예로 대우하는 임 금이다. 대체로 지리(地利)의 험함은 함곡관(函谷闆)만 못하지 않아 장강(長江)과 검각(劍閣)이 있고, 군신(君臣)이 또 어진데, 한 번만 침략이 있으면 즉시 그 나라 가 망하니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랴. 그것은 2백년 동안 태평하여 문(文)만 숭상하 고 무(武)를 폐하여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큰 도둑이 맘대로 날뛰면 상하 가 놀라 흩어졌으니 이는 형세가 진실로 그러했던 것이요. 그 군신의 죄가 아닌 것 이다. 그렇지 않으면 곧 이는 조선이 전에 일찍 당(唐)나라 군사 십만, 수(隋)나라 군사 20만, 몽고(蒙固)의 군사 백만을 대적했는데, 어찌해서 먼저는 용맹했고 지 금은 겁내는 것인가. 저 관백(關白)이란 자는 군사를 쓰고 조치하는 것이 또한 한 세상의 영웅이다. 세 개의 이름난 도읍을 빼앗고 팔도의 요해처를 점령하여, 산은 보루를 만들고 시내는 땅을 만들어 죽기로 지키고, 대창(大倉) · 풍저창(豊儲倉) ·

용산창(龍山倉) · 광흥장(廣興倉) 등을 나누어 근본을 삼고,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귀를 베이고 그 눈을 파내고, 그 살을 저미고 그 가죽을 베끼며, 그 심장을 쪼개고, 그 수족을 자르고, 그 머리와 몸뚱이를 나누어, 머리는 대나무 장대에 달 고, 그 시체는 대나무에 걸며, 창끝으로 그 어린 자식을 놀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게 한다. 그 아내는 나무 위에 놓고 쏘아서 죽은 뒤에 욕을 보이니. 뼈가 쌓여서 산을 이루고 피가 흘러 바다에 넘친다. 백성이 따르는 자는 한 필 포목과 한 말 쌀 을 주어 사람마다 기쁘게 한다. 그 장정은 군사로 삼고, 노약은 부역을 시키며, 어 린 딸은 계집종으로 삼고 잘 생긴 남자아이는 종으로 삼아 한결같이 죽이지 않고 다만 머리를 자를 뿐이다. 또 초래(招來)의 방(榜)에 말하기를, 각 군현(郡縣)의 성 을 닫지 않으므로 군사는 싸우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함락한다. 왕은 또 의 주(義州)로 달아나서 중국 조정에 구원병을 빌고 또 몸을 의탁할 땅을 빌렸는데. 의주는 군사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점점 급하므로 왕은 즉시 압록강을 건넜는 데, 요좌 땅에 장차 조선왕(朝鮮王)의 발자취가 있을 것인가. 이때에는 대개 나라 를 마치 버리듯 하고, 높은 벼슬아치와 많은 녹(禄)을 먹던 사람도 각각 살기를 도 망하여 난을 피했으니, 즐겨 왕을 따라서 강을 건넌 자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는 가. 그 백성들은 적과 함께 장사를 하고, 적을 위하여 양식을 주었으며, 아니면 전 쟁을 도와 난을 만들고, 심지어 두 왕자를 결박해다가 바쳤으니 온 나라의 무리들 이 장차 북소리 한 번에 모두 오랑캐가 될 것이다. 나라의 토지와 땅의 소유가 모 두 적에게 소속되었으니, 그 백성을 위하여 농사짓기를 원하여 나라를 어떻게 다 시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다행히 산림 밑에 빈천(貧賤)의 선비로서 평일에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발분하여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두드렸다. 곽재우는 하나의 궁한 선비로서 앞장서서 의병 3백을 거느리고 일어났고. 우배선 (禹拜善)은 19세의 어린 서생으로서 앞장서서 의병 백 명을 거느리고 일어나 몸을 바쳐 백 번 싸워서 적을 죽인 것이 가장 많았다. 고경명 · 정인홍 · 김면은 하나의 휴직(休職)인 부사(府使)등 관원으로서 각각 의병 천여 명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적 과 혈전해서, 경명(敬命)은 나라를 위해 죽었고, 그 아들 인후(因厚)는 아비를 위해 죽었으며, 그 막관(幕官) 유팽로(柳彭老)는 역시 임금을 위해 죽어서. 한 번 싸움에

충신 · 효자 · 의사가 모두 나왔다. 이리하여 정(鄭)과 김(金)은 양호(兩湖)를 보존 해서 그런 후에 임금을 알고 적이 적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인심을 돌이켜 서 안정되게 했으니. 전에 높은 벼슬아치와 많은 녹을 받는 자로서 도망한 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역시 땀을 흘렸을 것이다. 아아! 나라에서 벼슬과 녹으로 사람을 벼슬에 올려 쓰는 것 장차 남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남의 어려운 일을 구제해 주어 위급한 일에 힘을 입으려는 것인데. 벼슬이 남보다 높은 자가 자기 몸을 보존하고 집을 보존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여 한 번 일이 있으면 먼저 가 버려서 백성들의 원 망을 산다. 나라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것은 장차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서 나라를 죽기로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또 어리석어서 분수와 의 리를 몰라 어지럽게 각각 마음을 먹어 이(利)로 달래면 움직이고 위엄으로 위협하 면 겁을 내어 마침내 적의 군사들에 쏠리게 된다. 그 이른바 빠른 바람에 강한 풀 이 되고. 중류(中流)의 지주(砥柱)가 되어 몸이 2백 년 강상(綱常)의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가 구구하게 몇몇 호걸의 선비뿐이라면 선비는 진실로 나라를 저버린 일이 없었던가. 나라를 가진 자는 선비를 저버리는 일이 많지 않게 할 것이다. 조선(朝 鮮)이 나라를 세운 것은 예의(禮義) 두 글자였었는데,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예의 (禮義)는 길에 거칠어지고, 선비가 그 망하는 것을 붙잡는데도 끝내 예의 두 글자 의 효험을 보지 못했다. 비록 그러나 성천자(聖天子)가 한번 노하면, 중원(中原)의 모든 웅재(雄才)들은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수만 명의 강한 군사들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니, 또한 어찌 능히 나라가 없어도 나라가 있는 것인가, 취하는 것은 남에 게 의뢰하지만 지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것이다. 나에게 시(詩) 한 편이 있어 그 임금과 함께 신하에게 대답하려 하노라. 예의의 군신은 마음 아파 울지를 말고. 이 제부터 자세히 웅도(雄韜)를 읽으라.

이미 무딘 창이 쇠잔하니 부지런히 날카롭게 하고, 이미 낮은 성이 깨졌으니 이를 도와 더욱 높게 하라.

마땅히 큰 갓을 바꾸어 무변(武弁)으로 바꾸고, 마땅히 다시 너그러운 소매로 정포 (征袍)를 만들라. 중흥(中興)이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 많은 법, 노력하여 경륜하고 수고로움을 탄식하지 말라.

명산(名山) 중에 금강산(金剛山)을 빼놓고, 의사(義士)에서 조헌(趙憲)을 버렸으니 몰라서 그런 것인가 탄식스럽다. 또한 잘못된 곳도 많으니 지시(指示)한 자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제창의사 김천일문(祭倡義使金千鎰文)

오종도(吳宗道)

만력 21년 계사(癸已) 9월 임자삭(壬子朔) 10일이 지난 임술(壬述)에 감독남북제군 (監督南北諸軍) 및 독조선마병경략(督朝鮮馬兵經略) 병부참의군사무거지휘사(兵 部參議軍事武學指揮使) 오종도(吳宗道)는 삼가 양(羊)과 말의 음식으로 조선국 창 의사(朝鮮國倡義使) 김 장군(金將軍)의 영(靈)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사람 이 천지 사이에 있어서 죽어도 산 것보다 나은 자도 있고, 산 것이 죽은 것보다 나 은 자도 있는데 산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자가 더 많으니. 이것은 천하가 모두 그 러하다. 그러나 죽은 것이 산 것보다 더 나은 자는 내가 창의사 김 장군에 대해서 감회가 있다. 대체로 장군은 바다 오랑캐가 미쳐 날뛰어 임금과 황후가 창황히 달 아나고 온 나라 팔도(道)에 거의 온전한 성이 없을 때. 오직 장군은 대나무를 들 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어깨를 치켜들고 한번 부르자 호걸들이 모두 호응(呼應)해 서 장의(仗義)의 천여 명을 얻어서 서로 이 한강(漢江) 물가에 주둔하고 맹세코 적 과는 사생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장군의 이름이 안팎에 드날렸다. 이에 나도 왕사(王事)의 여가에 가서 만나 보고 한번 알게 되니 이내 정성스럽게 마치 옛날부 터 아는 사이와 같았다. 이때 왜놈들은 바야흐로 공물 바치는 일로 약속을 청하자. 장군은 문득 팔뚝을 걷어 올리고 불평하면서 매양 이를 멸망시킨 뒤에라야 아침 밥을 먹겠다고 하여. 그 뜻과 그 공은 비록 같지 않으나 장군의 이름은 이로 인해 서 더욱 떨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왜놈들은 항상 사사로이 생각하기를, 송(宋) 나라의 일과 방금 이 땅의 일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악무목(岳武穆)이 죽지 않고서 는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장군이 죽지 않고서는 공약이 결정되지 못

하겠으므로. 왜놈들이 조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직 반드시 장군을 죽이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그 흩어져 없어지고 남은 군사들은 데리고 진주를 지킬 때 마 침 경회 최 군(慶會崔君)도 역시 있었는데, 이는 더욱 왜놈들이 예부터 꺼리던 자 였다. 그런 까닭에 왜놈들이 많은 군사로 이를 억누르고 몇 겹이고 거듭 포위하여 참새 한 마리 건너가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두 공(公)을 얻은 후에야 그만두려 했 다. 이때에 나는 명령을 받고 전라도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장맛 비로 인해서 죽산에 머물러 자게 되었다. 이때 갑자기 큰 바람에 번개가 치면서 모 래를 날리고 나무를 뽑아 마치 나의 가는 길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이에 나는 비 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서 남원에 도착했을 때 비보(飛報)가 전하기를. 진주에서 화살이 다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성이 함락된 지 며칠 되어. 장군의 부자 및 최 군(崔君)이 모두 적을 꾸짖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에 나는 비로소 죽산의 장맛비는 곧 장군 부자의 눈물이요. 큰 바람과 천둥 번개는 그 장군 부자의 불평한 기운이 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아! 무슨 눈물이 장군의 이름을 위하여 천 년에 썩지 않 게 했으니, 장군은 죽지 않았다 하겠다. 나라를 위하여 도모한 것이 정성스럽지 못 하여 군부를 파천하게 했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지 못하여 성읍이 잿더미 가 된 것을 보고서 비로소 부끄러워했으니. 진신의 의관을 입은 자가 비록 살았으 나 어찌 장군의 죽음만 하랴. 아아! 어찌 하늘이 돕지 않아서 부자(父子)가 죽게 했 는가. 절의(節義)를 모두 이루었으니, 우리의 강상을 세웠네. 유명이 아주 격해 버 렸으니, 꿈에도 그를 사모하네. 좋은 벗을 길이 작별함이어, 나의 한 잔 술을 주노 라

정언황신상동궁소(正言黃愼上東宮疏)

앞드려 아뢰옵건대 지금의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서경(西京)의 적은 대적할 수가 없고 중국 장수의 약속은 어길 수가 없으며, 동궁(東宫)께서는 결코 몸소 시석 (矢石)을 무릅쓸 수가 없고, 상감의 행차는 결코 오래 관서(關西)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이해(利害)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요 대의(大義)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대체로 이해만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이(利)에로만 나가

고 해로운 것은 피할 것이며, 의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누가 의리를 마땅히 먼저 하 고 이(利)를 마땅히 뒤에 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이(利)를 구하는 자는 해가 이미 따르고. 의리를 쫓는 자는 비록 이(利)는 구하지 못해도 스스로 이롭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니 이는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인(小人)이 청 컨대 먼저 대의(大義)의 있는 바를 말하고 다음으로 이해(利害)에 대해서 말씀드리 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아! 군신과 부자의 인류은 천지를 통틀어 바꿀 수 없 는 것으로서 지금과 옛날이라고 해서 혹 다르거나 중국이나 오랑캐라고 해서 사이 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임금에 있어서는 임금이요. 아버지에 있어 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직 그 있는 바에 죽음을 바칠 뿐입니다. 사람이 누가 군신 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부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그 사 사로운 뜻에 빠져서 이(利)를 보는 것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이해(利害)만 보 면 문득 물건과 나의 차이가 생겨 임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뒤에 하고서. 스스로 그 불의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니, 아아! 어찌 마음 아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 일로 말하자면 국가의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 가위 지극하고 추하 오랑캐에게서 욕을 당하는 것이 가위 깊습니다. 종묘가 망하고, 사직이 빈터가 되었으며, 임금이 파천하고 능침(陵寢)이 없어졌으니 이는 진실로 신자(臣子)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날의 계획은 마땅히 신자의 차마 말할 수 없는 원통함을 생 각하여, 섶에 눕고 창을 베개 하여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기를 기약하여 맹세코 이 적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 시각의 편안한 것을 도둑질하여 이 큰 원수를 잊겠습니까. 하온데 의논하는 자들은 오히려 적의 형세가 바야흐로 드 세고 우리의 병력은 외롭고 약한 데다가 여러 번 패한 나머지에 장사(將土)들이 두 려워하고 겁내니. 결코 용이히 적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중국 군사가 오 기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적을 소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신자의 복수하는 큰 계획이겠습니까. 전(傅)에 말하기를. "어질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가 없고. 의 (義)롭고서 그 임금을 뒤에 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남의 신자가 되어 군부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고 복수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하루가 급한 것이온 데, 어찌 가히 남에게만 맡기고 자기 자신은 손을 대지 않는단 말입니까. 가령 중 국 군사가 이 적을 모두 섬멸한다 해도 우리에게 있어는 진실로 한 일이 없으니 신 자 된 의리에 오히려 남는 유감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중국 군사도 믿을 수 없는 터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중국 군사가 가히 성원(聲援)은 해 주지만 전 혀 그 힘에만 의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유경이 왔을 때 50일 기한으로 약 속을 해서 스스로 싸움을 늦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오나 거짓 화친하고 간사하 게 항복하는 것은 곧 저들의 장기(長技)이오니 어찌 저들도 역시 이것으로 우리를 늦추어 가지고 소득을 얻으려는 계획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잘못 약속을 지켜 군 사를 거두고 물러가 지키다가 조그만 흠집을 길러 악성의 종기가 되기를 기다려 나이 먹은 장수와 오래된 군사가 적의 복심(腹心)의 땅을 용납하여. 적막히 아무 일도 없는 때와 같으면 50일 안에 허다한 곡식을 없애고 몇 사람의 생명을 해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이보 다 더한 걱정이 있사오니. 중국 군사가 왜와 서로 만났을 때. 적의 말씨가 몹시 거 만하여 함께 상의가 되지 않고. 수작하고 대답할 때는 또 스스로 몸을 낮추기에 겨 를이 없고, 화친을 약속하는 말도 끝내 공손했다 하니 비록 말하기를 전쟁은 거짓 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지만 어찌 필경에 가서 거짓이 참이 될지 알겠습니까. 만일 중국 조정의 의논이 이러한 하책(下策)에서 나와서 그 통신(通信)을 허락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화해하여 두 나라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했으니, 황 조(皇朝)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고 군부의 원수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 려 하면 천자(天子)의 조서(詔書)가 있고, 싸우지 않으면 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으 니, 이때를 당하여 비록 정병 백만과 모사(謀士) 천인이 있어도 역시 능히 저하(邸 下)를 위하여 계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중국 군사는 비단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음날의 근심을 열어 주기까지 하게 되오니 어찌하리 까.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앉아서 기회를 잃어. 거듭 군부(君父)에게 50일 동안의 근심만 끼칠 뿐, 복수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것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의논 하는 자들은 또 말하기를, 관서(關西)는 적의 소굴과 너무 가깝고, 또 병력이 없으 니 마땅히 양호(兩湖) 가까운 곳으로 가서 회복을 도모하자고 하옵는데. 이는 오로 지 난리를 피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의리로 따져 보아도 역시 옳지 못한 바가 있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습니다. 대체로 서경에서 의주까지의 거리는 하루가 못 되어 갈 수가 있을 뿐 아니 라, 의주는 또 군부가 있는 곳이니 서경의 적은 실로 오늘날의 문정(門庭)에 있는 적입니다. 하온데 이제 문정의 적을 버리고 멀리 딴 도(道)로 간다면 서경(西京)의 적들이 반드시 뒤를 돌아다볼 근심이 없어서 맘대로 충돌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혹 순안(順安)이 한번 무너지고 서로(西路)가 지켜지지 못하면 대가(大駕)가 머무 는 곳은 다시 뒷길이 없을 것이오니. 저하(邸下)께서는 어찌 차마 먼 곳으로 물러 가 있고 달려가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쪽 적과의 거리가 지극히 가깝고 저 하가 머무시는 곳은 몹시 머니, 만일 창졸간의 근심이 있으면 비록 급히 난(難)에 나가려 해도 저돌(猪突)의 근심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을 군부에게 남기 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물며 군부를 적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조정에 있는 신하가 서쪽 적의 범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여 한 사람도 적을 치자고 말하는 자가 없고. 오직 낮을 다투어 달아날 계획만 상책(上策)으로 여기고 있사오니. 혹 적이 이 말을 들으면 삼십육책(三十六策) 의 조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호전(胡 鈴)26의 말에. "조정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부인(婦人)이다" 했는데. 오늘의 조정 신 하들은 여기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나 고량(高凉)의 세씨(洗氏)27는 한 부인이면서도 오히려 임금을 위해서 적을 칠 줄을 알았사오니. 만일 부인 중에 조 금만 예의를 아는 자가 들으면 역시 반드시 원수를 잊고 구차히 사는 것을 부끄럽 게 여겨 함께 비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아아! 한도(漢都)의 적 은 곧 서경(西京)의 적이요. 다음날 조정에 있을 신하는 곧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 하입니다. 하온데 오늘날 서경(西京)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사오니 어찌 다른 날 한도(漢都)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정 신하로 하여금 이 적

²⁵ 삼십육책(三十六策): 三十六策走爲上計, 삼십육제에 줄행랑이 제일이란 말과 같은 뜻, 곧 딴 계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우선 도망하여 화를 피한 연후에 방책을 서서히 세우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는 말.

²⁶ 호전(胡銓) : 송(남송(南宋))의 학자. 호(號)는 담암(澹庵) 고종(高宗) 때 추밀원 편수(框密院編修)가 됨. 소흥(紹興) 말년에 재신(宰臣) 진회(秦檜)가 유화책(柔和策)을 주장했으나 그는 이를 반대하다가 소주(昭州)로 쫓겨 갔다.

²⁷ 고량세씨(高凉洗氏) : 남북조(南北朝) 고량 세씨(高凉洗氏)의 딸 세부인(洗夫人). 주략(籌略)이 있고 병법(兵法)을 알았고, 양(梁)나라 대동(大同) 초년에 고량태수(高凉太守) 풍보(馮寶)에게로 시집갔는 데, 고주자사(高州刺史) 이천사(李遷仕)가 모반하자 부인이 스스로 가 쳐서 크게 이겼다.

을 섬멸하기를 도보하고 손을 마주 잡고 물러가 앉아서 한결같이 성천(成川)의 고 사(故事)를 따른다면, 저하께서 비록 먼 딴 도(道)에 가신다 해도 한갓 가시느라 수 고롭기만 하고 끝내 피란할 뿐일까 두렵습니다. 하오니 저하께서 혹 능히 몹시 스 스로 힘쓰시고 또 군신들의 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신칙하여 서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날카롭게 하여 나가서 토벌한다면 서쪽의 적이 비록 강해도 또한 소탕해 쓸어버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온데 알지 못하거니와 저하께 서는 양경(兩京)의 적을 무엇을 가려서 반드시 이것을 버리고 저쪽으로 나가시려 하십니까.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저하께서는 이미 감무(監撫)의 명령을 받고 오랫 동안 회복의 책임을 맡아 동쪽으로 오신 지 여러 달에 아직까지 촌토(寸土)라도 회 복하여 조금이라도 군부의 욕됨을 씻지 못하고 힘이 없이 게으르게 한결같이 물러 가 움츠리고 있다가 겨우 적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직 두려워서 피하기를 지 체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거니와 저하께서 다음 날에 무슨 낮으로 대조(大朝)를 대 하시렵니까. 또한 알지 못하거니와 저하께서는, 장차 어찌 여러 장수가 두려워하 고 겁내어 달아난 것을 책망하시렵니까. 조종의 하늘에 있는 영혼이 어찌, 나에게 자손이 있다고 말하겠으며, 온 나라의 신민들이 어찌, 우리 임금의 아들이 능히 우 리 임금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신(神)이 위에서 노여워하고 백성이 아 래에서 원망하면 깊이 두렵건대 저하께서 장차 신(神)과 사람에게 스스로 해명하 실 수 없을 것입니다. 기(記)에 말하기를. 군부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 밑에 살지 않 는다고 했사오니, 그 한 사람과도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날 은 원수와 함께 한 하늘 밑에 산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하께서 적 을 토벌하는 것이 하루가 늦으면 하루의 책임을 지는 것이 되고. 한 달이 늦으면 한 달의 책임을 지는 것이 되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까닭에 소인의 어 리석은 소견으로 생각하건대 오늘날의 일은 나가서 토벌하는 이외에는 다시 좋은 방책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만승(萬乘)의 임금으로서도 오히려 친정(親征)한 일 이 있사온데, 하물며 저하께서는 바야흐로 동궁(東宮)에 계시어 위로 주상(主上) 이 계시고 몸이 신자(臣子)로 있어. 눈으로 군부의 위험한 것을 보고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아 구차히 안일한 것만 구하십니까. 오늘날의 저하를 위한 계획은 친히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몸이 시석(矢石)을 무릅쓰면서, 애통한 교서 를 내려 인심을 격동시키고, 원수(元帥) 이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를 효수(梟首)하 여 사기(士氣)를 격려하시며, 제때에 적을 토벌하여 성을 등지고 한번 싸울 계획을 하면 비록 피로하고 용렬한 소인(小人)이라도 오히려 죽음을 당하여 간과 뇌(腦)가 땅에 흩어지기를 원하여 사졸(士卒)보다 앞설 것이오니, 대체로 혈기가 있는 자라 면 누가 피는물을 흘리면서 분연히 발꿈치를 돌이키지 않고 나가서 죽을 것을 생 각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오늘의 형세는 싸워도 또한 위태롭고 싸우지 않아도 또 한 위태로운 형편이오니,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죽기로 싸 워 결단하여 마음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설사 불행한 일이 있 다면 마땅히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함께 사직을 위하여 죽는 것도 오히려 둘 사 이에서 살기를 구하고 목구멍 밑에서 기운을 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 한 소인은 듣자오니 서경의 적은 만 명에 차지 않고. 관군과 의병은 족히 그 갑절 은 되어 저들은 적고 우리는 많으며, 저들은 삐뚤어졌고 우리는 곧으며, 저들은 교 만한 군사요 우리는 의리로 일어났으며, 저들은 오직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는 활과 화살이 바야흐로 강합니다. 이로 인해서 난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화를 뉘우치는 하늘의 뜻에 대답하는 것이오니. 이치와 형세로 따져 볼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요. 혹 중국 군사의 성원(聲援)을 타서 북을 치고 앞으로 나 가 동서에서 협격하여 이 적을 친다면 삼군(三軍)의 기운이 싸우지 않고서도 저절 로 갑절이나 되어 서경의 적을 날을 가리키는 동안에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런 후에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서 함께 남은 적을 섬멸하고, 친히 대병을 거느리 고 곧은길로 쫓아 계속해 나가면 한도(漢都) 이북은 두 번 싸우지 않고서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오니 어찌 쾌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거니와 저하께서는 무엇을 여기에 꺼려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하께서는 혁연히 분발하시어 이 뜻을 굳게 정하시고. 뜬 의논에 빼앗기지 마시며 이해(利害)에 움직 이지 마시와 밝게 대의(大義)를 내걸고 지극한 부끄러움을 씻으시와 위로 군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래로 신민이 바라는 바를 위로하시면 종묘와 사직에 몹시 다 행하겠고, 국가에 몹시 다행하겠습니다. 소인은 또 깊이 생각하옵건대 저하께서는

어질고 밝은 것은 남음이 있으시나 웅무(雄武)한 바탕은 혹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때문에 일을 처리할 때 능히 굳세게 과단을 내려 쾌하게 결단하여 의심이 없 게 하지 못하시고 부드러운 기운이 점점 번져서 지기(志氣)가 무너지고 게을러서. 호령을 내리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크게 인심을 위로하지 못하여, 상벌이 혹 밝지 못한 것이 있고 정령(政令)이 혹 행해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야에서 진언(進言)하는 자들은 다만 빈말로 칭찬을 받아도 별로 시행한 사실이 없고. 사 졸의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는 한갓 헛글로 위로만 할 뿐 진념(珍念)의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조석으로 함께 거처하는 자는 홀로 환관(宦官) 두어 사람이 있을 뿐, 자 주 이웃 신하와 만나서 시무(時務)를 묻지도 못하고. 경연(經錠)에서 강론하는 것 은 겨우 소학(小學) 두어 장(章)일뿐, 능히 노성(老成)한 사람과 가까이해서 의리를 밝히지 못합니다. 적을 토벌할 뜻이 도타우 것이 아니나 매양 용렬한 사람의 무너 뜨리는 바가 되고. 난을 평정할 정성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아직도 실지의 효험이 지극한 것이 없이 맘 놓고 놀면서 고식(姑息)으로 구차히 세월을 연장해서. 이 때문에 은택(恩澤)이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인정이 위로 통하지 못해서 모든 민 생이 실망하고 전사(戰士)가 해체하고 있사오니. 이는 모두 나라를 회복하는 데 크 게 꺼리는 바요 저하가 마땅히 경계할 바입니다. 대체로 일을 하는 데는 역시 모름 지기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적을 토벌하고 복수하는 것이 어떠한 일 이기에 어찌 굳게 이 뜻을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제 마땅히 철저히 먼저 글렀 던 것을 고치고 다시 격려를 더해서 확실히 돌이키고 뚜렷이 판단하여 분연히 하 는 일이 있으면 중흥의 사업이 반은 지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하께서 는 유의하시옵소서.

10월 일

유 공주 부로 군민서(諭公州父老軍民書)

황사숙(苗思叔)

왕세자는 말한다. 내가 나서 이 백 가지로 얽힌 일을 당해서 이미 많은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여 백성들의 수고로움이 거의 쉴 만한데. 어찌 함께 일어날 때 일을

구제하여 내 심복이 신장(腎腸)을 펴 주지 않는가. 너희 기로(耆老)와 사서(士庶)에 게 고하노니, 오직 지난해에 파천한 이후로 차마 당일의 어렵고 위태롭던 일을 말 하리오. 한(漢)나라의 한 모퉁이에 체류하면서 몇 번이나 부로(父老)를 생각하는 마음 간절했던가. 수레가 고국(故國)으로 돌아와 다행히 천지의 은혜를 입으면, 마 땅히 비색한 운수가 극도에 달하면 행운이 오는 법인데 어찌하여 전쟁이 계속되어 화가 맺혀지는가. 백성은 이제 바야흐로 위태로워서 상천(上天)의 흐뭇함을 보고. 나는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 사방을 보면서 슬퍼하네. 오직 이 난리의 병통으로서 너희 생민이 못살게 만들었도다. 물건을 운반하기에 힘이 피로하니 사람은 어깨가 붉어지고 말은 등에서 땀이 나고. 법을 재촉하고 정치가 급하니 호포(尸布)를 거두 고 전세(田稅)를 받는다. 그 위에 중국 군사가 왕래하고 계속해서 사신이 연락부절 해서 흠집이 난 뒤에 몰아붙이고. 얼고 굶주린 나머지에 매름 때린다. 곡식을 거두 고 곡식을 긁는 것이 마땅함을 어기었으니 능히 임금의 뜻을 편안케 하는 자가 몇 이나 되며, 이웃을 침략하고 동족(同族)을 침략하는 것이 병이 되니 모든 백성의 해가 되는 것이 실로 많도다. 노고(勞苦)는 대개 연도(沿途)에 인연했고 도탄(塗炭) 은 도리어 적을 꺾은 데에 심하다. 하물며 지금 여러 길에서 마련하는 것은 역시 양호(兩湖)에서 나는 물건일세. 고혈(膏血)과 근해(筋骸)를 한 물건도 취하지 않은 것이 없고, 분주하게 역사(役使)하니 어찌 촌각(寸刻)인들 혹시라도 한가하랴. 갸 특하다. 부자 사람의 항산(恒產)이 있는 것이요. 이 궁한 백성의 고할 곳 없는 것 슬프다. 나의 보잘것없는 몸을 돌이켜 보니 명령을 받은 뒤로 공사 간의 저축이 하 나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소비를 더했고. 서남쪽의 힘이 다 하니 다시 이 조발(調發)의 번거로움이 있다. 네 비록 힘써서 수고롭게 일하나 나 는 홀로 무슨 마음으로 너를 차마하랴. 매양 생각이 이에 미치면 내 몸이 병든 것 같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게을리 하랴. 마음이 아 프고 머리를 앓으니 삶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 공주 땅은, 실로 호우(湖右)의 거 진(巨鎭)이다. 흙처럼 무너지고 기와처럼 헤어지는 때를 당해서 이미 능히 죽기로 지킬 마음을 굳게 했으며 임금이 욕되고 신하가 죽는 때를 당해서 어찌 나라의 급 한 데에 나가지 않으랴. 오히려 너희들의 노력함을 원하노니, 나의 오늘의 괴로운

회포를 알아 달라. 한갓 부로(父老)들만 괴롭게 했으니, 무슨 덕으로 갚을지 부끄 럽다. 국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바라건대 아들과 함께 원수를 같이 하라. 군신은 부자의 친한 것과 같거니. 간담이 어찌 존비의 차가 있으랴. 너희들 의 병들고 괴로운 것은 일이 큰 것이 없이 모두 의논할 수가 있고.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니 말이 비록 미친 듯하나 역시 죄를 주지 않는다. 지극히 적고 적은 폐단이 라도 일일이 조목을 들어 말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일은 명령하고 시행할 것이 있 으니, 내 어찌 고치지 않으랴. 너희로 하여금 천단해 하게 하니, 스스로 마땅히 풀 게 해서 재가를 얻으라. 이미 장차 지난번 군사의 가포(價布)와 작미(作米)하는 것 및 이웃 일족(一族)에게 받아내는 폐단은 □□□ □□ 한결같이 조정의 뜻에 의하 여 모두 면제하고,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모으는 일도 모두 억지로 정하여 빼앗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 나머지 일체의 병자들은 또한 유사(有司)로 하여금 상의하 여 제거(除去)하고 폐할 수 없는 자는 곡식을 운반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복수하고 부끄러움을 씻기를 기약할 뿐이다. 그러니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게을리 하지 않고 부득이한 역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윗사람을 친하게 하고 그 어른을 위해서 죽 어, 너희는 진실로 당시의 어려운 일에 스스로 힘을 내어,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 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니 내 감히 혹시라도 나라 일에 사사로운 마음 을 가지라. 아아! 너에게 베푸는 것이 어찌 적으며, 너에게 바라는 것이 어찌 깊으 냐. 전쟁 2년 동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옛날에도 일찍이 없던 화란(禍獨)이요. 원수와 함께 한 하늘 밑에 살고 있으니 나는 곧 군친(君親)을 저버린 것이 있도다. 혹 힘을 다하는 충성에 힘입어서 난을 평정하는 업적을 이루려 한다. 까닭에 이와 같이 하시(下示)하는 바이니 마땅히 그렇게 알지어다. 어릴 때로부터 영의정 공(領 議政公)께서 손수 쓰신 《쇄미록(瑣尾錄)》 7권이 종손(宗孫)의 집에 간직되어 있다 는 말은 들었으나 항상 미처 받들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을 하나의 큰 한(恨)으로 여 겼다. 그런데 마침 지난해에 용인에 사는 족형(族兄) 시영(時泳)이 와서 동종(同宗) 들을 찾아보고 한번 모였는데, 이때 말이 옛일을 추모하는 일에 이르러, 이를 간행 할 뜻으로 공의(公議)가 크게 일어났다. 이에 본초(本草) 한 꼭지를 받들어 가져다 가 족형은 시영에게 청했더니 족형은 근로(勤勞)를 사양하지 않고 친히 사손(祀孫)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화영(和泳)의 집에 찾아가 그 본말(本末)을 말했더니 화영도 특별히 내주므로 이 것을 행담 속에 넣어 가지고 즉시 돌아왔으니 족형의 추모(追慕)의 정성이 몹시 간절하고 몹시 돈독하다. 그러나 이 난리를 당해서 온 나라가 물결치듯 달려가서 시정(時情)이 이롭지 못하여 크게 막히는 바가 있다는 뜻으로 아직 정간(停刊)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조의 수적(手蹟)이 인몰(湮沒)될 것이 두려워서, 족형과 함께 1개월에 걸려서 표지를 고쳐서 여러 종중(宗中)에 나누어 주어 각각 본초(本草)에 배접을 하고 또 베껴서 길이 사모하는 뜻을 표시하게 했다. 이리하여 종중 의논이 오늘에 시작되어 후일에 끝나게 되었으니, 몹시 다행한 일이다.

조선 개국 550년 기유(己酉) 8월 초길일(初吉日) 11대손 봉영(鳳泳) 삼가 씀.



을미일록 | 乙未日錄

정월

1일. 날이 밝자 일어나서 어머님께 가뵙고 다락 위에 올라가 아버님 신주(神主) 앞에 절하고 나서 다례를 올렸다. 겨우 만두를 넣은 떡국 군고기 한 그릇, 탕(湯) 한 그릇에 잔을 올렸을 뿐이다. 가난해서 찬을 준비하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또 이 군(郡)에 와 있은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나 달리 갈 길이 없고 궁박(窮迫) 함은 날로 심하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제 새해를 만났건만 아우와 두 아들과 함께 한집에서 지내지 못하니 더욱 스스로 슬픈 감회가 생긴다. 또 윤해가 선조 묘소에 가뵈었는지 더욱 걱정을 잊을 수가 없다. 이웃 마을에 사는 아는 하인들이 새해라고 해서 와 보는 자가 많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 오직 볶은 콩한 주먹과 신 술 한잔을 주고, 혹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도 있으니 한스럽다. 변응익이 찾아왔기에 신 술 두 잔을 먹여 보냈다. 그에게 들으니 새 태수는 변호겸 (邊好謙)이 제수되었는데 그는 진잠태수(鎭岑太守)로서 옮겨 왔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승진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저녁에 함열 사람이 서울에 가다가 들러서 여기에서 잤는데 딸이 편지를 보내고 또 생전복 24개를 보냈다. 이튿날 구워서 천신(薦新)하고 어머님께 드릴 작정이다.

2일. 날이 봄처럼 따뜻하다. (결(缺)) 형세가 쉽게 건널 수 없으니 다시 수일 기다려서 다 녹은 후에 떠날 작정이다. 낮에 조 좌수 광철·집주인 최인복 및 전문(田文)이 와 봄으로 신 술을 대접했다. 안주가 없어서 볶은 콩 한 주먹과 조기 반 토막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崔)와 전(田) 두 사람은 각각 큰 그릇으로 넷씩을 마시고 흩어져 갔다. 저녁에 함열 딸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제사 지내고 남은 절병 및 군고기를 모두 행담에 넣어 보냈다. 즉시 처자들과 함께 먹었다. 또 들으니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명화적(明火賊)이 칼로 모자를 죽이고 가재를 다 약탈해 갔다고 한다. 또 세동(細洞)에도 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서 밤에는 모이고 낮에는 흩어진다고 하니 두렵고 걱정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또 들으니 사람을 죽인 적은 어제 잡혔는데 심문해 보니 일일이 다 불었다고 하니 쾌하다.

- 3일. 종일 집에 있으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딸의 청에 의해서 《언해초한연의(諺解 楚漢演義》》를 둘째 딸을 시켜 베끼게 했다.
- 4일. 아침 식사 후에 유선각을 가서 보고, 그 길로 동송동(冬松洞)으로 가서 먼저 조문화(희철)를 찾았더니 마침 여기 사는 조 좌수 응립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느라고 해가 저무는 것도 몰랐다. 돌아올 때 조 한림(희보)의 집에 들러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고개를 넘는데 왕래하는 사람이 끊어져서마음으로 몹시 두려워서 간신히 집에 돌아오니 밤이 깊었다. 윤겸의 종 세만이 왔는데, 윤겸이 찹쌀 1두 2승·목미(木米) 5합(合)·붉은 팥 7합·생치 1마리·굴 3 사발을 보냈다. 이는 내일 제 어머니 생일을 위해서이다. 함열 아노(衙奴)도 또한 왔는데 백미 1두·조미(祖米) 1두를 지고 왔고, 딸이 또한 요미(料米) 1두를 보내서내일 떡을 만들어 제 어머니께 바치게 했다. 이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습창(潔瘡)이 크게 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윤겸이 돌아갈 때 청양군수에게 들러서 만났더니 청양군수가 말하기를 올 때 윤함을 만났더니 오래지 않아근친 온다고 하더란다. 그러나 청양 군수가 바뀌었으니 반드시 속히는 여기에 오지 못할 터요, 또 소식도 들을 수 없을 테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청양군수의 부인을 모시고 올 인마가 요새 온다고 하므로 생각에 그편에 함께 오리라 했었더니 이제 오지 못하니 더욱 탄식함을 금치 못하겠다.
- 5일. 조 좌수 희윤과 이웃에 사는 조응개가 찾아왔으나 집에 술과 안주가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또 예산 김 한림(김지남)에게 어머님이 만드신 옷을 보내려고 세만을 머물러 두었다가 편지를 써서 전하도록 했다. 결성에서는 거리가 하룻길이라 하기 때문에 윤겸으로 하여금 전해 보내게 한 것이다. 이곳에는 종이 하나밖에 없어서 틈이 없으므로 부득이 이렇게 한 것이다.
- 6일. 이른 아침 식사 후에 먼저 세만을 결성으로 보내고 좀 늦게 떠나서 배로 남당 나루를 건너 달려서 함열에 도착하니 해가 아직 기울지 않았다. 딸에게 들어가 보니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딸은 내가 왔단 말을 듣고 만두를 만들어 주므로 이것을 한 사발 다 먹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밖으로 나가서 잤다.
- 7일. 딸과 종일 이야기했다. 오후에 소즐이 익산으로부터 와서 같이 잤다. 임계도

또한 따라왔다.

8일. 일찍 식사한 후에 소즐과 함께 떠났다. 마침 날씨가 몹시 차고 서풍이 또 불어서 발이 얼고 손이 시리고 두 볼이 추워서 자못 견디기 어렵다. 혹 걷기도하고 혹 말을 타고 남당나루에 이르러 함열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돌려보내고 배로 건넌 후에 이불보를 막정에게 지우고 집에 오니 해가 아직 대낮이다. 올 때 예(例)로보내는 중미(中米) 2말·조미(祖米) 2두를 가지고 왔다. 소즐이 돌아가려 하는 것을 억지로 붙들어 저녁밥을 대접하고 일이 있어 여기에서 잤다.

9일, 날이 밝기 전에 소즐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만 지난밤에 찬 기운이 몹시 심한 데 방은 차고 이불은 얇아서 밤새 편안히 자지 못했다. 젊은 자는 그래도 되지만 늙은 어머님은 망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여기 와서 들으니 윤해가 타고 간 내 말안장을 함열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전해 왔다. 그편에 윤해의 편지를 보니 돌 아갈 때 평택에 도착하여 함열태수와 헤어져서 진위로 들어갔다고 했다. 다만 마 침 일기는 차고 행구(行具)가 몹시 얇아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고 하니 불쌍하다. 또 황해도 안악(安岳)에 계집종 복시가 낳은 종 하수가 중이 되어 가지고 도총섭 (都摠攝) 의엄(義嚴)을 따라서 이제 홍산 무량사(無量寺)에 와 있다가 오늘 낮에 추 심(推尋)의 일로 와 보니 불쌍하다. 저녁밥을 먹여 보냈다. 복시는 본래 외조모가 얻은 종 흔대(欣代)의 딸인데 잘못되어 이상(二相)댁 종 애덕(愛德)의 딸이라고 일 컬어졌다. 우봉(牛峯)댁이 피란하여 그곳에 들어갔을 때 가재를 모두 빼앗고. 또 그 여러 아들들을 때려 한 아들은 매맞다가 죽는 등 여러 가지로 침해하여 그 괴 로움을 이기지 못하겠으므로 이제 와서 찾아보고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한 다. 승명(僧名)은 의균(義均)이라고 한다면서 종이 두 묶음을 바친다. 저녁에 송노 가 돌아와 윤해의 편지를 바치는데 온 집이 아무 일도 없다고 했다. 그편에 들으니 이정시가 별좌에 제수되었다가 반대 의논을 당했다니 한스럽다.

10일. 아침 식사를 겨우 마치자 함열태수가 마침 왔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먼저 남포로 가서 그 누님을 만나 보고 어제 홍산에 와 자고서 아침 식사 전에 이곳으로 온 것이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여 관청으로 돌아가게 했다. 순찰사 군관 이시호(李時豪)가 마침 함열태수가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와 보았다.

그는 곧 함열태수의 6촌간이다. 소즐도 역시 와서 보고 돌아갔다.

11일. 지난밤 눈이 내리더니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분다. 막정이 세목(細木) 한 필을 토옥(土屋) 안에 두어두었었는데, 어제 함열태수가 왔을 때 비복들이 모두 나간 새에 누가 훔쳐 갔다고 하니 필시 향춘의 남편 문경례(文景禮)의 소행일 것이다. 경례는 종일 그 안에 있었고, 이외에 의심할 만한 자도 없으므로 상하가 모두 그를 지목하니 밉살스럽다. 그러나 아직 잡히지도 않았으니 또한 누가 한 짓인지 모르겠다. 또 송노를 함열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게 했다. 또 들으니 함열 아노가 수공할 일로 영암으로 내려간다 하므로 임매에게 편지를 써 주어 전하게 했다.

12일. 아침부터 흐리더니 오후에 비가 내린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의례 보내는 백미 2두·조미 2두를 지고 왔다. 또 막정이 서쪽으로 가는데 쓸 행량 2두 5 승과 마태(馬太) 3두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러나 쌀은 모두 2되·콩은 5되가 줄었으니 필시 송노가 훔쳐 쓴 것이라 밉살스럽다. 감장 3되도 또한 가지고 왔다. 딸이은어 3두름도 또한 보냈다. 저녁밥 지을 양식이 이미 떨어졌는데도 얻을 길이 없어 바야흐로 민망하던 차에 이 쌀을 얻었으므로 즉시 상하가 밥을 지어 먹으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한집의 생애를 오로지 여기에 의뢰하여 조금만 더디거나 어기어도 갑자기 굶주리는 근심을 당하니. 어버이를 모신 도리에 더욱 민망하다.

13일. 아침 식사 후에 인아가 제 누이를 보려고 막정을 데리고 함열에 갔다. 다만 날씨가 차고 바람이 부는데 남바위도 없으니 걱정이다. 마침 임 참봉댁 종이 들어 와서 함열에 가 제수(祭需)를 구한다고 하므로 편지를 가지고 같이 갔다. 오는 16 일이 면부(免去)의 소상(小祥)이라고 한다. 가련하다

14일. 집주인 최인복이 와서 보았다. 저녁에 경여의 종 명윤(命允)이 수원으로부터 와서 경여 부인의 편지를 전하는데 무사하다고 했다.

15일. 약밥을 만들어 신주께 올렸다. 다만 반찬이 없어서 다만 건은어 다섯 마리로 안주를 만들어 올렸으니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분개(粉介)가 전일 잃은 필목은 집 뒤에 두어둔 것을 분개가 아침 식사 전에 아침 방아를 찧으려고 갔다가 얻었다 하니 필시 훔친 자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도로 이곳에 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향비(香婢)의 남편 문경례를 의심한다. 또 명윤이 그 상전의 편지를 짊어

지고 함열에 갔으니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 임 참봉의 집에서 빌려갔고, 오늘 또 경여의 아내가 종을 함열에 보냈으니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생각건대 딸 이 몹시 민망해할 것인데 어떻게 대우했는가 걱정스럽다. 명윤이 왔는데 마침 양 식이 떨어져서 죽을 쑤어 주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또 막정은 어제 남당에 도 착했으나 마침 해는 저물고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나룻가 인가에서 자고 오 늘 아침에 돌아왔는데 딸이 팥떡 1행담·청주 1병·강생선 4마리를 보냈다. 이는 곧 함열태수가 서울에서 와 들으니 집사람 생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딸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술과 안주와 함께 보낸 것이다. 즉시 강생선을 굽고 탕을 만들어서 술 과 떡과 함께 신주께 올린 후에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막정은 또 함열 아노에게서 바꾼 쌀 10두를 실어 왔다. 전일에 들으니 함열 종이 흥판(興販)의 일로 쌀을 싣고 영암으로 내려갔다가 짐이 무거워 가져올 수가 없어서 어머님으로 하여금 바꿔 쓰 시게 했다 하므로 5두는 어머님께서 쓰시고 임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과 같이 갚 도록 하고, 또 5두는 우리 집에서 쓰고서 편지를 장성태수(이귀)에게 전하여 내주 게 했던 것이다. 또 저녁에 함열 사람이 왔는데 딸이 약밥 한 행담을 얻어서 보냈 다. 낮에 집주인 최인복을 불러서 약밥 및 어탕에 탁주 넉 잔을 주어 돌려보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전 상좌(田上佐)가 와 보고 갔다. 저물녘에 이광춘이 와서 봄으 로 청주 한 대접을 대접했다. 이제 보니 생원은(윤해) 말이 없어서 서울에 가지 못 하고 율전(栗田)까지 걸어가서 정조(正朝)에 망제(望祭)를 지냈다 한다. 형편이 그 러니 어찌하리오. 탄식스럽다. 난리 후 이제 3년 동안에 타향에 떠돌고 있고, 갈 길이 또 먼 데다가 가고 올 때 양식도 없고 말도 없어서 한 번도 선조 묘소에 제사 를 올리지 못하니 비록 형편이라고 하지만 몹시 슬픈 감회를 이길 수 없다.

16일. 저녁에 무료하게 지냈다. 인아는 함열에서 만류해 오지 않는다.

17일. 피란해서 여기에 와 있는 사인(士人) 한백복(韓百福)이 와서 보고 함열에 사는 횡노(橫奴)를 잡아 다스려 달라 하므로 즉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전에 비록 알지 못했지만 인정에 구애되어 부득이 했다. 또 저녁에 안악에 사는 계집종 복시가그 족질(族姪)인 중 성호(性浩)를 시켜 와 보고 말하기를 우봉(牛峯)댁의 침해를 받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장차 떠나 흩어지기에 친히 와서 구원을 청한다고 한다. 그

러나 멀어서 힘이 미치지 못하니, 형세라 어찌하리오. 연목(鍊木) 반 필을 갖다 바친다. 또 올 때 해주 윤함에게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으므로 펴 보니, 지난 동짓 달 20일에 써서 보낸 글이다. 그때는 온 집이 무사하다고 했으나 그 후 소식을 묘연히 듣지 못하니 걱정이다. 또 내일 막정을 양덕에 보내서 지나가는 길에 마전(麻田)에 들러 내 편지 및 어머님 편지를 전하게 하여 다시는 침해하지 말라고 할 작정이다. 그러나 우봉댁 성질이 사나워서 평일 동복 사이에도 또한 반목하는 일이 많았으니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또 잘난 체하는 처지이니 남의 말을 듣고 고쳐지겠는가,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18일. 밤에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막정은 이제 떠나서 양덕으로 향하는데 결성 윤겸에게 들러서 윤겸의 종과 같이 갈 것이다. 윤해도 역시 가고자 하므로 먼저 진위로 가면 역시 모시고 가게 할 것이다. 또 고성 누이에게 편지를 해서 양덕으로 하여금 영유(永柔)에 전하게 했다. 정목(正木) 한 필 반을 양덕에 전하게 했다. 오늘은 눈이 와서 막정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게했다. 한식(寒食) 전에 돌아오게 하려면 하루가 급하기 때문이다. 또 이제 안악에사는 계집종 복시의 편지를 보니 작년 신공(身貢)으로 9승목(升木) 두 필을 막정이오는 편에 보낸다고 했으나 막정에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하니 필경 제가 쓰고서 숨기는 것이리라. 밉살스럽다. 그러나 다음 날 대질시킨 뒤에 징계할 계획이다. 덕노가 옮겨 간 뒤로 도처에서 상관의 물건을 훔치더니, 또 황해도에 사는 종들의신공(身貢)까지 사사로이 멋대로 쓰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으며, 딴 종에 이르러서도 또한 훔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윗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막정까지 또한 본반았으니 더욱 몹시 밉다.

19일. 안악 중 성호에게 패자(牌字)를 주어서 돌아가게 하는데 조석 식사를 주고 또 양식 3되를 주었다. 윤함에게 또 편지를 써서 이중으로 하여금 전하게 했다. 어 제부터 눈이 내린 후에 일기가 몹시 차니 민망스럽다.

20일. 인아를 데려오려고 송노가 말을 가지고 함열로 갔다. 식량과 반찬이 떨어졌으니 또한 구해 가지고 와야겠다. 들으니 집 뒤 방축 못에 붕어가 많이 모인다고하므로 즉시 그물을 가져다가 쳤더니 20마리를 잡았다. 강비(江婢)의 남편 한복이

손을 깊이 넣어서 또 세 마리와 비늘 없는 고기 두 마리를 잡았다. 즉시 찌개 해서 저녁밥에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과 나누어 먹었다. 또 저녁에 윤해의 처갓집 종 말직복의 아들 의수가 공주 땅으로부터 그 어미를 찾으려고 왔다. 그 어미의 생사를 모른 지가 오래인데, 연전에 들으니 그 어미가 이곳에 있다 하므로 이제 비로소 찾아온 것이다. 가련하다. 조석 밥을 먹여 보냈다.

21일. 아침에 눈이 내렸다. 임 참봉(면부)의 종의 남편 함석(咸石)이 왔으므로 즉시 편지를 써 주었다. 들으니 함열에서 조미 3두 · 묵은 콩 2두 · 찹쌀 1두 · 찹쌀가루 1두를 주었다 한다. 송노가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백미 3두 · 뱅어젓 3되를 보내서 지고 왔고 또 따로 콩 1석 · 거친 벼 1석 · 누룩 3장을 주어서 싣고 왔다. 콩은 다시되어 보니 14두로 벼는 13두이다. 이는 본래 묵은 벼로서 거칠고 잘 영글지 않은 때문이다. 한스럽다. 콩은 말장을 담으련다. 윤해의 처갓집 종 임실이 와서 경수 (조응록)의 편지를 전하므로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22일. 이른 아침에 들으니 한산태수(신경행)가 그저께 저녁에 군에 도착해서 어제 환상곡을 나누어 주었다 하므로 식사 전에 들어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들어 간 것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미처 환상곡을 받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이제 조보(朝報)를 보니 왜적은 중국 조정과 강화했기 때문에 근간에 마땅히 제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중국 사신은 3월 사이에 나올 것인데, 하나는 왜국을 봉(封)해 주고, 하나는 왕세자를 책봉한다고 한다. 이 상(李相) 산해(山海)를 석방하여 직함을 도로 주도록 입금의 말씀이 있었고, 유 상(俞相) 홍(泓)은 지난 선달에 죽었는데 반대의 의논을 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죽었다. 왜적을 비록 토멸(討滅)하지는 못했으나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고 만일 저희 소굴로 돌아간다면 생령이 거의 어깨를 펼길이 될 것이니 그 다행함이 어떠하랴.

23일. 흐리고 비가 오면서 바람이 크게 부니 찬 기운이 갑절이나 맵다. 이웃 사람의 소와 말을 빌려서 송노·한복을 시켜 성민복(成敏復)의 산에 가서 죽은 소나무를 베어 오게 했다. 말장 담글 콩을 삶기 위해서다. 성 공(成公)에게 패자를 받아보냈다. 금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묘지기(墓直)에게 낫과 도끼를 다뺏기고 만다.

24일. 한복을 시켜 방을 고쳐 놓고 솥도 다시 걸었다. 그리고 말장 담글 콩 6두를 삶았다. 또 상판관이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 성민복의 집에 들렀는데 나는 이광춘 과 함께 걸어서 따라가 성 공(成公)과 조용히 이야기했다. 주인집에서 우리들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판관이 먼저 일어나기에 나도 또한 따라서 돌아왔다. 또 들으니길 뒤 고개에서 그저께 밤중에 밝은 횃불을 들자 원근 세 곳에서도 역시 불을 들어서로 호응했다고 한다. 필시 적의 무리들이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는 것이니, 두렵고 걱정될 뿐이다. 송노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붕어 세 마리를 얻었는데 한 마리는 크다.

25일. 방수간이 와 보았다. 또 함열 아노(衙奴) 춘복이 일이 있어 온양에 가다가 여기에 들려 딸의 안부는 전했지만 편지를 보지 못하니 한스럽다.

26일.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인아를 데려오게 했다. 그러나 말이 피로해서 끌고 갈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말을 빌려 타고 왔다.

27일. 인아가 함열로부터 말을 빌려 타고 왔다. 다만 요새 날씨가 차서 심동(深冬)보다도 갑절이나 맵더니 오늘은 또 어제보다도 더 찬데, 인아가 남바위도 없이 추위를 참고 억지로 오노라니 얼굴이 언 배(梨)와 같으니 감기에 걸렸을까 깊이 두렵다. 함열에서 중미 4두를 주어서 송노가 지고 왔다. 또 뱅어젓 3되·찹쌀가루 5되를 얻었는데, 다만 쌀은 4되 반이나 줄었으니 말(斗)을 줄여서 보낸 것일까. 오늘은 인아가 데리고 왔으니 중로에서 반드시 훔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렇게까지 준단 말인가. 괴이한 일이다.

28일. 날씨가 몹시 차서 종일 문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노라 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단아의 학질은 전일보다 더 심하니 민망하다. 연전에는 온 집안이 학질을 앓는 자가 많았어도 모두 떨어졌는데 홀로 단녀와 계집종 눌은개만 이 지금까지 면치 못하고 있어 전과 같이 앓으니 탄식스럽다. 요새 반찬이 떨어져서 오직 뱅어젓만을 조석으로 지져서 어머님께 드리고 딴 것이 없으니 민망함을 어찌 다 말하라.

29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윤해가 서쪽으로 간 것은 거리를 계산해 보니 지금쯤 이미 서울을 지나서 마전(麻田)에 당도했을 것 인데, 떠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눈과 추위가 이와 같은데 행장이 몹시 얇아서 행로에 반드시 어려움이 많을 터이니 깊이 조심됨을 금할 수 없다. 윤겸의 소식도 오래 듣지 못하니 더욱 근심됨을 늦출 수 없다. 가까운 곳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윤함의 소식을 얻어듣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우는 영암으로 내려간 후로 아직도 거기에 체류하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소식이 끊어져서 노모께서항상이 때문에 걱정하시니 민망스럽다. 만일 태인으로 돌아왔다면 반드시 사람을시켜 문안했을 것이다. 각각 먹을 것을 도모하느라고 부자 형제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누어 있어 한곳에 합치지 못하니 형세라 어찌하리오. 다만 천운을 원망할 뿐이다. 또 종일 눈이 내렸는데 만일 녹지 않았다면 거의 한 자가 넘을 것이다. 겨울로 눈이 많은 것이 오늘 같은 때가 없었다. 저녁에 향비(香婢)가 함열에서 왔는데닭 1마리 · 대구 1마리 · 방어 1토막을 보냈다. 또 지평댁 계집종 천옥이 마침 왔는데마른 은어 2두름을 보냈다. 그는 곧 한집에 같이 살던 자로서 함열 땅에 임시로와 있는 터이다.

그믐날. 아침에 들으니 한산태수(신경행)가 군에 도착했다 하기에 사람을 시켜서 사정을 물었더니 중국 군사 돌보는 일로 이산으로 가다가 여기에 들러서 잔다고 한다. 또 걸식하는 무녀(巫女)가 자칭 태자(太子)라고 하면서 문밖에 와 서서 휘파람 소리가 맑고 깨끗하다. 집사람이 그를 불러 들여 길흉을 물었더니 지나간 일은 혹 맞는 것도 있다. 나는 방 안에서 무료하던 나머지에 홀로 바둑판을 대하여 추자(楸子) 놀이를 하는데, 집사람이 묻기를 대주(大主)께서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만일 그것을 알아내면 가위 영험하다 하겠다 했다. 이에 태자는, "대주가 혼자 앉아서 추자 놀이 우습다 우스워"하고, 웃음 섞인 말로 두세 번 거듭하니, 아이들이 놀라서 신령스럽다고 한다. 이는 곧 천지 사이의 한 간사한 기운이 사람에 의해서 괴상한 짓을 하여 혹 길흉을 이야기하여 밥 얻어먹는 방법으로 삼는 것이니 이 같은 무리는 가끔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풍속에 현혹되니 탄식할 일이다.

2월

1일. 떡과 탕과 구이를 가지고 신위 앞에 술을 올렸다. 종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대순(大順)이 태인 아우의 집에서 왔는데 아우는 지난해 섣달 보름께 영암 임매의 집에 가서 한 달이 넘게 머무르다가 지난 20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어머님께 문안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대순이 올 때 가졌던 물건을 적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왔다. 아우가 떡 한 행담을 만들어 어머님께 보냈는데 빼앗겼다 하나 사실인지 알지 못하겠다. 대순은 곧 눌은개의 오라비인데, 아우가 종이 없으므로 아직 두고 사환을 시키지만 게으르고 미련해서 부릴 수가 없다고 한다. 아우는 무사히 돌아왔으나 다만 처자들이 주리고 있는데 아우도 역시 한 물건도 얻지 못하고 왔다 하니 말할 수 없다. 우리 집 많은 식구들이 죽도 계속해 먹지 못해서 한 푼어치도 구워해 주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라.

2일. 아침에 종 덕년이 처음 와서 현신(現身)하고. 마른 은어 3두름 · 생숭어 1마리 를 갖다 바친다. 이 종은 지난해 봄부터 해주 윤함의 처가에 있었는데 속이고 훔 친 일이 몹시 많아서 이 때문에 그곳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제 어미를 찾아 여기 에 온 지 세월이 이미 오래도록 함열현 안의 지평(砥平)댁 집 계집종 세린개의 집 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항상 몹시 밉게 생각하여 한번 그 고 약함을 징계하려 하면서도 천연하고 하지 못했더니 이제 비로소 조그만 물건이라 도 가지고 왔으니 참고 내버려두었다. 또 이 진사 중영이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 하다가 돌아갔다. 그러나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요기도 못 시켜 보내니. 가난해서 그런 것을 한탄한들 무엇하라.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백미 4두를 얻어서 지 고 왔다. 또 딸이 생치 2마리 · 양색젓 1항아리를 또한 보냈다. 이 고을 새 태수(변 호겸)가 부임하느라고 이곳을 지나기에 나도 마침 나가 보았더니 앞뒤에서 옹위하 고 지나가는데 거민(居民)들이 바라보고 모두 말하기를. 이번에 오는 태수는 백성 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해 주려나 한다. 백성들의 즐거움과 슬픔이 수령의 어질 고 어질지 못한 데 달려 있다. 평상시에도 오히려 그렇지만 하물며 난리를 당한 마 당에 부역이 번거로워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더욱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왔던 태수들은 모두 용렬해서 정사를 간사한 아전들에게만 맡겨서 큰 고을이 탕진 되었기 때문에 이번 태수는 일찍이 선정(善政)을 할 사람으로 가려서 제수했다 하 니 백성들의 자라는 바가 어찌 여기에 있지 않으랴. 강비의 남편 한복이 그물을 가 지고 연못에 가서 고기를 잡아 붕어 17마리를 얻었기에 저녁밥 지을 쌀을 주고 바꿨다. 다음 날에 다시 잡으면 식혜를 담갔다가 한식 제사에 쓰련다.

3일. 별로 기록할 만한 일이 없다. 성민복이 와 보고 갔다.

4일. 아침 식사 후에 동신동(東神洞) 조문화 백순(희철)의 집에 가서 그 아우 조김 포(희식)를 청해다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주인집에서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돌아올 때 조 좌수(희윤)의 처가에 들렸더니 조 한림(희보)이 마침 와서 이야기하노라니 주인집에서 또한 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윤겸의 서처남 이백이 호남으로부터 여기 들러서 잤다. 그편에 들으니 윤겸은 잘 있고, 종막정은 하루를 머물렀다가 윤겸의 종 근금과 같이 돌아온다고 한다. 조석 식사를 먹여 보냈다.

5일. 어제 조백공(趙伯恭)(희식)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이르기를, 내일 사람을 보내서 벼 몇 말 가져가라고 했으므로 이른 아침에 종을 보냈더니 좋은 벼 7두를 보냈다. 조 군(趙君)(희윤)은 마초 29묶음을 보냈으니 근일에는 사람이나 말이 걱정이 없게 되었다. 깊이 감사하다.

6일. 송노가 말미를 얻어 가지고 홍산 장에 가서 봄보리를 사 가지고 완산 근처에서 필목을 사 온다고 한다. 소즐이 와 보기에 술 두 그릇을 대접했더니 그 길로 군에 들어가 함열태수의 편지를 바치자 태수(변호겸)가 불러보고 좋은 말을 하더라니 몹시 기쁘기는 하나 가소롭다.

또 들으니 새 태수가 부임한 지 오래지 않으나 모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자못 볼 만한 것이 있어서 간사한 아전들이 두려워하여 능히 속이거나 가리지 못한다 한다. 전에는 한 군에 감관(監官)이 몹시 많고, 또 순찰사가 정해서 보낸 군관(軍官)이 세 사람이나 되어 혹 역사도 돌보고 염초도 만들며 쌀 찧는 것도 감독하여 소비되는 것이 몹시 많아 이 때문에 관청 곡식이 탕진되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신이 왔을 때도 조금만 여의치 못해도 하리(下吏)들을 매 때리고, 심지어 향임(鄉任)까지도 역시 형장의 욕을 당하니 이는 모두 태수가 용렬하고 사람됨이 경박하여 상하가 편안히 능히 보존하지 못하고 모두 회피할 생각만 한다. 향소에 있는 자도 또한 모두 용렬하고 미련하고 무식하여 매양 일이 생기는 것이 바

로 이 까닭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온 태수는 즉시 명령하여 군관을 돌려보내고, 또 감관을 폐지하고서 모두 친히 일을 보며, 향임을 개정하여 한결같이 한 고을의 바라는 바에 맞게 했다. 번거로운 비용을 모두 없애서 민생이 거의 어깨를 펴게 되어 모두 즐겁게 살 마음이 있게 했으니,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이같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서 수령을 가려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나도 또한 이곳에 와 있은 지 지금까지 3년 동안에 태수가 바뀐 것이 다섯인데, 익히 거민들이나 품관의 말을 듣건대, 윤견철(尹堅鐵)이 좀 나으나 재물을 탐하고, 임극(任克)이 그다음이다. 가장 용렬한 자는 이구순이요, 깊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임극의 맑고 간략한 지조이다. 그런데 새 태수는 바로 오랜 가뭄 끝의 비와 같은데 다만 끝을 어떻게 마칠지 모르겠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봄보리가 몹시 귀하고 드물어서 사 오지 못했다 한다. 향비는 함열로 돌아갔다.

7일. 오후에 파흥수(坡興守)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대접할 물건이 없이 보내니 가난해서 그런 것을 어찌하리오. 집사람도 역시 나와 보았다.

암탉에게 알을 안겼는데 날짜를 따져 보니 곧 20일이다. 이제 비로소 껍질이 깨지니다시 수일을 기다려 다 깐 후에 내릴 작정이다.

8일. 소즐이 와 봄으로 술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예로 보내는 중미 4두를 지고 왔다. 생뱅어 한 사발도 역시 보내 왔다. 뱅어는 지금 비 로소 나타났다. 낮에 들으니 연못에 붕어가 많이 모인다 하므로 한복을 시켜 그물 을 가지고 가서 잡게 하여 비늘 없는 고기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붕어 다섯 마 리를 잡았다. 붕어는 저녁 식사에 어머님께 드리고 비늘 없는 고기는 탕을 끓여 처 자들과 같이 먹고 나머지는 소즐에게 주었다. 그 맛이 아주 좋은데 다만 물이 깊어 서 많이 잡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9일. 아침에 암탉이 둥우리에서 내렸는데 병아리 7마리를 깠고, 그 나머지는 모두썩었다. 밉살스럽다. 또 영동에 사는 외사촌 남경중이 관청 일로 이 군에 왔다가 찾아와서 어머님께 뵈었다. 뜻밖의 일이라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 형 첨사(僉使)의 한집안이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하는데 몹시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남경신이 내게 편지를 하고 마른 밤 두 되를 보냈다. 한식 제사에 쓰련다. 들으니 변 서

방(卞書房)댁이 병으로 죽었고, 남 첨정(南僉正) 형의 첩도 역시 병으로 죽었다 하니 불쌍하다. 변 서방댁은 곧 나의 사촌 누이이고 경중의 누이이다. 여기에 머물러 잤다. 저녁에 지진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소리가 천둥과 같고 집이흔들리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하늘의 변고가 이와 같으니 앞으로 무슨 화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흉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백만의 창생을 죽이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아직도 남쪽 지방을 점령하여 그 사나운 마음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있는데 하늘은 화를 뉘우치지 않고 변괴가 백 가지로 나오고 있으니 살아남은 쇠잔한 백성을 또한 반드시 다 죽이고서야 말 터이냐. 이제 또 들으니 진 유격(陳遊擊)(우애)이 강화를 요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동안의 곡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만일 그 응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여 이루려 한다면 형세가 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적은 반드시 다시 호남·호서에 화를 입힐 것이다. 원근의 인심이 요동해서 모두 피란할 계획을 하지만, 우리 집은 노모를 모시고 종도 없고 말도 없으며 또 갈 곳도 없는 데다가 더구나 또 양식도 없는데 얻을 길도 없으니 장차 멀지 않아 구렁에 자빠져 죽을 것이다. 아무리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앉아서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10일. 남경중이 그대로 머물렀다. 식사 후에 이 진사 중영을 가서 보고 앉은 지 오래지 않아서 한복이 쫓아와서 이르기를 조문화(희철)가 대조사(大鳥寺)에서 사람을 시켜 청한다고 한다. 이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와서 바로 대조사로 갔더니조백순(희철) · 백익(희보) 형제와 조군빙(趙君聘)(희윤)이 모두 와 모여서 두부를만들어 놓고 나를 청한 것이다. 홍 주서 준(遵)씨도 또한 와서 선방(禪房)에 모여 앉아 종일 이야기하다가 순두부와 저녁밥을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술을 내다가 각각 두어 잔씩 마시고 파했다. 홍 주서가 먼저 돌아가고 나와 여러 조(趙)는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산에서 내려와 각각 흩어져 집에 도착하니 몹시 배부르고 취했다. 다만 두부가 몹시 부드럽고 좋아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으나 될 수 있으랴.만일 다음 날 콩을 얻으면 두부를 만들어 올리련다. 집에 와서 들으니 소즐이 찾아왔다가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11일. 남경중이 그 집으로 돌아갔다. 양식과 찬이 떨어져서 겨우 쌀 한 되와 소금

반 되를 주었고, 어머님께서 또한 쌀 한 되를 주었다. 들으니 그는 행량이 이미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 집도 역시 군색하여 넉넉히 주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그러나 이틀 동안 묵어서 그 종과 먹은 것이 7되가 넘어, 빌어다가 먹는 양식이 이미 다 되어 겨우 내일 아침까지밖에 먹지 못하겠다. 부득이 나도 역시 종과 말을 데리고 함열에 가고자 했으나 다만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으니 가지 못할 것 같다. 늦은 후에 해가 나자 비로소 떠나서 남당에 이르니 이 진사 중영이 따라온다. 같은 배에 함께 건너서 함열에 도착하니 마침 태수는 송인수(송영구)를 만날 일로 전주에 가고 집에 없다. 이 진사는 종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아중으로들어가 딸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오래지 않아 신대흥(신괄)이 그 아들 응규와 임계와 같이 밖에 왔다고 한다. 즉시 나가서 만나 보고 이야기하다가 각각 흩어졌다. 나는 돌아와서 아중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후에 팔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새 방으로 나와 자는데 임계도 또한 와서 같이 잤다. 일기책(日記冊)을 장인(匠人)을 불러 만들었다.

12일. 예로 보내는 쌀 4두를 얻어 한복을 시켜 먼저 임천집으로 져 보내고 아침 식사 후에 상동헌으로 나가서 신대흥과 임계·신응규와 이야기하다가 대흥과 임공 (任公)과 정정도 놀이를 했다. 오후에 태수가 돌아왔으므로 나는 즉시 아중(衙中)으로 들어가 이야기했다. 태수는 사장(司倉)으로 나가서 전세(田稅)를 받고, 나는 딸과 저녁내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들고 상동헌(上東軒)으로 나오니 임계도역시 따라왔다.

13일. 신대흥이 일찍이 전 영광태수 남궁현과 냇가에서 쑥탕모임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침 바람이 어지러워서 다시 민 주부(민수경)의 동산에 모여 나를 청해서 같이 놀다가 늦은 후에 대흥이 먼저 떠나므로 나도 또한 따라서 종일 이야기하는데 태수도 또한 뒤따라 들어왔다. 참석한 사람은 대흥 및 남궁현·남궁영 형제·김경·이진성·신응규·민성장·태수와 나였다. 관비로 점심과 쑥탕과 술과 안주를 갖추어 내고, 남궁 형제가 또한 과일과 술을 크게 차려 내어 각각 마셔 취하고 배부른 뒤에 밤이 깊어서 각각 흩어졌다. 나는 돌아올 때 이 진사 중영이 있는 곳에들어가 본 뒤에 아중으로 들어가 딸을 만나 보고 상동헌으로 나와 잤다. 다만 술이

조금 시어서 하나의 흠이었다.

14일, 이른 아침에 들어가 딸을 만나 보고 나와서 대흥 및 태수의 전 처남 권곤 · 임계와 이야기하는데 이중영도 또한 따라 왔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 후에 돌아오 려 했으나 마침 순찰사의 종사(從事)가 현(縣)에 들어와서 태수가 나가 접대하기 때문에 작별하지 못하고 그 종사가 돌아가기를 기다려 아중에 들어가 태수를 보고 오후에 떠나서 남당나루를 건너 달려서 집에 이르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집사람 은 바야흐로 학질을 앓아 전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 원기가 몹시 약해진 나머지에 이제 또 얻어서 이미 네 차례라고 하니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허찬이 어제 찾아와 유숙하면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뜻밖에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러 나 들으니 그 어머니와 아우와 누이가 모두 떠돌다가 병으로 광주 묘하 옛 집터에 서 죽었고. 그 아버지도 또한 진주성이 함락될 때 죽었으며. 그 둘째 아우 영필은 우수영 막하에 있는데 병으로 죽은 것도 아직 모른다고 하니 슬픔을 이길 수가 없 다. 그 온 집안 부모와 아우 · 누이가 모두 죽고 홀로 그 몸만이 혈혈히 의지할 곳 이 없이 곳곳에서 걸식하고. 그 아내는 연전에 홍주성 밖에 있는 처족의 집에 두었 더니 비밀히 호장(戸長) 이풍행(李豐行)과 간통하여 허(許)를 대우하기를 몹시 박 하게 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더니 일이 탄로되어 남들이 모두 말한다고 한 다.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들에게 죽을지 몰라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므 로 여러 곳으로 떠돌면서 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에서 연산 땅 그 일가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고부군(古阜郡)에 있는 그 딸에게로 갈 것이라 고 한다. 듣고 보니 더욱 슬프고 불쌍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저번에 그 적사촌(嫡 四寸) 허현(許鉉)씨가 고부태수로 있을 때 그도 또한 따라갔다가 관비를 상관하여 거기에서 여자를 낳은 것이 나이 이미 18세라 한다. 찬(鑽)의 어머니는 나의 서사 촌 누이로서 평일에 서로 가장 두텁게 지냈는데 이제 그 온 집안이 모두 죽었다고 하니 애통한 마음을 더욱 참을 수 없다.

15일. 이른 식사 후에 허찬은 연산 땅으로 가는데, 돌아올 때도 역시 찾아오도록 말해 보냈다. 형용이 초췌하고 의복이 남루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 내 집도 역시 군색해서 억지로 붙들어 며칠이라도 묵어가게 하지 못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이 광춘이 와 보기에 함께 지팡이를 끌고 성민복의 집을 찾았으나 출타하고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소즐이 와 보기에 큰 그릇으로 술 한 잔을 주었다. 그는 태수에게 들어가 만난다고 한다. 또 토옥(土屋)을 헐고 밭을 만들었다. 집주인이 내일 삼을 심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들으니 그저께 이군 태수(변호겸)가 사람을 시켜 나를 청했으나 내가 마침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 태수는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지만 다만 윤겸 및 함열태수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은 것이다. 또 허찬에게 들으니 광주 산소는 전과 같으나 다만 참나무를 모두 베어서 숯을 구워 팔았다고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묘지기 등은 모두 들어가 사는데 계집종 근개 모자만이 홀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봄에는 꼭 돌아간다고 한다. 집의 계집종 옥지는 죽었다 하는데, 수도적은 노비가 모두 죽고 남지 않았으니 몹시 탄식스럽다.

16일.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마태(馬太)를 얻어 오게 했다. 이른 아침에 상판관 기손이 찾아왔는데 집에 술과 안주가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깊이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또 들으니 파흥수가 내일 처자를 데리고 서울로 간다 하므로 오후에 그 집에 가서 만났더니 술과 떡을 내게 대접하고 또 그 아내로 하여금 나와 보게 한다. 그는 곧 내 아내의 5촌 조카이기 때문이다. 돌아올 때 상판관에게 들렸더니 그 집에서도 또 술을 내다가 내게 대접한다. 그 길로 권 생원 학(鶴)을 찾아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권(權)은 건시(乾柿)를 내다가 내게 대접한다. 나는 갖다가 어머님께 드리려고 소매 속에 넣자 그는 또 한 곶과 호도 열 개를 주므로 즉시 갖다가 어머님께 드렸다. 집사람은 학질을 앓는다.

17일. 새벽부터 비를 뿌리더니 오후에 비로소 갰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백미 4두와 함열에서 따로 주는 마태 3두 · 피목(皮木) 5되를 가져왔다. 저녁에 함열 아노(衙奴)가 서울로 가는 길에 여기 들러서 잤다. 곧 함열태수의 아버지가 연로한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었는데 이제 이곳으로 내려오려 하므로 사람과 말 · 양식과 반찬을 보내서 모셔 오기 위해서다.

18일. 이른 아침에 성민복이 와서 보았다. 또 들으니 한산태수(신경행)가 이 고을 의 번고차원(反庫差員)으로 왔다기에 종을 보내서 문안했다.

19일. 이른 아침에 군에 들어가 한산태수를 만나려 했으나 한산태수는 어제저녁 에 부득이한 일로 관청으로 돌아갔다 하므로 다만 석성태수만 사삿집에서 만났더 니 마침 권학이 자리에 있으므로 같이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홍 생원 사고 의 집 에 들렀더니 홍(洪)이 술을 내다가 대접한다. 집에 도착해서 한복 · 송노를 시켜 채 소밭을 갈게 했다. 또 석성태수로 하여금 둔답을 경작하도록 이 고을 태수에게 말 하게 했더니 승낙하고 농토를 이미 내준다. 저녁에 소즐이 와서 보았다. 또 들으니 이 부장 홍제가 지난밤에 죽었다고 하니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머니가 살아 있는데 두 형이 먼저 죽어서 그가 홀로 모시고 있는데 평일에 그 몸을 삼가지 않 고 주색에 빠져서 하루도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어서. 저번에 군에서 만났을 때는 얼굴빛이 파리하고 검기에 장차 오래 살지 못하겠다고 걱정했더니 이제 그 부음 을 들으니 불쌍하다. 어둘 무렵에 태수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이르기를, 이제 정 목(政目)을 보니 윤겪이 시직(侍直)을 제수 받았다고 한다. 비록 기쁘기는 하나 종 과 말도 갖추어지지 못했고 의장(衣裝)도 어설프며, 또 서울 갈 행자(行資)도 어려 우니 형세가 부임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부모ㆍ처자가 모두 먼 시골에 있는데 만일 버리고 부임한다면 장차 아침저녁에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아직 제 생각이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다. 즉시 종을 보 내서 통지하려 했으나 단 하나의 종이어서 틈이 없으니 역시 민망한 일이다.

20일. 아침 식사 후에 이 별좌 덕후를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마침 이시윤의 장인 이언우도 역시 이르렀다. 그 집에서 우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생뱅어 한 사발과 노루 고기 한 조각을 주어 노모에게 바치게 하니 깊이 감사하다. 이 별좌는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고 여기에 이르러서 알게 되었는데 곧 나의 처족으로서 후의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집은 부자로 가까운 고을에서 으뜸이요, 살고 있는 집도 또한 큰 강가여서 화려한 집을 굽어보고 죽림이 뒤에 들렀으며 고기잡이배와 장사하는 배가 문 앞으로 왕래하니 참으로 하나의 승지(勝地)이다. 해가 기울어서 돌아오는데 파리한 말이 걷지 못해서 간신히 집에 당도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또 함열에서 예로 보내는 백미 4두ㆍ생뱅어 2사발을 지고 왔다. 영암 임매의 편지가 또한 왔고. 경흠도 내게 편지를 하고 참먹(眞墨) 2장을 보냈으며 집안

이 무사하다고 하니 몹시 기쁘다. 먹은 전일에 구해 놓은 것이다. 누님도 또한 해의(海衣) 5척·감태(甘笞) 10묶음·건포(乾哺) 10조각을 보냈고, 어머님께도 똑같이 보냈다. 이것을 제수로 쓰련다. 또한 기쁜 일이다. 함열 아노가 일이 있어 영암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얻어 온 것이다. 다만 어머님께서 바꾼 쌀은 다만 2두만 주고 나머지 3두는 주지 않는다고 하니 민망스럽다.

21일. 아침에 들으니 태수(변호겸)가 공주목사로 옮겨 제수 받았다 하므로 만나고 자 하여 군에 들어갔으나 아직 관청에 나오지 않아서 이름을 통하기 어려워 즉시 돌아왔다. 식사 후에 송노를 이 별좌의 집에 보내서 어제 심부름꾼이 말한 양식과 조도 종자(早稻種子)를 얻어 오게 했다. 송노가 돌아왔는데 이 별좌가 거친 벼 5 두 · 조도 종자 1두 5승 · 의이인(意苡仁) 종자 5되를 주어 보냈다. 또 원종식(元宗植)이 지나가다가 들어와 찾았다. 원(元)은 곧 장성태수 이옥여(이귀)의 매부 원호 무(元虎武)의 큰아들로서 나의 처5촌이다. 저녁에 태수가 내가 군에 들어갔다가 못 보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인사했다. 송노를 시켜 가색 채소 씨를 뿌리고 재도 뿌리게 했다. 어둘 무렵 태수가 나를 청하므로 즉시 군에 들어가 아헌에서 만났더니 마침 이 봉사 신성이 오고, 민 주부 수경 · 한 감찰 즙 · 홍 생원 사고도 따라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먼저 돌아왔다.

22일. 이른 아침에 종에게 편지를 주어 이 봉사에게 보내서 환상곡을 받도록 태수에게 말해 달라고 했더니 이(李)는 답장하기를, 태수가 나로 하여금 단자를 바치면 내준다고 했다. 이에 식사 후에 송노를 시켜 단자를 갖다 바쳤더니 거친 벼 한 석을 주어서 받아다가 다시 되어 보니 줄지 않는다. 저녁에 소즐이 와 봄으로 흰죽을 대접해 보냈다. 집사람은 어제부터 학질 앓는 것이 많이 감해서 조금 불편하다가 그치니 이로부터 떨어질 것 같다. 다만 단아는 여전히 아파하니 말할 수 없다.

23일. 인아가 함열에 갔다. 새벽에 지진이 일어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고 창문이 흔들리다가 한참 만에 그친다. 근래에 지진의 변괴가 다달이 있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타향에 떠돌아 굶주림이 날로 박두하는데 만일 다시 환란을 당한다면, 우리 같은 집은 노모를 모시고 향해 갈 곳이 없은즉 반드시 남보다 먼저 구렁을 메울 것이다.

근심하고 탄식한들 무엇하리. 또 어젯밤 꿈에 언명이 보이니 이 무슨 조짐인가. 전에 그 편지를 보니 한식 전에 온다고 했는데 근래에 반드시 떠날 터여서 먼저 꿈에 뵈는 것일까. 종과 말이 없으니 만일 얻지 못하면 반드시 걸어올 터라, 몹시 근심된다.

24일. 송노가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 2두·제사에 쓸 백미 1두·찹쌀 5되·목미(木米) 3되·조기 1묶음·뱅어젓 2되·생뱅어 1사발을 지고 왔다. 또 저녁에들으니 태수(변호겸)가 전임(前任)의 일로 파면되었다 하니 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비록 그 인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부임해 온 지 오래지 않았는데도 정치가 자못 칭찬이 있어서 거의 말라 가는 고을을 소복시킬 것 같더니 불의에 공주목사로 승진되어 백성들이 모두 실망하더니, 이제 또 딴 일로 현부 (憲府)의 논박을 몹시 받았다고 하니 더욱 한탄스럽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연기를 마시고 일시에 죽어 가니 구해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25일. 태수가 떠나는데 가보려 했더니 종과 말이 연고가 있으므로 저녁에 이웃 말을 빌려서 가려 했는데 권학(權鶴)씨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태수는 이른 아침에 떠났다 하니 만나서 작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고을은 전부터 어진 태수를 얻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더니,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이 태수는 부임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가니 사람들의 말이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26일. 밤 꿈에 완연히 윤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생각건대 양덕에서 떠난 것인가. 세 아들이 모두 곁에 있지 않은데 윤해와 윤함은 멀리 있으니 바랄 수 없지만 윤겸은 역시 아직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비단 오지 못할 뿐이 아니라, 소식조차 오래 끊어졌으니 종과 말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형세가 그리한 것이지만 연연한 회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더하다. 또 저녁에 장수 이자미(이빈)의 종 한손이 장수로부터 이곳을 지나다가 와 뵙는다. 그에게 들으니 자미의 처자는 이달 보름 후에 진안 땅 그 일갓집으로 옮겨 간다 하고, 시윤의 처자는 지금 장수 천잠리 그 처남의 집에 있는데 궁곤함이 날로 심해서 서로 보존하지 못하겠으므로 각각 먹기를 도모하여 흩어진다고 하니 불쌍하다. 한손은 이 길로 양성으로 올라간다고 하기에

진위를 지나갈 때 윤해의 집에 편지를 전하게 했다.

27일. 이른 아침에 찬을 차려 멀리 선조께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아버지께 제사드리고 또 죽전 숙부께 잔을 올렸다. 난리 후 지금까지 4년에 한 번도 친히 묘하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니 몹시 비감함을 이길 수가 없다. 다만 유리하여 곤궁한 중에 물건 준비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초초히 갖추어 잔을 올리니 형세인걸 어찌하리오. 정성뿐이다. 아이들은 함열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우습다. 28일. 한복과 송노를 시켜 이웃 사람의 부삽을 빌려다가 둔답을 손질하게 하여 세곳을 다 마쳤으니 내일은 갈려 한다. 다만 오래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와밀이 타 죽고 냇물과 못이 마르고 논도 또한 말랐으니, 만일 비가 오기를 기다려씨를 뿌린다면 절기가 이미 늦을 것이니 몹시 걱정이 된다. 저녁에 함열 아노 춘억이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여기에 들렀기에 들으니 함열태수의 아버지(신벌)가 선공판관(繕工判官)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오지 않는다한다. 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생뱅어 4사발을 내일 제사에 쓰라고 전하니 기쁘다. 숭어 1마리와 위어 5마리는 함열태수의 아버지를 맞으려고 중로로 가지고 갔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들었으므로 우리 집에 두고 갔다.

29일. 곧 외조 제삿날이다. 밝을 녘에 잠시 밥과 떡을 차리고 잔을 올렸다. 찬이 없어서 고기구이 두 가지 · 어탕 두 가지로 제사를 지냈다. 들으니 외가 종손 경효 형이 지난 선달에 별세했고, 난리 후에 집안이 망해서 그 자손들이 간신히 먹고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니 필시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궐사(關仕)하는 것을 몹시 근심하시기 때문에 초초하게라도 잔을 올렸을 뿐이다. 또 송노·한복을 시켜 또 품인의 둔답을 빌려서 삽을 가지고 호리를 일구게 했으나 마치지 못했다. 저녁에 윤겸이 결성으로부터 들어왔다. 오래 바라던 나머지에 불의에 만나니 온 집안이 모두 기뻐한다. 장차 행장을 차려 서울로 갈 계획이다. 윤함의 편지도 역시 가져왔는데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그믐날. 송노를 정산에 보내서 개질지를 불러오게 하고, 겸해서 정산태수에게 편지를 하여 양식을 구해 오게 했다. 윤겸이 서울에 갈 때 개질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저녁에 송노는 개질지와 함께 왔고, 정산태수에게 보내는 편지는 소질지

로 하여금 내일 바치게 했다 한다. 또 영암 임 진사 집종 가파리 및 근이 등이 해주박 참판댁으로 가기 위해서 양덕 심열에서 가느라고 지나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잤다. 누님이 어머님께와 내게 편지를 했는데 온 집안이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 밤에 등불을 밝히고 편지를 써서 윤함에게와 양덕에 편지를 전하게 했다. 또 들으니 예산 김 한림(김지남)의 집을 지나가게 되므로 진사가 보낸 의복을 전해 주고 간다고 한다. 거기에도 역시 편지를 써서 김자정에게 보냈다. 또 심열의 집 계집 종 만화가 난리 전에 낙안(樂安) 그 어머니 집에 가 있다가 부모가 모두 죽어서 능히 살아갈 수가 없더니 그 상전이 서울에 가서 벼슬한다는 말을 듣고 제 남편과 힘께 찾아보려고 서울로 가다가 길에서 우리 집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다. 의외에 만나 보니 몹시 기쁘다. 이 계집종은 곧 심매의 소년 때 눈앞의 사환으로서 우리 집에서 자랐고, 누님도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했었다. 누님이 별세한 후에 심(沈)이 첩으로 삼아 두 아이까지 낳았으나 심(沈)도 또한 죽자 낙안으로 내려가 다시 딴 남편을 만나 살았다. 집에 한 조각 종이도 없기로 윤겸을 시켜 홍 주서 (홍준)에게 가서 다섯 장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세 곳에 편지를 썼다.

3월

1일. 윤겸이 함열로 가는데 송노도 또한 따라가서 양식을 구해 오게 하여 처음에는 집 실을 말을 끌고 가게 하려 했더니 말이 피로해서 걷지 못하므로 보내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식사 후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성민복의 집에 가서 매화 구경을 하려 했으나 마침 성 공(成公)이 들에 나가고 집에 없어서 그 길로 이복령의 집에 가서 수담(手談)을 하다가 해가 기울어 돌아왔다. 함열에서 사람이 마침 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 3두ㆍ쇠고기 1덩이ㆍ생뱅어 2사발을 지고 왔다. 삼삼절(節)이 가까워서 이것으로 신주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몹시 기쁘다. 딸이 또위어젓 10개ㆍ조기 1묶음ㆍ조기젓 10마리ㆍ천엽 1조각을 보냈다.

2일. 한복을 시켜서 부삽으로 이통진(李通津)이 준 밭을 갈고 율무씨 5되를 뿌렸다. 그리고 나머지 한 두둑에는 피당(皮唐) 7홉을 심었다. 밭이 길가에 있어서 만일 콩이나 팥을 심었다가는 반드시 행인들이 꺾어갈 것이므로 이 두 물건을 심은

것이다. 우판관이 찾아왔는데 백광염이 뒤따라 들어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각각 흩어졌다. 고 남죽산(故南竹山) 대임(大任)씨의 막내아들 일룡(一龍)이 함열 로부터 찾아와서 함열에서 환상곡을 얻도록 함열태수에 보낼 편지를 얻어 가지고 갔다. 전병 한 상자를 지고 왔기에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오후에 좌수 임백이 와서 보고 황양목(黃楊木) 한 그루를 준다. 여자들의 도서(圖署)를 만드는 것인데 임(林)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일 만났을 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와 보고 주고간 것이다. 또 들으니 충청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영남에 있는 적의 경계로 가는데 겨우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불이 주방에서 나서 화약을 두어둔 곳으로 연소되어화약이 크게 터져서 뱃속 사람이 모두 타 죽고, 혹 물로 뛰어들어 산 자가 몇이 되지 않는데, 수사도 또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두 아들과 함께 빠져 죽었다 하니불쌍하다. 저녁에 윤겸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정미(正未) 2두와 콩 2두를 얻어와서 이것으로 행자를 한다고 한다.

3일. 윤겸이 날이 밝기 전에 밥을 먹고 도로 결성으로 향했다. 부임할 기일이 박두하니 지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루도 머무르지 못하고 떠났다. 어지러운 나라에 살지 말라는 것은 옛사람의 경계인바, 벼슬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집은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으니 또한 녹(禄)을 위해서 벼슬해야 할 것이므로 억지로 권해서보냈다. 다만 슬하에 모실 아이가 하나도 없으니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멀어서 쉽게 오지 못할 것이니 한편 몹시 민망스럽지만 어찌하리오. 의복이 어설퍼서 바야흐로 걱정하더니 함열태수가 두 가지 옷을 벗어 주었고, 우리 집에서도 또한 명주 바지와 목 두루마기를 만들어 주었으니 거의 이것으로 삼춘(三春)을 지날 것이다. 이웃에 사는 이광춘이 병을 얻어 고생한다 하니 멀지 않은 곳에서 몹시 걱정되다.

4일, 소즐이 와 보기에 술 한 그릇을 대접하고 또 아침밥을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또 들으니 왜적이 군사를 합쳐 가지고 육지에 내려 장차 북쪽으로 향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 우리 집같이 많은 식구가 양식도 없고 말도 없는 자는 형세가 반드시구렁에 쓰러져 메울 것이니 탄식하고 민망해한들 무엇하라. 양호의 인심이 흔들려서 모두 피란할 계획을 한다 하나 아직 허실을 알 수가 없다. 또 지난달 24일 영천

군수의 전통(傳通)을 보니, 흉적들이 무수히 나왔다 했고, 그 후로는 별로 보고한 글이 없다. 이제 조김포 희식을 만났더니 말하기를, 그 집종이 군량을 지고 영천군 에 갔더니. 지난달 24일에 영천군수가 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다가 수일 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들이 육지로 몰려나와서 호랑이 사냥 을 해서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의 소굴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군수 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3. 4일을 머무르다가 군량을 바친 후에 28일에 떠나 서 어제 돌아왔고. 영남에는 별로 적의 소식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 반드시 헛말 이 아닐 것이라 거의 위로가 된다. 또 식사 후에 소즐과 함께 수다해(水多海)의 조 문화(희철)와 백순의 둑 쌓은 데에 가서 종일 냇가에서 이야기하다가 점심을 나누 어 먹고 또 유선각의 집에 가보았다. 돌아올 때는 조김포(백공)에게 들려서 찾아 보고, 그 길로 조 좌수 군빙(君聘)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조 한림 백익(희보)도 역 시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녁때에 돌아왔다. 군빙의 집에서 내게 저녁을 대접 했다. 또 이른 아침에 송노를 시켜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석성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게 했더니 마침 석성태수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또 집에 돌아 가 들으니 이 진사 중영이 찾아왔다가 내가 마침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 갔으니 또한 한스럽다. 친히 이른 볍씨 한 두를 갖다 주었다. 전일에 약속이 있었 던 것이다. 이복령이 마초 일곱 묶음을 보냈다.

5일.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아침 식사 후에 이 진사 중영을 가보고 전일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리기에 달려 돌아왔더니 오래지 않아 비가 저녁까지 내렸다. 비록 많이 내리지는 않았으나 오래 가문 나머지에 이 한 보지락의 비를 얻으니 보리와 밀이 거의 소생할 희망이 있으니 기쁘다. 만일 밤새 그치지 않고 내일도 또한 개지 않는다면 삼농의 일은 다 마치게 될 것인데 어둘 무렵에 개니 한스럽다. 또 들으니 이광춘의 장모가 병을 피해서 북창 밖의 이웃집에 와 있다기에 사람을 시켜 먼 곳으로 피해 가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끝내 듣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그도역시 조금 머리가 아픈 증세가 있고 죽과 미음도 먹지 못한다고 하니 더욱 민망스럽다.

6일. 아침에 들으니 이광춘의 장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또 붉은 햇무리를 하고 전혀 비올 조짐이 없더니 이제는 해가 내리쬐니 탄식스럽다. 아침 식사후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이복령의 집에 가서 어머님과 나와 처자의 길흉을 점쳐보게 하고 바둑을 두었다. 이(李)는 스스로 잘 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곱 판을 지니 그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겠다. 한참 동안 한탄하니 우습다. 해가기울어서 돌아왔다. 또 김 한림 자정(김지남)의 종이 왔기에 자정의 편지를 보니몸은 비록 무사하나 무적(無赤)이 병으로 앓아 오래되었는데도 차도가 없다 하니슬프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공주에 사는 이금이가 찾아왔는데 내가 마침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한스럽다. 송노가 함열에서 왔는데, 예로보내는 쌀 2두를 보냈고, 함열태수가 또 이른 벼 1석·생숭어 1마리를 주어지고 왔다. 짐이 무거워서 벼 6두는 산이의 집에 두었다 한다.

7일. 새벽에 비가 뿌리더니 아침에는 아주 갰으니 한스럽다. 어제 함열태수의 편지 를 보니 오늘 웅포에 가서 고기 잡는 구경을 할 터인데 나를 청해서 같이 볼 셈으 로 배름 남당 나룻가로 보내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에 이른 식사 후에 떠나서 나 루턱에 이르니 선부(船夫)가 배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 즉시 배에 오르는 선부 는 키를 운전하고 송노가 노를 젓는다. 북쪽 언덕을 따라가다가 조수가 물러가는 힘을 타고 내려가다가 이 별좌 정자 밑을 지나노라니 마침 서풍이 크게 불어서 물 결이 몹시 일어 적은 배가 흔들려 파도 사이로 들어갔다 하는 바람에 물이 배에 들 어와 옷이 다 젖는다. 도저히 두 사람이 배를 이기지 못하므로 부득이 옛 창고가로 배를 돌려 대고 육지에 내려 말을 타고 남쪽 언덕을 따라 내려가서 웅포에 이르니 태수는 여러 사람과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가 닻을 내리고 배를 쉬고 있다. 비록 나 를 기다리노라 바라고 있어도 거꾸로 부는 바람이 더욱 심하여 불러도 미치지 못 한다. 하는 수 없이 언덕 위로 내려가 앉았노라니 무료하기 막심하다. 마침 감관 · 품관이 바람을 피하여 언덕 밑에 배를 대고 있다가 오기를 청하여 앉아 이야기하 다가 다시 감관과 작은 배를 타고 밧줄로 끌고 언덕을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큰 바 람이 물결을 일으켜 배가 편안히 가지 못하고 뒤집히려 하기를 여러 번 한다. 이에 뱃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만일 바닷속으로 배를 띄웠다가는 반드시 뒤집힐 염려 가 있다면서 굳이 청하여 중지하라 한다. 즉시 도로 배에서 내려 감관과 이야기하 노라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해가 밝기 전에 식사를 했으니 배가 너무 몹시 고프나 어찌할 수 없는데. 감관이 나에게 이르기를. 누추한 밥이라도 여기 있으니 나누어 먹고자 하는데 높은 뜻이 어떠신지 모르겠다고 한다. 나는 말하기를, 창자가 몹시 주렸는데 어찌 반드시 묻느냐 하고 즉시 뱅어를 지져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감관이 또 술을 마련하여 각각 두 잔씩 마시니 거의 요기가 된다. 처음에는 태수 를 기다려서 만나려 했으나 해가 이미 저물고 풍세가 더욱 급해서 부득이 먼저 돌 아와 아내(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인아가 먼저 오고 태 수가 뒤따라서 횃불을 밝히고 돌아왔다.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상동헌으로 나 가서 한 생원 효중 · 안 생원 수인과 함께 잤다. 인아도 역시 따라와 잤다. 안(安) · 한(韓)은 태수의 친구로서 함께 포구 위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돌아온 터이 다. 한(韓)은 나의 8촌 친척으로 한 동리에 살아서 서로 가까운 처지이다. 객지에 서 만나니 자못 위로가 된다. 오늘은 바람이 어지러워 뱅어를 많이 잡지 못하여 연 전에 비하면 십분의 일이라고 한다. 나도 한번 구경하려 했는데 일이 필경 어긋났 으니 가위 좋은 일에는 마(魔)가 많은 법이라, 한편 우습다. 또 향비가 병으로 누워 서 여러 날 차도가 없으니 전염병에 걸렸는지 두려우니 부득이 밖으로 내보내야겠 다. 걱정스럽다.

8일, 호부랑(尸部郎) 최동망(崔東望)이 고을로 들어왔으므로 태수가 이른 아침에 나가 대접했다. 나는 아내(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함께 아침 식사를 들었다. 마침 이 참군 뢰(養)와 최 호부(崔戸部)가 같이 왔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문안하기에 나도 또한 그들을 새 방으로 맞아 만났다. 일찍이 불의에 만나니 십분 기쁘다. 인사를 나눈 지 오래지 않아 행색이 초초하게 갑자기 작별하고 돌아가니 탄식스럽다. 신대흥(신괄)을 서상방(西上房)으로 가서 만났더니 한・안 두 사람 및 임계・홍요보(洪堯輔)도 또한 와서 이야기하는데 태수도 또한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먼저 들어오므로 나도 또한 뒤따라 들어왔다. 김 봉사・민 주부(민수경)가 마침 새 방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 아내 (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났더니 딸이 나에게 수반을 준다. 작별하고 나와서 또 태

수 및 여러 사람과 작별하고 떠나는데 내 말이 몹시 피로해서 태수의 말을 빌려 타고 남당에 이르러 그 말을 돌려보내니 배가 건너편에 있다. 오랫동안 나루 언덕에 앉아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라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간신히 건너서 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올 때 태수가 나에게 뱅어 다섯 사발과 위어 두 두름을 주기에 즉시 삶아서 어머님께 드리고 나누어 먹었다. 또 들으니 이 군 새 태수가 어제 관청에 나와서 오늘 알성(謁聖) 했다고 한다. 태수의 성명은 서집(徐謂) 인데 홍산태수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 고을 태수로 승진한 것이다. 그 부인은 집사람과 6촌척이 되는데 서울에 있을 때 각각 멀리 살아서 서로 만나 사귀지는 못했지만 촌내(寸內)의 친척이니 반드시 딴 사람과 같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윤겸 과도 또한 사귄 터여서 편지를 써 놓고 갔기로 내일 마땅히 보내 보련다.

9일. 아침에 들으니 태수가 환상곡을 나누어 준다기에 송노로 하여금 윤겸의 편지를 가져다가 바치게 했더니 태수가 보고 나서 대답치 않았다 한다. 이에 또 한복을 시켜 단자를 갖다가 바치고 환상곡을 받으려 했더니 겨우 한 석을 주는데 되어 보니 14두다. 바란 것이 몹시 많았는데 얻은 것은 지극히 적으니 모든 하고자 하던 것을 모두 폐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다. 탄식스럽다. 소즐이 와 보고 돌아갔다. 어제 사람을 보내서 이른 벼를 조백순에게 구했더니 4두를 주어 보냈고, 백공이 또 2두를 보냈다. 저녁에 종 덕년이 왔다. 내일 예산 김 한림의 집에 보내려고 불러온 것이다.

10일. 편지를 써서 덕년을 예산에 보냈다. 청양을 지날 때 청양군수(박여룡)에게 올리게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윤함에게 전하게 했다. 또 돌아올 때 결성 윤겸의 집에 들러서 그때 윤겸이 서울에 갔는지 여부를 알아 오게 했다. 또 그편에 어머님께서 주신 포목으로 두루마기를 만들어 윤겸에게 보냈다. 또 모레는 곧 김매의 소상 (小祥)이다. 이 때문에 종을 보내사 문안하고 백미 한 두도 또한 보냈다. 처음에는 떡을 만들어 보낼까 했더니 날은 따뜻하고 길이 멀어서 상할까 두려워서 쌀로 보냈다. 또 들으니 이광춘의 병은 비록 차도가 있으나 양식이 떨어져서 굶는다고 하니 가련하다. 즉시 밥 짓고 국을 끓여 그 밖에 나와 있는 계집종을 시켜서 들여보

¹ 알성(謁聖) : 문묘(文廟)에 참배함.

냈다. 또 향비의 남편 관노 상근이 대구 두 마리와 잣 두 되를 갖다 바치고, 군량을 영천군에 바친 후에 어제 돌아왔기 때문에 얻어서 바친 것이다. 집에 술도 안주도 없어서 먹여 보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11일. 송노·한복을 시켜서 이통진(李通津)의 논을 갈게 했다. 식사 후에 지팡이를 끌고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길가에 앉았노라니 마침 이 별좌 정시가 지나가다가 찾아서 같이 성민복의 집 앞 고개 위에 앉아서 또 성 공(成公)을 청해다가 한참이야기하는데 유위(이정시)가 먼저 일어나 돌아갔다. 또 들으니 원 상례(元相禮) (원사용)가 향교에 와 있다기에 성공과 함께 나가서 서로 옛 이야기를 하는데 훈도(訓導) 조의(趙毅)도 자리에 있었다. 원상례(元相禮)가 시폐소(時弊疏) 7조(條)를 기초하여 성공으로 하여금 오자를 고치게 하고 장차 정서(正書)하여 올리려 한다고 한다. 원(元)은 소년 때에 서로 알았지만 못 만난 지가 오래다가 이제 비로소 만나 보니 또한 시골로 떠도는데 난리 후로 실명해서 폐거한다고 하니 가련하다. 또동남풍이 종일 쉬지 않고 흐리고 비 내릴 조짐이 있기에 밤에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 했더니 내리지 않으니 한스럽다.

12일. 자미(이빈)의 종 한손이 장수로 돌아가기에 편지를 써 주어 전하게 했다. 또송노를 함열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게 했다. 내일은 곧 죽은 누이의 소상(小祥) 인데, 처음에는 친히 제사를 지내려 했더니 비단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자도 역시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다만 종만 보내고 가지 못했으니 평생 진 한을 어찌하리오. 다만 스스로 슬피울 뿐이다. 또 들으니 적장(賊將) 청정(淸正)에게 좋은 말 하나가 있어서 사랑해 기르더니 뜻밖에 범에게 물려 죽었다. 이에 크게 노하여 군사를 내어 범 두 마리를 잡아 진중(陳中)으로 돌려보냈다 하니, 전일에 공연히 놀란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침 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갰으니 몹시 크게 내리지는 않았고 그저 뿌렸을 뿐이나 그래도 오래 가문 나머지에 이 한 보습의 비를 얻으니 보리와 밀이 거의 소생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몹시 불고 날이 따뜻하니 필경 이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보낸 종이 나루터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크게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다. 양식이 떨어져서 보냈던 것인데 이제 도로 왔으니 내일과 모레는 얻어먹기가 몹시 어렵겠으니 걱정스럽다.

한복을 유선각에게 보내서 이른 벼 두 말을 얻어 왔다. 전일에 만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깊이 감사하다. 저녁에 또 비가 내렸으나 흡족하지 못하다. 간장 5 두를 담갔다.

13일. 밤중에 비가 크게 내리고 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이르러서도 개지 않으니 비록 높고 건조한 논이라도 부족한 탄식은 없을 것이다. 삼농(三農)의 바라던 바를 만족히 위로시켰으니 기쁘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이 새는 곳이 많으니 민망스럽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으레 보내는 쌀 2두와 뱅어 두 사발을 지고 왔다. 바야흐로 양식이 떨어져서 탄식할 즈음에 이 의외의 물건을 얻으니 기쁘다. 다만 딸의 편지를 보니, 태수가 관청 저축이 부족하다 해서 으레 보내던 쌀을 8두로 했던 것을 또 벼 한 섬으로 대신 주겠다 한다. 한 달에 비록 18두를 얻어도 매양 황황하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죽을 쑤어 날을 보냈는데 만일 벼 한 섬을 준다면 더욱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요, 더구나 한 섬의 벼를 찧으면 많아도 닷 말 쌀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달리는 얻어먹을 길이 없으니 노인을 모시는 터에 더욱 민망스럽다. 또 함열태수가 요새 편치 않은 징후가 있다니 몹시 걱정된다. 비는 종일 개지 않는다. 이러한 우중(雨中)에 윤겸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미 서울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연연한 회포를 어찌할 수 없다. 이웃에 사는 이광춘의 장모가 전염병을 얻어서 어젯밤에 죽었다니 가련하다.

14일. 비는 비록 크게 내리지는 않으나 밤새 그치지 않다가 아침에는 흐리고 조금 갰다. 송노와 한복을 시켜서 이통진의 논에 씨를 뿌렸다. 그러나 오후에는 비가 내려서 마치지 못하고 내일 개기를 기다려 다시 시킬 것이다. 오늘 뿌린 것은 겨우고사(古沙) 벼 4되와 찰벼 5되뿐인데 모두 이른 벼라고 한다. 소즐이 와 보고 돌아 갔는데 주어 줄 물건이 없으니 한심스럽다. 또 어머님 주무시는 방에 비가 새서 그릇을 벌여 놓고 받아 내서 민망스럽다. 단아는 이달 초승부터 학질 증세가 점점 나아가더니 지금은 조금 불평할 뿐으로 가라앉으니 이로부터 아주 떨어질 것 같다. 기쁘다. 유기장이가 옛 사발 한 벌을 가지고 와서 팔므로 집사람이 쌀 한 말을 주고 샀다. 조석도 몹시 어려우므로 억지로 말려도 듣지 않는다. 제사 때 한 벌이 없기 때문에 매양 아무 그릇으로나 지내서 몹시 미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산다는 것

이다. 또 송노를 시켜서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이광춘의 집 앞길을 막게 했다. 멀지 않은 곳에 물을 길어 가지고 왕래하는 것이 몹시 두려워서이다. 그 집안사람이 모두 앓는데 홀로 그 장모가 피해 달아났다가 마침내 면치 못했으니 슬프다.

15일. 이른 아침에 송노를 함열에 보내서 양식과 종자와 마태를 얻어 오게 했다. 또 한복을 시켜 어제 끝내지 못한 논을 만져서 못자리를 만들고 씨 1두 8되를 뿌렸는데 역시 이른 볍씨다. 어제 뿌린 것까지 모두 3두 7되이다. 또 병아리 7마리를 길러 키워서 거의 메추리만 하게 되었는데 오후에 한 마리를 이웃집 고양이가 물어갔으니 몹시 밉다.

16일. 덕노가 예산으로부터 결성에 들렀다가 중도에 비에 막혀서 오늘 비로소 왔는데 두 곳이 무사히 편안히 있고, 윤겸은 지난 8일에 서울로 올라갔다 한다. 자정 (김지남)의 편지를 보니, 슬픈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무적(無赤)의 증세가 너무 깊어서 그칠 수 없다 하니 더욱 슬프다. 청양태수(박여룡)의 답장도 역시 왔는데 요새는 서쪽에선 온 사람이 없어서 윤함의 집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만일 오면 마땅히 즉시 전해 보내마고 했다 한다. 또 덕노를 시켜 비가 새는 곳을 고치고, 오이 20여 포기를 심었다. 또 이른 아침에 계집종 눌은개를 보내서 고사리를 꺾어다가 탕을 끓여 천신했다. 또 송노가 돌아왔는데 함열태수의 몸이 평상시와 같다고 하니 기쁘다. 예에 의하여 보내는 쌀 2두ㆍ벼 2석 및 볍씨 7두ㆍ마태 3두ㆍ미역 7동을 실어 왔다. 벼 10두는 짐이 무거워서 양산의 집에 두어두었다 한다. 말장 3두도 또한 얻어 왔다. 다만 갖가지 곡식이 주는 것이 많으니 필시 도둑질해 쓴 것이다. 밉살스럽다. 또 들으니 내일 이 군에서 환상곡을 준다 하므로 집사람을 시켜 많이 주도록 편지를 써서 태수 부인에게 보냈더니 답장하기를 마땅히 남편에게 고하겠다고 했다.

17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은 뒤에 비로소 갰으나 흐리다. 덕노는 함열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큰비가 저녁내 내렸다. 또 이른 아침에 송노를 시켜 단자를 올렸더니 환상곡 두 석을 주므로 받아다가 되어 보니 각각 한 두씩 준다. 또 둔답 종자를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역시 한 말을 준다. 이는 필시 중간에 도둑질해 쓴 것이라. 더욱 밉살스럽다.

18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은 후에 해가 났다. 무료한 중에 지팡이를 끌고 씨 뿌리는 논에 가보고 물을 대주고 돌아왔다. 오래 가문 나머지에 비가 사흘 동안 내렸으니 비단 보리와 밀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들이 들에 가득하니, 4, 5일 안에 씨를 다 뿌릴 것이다. 가을과 여름 사이에 각각 비 내리고 개는 것이 고르기만 하면 남쪽 지방 백성들은 반드시 풍년을 맞는 기쁨이 있을 것이니 나 같은 쇄미(瑣尾)(피란민)의 사람도 역시 힘입는 바가 있을 것이다.

19일. 송노·한복 및 품인 두 사람을 시켜 둔답(屯畓) 두 곳을 손질하고 씨를 뿌리고 돌아왔다. 서쪽 변두리 길가 논은 정조(正租) 4두 1되를 뿌렸고, 동쪽 논은 정조 2두 5되를 뿌렸다. 또 집 뒤 연못에 둑을 막은 곳을 갈고 관답(官畓)을 만들려고 태수가 또한 못가에 막을 치고 친히 와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에 나도 나가보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일찍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피차가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인지라, 오늘 만나니 자못 은근한 뜻을 보인다. 올 때 종들이 씨 뿌리는 곳에 들러 보았더니 마침 권학(權鶴)씨가 지나다가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서 회포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누에는 비로소 한잠을 쓸어내렸다.

20일. 이웃에 사는 사노(私奴) 만수의 처가 집사람을 와서 보고 해파 한 묶음과 간장 한 사발을 바치므로 술을 대접해 보냈다. 또 통진의 논에 뿌린 종자로 거친 벼 3두를 받아 왔으나 절반도 모자라니 한스럽다. 식사 후에 지팡이를 끌고 둑 막은 곳에 논 일구는 것을 가보고 돌아왔다. 소 5마리를 내어 3곳을 한꺼번에 가는데일꾼 50여 명이 물결치듯 두둑을 만들고 바로 씨를 뿌리니 또한 하나의 장관이다. 태수가 오늘도 역시 와 보았다. 한복은 둔답에 씨를 뿌렸다.

21일. 식사 후에 권 생원 학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보광사에 가보고 법당에 앉아서 늙은 중 두세 명을 불러 종일 이야기하면서 싸 가지고 간 양식으로 중을 시켜 밥을 짓게 하고 고사리를 끓여 밥을 먹었다. 마침 주지승은 영남 승대장소(僧大將所)에 가고 절에 없다. 해가 기울자 또 권 공과 함께 향림사로 갔더니 수승(首僧)은 역시 관청에 들어가고 없기 때문에 잠시 주지방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 절도 역시 대찰(大刹)인데 폐해져서 비어 있은 지 오래더니, 이제는 딴 사람들이 살고 중들은 많지 않아 비어 있는 방이 또한 많다. 올 때 길가의 연한 풀이 무성하므로 말에서

내려 말이 뜯어먹게 하고 집에 돌아오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요새 무료해서 전에 권과 약속하고 같이 두 절을 구경하고 산채를 삶아 먹은 것이다. 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생조기 3마리·위어 1두름을 보냈다. 그편에 들으니 인아는 학질이 떨어졌다 하니 기쁘다.

22일. 송노를 시켜 남의 말 두 필을 빌려 가지고 끌고 함열에 가서 빈 섬을 실어 오 게 했다. 저녁에 막정이 양덕에서 돌아왔는데, 양덕[심열]에서 주는 물건을 다 주 고 소를 사 가지고 신계까지 왔으나 소가 걷지 못해서 부득이 말과 바꾸었는데 포 목 한 필을 더 주었다고 한다. 이제 심질(심열)의 편지를 보니 장차 벼슬을 내놓고 강릉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처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갈까 했더니 이제 가지 못하 게 되었다. 올 때 서울에 들어가 윤겸을 만났더니 역시 무사히 서울에 이르러 지난 15일에 숙배(肅拜)하고 입직(入直)했다 한다. 그의 편지를 보니 무리한 일로 사헌 부의 회의에 여러 번 나갔으나 남들이 구원해서 중지되었으며, 지평 유희서(柳熙 緖)가 힘껏 탈을 잡으려 했다 한다. 유(柳)는 평일에 불쾌하게 지냈기 때문에 때를 타서 망극한 계획을 꾸미려 했으니 가위 교활한 일이다. 장령 유대정(俞大禎)이 힘 써 구원했다고 한다. 윤해도 또한 같이 오다가 중로에 도둑을 만나 간신히 면하고 수워 그 양모(養母)의 집에 이르러 먼저 막정을 보낸 것이다. 황해도는 산골이어서 도둑이 크게 번져. 양덕의 처남 민우안이 나올 때 도둑을 만나 물건을 모두 약탈당 하고 적신(赤身)으로 겨우 면했다 한다. 그런데 윤해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니 진 실로 다행한 일이다. 양덕에서 보낸 물건은 참깨 2두 · 들깨 2두 · 짚신 3켤레 · 노 루가죽 1장 · 목미 2두 · 명주 1필 · 중포(中脯) 1장 · 건치 3마리 · 포목 1필이요, 그 나머지 곡식은 소를 살 때 썼으며. 포목도 또한 말 값 더 줌 때 썼다 한다. 어머님 께서 장의 1벌ㆍ버선 1켤레ㆍ마른 노루 1마리ㆍ약과 1행담을 또한 보냈다. 내게는 행전과 버선을 또한 만들어 보냈다. 이제 들으니 심질은 벼슬살이가 생소해서 상 사에게 욕을 당하기도 여러 번이었다니 비록 스스로 그만두지 않더라도 장차 지탱 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세력 없는 음관(蔭官)이라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니 탄식 한들 무엇하리요.

23일. 송노가 돌아왔는데 빈 섬 백 장을 관인과 함께 싣고 왔다. 또 양산의 집에 두

어두었던 벼 2두로 미역 43동을 바꿔 가지고 왔는데 1동이라는 것이 겨우 한주먹이다. 집에 반찬거리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조석 반찬을 하려는 것이다. 저녁에 생도미를 파는 자가 마을을 돌면서 외치고 다니므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자고 간청한다. 이에 거친 벼 2두를 주고 2마리를 바꾸어서 국을 끓여 같이 먹었는데 계집아이들도 오히려 싫어하지 않으니 우습다. 바야흐로 밥도먹기 어려운 터에 이것으로 하루 먹을 양식을 소비했으니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인가. 백광염이 와 보고 갔다.

24일. 아침에 또 생광어 한 마리를 사서 국을 끓여 먹었다. 쌀 한 되를 주었다. 요새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맛있는 반찬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산 것이다. 연전에는 도미 한 마리에 값이 쌀 반 되라도 오히려 팔지 못해 애쓰던 것이 금년에는 두 되라도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산다. 연전 이때에는 백성들이 나뭇잎을 따고 가죽을 벗기는 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자를 보지 못하겠고, 지난해에는 전답이 모두 묵더니 지금은 모두 일구어 갈아 심으니, 그래서 백성들의 재력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나은 것이다. 올해 만일 결실만 잘 되면 백성들이 소생하고 국가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저녁에 함열 종이 왔는데 딸이 생조기 네 묶음을 보냈다. 또 함열 관인이 서울로 가는 길에 여기에 들렀기에 편지를 써서 윤겸에게 전하게 했다. 저녁에 이 별좌 정시 및 교생 김정이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또 들으니 새 태수 서 공(徐公)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호령이 엄하고 밝은 것은 비록 먼저 태수 변 공(邊公)(변호겸)만 못하나 자세하고 분명하고 자애스러운 것은 그에 지난다고 한다. 그러니 비록 눈앞의 속한 효험은 없을지라도 달로 계산하고 해로 살피는 것은 먼저 사람의 업적에 지나는 것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이다.

25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늦은 후에 비로소 갰으나 저녁내 흐렸다. 또 송노를 유선각에게 보내서 마초와 좁쌀 씨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고, 조 좌수(희윤)가 늦은 조 두 되를 보냈다. 또 단아가 오늘부터 다시 학질을 앓으니 민망하다.

26일. 백광염의 밭을 얻었기에 조를 심으려고 막정과 송노를 시켜 말 두 필에 똥을 실어 22바리를 냈다. 지팡이 짚고 가보니 밭은 산 밑에 있는데 메마르고 황폐해 있다. 처음에는 이런 줄은 몰랐는데 이미 똥까지 내게 했으니 반드시 한갓 수고롭

기만 하고 남의 웃음꺼리만 되는 것이다. 농사지어서 나만 먹으면 모르지만 만일 병작(并作)을 한다면 소득이 필경 적을 것이니 응당 후회가 있을 것이다. 백광염을 불러 송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자니 최인복과 조준민이 지나다가 들어와 본다. 최와 조가 먼저 돌아가므로 나도 따라오다가 씨 뿌린 논을 돌보고 물을 대주고서 돌아왔다. 이웃에 사는 전 상좌(田上佐)의 처가 밥 한 그릇을 지어 찬을 갖추어 갖다 바치므로 즉시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었다. 깊이 감사하다. 또 출당화(黜堂花)를 지져서 천신(薦神)하고 함께 먹었다. 또 들으니 내일 환상 곡을 나누어 준다 하므로 아침에 집사람을 시켜 편지를 써 가지고 분개를 시켜 태수의 부인에게 보냈더니 답장하기를, 내일 단자를 바치면 다소간 준다고 한다. 저녁에 이웃에 사는 만수의 처가 집사람을 와서 보고 생치 한 마리를 바치므로 어머님께 바치련다. 몹시 기쁘다. 그러나 태수에게 청할 일이 있어 그러는 것이니 한스럽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이니 물리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아직 받아두고, 듣거나안 듣거나 간에 내일 마땅히 집사람을 시켜 편지를 써서 태수 부인께 전하려 한다. 누에가 비로소 한잠을 잤다.

27일. 일찍 분개를 아내(衙內)에 보냈더니 답장하기를 마땅히 이 말로 아뢸 것이라했다. 또 막정을 시켜 단자를 올렸더니 벼 한 석을 주므로 받아다가 다시 되어 보니 13두인데 그것도 영글지 않았으니 한스럽다. 오후에 고성집 종 정손이 왔는데지난 정월 그믐에 누이가 영유(永柔)에서 나와 해주 읍내로 돌아와 있으므로 어머님께 문안드리기 위해 왔다고 한다. 이제 고성(남상문) 및 누이의 편지를 보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 없다. 다만 들으니 잘 돌아와서 관청에서 곡식을 받았다 하니이것이 기쁘고 위로가 된다. 또 들으니 고성의 서자 수이가 지난 가을에 남쪽으로와서 추수해 가지고 아산 땅에서 배에 싣고 종 두 사람과 함께 배에 타고 서쪽으로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하니 필시 뱃사람이 이들을 물에 집어넣고 그물건들을 빼앗아 간 것이다. 불쌍하다. 또 이웃에 사는 조 좌수 윤공이 그 매부 정 덕린과 찾아왔다. 감작지(減作紙)를 함열태수에게 청해 달라는 것이다. 단아는 오늘도 또한 학질을 앓으니 필시 날마다 앓는 학질인가 보다.

28일. 편지를 써서 고성 종 정손을 해서로 보내고 겸해서 윤함에게도 편지를 보냈

다. 또 종을 세동 조윤공에게 보내서 마초 5묶음과 조씨 반 되를 얻어 왔다. 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막정을 함열로 보내고 송노를 석성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송노는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저녁에 송노는 편지를 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또 사인 한백복이 와서 보았다. 함열 땅에 도망간 종을 잡아 달라는 일이다. 편지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저녁에 생도미 한마리를 사서 국을 끓이고 또 죽순을 얻어서 천신한 다음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식구들이 먹었다. 울타리 밑의 자죽(紫竹)이 비로소 순이 나므로 새것이어서 천신한 것이다. 저녁에 백광염이 와 보았다.

29일. 무료해서 지팡이를 끌고 이광춘과 함께 걸어서 집 앞 언덕에 올라가 바람을 썩다가 돌아왔다. 또 인아가 막정을 데리고 함열로부터 돌아왔다. 함열 아중에 머무른 지 월여가 넘었는데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 막정이 예로 보내는 쌀 6두와 조 1석을 실어 왔다. 함열에서 또 참보리 4두·콩 1두·생도미 1마리·소금 5되를 주어서 가지고 왔다.

4월

1일. 한복·막정·송노 등을 시켜 백광염의 밭을 일구어 가지고 조 1되·차조 반되·기장 7홉·팥 2되·깨 5홉을 뿌렸다. 비록 갈고 씨는 뿌렸으나 밭이 메말라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니 가소롭다. 식사 후에 밭가는 곳에 가보았는데 길에서 이 진사 중영을 만나서 길가 둑 위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2일. 또 세 종을 시켜 솔가지를 따다가 둔답 물이 새는 곳을 막았다. 또 연못 둑 막은 곳의 전일에 다 갈지 못한 것을 오늘 다시 하는데 태수가 친히 와서 역사를 보므로 나도 또한 나가서 이야기했다. 태수가 먼저 일어나 관청으로 돌아간 뒤에 나는 또 감관(監官) 임붕과 앉아서 농사 이야기를 하다가 전일 매기를 허락한 곳을 나누어 주기를 청했더니 나의 얻은 것은 네 마지기 서쪽가의 다섯 묘(畝)요, 권학 씨도 역시 네 마지기를 얻었다. 저녁에 둑 위에 나갔더니 조 판관 대림이 마침 와서 임붕・이광춘과 같이 앉아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조(曹)는 원수 권율의 서처남(庶妻男)으로서 가까운 이웃에 와 있는 사람이다.

3일. 꿈에 충아를 보았는데 무릎 위에 끌어 앉혔더니 계속해서 할아비를 부르면서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입에 갖다 댄다. 깨고 나도 완연하니 연연한 마음 이길 수 없 다. 또 어제 조그만 자라를 연못에서 얻었기에 오늘 아침에 국을 끓여 인아와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매우 아름답다. 아침 식사 후에 허찬이 왔는데, 전에 여기에서 고 부에 있는 딸에게 들러본 뒤에 그 길로 영암 임 진사의 집에 가서 20여 일을 머무 르다가 지난달 20일 후에 떠나서 태인 아우 희철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비로소 온 다고 한다. 임매 및 희철의 편지를 얻어 보니 모두 탈이 없다고 하니 몹시 기쁜 것 을 어찌 다 말하랴. 다만 아우는 종과 말이 없어서 오랫동안 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한스럽다. 또 홰나무 잎을 따서 떡을 쪄서 천신하고 나서 같이 먹었다. 노 비들도 역시 각각 쌀되나 내어 도와 가지고 나누어 먹었다. 저녁에 집주인 최인복 이 와서 보기에 술 두 그릇을 먹여 보냈다. 어두운 뒤에 안악 종 중이가 신홍점(申 鴻漸)의 침해를 입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어머님을 모셔 갈 셈으로 그 일가 중 성호(性浩)와 함께 말을 가지고 왔다. 올 때 해주 윤함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 가 지고 왔기에 유함의 편지를 펴 보니 아무 탈도 없고 안질(眼疾)은 또한 점차 소복 되어 간다고 했다. 그곳 노비들에게서 받은 공포(貢布) 두 필과 포목 한 끝을 보내 왔다. 먼 길에 일부러 와서 모셔 가겠다는데, 이 같은 농사철에 부득이한 일이 아 니고서야 어찌 말을 가지고 오겠는가. 그러나 형세가 갈 수 없으니 어찌하리오. 요 새 오는 사람이 많아 식사 대접이 몹시 번거로워서 양식 자루가 바닥이 났으니 민 망하다.

4일. 아침에 조윤공이 와 보고 돌아갔다. 식사 후에 무료해서 조문화 백순(희철)을 가 보았더니 나에게 수반을 대접하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 길로 조 좌수 군빙(희윤)에게로 갔더니 마침 조 한림 백익(희보)은 학질을 앓아 만나지 못하고 군빙 부자와 저녁내 이야기하는데 그 집에서 나에게 밥을 대접하므로 해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또 예산 김 한림 자정(김지남)이 일이 있어 전인해서 사람을 보냈기에 온 편지를 펴 보니 그 병든 아들 무적(無赤)의 증세가 지금은 날로 점점 위중하여 음식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누웠으니 형세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 눈물을 금할수 없다. 병이 중해지면서부터 밤낮으로 소리 내어 울면서 어머님과 우리 형제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더욱 몹시 비통함을 견딜 수 없다. 비록 가보고 싶으나 왕 래의 양식이 몹시 어려우니 형세가 어찌할 수 없다. 한탄한들 무엇하랴.

5일. 허찬이 하루를 묵어서 서울로 떠난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윤해 및 윤겸에게 전하게 했다. 예산 김 한림의 종도 역시 묵으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안악 종 중이는 내일 장에 가서 양식을 바꿔다가 모레 떠난다고 하므로 편지를 써서 역시 윤함에게 보냈다. 나는 이제 먹기가 어려우므로 함열로 가서 거기에서 아는 곳에 양식을 구해 볼 작정이다. 식사 후에 떠나서 배로 남당을 건너 중도에서 비를 만나옷이 젖어서 숭림사로 들어가 우비를 얻으려 했더니, 마침 남궁씨 여러 사람이 그문장(門長)을 모시고 각각 점심을 가지고 사루(寺樓)에 모여 있다. 여기에서 흑정 경도도 놀고 혹 바둑도 두고 혹 활도 쏘아 젊은이와 어른이 다 모였는데 내가 우연히 들어가니 나를 자리로 맞는다. 이들은 평일에 서로 알던 사람들이어서 음식을 나누어 준다. 비가 개기를 기다려 함열 아중(衙中)에 도착하니 태수는 김 봉사경・이 진사 중영・안 생원 수인・이 별좌 우춘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들고 아중으로 들어가 딸을 만났다. 태수는 여러 사람과 객사에서 활을 쏘았다. 어두워서 이 진사・안 생원과 함께 동상헌에서 잤다. 승림사에 모인 자는 남궁영광(南宮靈光) 현(俔) 형제와 이남원(李南原) 복남・이 별좌 정시, 그리고 여러 소년들 모두 십여 명이었다.

6일. 안 공·이 공 두 사람과 함께 새 방으로 가서 태수를 만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정시도 또한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태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신응규가 청하는 데로 가고, 나는 홀로 두 이(李)와 이야기했다. 해가 기울자 두 이(李)는 돌아가고, 나는 아내(衙內)로 들어가 딸을 만나 저녁내 이야기하다가 어두운 뒤에 상방(上房)으로 나와 잤다.

7일. 아내(衙內)로 들어가 태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태수는 먼저 일어나 새 방으로 나오므로 나도 또한 따라 나왔다. 김·이 두 봉사 및 민 주부(민수경)가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마침 서울에서 온 사람 편에 윤겸의 편지를 얻어 보니 딴 연고 없이 잘 있다고 하니 기쁘다. 그에게 들으니 동궁(광해군)이 근래에 남쪽으로 온다고 하니, 만일 그렇다면 윤겸도 또한 모시고 올 것이니 더욱 위로가 된

다. 또 조보를 보니, 심 유격(심유경)이 지난달 12일에 강을 건너갔으니 근일에 마땅히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요. 왜를 봉하는 중국 사신도 또한 이미 요동에 도착해 있다고 한다. 늦은 후에 양식을 얻으려고 떠나서 익산 이천황(李天貺)의 집에 들렀더니 이(李)는 나와서 맞아 나에게 수반을 대접받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다시 송지평 인수(송영구)의 집으로 갔더니 인수는 마침 외출해서 집에 없고, 그 아저씨송 선전관 상이 집에 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맞아들여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해가 저문 후에 인수가 돌아와서 만나 보니 기쁘고 위로가된다. 거기에서 같이 자면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8일, 인수가 나에게 상하 아침밥을 준다. 늦은 후에 떠나서 권 판관 성기에게 들렀 다. 권(權)은 역시 인수의 집에서 1리쯤 되는 곳에 임시로 와 있는데 나의 7촌척이 다. 잠시 이야기하다가 나와서 고산현으로 갔다. 5리쯤 남은 곳 느티나무 정자 밑 에 앉아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한참 동안 쉬다가 홍문 밖 인가에 이르러 먼저 종을 시켜서 이름을 통하게 했더니 문금(門禁)이 몹시 엄해서 통하지 못한다. 들으니 한 욱(韓頊)의 아우가 태수의 집에 데릴사위로 와 있는데, 욱(頊)도 또한 어제 와서 태 수(최흡)의 형 최혼(崔渾) 및 4, 5명의 소년과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한 다. 이에 좋을 시켜 이름을 통했더니 욱(頊)이 즉시 사람을 태수에게 보내서 내가 왔다는 말을 전했더니 태수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나로 하여금 그 형이 노는 냇가로 가게 한다. 나는 즉시 냇가로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생선을 회쳐서 술을 마시다가 해가 기울어서 사람들과 같이 돌아왔다. 객사 상동헌으로 들어가니 유 주사 탁(濯)과 최 생원 기수(耆壽)가 먼저 와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저녁 식사를 했다. 태수가 어두운 뒤에 들어와서 먼저 아헌으로 들어가더니 나를 청한다. 여러 사람들은 관등하면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나는 마침 입병이 나서 몹시 심하므로 술을 마시지 못하고 먼저 사사 주인집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이응 길이 송사의 일로 해서 그 집에 와 있어서 그와 같이 잤다. 응길은 곧 서울에서 서 로 알던 사람으로서 함열 땅에 와 있는 중이다. 태수의 성명은 최흡이요 자는 태화 인데 역시 평일에 서로 가깝던 자이다. 이번에 와 보니 걸객이 방에 가득한데 널리 사랑하기는 해도 인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비록 밖으로는 은근한 뜻을 보여도 자못 싫어하는 빛이 있다. 내가 온 것이 몹시 후회된다. 그 형 태충 매우 나를 환영하는 데 내일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관등하고 모여서 마신 자가 젊은이 늙은이 합해서 무려 15, 6명은 된다.

9일. 떠나려 했으나 행량을 얻지 못하여 아직 머물러 있는데, 오후에 태수가 쌀 1 두 · 콩 1두 · 팥 1두 · 벼 5두 · 목미(木米) 5되 · 찹쌀가루 3되 · 누룩 2장을 준다. 이에 행장을 차리는데 태수가 동헌으로 와서 보고 밤이 깊어서 돌아간다. 나는 최생원 기수와 같이 서헌방에서 잤다. 최(崔)는 전에 비록 알지 못했으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여서 한 번 보아도 예부터 아는 것과 같다. 저녁내 이야기했다.

10일. 일찍 식사를 한 후에 태수가 나를 아헌으로 청하더니 큰 그릇으로 백주 한 잔을 주고 또 백저(白楮) 한 묶음을 준다. 이에 작별하고 떠나서 좁은 산골짜기로 해서 연산 땅 길가 감나무 그늘 밑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점심을 먹고 나니 해가이미 저문다. 형세가 진잠까지 가지 못하겠으므로 부득이 연산 고운사로 들어갔다. 이 절은 역시 남쪽 지방의 거찰(巨刹)인데 난리 이후로 관역(官役)에 괴로워서 중들이 몹시 적고 빈 방이 역시 많다. 주지승 현원은 본래 안성 청룡사에 있었는데 내 농사(農舍)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전에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듣고 나더니 그역시 잘 대우한다. 저녁밥은 절에서 지어 주고 나를 만세루에 재워 준다. 현원사는 또한 조형원 형제와 서로 친히 안다고 한다. 또 현원사에게 들으니 중 상현은 지금천안 여왕사에 머무른다고 한다. 상현은 곧 내 종으로서 본래 직산에 살다가 신역을 피해서 중이 되어 전일에는 목천 승천사에 있다가 지금은 여기로 옮겼다. 속명 (俗名)은 강복이다. 이다음에 그 절에 가서 물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1일. 일찍 식사를 한 뒤에 절 뒤 큰 고개를 넘어서 진잠현 5리 밖 느티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말에 꼴을 먹이면서 먼저 송노를 시켜 고산의 비밀 관문(關文)을 가져다 바치게 했더니 태수(박홍수)는 친히 떼어 보지 않고 색리(色吏)를 시켜 열어 보게 하더니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다행히 들으니 태수가 오늘 위요 (圍繞)의 일로 나온다고 하므로 나는 홍문 밖 소나무 정자 밑에 와서 쉬노라니 조금 있다가 태수가 신랑을 데리고 나온다. 내가 길가에 서 있다가 태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쳐다보면서 자(字)를 불렀더니, 태수는 말하기를, 지금은 위요를 해

야겠어서 만나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돌아온 뒤에 만나자고 한다. 그리고 즉시 하인에게 명하여 나를 사삿집으로 가 있게 하고 상하 식사를 대접하게 한다. 유리하여 궁곤함이 지극해서 부득이 친구 아는 곳에 걸식을 하자니 도처에 곤욕이 적지않다. 차라리 편안히 앉아서 굶는 것만 못 하니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그저시운(時運)에 맡길 뿐이다. 집주인은 정병 서수련(徐守連)이라고 하는데, 관청에서 상하 요미(料米)를 주어서 자작 밥을 지어 먹으라 하므로 막정을 시켜 받아 오게 했더니 상미(上米) 7홉ㆍ하미(下米) 5홉이요, 벼가 조금 있는데 찧으니 아주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에 가지고 있던 팥 한 되를 섞어 밥을 지어 먹으니 가위 곤란하다. 태수는 저녁이 되기 전에 관청으로 돌아왔으나 끝내 사람을 보내서 묻지 않으니 더욱 탄식할 일이다.

12일. 늦은 후에 태수가 사람을 시켜 안부를 묻고 어제는 술이 취해서 만나지 못했 다고 사과한다. 들으니 태수가 아헌에 나와 앉았다 하는데 종시 청해 보지 않는다. 내가 식사 후에 들어가 보고 잠시 이야기하는데 태수가 사창으로 나가므로 나도 또한 상동헌으로 가서 종일 혼자 있노라니 무료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마침 전 이 성태수(利城太守) 신호의(愼好義)가 순찰사 군관으로서 들어왔다. 전일에 임천에 서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노라니 거의 고적한 회포 가 풀어진다. 신(愼)은 점심 먹은 후에 떠나서 연산으로 향했다. 나도 또한 태수에 게 편지를 하여 내일 떠날 뜻을 보였더니 태수는 백미 1두 · 중미 2두 · 콩 3두 · 말 장 1두·찹쌀가루 5되·목미(木米) 5되·누룩 1장을 주므로 종을 시켜 받아 오게 했다. 저녁에 또한 청해 보지 않아서 배가 비어 참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묵는 곳으 로 돌아왔다. 태수의 성명은 박홍수요 자는 응일인데 한 동리에 살아서 젊어서부 터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번에 와 보니 자못 싫어하는 빛이 있으니 비록 난리 중이라고는 하지만 인정이 어찌 여기에 이른단 말인가. 요새 심 유격이 내려와서 여러 고을이 시끄러우므로 비록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어찌 은근한 뜻으로 대우하 지도 못하는가. 더욱 탄식스럽고 한스럽다. 어두워져 잠자리에 들었으나 모기떼가 모여들어 견딜 수 없으니 생애가 탄식스럽다.

13일. 일찍 식사를 한 뒤에 아내(衙內)에 들어가 태수를 만났는데, 내일 심 유격

이 공주에 오기 때문에 차원(差員)으로 지금 떠나기 때문에 사세가 조용치 못하다고 한다. 또 행량을 청했더니 쌀 5되·콩 5되·감장 3되를 주고 태수는 먼저 나간다. 나도 또한 뒤따라 떠나서 연산현 5리 밖 버드나무 그늘 밑에 이르러 말을 풀어놓아 풀을 뜯게 하고 맑은 물에 발을 씻으니 거의 답답한 심회가 풀린다. 밥을 지어 점심을 먹고 이산 땅 조자옥(조우)이 있는 집에 도착했다. 난리 후에 이제 처음만나는데 모두 객지이므로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각자 떠돌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와 내가 생존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 어찌 우연한 일이랴. 그러나 들으니 율연(栗然) 내외가 병으로 안협 땅에서 죽었다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없다. 또 들으니 그 형 형연(瑩然)씨는 아직 병이 없다고 하니 이것으로 위로가 된다. 자옥이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자면서 밤새 발을 맞대고 옛이야기를 했다. 윤우의 아들 충원도 또한 있었다.

14일. 자옥이 나에게 상하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작별하고 떠나서 배로 고성나루를 건너 잠시 쉬면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집에 도착하기 전 수리라는 곳에서 최 생원 집을 만나 말 위에서 서로 이야기하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어제 그 아들이 조 내한(희보)의 집에 데릴사위로 왔기 때문에 그 까닭에 왔는데, 이제 홍 주서 준(遵)을 만나려고 들렀는데 다시 올 때 찾겠다고 한다. 집에 도착하여 어머님께 뵙고 또영암 임경흠의 편지를 보니 온 집이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경흠이 미선(尾扇)두 자루를 보냈으므로 한 자루를 어머님께 드리니 더욱 기쁘다. 저녁에 최심원(집(潗))이 찾아왔는데 비록 다시 보았어도 그는 대취해서 말을 하지 못하므로 다시내일 찾아 가기로 기약했다. 경흠의 편지는 심원이 가져왔다. 또 지난 10일에 환상곡 한 석을 받아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13두라고 한다.

15일. 일찍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말을 달려 조백익(희보)의 집에 가서 심원을 만났더니 바야흐로 2, 3인과 함께 술자리를 베풀고 있어서 나도 또한 참여했다. 조 좌수 군빙이 주인이 되어 대접하는 데, 조 감역 수륜(守倫)도 역시 와서 각각 몇 순배씩 마시고 파했다. 주인집에서 또한 나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심원은 식사 후에 작별하고 먼저 나갔고, 나는 술이 취하여 한참 동안 곤히 자다가 조금 깨기를 기다려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송노 등의 풀매는 곳에 들러 보았더니 내가 나간 후

에 밭과 논 두 곳을 이미 다 매었고 한 곳이 남았기로 세 종으로 하여금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요새 오래 가물어서 세 논이 모두 말랐으니 탄식스럽다. 소즐이 왔기에 수반을 먹여 보냈다. 함열 아노 춘복이 왔는데 딸이 양식 떨어졌단 말을듣고 벼 2석·참보리 2두·저린 조기 5마리를 실어 보냈는데, 다시 되어 보니 각각 1두씩 준다. 또 지난 11일에 윤겸의 종 감동이 목화씨를 가져갈 일로 왔다가 이제 함열로 가서 목화씨 10여 두와 참보리 5두를 얻어 가지고 왔다. 또 전일에 9승목(升木) 40척을 아비(衙婢)를 시켜 짜게 한 것을 딸이 또한 보냈는데 중로에 도둑을만나 빼앗기고 그대로 돌아왔다 한다. 만일 사실로 도둑을 만났다면 가졌던 물건을 다 빼앗아 갔을 터인데, 어찌 보리 3두·포목 한 끝만 빼앗아 갔겠는가. 몹시의심스럽다. 이 포목을 기다려 봄옷을 지으려 했는데 잃었으니 더욱 한스럽다. 누에는 이제 석잠을 잤다. 만일 잘 되면 연전만큼이나 되겠다.

16일. 또 송노·눌은개를 시켜 어제 못다 맨 곳을 매게 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더니 늦은 후에는 크게 내린다. 오래 가문 나머지에 이 한 비를 얻으니 비단 밀보리가 소생할 뿐만 아니라, 높고 건조한 논도 거의 물을 얻게 되었으니 농촌의 기쁨을 어찌 다 말하리오. 비는 저녁내 개지 않는다.

17일. 또 송노·눌은개를 시켜서 둑 막은 논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식사후에 논매는 곳을 가보고, 그 길로 전일 맨 곳에 가보고 물을 대주고 돌아왔다. 집 주인 최인복이 내일 영남방어사의 군대에 간다고 와서 인사하고 갔다. 집에 술도 안주도 없어서 먹여 보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암탉에게 알 열 개를 안겼다.

18일. 새벽에 막정을 최인복에게 보내서 조기 한 묶음을 보냈다. 그 멀리 가는 길을 위해서다. 또 송노·눌은개 및 품인 두 사람 도합 네 사람을 시켜 어제 매다가 끝내지 못한 곳을 맨 뒤에 이른 벼논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식사 후에 논맨 것을 가보고 그 길로 성민복을 찾아 조용히 이야기하자니 성민복이 나에게 수반을 대접한다.

19일. 또 네 사람을 시켜 어제 끝내지 못한 이른 벼논을 매게 하여 끝냈다. 오후에 논맨 곳을 가서 보는데 마침 한 감찰 즙(檝)이 찾아와서 언덕 위에 앉아서 한참 이 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또 전일 내린 비가 자못 높고 건조한 곳에는 흡족하지 못해 서 오늘 매 준 논은 물이 마르고 모가 드무니 한스럽다. 또 인아는 막정을 데리고 함열에 갔다.

20일. 막정이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위어젓 20개·백어식혜 5되·순채(蓴) 1묶음을 보냈다. 순채는 즉시 나물을 만들어 천신한 뒤에 처자들과 같이 먹고, 나머지는 내일 국을 끓여 어머님께 드릴 계획이다. 나물은 어머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술이 없어서 이것이 한 가지 홈이다. 이제 자방(子方)의 편지를 보니황사숙(黃思叔)(황신)이 심 유격(심유경)의 차반으로 적진에 가다가 송인수(송영구)를 들어가 보고 말하기를, 서울에 있을 때 윤겸과 같이 거처했는데 그때 잘 있더라고 하더란다. 사숙이 오늘 가는 것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의 배척을 받아서이니 몹시 탄식스럽다. 그러나 평탄하고 험한 것은 군자가 평일에 강명(講明)하던바이니 어찌 꺼려서 행할 이치가 있으랴. 다만 그 노모가 집에 계시니 아는 자로서어찌 슬픈 마음이 없으랴. 또 들으니 왜를 봉하는 중국 사신이 이미 강을 건넜으니근일에 마땅히 서울에 도착하리라 한다. 이 농사철을 당하여 지나가는 고을마다시끄럽고 요역이 번거로워 민생이 업(業)을 잃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연유할 것이니 참으로 한스럽다. 그러나 이 적이 만일 이로 인해서 바다를 건너간다면 한 나라의 기쁨과 경사로움을 어찌 다 말하랴.

21일. 요새 뽕 따는 일 때문에 논을 매지 못했는데 양식은 이미 다 되었고 대기(大 忌)가 박두하니 아무런 계교가 없다. 민망하고 걱정됨을 어찌 이기랴. 저녁에 윤해의 종 춘이가 왔는데 함열에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다. 윤해의 편지를 펴 보니온 집안이 모두 잘 있다고 하니 기쁘다. 그러나 요새 농사일로 해서 와 보지 못하고 7월에 농사가 한가한 틈을 타서 온다 하니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부자・형제가 각각 먹기를 도모하여 타향에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이지 못하니, 비록 형세라고는 하지만 좋지 못한 때를 만난 것이 한스럽다. 또 한복과 이광춘이 비인(庇仁) 고기 잡는 곳에 가서 고등어 다섯 마리를 갖다 바친다.

22일. 막정이 말을 가지고 태인 아우에게 갔다. 대기가 가까워 옴으로 와서 여기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자고 청하려 가는 것이다. 행자는 마땅히 함열에서 얻어 가야할 것이다. 춘이도 역시 함열에 갔다. 홍 주서(홍준)가 고등어 1마리 · 건도미 1마

리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누에는 힘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이 놓아서 노비들이 날마다 먼 곳에 가서 뽕을 따오기에 양식은 떨어지고 오래 논을 매 주지 못하여 풀은 무성하고 물은 말랐으니, 후일에 양식이 생기기를 기다려 맨다면 인력이 배나 들 것이니 민망스럽다. 단아는 요새 학질이 떨어져서 앓지 않으니 기쁘다.

23일. 송노·눌은개를 물건 바꿀 일로 이른 아침을 먹여 보냈다. 오후에 무료해서 우물가 녹음 위에 앉아서 이광춘과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지팡이를 끌고 이른 볏논에 가보았다. 다만 두 번 매 준 뒤에 오래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은 마르고 모는 드문 데다가 모 뿌리가 번지지 못하니 한스럽다. 저녁에 여기 사는 사인(士人) 장우한(張佑漢)이 와 보았다. 비록 서로 알지 못하지만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가위 후하다 하겠다.

24일. 들으니 환상곡을 나누어 준다기에 태수(서집(徐輯))에게 편지를 보내어 넉넉히 주기를 간청했으나 답장하기를 창고의 저장이 넉넉지 못하여 형세가 많이 줄수 없고 다소간 줄 것이라고 한다. 즉시 송노를 시켜 단자를 바쳤더니 겨우 벼 10 두를 주었는데 다시 돼 보니 7두 5승이다. 비단 조석 먹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기(大忌)가 가까워 오는데 제주(祭酒)도 아직 내놓지 못했으니 더욱 몹시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그래서 집사람이 태수 부인에게 제수를 요구했더니 찹쌀 3되ㆍ꿀 5홉을 보냈다. 저녁에 최심원의 아들 정해가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그는 곧 조백익의새 사위이다. 또 누에는 어제부터 비로소 익기 시작하여 오늘은 섶에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요새 밤기운이 몹시 차기 때문에 속히 익지 않는다 한다. 어제 이광춘이 내 말을 빌려 가지고 한복으로 하여금 비인 고기 잡는 곳으로 가서 고등어를실어 가지고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말 값으로 18마리를 바친다. 춘이는 함열에서 왔는데 함열에서 벼 1석ㆍ콩 2두ㆍ뱅어젓 3되ㆍ누룩 3장은 윤해에게 보내고, 딸이 쌀 1두ㆍ콩 5되를 따로 내게 보냈다.

25일. 춘이는 머물러 있고 가지 않는다. 누에는 오늘 절반이나 올랐다. 송노를 함열에 보내어 제수를 구해 오게 했다.

26일. 춘이가 진위로 가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윤겸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집

사람이 고등어 일곱 마리를 윤해의 집에 보냈다. 또 광주 묘제(墓祭)에 쓰도록 조기 1묶음 · 건치 1마리 · 민어 반짝 · 양색젓갈 및 위어 식혜 18개 등을 보냈다. 쌀말이나 보내려 했으나 집에 양식이 바야흐로 떨어져서 보내지 못하고 윤겸과 의논해서 밥을 지어 지내게 했다. 윤겸이 갈 때 말하기를, 비록 물건을 보내지 않더라도 마땅히 형편을 보아 조치해서 친히 지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밤에 집사람이 곽란이 나서 토하고 설사를 하여 새벽내 앓다가 아침에 비로소 나았다. 집주인 최인복의 아들 연(淵)이 10일 이후부터 날마다 와서 사략(史略) 초권을 배운다. 또 저녁에 아우 희철이 태인에서 왔다. 못 본지 몹시 오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송노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중미 2두 · 벼 5두 · 목미 2되 · 찹쌀 3되 · 기름 5홉 · 조기 1묶음 · 생선 3마리를 얻어 왔다. 9월 대기(大忌) 때 제수는 전혀 거기에서 보냈었는데, 이같이 간략하니 며칠 먹으면 남을 것이 없을 터이니 민망함을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식구는 또 불었고 달리 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27일. 아침에 송노를 조문화(희철)·조김포(희식)에게 보내서 편지로 구원을 청했더니, 문화(文化)는 쌀 4되·김포(金浦)는 벼 3두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한다. 다만 조문화가 보낸 쌀은 겨우 3되이니 송노가 만일 훔쳐 먹지 않았으면 저 집에서 반드시 한 되를 감하고 주었나 보다. 식사 후에 친히 이 별좌(덕원)의 집에 가서 구원을 청했더니 이(李)가 벼 4두와 황각(黃角) 조금을 주고 또 내게 저녁밥을 대접해준다. 제사는 이것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니 깊이 감사한다. 또 향비(香婢)가 일이 있어 군(郡)에 들어갔다가 전에 살던 그 남편의 본처가 질투해서 옷이 다 찢기고머리를 다 뽑히고 머리 뒤가 깨져서 피가 흘러 옷에 가득한 채 그 집에 누워 있다고 한다. 이에 즉시 노복 등을 시켜 들어가 보게 했더니 마침 태수(서집)가 없기 때문에 향소(鄕所)에 고해서 그녀를 잡아 가두게 했더니 도망해 숨어서 잡지 못하고그 어미를 가두어 두고 태수가 돌아오기만 기다린다고 한다.

28일. 들으니 태수가 관청에 돌아왔다고 하므로 즉시 막정으로 하여금 단자를 받쳐 잡아 오도록 하라고 했으나 사령(使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해 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자수(自首)시키려 했으나 전덕인(田德仁)의 족속

이 모두 아전들이어서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향비를 지고 들어가서 상처를 조사시키려 했으나 문을 막고 들이지 않으니 더욱 몹시 통분하다. 또 누에는 모두 익어서 다 올렸다. 덕노가 쌀 5두 \cdot 생선 2마리를 지고 왔다. 이것은 딸이 보낸 것이다.

29일. 송노·눌은개 및 품인 등 모두 일곱 명을 시켜 먼저 둑 막은 논을 맨 후에 다음으로 길가 둔답을 매게 했더니 마치지 못했다. 이는 어제 함열에서 쌀을 보내 왔기 때문에 논을 맨 것이다. 날이 밝을 녘에 아우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꿀을 얻지 못하여 약과를 만들지 못하고 다만 면과 떡·포해(脯醢) 육색탕 만을 올렸을 뿐이다. 실과도 또한 얻지 못해서 다만 잣 한 그릇뿐이다. 타향에 떠돈 지 4년이 되도록 여러 아우와 누이, 여러 자손들과 한집에 모여 제사를 올리지 못하니 전일을 추감(追感)하며 비창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향비는 덕노를 시켜 태수에게 엎고 들어가 그 상처를 검사해 보게 했더니 태수가 즉시 덕인과 처를 잡아다가 덕인은 장형 20대를 치고 그 처는 머리에 두어 차례 물을 끼얹어 항쇄(項鎖)를 채워 가두었다니 조금은 그 분함이 풀린다. 낮에 언명과 지팡이를 짚고 풀 맨 곳을 가보고, 그 길로 여러 논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마침 우모채(牛毛菜)를 먹은 것이 풍한(風寒)에 촉감(觸感)되어 졸지에 광란이 나서 머리와 배가 일시에 아프고 위아래로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저녁에 뒹굴다가 어두워서야 비로소 나았다. 또 집주인 최인복이 경상도방어사의 진중에서 오늘 돌아와서 내게 들러보기에 술 두 그릇을 대접하고, 포해 조금을 유지에 싸서 주어 보냈다.

그믐날. 또 다섯 사람을 시켜 어제 못다 맨 곳을 매게 했으나 역시 끝내지 못했다. 오후에 언명과 풀 맨 곳을 가보고 돌아왔다. 막정을 시켜 재 세 짐을 져다가 이른 볏논에 뿌렸다. 또 향비는 그저께 저녁부터 덕인의 집으로 보내서 조양(調養)하게 했다. 또 그저께 함열 딸의 편지에 보니 윤겸이 부솔(副率)의 망(望)에 들었다가 얻 지 못했다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누에씨에 쓸 고치 5되를 딴 그릇에 담아 두었다.

5월

1일, 또 두 사람을 시켜서 논을 매게 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먹기만 하고 일은 마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저녁에 혹 비가 내리다 혹 개다 하면서 또 바람이 불었다.

2일. 양식이 없기 때문에 홀로 송노만을 시켜서 풀을 매게 했다. 또 어제 고치를 땄는데 합쳐 되어 보니 17두다. 지난해에는 22두였는데 올 수확은 5두가 모자란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벼 1석·쌀 3두를 실어 왔다. 그러나 벼 2두 5되·쌀 2되가 줄었다. 젓갈 적은 것 1항아리·조기 5마리·소주 3병을 따로 보내왔다. 즉시 언명과 각각 한 그릇씩 마시고 저녁에 또 한 그릇을 마셨다. 전일에 수탉을 함열에 보내면서 인아로 하여금 바꿔 보내라고 했더니 마침 수탉 잘 우는 놈이 없어서 암탉으로 바꿔 보냈는데, 이제 바야흐로 알을 낳으므로 씨닭을 삼을 작정이다. 다만 집에 새벽을 알리는 수탉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3일, 또 네 사람을 시켜 논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아침 식사 후에 두 종 과 말을 데리고 한산에 가서 먼저 양성정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하 다가 또 금성정의 집에 들러서 태수(신경행)에게 이름을 통하게 했더니 종이 태수 가 거처하는 담 밖에서 두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 하니 어찌할 수가 없다. 조금 있다가 태수가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하므로 내가 즉시 읍취정(挹翠亭)으로 들 어가 보니, 마침 박 생원 효제가 먼저 와 있다. 객지에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됨 을 이길 수 없어 각각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아직 오기 전에 조그만 술자리가 마 련되었었는데 내가 뒤에 왔다 하여 계속 큰 잔으로 두 잔을 마시고 파했다. 들으니 도사(都事)가 온다고 해서 서헌으로 옮겨 앉았더니 홍 참봉 민신(敏臣)이 또한 왔 다. 태수가 홍 공(洪公)이 서울에 간다는 말을 듣고 전송(錢送)의 술자리를 마련하 여 겨우 두어 순배를 마셨는데. 도사가 횃불을 밝히고 들어오더니 즉시 태수와 홍 참봉 · 박희인을 청하니 이 군에 사는 송 진사(유순(惟醇))도 또한 참석했다. 그러 나 나는 도사를 알지 못하므로 홀로 서헌에 앉았다가 그대로 사가로 돌아왔는데. 밤이 반이나 지나서 희인이 들어왔다. 일찍이 같이 자기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다. 희인은 박효제의 자인데 나에게는 7촌척이 되고, 또한 태수와는 같은 해에 사 마(司馬)에 올랐고 도사도 또한 동방(同榜)이다. 홍민신은 곧 신 참판 영공(申參判 令公)의 사위로서 피란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이제 참봉에 제수되었다. 내가 올 때 금성정이 수반을 만들어 대접했다. 금성이 아니면 이름을 통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4일. 이른 아침에 아침밥 쌀을 주인집으로 관청에서 보내면서 아침밥을 지어 주라 고 했다. 우리들은 희인(박효제)과 같이 먹는데 반찬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 희인 이 먼저 아중으로 들어가기에 나도 또한 따라 나왔다. 들으니 도사(都事)는 어젯 밤에 과음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태수도 역시 나오지 못한단다. 나는 희인 및 군의 향소 등과 서헌에 앉아 이야기하는데 송 진사(유순)도 또한 와서 본 다. 조금 있자니 태수가 아중(衙中)에서 벼 5두 · 건민어 1마리 · 절인 민어 1마리 · 조기 2묶음ㆍ뱅어젓 1되ㆍ새우젓 2되ㆍ누룩 1장을 첩지에 써서 보냈다. 늦은 후 에 태수가 나와 앉아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기에 쌀 1되를 청해 얻어 가지고 작별 하고 떠나서 오다가 금성정의 집에 들어가 그 쌀로 점심밥을 짓게 하여 먹었다. 아 침밥이 시원찮아 배가 몹시 고프기 때문이다. 또 금성(錦城)과 작별하고 오다가 양 성정에게 들러 잠시 이야기하다가 떠났다. 집에 이르기 전 5리쯤 되는 곳에서 말 에서 내려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두 종을 시켜 풀을 베어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해가 아직 저녁이 되지 않았다. 함열 딸이 큰 생민어 한 마리를 보냈으므로 내일 제사 음식으로 쓰기로 했다. 집에 와 앉은 지 오래지 않아서 함열 관인이 서울 갔 다가 돌아왔는데 윤겸과 윤해 두 자식의 편지를 내놓는다. 펴 보니 모두 잘 있다고 했으니 몹시 기쁘다. 또 들으니 계집종 개비 및 종 성금이가 모두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개비는 지금 홍천 모동(牟洞)에 살고 있고 성금이는 광주 묘하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개비는 당초에 피란할 때 홍산 땅에 들어가서 윤해의 계집종 논 춘과 함께 도망하다가 같이 남쪽으로 오지 않았기에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 고, 성금이는 전일에 들으니 수원 땅 제 집에 와서 살다가 불이 나서 타 죽었다 하 더니 이제 들으니 모두 살았다고 하니 전에 들은 것은 모두 헛소문이었다. 다만 들 으니 동궁이 인후병에 이질까지 겹친 지가 20일이나 되어서 상하가 걱정하고 민 망해한다고 한다. 왜국을 봉하는 중국 사신은 지난 28일에 서울에 들어갔는데 오 래 머무를 계획을 한다고 한다. 막료와 군졸을 많이 데리고 왔고, 잡물건을 수레에 실은 것도 몹시 무겁고 크다 하니 운반하기가 몹시 어려워서 국가의 물력(物力)을 장차 지탱할 수 없다고 한다. 외롭게 남아 있는 잔민(殘民)이 어떻게 이를 감당한 단 말인가. 남쪽으로 내려 올 때 양호(兩湖)도 역시 소요스럽더라니 더욱 근심스럽다. 또 세 사람을 시켜 전일 매다 남은 논을 매게 하여 저녁에 이르러서야 끝내고, 다시 안쪽 논을 매게 했다. 네 두락의 논을 네 벌 맨 사람을 계산해 보니 14명이나들었다. 함열에서 예로 보내는 물건은 이제 이미 다 실어 왔는데, 두 번 제사를 지내고 여러 날 논을 매느라고 절반 넘게 소비했으니, 열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다먹어 버릴 것이요 그 뒤에는 계속할 길이 없으니 민망함을 말할 수 없다. 또 들으니 태수가 노 잘 젓는 군사가 결원이 많다고 수사(水使)가 위에서 아뢴 일로 해서아내(衙內)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5일. 일찍이 아우와 제사를 지냈다. 윤겸이 서울에서 마땅히 친히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기 때문에 조부모 및 죽전 숙부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식사 후에 태수(서집(徐輯))를 만나려고 들어갔더니 태수가 아중(衙中)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므로 이름도 통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다. 올 때 권학(權鶴)씨가 있는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없고, 또 홍 주서(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이야기한 지오래지 않아 한 진사 겸이 왔는데, 주인집에서 술을 내다가 대접한다. 정 정자 사신(思慎)도 또한 와서 각각 넉 잔씩을 마시고 파해 흩어져서, 집에 이르러 취해서자다가 해가 기운 뒤에야 일어났다. 함열 딸이 먹고 남은 떡 한 채반・생선과 고기구이 한 채반을 전인해서 보내 왔으므로 즉시 상하가 같이 먹었다. 집에 제주(祭酒) 쓰고 남은 것이 두어 잔 있기에 또 언명과 같이 마셨다.

6일. 송노·눌은개를 시켜서 풀을 베었으나 끝내지 못했다. 다만 곡식 모가 너무 드물어서 공연히 애만 쓰고 효험이 없으니 몹시 한스러우나 어찌하리오. 아침 식사 후에 언명이 덕노를 데리고 태인으로 돌아갔다. 내 집이 몹시 곤궁해서 아우 하나를 한집에 같이 있게 하지 못하고 타향에 가서 호구(糊□)하고 있으니 서글픈 회포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나 형세이니 어찌하리오. 어머님께서 어제 고기와 떡을 너무 드시고 밤에 풍한(風寒)에 상하시어 아침이 되자 뱃속이 불안하여 천둥소리가 그치지 않고 세 차례 설사를 하신 후에 차도가 있으시다. 옥춘을 시켜 필목한 끝을 가지고 가서 쌀 2두를 사오게 했다.

7일. 눌은개가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으므로 홀로 송노만을 시켜 풀을 매게 했다. 또 막정을 시켜 정미 2두 5되를 가지고 비인 염장에 가서 소금으로 바꿔다가보리 사는 자료로 쓰게 했다. 오후에 소즐이 와서 보았으나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대접해 보내지 못하니 한스럽다. 그에게 들으니 해운판관 조존성이 순행하러 온다 하므로 저녁에 말을 빌려 타고 군(郡)에 들어갔더니 조 판관이 아니라 곧 호부 랑 최동망(崔東望)이다. 들으니 태수가 아헌에 나와 앉았다 하므로 즉시 만나러 갔더니, 김백온ㆍ이흠중이 마침 와 있다. 객지에서 만나니 몹시 기쁘고 위로가 된다. 태수가 즉시 객사로 나가서 최 호부(崔戸部)를 맞자, 나는 김(金)ㆍ이(李) 두 분 및 권 생원 학(鶴)ㆍ한 진사 겸(謙)과 이야기하다가 태수를 청해서 술 한 병을 얻어 가지고 각각 두 잔씩 마시고 두었다. 홍 생원 사고(思古)가 뒤따라 들어왔으나 밤이이 깊었다. 나는 집이 멀어서 먼저 파하고 돌아왔다. 어머님께서 요새 이질로 해서 입이 써서 식사를 싫어하시니 몹시 민망스럽다.

8일. 이른 아침에 송노를 소즐에게 보내서 헐은 집 목재 한 바리를 실어 왔다. 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네 사람을 시켜서 논을 맸다. 지난밤 꿈이 몹시 흉했다. 병아리 열 마리를 내렸다. 아침에 향비를 김 봉사에게 보내서 태수에게 꿀을 얻어 달라고 해서 반 되를 구해다가 어머님께 드렸다. 또 늦은 후에 무료해서 논매는 곳에 갔더니 마침 변응익이 지나가다가 들려서 언덕 위에 앉아 이야기하다가돌아갔다. 막정이 돌아왔다.

9일. 막정이 사 온 소금은 22두라고 하는데 다시 되어 보니 17두 5되이다. 또 세사람을 시켜 어제 끝내지 못한 논을 다 맨 후에 율무 밭을 매게 했다. 또 오후에 함열에 사는 백성 양윤근의 처가 그 아들을 데리고 청주 2병·찰떡 1행담·삼색 어육 안주 1행담·생민어 1마리를 가지고 와서 보이니, 집사람이 나와 보고 먼저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다음에 수반을 먹였으나 주어 보낼 물건이 없어서 금록주(襟綠紬) 3벌·괄발백(括髮帛) 1오리를 주어 보냈다. 윤근이란 자는 여러 번 물건을 바쳤는데 별로 보답한 일이 없으니 한편 미안한 일이다. 저는 필시 내가 함열태수의 장인이라 해서 다음날 긴급한 역사를 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 힘이 미치는 바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몹시 걱정스럽다.

10일.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게 했다. 또 송노·한복을 시켜 한복의 매지 않은 논을 매게 했다. 지난봄에 한복이 논을 얻어서 농사지어 먹고자 하므로 내가 얻은 둔답 다섯 두락을 농사짓게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서 이웃 사람 대난 (大難)이란 자와 나누어 경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대난과 나누어 짓는다는 말은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절반을 빼앗아 지었다. 하지만 대난이 이미 초벌을 맸기 때문에 품인의 환상곡이므로 계산하려 한다. 오후에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둑 위로 걸어 나갔더니 마침 홍 생원이 둑 막은 논을 살펴보려고 내려왔다가 언덕 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홍(洪)은 먼저 돌아갔다. 그래서 또 이광춘과 이야기하다가 해가 저녁때나 되어 돌아왔다. 또 계집종 눌은개가 어제저녁부터 앓아누워서 오늘도 역시 일어나지 못하니 이 같은 농사철에 한 사람이 새로운데 여러 날 누워 있으니 말할 수가 없다. 저녁에 덕노가 태인으로부터 돌아와서 아우의 편지를 보니 집에 잘 돌아갔으나 다만 처자가 굶주리고 있다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11일. 장수 이자미(이빈)의 종 한손 및 석지 등이 그 어미와 처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들렀다. 그편에 시윤의 편지를 보니 모두 아무 일도 없다고 하나 다만 굶주림이 날로 심하다고 하니 몹시 가련하다. 한손 등은 먹기가 어려워서 수원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 2두 · 콩씨 8두를보냈고, 또 중미 1두를 따로 보냈다. 또 지난 8일에 임경흡의 종 가파리 등이 양덕으로부터 돌아와서 그편에 심질의 편지를 보니 모두 무사하다고 하니 기쁘다. 심질(沈姪)이 어머님께 약과 1행담 · 명주 1필을 보내왔다. 이 종들이 돌아갈 때 해주윤함의 집에 들러 간다고 하기에 윤함에게도 역시 편지를 보내고 아침밥을 먹여보냈다.

12일. 지난밤에 이웃집 괭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물어 갔으니 밉살스럽다. 아침부터 비가 뿌리는데 만일 주야만 크게 뿌리면 농사짓는 백성들의 바람이 흡족할 것이다. 또 붉은 말이 함열에서 왔는데 앞발을 잠시 절더니 지금은 몹시 전다. 내일 결성에 가고자 하는데, 형세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보리 수확하는 절기도 늦은데 대지 못할까 걱정이다. 오후에 또 비가 내렸으나 크게 내리지는 않았다.

13일. 오늘 결성에 가려 했으나 비단 말이 절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중지했다. 지난밤에 비가 서너 차례 크게 내려 추녀 물소리가 났고, 아침에도 또한 바람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오래 가문 끝에 이 단비를 얻었으니 농가의 바람이 가위 위로된다 하겠다. 그러나 역시 부족하니 종일 크게 내리면 흡족할 것 같다. 아침 후에 비로소 개더니 저녁에 혹 뿌리다가 혹 개다 한다. 또 근일에는 마의 (馬醫)가 없어서 저는 다리를 지금까지 침을 놓지 못하니 민망하다.

14일. 다리 저는 말을 덕노를 시켜 끌고 함열로 가서 침을 맞히게 했다. 여기에서는 마의가 없기 때문이다. 늦은 후에 날이 갰다. 물 근원이 있는 논은 모두 물이 가득하지만 높고 건조한 곳은 부족하니 다시 하루의 비를 얻어야만 흡족할 것 같다. 오후에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가서 둔답을 둘러보았더니 모가 너무 드물어서 만일 더 심지 않는다면 농사지은 것이 효험이 없을 것 같다. 어두운 뒤에 이웃에 사는 사람 6명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모 있는 곳을 찾아서 얻어 오게 했더니 두 짐을 얻어 왔다. 내일 모가 드문 곳에 더 심을 작정이다. 그러나 술이 적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 탄식스럽다. 또 저녁밥 지을 양식이 떨어졌으나 얻을 곳이 없어서 겨우 목말(木末) 두 되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상하가 나누어 먹는데 그것도 모두 반 그릇씩이었다. 심지어 어머님께까지도 또한이것을 드렸더니 가슴 아파 운들 무엇하랴. 밤새 잠을 자지 못하니, 옛 사람이 비록 떠도는 중에도 몸에 필요한 물건은 일찍이 떨어지지 않게 하던 일이 몹시 부끄럽다.

15일. 막정·송노·눌은개 등을 시켜 모가 드문 곳에 심게 했으나 많이 부족하다. 아침부터 비가 뿌리다가 혹 개다 하더니 저녁때는 많이 내리니 높고 건조한 곳도 부족한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저녁밥은 겉보리로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상하가 나누어 먹었으나 역시 창자가 차지 않는다. 바야흐로 처자들이 민망해하고 걱정할 즈음에 함열에서 사람이 와서 쌀 3두·조기 10마리를 가져왔으니 온 집안이 기뻐하고 감사해한다. 함열에서 바꿔 온 암탉에게 알 19개를 안겼다.

16일. 어젯밤 내리던 비가 새벽이 되자 그치더니 아침에는 갰다. 송노·눌은개를 시켜 논을 매게 했으나, 마치지 못했다. 오후에 지팡이를 끌고 여러 논을 돌아보았 더니 서쪽 길가 둔답도 또한 모가 드물다. 전일에 더 심을 때 모자랐기 때문에 오늘밤에 또한 세 종으로 하여금 모가 남은 곳을 찾아서 한 짐을 얻어 가지고 왔으니, 내일 마땅히 심을 것이다.

17일. 송노 등 3인으로 하여금 모가 몹시 드문 곳에 심게 하고, 다시 논을 매게 했더니 어제 마치지 못한 논을 오늘도 역시 끝내지 못했다. 나도 또한 친히 가보았다. 아침에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다리 저는 말을 끌어오게 했다.

18일. 송노·눌은개·복지 등을 시켜 전일에 못다 맨 율무 밭을 매게 했더니 소나기가 때때로 내려서 다 매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다만 율무밭 둑에 한복을 시켜 찰수수 한 되를 심게 했더니, 겨우 한 두둑을 심었는데 그나마도 씨가 드무니 필시한복이란 놈이 훔쳐다가 제 밭에 심었을 것이다. 몹시 밉다. 대체로 우리 집 전답은 모두 한복이 씨를 뿌렸는데 모가 나면 모두 드무니 생각건대 역시 훔쳐 간 것이라, 더욱 몹시 밉다. 오전에 지팡이를 끌고 걸어서 성민복의 송정에 가서 성 공(成公)을 불러내어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조응개도 역시 왔다가 성(成)은 밭가는 것을 보려고 먼저 돌아가므로 나도 역시 집으로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또 조밭 매는 곳으로 갔다가 비로 인해서 즉시 돌아왔는데, 조금 있자니 소나기가 크게 내리다가 그쳤다.

19일. 양식이 없어서 김을 매지 못하고, 송노는 이웃집으로 품 팔러 가고, 눌은개는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 3 두를 지고 오고, 또 저린 조기 70마리를 태수가 관인을 시켜 지워 보냈으므로 보리로 바꾸어 쓰도록 했다. 다만 다리 저는 말은 아직도 침을 맞지 못하다가 막정이간 뒤에 마의를 불러서 비로소 고치기 시작했으나 속히 차도가 없다고 하니 민망하다

20일. 새벽에 죽전 숙모 제사를 지냈다. 요새 몹시 군색해서 겨우 반갱(飯羹)만으로 지냈으니 슬프고 탄식함을 이길 수 없다. 또 전일 김매는 품으로 홍 주서(홍준)에게서 소를 빌려다가 집주인 최인복의 밭을 갈고 콩씨 3두 5되를 심었다. 먼저서쪽가에 있는 최(崔)의 밭을 갈고, 오후에는 우리 밭을 갈았다. 이는 곧 최는 종을 내고 나는 소를 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간 것이다. 최(崔)도 역시 와 보았다. 또

이제 세 종이 조밭을 매는데 역시 끝내지 못했는데, 이 밭도 역시 씨가 드물다고한다. 그래서 녹두 반 되를 풀 맬 때 씨가 드문 곳은 사이사이에 심게 했다. 또 막정·향비를 시켜 조기를 가지고 가서 보리로 바꿔 오게 했다. 또 저녁에 윤겸의 종소질지가 왔는데, 곧 윤겸이 지난 15일에 말미를 얻어 가지고 결성에 왔기 때문에먼저 온 뜻을 알리고, 밭을 간 후에 와 본다고 하니 기쁘다.

21일. 세 노비들을 시켜 먼저 어제 매다 만 조밭을 매고 그 후에 둔답을 매게 했으나 오후에 두 계집종이 학질에 걸려 누웠으니 한스럽다. 나는 역시 지팡이를 끌고 논맨 곳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 논도 또한 모가 드무니 한스럽다. 들으니한산군수 신경행이 의논을 받아 파면되었고, 이 군(郡) 태수는 봉고차원(封庫差員)으로 나갔다 한다. 신 공(辛公)은 곧 나의 8촌척으로서 전에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여기에 온 뒤로는 서로 알고 가깝게 지내어 이따금 급한 사정을 돌봐 주었었는데이제 들으니 바뀌어 갔다니 역시 탄식스럽다.

22일. 오늘은 곧 장인(丈人)의 제사인데 시윤이 제사나 지내는지 모르겠다. 집사람은 제사를 지내자고 간절히 바랐으나 집에 한 가지 물건도 없어서 지내지 못하니한단한들 무엇하리요. 또 세 노비를 시켜 못다 맨 둔답을 매게 하여 끝냈다. 막정을 소즐에게 보내서 조기로 보리 6두를 바꿔 왔다. 내일 풀매는 데 쓰기 위해서이다.

23일. 또 종 하나, 계집종 둘을 시켜 이른 벼논을 매게 했다. 막정은 함열로 보냈다. 모레가 어머님 생신이기로 쌀말이나 얻어다가 떡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이고, 그편에 다리 저는 말도 보고 오게 했다. 또 들으니 딸이 요새 기운이 편안치 않아서 참보리떡을 먹고 싶어 한다기에 집사람이 참보리 닷 되를 구해다가 떡을 만들어 막정 편에 보내 주었다. 또 식사 후에 맨 논에 가보니 거친 풀만 무성하고 모는 드무니, 필시 세 벌 땔 시기가 늦은 것이다. 인력이 갑절이나 들어도 잘 되기는 틀렸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지난밤 꿈에 심열을 보았는데 중국옷을 입고 와 보았다.

24일. 집의 노비 세 명과 품인 네 명, 도합 일곱 명이 이른 벼논을 매었는데, 반도 못 했으니, 다시 6, 7명은 더 얻어야 끝낼 것 같다. 식사 후에 논매는 것을 가보고

그 길로 성민복의 송정 밑에 가서 성(成)을 맞아다가 이야기하는데 마침 상인(喪人) 신경록이 지나가다가 들어와 보고 함께 한참 이야기하다가 신(申)은 먼저 돌아가고 해가 기운 뒤에 나도 또한 집으로 돌아왔다. 다만 두 계집종은 점심 후에 학질을 앓아 먼저 돌아갔으니 한스럽다. 저녁에 막정이 왔는데 예로 보내는 쌀새 달치 4두를 먼저 얻어 가지고 왔으니 10두의 쌀이 이제 이미 다 된 것이다. 내일이어머님 생신이므로 관청에서 준비하는 술과 반찬 및 떡을 일찍 보낸다고 한다. 또 딸이 요새 기운이 불편하여 음식을 몹시 싫어하고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나, 그 증세를 듣건대 반드시 태기인가 의심스러우니 몹시 기쁘다. 다만 자방(신응구)도 역시 편안치 못한데 오래되어도 차도가 없다니 이것이 걱정이다. 다리 저는 말은 아직도 차도가 없어서 다시 의원을 불러다가 침을 놓았더니 흰 물이 나왔다 하니 이달 안에는 반드시 낫지 못할 것이라, 민망스럽다.

25일. 모시 적삼을 만들어 어머님께 드렸다. 오늘은 곧 어머님 생신인데, 궁해서 어찌할 계획이 없이 다만 함열에서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다. 오후에 함열에서 아노(衙奴) 및 관인이 왔는데, 양색 떡 2상자·각색 실과 1상자·각색 생선과 고기 구이 1상자·각색 고기 1상자·백미 2두·새우젓 1항아리·뱅어젓 1항아리를 싣고 왔다. 즉시 신주에 올리고 어머님께 드리니 몹시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길 뻔했다. 온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아노에게는 버선 한 켤레씩 주어 보냈다. 또 오늘은 종들이 병을 칭탁하고 일을 하지 않고 품인도 또 얻을 수가 없다. 하루가 급한데 김을 매지 못하고 있어 일이 어긋나는 것이 많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저녁에 비가 시작하더니 밤새 개지 않는다.

26일. 비는 어제처럼 내리고 바람도 그치지 않는다. 높고 건조한 곳도 물이 모두 가득하니 부족한 근심이 없다. 또 서쪽 창밖 처마 곁에 있는 살구나무에 열매가 열어 누렇게 익은 것이 바람에 떨어졌기로 즉시 주우라고 했더니 광주리에 가득히 담아 와서 아이들이 실컷 먹었다. 또 송노로 하여금 논을 매게 했더니, 눌은개는 병을 칭탁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니 몹시 밉다. 잡아 오라고 하여 종아리를 때리고 미련함을 경계했으나 그래도 오히려 그치지 못하니 더욱 밉살스럽다.

27일. 날이 개고 해가 난다. 또 송노·눌은개 및 품인(品人) 네 명, 도합 여섯 명을

시켜 전일에 매다 남은 이른 벼논을 매게 했다. 또 막정을 결성 윤겸에게로 보냈다. 윤겸이 오고자 해도 좋은 말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므로 보낸 것이다. 식사 후에 논매는 곳에 가보았더니 마침 조희윤·조광철이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점심 후에 눌은개는 학질을 앓아 먼저 돌아가고, 송노는 손가락을 호미에 다쳐서 언덕 위로 물러나 앉았으며, 품인(品人) 두 여인도모두 일찍 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두어 두둑을 못다 맸으니 몹시 밉다. 송노는수일 사이에 또한 부릴 수가 없어 일마다 늦고 더디다. 매지 않은 곳은 거친 풀만더욱 무성한데 식량이 또한 떨어졌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또 둘째딸은 두어 달 사이에 학질이 많이 낳아 비록 아플 때도 있으나 몹시 중하지 않고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고 음식도 전과 같더니, 근일에 다시 얻어서 날로 더 중해져서 후 매일 앓기도하고 혹 하루걸러, 이틀 걸러 앓아서 대중이 없고 음식도 또한 감해서 모양이 누렇고 파리하니 딴 병이 생길까 두려워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28일. 눌은개는 한복의 품을 갚으러 갔고, 송노는 손을 다쳐서 매지 못하니 한스럽다.

29일. 어제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또 송노를 함열에 보내어 양식을 구해 오게 했다. 비단 송노가 손을 다쳤을 뿐이 아니라, 그대로 앉아서 양식이 떨어져 품인을 얻어 밭도 매지 못한다. 어머님께서 어제부터 속머리가 조금 아프시다가 잠시 후에 그치시니 생각건대 감기인가 했더니 오늘 오후에는 처음에는 조금 춥다가 두통이 몹시 심하시다가 저녁에 땀을 내시고 좀 덜하시니 필시 학질인가 보다. 민망스럽다. 다시 후일에 보아야알 것이다.

6월

1일. 어머님께서 아침에는 기운이 소복되셨다. 그러나 몹시 피곤하신 데다가 또 맛 있는 음식이 없어 식사가 아주 감해지시니 민망하고 걱정됨을 어찌 다 말하랴. 눌은개를 시켜서 전일에 못다 맨 이른 벼논을 매게 해서 끝냈다. 또 옥춘을 시켜 장에 가서 위어 네 마리를 사다가 어머님께 드렸다. 저녁에 송노가 왔는데 예로 보내

는 벼 2석을 실어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2말이 줄었다. 또 따로 말장 3두 · 미역 4 동 · 저린 고등어 14마리를 보내고, 딸이 또 조기젓 10개 · 위어젓 8개를 보냈다. 이것은 조석으로 어머님께 드릴 물건이다.

2일. 어제 물건 싣고 온 소를 송노를 시켜 도로 보냈다. 또 옥춘을 보내서 딸의 근일 불편한 증세를 물어 오게 했다. 또 오늘은 어머님께서 학질을 앓으실 날이어서일찍 학질 때는 방법 세 가지를 했다. 하나는 복숭아씨를 주문을 외우면서 먹는 것이요, 하나는 헌신 밑창을 불에 태워서 물에 섞어 먹는 것이요, 하나는 제비 똥을 가루로 만들어 술에 담가 가지고 코 밑에 대어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모두 옛날 쓰던 방법으로서 효력이 가장 나타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요, 또한 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겨우 끝나자 기운이 불편하다 하시더니 이윽고 밥 한 수저 드시는 동안 조금 떠시더니 도로 열이 올라서 종일 뒤척이면서 속머리가 대단히 아프고 말이 잘못 나오고 죽도 마시지 못하시는데, 저녁에 머리털 밑에 땀이 났는데도 오히려 낫지 않으신다. 떠돈 지 4년 동안에 가을과 여름이면 매양 이 병을 앓으시니 몹시 민망스럽다. 윤겸이 와서 방안에 둘러앉아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님 기후는좀 덜하시어 다만 팥죽 반 보시기를 드시더니 피곤함이 갑절이나 심한 것 같으시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다. 오늘 이런 증세가 세 차례이다.

3일. 어제 윤겸이 보리 30두를 실어 왔으니 근일은 걱정이 없다. 또 두 종 및 품인 다섯 명, 도합 일곱 명을 시켜 둑 안 논을 매게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태수(서집) 가 윤겸이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 청하므로 오후에 들어가 보고 점심후에 돌아왔다. 윤겸이 꿀 다섯 홈을 얻어다가 어머님께 올렸다.

4일. 또 네 명을 시켜 어제 끝마치지 못한 논을 매게 해서 끝내고, 길가 논을 맸다. 어머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겨우 마치시자 또 학질 증세가 있어 여전히 아프시다니 몹시 민망하다. 세 번이나 학질 떼는 방법을 썼는데도 효험이 없으니 더욱 민망하다. 함열에서 아노가 왔는데 딸이 전일에 꾼 콩 2두·생선 1마리·찹쌀 3되를 보냈다. 태인 아우의 편지도 또한 가지고 와서 아우의 편지를 보니, 저번에 학질을 앓다가 지금은 떨어진 지 겨우 5일인데 궁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어머님

께서 병환 중에 이 소식을 들으시고 울기를 마지않으시니 또 몹시 민망스럽고 근 심된다. 오늘 네 번째 앓으셨다.

- 5일. 또 송노 및 품인 한 사람을 시켜 길가 논을 매게 했는데, 눌은개는 아프다 핑계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오후에 논매는 곳에 가보았다. 또 조 내한 백익(희보)이 윤겸을 찾아보고 돌아갔다. 저녁에 옥춘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건민어 열마리를 가지고 왔다. 윤겸의 종 세만과 함께 왔다.
- 6일. 송노·눌은개가 모두 아프다 핑계하고 감을 매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어머님 학질은 오늘 다섯 번째인데 차츰 나으신 것 같아 몸을 떨지 않으시고 다만 열이 조금 나고 속머리가 조금 아프실 뿐이다. 오늘도 또한 세 번 학질 떼는 방법을 썼다. 태수가 사람을 윤겸에게 보내어 어머님 병환이 어떠신지 물으니 깊이 감사하다. 덜 아프시고 잠시 나으시니 이로부터 아주 떨어지려나 보다.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랴. 저녁에 유 생원(유학)이 왔다 갔다. 신 별감(신몽겸)이 역시 와 보고 갔다.
- 7일. 품인 다섯 명을 얻어서 송노와 도합 여섯 명을 시켜 길가 논을 매게 했다. 이른 아침에 윤겸이 군(郡)에 들어가서 태수를 만나고 돌아왔다. 또 소즐 및 집주인최인복이 와서 보았다. 윤겸이 함열로 가자, 소즐도 또한 같이 갔다. 오후에 논매는 곳을 가보고 돌아왔다. 다만 송노가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또한 끝내지 못하니 밉살스럽다. 또 조보를 보니 비변사에서 수령이 될 만한 자 29명을 추천했는데 윤겸도 역시 그 속에 있다. 우상(右相) 정탁(鄭琢)이 의논을 입었고, 이원익이 평안감사로서 들어가 그 지위를 대신했다 한다. 적장 행장이 제 나라로 돌아간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신이 아직도 서울에 머무르고 있어,행장이 돌아와 보고한 뒤에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우도(右道) 영등포에서는 성 쌓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고, 청정(淸正)의 진(陣)에서는 지금 바야흐로배를 만들고 있다 하니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라. 몹시 걱정스럽다.
- 8일. 송노는 병을 칭탁하고 김을 매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눌은개는 가슴 아픈 것이 여러 날 차도가 없으니 이는 사실 병이라, 걱정된다. 어머님 기후는 늦은 아침후에 조금 편안치 못하시어 속머리가 잠시 아프셨으나 오후에 이마에 조금 땀이난 뒤로 도로 소복되시니 필연 이로부터 아주 떨어지는 것이리라. 기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아침 후에 비가 내리더니 저녁내 그치지 않는다. 저녁에 서천태수 정엽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어 윤겸을 청하면서 겸해서 건민어 큰 것 두 마리를보냈다. 그러나 마침 윤겸이 집에 없어서 온 사람은 그대로 돌아갔다.

9일, 흐리고 비가 뿌렸다. 새벽 머리에 송도가 달아났다. 요새 힘써 김도 매지 않고 오랫동안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아서 매양 통분한 마음을 품어 한번 그 게으름을 다스리려 하면서도 참아 온 지 오래였더니 이 같은 농사철에 풀도 다 매지 않고 버리고 도망해 갔으니 더욱 몹시 밉다. 다음날에 붙잡으면 마땅히 그 악함을 징계할 것이다. 그 어미가 직산에 살고 있으니 윤겸이 서울에 올라갈 때 편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하리라. 다만 세 번 매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눌은개는 역시 가슴을 앓고 차도가 없어 집안에 호미를 드는 자가 없어서 반드시사람을 얻어 품값을 주고 매야겠는데, 양식도 또한 떨어져서 형세가 미치지 못해서, 심은 전답도 장차 묵어 버리게 되었으니 더욱 몹시 밉살스럽다. 또 이른 아침에 암탉이 둥우리에서 내렸는데 병아리 17마리를 깠고 알 2개는 썩었으나 깨지지는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또 함열에서 보낸 조기로 보리 36두 5되를 바꾸어 썼다. 초복이라,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10일. 사람 6명을 얻어서 논을 때는데, 두 때 먹이고 각각 보리 닷 되씩 주었다. 먼저 안쪽에 있는 논을 매게 했더니 일찍 끝났다. 나는 지팡이를 끌고 두 번이나 가보고, 그 길로 조밭에 가보았더니 맬 만한데 양식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형세가 미치지 못한다. 만일 수일 동안 지연하면 반드시 풀이 성해질 것이니 한스럽다. 또한 기장은 이미 패기 시작했는데 씨가 드물고 무성하지 못하니 또한 탄식스럽다. 유선각이 윤겸을 찾아왔는데 윤겸이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갔다. 윤겸이 오늘 올 터인데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생각건대 송인수를 맞아다가 유숙시키고 이야기하다가 오는 것인가. 어머님께서는 아주 늦은 후에 조금 불편하신 징후가 있었으나 속머리가 잠시 아프다가 그쳤으니, 오늘 증세로는 아직도 아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양 그날만 되면 문득 그 증세가 있으니 다시 재발될까 깊이 두렵다.

11일. 밤에 이웃집 괭이가 병아리 우리를 침입하여 어미닭이 소리를 내므로 놀라깨어서 나가 쫓았다. 그러나 닭 우리가 견고해서 물어 가지는 못했다. 밤마다 침입해 오므로 함정을 만들어 잡으려 했으나 틀이 없어 설치하지 못하니 분함을 이길수 없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요새 비록 날마다 비가 내렸으나 많이 내리지 않아서 높은 논은 오히려 흡족하지 못 하고 한갓 풀만 자랄 뿐이어서 매고 나면 이내무성해서 인력으로는 이기지 못하겠어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한스럽게 여기더니이제 큰비가 내려 밤새 그치지 않으니 이제 부족한 탄식은 없을 것이다. 저녁에 윤경이 함열로부터 돌아오고 인아도 또한 같이 왔는데, 함열에서 보리 1석·중미 2두·정미 2두·콩 2두·조기 5마리를 주어 보냈다. 이 중에 쌀과 콩은 서울 갈 때쓸 행량이다. 다리 저는 말은 인아가 타고 왔는데 아직도 아주 낫지는 못했다. 비를 맞고 와서 찢어진 도롱이에 비가 새서 입었던 옷이 모두 젖었으니 한스럽다. 또시증(時會)의 편지를 보니 온 집이 모두 무사하고 양식 구할 일로 함열에 왔다고한다.

12일. 새벽부터 비가 몹시 내린다. 비 오는 꼴이 가까이는 필시 개지 않겠다. 윤겸이 서울 가는데 반드시 물에 막힐 근심이 있으니 기한은 이미 박두하고 몹시 근심이 된다. 오후에는 흐리다가 갰다. 저녁에 유선각과 소즐이 윤겸을 와 보고 돌아갔다. 어두운 뒤에 세동(細洞)에 사는 조 좌수(趙座首) 욱륜(郁倫)이 사과 한 상자를 따 보냈으므로 조기 한 마리를 보내서 그 후의에 사례했다.

13일. 오늘은 비록 날이 갰으나 어제 아침 큰비로 인해서 내와 뜰이 넘치니 수일 안으로 반드시 쉽게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윤겸은 이 때문에 체류하고 있는데, 하물며 서천으로 들러서 가려 하니 중로에 큰 내가 있어 건너기 어려움에랴. 걱정스럽다. 남풍이 그치지 않고 불어 큰비가 내릴 징조가 있더니 저녁에 비가 내린다. 윤겸이 태수를 만나려고 저녁 식사 후에 군(郡)에 들어갔으나 아직 파하지 않아서 시끄러운 까닭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한다. 홍 주서 준(遵)이 와서 윤겸을 만나고 돌아갔다. 소즐도 역시 왔다.

14일. 개었다가 흐린다. 윤겸이 일찍 식사를 마친 뒤에 막정과 두 말을 데리고 떠나서 서천으로 가서 막정 및 말 한 필은 서천에서 돌아오고, 말 한 필은 서울에 갈

때 짐을 신고 갔다가 서울에 도착한 뒤에 도로 보낸다 한다. 다만 오래 작별한 나 머지에 만난 지 오래지 않아 또 작별하여 멀리 보내니 만일 전근하지 않는다면 가 을이 되어도 오지 못할 것이니 연연하고 슬프고 탄식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 다. 이웃 사람이 말안장을 가지고 와서 파는 자가 있는데 마침 집에 값을 치를 것 이 없어서, 윤겸이 태수에게 편지해서 보리 5두를 얻어다가 사 가지고 갔다. 이 같은 장맛비에 먼 길의 행장에 우비가 가장 중요하므로 바야흐로 그것을 근심하던 차에 사게 되었다. 또 소즐이 와서 보는 데 입고 있는 도롱이가 비록 가늘게 짜지 는 못 했지만 또한 새로 만든 것이어서 이것을 바꿔 입고 갔다. 이제 가는 길에 비 록 큰비를 만나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蘇)의 물건이 아니고 곧 유선각이 새로 산 도롱이인데 소즐이 빌려 입고 왔던 것이라 한다. 그러나 유선각 도 윤겸과 역시 본래부터 서로 가까운 터이니 반드시 허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 녁에 김정(金井)과 성민복이 왔다 갔다. 송노가 도망가고 눌은개가 가슴을 앓기 시 작한 뒤로 예에 호미를 드는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풀을 매지 못해서 장차 모두 묵 게 되었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제 윤겸이 태수(서집)를 보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향약인(鄕約人)을 시켜 풀을 매게 해 달라고 했더니, 태수가 사실을 갖 추어 말하여 단자(單字)를 내라고 하므로 향비(香婢)를 시켜 단자를 써다 바쳤더 니, 편의를 따라 풀을 매도록 향약장(鄕約掌)에게 써 보냈다. 성민복이 지금 약장 (約掌)인데 이 뜻을 말했더니 마을 안에서 품맬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낸다고 한다. 만일 이 사람들을 얻어다 맨다면 거의 밭이 풀로 더러워질 염려는 없을 것이다. 함 열 딸이 전인해서 찹쌀 3되 · 쇠고기 1덩어리를 보냈다. 내일이 유두 속절(流頭俗 節)이므로 음식을 갖추어 신주께 바치련다. 자방[신응구]이 마침 중국 장수 돌보는 일로 역참(驛站)에 가고 관청에 없기 때문에 딸이 제 뜻으로 장무(掌務)에게 명해 서 보냈다고 한다.

15일. 아침에 향비(香婢)를 아내(衙內)에 보내서 얼음을 얻으려 했더니 태수 부인이 위어젓 13마리를 보냈다. 이에 수단(水丹)과 어육구이 및 육탕(肉湯) 1가지 · 술 1그릇을 마련하여 신주에 제사 지낸 뒤에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과 같이 먹었다. 만일 딸이 보내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겼을 것이다. 저녁에 막정이 서천

에서 돌아왔는데, 윤겸이 무사히 결성으로 갔다 한다. 서천태수(정엽)가 햇보리 1 두 · 소금 2두 · 조기 1묶음 · 고등어 20마리 · 뱅어젓 3되 · 망둥이 알 1짝을 보냈다. 만일 보리를 얻어 왔으면 그것으로 양식을 해서 밭을 맸을 것인데 얻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필시 윤겸이 말하기 어려워서 하지 못한 것이리라.

16일. 종일 무료하고 더위는 또한 극성이어서 종일 마루 위에서 때로 추자(楸子)놀이를 하여 적막한 회포를 달랬다. 이 같은 무더위에 윤겸이 서울에 가니 어떻게 행보를 하는가. 필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연연해서 잊을 수가 없다. 오늘쯤 결성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일.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 오게 했다. 향약인을 모아서 풀을 매고 싶어도 양식이 없으니 양식을 얻은 다음에 내일 일을 붙일 셈이다.

18일. 어젯밤에 큰비가 쏟아져서 자는 방이 새어 편히 자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보리 1석·콩씨 3두·고등어 10마리·위어젓 20개를 보냈다. 또 콩씨 5두는 윤겸에게로 보냈다. 아노(衙奴)가 따라왔는데 딸이 햅쌀로 양색 상화병(床花餅)·추로 2병·마른 광어 반 짝·대구 반 짝을 뜻밖에 보내왔다. 모두 새 물건이이서 즉시 신주께 올리고 나서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니 매우 기쁘다. 이는 실로 자방(신응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19일.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 고치는 관노(官奴) 근수를 보내 달래서 저는 다리에 침을 놓게 했으나 차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 민망하다. 소주 한 그릇을 주어보냈다. 내일 향약인들을 보내서 밭을 매려 했더니, 들으니 병사(원균)가 내일 이군에 순시하러 나온다 하니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 하므로 다시 다음날 매도록하겠다고 약장(約掌) 성민복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다만 봄보리로 양식을 장만했기에 이것으로 밭을 매려 했더니 일마다 어긋나서 지연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만일 수일을 더 늦추면 양식은 떨어지고 풀은 더욱 무성하여 인력이 필시 갑절이나 들 것이니 형세가 용납될 수 없다. 걱정이다.

20일. 이른 아침에 큰비가 내리고 천둥을 치다가 늦은 후에야 갰다. 세 사람을 시켜 풀을 맸으나 끝내지 못했다. 저녁에 병사가 이 군에 순찰하러 왔으나 이 별좌 덕후의 집에 들러서 술에 취하여 부축하고 이곳을 지나가는데 앞뒤에서 옹위하고

갔다. 병사의 성명은 원균으로서 난리가 난 처음에 경상우수사가 되어 많은 공을 세워서 이품(二品)에 승진되었으나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틈이 생겨 충돌되는 일이 많아 형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 도의 병사로 옮긴 것이다.

21일. 향약인 등 13명과 한복·눌은개를 합쳐 도합 15명이 김을 매는데, 먼저 이른 볏논을 매고, 그것이 끝난 뒤에 콩밭을 매고, 그것이 끝나자 또 둔답을 매고, 또 그 것이 끝난 후에 조밭을 매게 했으나 조밭은 절반도 못 맸다. 이 봉사 복령이 왔기에 함열 딸이 근일 불편한 것을 물었더니 엽전을 던져 점을 치고 나서 말하기를 딴 증세는 없고 필시 태기가 있는데 마땅히 아들을 낳겠다고 한다. 또 윤겸의 벼슬길에 대한 길흥을 물었더니 8월 10일이 가장 길하다고 한다. 또 송노가 도망갔는데 언제 잡아 오겠느냐고 물었더니, 7월이 되면 저절로 올 것이라고 한다.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후일에 허실(虛實)을 알기 위하여 기록해 둔다. 또 어제어떤 사람이 버들 그릇을 지고 마을을 돌면서 사라고 외치기에 행담과 조그만 고리 세 개를 보리씨 1두 6되를 주고 샀다. 향비를 함열 딸이 사환으로 부리고자 불러갔다.

22일. 그저께 풀을 맬 때 양식을 이미 다 먹어서 어제저녁에는 처자들이 보릿가루로 범벅을 만들어 먹었고, 오늘 아침 식사도 겨우 이웃에서 얻어서 때웠다. 덕노가돌아오기만 고대했더니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딸이 함열에서 중미(中米) 한두를 보냈으므로 죽을 쑤어서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요새 종과 말을 결성에 보내서 보리 담은 섬을 실어 오고 싶어도 말이 다리를 절어서 보내지 못했다. 함열에서 새달에 보낼 물건도 미리 가져오려 해도 역시 가져오지 못해서, 요새 지내기가 몹시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낮에 이 군의 실내(室內)가 노루고기 1조각·쇠고기 1조각을 보냈기로 즉시 어머님께 드렸으니 깊이 감사하다. 어머님께서는 요새 더위로 해서 식사가 아주 줄었고, 또 밥과 반찬도 없어서 바야흐로 민망해하고 걱정하는데. 이 뜻밖의 물건을 얻으니 더욱 몹시 감사하다.

23일. 종일 무료해서 지팡이를 끌고 논밭을 돌아보고 왔다. 저녁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겉보리로 가루를 장만하여 칼수제비를 만들어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어머님 께도 이것을 올렸으니 더욱 몹시 민망스럽다. 또 막정으로 하여금 윤겸의 옷을 가

지고 정산 가질지에게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만든 모시옷을 가져오게 했는데 기한 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막정으로 하여금 가서 까닭을 묻게 하고, 만일 가질지가 그대로 있으면 곧 보내도록 하고, 또 그편에 윤겸의 편지를 정산군수에게 바치게 했다.

24일. 함열에서 보리씨를 얻어 왔는데, 요새 양식이 없어서 거의 다 가루로 만들어 조석으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고, 어머님께도 역시 이것을 드렸으니 몹시 민망하다. 막정이 오늘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시 편지를 바치려고 정산현에 들어간 것이다. 조 좌수 욱륜이 와 보고 돌아갔다.

25일. 이른 아침에 성민복의 집에서 보리 한 말을 꾸어다가 찧어서 아침밥을 지어 상하가 함께 먹었다. 저녁에는 이광춘의 집에서 쌀 두 되를 꾸어다가 죽을 쑤어 나 누어 먹었다. 어두운 뒤에 막정이 돌아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정산군수(김장생)에 게 올렸더니 보리 5두 · 보리씨 3두 · 누룩 3장을 보냈다. 다만 소이질지를 시켜서 편지를 올리고 받아오게 했다는데, 말을 되어 보니 보리는 1말 · 보리씨는 8되가 주니 필시 훔쳐 먹은 것이라. 밉살스럽다. 막정이 와서 그 까닭을 말한다. 또 소이 질지가 결성으로부터 일찍이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니 22일에 서울로 갔다고 했고. 그 아내는 지난 15일에 해산하고 딴 병이 없다고 한 다. 그러나 또 딸을 낳았다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날마다 아들 낳기를 바랐는데 헛 일이 되었으니 몹시 불행한 일이다. 다만 가질지는 이미 결성으로 돌아가고 없기. 때문에 지어 놓은 여름옷은 아직 보내지 못했다고 하니 몹시 미운 일이다. 요새 양 식이 떨어져 상하가 굶주리던 차에 이제 네 말의 보리를 얻고 보니 마치 4석의 쌀 을 얻은 것과 같으니 수일 동안의 목숨은 연장하겠으나 이후로는 또 계속할 길이 없으니 몹시 민망한 일이다. 또 어제 인아가 낚시로 물고기 크고 적은 것 7, 8마리 를 잡아 왔기에 탕을 만들어 어머님께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조금밖에 드시지 않 으니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오늘 또 낚아 왔기에 소금에 절여서 말렸다가 다시 구워서 드렸다.

26일. 말 의원을 불러서 말을 치료했는데, 술 한 사발을 사다가 주고, 또 누룩 한 장을 주고서 후일에 다시 와서 치료해 주기로 약속했다. 의원은 한산이요. 본업은

갓 만드는 사람으로서, 마침 갓을 팔려고 장에 왔었는데, 일찍부터 말을 잘 고친다고 들었기 때문에 막정을 시켜 불러온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산인데, 그는 말하기를, 이 말이 앞다리의 상처가 가죽 속으로 부어서 절기 때문에 오래는 부리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또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심지어 어머님께까지도 혹은 죽, 혹은 보리밥을 역시 채소와 함께 드리고 있으니 민망함을 이길 수 없다. 단아는 배고 픈 것을 참고 먹지 않고 있으니 이것으로 병이 생길까 걱정이다.

27일. 아침 식사는 겨우 변통해 먹었으나 저녁에는 겉보리로 가루를 내어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반 그릇씩 나누어 먹고, 그것도 종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니 필시 굶고 잘 것이라, 탄식한들 어찌하랴? 심지어 어머님께까지도 이것을 드려서 역시 많이 드시지 못하시니 몹시 민망스럽다. 덕노는 어제 함열에 갔으니 오늘 반드시올 것이나 해가 저물도록 오지 않기 때문에 온 집안의 상하가 굶어서 잤다. 그런데 밤이 깊은 뒤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나룻가까지 왔는데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고 한다. 딸이 우선 세 달치 양식 2두를 장무처(掌務處)에서 꾸어서 보냈고, 또 소주 두 병을 얻어서 보냈다. 지금 들으니 이 고을에서 조도종(早稻種)을 앞으로 보리로 환자를 원하는 자에게 먼저 준다고 한다.

28일. 이른 아침에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도종(早稻種) 환자를 받고자 했더니 태수는 답장을 보내기를, "이미 다 나누어 주어서 지금은 남은 것이 없다"고 하고, 겨우 닷 되의 쌀을 보내어 오늘 먹을 양식에 보탬이 됐다. 또 노루다리 하나를 보내서 어머님께 드리게 하니 깊이 감사하다. 또 지금 조보(朝報)를 보니, 윤겸이 부솔(副率)의 물망에 올랐으나 되지 않았다 하니 한스럽다. 적장 행장이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미 그 진중에 도착했는데 말하기를, 행장은 지난 5월 26일에 그 나라로부터 떠나서 이달 15, 6일에 웅천에 이르렀고, 관백의 철병(撒兵) 명령은 행장에게 일임해서, 행장이 오는 길로 즉시 철수해 돌아갔다고 한다. 또 빈 배 2백여 최도 이미 도착해서 정박했는데, 그중 30최은 쇳조각을 장식하고 있어 중국 사신을 영접할 것이라 한다. 이것은 중국 사신이 보낸 사람 양빈(楊斌) · 이서(李恕)두 사람이 일찍이 웅천에 이르러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 십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행장이 돌아왔단 말을 듣지 못하겠으니 거짓말인가 의심

스럽다. 또 들으니 중국 사신이 보낸 사람이 왜영(倭營)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듣고 본 것을 중국 사신에게 보고한 것에 의하면, 각 병영의 적병의 수는 두모포(豆毛浦)에 청정(淸正)의 군사가 2만 2천, 서생포(西生浦)는 주주태수(走州太守)의 군사 가 8천, 기장(機張)에는 갑주태수(甲州太守)의 군사가 8천, 부산에는 산휘원(山輝元)의 군사가 2만, 용당에는 융경(隆景)의 군사가 4천, 김해에는 풍신직정(豐臣直政)의 군사가 1만 8천, 가덕(加德)에는 풍신광문(豐臣廣門) 및 통익(統益)의 군사가 2천, 안골포(安骨浦)에는 안치(安治)의 군사가 4천, 제포(齊浦)에는 행장의 군사가 1만, 대마도에는 의지(義智)의 군사가 3천, 거제도에는 삼영(三營), 의홍(義弘)의 군사가 1만, 사주태수(土州太守)의 군사가 8천, 일정(一正)의 군사가 8천, 동래에는 운주태수(雲州太守)의 군사가 8천이어서, 이상 도합 13만 1천이니, 이는 일본에서 떠나 올 때의 숫자요, 그동안에 늘고 줄고 했을 것이니, 행장의 병영 하나만 보아도 알 만하다.

29일. 아침 식사 후에 조문화(희철)에게 가서 조김포(희식)를 청해다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주인집에서 내게 수반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 어서 또 조 좌수(희윤)의 집을 찾아서 또 조 한림(희보)을 청해다가 저녁내 옛이야 기를 하는데, 주인집에서 또 저녁밥을 대접했다. 집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발 저는 말을 타고 왕래했으니 그 행보가 어떠했겠는지 알 만하다. 만일 언덕길이면 몹시 어렵겠고, 평탄한 길이면 조금 절 뿐이니, 만일 다시 침으로 치료하면 십여 일이면 쾌차할 것 같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가면 도로 절 것이다. 지금 생각에는 좀 나았을 때 팔까 한다.

그믐날. 이웃집에서 보리 1말·쌀 1되를 꾸어서 아침밥을 지어 상하가 함께 먹었다. 저녁에는 또 홍 주서 준(遵)에게서 쌀 한 말을 꾸어다가 절반은 가루를 내어 죽을 쑤어 나누어 먹고, 절반은 내일 아침 식사를 하련다. 어머님께도 역시 이것을 드렸으니 몹시 민망스럽다. 내일 아침에는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새달 양식을 찾아 올 작정이다.

7월

1일. 함열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 들러서 딸의 편지를 전하고 또 절인 은어 다섯 마리를 보내왔다. 이에 그편에 편지를 써 주어 윤겸에게 전하게 하고, 또 모시옷도보냈다. 저녁에 막정이 돌아왔다. 갈 때 최인복의 말을 빌어서 예로 보내는 쌀 8두와 보리 1섬을 실어 오고, 또 참보리 5두와 제사에 쓸 찹쌀 3되 ·목미(木米) 3되 · 검은 콩 3되 ·조기 5마리를 얻어 왔다. 딸이 보내는 양색 첫 2항아리 ·조기 1묶음도 가져왔다. 나룻머리까지 왔으나 배가 없어서 쉽게 건너지 못해서 해가 저물었다 한다. 온 집안이 이것을 기다려 저녁밥을 짓노라니 밤이 이미 깊었다. 자방(신응구)이 또 부채 한 자루를 보냈고, 딸도 또한 한 자루를 얻어서 보냈다. 전일에 편지를 보내서 요구했더니 이제 비로소 보내왔다. 덕개는 휴가를 얻어 가지고 역시와서 그 어미를 만났다.

2일. 한복을 시켜 무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입추(立秋)이다.

3일. 조모 제삿날이다. 국수와 떡, 탕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냈다. 종손은 모두 죽어서 달리 제사 지낼 사람이 없고 다만 오정일의 끝의 아우가 있어서 지금 해주 고향 마을에 살고 있으나 필시 기억하고 제사 지내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어머님이여기 계시니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겨우 힘이 미치는 대로 지내는 것이다. 다만 제수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이를 생각하니 죄송하다. 각 집이 돌려가면서 힘써 극진히 갖추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 슬픈 감회를 이길 수가 없다. 4일. 향약장에게 말해서 마을 사람 13명을 모으고, 한복과 대순까지 15명을 시켜서 먼저 둑논을 매고, 다음으로 길가 논을 매고, 또 안 논을 맸으니, 이 세 곳이 모두 네 번 매는 것이다. 이 밖에는 다시 맬 곳이 없고, 다만 대난의 분답(分沓)을 매지 않았는데, 10일 후에 만일 양식을 얻으면 다시 3, 4명을 얻어서 맬 작정이다. 그러나 얻어 온 양식은 오늘로 다 없어져서 이달 지내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었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됨을 어찌 다 말하랴. 또 들으니 내일 보리 환상곡을 준다기에 집사람을 시켜서 아내(衙內)에 편지를 보내서 구하게 했더니, 회답하기를, 만일 단자를 바치면 다소간 준다고 한다. 또 남당나루 사공 석을손이 농어 세 마리를 가져왔기에 즉시 술과 밥을 먹이고 또 부채를 주어 보냈다. 다만 까닭 없이 와서 바치

니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음날 만일 청하는 것이 있으면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늙은 어머님께 드릴 생각이 간절해서 그대로 받아서 탕을 만들어 어머님께 드렸다. 또 둘째 딸을 시켜 회를 쳤더니 마침 권 생원 학(鶴)이 왔기에 함께 먹었고, 그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서 8일 아버님 생신에 쓰련다.

- 5일. 춘기(春己)가 들어왔다. 지난달 초생에 진위로부터 윤해의 처남을 모시고 창 평태수에게 갔다가 그 길로 올라가는 길에 어제 함열에서 자고 지금 여기에 온 것이다. 윤해의 편지를 보니 온 집안이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지난달에 학질을 앓다가 이제 비로소 떨어졌다 한다. 또 막정을 시켜서 단자를 바쳤더니 묵은 보리 5두를 환상곡으로 주더란다.
- 6일. 가질지가 들어왔다. 윤겸의 글을 보니 무사히 올라갔다니 기쁘다. 다만 짐 싣는 말이 등에 종기가 가득히 나서 몹시 파리하고, 막정은 종기가 크게 일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말 두 필이 모두 병이 났고, 또 베어다놓은 풀이 없어 말 먹이기가 몹시 어려우니 이루 말할 수 없다.
- 7일. 오늘은 칠석(七夕)이다. 잠시 술과 떡·생선구이를 차려 놓은 신주께 제사를 드리고, 이내 어머님께 음식을 올린 다음 나머지는 기자들과 같이 먹었다.
- 8일. 이웃에 사는 전상좌(田上佐)가 말을 빌려갔다. 요새 똥을 밭에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등에 난 종기가 좀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서 빌려 준 것이다. 요새 종하나가 병으로 누워서 말 두 필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빌려 준 것이다. 대순(大順)이 제 누이를 데리고 함열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 그편에 딸이제사 지내고 남은 떡 한 행담과 생선과 고기구이 한 봉을 보내왔기로 즉시 상하가함께 먹었다. 오늘은 곧 아버님 생신이어서 술과 떡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
- 9일. 말복(未伏). 전일에 함열에서 얻은 양식은 논매기가 급해서 일꾼들에게 다 쓰고 어제부터 양식과 찬거리가 모두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죽을 쑤어 반 그릇을 어머님께 드리고, 처자들은 쌀가루 조금으로 탕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으니 민망스럽다.
- 10일, 아침은 겨우 마련해 먹고, 저녁은 쌀가루로 수제비탕을 만들어 상하가 나누

어 먹었다. 양식을 얻으려 한복(漢卜)을 함열에 보내면서 오늘 곧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필시 날이 늦어 미처 오지 못하는 것 같다.

11일. 한복이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따로 정미(正米) 5두·찹쌀가루 2두·흰 조개 젓 4되 상사(常絲) 1묶음을 보냈는데, 쌀은 5되가 줄었으니 필시 훔쳐 먹은 것이다. 밉살스럽다. 또 한산에 사는 말 의원을 불러다가 저는 말에게 침을 맞혔다. 저녁에 최상훈(崔尙訓)이 왔기에 수반을 대접해 보냈다.

12일. 늦게 무료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성민복의 정자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노라니, 성(成)이 수박을 내온다. 나는 아직 천신(薦神)하지 못한 것이어서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 집에 보내게 해서 천신한 뒤에 어머님께 드리도록 했다. 저녁때 함열에서 서울에 갔던 관인이 내려오는 길에 윤겸의 편지를 가지고 오다가 전한다. 떼어 보니 아무 일도 없고 지난 5일에 부솔(副率)에 승진되었다 하니 기쁘다. 다만 벼슬길이 어려운 일이 많아서 가을 서늘할 때를 기다려 시골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또 들으니 함열태수가 남포(藍浦) 논을 산 것과 민 주부(수경(守慶))의 집을 산일로 해서 남의 비방을 몹시 듣는다 하니, 인간의 일이라 탄식스럽고 가소롭다. 나도 또한 내일 딸을 가보려고 딸로 하여금 나루 머리로 말을 보내서 기다리게 하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말을 빌려 타고 갔다가 강변에서 돌려보낼 계획이다. 내 말은 발을 저는 것이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려는 것이다. 또 들으니 중국 부사(副使) 양방형(楊方亨)이 11일에 떠나서 내려왔는데, 적이 어디 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또한 자세치 못하다. 덕노를 시켜 안 받을 갈고 무를 갈았다.

13일. 늦게 식사를 하고 이웃집 말을 빌려 타고 함열을 향하여 남당나루에 이르렀더니 함열 아노(衙奴) 춘복(春福)이 말에 안장을 갖추어 가지고 이른 아침에 나룻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즉시 강을 건넜더니, 막정은 임천으로 갔다가 뒤따라서함열로 왔다. 그러나 체수는 중국 사신 대접할 일로 여산참(礪山站)에 가느라고 떠나는 길이어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떠났다. 이에 김 봉사 경(璥)과 상동헌에서 이야기했다. 대흥(大興)은 바야흐로 학질을 앓고 있어 만나지 못했다. 저녁때에 아내(衙內)에 들어가 딸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 새 방으로 나와서 잤다.

14일. 덕노를 도로 임천으로 보냈다. 오늘 막정이 왔기 때문이다. 또 오늘 조보(朝報)를 보니, 적장 평행장(平行長)이 지난달 26일에 본진(本陣)으로 돌아왔는데, 관백(關白)의 명령으로 여러 진의 군사가 차례로 철수해 가게 되어서, 자기가 살던 가옥도 이미 다 불태우고 헐었으며, 행장은 다만 부산의 진중에 머물러 있어 중국 사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저녁때 김 봉사가 왔는데, 내일 영남으로 돌아가서 그 잃은 아들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가련하다. 막정은 오늘 올 것인데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함열태수는 여산에서 그 아내에게 편지를 했는데 날더러 머물러 있다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만난 후에 돌아가라고 했다.

15일. 들으니 중국 사신이 내일 여산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고을에서 지공할 물건을 오늘 새벽에 모두 실어갔다. 아침에 막정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나룻가에 도착했으나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뱃사공의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간신히 건너왔다고 한다. 오후 신대흥(괄(括))의 집에 갔더니, 대흥은 오늘 학질을 앓아누워서 출입을 하지 못한다 한다. 오늘은 속절(俗節)이어서 관청에서 점심을 갖추어 내서 나도 역시 참석했는데, 상화(床花)·수단·실과 등이 모두 갖추어졌다.

16일. 도망간 종 종이와 그 아우 가응이가 와서 뵙는다. 전일 윤겸이 올라갈 때 알아보라고 했더니, 지금 들으니 중국 사신 종사관이 내려올 때 알아보았다고 한다. 필시 윤겸이 종사관 이 첨정 수준(秀俊)에게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 어미 및 그 삼촌 박수련(朴守連)·그 사촌형 수은(守銀) 등이 갇혔기 때문에 와서 보는 것이니, 마음에 쾌하다. 즉시 송노를 70개의 매를 때리고, 가응이는 그대로 돌려보내면서 새달 안으로 그 아우 정림(鄭林)과 함께 수공(修貢)해 가지고 오도록 엄하게 타일러 보냈다. 쇠고기를 조금 얻었기에 막정을 시켜 임천으로 보내려 했더니마침 송노가 왔으므로 막정은 보내지 않고 다만 송노 형제만 보냈다.

17일. 들으니 중국 사신이 어제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여산에서 잤기 때문에 태수는 오지 못하고, 오늘 따라서 전주로 가서 내일 잔치에 참석한 후에 돌아온다고 한다. 또 임천(이빈) 온 집안은 군색하기가 더욱 심하다니 태수가 오기를 기다려 양식을 얻어 보내려 했으나 태수가 일이 있어 오지 못하므로 부득이 새달 양식 중에서 먼저 3두를 꾸어서 막정을 시켜 져서 보냈다. 늦은 후에 대흥(大興)이 있는 곳

에 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송노는 오늘 돌아오라고 어제 일러서 보냈는데 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18일. 늦은 후에 대흥에게 가서 함께 상동헌에 가서 종일 누워서 쉬는데, 민 주부 (민수경)도 역시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먼저 돌아왔다. 저녁에 송노가 돌아왔는데, 막정은 종기 때문에 돌아가고 오지 못한다 한다. 지금 집사람의 편지를 보니,어제 양식이 떨어져서 바야흐로 걱정하던 차에 막정이 쌀을 지고 와서 즉시 그것으로 상하가 함께 먹었다 한다. 또 들으니 중국 사신은 전주에 머물러서 쾌심정(快心亭)에서 잔치를 하느라고 태수는 오지 못하고, 만일 잔치가 일찍 끝나면 즉시 떠나서 오다가 중로에서 자고 내일 일찍 온다고 한다.

19일. 대흥을 새 방으로 맞아다가 종일 누워서 쉬면서 젊은 아이들을 시켜 쌍륙을 놀게 하고 구경했다. 저녁때 태수가 돌아와서 들으니 중국 사신은 어제 잔치에 참석하고 오늘 떠나서 임실로 향하다가 쾌심정에 올라가서 잠깐 구경하다가 갔다 한다.

20일. 이른 아침에 아내(衙內)로 들어가 태수를 만나 같이 아침을 들었다. 말을 빌려서 결성 윤겸에게 보내서 보리를 싣고 올 계획이다. 올 때 대흥과 허문(虛門) 밖 못가 연정(蓮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떠나오다가 또 민주부 수경(守慶)의 집에 들어가서 민의 형제와 이야기하는데, 민의 집에서 수박을 쪼개서 내왔다. 또 두 민과 작별하고 남당에 도착하니 조수가 이미 떨어져서 간신히 건너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올 때 수박 1개·참외 2개·소주 3병을 얻어 왔는데, 수박과 참외는 즉시 쪼개서 어머님과 처자에게 드렸다. 또 와서보니 저는 말이 아주 쾌하지 못해서 집을 실을 수 없겠으니 걱정스럽다.

21일. 새벽에 송노를 시켜 함열에서 데리고 온 말을 가지고 결성으로 보냈더니, 5 리도 가지 못해서 그 말이 역시 절어서 그대로 돌아왔으므로 부득이 도로 함열로 보냈다. 이웃에 사는 조응개가 태수에게 미움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매를 맞을까 깊이 두려워하여 날더러 태수를 보고 용서해 주도록 청해 달라고 하므로, 오후에 관청으로 들어가 태수를 보고 조(趙)의 일을 간곡히 부탁했더니 마땅히 용서해 주 겠다고 했다. 돌아올 때 길에서 한산 사는 말 의원을 만났기에 불러다가 저는 말에

침을 놓게 하고, 소주 한 그릇을 주어 보내면서 또 후일에 와 보기로 약속했다.

22일. 아침에 양식이 떨어져서 간신히 좁쌀 두어 되를 얻어다가 죽을 쑤어 상하가 나누어 먹었다. 낮에 종을 관청 감관(監官) 임붕에게 보내서 보리쌀 환상곡 3두와 보리 6두를 갖다가 즉시 찧어서 상하가 함께 먹었다. 오는 가을에 벼로 갚는 것이라고 한다. 전일에 내가 함열에 있을 때 집사람이 역시 태수에게 청해서 보리쌀 5두를 얻어왔는데, 3두는 집에서 먹고, 2두는 덕년과 한복이 각각 1두씩 나누어 먹었으니, 모두 8두 중에 우리 집에서 갚을 것은 6두인 셈이다. 송노가 돌아왔는데 보리 3두를 얻어서 도롱이를 사려고 구했으나 양식이 떨어져서 집에서 먹었다. 딸이 또한 백미 1두ㆍ이화주(梨花酒) 1항아리ㆍ굴젓 조금을 보내왔다. 이에 즉시 이화주에 물을 섞어서 한 사발을 마셨더니 배가 좀 편안하다. 집주인 최인복이 왔기에 소주 큰 그릇으로 하나를 먹여 보냈더니, 저녁에 최(崔)의 집에서 파김치 한 그릇과 삼 여덟 묶음을 보냈다. 전일에 내가 못 구한 까닭이다. 송노가 돌아왔는데 말을 얻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3일. 송노를 결성에 보내서 져 오게 했다. 요새 몹시 군색하고 또 말을 얻지 못해서 부득이 보낸 것이다. 또 소즐의 아내가 침시(沈柿) 40개와 햅쌀 2되를 보냈고, 성민복도 역시 햅쌀 3되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조응개는 태수에게 들어갔더니 매 때리는 벌을 면했다고 와서 인사한다.

24일. 함열 관인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윤겸의 편지를 가져왔기에 펴 보니, 아무 일도 없고, 그동안에 또 위솔(衛率)에 승진하여 이제 이미 육품(六品)에 올랐다 하니 기쁘다. 저녁때 결성 임모(仕母)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고 기장 2두 · 좁쌀 5되를 보냈으니 이는 필시 내일이 내 생일인 까닭일 게다. 저녁때 송 지평 인수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고 또 햅쌀 1두 · 햇벼 3두 · 둥근 부채 1자루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정이 두텁지 않으면 먼 거리에 어찌 감히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겠는가. 더욱 감사하다. 마침 바야흐로 군색한 때에 곧 상하가 같이 먹고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다.

25일. 소즐에 집에서 사람을 시켜서 생선구이 및 침시 1행담 · 술 1병을 보냈다. 아침 늦게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중미 5두 · 양색 떡 2행담 · 날고기 1행담 · 구운

고기 1행담 · 청주 1병 · 소주 5병 · 수박 3개 · 참외 5개 · 가지 20개 · 조기로 만든 식혜 5개를 지고 왔다. 곧 신주께 천신한 다음 어머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처자와 종들에게 나누고, 또 이웃 아는 집에 나누어 주었다. 오후에 또 성민복 · 최인복을 청해다가 술을 대접해 보냈다.

26일. 한산 말 의원을 불러다가 저는 말에 침을 놓게 하고 소주 한 그릇을 주어 보냈다. 오후에 상판관(기손)이 그 종을 시켜 물고기를 잡게 하고, 못가에 와 앉아서나를 청해다가 물고기를 지져서 먹는데, 백광염이 역시 와서 참석했다. 나는 소주를 가져다가 각각 한 잔씩 마시게 하고 헤어졌다. 내일 다시 서쪽가의 큰 내에 가서 고기를 잡아 밥도 짓고 탕도 만들어 적막한 회포를 소견(消遣)하자고 약속했는데, 다만 나는 말이 없으니 말을 얻지 못하면 형편이 같이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녁때 송노가 결성에서 돌아왔는데, 기장 2두ㆍ줍쌀 1두를 가져왔다. 보령 보리는 전일에 실어다가 환상곡으로 바쳤다고 한다.

27일. 상판관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오늘 약속은 연고가 있어 같이 갈 수 없으니 후일을 기약하자고 한다. 아침 식사 후에 만수의 말을 빌려 타고 소즐의 집에가서, 소즐과 함께 앞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중에 큰 놈 6마리를 골라서 먼저우리 집으로 보내서 어머님께 드리게 하고, 나머지 작은 것은 겨우 한 보시기인데소즐과 함께 지져서 먹었다. 소즐이 나에게 점심밥을 주고, 또 감 1백 30여 개를 따서 막정을 시켜 먼저 보낸 다음 나는 조희윤의 집에 가서 찾았더니 마침 조희보는 집에 없다. 또 조희철에게 들렀더니 홍 주서 준(導)씨가 역시 왔으나 해가 저물어 겨우 안부만 묻고 홍(洪)과 함께 돌아왔다.

28일. 어제 들으니 홍 생원 사고가 돌아왔다 하기에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고 그에게서 윤겸의 편지를 받아 보니, 이미 위솔(衛率)에 올랐으므로 한 고을을 빌려 나가려 해도 이조(吏曹)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친구도 가까이 지내 온 자도 없으니 만일 나쁜 지방이 걸리면 한갓 수고롭기만 하고 유익할 것이 없으니 차라리 결성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어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흑그럴 것도 같다. 다만 평탄하고 험한 것은 선비로서의 분수 안의 일이니, 어찌 좋고 나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가고 물러가고 할 것이랴. 비록 쇠잔하고 군색한

고을이라도 백성들을 권면하여 사는 길을 구해 주고 죽을 곳을 찾게 하는 것도 또한 평일에 배운 것을 조금은 펴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인편이 있으면 이런 뜻으로 편지를 할 생각이다.

29일. 요새 오랫동안 어머님께 드릴 별미를 얻지 못하여 항상 반찬 없는 밥만 드려서 매양 민망하게 생각하지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에 식사 후에 송노·한복을 데리고 나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겨우 수십 마리를 얻어다가 저녁때 탕을만들어 드렸는데, 하도 적어서 나나 처자들에게는 차례가 가지 못했다. 어머님께서는 이 때문에 역시 많이 드시지 않고 처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민망스럽다.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새달치 양식을 찾아오게 했다.

8월

1일. 유선각(柳先覺)씨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면서 그편에 햇벼 1두·양색떡 1 행담을 보냈으니, 그 후의에 깊이 감사한다. 저녁때 막정이 돌아와서 예로 주는 쌀 7두·벼 1석을 얻어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벼 1두·쌀 3되가 준다. 지난달에 양식이 떨어져서 예로 보내는 쌀에서 3두를 당겨서 썼었다. 들으니 함열태수가 요새학질을 앓는다니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윤겸이 청안현감을 청했다가 얻지 못했다니 한스럽다.

2일. 해주 윤함의 편지를 청양태수에게 전해 왔고, 청양태수는 또 운곡(雲谷)의 주지승 법련(法蓮)에게 전해 보냈기 때문에 법련이 그 상좌승(上佐僧) 지인을 시켜서가지고 왔다. 이에 즉시 펴 보니 그 편지는 지난 6월 1일에 보낸 것이 이제 비로소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온 집안이 모두 무사하고, 제 처는 5월 7일에 무사히 해산하여 남자를 낳았다 했으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편지 속에 말하기를, 오는 가을에 남평의 실내가 행차할 때 함께 오겠다고 했으니 가까운 날에 반드시 올 것이라, 고대된다. 법련은 또 약대추 1되와 상저(常楮) 2묶음을 보냈으니 감사하다. 온중을 재우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들으니 법련이 일찍이 봉선사에 있을 때, 윤겸이전랑(殿郎)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았다 하니, 필시 이 때문에 은근한 뜻을 보이는 것이리라. 또 태인에 있는 아우의 편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 오늘 저

녁때 비로소 도착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들어 있는 집이 남에게 팔려서 이 제 장차 딴 집으로 옮겨 가야 하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빈 말로 돌아가는데도 같이 오지 못한다고 했으니, 추석 전에 종과 말을 보내서 데려올 계획이다. 지난밤 꿈에 기쁜 증조를 보았기에 아침에 처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아우의 편지와 윤함의 글을 받아 보았으니 꿈이 헛일이 아니다.

3일. 아침 식사 후에 말을 타고 여러 논의 벼 패는 것을 돌아보고 나서 홍 생원 사고의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홍 참판 인서의 아들 매(邁)를 만나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았는데, 그가 통곡을 하니 나도 또한 슬피 울기를 마지않았다. 잠시 옛이야기를 하다가 각각 총총해서 내일 아침에 그 삼촌 조문화(희철)의 집에 가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서로 작별하고 헤어졌다. 마침 홍 생원이 집에 없기에 그 길로 권 생원 학(鶴)의 집에 갔더니, 마침 한 진사 겸(謙)이 와서 태수의 사위와 술내기 바둑을 두었으나 끝내 결판이 나지 않은 채 해가 저물어 각각 헤어졌다.

4일. 이른 아침에 조문화의 집에 가서 홍매와 그 아우 함순을 만났다. 저 아이는 곧 응추의 막내아들로서 특별히 사랑했었는데, 이제 그 모양을 보니 지나간 일이 생각나서 더욱 슬픈 감회가 든다. 조(趙)의 집에서 나에게 아침밥을 대접한다. 홍매가 돌아간 뒤에 나도 또한 그 길로 조김포(희식)의 집을 찾고, 또 조 좌수(희윤)의 집에 들러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들으니 조김포의 종 막선이 말의 종기를 고친다기에 데려다가 침을 맞히고 수반을 먹여 보냈다. 또 어둘 무렵에 서울 종 광이의 형 응이가 무장(茂長)으로 가다가 여기에 들렀는데 그편에 윤겸의 편지를 받아 보니, 지난달 26일에 평강태수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평강 고을은 당초에 적의 소굴이어서 몹시 분탕질을 당해서 백성은 백 명도 되지 못하고, 곡식은 백 석도 되지 못하며, 태수는 초가를 빌려 가지고 걸식하면서 연명하고 있다고한다. 더구나 전태수 때에 백성들의 쇠잔한 것을 돌보지 않고 포수를 많이 뽑아 1백 70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외롭게 남은 백성들도 모두 다 흩어져딴 곳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손을 댈 방법이 없다고 한다. 듣고 나니 놀라고 탄식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같은 어지러운 세상은 진실로 벼슬할 때가 아닌데 억지로 벼슬에 나가게 했으니, 이는 비단 우리 한집의 일이 아니라, 나이 많은 늙은 부모

가 오래 굶주리고 있으며, 한 아우는 먼 곳에 떠돌아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으니, 만일 남쪽 지방 한 고을의 태수를 얻으면, 모두 모셔다가 조석 식사의 걱정은 면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제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운명이라 비록 한탄한들 무엇하리요. 그러나 평탄하고 험한 길은 신자(臣子)로서의 직분(職分) 안의 일이니 어찌 벼슬자리의 좋고 나쁜 것을 따져서 거취(去就)를 정하리오. 아직 마땅히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을 사정을 깊이 살펴서 달리 힘을 쓸 곳이 없은 뒤에 서서히처리해야할 것이다. 다음 날 인편이 있으면 마땅히 이런 뜻으로 편지를 할 생각이다. 덕노가 왔는데, 제사에 쓸 백미 2두·조기 3묶음·말린 도미 3마리·뱅어젓 3되·위어젓 1두름을 지고 왔다.

5일, 조응개의 말을 빌려 타고 홍 주서 준(遵)을 가보았다. 들으니 내일 서울에 간다기 때문이다. 그 길로 홍 생원 사고의 집에 가서 정 정자 사신(士愼)과 권 생원학(鶴) 및 2, 3명 연소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운 뒤에 돌아왔다. 또 이른 아침에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문안했더니, 딸의 답장에 말하기를, 자방(신응구)은 어제 크게 앓고 난 뒤로 음식을 싫어하고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니걱정이다.

6일. 아침부터 큰비가 내리다가 저녁때에야 비로소 갰다. 종일 편지를 써서 하나는 윤해에게 보내고, 또 윤해로 하여금 이 편지 및 모시옷을 서울 종 노이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평강 경주인(京主人)에게 전해서 이것을 윤겸에게 보내도록 일렀다. 내일은 추석 제물을 덕노를 시켜 진위 윤해의 집으로 지워 보낼 작정이다.

7일. 아침에 송노를 함열에 보냈는데 저녁에 들으니 옥춘의 집에 숨어 있다 하므로 내가 친히 가서 찾아보았더니 저 울타리 밑에 있다가 나를 보고 불을 들고 도망가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지난봄으로부터 비밀히 분개를 간통했는데, 비록 듣기는 했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이번에 막정이 나가기를 기다려 같이 도망가려 했던 것이다. 오늘밤에 먼저 그런 심정을 알고 집사람이 분개의 방에들어가 조사해 보았더니 그 의복 등 물건을 이미 싸서 비밀히 송노에게 주어 딴 곳에 옮겨다 놓게 했으니 더욱 몹시 밉다. 이에 분개를 안방에 잡아 가두고 밖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근 다음, 또 강비로 하여금 같이 자게 했던 것이니, 우리들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도망갈까 걱정되어서다.

8일. 지난밤에 송노가 비밀히 분개가 있는 방 밖에 와서 굴뚝을 파고 분개를 데려가려다가 되지 않자, 또 마구간 밑을 비밀히 파고 비밀히 끌어내려다가 분개의 의복만 그 방에 도로 버렸으니 더욱 몹시 밉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단단히 가두어야도둑질해 끌어가는 걱정을 막을 것이다. 한복을 함열에 보내서 구원의 양식을 요구하고, 겸해서 딸로 하여금 종을 보내서 분개를 데려다가 아내(衙內)에 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저녁때 이분(李蕡)이 회덕으로부터 찾아왔다. 이는 뜻밖의 일이라, 만나고 보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잤다.

9일, 이분은 함열로 갔으니 소를 찾기 위해서다. 오후에 한복이 돌아왔는데, 아노도 말을 가지고 또한 같이 왔고, 벼 한 석을 싣고 왔다. 이에 아노를 시켜 분개를 데리고 가게 했다. 만일 여기 있으면 송노가 데려갈까 걱정되어서다. 저녁에 막정이 결성에서 돌아왔는데, 임모(任母)가 조 12두·이른 벼 12두를 실어 보냈다. 막정이 와서 분개의 일을 들으니 그 분함을 이길 수가 없다 하고 저녁도 먹지 않고 굶고 잤다.

10일. 식사 후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성민복의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성 (成)이 홍시 6개를 따서 준다. 이에 그 집 계집종을 빌려서 먼저 우리 집으로 보냈 다. 추석 제사에 쓰기 위해서다. 한 감찰 집(檝)및 백광염이 찾아왔다 돌아갔다. 또 안 참봉 경연(景淵)이 아헌에 와 있으므로 사람을 시켜 문안했다.

11일. 식사 후에 군에 들어가 아헌(衙軒)에서 태수를 만났더니 홍사고·안경연도역시 자리에 있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돌아올 때는 둔답을 돌아보고, 이 진사 중영의 집을 찾았으나 마침 집에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막정은 분개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한 뒤로 항상 마음이 불편하여 밤중이면 문득 울고 또한 음식 들지 않더니 오늘 밤에는 식사를 아주 폐하고 소리를 내어 통곡하니, 부득이 분개를 도로 불러와야만 회포를 위로해 줄 것 같으니 한편으로 가소롭다. 내일 마땅히 함열에 가서 불러올 계획이다. 영암 임매의 편지를 최심원의 종이 가지고 왔기에 펴 보니,잘 있다고 하니 기쁘다. 심원의 아들이 조희보의 집에 데릴사위로 와 있기 때문에

그편에 편지를 볼 수 있었다.

12일. 어제 태수를 보고 보리 종자 환상곡을 청해서 이미 허락을 받았기에 막정을 시켜 단자를 올리고 5두를 받아 왔다. 이는 소즐의 명의로 얻은 것이다.

13일. 인아를 함열에 보내서 자방의 문안을 하려 했더니, 인아가 즐겨 가려 하지 않으므로 다만 막정만 보내서 추석에 쓸 제수를 얻고 겸해서 분개도 데려오게 했다.

14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저녁내 개지 않으니 막정이 필시 오지 못할 것이다. 내일 제사에 쓸 물건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민망스럽다. 저녁때 덕노가 진위로부 터 비를 무릅쓰고 왔기에 윤해의 편지를 보니.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으나 다만 의 아(義兒)가 지난달에 종기를 앓아 위중하다가 이제 겨우 소생했고, 윤해도 역시 볼 기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말을 탈 수가 없어 산소에 올라가 뵙지 못하고, 그 종 안 손을 시켜 제물을 가지고 산소에 가서 묘지기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오랫 동안 친히 묘하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했고, 윤해도 역시 병으로 친히 가지 못하고 서 종을 시켜 대신 지냈으니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한탄한들 무엇하라. 유겸이 서울에 있을 때 제사에 쓸 물건을 갖추어 광노에게 주어 임시로 묘노(墓奴)를 시켜 가져가게 하고, 또 미비한 물건은 덕노가 가져가는 물건으로 갖추어 보냈다 한다. 윤해가 서울로 그 형을 가서 보고 이틀을 유숙하다가 돌아왔고, 그 형도 역시 10일 에 길을 떠났는데, 관인 십여 명이 와서 맞았다 한다. 관청에 저축되어 있는 물건 은 쌀 1석·보리쌀 1석·참보리 5두· 참깨 4두·장 1항아리·소금 1석·겉보리 3 석 · 원곡(元穀)으로는 피(稷) 1백 석 · 보리 1백 30석 · 콩 22석 · 가을보리 60석 · 목맥(木麥) 12석·참보리 9석이라 한다. 이것으로 보면 열 식구의 집도 오히려 이 물건으로 일 년 동안을 계속해 쓰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관가이겠는가. 그 지탱 하지 못할 것을 알 만하다. 아전은 아전(衙前) 20명 · 통인(通引) 7명 · 의율생(醫律 生) 4명 · 관기(官妓) 13명, 관비(官婢) · 17명이라 한다. 이것은 비록 넉넉하다 하 겠으나 궁벽한 고을에서 다만 사환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윤해가 친히 평강 고을 의 기록을 보고 베껴 보낸 것이다.

15일, 닭 두 마리를 잡아서 탕을 끓이고 굽고, 술과 떡·안주 등을 갖추어서 신위

에 제사를 지냈다. 밤새 비가 내리고 그치지 않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는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술과 안주와 실과를 갖추고, 혹은 밥과 탕을 마련하여 가져다준다. 저녁때 분개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백미 1두 · 찹쌀 5되 · 닭 1마리 · 수박 2개를 어제 받았으나 비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오늘 저녁때 비로소 돌아왔다. 막정은 분개를 본 뒤로부터 몹시 기뻐하니 깊이 가소롭다. 단아는 이달 초생부터 도로 학질을 얻어 그다지 심하게는 앓지 않더니 오늘은 몹시 앓으니 걱정이다. 윤겸의 편지를 함열에서 전해 왔는데, 이는 지난 5일에 쓴 글인데, 사람과 말이 왔으니 마땅히 즉시 떠날 것이라 했다. 또 아우의 편지를 보니, 이는 곧 함열의 아노(衙奴)가 태인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으로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었으나 인아를 보내기를 고대한다고 했으니, 이는 이곳 종이 도망하고 말이 저는 것을 모르는 까닭이다.

16일. 지난밤부터 새벽까지 비가 크게 내리고 그치지 않고, 아침에도 오히려 이와 같아서 산과 못이 모두 넘쳐 물가 논은 모래가 덮이고, 떠내려가는 것을 겨우 면했다.

17일. 두 종을 시켜 깨진 벽을 고치고 바르게 했다. 오후에 성북(城北) 조 좌수 응립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들으니 양덕 심열이 헌부의 논박을 받아어리석은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하니 한스럽다. 지난 7일에 의논이 있었다고 하니비록 파직을 당한다고 해도, 그는 강릉(江陵) 부자이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18일. 집사람이 지난달 보름께로부터 피풍(皮風)이 몸에 가득하여 가려워서 긁기를 쉬지 않으므로 간절히 초수(椒水)에 목욕을 하고자 하므로 오늘 낮에 데리고 성북 십 리 밖 초정(椒井)에 가서 두 번 목욕하고 돌아왔다. 전에 들으니 태수(서집) 와 그 부인이 3일 계속해서 목욕을 해서 자못 효험을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다투어모두 목욕을 하려하고 또한 많이 효험이 있다 하고, 심지어 피풍・등 시린 증세・무릎 시린 증세와 습증(濕症) 등 병에 가장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태수에게 편지를 해서 하인으로 하여금 먼저 차일과 장막을 가져다가 치고 사람을 금한 후에 갔다. 계집종들도 또한 목욕을 하고자 하므로 옥춘・분개・강춘・복지를 데리고 갔다. 나는 돌아올 때 조 첨지 응린의 집에 들렀더니 조(趙)는 나에

게 술 두 잔을 대접한다. 곡식을 바치고 당상에 올랐는데, 그 집이 초정 길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조 좌수 응립이 밤 한 행담을 보내왔다. 어제 찾아왔을 때 요구했기 때문이다.

19일. 집사람을 데리고 초정(椒井)에 갔더니 마침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 가라앉기를 기다려 오후에 두 번째 목욕하려 하는데, 소즐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점심밥을 지어 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상하가 함께 먹으니 가히 후하다 할 것이다. 유선각도 또한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와서 보고, 저녁이 되어 각각 돌아왔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송이 15개와 게 30개를 얻어 보냈으므로 즉시 게탕을 만들어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었다. 송이도 역시 구워서 드렸다. 백광염의 밭에서 난 조가 5두요, 콩은 겨우 8되이다.

20일. 인아가 덕노를 데리고 함열에 갔다. 성민복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들으니 해운판관이 장차 이 군에 온다 하므로 오후에 성(成)의 말을 빌려 타고 군에 들어 가서 아헌에서 태수를 만났더니 태수는 말하기를, 판관은 홍산에서 장차 이 고을에 토착하여 잘 것이라는 글이 이미 왔는데 탐지해 보니 오지 않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오늘은 필시 오지 않을 것이라 하므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올 때 관청에 들러서 임 별감을 만나고 돌아왔다. 해운판관은 곧 조존성으로서 나의 7촌 친척이요, 윤겸과는 두텁게 사귀었기 때문에 송노의 일을 부탁하려고 만나려 한 것이다. 집사람은 초정에 목욕한 후로 피풍이 삼분의 이는 감했다. 다만 땔나무가 없어서 온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땀을 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여 기운이 평화롭지 못하고 다리 힘이 약하다고 하니, 도리어 딴 병이 생길까 몹시 걱정이된다. 꿈에 심열이 보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생각건대 파견되어 갈 때 피차에 서로 생각했기에 꿈에 들어온 것인가?

21일. 아침에 들으니 판관이 군에 들어왔다 하기에 서현에서 태수를 만나고, 판관에게 사람을 시켜서 이름을 통했더니 즉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해서 수락정에서 만나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송노(宋奴)의 일을 말했더니 그는 말하기를, 내달 그믐에 마땅히 친히 그 고을에 가게 될 것이니 그때 조치하겠다고 한다. 한 감찰 집(檝) 및 그 아우 생원 용·홍 생원 사고·김 정자 사신(思慎)이 모두 모였다가 한

(韓)이 먼저 일어서기에 나도 역시 따라 돌아왔다. 저녁때 중 법련이 찾아왔다. 전일에 윤함의 편지를 전해 준 자인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다. 그는 또 목통(木通) 열매 1행담·산포도 1행담·홍시 30여 개를 가져다 바치니, 가위 후하다 하겠다. 여기서 자게 하고 조석 식사를 대접해 보냈다. 이 별좌 덕후도 또한 태수 앞에서 만났다.

22일. 법련은 아침 식사 후에 운곡사로 돌아갔다. 덕노는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벼 한 석을 싣고 왔다. 또 절인 조개 일곱 마리를 얻어 왔다. 붉은 말이 5월서부터 절어서 타지도 못하고 짐도 싣지 못하여 바야흐로 걱정하여 간절히 방매하려 했더니, 이곳에 사는 정병 백인화가 사려고 하므로 정미 50두로 값을 정하고, 새달 20일 전으로 쌀을 찧어 오기로 하고 말은 먼저 끌어갔다. 인화는 곧 전상좌(田上佐)의 처족(妻族)으로서 어제 여기에 왔다가 굳게 약속을 하고 갔다.

23일. 오후에 지 참봉 득원이 군내 정 정자의 집에 와 있다가 종을 보내서 찾아오 겠다고 전해 왔다. 이에 밥을 지어 놓고 고대했으나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 필시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나는 마침 종과 말이 나무를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24일. 이 군에 사는 생원 유경룡이 와 보고 돌아갔다. 그는 윤해와 동갑이다. 식사후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성민복의 정자로 가서 성(成)을 맞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마침 성이 나가고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저녁때 김 찰방 덕장이 마침 군내에 왔다가 찾아왔다. 난리 후에 홍성 계당에서 한 번 만난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 우연히 만나서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는 온 집안이 큰 환란을 당하여 거듭하여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더니 또 형제의 죽음을 당했다니가히 참혹하다 하겠다.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더니 내일 지나갈 때 다시 온다고 한다. 김 공(金公)은 곧 정광의 사위로서 한 동리에 살았었고, 또 윤해와는 동갑 친구다.

25일. 두 종, 두 계집종을 시켜 먼저 익은 벼를 베어서 가져오라 했더니, 절반도 익지 않았으니 다시 5, 6일을 기다려 다 거둘 작정이다. 내가 길가에 앉았노라니 김찰방 덕장이 지나가므로 같이 소나무 그늘에 앉아서 술을 내다가 두 잔을 먹여 보

냈다. 아침에 세동 조 좌수 욱륜이 나를 청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을 나는 마침 벼 베는 일 때문에 사양했더니 또 종을 보내서 간절히 청하므로 벼를 다 거두어들인 뒤에 달려갔더니 오늘이 곧 좌수의 생일이어서 그 자제들이 수연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참석한 이는 조 첨지 응린 및 좌수의 삼촌·조카 조광철·사촌 형제와 타인 5, 6명이 모두 모였다. 이들에게 각각 배·밤·대추·배와 생선 안주들을 상에 가득히 차려 내왔다. 저녁때가 되어 취하고 배부르게 먹고서 돌아왔다. 조홍(早紅)(감) 10여 개·삶은 밤·대추·침시(沈柿) 및 게 7마리를 좌수가 날더러 갖다가 어머님께 드리라 한다. 한 행담을 담아 가지고 와서 즉시 어머님께 드렸더니 조홍 4개를 드시니 몹시 기쁘다.

26일. 최인복이 홍시 30개를 보내오고, 소즐의 집에서도 또한 30개를 따왔다. 이별좌 덕후가 종을 보내서 편지로 나를 청하여 내일 만나 이야기하고자 하니 저버리지 말고 일찍 오라고 했다.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두 종이 말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갔는데, 모두 이틀거리 학질을 앓으니 걱정스럽다.

27일. 전에 유선각의 외질(外姪) 윤언방이 마침 용안에 왔다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서 태수 정경지는 전부터 아는 터이다. 편지를 써서 윤 공(尹公)에게 주어서 내게 전하는데, 이제 비로소 보니 내가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으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니 몹시 괴이하다면서 즉시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근일에 한번 찾아가 볼 작정이다. 전일 베어들인 벼를 오늘 비로소 거두어 보니 도합 3석 10두이다.

28일. 식사 후에 이 별좌의 부름에 나갔더니 곧 이 별좌의 생일이다. 성연(成延)을 베풀고 젊은이와 어른이 모두 모이고 수륙(水陸)의 귀한 술안주가 몹시 맛있고 풍부하다. 저녁때 읍내에 피란 와서 사는 여러분과 고삐를 나란히 하여 돌아왔는데, 모두 술에 취하고 배가 불렀다. 여러 분이 길 위에서 말달리기 놀이를 하니 우습다. 그 자리에 참여한 자는 모두 15명인데, 신대흥(괄)·정 정자(사신)·권 생원(학)·홍 생원(사고)·한 진사(겸)·이 생원(유립) 및 이언우·최광문과 나·주인의 아우 이덕수·그 처남과 이름 모를 젊은이 4, 5명이었다. 그 자제들은 각각 자리에 들어와서 술잔을 올렸고,이 별좌는 나를 위하여 늙은 부모를 봉양하라고 사

람을 시켜 맛있는 음식을 한 행담을 가득히 담아 주었으므로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다.

29일. 갓장이를 불러다가 갓에 옻칠을 하고 값으로 벼 한 두를 주어 보냈다. 오늘 함열에 가려 했는데 두 종이 학질을 앓는 날이어서 중로에 아플까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 오후에 지진이 천둥치듯 하다가 조금 후에 그쳤으니 변괴가 비상하다. 이후에 또 무슨 변고가 있을 것인가 걱정스럽다.

9월

1일. 아침 식사 후에 떠나서 배로 남당을 건너 해가 기울어서야 함열에 들어갔다. 태수가 새 방에 있다고 해서 먼저 본 뒤에 딸에게 들어가 보았다. 들으니 신대흥과이 봉사가 밖에 왔다고 하기에 도로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때 각각 헤어졌다. 나도 또한 인아와 새 방에서 잤다.

2일. 돌아오려고 했더니 태수가 신대흥과 나를 고사(高寺)로 청하여 두부를 만들고 겸해서 송이를 따다가 대접한다고 해서 머물기로 했다. 또 금성정이 어제 여기에 왔는데 이는 곧 제수를 얻기 위해서다. 태수가 쌀 2두 · 밀가루 1두 · 감장 5되를 주어 보냈다.

3일. 이른 아침에 흰 죽을 먹고 신대흥과 석양정은 함께 먼저 떠나서 고사(高寺)로 가고 나는 뒤따라서 갔다. 또 태수는 중국 장수가 고을에 들어왔으므로 그를 대접 하느라고 인아와 함께 뒤에 갔다. 절에는 두부와 송이탕, 송이구이가 모두 갖추어 져서 몹시 배불리 먹었다. 또 태수가 술안주를 장만해 갖다 바치고 관가에서도 역시 과실과 술안주를 갖추어 와서 몹시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다. 송이도 또한 실컷 먹었다. 여기에 참석한 자는 신대흥 · 석양정 · 민 주부(민수경) · 박장원 · 우리 부자와 품관(品官) 수삼 인이었다. 태수는 먼저 돌아가고 나도 따라 일어나서 용안태수(정경지)를 가보려고 용안 북문 밖에 도착해서 들으니 용안태수가 나갔다고 해서 돌아와 남당 나룻가에 이르니 배가 북쪽 언덕에 있어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 보라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간신히 나루를 건너 집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깊었다. 와서 들으니 분개가 그저께 밤에 도망갔다고 하니, 필시 송노가 비밀히 들어와

서 틈을 보아 데리고 간 것이다. 통분함을 이길 수 없으나 어쩔 수 없다. 다음 날만일 붙잡으면 죽이고 용서치 않으리라. 막정은 중로에 학질을 앓았는데, 또 그 아내가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밥도 먹지 않고 굶어서 잤으니 가소롭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그 처의 소위인지라 이웃 사람들 중에 기회를 보아 일을 꾸였다고 지목하여 시끄럽게 싸우니 한편 밉기도 하다. 덕노는 어제 아우를 데려오도록 말을 가지고 태인으로 갔는데 행량 8되와 새우젓 1되를 주어 보냈다. 그편에 내가 얻은 양식 7두도 주어 보내서 올 때 행량으로 쓰게 했다. 내가 함열에서 올 때 관마(官馬)와 관인(官人)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돌려보냈다. 또 이 봉사(유성)가 어제 나주에 간다고 하기에 영암 임매에게 편지를 써 주어 전해 달라고 했다.

- 4일. 한복·눌은개를 시켜 전일에 베다 남은 벼를 베게 하고, 또 딴 종을 시켜 오 게 했다. 어두웠을 때 덕림수(德林守)가 지나다가 찾았기에 저녁 식사를 대접하여 재웠다. 덕림수는 곧 인성정(仁誠正)의 아들로서 나의 처5촌이었다.
- **5일.** 집주인 최인복이 와 보고 돌아갔다. 또 갓장이를 불러다가 인아의 갓을 만들게 하고, 집에서 양태(涼太) 및 아교, 향사(鄕絲) 등 물건을 주고, 또 갓 값으로 벼 5두를 먼저 주고 술을 대접해 보냈다.
- 6일. 언명(희철)이 오늘 올 날인데 오지 않으니 필시 연고가 있어 종을 머무르게하나 보다. 계집종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실과를 달랬더니, 대추 3되·홍시 50개를 따 보냈다. 막정은 그 처가 도망간 뒤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방으로들어가 병이라 칭탁하고 나오지 않은 지가 이제 이미 4일째인데, 또 학질까지 앓으니 큰 병이 날까 걱정이다. 벼는 타작했더니 모두 2석 18두여서 전일에 수확한 것까지 도합 6석 8두이다.
- 7일. 성민복에게 실과를 달랬더니 대추와 밤 각각 두 되씩을 따 보냈다. 내일 제사 및 모레 9일 다례에 쓰려는 것이다. 내일은 곧 장모 제사인데 집사람이 간결이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향비가 함열에서 비로소 돌아왔으나 태수가 중국 사신 대접한 일로 어제 여산(礪山)에 가고 없어서 제물을 얻어 오지 못했으니 탄식스럽다. 막정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
- 8일, 새벽에 제사를 지냈는데 겨우 떡 · 실과 · 식혜와 양색탕과 구이를 썼을 뿐이

다. 들으니 이광춘이 양식이 떨어져 굶는다고 하기에 불러다가 술과 실과를 대접하고, 또 아침밥을 먹여 보냈다. 불쌍하다. 꿈에 완연히 언명을 보았으니 오늘은 꼭 올 것이다. 또 신홍점이 보이니 이 무슨 까닭인가? 오후에 윤함의 처삼촌 강남 평의 부인 행차가 군에 도착했다. 그 아들 식(試)이 와서 보고, 그편에 윤함의 편지가 왔기에 펴 보니 아무 병도 없다고 하고, 이번 행차에 같이 오려고 했으나 마침 본주(本州)에서 문무 정시(文武庭試)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주에서의 예와 같이 가서 구경한 뒤에 남평의 큰아들 강면(姜緬)과 함께 오겠다고 한다. 요새 고대한 것이 마침내 헛일이 되었으니 결연함을 이길 수 없다. 들으니 윤함이 요새 아들을 낳은 지 겨우 넉 달이 지났는데도 이름을 부르면 손을 들어 대답하고 두 눈썹 사이에 콩만 한 큰 점이 있다고 하니, 생각건대 필시 귀상(貴相)이라 기쁘다. 이웃에 사는 만수의 아들이 침시 40개를 갖다 바치니, 이는 곧 향비의 남편이다. 어두운 뒤에 지난여름에 모심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을 대접했다. 그때 술을 준 것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일에 술을 담가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9일. 구구가절(九九佳節)이다. 술과 떡, 삼색 실과를 갖추고, 닭 두 마리를 잡아서 탕과 구이를 장만해서 신주께 제사를 올렸다. 언명은 어제 와야 할 것인데 오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오늘 함께 한자리 취해 보고자 했는데 이루지 못하니 몹시 한탄스럽다. 식사 후에 성민복과 함께 술을 가지고 산성에 올라가 가절(佳節)을 즐기면서 몹시 취해 가지고 어둠을 타고 돌아왔다. 언명이 오후에 마침 도착하여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되어 답답하던 회포가 좀 풀린다. 또 윤겸에게서 문안하는 사람이 왔기에 편지를 떼어 보니 지난달 14일에 부임해서 모두 무사하다고 했다. 다만 관청의 저축이 하나도 없어서 형태를 이룰 수가 없고 조석 식사도역시 이웃 고을에서 빌어다가 먹고 지낸다 하니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그래서 어머님도 모셔 가지 못한다고 한다. 박계(朴桂) 80쪽 · 송화다식 70개 및 잣떡 · 말린 꿩 9마리 · 차조 1두 4되 · 꿀 3되를 보내왔다. 이 물건들을 신주께 드리고 나서 어머님께 올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함열과 임천 아내(衙內)에도 보냈다. 윤겸은 새달 보름 후에 근친을 오겠단다. 막정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는다.

10일. 백광염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기로 아우와 함께 마셨다. 윤겸에게서 온 사람을 함열에 보냈다. 막정은 오늘도 역시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조그만 일도 병을 칭탁하고 하지 않아 길이 상전에게 원한을 품을 뿐 제 처가 달아난 것은 탓하지 않으니 한편으로 몹시 밉다.

11일. 덕노·눌은개를 시켜 벼를 베어 말리게 하고, 언명과 같이 가보고 돌아왔다. 저녁때 조 좌수(희윤)가 군에 들어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민복의 정자 밑에 앉아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했으므로 나는 아우와 함께 가보았더니, 조(趙)는 성(成)과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우리 형제도 역시 큰 잔으로 두 잔을 마시고, 어둘 무렵에 헤어졌다. 이 군의 태수는 중국 사신 접대할 일로 공주로 가고 한산태수로 겸관(兼官)해서 보도록 했는데, 한산태수의 일로 순찰사에게 5대의 매를 맞았다고 하니 애석하다. 중국 사신이 오늘 이미 은진을 지나갔기 때문에 태수가 돌아왔는데, 임천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신 일행이 여산에 도착하는데, 여산의 대접은 함열에서 당하기로 했더니 어떻게 감당하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또 들으니 이번 상사 일행은 전일 부사 때 같지 않고 거느리고 오는 사람이 몹시 많아서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고 지공하는 물건을 약탈해 가며, 여러 고을 수령들이 욕을 먹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한다.

12일. 아침 식사 전에 아헌으로 들어가 태수를 보고, 매 맞은 욕됨을 위로했다. 조금 있자니 서산·남포 두 태수가 들어오므로 태수는 즉시 수락헌으로 나가서 기다리다가 나를 청해다가 함께 남포태수를 만나자고 하고, 남포도 역시 사람을 시켜서 내게 문안을 한다. 이에 나도 가서 만났더니 홍 생원 사고도 따라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술 석 잔씩을 마시고 파해서 돌아왔다. 서산의 성명은 이유록이요, 남포는 박동선인데 청성군의 사위로서 나의 처5촌척이다. 박·이 두 사람은 또한 윤겸의 친구이다. 들으니 조문화(희철)의 자당(慈堂)을 반혼(返魂)해서 어제 내려왔다 하므로 식사 후에 조김포(희식)의 집으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주인집에서 내게 식혜와 적병을 대접한다. 돌아올 때는 조 내한(희보)·조 좌수(희윤)의 집에 들러서 만나 잠시 이야기했다. 덕노는 학질을 앓아서 즉시 집으로 돌아가니 해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나도 또한 양쪽 귀밑이 몹시 아프고 오른편 어금니가 역시 조

금 아파서 밤이 깊도록 낫지 않더니 새벽에 땀이 비 오듯 흐르니 학질이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다. 이웃에 사는 조윤공이 홍시 30개를 보냈기에 꿀 한 종지를 보냈다. 들으니 조(趙)의 어머니가 앓았다고 한다. 감은 나뭇잎에 싸서 평강에 보내련다.

13일. 종일 기분이 평화롭지 못하고 이가 또 아프니 민망스럽다. 덕노를 함열에 보내어 양식을 찾아오게 했다. 저녁때 집주인 최인복이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아침에 향비를 아내에 보내서 간장을 달랬더니 태수가 3되를 주어 보내고, 또 노루고기를 조금 보냈기로 즉시 어머님께 드렸다. 실내가 역시 침시 15개를 보냈다. 14일. 그전에 심은 둔전의 벼를 베어 78속을 실어 왔다. 둔전사령이 와서 보기에 큰 잔으로 술 세 그릇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때 덕노가 돌아왔는데, 백미 10두 · 벼 8두 · 침시 15개 · 게 6개를 싣고 왔다. 함열태수는 중국 사신 배행차원(陪行差員)이 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평강에서 온 사람도 역시 함열에서 왔다. 오후부터 기분이 도로 불편해서 오른쪽 귀밑이 조금 아프고 이도 또 아프다. 머리 아픈 것은 필시 치통 까닭인가 싶다.

15일. 기분이 소복되는 것 같으나 아주 쾌하지는 못하다. 집 앞뒤 콩과 팥을 수확했더니 콩은 8동이요, 팥은 3동이다. 또 찰벼도 베어 왔는데 타작해 보니 13두이다. 먼저 타작한 벼와 합치면 모두 7석이다.

16일. 새벽에 평강에서 온 사람에게 답장을 써서 돌려보냈다. 함열에도 역시 두 사람을 보내서 매를 구하게 하고, 홍시 50개를 보내면서 함열 사람과 함께 가도록했다. 오후에 떠나서 용안으로 가다가 몇 리를 가지 못하여 날이 장차 저무는 것을 보고, 만일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낭패일 것 같아서 길가로 돌아왔더니 마침 신원(신경유)이 앉아서 추수를 보고 있었다. 이에 나는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밭갈소를 빌려 가지고 돌아왔다. 전일에 용안태수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청했기 때문에 이제 보러 가려다가 이루지 못했으니 다시 20일 후로 기약하려다.

17일.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보리씨를 얻어 오게 했다. 눌은개 모자를 시켜서 둑논의 벼를 베어서 널어 말리게 했다. 태수(서집)의 논은 모두 작인을 시켜 베게 하고 태수가 친히 와서 보는데 방축 언덕 모퉁이에 장막을 쳤기에 나도 가보았더니 마

침 이 생원 유립과 홍 생원 사고·조 판관 대림이 먼저 와서 벌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홍(洪)과 조(曹)는 과녁을 만들어 놓고 활을 쏘고 태수는 술안주를 만들어 우리들을 대접한다. 저물 무렵에 태수는 먼저 돌아가고 나는 조(曺)의 말을 타고 돌아왔다. 눌은개 모자는 먼저 벼를 베고 나서 율무를 베어 실어 왔다.

18일. 아침 식사 후에 언명과 걸어서 성민복의 정자 밑으로 가서 성(成)을 맞아다가 이야기하는데 성(成)의 집에서 수반을 대접한다. 해가 기울어서 돌아왔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보리씨 7두·간장 3두·조기 5마리·뱅어젓 3되·게 20개를 얻어서 지고 왔다.

19일. 자방(신응구)이 어제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이 별좌(덕후)·남궁영광(南宮靈光)(현)과 강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일찍 이 별좌의 집으로 와서 이(李)와 함께 배를 타고 하류(下流)로 내려오라고 했다. 그러나 마침 말이 피로하고 종이 병들어서 좋은 모임에 참석치 못하니 몹시 한탄스럽다. 오후에 태수(서집)가 뜻밖에 언덕 위소나무 밑에 와 앉아서 동쪽 둑의 벼를 거두어 말리게 하고, 또 작인(作人)들의 벼도 베게 했는데 내가 지은 것은 겨우 17속이니 한스럽다. 내가 태수에게로 나갔더니 권학·한겸·이유립·홍사고·조대림 등도 따라가니 태수가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했다. 어두운 뒤에 각각 횃불을 밝혀 가지고 돌아왔다. 덕노·눌은개·강비등을 시켜 벼를 베어 말리도록 했으니 끝내지 못했다. 눌은개가 게으름을 피우고 힘을 다하지 않기로 매를 때려 경계했다.

20일. 또 덕노·눌은개를 시켜 벼를 베어 말리게 하고, 식사 후에 언명과 벼 베는 곳에 가보고 돌아오는데 마침 감관 임붕이 못가에 앉아서 관곡 운반하는 것을 감독하다가 나를 맞아 길가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탁주 네 대접을 마셨다. 또 도색(都色) 전협(田陕)을 불러다가 두 대접을 대접했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뿌리다가 금시에 그쳤다. 서천태수 정엽이 사람을 시켜 문안하고, 건민어 3마리·절인게 30개를 보내왔다. 이에 즉시 답장을 써서 사례했다. 정(鄭)은 윤겸과 몹시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이다.

21일. 덕노를 시켜 보리밭에 인분을 주게 했는데, 겨우 9짐을 내고 학질이 시작되어 중지했다. 낮에 이 진사 중영이 찾아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돌아갔다. 전

일 벼를 벨 때 어떤 사람이 조그만 거북을 얻었는데 겨우 돈만 했다. 내가 이것을 구하여 단녀에게 주었더니 조그만 사발에 물을 붓고 거기에 여러 날 기르는데, 내가 보니 그릇이 적어서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 같으니 몹시 가련했다. 이에 친히 소매 속에 넣고 가서 못가에서 놓아 주었더니 양양하게 가다가 물 가운데까지가기 전에 모래 속으로 몸을 감추니 가히 제가 있을 곳을 얻었다 하겠다.

22일. 세 사람을 시켜 두 곳 벼를 거두게 했더니, 한곳은 39속인데 한 속에 3두는 날 것 같고, 한곳은 1백 22속인데 한 속에 2두나 2두 반은 날 것 같으니 모두 생각대로이다. 두 곳 것을 실어다가 다음날 한가할 때 타작하여 관청에 바칠 계획이다. 23일. 이른 아침에 성민복이 우리 친히 소배 속에 형제를 청해다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또 술 두 그릇을 마시고 파해서 돌아왔다. 성(成)은 아우의 처족이다. 또 아우를 청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成)의 아내를 만나고 나는 먼저 돌아왔다. 덕노를 시켜 율무를 타작했더니 14두 4승이다.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30두는 날 것이라 했더니 겨우 이것뿐이니 탄식스럽다.

24일 둑 안 논벼를 키로 까불렀더니 도안으로 합 1석 3두이다.

25일. 조윤공·신경유에게 소를 빌리고 또 쟁기질꾼으로 조용개의 종을 얻어서 보리 밭 세 곳을 갈았다. 다만 함열에서 얻어 온 보리씨는 영글지 않고 구멍이 나서 물에 담갔더니 절반이나 떠올라서 겨우 집 앞의 밭에만 뿌리고 그 나머지 두 밭은 다시 씨를 얻어야 다 뿌리겠다.

26일. 두 밭에 보리씨를 뿌렸다. 인아가 함열에서 왔는데 저린 게 20개·조기 5마리·찹쌀 1두를 얻어 왔다. 찹쌀은 떡을 만들어 어머님께 드리라고 딸이 보낸 것이다.

27일. 이 첨정(李僉正)(이수준)의 밭에 보리씨를 뿌리고자 했는데 마침 종들이 병을 칭탁하고 일어나지 않고, 또 딴 사람도 얻을 수가 없어서 씨를 뿌리지 못했는데, 오후부터 비가 저녁내 오니, 비 오기 전에 뿌리지 못한 것이 몹시 한탄스럽다. 아침에 향비를 태수에게 보내서 편지로 보리씨 부족한 것을 요구했더니 1두 5승을 주어 보냈으니 이것만 가지면 거의 다 뿌릴 것이다. 태수의 실내(室內)가 또한 홍시 20개와 절인 외 20개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요새 종들이 병을 칭탁하고

가을일에 힘을 쓰지 않아서 수확할 때 매양 품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시켰기 때문에 상하의 용도만 번다해서 이제 가을일이 바야흐로 끝났는데 수확된 곡식을 이미절반이나 써 버렸으니 겨울이 되기 전에 군색한 걱정이 여전히 닥칠 것이라. 탄식한들 무엇하리오.

28일. 들으니 내일 군 사람이 매(鹰)를 구하기 위해서 평강으로 간다 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전일에 딸이 보낸 찹쌀로 새벽에 떡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드렸다. 그러나 떡을 찔 때 잘못해서 익지 않아서 두 번을 찐 뒤에 비로소 익었는데 모두부서졌으니 우습다. 품을 얻어서 이 첨정의 밭에 보리를 갈았다. 집사람이 태수 실내에게 편지를 하여 무(着根)를 달라고 했더니, 태수가 한 섬을 주어서 향비를 시켜 받아 왔다. 태수가 지난 가을에 냇가 둑에 갈았던 것을 오늘 거두어 가기에 사람을 시켜 얻은 것이다.

29일. 말 한 필에 종 하나를 데리고 용안으로 향했다. 배로 무수포를 건너서 용안성 밖에 이르러 덕노를 시켜 이름을 통했으나 문지기가 엄하게 금해서 알려 주지않는다. 해가 기운 뒤에 태수(정경지)가 당청(即廳)에서 손님을 접대한다기에 문지기를 시켜 간신히 이름을 통했다. 이에 태수가 나를 청해 들어오라 하므로 즉시 들어가 보고 서로 옛 회포를 이야기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황 첨정(치성)도 또한 왔으니, 곧 태수의 친척이다. 같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어두운 뒤에 황 공(黃公)은 먼저 일어나고 나는 태수와 앉아서 각각 5, 6잔씩을 마시고 밤이 깊어서 파하고 사사 주인집으로 돌아와서 잤다. 황(黃)은 전일에 비록 서로 알지 못했으나자미와 진위에서 가까이 사귀던 터여서 이름을 들은 지는 이미 오래다. 오늘 만나서 자못 은근한 뜻이 있다. 들으니 윤함이 집에 도착했다고 하나 해가 저물어서 즉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믐날. 태수가 아헌으로 나를 청했는데 황 공(黃公)이 먼저 와 있어서 같이 아침 식사를 들었다. 마침 중국 장수가 현에 들어와서 떠나오지 못하고, 그 중국 장수가 나가기를 기다려서 황 공은 먼저 돌아가고, 나는 태수와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태수가 내게 가을보리 4두 5승과 건민어 한 마리를 주고, 또 술 한 대접을 마신 후, 덕노를 시켜 얻은 보리를 지게 하고 태수와 후일 만나기를 기약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왔다. 나룻가에 도착하니 마침 배가 적은 언덕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라니 해가 이미 기울었다. 덕노는 학질을 앓기 시작하여 간신히 나루를 건너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여 윤함을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지난해 3월에 서쪽으로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으니, 19개월 만에 비로소 온 셈이다. 집에 와서 들으니 함열에서 또 보리씨 5두를 보내왔다 한다.

10월

1일. 예로 보내는 양식을 실어 오고자 덕노를 시켜 말을 가지고 함열에 가게 했다. 아침에 언명의 처남 김담령이 언명을 와 보고 서울로 돌아갔다.

2일. 또 이웃 사람 복남의 밭을 얻어 오늘 갈려 했으나 쟁기꾼을 얻지 못해서 갈지 못했다. 절후가 이미 늦었으니 민망하다. 얻어 온 보리씨가 남기로 씨 뿌릴 것을 계산하니 그래도 4두가 남는다. 이것을 향비를 시켜 장에 가서 쌀 2두 6승을 바꿔 왔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예로 보내는 양식 백미 10두 · 벼 1석을 얻어왔고, 또 따로 절인 조기 10마리 · 뱅어젓 3되 · 제사에 쓸 황각(黃角) 1두 · 청각(靑角) 1되 · 미역 3동을 보내왔다.

3일. 날이 밝기 전에 덕노를 용안에 보냈다. 전일에 용안태수가 말하기를 종을 보내서 제수를 가져가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보내는 것이다. 영암임매의 편지를 조 한림(희보)의 사위 최정해의 종이 돌아올 때 가지고 왔는데, 임매는 잘 있다고 했고, 또 미역 6동·표고 2되·마른 새우와 조개 7되·건숭어 2마리를 보내왔다. 최(崔)는 말도 없이 갔기 때문에 답장을 보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4일. 일꾼 두 명을 얻어서 복남의 밭을 갈고 보리 4두를 뿌렸다. 집주인 최인복이 종 두 명을 보내서 무를 뽑아서 각각 두 섬씩 나누어 말에 실어 보냈다. 덕노가 오늘 돌아왔는데, 용안태수가 중미 2두 · 게젓 10개 · 잡것 2되 · 누룩 2장 · 빈 섬 10장 · 백지 10장 · 상지(常紙) 한 속을 보냈다. 덕노는 어제 학질을 앓아서 조자(趙)의 집에서 잤다고 한다. 조(趙)는 무수포가에 사는데 밥을 하고 콩을 삶아서 종과 말에게 주었다 한다.

- 5일. 집주인 최인복을 청해다가 전일에 거두어 온 콩과 팥을 타작하는 것을 보게 했는데, 팥은 각각 5두씩 나누었고, 콩은 각각 23두 5되씩 나누었다. 최(崔)는 또 종자 값으로 6두를 도로 주었다. 금성정이 찾아왔기에 떡과 술을 대접해서 보냈다.
- 6일. 무료한 중에 언명과 두 아들을 데리고 뚝 언덕을 돌면서 물고기 노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저녁때 조 별감 광좌가 와 보고 돌아갔다.
- 7일. 아침에 들으니 한 감찰 집(檝)이 그 어머니 상사를 당했다고 하므로 식사 후에 가서 조상하고 왔다. 함열의 관인이 지난달에 평강에 갔다가 오늘 비로소 돌아왔는데, 매가 크고 좋은 것 한 마리를 얻어 가지고 왔다. 이제 윤겸의 편지를 보니관청 일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라. 잣 1두·석이(石茸) 1두·꿀 2되·노루포 20쪽을 보내왔다. 포는 어머님께 드렸다.
- 8일. 윤함은 함열로 갔다. 삼색떡을 만들어 함열태수의 자당께 보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찬데 어떻게 강을 건넜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모레 딸이 근친 오겠다고 하므로 윤함을 보내서 데려오게 한 것이다. 아침에 잣 3되를 임천태수의 실내에게 보냈다. 또 못에서 거북 한 마리를 얻었기에 태수(서집)에게 보냈다. 듣건대 태수가 습병(濕病)으로 구해 먹고 싶어 한다기에 보낸 것인데, 태수의 실내는 편지를 보내 사례하고, 토란・밤・즙장을 요구하고 또 꿀을 구하므로 꿀 반 보시기를 보냈다.
- 9일. 조 좌수 응립과 조 훈도(趙訓導)(조의)가 대조사(大鳥寺)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고 이른 아침에 종과 말을 보내서 우리 형제를 청했으므로 즉시 언명과 절에 올라가 배불리 먹고 걸어서 돌아왔다. 소즐과 이광춘도 역시 참여했다. 전일부터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들으니 상판관(기손)의 집에서 소를 잡아 판다기에 콩 2두 5승을 보내서 고기 두 조각을 얻어 왔는데 겨우 어린애 손바닥만 하니 가소롭다. 그러나 늙은 어머님께 드리려고 부득이 산 것이다. 소즐이 집에 돌아갈 때 들어왔으므로 술 두 대접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한복이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내일 딸이 꼭 온다고 한다. 허찬이 왔는데 여러 곳을 떠돌면서 걸식해서 살아 왔다면서 다만 홑옷을 입고 있으니, 일기가 몹시 추워지면 정녕코 얼어 죽을 것이다. 불

쌍하다.

10일. 함열 딸이 왔다. 향비를 강둑에 보내서 맞게 했다. 떡 1행담·청주 2병·마른 생선 3묶음·조기 10마리·절인 게 20개·마른 민어 1마리·양색젓 1항아리·홍시 20개·쇠고기 1행담·쇠간 반통을 갖추어 가지고 왔고, 쌀 2두도 역시 가져왔다. 어두운 뒤에 이 별좌 정시가 왔다. 이번에 서산감목관(瑞山監牧官)에 임명되어 근친하러 집에 온 것이다.

11일. 이복령이 왔기에 같이 바둑을 두다가 저녁 무렵에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저녁에 평강에서 관인(官人)이 왔는데, 윤겸의 편지를 펴 보니 아무 일도 없다니기쁘다. 그러나 관청 일이 말이 아니라니 걱정스럽다. 내일이 곧 윤겸의 생일이어서 이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것인데, 목미(木米) 5두ㆍ피 2두ㆍ붉은 팥 2두ㆍ차좁쌀1두ㆍ잣 3두ㆍ석이ㆍ버섯 3두ㆍ꿀 9되ㆍ잣떡 94편ㆍ박계(朴桂) 1백 20잎, 포도정과 1항아리ㆍ방어 1마리ㆍ마른 꿩 5마리ㆍ배 20개ㆍ황납(黃臘) 1근 20량ㆍ백지 3 묶음을 실어 왔다. 온 집안사람이 다 모였는데, 다만 윤겸과 윤해만이 없으므로 연연한 회포를 이길 수 없다. 아침에 종과 말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실어 오게 했다.

12일. 만두를 만들어서 평강에서 온 물건을 갖추어 신주께 올리고 나서 어머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처자들에게 주었다. 또 잣떡 및 정과를 임천 아내(衙內)에 보내고, 또 잣 한 되씩을 조 한림(희철) 삼 형제 및 조희윤·유선각·소즐의 집에 보냈다. 또 언명에게 잣 3되·목미(木米) 5되·석백(石柏) 2되·버섯 1되·계피(桂皮) 10잎·방어 1쪽을 주었다. 권 생원 학이 찾아왔기에 송이·떡·정과를 대접해 보냈다.

13일. 군내(郡內)의 품관 및 교생들이 각각 술과 과일을 가지고 서쪽가 언덕에 모여서 피란 와 있는 사람을 청했으므로 나와 아우도 또한 가서 참여하고 해가 기울어서 취하고 배불리 먹고 돌아왔다. 여기에 참석한 자는 10여 명이요, 품관은 20여 명인데, 만일 다 왔으면 이런 숫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혹은 연고가 있고, 혹은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았다. 이 일을 먼저 제창한 자는 조응린(趙應麟)·조응립(趙應立)·조의(趙毅) 등이라 한다. 딴 고을에는 없는 일이니 몹시 후한 풍습이다.

14일. 새벽에 평강에서 온 사람이 돌아가는데 저린 게 20개를 주어 보냈다. 함열에서도 또한 게 40개·새우젓 1두를 보내고, 함열에서는 또 양식으로 쌀 2두·콩 1두를 보냈다.

15일. 감관(監官) 임붕(林鵬)을 청해다가 타작하는 것을 보게 했다. 해가 짧아서 겨우 두 곳의 논 7두락지기를 타작하니 벼 5석 13두이다. 오후에 조 좌수 희윤이 찾아왔다. 저녁때 함열 장무(掌務)가 백미 1두 · 민어 1마리 · 조기 2묶음 · 저린 게 15개 · 새우젓 3항아리 · 뱅어젓 1항아리를 보냈다. 이것은 딸이 여기 머무르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16일. 소즐이 왔기에 떡을 대접해서 보냈다. 단아가 그저께부터 머리 아파하는데 아직도 쾌하지 않아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니 걱정이다.

17일. 지난밤 3경 후에 함열에서 사람과 말이 와서 오늘 이른 아침에 딸이 돌아가게 된다. 딸과 그 어머니 및 두 동생은 작별에 임해서 서로 붙들고 운다. 여자가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지려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몹시 가련하다. 언명이 데리고 갔다가 그 길로 태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달 9일에 여기에 왔다가 이제 비로소돌아가니 서운한 회포를 이길 수 없다. 함열에서 흰 새우젓 큰 항아리 하나를 보냈다. 소즐의 아내가 딸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쌀과 삼색 김치ㆍ게젓ㆍ감장 등 물건을 보냈는데 딸이 떠난 뒤에야 도착해서 보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함열에 사는 양윤근의 아들이 술과 떡ㆍ안주를 갖추어 세 행담을 가져왔다. 전일에도 두 번이나 술과 떡을 가져왔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하니 비록 그 뜻은 후하나 달리 갚을 도리가 없으니 한편 미안하다. 그러나 부탁할 일이 있다니 듣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걱정이다. 다만 편지만 써서 함열태수에게 보냈으니 듣고 안 듣는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이라 알 수가 없다. 단아는 종일 밤새 아픈 것이 그치지 않으니 몹시 걱정된다. 어두운 뒤에 김익형이 와서 보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는데 술 한 그릇을 대접해 보냈다.

18일. 아침부터 흐리고 비를 뿌리더니 오후에는 크게 내린다. 언명이 만일 비 내릴 조짐이 있다고 떠나지 않았으면 중로에 비에 젖는 걱정이 없으련만 우구(雨具)도 없이 갔을 테니 몹시 걱정스럽다. 소즐이 와서 본다. 마침 군(郡)에 들어가다가 비 를 만나 우비를 얻으러 온 것이다. 술과 떡을 대접해 보냈다. 단아의 병세는 어제 와 같으니 몹시 걱정스럽다.

19일. 식사 후에 무료해서 윤함과 걸어서 향교로 가서 조 훈도(조의)를 찾아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노라니 조(趙)가 홍시를 대접한다. 그 길로 또 이복령의 집을 찾았더니 마침 조 좌수 응립이 와 앉아 있다. 이에 같이 이야기하다가 복령과 두부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이(李)가 연거푸 5, 6판을 지니 우습다.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향비가 그저께 딸을 모시고 함열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무사히 도착했으며, 언명은 비로 인해서 하루 머물렀다니 오늘 돌아갈 것이다. 자방이 쌀과콩 각 3두·조기 5마리를 주어 보냈다니 기쁘다. 단아의 아픈 증세는 오늘도 역시마찬가지여서 복령에게 가서 길흉을 점쳐 보았더니 복령이 돈을 던져 점을 치고말하기를 끝내 길하고 흉한 것은 없다고 한다. 또 들으니 서쪽 오랑캐(건주(建州))가 날뛰어,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 장차 남쪽으로 공격해 올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서 놀라고 접을 낸다고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누가 능히 막는단 말인가? 외롭게 남아 있는 쇠잔한 백성이 장차 모두 적의 칼날 밑에 죽으리로다. 탄식스러우나 어찌하리오.

20일. 아침에 향비를 시켜서 삼색 젓 한 접시를 향교 조 훈도(조의)에 보냈다. 어제 그 거처와 음식을 보니 몹시 서늘하고 얇아 보이기로 이것을 보냈다.

21일. 함열에서 문안하는 사람이 왔는데, 딸이 큰 무 10개·생복(生鰒) 5개·홍시 10개를 보냈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 또 한복(漢卜)을 이 별좌 덕후의 집에 보내서 문안하고 잣 3되·석이(石茸) 3되·포도정과 1보시기를 보냈다. 들으니 해 평부원군 윤근수가 장차 그 집에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없는 물건을 보낸 것이다.

22일. 송 생원 대기(大器)가 찾아왔다. 낙안 땅으로 떠돌다가 마침 한산에 왔다가 여기를 지나게 되어 들어온 것이다.

23일. 사람 6명을 얻어서 서마지기 벼를 타작했더니 겨우 2석 15두가 났으니 서운하지만 어찌하랴. 아침 식사 후에 김익형이 왔기에 김(金)과 윤함과 함께 걸어서 성민복의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또 향교로 가서 조 훈도(조의)를 찾았으

나 역시 없다. 또 신경록의 집으로 갔더니 역시 만나지 못했다. 돌아올 때 이복령의 집으로 갔더니 운계수가 마침 와 있어서 같이 이야기했다. 운계는 곧 평원군의 아들이요 조문화(희보)의 질이며 나에게는 처7촌이 된다. 나는 복령과 바둑을 두다가 해가 기울어서 파하고 돌아왔다. 돌아올 때 신경유에게 들려서 김 공(金公)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는 윤함과 먼저 돌아왔다.

24일. 이 별좌 덕후가 찾아와서 생치 2마리·생전복(生鰒) 5개를 어머님께 드리라고 주었다. 그에게 들으니 조 생원 몽정(夢禎)씨가 호남 땅에서 객사했다고 하니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조(曺)는 나의 6촌 매부와, 나와는 소년 때 서로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들으니 더욱 몹시 비통하다. 그 장남 조도(曺悼)는 지금 금오랑(金吾郎)에 임명되어서 죄인을 잡아 올 일로 북쪽 지방에 가서 돌아오지않았다고 하니 불쌍하다. 정 정자 사신이 찾아왔다. 또 이 고을 관인이 매를 구하려고, 지난달에 평강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와서 윤겸의 편지를 보니, 지금 잘있고, 이달 그믐께 휴가를 얻어 집에 온다고 했다. 괴롭게 기다려진다.

25일. 상판관 기손씨가 대조사에서 두부를 만든다고 나와 조 훈도(조의)를 청했기에 일찍 그 절에 갔더니 마침 조 좌수 광철이 역시 왔다. 법당 해가 비치는 곳에 둘러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서로 붙들고 걸어서 앞고개를 넘어 돌아왔다. 그러나 조 좌수는 두부 먹기 전에 대오지 못해서 한스럽다. 또 여러분들과 오는 1일에 성민복의 서재에서 두부를 해 먹으면서 회포를 풀기로 약속하고, 글을 써서 돌리기로 이광춘을 시켜 임시로 돌려 보였다. 단아는 소복되고 있으니 기쁘다.

26일. 성민복이 와서 보고, 날더러 태수에게 들어가 보고 그 일을 부탁해 달라고하므로 부득이 관청으로 태수를 가보았더니 마침 원 상례(원사용)가 들어와서 같이 태수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성 공(成公)의 일은 말하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태수가 사창으로 옮겨 앉기에 나도 따라 들어가서 윤함이 해주에 사는 종을 산 일과 덕개 형제의 이름 고친 일을 청하여 허락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 조 훈도(조의)가 향교에 와서 사람을 시켜 나를 청하기에 우리 부자가 들어갔더니 조(趙)는 교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 내게 술을 먹여서 몹시 취하고 배불러 가지고

돌아왔다. 이 진사 훈영도 역시 와서 참석했다. 저녁에 소즐이 왔다. 즐은 환상곡을 바치느라고 군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집에서 받아 온 환상곡을 바치지 못한 일로 해서 볼기 20대를 맞았다니 미안하다. 지난봄에 즐의 이름으로 환상곡을 받아 먹은 까닭이다.

27일. 지난밤에 꿈이 불길해서 심회가 자못 고약하다.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무 40개를 얻어 보냈다. 종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덕노를 시켜 말을 가지고 소나무 가지 두 바리를 베어다가 뒤 울타리를 만들었다. 저녁에는 천둥과 비가 크게 일고 번개가 번쩍여 여름날과 같다가 밤에 이르러서야 그치더니 계속해서 큰 바람이 불어 밤새 그치지 않았다. 어제저녁에 용인 경여의 아내가 지금 수원 종의집에 와서 아이종 성산을 시켜 고부 땅으로 공세를 받으러 가다가 여기에 들러 잤다는데 그편에 들으니 잘 있다고 한다.

28일. 시윤의 종 한손이 양성으로부터 지금 장수로 향하다가 들렀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덕노와 한복을 시켜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종일 바람이 불었다.

29일. 장수 종 한손이 이제 비로소 돌아갔다. 또 윤함이 함열에 갔다. 요새 꿈이 몹시 번거롭다. 윤겸이 요새 올 터인데, 일기도 몹시 차고 먼 길에 얇은 옷으로 어떻게 왔다 간단 말인가? 윤해도 역시 같이 올 것인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걱정됨을 금할 수가 없다. 이 고을에 사는 정병 백인화가 말값 50두 속에서 38두를 먼저 가져오고 그 나머지 12두는 새달 5일 안에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11월

1일. 이른 아침에 인아 및 허찬을 데리고 성민복의 서재에 갔더니 상기손·조광철이 먼저 와 있고, 조의도 따라 왔으며, 교생 수삼 명도 또한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이내 중들이 두부를 만들어 오랬으나 중 수도 적고 손은 많으며, 그릇도 역시 모자라서 잘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함열에서 쌀 10두·배 1석을 얻어 싣고 왔는데, 다시 되어 보니 쌀 6되가 주니, 필시 훔쳐 먹은 것이라, 밉살스럽다.

- 2일. 밤에 집사람과 딸들이 모두 윤겸의 꿈을 꾸었다 하니, 생각건대 오는 중이어서 자주 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몸이 편치 않아서 꿈에 보이는 것인가. 의심나고 걱정스럽다. 또 보리 환상곡은 본래 쌀로 8두 6되인데 6되는 줄었고 2되는 미수(未收)이다.
- 3일. 새벽에 덕노가 말을 가지고 함열로 갔다. 윤함의 처갓집 종 옥지가 남평에서 이제 비로소 돌아왔는데, 남평태수가 부채 두 자루와 백지 한 묶음을 나에게 보냈다. 옥지를 즉시 함열로 윤함의 편지를 받아오게 했다. 윤함이 지금 함열 아내(衙內)에 있기 때문이다.
- 4일. 아침에 예산 김 한림(김지남)의 집종이 전답 추심할 일로 함열에 가는 길에 여기에 들러서 내 편지를 받아다가 태수에게 바치고 추심하겠다고 하기에 즉시 편지를 써서 함열에 보냈다. 한림(김지남)의 글을 보니 무적(無赤)이 지난 4월에 죽었다 하니 통곡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전일에 비록 전해 들었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치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몹시 애통하다. 세 아들과 두 딸 중에 세 아들과 한 딸이 먼저 죽고, 오직 젖먹이 어린 딸만 남았다니 어떻게 반드시 살기를 바라랴? 한림이 덕노·옥지 등을 데리고 돌아왔다. 편지를 써서 옥지를 황해도로 보내기 위해서다. 함열에서 꿀 5되 값으로 백미 10두를 찾아서 덕노가 지고 왔다.
- 5일. 윤함의 처갓집 종 옥지가 황해도로 돌아갔다. 환상곡 정조(正租) 3석·거친 벼 1석을 실어다가 사창에 바쳤다. 어제 소즐이 아는 양반들에게서 벼 50두를 받아다가 오늘 큰 말로 다시 되어 보니 겨우 30두인데, 전에 준비한 것까지 도합 4석을 덕노·한복을 시켜서 먼저 보내서 바치게 하고 남은 벼 4두는 도로 가져왔다. 마침 허찬을 시켜 감독하게 했기 때문에 종들이 속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 6일. 신 별감 몽겸이 와 보았다. 또 이 별좌 덕후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함께 어머님께 드리라고 정어리 세 두름을 보냈으니 몹시 감사하다.
- 7일. 눌은개와 품으로 산 사람 4명을 시켜 둔답 세 마지기를 거두어들이게 했더니 반으로 나누어 39속에서 2석 12두가 났다. 감관(監官)이 오지 않고 다만 사령(使 令)을 시켜 와 보게 했기에 즉시 실려 보냈다. 남고성(남상문)의 종 덕용이 서울에

갔다가 내려와서 어머님께 문안하기에 조수(潮雙)(남상문)가 누이에게 한 편지를 펴 보니 아무 병도 없다고 한다. 해양으로부터 지난 8월에 온 집안이 광주 농토로와 있다고 하니 몹시 위로가 되고 기쁘다. 조수가 절구(絕句) 한 수를 지어 보냈다. 8일. 또 눌은개와 품으로 산 사람과 도합 4명을 시켜 어제 마치지 못한 벼 39속을 타작해서 환상곡 3석 10두를 준비해 두고 보니 남은 것은 10두에 지나지 않는다. 조문화(희철)가 편지를 보내서 나를 청하여 내일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으므로 즉시 답장을 써 주어 보냈다.

9일. 한복이 마을 사람 5, 6명을 모아 가지고 못물을 빼고 고기를 잡아 붕어 크고 작은 것 3, 4마리와 조리어(鳥鯉魚) 크고 작은 것 5, 60마리를 잡았다. 나는 붕어 큰 것 20여 마리만 갖고, 나머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태수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남생이를 얻어 오라고 하므로 남생이 10마리와 붕어 16마리를 얻어 보냈다. 오후에 조문화가 청한 곳에 가서 크게 취해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이 모임에 참석한 자는 조욱륜(趙郁倫)·조의(趙毅)·조응린(趙應麟)·조희열(趙希說)·이응길(李應吉)·소즐 및 조문화의 삼촌과 그 삼 형제였다. 이는 곧 담제(譚祭)를 지낸 후에 그 문족(門族)들을 모아 이야기하게 되어서 나도 청한 것이다.

10일. 이른 아침에 조 좌수(희윤)가 편지를 보내서 나를 청하기에 즉시 달려갔더니 곧 시사(時祀)를 지낸 후에 그 문족들을 모아 술자리를 마련하고, 내가 가까운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청한 것이다. 홍 생원 사고가 마침 지나가다가 들어와 참석했다. 조 좌수의 종들 중에 피리를 부는 자가 있고, 희보의 계집종 중에는 가야금을 타는 자가 있어, 피리를 불고 가야금을 타게 한다. 나는 난리 후에 비로소 음악 소리를 들으니 또한 슬픈 마음이 난다. 저녁에 몹시 취하고 배불러 가지고 홍 공(洪公)과 함께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환상곡 거친 벼 2석 7두 5승과 정조 7두 5승을 사창에 바쳤다. 이제 소모된 것 외에는 다 바친 셈이다. 유선각이 거친 벼 15두와 정조 2두를 보내서 공채 바치는 데 바치라고 하니 몹시 감사하다. 11일. 전에 조윤공의 아들의 장인이 매를 구하려고 평강에 가게 되었는데, 이웃에 사는 조응개의 청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사람이 편지를 유격에게 전하고

좋은 매 한 마리를 얻었다고 그 사람을 시켜 내게 보내고, 또 생치 두 마리와 곰의 포 10조각을 보냈다. 윤겸의 편지를 열어 보니 잘 있다고 했으나 다만 중국 장수가 요새 고을에 들어온다고 먼저 문서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집에 올 기일이 점점 멀어 진다고 했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이 매는 아주 좋은 것이니 바라건대 남에게 경솔히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편지를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매까지도 자기가 가지려고, 역시 와서 고하지 않고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으니 몹시 밉살스럽다. 그러나 윤겸의 한 일도 역시 허술한 데가 있다. 이렇게 전전해서 간 사람에게 어떻게 경솔히 좋은 매를 내준단 말인가. 괴상한 일이다. 만일 저 사람이 기어코 매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관청의 힘으로 처리할 작정이다.

12일. 식사 후에 이 별좌 덕후를 찾아보고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이(李)가 내게 저 녁 식사를 대접해서 해가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는 후일에 종을 보내서 환 상곡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13일. 덕노를 시켜 연못가의 죽은 소나무 한 주를 베어다가 땔나무를 마련하게 했다. 먼저 태수에게 편지를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베게 했다. 그의 관청 지위로 보아 하인들이 참소할까 두려워서이다.

14일. 이른 아침에 조자(趙磁)가 찾아왔기에 오죽장(烏竹杖) 하나를 주었다. 전일에 그가 구했기 때문에 얻어서 준 것이다.

15일. 종과 말을 이 별좌의 집에 보냈더니, 이(李)는 정조 15두·찰벼 2두·붉은 팥 1두·새우젓 1사발을 보냈다. 이것은 전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콩 1두·검은콩 4되·젓갈에 저린 무 1항아리·생치 1마리·목말(木末) 4두와 만두소를 보냈기에 만두를 만들게 해서 어머님께 드렸다. 윤겸의 종 개질지가 와서 5승목 반 필·참깨 1두·들깨 1두를 바쳤다. 이것은 곧 지난여름에 그 아우 감동이 우리 집 9승목 40척을 훔쳐다가 썼으나 감동은 이것을 마련해서 바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형이 갖추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모자라는 것은 뒤에 다시 갖추어 온다고 했다.

16일. 일찍 식사를 한 뒤에 개질지와 덕노를 데리고 홍산에 가서 사창에서 태수를 만나 옛 회포를 한동안 이야기하는데, 태수는 나에게 술 석 잔을 대접하고 계속해 서 저녁 식사를 낸다. 태수가 먼저 돌아가기에 나도 따라 와서 객사, 즉 청방에서 잤다. 그러나 방이 차서 밤새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

17일. 일찍 아헌으로 나갔더니 유 정자(유도)가 먼저 와 있다. 조금 있다가 태수도 나와 앉아서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 태수는 나에게 벼 1석 · 쌀 1두 · 콩 2두 · 목맥 (木麥) 2두 · 팥 5되 · 찹쌀 5되 · 누룩 1장을 준다. 태수는 먼저 나가서 환상곡을 받기에, 나는 올 때 또 들어가 보았다. 날이 추워서 술을 달래서 석 잔을 마시고 달려왔다. 개질지는 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홀로 덕노를 시켜 벼를 지고 집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저녁때가 되었다. 윤해가 진위로부터 와서 근친한다. 못 본 지 1년 만에 이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한산에 사는 정 봉사(정봉)가 매를 가지고 왔다. 소즐도 마침 왔기에 즉시 매를 날려 보냈더니 장끼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기쁘다.

18일. 정봉(鄭奉)이 처음에는 매를 사려고 하여 쌀 30두를 주겠다고 하기에 나는 40두를 달라고 했더니 값이 비싸다고 노해서 버리고 돌아갔다. 매에 달린 방울도 또한 모두 거두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 매를 날려 보내려 해도 방울이 없어 날릴 수가 없다. 정(鄭)이 불순한 말을 많이 하니 밉살스럽다. 매는 소즐이 가지고 갔다. 조 훈도(조의)가 찾아왔었다.

19일. 어제 소즐과 약속하기를 오늘 근처에 모여서 매를 날리기로 했으므로 나는 세 아들과 함께 수산도에 올라가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 밉살스럽다. 김자정(김지남)의 종이 편지 답장을 받아 가지고 오늘 비로소 예산으로 돌아갔다. 석이와 진이 조금씩 싸 보냈다.

20일. 소즐이 사람을 시켜 편지하기를, 어제는 매의 궤가 없어서 오지 못했다면서 오직 꿩 한 마리만 얻어 보냈으니 제사 때 쓰련다. 어머님께서 지난달부터 천식이 몹시 심하시어 밤새 쉬지 않고 기침을 하시고, 이 때문에 식사가 아주 줄고 얼굴빛이 수척해지시니 몹시 민망스럽다. 어제 덕노를 함열에 보냈는데, 오늘 오지 않으니 이 무슨 까닭이냐. 내일이 곧 함열태수의 생일이므로 집사람이 떡을 만들어 덕노를 시켜 지워 보냈으니 오늘 마땅히 와야 할 것인데 오지 않으니, 나룻가에 와서 건너지 못하고 잔 것이리라.

21일. 소즐이 매를 가지고 와 보고 매를 놓았으나 마침 바람이 어지러워 잡지 못하니 한스럽다. 조 한림(희보) 및 조 좌수(응립)가 각각 벼 한 석씩을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덕노는 오늘도 역시 오지 않으니 괴이하다.

22일, 동지이다. 절일(節白)이므로 잠시 제사를 지내고, 죽전 숙주에게도 역시 지 냈다. 조 훈도(조의)를 청해다가 술과 팥죽을 대접해 보냈다. 덕노는 제수를 얻기 위해서 함열에 보냈던 것인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갖추지 못하여 양 색 어육 · 탕과 구이 · 면 · 떡 · 포 · 식혜만으로 지냈다. 식사 후에 조김포(희식)의 삼 형제 및 조 좌수(희윤) 형제가 와서 나를 끌고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보광사로 가서 두부를 만들어 먹고 매를 날리면서 같이 자고 밤에 이야기했다. 이 별좌 문중 (文仲) 형제는 역시 먼저 도착해 있다. 일찍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각 각 술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먼저 두부를 먹은 후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각각 몹시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다. 중들도 역시 과일과 탁주를 내왔다. 자리에 있는 자는 15 명인데, 홍 생원 사고 · 이 부장 세호와 윤해도 역시 참석했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 왔는데, 함열에 연고가 있어 즉시 물건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왔다 한 다. 조미 10두를 얻어 오고, 또 따로 찹쌀 1두 · 목미(木米) 5되 · 조기 2묶음 · 건민 어 1마리 · 뱅어젓 5되 · 새우젓 5되 · 붉은 팥 5되를 보냈다. 또 송 지평(송영구)이 사람을 시켜 붉은 팥 5되·좋은 술 1병·홍시 20개를 보냈으니 그 후의에 감사한 다. 마침 내가 없어서 글로 사례하지 못하고. 윤함이 답장을 써서 보냈다. 전일에 벼 1석을 양산집에 두어두었던 것을 덕노가 가서 실어 왔다.

23일. 이른 아침에 또 두부를 만들어 조그만 술자리를 마련하고 늦은 뒤에 각각 흩어졌다. 나는 윤해와 뒤떨어져서 돌아왔다. 저녁에 함열에서 사람이 왔는데, 독한술 2병·찰떡 1행담·각색 구이 1행담을 보내왔다. 그저께가 곧 함열태수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갖추어 보낸 것이다. 마침 최인복이 찾아왔기에 술 네 대접을 주어보냈다. 들으니 함열의 매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 놓쳐 버렸기 때문에 이곳 매를 딴 곳에 팔지 않고 가져간다고 한다.

24일. 아침에 함열 사람을 소즐에게 보내서 그 매를 찾아다가 함열로 보냈다. 식사후에 군에 들어가서 감관 임붕·신몽겸을 보고 지난해 환상곡 문서를 조사해 보

고, 묵은 벼 10두와 정미 3두 3되를 바쳤다. 이것은 곧 지난여름에 먹은 것이어서 쌀로 찧어 바친 것이다. 태수는 병으로 앉아 있지 않아서 신(申)·임(林) 두 감관 (監官)이 받았다. 윤해와 윤함은 제 누이를 보려고 함열에 갔다. 그러나 해가 늦게 떠났으니 나루를 건널 때 해가 저물지 않았나 걱정된다.

25일. 새벽에 집사람과 말(言)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다투어 한동안 설전을 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조 좌수 응립이 와 보았다.

26일. 영암 임 진사 경흠이 서울에 갈 때 들러서 우연히 서로 만나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찹쌀 1두 4되 · 건숭어 및 은붕어 · 게젓 등을 어머님께 바친다. 또 정목 1필을 두 딸에게 주었다. 나의 남바위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 또 남바위 하나를 주니 기쁘다.

27일. 태수(서집)가 경흠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문안한다. 조 한림 (희보)은 와서 경흠을 보았다. 희보와 경흠은 군으로 들어가 태수를 만나려는데 태수가 병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올 때 홍 생원 사고의 첩 집에 들어가 보고 억지로 그 첩을 나오게 하여 만나서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홍 생원의 첩은 곧 공주 기생인데 마침 홍이 집에 없었다 한다. 어두운 뒤에 집사람이 만두를 만들어 경흠을 대접했다. 집에 찬거리 없어서 닭을 잡았다. 덕노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함열에서 따로 벼 3석을 보낸 것을 짐이무거워서 2석은 실어 오고, 1석은 양산의 집에 두어두었단다. 그러나 들으니 내 매를 가져다가 이튿날 날렸더니 공중에서 꿩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다시 날려 보내자 공중에서 꿩을 잡아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하니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같이 재주 있는 매는 뒤에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일찍이 조 좌수 응립과약속하기를, 정목 2필ㆍ쌀 40두와 바꾸기로 했는데, 함열에서 매를 잃었단 말을듣고 사람을 시켜 가져가려 하므로 부득이 되돌려 보냈더니, 오늘 죽었단 말을들으니 더욱 탄식스럽다. 또 들으니 함열에서 잃은 매가 되돌아왔다니 기쁜 일이다. 정어리 6두름도 또한 얻어 왔다.

28일. 경흠은 홍산으로 떠났다. 행자를 홍산태수에게 얻어 가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이다. 윤해 형제가 함열에서 늦게 떠나 남당에 이르렀으나 배가 없어서 즉시

건너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건너 집에 도착하니 밤중이 되었다. 그편에 들으니 함열 태수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내일 떠나 여기 와서 잔다고 한다.

29일. 윤해가 경흠을 만나고자 홍산에 갔다. 오후에 김 한림(김지남)이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왔다. 아내를 잃은 후에 이제 비로소 만나니 피차가 애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함께 자면서 밤새 죽은 누이와 두 아이들의 일을 이야기하니 더욱 슬프다. 저녁에 함열태수가 와서 한방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 후에 윤함과 함께 이웃집으로 가서 잤다. 어두운 뒤에 이 진사 중영이 함열태수를 와서 보므로 나와 자정(김지남)도 나가 만나 보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또 낮에 안사눌부자가 당진으로부터 지나다가 들렀기로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하고, 술 세 대접을 먹여 보냈다.

그믐날. 이른 아침에 함열태수는 정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서울로 간단다. 덕노를 홍산에 보내서 경흠이 얻은 물건을 실어 오게 했다.

12월

1일. 소즐이 와서 보았다. 그에게 들으니 나의 지난해 환상곡이 딴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바쳐졌기 때문에 바야흐로 독촉을 받았다 하므로 부득이 즐과 함께 감관을 들어가 보고 문서를 조사해 보고 돌아와서 즐에게 술 두 그릇을 대접해 보겠다. 이 진사 중영이 찾아와서 자정(김지남)과 함께 종일 이야기하다가 어둘 무렵에 돌아갔다. 달리 대접할 것이 없어서 율무죽 한 보시기를 대접해 보냈다. 또 자옥(조우(趙瑀))의 사위 이서(李栖)가 와 보고, 자옥의 편지를 전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하니 위로가 된다. 그편에 들으니 율연의 둘째딸 혼인을 지냈다고 한다. 율연(栗然)의 내외는 모두 죽어서 조목천(형연(瑩然))이 주혼(主婚)을 했다 하니 불쌍하다. 어두운 뒤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경흠이 피 1석ㆍ백미 2두ㆍ콩 1두ㆍ소금 1두ㆍ간장 5되ㆍ피목(皮木) 3두를 얻어서 어머님께 보냈다. 영암 임급(林汲)이 지나다가들러보고 갔다. 그는 곧 경흠의 서삼촌으로서 지난달에 서울에 갔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온다고 한다.

2일, 종일 자정(子定) 및 두 아들과 이야기했다. 오충일(吳忠一)이 와 보았다.

- 3일. 자정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붙들어 머물게 했다. 아침 식사가 겨우끝났는데 윤겸이 돌아왔다. 한방에 모여 앉으니 십분 기쁘고 위로가 된다. 한집이다 모였는데 다만 함열 딸이 없으니 탄식스럽다. 들으니 오는 13일에 별시(別試)를보이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윤해와 윤함도 제 형과 함께 6일에 서울로 가서 관광하겠다 하니 억지로 말릴 수가 없다. 탄식스럽다.
- 4일. 종일 흐리고 비가 뿌린다. 그래서 자정은 돌아가려고 해도 떠나지 못하고 그 대로 종일 머물면서 한방에 모여서 이야기하니 다행스럽다. 신몽겸이 와서 보았다.
- 5일. 자정이 예산으로 돌아갔다. 윤겸은 태수(서집)를 가보고 돌아왔다. 또 사람을 시켜 이 별좌(덕후)에게 편지를 하고 문서 한 조각·생은어 20마리를 보냈다. 윤겸이 가져온 물건을 아는 곳에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 주지 못한 곳이 많고, 집에 있는 것도 역시 다 되었다. 한집이 다 모였는데, 오직 큰딸과 아우만이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 6일. 윤겸이 오늘 돌아가려 했으나 총총해서 떠나지 못하고 내일 떠나게 할 작정이다. 이 별좌 덕후가 술과 과실을 가지고 윤겸을 찾아왔고, 유선각도 역시 와서종일 이야기했다. 오후에 김 봉사(경(璥))가 역시 윤겸을 와 봄으로 저녁밥을 대접하고, 또 꿩과 술을 냈다. 소즐이 와 봄으로 그를 시켜 아이들 명지(名紙)를 잘라만들게 했다. 명지 열 폭은 함열에서 얻었고 또 두 장은 이 고을 태수에게 얻었으니, 이는 모두 윤겸의 힘이었다. 이문중(李文仲)이 윤겸에게 새우젓 한 항아리를 주었고, 함열 딸은 사람을 시켜 문안했는데도 와 보지 않으니 한스럽다. 그러나 형세인데 어찌하리오.
- 7일. 세 아들이 날이 밝기 전에 식사를 하고 서울을 향해 떠났다. 일시에 모두 함께 떠나니 슬픈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윤함은 이 길로 황해도로 가서, 서로 만날 것은 내년 이때로나 기약하고 두 곳 소식도 역시 듣기 어려울 것이니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새벽부터 바람이 불고 눈이 뿌리더니 아침에도 오히려 흐린데 길은 멀고 옷은 얇으니 어찌 갈는지 몹시 근심스럽다. 또 성민복이 와서 아이들을 찾았으나 이미 떠난 뒤여서 만나지 못했다. 종일 큰 바람이 불고 때로

눈을 뿌렸다. 이운(李運)과 그 아버지가 남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으므로 밥을 대접해 보냈다. 그는 곧 조목천 형연(瑩然)의 매부로서 나와는 사촌 동서가 된다. 저녁에 남궁로(南宮櫓)가 들러서 여기에서 잤다. 그는 곧 남궁 지평동장(祗平洞丈)의 손자로서 서울에 있을 때 담하나 격해서 살았고, 지금은 함열에 와 있다. 저녁밥을 대접하고, 또 마초를 보냈다.

8일. 일찍 이광춘을 불러서 수제비를 대접하고 소주 한 그릇을 주어 보냈다. 또 그저께 소즐이 닭자웅을 꾸어 가면서 내년에 이자를 쳐서 나누기로 했다. 밤에는 눈이 내렸다. 어머님께서는 요새 코를 앓으시고 해소가 그치지 않으니 민망스럽고 걱정된다.

9일. 둔전 곡식 40속을 쌓아 두었다가 세후에 쓰려고 했으나 쥐들이 모여들어서 날마다 소모시키므로 부득이 눌은개와 그 조카를 시켜 타작하게 했더니 33두가 나고, 13속은 거두지 못했다. 김 봉사 백온이 이제 비로소 돌아오다가 들러서 보고 갔다. 변 사간 응호도 또한 지나다가 들렀기에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10일. 밤에 큰 눈이 3, 4치나 내렸다. 집사람은 어젯밤에 한전을 하고 앓아서 새벽에 이르기까지 신음하니, 학질과 같으나 자세치 않다. 오늘 밤에도 여전하면 필시학질일 것이니 걱정스럽다. 눌은개 모녀를 시켜 어제 못다 한 벼 13속을 타작하게했더니 모두 2석 7두이다. 오후에 함열 딸이 사람과 말을 보냈기로 즉시 달려갔더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딸과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 새 방으로 나와 잤다. 11일. 들으니 교외에서 진법 연습을 하는데 전 영광태수 남궁현이 장수 노릇을 한다기에 김경·안사눌과 같이 가보고 돌아왔다. 저녁에 사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김경을 청해다가 이야기하는데, 사눌의 종이 좋은 술을 가져오고 또 벽어(碧魚)를 구워 내므로 나도 또한 딸에게 술과 안주를 보내라고 했더니 독한 술 한 병과 마른 안주 한 접시와 정어리탕 한 그릇을 보내서 각각 다 몹시 취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밤중이 지나서 파하고 돌아왔다. 경(敬)이 장차 먼 곳을 간다 하므로 전별하기 위해서다.

12일. 김경과 안사눌이 교외에서 활을 쏘면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나를 청하기에 즉시 달려가서 이야기하는데. 남궁해도 역시 왔다. 해(楷)는 곧 김인천 공서(公緒)

의 형의 사위로서 나와는 7촌척이 된다. 서울 있을 때에는 얼굴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만났다. 저녁때 관아로 돌아오니 한복이 임(林)의 집에서 왔는데, 그편에 들으니 집사람의 학질이 여전하다니 걱정이다. 막정도 수일 이후로 병세가 몹시 중해서 음식을 아주 끊었다고 하니 필시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불쌍하다. 그러나 덕노는 휴가를 얻어 멀리 갔으니 만일 요새 죽는다면 집에 한 사람도 없어서 염하고 문을 일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 몹시 걱정이다.

13일. 지난밤에 큰 눈이 내려 거의 반 자에 이르고, 아침에도 오히려 개지 않다가 늦은 후에야 비로소 갰다. 종일 딸과 이야기했다. 전일 올 때 5승목 두 필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장에 함열 종 언수를 시켜 팔아다가 쌀 31두를 바꾸어 양산의 집에 두어두었다. 추후에 실어다가 내년 봄에 쌀값이 비쌀 때 다시 정목으로 바꾸어 쓸 작정이다. 저녁에 김경이 와서 같이 잤다. 자방의 사위 김랑이 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 마셨다.

14일. 한복을 도로 임천으로 보내어 모레 돌아오도록 일렀다. 나는 오늘 돌아가려 했더니, 김경·안사눌이 함께 임해사에 가서 두부를 해 먹자고 약속해서 내일 떠나기로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저녁에 김경과 임해사에 올라가 같이 절에서 잤는데, 안사눌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으니 괴상한 일이다.

15일. 이른 아침에 사눌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는 처족이 붙들어서 오지 못했다 한다. 김취백과 박장원이 뒤따라오고, 또 홍옥과(洪玉果) 요좌(堯佐)의 아우 요보(堯輔)를 불러서 모두 절방에 모여 두부를 먹었다. 김경과 사눌은 먼저 일어나서 품관(品官) 최극검의 집으로 갔다. 들으니 최(崔)의 집에 술이 있다고 해서이다. 김랑 및 박장원은 산 밑에서 매사냥을 하고 나만 홀로 고개를 넘어 돌아왔다. 집에서 온편지를 보니 어머님께서 편치 않으시다니 내일 한복이 오기를 기다려 즉시 돌아가야 하겠다. 또 들으니 별시(別試)는 불려서 행하기 때문에 과거 볼 사람들이 서울에 갔다가 도로 내려온다고 한다. 윤겸은 이 때문에 두 아우를 데리고 급히 올라간 것인데, 이제 들으니 내년으로 물려 행한다니 탄식스럽다. 저녁에 김랑과 걸어서 안사눌의 집으로 가서 김경을 청해다가 꿩을 구워서 같이 먹었다. 사눌이 중 산이를 시켜서 술을 가져오게 하여 각각 석 잔씩 마시고 파해 헤어지니 밤이 깊었다.

꿩은 김랑이 매사냥으로 잡은 것을 한 마리 가지고 온 것이다.

16일. 아노 춘복이 말을 가지고 태인 김랑의 친가에 갔으니 그 말이 필시 빈 말로 돌아오겠기에 아우를 모시고 오도록 이르고, 아우의 편지를 고쳐서 보내고, 전일에 보내지 못한 물건도 또한 보냈다. 또 오후에 임천집에서 대순을 시켜 편지를 보냈는데, 어젯밤 초경에 막정이 죽었다 하니 애통함을 이길 수 없다. 즉시 떠나서 남당에 이르니 마침 만조여서 쉽게 건널 수가 있어 집에 도착하니 날이 아직 어둡지 않았다. 어머님께서는 역시 요새 추위에 기침이 몹시 중하시어 식사가 아주 줄어 얼굴빛이 수척하시니 몹시 민망스럽다.

17일. 허찬을 시켜 한복을 거느리고 말 두 필을 빌려서 정목 반 필ㆍ쌀 3두를 가지 고 서면(西面)에 가서 관(棺)을 사오게 하고, 또 덕노를 시켜 벼 2두를 가지고 풀무 장이에게 가서 관에 쓸 못을 사오게 했다. 내일 막정을 매장하려는데, 종일 바람 불고 눈이 내리니 내일 새벽에도 만일 날이 개지 않고 몹시 추우면 옷이 얇아서 필 시 즐겨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일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심부름을 시켜 이 제 37년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곳 노비들에게 수공하는 일과 자식들 혼인 때 구 걸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조금도 지체하거나 태만하여 가일에 대지 못한 일이 없었으며, 내 처자가 난리에 도망 다니는 중에도 저를 의지하고 일을 맡겨 해 오더 니, 지난해 이후로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많고 조금만 불쾌하면 문득 도망할 생각을 하여 금년에는 더욱 심했다. 그 뒤에 제 아내 분개가 도망간 뒤로는 원망을 상전에게 돌리고 더욱 집안일을 돌아다보지 않으며, 명령을 좇지 않아 심지어 말 에게 꼴을 먹이는 일도 항상 돌아다보지 않고. 양식을 보자기에 싸서 자리 곁에 두 어두고 달아날 계획을 한 것이 하루에 생긴 일이 아니나 병으로 인해서 행보를 하 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 머물러 있던 것이다. 온 집안에서도 역시 오래 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열흘 후로는 병세가 몹시 중해서 마침내 죽 기에 이르렀으니 불쌍하다. 근래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비록 죽어도 아깝지 않지 만 전에 애쓴 일이 몹시 많았고, 또 타향에서 객사했으니 눈물을 금할 수 없다. 이 에 관을 준비하여 매장하고 술과 실과를 갖추어 제사 지내 주었다. 지난 계사년 가 을에 계집종 동을비가 여기에서 죽었고, 갑오(甲午) 겨울에 계집종 열금도 여기에 서 죽었으며, 이번에 막정도 또 여기에서 죽었으니, 3년 동안에 오래도록 집안에서 심부름하던 늙은 노비들이 모두 여기에서 죽어서 묻었으니 더욱 슬프고 탄식스럽다. 그러나 열금의 죽음은 지난해 12월 15일 새벽인데, 막정이 죽음도 또한 금년 12월 15일 초경이니 괴상한 일이다. 분개는 근본을 어지럽혀 비밀히 송노를 꾀어가지고 데리고 도망해서, 막정은 이 때문에 마음을 쓰다가 병이 나서 죽은 것이다.한 계집종이 집을 어지럽혀 두 종은 매를 맞고,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죽어서 집안에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니 더욱 몹시 분개가 뼈가 아프도록 밉다.

19일. 저녁내 눈이 내렸으나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녹아서 길이 몹시 질다. 언명이 오늘 떠나오려면 반드시 고생할 근심이 있으니 깊이 근심됨을 금할 수가 없다. 요새 덕노도 집에 없고, 집에는 연고가 있으며, 또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보니 나무가 떨어진 지 이미 오래여서 간신이 주워다가 조석 밥을 지을 뿐이다.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감기 증세가 있는데도 뜨거운 방에서 땀을 내시게 못하니 몹시 민망하다.

20일. 지난밤에 큰 눈이 한 자나 내렸다. 어머님 기후는 전에 비하면 좀 나으시나다만 식사가 전과 같지 못하니 민망하다. 땔나무가 없어 방을 따뜻하게 못 해드리니 더욱 민망하다.

21일. 오늘 밤에는 찬 기운이 몹시 더한데 방도 또한 몹시 차서 편안히 잘 수가 없다. 어머님께서도 이 때문에 해소가 전보다 더 심하시니 몹시 민망하다. 저녁에 언명이 왔다. 그저께는 눈이 내려서 떠나지 않으려 하다가 어머님께서 편안치 않으시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다고 한다. 서로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됨을 어찌 다 말하랴. 모두 어머님 방에 모여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또 행비를 아내(衙內)에 보내서 태수(서집(徐謂))에게 편지를 하여 새우젓과 누룩을 요구했더니 새우젓 3되와 누룩 2장을 보냈다. 이 누룩으로 세주(歲酒)를 담으련다. 깊이 감사하다. 태수의 실내(實內)가 또 연어 알 한 종지를 보냈으므로 즉시 익혀서 어머님께 드렸다. 이것은 새것이어서 어머님께서도 역시 이것으로 식사를 드시니 더욱 기쁨을 어찌다 말하랴. 함열 딸이 또한 꿩 한 마리・벽어 다섯 마리를 보냈으므로 즉시 구워서 어머님께 드렸다. 오늘은 곧 납일(臘日)이다. 말똥을 주워 모으게 했다. 또 전에 들

으니 별시(別試)를 물렸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들으니 물리지 않았다고 하니 전의 말은 헛말이었다.

22일. 대한(大寒)인데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다. 오늘이 곧 함열 딸의 생일이어서 집사람이 떡을 만들어 보냈다. 저녁때 함열 딸이 사람을 시켜서 이달치 양식 쌀 10 두 · 벼 2석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쌀 1두로는 생강을 사고, 벼 5두로 미역을 사고서, 그 나머지는 모두 가져왔다. 윤겸의 편지를 함열 관인이 내려올 때 가지고 왔다. 또 별시 방목(別試榜目)을 보니 윤겸 삼 형제가 모두 합격했고, 임경흠도 역시합격되어, 한집에서 네 사람이 모두 같은 방(榜)에 합격되었으니 이 위에 더할 수가 없다. 몹시 기쁨을 어찌 말하랴. 지난 19일 전시(殿試)는 그 후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괴롭게 기다려진다. 상판관(기손)이 와 보고 돌아갔다.

23일. 아침에 향비를 보내서 편지를 태수에게 전하고, 고동호초(古同戸草) 및 땔나무를 감해 달라고 청했더니 즉시 18결(結)을 감해서 첩(帖)을 만들어 보냈으니 근일에는 쓸 만하여 걱정이 없으니 기쁘다. 또 별시방(別試榜)을 상고해 보니 윤겸은 3등 제13, 윤함은 제21, 윤해는 제71이오, 윤함의 친구 조정호 · 홍명원도 모두높이 합격되어, 명원은 2등 제4이다. 홀로 양응락(梁應洛)이 떨어졌으니 애석하고한탄스럽다. 만일 아이들이 급제하려면 반드시 먼저 기쁜 증조가 있었을 것인데, 요새는 길몽이 없기에 생각하기에 모두 떨어진 것이라 했었다. 이번 방(榜)에 삼형제가 모두 합격한 것은 조도(趙瓙)의 아들 원범(元範) · 원규(元規) · 원방(元方) 및 우리 집 아이들뿐이다. 두 형제가 합격한 자는 심신겸의 아들 율(慄) · 이(怡)와 윤엄의 아들 민신(民信) · 민경(民敬)과 홍개의 아들 대성(大成) · 덕성(德成)과 남호(南琥)의 아들 이신(以信) · 이영(以英)과 원필상의 아들 혁(湙) · 섭(涉)과 윤민신의 아들 철(瞮) · 구(昫)뿐이다.

24일. 이복령이 종과 말을 보내서 나를 청하기에 즉시 달려가서 아이들의 급제한일에 대한 길흉을 점쳤더니 하는 말이 모호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윤함의 점 괘가 가장 길하다고 한다. 종일 바둑을 두다가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 그 집에서나에게 저녁밥을 대접한다. 저녁에 덕노가 함열에서 돌아왔는데, 전일 사 둔 목미 (木未) 24두 및 미역 11동을 실어 왔다. 양윤근이 또한 벽어 10마리·조기젓 5개를

보냈다. 섣달그믐이 이미 박두했는데 집에는 반찬거리가 없어, 제사 지내고 어머님께 드릴 것을 마련할 길이 없고, 함열태수도 역시 서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탄식한들 무엇하랴.

25일. 날이 밝기 전에 지진을 해서 집이 흔들렸다. 하늘이 재앙을 뉘우치지 않아 변괴가 계속해 일어나니 알지 못하거니와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듣건대 흉적은 아직도 바다를 건너갈 마음이 없고, 두 중국 사신은 적의 진영에 묵고 있어 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마치 구속당해 있는 것과 같아, 그들의 간사한 꾀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또 들으니 하동 사람 강사준이 포로로 잡혀 일본에 머물러 있는 데 편지를 하기를, 내년 봄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새 로 군기를 두드려 만드는데,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인심이 놀라 고 동요해서 모두 피란 갈 생각만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나같이 종도 없고 말도 없 고, 또 피해서 갈 곳도 없는 사람은 만일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면 반드시 구렁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비록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다만 살아 있을 때 편안치 못함을 한타함 뿐이다.

26일. 식사 후에 아우 및 인아와 함께 걸어서 향교 가서 훈도 조의를 찾아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마침 중도에 성민복을 만나 길가에 앉아 이야기하는데, 성 공(成公)이 마침 강사준의 편지를 얻었다고 내보이기에 아우와 함께 한번 보았더니, 내년 봄이 군사를 일으키는데 길(吉)한 해여서 군사를 크게 내어 길게 몰아 대명(大明)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 속의 말이 확실치 않은 곳이 많으니 믿을 것이 못 된다. 오늘 장에 닭 세 마리를 내다 팔아서 쌀 1두 5되씩 도합 4두 5되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숯 한 섬과 사기 그릇 갖가지 한 죽씩을 사 왔다. 저녁에 함열태수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잤다. 그에게 들으니 전시(殿試)는 28일로 물려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재(武才)를 그 기한에 다 시험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윤겸 삼 형제는 아직 서울 광노의 집에 머무른단다.

27일. 아침에 함열태수가 이복령을 청해다가 딸의 아기 낳는 일에 대한 길흉을 점치게 했더니, 크게 길하고 귀한 남자를 얻는다고 한다. 또 세 아이의 과거에 급제한 일에 대한 길흉을 점치게 했더니, 또한 말하기를 윤겸이 크게 길하고 윤함이 그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다음이라고 한다. 함열태수는 인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복령과 종일 바둑을 두는데 수제비를 만들어 대접했다. 소즐도 또한 와서 함열태수를 만나려 했으나 미치지 못했고, 저녁밥을 대접해 보냈다.

28일. 덕노를 함열에 보내서 과세할 물건을 얻어 오게 했다. 어제저녁에 송인수(송영구)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서 생강 및 콩 한 두를 보냈으니 깊이 감사하다. 아침에 집주인 최인복이 와 보기에 술 두 대접을 대접해 보냈다.

29일. 어제저녁에 두부 만들 일로 계집종 옥춘(玉春)을 시켜 콩을 가지고 성민복의 서당에 보냈더니 중들이 비단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공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하니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아침 전에 사람을 보내서 결박하여 족장을 때리려 했으나 남의 말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대로 돌려보냈다. 즉시 향비를 시켜 편지로 그내용을 태수(서집)에게 말했더니 즉시 패자(牌字)를 내어 잡아 오게 했으나 향비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대로 그 패자(牌字)를 가지고 오니 해가 이미 저물어서 미처 잡아 가두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저녁에 덕노가 돌아왔는데, 전일 두어두었던 벼 1석 및 함열에서 주는 백미 1두ㆍ찹쌀 1두ㆍ목미(木米) 5되ㆍ콩 2두ㆍ조기 3묶음ㆍ마른 은어 2두름ㆍ새우젓 5되ㆍ누룩 5장ㆍ간장 2두ㆍ동우심(童牛心) 1짝ㆍ쇠고기 2덩어리ㆍ청주 1병ㆍ참기름 5흡을 싣고 왔다.

지은이 소개 | 오희문 吳希文 (1539~1613)

본관 해주(海州), 호 비연(斐然). 1591년 충청도와 전라도를 여행하다가 이듬해 장수현(長水縣)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약 3개월 동안 산속에서 난을 피했으며, 겨울에 강원도로 피란하였던 가족들과 만나 홍주(洪州), 임천(林川) 등지를 옮겨 다니며 겪은 일을 일기로 남긴 것이 보물 제1096호인 (쇄미록)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장수·예산·임천 등지에서 살았고, 1596년에는 아들 오윤겸이 수령으로 있는 평안도 평강(平康)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601년 유랑 생활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와 살았다. 관직 생활은 하지 못하였으나, 오윤겸이 인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으므로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옮긴이 소개 | 이민수 李民樹

충남 예산 출생.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집필위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위원, 사서연역회 편집위원 역임. 저서로 (학계 선생 약전) (윤봉길 의사 약전) 등이 있고, 역서로는 (삼국유사) (격몽요결) (징비록) (동의수세보원) (연려실기술) (당의통략) (연암선집) (효경) (순오지) (공자가어) (주역) 외 다수가 있다.

쇄미록1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5년 11월 1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김화란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